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2019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학술연구 자료집 I

(I.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2019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학술연구 자료집 I

(I.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일러두기

1. 이 책은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의 **2021**년도 세계유산 홍보지원 (한국의 서원) 국고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국제학술포럼의 성과물 중 하나로 만들어졌습니다.
2. 이 책은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 가치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된 학술회의와 워크숍 등에서 축적된 모든 자료를 주제별(Ⅰ.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Ⅱ. 서원의 보호 및 활용)로 재구성하여 새롭게 발간하였습니다.
3. 이 책과 관련한 사항은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02-3673-5443)

목차

1장.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1.a 유학교육시설의 세계유산 가치	006
세계유산과 교육문화유산	006
교육기관의 세계유산적 가치	010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서원의 가치와 활용 원칙	014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의미와 과제	019
타문화권에서 바라본 세계유산 한국 서원의 가치	026
한국 서원의 지속가능한 발전	033
세계유산 등재기준으로 본 한국의 서원	041
연속 세계유산의 보전 상태 관리	046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의 성과와 과제	058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등재 이후의 과제 총평	070
1.b 완전성과 진정성 서원의 기능	075
1.b.1 제향	075
한국서원 유·무형유산의 특징	075
서원 제례 조사연구 개황: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085
한국서원의 제향의례	095
서원제향(書院祭享)의 현대적(現代的) 계승(繼承)과 과제(課題)	110
1.b.2 강화	119
한국의 전통시대 교육공간의 구성 원리	119
승지(勝地)에 있어서의 군거이업(群居肄業)-이퇴계가 창설한 서원의 장소	129
서원 기록자료 정리의 현황과 과제	140
서원의 기문 및 금석·석각 자료의 정리 현황과 과제	152
서원자료의 보존 관리, 활용방향	163
서원 강화 관련 자료의 유형과 특징	178

목차

19세기 서원 강학활동 사례연구: 『호계강록』을 중심으로	218
서원 현판류(기문) 자료의 기록문화적 가치	242
서원 현판류(제영) 자료의 문학사적 가치	253
9개 서원 현판자료의 정리 현황과 과제	294
서원 교육	386
도산서원의 교육과 활용사례	393
평생학습사회에서 서원의 교육프로그램 주제	403
한국의 전통적 교육공간, 서원의 인문적 가치	429
서원의 교육환경	437
서원의 인성교육	464
1.b.3 교류와 유식	477
한국의 서원과 주변경관	477
조선시대 지방정치와 문화의 핵심 기지로서의 서원	493
서원 당호 현판의 교학적 의미	495
1.c 비교연구	512
동아시아의 서원: 빛나는 교육 전통	512
근세 이전 그리스도교의 교육과 교육시설의 역사와 가치	521
이슬람 문화권의 메데레스(Madrese) 교육과 유산으로서의 가치	549
배움의 고향, 시즈타니학교(閑谷學校)	557
조선시대 한국 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	567
전통교육기관의 문화유산적 가치 : 콜로기움과 서원을 중심으로	583
중세유럽의 교육유산 : 수도원학교에서 대학교까지	592
이슬람 전통 교육기관 마드라사의 탄생과 역할	598
일본의 근세 교육과 문화유산	607
베트남 유교의 보전 및 진흥	616
불교를 중심으로 한 인도문화권의 교육유산	623
한국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	627

1장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1장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1.a 유학 교육시설의 세계유산 가치

세계유산과 교육문화유산

매년 4월 18일은 이코모스가 정한 ‘국제기념물유적의 날(the International Day for Monuments and Sites)’이다.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는 다양한 유산들을 전세계에 알리자는 취지에서 국제기념물유적의 날을 제정하자는 의견이 1982년 이코모스 튀니지아위원회가 주최한 한 symposium에서 4월 18일 발의되었고 곧이어 하마메트에서 개최된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이 논의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국 위원회에 통고되어 4월 18일을 기념하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바로 다음 해인 1983년 11월 제 22차 개최된 유네스코 총회에서 각 국가에서 매년 4월 18일을 국제기념물유적의 날로 지정하여 축하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많은 국가나 지역별로 이미 ‘문화유산의 날’을 제정하여 기념하고 있었다. 특히 유럽에서는 ‘유럽 유산의 날’을 지정하여 매년 9월에 행사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모든 이코모스 국가위원회에는 ‘국제기념물유적의 날’을 꼭 4월 18일이 아닌 그 국가 또는 지역에서 정한 유산의 날에 기념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었다.

그러나 2001년 당시 이코모스의 회장이었던 Michael Patzet에 의해 국제기념물유적의 날은 다시 4월 18일로 부활하자고 주장되었고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각국위원회에 권고되었다. 이러한 국제기념물유적의 날의 부활은 각국위원회에서 ‘없어져가는 문화유산’에 관심을 갖고 연간 ‘Heritage at Risk’ 보고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주목적 이었다.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와 개개인으로 하여금 그들의 삶속에서, 그들의 정체성에,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문화유

산의 다양성과 취약점을 인식하고 유산의 보호와 보존에 노력을 기울이자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코모스가 해야 할 일이고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코모스의 노력은 2001년 이후 지속되었고, 이에 참가하는 국가위원회와 ICOMOS 학술위원회 뿐만 아니라 이코모스에 속하지는 않지만 문화유산과 관련이 있는 단체들에서도 함께 4월 18일을 기념하고 있고 그 숫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01년 이후 이코모스가 정해서 기념하고 있는 문화유산의 주제는 표 1과 같다.

표 1. 국제기념물유적의 날 주제(2001-2012)

년도	주제	년도	주제
2001	우리의 역사마을을 구하자	2007	문화경관과 자연 기념물
2002	20세기 문화유산	2008	종교유산과 성소
2003	수중문화유산	2009	과학유산
2004	흙건축과 유산	2010	농업유산
2005	ICOMOS 40주년 기념	2011	물의 문화유산
2006	산업유산	2012	세계유산

전 세계에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역사마을을 보존하고 계승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남아있을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2001년 4월 18일의 기념하기 위한 주제였다. 국제기념물유적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역사마을을 방문하고 그 지역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며 이를 완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것 등을 권고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역사마을을 보존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글을 신문이나 잡지에 투고하거나 TV나 라디오에 출연하는 등 미디어를 이용하는 방법, 공공을 위해 역사마을을 비롯한 공공의 장소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현수막을 걸거나 각 기관에서 이에 관한 회의를 주도하고, 국내 또는 국제적인 역사마을 보존에 관한 사업을 설명하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더구나 어린이나 젊은 층에게 역사마을 보존의 당위성과 방법 등에 관한 강의 등을 하는 것까지 권고하였다.

2002년에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유산이라고 간주하지 않고 있어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또는 전쟁, 그리고 지속가능한 유산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라져 버리는 20세기에 건설된 문화유산이 국제기념물유적의 날에 기념해야 할 주제로 등장하였다. 특히 21세기 바로 전세기의 유산을 보존하고 보호하자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2003년은 수중문화유산을 주제로 하여 바다 밑에 잠겨있는 유산에 대한 보존 보호에 대한 인식을 하도록 하였으며 2004년은 특정지역에 지역성을 대표하는 유산의 하나인 흙건축이 주제가 되었다. 석조, 목조건축이 동·서양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다고 한다면 흙이 주요 건축자재가 되어 만들어진 건물들은 특정지역의 토속건축물로서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05년은 이코모스가 창립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로서 특정 유산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이코모스 창립의 목적과 활동을 기리는 것이 주제였다. 2006년은 산업유산을 주제로 하여 현대산업이 발달하면서 형성되었

던 초창기 산업유산의 보존에 관한 내용이 대상이었다. **2007년**은 유산이 위치하는 주변경관과의 관계성을 초점을 맞추는 문화경관과 자연기념물을 주제로 하였다.

2008년의 주제는 종교유산과 성소로서 인간의 삶과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는 다양한 종교 유산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민속신앙에서 전 세계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일반종교까지 모두 그 대상이 되었다. **2009년**은 과학유산으로서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형성된 유산이 대상이었다. **2010년**에는 농업유산이 **2011년**에는 물의 유산이 주제로 선정되어 기념되었다. 특히 **2011년**에는 최근 물에 대한 소중함이 등장하면서 유네스코에서도 대대적으로 참여하여 전 세계가 이를 기념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2012년은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이 제정된 지 **40주년**이 되어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1년간** 전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도 이를 기념하는 국제회의가 부여에서 **2012년 9월**에 개최되었었다. 따라서 이 해에는 **4월18일**을 전후해서 개최된 기념행사뿐만 아니라 **1년간** 지속적으로 전 세계에서 기념행사가 이루어졌다.

이코모스가 정한 **2013년도**의 국제기념물유적의 날을 기념하는 주제는 ‘교육유산(Heritage of Education)’이다. 교육이란 한 집단의 사람들이 지식, 기술, 관습 등을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교수, 훈련, 연구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은 믿음과 가치를 전승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미래를 기획하는 하나의 주요한 수단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교육은 한 세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존되고 보호되어야 할 유산인 것이다.

다양한 지리문화적 배경과 역사 속에서 교육은 다양한 유형으로 지속되어 왔다. 공공의 장소, 열린 공간 등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대학, 서원 등 특별한 기관의 건물에서 교육이 이루어졌고 그러한 유형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교육유산의 보호와 보존은 문화재로서의 보존과 기본적인 인간의 의무의 하나인 교육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간주된다.

올해의 주제인 교육은 전 세계의 문화다양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틀로서 이해하며 기념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세계유산은 유형의 유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유형의 유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유형의 유산은 무형의 유산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교육은 대표적인 사례로 간주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세기** 말부터 현대적 교육제도의 도입으로 현재와 같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전에는 국가교육기관인 성균관을 비롯하여 서원, 서당 등 지역 또는 개인별 학습기관이 존재하였었다. 특히 조선시대를 통해 형성된 이러한 교육기관들은 현재에도 존재하며 비록 조선시대 당시와 같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으나 아직도 우리의 정신세계를 이끌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러한 유형의 유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베트남 등지에도 분포한다. 서양에서는 고대 그리스의 교육기관부터 유럽의 중세시대 대학들, 그리고 서양의 지식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이집트의 교육기관들까지 다양하다.

현재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교육관련 문화유산은 많지는 않다. 대부분이 기념물로 간주되는 건물이나 캠퍼스, 교육의 장이었던 장소, 또는 역사마을에 속하여 있는 교육적 건물이나 기관들이다. 교육유산이라고 간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건물의 독특성 때문에 대학의 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대체로 20세기 근대유산이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교육관련 유산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독일의 바우하우스와 바이마르·데사우의 바우하우스 유적, 하이델베르크성과 옛 마을, 스페인의 알칼라 데 에나레스 대학과 역사지구, 베네주엘라의 카라카스 대학건축물, 멕시코의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 중앙대학도시 캠퍼스, 한국의 역사마을에 포함된 서원 등이 있다. 또한 많은 유산들 예를 들면 한국의 서원, 벨기에의 루이벤 대학건물, 포르투갈의 코임브라대학 등이 잠정목록에 등록되어 있다.

세계유산으로서의 교육문화유산은 교육의 현장이 되는 건축물이나 캠퍼스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무형의 교육정신까지도 중요한 유산이라 간주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무형의 유산을 제외한 건축물만인 유형의 유산은 교육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없으며 단지 건축기법, 디자인 또는 건물의 독특성만으로 유형의 유산으로 간주될 뿐이다.

교육기관들의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

본 문서에 제시된 의견 및 질문들은 저자의 개인적인 사견으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공식적인 입장을 반영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본 문서상의 내용은 전문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세계유산목록(World Heritage List) 등재 신청에 대한 평가는 표면적으로는 매우 단순한 질문, 즉, ‘이 유산이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느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 유산 또는 자연 유산인가?’에 대한 답변이라 할 수 있다.

해당 유산이 가진 잠재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10대 세계유산 등재기준들(Ten World Heritage Criteria) 중 한 개 이상을 충족시킨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현재 세계유산 등재기준 (i)부터 (vi)까지는 문화유산과 관련된 기준으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에 의해 평가되고 있다.

본 문서에는 교육 유산의 가치를 살펴보기 위한 여섯 가지의 사례 연구가 제시되고 있다. 아래에 제시된 유산 중 4개의 유산은 현재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어 있고, 2개의 유산에 대한 등재 신청은 ICOMOS의 의해 평가되었으며, 2개의 유산은 자국의 잠정목록(Tentative List)에 등재되어 있는 상태이다:

- 독일의 바우하우스와 바이마르 및 데사우의 바우하우스 유적(The Bauhaus and its sites in Weimar and Dessau)

세계유산 등재기준(ii), (iv), (vi)에 근거하여 1996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음. 회원국(독일)은 등재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음.

-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 대학 건축물(Ciudad Universitaria de Caracas) 세계유산 등재기준 (i) 와 (iv) 에 근거하여 2000년에 등재되었음.

세계유산 등재기준 (i), (ii), (iv) 에 근거하여 회원국(베네수엘라)에 의해 등재 신청되었음.

- 멕시코의 멕시코국립자치대학교 중앙대학 도시캠퍼스(Central University City Campus of the Universidad Nacional Autonoma de Mexico)

세계유산 등재기준 (i), (ii), (iv) 에 근거하여 2007년에 등재되었음. 세계유산 등재기준 (ii), (iv), (vi) 에 근거하여 등재 신청되었음.

-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Hahoe and Yangdong) 세계유산 등재기준(iii)과 (iv)에 근거하여 2010년에 등재되었음. 세계유산 등재기준 (iii)과 (iv)에 근거하여 등재 신청되었음.

-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성과 올드타운(Heidelberg Castle and Old Town) 2004년과 2007년 ICOMOS에 의해 평가되었음.

세계유산 등재기준 (ii), (iii), (iv)와 (vi)에 근거하여 등재 신청되었음.

- 인도의 산티니케탄(Santiniketan) 2010년 ICOMOS에 의해 평가되었음.

세계유산협약(World Heritage Convention)의 기준 (ii),(iii),(vi)에 근거하여 등재 신청되었음 무형유산협약(Intangible Heritage Convention)의 기준에 근거하여 등재 신청되었음.

- 벨기에 루벤의 대학 건축물들(Leuven, university buildings)

세계유산 등재기준 (ii), (iii), (iv), (vi)에 근거하여 2002년 잠정목록에 등재되었음.

- 포르투갈의 코임브라 대학(Coimbra university)

세계유산 등재기준 (ii), (iv), (vi)에 근거하여 2004년 잠정목록에 등재되었음.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유산들이 그 기능과 건축시기, 디자인, 규모 및 지리적 분산도 측면에서 매우 큰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유산들 중에는 한 사람이 건축의 원동력이나 시조의 역할을 한 사례도 있고, 60명 이상의 건축가와 예술가들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낸 유산도 있으며, 건축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일부 존재한다. 20세기 건축물도 상당 수 존재하지만, 600년의 긴 역사를 가진 유산도 포함되어 있다. 일부 유산들은 건축물의 집합체이지만, 아예 한 마을이 유산으로 등재된 경우도 있고, 두 개의 마을을 연속 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 교육은 보편적인 개념이지만, 그에 대한 대응은 매우 달랐다.

본 문서에 제시된 유산들은 모두 교육과의 연계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본 문서의 후반부에 제시되고 있듯, 이 유산들은 교육적 가치보다는 다른 가치들에 대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은 경우가 많았다. 이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수많은 다른 유산들도 마찬가지다. 즉, 세계유산들 중에는 수많은 교육 건축물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 가장 확실한 교육 유산들은 유서 깊은 마을과 종교 건축물 및 단지들이었지만, 그러한 유산들에 대한 등재 신청 및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항상 교육적 연계성이 명백하게 부각된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격차 보고서(Gap Report)’에 의하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유산들만이 교육과 명백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으며, 그들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선정된 사례들을 통해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여섯 가지 등재 기준을 알림으로써, 이번 회의에서 성과 있는 토론을 창출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 발표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즉, 이번 발표 내용은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라, 교육 건축물들의 중요성과 그러한 유산들의 가치를 세계유산목록에서 인정받는 것에 대한 더 많은 사고를 이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초대라 할 수 있다.

여섯 가지의 세계유산 등재기준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고려되고 있다.

기준 (i): 사람의 창조적 천재성이 만들어낸 걸작품을 대표하는가

다시 말해, 이 기준은 한 문화 안에서 진화되어 온 탁월한 양식을 보여주는 사례(예: 피크 또는 랜드마크 등)로, 매우 지적이거나 상징성이 높은 유산과 높은 수준의 예술적, 전문적 또는 기술적 역량을 갖춘 유산과 관련되어 있다. 세계유산목록은 사람에 대한 리스트가 아닌 유산에 대한 리스트이다. 따라서 세계유산목록은 천재들이 아닌 그들의 걸작품들을 등재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한 천재 건축가의 여러 작품들을 한꺼번에 등재하지도 않고 있다.

제시된 사례 중에서는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 대학(Caracas University)만이 이 기준에 근거하여 등재 신청되었다. 하지만 ICOMOS의 권고에 따라, 멕시코의 대학도시(University City of Mexico) 또한 이 기준에 근거하여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었다.

기준 (ii): 오랜 시간 동안 또는 세계의 어떤 문화지역 안에서 일어난 건축,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 계획 또는 조경 설계의 발전에 관한 인간적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보여주고 있는가

이 기준에서 핵심이 되는 문구는 '인간적 가치의 교류(interchange of human values)'이다. ICOMOS가 평가하는 것은 해당 유산의 물리적 자산이 아이디어의 교류와 연관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다. 그 유산 자체가 그러한 교류를 촉진시켰을 수도 있고, 그 유산이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아이디어나 개념이 구현된 것일 수도 있으며, 아이디어에 대한 양방향 교류가 존재했을 수도 있다.

이 기준은 독일의 바우하우스(Bauhaus)와 멕시코의 대학도시(University City of Mexico)에 대해 적용되었는데, 바우하우스의 경우는 이 기준이 명백하게 적용되었고, 멕시코의 대학 도시는 전세계의 20세기, 그리고 멕시코에서 기원한 건축학적 사고가 집중된 곳이기 때 문에 이 기준이 적용되었다. 카라카스 대학(Caracas University) 또한 이 기준을 근거로 등재 신청이 이루어졌지만, ICOMOS에서는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준 (iii): 문화적 전통 또는 살아 있거나 소멸된 문명에 관하여 유일하거나 적어도 예외 적인 증거를 보유하고 있는가

기준 (ii)와는 대조적으로, 이 기준은 과정들, 즉, 대개 오랜 시간에 걸쳐 하나의 지리문화적 지역 내에서 생활방식 또는 문명을 정의해 온 문화적 전통들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한 전통들은 여전히 살아 있고 활성화되어 있을 수도 있고, 완전히 소멸되어 기념물들을 통해 증명할 수 밖에 없는 것들도 있다. 이 기준의 핵심 문구는 '예외적인 증거 (exceptional testimony)'이다.

위의 사례들 중, 이 기준에 근거하여 등재 신청 및 등재가 이루어진 유산은 한국의 전통 마을들(Korean villages) 뿐이었다.

기준 (iv):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들)을 잘 보여주는 건축 양식, 또는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양상블), 또는 경관의 탁월한 사례인가

이 기준은 탁월한 유형학적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 즉, 이 기준의 본질은 해당 유산이 인류 역사의 결정적 순간(들) 또는 중요한 단계(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준은 교육 유산에 대한 등재 신청이 이루어질 때 가장 빈번하게 그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제시된 사례 중에서는 산티니케탄(Santiniketan)을 제외한 모든 유산들이 이 기준 하에 등재 신청되었거나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산티니케탄은 유형학의 기준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변칙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기준 (v): 한 문화(또는 여러 문화)를 대표하는 전통적인 인간 정주지, 토지 또는 해양 이용의 탁월한 사례로서, 특히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충격에 대해 취약하게 된 사례인가

이 기준의 핵심 개념은 '전통적인 인간 정주지, 토지 또는 해양 이용'이다. 전통적인 정주지들은 도시 형태일 수도 있고 농촌 형태일 수도 있다.

이 기준은 여기에 예시된 사례들에 대해서는 거의 해당되지 않으며, 한국의 전통 마을들 (Korean villages) 만이 이 기준 하에 등재 신청되었다.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인간 정주지 또는 환경과의 상호 작용이 어떤 방식으로든 탁월성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ICOMOS는 등재 신청된 범위 내의 두 마을이 두 마을과 그들이 가진 경관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기준 (vi):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을 보유한 사건 또는 살아있는 전통, 사상, 신념, 예술적·문화적 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되어 있는가 (위원회는 이 기준이 다른 기준들과 함께 사용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위의 사례들 중 카라카스 대학(Caracas University)을 제외한 모든 교육유산의 등재 신청에 대한 근거로서 이 기준이 제시되었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인정받은 곳은 바우하우스(Bauhaus)뿐이다.

교육 기관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생각할 때는 연대적 가치라는 좀 더 포괄적인 특성을 생각하게 된다. 위대한 교육기관은 그것을 창시한 사람과 강력한 연계정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즉, 위대한 교육기관은 많은 측면에서 훌륭한 건축물들을 물려주는 기증자들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문화유산에 대한 등재 신청의 초점이 해당 유산의 교육적 목적보다는 창시자 또는 건축물 자체에 모아질 수 있다.

일부 교육기관들은 그들의 건물에 반영되어 있을 수 있는 한 개 이상의 주요 '발견물'로 인해 위대한 것일 수도 있고, 천문항용 구조물들과 같이 특별한 학습적 특성으로 인해 위대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축적된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서 위대해진 교육 유산들도 존재하지만, 결국 세계유산협약(World Heritage Convention)이 장소에 기반하여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축물 및 건축물들의 총체와 연관 짓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이델베르크(Heidelberg)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이 가진 전통의 의미를 강조하도록 장려되었지만, 이러한 논거는 수정된 등재 신청에서 깊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대학 마을인 루벤(Leuven)과 코임브라(Coimbra), 그리고 기타 일부 장소들은 그들의 오래된 유럽대학 마을들에 대한 연속적인 등재 신청을 고려하고 있으나, 세계유산목록 등재가 향후 그들의 개발작업을 억제하게 될 것을 약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COMOS는 올 후반에 '유산, 개발의 원동력! (Heritage, Driver of Development!)'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총회 심포지엄을 통해 이 모순적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 간단한 개요는 세계유산 등재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비범이나 지름길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즉, 등재 기준들은 유산 자체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다. 등재 신청을 준비할 때 주어지는 일반적인 충고는 여러 개의 기준들을 적용시키려 하지 말고, 가장 관련성 있는 기준을 선택하라는 것이다.

이 간단한 개요는 교육 건축물들의 중요성과 그러한 유산들이 세계유산시스템 내에서 인정받는 가치와 관련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사실 또한 보여주고 있다. 이번 회의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서원의 가치와 활용 원칙

문화재청과 ‘한국의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단’은 한국의 9개 서원(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 위한 제반 준비를 하고 있다.

2015년 1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 예정인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등재신청서’와 첨부 자료의 내용이 세계유산협약과 운영지침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의 서원’은 2016년 6월 말 경 개최되는 제40차 세계유산위원회에 상정되어 세계유산목록 등재 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게 된다.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은 등재된 유산의 보호와 관리는 물론이고, 활용에 대한 중요성과 유의점을 강조하고 있다. 운영지침 제119항은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의 ‘지속가능한 활용(sustainable use)’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유산이 ‘생태학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지속가능(ecologically and culturally sustainable)’하고, ‘유관 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으면(contribute to the quality of life of communities concerned)’ 그 유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언급하는 ‘지속가능’이란 해당 유산이 현 세대에게는 물론이고 다음 세대에게도 생태 및 문화적 관점에서 그 특성이 유지, 보존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이유로, 운영지침은 유산의 활용이나 용도 변경은 등재된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늘날 문화유산의 활용에 관한 필요성은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하지만, 세계유산에 등재된 유산을 활용할 경우 그 유산은, 운영지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시켜서는 안 될 것이며, 활용의 내용이나 프로그램도 ‘생태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동시에 ‘지역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발표자는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을 경우 어떤 원칙하에 활용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활용에 대한 논의는 해당 유산의 세계유산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발표자는 먼저 ‘한국의 서원’이 운영지침에서 제시하는 등재기준 중에서 (ii), (iii), (iv), (vi)항에 대해 충족시키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ii) exhibit an important interchange of human values, over a span of time or within a cultural area of the world, on developments in architecture or technology, monumental arts, town-planning or landscape design; (인류의 가치가 교류된 것임을 보여주는 건축이나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계획이나 조경설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났거나 세계의 특정 문화권에서 일어난 것 이어야 한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중국의 주희가 집대성한 성리학이 조선사회에 정착하고, 꽃을 피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조선시대의 사림은 서원에서 성리학을 학습하면서 정착시켰을 뿐 아니라, 중국, 일본과 다른 조선의 성리학을 발전시켰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사림 교육기관을 대표하는 시설로서, 중세 동아시아의 중요한 사상 중의 하나인 성리학이 조선에 전래되어 조선 사회에 정착하여, 조선의 성리학이 형성되게 한 산실이였다. 조선시대의 서원에 나타난 건축과 자연과의 조화, 절제되고 검박한 형식의 건축미 등은 성리학이 지향하는 세계관, 장수(藏修) 학습, 한국인의 자연관이 상호 작용하여 형성된 결과물이다. 현존하는 600여 개의 한국의 서원 중에서, 세계유산목록 등재 신청을 하는 9개 서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iii) bear a unique or at least exceptional testimony to a cultural tradition or to a civilization which is living or which has disappeared; (문화적 전통, 또는 현존하거나 소멸된 문명과 관계되면서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를 지니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백운동서원(건립 후 소수서원으로 사액 받음)이 창건된 이후 400여 년에 이르는 역사를 통해 조선 사회에 정착되면서 중국과 다른 한국의 서원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양반 사림의 전인(全人) 교육을 맡은 학교였다는 점, 전인 교육을 통해 양성된 사림의 활동 근거지였다는 점, 문중(門中) 내지 동성(同姓) 집단 내부의 결속을 강화시켜주는 기반이였다는 점, 지방문화센터로서의 구실을 하였다는 점, 공론(公論) 형성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는 점, 주변 자연과 천인합일할 수 있는 산수경관을 갖춘 곳에 건립되었다는 점에서 특징을 갖는다. 서원이 절제되고 단아한 모습으로 조영되어 자연과 하나가 되는 건축공간을 형성한 것은 성리학적 가치관, 세계관, 자연관이 반영된 물리적 표상(表象)의 증거가 된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의 서원은 성리학이 지향하는 자연관과 문화 전통이 반영된 교육유산의 특출한 전형을 보여준다. 한국에는 현재 600여 개의 서원들이 있으며, 그 중에서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하는 9개 서원들은 이러한 증거를 가장 대표적으로 잘 보여준다.

(iv) be an outstanding example of a type of building, architectural or technological ensemble or landscape which illustrates (a) significant stage(s) in human history;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들)을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가 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건조물,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이거나 경관이여야 한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유식(遊息)공간, 강학(講學)공간, 제향(祭享)공간으로 구성되어 사람들이 장수(藏修)하는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서원 건립을 주도한 사람들은 서원 주위의 산수 경관과 건축이 합일할 수 있도록 경사진 자연 지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서원 공간을 조성하였다, 천인합일을 최고의 이상으로 삼는 사람들의 자연관은 서원이 주변 경관이 좋은 곳에 자리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하는 9개 서원들은 각 서원이 자리한 입지 조건에 따라 계경(溪景) 입지, 산경(山景) 입지, 강경(江景) 입지, 야경(野景) 입지로 구분되는 서원 입지와 경관의 유형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곳에 자리한 서원은 건축과 자연이 하나로 어우러지도록 유식공간, 강학공간, 제향공간이라는 독특한 건축 공간형식과 배치 유형으로 조영(造營)되어 사람들이 서원에서 천인합일을 일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서원의 입지 및 공간구성, 건물 배치가 주변의 자연 경관과 강한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서원 주변 자연 경관은 건축과 하나의 전체를 이루며 그 장소의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런 측면에서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하는 9개 서원들은 주변 자연 경관과 건축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아야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는 특별한 건축 유형에 속한다.

(vi) be directly or tangibly associated with events or living traditions, with ideas, or with beliefs, with artistic and literary works of outstanding universal significance. (탁월한 보편적 의의를 지닌 사건 또는 살아 있는 전통, 사상, 또는 신앙, 예술·문학 작품과 직접적으로 또는 가시적으로 연계된 유산이어야 한다.)

서원은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의 사상과 활동의 보고(寶庫)이다. 서원은 지방 문화와 교화의 중심 시설로서 이와 관계되는 많은 문집과 문헌을 남겼으며, 서적과 판본을 생산·유통·확산시키는 출판 및 도서관의 기능도 수행했다. 서원은 장수(藏修)를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그 정신적인 가치와 기능 못지않게 많은 기록물을 소장하는 지식의 창고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서원에 남아있는 고서(古書), 고문서(古文書), 목판(木板) 등은 당시의 서원 관리와 지적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며, 서원에 보관된 제향 물품과 수량을 기록한 문서는 옛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게 한다. 특히 서원의 장서(藏書) 제도 및 출판문화는 책의 보급과 열람이 어려웠던 시대에 지식 확산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서원이 지방문화센터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서원은 유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예(禮)가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의례화 된 곳이다. 한국의 서원은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인물 ‘제향(祭享)’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서원의 제향은 돌아가신 스승이나 위대한 인물을 추모하는 의식이다. 숭유(崇儒)정책을 표방하던 조선시대의 서원은 사우에 모셔진 선현의 학덕으로 그 지방의 풍속(風俗)과 예속(禮俗)의 교화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제향 의식을 통해 제자나 후손들은 그들의 정신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할 뿐만 아니라, 그들 서로 간에 결속을 다지는 기회로 삼았다. 제향 의례를 통하여 선현의 학덕과 행의를 추앙하고, 예를 중요시 하는 유교의 정신과 문화를 널리 확산, 정착시키는 사회교육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경서(經書)의 강학과 선현의 제향을 통한 교육 이외에도, 해당 지역의 지성사적 전통과 정신문화적 유서가 서려있는 역사의 현장이자 사람들의 활동무대였다. 서원은 도서출판·문화예술 등 각종 사회 교화 활동이 펼쳐졌던 곳이다. 특히 역사적 의미가 깊은 향약과 향음주례가 행해진 곳, 의병의 격문과 정치적 사회 현안에 대한 사람들의 연명 상소가 작성된 곳, 다양하고 격렬한 학문 토론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서원이었다. 이는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문화이자 복합적인 가치로서, 서원에는 이러한 유교문화가 지닌 본질이 남아있다.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하는 9개 서원들은 이러한 한국 서원의 특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이상 언급한 등재기준에 근거하여, ‘한국의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세계유산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된다.

-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의 철학과 정신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대표적인 유산이다.
- 한국의 서원은 동아시아의 성리학이 교류한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이다.
-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과 관련된 교육과 활동이 지금도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특출한 사례이다.
-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한 한국의 9개 서원은 성리학이 반영되어 형성된 건축과 경관이 양상불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이다.

-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성리학에 기반을 둔 의례, 사상, 전통과 유형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서원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면서 지금도 잘 보존되어 서원의 완전성을 구비하고 있다.
- 한국의 서원은 공간구성, 건물배치, 경관, 디자인, 전망 등의 관점에서 진정성을 잘 구비하고 있다.
- 한국의 서원은 동아시아의 성리학의 사상과 활동을 탁월하게 보여준다. 한국의 서원이 지닌 고도의 완전성과 진정성은 유산의 탁월한 가치를 강화 한다.

이상 제시한 ‘한국의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그리고 세계유산 운영지침이 요구하는 ‘지속가능한 활용’에 기반을 둔 한국서원문화의 계승 방안과 서원의 현대적 활용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서원의 현재적 활용은 성리학의 철학과 정신이 현재 및 미래 세대에게 어떤 측면에서 재조명되고 재해석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 제안이 필요하다. 뿐 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문화사적 관점에서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이 지향하는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는 무대, 거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의 활용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9개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그것은 ‘연속유산’이 된다. 한국의 서원을 연속유산으로 등재 신청하는 이유는 9개 서원이 완전성과 진정성 측면에서 그 요건을 각각 잘 구비하였지만, 9개 서원의 특성을 모두 합치면 강학, 제향, 배향 인물, 입지 등의 측면에서 조선시대 서원의 온전한 모습이 그려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서원의 현재적 활용은 9개 각 서원의 특성이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한국의 서원은 유산의 유형적 측면 뿐 아니라, 사상, 정신, 의례, 무형유산 등의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유산을 건물 위주로 설명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서원이 가진 무형적 가치를 방문객이 알 수 있게 해야 하고, 활용도 이런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배향 인물과 관련된 제반 사항, 서원 여러 곳에 담긴 상징성 등을 포함한 유무형 유산을 연계한 활용도 중요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서원에 배향된 인물이 속한 문중, 후손의 역할 그리고 전시관, 방문객 센터, 자료관(아카이브) 등의 건립은 중요하다. 이러한 내용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줌은 물론 유산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세계유산은 시행 당시에는 문화유산의 경우 기념비적인 탁월한 가치를 가진 것만 중시했다. 그러나 2000 년대에 접어들면서 문화유산이 지닌 유형적인 특성 외에 유산의 무형적, 정신적, 상징적 가치도 중요시하게 되었다. 한국의 서원은 이런 측면에서 그 가치가 중요하고, 활용에도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많다. 이런 측면에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17 October 2003)’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둔 활용도 중요하다.

한국의 서원은 건축과 경관이 양상불을 이루는 중요한 유산이다. 생태, 친환경 측면에서 한국의 서원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의 서원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연과 공존하는 건축 행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서원의 활용과 관련되는 시설은 한국 서원의 특성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서원은 개발, 국토계획 등의 올바른 방안 수립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며, 친환경적인 자연 이용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는데 기여할 것이다.

20세기 중반까지 세계는 ‘서구의 문화’가 주도하는 사회였다. 하지만 유네스코는 지역과 국가의 인문적인 사향을 배경으로 해서 형성된 문화와 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마침내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있다.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에 바탕을 둔 문화를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유산에 속한다. 이런 특성을 고려한 활용 방안의 모색도 중요할 것이다.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은 곧 유산의 보존과 직결된다. 무엇보다도 유산의 보존은 경제 논리에 의해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곤 하였다. 그런데, 유산의 보존이 개발보다 더 경제적이라는 연구가 최근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건물이나 공간을 만드는 일이 더 소득을 올리는데 기여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구체적인 데이터가 뒷받침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증가, 도심 재활성화, 관광 상품화에 따른 수익 발생, 지역 내 건물의 자산 가치 상승, 지역 내 소기업 육성 효과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서원의 현대적 활용에 참고가 되는 연구 성과이다.

유산의 활용이 중요시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해당 유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필요성, 그리고 해당 유산이 지금도 사람들과 교감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유산의 활용은 미래 세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유산 보호와 관리가 미래 지향적이어야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이다. 자기 것을 바로 알고 이해할 때 진정한 창조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목록 등재 의미와 과제

글을 시작하며

영주 소수서원, 함양 남계서원, 경주 옥산서원, 안동 도산서원, 장성 필암서원, 달성 도동서원, 안동 병산서원, 정읍 무성서원, 논산 돈암서원이 포함된 ‘한국의 서원’(세계유산 등재 명칭: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이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2019년 7월 개최된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낭보는 이제 역사적인 사실로 자리매김하였다.

조선시대 사림 문화의 정수는 물론이고, 성리학에 근거한 한국 유교문화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담겨있는 ‘한국의 서원’은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것을 기점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세계유산목록 등재의 관건이 되는 ‘한국의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약칭: OUV)는 ‘한국의 서원’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향후 과제를 조명하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 글은 문화유산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기 위한 구비 요건인 ‘한국의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를 기반으로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의미, 그리고 향후 과제와 관련되는 몇 가지를 짚어 본 것이다.

유네스코는 왜, 무엇에 근거하여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시행하는가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제도를 실시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구상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국가, 소유자, 그리고 세대를 초월하여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유네스코가 이러한 필요성을 느끼고 세계유산제도를 성립시킨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세계유산제도가 시행된 원인(遠因)은 서구 사회의 과학화, 산업화, 근대화 과정과 맞물려 있다. 17, 18세기를 거치면서 서구 사회는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으로 인해 그 이전의 시대와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로 진입하고 있었다. 오랜 역사를 통해 인간들이 이룩한 역사적 유산이 철거, 훼손되거나 경시되어가는 것에 대한 보존, 보호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된 것은 이때부터다. 19세기에 이르러 서구사회에서는 인류가 만들어낸 역사상 중요한 유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크게 전개되기 시작하였고, 20세기에 들어서서는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쟁으로 인해 유산이 파괴되거나 크게 훼손되면서 유산의 보호와 보존은 이제 국제적인 차원에서 인류 공동의 해결 과제로 부상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세계유산제도가 실시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1954년 이집트 나셀 정부가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한 수재(水災)를 막기 위해 강의 상류에 아스완하이댐을 건설하기로 함에 따라 아부심벨 신전을 포함한 고대 이집트의 유적들이 수몰되는 위기에 놓이자 유네스코를 비롯한 국제기구, 그리고 세계의 많은 지성인들과 전문가들이 이집트 정부에 댐 건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드려지지 않은 데에 있

다. 이를 계기로 유네스코는 지구상의 중요한 유산은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이에 유네스코는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 1972년 제17차 총회에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약칭: World Heritage Convention, 세계유산협약)”을 채택하여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 관리하여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유산을 정하기 위해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시행하게 된다.

세계유산협약 서문에는 세계유산목록 등재에 대한 목적과 정신이 잘 집약되어 있다. 지구상 모든 국가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세월의 흐름으로 인하여 쇠락하거나 파괴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 더 빨리 훼손되고 사라질 위험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에 대해 인류 모두의 유산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집약되어 있다. 이러한 목적과 정신을 배경으로 해서 세계유산제도가 태동되었기 때문에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 유산은 반드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비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유네스코가 특정 유산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게 된 것은 훼손되거나 망실되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류 전체에게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부동산 유형유산을 국제적으로 서로 협력하며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유네스코가 국제적 협의를 거쳐 채택한 것이 “세계유산협약”이다. 따라서 세계유산은 한 지역이나 국가에서만 보존되고 전승되는 차원을 넘어 인류 전체를 위해 전 세계인이 공동으로 보호하여 현재를 거쳐 미래세대에게 전승해야 할 성격을 지닌 유산을 말한다.

세계유산협약이 중요하게 거론하는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탁월’함이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이 뛰어난 것임을, 가장 대표성을 지닌 것임을 의미하고, ‘보편적’이란 유산의 탁월함이 객관적으로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임을 뜻한다. 이를 달리 이야기하면, 어떤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것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세계유산 가치’를 지녔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 목록 등재 의미와 과제에 대해 논의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기 위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유네스코는 세계유산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World Heritage Convention, 이하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으로 약칭)을 제정하여 1978년부터 해마다 신청한 유산을 심사하여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입증되면 그 유산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유산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려면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에 규정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충족해야 한다.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에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충족시키는 구비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아래에 나열한 제반 사항을 충족시키면 그 문화유산은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에 규정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비하였다고 본다.

- 등재 기준(criteria) 여섯 항목 중 어느 하나, 또는 여럿에 속하는 것
- 진정성(authenticity)을 구비한 것
- 완전성(integrity)을 충족한 것
- 국내·외 유사유산에 대한 비교 분석(comparative analysis)에 의해 차별성이 입증된 것
- 보호 및 관리 계획이 수립된 것

‘한국의 서원’은 등재기준의 어느 항목을 구비하였는가

‘한국의 서원’은 운영지침의 등재기준 (iii)을 구비하였기 때문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비하였음이 입증된다고 세계유산위원회는 판단하였다. 등재기준 (iii)은 “살아있거나 또는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 혹은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의 서원’이 등재기준 (iii)을 구비한다고 판단하면서 입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성리학 교육기관인 서원은 교육적, 사회적 관행의 형태로 한국에서 성리학과 관련된 문화 전통에 대한 특별한 증거가 되며,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이 계승되고 있다. 서원은 중국에서 전래된 성리학이 한국의 현지 조건에 맞도록 조정된 역사적 과정을 잘 보여주며, 이는 서원이 기능, 계획 및 건축 측면에서 변형되고 지역화된 과정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특별한 증거가 된다.

The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are exceptional testimony to cultural traditions associated with Neo-Confucianism in Korea, in the form of educational and social practices, many of which continue. The seowon illustrate an historical process in which Neo-Confucianism from China was tailored to Korean local conditions resulting in academies which are exceptional testimony of this transformative and localising process in terms of function, planning and architecture.

세계유산위원회가 판단한 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주제별로 정리될 수 있다.

-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과 관련된 한국의 문화 전통에 대한 특별한 증거가 된다.
-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은 한국의 성리학 교육기관인 서원으로서 교육적, 사회적 관행의 형태를 잘 보여준다.
-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서원이 지닌 속성의 많은 부분을 잘 보유하고 있다.
- ‘한국의 서원’은 중국의 성리학이 한국의 지역성에 맞도록 조정되어 한국화된 역사적 과정을 잘 보여준다.

- ‘한국의 서원’은 중국의 서원과 차별되는 서원의 기능, 서원이 들어설 터 잡기, 건물 배치와 관련되는 계획, 건물 설계에서 변형되고 지역화된 과정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특별한 증거가 된다.

‘한국의 서원’은 어느 한 장소에 소재하는 단일 서원이 아니라, ‘9개 서원’을 ‘하나의 유산’으로 묶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의 장소에 소재하지 않고 여러 지역에 있는 유산을 하나의 유산으로 간주하여 등재한 세계유산을 ‘연속유산(serial property)’이라고 운영지침은 규정한다. 운영지침에는 서로 다른 지역에 소재하지만 성격이 유사한 여러 유산들을 ‘하나의 유산’을 구성하는 요소들로 정의하고, 그 유산의 원래 가치가 총체적으로 온전하게 더 잘 부각될 수 있으면 ‘연속유산’으로 규정하여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의 서원’이 연속유산으로 등재된 이유는 9개 서원을 묶으면 조선시대 한국 서원의 속성이 온전하게 더 잘 설명되는 유산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서원’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평가 기준인 진정성을 어떻게 구비하고 있는가

문화유산의 진정성이란 해당 유산이 진품이거나 출처가 분명한 것을 말한다. 진정성은 또한 어떤 사상(事象, 일)이 사실과 다름없다고 확인하고 품질을 판정하는 개념의 기본이 되기도 한다. 문화유산의 현재적 존립 근거는 이 진정성의 이해와 확보에 있다. 문화유산은 또한 오랜 기간 세월을 거치면서 특정 문화와 지역에 한정되어 그 가치를 지니는 특수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유산을 그 유산답게 만든 것이 곧 그 유산의 진정성이다. 다시 말하면, 문화유산의 진정성이란 해당 유산의 유형과 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그 유산의 속성이 학술적, 문화적, 예술적, 역사적, 사회적, 경관적 차원에서 본래부터 또는 역사의 과정에서 지니게 된 진실성과 신뢰성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은 지속가능한 보존의 판단 기준이자, 출발점이 된다.

‘한국의 서원’은 건립 이후 주변 산수 경관, 건축물 배치, 건축 형식과 공간 측면에서 진정성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존속된 서원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다. 9개 서원이 확보하고 있는 진정성은 역사 기록 및 다양한 사료에 의해 그 진정성이 뒷받침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서원’은 조선 후기를 거쳐 1871년 흥선대원군에 의해 전국의 모든 서원과 사우(祠宇) 중에서 47개소를 제외하고 모두 훼손될 때도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같이 9개 서원은 모두 잘 보존되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의해 사적으로 지정되어 보존, 관리되고 있어, 서원 원래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한국의 서원’은 또한 성리학에서 중시하는 예(禮)가 실천되고 의례화된 곳으로서, 그 지역 유림의 주도하에 제향, 강학, 사회 교육 등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의 서원’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평가 기준인 완전성을 어떻게 충족하고 있는가

완전성은 유산이 지닌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표현하는 특성의 전체와 원래 모습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완전성은 또한 문화유산과 그 속성에 전체적으로 흠이 없거나 손상이 없으며, 위협요소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본 요건인 완전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등재 유산의 물리적 측면과 중요한 특징들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쇠락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서원’은 모두 조선시대 성리학의 정착과 발전에 공헌한 인물이면서 향촌과 연고가 있는 인물을 제향하고 이들의 사상을 본받는 교육을 행하는 장소로서 유지되고 있을 뿐 아니라 번잡한 시가지에서 떨어져 있으면서 선현의 유적이 있으며 산수가 좋은 곳이다. ‘한국의 서원’은 또한 조선시대 서원의 기능을 충족시킨 유식공간, 강학공간, 제향공간, 지원공간, 진입공간을 구성하는 건물, 시설, 공간을 제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서원 건립 당시부터 고려되었던 입지 조건을 현재까지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9개 서원은 유산의 특성을 대표하기에 충분한 범위의 공간을 법적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개발 압력 등 부정적 영향으로 인한 훼손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다.

‘한국의 서원’은 유사 유산에 대한 비교 분석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입증되었는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면서 세계유산위원회가 등재기준 (iii)을 구비한 유산으로 평가하면서, 한국의 서원은 중국에서 발원한 성리학 교육기구가 한국의 지역성에 맞도록 조정된 결과물임을 드러내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비한 유산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한국의 서원’은 중국이나 일본의 서원과 비교하여 서원의 기능, 서원이 들어설 터 잡기, 건물 배치와 관련되는 계획, 건물 설계, 제례와 의식 등에서 차별성이 있음을 잘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인간 본성의 함양과 도덕적 실천을 위한 교육기구로 설립한 서원을 중심으로 성리학적 이상사회를 조선 사회에 정착하도록 노력하였다는 점과 그 속에서 뚜렷한 건물 배치 개념과 건축미학을 가진 한국 서원건축의 전형을 형성하였다는 점은 ‘한국의 서원’이 중국이나 일본의 서원과 차별되는 중요한 속성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서원’의 향후 과제는 보호와 관리에 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특정 유산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할 때 그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서술문을 채택하는데, 이 서술문에 근거하여 향후 당해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 관리해야 한다. ‘한국의 서원’의 보호, 관리도 예외일 수 없다.

‘한국의 서원’에 대한 보호와 관리의 근거가 되는 법제도로는 대한민국의 문화재보호법과 시행령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조례 등이 있다.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9개 서원은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유산 자체는 물론이고 각 서원 주변이 보호, 관리 되고 있다. 특히 서원 주변은 문화재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신축, 증개축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서원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원과 주변 환경을 보호, 관리하기 위해 해당 서원의 보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으로 서원을 정비, 보수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를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되며 서원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한다. 각 서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호, 관리 외에도 시민들이 서원을 쉽게 접근하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서원의 활용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서원’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청과 각 서원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서원의 세계유산 지정구역(property zone)과 완충구역(buffer zone)을 설정하고 그 경계선을 표시했다. 문화재구역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산이 소재하는 구역을 말하고, 완충구역은 해당 유산의 주변 구역을 말한다. 해당 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완충구역에는 토지 및 건물의 이용과 개발에 대한 제재가 행해진다.

9개 서원에 대한 보존 및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개발 압력, 환경적 압력, 자연 재해, 방문객 및 관광 산업의 압력, 토지 사용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개발 압력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과 개발 행위가 제한되어 있으며, 또한 각 서원이 개발을 이윤을 창출할만한 곳에 위치하지 않았다. 방문객과 관광 산업에 의한 서원의 보호와 관리에 대한 영향은 향후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당 서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원 보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호와 관리 측면에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한 두 가지 사항을 지켜야 한다. 하나는 ‘한국의 서원’이 연속유산으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한국의 서원’을 관리할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9개의 서원을 ‘하나의 유산’으로 관리할 ‘종합정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 첫번째에 해당하는 권고사항은 실현되었으나 두 번째 권고사항은 아직 수립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유산을 제대로 보호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유산의 정체성을 회복, 유지하여 다음 세대에게 유산의 속성을 온전하게 물려주자는 데 있다. 세계유산위원회가 권고한 두 가지 사항은 ‘한국의 서원’이 향후 지속가능한 세계유산이 되게 하는데 초석이 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의 서원’을 잘 보호, 관리하기 위해서는 세계유산위원회가 제시한 ‘전략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된 유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세대에 전송’하기 위해, 그리고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유산협약 체결국에 ‘전략 목표’를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5Cs로 언급되는 전략 목표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세계유산목록에 대한 신뢰성(Credibility)을 제고하도록 한다.
- 2) 세계유산의 효과적인 보존(Conservation)을 보장하도록 한다.
- 3) 협약국의 효과적 역량 구축(Capacity-building)의 개발을 촉진하도록 한다.
- 4) 소통(Communication)을 통해 세계유산에 대한 대중의 인식, 참여 및 지지를 증진하도록 한다.
- 5)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에 공동체(Communities)의 역할을 증대하도록 한다.

세계유산의 보호와 관리와 연관되는 이러한 전략은 규제 일변도의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이와 함께 유산의 보존관리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전환케 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는 나아가 정보화, 국제화, 시민사회화 시대에도 부응하게 할 것이다.

글을 마무리하며

이상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목록 등재 의미와 과제를 소략하게 살펴보았다. 무엇보다도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 등재의 관건이 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그 자체가 ‘한국의 서원’의 가치와 특성이 된다.

이 글에서 언급한 ‘한국의 서원’의 유산 가치를 세계유산 측면에서 정리하면,

- 1) ‘한국의 서원’은 동아시아의 성리학이 교류한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유산이다.
- 2)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의 철학과 정신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대표적인 유산이다.
- 3)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과 관련된 정신과 활동이 지금도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특출한 사례를 보여주는 유산이다.
- 4)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이 반영되어 형성된 건축과 경관이 앙상블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이다.
- 5)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성리학에 기반을 둔 사상, 의례, 신앙, 문화 전통과 물리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 6)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서원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면서 지금도 잘 보존되어 서원의 완전성을 구비하고 있다.
- 7) ‘한국의 서원’은 공간구성, 건물배치, 경관, 디자인, 전망 등의 관점에서 진정성을 잘 구비하고 있다.
- 8) ‘한국의 서원’은 동아시아의 성리학의 정신과 활동을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에 속하는 유산이다.
- 9) ‘한국의 서원’이 지닌 고도의 완전성과 진정성은 유산이 가진 탁월한 가치를 강화한다.

요약하면, 살아있는 문화 전통임을 보이는 ‘한국의 서원’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교육 시설과 공유하는 것이 많지만, 성리학이 지향하는 사상이 서원에 반영된 건물 배치, 공간 구성, 경관 조성 등을 통해 한국화된 서원 건축의 속성을 형성한 증거를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성리학 교육기관인 서원은 교육적, 사회적 관행의 형태로 한국에서 성리학과 관련된 문화 전통에 대한 특별한 증거가 되며, 그중에서도 ‘한국의 서원’은 중국의 성리학이 한국의 현지 조건에 맞도록 조정된 역사적 과정을 잘 보여주며, 지역화된 과정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특별한 증거가 된다.

이러한 ‘한국의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유지하며 보호, 관리하기 위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듯이 9개의 서원을 ‘하나의 유산’으로 관리할 ‘종합정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한국의 서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이를 미래세대에 전승하기 위해, 관계 당국은 세계유산위원회가 제시한 '전략 목표(5Cs)'를 설정해서 규제 일변도의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유산의 보존관리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전환케 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타문화권에서 바라본 세계유산 한국 서원의 가치

1. 한국 서원 역사 유산으로서 한국과 해외에서의 현대적, 역사적 역할

1) 서원, 한국 성리학 학교, 소개

“이 문화 유산은 대한민국 중부와 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조선 시대 성리학 학교의 종류 중 하나였던 아홉 개의 서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교육, 선현에 대한 존경 그리고 자연과의 교류가 서원의 중요 기능이었고, 그들의 설계에서 드러난다. 산과 수원에 가깝게 위치해 있는 이 건물들은 정신과 육체의 수양, 자연에 대한 존중에 중점을 두었다. 누각풍의 건물들은 대지와 연결을 상징하도록 만들어졌다. 서원은 성리학이 중국에서 한국 환경에 적응하는 역사적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Source: <https://whc.unesco.org/en/list/1498/>]

서원은 201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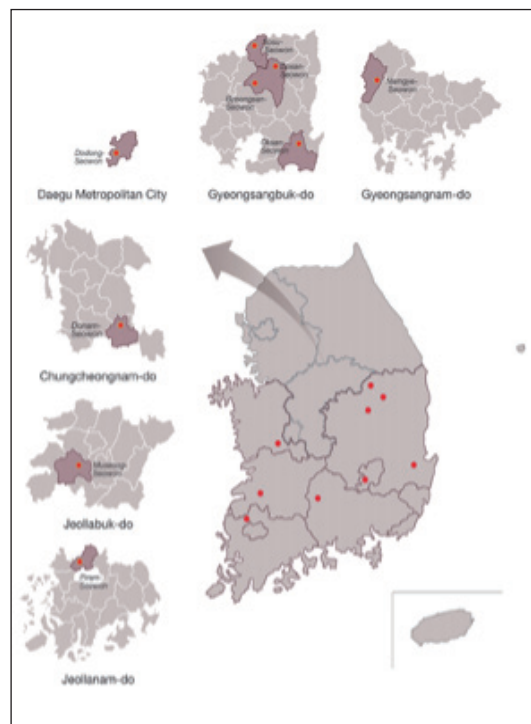


그림 1. 한국 9 서원 소재지 (이미지 출처: 유네스코 홈페이지)

2) 서원, 풍경과 소재지

서원(한국 성리학 학교)은 조선 시대에 건설된 아홉 개의 교육 기관이다 (그림 2). 모든 서원은 한국 사적과 문화재로 지정되었고 2019년부터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에도 등록되었다. 공립 교육 시설이었던 향교(鄕校)와는 달리 서원은 향촌사회에 의해 건축된 사립 교육 시설이었다. 보통의 경우 강당과 서재가 앞에 건축되고 사당, 선현에게 주어진 건물은 뒤에 건축되어 전학후묘(前學後廟)의 구조를 따르고 있다.



그림 2. 서원: 풍경과 소재지 (이미지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0514230315386?f=p>)

3) 서원, 소재지와 자연 환경의 관계(산과 물)

그림 3은 서원이 자연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자연을 존중하고 육체와 정신의 수양을 위해 산과 물 가까이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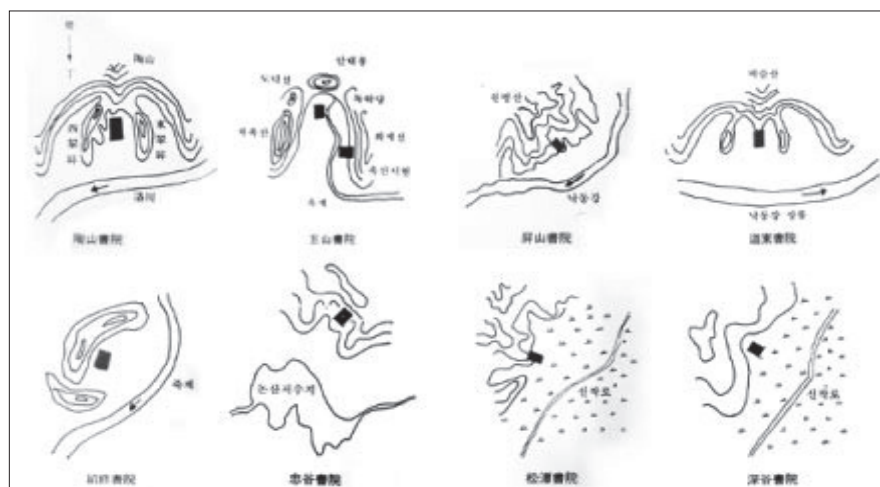


그림 3.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서원의 소재지 (산과 물) (그림 출처: 韓國의 書院建築 “한국의 서원건축”)

4) 서원, 역사적 유산과 교육

서원(한국 성리학 교육기관)은 조선시대 중-후반, 한국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교육 기관이었다. 이 시대에는 중국 사립 교육 기관이었던 슈안과 비슷한 특징을 보였다.

서원은 사립 기관이었고 사립 초등학교와 유교 사당의 기능을 합친 형태였다. 교육적인 특징에서 서원은 학생들이 과거를 준비하는데 집중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서원들은 양반 자제들을 교육했다.

현재 서원은 문화적, 역사적 유산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

2. 다음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서원: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에 등재된 서원이 더 많은 국제적 인식을 받게 되면서 이 보고서는 서원을 다음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한다:

- 문화 여행과 현재 관광지 가능성
- 한옥 건물의 건축적 특징과 건물 구성
- 특별한 한국 건축 특성과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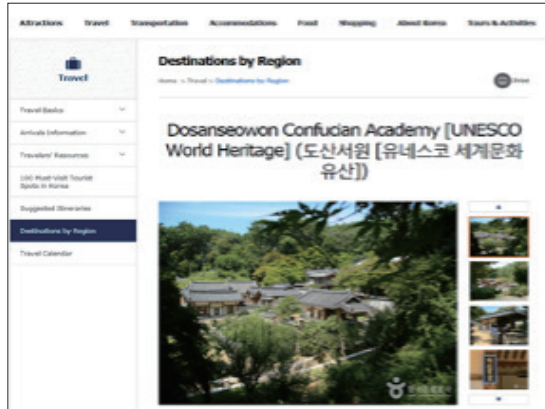
첫 번째 관점(문화 여행)은 서원을 국내 국제 관광에 관련된 여러 정보의 가용성을 통해 인식한다. 단독적인 문화 관광(문화 관광 길과 다른 여행 목적지)이 인기를 끌면서 (유튜브 여행 브이로그, 인스타, SNS 등)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정보의 출처에 중점을 둔다.

두번째 관점(서원의 건축적 특성)은 서원 건축 구성의 환경적, 건축적 특성에서 드러나는 양식을 소개하고 건물의 특징 자체도 소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원 시설의 건축 특징은 한국과 해외 서적에 잘 드러나 있다. (해외 대중을 위해 쓰여진 서적)

세번째 관점(특수 한국 건축 기능)은 (서원을 예로 들어) 한국 전통 건축에만 드러나는 특징을 언급하고 있다.

1) ‘문화 여행’과 현재 관광지 가능성

한국 문화와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출처는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다. (“Imagine Your Korea”) 이 홈페이지에서는 관광지에 대한 설명과 가능성에 대해 짧게 언급하고 있다 (그림 4).



출처: Imagine your Korea, 여행 정보 사이트

그림 4. 서원 “문화 여행”과 관광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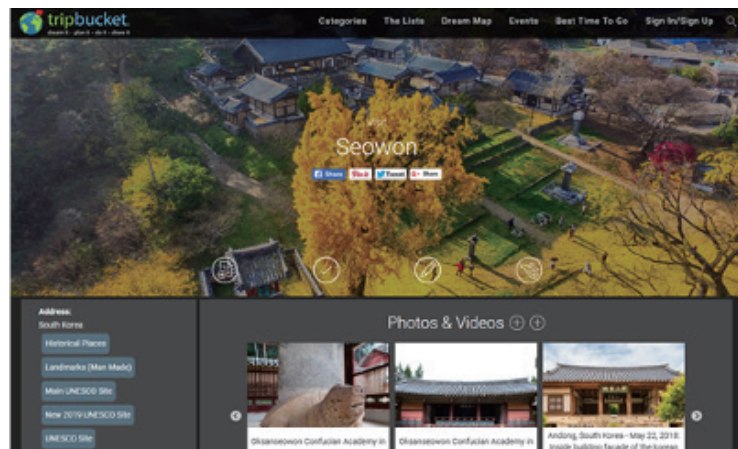


출처: KTX 잡지, 2020. 10

최근에는 고급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아야 할 정보인 전통 건축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현대적인 대중매체 정보 출처가 늘어났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채널 등) 한국 웹사이트를 제외하고도 문화 관광과 관련된 해외 웹사이트들이 흥미로운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해시태그로 전하고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사이트 중 일부는 한국에 대한 이해와 문화적 경험을 하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에 집중하고 있다 (그림 5).



출처: “참만남 참 문화유산” 페이스북 페이지



출처: 트립버킷 홈페이지 (https://tripbucket.com/dreams/dream/visit-seowon-south-korea-unesco-sites)

그림 5. 내국인과 외국인을 위한 서원 문화 체험

2) 한옥 건물의 건축적 특징과 건물 구성

서원 건물 배치는 사당, 강당, 동재와 서재 그리고 누각으로 구성되어 한국 건축에서 성리학적 개념을 잘 드러내고 있다. 예 중 하나는 도동서원의 풍경이다 (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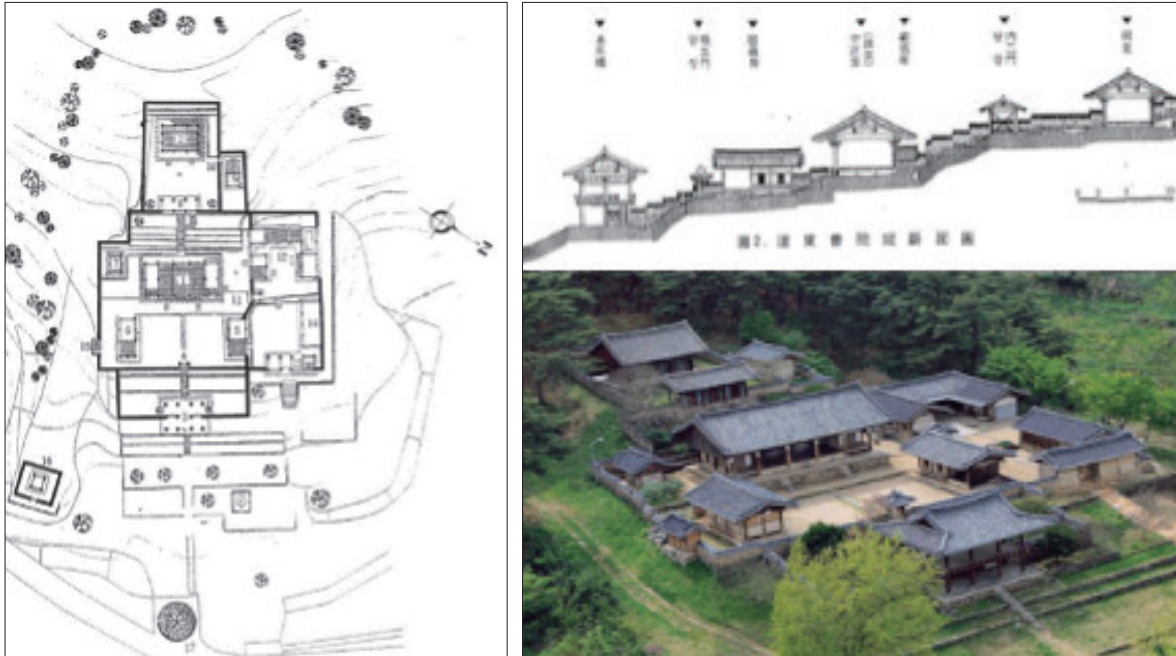


그림 6. 도동서원의 풍경 (배치도, 단면도,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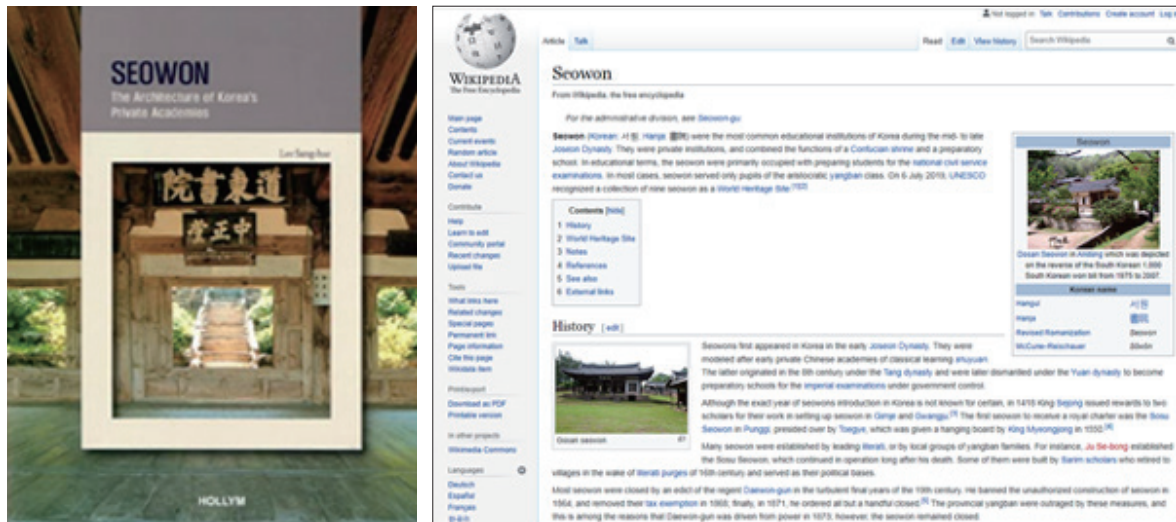
3) 한국 건축의 특성과 성격

중요한 건축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주변 환경이 건물과 조화를 이룸 (산, 물과 관련되어 있음)
- 자연의 풍요로움을 중시하는 겸손한 표현
- 각 서원 중심 마당이 가진 중요한 역할
- 조선 시대에 도입된 신철학적 세계 관점(성리학)을 잘 반영한 서원의 건축 표현
- 전통 한옥에 사용된 천연 소재(여름에는 내부 냉방, 겨울에는 내부 난방, 온돌과 대청마루)
- 기와, 목재 기둥과 석재 건축; 한지로 만든 문과 창문은 미적 가치가 있음

3. 영어와 다른 외국어로 된 서원에 대한 출판물 분석

서원에 대한 최근 출판물(영문 출판물을 중심으로)을 분석해야 하는 이유는 해외에 한국 전통 건축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알기 위함이다. 이 보고서는 대중의 관심을 받고 한국 전통 건축에 대한 인식을 만들 수 있는 인터넷과 다른 매체에서 나타난 출판물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중매체와 학술/교육 매체) (그림 7-9).



이상해(2005) 서원:
조선시대 사회문화사의 심원한 흐름을 이어온
강학과 제향의 건축공간 (한국 문화서 # 2)

서원에 대한 위키피디아 페이지(일반 정보)
열람 가능 언어: 영어, 한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기타

그림 7. 인터넷에서 인기를 끄는 서원에 대한 일반 정보와 서적

4) 매체와 유튜브에서의 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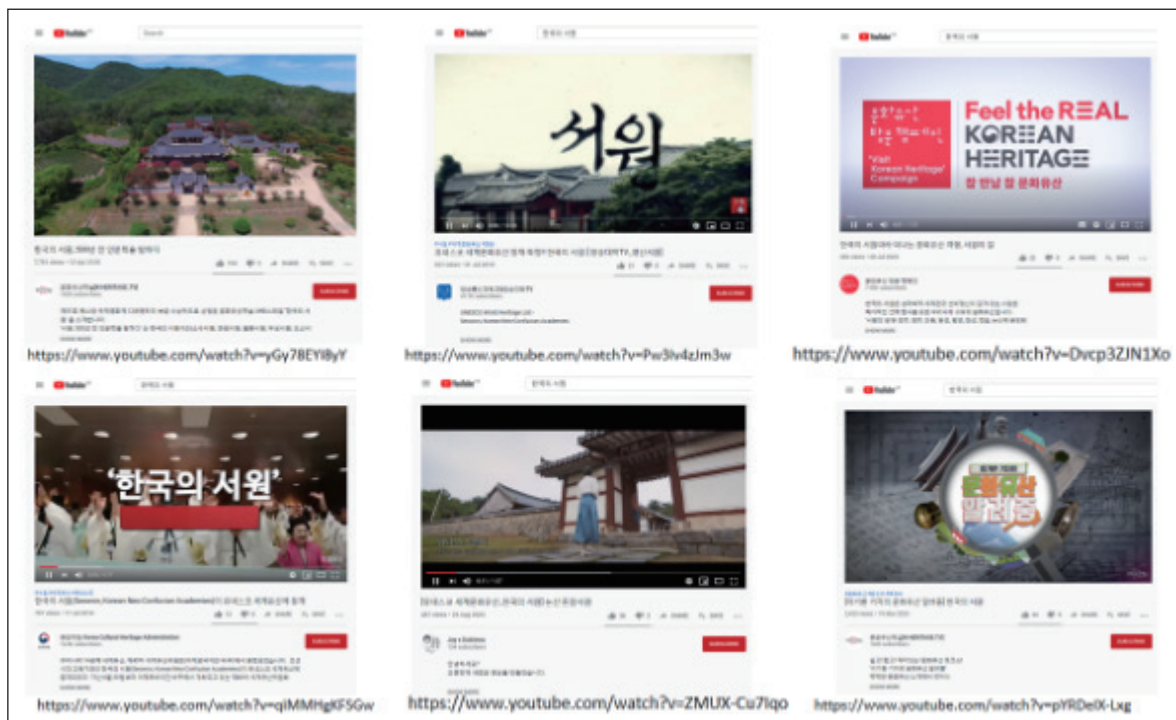


그림 8. 유튜브에서의 서원

다양한 매체에서의 서원과 국제적 인식

한국 드라마/영화	컴퓨터 게임
	
신입사관 구해령 (MBC, 2019)	컴퓨터 게임: 문명 4
드라마는 소수서원에서 촬영되었음	게임에 서원이 나타남
<p>소수서원, 영주/소수서원은 지역 군수 주세붕이 1541년에 세운 지역 교육 기관이었고 왕이 이름을 내려준 첫 서원이었다. 서원은 조선 중기-후기에 가장 흔한 교육 기관이었다. 이 기관은 양반 계급의 아이들의 과거 준비를 위한 교육을 시행했다.</p>	<p>“16세기 교육 문제가 교육적 빈틈을 채울 사립 기관인 서원을 만들어냈다. 유교 교육과 의식에 중점을 둔 이 시설은 겸손한 외양을 드러냈다. 양반 계급 아이들의 서원 교육은 서원을 정치 논의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성리학의 주요 담론의 합은 한국 현대 문화와 정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연구하는 데 적합했다.”</p>

그림 9. 다양한 매체에서의 서원

4. 한국 서원 문화 유산이 해외 대중에게 인식되고 표현될 수 있는 방법과 가능성

이 보고서는 한국 서원 문화 유산이 국제 관광객을 포함해 세계 대중에게 인식되고 표현될 수 있는 방법과 가능성을 찾아보려고 한다. 이러한 이유 영어로 된 서원에 대한 대중적/학술적 그리고 교육적 정보 출처를 분석한다.

한국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서원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학술대회의 논의에 다양한 관점으로 참여하고, 해외에서의 한국 전통 건축에 대한 인식과 접근 방식 논의에 참여하고자 한다.

한국 서원의 지속가능한 발전

세계유산‘한국의 서원’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국가브랜드위원회, 이어서 한국의 서원 유네스코 등재 추진단, 서원과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인정받아 2019년 7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귀한 결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은 2011년 ‘한국서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란 주제로 제1차 국제 학술회의를 시작으로 2021년 현재까지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학술포럼 및 전문가 워크숍 등을 진행해 왔으며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축적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제학술포럼의 주제인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등재 이후의 과제’를 계기로 그동안의 모든 학술자료를 총망라하여 주제별로 접근하기 쉽도록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학술연구 자료집’을 기획·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학술연구 자료집은 그간의 학술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축적된 한국의 서원이 지닌 세계유산 가치(OUV)에 대한 주요한 연구 성과를 발췌하여 주제별[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서원의 보호 및 관리, 서원의 활용, 실사대비 워크숍]로 나누어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쌓아온 학문의 결실인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의 가치가 본 자료집을 통해 새롭게 인식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한국의 서원’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하는데 밑바탕이 되는 학술자료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1. 서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가치

지금 되돌아보면 지난 9년은 오로지 서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시켜야 한다는 열망으로 지내온 것 같다. 시작하고 총괄하는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책임감과 부담감이 막중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다행히 2019년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세계유산 43회 총회에서 등재한다는 방망이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온갖 시름과 긴장이 녹아내리는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은 저뿐 아니라 늘 함께 애써주고 정성을 모아준 서원관리단 직원들, 각 서원의 유림 어른들, 전문학자, 지자체, 문화재청의 모든 구성원들의 한마음 된 감격이 있었다. 그 순간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등재된 것으로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다. 서원의 가치를 세계가 알아준 만큼 박제된 과거유산이 아니라 인류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적 기능, 정신적 기능을 살려내야 한다.

그동안 서원이 잘 보존되고 유네스코의 기준에 맞는 자격을 갖추는 데는 오늘날까지 서원의 제향기능이 온갖 정성을 다해 큰 몫을 하였다. 서원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선현에 대한 존송과 감사로 초하루와 보름의 삭망례, 춘·추계 향사, 강습례 등을 한결같이 끊임없이 이어왔던 정성이 하늘에 닿았다고 생각한다.

유형유산이라면 우선 건축물의 보존이 중심이 되는데 건축은 사람들의 마음이 따르지 않으면 보존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로부터 모아지는가, 바로 서원에서 진정으로 우러러 받드는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서원 역사에 대한 자긍심이 없으면 지켜질 수가

없다. 아울러 그 지역의 신뢰가 없어도 유지될 수 없다. 또한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정신, 자연을 존중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대원군 때 철폐되었어도 또 살아난 서원의 가치와 의미를 되짚어보고 현재 서양교육에 밀려 쇠퇴된 교육기능을 되살려야 한다. 과거의 유물로만 보존이 아니라 원래의 기능을 살려내야 한다. 단지 오랜 세월이 지났고 시대도 급격하게 변했으니 원형은 유지하면서 내용은 현대시대에 맞게 어느 정도 변화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들테면 사당에 여성 출입이 금지되었던 규제를 풀고 여성 초헌관을 추대하여 상생의 시대를 연 도산서원의 정신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또한 선비상도 남성의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주시에서 선정한 여성의 선비대상도 바람직한 변화의 바람이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기적 같은 발전을 이룬 원동력에는 교육의 열정이 있다. 특히 전통교육에는 지식의 차원뿐 아니라 심성을 끊임없이 바로잡는 인성교육이 중심에 있었다. 조선시대 사립학교의 효시인 서원 교육에는 인류의 미래지향적 가치인 소통, 화합, 나눔, 배려, 자연, 평화를 추구하는 융합적인 조화의 기능이 있다. 서원에 들어서면 수려한 자연경관이 눈에 들어온다. 수백 년을 역사의 증인으로 지켜온 나무들이 울창하고 맑은 계곡이 흐르고 주변 산세와 어울리는 목조 건축의 아름다운 조화는 백 마디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배움과 깨달음의 시작이다.

천인합일(天人合一)의 경지, 즉 자연과 인간의 이치의 결합은 스스로 사람다움이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자연을 통해 배우는 언어이다. 즉, 자연의 이치라고 할 수 있는 오행(五行)의 목(木), 금(金), 화(火), 수(水), 토(土)의 원리에서 인간심성의 기본인 오성(五性)의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이 상호 합일되는 과정을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있다. 즉, 나무(木)를 통해서 사람은 인(仁)을 배우고, 쇠(金)를 통해서 의로움(義)과 정의 그리고 의리를 배우고, 불(火)을 통해서 예(禮)의 질서를 배운다. 물(水)을 통해서 배움, 즉 깨달음(智)을 알게 되는데 물이 낮은 곳으로, 또 넓은 곳으로 바다를 향해 부단히 흐르듯이 겸손과 포용의 자세를 배우게 되고, 흙(土)은 만물이 딛고 생성하는 토양이 되듯이 인간관계에서 기본은 무엇보다도 믿음(信)이라는 데서 참다운 인성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서원에서 선비들이 닦고자 했던 것은 이러한 자연의 법칙이었고 또한 존경하는 선현이었다. 조선의 선비는 스승의 가르침과 서책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였을 뿐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스스로 사색하면서 상생의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였다. 늘 푸른 소나무를 통해서 변치 않는 한결같은 의리 정신을, 대나무를 통해서 굽히지 않는 절개를, 할아버지 대(代)에 심으면 손자 대에 가서야 열매가 열린다는 은행나무를 통해서 인내와 끈기의 향학열을, 연꽃을 통해서 진흙탕에서도 때 묻지 않고 세속의 유혹에 물들지 않는 맑고 고고함을 터득했다.

또한 서원마다 공부할 때, 현판 하나하나에 새겨진 문구가 예사롭지 않다. 문을 드나들 때나 누정에서나 강학당·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사당에서 제례할 때마다 유교가 주는 인간이 깨우쳐야 할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각 지역의 서원끼리도 끊임없이 소통하였다. 서원을 찾은 손님의 명단인 심원록(尋院錄)을 보면 유명 유학자들의 이름을 수없이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공동체 기숙 생활을 하면서 상부상조하는 협력 체제를 갖추게 하고 바로 오늘날 중요하게 여기는 팀워크가 이루어지고,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으로 옛것을 본받아 새

로운 창의성을 발휘하는 지혜는 오늘날도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이어받아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인류가 공유해야 할 세계유형유산으로 큰 가치가 있다.

2. 유네스코 세계유산 서원과 인문정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일컬어왔다. 동방예의지국이란 인사 잘하고 예절 바른 것만 뜻하는 것은 아니다. 형식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도덕성과 진정성을 가지고 신뢰받고 타인을 배려하는 인간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도덕과 정신은 땅에 떨어지고 막말하고 무질서하고 서로를 헐뜯는 품격 잃은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참다운 인재를 키워야 함을 가장 중심적인 가치로 여겨야 하는 학교에서부터 폭력이 난무하고 잔학한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은 안타까운 심정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할 수 있는 학교 교육에 대한 폭넓은 반성과 도덕재무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극기복례(克己復禮)라고 다시금 철저히 자기반성을 통해 인간 본연의 자세를 되찾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정직과 신뢰, 책임과 성실, 존중과 배려, 공동체적 질서와 화목, 품격과 예절은 예나 지금이나 지성인이 갖추어야 할 필수덕목이다.

요즈음 사회 각계에서 인문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대내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가 세계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압축 성장을 하면서 이룩해 온 물질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가치관의 혼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과 대립, 생태적 문제 등을 겪으면서 인간의 삶과 역사에 대한 근본적 성찰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행복한 삶 지수’ 등에서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오고 있다.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행복이 빵만으로는 얻을 수 없으며, 정신적인 부분도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대외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은 선진국가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라는 요구와 동시에 개발도상국은 물론 다른 선진국가로부터 존경을 받는 모범국가가 되어야 하는 새로운 사명도 부여 받고 있다. 다시 말해 품격 있는 선진국가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만이 아니라, 세계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인문 정신적 문화와 가치를 가진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사를 보더라도 한때 물질적으로 크게 번영을 누린 민족이라도 인문정신 문화의 뿌리가 없는 민족은 결국 쇠잔과 멸망의 길을 재촉한 사례를 우리는 많이 보아 왔다.

이러한 대내외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물질만능 풍조와 기계문명에만 젖어 있어 유형문화 속에 갇혀 있는 정신적 가치를 놓치는 바람에 공존과 타협의 지혜가 저평가되고, 비생산적인 가치관의 충돌과 소모적인 대립, 갈등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달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 비전을 함께 창출해 나갈 기회도 놓치고 있다.

지금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인간의 활동 범위가 제약을 받아 축소되고 침체되었다. 무엇보다도 인간성의 회복이 우선이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의 시대에 우리의 전통사상과 고전을 통해 참된 지혜와 마음가짐을 찾을 수 있다. AI도 대신할 수 없는 마음, 영혼, 정신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이다.

세계사를 통해 보면, 인문 정신은 항상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서양의 르네상스는 고대 그리스의 인문 정신을 부활시켜 근대로 가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 주었다. 가장 최근에는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가 IT기술문화의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인문학 및 인문정신을 강조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외에도 인문 정신은 위기의 시기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도 했다. 예를 들어 나폴레옹 군대가 독일을 휩쓸고 초토화시키며, 독일 국민을 극한에 내몰며 절망하게 했을 때, 독일 국민을 일으켜 세운 것은 철학자 피히테가 1807년에 행한 유명한 연설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었다. 피히테는 이 연설을 통해 독일 국민의 정신과 혼을 일깨워, 독일 국민이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했다.

그러나 인문정신은 서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풍부하게 찾아볼 수 있다. 인문정신을 멀리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우리 역사 속에서 찾는 지혜와 태도가 필요하다. 인문정신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 곳곳에 살아 숨 쉬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정신이 조선시대 선비정신이고 그 본산이 서원인 것이다.

3.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서 한국 서원이 지켜야 할 약속

2019년 7월 6일 현지시간 3시 20분 세계유산총회에서 한국의 서원이 심사 받을 때 이코모스가 제시한 등재 결정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이것은 새로운 신청서입니다. 이전의 신청서는 2015년 제출됐으나 세계유산위원회의 검토에 앞서 철회되었습니다.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2016년과 2017년에 이코모스 자문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이코모스 자문 보고서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당사국은 개정된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연속유산은 15~19세기 조선왕조의 성리학 교육기관의 유형을 대표하는 9개의 서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요소들은 한국의 중부와 남부에 걸쳐 위치해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감상과, 몸과 마음의 수양의 일환으로 산과 물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들의 본질적인 기능은 강학, 제향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일반적인 건축 양식에 바탕을 두는 한편, 이 요소들은 성리학 이상의 이해와 주변 환경과의 연결을 최대화하기 위해 각각의 특성을 창의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사교육 기관인 해당 신청유산은 16세기 중엽부터 17세기 중엽까지 설립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제향, 강학, 교류 공간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학적 구조의 표준화를 통한 첫 번째 서원의 탄생과 건축학적 배치, 기술의 실험과 함께한 그들의 발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연속유산은 서원의 시작과 발전을 담고 있습니다. 이코모스는 당사국이 추가로 제출한 신청유산의 비교 분석이 해당유산의 세계유산목록 등재 고려를 정당화한다고 봅니다.

해당유산은 문화유산 등재기준(iii)과 (iv)에 근거하여 당사국에 의해 신청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코모스는 신청유산이 기준(iii)은 충족하지만 기준(iv)은 충족하지 않으며, 완전성과 진정성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등재기준 (iii)과 관련하여, 신청유산은 교육적, 사회적 관행의 형태로 한국에서 성리학과 관련된 문화적 전통의 우수한 증거라고 생각되며, 그 중 많은 부분이 계승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성리학 개념이 지역화에 대한 뛰어난 증거를 보여줍니다. 서원은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성리학이 한국의 현지 환경에 맞추어 변화된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며, 이는 변화 및 지역화 과정의 탁월한 증거인 서원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위치, 지형, 축조된 요소들은 크게 신청유산의 전체 구성을 정의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것은 서원을 위한 경사진 장소를 포함합니다. 건물의 치밀한 배치, 형태, 세부사항은 모두 중요한 속성이며 다른 건축요소로는 담장, 대문, 길, 계단, 기념비가 있습니다. 서원은 주변경관과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누각에서 바라본 경관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나무와 다른 식물들이 있는 풍경 또한 하나의 속성입니다.

무형요소에는 강학, 제향, 교류 및 여타 활동이 포함됩니다. 성리학적 가치는 여전히 강학과 제향의식을 통해 전파됩니다.

제안된 유산경계와 완충지대가 적절하며, 완충지대를 넘어 서원과 원거리 조경 요소의 연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연계들의 보호 또한 적절합니다.

이코모스는 보호와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일반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유산에 대해 중요한 관리 문서를 작성하여 구성요소 수준에서 관리를 보완해야 합니다. 단일 유산으로서의 9개 요소를 통한 소개가 더 잘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체유산에 대한 소개는 개별 요소에서 이용 가능하지만 더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유산은 좋은 보존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모니터링 접근도 만족스럽습니다. 신청유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재, 개발 압력이나 곤충 피해 등의 주요 요인들은 잘 이해되고 관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심사위원국의 지지발언이 이어졌다.

쿠웨이트는 한국의 서원은 한반도 전역에 퍼진 학문적 그리고 과학적 문화의 원천으로 신뢰할 수 있는 유산으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지지 의견을 피력했고, 튀니지는 신념과 과학이 연결된 과정의 역사적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중요한 유산이며 단순히 문화적 관점뿐만 아니라 교육 시스템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이 유산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논지로 지지를 선언하였다.

원래 서원이 시작된 중국 대표는 한국의 서원은 16세기 17세기 사이에 동아시아 유교문화의 보급과 현지화에 기여, 자연환경과 잘 보존되어 독자적인 건축설계를 발전, 한국에서 성리학적 이상이 꽃피도록 도왔다는 점과 앞으로 아시아 지역과 전 세계 국가들 간의 더 많은 문화교류를 위한 촉매제가 되어 세계유산 목록상의 성리학 유산이 잘 대표되기를 기원한다는 요지로 명확하게 지지발언을 하였다.

인도네시아는 교육적, 사회적 관습의 형태로 성리학과 관련된 한국의 문화적 전통에 대한 놀라운 증거를 보여준다고 언급하며 지지와 더불어 특히 보호, 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스페인인은 완벽한 수준의 보존 상태, 물질적인 측면뿐 아니라 무형적 측면, 관료들의 훈련보다 지식보호 목적이었음에 주목하며 지지발언을 하였다.

아제르바이잔은 교육적, 사회적 관행의 형태로 성리학과 관련된 문화적 전통에 대한 훌륭한 증거이며 건축학적 원형과 유지에 강조점을 두고 지지하였다.

이러한 지지발언이 연이은 속에서 마침내 의장이 한국의 9개 서원의 등재를 선포하자 숨죽이고 기다리던 서원의 유림, 관계기관, 전문가, 관리단은 모두 함께 환호할 수 있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4개의 세계 유형유산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 등재 방망이 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지자 9개 서원 대표 18명의 유림들이 갓 쓰고 도포 입은 자세로 공수, 읊례, 평신의 순서로 감사의 의례로 허리를 굽히니 장내는 떠나갈 듯한 축하의 박수 소리와 함성이 울렸다. 바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것을 실감하였고 감사의 응답과 공감은 동서양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느낀 감동의 시간이었다.

이어서 이코모스의 추가적인 권고사항으로서

- 1) 서원 관리를 위한 주요 문서 작성을 완료할 것.
- 2) 연속유산으로서 9개 서원에 대한 추가적인 통합관리 계획을 마련할 것이 제시되었다.

위의 두 가지 사항이 제시되었고 지금 현재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은 이 사항들을 철저히 준수하며 이행하고 있다.

약속을 철저히 지켜야 추후 세계유산을 유네스코 본부에 보고할 때 순조롭게 인정을 받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4. 유네스코 세계유산 서원의 등재 이후의 과제 ‘지속 가능한 발전’

이제 한국의 서원은 우선 교육기능을 살려내야 한다. 원래 서원은 사립 명문 고등교육 기관이다. 요즘은 인격과 도덕이 메달라가는 시대 상황에서 서원은 인성을 함양한 전인교육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서원에서 발간하고 공부했던 서책에서 사람이 바르게 살아가는 길, 지도자의 덕목 등 많은 영감을 주는 내용들이 수없이 많다.

위학지서(僞學之序)의 “많은 것을 널리 배우고(博學之), 의심이 일어나면 꼭 묻고(審問之), 깊이깊이 생각해보고(慎思之),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분별해서(明辨之), 독실하게 실천한다(篤行之)로서 학생들에게 배움의 길을 제시하고자 하며, 수신지요(修身之要)의 말은 진실되고 믿음 있게(言忠信), 행실은 독실하게 공경하고(行篤敬), 성냄을 절제하고 욕심을 막으며(懲忿窒慾), 선한 쪽으로 나아가고 과실이 있으면 고친다(遷善改過)로서 자신을 돌보고자 하는 내용들이 오늘날에 더욱 절실히 다가옴은 무슨 이유일까. 물질 만능, 출세 위주, 개인의 영달에 치중한 나머지 인간의 참된 자세를 많이 잊어버리고 사는 현상이 오늘날의 크나큰 병폐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첫째, 서원을 엘리트 양성기관으로 오늘날 트렌드에 맞게 재구성하여 지도자의 필수 코스로 만들어야 한다.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면 대학원 대학의 설치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 교육과정을 구상해보면

- 1) 고전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과정 : 지도자층들의 정신문화를 함양하는 교육
- 2) 현대 변화하는 과학과 전통교육이 함께하는 융합과정
- 3) 세계화시대에 동양고전을 서양학문과 접목시키고 외국인들도 참여하는 글로벌 교육과정
 - 방법 : 공동의 커리큘럼을 만들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한국의 서원’ 9개 서원을 3개 권역[소수·도산·병산서원], [옥산·도동·남계서원], [필암·무성·돈암서원]으로 만들어 연계할 수 있다.

둘째, 국가적 지원을 받아 서원마다 역사관, 교육관을 설치해야 한다. 현재 단편적인 해설서나 안내판을 설치했으나 서원이 걸어온 길, 서원의 인적 구성, 특히 서원의 제향인물의 사상사적 집중 탐구가 필요하다. 소수서원의 안향, 도산서원의 퇴계 이황, 병산서원의 류성룡, 옥산서원의 이언적, 도동서원의 김굉필, 남계서원의 정여창, 필암서원의 김인후, 무성서원의 최치원, 돈암서원의 김장생, 이분들은 그 시대를 온전하게 가꾸고 사회정의를 위해 직언도, 목숨도 서슴없이 바쳤던 사표이자 참 스승이요, 대학자였다. 제향인물의 이념과 실천의 자세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친근하게 다가가야 한다.

이분들의 시대에 대한 희생과 헌신은 바로 살아있는 서원의 역사를 미래로 전인하는 것이다.

셋째, 서원에 비치되어 있는 서책, 현판 등 번역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앞으로 미래 세대들은 한문에 능숙치 않다. 서원에 건물마다 걸려있는 현판들은 전시품이 아니다. 그 속에서 서원을 드나들던 선현들의 학문과 시대의 참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목판을 모두 집대성하여 2015년 「유교책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다른 지역도 확대하여 「유교책판」을 보강하고 아울러 한글로 번역되어 설명책자를 발간하면 훨씬 차세대들에게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서원에서 오랜 세월 진행되어 왔던 제향의례를 종합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서원마다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온 측면도 있다. 서원에서 진행되어 오는 제향의 의미와 절차 등이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전통적 의례, 관습이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의미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실제로 서원이 제향기능을 몇 백 년을 유지하면서 잘 보존되어 건물이 온전히 남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었던 것이다.

서원의 유지와 보존에 가장 핵심적으로 기여해 왔던 그 지역의 선현, 스승에 대한 공경심과 학문의 계승과 발전, 공동체 의식 등은 형식에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정신적 유대가 더욱 진정으로 공고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강화된 것이라 생각하며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제향의례를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미래지향적으로 보존, 전승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서원에서 배우는 자연의 언어이다. 중국과 달리 한국의 서원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다. 산과 강 그리고 나무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백 마디 말이 필요 없이 마음이 정화되고 그 속에서 학문의 진실성이 체감되는 것이다. 소나무, 은행나무, 배롱나무, 잣나무, 매화, 모란, 연꽃, 국화 등 그 수백 년 동안 자라고 있는 지킴이로서 나무의 의미,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함없이 피고 지는 꽃들의 의미가 바로 선비정신을 내포하고 있다.

여섯째, 앞으로 점차 관광객이 많아질 것에 대비하여 서원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안내할 수 있는 큐레이터, 관리요원, 해설사 등 상주인원이 필요하다. 서원은 공공교육기관이어서 특히 교육기능이 활성화, 유지되지 못한 오늘날에는 사찰처럼 상주인원이 거의 없다. 국가가 박물관에 큐레이터를 배치하듯이 각 서원마다 상주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서원이 바람직한 관광 자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 농촌인구의 도시이주, 농업 생산경제에서 도시산업 경제로의 전환, 핵가족과 주거문화의 변경, 사회경제변화 등 서원이 자체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에서 어느 한 서원이 인력 확충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일곱째, 청소년, 어린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 일찍이 선비정신의 덕목을 체득시켜야 한다. 서원과 인근의 초·중·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선비정신 교육을 통해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인격 성장과 사회성을 키워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서원 지킴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여덟째, 국회에서 발의된 서원 진흥법이 하루속히 통과되어 국가적 지원과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게 하고 보존도 철저히 하고 활용도 지혜롭게 하면서 찾아가는 세계적 유산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유림들에게 용기와 격려가 되는 서원 운영의 실질인 지원은 개개의 서원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투자하는 것이고, 전 국민의 인격적 함양과 문화적 품격을 올려 국가 브랜드를 향상시키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되지 않은 서원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역사 잇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전통에 미래가 있다고 하였다. 법고창신의 정신으로 전통과 현재와 미래가 함께 공존하는 서원문화를 지속적으로 육성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세계유산 등재기준으로 본 한국의 서원

1. ‘OUV’의 의미 되새기기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한국의 문화사에서 기념비적 사건이다. 한국의 서원은 이제 세계로부터 한국 전통문화의 보편적 가치를 보여 주는 탁월한 증거로 평가받고 있다. 서원이 구시대적 유물, 당쟁의 구심체로 평가절하 되던 앞선 시기와 비교할 때 실로 놀라운 변화라 할 수 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중요한 과제는 아직도 완강하게 잔존하고 있는 서원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냉랭한 시선을 거두어들이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원에 대한 의미 있는 재해석 작업이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서원을 현대문명에 접목할 수 있는 생생한 재해석 작업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어야 비로소 적절한 보존과 활용대책이 성립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럼 우리는 서원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어떤 잣대에 의해 그 논의를 수렴하고 통합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라는 대원칙은 서원의 변화를 인도하는 등불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미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의 서원은 세계문화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입증하는 등재기준 ii), iii), iv), vi)의 항목들을 충족하여 등재되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만들어갈 새로운 서원상도 이러한 세계문화유산의 대원칙을 존중하면서 시대에 맞게 변형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서원의 ‘OUV’는 한국이 세계인들과 약속한 변화의 대원칙이자 기준점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동안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을 중심으로 서원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 논의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서원의 OUV를 충실히 존중하는 상황에서 전개되고 있었음은 매우 다행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만약 전국의 여러 서원이 각자의 개별성과 독자성이라는 울타리에 매몰되어 혹여 ‘서원답지 않는 서원’상을 노정한다면 이 문제는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만약 서원이 道館과 비슷한 모습으로 변질하거나, 禪房과 방불한 형식을 취한다면 이것은 서원의 존재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본고에서는 서원문화에 관한 전문연구자들이 2015년 작성한 서원의 보존대책과 활용대책에 관한 논문집(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편)을 참고로 하여 각 서원에서 유네스코가 제시하는 OUV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개괄해 보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 등 9개 세계유산 서원은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몸짓을 하고 있음은 크게 다행스럽게 판단된다. 그러나 몇 가지 사실들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로 떠오른다.

2. 등재기준 ii)가 던지는 메시지는?

구글을 통해 검색해 보면 UNESCO-ICOMOS가 함께 작성한 세계유산에 관한 OUV는 그 의미가 결코 간단하지 않다. 이 추상적인 의미를 명료화하려는 노력들이 전문가 집단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분야의 문외한인 필자로서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1976년에 있었던 UNESCO의 전문가 미팅에서부터 OUV에 관한 2005년의 Kazan Meeting에 이르기까지 그 용어의 개념사에 관한 다양한 접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UNESCO와 ICOMOS가 추천하는 ‘What is OUV’(Berlin, 2008)라는 책자를 간행하여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비교의 틀을 제시해주고 있어 서원연구자들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서원이 등재기준에서 벗어난 다른 항목들은 무엇이며, 그것들을 만족할만한 문화적 요소는 서원에서 발견할 수 없는가 등은 앞으로 충분히 논의할 만한 대상이라고 하겠다.

자 그럼 등재기준 ii)를 일별해 보도록 하자. 등재기준 ii)는 인류의 중요한 가치가 교류된 것을 보여 주는 건축이나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계획이나 조경설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났거나 세계의 특정 문화권에서 일어난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¹ 여기에서 방점은 문화 ‘교류(interchange of human values)’에 있다. 이에 한국측의 답변에서는 “한국의 서원은 중세 동아시아 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한 성리학이 조선 사회에 정착, 보급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등재기준 ii)를 둘러싼 양측의 문답은 서원이 새로운 문화수용의 첨병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에서 합의점을 찾고 있다. 서원이 성리학의 수용, 확산, 조선 성리학의 심화라는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이행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서원은 문화의 발신처가 아니라 조락한 소비처로 기능하고 있음을 연구자들은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서원은 “고리타분”, “제사 지내는 곳”, “한자 공부하는 곳”, “비슷한 건물 배치” 등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이는 서원 활용에 있어서의 최대 난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바꾸어 생각하면 오히려 장점으로, “지성사의 거점으로서 고품격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아늑한 공간(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더라도 몇몇의 사람들이 한적하게 서원 문화를 느낌)”, “서원의 보편성과 특수성(인물/제향 등)이 함께하는 재미있는 이야기” 등의 가치를 보다 일반인들에게 다가가기 쉽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흥미도”에 대한 부분도 결코 간과하여서는 안 되며, 흥미와 가치 전달을 적절하게 배분해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도산서원 활용계획 중)

그런데 등재기준 ii)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서원의 연구기능을 강력하게 복원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제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보존대책과 활용대책이 제향과 강학이라는 양대 도식 속에 가두어져 있고, 전통시대의 강학은 사실상 왕성한 연구기능과 통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소홀히 하고, 강학을 ‘학습(schooling)’이라는 좁은 영역 속에 가두어 두고 있다. 한국의 서원이 그 지성사적 역할을 왕성하게 했던 시기는 중국의 성리학을 수용하여 조선사회에 토착화시킨 16세기로서, 서원의 연구역량이 극대화된 시점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의 모든 서원은 사실상 동아시아 유학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정도의 연구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가능한 대안은 도산서원과 국학진흥원 관계처럼 상호 상보적인 ‘연구 클러스트’를 조

1. <The Criteria for Selection> “to exhibit an important interchange of human values, over a span of time or within a cultural area of the world, on developments in architecture or technology, monumental arts, town-planning or landscape design”

직하여 서원이 연구 집단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구상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야 비로소 서원이 새로운 문화 모형의 거소로 자리할 수 있을 것이다.

3. 등재기준 iii)과 iv)의 유형자산 보존대책은 ?

등재기준 iii)은 사실상 9개 서원 모두가 충족하고 있는 항목이다. 등재기준 iii)은 “문화적 전통, 또는 현존 하거나 소멸된 문명과 관계되면서 독보적이거나 최소한 특출한 증거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² 여기에서 강조점은 물론 ‘독보적이거나 특출한 증거(unique or at least exceptional testimony)’라는 점에 있다. 한국 측은 이에 대해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사학교육의 가장 전형적인 건축형식과 공간의 증거를 보여 줄 뿐 아니라, 서원과 주변 경관과의 특출한 관계를 보여 준다.”라고 응답하였다. 매우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보여 지나, 비전문가의 소견으로서는 ‘독보적이거나 특출한 증거(a unique or exceptional testimony)’라는 의미를 좀 더 확장할 수는 없는가 하는 점이다. 이 점은 보존과 활용대책의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부지불식간에 관여될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예로 전국으로 흩어져 있는 서원관련 각종 형태의 고문서, 목판, 그리고 구비 전승 설화들 등도 매우 독특한 서원의 역사를 보여 줄 수 있는 증표들이다. 각 서원의 활용대책을 건의한 전문연구자들도 이 ‘유니크한 증표’에 상당한 관심을 표하고 있고, 간혹 독특한 시각을 드러내는 보고서도 있다. 한 예를 보자.

병산서원의 외삼문인 복례문과 누각인 만대루 사이에는 광영지(光影池)라는 작은 연못이 조성되어 있다. 광영지는 땅을 상징하는 네모난 연못 가운데, 하늘을 상징하는 둥근 섬을 둔, 전형적인 ‘천원지방(天圓地方)’을 표현해 놓았다. 강학에 열중하던 병산서원 유생들은 광영지 앞에서 지친 머리를 가다듬었을 것이다. 병산서원 밖에는 ‘달팽이 뒷간’이라 불리는 특이한 모양의 옛 화장실이 있다. 이 화장실은 출입문이 없는 대신, 진흙 돌담의 시작 부분이 끝 부분에 가리도록, 달팽이처럼 감겨져 있는 형태로 안에서 근심 풀고 있는 사람을 배려해 놓았다. ‘달팽이 뒷간’은 서원에서 굶은일을 하던 일꾼들이 사용하였다. 힘든 일에 지친 일꾼들의 노고를 잠시나마 풀어주는 해학의 공간이었던 것이다.

이 기사는 병산서원에 대한 소묘, 혹은 스토리 텔링의 한 꼭지로 이 ‘달팽이 뒷간’을 거론하고 있으나 이 부분이 결코 병산서원의 ‘독보적이거나 특출한 증거’로 제시되지는 않으리라 본다. 여하튼 각 서원은 그들 서원만이 지니고 있는 개별성과 차별성을 뚜렷하게 각인하는 작업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당호를 통해 서원건축의 의미를 확인하는 병산서원의 해석이나, 서원에 깃든 한말 의병활동의 관련자료를 재조망하면서 서원에 대한 해석의 지평을 확대한 무성서원 등은 확실한 지기 정체성을 확보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한다.

한편 등재기준 iv)는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들을 보여 주는 탁월한 사례가 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건조물,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 또는 경관이여야 한다.”³고 못 박고 있다. 이에 대한 한국의 응답은 “한국의 서원은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하는 특유한 건물배치와 건물유형을 창출하여 성리학이 추구하는 천일합일 사상

2. <The Criteria for Selection>, “to bear a unique or at least exceptional testimony to a cultural tradition or to a civilization which is living or which has disappeared”

3 <The Criteria for Selection>, “to be an outstanding example of a type of building, architectural or technological ensemble or landscape which illustrates (a) significant stage(s) in human history”

이 반영한 유교건축 미학의 전형을 보여 준다.”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서원건축을 ‘천인합일’의 이념과 연결하는 노력은 매우 깊은 통찰을 보여준 명백하나, 모든 서원을 설명하는 중심적인 키워드로서 과연 적당한지는 계속 논의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예로 옥산서원과 병산서원 만대루에 대한 설명문을 참조해 보자.

가. 천인합일의 조화! 서원 건축 : 옥산서원은 서쪽 자옥산을 바라보며 서향을 하고 있다. 북쪽 화개산을 주산으로 해서 앞으로 흐르는 자계천과 주변의 울창한 수목이 빼어난 경관을 이룬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서원은 자계천 둔덕의 너럭바위인 세심대를 마주 보는 곳에 있다. 예전에는 지금의 진입로가 아닌 서쪽 자옥산 자락의 하마비를 지나, 자계를 가로지는 외나무 다리를 건너서 가야했다. 세심대 너럭바위에서 그 뒤로 서원을 구성하는 건물들을 배설하여 서원의 유식공간, 강학공간, 제향공간이 하나의 축선상에 앉히도록 했다. 서원출입문-루-강학공간 마당-강당-사당출입문-사당으로 이어지며 설정된 중심축에 건물들이 배치되었고, 기타 건물들은 중심축 좌우측으로 병렬하여 배치되었다. 건물들은 전형적인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를 하고 있다.

나. 누각인 만대루(晩對樓)는 유식 공간을 대표한다. 만대루에서 바라보는 병산과 낙동강은 절경이라 할 수 있다. 이곳에서 유생들은 유식도 하고 시회(詩會)를 가졌던 것이다. 병산서원의 이러한 공간 구성과 건물 배치는 제향·강학·유식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조화로운 건축 구성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이상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4. 등재기준 vi)이 제시하는 신앙, 예술, 문학과 연계성 여부는?

등재기준 vi)은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을 지닌 사건, 또는 살아 있는 전통, 사상, 신앙, 예술, 문학 작품과 직접적으로 또는 형태적으로 연계된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이 기준은 다른 기준과의 연결 속에서 그 의미를 지닐 것임을 첨언하고 있다.⁴ 이 기준에 대해 한국 측은 “한국의 서원은 서원 요건의 중요한 요건인 제향을 지금도 시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 서원은 지방문화와 교화의 중심지로서 도서 관과 출판의 기능을 담당하면서 많은 문집, 문헌, 목판 등을 남겼다”라고 응답하였다. 한국서원이 고유의 제향기능과 출판, 장서 기능을 잘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향의례는 유교문화의 속성이 지금도 촌락사회에서 유지되고 있는 경이로운 현상이다. 소수서원이 도동곡과 연계한 제향의례문화 체험을 추진한다든지, 기호예학의 중심지인 돈암서원이 제향의례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등의 노력은 서원의 존재의미를 확인하는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앞으로는 이 제향의식을 조선의 도통론, 생사관, 삶 의 양식등과 관련한 좀 더 확대된 차원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이와 함께 등재기준 vi)에서 주목되는 점은 서원과 관련된 예술, 신앙, 문학작품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라는 점이다. 이미 옛 선비문화가 사실상 사라지고 있는 현장에서 그 잔존된 자료들을 발굴 보존한다는 것은

4. <The Criteria for Selection>, “to be directly or tangibly associated with events or living traditions, with ideas, or with beliefs, with artistic and literary works of outstanding universal significance.”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this criterion should preferably be used in conjunction with other criteria);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작업이다. 필암서원에서 인종이 그린 묵죽도(墨竹圖)로 한편의 서사를 구성한다든지, 김인후의 문학 활동을 조명하는 일 등은 서원문화의 다양성을 알려 주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각종 문집에 산재해 있는 서원문화에 관한 다양한 사료들을 집대성하고 그것을 쉬운 언어로 후대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도동서원과 옥산서원의 문루에 게시된 뜻 모르는 현판, 계단과 담장, 사우 속에 담겨 있는 여러 상징물과 도형 등은 새로운 세대들에게 낯설기는 하나, 해독하고자 하는 열망을 부추기는 문화유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연속 세계유산의 보전 상태 관리

연속 유산 ‘한국의 서원’은 장기간의 기록, 연구, 평가와 심사를 거쳐 2019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었다. 당사국 대한민국의 최종 신청은 국제 이코모스의 사전 ‘업스트림(upstream)’ 협의와 자문 과정의 도움을 받았다. 첫 신청서는 2015년에 제출되었으나 제안된 유산을 신청할 등재기준, 포함되어야 할 구성요소들, 국내외 비교연구들을 포함한 주요 사안들을 좀 더 고려하기 위해 철회되었다.

이코모스의 업스트림 과정과 2016년 자문 미션을 거쳐, 몇 가지 의미 있고 중요한 경계 조정, 제안된 등재 기준들의 개선, 추가 비교 자료와 관리 정보를 포함해서 새로운 신청서가 2018년에 제출되었다. 신청에 대한 이코모스 현지실사는 등재를 지지했고, 아홉 곳의 건물군으로 구성된 이 유산은 2019년 바쿠에서 개최된 제 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되었다.

이코모스 현지실사의 권고에 근거해 다음의 등재기준(iii)으로 이 유산은 등재되었다.

1. 등재기준(iii)

‘한국의 서원’은 한국의 성리학과 관련된 문화 전통에 대해 교육과 사회 활동의 형태로 뛰어나게 증거하며, 그런 활동들의 많은 부분은 지속되고 있다. 서원은 중국에서 유래한 성리학이 한국의 지역 조건에 적응해 형성된 교육기관으로, 그러한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며 기능, 계획, 건축의 측면에서 그러한 변형과 현지화의 과정에 대한 뛰어난 증거이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관한 진술에서, 포함할 구성요소들의 선정을 통해 유산의 완전성이 설명되었고, 적절한 경계선이 잘 설정된 완충구역을 포함하며, 유산이 높은 수준의 완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었다. 보호관리 또한 적절하다고 고려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다음과 같이 주목했다.

각 서원은 관리계획에 상응하는 종합관리계획을 갖고 있다. 더불어 다양한 핵심 보전관리 매뉴얼과 지침들이 있다.

등재 당시 세계유산위원회는 당사국이 다음을 고려하도록 권고했다.

- 서원들을 위한 총괄 관리 문서 개발을 완성할 것
- 하나의 유산으로서 9곳 구성요소의 통합 설명을 좀 더 발전시킬 것

이같은 평이한 요청사항들은,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그러한 OUV를 보여주는 속성들에 관한 의문들과 이 세계유산을 구성하는 9곳의 분리된 구성요소들을 보호,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들을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해 세계유산 등재신청 기간 동안 훌륭한 작업이 착수되었음을 말해준다. 비록 서원 집단의 등재를

자연시키기는 했으나, 결국 좀 더 탄탄한 등재가 이루어졌고 보전상태 보고 및 관련 절차에 대한 요구가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성과를 통해 업스트림 과정의 가치가 입증되었다.

2. 보전 과정의 상태

〈세계유산협약〉과 그 〈운영 지침〉은 세계유산의 ‘보전 상태’와 관련된 일련의 의무와 절차들을 담고 있다. 4조, 당사국의 의무에는 문화 및 자연 유산의 식별, 보호, 보전, 설명, 그리고 미래 세대들에게 전승하는 의무가 포함된다. 5조에는 다음과 같이 당사국의 책임이 상세히 제시되었다.

5조

각 협약가입국은 자국 내에 위치하는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전과 설명을 위한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인 조치가 취해지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자국에 적합하게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 (a) 문화 및 자연유산이 지역사회의 생활에서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종합 계획에 유산 보호를 포함시키는 종합 정책을 채택한다.
- (b)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전, 설명을 위한 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적절한 직원과 갖추고 임무 수행에 필요한 수단을 갖는 기관을 하나 또는 그 이상 자국 내에 설치한다.
- (c) 학문적, 기술적 연구와 조사를 발전시키고 자국의 문화 또는 자연유산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운영 방법들을 마련한다.
- (d) 이러한 유산의 식별, 보호, 보전, 설명과 재할에 필요한 적절한 법적, 학술적,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한다;
- (e)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전, 설명 분야에서 전국 혹은 지역 훈련 센터의 설립 또는 개발을 촉진하고 이 분야에서 학술 연구를 장려한다.

세계유산들은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되어 여러 방식으로 검토된다. 정기보고의 정규 주기를 통해 조사와 보고를 요하는 관심사들이 드러날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현재 세 번째 주기 정기보고 과정에 있다. 덧붙여, 당사국들은 〈운영 지침〉의 172항에 따라 세계유산의 OUV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들에 관해 세계유산센터에 고지할 의무를 갖는다. 시민사회 또한 174항에 따라 유사한 관심사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당사국의 보고, 시민 사회의 경계, 또는 세계유산위원회 자체의 계획(자체적인 계획 또는 세계유산센터와 자문기구들, 곧 ICCROM(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IUCN(국제자연보전연맹)의 자문에 근거한 계획)을 통해 사안들이 보전 상태의 틀 안에서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된다.

‘한국의 서원’의 경우, 등재 당시 세계유산위원회가 위에 인용된 두 가지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요청했으나 당사국에 향후 보전 상태 보고서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새롭게 등재된 ‘한국의 서원’에 대한 보호와 관리 방식이 그 당시 크게 우려할 일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고 세계유산센터를 통해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세계유산위원회 앞에 놓인 유산들의 보전 상태 절차에는 다음과 같이 다수의 메커니즘이 있다. 대응 모니터링 실시, (대개 관련 자문기구들의 전문가들과 UNESCO 내 세계유산센터의 대표자가 맡는다), 당사국 자체의 보고서, 각 세계유산위원회 회기에 고려하도록 제공된 간결하고 집약적인 보전 상태 보고서. 덧붙여, 이러한 절차와 병행해, 자문기구들은 <운영 지침>의 172항에 따라 세계유산센터에 고지된 특정 프로젝트 또는 제안에 대해 ‘기술 검토’를 제공할 수도 있다.

3. 연속 세계유산

연속 유산 등재신청은 최근에 갈수록 일반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다수의 분리된 구성요소들을 OUV를 나타내도록 조합해 세계유산목록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세계유산협약>의 1조에 의하면 문화유산은 건물, 기념물, 유적지(집단 포함)로 구성된다. <세계유산협약>에 대한 <운영 지침>은 연속 유산의 등재를 가능하게 하는데, 그것은 동일한 역사-문화적 집단에 속하거나 어떤 지리 지역의 특징을 보여주는 동일한 유산 유형이거나 동일한 지질학적·지형학적 구성물, 동일한 생물지리적 지역, 또는 동일한 생태계 유형일 경우이다.

‘한국의 서원’은 아홉 개의 ‘건물군’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연속 세계유산들의 응집력 있는 통합 관리를 위한 접근방법은 계속 개발되고 있다. 연속 유산 등재신청의 개별 구성요소들은 별도의 소유권, 법적 규제, 관리 방식을 갖는 것이 인정되나 응집력 있는 단일체로서 유산의 전체성 그리고 <세계유산협약>에 의거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나타내는 속성들을 보전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특히 연속 유산 등재가 주 혹은 국가의 내 관할권을 넘어갈 경우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4. 나가사키 지역의 은둔 기독교 유적지들

2018년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과 유사한 유산은 ‘나가사키 지역의 은둔 기독교 유적지들’이다. 이 일본 유산은 10개의 마을, 성과 대성당 유적 등 12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규슈섬의 북서쪽 부분에 위치한 이 연속 유산은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10개의 마을, 하라성과 대성당 유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들은 기독교 신앙이 금지되었던 시대와 1873년 금지의 공식적 해제 이후 기독교 공동체의 재활성화를 보여준다. 이러한 유적지들은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금지 기간 동안 신앙을 비밀리에 전도한 나가사키지역의 숨은 기독교인들에 의해 형성된 문화적 전통에 대한 독보적인 증거를 지닌다.

일본 남부에 위치하고 다수의 연안 섬들을 포함한 이 연속 등재 유산은 두 개의 현과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에 걸쳐 있으며 다양한 소유권과 관리 방식을 갖고 있다. 국가 수준에서 이러한 구성요소들은 모두 국가 <문화재보호법>으로 보호된다. 또한 12개의 구성요소들에 모두 적용되는 공통의 종합적인 ‘보존관리계획’이

있다. 일본에서 세계유산 관리는 ‘학술 자문 위원회’가 자문하는 ‘세계유산 보존 및 활용 위원회’에 의해 감독된다.

5. 실크로드

이와 대조적으로, 아시아에서 연속 등재의 매우 다른 형태는 ‘실크로드: 창안-톈산 회랑 도로망’이다. 이 연속 등재 유산은 창안/튀양(한나라와 당나라 왕조의 수도)과 중앙아시아의 제티슈지역 사이 역사적인 실크로드 도로망의 5,000km 구간에 걸쳐 있으며, <세계유산협약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의 부록 3에 따라 “경로 유산”로서 등재된 33곳 유적지를 포함한다.

이 유산은 한나라와 당나라 왕조에서 중국의 중앙 수도였던 창안/튀양부터 중앙 아시아의 제티슈지역까지 뻗는 5,000km 구간의 방대한 실크로드 도로망이다. 기원전 2세기와 서기 1세기 사이에 형태를 갖추어 여러 문명을 잇고 무역, 종교적 신념, 과학 지식, 기술 혁신, 문화 활동, 예술의 광범위한 교역을 용이하게 했으며 16세기까지 계속 사용되었다. 이 경로망들에 속한 33개의 구성요소에는 수도, 여러 제국과 칸 왕국의 궁전, 교역 정주지, 불교 동굴사원, 고대의 길, 역참, 통행로, 봉화탑, 만리장성의 구간, 요새, 무덤, 종교 건물들이 포함된다.

등재신청 자체는 등재되기 약 5년 전인 2009년에 결성된 ‘실크로드 조정 정부간 위원회’가 감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유적지 관리의 적합성과 능력을 인정하면서 등재 당시 세계유산위원회는 다음의 내용을 표명하는 유산의 OUV 진술을 채택했다.

특히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 국가가 협력해 국제적인 협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관리 방식은 다양하며 아직 세 당사국 사이에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조정 위원회의 존재와 역할은 주목할 만하나, 단일 당사국과 다수의 지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연속 유산들로부터 더 나은 선례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6. 세계유산 오스트레일리아 교도소 유적

세계유산 오스트레일리아 교도소 유적은 한 국가가 연속 세계유산의 관리와 보전을 하지만 소유권이 다양한 형태이고 주와 지방 관할구역들에 걸쳐 분포하는 전형적인 예이다.

이 유산은 18세기와 19세기에 오스트레일리아 국토에 대영제국이 설립한 수천 곳 가운데 선정한 11곳의 형별 유적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유적지들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의 프리맨틀에서 킹스턴 그리고 동부의 노퍽 섬 아서스 베일; 북부의 뉴사우스웨일스 주 시드니 주변 지역에서 남부의 태즈메이니아 주에 위치한 장소들까지 오스트레일리아 전역에 분포되어 있다. 1787년에서 1868년까지 80년에 걸쳐 약 166,000명의

남성, 여성, 아이들이 영국 사법부에 의해 유형수 식민지들로 유배를 선고받아 오스트레일리아로 이송되었다. 각 유적지는 징역형과 식민지 건설을 돕는 강제노동을 통한 재활이라는 두 측면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오스트레일리아 교도소 유적’은 대규모의 죄수 이송과 죄수들의 존재와 노동을 통한 유럽 강대국들의 세력의 식민지 확장에 대한 최상의 잔존 사례들을 보여준다.

개별 구성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노퍽 섬, 킹스턴과 아서스 베일 역사지구(1788~1814, 1824~1855)
- 뉴사우스웨일스 주, 파라마타 파크, 옛 총독 관저와 영내(1788~1856)
- 뉴사우스웨일스 주, 시드니, 하이드파크 병영(1819~1848)
- 브릭켄돈 - 태즈메이니아 주, 롱퍼드, 울머스 에스테이트(1820~1850년대)
- 태즈메이니아 주, 마리아섬 국립공원, 달링턴 보호관찰소(1825~1832, 1842~1850)
- 뉴사우스웨일스 주, 와이스맨스 페리, 올드그레이트노스로드(1828~1835)
- 태즈메이니아 주, 사우스 호발트, 캐스케이드 여성 공장(1828~1835)
- 태즈메이니아 주, 포트 아서, 포트 아서 역사유적지(1830~1877)
- 태즈메이니아 주, 노퍽 베이, 탄광 역사 유적지(1839~1869)
- 뉴사우스웨일 주, 시드니, 코카투 섬 유배지(1839~1869)
-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 프리맨틀, 프리맨틀 감옥(1852~1886)

이러한 11곳의 다양한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진 연속 유산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세 개 주와 호주 연안 한 준주(準州)에 위치한다. 이 유산의 한 구성요소는 중앙정부가 소유하는 반면, 다른 구성요소들은 주/준주(準州) 차원에서 소유한다. 모든 구성요소들은 세계유산에 규제하는 국가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OUV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들은 장관이 책임지도록 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지방계획 도구와 지침은 물론 주와 준주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각 구성요소는 자체의 관리계획을 갖고 있으며, 각각의 유적지 관리 기구와 방식은 다양하다.

이러한 11개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유산의 총괄적인 전략적 관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 성취된다.

- 오스트레일리아 교도소 유적 운영위원회에 의해 감독되며, 여기에는 각 관할구역 대표와
- ‘오스트레일리아 교도소 유적의 전략적 관리 체제’ 문서가 포함한다.

오스트레일리아 교도소 유적 운영위원회는 정보를 교환하고 다양한 보전 관리 접근방법들을 다루는 포럼을 연다. 이와 함께 운영위원회는 중앙정부가 공식적으로 권한을 갖는 ‘간사(focal point)’ 집단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오스트레일리아 교도소 유적의 전략적 관리 체제’는 ‘한국의 서원’에 관련되는 전형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이 문서는 이미 부담스런 일련의 법률과 규정의 터미에 추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법령, 관리 문서, 소유권, 관리 방식, 그리고 인원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조정 체제를 제공해 준다.

예를 들어, 개별 유적지 계획을 포함한 법적 맥락과 관리 체계 같은 사안들을, 관련된 다양한 기관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개괄하는 그래픽으로 요약해 준다. 이 접근방법에는 어느 유산이 어떤 법이나 지침으로 다루어지는지, 누가에게 책임이 있으며 개별 유적지 계획 같은 어떤 관리 문서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이점이 있다.

운영 단계에서, 오스트레일리아 교도소 유적 운영위원회를 통해 얻은 조정으로 유산의 구성요소들과 그것들 각각의 OUV에 대한 기여를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장려된다. 이는, 예를 들어, 표준 조각 형태 사인, 로고의 사용, 그래픽, 연결 메시지, 식별이 쉬운 설명과 포맷 양식 등으로 구현된다. 이 모든 것이 각 구성요소들에서의 경험을 일관되게 하며, 개별 유적지에서 일어나는 개별적인 해석 내용, 전시, 프로그램, 행사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해 준다.

7. 관리 효과성

연속 세계유산 등재의 특별한 어려움은 등재된 유산을 전체로서 관리하는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관리 효과성을 평가하는 많은 모델과 접근방법이 있다. 세계유산의 맥락에서 특히 적합한 것은 Enhancing Our Heritage Toolkit이다. IUCN이 마련한 이 체제는 세계유산의 관리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가장 이용 가능하고 적절한 접근방법을 제공한다. 자연유산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지만 그것을 문화유산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세계 자연 및 문화유산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범위로 확장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 체제는 다음의 12가지 도구를 제시한다.

- 도구 1: 유적지 가치와 관리 목표 확인
- 도구 2: 위협요소 확인
- 도구 3: 이해당사자들 관계
- 도구 4: 국가의 맥락 검토
- 도구 5: 관리계획 평가
- 도구 6: 디자인 평가
- 도구 7: 관리 수요와 투입 평가
- 도구 8: 관리 절차 평가
- 도구 9: 관리계획 이행 평가
- 도구 10: 작업/유적지 산출물 지표
- 도구 11: 관리 성과 평가
- 도구 12: 관리 효과성 평가 결과 검토

이 모든 도구들이 매 상황에 반드시 관련되지는 않을 것이나 여러 유적지에 걸친 동일한 문제와 사안들에 수반되는 고려사항들을 도출만한 유익한 틀과 접근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연속 세계유산의 전체성에 관한 중

합적인 그림과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8. 유산영향평가

유산영향평가(HIA)는 보통 특정한 활동이나 프로젝트에 대해 착수되며 문화유산 장소의 유산 가치들에 미칠 잠재적 효과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에 집중한다. HIA는 독립적으로 또는 더 광범위한 환경영향평가의 일부로 착수될 수 있다. 세계 문화유산의 맥락에서, HIA의 핵심 고려사항은 유산의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전하는 특성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 두 가지 모두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ICCROM, ICOMOS 그리고 IUCN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및 국제영향평가협회(IIA)와 협력하여 노르웨이 기후환경부의 자금 지원으로 세계유산 리더십 프로그램의 체제 안에 세계유산 영향평가 안내서 문서의 새로운 공동 작업을 진행해왔다.

곧 출간될 통합된 ‘세계 유산 맥락에서의 영향평가를 위한 안내서와 툴킷’은 2021년 하반기에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새로운 문서는 현행 영향평가 방법론에서 최상의 사례들을 따르며 ‘2011 이코모스 세계 문화유산을 위한 영향평가 안내서’와 ‘2013 IUCN 환경평가에 관한 세계유산 권고’를 통합, 대체할 것이다. 이 안내서는 세계유산 체계의 개요, 높은 수준의 원칙들, 환경영향평가(EIA) 및/또는 HIA 착수의 명확한 절차를 설명하는 툴킷을 제공할 것이다.

새로운 HIA 안내서와 툴킷은 유산 내부나 주변에서 OUV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세계유산을 관리하는 당사국, 유산 관리자, 의사결정자, 지역사회 등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새로운 안내서와 툴킷은 완성되는대로 온라인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HIA는 다음 사항들에 의해 세계유산의 보전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 어떻게 속성들이 OUV를 전달하는지 평가
- 체계적으로 속성들을 잠재적 변화의 영향에 관련지음
- 평가를 위한 기준치를 정립하는 데 요구되는 정보를 확인
- 의사결정 과정의 논리 기록
- 영향 확인을 영향평가와 구분
- OUV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는 의사결정 안내

유산영향평가에 착수하는 데 사용된 이 방법론이 유연하며 기념물과 경관에서 고고학 유적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매우 다양한 활동과 프로젝트(보존 프로그램, 개발, 기반시설, 자원 추출이나 관광)에 걸쳐 다양한 장소들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적절하고 중요하다. 이 방법론으로 자연 및 문화 두 가지 장소의 유무형 속성들을 모두 다룰 수 있다.

HIA의 기본적인 논리는 다음의 몇 가지 간단한 단계와 질문들로 이루어진다.

- 유산의 어떤 속성들이 그것의 OUV를 전달하는가?
- 프로젝트/활동은 무엇인가?
- 프로젝트/활동에 관해 누구와 협의해야 하는가?
- 프로젝트/활동이 OUV를 전달하는 속성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 그 영향들은 수용될 수 있는가?
- 더 나은 대안들이 있는가?
- 프로젝트/활동을 진행해야 하는가?
- 부정적인 영향을 회피, 감소, 상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HIA의 단계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총괄 절차가 있다. 특히,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적절한 전문가들의 참여는, 유산 영향을 줄일 가능성이 있는 대안들에 대한 반복적인 고려만큼이나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다음과 같이 HIA를 완성하는 데 수행되어야 할 직접적이고 논리적인 일련의 단계들이 있다.

1. 선별(Screening)
2. 과업범주(개요)
3. 기준치 평가
4. 제안된 활동과 대안들
5. 잠재적 영향 확인과 예측
6. 영향 평가
7. 완화와 개선
8. 보고
9. 보고서 검토
10. 의사 결정
11. 후속 조치

‘한국의 서원’의 속성들과 특별히 관련성을 갖는 것은 그것들의 ‘범위가 넓어진 주변 환경’이다. 등재된 세계 유산 안에서 어떤 활동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해야 할 필요성은 현재 잘 수용되며 공통적인 관행이 되었다. 비슷하게, 완충구역의 확인으로 인해, 당사국 규제 기관, 지방정부와 개발 지지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관련자들은 완충구역 안에서의 활동들이 OUV에 기여하는 속성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갖고 있음을 이해한다.

이해가 덜 되고 있는 것은 더 넓은 주변 환경에서의 활동이 갖는 잠재적 영향인데, 비록 등재 유산과 완충구역 밖이라도 세계 문화유산의 가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자연 환경, 산의 조망과 전망이 모두 학문적 추구하고 사색을 위한 개념적 환경의 부분을 이루는 ‘한국의 서원’과 특히 관련 있는 고려사항이다. 따라서 최종 결정된 완충구역이 서원과 관련된 시각적 환경을 일반적으로 포함하지만, 영향평가 고려사항들이 더 넓은 시각적 환경을 포함하도록 그것을 확장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한국의 서원’ 9개 구성요소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관리에 도움이 될 만한 것으로 HIA 과정에 하나 추가된 요소는 참여 방법에 관한 지침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서원’의 활용과 관리에 있어 다양한 이해당사

자들과 기타 참여자들의 개입 수준에 관한 몇 가지 정보를 곧 마련될 총괄 관리 문서에 포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제안된 활동과 프로그램에 관해 정기적으로 간단하게 지역사회에 알리는 것이다. ‘한국의 서원’을 활용하거나 (물리적으로나 운영에 있어) 특히 그것과 가까운 사람들과 공적 모임이나 인터뷰 같은 기회를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단계에서, 몇몇 현지 사람들이 토론회나 포럼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서원 유림들과 관리자들이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갖지만 협력을 위해 지방정부를 초청할 수 있을 것이다. 역할들에 대해 특정해서 기술하는 것의 이점은 개입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기대가 적절히 관리된다는 점이다.

9. 방문객 관리

세계유산 등재로 직간접적으로 서원에서 발생할 방문의 장기적인 변화를 지켜봐야 한다. ‘방문’이라는 용어는 학자, 또는 관광객은 물론 정신적 혹은 문화적 이유로 찾아오는 이들 등 모든 방문객들에 적용된다. 관광은 아래에서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현재 상황의 주요한 이점은, 과다 방문이 개별 서원의 실제 수용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제적으로 방문을 관리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유적지의 조용한 사색적인 성격과 유림들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 장소들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추가적인 방문에 대한 수용력은 다른 형태의 세계유산들보다 소소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방문의 선제적 관리는 중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방문 관리의 사례들이 많다. 그런 경우로 중국 서부에 위치한 ‘둔황 모가오굴(막고굴)’을 들 수 있다.

간수성 둔황 오아시스의 남동쪽, 다추안강 위 절벽에 조성된 모가오굴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최고의 천혜 조건을 가졌으며, 가장 오랫동안 사용된 불교 미술의 보고다. 그것은 서기 366년에 처음 건조되었으며 4세기에서 14세기까지 불교 미술의 위대한 성취를 보여준다. 현재 492개의 동굴이 보존되어 있으며, 약 45,000제곱미터의 벽화와 2,000점이 넘는 채색 조각을 소장하고 있다.

여기서, 유적지 관리자들은 둔황학술원과 게티보전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유적지 외부 방문자센터, 동굴 입장표 발행과 시간 관리, (특히 바쁜 날) 군중 통제, 그리고 공기 질, 습도, 지하수, 손상, 먼지 같은 유적지 상태의 근거 중심 모니터링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방문을 관리한다. 이러한 모니터링으로 얻은 정보는 시스템에 피드백 되며, 방문에 대해 어떤 동굴을 언제 개방해야 할지, 몇 명의 방문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관리 결정사항에 영향을 준다. 방문 패턴은 기록되는 환경 데이터에 대응해 날마다 바뀌며, 방문객 예상치는 취약한 동굴들과 그것들의 놀라운 불교 예술작품의 보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설명하는 명확한 의사소통을 통해 관리된다.

방문객 관리의 문제와 동선 패턴은 연속 세계유산 ‘스톤헨지와 에이브베리 거석 유적’의 일부인 스톤헨지에서 성공적으로 다뤄졌다.

세계유산 ‘스톤헨지와 에이브베리 거석 유적’은 훌륭한 선사시대 기념물의 복합체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하다. 스톤헨지는 세계에서 가장 건축적으로 세련된 선사환상 거석이며, 에이브베리는 규모가 가장 크다. 서로 관련된 기념물, 관련 경관과 함께 그것들은 기원전 약 3700에서 1600년 경 사이 약 2,00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기념물을 세운 결과로, 신석기와 청동기 시대의 의례와 매장 방식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그것들은 우리 집단 유산의 독보적인 구현이다.

스톤헨지에서 방문객 경험과 유적지의 특질은 세계유산의 내부이지만 주된 환상 거석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중요한 기념물들이 대부분 보이는 구역에서 벗어난 곳에 새로운 방문자센터를 건설하면서 대단히 향상되었다. 이로부터, 방문객이 매우 많은 구역을 방문하는 단체의 규모와 수를 규제하고 유적지의 주요 역사 지역보다 현대 건물 안에서 주요 정보의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방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지장을 초래하는 서원 방문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러한 형태의 ‘유적지 외부’ 방문객 오리엔테이션과 관리가 적절할 것이다.

10. 관광

세계유산 등재로 ‘한국의 서원’의 모든 서원은 아니더라도 일부 서원에서 관광객이 증가할 수 있다. 비록 수적으로는 크게 다르겠지만, 세계유산 캄보디아의 ‘앙코르’에서 채택된 몇몇 접근방법들에서 관련되는 아이디어와 기법을 얻을 수 있다. 앙코르는 연속 등재유산은 아니지만 ‘한국의 서원’과 몇 가지 중요한 유사점이 있다. 앙코르는 매우 방문객이 많은 소수의 사원들을 포함해 여러 기념물과 유적지가 있는 대규모 문화적·정신적 경관이다. 그것은 또한 전통적인 문화 활동이 계속되지만 관광이 급속히 성장한 장소다.

11. 캄보디아 앙코르

앙코르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고고학 유적지 가운데 하나다. 삼림지대를 포함해 약 400km²에 걸친 앙코르 고고학 공원은 9세기에서 15세기 크메르제국의 다양한 수도들이 있었던 장대한 유적들을 포함한다. 그것들에는 앙코르와트의 유명한 사원과 앙코르토크에 위치한 무수한 조각으로 장식된 바이욘사원이 포함된다.

국제적인 캄보디아 방문은 앙코르가 세계유산에 등재된 다음 해인 1993년 약 118,000명에서 오늘날 5백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방문객 수는 신성한 공간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며, 지역사회 생활방식이 관광객의 기대에 따라 바뀌므로 관광 개발은 환경적·사회적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관광 효과는 세계유산 앙코르 안에 거주하는 크메르인들을 포함한 지역 공동체에 반드시 광범위한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

‘앙코르 관광 관리계획’은 여섯 가지 핵심 정책 계획으로 구성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 주요 문화 유적지에서 관광의 문제를 다룬다.

1. 각 방문객은 각기 다른 기대와 요구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며 다양한 기회들을 장려하고 홍보함으로써 긍정적인 방문객 경험을 제공한다.
2. 방문객 교육, 방문객 흐름 관리, 정보 전달의 개선을 통해 유적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인다.
3. 관광 경영자들에게 인센티브와 새로운 제품을 제공하는 업계와 제휴한다.
4. 지역 공동체의 많은 참여,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과 많은 인정, 현지의 문화적 신념·활동·전통의 수용과 기념 등을 통해 현지인들에게 혜택을 준다.
5. 캄보디아 정부가 이용 가능한 자원의 실제적 현실에 대응해 거버넌스를 향상시킨다.
6.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관광계 관계자와 조직을 위한 협의적 실행과 기회를 통해 이해당사자를 개입시킨다.

12. 앙코르 일몰(Angkor Sunset)

‘앙코르 관광 관리계획’은 관광 경영자들과 방문객들로 하여금 기존 관광 목적지보다 대안들이 더 낫다고 인지해서 그들의 행태를 변화시키도록 장려한다. ‘최고 앙코르 일몰(Best Angkor Sunsets)’ 프로그램은, 유용하고 고무적인 온라인 및 출판 정보를 전달하는 간단한 전략들이 어떻게 선제적으로 방문 패턴을 관리하고 혼잡을 줄이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프로젝트일 뿐이다.

‘최고 앙코르 일몰’ 계획은 혼잡을 줄이고, 물리적 손상을 방지하며, 안전을 높이고 방문 경험을 개선시킴으로써, 방문객 시장 세분화와 적절한 (그러나 서로 다른) 방문객 경험으로 세분화된 대응 시장이 관광 산업과 소통을 통해 어떻게 (세계유산과 방문자들을 위해) 앙코르 일몰 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일몰 감상은 앙코르 방문객들을 유치하는 핵심 요소이다. 대부분 방문객들은 프놈 바켕과 뿌레 립 등 몇 안 되는 사원을 방문하는데, 그곳의 혼잡은 방문자 경험의 질을 낮추고 중요한 요소들에 대한 물리적 압력을 야기한다. 또한 이러한 유적지의 방문객들에게는 안전의 우려가 있는데, 일몰을 따라 기념물들을 내려갈 때 특히 그러하다.

‘최고 앙코르 일몰’ 프로젝트는 방문객 유형을 경험 유형에 대응시키기 위해 다양한 일몰 선택을 확인하고 기록했으며 잠재적 경험을 분석했다. 그 의도는 관광객과 경영자들이 그들의 개별적 요구에 더 부합하는 대안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그들의 행태를 바꾸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다시 특정한 유적지에 대한 영향을 줄이고 전체적인 방문객 경험을 개선하면서 유적지 영향을 줄여 준다.

13. 결론

‘한국의 서원’ 연속 세계유산은 하나의 중앙정부(당사국)가 <세계유산협약>과 그 <운영 지침>에 따라 전체 유산의 관리, 보전을 보장할 의무를 가지므로 몇몇 다른 연속 세계유산보다 유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소유권, 상이한 유적지 관리 방식, 다수의 지방정부로부터 야기되는 문제가 있다. 유산의 구성요소들을 통합 관리하고 설명하는 데는 제안된 바와 같은 총괄 관리 문서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관리 효과성 평가, 유산영향평가, 방문과 관광 관리를 위한 확립된 기법들은 물론 다른 연속 세계유산의 경험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번역: 한필원)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의 성과와 과제¹

1. 세계유산 등재 노력

500년이란 긴 역사를 견디며 온전하게 계승, 보존되어 온 ‘한국의 서원’은 2019년 7월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인이 함께 지켜가야 할 소중한 유산이 되었다. 2009년을 시작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로 무려 9년이 넘는 여정을 함께했다. 2011년 12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록되고, 2015년 1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제출했으나 2016년 4월 이코모스 반려 평가에 의해 세계유산 등재신청 자진 철회라는 고비를 겪었다. 이후 2016년 8~9월 등재신청 재추진(이사회→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과정과 2016년 10월~2017년 2월 이코모스(ICOMOS) 자문 미션을 거쳐 2018년 1월 두 번째 등재신청서를 제출했고, 2019년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결정이라는 ‘한국의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인정받아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1)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첫걸음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은 2009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²에서 개최된 국내 세계유산 등재추진 검토 회의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되었다. 당시 전문가로 참여한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은 서원은 건축, 공간적 가치뿐만 아니라 의례·교육·학술·학파 등 인문적 가치도 우수하여 세계유산으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경쟁력이 있는 우수한 유산임 이야기하며 세계유산 등재추진을 제안하였다. 이후 ‘한국의 서원’은 국가브랜드위원회³ 이배용 위원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과정에는 2010년 구성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준비위원회’⁴를 통해 등재절차 및 추진 주체 구성, 잠정목록 등록, 등재 작업 관련 주요 사항 등을 논의하고 준비해나갔다.

2) 세계유산 등재추진

-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록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먼저 등재신청서 제출 이전(최소 1년)에 잠정목록을 먼저 세계유산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잠정목록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사전 예비목록으로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Operational Guidelines)’에 의거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유네스코 사무국의 심사를 거쳐 잠정목록에 등록된다. 이에 등재추진위원회는 잠정목록 신청서 작성을 위한 한국서원의 가치 재발굴이 필요했다.

-
1. 필자(박성진)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추진을 위해 2010년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뒤 지금까지 재단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2.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대통령 자문 기관이다.(2008.3.~2013.2.)
 3. 국가브랜드위원회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을 통해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대통령 자문 기관이다.(2009.1.~2013.3.)
 4.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준비위원회(이하 등재추진위원회)’는 전문가 및 관련 정부기관, 9개 서원의 유기적인 팀워크로 구성되었고 관련 회의(6회)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등재추진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⁵들을 통해,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을 중심으로 운영된 교육기관으로 제향-강학-교류와 유식의 공간을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정형화했고, 주변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며, 제향의례를 중심으로 서원의 무형적 가치를 현재까지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한국서원의 가치를 재해석하였다. 이후 이를 근거로 잠정목록 신청서를 작성했고 정부기관인 문화재청과 외교부를 통해 2011년 9월 세계유산센터에 잠정목록을 제출하였고 같은해 12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한국의 서원(Seowon, Confucian Academies of Korea)’이 등록되었다.

- 1차 등재추진(2011년-2016년)

잠정목록 등록 이후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후속 작업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기존 잠정목록 신청서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추진에 대한 사항들로 첫째, 문화재청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등재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및 추진단 발족. 둘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도출을 위한 기초조사. 셋째, 등재신청서 작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 회의 이후 등재신청서 작성, 예산 수급을 포함한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들이 마련되었으며, 등재추진위원회를 넘어 ‘한국의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는 실질적인 기구가 출범하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세계유산 등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브랜드위원회와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9개 서원이 속한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8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MOU를 체결⁶하였다. 이를 통해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적인 협업체계가 갖추어졌고 2012년 4월 추진단이 발족되면서 사무국이 운영되었다.

이후 등재추진에 참여한 전문위원들을 중심으로 등재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OUV 도출, 비교연구, 보존관리계획 등의 기초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동시에 등재 대상 9개 서원의 도면 및 사진 등의 기초자료들도 함께 확보해왔다. 이와 더불어 2012년부터 ‘한국의 서원’의 OUV에 중점을 두고 등재신청서를 작성하였으며, 신청서 작업에 필요한 9개 서원의 도면사진집, 서원총서, 도록 3종, 홍보영상들과 같은 작업들도 함께 병행하였다.



그림1. 추진단 발족과 협약(MOU)

5.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추진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 정책과 방향(이배용 위원장), 서원건축(이상해 교수, 이왕기 교수), 서원역사(정만조 교수), 향토서원(이해준 교수), 서원지리(김덕현 교수), 세계유산(이해은 교수), 서원운영(박성진 서원연합회 사무이사)
6. MOU는 ‘한국의 서원’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문화재로서 서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림2. 신청서 작업과 병행한 성과물

2015년 1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기 위한 ‘한국의 서원(Seowon, Neo-confucian Academies of the Joseon Dynasty)’ 등재신청서 작성이 완료되어 문화재청은 외교부를 통해 등재신청서를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였다. 이후 현지실사를 대비한 두 차례의 예비실사(중국-구어썬, 호주-크리스탈 벅클리)와 국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지점검 및 국내 워크숍 등을 실시하였다. 같은해 9월 본 심사인 현지실사가 시작되었고 심사자는 2009년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세계유산 등재 심사시 참여하였던 린 디스테파노(캐나다)가 현지실사를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이코모스로부터 두 차례의 보완자료 요청에 따른 답변자료 제출과 패넌 회의(파리) 참석 등 서원등재를 위한 이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6년 4월 ICOMOS 평가결과 반려(Defer)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의 서원’에 대한 등재신청을 자진 철회하게 되었다.

• 주요 추진경과

- 2011. 12. :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록
- 2014. 9. : 등재신청서(초안) 제출
- 2015. 1. :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
- 2015. 9~10. : ICOMOS 전문가 현지실사 및 보완자료 제출
- 2015. 12.~2. : ICOMOS 패넌회의
- 2016. 4. : ICOMOS 평가결과 반려(Defer), 세계유산 등재신청 자진 철회

- 2차 등재추진(2016년-2019년)

세계유산 등재를 재추진하기 위해 서원관리단에서는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9개 서원 실무자와 세계유산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재추진을 위한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등재 재추진을 위한 재단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모든 이들의 만장일치로 재추진 사항이 의결(2016.8.16.)되었다. 이후 본격적인 재추진을 위한 등재신청서 작업에 앞서 이코모스 자문실사를 시행(2016.7~2017.2.)하였다.

등재신청서 재작성을 위해 서원관리단은 이코모스 자문실사를 기반으로 기존 신청서 작성에 참여한 전문가들과 함께 새롭게 필진을 재구성하였다. 등재신청서 재작성 작업에서 서원관리단은 연구용역팀을 이원화하여 등재기준, 비교 분석을 서술하는 팀과 보존관리와 활용,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팀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기존에 신청서 작업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새롭게 작성된 등재신청서를 검토하는 자문단의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등재신청서 집필진들은 문화재청, 서원관리단과 함께 등재신청서 작업을 하였다. 이후 등재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OUV 도출, 비교연구, 보존관리계획 등의 세부 연구를 지속했다. 2018년 ‘한국의 서원(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등재신청서가 완료되어 문화재청과 외교부를 통해 같은해 1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였다.

이후 2018년 5월 현지실사를 대비한 국외 전문가 예비실사(일본-유가카리아)와 국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지점검 등을 실시하였다. 같은해 9월 본 심사인 현지실사가 시작되었고 심사자는 중국 이코모스 사무국장 쟡쥔(중국)이 현지실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이코모스로부터 두 차례의 추가 보완자료 요청에 따른 답변자료 제출과 당사국 면담 등 서원등재를 위한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2018년 5월 ICOMOS 평가결과 등재(Inscribe) 판정을 받게 되었고, 2019년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한국의 서원 9곳이 등재되었다.

• 주요 추진경과

- 2016. 9. : 우선 등재추진대상으로 재선정(문화재위원회)
- 2016. 12. : 2018년도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 선정(문화재위원회)
- 2017. 7. : 세계유산 최종등재신청 대상 선정(문화재위원회)
- 2018. 1. :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
- 2018. 9. 2.~9. : ICOMOS 전문가 현지실사
- 2018. 11. 23. : ICOMOS 제1차 패넬회의(프랑스, 파리) 및 당사국 면담
- 2019. 3. 11.~13. : ICOMOS 제2차 패넬회의(프랑스, 파리)
- 2019. 5. 13. : ICOMOS 평가결과 당사국 통보
(ICOMOS→유네스코 대표부→문화재청) : ‘등재’ 권고 통지
- 2019. 7. 6. :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아제르바이잔 바쿠) 등재 결정

3) OUV 발굴을 위한 연구성과와 과제

서원관리단은 ‘한국의 서원’ OUV 발굴을 위해 다수의 국내·국제 학술대회와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2011년 국제학술대회를 기점으로 2020년까지 국제 4회, 국내 2회의 학술대회를 통해 세계유산 가치, 서원의 보호관리 방안, 서원의 주요 기능과 관련된 국내외 학자들의 다양한 발표가 있었다. ‘한국의 서원’에 대한 학술연구와 자료 축적을 통해 세계유산 가치를 도출하는 한편, 그 가치를 국내·외에 홍보하여 일반인과 전문가들에게 한국 서원의 세계유산 가치를 널리 인식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서원관리단은 서원 및 세계유산 관련 현장 실무자와 함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고 논의하는 워크숍을 수시로 개최하였고, 그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9회의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표1.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추진을 위한 학술연구 주제

	구분	기간	학술회의 주제
1	국내	2013.4.18.-19.	한국서원의 현대적 계승과 활용
2		2014.4.18.	서원문화의 계승 방안과 서원의 현대적 활용
3	국제	2011.10.27.-29.	한국서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4		2013.5.23.-24.	전통사회 교육시설의 세계유산적 가치
5		2014.10.24.-25.	국외 교육유산의 이해와 한국 서원과의 비교
6		2020.10.29.	서원의 가치와 보존
7	워크숍	2011.12.12.	한국 서원 문화재 보존관리 현황과 미래(1차)
8		2012. 4. 18.	서원 기록문화 정리,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2차)
9		2012. 6. 15.	서원의 교육(강학)과 제향의례(3차)
10		2012. 11. 9.	서원 현판자료 정리,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4차)
11		2013. 3. 15.	세계유산등재 대상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5차)
12		2015. 4. 17.	세계유산등재 대상 9개 서원의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6차)
13		2015. 5. 27.	실사대비 등재 대상 9개 서원 보존관리 현안과 과제(7차)
14		2015. 7. 17.	실사대비 등재 대상 9개 서원 보존관리 현안과 과제(8차)
15		2015. 8. 21.	실사대비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 현황 최종 점검(9차)
16	국내 (예정)	2021. 11. 5.	세계유산 등재 이후 지속가능한 활성화 방안
17	국제 (예정)	2021. 11. 12.-13.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권고사항 이행 과제

국내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의 서원’과 서원을 중심으로 한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으며, 국제 학술대회는 서원의 비교연구 대상인 국외 교육유산과 한국서원의 세계유산 가치를 중심으로 개최되었다. 워크숍에서는 서원의 역사·건축을 비롯한 학술적인 주제뿐만 아니라, 보존관리·활용·문화재 구역 등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학술대회와 워크숍을 통해 축적된 연구성과를 주제별로 살펴보면, 크게 한국서원의 가치, 서원의 보호, 서원의 교육, 서원의 활용이라는 4가지 대주제로 나눌 수 있다.

- 한국서원의 가치

먼저, 한국서원의 가치와 관련하여 67건의 학술자료 중 27건의 학술자료가 있다. 본 주제에서는 서원의 가치를 발굴함과 동시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인 등재기준 및 절차, 비교연구를 통한 세계유산의 의미와 과제 제시, 속성(attributes) 관련 자료 정리 등 한국서원의 세계유산 가치를 발굴할 수 있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 서원의 보호

서원의 보호와 관련된 자료는 14건에 해당하며, 서원의 보존관리 현황이나 지속가능한 보호·관리방안을 도출하는 내용이다. 한국서원의 가치와 관련된 학술자료는 주로 학술대회에서 다뤄진 반면, 보존현황과 운영실태 및 과제에 관한 내용은 주로 실무진들이 참석하는 전문가 워크숍에서 다루어졌다. 학술대회의 주요

목적이 세계유산 가치 도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에 학술대회에서는 상대적으로 보존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가 주목받지 못했다. 향후 학술대회에서는 등재 이후의 보존관리 현황과 발전 방향들을 더욱 세부적으로 다루며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 서원의 교육

서원의 교육과 관련된 자료는 총 9건이 있으며, ‘한국의 서원’의 3대 기능인 제향, 강학, 교류 및 유식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여기에 해당하는 자료들은 OUV를 증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등재 정당성을 강화하고, OUV의 주요 속성을 도출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자료의 대부분이 등재추진 초기의 자료이기에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된 속성을 토대로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에 맞는 심층적인 자료를 재구성해야 한다.

- 서원의 활용

서원의 활용과 관련하여서는 총 6건의 학술자료가 존재한다. 여기서는 서원의 현대적 활용 및 계승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으며, 서원 연계 문화재활용사업이나 활용시설 등을 사례로 한 발표가 주를 이룬다. 서원 활용에 관한 학술자료는 전체 자료 중 약 9%에 그치며, 등재 이후에는 ‘한국의 서원’ 활용방안에 관한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9년 세계유산 등재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학술연구들이 등재기준, 완전성과 진정성, 보호관리 조치라는 OUV를 구성하는 세 가지 기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한국의 서원’의 OUV를 발굴하고 인정받은 경험을 기초로 이제는 지속가능한 세계유산이 될 수 있도록 유산 보존관리와 활용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들이 계속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을 학술대회를 통해 학계와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공유하여야만 한다.

- 등재 실사 관련 워크숍

이외에도 등재 실사 관련 워크숍이 3회 개최되면서 관련 학술자료 8건이 축적되었다. 해당 자료들은 실사 일정 및 동선, 시나리오 안내, 서원별 보존관리 현황, 실사 보완사항 등을 보여준다. 본 자료들은 실사 과정 중에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향후 우리나라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여러 전문가나 실무 담당자에게 생생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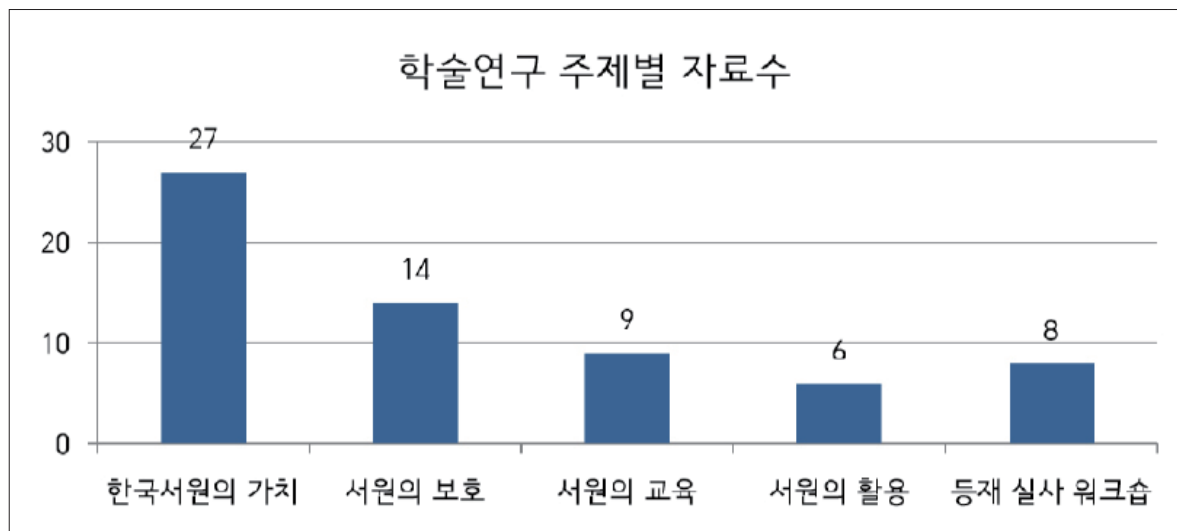


그림3.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학술연구 성과

2. 통합관리기구 추진 과정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추진 체계를 간략히 살펴보면, 한국의서원 세계유산 추진준비위원회(추진준비위원회)→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등재추진단(추진단)→(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서원관리단)의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업무 내용의 측면에서 볼 때 추진단과 서원관리단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추진단이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만을 목표로 했다면, 서원관리단은 세계유산 등재뿐만 아니라 이후의 통합 보존관리, 홍보 및 활용, 교육 등의 총체적인 운영을 목표로 한다. 둘째, 추진단이 임시조직에 가까웠다면, 서원관리단은 독립된 법인으로 이사회를 통해 ‘한국의 서원’에 대한 통합적인 논의와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 셋째, 추진단이 행정위원회와 전문위원회라는 이원화된 조직으로 운영되었다면, 서원관리단은 행정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이외에 9개 서원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 될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세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당해 유산에 소속된 대부분의 구성원들을 참여시키고 협업하는 구조가 가능하다. 서원관리단의 설립을 통해 9개 서원으로 구성된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의 큰 윤곽이 정해지게 되었으며 서원관리단을 중심으로 9개 서원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에 대한 통합관리 및 홍보에 대한 방향 설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1) 설립배경 및 추진연혁

9개 서원으로 구성된 ‘한국의 서원’은 전국에 분포한 연속유산이다. 따라서 단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6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8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분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연속유산으로서 ‘한국의 서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했다. 이러한 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을 위한 운영지침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등재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에 따라 추진단에서는 2014년 12월 통합관리에 대한 문화재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무급협약을 진행하였다. 2012년 4월에 추진했던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추진을 위한 협약’이 세계유산 등재 자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실무급협약은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9개 서원에 대한 보존관리를 위해 협조와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근거로 추진단은 9개 서원의 통합관리를 위해 문화재청 및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협약을 체결한 이후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정관 검토를 거쳐 문화재청에 재단 설립 신청을 하였고, 마침내 2015년 8월 5일 법인설립이 확정되면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등재추진단(추진단)’에서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서원관리단)’으로 출범하였다.



그림4. 통합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실무급 협약(MOU)

- 주요 설립배경

성격: 추진단 성격으로 발족,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

설립 목적: 세계유산 등재추진 지원과 등재 이후 통합보존관리

주요 업무: 등재 이전(세계유산 등재추진), 이후(9개 서원 통합관리 및 활용)

설립 근거: 세계유산 등재추진을 위한 협약 (문화재청, 14개 지방자치단체),

통합관리체계 구성에 대한 실무협약 (문화재청, 14개 지방자치단체)

세계유산 운영지침(114조): 연속유산의 경우 개별 구성요소들의 통합관리를 담보하기 위한 관리체계 반드시 필요

- 주요 추진 연혁

2010. 10.: 세계유산 등재 추진준비위원회 구성(국가브랜드위원회)

2012. 4.: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등재추진단 발족

2015. 9.: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창립(법인 인가)

2019. 7.: 세계유산 등재(통합관리계획 및 통합해설 마련 권고)

2019. 12.: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기구를 위한 기구 개편(이사회 승인)

2020. 2.: 재단 정관개정 허가신청(문화재청)

2021. 10.~현재: 지원조례 제정 추진 및 정관 개정 병행

2022. 상반기: (가칭)한국의 서원 유산관리센터 발족(예정)

2) 서원관리단 주요 활동(등재 이후)

2019년 7월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연속유산의 통합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리기구 개편과 예산지원에 따른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서원관리단은 2019년 12월 19일에 개최된 제5회 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기구 개편을 위해 재단 정관, 관련 규정 및 세계유산 관리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제도 정비(안)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 서원관리단은 현재 9개 서원을 통합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해 서원의 보존관리와 관련된 서원운영자, 행정조직, 전문가 등이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여 주체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과 서원의 OUV와 보존관리 수준을 지속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서원관리단의 기능과 역할은 세계유산 신청 당시 국제적으로 약속한 사항이다. 세계유산 등재 이후 2019년 하반기부터 2021년 현재까지 서원관리단에서 추진했던 주요 사업들은 크게 통합 홍보사업과 보존관리사업으로 구분되며 관련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통합 홍보	통합 보존관리
2019년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유산 등재기념식 및 기념행사 - 등재백서 발간 - 통합 홍보 및 활용을 위한 연구 - 한국의 서원 홈페이지 제작 - 홍보물 제작(통합브로셔, 달력, 서원 사진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모니터링 지표 및 시스템 구축 연구 - 세계유산 등재기념 표지석 디자인 - 통합모니터링 시행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 세계유산축전 - 통합교육교재(서원안내서) 발간 - 통합홈페이지 제작 : 각종 DB 자료 공개 - 소식지 발간(1, 2호) - 광고(KTX 및 지하철 역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모니터링 온라인시스템 구축 - 무인계수시스템 구축 1차(3개 서원) - 통합 안내판 제작 설치 - 건축도면집 제작(보완)
	  	  
2021년 (진행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속유산 통합 홍보사업의 지속관리 - '한국의 서원' 홍보 기념품 제작 - 서원 관리자 심화교육 (해설사, 서원관계자) - 홍보 콘텐츠 기획 및 개발 - 서원 홍보를 위한 지상파 방영 영상 제작기획 - 서원 세계유산 알리기 청소년 양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모니터링 운영 - 방문객 무인계수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 - 세계유산 정기보고를 위한 DB 구축 - 9개 서원 통합관제 시스템 (CCTV) 구축 - '한국의 서원' 유산관리를 위한 정사영상 촬영 - 9개 서원 주요 건축물 이력 데이터 구축
	 	 
	 	 

등재일 전후 2년간 '한국의 서원'에 대한 관심도를 인터넷 게시물 수를 통해 추정한 결과, 등재 전에는 3,721건의 게시물이 있었으며 등재 이후에는 6,885건의 게시물이 나타났다. 세계유산 등재 전에는 등재 시도 및 철회와 같은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등재 이후에는 등재 성공이나 '한국의 서원' 소개 등의 결과물이

보이며 등재 이전보다 약 2배 이상 게시물이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의 서원’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였고 향후 국내외 주요 검색 사이트를 대상으로 통합 홍보사업에 대한 ‘한국의 서원’ 검색어 트렌드 분석 등 보다 전문적인 빅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요구된다.

표2. 등재 전('17~'19), 후('19~'21 현재) ‘한국의 서원’ google 검색 결과

(단위: 건 / 19.7.9. 등재 전후 2년)

google 플랫폼 / 키워드		게시물(전체)		뉴스		동영상	
		등재 이전	등재 이후	등재 이전	등재 이후	등재 이전	등재 이후
한글	“한국의 서원”	3,090	6,030	181	980	145	383
일문	“韓國の書院”	150	235	3	4	1	5
중문	“韩国书院”	154	180	9	5	3	3
영문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327	440	32	34	16	20
총계		3,394	6,885	193	1,023	149	411

3) 통합관리기구 개편(안)

현재의 서원관리단은 세계유산인 ‘한국의 서원’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와 활용을 목적으로 현 재단의 기능 확대를 위해 (가칭)한국의 서원 유산관리센터(이하 유산관리센터)의 발족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전략목표(Strategic Objectives)’ 5Cs를 바탕으로 연속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관리 방향에 근거한 것이다.

- 세계유산 목록에 대한 신뢰(Credibility) 강화
 - : 서원과 행정 간 신뢰를 바탕으로 유산의 보존관리에 참여 유도
- 세계유산의 효과적인 보존(Conservation) 보장
 - : 서원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시스템(법, 제도)을 통한 보존여건 보장
- 당사국의 효과적인 역량구축(Capacity-building) 촉진
 - : 서원 관계자들의 보존관리 역량 강화
- 소통(Communication) 강화
 - : 서원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제고, 참여와 지지 향상
- 세계유산협약 이행에 있어 공동체(Community)의 역할 증대
 - : 서원 지역사회의 참여 증진을 통한 유산의 지속 가능한 보존환경 조성

이러한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9개 서원(연속유산) 통합관리기구 개편(안)과 수행할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주요 개정 내용

명칭 변경 : 서원관리단 ⇒ (재)한국의 서원 유산관리센터

- 개정 사유

세계유산 연속유산 통합관리에 부합된 재단 정관 개정

- 목적 및 사업 변경

세계유산 등재추진 과정(삭제) ⇒ 세계유산(연속유산) 한국의 서원 보호

-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유네스코 정기보고서(DB) 구축 및 통합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한국의 서원’ 국내·외 통합 관리 및 통합 활용에 관한 사항
- ‘한국의 서원’ OUV에 관한 심화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
- 9개 서원운영자 협의체 및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1) 유네스코 권고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 권고사항 1 : 연속유산(9개 서원) 통합관리계획 수립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9개 서원에 대한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현재 서원별 종합정비계획 수립은 기초지방자치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세계유산(연속유산)의 지속 가능한 보존관리 원칙의 적용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또한 향후 서원의 물리적 관광압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관광압력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세계유산 등재 이후 변화된 환경을 감안하여 각 서원에서 적용 가능한 관광관리계획이 수립되고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 권고사항 2 : 연속유산(9개 서원) 통합홍보방안 마련

9개 서원에 대한 통합홍보는 세계유산의 OUV를 널리 알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서원에 대한 개별 혹은 통합홍보 성과와 과제를 정리하여 개선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 및 연구소, 전시 및 박물관 등과 상호 교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기관별로 강점이 있는 관련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의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더불어 기 등재된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와도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동 사업의 개발 운영을 할 것이다.

(2) 유네스코 정기보고서(DB) 구축 및 통합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유네스코 세계유산 정기보고서(DB) 구축

세계유산 정기보고 제도는 세계유산에 등재된 유산의 보존상태를 점검 및 평가하고 체약국간 정보교환 및 협력 강화 등을 위하여 세계유산 협약 제29조에 따라 체약국에 부여된 의무사항이며, 매 6년을 주기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를 거쳐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세계유산 정기보고를 위해서는 각종 모니터링 자료를 유산관리센터에서 보관되도록 하며, 모니터링 성과는 매년 보고서 형태로 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유산별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될 사항은 통합보존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할 것이다.

- 통합 모니터링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해대비 안전점검(화재, 풍수해, 재난 예방) 활동과 문화재관리원을 배치하여 상시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는 보다 강화된 형태로 서원 내 전체 건축물과 시설물,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상시 및 정기 모니터링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유산관리센터에서는 각 서원의 특성에 부합되는 상시 및 정기 모니터링 지표개발, 모니터링 요원의 교육과 운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3) 한국의 서원 국내·외 통합관리 및 통합활용에 관한 사항

9개 서원에 대한 통합모니터링과 연속유산에 대한 국내·외 학술연구, 통합보존관리에 관한 우수사례 연구 등이 필요하다. 또한 세계유산으로서 유산 소개, 통합해설을 위한 교육실시, 서원 간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연속유산에 부합하는 해설 등이 필요하다. 이에 따른 통합관리 및 통합해설은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4) ‘한국의 서원’ OUV에 관한 심화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

서원에 대한 OUV 심화연구와 관련한 프로그램으로 ‘학술논문 공모’와 ‘학술총서 발간’ 등의 연구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서원의 OUV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세계유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 및 기관·단체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하는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계층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을 넘어 외부 지역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5) 서원운영자 협의체 및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서원의 지속가능한 보존관리를 위해 서원 관계자 및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이나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서원운영자 협의체 및 주민들의 역할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6) 세계유산 관련한 각종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한국의 서원’에 대한 국내·외 교류협력, 학술활동, 홍보활동 등 국제기구 및 기관, 국외 전문가 등과 교류 및 협력을 담당하는 중심 기구로서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등재 이후의 과제 국제학술포럼 총평¹

학술대회는 종합토론으로 끝이 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제가 이에 더하여 총평을 하게 되어 포럼에 참가하신 분들께 더 피곤하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 30분을 넘기지 않도록 유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최 측이 저에게 과제를 준 것은 오늘 개최된 국제학술포럼에 대한 총평입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하신 모든 분의 내용이 굉장히 의미 있고 도움이 되는 것들이어서 저는 오히려 발표 내용을 정리함으로서 이 포럼에 참가하신 분들이 그 요지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등재 이후의 과제”라는 제목의 국제학술포럼입니다만 발표하신 분들의 내용에서 이미 알 수 있듯이 포럼의 주제는 연속유산으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에 대한 통합, 보호, 관리·홍보 및 활용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포럼 주제를 크게 나누어서 보면, 대주제는 통합에 관한 것이고, 소주제는 보호, 관리·홍보 및 활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국 오늘 학술포럼에서 수차 언급이 되었지만 2년 전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서원’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때에 권고 사항으로서 보호, 관리와 관련되는 두 가지 현안을 제시했던 것이고, 오늘 포럼 역시 그 권고 내용과 관련된 논문을 발표하는 자리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오늘 계신 분들은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게 된 것은 세계유산 위원회에서 중요시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등재기준 (iii)에 근거해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통합 보호, 관리·홍보 및 활용에 관해서 논의할 때도 좁은 의미에서는 등재기준 (iii)에 한정해서 우리나라의 관련 기관에서 등재된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그것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등재기준 (iii)에 속하는 사항 외의 것까지 망라해서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 가치와 의미를 유지하고 또 향상시키기 위해 보호, 관리와 홍보 및 활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되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기조 강연, 학술 논문 발표 1부, 2부로 나뉘어 이루어졌었고, 1부는 ‘원칙과 전략’에 대해, 2부는 ‘현황과 대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1부는 세계유산에 관한 국외 전문가들이 ‘한국의 서원’의 통합 보호, 관리와 관련되는 기본 사항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을 해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2부 현황과 대책은 한국 측 전문가들, 그리고 또 현장에서 ‘한국의 서원’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준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발표하신 분들의 발표 내용 하나 하나에 바탕을 두고 요지만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 이상해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기조 강연을 하신 리차드 맥카이 교수의 발표문은 사실상 우리 ‘한국의 서원’을 어떻게 통합 보호, 관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호 과정에서 연속유산인 한국의 서원에 대해서 당사국이 해야 할 의무, 정기보고, 그리고 자연환경 훼손에 대비한 여러 가지 사안 등에 대해 환기를 해 주셨고 한국 정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서원 관련 단체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좀 더 현실성 있게 말씀하시기 위해 일본 나가사키의 은둔 기독교 유적지, 중국에서 서아시아로 이어지는 실크로드,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교도소 유적지의 사례를 통해 통합 보호 관리 계획과 관련되는 굉장히 도움을 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러한 자료들을 온라인에 공개해서 많은 사람이 잘 알 수 있게 하는 방법까지 제안해 주셔서 한국측에 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발표해주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조 강연 다음에 1부 ‘원칙과 전략’에 관해서는 국외 전문가 세 분이 발표하셨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인 방글라데시 이코모스의 샤리프 샴스 이몬 박사는 연속유산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의 통합 관리 현안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샤리프 샴스 이몬 박사가 오늘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들면, 문화유산의 보호나 관리와 관련되는 이코모스 혹은 세계유산 위원회에서 그리고 기타 국가에서 만든 관련 선언문이나 문서를 통해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유산의 보호 관리와 관련된 개념은 어떻게 전개되어왔는가 또 기존의 개념이 어떻게 확대되고 변화되어왔는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기존의 문화유산 보존 차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일은 유산 자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이슈와 연관되는 사안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더하여 유산 보존 담당관들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문화유산의 보호나 관리와 연관해서 ‘베니스 헌장’이나 ‘세계유산협약’ 그리고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던 것을 넘어 2005년 이후세계유산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많은 관련 선언문이나 협약 등을 이몬 박사가 소개해 주신 것은 우리 한국 측 관계자들에게는 크게 참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인 추세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속유산의 통합 관리는 수평적인 통합, 수직적인 통합 모두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조화 시키기 위해서는 부처 간 이해관계가 중요한데 그 이해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합 보호 관리 계획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하고, 비전은 하나로 지향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이몬 박사가 언급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아주 컸다는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중국 이코모스의 옌 하이밍 박사는 ‘한국의 서원’의 통합 설명, 해설, 홍보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하셨는데, 이 역시 한국의 서원의 통합 보호 관리를 위한 중요한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옌 하이밍 박사는 문화유산의 콘텐츠와 방법론으로 구분해서, 하나는 유산의 특징과 관련된 부분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제안해 주셨고, 또 하나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하이밍 박사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유산이 가지고 있는 사상에 속하는 것은 사회의 차원에서의 가치, 시간 차원에서의 가치, 공간 차원에서의 가치가 별개가 아니고 모두 연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것들 전체가 고려되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며, 또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수단과 관련해서는 전시관, 미디어 플랫폼 안내문 등과 연관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이밍 박사는 무엇보다도 해설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일종의 맞춤 해설과 같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해설자들이 잘 알고 또 해당 유산에 대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방문객들에게 어떻게 잘 이해하도록 알려주어야 하는가 하는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해설자가 가질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해당 유산과 관련되는 현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삶의 질의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려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발표한 일본 이코모스의 가리야 유가 부위원장께서는 ‘한국의 서원’의 통합 활용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가리야 유가 박사께서는 2018년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예비 실사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인 사항들을 열거하시면서 한국의 서원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하나하나 지적하셨고 또 일본의 문화유산 보호 관리와 한국의 문화 유산 보호 관리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서로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목표하는 것은 다를 바가 없는 측면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가 부위원장은 문화유산 환경의 보존 지정이나 보고는 고정된 관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특히 한국의 서원이 주변 자연 환경과 접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버퍼 존 설정에도 귀담아 들어야 할 참고가 될 말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가 부위원장은 실제로 2018년, 3년전에 한국에서 서원 9개 전부에 대한 예비 실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한국의 서원’의 보호 관리와 관련되는 사항들이 개선되었거나 혹은 더 좋아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서원을 관리하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잘 안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개선된 내용을 게시하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은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국 측이 앞으로 홈페이지 운영 등등을 할 때도 도움이 되는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부의 ‘현황과 대책’은 우리 한국 측 전문가들께서 큰 원칙에서 시작하여 구체적인 사례에 이르기까지 지난 몇 년간 진행해온 통합 보존 관리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해준 공주대학교 교수께서는 ‘한국의 서원’의 통합 관리 정책과 연관하여 다른 사항보다 관리 정책과 방향에 대해 네 가지를 제안하셨는데 이것은 실제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지적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에서도 귀담아 들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지 제안은, 첫째가 통합 보존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되는 것이고, 둘째는 통합 계승, 활용과 관련된 대응 상황이고, 셋째는 통합 정보 서비스와 해설 홍보자료의 중요성에 관한 것이고, 마지막 넷째는 학술 연구 및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9개 서원이 연속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유지하고 또 잘 알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쳐져 관리되어야 할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통합’이라고 하는 용어가 실제 의미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는 되새기고 재조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해준 교수의 토론자로 나오신 최종호 교수께서는 구체적인 대안들에 대해 제안해 주셨습니다. 최 교수는 실험치를 통한 한국의 서원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의 서원 관리단에서 참고할 좋은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국제문화재전략센터 박동석 이사장께서는 ‘한국의 서원’에 통합 홍보와 활용 정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활용 정책의 근거가 되고 바탕이 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헌법에 문화재 보호 정신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서 시작해서 통합 홍보와 활용에 속하는 여러 규정과 법령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문화재 활용 정책들은 시대성을 반영해서 문화 공간화라고 하는 미래상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핵심 전략과 관련되는 제반 사항들과 그것이 사회적 기능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 등등은 기존의 우리나라 문화재 보호 관리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은 사실상 문화재청에서 근래에 실제 실행하고 있으면서 또 앞으로 더 확대에 나갈 계획들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문화재 활용, 정부 지원과 연관지어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들 혹은 문화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정책이나 활용 등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문화재 활용 방안과 연관해서는 문화재 스스로가 그 문화재가 어떠한 것인가를 말하게 하라는 내용의 활용 방향이나 활용 홍보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외국 전문 학자의 자료를 인용하시면서 이 전통은 사실상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박 이사장의 발표 내용은 토론자로 나오신 류호철 선생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했습니다. 관광과 활용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것이 구분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인 것으로 파악되기도 하는 것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될 수 있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경거리 차원으로 머물 수 있다는 것을 토론자나 발표자께서 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문화유산을 고품질, 고수준 교육을 통해 한국의 서원 보존 활용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활용 방법에는 청년층 참여도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될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영주시 문화예술과의 금창현 팀장께서는 소수서원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서원’ 관리 홍보 활용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보호 관리 여건과 연관지어 소수서원의 보존 상태 그러니까 유산 구역이나 버퍼 존 설정 등과 관련된 실제에 속하는 현안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보존 상태 및 그 대책이 실제 어떻게 수립되었고 또 담당자로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와 활용 대책을 행정 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황상훈 기분좋은큐엑스 대표께서는 금창현 팀장이 발표하신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산이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도 살아있는 서원이 되도록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몇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제안은 서원 보호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 국민들이 세계유산 등재 의미나 가치를 체감하도록 해야 된다, SNS를 십분 잘 이용해야 된다 등입니다. SNS에 바탕을 둔 것이겠지만 글로벌 소통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의 서원’이 어떠한 것인지, 한국의 서원이 현대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세계인들이 이에 대해 공감케 할 필요가 있다 등입니다. 이러한 것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기후 변화라든지 지구적 문제와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의 많은 서원이 박제된 공간으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보호 관리 차원에서 그 방안을 더 강구할 필요가 있다든지 일차적인 단편적 활용에 그칠 것이 아니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이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젊은 사람이 서원의 활용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등에 대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서원은 일종의 한국의 어떤 사상 혹은 동아시아의 지나간 세대들이 가졌던 중요한 사상이었던 유학이나 성리학이 이제 현대인의 삶에도

기여할 수 있는 서원이 될 수 있는, 동양의 아카데미와 같은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제안들은 관련 기관에서 참고해야 할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의 박성진 국장께서는 ‘한국의 서원’의 통합 관리 홍보 활용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하면서 보였던 여러 노력들, 추진 과정, 그리고 통합 관리 기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조직으로 결성되었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지, 그리고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에 등재되기 이전에는 서원관리단이 어떤 활동을 했고, 또 등재 이후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활동을 해야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 남은 과제들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 국장의 발표 내용은 토론자로 나오신 류한욱 한국의 서원 협의회 회장이 통합관리기구가 어떤 식으로 개편될 것인가 하는 문제,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사실상 등재기준 (iii)에 근거해서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이 됐다는 것은 유형유산 측면만 강조해서 세계유산이 된 것인데 사실상 여기서 더 보태어 무형유산 관점에서 한국의 서원을 어떻게 보호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데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과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고 또 서원의 가치를 활용한 서원 활용 인프라의 구축,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현안들은 사실상 한국의 9개 서원 모두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지적이었습니다.

이상 오늘 발표하신 분들의 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이배용 이사장께서 환영사에서 말씀하셨듯이 ‘한국의 서원’은 과거의 유산으로만 머물 것이 아니라 현대인에게 바르게 살아갈 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점에서, 우리가 한국의 서원에 대한 더 개선된 보호 관리 방안을 같이 생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현안들은 오늘 학술포럼에서 다룬 주제를 더 구체화 시키는 측면에서 여러 발표자들이 발표하신 논문의 중요한 핵심 되는 사안들을 재구성, 정리를 해서 ‘한국의 서원’의 통합 보존 관리와 관련된 기본 원칙을 정리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 학술대회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현안들은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후에 세계유산센터에 정기보고할 때 정기 보고서 작성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b 완전성과 진정성: 서원의 기능

1.b.1 제향

한국서원 유·무형유산의 특징

1. 緒言

조선시대의 서원은 한국지성문화의 요람으로 400여 년의 오랜 역사를 지녔고, 講學과 士者藏修, 先賢祭享을 통해 성리학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지역의 교육, 문화, 지성사의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대표적 유교교육기관이다.

서원은 저명 성리학자를 제향하는 곳이면서, 각 지방의 고급 인재들이 수시로 출입하고 접촉, 교류했던 공간이자 상징적 기구였다. 서원 내에서 젊은 인재들은 선후배가 함께 지식의 일방적 전수교육이 아닌 강론과 학문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지역별, 학맥별로 다양한 교육·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서원 별로 교육사상과 철학을 토대로 독특한 교육 방식과 운영 모습을 가지며, 또한 제향의례와 의식, 관행이 오래도록 전승되고, 다양한 문화재 및 역사기록물들을 생산, 보존한 곳이기도 하였다.

한편 서원은 여론과 공론의 결집처로서 지역 지성들의 사회사적 활동 장소로 향음주례, 향약, 의병, 상소 등과 같은 문화사적 활동은 물론 정치적 활동까지 전개하였던 장소였다. 그런 점에서 서원은 地緣과 學緣別로 한국 유교문화의 다양성과 개성이 집약된 문화유산이자, 각종의 유·무형 자료가 집약된 寶庫이자, 展示館이었다.

2. 韓國 書院의 有形·無形 文化遺産

조선시대 서원들이 앞에서 언급한 바처럼 다양한 기능과 활동을 하여온 탓으로 그에 상응하는 아주 특별한 문화유산들을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모든 서원자료들은 조선시대 선비의 학문성과 도덕적 실천성, 그리고 지역지성사와 그 특징을 담고 있는 서원문화 주요 자원들이다. 그러므로 그 다양함을 하나의 분류방식으로는 모두 규격화하기 어려우며, 분류방법은 내용이나 유형, 성격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예를 들면 조사 대상 유형별로 ① 유적 ② 관찬기록 ③ 고문서 ④ 제향인물 문집 및 전적 ⑤ 현판, 금석기문 ⑥ 교육, 제향의례 ⑦ 지명, 전설, 일화로 나누거나, 사회 문화적 기능별로 ① 교육과 강학 ② 제향의례 ③ 사족활동(학맥, 정치) ④ 출판과 도서관 ⑤ 문화예술 등으로 분류하여 살필 수도 있을 것이다.¹ 그런가하면 필자는 서원별로 독자적인 특징을 드러내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정리하기 위하여 서원의 유형·무형 문화유산들을

- ① 창건 후 400-500년 유지 존속, 지속 활용된 建築物,
- ② 天人合一의 유교사상을 실천하는 小宇宙로서 서원의 景觀,
- ③ 地緣과 學緣別로 한국 유교문화의 다양성과 개성이 함축된 記錄物(典籍, 古文書, 金石記文),
- ④ 國統의 단절과 전쟁기에도 후학이나 후손, 지방 유림들에 의해 400여 년간 명맥을 이어온 祭享儀禮,
- ⑤ 제향 인물과 관련된 유적과 일화, 전설

등등으로 나누어 살피는 것도 유효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향후 보완과 재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필자는 우선 본고에서 이러한 분류를 토대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중 ①, ②의 건축문화유산이나, 경관·명소의 특성에 대하여는 별도의 발제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본 발제에서는 ③, ④, ⑤에 해당하는 역사 기록물과 제향의례, 제향인물에 관련한 유적과 구전자료에 대하여 정리를 하여 보고자 한다.

3. 歷史 記錄資料

서원의 역사, 기록 유산은 400년 이상 이어온 교육, 의례, 조직, 운영, 재정에 걸친 다양한 기록물로서 한국 서원의 가치를 드높여 주고 있다. 서원에 소장되거나 서원과 관련된 역사기록 자료들은 크게 보면 ① 書院關聯 官撰資料, ② 書院誌와 祭享人物의 文集, 그리고 ③ 書院古文書로 나누어 볼 수 있다.²

- 1) 書院關聯 官撰資料 : 書院關聯 官撰資料로는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등의 官撰 正史와 해당 지역의 地理誌, 邑誌類 자료가 있다. 관찬 정사의 경우 충분한 량의 자료가 검출되지 않는 아쉬움은 있으나, 서원의 창건에 관한 논의나 제향인물 관련 기사, 그리고 특별한 사건과 관련된 서원기사로 해당시기 서원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서원의 역사변천과 정치, 사회적 위상을 살피는데 귀한 기초자료가 된다.

해당지역의 읍지류는 직접 서원을 대상한 자료가 아닌데다, 창건년대, 제향인, 사액 및 연혁 개략 등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을 기록한 것이어서 자료로서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시기별 서원변천이나, 관에서 서원을 파악하는 수준을 이해하는 간접자료로 이용 가능하며, 특히 제향인물 기록과 邑事例에 부분적으로 서원제향 관련 기록이 수록된 경우도 있다.

1. 이상해, 「한국의 서원과 주변경관」 발제 참조. 서원의 건축문화유산은 창건 이후 400-500년 동안 각기 기능과 성격에 맞는 고유한 의미를 지니면서 유지 존속 활용되었던 점에서, 서원의 경관은 한국적 조경 경관사상의 실험적 공간으로, 천인합일의 유교사상을 실천하는 소우주였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2. 유형별로는 史書, 古文書, 典籍, 金石記文으로 나눌 수도 있다.

이에 비하여 중앙정부의 필요에 의하여 편찬된 관찬 서원기록들은 직접 서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매우 주목된다. 관찬의 서원기록으로는 『書院謄錄』(1642-1742년, 6책), 『學校謄錄』(1629-1724년, 7책), 『列邑院宇事蹟』(1759-1763년, 10책), 『書院可攷』(1790년경, 1책), 『俎豆錄』(1799년, 2책)과 이밖에 전국의 서원을 일괄한 자료로 李肯翊(1736~1806)의 『燃藜室記述』, 20세기 초반에 편간된 『增補文獻備考』, 『典故大方』 등이 있다.

그런데 이들 관찬의 서원자료들은 17세기 후반 書院濫設期の 疊設, 賦稅侵奪등 역기능을 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편찬된 것이거나 단순한 서원 목록 정리로만 그친 한계가 있다. 예컨대 『書院謄錄』은 인조대의 書院 건립 허가제 실시로부터 영조 17년(1741) 書院 휘철령 까지, 중앙정부의 書院 억제책을 관철하려는 목적을 지닌 자료이다. 때문에 국가권력과 향촌사족간의 대립, 당색간의 상호갈등을 이해에는 좋은 자료가 되지만 書院이 향촌사회에서 가진 사회 경제적인 역할규명에는 한계가 있고, 『列邑院宇事蹟』이나 『書院可攷』 같은 경우는 배향자나 위차문제나 연혁 등을 소개하고는 있으나, 書院의 하부구조와 구체적인 운영모습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다.

2) 書院誌와 祭享人物 文集 : 書院誌나 祭享人物 文集[附錄]도 후대에 편찬된 것이기는 하지만, 書院誌는 기초적인 정리로써 서원성립기의 기문류, 상량문, 창건통문 등이 수록되어 해당 서원의 건립과정이나 변천사를 일목요연하게 전해주며, 때로 고문서가 인용, 소개된 경우도 있어서 산질된 기록자료를 보완해 주기도 한다.

書院誌는 백운동서원을 창건하면서 주세붕이 편찬한 『竹溪志』를 비롯하여 『迎鳳志』, 『吳山志』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조선시대 편찬된 최초의 서원지인 『竹溪誌』는 3권 1책으로 周世鵬이 朱熹의 白鹿洞學規를 본받아 조선 최초로 백운동서원을 건립한 이듬해인 1544년(중종 39) 편찬한 것인데, 뒤에 두차례에 걸쳐 刊印되었다. 『竹溪誌』의 주요 내용을 보면 권1에 白雲洞文成公廟記, 권2는 尊賢錄, 學田錄, 藏書錄, 권3은 別錄으로 白鹿洞賦, 白雲洞敬次朱文公白鹿洞賦, 晦菴八大字, 竹溪誌跋 등이 수록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체제가 일반화 되지는 않았지만, 16세기 書院誌들에는 대체로 창건기문과 제향인물의 행록, 그리고 學規와 祭享儀節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후대의 서원지와 다른 특징으로 學田, 藏書錄을 수록하고 있어 서원의 건립 배경, 尊賢의 실체와 서원의 경제기반 및 장서 상황까지도 알려주고 있다.³

이밖에 대부분의 書院誌들은 19세기 말이나 최근에 편찬된 것들로 초창기 서원지 자료에 비하면 보다 다양한 자료와 변천사 자료를 종합 수록하고 있다.

다음으로 문집류 자료, 특히 祭享人物의 文集[附錄] 자료도 부족한 서원 관련 기록자료를 보완해주는 자료원이다. 문집류 자료에서 검색되고 추가되는 서원자료들은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 의하여 일괄 진행된 정리 작업 결과에서 보듯⁴ 서원제향인물 향인 및 서원과 연고가 있는 인물(원장, 지방관, 문인, 후손 등)의 저술문집에서 창건기나 창건통문, 봉안제문, 축문, 기문, 비문, 서원유생들에게 보낸 편지, 서원활동과 관련

3. 정만조, 2006, 「조선시대 書院志 體例에 관한 연구」, 『한국학논총』 제29집,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 조준호, 2010, 「書院志 分析을 통해 본 初期 書院의 性格」, 『한국학논총』 제33집,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4. 조준호, 「경기지역 서원문헌 DB와 연구동향」(2007년 4월 서원학회 발표)

된 왕복 서한 등등이 검출된다.⁵

특히 제향인물의 문집의 [부록]에 수록된 서원기록 자료는 서원지가 편간되지 않은 경우 더욱 귀중한 자료가 되어준다. 예를 들어 全羅道 月峯書院의 경우 제향인물인 高峯 奇大升의 문집인『高峯先生集』別集 附錄 卷 2에 「月峯書院事實」이 있어 ‘書院文獻錄, 答月峯疏會儒生書, 請額疏, 禮曹·藝文館回啓, 春秋祭享祝文, 答月峯儒林書, 重修上樑文, 三先生合享時祭文, 祭存齋先生書院文’을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書院誌나 文集 자료는 편찬자의 관심사에 따라 토지·노비안 등 경제관계 문서를 비롯한 서원 운영과 관련된 고문서형태의 자료들을 제외하거나 선택적으로 수록한 문제,⁶ 그리고 해당 서원과 제향 인물 중심의 주관적인 자료 정리로 상대적 평가나 성격규명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 3) 書院古文書 : 서원에 소장되거나 서원과 관련되는 전해지는 역사, 기록물 중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자료는 서원소장 고문서라고 할 수 있다. 400-500년 간 이어진 서원고문서는 교육, 의례, 재정 등 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련된 기록, 그리고 지역 지성사의 거점으로 활동한 내용 등 매우 복합적이다.

각 서원에 소장되거나 전승된 고문서 자료들은 매우 다양하며 종합적 성격이어서 몇가지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어렵지만,⁷ 자료의 정리와 유형화를 위하여 구분하여 본다면 대개 ① 서원의 창건과 연혁에 관련된 자료, ② 제향인물관련 자료, ③ 서원 조직과 운영 규약 자료, ④ 서원의 경제 자료, 그리고 직접 서원·사우에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 ⑤ 향촌사회사 자료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간략히 그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⁸

- ① 創建·沿革 자료 : 서원의 창건과 이진, 사액, 중수 등 사적에 관련된 자료유형으로는 건립과정을 사회세력과 함께 설명하여주는 創建 通文, 建立上疏, 건립과정을 보여주는 創建所題名錄, 營建日記(重修都錄, 會計錄), 用下記, 義捐錄(扶助記, 例扶記, 別扶記), 그리고 記文類 자료로 창건기, 상량문 등이 남아 있다. 이외에도, 請額疏, 축문·제문·고유문 등이 전해지고 있었으며, 특별히 건립과정을 소상하게 기록한 사례들도 적지 않다.⁹

그리고 창건 과정에서 官과의 연대가 필요한데 이 과정과 절차가 어떻게 지켜지는지도 고문서 자료로 남아 있다. 모든 서원은 官의 허가에 의해 건립되고,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이 기본이며, 사액의 경우는 더욱 관련 자료가 풍부하다.

5. 한 예로 忠淸道 魯峯書院과 莘巷書院의 경우는 제향인물인 圭菴 宋麟壽의 문집『圭菴集』卷3 附錄에 관련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魯峯書院 : 賜祭文(金萬基), 上梁文(吳時立), 奉安二先生文(吳時立), 請額疏(俞榮), 廟庭碑銘(宋煥箕), 莘巷書院 : 奉安三先生文(李得胤), 廟庭碑(宋時烈), 重修記(宋時烈), 講堂重建上梁文(趙復陽)

6. 이수환, 2001, 「영남서원의 자료 현황과 특징」 『大丘史學』제65집, 大丘史學會, p.126

7. 영남지역 서원자료 조사에 독보적 업적을 이룬 이수환은 서원소장자료를 ① 考往錄類 ② 事蹟 및 日記類 ③ 院任案, 院生案, 執事分定錄, 謁廟錄, 尋院錄 等類 ④ 土地, 奴婢案, 秋收記, 打作記, 身貢案, 守護軍案, 院屬案, 傳掌記 등 ⑤ 鄉戰資料 ⑥ 通文, 所志, 上疏, 牌旨, 立議, 完議 등의 각종 고문서로 나누고 있다. (이수환, 2001, 「영남서원의 자료 현황과 특징」 『大丘史學』제65집, 大丘史學會, p.p. 134-135)

8. 이해준, 2008, 『조선후기 문중서원연구』, 경인문화사. p.p. 238-241

9. 정순우, 1996, 「조선후기 '營建日記'에 나타난 學校의 성격」, 『정신문화연구』제65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② 祭享人物關聯 자료 : 서원에 제향된 인물의 성격(지위)은 관념상 다른 어느 것보다 우선하는데, 제향인물은 학연·지연·혈연·당색 등의 측면에서 서원의 성향을 확인하는 기준이 된다. 즉 제향인물의 성격은 곧 그 서원이 왜, 그 시기에, 어떤 세력에 의하여 건립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된다. 나아가 이의 규명은 해당 지역세력의 인물 宣揚(再照明, 褒獎 등) 준비과정이나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해당세력의 실체와 변모로 이어지게 된다.

현지 조사과정에서도 서원의 전승자료 중 이들 제향인물에 대한 제보나 자료가 가장 중요하게 보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제향인물의 행장류 자료로 행장, 신도비, 유허비, 그리고 행적을 증빙하는 교지류 등 고문서자료, 追崇(伸冤, 贈職, 銘旌 등) 과정의 자료가 비교적 잘 남아 있다. 특히 제향인물의 사상, 학맥, 저술을 보여주는 實記나 遺稿 등의 文集 간행으로 완결된 경우도 적지 않다.

- ③ 書院 組織과 運營規約 자료 : 서원의 조직에 관련된 유안자료는 크게 儒生案과 院長, 齋任, 執事案으로 구분되는데, 유생안은 菁莪錄, 靑衿案으로도 불린다. 서원의 유생안은 보다는 상대적으로 任員案이 많이 조사된다. 유생안은 儒案 혹은 菁莪錄이라 하여 원생안과 구분된 경우와, 서원 院生名簿를 지칭하면서 별도의 西齋 儒生案과 구별하는 경우가 있다. 齋任案은 유사, 장의 등 재임의 명단을 기록한 것이고, 祭官案이 별도로 작성되는 경우도 많다. 한편 기타 서원별 특별한 조직으로 鄉約契, 慕賢錄, 慕聖契, 書堂契 등도 있는데 이들이 별도로 생산한 조직문서도 있다.

書院 運營에 관련된 規約, 節目類 자료들은 대개가 서원 경제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고, 이에 관련되는 자료로는 書院規約, 書院節目, 立議, 完文, 講案(講規), 學規¹⁰ 등이 있다. 서원규약이 없이 절목이나 입의, 완의, 완문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많다. 한편 제향 이외의 서원의례로 鄉飲酒禮와 土相見禮, 養老宴, 耆老宴, 白日場 등의 행사가 시행되었으며 이에 관련 규약과 절목 등도 주목된다.

- ④ 書院 經濟 자료 : 서원의 대민지배문제를 이해하고 향촌사회에서의 상대적인 위상을 검토할 수 있는 경제자료로는 田畝案이나 奴婢案, 願納案, 額外院生案, 院保案, 院直案, 그리고 書院村문서, 官·士族의 현물 증여와 王의 賜物 관련문서 등이 있다. 전답과 관련하여서는 추수기, 노비와 관련하여서는 身貢案, 守護軍案 등도 있고 건립이나 중건, 이건, 보수와 관련된 傳與傳掌冊, 營建日記, 用下記, 사안별로 이루어지는 각종 부조기 등이 경제규모를 확인하는 기초자료이다.

한편 書院村文書들은 대개가 연호 잡역의 면제를 바라는 通文, 上書, 稟目, 所志類와 함께 발견되며, 토지 매입 明文이나 田畝·祭器·田畝賭地記, 田民案, 典穀文書, 都錄, 田畝秩 같은 류가 전답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타로 位土收賭記, 秋收記, 打作記, 身貢案 등등의 자료도 있다.

10. 박종배, 2010, 「學規에 나타난 조선시대 서원교육의 이념과 실제」, 『한국학논총』 제33집,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 ⑤ 鄉村社會史 자료 : 앞에서 언급한 바처럼 서원이 단순한 강학과 제향의 기능만을 지닌 교육기구가 아니라 향촌사회 지배세력의 결집처이자 여론 형성체였다는 점과 관련되는 자료들이다. 향촌사회사 자료는 곧 서원의 사회사적 지위(교류, 연대)를 보여주는 자료로 尋院錄, 時到記를 통하여 교류 인물의 성격을 엿보게 하고, 특정 서원의 사업에 동원되고 협력하는 인물들의 모습이 담긴 義捐錄, 扶助記, 上疏, 通文 같은 자료들도 확인할 수 있다.

4. 書院 祭享儀禮

서원제도는 중국에서 비롯되었지만 중국과 한국의 서원을 비교하면, 중국의 서원이 강학 위주인데 반하여 한국의 서원은 교화와 제향기능이 중시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난다. 한국의 서원은 원래 인재양성과 학문연구를 목적으로 건립되어 처음에는 교육적 기능이 일차적이었고 先儒享祀와 교화적 기능은 부차적이었다. 그러나 서원의 교육, 강학 기능이 점차 쇠퇴하면서 서원과 사우의 구별이 모호해지고 점차제향 기능이 중심이 우선시 되었다. 더불어 서원이 지역별, 학맥별 지성사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그 상징적 인물제향의 의미와 기능이 점차 증대된 것이다.¹¹

특히 서원의 기능 중 제향의례가 온전하게 남은 경우는 한국 뿐으로서, 중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인물 ‘제향’의 전통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서원 제향의례는 세계에서 가장 완비된 형태로 재현되는 유교식 제향 의식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서원은 이러한 제향 의례를 통하여 선현의 학덕과 행의를 추앙하고, 예를 중요시 하는 유교의 정신과 문화를 널리 확산, 정착시키는 사회교육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국서원의 대표적인 무형유산으로서 제향의례인 享祀는 조선의 패망이나 일본의 조선 합병 등 국난과 관계없이 서원이 건립된 후로 한번도 끊이지 않고 후학들이나 후손, 지방 유림들에 의해 지속되어 왔다.

서원제례는 정기적인 春秋祭享과 朔望焚香祭가 있었고, 부정기적으로 치뤄지는 의례로는 서원건물을 수리하거나 이건할 때 거행하는 移安祭, 還安祭가 있고 불의의 재난이나 환란이 있을 때 올리는 慰安祭, 그리고 위패를 새로 제작하여 봉안할 때 올리는 禮成祭, 사액을 받았을 때 올리는 宣額祭도 있었다.¹²

제향은 서원마다 독자적인 의례를 지켜 왔으며, 관련자료들이 笏記 및 春秋享祀祝文, 奉安祭文, 그리고 參祭錄 등으로 남아 전한다. 실제 제향의 절차와 과정은 서로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陶山書院의 경우는 특히 오랜 전통과 규범이 잘 전승된 곳으로 유명하다. 도산서원의 제향은 향례 3 일전에 有司들이 典敎堂 아래 동서 재실[弘毅齋, 博約齋]에 入齋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相揖禮를 한뒤 祭官과 執事들을 선정 望報하며 2 일전에는 모두 입재하여 축문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1 일전에는 정성을 다하여 謁廟禮 → 滌器 → 看品禮 → 奉尊 → 漸米 → 陳設의 절차가 이루어지고, 향례일에 일반적인 行祀절차가 치러진다. 제향을 마친 후에는 중

11. 그리하여 이미 17세기에 서원이 향사하는 사우에 불과하다는 비평이 나올 정도였다(李緯, 『陶庵集』, 권 25, 「諭道峰院任」: 朴世采, 『南溪先生文集』 續 권 20 「書院考證補」)

12. 윤희면, 2000, 「조선시대 書院의 祭禮와 位次」, 『진단학보』 제90집, 진단학회

헌관이 음복을 한 후 제물을 모두 치우고 헌관과 집사들이 함께 재배함으로써 행사를 마친다. 이어 祭公事를 한 뒤 罷座하여 飲福禮를 행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도산서원에서는 음복례를 위해 전교당에 향례 참여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齋有司가 鄉約의 約文을 읽는다.

제향의례가 끝난 후 참여한 유생들이 음복하는 福酒나, 서원의 중대 사안과 고을의 유림과 관련된 주요 현안이나 정치적 문제, 그리고 강상윤리와 관련한 포상과 처벌 등등을 논의하는 儒會도 함께 주목대상이다. 한편 제향 이외의 기타 의례로 서원에서는 鄉飲酒禮와 士相見禮, 養老宴, 耆老宴, 白日場 등의 행사가 시행되었으며 講學 의례나 齋會의 의례 등도 유념할 유형유산이다.

그런데 제향의례와 함께 우리가 또 염두에 둘 것이 講學禮이다. 서원의 고유기능인 강학기능의 소멸로 과거 서원운영의 핵심행사였던 講學禮는 현재 거의 찾아볼 수 없으나, 대부분 학규와 함께 講書의 순서, 講案의 마련과 居齋儀節, 相揖禮, 賞罰 등등 관련 자료들이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남아 있다. 결국 이의 복원도 매우 필요한 과제가 아닌가 한다.

5. 祭享人物 관련 遺蹟, 口傳資料

서원문화의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소 소홀히 하게되는 부분의 자료가 바로 이 부분이다. 그러나 서원의 문화가 배태되고 생성된, 그리고 지속되는 과정에서 남겨진 관련 유적과 구전자료들은 서원문화의 주변 같지만, 배경이자 더 많은 계층에게 전승되어온 귀중한 유산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표에서 보듯이 이미 서원관련 문화유적들이 일부는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이들 유적들은 서원문화의 또 다른 증거들로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자료들이며, 여기에 더하여 우리가 더 추가 보완하고 조사해야 할 자료들이 많다. 예컨대 제향인물의 생가지나 강학의 유서인 서당이나 서숙, 누정, 경승, 그리고 사후의 묘소나 추송의 유적들이 대부분 서원 경역에 인접해 있다. 이들을 아우르는 안목과 의식이 필요한 것이다.

표1. 서원 지정문화재(국가, 도지정) 현황

書 院	문화재 명칭(지정번호)
紹修書院(사적 제55호)	紹修書院 文成公廟(보물 제1402호)
	紹修書院講學堂(보물 제1403호)
	明宗御筆 “紹修書院” 懸板(경북 유형문화재 제330호)
	紹修書院所藏板木(경북 유형문화재 제331호)
濫溪書院(사적 제499호)	一蠹先生文集冊板 (경남 유형문화재 제166호)
玉山書院(사적 제154호)	三國史記(보물 제525호)
	李彦迪 手稿本 一括(보물 제586호)
	慶州 獨樂堂(보물 제413호)
	慶州 獨樂堂 조각자나무(천연기념물 제115호)
陶山書院(사적 제170호)	陶山書院 典教堂(보물 제210호)
	陶山書院 尙德祠 附 正門 및 四周土塼(보물 제211호)
	陶山書院圖(보물 제522호)
	李滉 筆蹟(보물 제548-2호)
筆巖書院(사적 제242호)	筆巖書院 文籍 一括(보물 제525호)
	河西先生文集 木板(전남 유형문화재 제215호)
	河西遺墨木板 一括(전남 유형문화재 제216호)
道東書院(사적 제488호)	道東書院 講堂 祠堂 附 墻垣(보물 제350호)
屏山書院(사적 제260호)	懲毖錄(국보 제132호)
	柳成龍 宗孫家 文籍(보물 제160호)
遯巖書院(사적 제383호)	遯巖書院 凝道堂(보물 제1569호)
	遯巖書院 惟敬祠(충남 유형문화재 제155호)
	遯巖書院 院庭碑(충남 문화재자료 제366호)
武城書院(사적 제166호)	武城書院

필암서원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면 제향인물인 河西 金麟厚(1510~1560) 관련 유적으로 서원에 인접한 장성군 황룡면 맥호리 맥동에 생가유허와 백화정, 인종이 하사한 배나무인 御賜梨, 묘소와 신도비(전남 기념물 제219호), 望哭壇과 卵山碑(전남 문화재자료 제241호)가 있고, 북하면 중평리에는 不桃廟가 있다.¹³ 그런가하면 유년시절의 일화나 강학 방식, 혼인 등 인맥의 형성과정, 그리고 文筆峰, 筆岩 같은 지명전설도 전한다.

13. 不桃廟에는 墨竹圖, 蓮榜同年一時曹司契會圖, 東湖契會圖, 教旨 10매, 墨書 등 32건의 유물이 소장되어 왔었는데, 국립광주박물관에 위탁관리 하다가 기증하였다.

6. 書院別 資料特性和 體系的 整理·活用

이상에서 간략히 살핀 것처럼 서원의 유형 무형유산들은 해당 서원의 문화사적 성격은 물론, 문화유산적 가치와 위상을 제고하는 기본적인 콘텐츠이다. 자료의 내용과 성격이 다양하기도 하지만, 이들은 모두 각 서원별, 그리고 지역, 학맥에 따른 독자성과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그것들이 400-500년의 오랜 전승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더욱 주목할 가치이자, 역사적 진정성을 증거하는 문화유산으로서의 특징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주목한 것은 한국의 서원들이 지역별, 학맥별로 각각 다양한 교육·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한국의 서원문화는 한국 유교문화의 다양성과 개성이 집약된 자료의 寶庫이자, 자료관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학맥의 거점인 서원별로 교육사상과 철학을 토대로 독특한 교육 방식과 운영 모습을 가지고 있다던가, 향음주례, 향약, 의병, 상소 등과 같은 여론 및 공론의 결집처로서 사회사적 활동이 강했던 역사적 장소였다. 그런가하면 서원은 지역, 학파별로 특성 있는 제향의례와 의식, 관행을 보존한 곳이면서, 다양한 문화재 및 역사기록물들을 생산, 보존한 곳이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각각의 서원별로 자신들의 문화사적 특징들을 종합 정리하고 특화시켜 활용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모든 서원이 공통적으로 지닌 제향 인물의 학문, 사상, 정치적 업적 내용, 여론 및 공론의 결집처로서 활동모습, 제향의례의 전통, 유적·문화재가 국보나 보물, 사적 등으로 지정 된 가치 등은 모두가 공유하고 조사, 정리할 대상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해당 서원이 지닌 고유하고, 특별한 성격을 드러내어 이를 현재적으로 재조명, 계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자료¹⁴에서도 9개 서원의 특징들이 지적, 강조되었지만, 이번 기회에 종합적인 자료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보다 정선된 서원별 문화사적 특징들이 포괄적으로 정리되었으면 한다. 서원별로 자원, 특화 가능한 자원으로는 다음과 같은 예시들을 주목하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¹⁵

紹修書院(1543년) ; 제향의례, 도서관 기능

蘆溪書院(1552년) ; 향촌교화

玉山書院(1573년) ; 다양한 운영주체, 서원경제, 건축기록

陶山書院(1574년) ; 퇴계 이황과 강학 전통 - 학통, 강학 자료

筆巖書院(1590년) ; 서원 문서와 제향인물 유적 유물

道東書院(1605년) ; 경관과 변천사 자료

屏山書院(1613년) ; 경관과 서원건축

遯巖書院(1634년) ; 호서 예학의 산실

武城書院(1696년) ; 향민교육과 강학, 향약, 한말의병

14. 한국서원연합회, 『한국의 서원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등재 신청서』(2011. 9. 15)

15. 그러나 이는 앞으로 좀더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며, 이들이 중복되거나 경쟁보다는 9개 서원의 각각의 특징들이 모여 ‘한국서원의 문화적 특징’으로 정리되었으면 한다.

이와 관련 소수서원의 경우 초창기 한국서원의 기틀을 다진 學規와 學田, 藏書의 마련이 매우 흥미롭다. 창건자인 주세붕이 45종 505책의 서적을 구입하여 비치하였고, 『죽계지』에도 별도로 藏書錄이 마련되었다. 그 뒤 소수서원은 계속 서적을 구입하고 국왕의 하사와 지방관, 서원, 사가로부터 기증을 받으면서 서적 보유량을 증가시켰다. 그리하여 가장 많은 서적이 소장되었던 정조 9년(1785년) 기록에는 소장도서가 236종 이르렀다고 한다.¹⁶ 특히 院規에는 도서의 열람과 대출, 포쇄와 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조목이 있고, 서목의 편찬, 서적간행 등의 기능도 충실히 수행하여 소수서원에서 판각한 서적도 추원록과 죽계지를 비롯한 7종에 이른다.

특히 소수서원의 藏書錄을 보면 서원문고, 서원의 도서관적 기능에 대하여 관심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이에 대하여는 이춘희에 의하여 연구가 시작된 이래 퇴계의 장서가 역동서원과 도산서당의 기본 장서가 되어 서원문고로 발전되는 과정을 연구하기도 하고, 병산서원의 「屏山書院 書冊目錄」을 분석한 연구, 그리고 소수서원의 장서를 연구한 글들에서 보듯이 분명한 서원의 특징으로 강조할 만하다고 생각된다.¹⁷

나아가 소수서원과 도산서원의 제향 의례전통, 도산서원·옥산서원·병산서원의 학술논쟁과 학맥, 옥산서원과 도동서원의 다양한 서원 운영 조직, 경제관련 고문서, 무성서원의 향학당 사적, 최치원 영정과 문집발간, 한말 의병과 향약(동약), 필암서원의 서원고문서와 장판들 등등은 별도의 연구논문들이 발표될 정도로 특징이 부각된 예들이다.

끝으로 첨언할 것은 대개 지금까지의 서원자료 정리가 범위와 대상의 면에서 제향인물이나 건축물 중심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제향이나 교육의례, 경관, 기타 무형의 유산까지로 그 폭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까지의 연구와 조사는 주로 학술적 조사나, 혹은 단순 유물조사로 그쳐 활용, 홍보되지 못하고 사장되었다. 이제는 종합·체계적인 조사로 이들 해당서원의 문화사적 가치와 특성이 살아 숨쉬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이들 다양하고 서원별 특성이 내재된 문화유산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보존 관리하여 서원문화의 현대적 가치 계승 및 문화자원으로 지속적인 활용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과제인 것이다.

필자는 서원의 문화와 그 기능을 단순한 제향 공간으로 自足하거나, 혹은 차별성 없는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쟁력을 잃는 것을 보면서, 서원문화의 지속가능한 활용, 혹은 현대적인 계승과정에서 결국 이러한 다양한 서원 역사문화 자료 정리가 그 단단한 기초를 마련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서원, 혹은 관련 후손가에 분산 소장된 다양하고 광범한 자료들이 한곳에 모아져서 향후 서원 아카이브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료의 분류와 정리, 목록화, 자료의 성격·특징 연구등을 통하여 서원 복원정비, 교육 체험 프로그램, 문화콘텐츠 개발 기본 자료 등등 활용의 기능성과 자원 활용 가치, 방법 등이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으리라 본다.

16. 배현숙, 2005, 「소수서원 수장과 간행서적고」, 『서지학연구』제31집, P. 276의 표 2

17. 이춘희, 1969, 「이조 서원문고목록」 국회도서관
배현숙, 1994, 「退溪 藏書의 集散考」, 『서지학연구』제10호

서원 제례 조사연구 개황(概況)

-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

1. 들어가며

지난 5월 초 문화재청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통문화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중요무형문화재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4,459억 원을 투입하여 22개의 세부추진과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글머리에 서원의 의례와 무관해 보이는 문화재청의 기자회견 내용을 기술한 것은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가칭, ‘무형유산법’으로 약칭하기로 함)” 제정과의 관련성 때문이다. 당시 종합계획에는 5개 핵심 전략 중 ‘법적 기반 및 실행기반 마련’에 분류되어 있던 “무형유산법” 제정이 명시되어 있었다.

“무형유산법”은 1962년 문화재를 보호하고 전승하기 위해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으로부터 무형문화재 분야를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를 전승하기 위해 전승주체인 보유자[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사유로 문화재보호법 상으로는 우리나라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김치나 아리랑 등과 같은 무형문화유산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 곤란한 형편이었다.

그러던 중 2006년 유네스코가 제정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발효되었다. 세계 각 국가들은 유네스코 협약 체제에 맞춰 제도적 변화를 도모하였고 우리나라도 협약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문화재청은 “무형유산법”의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새로운 법안에 현행법에서는 담아낼 수 없었던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적 실행,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등을 포괄하고자 하였다. 현재 문화재청은 “무형유산법” 초안에 이 범주를 담고자 함은 물론 보유자[또는 보유단체] 없이 전승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때 서원의 제례도 “무형유산법”이 제정한 범주에 포함되는 대상이다. 그간 국립문화재연구소(이하 ‘국문연’으로 약칭하기로 한다.)에서 진행해 온 조사연구 결과들이 모여 무형문화유산 목록으로 지정·등록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여기에서는 먼저, 국문연의 서원 제례 조사연구의 경위와 조사 대상 선정, 그리고 조사 방법에 대해 살펴본 뒤, 서원의 조사연구 사례(소수서원, 도산서원)를 중심으로 서원 제례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소수서원과 도산서원의 사례는 국문연에서 2011년 『서원 향사(소수서원, 도산서원)』보고서로 발간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원 제례의 연구결과물을 살펴보고 향후 조사결과물의 활용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2. 서원 제례 조사연구 개요

1) 조사 경위

국문연이 서원 제례에 주목한 것은 2008년도였다. 국문연은 서원 제례 조사연구 전, 종가제례, 굿의식, 불교의례를 조사연구하여 총 45건을 영상으로 기록하였다. 전통의례에 대한 조사연구와 영상기록은 당시 급격한 사회변화, 사회구성체의 해체 등과 맞물려 소멸 위기에 봉착한 우리 민족 고유의 의례의 현상을 보전하고자 노력한 결과물이다.

그 일환으로 2008년 서원 제례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하였다.¹ 서원은 지역별 학문의 전통을 기반으로 설립되었던 사립 교육 기관이었다. 학문의 발전과 지역의 여론이 형성되던 곳이었으며 조선 성리학의 전통을 확립하는 물질적·정신적 토대였던 곳이다. 오늘날 서원은 지역의 전통성을 간직한 요람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서원에 모신 인물에 제사를 지냄으로써 상징성을 유지하고 사회교육을 통해 한문학을 전파하고 있다. 국문연은 이와같은 서원의 역사·문화적 전통을 이해하고 사회적 역할을 재조명하며 현재적 위치를 가늠하는데 조사목적을 두었다. 그리하여 서원에서 봉행하는 제례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기록하여 전통문화의 변화양상을 추적하고 나아가 이 분야에 대한 콘텐츠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영상콘텐츠는 제례 연구를 위한 학술자료로, 제례 전승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되는 물론 나아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첫 번째 조사연구 대상은 ‘소수서원’ 제례였다. 이후 2011년 ‘무성서원’ 제례까지 총 12건의 조사연구와 영상기록이 이루어졌다.

2) 조사대상 선정

서원 제례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총 8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16개소의 서원과 사우 2곳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선 고종 때 훼손되지 않은 서원과 사우는 총 47곳이고 그 중 서원은 25곳, 사우는 22곳이다. 서원 25곳 중 ①제향인물이 문묘 또는 종묘에 배향된² 13곳(도동서원 등, 북한 소재 제외)과 ②지역 학문의 대표 인물을 제향하는 2곳(노강서원-윤증, 병산서원-유성룡) 등 15곳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③유학의거두인 율곡 이이가 제향된 1곳(자운서원)³을 포함하였다. 사우는 22곳 중 제향인물이 문묘 또는 종묘 배향인물로서 서원과 중복되지 않은 2곳(강한사-송시열, 현절사-김상헌)이다. 해당 서원 및 사우 현황은 다음 <표 1>을 참고하기 바란다.

1.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서원 제례와 더불어 향교 제례의 조사연구·영상기록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서원 제례 조사연구 현황에 한정하여 수록한다.

2. 훼손되지 않은 25곳 서원 중 제향 인물이 문묘 또는 종묘에 배향된 서원은 17곳이다. 이중 북한 소재 3곳을 제외하면 총 14곳이 조사연구 대상이었다. 그러나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2011.11.22)에서 경북 경주에 소재한 서악서원(경북 기념물 제19호)은 제외하기로 결정되었다. 서악서원은 서원의 분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가치는 있으나 연구소 조사연구 및 영상기록의 목적인 ‘한국 서원의 전통성과 계승’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3. 율곡 이이(기호학파)는 퇴계 이황(영남학파)와 함께 조선 유학의 거유로서 그 제례에 대한 조사연구와 영상기록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훼손되지 않은 서원 중 이이를 제향하는 문화서원이 북한(황해도 배천)에 소재하고 있어 조사연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관계 전문가와의 자문회의(2011.11.22) 결과 비록 자운서원(경기 기념물 제45호)이 복원된 것이나 서원 제례는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되었다.

표 1. 훼손되지 않은 서원 및 사우 현황(47곳)

·서원(書院) : 25곳

명칭	지역	건립시기	사액시기	제향인물	문묘·종묘배향	기록	비 고
도동서원 (道東書院)	대구 달성	1568년 (선조 1)	1607년 (선조40)	김광필	문묘	2009년	-
용연서원 (龍淵書院)	경기 포천	1691년 (숙종17)	1692년 (숙종18)	이덕형, 조 경	-	-	-
노강서원 (鷲江書院)	경기 의정부	1695년 (숙종21)	1697년 (숙종23)	박태보	-	-	-
우저서원 (牛渚書院)	경기 김포	1648년 (인조26)	1675년 (숙종 1)	조 현	문묘	2012년	-
파산서원 (坡山書院)	경기 파주	1568년 (선조 1)	1650년 (효종 1)	성수침, 성 훈, 성수증, 백인걸	문묘	2011년	-
덕봉서원 (德峰書院)	경기 안성	1695년 (숙종21)	1695년 (숙종21)	오두인	-	-	-
심곡서원 (深谷書院)	경기 용인	1650년 (효종 1)	1650년 (효종 1)	조광조, 양평손	문묘	2011년	-
사충서원 (四忠書院)	경기 하남	1725년 (영조 1)	1725년 (영조 1)	김창집, 이이명, 이건명, 조태채	종묘	2013년	-
돈암서원 (遯巖書院)	충남 논산	1634년 (인조12)	1660년 (현종 1)	김장생, 김 집, 송준길, 송시열	종묘 · 문묘	2009년	-
노강서원 (魯岡書院)	충남 논산	1675년 (숙종 1)	1682년 (숙종 8)	윤 중, 윤문거, 윤 황, 윤선거	-	2009년	-
무성서원 (武城書院)	전북 정읍	1484년 (성종15)	1696년 (숙종22)	최치원, 신 잠, 정극인 등 7위	문묘	2011년	-
필암서원 (筆巖書院)	전남 장성	1590년 (선조23)	1662년 (현종 3)	김인후, 양자징	문묘	2010년	-
소수서원 (紹修書院)	경북 영주	1542년 (중종37)	1550년 (명종 5)	안 향, 안 축, 안 보, 주세붕	문묘	2008년	-
금오서원 (金烏書院)	경북 구미	1570년 (선조 3)	1575년 (선조 8)	길 재, 김종직, 정 봉 등 5위	-	-	-
서악서원 (西岳書院)	경북 경주	1561년 (명종16)	1623년 (인조 1)	김유신, 설 충, 최치원	문묘	-	주2) 참조
옥산서원 (玉山書院)	경북 경주	1573년 (선조 6)	1574년 (선조 7)	이언적	종묘 · 문묘	2010년	-
도산서원 (陶山書院)	경북 안동	1574년 (선조 7)	1575년 (선조 8)	이 황	종묘 · 문묘	2011년	-
병산서원 (屏山書院)	경북 안동	1613년 (광해군5)	1863년 (철종14)	유성룡	-	2009년	-
흥암서원 (興巖書院)	경북 상주	1702년 (숙종28)	1705년 (숙종31)	송준길	문묘	2012년	-
옥동서원 (玉洞書院)	경북 상주	1580년 (선조13)	1789년 (정조13)	황 희, 황맹현, 황효원 등 5위	-	-	-
남계서원 (濫溪書院)	경남 함양	1552년 (명종 7)	1566년 (명종21)	정여창, 강 익, 정 온	문묘	2010년	-
문화서원 (文會書院)	황해 배천	?	1568년 (선조 1)	이 이, 성 훈, 조 현 등 6위	종묘 · 문묘	-	북한 소재
봉양서원 (鳳陽書院)	황해 장연	1695년 (숙종21)	1696년 (숙종22)	박세채	종묘 · 문묘	-	북한 소재
노덕서원 (老德書院)	함남 북청	1627년 (인조 5)	1687년 (숙종13)	이항복, 민정중, 오두인, 이광좌	-	-	북한 소재
송양서원 (崇陽書院)	개성	1573년 (선조 6)	1575년 (선조 8)	정몽주, 서경덕, 김향헌 등 6위	종묘 · 문묘	-	북한 소재

·사우(祠宇) : 22곳

명칭	지역	건립시기	사액시기	제향인물	문묘·종묘배향	기록	비 고
강한사 (江漢祠)	경기 여주	1785년 (정조 9)	1785년 (정조 9)	송시열	종묘 · 문묘	2012년	대로서
현절사 (顯節祠)	경기 광주	1688년 (숙종14)	1693년 (숙종19)	홍익한, 김상헌, 윤 집 등 5위	종묘	2013년	
충장사 (忠莊祠)	경기 고양	1842년 (헌종 8)	1842년 (헌종 8)	권 울	-	-	
충렬사 (忠烈祠)	인천 강화	1641년 (인조19)	1658년 (효종 9)	김상응, 이상길 등 28위	-	-	
창렬사 (彰烈祠)	충남 부여	1717년 (숙종43)	1721년 (경종 1)	홍익한, 윤 집, 오달제	-	-	
충렬사 (忠烈祠)	충북 청주	1679년 (숙종23)	1727년 (영조 3)	임경업	-	-	
표충사 (表忠祠)	충북 청주	1731년 (영조 7)	1736년 (영조12)	이봉상, 남연년, 홍 립	-	-	
포충사 (褒忠祠)	광주 남구	1601년 (선조34)	1603년 (선조36)	고경명, 고종후, 고인후 등 5위	-	-	
충렬사 (忠烈祠)	경남 통영	1606년 (선조39)	1663년 (현종 4)	이순신	-	-	
포충사 (褒忠祠)	경남 거창	1737년 (영조13)	1768년 (영조44)	이술원	-	-	
창열사 (彰烈祠)	경남 진주	?	1607년 (선조40)	김시민, 김천일, 최경희 등 39위	-	-	
충렬사 (忠烈祠)	부산 동래	1605년 (선조38)	1624년 (인조 2)	송상현, 정 발, 노개방 등 5위	-	-	
충렬사 (忠烈祠)	강원 철원	1650년 (효종 1)	1652년 (효종 3)	홍명구	-	-	
창절사 (彰節祠)	강원 영월	1685년 (숙종11)	1699년 (숙종25)	박팽년, 성삼문, 유성원 등 10위	-	-	
포충사 (褒忠祠)	강원 철원	1665년 (현종 6)	1668년 (현종 9)	김응하	-	-	
태사사 (太師祠)	황해 평산	?	1796년 (정조20)	배현경, 복지겸, 신승겸, 유금필	-	-	북한 소재
청성묘 (淸聖廟)	황해 배주	1687년 (숙종13)	1701년 (숙종27)	백 이, 숙 제	-	-	북한 소재
삼충사 (三忠祠)	평남 평원	1603년 (선조36)	1661년 (현종 2)	제갈량, 악 비, 문천상	-	-	북한 소재
충민사 (忠愍祠)	평남 안주	1681년 (숙종 7)	1682년 (숙종 8)	남이흥	-	-	북한 소재
수충사 (酬忠祠)	평북 향산	1794년 (정조18)	1794년 (정조18)	서선대사 휴정	-	-	북한 소재
표절사 (表節祠)	평북 정주	?	1824년 (순조24)	정 시, 백경한, 임지한 등 7위	-	-	북한 소재
무열사 (武烈祠)	평양	1593년 (선조26)	1593년 (선조26)	이여송, 양 원, 이여백, 장세작	-	-	북한 소재

조사대상 18곳(서원 16곳, 사우 2곳)을 조사 지역별로 살펴보면, 주로 경기 지역과 대구·경북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종묘와 문묘에 배향된 인물 위주의 대상 선정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호학과와 영남학과의 지역을 대변하는 곳에 서원이 보존, 전승되어 온 것으로 파악된다.

경기: 우저서원, 파산서원, 심곡서원, 강한사[대로사], 자운서원, 사충서원, 현절사⁴

충남: 돈암서원, 노강서원

전북: 무성서원

전남: 필암서원

경남: 남계서원

대구·경북: 도동서원, 소수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 흥암서원

조사대상 서원은 현재 사적, 유형문화재, 기념물, 문화재자료, 향토유적 등으로 지정⁵되어 보존되고 있다.

3) 조사 방법

서원 제례 조사는 제례 전 과정과 서원의 운영 조직, 그리고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지조사와 영상기록(Full HD) 및 고해상도의 기록 사진 촬영을 실시하여 현장성을 확보하고 있다.

서원 제례는 통상 1년에 두 차례(춘계·추계) 봉행되는 향사 중 춘계 봉행 향사를 선택하여 조사한다. 춘계·추계 향사의 봉행 방식(제례 절차, 제물, 제기, 제복 등)이 유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⁶

조사는 다음 표2와 같이 5가지 세부 분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표 2. 조사연구 내용

분야	조사내용
① 역사	연혁, 제향인물, 공간구성(건축물 등), 관련 유적 및 전적·고문서
② 상시 제례	매월 초하루, 보름 분향례 등
③ 서원 제례 (춘계 향사)	제례 봉행을 위한 의사 결정(운영회의 등) 준비 과정(제관 선정, 제물 구입 및 준비, 제기 준비, 제복 관리 등) 제례 봉행(제례 절차 및 음복 등)
④ 운영 및 조직	장의회의, 운영위원회, 유림 총회 등
⑤ 일반 활동	사회교육 프로그램, 서원의 현대화 노력 등

현지조사와 함께 진행된 영상기록은 두 가지 개념으로 제작되었다. 하나는 기록 보존을 목적으로 한 기록본이고, 다른 하나는 대외 공유 및 활용을 위한 보급본이다. 기록본은 조사연구 전체 내용이 모두 수록되어 있으며 분량에 제한이 없다. 서원의 역사와 운영 그리고 통상 2~3일 전에 이루어지는 제수 구입부터 분정기 및 축문 작성, 제수 진설, 제례에 관한 내용과 삭망 분향례, 장의회의, 사회교육, 고문서 등 관련 자료, 전문가 인터뷰 및 관련 유적지 등이 수록된다. 보급본은 문화향유권 확보를 위한 대국민 서비스와 다양한 활용을 위

4. 2013년 조사대상 서원

5. 표2. 연도별 영상기록 현황의 비교 참조

6. 춘계·추계 봉행 향사 중 춘계 봉행 향사를 선택적으로 조사한 이유는 2009년에 조사한 서원 제례에서 찾을 수 있다. 2009년 서원 제례는 춘계·추계 봉행 향사를 모두 조사연구하여 영상으로 기록하였다. 그 자료로 서원 제례의 영상기록을 편집하던 중 자료의 사용에 있어 혼란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 결과 춘계 봉행 향사에 집중하여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해 40분 내외의 분량으로 압축 편집한 것이다.

표 3. 연도별 영상기록 현황

연도별	기록 대상 ⁷	지역	제례 시기	제향인물	비고 ⁸
2008	소수서원*	경북 영주	9월 상정	안향	사55
2009	병산서원*	경북 안동	3월 상정, 9월 상정	류성룡, 류 진	사260
	도동서원*	대구 달성	2월 중정, 8월 중정	김광필	사488
	노강서원	충남 논산	2월 11일, 8월 11일	윤 황 등 4위	유30
	돈암서원*	충남 논산	2월 중정, 8월 중정	김장생	사383
2010	남계서원*	경남 함양	2월 상정	정여창	사499
	옥산서원*	경북 경주	2월 중정	이언적	사154
	필암서원*	전남 장성	2월 중정	김인후, 양자징	사242
2011	무성서원*	전북 정읍	2월 중정	최치원 등 7위	사166
	도산서원*	경북 안동	2월 중정	이 황, 조 목	사170
	파산서원	경기 파주	2월 중정	성 훈 등 4위	문자10
	심곡서원	경기 용인	2월 중정	조광조, 양팽손	유7
2012	흥암서원	경북 상주	3월 상정	송준길	기61
	우저서원	경기 김포	2월 중정	조헌	유10
	강한사[대로서]	경기 여주	2월 하정	송시열	유20
2013 (예정)	사충서원	경기 하남	음력 9월(매년 결정)	김창집 등 4위	향유3
	자운서원	경기 파주	8월 중정	이 이 등 3위	기45
	현절사	경기 광주	음력 9.10	김상헌 등 5위	유4
계	18곳(서원16, 사우 2)			-	-

기록 사진 역시 서원 제례 전체 내용과 사회교육, 조직 운영, 서원 건축물, 현장 주변 스케치 등을 촬영하며 제례의 미학적 측면을 고려한다. 대개 디지털 이미지는 1장 당 2,000만 화소(용량 50메가 이상)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영상기록과 기록 사진은 국문연 연구자료 정보 지침에 따라 메타 정보를 정리해 둔다.

7. 기록대상 중 소수서원(경북 영주), 병산서원·도산서원(경북 안동), 도동서원(대구 달성), 돈암서원(충남 논산), 남계서원(경남 함양), 옥산서원(경북 경주), 필암서원(전남 장성), 무성서원(전북 정읍)의 9개 서원은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되었다.(2011. 12. 9). 아울러 모두 사적으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8. 영상기록 대상 서원들은 대부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사적→사, 지방지정 유형문화재→유, 지방지정 기념물→기, 지방지정 문화재자료→문자, 향토유적→향유로 축약하였다.

3. 서원 제례 변화 양상 - 소수서원과 도산서원 사례 -

1) 제례 내용

종전 2박 3일로 봉행하던 향사 기간이 1박 2일로 단축되었다. 그 결과 1일 전에 입재하여 이튿날 제례를 봉행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당일 입재하여 당일 제례를 거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과거 전통사회와 달리 교통이 발달하여 굳이 2~3일 전 입재하지 않아도 제례 준비에 불편함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제례가 변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입재의 변화에 따라 습의 또한 변하였다. 일일이 실습하는 방식에서 서원 관계자의 설명이나 서재에서 책자를 열람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제례 시간도 변하였다. 도산서원의 경우 축시(丑時)에 지내던 것을 오전 11시로 변경하였다. 축시 행례를 고수하는 서원이 있기도 하지만 참례자들의 편의와 일반 참배객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오전 중에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제례 시간이 바뀌어 입재일이 변했는지 또는 1일 전 입재 또는 당일 입재로 제례 시간이 바뀌었는지, 상호 편의에 의해 변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제물 구입도 전통 시장에서 알맞은 제수를 골라 흥정하지 않고 구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문배달을 하거나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시생(豕生)의 경우 예전에는 생돼지로 생간품(牲看品)을 한 다음 직접 도축하여 사용했으나 현재는 정육점에서 반으로 토막 낸 냉동돼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바뀌었다.⁹

또한, 도산서원의 석미례(浙米禮) 전통도 안동댐의 건설로 강이 사라지면서 열정(洌井) 옆 수돗가에서 손을 대지 않고 물로만 씻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과거 제물의 신성성을 확보하고자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서 쌀과 기장을 씻어 왔던 전통이 주변 환경의 변화와 함께 변한 것이다.

서원 제례에는 대개 유건과 도포를 예복으로 입었다. 유건과 도포를 예복으로 입지 않는 경우는 예로부터 삼헌관만 특별히 관복을 입는 경우(도산서원)와 금관조복을 입는 경우(돈암서원, 우저서원, 강한사)로 구분된다. 금관조복은 돈암서원에서 도입하여 예복으로 착용한 것을 보고 뒤에 우저서원에서도 입게 되었다고 한다.¹⁰

제복은 영남지역의 서원들은 대체적으로 개인이 직접 준비를 하는 반면, 기호지역의 서원들은 서원 측에서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복을 갖춰 입어야만 서원 제례 시 출입할 수 있었던 규정도 관람객의 증가로 제례에 참여하는 유생에 한하여 적용하고 일반 참배객들은 적용하지 않게 되었다.¹¹

2) 관련 문서

서원에서 제례를 봉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중 하나는 제례를 집행할 제관의 선정이다. 선정된 제관의 임무를 알리고 역할을 분담한 내용들은 망기와 분정기를 통해 통지된다.

9.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원 향사(소수서원, 도산서원)』, 2011. 287쪽 참조. 도산서원 사례

10. 돈암서원은 2009년 영상기록 시 이미 수 년 전에, 우저서원은 2012년 영상기록 시 2010~2011년 경 금관조복으로 변경되었다는 구술이 있었다.

11. 도산서원의 사례, 위의 책 참조

망기(望記)는 지필묵을 준비하여 한지에 묵서한 뒤 봉투에 넣고 봉하여 직접 전달하였던 것이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차 편리화·간략화되어 갔다. ‘한글’로 형식에 따라 입력한 뒤 프린트하여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삼헌관에게만 망기를 작성하여 보내고 나머지는 안내장을 송부하는 경우 등이 등장하였다. 제례를 봉행할 제 집사를 분정하는 분정기(分定記)에도 변화가 있었다. 보통 분정기를 작성하여 분정판에 붙이는데 화이트 보드에 소임(所任)을 인쇄해 두고 제관들의 이름만 펜으로 써 넣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모습들은 편의에 따라, 혹은 형편에 따라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제례를 봉행하는 정신은 그대로 전승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원의 제례 절차를 명시해 놓은 것이 홀기(笏記)이다. 따라서 제례는 홀기대로 시행된다. 그러나 간혹 홀기에는 있으나 제례 진행 시 뺀 경우 또는 보완하여 삽입한 경우도 있었다. 소수서원은 최초의 서원답게 가장 오래된 홀기가 지금까지 전래되어 오고 있다. 서원 제례에 대한 의례절차를 적은 주세붕의 수필홀기와 이를 수정·보완한 이항의 홀기가 있다. 서원 제례절차의 시원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소수서원은 여전히 이 홀기의 원형대로 제례를 봉행하고 있다.

한편 소수서원에는 진설도도 남아있다. 주세붕의 ‘안문성공춘추대향도(安文成公 春秋大享圖)’와 이항이 수정·보완한 ‘안문성공춘추향도(安文成公 春秋享圖)’가 그것이다.¹² 그러나 현재의 진설은 찬품의 내용과 배열법에 있어 진설도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진설 내용이 언제 이렇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연구하여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3) 제례악

소수서원은 우리나라의 첫 서원이다. 이러한 가치성 외에도 소수서원의 제례가 다른 서원보다 독특한 점이 있다. 바로 도동곡(道東曲)이라는 악장(樂章)을 부르며 행례한다는 점¹³이다. 도동곡은 주세붕이 지은 것으로 유학의 연원과 실천, 공자·주자의 도학 칭송, 안향에 의해 도학이 도입된 것에 대한 찬양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경기체가(景幾體歌) 형식의 초·중·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곡은 멸실되고 가사만 전해져 온다. 오직 소수서원에서만 불려지는 제례악이다.

<初獻>

伏羲·神農·黃帝·堯舜이 하늘을 이어 법을 세우시니,
그 광경 어떠한고.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미미하니 정밀하고 전일하여야만
실로 中을 잡을 수 있다는 말로 주고받는 성인의 心法이란 이것뿐이다.
禹·湯·文王·武王과 皐陶·伊尹·周公·召公, 군신이 서로 만나시니
그 광경 어떠한고.

12. 소수서원의 사례, 위의 책 111~112쪽 참조

13. 소수서원의 사례, 위의 책 109~110쪽 참조

특히 제례 절차에 맞춰 도동곡을 부를 때에는 장로 1인과 유생 1인이 마주 서서 같이 부르며 하고 있는데 후세에 영원히 전승하기 위한 방법이다. 유생은 헌관이 바뀔 때마다 교체되어 도동곡의 창자는 총 4명이 된다. 종묘대제를 봉행할 때 종묘제례악으로, 석전대제를 봉행할 때 문묘제례악으로 예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의례가 더욱 장엄해지는 것과 같이 서원 제례에도 제례악이 불려지는 유일한 사례이다.¹⁴

4. 서원 제례 조사연구 결과물

1) 조사연구 결과물

서원 제례 조사연구 완료 후 조사된 내용은 서원의 역사, 제례, 향사의 특징, 서원의 운영과 전승 등이 수록된 보고서를 발간하여 마무리한다. 서원 제례의 첫 번째 결과물인 『서원 향사』 제1권 소수서원, 도산서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서원의 역사
 - 1) 역사적 배경과 구조
 - 2) 배향인물
2. 서원의 제례
 - 1) 분향(焚香)
 - 2) 향사(享祀)
 - 3) 제물(祭物)과 제구(祭具)
3. 향사의 특징
4. 서원의 운영과 전승
 - 1) 서원의 운영과 조직
 - 2) 전승과 지속

‘서원의 역사’에는 서원의 역사와 건물 배치 등을 포함한 공간구성 그리고 배향 인물의 생애와 역사적 의미, 배향하게 된 배경 등을 기술하였다.

‘서원의 제례’에는 제례 과정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분향례 전 과정과 제례 전 과정 그리고 제례에 필요한 제기와 제복 등 제구와 제물들이 주요 내용이다.

‘서원의 운영과 전승’ 부분에는 서원을 운영하는 조직의 구성과 활동들, 서원의 제례를 전승하기 위한 교육과 제반 활동 등을 수록하였다. 물론 각 서원의 독특한 제례적 특징도 확인할 수 있다.

14. 소수서원의 도동곡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서원 제례 조사연구 성과는 2011년도에 이미 보고서가 발간된 2곳(소수서원, 도산서원)을 시작으로 2012년 노강서원 등 4곳, 2013년 도동서원 등 2곳, 2014년 파산서원 등 4곳, 2015년 남계서원 등 6곳의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다. 총 9권의 보고서로 서원 18곳의 조사연구 성과가 정리·보고될 것이다.

서원의 제례는 제례 당일의 현장을 기록한 영상기록물로 그 현장성을 유지한다. 영상기록은 HD로 기록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록본, 보급본 두 가지 형식으로 제작한다. 영상기록물은 HD 테이프에 수록된 원본과 복사본, 클린본과 영상기록물을 용이하게 활용하기 위한 DVD 복제본으로 구성된다. 또한 AVI파일을 확보하여 인터넷 상에서의 활용성을 꾀하였다.

기록본은 2008년 첫 기록 이후 점차 수록시간이 늘어나 돈암서원의 경우 210분대까지 넘어갔으며, 축약본은 25~45분대의 수록시간을 보유하고 있다.

서원 제례에 대한 영상기록과 보고서 발간을 통해 조사연구 당시의 제례를 사실성을 바탕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2) 결과물의 활용

서원 제례 결과물 중 영상기록은 모두 국문연과 국가기록원에 영구 보존된다. 영상기록 중 보급본은 해당 서원에 제공하고 국문연 홈페이지([http:// www.nrich.go.kr](http://www.nrich.go.kr))에 모두 게시¹⁵되어 있다. 기록사진은 대개 보고서에 수록되고 별도로 보존된다. 각 서원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는 1~2년 뒤 보고서로 발간할 계획으로 있다.

그간 영상기록물은 한국방송공사의 <역사스페셜> 등 공익 방송의 자료화면으로 제공된 바 있으며 서원의 제례, 조직운영, 사회교육 등이 수록되어 있어 유관 서원과 향교 등에 교육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이 서원 제례 조사연구는 서원이라는 건축적 의미 외에 현재 서원의 구성원들에 의해 면면히 전승되는 의미를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서원이 함유하고 있는 유형적 가치와 무형적 가치는 서로 상호 보완하며 문화유산의 지속적 전승을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전승을 담보하는 문화적 공간으로서 가치를 확대하고 있다.

세계문화유산인 종묘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종묘제례 및 제례악과 더불어 그 가치를 전승하고 있다. 사적인 서울 문묘(제143호)는 중요무형문화재인 석전대제(제85호)와 더불어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적이자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된 각 지역의 9개 서원은 서원의 제례를 포함한 제반 의례와 더불어 그 특별한 가치를 전승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15. 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 → 문화유산연구지식 포털 → 영상자료관 → 04 무형문화재관 → 전통의례 기록영상으로 찾아가면 된다.

한국서원의 제향의례

1. 제향 공간으로서의 서원의 전통

조선의 사족들은 중기부터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다 서원이라는 사설 학교를 세우기 시작하였다. 서원은 공부하는 공간과 제사를 지내는 공간으로 나뉜다. 대개 비탈진 곳에 학교를 세워 앞쪽에는 강당(講堂)을 짓고 뒤쪽이면서 위쪽이 되는 곳에 사묘(祠廟), 즉 사당을 지어 돌아가신 스승의 위판(位板)을 모셨다. 평소에는 서원의 생도들이 강당에서 모여 글공부를 하고 삭망(朔望), 즉 매달 초하루와 보름, 그리고 봄과 가을 두 차례 날을 정하여 학생과 선배들이 모여 밤에 사당에서 제사를 지냈다.

서원은 원래 강학장소(講學場所)로 지어진 것이지만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紹修書院)의 전신으로서 1543년(중종 38)에 세워진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은 사묘의 부수적인 존재였다. 그 후 퇴계 이황(李滉, 1501- 1570)에 의해 강당과 사묘를 같이 갖는 형태를 취하면서 서원은 공부하는 자들의 장수처(藏修處) 제공이 설립의 주된 목표가 되었고 사현(祀賢)은 부차적인 것이 되었다. 그것은 향교와 같은 관학(官學)의 쇠퇴와도 관계가 있다. 또한 서원 설립에는 사족들이 이를 통해 지방사회를 교화(教化)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 이러한 목적은 서원이 선현에 대한 제향공간으로 기능하게 된 배경이 된다.

2. 제향 인물은 서원의 얼굴

서원의 사당에는 선현(先賢), 즉 학문적으로 뛰어난 인물의 위판이 모셔져 있다. 한 분을 모시는 곳도 있지만 대개는 여러 분을 모신다. 물론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그들의 제자이거나 후손들이다. 서원은 외적인 규모보다는 사당에 어떤 분이 모셔져 있는가에 따라 그 위상이 결정된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뛰어난 인물에게는 제자도 많을 뿐 아니라 그를 모시는 서원도 많다.

서원의 역사와 관련하여 사족, 또는 유림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던 선생으로 퇴계 이황과 우암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을 꼽을 수 있다. 두 사람은 활동 시기는 다르지만 각각 남인과 노론이라는 두 당파의 중심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을 제향하는 서원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지만 특히 전자는 남인의 본거지인 경상도에, 후자는 노론의 본거지인 충청도에 집중되어 있다. 숫자로 보면 송시열을 제향한 서원이 가장 많아 조선후기 노론세력의 전국에 걸친 영향력을 짐작케 한다.

한편 남인계 유림사회에서 퇴계 이황을 모시는 도산서원(陶山書院)이 차지하는 위치와 비중은 특별하다. 도산서원 내의 광명실(光明室)에 보관된 「유원록(遊院錄)」에는 저명한 남인계 학자들이 이름이 시대 순으로 망라되어있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밖에도 우리나라 최초의 성리학자라고 할 수 있는 회헌 안향(安珦, 1243-1306)을 제향하는 소수서원의 백운동서원 때 기록인 「행이등록(行移謄錄)」(1546년)에는 경상도 관찰사가 도내 각읍에 통첩(通牒)을 내어

이 서원에서 유생을 공궤(供饋)하는데 물량이 부족하므로 이를 보충케 하라는 내용의 관문(關文)이 실려 있어 그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서원의 경제적 기반은 노비와 전답이다. 옥산서원(玉山書院)의 경우 서원이 소유한 노비는 1694년에 130명이었고 이후 꾸준히 늘어 18세기 말에는 180여명에 달하였다. 전답은 200섬지기나 되어 경주를 비롯하여 청도·밀양·경산·영일 등에까지 걸쳐 있었다. 이것 외에도 감사나 인근 지방관이 서원을 예방했을 때 내는 현물 부조와 장기·영일 등에서 매년 보내는 소금 13섬이 있고, 선척(船隻) 등도 소유하고 있었을 정도로 그 규모가 크다. 정혜사(定惠寺)는 옥산서원을 창건하면서 서원에 소속시킨 절이다. 1834년의 화재로 전소될 때까지 회재 이언적(李彦迪, 1491-1553) 선생의 유물과 문집판각을 보관하고 서원에 필요한 현물을 조달하는 등 서원의 경제적 운영을 뒷받침하였다.

조선후기로 내려올수록 서원의 제향인물은 후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우 서원은 영을 위한 경제력도 후손들의 경제력에 따르며, 서원에 대한 사회적인 인정의 범위도 대부분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 국한되어있다.

3. 제향을 통해 다시 만나는 스승과 제자

서원의 향사(享祀)에는 매월 삭망(朔望), 즉 초하루와 보름에 알묘(謁廟)하여 분향하는 삭망례, 또는 향알례(香謁禮)와 정월 초5일이나 6일에 행하는 정알례(正謁禮) 및 봄과 가을로 지내는 춘추향사가 있었다. 춘추향사의 시기는 중춘(仲春, 음력 2월)과 중추(仲秋, 음력 8월)의 중정일(中丁日), 또는 춘추 계월(季月, 음력 3월과 9월)의 상정일(上丁日)이나 중정일로 정하였다. 중춘과 중추의 상정일은 성균관과 향교의 석전일(釋奠日)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정일(丁日)을 향사일로 잡았다. 그러나 한 고을에 서원이 여럿 있는 경우가 많아 다른 서원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제향일이 조정되어 정일을 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향알례와 삭망례는 분향과 재배만으로 간단히 행해진다.

1) 제구(祭具), 제물과 그 의미

제향은 서원운영을 맡은 유사(有司)들이 제물을 준비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제물을 담은 제기(祭器)를 닦고, 제주(祭酒)를 빚어 향아리에 담은 다음 부정(不淨)이 타지 않게 입구를 봉(封)하며, 쌀과 기장을 씻고, 마지막으로 희생(犧牲)으로 올릴 산 짐승을 잘 살핀다. 이 모든 일은 신중하게, 그리고 정성을 다한다. 올리는 제물은 모두 생것이다. 군자는 혈식(血食)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혈은 희생을 뜻하므로 희생을 바쳐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어느 서원이나 제구(祭具)의 종류나 형태는 거의 동일하다. 간혹 일부 제구들은 진설품목에 따라 서원마다 차이가 있었으나 근자에는 같아지는 경향이 있다. 축문을 올려놓는 축판(祝板)은 대개 어디나 보이는데, 옥산서원의 경우처럼 축상(祝床)만 보이기도 한다. 제기(祭器)와 제물, 그리고 희생을 운반하는 데는 가자(架子)가 필요하다.

제물은 곡식과 희생, 그리고 폐백이 기본이다. 『시경(詩經)』에 자성(粢盛)은 제사에 필요한 것이니 미리 준비되어 있거나 정결하지 않다면 그 성의를 다 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예절을 시행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서(黍), 즉 기장과 도(稻), 즉 쌀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것으로 모든 곡식을 통칭하는 육곡(六穀)을 상징한다. 육곡이란 서(黍)·직(稷)·도(稻)·량(粱)·맥(麥)·고(苽)를 말한다.

곡식을 담는 제기는 구리로 만든 보(簠)와 궤(簋)다. 보에는 쌀을 담고, 궤에는 기장을 담는다. 보는 안이 둥글고 밖이 네모지며 궤는 그 반대, 즉 안이 네모지고 밖이 둥글다. 보나 궤의 뚜껑에는 거북이 새겨져 있는데 대개 거북은 먹지 않고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탐식을 경계하는 뜻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보와 궤는 짝을 이루어 변과 두 사이에 배치하는데, 신위를 중심으로 왼쪽에 보, 오른쪽에 궤를 놓는다. 초창기 문헌에는 2보 2궤라 하였는데, 언제부터인가 1보 1궤가 되었다.

서원 향사의 희생으로는 한 가지를 올리는데, 대개 돼지 한 마리다. 성균관 석전대제 때는 소·양·돼지 삼생(三牲)을, 향교 석전에서는 양과 돼지 두 가지를 올린다. 과거 서원 문헌을 보면 계성(雞腥)을 올리는 곳도 있었다. 희생을 담는 제기가 흔히 적대로 부르는 조(俎)다.

폐백으로는 옷 한 벌을 지을 수 있는 양의 옷감을 마련한다. 원래 흰 모시를 많이 썼으나 면포를 쓰거나 한지로 대신하는 곳도 많다. 폐백을 담는 비(篚)는 대나무로 만든 납작한 채반이다.

반찬에 해당하는 제물은 대오리를 곁어 만든 변(簋)과 나무로 만든 두(豆)에 담는다. 마른 제물은 변에, 젖은 제물은 두에 담는다. 향교 석전례는 소사(小祀)에 해당하여 8변 8두를 갖추지만 서원 향사는 이보다 낮추어 서원에 따라 6변 6두, 4변 4두, 혹은 2변 2두를 놓는다. 제물 중 녹해(鹿醢)는 사슴고기를 절인 것인데, 대개 쇠고기로 대신한다. 녹포도 쇠고기포다. 어해(魚醢)는 절인 생선으로 지역에 따라 그 종류가 다르다. 어포도 그러하다. 근저(芹菹, 또는 菲菹)는 미나리를, 청저(靑菹)는 생 무를, 황률(黃栗, 또는 율황)은 밤을, 건조(乾棗)는 말린 대추를 말한다.

제물은 기본적으로 날 것 그대로 쓴다. 장을 보러 갈 때 미리 물목(物目)을 작성하여 한 가지라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한다. 밤, 대추, 포 등 제물은 모두 크고 빛깔이 좋은 것만 고른다.

작(爵)은 헌작 때 올리는 구리로 만든 술잔이다. 두 기둥에 세 발이 달려있고 술을 따르는 유(流)와 손잡이인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玷)에는 축점(祝玷)과 작점(爵玷)이 있어 축판이나 술잔을 올려놓기 위한 네모 받침으로 유기로 만들었다.

제주(祭酒)는 직접 담근 것을 사용한다. 용수로 거른 맑은 술만 제주로 사용한다. 그리고 제주로 쓸 양이 상을 걸러 헌관들을 대접한다. 용수로 거른 제주는 준(罇)에 담아 봉하는데, 이를 봉준(封罇), 또는 봉준(奉尊)이라고 한다.

준에는 세 가지가 있다. 초헌 때 올리는 술인 예제(醴齊)를 담는 준은 소 모양의 희준(犧罇), 아헌 술인 양제(盎齊)를 담는 준은 코끼리 모양의 상준(象罇), 종헌 술인 청주(淸酒)를 담는 준은 산 문양을 새긴 산뢰(山罍)라고 한다. 이러한 격식을 다 갖춘 서원도 있지만 종헌 준인 산뢰를 쓰되 주향위(主享位) 준과 종향위(從享位) 준을 구별하여 쓰는 서원도 있다.

작(勺)은 헌작이나 관세 때 술이나 물을 뜨는 국자다. 손잡이 부분에 용머리가 조각되어있어 용작(龍勺)이라고도 한다. 먹(罍)은 술항아리를 덮는 덮개다. 먹이 없는 경우 한지로 근봉(謹封)이라고 써서 먹 대신하기도 한다. 그밖에 제구로는 유기로 만든 향로(香爐)와 향합(香盒) 등이 있다.

제주를 거르고 난 나머지 술밑으로는 막걸리를 만드는데, 삼헌관 이외의 집사와 참사자들을 대접하는데 쓴다.

제관들의 식사접대를 위한 찬거리도 장만한다. 서원마다 고직사(庫直舍)나 전사청(典祀廳)이 있어 제물과 음식을 준비한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과거 천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요즈음에는 모두 떠나고 없거나 후손들이 대신하거나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 이 일을 맡는다.

제수로는 그밖에도 향나무, 향축, 필묵, 양초, 축지 등이 필요한데, 흰 종이로 싸 두었다가 입재 후에 근봉(謹封)한다.

2) 제향의 기본절차

제향은 모든 절차가 예(禮)에 어긋남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집례(執禮)가 창(唱)을 하면 그에 따라 제관들이 질서있고 경건하게 움직이며 진행된다. 계단을 오를 때도 왼발부터 디디며 한 계단씩 올라간다. 사당의 중문(中門)은 신도(神道)로 여겨 제물과 제주가 드나드는 경우 외에는 출입을 금하고 항상 동문으로 들어가 서문으로 나온다.

서원마다 제향절차가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분향례(焚香禮), 전폐례(奠幣禮), 삼헌례(三獻禮), 음복수조례(飲福受胙禮), 망료례(望燎禮)로 이루어진다. 분향을 하여 혼을 부르고 폐백(幣帛)을 드리는 예를 행한 다음 술잔을 세 차례 올리는데 초헌(初獻), 즉 첫 잔을 올리고 나서 축문(祝文)을 읽는다. 아헌과 종헌이 끝나면 초헌관이 제물로 올린 술과 고기 일부를 맛보아 복을 받은 다음 축문을 태우면 제사의 주요 절차가 끝난다. 다음의 사례는 아직 전통적인 예의절차를 잘 간직하고 있는 옥산서원의 절차를 기본으로 정리한 것이다.

(1) 춘추 제향

초집(招集)

제향의 시작은 서원 운영의 책임을 맡은 임원들이 모임을 가지면서부터 시작되는데, 서원에 따라서는 이를 초집이라고 한다. 옥산서원의 경우 춘향례는 음력 2월 초하루에 삭망례가 끝나면 바로 초집을 갖는다. 여기에서 앞으로 있을 향례를 진행할 헌관(獻官) 세 명과 대축(大祝) 한 명, 그리고 집례(執禮) 한 명 등 5명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망지(望紙)를 작성한다.

망지는 행사에서 맡을 직책을 적은 종이로 망(望)이란 그 직책을 맡아주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곁봉에 이름과 사는 곳을 적고 뒷면 이음새에 근봉이라고 쓴 다음 서원 직인을 찍어 우편이나 인편으로 당사자에게 보낸다.

제물 준비

서원의 살림을 담당하는 곳인 고직사(庫直舍)에서는 향례일을 계산하여 미리 제주(祭酒)를 담근다. 찹쌀과 맵쌀로 고두밥을 지어 술독에 넣고 여기에 엿물과 누룩을 넣어 저은 후 입구를 한지로 봉한 다음 ‘謹封’이라고 쓰고 방안에 드어 발효시킨다.

제향 진행을 맡은 유사와 임원들은 2-3일 전에 미리 가까운 장에 가서 제수(祭需)를 장만한다. 제수에는 생(牲), 폐(幣), 밤, 대추, 포 등이 있는데,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과 폐백이다.

입재(入齋)

유사와 임원, 그리고 미리 정한 삼헌관과 대축, 그리고 집례는 미리 서원 강당에 모이는데 이를 입재(入齋)라 하고, 모인 이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을 개좌읍례(開座揖禮)라 한다. 읍례가 끝나면 향례에 참여할 집사를 정하고 각기 맡을 역할을 정하는데, 이를 집사분정(執事分定)이라고 한다. 입재 시기는 서원마다 다르다. 과거 교통이 불편하던 시절에는 어느 서원에서나 하루 전에는 모두 입재하였다. 그러나 교통편이 좋아지고 제향 시각을 새벽이 아닌 오전으로 옮긴 서원이 늘어나면서 유사와 임원 외에는 제향일 당일에 입재하는 곳이 많아졌다.

본래 향례는 축시(丑時), 즉 새벽 한시 경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제관 이하 참사자(參祀者)들은 전날 오전에 서원으로 온다. 서원의 정문에서 의관을 갖추고 출입하는 서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서원도 많다. 참사자는 시도록(時到錄)에 이름을 적고 초헌관을 찾아 예를 올린다.

성생례(省牲禮)

성생례는 감생(鑑牲禮), 또는 간품례(看品禮)이라고도 하며 희생으로 쓸 짐승의 상태를 검사하는 절차다. 희생의 중요함을 알리는 의례이기도 하다. 서원 정문 밖에서 예를 치르는데 삼헌관은 북향하고, 희생의 머리는 사당으로 향하게 한다. 유사가 희생의 상태를 살핀 후 초헌관에게 희생물로 올리기에 충분하는 뜻으로 충(充)이라고 하면 초헌관은 돌(膂)이라고 응답하는데, 이를 세 차례 한다. 그러나 희생을 통째로 올리지 않는 서원도 많아 이러한 예가 어디에나 있는 것은 아니다.

집사분정(執事分定)

분정은 미리 정한 삼헌관과 대축, 그리고 집례 이외의 역할을 맡을 집사들을 선출하는 과정이다. 분정 방식이나 절차 역시 서원마다 다르다. 분정된 집사들에게는 각기 역할을 알리고 그 내용을 적은 제향집사분정기(祭享執事分定記)를 강당 벽에 걸어놓는다. 대개 분정된 집사들은 헌관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다.

헌관獻官 3人(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대축大祝 1人

찬자贊者 1人

알자謁者 1人

찬인贊引 2人

진설陳設 2-3人

사준司鑪 1人

봉향奉香 1人

봉로奉鑪 1人

봉작奉爵 1人

전작奠爵 2人

사축(寫祝)

분정을 마치면 대축, 즉 축관은 헌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축문(祝文)을 작성한다. 사축이 끝나면 축관은 축문을 축판이나 축상에 받쳐 들고 사당 안으로 들어가 제상 아래 향탁 좌측 옆에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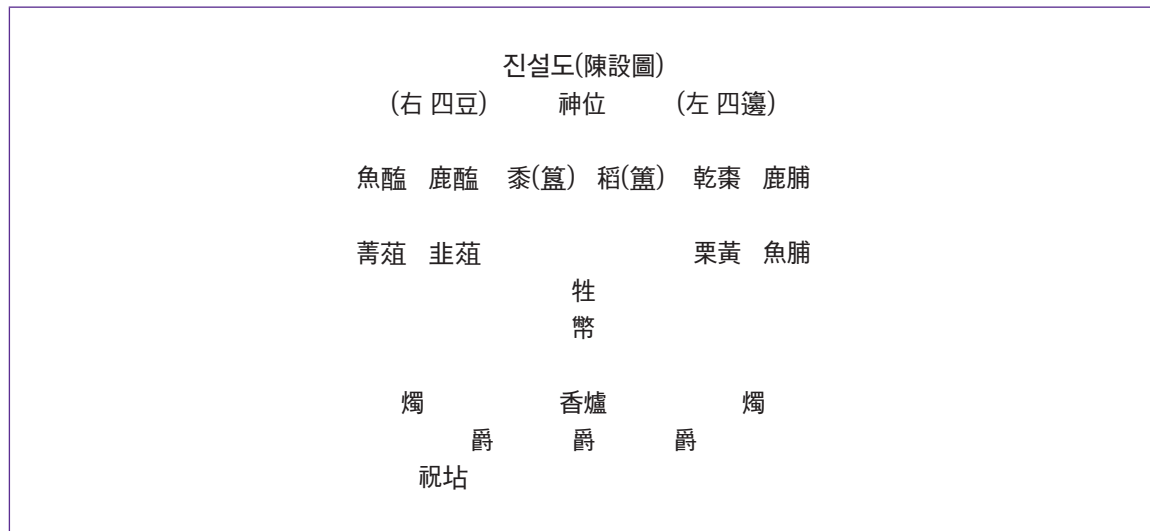
제수근봉(祭需謹封)

제관들은 제물과 희생을 사당으로 옮기고 전사청에서 보와 궤, 변과 두 등 각종 제기에 미리 손질한 제수를 담는다. 제기에 담은 제물이나 향, 축 등 기타 제수들은 더 이상 손이 타지 못하도록 근봉(謹封)이라고 써서 봉한다. 새벽에 제향을 올릴 경우 제수를 봉한 후 저녁식사가 이어지는데, 이를 식상개좌(食床開坐)라고 하며 독상을 받는다.

진설(陳設)

교의(交椅)에 미리 생이 진설된 상태에서 신위를 중심으로 좌측에 변 4기, 우측에 두 4기를 놓은 후 술잔과 받침을 놓는다. 변에는 마른대추, 사슴포, 황률, 생선포 등 마른 제수를 놓고, 두에는 어해, 녹해, 미나리, 부추 등 젖은 제수를 놓는다.

다음은 옥산서원의 진설도(陳設圖)다.



상읍례(相揖禮)

앞서 언급한대로 근자에는 향례일 오전에 제향을 갖는 곳이 많지만 과거에는 새로 새벽 1시에 향례를 시작하는 곳이 많았다. 향례 시작 반시간 전에 모든 제관은 의관을 정제한다. 집사나 관리인은 그 시각에 사당문을 열고 교의 양쪽에 놓인 향촉에 불을 밝힌다.

향례를 행하기에 앞서 헌관 이하 집사들은 강당에 모여 서서 상읍례를 행한다. 위관의 뚜껑을 여는 개독(開櫝)에 이어 집례(또는 집례가 재배를 하기 전까지 유사)가 다음과 같이 창을 하며 집례, 즉 예를 집행한다. 향례의 진행순서를 적은 것이 홀기(笏記)이고 홀기를 낭독하는 것을 창홀(唱笏)이라고 한다. 제관들은 다음과 같이 창홀에 따라 움직이며 맡은 임무를 행한다.

贊者引初獻官升自東階

찬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시오.

點視陳設

진설을 점검하시오.

祝開櫝

축은 위패의 독을 여시오. (찬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올라와 진설한 것을 살핀 다음 대축이 개독, 즉 신위 독을 연다.)

贊者謁者贊引入就拜位

찬자와 알자, 찬인은 배위로 들어가시오

再拜

재배하시오

各就位

각자 자리로 돌아가시오.

贊引引學生入就拜位

찬인은 학생들을 인도하여 배위로 나오시오.

再拜

재배하시오. (鞠躬 - 拜 - 興 - 拜 - 興 - 平身の 창에 맞추어 재배한다.)

贊引引祝及諸執事入就拜位 再拜

축과 제 집사를 찬인의 인도를 받아 절하는 자리로 나아가 재배하시오. (鞠躬 - 拜 - 興 - 拜 - 興 - 平身の 창에 맞추어 재배한다.)

盥手帨手

손을 씻으시오.

各就位

각자 자리로 돌아가시오.

初獻官入就拜位

초헌관은 배위에 서시오. (鞠躬 - 拜 - 興 - 拜 - 興 - 平身の 창에 맞추어 재배한다.)

분향례(焚香禮)

초헌관이 알자(謁者)의 도움을 받아 신위 앞에서 삼상향(三上香), 즉 세 번 분향하는 분향례를 행한다.

謁者引初獻官詣盥洗位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로 나아가시오.

盥手帨手

손을 씻으시오.

引詣神位前 跪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三上香

향을 세 번 피우시오.

전폐례(奠幣禮)

초헌관이 신위전에 폐백을 올리는 절차로, 대축이 채반 모양의 둥그란 싸리반침에 폐백을 담아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은 폐백을 든 다음 다시 대축에게 준다. 대축은 폐백을 신위 앞에 놓는다.

祝以幣篚

축은 폐백을 초헌관에게 주시오..

獻官執幣以授祝

헌관은 폐를 들어 헌폐한 후 축에게 주시오.

祝奠于神位前

축은 폐를 받아 신위전에 올리시오.

獻官俯伏興

헌관은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引降復位

자리로 돌아가시오.

초헌례(初獻禮)

초헌관이 신위전에 헌작하는 예다. 전폐례를 마치고 원래 자리로 내려간 초헌관은 알자의 인도에 따라 준소(樽所)로 올라와 동쪽편에서 서향을 향하고 선 다음 수작(受爵)을 지켜본 후 사당에 들어가 신위전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집사는 신위에 올릴 잔을 준소(鑄所)에서 받아 초헌관에게 건넨 다음 다시 받아 신위전에 올린다.

謁者引初獻官詣鑄所 西向立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준소로 나아가 서향하여 서시오.

司鑄舉罍酌酒

사준은 맥(뿔개)을 열고 술을 따르시오.

受酒

술을 받으시오.

以爵授獻官

작을 헌관에게 드리시오.

獻官執爵

헌관은 작을 받으시오.

執事受爵奠于神位前

집사는 작을 받아 신위전에 올리시오.

獻官俯伏興

헌관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시오.

少退跪

조금 물러나 꿇어앉으시오.

祝進初獻官之左

축은 초헌관의 왼쪽으로 나아가시오

開簠簋蓋

보와 궤의 덮개를 여시오.

독축(讀祝)

대축은 초헌관의 왼쪽에서 동쪽을 향해 꿇어앉아 보(簠)와 궤(簋)의 덮개가 열리면 축을 읽는다. 축을 읽을 때 참사자 모두가 부복하지만 초헌관만 무릎을 꿇고 있다가 부복하고 흥하라는 창에 맞추어 부복한 후 일어나는 곳도 있다.

俯伏興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引降復位

자리로 돌아가시오.

옥산서원의 축문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維歲次 某年 某月 某干支 朔某日 干支 後學 幼學 某姓名

敢昭告于

先師文元公晦齋先生伏以學問淵深道德高厚

東國攸宗歲享悠久屬茲仲春謹以清酌牲幣

用伸常薦 尙

饗

아헌례(亞獻禮)

아헌관이 신위전에 헌작하는 예다. 아헌관은 알자의 인도를 받아 준소에 들렀다가 신위 앞에 이르면 꿇어앉고 집사가 건넌 잔을 신위 앞에 잠시 들었다가 집사에게 건네면 집사는 잔을 초헌잔 옆에 놓는다. 독축이 없는 것 말고는 초헌례와 같다.

謁者引亞獻官詣罇所

알자는 아헌관을 인도하여 준소로 나아가시오.

盥手帨手

손을 씻으시오.

引禮罇所 西向立

준소로 나아가 서향하여 서시오.

司罇學纂酌酒

사준은 맥(뿔개)을 들고 술을 따르시오.

執事者以爵受酒

집사자는 작에 술을 받으시오.

跪

꿇어앉으시오.

以爵授獻官

작을 헌관에게 드리시오.

獻官執爵

헌관은 작을 받드시오.

執事受爵 奠于神位前

집사는 작을 받아 신위전에 올리시오.

引降復位

자리로 돌아가시오.

종헌례(終獻禮)

종헌관이 신위전에 헌작하는 예다. 종헌례 방식은 앞서의 아헌례와 차이가 없다. 종헌례가 끝나고 종헌관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면 세 헌관은 함께 재배하여 삼헌례가 끝났음을 알린다.

盥手帨手

손을 씻으시오.

引禮罇所 西向立

준소로 나아가 서향하여 서시오.

司罇學纂酌酒

사준은 맥(뿔개)을 들고 술을 따르시오.

執事者以爵受酒

집사자는 작에 술을 받으시오.

引詣神位前

신위전에 나아가시오.

執事亦跪

집사는 꿇어앉으시오.

以爵授獻官

작을 헌관에게 드리시오.

獻官執爵

헌관은 작을 받드시오.

執事受爵 奠于神位前

집사는 작을 받아 신위전에 올리시오.

獻官俯伏興

헌관은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引降復位

자리로 돌아가시오.

獻官皆再拜

헌관은 모두 재배하시오. (鞠躬 - 拜 - 興 - 拜 - 興 - 平身의 창에 맞추어 재배한다.)

음복례(飲福禮)

초헌관이 대표로 신이 흠향한 술과 조육을 맛보는 예다. 음복수조례(飲福受胙禮)라고도 한다. 음복과 수조로 진행되는 음복례는 준소에서 대축이 전달한 복주(福酒)와 육포로 초헌관이 행한다.

謁者引初獻官詣飲福位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음복위로 나아가시오.

西向跪

서향하여 서시오.

祝詣罇所

축은 준소로 가시오.

以爵酌福酒

작에 복주를 따르시오.

進獻官之左

헌관의 왼쪽으로 나아가시오.

以爵授獻官

작을 헌관에게 주시오.

獻官受爵

헌관은 작을 받드시오.

飲卒爵

다 마시시오.

執事授虛爵

집사는 빈잔을 받으시오.

復於拈

원래 있던 자리에 두시오.

祝進減神位前胙肉

축은 신위전에 나아가 조육을 조금 덜어내시오.

獻官受胙

헌관은 조육을 받으시오.

以授執事

집사에게 주시오.

獻官俯伏興

헌관은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引降復位

자리로 돌아가시오.

철변두(撤籩豆)

실제 변두를 치우지 않고 축이 변과 두를 조금씩 움직여 예를 표한다.

獻官及學生皆再拜

헌관과 학생은 모두 재배하시오. (鞠躬 - 拜 - 興 - 拜 - 興 - 平身の 창에 맞추어 재배한다.)

망료례(望燎禮)

축문을 구덩이에 묻거나 태워 넣는 예다. 축을 폐백과 함께 묻을 때는 망예례(望瘞禮)라 하지만 묻지 않고 태우기 때문에 망료례라고 한다. 폐백은 태우지 않고 향례가 끝난 후 유사에게 준다. 망료례는 대축이 철변두, 즉 변과 두를 물리는 예를 한 다음 초헌관이 알자의 인도를 받아 행한다.

謁者引初獻官詣望燎位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망료위로 나아가시오.

北向立

북향하여 서시오.

祝就祝(及幣)降自西階

대축은 축(과 폐백)을 들고 서계로 내려가시오.

燎於坎

구덩이에 넣고 태우시오.

謁者獻官引降復位

알자는 헌관을 제자리로 인도하시오.

향례의 마무리

음복례를 마치면 알자는 초헌관 왼쪽에 서서 예필(禮畢)이라고 말하고 3헌관과 참사자들을 인도하여 나간 다음 다시 돌아와 대축과 모든 집사들과 함께 재배하고 대축은 함독(闔楨), 즉 주독을 닫는다.

謁者初獻官之左

알자는 초헌관의 왼편으로 나아가시오.

白禮畢

예필을 고하시오.

遂引初獻官出

초헌관을 인도하여 나가시오.

贊引各引獻官出

찬인은 각 헌관들을 인도하여 나가시오.

學生以次出

학생들은 차례로 나가시오.

謁者贊引還本位

알자와 찬인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시오.

祝及諸執事皆復拜位

대축과 제 집사는 모두 배위로 돌아가시오.

再拜

재배하시오. (대축 및 제 집사 재배: 鞠躬 - 拜 - 興 - 拜 - 興 - 平身の 장에 맞추어 재배한다.)

出

나가시오.

祝合櫛

대축은 독을 단으시오.

옥산서원의 예처럼 집례 전에 유사가 예를 진행했을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유사가 재배를 올린다. 다음은 도산서원의 사례를 통해 향례일 아침의 행사에 대해 언급한다.

이번 제향이 잘 치러졌는지 점검하는 절차를 제공사(祭公事)라고 한다. 행사일 아침 일찍 대축과 집례는 동재(東齋)의 남벽(南壁) 밑에서 북쪽을 향하여 나란히 앉고 집사들은 동서로 서로 마주보고 앉으면 먼저 대축과 집례에게 전작(奠酌)하고 조사(曹司)가 좌정하면 집례는 행사(行祀) 때 실례(失禮)가 있었는지 자세히 문답한 다음 모두를 물러나게 하고 대축과 집례는 서로 마주보고 앉아 반성하고 다음에는 실례가 없도록 다 집한 후 파좌(罷座)한다.

제공사가 끝나면 모두 전교당에 개좌한 자리에서 재유사가 향약(鄉約) 약문(約文)을 읽는 독약(讀約)을 하고 음복례(飮福禮)에 들어간다. 음복상이 나오면 초헌관부터 순서대로 전작(奠爵)하고 좌읍례(座揖禮)를 행한 다음 일제히 음복한다.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순서로 잔을 돌리기를 세 번 한 다음 서로 읊하고 파좌(罷座)한다.

(2) 정알례와 삭망례

정알례(正謁禮)는 정초에 올리는 제사이고 삭망례(朔望禮)는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지내는 제사다. 옥산서원에서는 음력 정월 초5일에 정알례, 즉 정초알묘(正初謁廟)의 예식을 갖는다. 회재 이언적 선생에게 올리는 새해 첫 인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알묘관은 유사가 맡는다.

정알례(正謁禮)

정알(正謁)을 위해 지역 유림들이 하루 전에 입재한다. 다음날 새벽 5시 경에 알묘례가 시작된다.

謁廟官以下 皆拜位

알묘관 이하 모두 배위로 나오시오.

引詣升自東階 香卓前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 향탁 앞으로 나아가시오.

三上香

향을 세 번 피우시오.

謁廟官 俯伏興

알묘관은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引降復位

자리로 돌아가시오.

諸執事 皆再拜

제집사는 모두 재배하시오. (鞠躬 - 拜 - 興 - 拜 - 興 - 平身の 창에 맞추어 재배한다.)

禮畢

예를 마치시오.

삭망례(朔望禮)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행하는 분향례로 향알례, 또는 삭망알묘(朔望謁廟)라고도 한다. 다음날 새벽에 있을 삭망알묘를 위해 알묘관 등 제관들은 하루 전날 저녁에 입재한다. 다음날 새벽 6시경에 분향례가 시작된다.

謁廟官以下 皆拜位

알묘관이하 모두 배위로 나오시오.

詣盥洗位

관세위로 나아가시오.

盥水帨手

손을 씻으시오.

引詣升自東階

동쪽 계단으로 오르시오.

三上香

향을 세 번 피우시오.

謁廟官 俯伏興

알묘관은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引降復位

자리로 돌아가시오.

皆再拜

모두 재배하시오. (鞠躬 - 拜 - 興 - 拜 - 興 - 平身の 창에 맞추어 재배한다.)

禮畢

예를 마치시오.

4. 제향 의례로 다져지는 결속과 계승

어느 서원이나 제향을 행하기 전에 회의를 열어 진행을 맡을 제관(祭官)을 선정한다. 행사 당일 방문하는 사람들은 시도기(時到記, 요즈음의 방명록)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영구히 기록으로 남긴다. 제사가 시작되기 전, 즉 진설 전에 미리 제향 때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예행연습을 하는 서원도 있다. 이를 습례(習禮)라고 한다. 제사가 끝나면 제관들은 모여 이번 행사가 예에 어긋남이 없이 격식에 맞고 정성을 다했는지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절차를 제공사(祭公事), 제사공사(祭祀公事), 제사공론(祭祀公論) 등으로 부르는데, 제향을 끝내고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음복례를 행하기 전에 행한다. 이 절차를 생략하는 서원도 많다. 또한 도산서원의 예처럼 퇴계 선생이 지은 예안향약(禮安鄉約) 등을 낭독하는 강신례(講信禮)를 행하기도 한다.

향례는 차분하고 경건하게 천천히 진행된다. 제향인물이 1위인 경우는 1시간 이내에 다 끝나고 여럿인 경우는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 향례를 마치고 새벽 2-3시경에 참사자들이 모두 모여 음식을 나누는데, 이를 음복개좌(飲福開坐), 또는 그냥 음복례라고 하는데 향례절차에 들어있는 음복수조례와는 다르다. 모든 향례절차를 마친 현관 이하 모든 집사들은 강당에 모인다. 음복상(飲福床)이 나오면 초헌관부터 순서대로 전작(奠爵)하고 3헌관에게 무사히 제사를 치렀음을 보고하는 좌읍례(座揖禮)를 행한 다음 일제히 음복례를 행한다. 음복상에는 제향에 사용한 제주와 함께 포와 밤, 대추를 조금씩 놓는다.

참사자들은 잠시 눈을 붙인 후 오전 7시 경에 아침식사를 하고 치봉과 행자를 받아 집으로 돌아간다. 치봉은 봉치라고도 하고 바른말은 봉채(封案)로 예물을 의미한다. 치봉으로는 제사에 쓴 생을 넣고 행자로 귀가에 필요한 여비를 넣는다.

제향은 돌아가신 스승이나 위대한 인물을 추모하는 의식이다. 이 의식을 통해 제자나 후손들은 그들의 정신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한다. 그뿐만 아니라 제향은 서로 간에 결속을 다지는 기회가 된다. 제향이 이어지는 한 스승의 정신과 서원의 전통 또한 함께 계승될 것이다.

서원제향(書院祭享)의 현대적(現代的) 계승(繼承)과 과제(課題)

1. 시작하면서

한국의 서원이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함께 서원문화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祭享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마련이다. 有形的인 建物이나 景觀만큼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진정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 서원의 祭享儀禮가 다른 儒敎圈 國家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가장 完備된 形態로 再現되는 儒敎式 祭享儀式이라고 한다.¹

그러나 서원의 제향의례가 朝鮮時代에서는 선비사회를 先導하는 高級文化의 一環으로 봉행되었으나 現代에는 국민대중의 關心에서 벗어나 일부의 서원관계자의 任務隨行으로 겨우 命脈만 유지하면서 변형되고 있는 形便이다. 書院儀節도 사람이 운영하는 것으로 시대의 變遷과 狀況에 따라 變하지 않을 수 없었고 앞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保障이 없다.

그래서 筆者가 관계하고 있는 도산서원 사례를 중심으로 제향의례의 傳來과 變遷에 대하여 살펴보고, 현대적 계승에 따른 문제점을 찾아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課題는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한다.

2. 書院儀禮의 傳承과 變遷 - 陶山書院의 事例를 中心으로 -

1) 白雲洞書院 祭享儀禮 改定과 繼承

서원에서 선현을 추모하는 것은『禮記』에서「文王世子編」에 “학교를 세울 때 반드시 先聖·先師에게 釋奠을 드린다.”고 하였으며, 『中庸』에 “어짚[仁]은 곧 사람[人]이니 가장 친근한 사람을 친하게 하는 것이 위대하고, 의리[義]는 마땅[宜]한 것이니 尊賢하는 것이 위대하다”고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釋奠은 고려 초기부터 국자감에서 孔夫子廟를 세워 공부자를 추모하고 학덕을 기리기 위하여 의식이 행하여 졌으며 이러한 의식이 성균관과 향교로 이어져 봉행되어 지고 있으나, 書院에서의 享祀는 白雲洞書院에서 최초로 봉행되었고, 백운동서원의 文成公廟의 儀節이 우리나라 書院儀禮의 遵據가 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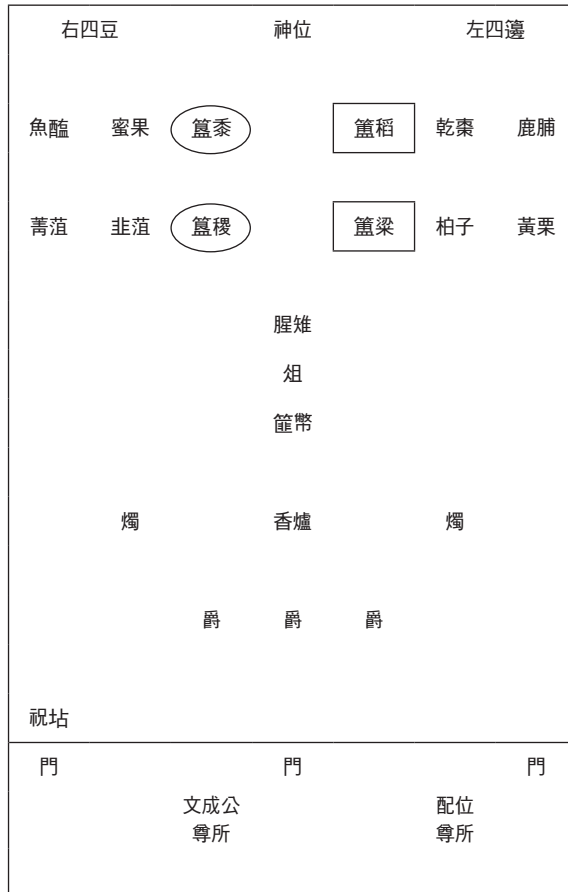
백운동서원의 享祀禮에 대하여 1549년 退溪(李滉, 1501~1570)가 풍기군수로 재직하면서 향사의 陳設과 笏記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改定하였다.

1. 이해준, 「韓國 書院 有形」 無形 遺産의 特徵, 『한국 서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2011.10.27~29, 서원국제학술회의, 14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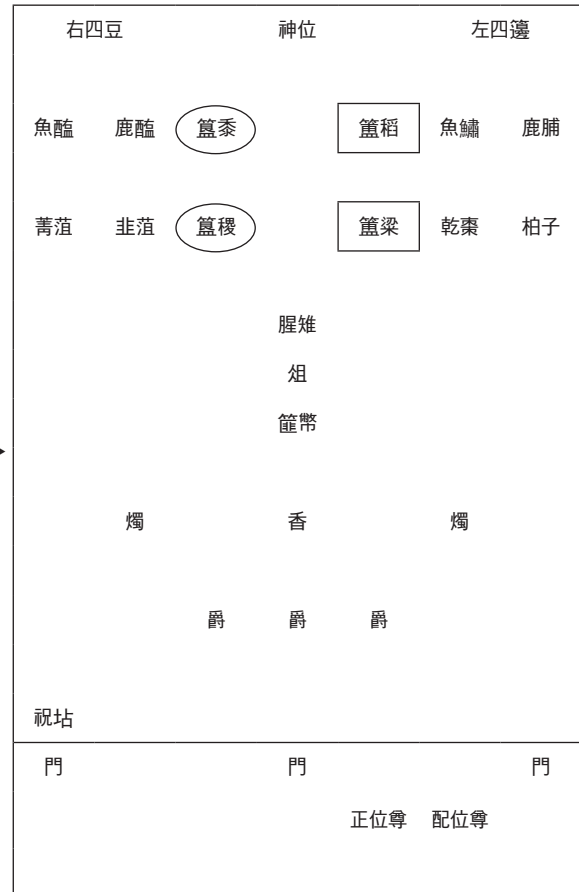
먼저 陳設에 대해서 보면 ‘蜜果’를 진설해 온 관행을 지적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밀과는 ‘麝味(더러운 맛)’이기 때문이다.²

그리고는 ‘밀과’를 뺀 자리에 ‘鹿醢’를 대신하고 왼편 籩에도 ‘과일’을 빼고 ‘魚鱸’으로 바꾼다면 좌우의 籩豆에 脯醢와 果菹가 둘 씩 둘 씩 상대가 되어 어긋남이 없을 것이라고 하고 陳設圖를 다음과 같이 정비 하였다.

〈整備前〉愼齋手筆笏記陳設圖³



〈整備後〉退溪手筆笏記陳設圖⁴



퇴계가 蜜果를 麝味이므로 진설을 反對하고 ‘옛 禮法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당시의 俗禮를 벗어 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⁵

笏記에 대해서는 서원을 설립한 愼齋(周世鵬, 1495~1554)가 제정하여 시행한 것으로 알려 졌으나 퇴계는

2. 退溪手筆, 「安文成公春秋享圖 配位同」, 『春秋享圖』, 陶山書院 光明室所藏(韓國國學振興院 寄託) ‘文成公東人也循國俗而祭用蜜果 固爲無妨也耶然雖東人既祭於學則所當倣古而行豈可以蜜果麝味用之於學中乎且果而盛于豆’

3. 紹修書院. 紹修書院誌. 2007. 298쪽

4. 退溪手筆, 앞의 책.

5. 한재훈, 「퇴계의 서원향사례 정초에 대한 고찰」, 2012 한국국학원 서원자료 심층연구 포럼 『조선후기 도산서원의 사회경제적 네트워크 체계』, 2012.12.1. 국학문화회관, 78쪽

『竹溪志』⁶의 내용과 비교하여 慎齋가 제정한 것이 아닐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면서⁷ 이 笏記에 대하여 세 가지 문제점을 제시한다. 첫째 문제로 서원의 향사는 釋奠盛禮으므로 上香禮와 初獻禮가 구분되어 행해져야 하는데 한꺼번에 행하도록 간소화 되어있고, 둘째로는 飲福을 먼저하고 受胙를 해야 함에도 이들의 순서가 바뀌어 행하도록 되어있고, 셋째는 受胙를 한 다음 受禧의 拜禮를 하여야 함에도 撤籩豆 후에 拜禮도록 한 것은 각각의 儀式節次들이 갖는 意義를 無視하고 있다는 점을 指摘하고 있다.⁸

퇴계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치고 빠진 부분을 보완하여『新笏記』를 제정하였다. 즉 上香禮와 初獻禮를 두 개의 節次로 분명하게 구분하였고, 先受胙 後飲福을 先飲福 後受胙로 바로잡고, 受胙後 受禧拜를 補完하였으며, 어떤 사람이 三獻官과 六執事를 담당해야 하는지를 明文化 하였고 正位와 配位에 대한 祝文도 검토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修正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현관들이 致齊期間에 藏書와 건물의 維持狀態와 곡식, 집기 등 財政狀態를 會計하여야 한다는 것과 三上香 다음에『竹溪辭』를, 初亞終獻 다음에『道東曲』을 노래하던 것을『新笏記』에는 省略하였다. 퇴계가 무엇을 典據로 문제제기와 수정하고 보완하였는지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홀기에 관해서 重要하게 참고했던 것이『國朝五禮儀』의『釋奠儀』였던 것을 보면 陳設 등에도 마찬가지로 가능성을 높다. 하지만『國朝五禮儀』에는 서원의 향사례에 관한 條目이 없다. 따라서 퇴계는 鄉校의 享祀禮 遵據가 되었던『國朝五禮儀』『州縣釋奠文宣王儀』와『國朝五禮序例』『州縣釋奠正配位』를 참고했을 것으로 판단된다.⁹

향교 석전의 진설은 二簠二簋에 八籩八豆이다. 서원에는 簠簋는 향교와 같으나 籩豆는 四籩四豆로 하고 있어 향교와 區別하고 있다. 이것은 향교는 文宣王을 모시고 서원은 先賢을 모심에 緣由한 것으로 짐작되나 퇴계도 여기에는 異意가 없었던 것 같다. 퇴계는 서원의 향사례를 임의적 판단에 따라 집행하던 俗禮의 수준이 아닌 객관적 根據위에 의식절차를 定立시킴으로서 질적인 提高를 기대했던 것이다.

실제로 퇴계가 晩年에 易東書院¹⁰ 創設에 개입하면서 享祀禮의 의절을 제정함에 있어 白雲洞書院의 享祀禮를 참고할 것을 권유하였다.¹¹ 현재까지 도산서원과 역동서원의 향사례 홀기가 백운동서원의 홀기와 거의

6. 竹溪誌 : 본래 周世鵬이 백운동서원을 건립한 이듬해인 1544년(중종 39) 편찬한 것을 1803년(순조 3) 安珬의 후손 時中·鼎鎮 등이 3책으로 간행하였다. 이어 1824년 20대손 炳烈이 안향에 관한 기록을 모아『晦軒實記』를 간행한 뒤 부록으로 삼기 위해 3권 1책으로 줄여 중간하였다. 책의 앞부분에 목록과 주세붕이 쓴 서문이 있다. 주세붕의 서문에서는 회현사와 백운동서원의 건립 경위, 이 책의 편찬 경위를 밝혔다. 조선 중기 서원의 건립 배경, 경제적 기반, 장서 상황 등을 알 수 있어 서원 연구에 도움이 된다.

7. 退溪水筆, 앞의 책. ‘書院舊有文成公廟祭忽記云是周武陵所定大抵務從簡易未免有徑率苟且之病其間數條又有與竹溪志祭式自相抵牾者由是言之殆非武陵所定也’

8. 退溪手筆, 앞의 책.

- 謹按祭式行上香禮降復位乃行初獻禮蓋釋奠盛禮上香奠幣與初獻自爲兩節所以重其事也唯朔望奠及先告事由等祭則上香與初獻合爲一節一時並行所以從簡也今此廟祭無大於春秋享固當備儀而舊笏記旋上香而旋初獻是爲太儉今從祭式及釋奠儀改定
- 釋奠儀及祭式皆先飲福後受胙舊笏記則先受胙後飲福非禮之本今從儀式改定
- 釋奠儀受胙後四拜爲受禧拜也籩豆四拜爲祭畢拜也凡禮之節皆有意義不可徑削祭式則本不載拜跪之節故終之曰餘如校而已欲人考禮而行之猶可也舊笏記直削受禧之拜只於徹籩豆後行再拜非也

9. 한재훈, 앞의 논문, 82쪽

10. 易東書院 : 1570년(선조 3) 퇴계의 門人들이 중심으로 禹倬(1262~1342, 本貫 丹陽, 字 天章, 號 白雲, 諡號 文僖)의 祭享을 위하여 도산서당 남쪽에 건립하였다. 1683년(숙종 9)에 사액되었으나 1871년(고종 8) 훼손되었다가 1969년 안동시 송천동에 복설되어 1992년 이후 안동대학교 박물관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다.

11. 李滉, 『與琴聞遠(丁卯)』, 『退溪全書 續集卷六』 : 竹溪書院 祀文成公儀舊有謄本供覽去取以爲他日祭禹公之儀何如.

一致하고 있음은 퇴계의 기대에 副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紹修書院은 2008(戊子)년 秋享때 홀기첩에 퇴계의 ‘개정 진설도’가 例示되어 있었으나 實際는 左四簋에 미나리+무. 밤+대추+호두. 배. 사과를 담아 1列로, 右四豆는 상어토막. 조기. 방어. 대구포+마른명태를 얹어 1열로 하고, 中央에는 爵·鹿醢·簋·簋·豕腥 順으로 陳設하고 있어서 언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원인을 규명하여 원형대로의 복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으며¹², 行禮에는 慎齋가 제정하여 祭式에서 시행하던 각 헌관이 獻爵 다음에 부르던「道東曲」을 다시 삽입하여 시행하고 있다.¹³ 陳設의 근거와 변경한 경위는 짐작하기 어려우나 行禮에「道東曲」을 삽입한 것은 慎齋의 뜻을 받들었다고 볼 수 있다.

2) 陶山書院 儀節의 變遷

도산서원에는「院規」와「儀節草」라는 規程이 있고, 慣例도 傳承되어 施行하고 있으나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형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원규」와「의절초」를 근본으로 하는「도산서원원무처리규정」과「시행세칙 및 의절초」를 1977년에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개정시행 하고 있다.

院規에 ‘女性은 들어올 수 없다[色不得入門]’는 조항이 있으나 국민소득 증대와 더불어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여성의 진도문 출입은 제한하지 않았으나 先賢의 位牌 모시는 祠堂에는 제한하였다. 그러나 女性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으로 사당출입 許容의 여론에 따라 2002년부터 여성의 사당출입을 허용하여¹⁴ 알묘와 봉심에 參與하다가 2012년 春享에는 外國人이면서 女性이 獻官으로 參禮를 하기도 하였다.¹⁵

儀節은 향사에 常用되는 祝文부터 살펴보자. 본문[心傳孔孟 道紹閩洛 集成大東 斯文準極]과 곁어[尙饗] 외에는 舊¹⁶. 現¹⁷ 祝文이 같지 않다. 어떤 이유로 언제 변경하였다는 기록은 찾지 못했으나 국가의 체제와 제도가 바뀌고, 퇴계의 생전 겸손의식을 받들고, 제수의 품목 變更과 國滅으로 翰音(雉腥)에서 牲幣로 하였다가 豕牲으로 고쳤고, 弟子 月川公이 從享位로 追享되는 등의 이유로 漸次 變更되었을 것이다.

陳設도 역시 퇴계가 개정한 백운동서원의 陳設圖를 그대로 적용하였으나 雉腥이 豕牲으로 바뀌었고, 1簋 1簋를 ‘癸未國滅’이라는 기록과 幣簋에 ‘戊辰國滅’이라는 기록이 있어 나라에서 줄이도록 하였던 것 같다.¹⁸ 그리고 鹿醢와 鹿脯는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나 肉醢와 肉脯로 대신하고 있다.

12. 국립문화재연구소,『서원향사』「소수서원」, 2011.104쪽. 이신옥,『榮州의 祭享』,「소수소원 제수와 진설」, 2013. 박약회영주지회 388쪽

13. 紹修書院,『紹修書院誌』, 2007, 307쪽

14. 陶山書院院規施行細則 및 儀節草 第5條(謁廟)③婦女子도 男子에 準하여 謁廟할 수 있다.(신설 2002.4.14.대당회, 2002.5.13.운영위원회 의결)

15. 壬辰年 春享時(2012.3.7.) 孔子奉祀官(孔垂長) 일행이 參禮하여 終獻으로 女性(黃呂錦茹:臺北市孔廟管理主任委員 兼 臺北市民政局長)이 獻爵을 하였다. 당시 동아일보 등 주요언론 매체에서 보도

16. 舊祝文(退溪先生年譜 附錄): 維萬曆某年歲次某甲子[春二秋八] 月[某甲子] 朔某日某甲子, 某官姓名敢昭告于先師贈領議政文純公退陶李先生, 心傳孔孟, 道紹閩洛. 集成大東, 斯文準極. 屬茲仲[春秋], 謹以清酌翰音, 用申常薦. 尙饗.

17. 現祝文(現行笏記帖 例文): 維歲次干支〇月干支朔〇〇日干支後學〇〇〇敢昭告于 先師退陶李先生 伏以 心傳孔孟 道紹閩洛 集成大東 斯文準極 謹以 牲幣豕牲黍盛 清酌庶品 式陳明薦 以月川趙公 從享 尙饗

18. 陶山書院,「笏記帖」

看品(省牲)禮도 現行法¹⁹ 遵守와 經費節約을 위해 도축장에서 사전 장만한 제수를 運搬하여 봉행하기로 改定하였다.²⁰

笏記는 奠幣禮 省略 외에는 변경된 문구가 없다.

그리고 제향시각은 중국의 周나라 제도를 계승하여 새벽에 모셨으나 深夜와 早朝行禮는 참례자와 참관자에게 불편이 초래되고 관람객들이 행례공개와 의례참관을 요구하는 여론이 있고, 관람객의 존현의식 고취는 물론 전통의례의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이며 시간과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²¹는 이유로 묘우[尙德祠]에 봉행하는 의례는 모두 2009년 春享부터 午時(낮11시)에 봉행토록 규정을 改定하여 시행하고 있다.²²

복장은 洋服着用이 일반화되면서 의례참여 이외에는 禮服을 갖추지 않아도 서원출입을 제한하지 않았다. 다만 묘우[尙德祠] 출입은 禮服을 착용토록 하였다. 이것은 성현을 뵈는데 모습이 단정하고 깨끗하며 정직하여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洋服으로 와서 謁廟를 원하여 서원에서 제공하는 예복[齊服]을 갖추고 의례에 임하고 있다. 또 正謁에는 모든 儒生이 廟內에서 禮를 행할 때에는 禮服을 갖추어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결례되지 않을 단정한 복장으로 참례할 수도 있다²³고 개정시행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正謁 뿐 아니라 다른 享祀禮에도 禮服이 아닌 단정한 복장이면 참례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을 示唆하고 있다.

그리고 「의절초」에 蒐錄되지 않고 「홀기첩」에 記錄된 의절 가운데 致祭儀禮는 近世에 없었다. 1969년 10월 14일에 당시 국가원수인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來訪하였어도 조선시대의 치제의절에 의한 의례를 봉행하지 않았다. 박정희대통령은 洋服차림에 致祭시 使臣이 하였던 焚香禮[不跪]를 奉行하는 寫眞에서 확인된다. 바쁜 공무수행 중에 래방하여 절차대로 봉행할 시간이 부족하여 約禮를 한 듯하고 또 군인출신으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의절봉행을 기피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告由禮는 근래에도 시행하고 있다. 節次는 그대로 奉行하나 고유문을 國漢文 混用으로 지어 읽기도 한다.

또 서원 출입자가 지켜야 할 凡節이라는 것이 전승되고 있다. 범절도 慣例와 같이 문서에 기록하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다. 잡자리에 들기 전에 의관을 벗어서는 안되며, 院內에서는 항상 경건하게 행신을 해야 하는 등 이다. 이러한 것은 옛날부터 지켜왔으나 현재에는 享祀 때나마 지키도록 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옛 부터 儀禮는 시대와 풍속에 따른다[從時俗]고 하였다. 도산서원에서도 그때의 상황과 풍속에 따라 의절이 변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19.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가축의 도살 등) ①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20. 2009.2.6. 堂會議決

21. 2009.2.6. 「도산서원 당회 상정안건」 중 제안사유와 기대효과

22. 2009.2.6. 堂會에서 香謁을 除外한 모든 儀禮는 午時(11시)에 奉行하도록 改定하였다.

23. 陶山書院院規施行細則 및 儀節草 第7條 3項 (2011.1.14.운영위원회 의결 개정)

3) 陶山書院 變遷儀節에 대한 分析

향사는 조선중기 이후 서원에서 先賢께 올리는 祭祀이다. 서원은 學校로서 德性和 知性を 兼備한 온전한 인간의 길을 가르치는 곳이다. 德性은 사당에 모셔진 스승의 길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知性은 서원의 강당에서 스승과 학도들과 함께 닦아 가는 것²⁴이라고 하였다. 도산서원은 구체적 창설과정을 알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나²⁵ 퇴계의 학문과 덕성을 崇尚하고 따르면서 심신을 다스려 인간으로서 온전한 길을 가르치기 위하여 창설되었음을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서원 건물배치와 건축에도 퇴계의 書院觀이 제자들에 의하여 반영했을 것이고,²⁶ 퇴계가 59세(1559년)에 지은 영주의 이산서원「院規」²⁷를 한 字 수정 없이 적용하여 현재도 講堂 벽에 揭示되어 있다. 의절 역시 白雲洞書院 儀節을 수용하여 適用하였던 것이다.

그러나「院規」에 정하여진 규정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 지킬 수 없었으며,²⁸ 외형적으로도 兩 光明室 新築과²⁹ 補修淨化工事³⁰와 安東댐 築造³¹로 變化를 거듭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書院創設 당시의 建築觀은 물론 퇴계의 建築觀과 園林經營과도 거리가 멀다고 指摘하기도 한다.³²

祭享儀禮도 祝文이 본문과 결어를 제외한 語句變更은 국가체제와 制度의 변화와 祭需의 변경과 從享位(趙穆, 1524~1606)의 追享과 言語純化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고, 陳設에는 퇴계의 改正案을 만들었으나 求하기가 어려운 제수(鹿脯, 鹿醢, 雉脰)를 구하기 쉬운 祭需로 變更하였고, 簠簋와 幣帛은 국가에서 減하였다. 향사례 홀기는 幣帛이 減하게 되어 不可避하게 奠幣禮를 省略할 수밖에 없었다. 또 女性參與와 行禮時刻과 看品禮에 대해서도 時代的 狀況과 遵法 등을 위하여 변화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院務處理規程 制定施行 前에는 주로 국가 제도적 차원의 변천에 적응하면서 創設當時의 規範을 지켜왔다면, 그 後에는 국가체제나 제도보다는 社會的으로 變化의 要求에 따라 변천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4. 권삼문, 김영순, 앞의 책, 4~5쪽

25. 정만조, 「도산서원과 영남의 지식문화」,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2012. 도서출판 글항아리, 51쪽

26. 李相海, 「陶山書堂과 陶山書院에 反影된 退溪의 書院 建築觀」, 『退溪學報 第110輯』, 2001.10. 退溪學研究院, 557쪽

27. 鄭錫胎, 「退溪先生年表月日條錄 2」, 2005, 퇴계학연구원, 555쪽.

28. 書冊의 韓國國學振興院 寄託과 女性出入 許容 등

29. 1819(순조19)년 동광명실 신축, 1930년 서광명실 신축.

30. 1969~70년 돌담 등이 생겼고 유물전시관인 옥진각을 신축하였다.

31. 1975년 안동댐 축조로 없어진 송림 숲길과 곡구암, 정문 앞 성토와 진입로개설 등

32.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3」, 1997, 창작과 비평사. 150~161쪽

3. 書院儀禮 繼承의 問題點

국가제도와 사회적 환경이 産業化와 더불어 外勢文化의 급격한 流入으로 국민들의 意識이 바뀌고 교육정책의 변화로 傳統의 文化를 忌避하는 現狀이 팽배해지면서 서원의 제향의례도 이 현상에 適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제도와 사회적 현상에 적응하기 위한 변화가 ‘교육기관들의 세계유산으로서 價値를 고려하는 基準’에 함께 사용되는 것을 選好하는 “卓越한 普遍的 重要性을 保有한 살아있는 傳統, 思想, 信念과 直接 또는 可視的으로 連繫되어 있는가?”³³라는 기준에 合當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疑問이 없지 않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서원마다 전통을 固守하자는 주장과 현대에 맞게 改革하자는 주장이 있어왔고 이 주장들이 相衝하면서 현재에 이르러 전통적 의례로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현대적으로 개혁이 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현상이 발생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現實이다. 例를 든다면 年2回(春秋)奉行을 1회로, 2日前 入齋를 當日入齋로, 奉行時刻을 丑時(01시)을 午時(11시)로, 祭需檢視(祭酒釀造, 牲看禮, 滌米禮 등)簡素化, 傳統韓服에서 洋服에 道袍着用 等이다.

傳統의 價値에서 보면 제향의례의 변경은 尊賢意識의 喪失과 先賢에 대한 缺禮이고 儀式的 敬虔함이 退色됨을 憂慮하고, 現代의 價値에서 보면 시대적 상황과 현대인의 生活方式 및 生業 등을 고려하여 현대생활에 맞게 改革하여 참여기회를 擴大함으로서 尊賢意識과 先賢奉祀를 一般人에게도 鼓吹시켜 儒敎文化의 高級化에 기여토록 하자는 것이다.

傳統의 固守論에서 보면 현대인들이 物質萬能에 埋沒되어 전통적 가치를 업신여기며 접근을 기피하고 있다고 하고, 現代의 改革論에서 보면 傳統固守는 時代的 要求를 外面할 뿐 아니라 현대인의 價値觀과도 거리가 먼 虛禮虛飾으로 看做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우려와 주장을 受容하고 문제점을 解決하기 위하여 陶山書院에서는 近來에 齋戒日程 短縮, 女性의 祠堂出入 許容, 奉行時刻變更, 牲看禮의 簡素化, 등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아직도 전통적 가치를 위하여 보존하고 있는 참례자 服裝과 의례봉행 日字, 참례자의 宿食 등을 현대인의 생활방식에 맞게 變更하자는 主張도 없지 않다.

이런 변경은 불편은 다소 해소하였을 것이나 일반인의 참관이 많지 않아 교육적 效果는 기대한 만큼 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女性의 사당출입을 許容하고 의절을 일부 변경하였다고 하여 서원의 모든 凡節이 사라졌다는 誤解가 큰 問題로 제기되고 있다.

33. 세계유산 등재기준(vi). Benedicte Selfslagh, 「교육기관들의 세계유산으로서 가치」, 『한국서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서원국제학술회의, 2011.10.27. 한국국학진흥원, 12쪽

4. 書院祭享儀禮 傳承의 向後 方向과 課題

儒敎의 世界化를 모색하고 있고 유교문화의 중요유산인 書院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고자 하면서 서원의 精神이라고 할 수 있는 의례도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지며 ‘전통과 사상과 신념에 可視的으로 連繫’되어야 하며, 한국 서원의 제향의례가 세계에서 가장 完備된 형태로 再現되는 유교식 제향의식이므로 종합적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서원문화의 現代的 價值繼承 및 歷史文化資源으로 持續的 活用을 위한 보존관리가 필요하다.³⁴고도 하였다.

따라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면서 傳統的 價値를 保存하여야 하고, 不合理하고 難解하며 不便한 部分은 現代적 가치와 融和도 圖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의 충족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書院의 모든 것을 公開하여 一般人의 接近을 쉽게 하여야 한다. 유형적인 건물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보관된 古典籍을 번역과 연구로 出版하고, 서원별 기능과 역할 및 역사적 행사(例 1792년 陶山書院 別科, 1906년 武城書院 義兵倡義)등을 發掘 考證하여 영화와 드라마의 素材로 提供하고 지역의 文化行事로 再現하므로서 書院의 價値를 다시 認識하게 하고 文化觀光資源으로 발전하게 하여 일반인의 理解와 接近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어렵고 불합리한 儀節의 改善이다. 傳統의 價値와 思想을 크게 훼손하지 않은 範圍 내에서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儀節을 改善하여야 한다. 어려운 用語들(축문, 홀기 등)을 현대인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무의미하게 踏襲되는 의절(省看禮 등)은 改善해야 한다.

셋째 專門性이 있는 人力育成이다. 儒敎儀禮에 대한 지식이 朝鮮時代에는 선비들에게 必須的 常識이었으나 現代에는 복잡다양한 직업과 생활방식으로 일부계층(유림 등)의 專門性으로 維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院任들이 고령으로 後繼者 育成이 시급하다. 서원의 世界遺産 등재를 契機로 정책적으로 方案을 摸索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서원의례도 세계문화유산으로 保護가 必要하다. 서원의례가 세계에서 가장 完備된 형태로 再現되는 유교식 제향의식으로서 제도적으로 보호할 價値가 充分하다. 서원의 유형인 건물과 경관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無形인 제향의례도 世界的으로 자연히 알려지게 되므로 이를 기준을 保護하며 傳承되어야 한다.³⁵

다섯째 열악한 財政確保 대책이다. 대부분의 서원이 農地의 小作으로 財政을 運營했으나 토지개혁으로 소유농지가 감소하였고 농촌인구의 격감으로 수입이 줄어 서원마다 재정이 劣惡하여 향사도 치르기 힘든 實情이다. 이것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書院自體的 收益事業(제향선현의 문적 번역출판, 시설

34. 이해준, 앞의 논문 참조

35. 문화재보호법 제19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등에 대하여는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 및 지원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과 경관을 영화 또는 드라마 촬영장 제공)을 開發과 觀覽料 徵收 등 정책적 支援이 필요하고 地自體에서도 地域의 重要な 觀光文化資源임을 인식하고 일정한 財政負擔을 制度化 하여야 한다.

결국 書院祭享儀禮의 傳承을 위해서는 일반인의 接近을 쉽게 하여 參與意識을 增大하여야 하고, 專門人力을 育成하여 制度的 保護를 하여야 하며 이들의 實現을 위하여 많은 政策的 참여와 지원을 必要로 하고 있다. 이것은 각 書院과 學界, 政府, 關聯團體 등의 積極的 意志가 없으면 不可能할 것이다.

5. 結語

필자가 世界文化遺產登載 대상 9개 書院의 儀節관련 資料를 蒐集은 하였으나 서원별 變遷過程을 찾아 볼 수 있는 자료로는 不足하다. 陶山書院에도 1977년 院務處理規程 施行 이후에는 개정사유에 대한 기록이 있어 알 수 있으나 以前에도 堂會 등에서 의사결정 후에 시행했을 것이나 기록을 찾지 못하여 자세히 알 지 못하였다. 서원의례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못했음이 反證되기도 한다.

儒敎儀禮는 일반적으로 型式性和 反復性을 갖는 特性이 있어서 慣習的이고 保守的이고 傳統主義的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³⁶고 하나 국가의 體制와 制度의 변화, 不便解消, 當時의 輿論 등의 이유로 변천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앞으로도 變遷을 거듭될 것임을 否認하기 어렵다.

儒敎의 祭祀는 祭物을 바치는 것과 人間自身을 바치는 것이다. 제물은 犧牲과 幣帛과 술을 바치는 것이고, 敬虔한 마음과 精誠, 沐浴齋戒하고 제복을 갖춘 깨끗한 몸, 축문으로 追慕하는 행위가 人間自身을 바치는 것³⁷이라고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敬虔한 마음과 精誠이다. 전통적이든 현대적이든 경건한 마음과 정성을 잃는다면 제향의례의 의미는 없어진다.

서원은 개인이 이익을 創出하거나 친목을 도모하는 組織이 아니다. 학문을 崇尚하고 올바른 인간을 養成하는 곳이다. 현대적 가치와 융합은 필요하지만 자유분방한 생활과 불편함을 참지 못하는 習性이 서원 본래의 의미를 退色하고 있지는 않을까 念慮된다.

이제까지 도산서원의례에 대하여 전승과 변천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문제점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도산서원의 의절이 全 書院의 典範이 될 수 없고 또한 문제점과 과제도 筆者의 私見에 불과하다. 다만 이제까지 서원의례에 대하여 深度있게 연구된 사례도 발견하기 어려웠는데 이 학술회의를 통하여 비록 한 서원의 事例에 불과하지만 의례변천과 발전과제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뜻이 있다고 본다.

36. 이옥, 「조상제사 왜 지내는가」, 『조상제사 어떻게 지낼 것인가』, 2012. 민속원, 12쪽

37. 금장태, 『유교의 사상과 의례』, 2000. 예문서원, 198쪽

1.b.2 강화

한국의 전통시대 교육공간의 구성원리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전통적인 ‘교육공간’이 과연 어떠한 인문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다루었다. 이 푸 투안(Yi-fu Tuan)의 표현을 빌리자면, 서원의 공간 구성과 거기에서 행해지는 각종 의례와 제의는 이미 그 자체로 명징한 교육행위가 된다. 도산서당이 보여주는 그 단순함과 절제의 미학은 천 마디 말보다 먼저 퇴계의 경(敬) 공부론이 지닌 철학적 깊이를 상식적으로 드러내 준다. 병산서원의 만대루는 공간의 분절화(Segmentation)가 사라진 확 트인 교육공간의 아름다움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서원, 서원의 열린 강화공간은 이미 근대 학교의 한계를 뛰어 넘는, 인간에 대한 매우 깊은 이해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서원의 독특한 공간 구성은 학교의 새로운 대안적 모델로 주목된다.

서원에 대한 새로운 조망은 지금까지 서구에서 생성된 근대 공간에 대한 담론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근대적 교육공간이 크게 비판받는 이유의 하나는 학교를 권력적 위계성을 드러내는 중심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오늘날의 학교는 군대나 감옥과 마찬가지로 조직적인 감시와 규제, 그리고 훈련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푸코의 표현처럼, 오늘날의 학교 아이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기 쉽게 고안된 교육공간이라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서원이라는 열린 형식의 교육공간이 지닌 대안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한편 본고에서는 한국의 전통시대의 교육공간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로서 크게 두 가지 모델을 제시하였다. 우선은 학교를 일종의 ‘특권적 記標(privileged signifier)’로 이해하는 방식이다. 유교 국가였던 조선조 사회에서 교육은 가장 중요한 국가 운영의 수단이었다.

문(文)을 숭상하는 유교사회에서 그 중심이 되는 교육공간은 군현과 촌락 사이 국가 내부의 결절점(nodal point) 구실을 하면서 유교문화의 한 상징체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유교 사회에서 교육공간이 확실한 결절점(nodal point)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타 이데올로기나 힘으로부터 초월하는 배타적인 특권을 지니고 있어야 했다. 유교의 교육공간을 불교를 딛고, 무(武)의 세계를 장악하는 문교의 세계를 상징해야 한다. 이때 교육공간은 유학적 의미체계와 상징체계, 또는 의미화(encode)의 연쇄적인 고리를 연결해 주는 특권적 기표(privileged signifier)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조선시대에 학교는 흔히 국가의 ‘원기(元氣)’라고 표현된다. 유학의 교육공간은, 마치 대지의 배꼽 움파로스처럼, 모든 유학적 질서율이 이곳을 축으로 운동하도록 구상되었다. 한 예로 관학인 향교의 경우, 대부분 중심부에 관아를 두고 읍치(邑治)의 한적한 외곽지대에 자리하면서 유학적 이념을 표상한다. 이 관아 지역의 외곽에는 촌락민들의 생활공간이 펼쳐진다. 대성전을 포함

한 제향공간을 갖춘 향교의 존재는 이 읍치지역을 단순한 생활공간이 아닌 매우 절제되고 통제된 의례공간으로 환원시킨다. 이 교육공간은 유학 이외의 이단적인 요소가 읍치(邑治) 지역에 투입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속(俗)의 세계에 성(聖)의 요소를 불어 넣는다. 또한 학교에서 행해지는 각종의 의례행사(ritual ceremony)를 통하여 교육공간은 향중에서의 도덕적 권위를 확보하고, 사림들의 공동체적 일체감을 묶어 내는 결절점의 역할을 하였다.

다음으로 서원을 일종의 ‘심학(心學)적’ 공간모형의 모델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우선 조선조의 학교가 제향(祭享)공간과 강학(講學)공간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학공간이 다수에게 개방된 열린 공간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면, 제향공간은 일정한 ‘의례(儀禮)와 절차’ 속에서만 참례(參禮)의 자격이 획득되는 닫힌 공간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공간구성은 모두 마음을 닦기 위한 정교한 이론적 시스템 하에서 형성되었다. 서원이 일반적으로 고립된 장소에 위치한 것은 세속을 버리고자 하는 이단을 흉내낸 것이 아니다. 마음의 본성을 회복하고, 사적인 욕망을 제거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심학적 구조’가 조선시대 교육공간을 관류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조선시대의 ‘경(敬)의 철학은 이러한 심학적 구조의 가장 밑바탕을 형성한다. 그들은 교육공간을 ‘존재’의 성찰을 위한 최적의 공간으로 가꾸고자 노력하였다. 이런 점에서, 서원이 지닌 일종의 ‘존재론적’ 공간구성은 근대 교육에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1. 한국의 전통적 ‘교육공간’, 그 인문적 가치는?

‘서원’이라는 전통시대의 교육공간을 오늘날의 사람들이 새롭게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서원이란 이미 지나간 시대의 박제화된 유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에 계속적으로 중요한 문화적 메시지를 던져 주고 있다는 믿음 때문일 것이다. 한국인은 서원이라는 교육공간에 그들의 다양한 역사적 경험을 담아 두었다. 한국인은 서원공간을 통하여 그들의 미학적 감수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들 특유의 교육 철학과 세계관을 제시한다. 우리가 서원과 같은 전통적인 ‘교육공간’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 공간 구성의 기본적인 원리를 파악해 가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가 지닌 독특한 문화 문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공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이푸 투안(Yi-fu Tuan)¹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 우리는 서원이나 서당 등을 바라보는 매우 유익한 시선을 제공받을 수 있다.

건축 공간을 보여주며 가르친다. 그것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중세에는 대성당이 여러 차원에서 교육기능을 담당한다. 직접적으로 감각에, 정서에 잠재의식에 호소하는 것이다...(중략).. 스테인드그라스 창문의 그림은 문자를 모르는 경배자들에게 성경의 교훈을 설명해 주는 텍스트이다. 기독교의 교리와 실천의 신비를 나타내는 무수히 많은 기호들이 있다...(중략)... 근대적 건축 환경도 교육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의 기호와 포스터는 정보를 제공하고 훈계를 한다. (그러나) 건축 활동에 초점을 두는, 그리고 한 세계를 창조하는 것으로 여겨지곤 했던 의식과 의례는 크게 쇠퇴하였다. 집은 이제 더 이상 행동 규칙을 담고 있는 텍스트가 아니며, 심지어는 다음 세대로 전수할 수 있는 총체적 세계관도 아니다. 근대 사회는 우주 대신에 분열된 이데올

1. 이-푸 투안(구동회 역), 『공간과 장소』, 대운, 1995, 187-190 쪽.

로기와 모순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다. 근대 사회는 또한 점차 문자화되어가고 있다. 이것은 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구현함에 있어서 물질적 대상과 자연환경에 덜 의존하게 됨을 의미한다. 즉 언어적 상징이 물질적 상징을 점점 대체해 왔으며, 건물보다는 책이 교육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 서원 공간 그 자체, 혹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례와 제의, 그 자체가 이미 보여주고 가르치는 명징한 교육행위가 될 수 있다. 서원의 독특한 공간 구성은 학교의 새로운 대안적 모델로 주목된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의 교육공간이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었다. 학교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가장 최적의 교육공간이 될 수 있을지에 관한 깊은 논의가 결여되었다. 단적으로 말해 ‘교육을 위한 공간’이 형무소나 군대, 혹은 관공서의 공간구성과 아무런 이념적 차별성이 없다면 이것은 무언가 왜곡된 구조가 아니겠는가? 그런 점에서 서원은 우리에게 끊임 없이 새로운 교육적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문화적 자원이다. 도산 서당의 건축물이 보여주는 그 단순함과 절제의 미학은 천 마디 말보다 먼저 퇴계의 경(敬) 공부론이 지닌 철학적 깊이를 상징적으로 드러내 준다. 병산서원의 만대로는 공간의 분절화(Segmentation)가 사라진, 확 트인 교육공간의 아름다움을 여실히 알려 준다. 이푸 투안(Yi-fu Tuan)에 따르면, 근대적 개인을 특징짓는 자의식은 분절된 공간을 통해서 형성된다. 그는 서양의 근대사회에서 ‘공간의 분절화’로부터 자의식 내지 자의식적인 개인이 발생하였다고 본다. 즉 근대학교란 학생들을 공간적으로 분할하여 연령에 따라 나누고, 그에 상응하는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훈육, 통제 대상의 이질성을 줄임으로써, 학교라는 공간-기계에 대응하여야 할 양식화된 행위를 만드는 곳이라는 것이다.² 그런 점에서 한국의 서원, 서원의 열린 강학공간은 이미 근대 학교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에 대한 매우 깊은 이해를 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교육공간을 둘러싼 지금의 공간담론들은 대부분 서구에서 생산된 이론체계에서 생성된 것이라는 점이다. 이들의 공간 이해는 서구 지성사에서 공간담론을 지배하였던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칸트 등의 학문적 기초 위에서 성장한 것이고, 그에 따라 문제를 인식하고 진단하는 방식도 서구사회 고유의 흐름을 답지하고 있다. 따라서 근대 공간에 대한 그들의 시각으로 서원을 바라본다면, 서원에 대한 이해에 상당한 한계가 노정 될 수밖에 없다. 르페브르(H. Lefebvre)가 주장한 것처럼, “공간은 사회적 생산물 ||”³이고 그 문화가 내포한 다양한 사회관계와 문화 형식을 담아 두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근대적 교육공간이 크게 비판받는 이유의 하나는 학교를 권력적 위계성을 드러내는 중심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오늘날의 학교는 군대나 감옥과 마찬가지로 조직적인 감시와 규제, 그리고 훈련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이해된다.⁴ 이러한 현상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푸코의 공간담론이었다. 그가 『감시와 처벌』에서 그려내는 판옵티콘(panopticon)이 근대 학교의 중심 모형이라는 것이다.⁵ 그가 ‘권력-지식(lepouvoir-savoir)’의 관계를 동가적(등가적?)으로 표현할 때, 그 양자를 매개하는 가장 규정적인 힘이 곧 교육이고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공간이 학교였다는 지적이다. 그가 ‘권력’의 관점에서 공간을 파악하는 방식

2.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142-143쪽. 구수경의 논문도 이 입론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

3. Lefebvre, H, Production de l'espace, 1974.

4. 오성철, -세속종교로서의 학교: 학교교육의 이데올로기 II, 『당대비평』 16, 삼익, 2001

5. 오성철, -세속종교로서의 학교: 학교교육의 이데올로기 II, 『당대비평』 16, 삼익, 2001.

은 한국의 근대적 교육공간을 설명하는 것에도 곧잘 적용되고, 그 공간적 특징을 규율주의(Disciplinism)로 파악하기도 한다.⁶ 말하자면 오늘날의 학교는 아이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기 쉽게 고안된 교육공간이라는 것이다. 만약 푸코의 이러한 공간 담론이 오늘날의 현실을 일정 정도 드러내 주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는 교육을 위해 결코 행복한 일이 아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서원이라는 교육공간이 지닌 대안적 가치를 찾을 수 있으리라 본다.

공간학에 관한 최근의 연구서를 살펴보면, 주로 지리학과 사회학을 중심으로 짐멜(Simmel)의 도시공간론, 르페브르(Lefebvre)의 헤겔적 마르크스주의 공간론, 하비(Harvey)의 공간정치 경제학 등으로 관심의 초점이 이동하면서 탈근대적인 공간인식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고, 한국에 적합한 이론 모델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⁷ 그러한 면에서 필자는 일단의 건축사학자들에 의해 진행된 주제적 해석에 주목한다. 이상해, 김봉렬, 임석재 등에 의해 이루어진 전통시대 교육공간에 대한 연구는 현장에 근거한 사실적 분석과, 서원 건축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성리학적 공간관과의 접점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상해 교수의 도산서원에 대한 분석⁸과 병산서원에 대한 김봉렬의 분석⁹은 성리학적 사유가 이들 건축 공간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가를 논의하고 있어 교육사 연구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한국건축을 동양사상의 맥락에서 파악하고자한 임석재 교수의 연구도 주목된다.¹⁰ 김덕현 교수의 사회문화학적 접근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우리는 이러한 건축사에서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 문화 구조에 적합한 교육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소중한 작업이 막 시작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교육공간을 매개로 하여 자연적 가치와 인문적 가치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의 문제나, 교육공간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읽어 가고자 하는 의지, 혹은 우리의 문화에 가장 적합한 형식의 시간관과 공간관을 교육공간 속에서 도출하고자 하는 노력 등은 높게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교육공간을 통하여 과연 어떠한 인간형을 길러 내고자 하는가에 대한 교육학적 성찰이 결여 되어 있다면 그 의미는 크게 퇴색될 것이다. 이번 학술회의를 계기로 교육공간에 대한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인문학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의 하나이다.

2. 조선조 ‘교육공간’의 특징과 그 사회적 의미

아리에스(Ph. Aries)는 중세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파이테이아를 완전히 잃어 버렸고, 교육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¹¹ 그들은 소수의 교회 성직자, 법학자, 학자들 외에는 교육체제와 교육개념, 그리고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강한 의식을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는 근대적 교육과 중세 교육 사이에 놓인 커다란 차이로 세 가지 요소를 거론하고 있다. 우선 중세 교육이 성직자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과, 읽기, 쓰기 등을 가르치는 초등교육이 없었으며, 문자와 과학에 관한 고등교육 또한 없었다는 점이다. 교육방식에서도

6. 구수경, “근대성의 구현체로서의 학교 : 시간·공간·지식의 구조화”, 교원대 박사학위논문, 2007.

7.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최병두, 『근대적 공간의 한계』, 삼인, 2002.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한계』, 푸른 숲, 1997.

8. 이상해, 「퇴계의 서원 건축관과 도산서당 및 도산서원 건축에 반영된 조영사상」, 『도산서원』, 한길사, 2001.

9. 김봉렬, 『김봉렬의 한국건축 이야기』 1·2·3, 돌베개, 2006.

10. 임석재, 『한국 전통건축과 동양사상』 북하우스, 2005.

11. 아리에스(문지영 역), 『아동의 탄생』, 새물결, 2003, 645-646쪽.

중세교육은 등급화(gradation)가 없어서 난이도나 순서를 무시하였고, 일반적 과목과 추가적인 과목처럼 상이한 과목을 동시에 가르쳤으며, 연령 구분이 없이 가르쳤던 사실을 들고 있다. 반면 근대적 교육방식은 시간표를 통해 시간을 분할하기 시작하였고, 학급이라는 제도를 통해 공간 분할 방식을 채택하면서 정착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¹²

이러한 그의 주장은 일견 한국의 전통시대의 교육공간을 설명하는 것에도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서원도 성리학자들의 전유물이었고, 교육방식도 등급화 되지 않았고, 교육방식도 시간과 공간의 분할을 최대한 억제한 사실들이 마치 중세 유럽의 교육과 여러모로 유사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피상적 유사성을 넘어서 한국의 전통적인 교육공간은 매우 독특한 구성 방식을 보여 주고 있다.

1) ‘특권적 記標’로서의 학교

유교 국가였던 조선조 사회는 문치주의(文治主義) 국가였다. 문치주의의 성패는 교육에 달려 있다. 또한 유학은 정치와 교육의 숙명적인 결합을 전제로 한다. 유학이란 곧 가르침(敎)과 배움(學)의 결합체라는 교육적 의미와 함께, 치자가 백성에 대하여 교화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정치적 의미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교육은 가장 중요한 국가 운영의 수단이었다. 유학의 이러한 정교일치(政敎一致)적 성격이 교육공간의 의미와 위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교육공간에 대한 해석은 국가권력과 사족집단, 평민층 사이에 일정한 긴장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우문(右文) 정치의 중심이 되는 교육공간은 군현과 촌락 사이 국가 내부의 결절점(nodal point) 구실을 하면서 유교문화의 한 상징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결절점(nodal point)이란 떠다니는 기표들을 한 군데로 묶는 공기표(empty signifier)를 의미한다. 유교의 교육공간이 확실한 결절점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타 이데올로기나 힘으로부터 초월하는 배타적인 특권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택당 이식(李植)은 사가 독서처인 독서당(讀書堂)의 기문 속에서 그 장소의 의미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위치가 바뀐 독서당 자리를 말하더라도, 모두 범패(梵唄)소리가 울려 퍼지던 곳이었으니, 당시에 얼마나 사문을 숭상 하고 이단을 배격했는지를 지금도 상상해 볼 수가 있다. 그러니 가령 중흥을 이룬 수십 년 동안, 내지(內地)에 병란의 걱정이 실로 없어져서, 그야말로 군부(軍府)를 혁파하고 그곳을 등영(登瀛)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었더라면, 전쟁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이 문교를 떨칠 계기가 점진적으로 마련되어 나갔을 것이다.¹³

택당 이식이 보는 유교의 교육공간은 불교를 딛고, 무(武)의 세계를 장악하는 문교의 세계를 상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때 교육공간은 유학적 의미체계와 상징체계, 또는 의미화(encode)의 연쇄적인 고리를 연결해 주는 특권적 기표(privileged signifier)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조선시대에 학교는 흔히 국가의 ‘원기(元氣)’라고 표현된다. 유학의 교육공간은, 마치 대지의 배꼽 옴파로스처럼, 모든 유학적 질서율이 이곳을 축으로 운동하도록 구상되었다. 이러한 그들의 구상이 현실화 된 장소가 선현에 대한 제향공간이 있는 향교와

12. 아리에스, 상계서.

13. 『澤堂先生集』 제9권, 記, 讀書堂南樓記.

서원이었다. 조선시대에는 가정과 촌락과 문중 전체가 교육공간과 이념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부락은 중법적 권위구조가 수직적 계열성을 형성하고 있었고, 학교는 이러한 권위구조를 내면화하는 중심 처였다. 아동들은 학교를 통하여 이러한 집단적 네트워크에 헌신하여야 함을 선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¹⁴

한 예로 관학인 향교의 경우를 살펴보자. 향교는 대부분 중심부에 관아를 두고 邑治의 한적한 외곽지대에 자리하면서 유학적 이념을 표상한다. 이 관아 지역의 외곽에는 촌락민들의 생활공간이 펼쳐진다. 대성전을 포함한 제향공간을 갖춘 향교의 존재는 이 읍치지역을 단순한 생활공간이 아닌 매우 절제되고 통제된 의례공간으로 환원시킨다. 이 교육공간은 유학 이외의 이단적인 요소가 읍치(邑治) 지역에 투입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속(俗)의 세계에 성(聖)의 요소를 불어 넣는다. 교육공간을 의미 있는 결절점으로 만들고자 하는 유자들의 노력은 건물의 영건(營建)과정이나 중건과정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난다. 영건과정은 개기고사(開基告祀)에서 부터 마지막 봉안례(奉安禮)에 이르기까지 진행되는 모든 공역(工役)은 의례를 축으로 하여 진행된다. 모든 공역이 예의 세계로 편입되고, 또한 사람의 예학적 질서가 공역 속에 침윤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의례행사를 통하여 교육공간은 향중에서의 도덕적 권위를 확보하고, 사람들의 공동체적 일체감을 묶어 내는 결절점의 역할을 한다.¹⁵

퇴계를 모시는 도산서원의 경우, 그 중건과정에서는 더욱 경건한 의절(儀節)이 있다. 이 의절은 물론 도산서원이 성스럽고 존엄한 공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우선 취회를 통해 사람의 공론을 모으는 작업이 선행되고, 다음으로 日家¹⁶의 조언에 따라 이안일(移安日)과 환안일(還安日)을 결정하여 위판의 이동을 천시에 맞추어 길일에 실시하고자 하였다. 작업이 진행되면 수령이 예리(禮吏)를 파견하여 위판의 이안과 환안에 관한 고유 및 제향의절에 관해 묻고, 이에 관해 동주(洞主)가 답하는 형식을 취해 그 특권적 지위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향유들이 찾아와 동주와 함께 이안때의 의절과 향사시의 흥기에 대하여 상의하고, 도집례(都執禮)가 여러 집사들을 인솔하고 입묘하여 고유하는 입묘고유(入廟告由)의 의식을 행한다. 그리하여 공사가 진행되어 끝나갈 무렵에는 다시 별유사가 일가(日家)에 가서 환안일(還安日)을 다시 택일하고 그 환안 일자에 관해 도내의 교원에 통문을 돌리고, 마침내 향중의 사람들과 함께 환안제(還安祭)에 이어 까다로운 절차에 따라 봉안제(奉安祭)를 올리게 된다.¹⁷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만들어진 학교공간은 유학의 복잡한 의미체계를 통합하는 ‘특권적 기표(記標)’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학교 건물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속(俗)의 세계로부터 성(聖)의 세계로 나아가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

반면, 근대의 학교공간은 학교로 하여금 이러한 특권적 기표(privileged signifier)의 역할을 박탈해 나아간다. 그 공격의 중심점은 기표의 중심인 제향공간에 놓여진다. 신교육의 태동과 함께 학교에서의 제향기능은 사라졌다. 당연히 춘추 석전을 포함한 각종 의례활동도 소멸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소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공간에 대한 사회문화사적 의미변화를 뜻하는 것이며, 교육의 전체적인

14. 졸저, 『공부의 발견』, 현암사, 2007, 128쪽 참조.

15. 졸고, 「조선후기 營建日記에 나타난 학교의 성격」, 『정신문화연구』 제65호, 1996.

16. 日家의 사전적 의미는 ‘推算星命者’이다. 즉 점성학이나 역학에 밝은 인물을 의미한다. 그러나 서원 묘우의 수리시기를 결정하는데 일반 巫家나 占卜人의 조력을 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문에서의 日家는 주역이나 오행에 밝은 유자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7. 졸고, 상계 논문.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대해 당시 지식인들의 반응은 침예하게 대립되었다. 단재 신채호는 제향공간이 혈연중심적 가족주의를 온존시키는 폐해를 낳는다고 통박한다. 김성희(金成喜)는 학교에서 제향기능이 상실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유교의 재해석을 통한 국교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는 제향기능이 지닌 봉건적 요소는 서구의 자유와 평등의 원리를 받아들임으로써 그 봉건성을 탈색시키고, 제의의 종교기능이 지닌 교육적 효과는 살려 둘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는 유학에 자유권과 평등권을 확보하여 이를 교육의 종지로 삼자고 주장한다. 사실상 종래의 교육공간이 지닌 특권적 지위를 포기하고, 유학의 재해석을 통해 시민사회의 도래를 상정한 교육공간을 만들고자 하였다.

교육공간에서 제향기능의 소멸 상실은 마치 서구사회에서 부르조아 혁명 이후 교회(教會)가 장악하고 있던 교육권(教育權)을 시민사회 영역으로 이관하면서 교육을 종교로부터 분리시킨 이른바 교육의 세속화(Laicism)현상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¹⁸ 이것은 조선 후기 이후 책의 세속화가 진행되면서 근대적 지식체계를 형성하기 시작한 것과 흐름을 함께 한다. 교육공간에 대한 새로운 담론이 형성되면서 급기야 “學校는 工場이다”, “先生은 勞働者이다”, “經營者는 僞善者이다” “學生은 原料品이다”, “學校는 商品이다”라는 주장에 이르게 된다.¹⁹ “機械가튼 教科書를 사용하야 만드려내인 生産品 -學生은 달은 工場의 生産品가튼 거의 相似라”²⁰라는 주장은 종래 교육공간이 지녔던 특권적 지위가 소멸하고, 빠르게 자본주의적 교육론이 자리 잡는 모습을 보여 준다.

2) 서원, ‘심학(心學)적’ 공간모형의 학교

르페브르는 고대적이고 신화적인 세계의 사회적 공간을 ‘절대적 공간’이라고 개념화하고, 자본주의에 상응하는 것을 ‘추상적 공간’이라고 호칭하였다. 그가 말하는 ‘절대적 공간’이란 신탁을 받은 신탁만이 접근할 수 있었던 신전 같은 공간이다. 추상적 공간은 마치 자본이 모든 것에서 질적인 차이를 제거하고 추상적인 가치로 동질화하듯이, 모든 것에서 질적인 차이를 제거하는 공간이고, 국가에 의해 제도화된 제도적 공간이며, 폭력과 전쟁 등을 통해 창출된 ‘주권’이라는 개념을 통해 경계를 짓는 정치적 공간이다.²¹ 르페브르의 이러한 주장은 고, 중세사회와 근대사회를 극명하게 대비한다는 점에서는 인상적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성격을 드러내는 공간담론으로는 약간의 한계가 있다. 예로 ‘절대적 공간’이란 초월자인 신과 인간과의 이원적 분리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유학에서의 성인은 단지 ‘완성된 인간’일 뿐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전근대 교육공간과 근대공간과의 차별성을 보여 주는 새로운 논의가 요청된다. 우리는 우선 조선조의 학교가 제향공간과 강학공간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원과 향교는 일반적으로 전학후묘(前學後廟)의 형태로 공간이 양분되어 있다. 강학공간이 다수에게 개방된 열린 공간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면, 제향공간은 일정한 ‘의례(儀禮)와 절차’ 속에서만 참례의 자격이 획득되는 닫힌 공간으로 기능한다. 제향과 강학은 대대적(待對的) 관계를 유지하면서 학교의 두 요소를 이루고 있다. 유가의 공부론에 근거할 때, 제향과 강학의 공간은 이념적으로 학(學)의 세계와 도(道)의 세계를 표상하고 있다.

18. 정계철, “조선전기 교화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9. 185쪽

19. 『開闢』, 제 67호, 1926, 3. 34~40쪽

20. 상계서, 35쪽

21. 이진경,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 소명출판, 2000, 45쪽 재인용.

명륜당을 중심으로 하는 강학공간이 학의 세계에 관여하고 있다면 도통적 세계에 몸담고 있는 제향공간은 도의 세계를 표상한다. 필자는 이 양자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따라 퇴계학과와 율곡학과 사이에서는 상당한 이념적 분화가 있었음을 논의한 바 있다.²²

모든 도학자들의 이상은 인간의 마음에 있는 본성(本然之性)을 되찾아 참된 나를 회복하고, 마침내 성인(聖人)의 세계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공부론의 핵심이다. 이러한 교육의 근원적인 목적은 모든 교육공간에 공히 해당한다. 예로 여현 장현광은 그가 지향한 공부의 목표를 입암정사의 기문에서 그 설립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세속을 버려 인간의 일을 끊고 인륜을 버리며 공허(空虛)한 것을 말하고 현묘(玄妙)한 이치를 찾으려 숨은 것을 찾고 괴이한 것을 행하여, 연하(煙霞)를 고향으로 삼고 바위와 골짜기에 거하며 사슴과 멧돼지와 짝하고 도깨비와 벗삼는 자들이 혹 이러한 곳에서 은둔하고 감추니, 이 또한 좌도(左道)라서 유자(儒者)의 사모하는 바가 아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으니, 세상의 분화(紛華)함을 등지고 말로(末路)의 부귀 영화에 치달림을 천하게 여겨, 책을 읽고 이치를 궁구하는 것이 우리의 급선무임을 알고 몸을 닦고 성(性)을 기르는 것이 우리의 본업(本業)임을 아는 자들이 여기에 머물며 학문을 닦는다면 바름을 길러 성인(聖人)이 되는 공부가 산 아래의 물에 형상할 수 있고, 옛 성인들의 훌륭한 말씀과 행실을 많이 쌓는 것이 산 가운데의 하늘에 법 받을 수 있을 것이다.²³

위의 글은 조선조의 유자들이 왜 교육공간을 세우고자 했는지를 알려 주는 가장 전형적인 문장의 하나이다. 깊은 산 속에 은거하고자 하는 것이 세속을 버리고자 하는 이단을 흉내 낸 것이 아니라 솔성(率性)하고 수덕(修德)하고자 하는 유학의 본령에 충실하고자 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율곡에서 ‘산 아래에 물’은 주역(周易)의 몽괘(蒙卦)를 의미한다. 산(山)을 상징하는 간(艮)과 물을 상징하는 감(坎)이 결합하여 사람이 아직 어려서 몽매한 단계에 있음을 말한다. 여현은 아마도 이 괘의 단전(彖傳)에서 “성인(聖人)이 되는 공부이다.”라고 한 의미를 살리고자 하였을 것이다. 또한 뒷부분의 ‘산 가운데의 하늘’이란 대축괘(大畜卦)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늘을 상징하는 건(乾)과 산을 상징하는 간(艮)이 모인 것으로 학문을 많이 쌓는 상(象)을 의미한다. 학문을 쌓아 성인 되는 것, 그것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다. 그러면 그 길은 과연 어떻게 찾아지는 것일까? 잠시 여현과 제자 간에 나누는 다음의 대화를 살펴보자.

선생이 하루는 정사(精舍)의 서쪽 마루에 앉아 계셨는데 문도(門徒) 10여 명이 나열하여 모셨다. 이 때 저녁비가 견혀 강산이 맑게 개고 환하였다. 선생은 책상 위에 있는 한 권의 책을 펴시어 ‘운무가 활짝 개어 푸른 하늘을 본다[豁開雲霧見青天]’는 시구(詩句)를 가리켜 보여주시며, “제군들은 이것이 어떠한 경지가 되는 줄 아는가?” 하시니, 여러 사람들은 모두 대답하지 못하였다. 이에 선생은 천천히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지(知)와 행(行)이 나누어지는 부분이니, 구름이 견혀 하늘을 보든 진실로 인욕(人欲)이 깨끗이 다하고 천리(天理)가 유행하여 심분 통투(通透)한 경지인데 아직도 이러한 경지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미 이러한 것을 보아 알았으면 반드시 이러한 경지에 이르러야 가장 높은 부분을 다하는 것이다.” 하였다.²⁴

22. 참고, 「조선시대 제향공간의 성격과 그 사회사적 의미」, 『사회와 역사』 제53집 참조.

23. 『여현선생문집』, 제 9권, 〈立巖精舍記〉

24. 『旅軒續集』 제 9권, 〈景遠錄〉

결국 자연의 순일성(純一性)을 배우는 것이 마음공부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이다. “구름이 걷혀 하늘을 붉은 진실로 인욕(人欲)이 깨끗이 다하고 천리(天理)가 유행하여 심분 통투(通透)한 경지”는 거인욕(去人欲)의 공부이다. 이러한 ‘심학적 구조’가 조선시대 교육공간을 관류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조선시대의 ‘경(敬)의 철학은 이러한 심학적 구조의 가장 밑바탕을 형성한다. 유자들은 경(敬)을 통해 인욕의 발출을 억제하고, 일상 속에 스며있는 이(理)를 대면하고자 노력한다.’ 교육공간‘은 이러한 경(敬)의 정신을 최대한 발현하기 위한 여러 부분적 요소들의 집합이다. 율곡학파의 경우 상대적으로 ‘교기질(矯氣質)’의 공부법을 강조하면서 성(誠)의 공부를 강조하나, 이념적으로 심학화 되었다는 사실에는 큰 차이가 없다.

우리는 그러한 점에서 퇴계가 조선조 교육공간의 구성에 끼친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퇴계는 송유(宋儒)들에게서 미해결로 남겨진 거경(居敬)과 궁리(窮理)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학문적 방법을 고민하였고, 그러한 노력이 그의 공간관에 드러난다. 퇴계의 <숙흥야매잠>이 각각의 시간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경(敬)을 실현할 것인가를 문제 삼고 있다면, <경재잠 敬齋箴>은 공간적 상황에서 경(敬)의 실현을 문제시한다. 퇴계철학에 있어 공간적 상황으로서의 일상은 경의 구현체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일상을 마치 상제를 대해 모시듯(對越上帝) 언제나 조심조심, 전전공공하면서 살 것을 당부한다. 퇴계가 보는 일상의 세계란 언제나 사욕이라는 탁류가 넘실될 수 있는 혼란의 장소임을 의미한다. 그러한 위험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 곧 경이고, 그 공간이 곧 서원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근대화 과정을 통해 삶의 형식이 급격하게 재편되었다. 특히 전통적인 형태의 시·공간 개념은 빠르게 퇴조하였고, 그것이 교육공간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거칠게 말하자면, 전통사회에서의 시·공간 의식이 자연적 질서에 기초한 농경 문화적 성격을 보여 주고 있었다면, 근대화 이후의 시공간관은 좀 더 인위적이고 도시적인 형식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근대적 <시간-기계>는 ‘선분적 시간’이라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근대적 시간-기계가 갖는 이러한 ‘일반성’으로 인하여 시간은 특수한 영역이나 장, 공간을 넘어 설 수 있다. 시간과 공간의 질량은 학교나 공장이나 거리에서나 집에서나 반복 확장된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시간-기계가 근대인의 내적인 존재형식을 이룬다고 주장한다.²⁵ 이러한 변화의 가장 밑바탕에는 교육공간을 ‘존재’의 성찰을 위한 최적의 공간으로 가꾸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교육을 단순히 인간의 무한정한 욕망과 게걸스러움을 충족해 줄 수단으로 파악하는 우리시대의 ‘소유론적’ 삶의 양식이 깊은 파리를 틀고 있는 것이다. 서원이 지닌 일종의 ‘존재론’적 공간구성은 이러한 근대적 교육공간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3. 결어

지금까지 한국의 전통시대에 만들어졌던 교육 공간이 어떠한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가를 다분히 실험적인 차원에서 거론해 보았다. 앞에서 논의한 바대로, 한국문화에서 학교란 교육공간은 향중에서의 도덕적 권위를 확보하고, 사림들의 공동체적 일체감을 묶어 내는 일종의 ‘특권적 기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학교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서, 공론이 집중되고, 여론이 수렴되며, 새로운 담론을 창출해 가는 중심처의

25.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164쪽.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서원은 그러한 역할을 물리적 힘이나 권력이 아닌, 내성적 성찰을 위한 수양공간에서 찾고 있었다는 점에서 세계가 함께 눈여겨 볼만한 문화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승지(勝地)에 있어서의 군거이업(群居肄業) -이퇴계가 창설한 서원의 장소-

16세기 중엽이 되면서 조선에서는 사학인 서원이 계속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렇게 설립된 서원은 조선 교육의 근간을 형성하였으며 이러한 움직임의 중심에 바로 이퇴계(李退溪) 선생이 계셨다. 당시 서원이 건립된 장소에 착안해 서원의 장소적 의미를 생각해보고 그 구성에 대해서 알아본다.

퇴계 선생은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의 사액을 위해 온 힘을 쏟았으며 1549년 사액을 청하기 위해 관찰사에게 ‘上沈方伯’이라는 편지를 올렸다. 내용을 보면 ‘한적한 들이나 고요한 물가[寬閒之野, 寂寞之濱]’가 道를 강론하고 학업에 적합한 곳으로 ‘선현의 자취와 향기가 남아 있는 곳[先正遺塵播馥之地]’이 서원이 세워져야 할장소라고 말하고 있다. 두 가지 조건에 퇴계 선생이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를 밝히는 것으로 서원이 건립된 장소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퇴계 선생은 이산서원(伊山書院) 설립과 관련하여 《이산서원기(伊山書院記)》를 남겼다. 내용을 살펴보면, 서원은 땅의 기운이 신령하고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위치를 정립하고 있다. 이는 ‘신령한 곳에서 인재가 배출된다[地靈人傑]’는 사고방식에 근거하여 인재 를 다수 양성해내기 위한 것이다. 또한 문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로 기거하며 학업을 익히는[群居肄業(居接)]’ 그 곳이야말로 서원이라고 말하고 있다. 퇴계선생이 이산서원에 대해서 쓴 시에 향사(享祀)해야 할 사람이 없어도 “마땅히 ’서원’이라는 호칭을 쓰는 것을 꺼리거나 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점은 주목해야 한다.

당시에는 사묘(祠廟)와 서재(혹은 서당), 즉 제향공간과 수학공간이 공존함으로써 비로소 서원이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퇴계 선생은 사묘를 서원의 부차적인 것으로 여겼으며 수학하는 곳으로서의 위상을 더 중시했다. 이러한 수학 장소는 또한 群居肄業의 장소로 여겨졌다. 16세기 당시 서원의 장소를 고찰함에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群居肄業의 구체적인 양상을 알아야 한다. 서원 설립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설명한 ‘寬閒之野, 寂寞之濱’ 즉 풍광이 아름다운 곳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찰해야 한다.

퇴계 선생이 지은 한서암(寒栖菴)이나 도산서원(陶山書院)도 群居肄業의 장소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서암은 서당(서재)으로서의 역할과 정사(精舍)로서의 역할이 분리되지 않았으며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데 비해, 도산서원은 서당과 정사가 다른 건물로 분리되어 있다. 도산서원의 경우, 분리된 서당과 정사 사이에 유정문(幽貞門)이 설치되어있다.

농운정사(隴雲精舍)와 도산서당 사이에 길은 나 있지만 유정(幽貞)이라는 문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고 유정문이야말로 도산서당의, 나아가서는 퇴계 선생의 은거의 경지를 전체적으로 투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으로부터 난 길이 자연(山)을 향해 열려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즉, 群居肄業의 삶이 자연(서원설립의 조건으로서는 풍광이 아름다운 승지로 되어 있다)을 기반으로 성립되어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퇴계 선생은 ‘요산요수(樂山樂水)’라는 두 가지 즐거움의 의미를 알려고 하면 지혜로운 자, 어진 자의 기상(氣象)과 뜻(意思)을 알아야 하고, 그것들은 외적으로 달리 구해지는 것이 아니며 내가 마음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진실을 얻는 것 이외에는 두 가지 즐거움의 의미를 알 길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산림을 즐기는 사람에게 두 종류가 있다고 하고 산수에 몰입해서 생을 부정함과 동시에, 산림에 있으며 단지 성인의 문장만을 배우려고 하는, 사색만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도 부정하고 있다.

퇴계 선생은 사람과 산수(자연)의 관계에 대해서 사람은 자연에 몰입해서는 안되며 자연과의 관계를 단절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원에서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군거(群居)가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일체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유정문에는 이러한 생각이 담겨 있으며 그것이 아득하고 어렵פות한 자연, 즉 ‘승지(勝地)’에 의해 뒷받침됨으로써 정사는 성립하며 그곳에서 비로소 교육의 장이 열린다.

마지막으로 주세붕(周世鵬)의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과 유성룡(柳成龍)의 남계정사(南溪精舍), 옥연정사(玉淵精舍)의 자취를 찾아가며 사액서원(賜額書院) 설립 초기에 퇴계 선생을 중심으로 승지(풍광이 아름다운 곳)에서 群居肄業하는, 이른바 거점의 장소로서 형성된 정사의 존재방식은 사제관계의 속에서 하나의 전범으로 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16세기 조선시대의 서원 특히 도산서원과 옥산서원은 세계적인 자랑거리다. 그러나 단지 건축작품으로서의 탁월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주위의 풍경까지 포함해서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群居하며 퇴계 선생과 이회재(李晦齋) 선생의 생이 펼친 세계가 집약되어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들은 현재 남겨진 정사를 찾아가보고, 문헌을 더듬어 보는 것으로 그 유산의 한 부분을 음미할 수 있다.

1. 들어가며

2011년 3월11일, 커다란 쓰나미가 일본 동북지방의 동쪽 해안을 덮쳤다. TV를 통해 비추어진 광경은 현실이라고 믿기 힘든 정도였고, 지진과 쓰나미의 압도적인 파괴력에 단지 망연자실할 뿐이었다. 특히 쓰나미에 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빨리 도망치는 것 이외의 방법은 없을 것이다. 토목, 건축의 기술에 의한 해결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새삼 인식하게 하였다.

이 미증유의 커다란 재해에, 일본인의 냉정한 대응이 외국 미디어의 관심을 불러 모았는데, 한국의 미디어가 이에 대해서 교육의 결과라고 하였던 것이 깊게 인상에 남아 있다. 그것은, 타자에 대한 평가는 스스로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즉, 위에서 언급한 평가 그 자체가 한국에서는 교육에 있어서 환경(자연)의 문제가 중시되어 온 것을 웅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된다.

조선시대의 정치든 문화든, 그 사상적 기반이 유교에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은 성균관과 향교에서 행해지는 교육, 즉 과거제도를 바탕으로 확립된 중앙 집권적 교육제도에 의해 전승되고 유지되었다. 그러나 16세기 중엽이 되면 사학으로서 서원이 계속적으로 설립되고, 그들이 교육의 근간을 형성해 가게 된다. 이 움직임의 중심이 되었던 것은 이퇴계일 것이다. 지금까지 이퇴계를 둘러싼 서원 설립의 움직임

임에 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져 왔고, 그것은 이퇴계의 사상에 주목한 연구, 혹은 그 과정의 역사적 해명을 목적으로 한 연구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종래의 연구에 의해 해명되어 온 사실을, 그 배후에서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서원의 장소에 착안하여, 이 제장소(諸場所)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구성되었는가에 대한 것에 대해 구명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자 한다.

2. 조선시대 서원의 장소론적 연구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유교가 융성하게 되어, 과거제도의 아래에 성균관을 중앙에 설치하고, 지방에 향교를 두는 교육제도가 확립된다. 그러나 조선 건국 후, 백 수 십년(16세기 중반)이 지나면, 그 중앙집권적 교육제도는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게 되고, 퇴계 이황 등에 의해 사학(私學)으로서 서원을 설립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펼쳐진다. 안향을 향사하는 서원으로서 1543년(1550년 사액)에 창건된 소수서원을 그 시작으로 하여, 정여창의 남계서원(1552년), 이언적의 옥산서원(1573년), 이황의 도산서원(1574년) 등이 계속해서 설립된다. 조선시대를 통하여 이들 서원이 교육의 근간을 형성해 온 것인데, 이 서원 교육의 방향을 결정한 것은 이퇴계였고, 그의 도산서원이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퇴계는 1560년 도산서당을 세우고, 또 그 옆에 제자들을 위한 농운정사를 세웠다. 주자는 “往往擇勝地立精舍 以爲羣居講學之所”라고 하여, 정사의 건설에 임하여 승지(勝地)를 골라 군거강학지소(群居講學之所)로 삼는다고 하였는데, 이퇴계는 이에 준하여 이 서당과 정사를 세웠다고 생각된다. 즉, 서당과 정사는 스승과 제자들이 함께 사는 장소이며, 그렇게 함께 살면서 人間을 형성하는 장소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장소는 경승의 땅에 선택되어야만 했다. 여기에서 人間 형성의 궁극적 존재방식인 군자는 요산요수(樂山樂水)하고, 거경궁리(居敬窮理)하며, 이러한 존재방식에 있어서 안과 밖, 이것과 저것의 합일의 세계가 열리고, 자연은 융회관통(融會貫通)하여 정신적 자유의 경지가 열리는 것이다. 서원과 그곳에 있는 인간의 존재방식은 외적인 영향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며, 거기에는 내적인 관계, 관계이전의 관계가 작용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퇴계를 비롯하여, 이들 서원을 경영하고 혹은 거기에서 배운 유생들은, 서원의 제장소에 관한 많은 시와 기(記)를 남기고 있으며, 유구 또한 보존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유구와 문헌을 통하여, 함께 살면서 人間을 형성하는 장소로서 서원의 장소론적 연구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3. 서원의 성립과 이퇴계

이퇴계는 백운동서원의 사액에 진력하여 1549년 「상심방백」(上沈方伯)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리고 그 결과, 이듬해에 백운동서원이 소수서원으로 사호(賜號)되었다. 이 「상심 방백」에서 이퇴계는 서원이 세워질 장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 퇴계의 말을 살펴보자

隱居求志之士 講道肄業之倫 率多厭世之嚮競 抱負墳策 思逃寬閒之野 寂寞之濱 以歌詠先王之道 靜而閱天下之義理 以蓄其德以熟其仁 以是爲樂故樂就於書院

은거하여 뜻을 구하는 선비와 도학을 강명하고 업을 익히는(講道肄業) 무리가 흔히 세상에서 시끄럽게 다투는 것을 싫어하여 서책을 싸 짊어지고 한적한 들과 고요한 물가(寬閒之野 寂寞之濱)로 도피하여 선왕의 도를 노래하고 고요한 중에 천하의 의리를 두루 살펴서 그 덕을 쌓으며 인을 익혀 이것으로 낙을 삼는지라 그 때문에 서원에 나아가기를 즐겨워한다.

서원은 세속의 흰소(喧囂)에서 벗어나 강도이업(講道肄業)하는 장소로, 관한지야 적막지빈(寬閒之野 寂寞之濱)에 세워져야만 했던 것이다. 주자가 정사의 건설에 대하여 “往往擇勝地 立精舍 以爲羣居講學之所”라고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한 장소에서 선왕의 도를 노래하고, 의리를 두루 살피고, 덕을 쌓고, 인을 익히는 장수(藏修)의 생을 즐기는 것으로 서원의 생활이 단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주자가 말한 승지(勝地)가 여기에서 “寬閒之野 寂寞之濱”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심 방백」에는 앞서 서술하였듯이 두 가지의 기술이 보인다. 위의 언급 외에, 또 한가지가 다음과 같이 적혀져 있다.

(前略)苟有先正遺塵播馥之地 若崔冲禹倬盛鄭夢周吉再金宗直金宏弼之居 莫不立書(後略) 진실로 선정(先正)의 자취가 남고 향기가 뿌려져 있는 곳, 예를 들어 최충(崔冲), 우탁(禹倬), 정몽주(鄭夢周), 길재(吉再), 김종직(金宗直), 김굉필(金宏弼) 등이 살던 곳에 모두 서원을 건립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정몽주 등 6명의 선현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으며, 선정의 자취가 남고 향기가 뿌려져 있는 곳(地)이 서원이 세워질 장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선현의 유품이 전해지는 곳에 서원을 세우면, 그곳에서 그들 선현에 대한 제사가 모셔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따라서 그곳에는 제사를 행할 장소로서 사당(祠堂)이나 묘(廟)가 중시되게 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상심 방백」에 있어서는 “寬閒之野 寂寞之濱”이 강도이업할만 한 장소로, “先正遺塵播馥之地”가 서원을 세울만한 장소로 거론되고 있다. 조선의 서원에 있어서 그 물적 구성을 생각해 보면, 전자가 정사나 강당이 되고, 후자가 사당이나 묘로서 구현되고 있다. 그리고 향교나 서원도 그 건물의 배치를 전당후묘(前堂後廟) 혹은 전묘후당이라고 말하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강당과 사당을 핵심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위에서 말한 두 가지 국면의 의미를 이퇴계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에 의해, 서원의 제장소(諸場所)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의 의미를 구명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점에 대해서 이퇴계가 말하는 내용에 귀를 기울여 보자.

4. 이산서원(伊山書院)의 장소

이퇴계는 이산서원의 설립에 관하여 「이산서원기」(伊山書院記)를 남기고 있다. 우선 이 문헌부터 살펴보자. 그 모두에는

榮郡據小白之南 地靈而風美 號稱人才之淵藪 其俗尚文藝 尤好為群居肄業 名之曰居接

영천군은 소백의 남에 거하여, 지령(地靈)하고 풍미(風美)하다. 이를 인재의 연수(淵藪)라 칭한다.

그 풍속은 문예를 받들고, 즐거이 군거이업(群居肄業)을 이룬다. 이를 이름 하여 거접(居接)이라 한다.

라고 이산서원 설립의 유래를 적고 있다. 이 서원이 있는 영천군은 소백산의 남쪽에 있으며, 지령하고 기풍이 아름다워 인재의 연수라고 칭해지며, 그 풍속은 문예를 숭상하고, 즐거이 군거이업(群居肄業)을 이룬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군거이업을 이름하여 거접(居接)이라고 한다고 하고 있다. 여기에 서원 설립의 유래가 적혀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 설립의 조건으로서, 서원이 세워질 장소가 중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시에, 즐거이 군거이업을 이룬다고 하는 그 땅의 풍속도, 서원 설립과 결부된 중요한 계기로 생각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즉 서원은 지령하고 풍광명미한 장소에 그 자리가 정해지는 것으로서, 그것은 지령인건(地靈人傑)의 사고방식에 따라 인재를 다수 양성해내기 때문이며, 거기에는 문예를 즐기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군거이업하여, 그러한 장소야말로 서원이 되는 것이다. 군거이업의 이름으로서 거론되고 있는 “거접”은, “하기(夏期)에 산사나 누대, 정사 등지에 모여 부시(賦詩)와 제술(製述)을 겨루는 일종의 하기학교이다. (중략) 이는 고려의 12사학도(私學徒)의 유풍이다”라고 한다. 통상 “거접”은 잠시 머물러 산다 “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조선시대에는 교육의 전통 가운데 산 등지의 특별한 장소에 모여 함께 살면서 이업(肄業)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당시에 일반적으로 서원이 군거이업의 장소로 여겨지고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적어도 「이산서원기」를 기록한 이퇴계는 서원을 이와 같이 군거이업하는 장소로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퇴계의 「영봉서원기」(迎鳳書院記)에도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영봉서원에서는 “산림에 의하고 한광(閑曠)에 즉하여, 관우(館宇)를 건치(建置)하여 이를 갖고 사(祀)하고 양(養)하였던” 것이며, 여기서 제사와 수학이 함께 중시되고 있는 것이 엿보인다. 그리고 “정당(正堂), 동서재(東西齋), 누(樓), 단(壇) 등을 만들고, 그를 영봉서원이라고 이름하고 “있으며, ”그 동쪽에 사묘(祠廟)를 세웠다 “고 하고 있으므로, 서원과 사묘가 동서에 나란히 세워져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영봉서원은 수학하는 장소로서의 서원과, 제사하는 장소로서의 사묘를 더불어 갖추고 있었는데, 퇴계는 「영봉서원기」에 “其有廟以祀先賢者 則其於崇道作人之方 尤為備也”(거기에 묘를 두어 선현을 제사하는 것은 도를 숭상하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적고 있어, 서원에 있어서는 도를 숭상하고 인재를 육성하기 숭도작인(崇道作人)이 으뜸, 묘는 그 버금인 것으로 되어 있다. “사묘는 서원이 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여겨지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될 것이다.

또 위에서 본 이산서원에 대해서도, 퇴계는 사묘가 없는데도 서원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와타나베 마나부(渡部學)의 지적을 살펴보자. 퇴계에게 서원기의 찬자(撰者)가 되어줄 것을 청하러 온 장수희(張壽禧)는, 이산서원은 “선현으로 누구를 향사하면 좋을까 정론이 없고, 그 점에 있어서 불비하다”라고 하여, 사묘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서원”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欲姑以書齋名之如何”라고 하면서 “서재”(書齋)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퇴계는, “何必避其名而遷就於書齋之稱乎”(어찌 그 이름을 취하지 않고 서재라 하는가)라 하여, “이산서원”이라고 이름 붙였다는 것이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산서원의 설립에는 이퇴계가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이 서원을 설립할 때, 향사할 인물이 없어, 서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겼으나, 퇴계는 그에 대하여 서원이라 하여도 좋다

고 주장하였다. 「서원십영」(書院十詠) 가운데 이산서원에 대하여 지은 시에, “마땅히 원호(院號)를 쓰는 것을 꺼리어 피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것도, 그러한 퇴계의 생각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寬閒之野 寂寞之濱”과 “先正遺塵播馥之地”의 두 가지 요인이 똑같이 불가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퇴계는 후자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지령이 있다면, 서원을 세울 수 있다고 하였던 것이다.

장수희의 주장으로 보면, 당시에 일반적으로는 사묘와 서재, 즉 제사의 장소와 수학의 장소가 더불어 존재해야 비로소 서원이라고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여겼던 것으로 생각되나, 퇴계는 사묘가 서원에서 으뜸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 보고, 수학의 장소를 중시하였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퇴계가 중시한 이 수학의 장소는 역시 군거이업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16세기 당시의 서원의 장소에 대하여 고찰함에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군거이업의 구체적 양상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은 서원 설립의 으뜸가는 조건으로 여겨진 “寬閒之野 寂寞之濱”, 즉 승지(勝地)와의 관계에서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된다.

5. 승지(勝地)에 있어서의 군거이업(群居肄業)의 구체적 양상

이퇴계는 「상심방백」을 올린 그 해(1549년)에 사표를 내고, 허가를 받지 않고 귀향하여 다음해 고신이등(告身二等)이 삭탈되었다. 그리고 그 해에 퇴계(속명은 토계(兔溪)였으나 이퇴계 자신이 토를 퇴라 하고, 그 때 자신의 호도 퇴계라 하였다)의 서쪽에 한서암(寒栖菴)을 짓고, 그곳에서 장서양졸(藏書養拙)을 위한 은거를 시작하였다. 또한 「이산서원기」를 올린 1559년의 이듬해에는 도산 남쪽에 도산서당과 농운정사를 건설하였으며, 그 이듬해에는 유명한 「도산기」(陶山記)를 쓴다. 이처럼 퇴계가 직접 서당을 건립한 시기는 「이산서원기」 등을 쓴 시기와 일치하고, 그 서당은 앞서 살펴본 퇴계의 서원관(書院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도산서당, 농운정사 나중에 이퇴계 자신을 향사하는 사액서원으로서 사당과 강당을 덧붙여 도산서원이라 불리게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 도산서원이야말로 서 원교육의 존재방식과 방향을 결정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액서원으로서의 도산서원의 기반이 되었던 한서암에서부터 도산서원과 농운정사로의 전개과정을 밝힘으로서, 승지(勝地)에서 행해진 군거이업(群居肄業)의 구체적 양상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한서암부터 살펴보자.

이퇴계는 1546년에 양진암(養眞菴)을 세워 장서양졸의 장소로 삼았고, 그로부터 5년 후에는 한서암을 지어, 그곳으로 이거하였다. 『퇴계선생언행록(退溪先生言行錄)』 권3 요산수(樂山水)에 “先生五十歲尚無家初卜于霞峯中移于竹洞 竟定于退溪之上 宅西臨溪作精舍名曰寒栖”라 되어 있듯이, 퇴계는 5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집이 없었으며, 하봉(霞峯)과 죽동(竹洞)을 거쳐서 드디어 퇴계의 넷가에 집을 구하였다. 그리고 그 집 서쪽 계곡에 면하여 정사(精舍)를 짓고 그를 한서(寒栖)라 이름하였다. 또한 이 정사에 대하여 「연보」에는 “始余卜居溪上 臨溪縛屋數間 以為藏書養拙所 構寒栖菴 堂名靜習 讀書其中”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한서함은 퇴계가 장서양졸의 장소로서 건립한 것으로서, 서당 혹은 서재라 할 수 있는 건물이었다고 생각되며, 거기에는 정습당(靜習堂)이라는 독서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행록』 권3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한서암을 정사라고 하고 있는데, 권6에서도 “至是築精舍于溪上 名曰寒栖”라 하여, 여기에도 정사라 되어 있다. 그리고 이어 “及還杜門讀書 雖盛夏不輟”라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역시 한서암은 독서를 위한 암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실로 보아, 한서암은 이퇴계의 장서양졸의 장소였으며, 이른바 “서재, 서당”이면서 동시에 “정사”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건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서술한 「연보」의 뒷부분을 보면 “自是從遊之士日衆”라고 되어 있어, 이 시기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퇴계의 주변에 모여들어 가르침을 청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서암 강학의 장소이기도 하고 종유지사(從遊之士)들의 수학의 장소이기도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한서암은 정사라 불릴만한 실질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며, 말 그대로 군거이업하는 장소였다고 할 수 있다.

한서암에 이어 퇴계는 도산에 서당을 짓고, 그 서쪽에 농운정사를 짓는다. 이 도산서당은 세 칸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퇴계의 서재인 완락재(玩樂齋)와 강학장소였다고 생각되는 암서헌(巖栖軒)이 각각 그 세 칸 건물의 내부 중앙 칸과 동쪽 칸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농운정사에는 관란헌(觀瀾軒), 시습재(時習齋), 지숙료(止宿寮)가 있었으니, 헌(軒)과 재(齋)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산서당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수학하는 장소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단지 농운정사에는 도산서당에는 없었던 요(寮)가 설치되었다는 점이 달라서, 이 정사가 학생들이 좁은 의미에서의 군거하는 장소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즉 한서암도 도산서원(여기에서는 사액되기 이전의 도산서당과 농운정사를 합하여 도산서원이라 부른다)도 모두 군거이업의 장소였다고 할 수 있으나, 한서암에서는 서당(서재)으로서의 존재방식과 정사로서의 존재방식은 아직 분화되지 않고 있고, 그 양자를 포괄하고 있었던 것에 비하여, 도산서원에서는 서당과 정사가 별개의 건물로서 세워져, 명확하게 분절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퇴계는 이 도산서원에 관하여 「도산기」를 쓰고, 그와 함께 「도산잡영」(陶山雜詠)을 짓고 있다. 「도산잡영」은 칠언절구 18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선 그 제목을 여기에 열거해 보자.

도산서당(陶山書堂), 암서헌(巖栖軒), 완락재(玩樂齋), 유정문(幽貞門), 정우당(淨友堂), 절우사(節友社), 농운정사(隴雲精舍), 관란헌(觀瀾軒), 시습재(時習齋), 지숙료(止宿寮), 곡구암(谷口巖), 천연대(天淵臺), 천광운영대(天光雲影臺), 탁영담(濯纓潭), 반타석(盤陀石), 동취병산(東翠屏山), 서취병산(西翠屏山), 부용봉(芙蓉峯)

이상과 같은데, 이들 시는 「도산기」에 “是則閒居養疾無用之功業 雖不能窺古人之門庭而其所以自娛悅於中者不淺 雖欲無言 而不可得也 於是逐處各以七言一首 紀其事 凡得 十八絕”(이것은 곧 한가로이 지내면서 병을 조습하기 위한 쓸데없는 일이라, 비록 도학하는 옛 사람의 집 앞 뜰도 엿보지 못했지만, 스스로 마음속에 즐거움을 얻음이 얹지 않으니, 아무리 말이 없고자 하나 말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어, 곳곳에 따라 칠언 일수씩 그 일을 적어 보았더니, 모두 18절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듯이, 직접 옛 사람의 문정(門庭)을 엿본 것은 아니었으나, 그것은 무용지공업(無用之功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퇴계의 은거의 경지를 각각의 장소에 준하여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 18절은 도선서원의 중심시설인 도산서당을 첫 머리에 두고, 그 주변의 제장소로부터 점점 밖으로 나오면서 배연되어 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네 번째 시로서, 유정문(幽貞門)이 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은 도산서당 영역으로 향하는 입구로서, 서당의 서남쪽 모퉁이에 부설된 간소한 사립문이지만, 도산서당에서는 특히 중요한 장소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의 내용을 살펴보자.

不待韓公假大龜	한공(韓公)의 큰 거북을 빌지 않더라도
新居縹渺映柴扉	신거(新居)의 표묘(縹渺)함이 싸리문에 비치어라
未應山徑憂茅塞	산길이 띠풀로 막힘을 걱정할 것 없으리니
道在幽貞覺坦夷	저기 숨은 이 평탄한 길 있으리라

한유(韓愈)의 고사를 쫓아 큰 거북을 빌려 길조를 보는 것으로 은거의 장소를 구하지 않으면서도, 신거(新居)의 표묘(縹渺)한 분위기는 전체로서 싸리문(柴扉) 유정문에 비추어져 있다. 신거로부터 산으로 통하는 길은 아직 띠풀로 막혀져 있지 않고, 길은 유정(幽貞)하여 사십에서 멀어지고 있다.

유정문은 이퇴계의 은거의 표묘한 모습을 반영하고 있고, 유정문으로 향하는, 혹은 유정문으로부터 나가는 길은 열려져 있다. 그리고 사람이 밟아야 하는 참된 길은 유정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사람들이 오가는 길, 도산서당으로 향하는 입구로서의 유정문은, 참된 길, 나아가서는 참된 길이 존재하는 곳으로서의 유정과 겹쳐지고 있다. 그것들이 전체를 이루어, 이 시의 제목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유정문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서암에서는 분화되지 않았던 서당과 정사가 도산서원에서는 분리되어 있고, 그 사이에 유정문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유정문이야말로 도산서당의, 나아가서는 퇴계의 은거의 경지를 전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퇴계가 서원의 설립에 있어, 승지에서의 군거이업을 가장 중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군거는 단순히 동일한 장소에 무리지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퇴계선생언행록』 ‘기거어묵지절(起居語默之節)’에, “先生平日在家在山非講學應接之時則左右靜無人焉(선생은 평소에 집에 있을 때나 산에 있을 때에, 학문을 강하고 친구를 접대할 때를 제외하고는 좌우가 조용해서 사람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듯이, 강학과 접객을 하지 않을 때에는 퇴계는 혼자 관서수학(觀書修學)하고 있었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농운정사와 도산서당 사이에는 길이 열려져 있고, 거기에는 유정한 문이 없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스승과 제자들과의 관계는 유정문에 나타나 있는데, 이 문으로부터의 길(道)이 산(自然)으로 열려져 있었던 것은 주목할 만하다. 군거이업의 삶이 자연(서원 건설의 조건으로서는 승지라고 되어 있었다)을 기반으로 하여 설립하고 있었던 것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도산잡영」을 보아도 탁영담, 반타석, 동취병산, 서취병산, 부용봉 등, 거기에는 승지라고 할 수 있는 산수의 경치가 다수 예로 들어지고 있다. 천연대, 천광운영대는 그 경치를 바라볼 수 있는 장소이다. 그런데, 이들 산수는 외물(外物)이 아닐까. 유교적 수양이 외물에 좌우되어도 좋은 것일까. 이퇴계 이 문제에 관하여 『자성록(自省錄)』 속의 「권생호문(權生好文)의 요산요수론(樂山樂水論)에 답한다」에서 권호문이 말하는 “人與山水之性本一”(사람과 산수의性は 본래 하나), “體山水之動靜而行仁智之道”(산수의動과靜을體로하여仁과智의도를 행한다)의 두 가지 점에 대해 반론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요산요수(樂山樂水)라고 하는 두 가지 즐거움의 의미를 알고자 한다면, 지자(智者), 인

자(仁者)의 기상과 의사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들은 외적인 다른 것으로부터 구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가 마음을 돌아보고 반성하여 진실을 구하는 것 이외에는 두 가지 즐거움의 의미를 알 방법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도산기」에서 퇴계는 산림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부류가 있다고 하여, 하나는 “현허(玄虛)를 사모하여 고상하게 사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도의(道義)를 즐기고 심성을 기르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전자와 같이 산수에 몰입한 삶을 부정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지만, 동시에 후자에 대해서도 “즐기는 것은 조박(糟粕)과 같은 것뿐이어서 전할 수 없는 미묘한 이치에 이르러서는 구하면 구하는 만큼 얻을 수가 없으니 즐기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라고 하여 역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즉 산림에 거하고, 단지 성인의 문장만을 배우려 하는, 사색만을 으뜸으로 취하는 태도 역시 퇴계는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퇴계는 「도산기」의 맺음말에서 “則與點之歎 何以特發於沂水之上 卒歲之願 何以獨詠於蘆峯之巔乎”라 하여, 논어 선진제십일(先進第十一)의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이나 주자 「운곡십이영」(雲谷十二詠) 속의 한 구절을 들며, 요산요수의 삶을 긍정하고 있다. 퇴계에 있어서 산수 간에 거주하는 것이, 그의 삶의 깊은 차원에서의 실현에 불가결한 사항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에 대해 자세하게는, 졸저 『朝鮮の「すまい」——その場所論的究明の試み』[東京：中央公論美術出版, 2000年]을 참조).

이상, 이퇴계는 인간과 산수(자연)의 관계에 대해서, 인간은 자연에 몰입해서는 안 되며, 자연과의 관계를 단절해서도 안 된다고 하였다. 서원에서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군거(群居)가 불가결한 것이지만, 일체화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유정문에는 그것이 드러나 있으며, 그것이 표묘한 자연, 즉 승지에 지지되는 것에 의해 정사는 성립하고, 그러한 곳에서야말로 교육의 장이 열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퇴계가 「회재이선생행장」(晦齋李先生行狀)에서 이회재의 옥산서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卜地於州西北紫玉山中 愛其巖壑環奇溪潭潔清 築室而居之 名其堂曰獨樂 益樹以松竹花卉 日嘯詠釣游於其間 謝絕世故端坐一室 左右圖書研精覃思靜中下功夫 比之前時尤深且專一 然後向來有聞而未甚契者 始若心融而神會親切而有驗焉 養以冲恬之趣 積以歲月之久 潛神性理遵聖賢進修之方 玩心高明樂鳶魚流行之妙

주(州)의 서북에 있는 자옥산 중에 복지(卜地)하여, 그 암학(巖壑)이 괴기(環奇)하고 계담(溪潭)이 결정(潔清)함을 사랑하여, 실(室)을 짓고 거기에 거한다. 그 당을 이름하여 독락(獨樂)이라 한다. 송죽화훼(松竹花卉)로 나무를 심고 날마다 그 가운데에서 소영조유(嘯詠釣游)한다. 세상을 사절하며 일실(一室)에 단좌하여 책을 좌우에 두고 연정담사(研精覃思)하여 조용한 가운데 공부한다. 이때에 전시(前時)에 비하여 더욱 깊고 또 전일(專一)하게 된다. 그리고 후향래문(後向來聞)하는 일이 있으나 여전히 아무런 정한 바가 없다. 비로소 심융(心融)하여 신회(神會)하고, 친절로서 대함과 같다. 충념(冲恬)의趣(취)로서 수양하고, 세월의 장구함이 더한다. 신(神)을 성리(性理)에 간직하여 성현진수(聖賢進修)하는 사람을 따르고, 마음을 고명히 하여 연어유행(鳶魚流行)의 묘를 즐긴다

여기에서는 “그 암학(巖壑)이 괴기(環奇)하고 계담(溪潭)이 결정(潔清)함을 사랑한다”라고 하여, 산수의 아름다움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회재는 일실(一室)에 단좌하여 조용한 가운데에 공부함과 함께, 송죽화훼를 심어 정원을 가꾸고 그러한 장소에서 소영조유(嘯詠釣游)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요산요수의 삶에

있어서 심융신회(心融神會)하고 자연이 발연유행(發現流行)하는 실상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승지에 거주하는 것은 유교적 수양에 있어 불가분의 것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회재는 자옥산 기슭에 독락당(獨樂堂)을 짓고, 그 곁에 계정(溪亭)을 두었다. 계정은 개울에 면하여 세워져 있고, 그 바로 아래에는 관어대(觀魚臺)가 있다. 관어대 외에도 이 개울을 따라 영귀대(詠歸臺), 탁영대(濯纓臺), 징심대(澄心臺), 세심대(洗心臺)가 있고, 이러한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소영조유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독락당 주변에는 비교적 넓은 평지가 있으나, 옥산서원은 거기에 세워지지 않았고 세심대 위에 위치하고 있다. 도산서원의 경우와는 달리, 계정의 동쪽을 흐르는 계류를 따라 수백 미터 올라간 곳에 강당, 사당 등이 건립되었다. 독락당에는 옥산정사(玉山精舍)의 현액이 걸려 있는데 대하여, 이들은 옥산서원이라 불리고 있고, 군거이업의 장소와 입사치제(立祀致祭)의 장소가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위치하고 있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독락당, 계정과 옥산서원의 사이에는, 계류를 따라 위에 말 다섯 개의 대(臺)가 있고, 이들 대를 돌아다니며 많은 시를 읊었으며, 거기에서 제자들과 군거이업하는 생활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문인들과의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퇴계, 이회재의 당시에 그러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소영조유는 강학강도(講學講道)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다. 이러한 교육, 수도(修道)의 장소에 있어서는 군거이업의 장소와 입사치제의 장소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위치하고 있었다고 하기보다는, 군거이업의 장소가 학문을 강하는 건물이 있는 장소뿐만 아니라, 주변의 승지를 포함하는 펼쳐짐을 가진 곳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사실에 근거한 견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옥산정사는 주변의 산과 계류를 포함함으로써 비로소 장서양졸하면서 요산요수하는 삶을 음미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며,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비로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리하여 서원은 그러한 장소의 입구가 되는 곳에 위치하게 되었다. 16세기 조선에서 초기서원이 부정형으로 배치된 것의 연원에는, 이러한 승지에 “함께 살면서”(群居,居接) 강학하고 수도하는 것에서 교육의 장(場)의 이상을 보았던 이회재와 이퇴계가 있었던 것이다.

또, 이러한 승지에서의 군거(群居)라고 하는 수행의 장소의 존재방식은, 조선 최초의 사액서원으로 유명한 소수서원의 전신인 백운동서원에서조차 마찬가지였다는 것이, 주세붕의 문집 『무릉잡고(武陵雜稿)』 부록의 「행장기」나 「백운동서원기」에 엿보인다. 그리고 유성룡의 서당 건설에서도 퇴계의 서당과의 유사성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유성룡이 세운 정사로서는, 남계정사와 옥연정사가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유성룡연보」에 의하면, 남계정사는 유성룡의 서재이며 거주하였던 건물과, 재생(齎生)을 살게 하기 위한 건물로 되어 있었으며, 애련당(愛蓮塘, 堂이라고 되어 있는 문헌도 있다)이 있었다. 또한 남계정사에는 서쪽 산기슭에 초은대(招隱臺), 동쪽 바위 위에 영귀대(詠歸臺)가 있으며, 정사의 동쪽에는 의공(倚筇)이라고 하는 작은 개울이 있고, 영귀대의 아래에 탄서(歎逝)라는 커다란 천이 흐르고 있었던 것 등, 도산서원과 마찬가지로의 구성으로 되어 있었다. 옥연정사에 대해서도 유성룡의 거처와 봉우의 내방을 기다리는 장소로 되어 있어, 유사한 구성이었던 것이 엿보인다. 이퇴계와 유성룡의 정사의 유사성은 앞서 본 물적 구성의 측면 뿐만은 아니었다. 양자의 정사의 건설과 관리에, 승려가 깊게 관계하고 있던 것도, 유성룡이 퇴계를 모범으로 하여 정사의 경영을 행하였던 것을 단적으로 보이고 있다.

사액서원 창설의 초기에, 이퇴계를 중심으로 승지에서 군거이업하는, 즉 거점의 장소로서 형성된 정사의 존재방식은, 사제관계의 속에서 하나의 전형(이상적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6. 맺음말

현대의 생활환경 편리성을 추구하여 점점 그 효율을 높여가고 있다.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되고 있다. 이것 자체는 결코 나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나치게 효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잘려지고 버려지는 것도 많다. 현재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육에 있어서도 같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의 전달을 서두르는 속에서 그것이 살아있는 삶이 되는 배경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스승과 제자가 “함께 살면서” 삶의 장소를 공유하는 것에 의해 비로소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지식을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것은 단순히 같은 장소에서 생활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제 아니라, 더불어 사는 장소의 참된 이해를 위한 이업(肄業)을 공유함으로써 비로소 획득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16세기 조선의 서원, 특히 도산서원과 옥산서원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건축작품으로서 뛰어나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주위의 풍경을 포함하고, 거기에 제자들과 함께 군거(群居)하여, 이퇴계와 이회재의 삶이 열어놓은 세계가 집섭(集攝)되어 있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남겨진 정사를 찾아가 보고, 문헌을 더듬어 보는 것으로 그 유산의 한 부분을 음미할 수 있다.

주, 인용문헌, 참고문헌의 서지정보는 생략한다.

서원 기록자료 정리의 현황과 과제

1. 서원

조선시대 서원은 교육 교화의 중심지일뿐만 아니라, 사족들의 정치사회적 활동의 중심지라는 데서 이와 관련된 성리학 관련 서책 및 서원운영과 관련된 필사원본류와 고문서 등 많은 기록자료를 남겼다. 그러나 이러한 서원관련 자료들은 대원군의 전면적인 서원훼철 때 대부분 소실되었다.

대원군 실각 이후 많은 서원이 복설되기는 하였지만 관계자료는 서원측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院任案·入院錄 및 창건과 관련된 일부 자료만이 단편적으로 남아 있거나 또한 복설되지 못한 경우에는 중요자료 1-2건 만이 후손들에 의해 보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원군때 훼철되지 않았던 서원은 여타의 서원에 비해 비교적 많은 자료를 소장하고 있었지만, 이들 서원도 일제강점기, 6.25 전쟁, 근대화의 과정 등 외부적 영향과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의 도난 내지 소실이 많아 서원에 따라 차이가 많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 유교문화를 대표할 만한 일부 서원에서는 오늘날까지 다양한 문화재 및 역사기록물들을 철저히 보존·관리해 왔다는 것이다. 본 발표문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9개 서원을 중심으로 기록자료의 전승상태와 정리현황 및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간단히 정리한 것이다. 본 발표에서의 기록자료의 대상은 서원운영과 관련하여 작성된 필사원본류와 고문서뿐만 아니라 서원이 소장하고 있는 서책과 책판도 포함하여 검토하였다.

2. 서원자료의 전승상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는 紹修·濳溪·玉山·陶山·屏山·道東·遯巖·武城·筆巖書院 등에는 여타의 서원에 비해 많은 문헌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들 9개 서원은 조선후기 각 지역의 首院으로써 가장 비중이 크고 영향력이 컸다는 점에서 볼 때 많은 서책과 책판 및 서원운영과 관련한 기록자료를 남겼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이 서원들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자료는 서원별로 편차가 크다. 옥산·도산·병산서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원은 자료의 망실과 산질이 심한 상태이다.

먼저 기 발간된 보고서와 서원지 등을 중심으로 각 서원에 현전하는 자료 현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¹

1. 이들 9개 서원 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

표 1. 각 서원별 소장 자료 현황

지역	서원	현전 자료의 수량	정리현황
경북 영주	紹修書院 安珣 1543년 건립 1550년 사액	1. 전적: 周易傳義大全, 朱子大全, 闡義昭鑑 등 30종 145책 2. 고문서: 謄錄, 竹溪誌, 雲院雜錄, 雜錄, 院任錄, 入院錄, 居齋錄, 尋院錄, 田畚案, 完議 등 110점 3. 책판: 竹溪誌, 追遠錄, 家禮諺解, 六先生遺稿 등 4종 428장	소수박물관, 국편, 국학진흥원, 규장각, 계명대도서관 등에 분산소장. 『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국편, 1999)에 일부 등재, 『紹修書院誌』(영남문화연구소편, 2007)에 전편 수록. 『李朝書院文庫目錄』(李春熙編, 1969), 『紹修書院所藏資料報告書』(紹修書院, 1998)
경북 경주	玉山書院 李彦迪 1573년 건립 1574년 사액	1. 전적: 三國史記(보물525호), 內賜本, 회재 手澤本 등 943종 3,977책 2. 고문서: 院任·院生案, 土地·奴婢案, 尋院錄, 都錄, 通文, 所志 등 약 1,156점. 3. 책판: 晦齋先生文集 등 19종 1,123장.	옥산서원 유물전시관, 독락당 어서각, 무침당 등에 분산소장. 『玉山書院誌』(영남대민족문화연구소, 1993)에 선별수록, 『2004년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보고서』(문화재청, 2004)에 전적, 고문서, 현판, 기타 유물 목록 일괄수록. 『李朝書院文庫目錄』(李春熙編, 1969)
경북 안동	陶山書院 李滉 1574년 건립 1575년 사액	1. 전적: 퇴계 手澤本, 內賜本, 易東書院 藏書 포함 1,026종 4,605책 2. 고문서: 完文, 尋院錄, 院任案, 土地·奴婢案, 通文 등 2,128점 3. 책판: 退溪先生文集 등 57종 4,014점	한국국학진흥원 기탁(유교넷으로 서비스) 『陶山書院古文書』(1)·(2)(단국대 퇴계학연구소, 1994·1997)로 편간. 『陶山書院古典籍』(국학진흥원, 2006)에 모든 자료의 수량 및 목록 수록. 『李朝書院文庫目錄』(李春熙編, 1969)
경북 안동	屏山書院 柳成龍 1613년 건립 1863년 사액	1. 전적: 家禮諺解, 西厓集, 艮齋集 등 1,071종 3,039책 2. 고문서: 書院要覽, 院任錄, 入院錄, 居齋案, 講案, 尋院錄, 土地·奴婢案 등 58점 3. 책판: 西厓先生文集·別集, 童蒙須知, 陶山及門錄 辨訂 등 25종 1,907점	『古文書集成』20(정문연, 1994)에 병산서원 고문서 수록. 『李朝書院文庫目錄』(李春熙編, 1969). 『2004년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실태조사보고서』(문화재청, 2004)에 전적, 고문서, 현판, 기타 유물 목록 일괄수록.
경북 현풍	道東書院 金宏弼 1605년 건립 1607년 사액	1. 전적: 景賢錄 등 내사본 10종 26책. 2. 고문서: 道東重勅事蹟, 各處通文謄草, 院任錄, 入院錄, 尋院錄, 土地·奴婢案 등 3. 책판: 景賢錄 1종 71판 4. 기타: 제기 30점.	『道東書院誌』(영남대민족문화연구소, 1997)에 선별수록. 『달성군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보고서』(달성군, 2005)에 고서, 책판, 기타유물수록. 『李朝書院文庫目錄』(李春熙編, 1969)
경남 함양	濫溪書院 鄭汝昌	1. 전적: 寒州先生文集, 桐溪先生文集 등 147점. 2. 고문서: 經任案, 院錄類, 哀賁錄類, 田畚案, 秋收記, 通文, 簡札 등 717건. 3. 책판: 一蠹先生文集·介庵先生文集 책판 377점	『李朝書院文庫目錄』(李春熙編, 1969) 『경상남도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보고서』(문화재청, 2005)에 고문서, 고서, 책판 등의 목록수록. 『濫溪書院誌』(1935, 朴彩箕)에 건립연혁, 배향인물 사적이 있음. 『古文書集成』24(정문연, 1995)에 고문서 수록. 『濫溪書院尊衛錄』(남계서원편, 1962) 존위록 수록.
전북 정읍	武城書院 崔致遠 1615년 건립 1696년 사액	1. 고서: 直軒集, 肯構堂遺稿, 武城書院誌(1930) 등 8점 2. 고문서: 泰山書院院(生)儒案, 院生案, 尋院錄, 奉審錄, 完文, 延額記事, 重修日記, 慕賢稷案 등 49종	『武城書院誌』(崔成在 等編, 1884) 『비지정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문화재청, 2009)에 고서와 성책고문서의 목록이 있음.
충남 연산	遯巖書院 金長生 1632년 건립 1659년 사액	1. 고문서: 金長生文廟配享教旨, 儒生到記, 院中賸地記, 齋中記簿, 節目, 學稷案, 田畚改量案, 齋任錄, 連山縣 齋任錄 등 10종 2. 책판: 沙溪先生遺稿, 沙溪全書, 慎獨齋先生遺稿 등 11종 1,841판	『遯巖書院誌』(1958) 『비지정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2(문화재청, 2007)에 책판만 있음. 『李朝書院文庫目錄』(李春熙編, 1969)
전남 장성	筆巖書院 金麟厚 1624년 건립 1662년 사액	1. 전적: 家禮輯覽, 經書辨疑, 書傳, 樂學軌範 등 78종 245책(1969) 2. 고문서: 奴婢譜, 院長先生案, 執綱案, 補講案, 文稷案, 西齋儒案書, 院籍, 長城府使下帖 등 14종 외(보물지정) 3. 책판: 河西先生文集(舊·新), 草千字, 楷字, 墨竹, 筆法板本 등 7종 616판	문적일괄 14책 64매 (보물 제587호) 『筆巖書院院籍』(1802) 『李朝書院文庫目錄』(李春熙編, 1969) 『筆巖書院誌』(1975)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9개 서원에서 현전하는 서원자료는 지역에 따라 수량에서 큰 차이가 난다. 즉, 영남지역이 타 지역에 비하여 현전자료의 수가 가장 많으며, 영남권내에서도 퇴계학과권과 남명학과권 간에 차이가 있다. 이는 각 서원에서 생산된 자료의 양의 차이도 있겠지만, 대부분 서원의 관리소홀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서원에서 보면 內賜本과 제향인의 手澤本 등의 전적은 서원측에서도 중요시 여겨 별도의 함을 제작하여 보관해 왔다. 그러나 서원 건립 초기에 자체 구입하거나 개인·관청으로부터 기증받은 도서 등은 관리소홀로 인해 거의 남아있지 않다. 현재 서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서책은 대부분 19-20세기 초의 것이다. 서원건립 초창기의 전적은 현전하는 傳與記나 書冊置簿記, 書院誌 등을 통해 그 대강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서원에 남아있는 藏書 목록은 대부분 서책과 책판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고문서류는 考往錄, 傳與記, 尋院錄, 重建日記 등과 같이 서원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서책들과 같이 분류하여 보관하고, 기타 문서는 중요도에 따라 목궤 내지 잡문서로 분류하여 보관하였다. 서원들은 그 오랜 역사에 비례하여 그만큼의 문서가 작성·보관되었을 것이 자명하지만, 생산된 정확한 수량이나 목록은 기록이 없어서 확인이 불가능하다.

서원운영과 관련된 문서를 비교적 잘 소장하고 있는 옥산서원의 경우에서 보면 모든 문서의 목록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서원 측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경제, 제향, 임원(조직), 관문서(증명서) 등은 文書秩을 두어 목록과 수량을 기록하고 있었다.² 이들 문서는 종류와 크기에 따라 대궐에는 서원의 재정과 관련된 노비·토지매매문서, 전답안, 노비추채안 및 부피가 큰 통문을 보관하였고, 중궐에는 집사기, 홀기, 임원록, 전여기 등 서원 조직·제향과 관련된 문서를 보관하였다. 그 외 명문, 완문, 관문 등은 잡문서로 묶어 보관하되 각종 회계록을 별도로 모아두었다. 심원록·고왕록과 같이 수시로 기록하거나 살펴봐야 하는 것들은 서책과 함께 책장에 보관하였다. 모든 서원에서 이와 같이 보관했는지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서원에서 文書櫃를 별도로 비치한 것으로 보아 문서의 분류와 관리는 비슷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고전적은 별도로 소장처인 장서각을 만들거나, 궐에 넣어 동·서재의 별실에 보관하였다. 별실에 보관한 경우는 대개 서원건립 초기에 그러하였고, 이후 장서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를 보관할 별도의 시설을 건립하였던 것이다. 도산서원의 경우 동서재의 협실에 보관해 오다가 서적수의 증가로 인한 공간부족과 화재의 위험으로 1819년 書庫(光明室)를 신축하였다.³

이들 서적의 관리는 원임들이 담당하였다. 1862년 필암서원의 節目에는 內賜한 서책은 극히 중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으며, 보기를 원하면 서원에 와서 소중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서책을 보관한 經藏閣(藏書閣)의 출입은 執綱의 허락을 받아야 가능하였고, 또 傳與뒤에 서책을 잃으면 새로운 집강이 추심하여 收藏하라고 하였다. 도산서원도 院規에 서책 수장고에 출입할 시에는 三任(원장·재유사·별유사) 입회시 내지 堂會시에만 가능하며 서원의 책은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도산서원 문서가 국학진흥원에 기탁되기 전까지 적용되었다. 이러한 규정은 각 서원들의 전형이 되어 대부분의 서원에서 ‘書籍門外不出’을 원규나 절목으로 제정·시행하였다.

2. 『壬戌(1862) 五月 書冊都錄』(옥산서원 소장).

3. 광명실 신축은 알려진 1819년(己卯)과 치부기의 乙未年이 차이가 있으므로 상고할 필요가 있다(김종석, 『도산서원고전적』 해제편, 2006, pp. 6-8).

1752년(壬申) 9월의 옥산서원 完文에는 ‘옥산서원에는 宣賜 된 책도 많고 서원 설립시 節目으로 정한 書冊 不出院門의 규정이 있어 수백 년 동안 1권의 책도 闕失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 동안 관가에서 책을 보기위해 下帖으로 명하여 빈번히 왕래하면서 일부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되기도 했다. 혹은 포쇄를 위해 이동을 하면서 闕失되는 폐단이 있으니 士林들은 원규를 지켜 추후 官長이라도 책을 빌려볼 수 없도록 하라’고 했다. 또한 1792년 치제시 정조는 祭官을 통해 ‘書籍門外不出’이 원규로 성문화 되어있으니 다행이라고 하면서, 양반들의 私家로 빌려가서 보고 있는 책자는 즉시 서원으로 가져오라고 傳諭하고 있다.⁴

이처럼 옥산서원에서의 서책의 열람은 원규로서 서원 내에서만 가능하였으며, 대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지만 수령 내지 일부 관계자들에게는 이 규정이 잘 지켜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왕명 이후에도 서책의 闕失은 계속 증가하여 이에 옥산서원은 새로이 서책목록을 작성하고 諸生들이 이 규정을 잊지 않도록 판목으로 새겨 걸어 경계토록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원에서는 실제로 이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많은 서적이 분실되었으며, 특히 일제시대 이후 서원측의 관리부실이 이어지면서 많은 전적이 유실되었다.

서원은 향촌 내 교육기관으로의 역할뿐만 아니라 교육문고 내지 출판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여 지방문화의 창달에 기여하였다. 사액서원은 일반적으로 사액과 동시에 국가로부터 전답, 노비와 함께 서적을 하사받았으며, 자비로 서적을 구입하기도 하였다. 이후 국가에서는 원생들의 공부를 분발시킨다는 의미로 서적을 인출할 때마다 서원에 頒賜를 거듭하였다. 또한 각 가문내지 院祠에서 印刊된 문집 등이 반질되어 옴으로써 서원은 향촌사회의 유생들을 위한 도서관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백운동서원이 창건된 지 2년 후에 편찬된 『竹溪誌』에 의하면 소수서원에는 이미 42종 500여 책의 서적이 보관되어 있었다.⁵ 옥산서원은 「1862년 書冊都錄」에 394종 2,545책이, 도산서원은 「1890년 傳掌記」에 490종 2,991책이 나온다.⁶ 遼巖書院은 현재 남아있는 서적이 없지만, 현전하는 「齋中記簿」(戊午3월)에 의하면 주역을 비롯한 경서와 사서, 예서, 각종 문집 등이 소장되어 있었다.⁷

1759년에 작성된 「屏山書院書冊目錄」⁸은 서원의 원임 체임시에 작성된 것으로 총 90종이 수록되어 있다. 병산서원은 도산·소수·옥산서원과 다르게 서원 인근 명문가들에 의한 院外 대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이러한 대출은 한편으로 장서의 대량 산실을 야기하여 장서 관리 체계가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실제로 1673년의 목록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의 서적이 유실되었으며, 남아있는 것도 낙질이 심하였고 또한 10년 이상 반납을 하지 않은 서적도 있었다. 이 당시 장서의 1/3이 새로 들어온 新書였는데, 이는 18세기 이래 문중, 원사 등을 중심으로 일기와 문집의 출판이 성행하였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1769년 목록에서 100종으로 장서가 늘어난 것도 新書의 증가로 인한 결과였다. 그러나 서책의 관리는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아서 1883년 『院案要覽』의 서책목록에서 보면 모두 산질되어 10분의 1정도의 서책만이 남아있다고 하였다.

4. 「壬申 九月日 府尹完文」, 「壬子 諭旨」 『書冊傳與都錄』(壬戌(1802) 8월).

5. 周世鵬, 『竹溪誌』 권2, 「順興白雲洞書院藏書目錄」.

6. 유교넷(<http://www.ugyo.net>) 도산서원 고문서 참조.

7. 정현정, 「돈암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 참조.

8. 朴現圭, 「〈屏山書院書冊目錄〉의 분석과 그 특징」, 『季刊書誌學報』14, 한국서지학회, 1994 참조.

서원은 이러한 지방의 도서관적 역할 뿐만 아니라 서적을 직접 출판하기도 하여 지방출판 문화의 중심지로서 문화 창달과 지식보급에 큰 역할을 하였다. 서원에서 간행되는 책은 사서삼경 등 교육용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서원에 배향된 분 또는 서원과 관련이 있는 분의 문집과 유고 등이었다.

표 2. 서원별 출판현황

서원명	鏤板考(種)	최근 조사 현황
紹修書院 ⁹	-	4종 428판
陶山書院 ¹⁰	17	28종 3,928판
屏山書院 ¹¹	3	25종 1,907판
玉山書院 ¹²	7	19종 1,123판
道東書院	-	1종 71판
濂溪書院	-	5종 377판
遜巖書院 ¹³	3	14종 1,841판
武城書院	-	4종
筆巖書院 ¹⁴	1	7종 616판

위 <표 2>는 1778년 徐有榘가 편찬한 『누판고』에 나오는 9개 서원의 출판현황과 최근 조사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¹⁵ 이들 서원에서 출판된 서적은 대부분 주향인 내지 배향인의 문집과 그 후손 내지 문인들의 문집 및 그들의 행적을 엮은 傳記類들이었다. 이 문집류와 전기류는 서원과 연관 있는 선현들의 학문과 사상을 배우려는 후학이나 후손들의 의도로 간행된 것이며, 나아가 가문과 서원의 세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9. 이 책목에는 수량을 밝히지 않은 책판을 수록하고 있는데 『竹溪誌』, 『六先生遺稿』, 『追遠錄』, 『文成公神道碑』, 『洪荷衣草書』, 『岳武穆筆籍』, 『鳶飛魚躍』, 『學求聖賢』 등과 沙州에 있어서 찾아오지 못했다고 기록된 『漁溪集』과 『朱書刊補』가 있다(『紹修書院冊錄』, 1762).

10. 『嶠南賓興錄』, 『經書釋義』, 『啓蒙傳疑』, 『退溪言行錄』, 『古鏡重磨方』, 『理學通錄』, 『朱子書節要』, 『松齋集』, 『聿巖文集』, 『溪巖逸稿』, 『溫溪逸稿』, 『退溪文集·續集·年譜』, 『退溪自省錄』, 『耻齋遺稿』, 『月川文集』, 『近始齋文集』, 『溪巖文集』 등의 17종이다(徐有榘, 『鏤板考』(국립중앙도서관소장 古20338) 참조).

11. 『懲毖錄』(전16권), 『西崖文集』(전21권, 별집 9권, 연보 3권), 『梧里文集』(전6권, 부록 4권, 속집 2권, 별집 2권, 부록2권) 등이 있다.

12. 『求仁錄』, 『近思錄』, 『大學章句補遺』, 『奉先雜儀』, 『中庸九經衍義』, 『太極問辨』, 『晦齋集』 등 7종이 확인된다.

13. 『沙溪遺稿』(전 14권), 『慎獨齋遺稿』(전15권), 『沙溪年譜』(전1권) 등이 있다.

14. 『河西集』(전 14권, 별집 9권)이 있다.

15. 『鏤板考』는 정조가 즉위한 다음 해에 각도에 유시를 내려 조사케 하여 정조 20년에 완성된 것이므로 자세히 조사되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당대의 누락된 도서는 물론 그 후에 간행된 도서가 포함 안 되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김윤식, 『조선조 서원문고에 관한 일고찰』 『서지학연구』 41, 2008, p.308). 최근 조사현황은 2004년 이래 문화재청과 지자체에서 실시한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보고서>를 주로 참고하되, 각 지역에서 별도로 목판조사를 실시한 것도 참고하였다(전남대문헌정보연구소, 『전남 서원의 목판』, 1998 ; 2004-2009년 『(비지정)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보고서 : 달성군(도동), 안동시(병산), 경주시(옥산), 논산시(돈암), 정읍군(무성) ; 소수박물관, 『소수박물관의 목판과 현판』, 2009 ; 경북지역의 목판자료(1)·(3), 2005·2007. 이상은 <부록>의 각 서원현황을 참고).

<표 2>에서 소수·도동·남계·무성서원 등은 출판된 서적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서원 소장 冊錄이나 현전하는 판본을 살펴보면, 소수서원에서는 『追遠錄』 등 10종이 간행되었으며, 도동서원에서는 1771년에 『景賢錄』이 간행되었다. 남계서원에서는 『文獻公實記』(鄭汝昌)의 초·중간이 1635년과 1743년에 있었으며, 『介庵先生文集』(姜翼)이 1686년에 간행되었다. 『누판고』에서는 무성서원에서의 출판사항은 확인이 되지 않지만, 이후 1834년에 태안현감과 서원유생들이 품의하여 巡營에서 <桂苑筆耕>을 開刊한 사실이 확인된다.¹⁶

따라서 각 서원에서는 이러한 서책 출판을 전담하는 刊所를 별도로 설치하여 승려에게 그 역을 맡기고 또한 재정도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옥산서원은 刊所를 별도로 두고 서적을 출간하거나, 경주부 내지 다른 서원의 판목을 보수하는 일도 수행하였다. 특히, 속사였던 定慧寺에는 1670년 14종의 책판이 있었는데, 이중 9종이 옥산서원에서 간행한 것으로 주향자인 회재의 문집과 저술들이었다.¹⁷ 이후 『누판고』가 작성된 18세기 후반까지 近思錄이 추가로 간행되면서, 옥산서원에서는 총 10종이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서적출판 비용은 원칙적으로 서원의 기금으로 충당하지만 때로는 문중이나 제자들이 거출한 비용 및 특정 유지의 기부금 등으로 印出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후손들이나 문인들이 契를 조직하여 그 돈으로 간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서원이 소장하고 있었던 서책, 책판 및 서원 운영과 관련하여 작성된 필사원본류와 고문서 자료 등은 일제강점기, 6.25전쟁 등 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특히 서원측의 관리소홀로 많이 망실된 상태이다. 현재 서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19세기 말에 적성된 각 서원의 院誌, 傳與記, 置簿類 등과 비교해보면 도산·옥산서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80% 이상이 망실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서원자료 정리 현황¹⁸

1) 목록·해제집 발간

서원자료에 대한 관심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되었다. 1932년 조선총독부에서는 전국 향교와 서원, 문중에 분포해 있는 고전적을 파악하기 위해 서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처음으로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¹⁹

16. 『武城書院誌』(乾坤, 『桂苑筆耕刊記』(1888) ; 이후 무성서원에서 간행한 것으로는 1931년에 『武城書院誌』(3책), 1939년에 『曹公金鍾遺稿』(曹湍), 『曹金鍾集』(曹南承) 등이 확인된다.

17. 1670년 정혜사에는 『九經衍義』·『求仁錄』·『金南窓所書元朝五箴及太極問辨』·『大學補遺』·『梅月堂四遊錄』·『奉先雜儀』·『樸翁稗說』·『益齋集』·『抄漢書』·『太極圖說』·『韓濩所書赤壁賦』·『晦齋文集』·『晦齋所製退溪所書十六詠及元朝五箴』·『孝行錄』 등 14종의 책판이 있었다. 『東京雜記』이 중 경주부에서 간행한 『매월당사유록』, 『역옹패설』, 『적벽부』, 『효행록』, 『익재집』 등을 제외한 나머지가 옥산서원에서 간행한 것이다(박장승, 『경주소재 서원·사에서 간행한 전적고』 『신라문화』 19, 2001).

18. 이하 내용은 <부록>의 『서원자료 정리의 성과, 현황, 과제』(9개 서원)를 참고하여 서술하였다.

19. 조선총독부, 『朝鮮圖書解題』(조선통신사, 1932). 이후 전국에 산재한 고전적에 대한 종합적 조사는 1970년 독락당과 옥산서원에 보관 중이던 삼국사기 외 여러 종의 귀중본들을 도난 당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켜서 고전적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환기시켰으며, 이후 중요 고전적에 대한 문화재지정과 전국에 산재한 고전적의 조사·정리 및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동아일보』 1970년 8월 7일(5면)).

서원자료는 해방 후 다시 한 번 수난을 겪게 된다.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서원자료들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다. 다행히 전란을 피해 보존될 수 있었던 자료들도 전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관리소홀로 인해 재차 사라져갔다. 실제 돈암서원 자료의 경우 현재는 거의 남아있는 것이 없지만, 1958년의 서원지에는 도서목록이 정리된 자료가 확인되고 있다.

개별 서원 장서에 대한 조사는 1956년 한국어문학회에서 도산서원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였다.²⁰ 이후 서원 장서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는 1968년 이춘희에 의하여 진행되었다.²¹ 이 조사를 통해 경상도 서원의 자료들이 비교적 잘 보존, 관리되어 왔으며, 특히 옥산·도산·병산서원 등의 소위 퇴계학맥권의 서원자료들이 많이 남아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4,300여 책으로 가장 많은 장서를 보관하고 있던 도산서원은 이 서책들 중 일부가 역동서원의 장서로서 도산서원으로 이관·보관되어 왔음이 확인되었다. 이 역동서원 장서 중에서 퇴계가 직접 수집한 서적 12종 113책은 임란이전 판본으로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특히 도산서원 장서는 零本이 적고 타 서원문고나 도서관에서 보기 힘든 책들도 상당수 있어 서원문고의 보고라 할 만하다.

이후 개별 서원별로 자료조사와 연구가 진행되면서, 연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일부 자료들이 연구자들에 의해 소개되어 갔지만, 서원 소장자료에 대한 일괄 조사는 문화재청이 주관하여 2004-2009년 사이에 진행된 「(비지정)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에서 엮였다. 이 조사를 통해 옥산·도동(달성군에서 조사)·남계·병산·돈암·무성·필암서원 소장의 전적, 고문서, 책판 및 기타 유물(기문, 현판, 제기 등) 등의 현황 및 목록, 보존실태 등이 보고되었다. 소수·도산서원은 이 사업과는 별도로 자체 조사가 이루어졌다. 도산서원은 2003년 한국국학진흥원으로 서원자료 10,700여 점을 일괄 기탁하면서, 그 목록이 2006년 『도산서원 고전적』으로 소개 되었으며, 소수서원은 자체적으로 1998년에 「소수서원 소장 자료 조사보고서」(3책)을 간행하여 고서, 고문서 및 기타 유물의 목록과 간단한 해제를 함께 수록하였다.

이처럼 서원자료에 대한 조사가 정부, 지자체, 기관별로 진행되어 대략적인 현황이 파악되었지만, 이 조사는 자료의 목록과 일부 자료에 대한 사진 및 간단한 해제만이 제공되어서 연구자 내지 일반인들이 자료를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2) 서원지(자료집) 발간

1930년대 이후부터 각 서원별로 서원지 편찬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 시기는 先祖에 대한 현창사업의 촉발로 각 문중마다 대원군 당시 휘철되었던 서원과 사우의 복설이 활발히 전개되었던 시기였다. 서원지 발간은 이러한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었다. 9개 서원의 자료집 간행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소수서원 : 최초의 사액서원이라는 상징성과 소장 자료의 사료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일반에게 자료가 소개되었다. 1937년 조선사편수회에서 소수서원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자

20. 한국어문학회, 「도산서원 장서목록」 『어문학』1, 1956.

21. 『李朝書院文庫目錄』(李春熙, 1969)에 의하면 예안의 도산서원에는 907종 4,338책, 옥산서원 866종 4,111책, 병산서원 1,071종 3,039책, 소수서원 141종 563책, 도동서원 95종 529책, 남계서원 59종 317책, 돈암서원 78종 245책, 필암서원 132종 595책이 있었다. 무성서원은 미상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무성서원 자료가 당시까지 거의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이에 대한 내용은 〈부록〉의 이해준, 『무성서원의 자료정리 성과, 현황, 과제』참조).

료를 정리한 『紹修書院謄錄』을 간행하였다.²² 이후 1999년에는 紹修書院院錄謄本, 雜錄, 紹修書院講所 雜錄, 廟宇重修記事, 田畝案, 退溪笏記, 慎齋笏記 등을 영인한 『朝鮮時代 嶺南書院資料』(국사편찬위원회)가 간행되었고, 2005년에는 영주시에서 『소수서원잡록』을 국역하여 간행하였다.

소수서원은 옥산·도산서원 등과는 다르게 서원자료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해 많은 자료가 소실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었다. 현재 서원측에서 확인한 외부 소장처는 국사편찬위원회, 도산서원(국학진흥원 기탁), 계명대학교 도서관, 개인 3명 등이다. 개인 3명이 소장한 것은 이들이 소수서원에 유물을 일괄 기탁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소수서원은 이들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2007년에 『紹修書院誌』(영남문화연구소간)를 편간하였다.²³ 이 서원지에는 소수서원의 연혁과 건립 및 사액과정과 배향자의 이력, 서원이 소장하고 있거나 다른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소수서원 관련 고문서 및 성책류와 고서 등의 목록 및 문집 등에 소재한 소수서원과 관련하여 작성되었던 각종 문자들도 수록하고 있어 소수서원 관련 자료의 현황 파악에 참고가 된다. 그러나 이 서원지에는 이들 자료에 대한 목록과 간단한 소개에 그쳐 자료집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옥산서원, 도동서원 : 두 서원의 서원지는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에서 1993년과 1997년에 각각 『玉山書院誌』와 『道東書院誌』로 발간하였다. 두 서원지는 서원내 소장 자료가 너무 많아 1책에 관계 자료를 모두 정리한다는 원칙을 세워 서원지 편찬의 본뜻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선별하였고, 동일한 자료가 방대할 경우에는 각 시대별로 대표적인 사료를 추출하여 정리하였다. 특히 옥산서원의 경우 서원운영과 관련하여 그때 그때 작성된 필사원본과 고문서가 거의 대부분 소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옥산서원지』에는 都錄, 傳與記, 尋院錄 등 대부분의 필사원본은 대표적인 것을 선별하여 수록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종합적인 자료집 발간이 필요하다.

(3) 도산서원 : 도산서원 소장 자료(고문서)는 1994년 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에서 도산서원 소장 자료에 대한 조사를 거쳐 도산서원자료 중 院規, 儀禮, 通文, 日記類 등 일부를 엮어서 1994년과 1997년에 『陶山書院古文書』(1)·(2)로 편간하였다. 여기에 실린 고문서는 모두 원본사진과 正書를 같이 기재하여 연구에 편의를 도모하였다. 이후 1999년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朝鮮時代 嶺南書院資料』에 단국대 퇴계학연구소에서 간행한 자료집에 누락된 院任錄·遊院錄 등 일부자료가 수록되었다. 도산서원 소장 자료는 2003년 4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이들 자료는 『陶山書院古典籍』(2006)이라는 목록집으로 간행되었으며, 현재 유교넷(<http://www.ugyo.net>)으로 원문이미지와 간단한 해제를 서비스 하고 있다.

22. 조선사편수회, 『紹修書院謄錄』, 1937.

23. 소수서원 자료는 각처에 분산·소장되어 있다. 그래서 서원지에 수록된 자료들은 우선, 소수서원과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된 소수서원 관련 고문서를 기본으로 하였다. 그 후 여러 기관에서 간행된 <고서목록·해제집>에서 소수서원 관련 키워드(백운동, 소수서원, 경림정, 문성공 등)로 검색하여 수집하였다. 이외에도 임사록, 심원록 등에 기재된 인물의 저서와 소수서원 관련 연구서와 논문의 인용서목 등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검색이 어려운 지역의 자료는 영주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의 향교, 서원, 각 성씨의 종중에 통문을 보내 수집하기도 했다. 수집된 자료는 크게 사진자료와 본문으로 구성하였다. 사진자료는 서원의 전경과 건물, 유적, 유물, 시판, 石刻, 影幀 등이 있다. 본문은 창건과 중흥, 제향인물, 원규와 立議, 享祀와 告由, 影幀, 강학, 헌판, 詩賦, 散文들, 文獻, 建物, 遺蹟, 遺物, 원문자료(입원록, 원록등본, 원임제명록), 당회와 운영, 연표 등 총 16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嶺南文獻研究所 編, 『紹修書院誌』(2007)의 凡例 참조).

(4) 병산서원 : 병산서원 관련자료는 1994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국학진흥사업의 일환으로 편간된 『古文書集成』20집에 정리되었다. 현재 이들 자료는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한국국학진흥원의 웹사이트인 유교넷(<http://www.ugyo.net>)의 ‘명문가고문서’ - ‘풍산류씨 충효당’ 항목에 포함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또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자료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국고문서자료관에서는 『古文書集成』20(1994)에 수록되었던 고문서와 성책류 58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5) 남계서원 : 1935년과 1962년 등 몇 번에 걸쳐 서원지의 편찬이 있었으나, 이후 서원 관련 모든 자료는 1995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국학진흥사업의 일환으로 편간된 『고문서집성』24집에 정리되었다. 현재 남계서원 소장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국사편찬위원회·남명학 고문헌시스템·한국고문서 자료센터·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등에서 제공되고 있다.

(6) 돈암서원 : 1958년에 『돈암서원지』가 발간되었다.

(7) 필암서원 : 1949년(1책), 1975년(2번, 4책, 3책)에 『필암서원지』가 발간되었다. 이후 고문서는 1985년 전 남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간한 『古文書』에 정리 수록되었다. 여기에는 보물(587호)로 지정된 필암서원 문적들 외에도 다양한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어 주목된다.

(8) 무성서원 : 1884년에 『무성서원지』가 발간되었다.

9개 서원의 관련 자료는 서원별로 편차가 매우 크다. 몇몇 서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원은 관리소홀로 자료가 대부분 산실되었다. 한편 많은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소수·도산·옥산서원 등의 경우 자료집 성격의 서원지 등이 발간되었지만, 지면상의 문제로 모든 자료를 수록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 몇몇 서원자료는 전문학술기관에서 정리하여 인터넷으로 서비스되고 있지만, 그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

4. 향후 정리의 과제와 추진 방안

서원은 한국 유교문화의 본산으로 성리학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지역의 교육, 문화, 지성사의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대표적인 유교교육기관이다. 특히 서원은 여론과 공론의 수렴처로서 지역 사람들의 사회, 정치활동의 중심지였다는 점에서 지연과 학연별로 한국 유교문화의 다양성과 개성이 집약된 문화유산이자, 각종의 유·무형의 자료가 집약된 보고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해당 서원이 지닌 고유하고, 특별한 성격을 드러내어 이를 현대에 재조명하여 계승·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재조명의 기초 작업이 바로 서원자료와 기록자료의 정리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정선된 서원별 문화사적 특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²⁴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까지는 서원관련 원자료의 확보가 미흡함에 따라 오늘날 콘텐츠 개발의 부진을 초래하여 서원문화의 다양성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다.

24. 이혜준, 「한국서원 유형·무형유산의 특징」, 『한국 서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2011.

서원 기록자료는 3단계를 거쳐 조사·정리·가공되어야 한다.²⁵ 첫째는 자료의 포괄적 수집과 정리이며, 둘째는 <서원지(자료집)>의 편찬, 보급이다. 이를 통해 콘텐츠 개발이나 스토리텔링, 교육, 체험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 서원지를 바탕으로 제 분야의 연구를 통해 개발된 소스들은 최종적으로 <한국서원 아카이브>에 집결된다. <서원 아카이브>는 국내외에 한국 서원 문화의 보급과 홍보의 허브로 활용하여 연구, 교육, 관광 등에 활용될 수 있다.

1) 1단계 : 광범위하고 철저한 서원자료의 조사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는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대로 대다수 서원자료가 관리 소홀과 무관심으로 대부분 망실되거나 散失된 실정이다. 산실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향인의 후손과 원임 및 그들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탐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조사지역에 대한 철저한 기초조사부터 시작한다. 대상 서원의 기본적인 연혁과 관련 문중의 구체적 구성과 위상, 연혁과 관련된 시대적 변화, 관련 유적, 주요 성씨와 중심인물 등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 파악이 그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9개 서원은 각 지역의 首院으로서 역할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서원에서는 많은 서책과 서원운영과 관련된 필사원본과 고문서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각 서원의 관계자료는 소실된 것을 제외하고도 서원측의 관리소홀로 후손가 내지 서원 관계자(원임)들에게 분산된 것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각 서원자료의 종합적인 정리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조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소수서원 자료는 한국전쟁으로 상당수가 소실되거나 이후 散失되었다고 한다(『동아일보』1969년 7월 5일 (5면)기사). 그러나 2007년에 발간된 『소수서원지』에서 보면 국사편찬위원회, 계명대 도서관, 국학진흥원(도산서원소장본)에 중요한 소수서원 자료가 보관되어 있고, 특히 개인이 소수박물관에 기탁한 유물속에 서원 관련 자료가 확인되고 있다. 옥산서원의 경우에서도 보면 배향자의 후손가(무침당, 독락당)에서 서원관련 많은 중요한 고문서를 소장하고 있다. 옥산서원 문서는 이외에도 제향자의 후손가에 많이 소장하고 있음이 양동마을 일반동산문화재 일괄 조사때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소수·옥산서원의 예에서 보듯이, 서원관련 자료가 배향자의 후손 또는 서원의 운영을 담당했던 원임들의 후손가에 남아 있을 가능성은 있다. 또한 현재는 규장각, 장서각, 한국국학진흥원 등의 학술기관과 대학 연구소, 도서관, 박물관 소장 자료들이 대부분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의외의 자료들을 발견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각 서원자료의 종합적인 정리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문집에 수록된 관련자료도 조사가 필요하다.

2) 2·3단계 : 서원지(자료집) 편찬과 아카이브 구축

서원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거쳐, 자료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원지(자료집) 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존에 발간된 『옥산서원지』, 『대도동서원지』 등은 상세한 해제와 원자료의 영인을 통해 서원지의 자료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지면의 제약으로 모든 자료를 수록하지 못하고 대표

25. 이하 내용은 이해준 외, 『서원보존·정비 관리방안 연구』, 문화재청, 2010을 참고하여 서술하였다.

적인 자료만 선별·수록하였기에 활용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최근에 발간된 『소수서원지』(영남문화연구원 소편, 2007)는 서원의 창건과 운영, 제향인물, 건물연혁, 소장 자료, 토지, 건물, 서적, 유적, 유물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과 현황과악이 용이도록 소수서원에 대한 홍보와 연구에 근거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한다는 목운영, 간행. 기존 그래서 기존 서원지들에 비해 다소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일반인들을 창건국한문 혼용체의 사용과 事蹟, 記文, 詩文, 碑文, 簡札 등의 번역문도 함께 수록하고 있다. 다만, 지면의 제약으로 원자료들을 영인하지 못하고 入院錄, 院錄謄本, 院任題名錄, 任事錄 등의 일부 자료만 탈초·수록하고, 나머지 자료는 목록과 현 소장처만 소개하고 있다.

한편 이들 서원지는 서원별 내지 연구자들의 기초자료의 선별 기준이 달라서 수록내용의 편차가 심하다. 자료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표준 목차안>을 마련하여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²⁶ 서원에 전승된 (성책)고문서는 매우 다양하며 종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실제 고문서 분류에 대한 논의는 현재에도 정리되지 못한 채 규장각, 장서각, 국학진흥원 등의 중요 기관들에서는 각기 다른 분류안을 채택하고 있다. 서원고문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각 기관에서의 분류안에 따라 서원고문서를 분류하면 문서들 간의 연계성을 파악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렇기에 서원자료는 그 종합적인 특징에 주의하여 실제 관리와 연구의 편의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서원 (성책)고문서를 이해준의 견해에 따라 내용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²⁷

- ① 창건과 연혁 : 考往錄, 事蹟, 日記類, 上樑文, 記文, 書院誌, 官撰資料(列邑院宇事蹟, 書院可攷, 書院謄錄, 邑誌 등)
- ② 조직과 운영 : 院任案, 院生案, 執事分定記, 謁廟錄, 稷案, 鄉約, 儒生案 등
- ③ 경제운영 : 土地·奴婢案, 田畓案, 身貢案, 守護軍案, 院屬案, 用下記, 傳與記, 都錄, 屬寺, 屬店, 書院村 文書, 牌旨, 賜牌文書 등
- ④ 교육·제향 : 講案(講規), 書院規約, 立議, 節目, 完文, 學規, 書冊都錄, 笏記, 致祭文, 告由文 등
- ⑤ 향촌사회사자료 : 尋院錄, 時到記, 扶助記, 通文, 回文, 上書, 所志, 萬人疏, 簡札 등

이러한 서원지 편찬에는 서원관계자, 연구자, 활용자(교육자, 개발자, 관련 공무원 등) 등으로 구성된 편찬 위원회를 구성한 후, 분야별 서원 연구자(인문, 경관, 건축, 문서, 기타)가 집필해야 하며, 서원지는 자료집의 성격으로 향후 제 분야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서원자료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과 함께 탈초와 번역 작업도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종합하는 <한국서원 아카이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서원문화의 대중화를 통한 한국 유교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이러한 과제들이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서원지 편찬과 아카이브 구축에는 서원측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들의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6. 서원별로 자료의 유무내지 수량에서 차이가 나지만, 공통된 목차가 갖춰진다면 개개 서원의 공통성과 고유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이외에도 개별 서원자료의 검색과 비교가 편리해질 것이다.

27. 이해준은 서원 기록자료를 크게 ① 서원관계 관찬자료, ② 서원지와 제향인물의 문집, ③ 서원고문서로 나누고, 복합적 성격을 가진 서원 고문서는 주제에 따라 ① 창건과 연혁, ② 제향인물, ③ 조직과 운영규약, ④ 경제, ⑤ 향촌사회사 자료로 세분하였다.(이해준, 「한국서원 유형·무형유산의 특징」, 『한국 서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2011)

3) 서원자료를 이용한 학제간 연구의 활성화

서원이 가지는 정신사적, 문화적사적 위상을 조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9개 서원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역사적 위상이나 현존 서원자료를 통해서 볼 때 학제간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2011년부터 <한국 유교문화 심층연구>의 일환으로 도산서원 자료를 활용한 학제간 ‘서원포럼’을 진행 중이다. 서원정신과 역사의 올바른 이해와 계승이 우리에게 부여된 가장 큰 과제라고 볼 때 이러한 사업은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다만 각 서원별로 이러한 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서원측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지자체 및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각 서원별로 이러한 연구가 활성화된다면 서원의 홍보,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되어 그 문화사적 의미들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서원의 기문 및 금석·석각 자료의 정리 현황과 과제

1. 의의

1) 자연 친화성으로 한국 서원의 진면목을 함축

지금까지 한국 서원을 소개하는 자료나 논문에서, 석각·현판·그림은 거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이번 서원 기록자료 워크숍을 위하여, 9개 서원을 대상으로 수집한 서원 기록 자료에서도 석각이나 현판 등에 관한 자료는 매우 적었다. 이는 해당 서원의 세계 문화유산 등재에 이런 자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아예 조사 정리가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과연 서원을 방문하는 일반 사람이나 외국인들에게 서원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석각이나 현판, 그림이 무의미한 것일까?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 소수서원은 방문한 사람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는 경림정에서 바라본 죽계천의 붉은 색 칠한 경(敬)자 바위가 있다. 이 ‘敬’자를 죽계천 작은 시냇가 바위에 새겨 두고자 했던 주세붕의 뜻을 알게 한다면, 소수서원은 특별한 기억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도산서원에서는 퇴계선생이 “이 대(臺)에서 자연의 활발한 운행을 보고 오묘한 하늘 뜻을 깨달으며 하루 종일 마음의 눈을 열었다(流行活潑妙天淵, 江臺盡日開心眼)”고 기뻐한 천연대(天淵臺)가 있다. 이 천연대 석각은 도산서원 정비사업 이후 보이지 않는 벼랑에 방치되어 있어 아무도 보지 못한다. 천연대 표시석이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

병산서원 만대루(晩對樓)에서 비취빛 앞산과 낙동강을 바라보는 경치가 가장 좋다고 한다. 여기에 ‘晩對’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다면 감동은 더 깊어지고, 참으로 해질녘 강산을 감상하는 누각에 어울리는 이름이라 생각할 것이다. 옥산서원 앞 큰 바위 벽에 새겨진 세심대(洗心臺)라는 글자를 주목하고 그 의미를 새기며 서원으로 들어간다면, 가슴 속은 더 시원해지고 마음도 경건해질 것이다. 그러나 세심대와 그 주변은 거의 관리되고 있지 않아 아무런 주의를 끌지 못하는 장소가 되어 있다. 도동서원 문루이름은 수월루(水月樓)인데 왜 ‘水月’이 되어야 하는지, ‘가을 달이 찬 강물을 비춘다(秋月照寒水)’에서 왔다는 설명이 없다. 이 말이 한훤당(寒暄堂) 김굉필선생의 정신세계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이미 함축을 알면, 도동서원에서 북쪽으로 내려다보는 낙동강이 한결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정음의 무성서원이 다른 서원과 달리 마을 속에 있는 것을 보고는 누구나 의아해 한다. 그러나 서원이 이름 ‘무성(武城)’은 論語에 나오는 고을 이름이고, 제자 子游가 이 작은 고을을 예악으로 다스린 것을 알게 된 聖人 공자가 곧바로 제자에게 사과한 사연을 알려 준다면, 문루 이름 현가루(絃歌樓)는 새삼 의미 깊게 느껴질 것이다. 장성 필암서원은 시원하게 넓게 트인 전망이 자랑이다. 이 전망은 문루 확연루에 올라서면 가장 잘 감상된다. 확연루(廓然樓)는 군자의 학문은 “확 트이게 넓혀 크게 공정하게 하고서, 사물이 다가오면 의리에 맞게 순응한다(廓然大公 物來順應).”는 의미를 취한 것이다. 이 문루 현판의 함축적 의미를 알면, 시원하게 트인 전망 경치가 廓然의 의미와 서로 통하고, 이 확연루가 필암서원의 선비들을 無私公正 物我一體의 天人合一 경지로 이끄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하서 김인후의 ‘成己成物’의 도학정신과 탁 트여 막힘없는 廓然大公의 전망경관, 그리고 문루 廓然樓가 일체가 된 것이 필암서원의 진면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자연과 일체화된 입지 경관

유형 문화유산으로서 9개 한국서원은 거대함을 자랑하는 세계의 다른 종교적 건축물과 시각적 탁월성을 경쟁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 서원이 세계유산으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정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 진정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 서원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가 서원의 입지와 경관에 깊고도 넓게 배여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등재대상 9개 서원 가운데 무성서원을 제외한 8개 서원은 신유학자 곧 성리학자를 제향하는 서원이다. 유교는 仁을 추구하며, 인의 체득은 송나라 이후 신유학의 전통에서 天人合一을 산수자연에서 지각적으로 감통 감응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서원이 신유학의 본거지이며, 관학인 향교를 제치고 서원이 신유학의 본거지라고 주장하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이 천인합일을 느낄 수 있는 서원의 자연경관이다. 조선시대 스승을 찾아 배움을 얻는 일을 ‘유학(遊學)’으로 불렀다. 이 유학은 유교의 학습과 토론이 항상 자연 경치의 즐기는 즐거움, 즉 ‘인지지락(仁智之樂)’과 동반되었다는 점을 말한다.

2. 시각적 기록 자료의 중요성

문제는 9개 서원이 세계유산적 가치를 고유하고도 진정성 있게 지니고 완전성 있게 보존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서원 관계자나 한국의 전문가가 아닌, 외국인 전문가에게 인정받는 방법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선인들이 서원에 유학하면서 추구했던 천인합일의 경지를 나타내는 증거, 특히 누구라도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가시적 시각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한국 유교문화의 고유한 특성인 자연과의 친밀성이 9개 서원에서 어떻게 차별화되어 다양하게 나타나는가를 분명하게 납득시켜야 한다.

한국 서원에서 확인될 수 있는 유교문화의 자연친화성은 세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첫째,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둔 채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여 이름, 시문, 그림을 새겨 넣은 방식이 석각(石刻)이다.¹ 이는 인간의 정신이 자연의 일부가 되는 ‘문화의 자연화’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둔 채 거기에 유교적 의미를 부여하여 즐겁게 감상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 방식을 대표하는 장소는 누각·정자이며 그 시각적 기록 자료는 현판(懸板: 당호 扁額과 記文, 詩板 및 柱聯을 포함)이다. 이는 자연을 문화적으로 즐기는 ‘자연의 문화화’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현판에는 자연을 감상하는 것과 거리가 먼 윤리적 격언을 내용으로 할 수 있다.

1. 석각이란 대체로 자연석에 새긴 경구나 지명 등이 많다. 석각의 의미는 3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불변성과 연속성이다. 이는 금석의 기본적인 특성으로 비석에 비해서 자연석이 더 영속적이라 한다. 비석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파내거나 파괴되는 등 부침을 겪는데 반해서 석각은 힘들게 깎아버리지 않은 한 원래의 장소에 남아 여러 사람들의 뇌리에까지 각인된다. 둘째는 높은 상징성이다. 자연석에 새기는 글자는 숫자에 한계가 있으므로 간결하고 함축적 의미를 가진 글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징화는 많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상징성은 다시 의미를 재생산한다. 셋째 석각은 공표성을 가진다. 각석은 보이기 위해 새긴 것이다. 얼마나 드러내고 싶으면 돌에다 새기기까지 하겠는가. 종합하면 각석은 일종의 宣言이다. 우선 자신을 향하여, 그리고 남을 향하여, 나아가 세상을 향한 선언이다. 개인적 정치적 신념과 사상, 그리고 자연과 주체 자아의 일체화를 나타내는 선언이다. 徐廷文, 2011, “韓國 書院의 石刻文化,” 中國 湖南大學 岳麓書院, 岳麓書院 創建 1035周年 國際學術研討會〈書院文化的 傳承과 開拓〉논문집, 189-200.

셋째는 자연의 이미지를 취하여 유교문화의 가치 관념을 표현하자 하는 회화 방식이다. 산수도에 포함되는 서원도는 ‘문화의 자연적 투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에는 자연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인물화, 개념도 등이 포함된다.

세계유산 등재추진 대상 9개 서원은 입지와 경관에서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있고, 이 개성은 각 서원의 제향인물과 강학전통의 특성을 반영한다. 각 서원의 특성을 반영하는 시각적 기록 자료는 앞의 분류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즉 석각, 현판, 그림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시각적 자료를 조사 보존 활용함으로써, 한국 서원의 자연친화적 고유성, 진정성을 전문가는 물론 탐방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다.

3. 서원별 시각적 기록자료 현황

세계문화유산 등재 대상이 되는 9개 서원의 시각적 기록 자료를 분류하고 현황 정리를 통해, 조사와 보존 관리의 방향 탐색을 시도해 보았다.

발제 자료는 이번 서원기록문화 워크숍을 위해 각 서원별로 전문가에 의해 보고된 내용을 참조하였으나, 이 분야는 내용이 너무 소략해서 발표자가 수집한 자료를 중심으로 종합한 것이다. 다만 본 발표를 위한 현장 조사를 할 수 없어서 수집 정리된 시각적 기록 자료의 분류와 현황은 매우 거친 것이 되었다.

따라서 이번 발제의 용도는 앞으로 자료의 수집정리와 보존활용을 위한 방향을 제안하여 토의하는 참고 자료에 그친다.

1) 소수서원

(1) 석각 : 소수서원의 대표적 석각은 경(敬)자 바위이다. 경림정에서 죽계를 바라보는 전면의 바위에 경(敬)자를 새기고 그 위쪽에는 백운동(白雲洞)이라고 각자하였다. 경자를 새기게 된 내력에 대하여 주세붕의 자세한 설명이 있다. ‘白雲洞’자에 대하여는 주세붕의 시에 설명이 보인다. ‘敬’자는 붉은 색을 입혔고 ‘白雲洞’자는 흰색을 칠했는데, 한국의 석각이 중국과 달리 색을 칠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특별한 사례이다.

오래된 비로는 제월교비가 있다. 최근에 안축의 <죽계별곡(竹溪別曲)> 5장을 5개의 자연석에 각자하여 죽계천변에 각각 세웠다. 또 1973년에 세운 소수서원 중수기적비(重修記蹟碑)가 있다.

(2) 현판 : 소수서원 연구자가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소수서원의 많은 현판들은 현재 소수박물관에 기탁 보관되어 있다고 보고되었다. 건물관련 편액으로는 ‘白雲洞’, ‘文成公廟’, ‘日新齋’, ‘直方齋’, ‘學求齋’, ‘至樂齋’, ‘景濂亭’(1), ‘景濂亭’(2), ‘文宣王影幀室’, ‘儒道教育館’, ‘遺物館’ 등 13점이 있으며, 名言.名句 관련 편액으로는 ‘學求聖賢’(1), ‘學求聖賢’(2), ‘學求聖賢’(3), ‘鳶飛魚躍’(1), ‘鳶飛魚躍’(2), ‘鼎山幽居’, ‘仁者無敵’, ‘雙坪’, ‘承家輔國’ 등 9점이다.

그러나 위 소수박물관에 기탁된 편액 가운데, 현판 ‘鳳棲樓’, ‘迎鳳樓’, 과 기문 ‘鳳棲樓重營記’(1), ‘鳳棲樓重營記’(2)은 소수서원이 아니라 조선시대 순흥도호부 객사 문루 ‘鳳棲樓’의 현판과 기문이다. 또 위

에서 열거한 것 외 취한대(翠寒臺), 광풍정(光風亭) 편액이 영남문화연구소 편(2007) <소수서원지>에 수록되어 있다.

기문과 시판: 위의 자료에는, 記文에 해당되는 것으로 ‘白雲洞紹修書院記’, ‘白雲洞安文成公祠堂記’, ‘紹修書院童蒙齋重建記’, ‘紹修廟宇重修記’ 등 6점이 있으며, ‘白雲書院榜’, ‘學規’, ‘白雲洞書院令’ 등 公用文 3점과 ‘文成公享祀執事’도 보존되어 있다. 위에 제시된 기문 외 지략재, 일신재, 학구재의 기문도 건물에 시판과 함께 건물에 걸려 있다. 죽계를 바라보는 경치가 있는 경림정과 지략재에는 시판이 많이 걸려 있다. 또 최근 소수서원 측에서 복원을 추진 중인 제월루 관련 기록과 상량문이 <소수서원지>에 나타난다.

<소수서원지>에 기문과 건물에 관련된 수많은 시문을 번역 게재하였으나, 건물의 이름 관련 현판에 대한 해설이 없는 것이 아쉽다.

- (3) 그림 : 소수서원의 입지 경관에 관한 그림이 있다는 것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제향인물인 안향·주세붕·이원익의 초상화 영정이 있다. 이덕형·허목·채제공 등의 초상화는 봉안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현재는 없다.² 다른 서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공자의 영정인 <대성지성문선왕전좌도(大成至聖文宣王殿座圖)>와 <대성지성문선왕전좌도> 소묘화(素描畵)가 소수서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원래의 그림은 중국 원나라 시대의 것이며 안향에 의하여 도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2) 도산서원

- (1) 석각 : 현재 도산서원 경내의 석각의 대부분은 1970년대 도산서원 정비 사업 이후 제작된 표시석(標示石)으로 보인다. 서체와 돌의 크기·모양이 획일적이어서 진정성이 약하다.

한국 서원 중에서 외면적으로 가장 많이 정비된 서원이 도산서원이다. 그러나 이 정비과정에서 도산서원의 경관 원형이 매우 심하게 훼손되었다. 정비공사를 통해 원래의 서원 진입로가 매몰되고 새로운 진입로가 개설되는 과정에서 옛날 길가에 많이 존재했을 석각이 매몰되거나 파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원형이 보존된 석각은 천연대(天淵臺) 각자가 있고, 심하게 마모되었지만 석간대(石澗臺) 바위에 새겨진 퇴계선생의 시가 대표적이다.

- (2) 현판 : 도산서원의 여러 당호와 전교당에 걸려 있는 잠(箴), 치제문(致祭文)의 대부분이 현판으로 보존 관리되고 있고, 해설서도 출판되었다.³ 다만 출판된 해설서가 형식과 내용에서 교육 홍보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누정 기문에 해당하는 기문은 편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되지 못했다. 퇴계선생이 직접 도산서당 인근의 장소와 경치를 읊은 <도산잡영병서>나 서원 경내의 많은 장소에 대한 시문도 현판으로 제작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도산서원에는 다른 서원의 문루에 해당하는 건물이 없어 경승을 읊은 기문이나 시를 걸기에 적당하지 않다는 점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소수서원지>에 따르면, 소수서원에 봉안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금은 유실되었다 한다.

3. 권영한 편, 1998, 도산서원과 현판, 도서출판 한빛

- (3) 그림 : 보존된 산수도 풍의 다양한 도산서원도가 보존되고 있어, 변형되기 전 도산서원의 경관원형을 추정해볼 수 있다. <陶山圖>란 이름으로 金昌錫, 鄭敷, 姜世滉의 그림이 있고, 작자 미상의 <陶山圖>도 4종이나 전한다.⁴

3) 병산서원

- (1) 석각 : 병산서원의 석각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 (2) 현판 : 병산서원의 현판은 단조롭다. 서원 건물의 당호 현판으로, 정문에 해당하는 復禮門, 이층누각 晚對樓, 강당 立教堂, 사당 尊德祠이다. 창석 이준이 지은 기문 ‘屏山尊德祠復享記’가 입교당에 걸려있다. 서원 누문 가운데 가장 큰 평가를 받고 있는 만대루의 조성 내력을 알 수 있는 기문이나 상량문 자료가 조사되지 못해 매우 아쉽다.
- (3) 그림 : 하회마을 박물관에 하회 일대를 그린 산수화가 보관되어 있다. 병산서원은 탁월한 입지경관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그러나 기문 등 기록 자료로 확인된 ‘원형 문화콘텐츠’는 많지 않다. 경관 감상에 관한 자료도 대부분은 최근에 현대인들이 현대적 관점에서 기술한 내용이다. 병산서원의 자연 경관은 유교적 세계관 자연관과 관련하여 해석될 때, 그 진정성과 탁월성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옥산서원

- (1) 석각 : 독락당박물관에 전시된 자료에 의하면, “1531년(중종26) 화재 이언적이 독락당 주변 경승 10곳에 이름을 지었는데, 사산(四山) 오대(五臺)와 용추(龍湫)가 그것이다. 사산은 독락당 북쪽의 도덕산, 남쪽의 무학산, 동측의 화개산, 서쪽의 자옥산이다. 오대는 계정 아래 관어대, 그 맞은편의 영귀대, 관어대 북쪽의 탁영대, 더 북쪽 상류의 징심대, 그리고 옥산서원 앞의 세심대이고, 용추는 세심대 앞의 폭포이다. 이 중 자옥산·용추·관어대·세심대·탁영대·징심대·영귀대 7개 장소는 퇴계 이황에게 부탁하여 큰 글씨로 써 받았는데, 지금 독락당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하였다.
- 서원에 인접한 대(臺)에는 석각이 있는 경우가 많다. 사진 자료가 있는 석각은 서원 앞의 퇴계의 글씨를 각자한 ‘洗心臺’ 뿐인데, 확인이 필요하다.⁵ 옥산서원 입구에 잘 보이는 장소에 위치한 세심대 석각은 “마음을 씻어내는 곳”이라는 의미를 연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관리상태가 부실하다. 화재의 神道碑가 강당과 사당 사이에 있다.
- (2) 현판 : 옥산서원에는 亦樂門, 無邊樓, 동서재인 敏求齋, 闇修齋, 강당 求仁堂, 그리고 體仁廟 등이 각각 당호를 편액으로 걸어 놓았다. 정문인 亦樂門을 지나면, 2층 누각인 無邊樓가 나오는데 이 현판은 한호의 글씨이다. 무변루에는 許曄이 쓴 ‘玉山書院記’가 현판으로 걸려있다. 강당에 걸린 ‘玉山書院’ 현판은 두 개인데, 이산해와 김정희가 각기 썼다. 전면의 것이 화재 후 다시 사액된 김정희의 글씨이고, 강당 안의 현판은 최초 사액 당시의 이산해의 글씨이다. 강당 좌우 방의 당호는 兩進齋와 偕立齋이다. 강당

4. 한국국학진흥원·예술의전당, 2001, 한국서예사특별전21 퇴계선생탄신오백주년기념 퇴계이황.

5. 용추도 각자가 있다고 한다.

에는 ‘傳教謄書’라는 현판이 있고, 또 ‘御製祭文’이라는 현판이 있다.

옥산서원 당호 현판의 특징은 당호 글씨 좌측에 짧은 해설문을 적어두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無邊樓 글씨 왼쪽에 “靡欠靡餘 罔初罔終 光與霽與 遊于太虛(부족함도 없고 남음도 없으며, 처음도 없고 끝도 없구나. 마음이 광풍제월처럼 맑고 빛나, 태허의 경지에서 노니네)” 하여 황정견이 지은 濂溪先生 - 六先生畫像贊의 風月無邊에서 뜻을 취한 것임을 알고 있게 한다.⁶ 이 해설문은 현판으로 게시된 당호의 함축적 의미를 풀이한 것으로 주목된다. 활용성이 높은 자료이다.

옥산서원에서 북쪽으로 떨어진 獨樂堂에는 퇴계 글씨의 ‘玉山精舍’와 이산해 글씨의 ‘獨樂堂’ 현판이 있다. 독락당에는 <獨樂堂十四詠>을 비롯한 많은 시판이 걸려 있다. 또 시내에 면한 溪亭에는 ‘溪亭’ 현판과 맞은 편 온돌방 벽에 ‘養眞庵’ 현판이 있다. 계정은 한호, 양진암은 퇴계 글씨이다. 그리고 시내를 내려다보는 뒷마루 뒷 벽에는 ‘仁智軒’ 현판이 걸려 있다. 계정에는 시판들이 걸려 있다.

옥산서원과 독락당, 그리고 옥산서원 유물관에 보존된 자료를 포함하면 옥산서원 현판자료를 방대하다. 그러나 현대인이 함께 그 의미를 이해하여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번역 해설한 자료 제작은 매우 부족하다.

(3) 그림 : 조사된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5) 도동서원

(1) 석각 : 자연석 석각은 조사된 내용이 없다. 최근에 서원에 들어오는 길목에 해당하는 다람재 전망대에 최근 김굉필의 시 ‘노방송(路傍松)’을 새긴 석각이 있다. 그 옆에 다람재 표시석이 있다. 도동서원 앞에는 이 장소로 서원 이설을 주도한 한훤당 김굉필의 외증손 한강 정구가 심었다는 큰 은행나무가 있다. 우측에 신도비가 있고, 좌측에 근래 세운 국역신도비가 있다.

(2) 현판 : 수월루(水月樓), 환주문(喚主門), 道東書院(강당 전면과 내부 후면에 각각 1개), 강당 중정당(中正堂) 현판이 걸려 있다. 동재인 거인재(居仁齋), 서재인 거의재(居義齋)가 있다. 강당 중정당 안에 특별히 자세한 ‘道東書院規目’, 기문으로 옥산서원과 마찬가지로 傳教가 걸려 있다. 문루인 수월루에는 ‘水月樓重建記’, ‘水月樓重修上樑文’, ‘水月樓重建顛末小記’가 걸려 있다.

(3) 그림 : 도동서원 사당 안에는 인상적인 벽화 두 폭이 그려져 있다. 그림은 중앙칸 벽체 상부 왼쪽 북벽에 <雪路長松>, 오른 쪽 남벽에 <江心月-舟>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다. 이 그림에 대해서는 한훤당 집안에서 소장했다는 안건의 그림 병풍과 관련된 이해도 있다.⁷ ‘설로장송’이나 ‘강심월일주’의 그림 주제나 내용은 도동서원의 경관과 흡사할 뿐 아니라, 김굉필이 시로 읊은 주제이다.⁸ 이 그림을 통해서, 도동

6. 濂溪先生 - 六先生畫像贊: “濂溪先生 - 六先生畫像贊: 道喪千載 聖遠言湮, 不有先覺 孰開我人, 書不盡言 圖不盡意, 風月無邊 庭草交翠(염계 선생께서는, 도가 천년 동안 없어진 뒤에 나셨으니, 성인(공자)과 멀어져 그 말씀도 가물가물했네. 선생 같은 선각자 없으셨다면, 누가 우리 후인들을 열어주었으리. 『易通』에서도 말을 다하지 못하셨고, 太極圖에서도 생각을 다하지 못하셨네. 광풍제월 같은 마음 한없이 넓으셨으니, 들의 풀에 푸른 생기 짙어지는 것 어찌 말하리.”

7. 유흥준, 2011, 나의문화유산답사기 6, 창작과비평, 224-226

8. “배는 하늘 위에 앉는 듯 물고기는 거울 속에 노는듯, 술 마신 후 거문고 끼고 돌아가니 강 가운데 달빛이 배 하나 가득하구나(船如天上左, 魚似鏡中遊. 飲罷休琴去, 江心月一舟 - ‘船上’ - 寒暄堂先生記念事業會, 『國譯景賢錄』, 2004.

서원 제향인물 김굉필의 정신세계가 도동서원 입지와 경관에 투영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수월루가 뜻을 취한 ‘寒水照月’이나 그림의 ‘江心月一舟’와 같은 자연 이미지는 김굉필의 정신세계를 상징한다. 따라서 자연경관을 보면서 상징적 이미지를 취해서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다시 그림 이미지를 통해서 도학자의 관념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림은 도동서원의 자연경관과 한훤당의 정신세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6) 남계서원

- (1) 석각: 서원 경내에 묘정비(廟庭碑)가 있다. 서원 앞에 최근에 건립한 <문헌공정여창선생추모비>가 거대한 규모로 서 있다.
- (2) 현판: 풍영루(風咏樓)·준도문(遵道門)·명성당(明誠堂)·동서재인 보인재(輔仁齋)·영매헌(詠梅軒), 양정재(養正齋)·애련헌(愛蓮軒) 등이 있다. 영매헌과 애련헌은 각각 그 앞에 조성된 방지(方池)와 관련된 명칭이다. 강당 명성당 건물 전면에 ‘濫溪’, ‘書院’ 두 현판이 좌우로 분리되어 걸려 있는 것이 특성이자. 명성당 좌측 방에 ‘居敬齋’, 우측 방에 ‘集義齋’ 현판이 걸려 있다. 기문으로 강익의 강당에 걸린 <濫溪書院記>, 풍영루에 정환필의 <風詠樓記>, 奇正鎭의 <風詠樓重建記> 기문이 걸려 있다. 기문에 인근의 경치에 대한 기술이 자세하고, 이 경치를 즐기며 曾點이 風詠하는 즐거움과 같을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풍영루는 남계서원 앞에 전개된 경치를 바라보는 느낌과 통하고 一蠹가 지리산 유람을 다녀오며 지은 頭流詩 내용과도 상통한다.⁹
- (3) 그림: 강당 明誠堂은 단청이 화려하고, 윗벽 기둥에 벽화가 많이 그려져 있다. 그림 주제는 호랑이 그림 등 신선사상과 관련된 것이 많다. <濫溪書院圖>가 있다.

7) 돈암서원

- (1) 석각: 돈암서원이 창건될 당시에는 지금의 연산면 임리 숲 말에 소재하였는데, 서원 서북쪽에 ‘돈암(遯巖)’이라는 큰 바위가 있어 이름을 ‘돈암’이라 하였다고 한다. 논산시 연산면 임리 하림에 ‘遯巖’이라는 석각이 있다. 기타 자연석 석각은 조사 확인하지 못했다.
- 묘정비 양성당 정면 앞 마당에 遯巖書院庭碑(1669년, 송시열 찬; 재목은 連山遯巖書院碑記), 遯巖書院移建碑文(1903년, 송병선 찬)이 있다. 최근에 세운 <黃岡金先生靜會堂史蹟碑>가 서원 문 앞에 서 있다.
- (2) 현판: 당호 현판으로 문루 山仰樓, 入德門(遯巖書院: 1660년, 현종 1), 강당 凝道堂, 養性堂, 靜會堂, 사당 唯敬祠(崇禮祠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이다. 양생당 좌우 방에는 居敬齋, 精義齋 현판이 있다. 최근에 중수한 문루 山仰樓가 있다. 산양루 누각에는 <吟諷弄月>, <浩然之氣>이라는 편액과 시판도 있는데 최근의 것으로 보인다.
- 沙溪 金長生의 ‘養生樓記’에 나오는 “仰而樂山。俯而觀水 觸物悟理。涵泳優游”의 ‘仰而樂山’에서 취한 것으로 보인다.¹⁰ 산양루의 “仰而樂山 俯而觀水”이라는 서원 입지와 경관 특성은 현재 서원이 아닌 과

9. “風蒲泛泛弄輕柔，四月花開麥已秋，看盡頭流千萬疊，孤舟又下大江流”

10. “若早尋初服 仰而樂山。俯而觀水 觸物悟理。涵泳優游。則未必無助於心地上工夫”『沙溪先生遺稿』卷5, 記, 養性堂記.

거 서원의 입지 경관이다. ‘仰而樂山’은 과거 서원 자리에서 멀리 남으로 大屯山과 북으로 鷄龍山을 바라보는 경관이다. 또 ‘山仰’은 “높은 산을 우러르고 큰 길을 따라간다(高山仰止 景行行止 -『詩經』).”하는 孔子의 仁에 대한 志向을 연상시킨다.

기문으로 書揭遯巖書院(송시열), 雅閑亭題詠, 養性堂記(김장생 찬), 養性堂記(1603년, 정업 찬), 養性堂後記(1883년 김상헌 찬), 憶沙溪先生有感(이유태), 從享遯巖書院(김집), 題凝道堂壁右(유일준), 藏板閣記(1926년, 李商永), 遯巖書院上樑文(1633년, 김상헌), 遯巖書院重修記(1955년 군수 박유진), 遯巖書院重修記(유사 황택수), 養性堂重修記(1956년), 양성당 이건기(1971년, 송재성), 양성당 이건기(1978년, 김영완), 산양루중건기(2006년), 산양루중건상량문, 柱聯은 응도당과 양성당 각각 여섯 개 기둥에 걸려 있다. 그러나 <돈암서원지>에 게재된 응도당 사진에는 주련이 없어 응도당의 주련은 최근에 새로 걸린 것으로 보인다.

(3) 그림 : <遯巖書院全圖>가 있다.

8) 무성서원

(1) 석각 : 자연석 석각은 확인하지 못했다. 流觴臺 각자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원 마당에는 묘정비를 비롯하여 기적비 등 비석이 많다.

(2) 현판 : 絃歌樓, 武城書院, 講修齋, 泰山祠 등의 당호가 현판으로 걸려 있다.

서원의 이름 ‘武城’은 공자의 제자인 子游가 다스리던 邑 이름에서 취한 것이다. 문루 絃歌樓는 ‘絃歌之聲’을 의미한다. 다른 서원의 문루가 신유학의 天人合一의 의미를 함축하는 내용인 것과 달리 絃歌樓는 원시 유학의 현실 참여의 의미를 가진 것이다.

강당에 <武城書院集賢氣> 등 기문이 여럿 걸려 있다. 현가루에는 기문 <武城書院絃歌樓重建記>, <武城書院絃歌樓重修記>, <絃歌樓重建記>가 걸려 있다. 강당 여섯 기둥에 모두 주련이 있다. 齋에 해당하는 강수재에도 기둥마다 주련이 있다. 사당 내삼문에도 ‘聖朝額恩 士林首善’ 등의 주련이 있다.

(3) 그림 : 사당 태산사 안에 채용신이 그린 최치원 영정이 있었다. 이 영정은 하동 쌍계사에서 1784년(정조 8)에 가져온 것이라 한다. 지금은 전북박물관에 별도 보관하고 있다.

絃歌樓 가로 기둥에 산수화 풍 그림과 난 그림이 그려져 있다. 泰仁 고현 읍치 지도에 무성서원이 성황산 아래 중심적 위치에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무성서원은 등재 대상 9개 서원 가운데 매우 특이한 서원이다. 서원이름, 제향인물, 서원의 입지 등에서 그렇다.¹¹ 공간구조도 특이한데, 강당이 앞뒤의 문루와 사당과 양쪽으로 모두 개방된 대청을 가진 것이나 재사가 사당과 강당의 축선에서 벗어난 곳에 배치되어 있다. 무성서원은 주련이 강당, 재, 사당 삼문에 모두 걸려 있는 것도 특이하다. 도학적 엄숙으로 권위적인 다른 서원과 달리 무성서원은 대중적이어서 친근감을 주는 서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무성서원이 다른 서원과 차별화되는 고유성을 더욱 진정성 있게 보존, 홍보할 필요가 있다.

11. 무성서원이 입지한 성황산 아래는 보통 군현의 관아가 입지하는 곳이다. 관아 자리에 서원이 있는 것은 한국에서 예가 없다.

9) 필암서원

(1) 석각 : 필암서원이 현재 위치한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78번지 일원(조선시대 전라도 장성부 서일면 필암리)는 두 차례의 이진 과정을 거친 제3차 입지 장소이다. 따라서 1, 2차 서원이 입지한 곳이나 그 연고지에도 시각적 기록 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 사례가 필암이란 이름의 유래가 된 김인후 태생지의 붓바위이다. 붓바위에는 윤봉구(尹鳳九, 1681~1767)가 썼다고 알려진 ‘筆巖’이라는 글씨 석각이 있다.

현재의 필암서원은 평지에 입지하고 주위에도 암석이 없어 자연석에 새겨진 석각은 나타나지 않는다. 필암서원 사당 우동사 앞 묘정(廟廷)에는 특이한 비석이 있는데 필암서원 계생비(繫牲碑)이다. 제물로 쓸 가축을 매어 놓는 비이다. 맥동마을 난산에는 하서 김인후 망곡단(望谷壇)과 난산비(卵山碑)가 있다.

(2) 현판 : 필암서원의 현판은 확연루를 비롯한 건물의 당호를 쓴 편액과 상량문 중수기 등 기문류, 그리고 시판 등 3 가지로 구분된다. 대표적 편액으로 확연루는 송시열, 강당 청절당과 동재 진덕재·서재 송의재는 모두 송준길, 필암서원은 윤봉구가 썼다고 한다. 장경각 편액은 정조 임금의 어필이다. 우동사 편액은 주자 글씨를 집자한 것이라 한다. 확연루에는 김시찬의 ‘확연루기(1960년)’와 송명흠(宋明欽, 1705~1768)의 ‘중수상량문(長城筆巖書院廓然樓重修上梁文)’ 등 기문이 걸려 있다. 확연루에도 시판이 있는데 제목이 ‘筆巖樓前方塘’이다. 주자의 讀書有感 시를 모방한 듯한데, 필암서원 앞에 방당이 있음을 암시한다. 강당인 청절당에는 필암서원 중수기와 松江·淸陰의 시와 이를 차운한 시판 여러 개가 걸려 있다.

(3) 그림 : 필암서원 장경각에는 인종임금이 하사한 묵죽도와 묵죽도 판이 보관되어 있다. 사당인 우동사에는 김인후의 천명도가 복사된 병풍이 있고, 벽면에는 학·용·연꽃·봉황·잉어·매화·국화·소나무 등 절개와 장수를 상징하는 다양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

사당안의 병풍이 조야하게 복사된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쉽고, 그림은 그 유래를 설명하는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 [필암서원지, 1975]에 <필암서원전도>가 실려 있으나 산수화 풍의 서원도는 확인되지 않는다.

필암서원은 최근 대규모의 정비사업을 끝냈다. 정비사업의 결과 廓然하게 전망되었던 전면경관이 키 큰 나무로 가려져 廓然하지 못하게 변했다. 하드웨어 정비가 크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문화 콘텐츠의 기본이 되는 廓然樓記를 비롯하여 시판 등이 아직 정식으로 번역 소개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앞으로 과제이다.

4. 시각적 기록자료 현황과 조사·보존관리 방향

표1. 서원의 시각적 기록자료 분류 체계

구분 서원	시각적 기록 자료									조사 수집	보존 관리
	석각			현판				그림			
	자연석	비석	표시석	편액 (당호)	기문	시판	주련	산수 화풍	기타		
소수	-	-	-	-	-	-	-	-	안향영정	-	-
도산	-	-	-	-	-	-	-	도산도	-	-	-
병산	-	-	-	-	-	-	-	-	-	-	-
옥산	-	-	-	-	-	-	-	-	-	-	-
도동	-	-	-	-	-	-	-	설로장송, 강심일월주	-	-	-
남계	-	-	-	-	-	-	-	-	서원도	-	-
돈암	-	-	-	-	-	-	-	-	서원도	-	-
무성	-	-	-	-	-	-	-	태인고현도	최치원영정	-	-
필암	-	-	-	-	-	-	-	-	서원도	-	-

- ① 표시석이란 현대에 새로 만든 것으로, 규격화된 방식으로 돌을 깎아서 획일화된 서체로 새겨 넣은 석각을 말한다.
- ② 서원에 공통적으로 걸려 있는 현판으로 원규, 제집사분정기, 악록동규 등이 있다.
- ③ 서원도의 경우 현재의 공간 구조와 달라진 내용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평가가 필요하다.
- ④ 자연석 석각은 서원에서 떨어진 곳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도의 조사와 보존조치가 필요하다. 서원이 이전된 경우 이전 입지 장소의 석각 등을 확인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

서원 시각적 기록자료 조사 보존과 활용을 위한 논의 주제

- ① 석각 자료 : 자연석 석각자료의 조사 수집 및 훼손 방지 보존관리 대책, 표시석 유형의 석각 자료의 획일성 개선방안, 비석의 지나친 거대화 욕구와 서원 정면·내부 설립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 ② 현판 자료 : 당호, 시판, 기문 현판의 함축적 의미를 일반인이나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번역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현장에 게시하고, 출판 및 영상 자료화 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 ③ 그림 자료 : 역사적 기록 자료의 조사 활용 뿐 아니라 회화 영상 부분에서 현대적 자료를 새롭게 적극 개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④ 현재 유교문화원형 사업은 인터넷 등 매체기반형 사업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서원 현장 중심의 장소기반형 사업과 체험지향형 사업이 삼위일체형으로 함께 진전되어야 한국서원 문화의 국제화와 현대적 활성화를 추구할 수 있다.

- ⑤ 시각적 기록자료 보존과 활용이 서원문화로 대표되는 유교문화의 장소친화적, 자연친화적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방법이 된다.
- ⑥ 유교문화의 기록 자료는, 다른 종교적 전통문화와 달리, 대형화·획일화·통속화·번잡화 될 수 있는 위험성을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 ⑦ 전체적으로 시각적 기록 자료의 중요성과 활용성에 대한 서원 관련자들의 공감 확산이 필요하다.
- ⑧ 우선적으로 서원의 시각적 기록 자료에 대한 체계적 조사가 필요하다.

서원자료의 보존 관리, 활용방향

1. 서언

서원의 고문헌은 건물이나 조정, 입지 등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과 달리 서원의 정신적 유산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당서원의 연원, 당시의 시대적 상황, 제도, 인맥 등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기본적인 사료가 된다. 서원 자료의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곧 서원의 소프트웨어를 잘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며 현 시점에서 옛 선비의 생활과 가치를 돌아보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선조의 지혜에 좀 더 다가가는 것이다.

서원의 고문헌자료는 크게 고서, 고문서, 책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곧 보존 관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의 보존관리는 발굴한 자료를 물리적, 화학적으로 보존하는 방법에 관한 것과 정책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병행되는 것을 말한다.

각 서원에 소장된 고문헌의 이동 상황을 점검하고, 도난과 훼손을 방지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는 우선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다. 목록작성과 동시에 보존관리를 위한 물리적·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되어야 하며 목록자료를 바탕으로 삼아 유물에 대한 체계적 보존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수많은 자료가 발굴되고 목록이 작성되었어도 소장자료에 대한 지속적 보존관리가 뒤따르지 않으면, 애써 작성한 목록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고비용의 보존처리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서원 고문헌의 올바른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목록의 작성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미 목록이 작성되어 알려졌지만 제대로 보존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곳은 현대식 시설에 자료를 기탁하고 있는 몇몇 서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곳은 한두 군데에 불과하다. 각 서원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문화재급은 국가가 제공하는 보관장치에 수장되기도 하고 기타 중요한 자료는 도난 방지장치도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원 고문헌은 별다른 훼손방지 시설이나 장치 없이 일반 물품과 같이 보관되는 경우가 많고 다른 문중의 기록물과 섞이는 경우도 많으며 엉뚱한 곳에 흩어져서 소장된 경우도 볼 수 있다. 대다수의 서원의 고문헌은 도난이나 유물의 손상에 방치된 상태로 보존관리에 관련된 국가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글은 서원의 기록물로서 고문헌으로 구분되는 고서, 고문서, 책판 등의 자료에 대하여 보존관리를 위한 방법과 종합적 체계를 위한 방향을 설정해 보고자 작성하는 것이다. 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부터 차례 차례 해결해나감으로써 세계문화유산급 가치에 부합하는 서원 고문헌의 보존관리 체계를 구상하여 기준적인 내용을 제시해보는데 의미가 있다. 이 발표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일반 동산문화재의 사례에 따라 보존관리 조사표, 보존처리표, 목록 해제 등과 함께 서원 고문헌 관리의 전반적인 체계를 마련하여 이를 통한 체계의 수립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2. 서원 고문헌 보존관리의 현황과 유형

1) 서원 고문헌의 보존 관리 기록

서원의 고문서나 고서, 책판의 보존관리 기록으로 잘 알려진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과 경주 양동 옥산서원의 기록이 있다. 각 서원마다 고서와 책판에의 관리를 위하여 목록을 작성하였고 원규에 이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정하기도 하였다. 보존관리 전통의 계승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서원자료 보존 관리를 위한 선조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주로 소장 고문헌의 목록을 작성하고 원규에 규정을 정하여 유출을 막은 것이다.



그림 1. “來讀院中 勿出院門”이 墨書된 서원 소장 고문헌

소수서원의 경우 소장 서적 현황은 서원에서 작성한 여러 종의 장서목록이 있는데, 1653년(효종 4)의 『院中書冊置簿』에는 122종 및 追錄 21종, 1698년(숙종 24)부터 1761년(영조 37)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書冊目錄」에는 서적 168종과 책판 7종 및 추록 27종, 1796년(정조 20)의 『兵陣八月三十日修整紹修書院冊都錄』에는 129종과 책판 6종이 수록되었고, 1891년(고종 28)까지 16종이 증가되었다고 나타나 있다. 또한 소수서원은 소장하고 있는 각 책 본문의 마지막장에 “來讀院中 勿出院門”이라 墨書하였으며, 傳掌記 등을 작성하여 그 보관과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였다.

옥산서원의 경우『書冊現在都錄』의 完文(1862년 5월 작성)에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서원 서책 ‘院門外不出’에 대한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으므로 이 완문의 내용을 판각하여 經閣의 門楣에 달아 경계토록 하고, 任司가 열람한 날짜와 사람, 책명을 기록한 후 직접 돌려받고 혹 그 책을 잃어버리면 임사가 반드시 다른 것을 구하여 돌려놓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책판의 경우에 서원에서 관리한 기록이 상당 수 남아있다. 이는 조선시대 편찬한 각 지방의 읍지에 수록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영남지역 읍지의 경우 각 읍지에는 특별히 보관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으나 서원, 향교, 사찰, 관청, 사가 등의 유형으로 표시한 경우도 자주 보인다. 이 중에 서원은 소장처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이 보인다. 이는 서원의 성격상 강학기관이면서 동시에 건물 구조로 볼 때 장판각을 갖춘 경우가 많았으므로 책판의 보관처로 적합하였기 때문이다. 경주의 西岳書院, 玉山書院, 상주의 道南書院,

西山書院, 興巖書院, 玉成書院, 近巖書院, 일선(善山)의 金烏書院, 예안의 陶山書院, 용궁의 三江書院, 함안의 德巖書院, 西山書院, 松汀書院, 합천의 新川書院 등으로 그 처소가 다양하다. 이 가운데에는 경주의 옥산서원, 상주의 도남서원과 흥암서원, 예안의 도산서원과 같이 현재 장판각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으나, 장판각이 남아 있지 않거나 당대 장판각의 존치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읍지의 기록으로 서원 가운데 가장 많은 책판을 보관한 곳은 경주의 옥산서원으로 총 18종이 확인된다. 이 책판은 「淨惠寺所藏板」조에 ‘今移在玉山書院’이라는 기록으로 보아 본래부터 옥산서원에 소장되었던 것이 아니라 『金鰲勝覽』이 간행된 1930년대 초에 정혜사의 책판이 가까이에 위치한 옥산서원으로 이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1. 19세기 영남 각읍의 책판 소장서원

소장처 구분	소장서원
書院 (15개 지역 44개 서원 122종)	尙州: 道南書院(1)·玉成書院(3)·興巖書院(2)·西山書院(2)·近巖書院(3)·道南書院(1), 善山: 金烏書院(3)·洛峯書院(4)·松山書院(3)·松山書院(1), 密陽: 禮林書院(2), 龍宮: 三江書院(1), 安東: 周溪書院(3)·屏山書院(6)·虎溪書院(2)·三溪書院(1)·默溪書院(3)·魯林書院(6), 禮安: 陶山書院(24), 永川: 臨臯書院(4)·梅谷書院(2)·道峇書院(5)·橫溪書院(1), 咸安: 西山書院(3)·德巖書院(1)·松亭書院(1), 星州: 柳溪書院(1)·晴川書院(2), 靑松: 松鶴書院(1), 咸陽: 藍溪書院(2)·柏淵書院(2)·唐洲書院(1), 咸昌: 栗谷書院(3), 州: 龜江書院(1)·玉山書院(8)·龍山書院(1)·東江書院(1)·西岳書院(1), 淸道: 紫溪書院(2)·西巖書院(1), 晉州: 德川書院(2)·宗川書院(2)·龍塘書院(2)

표에서 보듯이 19세기에 영남 각읍의 책판 소장기관은 서원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총 15개 지역의 44개 서원에 122종의 책판이 보관되어 있었고 서원에서 서적 간행의 직·간접적인 참여로 인해 다수의 책판을 보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 말에 작성된 『누판고』에 의하면 전국의 서원중에서 도산서원은 가장 많은 책판을 보관하고 있었다. 서원에서 『擊蒙要訣』과 『嶠南賓興錄』 책판을 보관했음을 알 수 있는 기록으로 17세기 인조 때 전라도 순천부와 해서의 석담서원에 있는 책판으로 『격몽요결』을 인출하여 올려 보내겠다는 예조의 계문을 확인할 수 있다.¹ 『홍재전서』의 「군서표기」에 나와 있는 『嶠南賓興錄』의 간행에 대한 기록도 도산서원에 책판을 보관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² 도산서원의 책판관리 기록은 『陶山書院傳掌記』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도산서원전장기』는 도산서원에서 관장한 물품을 기록한 자료로 17세기초부터 20세기초까지 기록되었다. 한 해 안에도 여러 번 점검하고 작성하였으며 이것을 다시 정리한 것도 있다. 그 중에는 책판의 종류와 수량을 기입해 놓은 것도 있으며 초기의 기록은 책판의 수량은 기록하지 않고 종류만 기록하였는데, 17세기 초에 도산서원에서는 『啓蒙傳疑』, 『古鏡重磨方』, 문집 책판, 『陶山十二曲』, 『漁父辭』 책판 등을 소장하고 있었다. 이처럼 서원에서는 다른 물품과 함께 책판의 소장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며, 시기별로 꾸준히 현황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 『국역승정원일기』 인조 7년(1629) 8월 17일 기사; 홍명구가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지금 右相 李廷龜의 말을 들으니, 『擊蒙要訣』을 인출하여 반포하는 일도 탑전에서 진달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은 거행 조건으로 내지 않은 탓에 본조에서 알지 못하여 복게하지 못하였습니다. ... 이 책은 실로 아동을 교육하는 데에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 冊板이 전라도 順川府와 海西의 石潭書院에 있다고 하는데 張數가 많지 않아 인출하는 일이 큰 工役은 아니니, 본도로 하여금 각각 수백 件을 인출하여 올려 보내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감히 아뢴니다.”...

2. 『弘齋全書』卷184 羣書標記六〇 命撰[二] 嶠南賓興錄二卷, “刊本復命道臣取傳教祭文 及閣臣差備官座目 入格榜目 入門收券數文 入格試券中優等四作 傲瓊林聞喜錄凡例 刊印以進 藏其板于陶山”(…다시 道臣에게 명하여 傳教, 祭文, 閣臣과 差備官座目, 入格榜目, 入門하고, 收券한 수효, 入格 시권 중에 우수한 것 4편을 취하여 『瓊林聞喜錄』의 범례를 본떠 간행하여 진상하고, 그 冊板은 陶山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2) 목록과 보존관리 실태

서원 고문헌은 위의 예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선조의 노력에 의해서 각별히 지켜져 왔지만 현재 남아있는 고문헌의 보존관리의 상태로 본다면 소장 문화재 안전관리, 보존 등의 대책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보물 및 도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소장처는 대체로 보존을 위한 유물각을 설립하여 보존관리가 진행되기도 하고 훼손된 자료의 경우 보존처리를 한 경우도 있지만 이마저도 후손별로 자료가 분산되거나 별도의 관리 시설을 마련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서원 자료를 위한 별도의 보존시설은 거의 없다. 표-2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예정인 9개 서원의 고문헌 소장현황과 자료조사연구, 보관장소 등을 표시한 것이다. 그나마 상황이 좋은 편에 속하지만 보존환경의 편차가 심하고 목록작성의 체계가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체계적인 보존처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들 서원 외에 대부분의 서원 고문헌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목록작성이 된 고문헌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매우 간략하며, 종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흩어져서 수록되기도 하여 전체적인 연구를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또 관련 연구자들도 학술적 자료 활용 외에 보존관리에는 거의 무관심하여 서원자료의 보존, 관리주체, 체계가 없는 상태로 지속가능한 관리 인력의 지원과 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 더군다나 습기와 충해로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가 많고 도난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국내에서 보존처리가 이루어진 것 중에 책판의 보존처리가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고, 고서·고문서의 사례와 논저 검토결과 대부분 문화재급 유물에 대한 보존처리만 이루어지고 그 방식은 지류유물의 보존처리 방식으로 거의 대부분 비슷한 공정을 거친다. 하지만 비지정 유물을 소장한 곳은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이 없어 창고에 쌓아두거나, 종이상자나 궤에 넣어 다락방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보관장소의 대부분이 습도가 높고, 통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벌레 및 설치류 등의 피해로 해당 유물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기도 하다.

서원의 장판각이나 문서고는 그나마 양호한 편이지만 대부분이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는 장소에서 오래된 궤짝이나 상자에 넣어두고 먼지가 쌓인 상태로 방치되거나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된 채로 밀폐되어 있다. 또한 보관함과 문서 크기차이로 유물이 구겨진 상태로 보관되기도 하며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소장된 것은 대부분 도난에 무방비 상태다.

함에 보관하는 것도 내부의 습도나 온도가 높아서 하절기에 습기와 곤충에 의한 피해가 우려된다. 온·습도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훼손유형을 감안할 때 서원 소장 고문헌의 지속적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시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문제이다. 서원 소장처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항온·항습에 필요한 설비의 지원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반적인 종이상자에 보관하는 방식은 평상시 보관하기에는 수월하지만 고온다습한 여름철 장마 후에 습기를 한번 머금을 경우 건조에 시간이 걸리게 되고 이는 오히려 곰팡이 생성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또한 고서나 고문서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제작된 것이어서 유물의 크기가 큰 것은 구겨짐이 발생하고 작은 크기의 것은 상자 내부에서 흐트러져서 순서가 뒤바뀌거나 구겨진다.

보존 및 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소장 문화재 안전관리, 보존 등의 대책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도난 대비 시설과 설비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서 보존하고 있던 문화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난당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다량 소장처에 대해서는 적어도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고문헌은 화재에 취약하여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전체가 소실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개인 소장자들이 자동소화설비를 갖추고 전적을 보존하고 있는 경우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정책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유물 소장자의 인식, 과학적 보존처리에 대한 이해,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보존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 등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표 2. 주요 서원의 기록물 보존관리 현황

서원명	소장현황		자료조사연구		보관장소
			조사보고	타기관소장	
소수서원 (1543)	고서	141종 563책(1969), 30종 145책(1997)	이조서원문고목록(1969) 소수서원소장자료조사보고서(1998) 소수서원지(2007) 소수박물관의 목판과 현판(2009) 도지정 동산문화재 실태조사보고서(2011)	국사편찬위원회 계명대 도서관 한국국학진흥원	소수서원 사료전시관 소수박물관
	고문서	110점			
	책판,기타	4종 428장			
남계서원 (1552)	고서	59종 317책	이조서원문고목록(1969) 경상남도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실태조사 (2005)	-	-
	고문서	717점			
	책판,기타	377장			
옥산서원 (1573)	고서	330종 2197, 503종 2847책(1969) 943종 3977책(2005)	한일관계사연구(1920) 이조서원문고목록(1969) 옥산서원지(1993) 영남고문서집성2(1992) 고문서집성65(2003)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실태조사 보고서(2005)	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중앙 연구원 장서각 각 문중 종택	옥산서원유물 전시관(2010)
	고문서	1156점			
	책판,기타	19종 1121장, 기타24종			
도산서원 (1574)	고서	907종 4338책(1969), 1026종 4605책 (2010)	이조서원문고목록(1969) 도산서원고문서1,2(1994, 1997) 조선시대 영남서원자료(1999))	-	한국국학진흥원
	고문서	2128점			
	책판,기타	57종 4014장 (책판28종 3928장)			
필암서원 (1590)	고서	-	-	-	-
	고문서	-			
	책판,기타	-			
도동서원 (1605)	고서	10종 26책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실태조사 보고서(2005) 도동서원지(1997)	-	금고, 장판각, 유물전시관
	고문서	-			
	책판,기타	1종 71장, 기타28점			
병산서원 (1613)	고서	6174점(동산문화재), 3689점(전적및 현판)	이조서원문고목록(1969) 문화재관리국(1991) 고문서집성20(1994)	-	한국국학진흥원
	고문서	-			
	책판,기타	25종 1907장			

서원명	소장현황		자료조사연구		보관장소
			조사보고	타기관소장	
돈암서원 (1634)	고서	-	비지정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실태조사 (2007)	-	-
	고문서	10종			
	책판,기타	1841장			
무성서원 (1696 사액)	고서	8종	무성서원조사보고(2010)	전북대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	-
	고문서	49종			
	책판,기타	기타51			

* 원문제공 사이트

남계서원 :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남명학교문헌시스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한국고문서자료관,

옥산서원 : 역사정보통합시스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센터(진행중)

도산서원 : 유교넷

도동서원 : 도동서원지 원문 DB서비스

병사서원 : 유교넷, 한국고문서자료관

3) 고문헌 훼손의 유형과 보존처리방식

(1) 훼손의 유형³⁾

고서·고문서 자체에 관한 훼손은 대부분 보존방식이나 보존을 위한 시설, 장치 등의 미비에 의한 것이다. 이는 온·습도, 빛, 생물에 대한 유지·차단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종이의 열화와 관련이 있다.

대부분 종이로 만들어진 고서·고문서는 온도, 습도, 빛에 의하여 열화(slowfire)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화가 진행되며 종이는 진한 갈색으로 변하게 되고 결국 부스러지는 등 종이가 태워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온도가 높을수록 물질간의 화학반응을 촉진시키거나 재질의 강도를 떨어뜨리고, 습도변화는 물체의 빈 공간에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열화를 촉진시킨다. 고문헌 보존관리는 이런 열화가 진행되기 전에 시설 장치를 통하여 훼손을 방지하고, 이미 열화가 진행된 유물에 대하여 보존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와 같은 서원 고문헌 보존관리의 상황으로는 그 훼손이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 확실하며 원상태로 복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보존관리가 될 경우 나타나는 훼손의 유형은 온·습도, 빛과 열, 생물 등에 의한 훼손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보존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온·습도에 의해서 종이가 손상될 때 나타나는 표시는 종이가 약화되고 부스러짐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산성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존처리에서는 중성으로 유지시켜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고서 고문서의 산성도유지는 온·습도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중성 또는 약알칼리성을 유지해야 장기간 보존될 수 있다. 아울러 색변화와 물의 번짐 흔적이 발생되고

3. 종이유물 훼손의 유형에 관한 내용은 주로 박지선, 「지류문화재 보존」,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 국립문화재연구소, 1997. 국립문화재 연구소 편, 「동산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2004.의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한 것이다.

채색된 것일 경우 안료가 탈색된다. 물리적으로는 종이가 휘고 주름이 잡히며 서로 붙는 현상까지 생기게 된다. 다량소장처마다 빠짐없이 나타나는 훼손유물의 대표적 사례로서 모두가 온·습도관리가 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다.

종이유물에 가장 적합한 온·습도조건으로 온도는 18~20℃, 상대습도는 45~55%이며, 허용 온·습도조건은 온도 21~22℃, 상대습도 50~55%이다. 종이 습도가 높아져서 습도 65% 이상이 되면, 종이의 흡수율이 10%가 넘게 되어, 곰팡이균의 서식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이 곰팡이균의 유기산이 종이 위에 장시간 남아 있으면, 종이의 재질인 셀룰로오스가 서서히 절단(酸分解)되어 종이가 열화하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 미생물에 의한 종이유물의 변질은 오랜 시간동안 방치할 경우 원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 기후의 특성상 고온 다습한 여름철 기후를 반드시 거치게 되고 이 기간에 습도조절을 통한 유물의 습기 제거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훼손의 정도가 점점 심각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침습에 의하여 젖은 지류 유물은 그대로 방치할 경우 곰팡이의 서식지가 되고 그대로 붙어서 굳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소장처마다 최소한의 장치로서 장마기간이 끝난 후에 습도 조절에 필요한 제습기 등을 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두 번째로 조명이나 햇빛에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열과 자외선은 종이의 화학결합을 손상시킨다. 특히 자외선의 흡수는 종이의 산화와 산성화를 촉진시킨다. 따라서 보관 장소는 빛을 차단한 곳이어야 하며 창문이 있을 경우 암막커튼이나 자외선 차단 필터를 사용하여 완전히 가려야 한다. 빛에 의한 열도 종이에서 셀룰로오스 섬유소를 탈수시켜 종이가 가진 탄력과 인장강도를 감소시키게 된다. 빛이나 열에 의해서 종이에 손상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표시로는 종이가 약화되고 부스러지며 노란색(흰색)에서 갈색으로 색 변화가 발생된다.

구겨지거나 접힌 고문헌을 펴는 작업에는 평평하고 무거운 물건을 얹어서 평판작업을 한 후에 중성지를 놓고 종이상자에 보관하는 것이 적합하다.

세 번째로 생물에 의한 훼손에서는 설치류와 곤충의 방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고서·고문서가 있는 장소를 항상 청결히 유지시켜야 한다. 수장고나 서가 등에 먼지가 끼지 않도록 관리하며 보관장에 넣어 보관할 경우에도 안에 넣어서 먼지가 앉지 않도록 주위의 청소는 물론 주기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고서나 고문서, 책판의 해충으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빗살수염벌레(권연벌레), 책좀(Bookworm, silverfish), 흰개미 등이 있다. 빗살수염벌레는 지류유물 내부를 관통하여 구멍을 내거나 배설물에 의한 오염이 생기게 된다. 또 벌레가 뚫고 지나간 자리가 접합되어 페이지가 펼쳐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곤충에 의해서 종이에 손상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표시는 종이 표면에 작은 구멍과 같은 천공이 발생되고 조각파편이나 가루가 떨어진다.

설치류에 의한 훼손은 종이를 갉아내고 동지를 만든 것이 대표적이며 종이 표면에 갈색, 흑색 또는 붉은빛을 띤 얼룩점이 발생되기도 한다. 다량소장처 중에 문서고나 창고에 보관된 고문헌 중에는 설치류의 서식지가 되어 손상되고 배설물 등에 오염된 사례를 빠짐없이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잘못된 보관과 보수에 의한 훼손이 있다. 화학성접착제에 의한 훼손은 접착테이프나 일반접착제에 묻은 화학성 접착물질이 종이를 손상시키며 변색된 종이는 원상태로 복구하기 어렵다.

(2) 고문헌의 보존처리방식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류유물의 형태적 보존처리 순서는 대체로 해체→클리닝→배접→결손부메움→건조→평판작업→장황→보관상자 제작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제대로 된 보존처리를 받을 때 과정이다.

하지만 서원 고문헌은 위의 과정을 모두 거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현실적인 긴급처리를 수행한 후에 본격적인 유물의 보존처리과정을 거칠 수 있어야 한다. 일부 서원자료의 경우 비공식적으로 보존처리기관에 의뢰하기도 하지만 보다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종이유물의 보존처리방식을 살펴보면

- ① 해체는 보존처리 작업의 첫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장정된 실, 종이 심, 표지, 구배접지 등 원래의 장황 형태를 분리하는 작업이다.
- ② 클리닝은 붓질이나 水沈을 통하여 오염 및 산화 정도를 완화하는 작업이다. 수침작업의 여부에 따라 건식과 습식으로 구분한다. 다량소장처에서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차적인 긴급처리는 건식클리닝 단계이며 습식클리닝이후 부터는 보존처리전문가의 손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구배접지 제거와 배접은 본래 원문이 아닌 다른 종으로 배접되어 오염되거나 배접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이를 제거하고 새로운 종으로 본래 종이를 받쳐주기 위해 덧대어 주는 작업이다.
- ④ 결손부 메움은 배접하는 것 보다는 크기가 적은 경우에 쓰이는 방법으로 유물의 결실부분을 소맥전분 풀과 준비된 종이를 사용하여 메우는 작업이다.
- ⑤ 건조과정은 클리닝, 배접, 메움 작업 후 건조시키는 작업이다.
- ⑥ 평판작업은 구김, 주름, 접힘 등의 물리적 손상을 복구시키는 작업이다.
- ⑦ 장황은 책, 두루마리, 족자, 병풍 등으로 꾸미는 작업이다.
- ⑧ 보관상자의 제작은 중성매트와 종이폴더, 오동나무 등으로 상자를 만드는 작업이다. 중성매트의 경우 유물의 크기별로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원 고문헌을 소장하고 있는 곳에서 건식클리닝과 함께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 수행할 수 있는 보존관리방안이다.

이와 같은 보존처리의 내용은 보존처리의 전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유물을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다. 유물의 훼손 정도에 따라 처리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고 일부과정은 생략되기도 한다.

날장으로 대부분 남아있는 고문서는 해체나 장황작업 없이 클리닝과 결손부 메움, 배접, 건조, 평판작업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 밖에 장황된 족자나 두루마리 등은 배접과 장황에 보다 특별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책판의 형태로 남은 자료는 위의 보존 처리 과정 중에서 ① 보존처리 전 크기 및 손상상태를 파악하는 조사 및 사진촬영, ② 붓으로 표면의 먼지 등을 가볍게 털어주는 건식클리닝, ③ 생물에 의한 훼손 유무점검과 훼손 정도에 따른 소독 조치가 필요하다. 마구리가 훼손된 책판의 경우 뒤틀림 방지를 위한 적절한 보완과 함께 내부가 손상된 목재유물의 안전조치도 필요하다. 아울러 온·습도가 적합한 보존환경에 보관한 후, 적절

한 시기에 보다 체계적이고 완전한 보존처리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보존관리조사표의 작성과 활용⁴

서원 고문헌의 보존관리를 위한 방법과 체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목록작성과 함께 보존관리 조사표의 작성이 필요하다. 보존관리조사표는 소장처 단위로 작성되는 “서원 고문헌 보존관리 시설조사표”와 보존처리가 필요한 개별 유물별로 작성되는 “보존처리가 필요한 서원고문헌 실태조사표”를 구상해 볼 수 있다. 서원 고문헌에 관한 보존관리는 유물자체의 형태적인 보존처리와 시설을 비롯한 보존여건의 조성으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이 조사표를 작성함으로써 체계적인 보존관리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사표의 구상안은 표-3, 표-4와 같다.

“보존관리 시설 조사표”는 고서, 고문서, 책판 등의 수량과 보관장소, 보존처리 환경으로 각종장치의 설치, 인력, 도난의 이력 등을 간단히 체크하고 전체적 보관상태를 정하고 소장자와 조사자의 간단한 의견을 작성하는 것이다. 표의 순서에 따라 비교적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다. 그 내용은 ① 소장자 사항 ② 유물의 상태에 관한 사항 ③ 유물의 보존 관리사항 ④ 소장자와 조사자 의견사항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특히 유물의 보존 관리사항은 유물의 보관시설과 장소, 각종 시설물의 유무와 수량, 인력배치의 여부, 과거 도난의 유무 전체적 보존관리 상태 등을 기재하는 항목으로 보관시설과 장소로 별도의 건물이 있는 경우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적고 보관함의 유형을 표시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전체적 보존관리 상태는 매우양호, 양호, 보통, 불량, 매우불량 등의 5등급으로 구분하여 조사자가 표시하도록 한다.

조사자의 의견사항은 주로 보존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전체적 보존관리 상태와 관련하여 보완할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이는 후에 예산지원을 위한 근거자료가 되며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표 3. 서원 고문헌 보존관리 시설 조사표(안)

소장자 (서원명)		-			기증유물			
					기탁유물			
주소	원소장처	-						
	현소장처	00서원						
연락처	원소장처	-			보존관리 담당기관		유	무
	현소장처	-			연락처			
유형과 수량		고서	고문서	책판	민속		기타	
		○건(책)	○점	○판	○점			
보관장소		문서고,장서고	유물전시관	캐비닛,금고	벽장	궤짝	종이상자	기타
		-	-	-	-	-	-	-
보존관리 환경		감시카메라	향온습습기	경보장치	소화기	제습기	방충장치	기타
		-	-	-	-	-	-	-

4. 서원 고문헌의 보존관리 조사표는 필자의 기존 연구 「비지정 동산문화재의 보존관리 방향」, 『서지학보』34(2009. 12) p.260-263.의 보존관리조사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을 밝혀 둔다. 일반적인 고문헌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기반으로 서원 고문헌에 특화하여 적용해 본 것이다. 이는 서원 고문헌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다.

인력배치여부	상근인력	비상근인력	-		
	-	-	-		
과거 도난여부	있음	없음	-		
	-	-	-		
전체보관상태	매우양호	양호	불량	매우 불량	기타
	-	-	-	-	-
소장자 의견	-				
조사자 의견	-				

“보존처리가 필요한 서원 고문헌 실태조사표”는 서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문헌 중에 보존처리가 실제로 필요한 개별 고문헌에 대한 조사표이다. 그 내용은 ① 유물명과 일련번호 ② 유형과 재질 ③ 훼손관련 사항 ④ 보존처리대책과 의견 사항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특히 훼손관련 사은 고문헌의 훼손상태와 범위, 상태 등을 표시하는 항목으로 실태조사표에서 핵심적인 내용이다. 훼손상태, 훼손범위, 훼손정도를 표시하고 훼손상태는 물리적손상과 화학적 손상 그리고 기존에 잘못된 수리에 의한 손상으로 구분된다.

보존처리대책은 보존처리가 필요한 유물에 대한 조치를 1차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종이상자에 의한 보관, 건식크리닝, 습식크리닝, 복원 등으로 구분된다. 이는 보존처리의 각 단계에 따른 대책과 연관이 되는 것으로 종이상자나 나무상자에 의한 보관은 가장 기본 적인 처리대책에 해당한다. 물리적 손상의 경우 건식크리닝과 평판작업만으로 대부분 처리될 수 있으며 습식 크리닝이 필요한 경우는 대부분의 화학적 손상과 물리적 손상 중에 결손이나 충식부분의 메움, 잘못된 수리에 의한 손상 등이 해당된다. 복원은 문화재급 유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별레나 설치류에 의한 물리적 손상은 보존관리시설이나 장치와 연관성이 있으며 대부분의 화학적 손상이 온·습도에 의한 경우이므로 앞서 살펴본 온·습도, 빛, 충식 중에 해당되는 유물의 상태를 잘 살펴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4. 보존처리가 필요한 서원 고문헌 실태조사표(안)

일련번호	-				
유물명	-				
유형	고서	고문서	책판	민속유물	기타
수량	-	-	-	-	-
규격	-	-	-	-	-
재질	종이류	직물류	목재류	짚풀류	기타
	저지, 죽지, 마지, 화지, 기타	비단, 삼베, 무명, 기타	소나무, 느티나무, 황양목, 박달나무	짚, 갈대, 기타	-
훼손범위	상단	오른쪽	중간	왼쪽	기타
	중단	오른쪽	중간	왼쪽	기타
	하단	오른쪽	중간	왼쪽	기타

훼손상태	물리적손상	격임 주름 접힘 찢김 말림 마모 낙서 굵힘 총식						
	화학적손상	그을림 불에 탄 기름 접촉제 음료에 의한 오염 분비물 누습						
	잘못된 수리에 의한 손상	배접 들뜸 변색 굵힘						
훼손정도		매우 큼	큼	중간	약함	매우약함	기타	
보존처리 대책	종이상자 중성시트	건식크리닝	습식크리닝			유물재질조사필요유무	복원	
			일부배접		전체배접			
		-	-	-		-	-	-
기타 의견		-						

3. 서원 고문헌 보존관리의 방향과 활용방안

1) 보존관리체계의 종합적 수립

서원 고문헌의 보존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려면 체계적 관리기관의 운영, 시설, 장치, 교육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보존관리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고문헌 자체에 관한 것과 관리 여건 조성에 관한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즉 고문헌 자체에 관한 것으로 온·습도, 자외선, 곰팡이, 해충 등에 관한 주의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 장치 등 환경조성을 하고 목록과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원문자료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문헌 보존을 위해서는 주위 환경을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외선은 종이를 쉽게 퇴색시키고 곰팡이의 번식은 높은 습도의 환경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벌레나 설치류도 종이유물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것이므로 환경을 관리하고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공기순환을 잘 시켜 곰팡이 생성을 억제하고, 상대습도도 50-55% 정도로 유지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존 관리의 시설이 적절하게 갖추어져야 한다. 하지만 보존관리시설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임에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건물로서는 시설을 갖추었으나 감시카메라·녹화기·경보기·자동소화시설·향온습습시설·감시모니터·감지기·무인경비시스템·상근 관리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 대부분이다. 처음부터 완전하게 갖추어 줄 수 없으므로 시급하게 필요한 보관처를 중심으로 조금씩 확대해 나갈 수 있어야 하며 담당자의 적극적인 의지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서원 기록자료의 보존 매뉴얼의 작성이나 기록화사업, 유물목록, 보존관리 시스템 수립이 이루어져야 하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전문화, 고령화되어가는 소장문화재 관리 인력에 대하여 전문화, 보존대책 필요해진다. 이는 자료가치, 정리방법, 보존대책, 활용방향에 대한 정기교육도 필요하다.

유물의 조사자는 처음에 목록을 작성하는 시점부터 설치된 관리시설과 필요한 관리시설을 살펴보고 이를 점검하여 조사표에 수록할 필요가 있다. 작성된 조사표를 바탕으로 보존관리의 정책과 예산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만들어지는 “보존관리 시설 실태 조사표”는 보존환경조성과 보존관리체계를 수립하는데 근거자료가 되며 고문헌 목록과 함께 종합적인 보존관리에 활용되는 것이다.

한편 고문헌 소장자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자료의 보존처리 방향과 연구방법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매우 제한된 사례이기는 하지만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소장처는 유물각 등을 설비하여 보존관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비지정 유물을 소장한 대부분의 서원 고문헌 소장처의 경우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이 없어 창고나 다락방에 쌓아두거나, 통풍되지 않는 껌짜, 누습에 무방비한 종이상자에 넣어 보관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장소는 습기가 많고, 벌레 및 설치류 등의 피해로 해당 유물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기도 하다.

모든 서원 고문헌 소장처마다 보존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줄 수 없는 사정이므로 최우선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기본적 보존관리 물품이나 장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 제공하고 각 관리자들에게 종이나 목재의 열화원인에 대해 주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육하는 것이다. 보존 당사자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자료의 보존처리 방향과 연구방법에 대한 교육 실시하여 보존관리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후속세대를 육성하도록 목표를 정하는 것이 좋다. 교육 참여자에게 보존관리 관련물품을 지급하거나 보존처리에 우선권을 주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기관에 기증 기탁을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를 위한 방안 중에 하나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지자체별로 위탁관리시설을 건립하여, 수장자들이 일반 동산문화재들을 수증하거나 수탁하여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즉 서원 고문헌을 소장하고 있는 소장자에게 향온·향습설비, 무인경비시스템, 자동소화설비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어려울 경우, 각 지자체별로 유물관을 별도로 마련하여 문화재를 기증 내지는 기탁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전국의 서원 고문헌을 종합적으로 보존 관리하는 유물관의 건립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원 고문헌을 소장하고 있는 개인이나 문중에 대해 자료의 소실 및 도난을 방지하고 기증·기탁을 통해 과학적 보존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법적 근거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소장자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보존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기증 기탁 조건에 최우선 고려사항이기 때문이다.

서원 고문헌에 대한 훼손의 방지와 훼손자료에 대한 보존처리를 통해 특화된 보존관리 체계의 구축으로 효과적인 보존관리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결국 고문헌 목록 및 해제의 강화와 함께 종합적인 보존관리 체계의 구축에 필수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2) 목록, 해제, 원문서비스의 강화와 서원 고문헌 목록의 통합

고문헌의 기초연구는 분류, 목록, 해제, 원문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고문헌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목록도 필요하다. 잘 만들어진 고문헌목록은 이용의 편의를 제공해줄 뿐 아니라, 그 목록을 읽는 것으로도 연구자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서원 고문헌 보존관리의 기초 요소로 처음부터 잘 유지되고 정확하게 기술되어야 하고 향후 구성될 수 있는 종합적 체계에 핵심역할을 하는 것이 고문헌목록인 것이다.

목록의 기술요소는 고서의 1차적 성격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항목으로 일정한 체계의 틀에서 기술하는 것이며, 크게 구분하여 볼 때 서명·저자사항, 판사항, 간행사항, 형태사항, 주기사항 등으로 구분된다. 서원 소장 고문헌 중에 해제를 갖추었거나 문화재관리국 주관으로 작성된 일부 목록을 제외하고 서원 소장자료가 수록되어 있는 고서목록들은 연구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발간된 서원 소장 고문헌의 목록에 드러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요약해서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목록 작성수준의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는 분류체계, 서지적 구성, 목록기술의 방식 등이 일관되지 못하여 제대로 된 서지정보의 전달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동산문화재 조사에서 작성한 최근 몇 군데의 소장목록을 제외하고 많은 서원 고문헌의 목록이 서명과 저자명, 간행시기, 분류(등록)번호, 크기 등을 기록한 간략목록만을 작성하고 있거나 아예 작성되지 않은 것이 많다. 이는 판본 감정과 시기 추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추정이 틀리거나 간행시점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간행이나 필사년대가 미상으로 처리된 자료에 대한 연대비정, 미해독 장서인의 해독, 서명이 잘못 기재된 것의 수정 등 시급히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많이 남은 것이다.

둘째, 각 서원 자료의 특성을 목록상에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 것이 있다. 예를 들어 서원 유생안, 원규, 고문서, 책판 등 주기사항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이 많은 고문헌에 대하여 일반적인 경서나 문집에 적용되는 목록의 방식을 적용하여 정작 연구자에게 필요한 특징적 내용이 누락된 경우가 있다. 기술 형식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주기사항에 대한 언급이 결여된 점이다.

앞으로의 연구과제로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기존의 목록을 재정비하면서 종합화하는 것은 서원 고문헌의 연구에서 우선 시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목록으로 정리되지 않은 소장자료에 대한 조사 정리도 필요하며 기존에 발간된 고서목록과의 관련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제집의 작성에도 소장자료 전체에 대한 기초, 일괄해제의 필요성이 있다. 분야별 해제집이 소장자료의 전모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해제의 방식이나 기준이 책마다 달라서 일관성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3) 원문이미지 자료의 구축과 공개방식의 일원화

고문헌 기초연구의 기반은 원문자료를 구축하는 것으로 1차적인 마무리가 된다. 물론 원문이미지를 바탕으로 탈초, 정서, 표점, 번역 등 2차적인 기반연구가 필요하지만 서원 고문헌의 경우 1차단계만 이루어져도 연구자에게 매우 유용하다.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웹사이트를 통해서 원문이미지가 제공되고 있는 일부 서원 고문헌은 대부분 그 이미지 자료의 해상도, 밝기, 색상 등에 대한 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부 소장처에는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제공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제공하는 이미지의 방식이나 해상도 등이 다르므로 연구진행을 위한 “원문이미지 작성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원문이미지가 제공되는 것은 대부분 각 소장처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지만 제공되는 이미지의 전체분량이나, 해당자료가 전체자료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도, 규모 등을 알려주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4) 종합적 보존관리 시스템의 개발

고문헌의 목록과 해제, 이를 기반으로 삼아 디지털화를 진행하는 큰 목적은 영속적으로 자료를 보존하는 것과 함께, 자료의 공개성과 보편성 확보로 연구가 활성화되고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이 시·공간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문헌을 소장하고 있는 여러 대학과 각급 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목적에 부합하여 고문헌 DB를 구축하고 있다. 서지DB의 구축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일부기관이나 도서관은 참조서지링크나 MARC정보, 색인, 원문을 열람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특히 원문DB는 컴퓨터 저

장용량, 전송속도 등의 발달로 최근 들어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디지털화된 서원 고문헌의 목록 작성은 이상과 같은 목록기술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종합형 목록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원 고문헌과 관련된 일부 DB 시스템은 독립된 서원 고문헌 DB로 보기 어렵다. 아직까지 종합형 서지 목록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서원 고문헌의 종합적 보존관리 시스템은 궁극적으로 서지목록을 중심으로 구축하는 방식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서지목록을 중심으로 용어사전, 편저자색인, 소장기관, 서명색인, 관련연구논저, 해제, 원문 등의 DB를 상호간 링크시켜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체계를 구현해보는 것이다.

서원 고문헌의 목록기술 내용 가운데 서명, 저자사항, 형태사항, 판차사항, 주기사항, 소장사항 등에서 단어나 구를 선택하면, 책자형태로 발간된 해제집 DB, 해당 고문헌의 작성자 저자에 관한 DB, 국역된 자료, 원문, 고문헌 소장기관, 용어사전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기 구축된 디지털 자료가 이곳 저곳에 산재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통합하고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앞서 살펴본 보존관리와 보존처리 조사표는 종합적 보존관리체계의 수립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목록이 작성되는 시점에 기록된 보존관리 조사표를 전산화하여 DB를 구축하게 되면 보존관리 조사표를 중심으로 한 전국적 규모의 서원 고문헌 보존관리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5) 서원 고문헌의 활용

서원 고문헌의 종합적 보존관리체계의 구성과 함께 고문헌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은 자료의 적극적 활용자원화 의지가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활용지원 정책이나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하였고 각 서원의 특성에 맞는 발전적 활용의지가 부족하였다.

이는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서원자료에 많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의례 공간으로만 쓰인 경향이 많으며, 각 서원마다 차별성 없는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됨으로서 보다 제대로 된 서원의 가치를 투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동안 다양한 서원 역사문화 자료 정리가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자료를 고증하고 활용하는 비중과 관심이 낮았기 때문이다.

서원 고문헌 자료의 활용은 하드웨어 활용에 치중할 수 밖에 없었던 서원의 활용방식에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을 보탬으로서 더욱 다양해지고 풍부한 활용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 활용지원 정책 및 콘텐츠,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이루어져야하며 각 서원의 특성에 맞는 발전적 활용의지를 갖추어야 하겠다.

예를 들어본다면 서원의 일반 고문헌 중에 귀중본으로 구분하여 별치한 고서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하여 당시 서책을 하사 받은 기록과 그 책의 영향으로 지속된 관습의 형성을 파악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것이다. 해제의 방식도 이러한 귀중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서원의 장서로서 당시 하나의 문화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료군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하고 서원 장서문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서원에서 간행된 고문헌의 편찬 제작과정의 재현이나 서원의 의례와 함께 유지 전승되었던 유생의 참여행사에 대한 고증도 의미있을 것이다.

책판의 보존관리와 관련해서 본다면 선조의 전통적 방식과 생각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책판제작 당시의 보존체계를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책판을 기존의 문중이나 주제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책판 중심의 연구 방향을 설정해 볼 필요도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활용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책판의 제작연대를 기준으로 100년 또는 200년 단위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책판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행사를 개발하여 시도해보는 것이다. 예컨대 “00책판 판각(제작) 100(200)주년 기념 전시회 및 학술회의”가 구성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당시 작성과정과 함께 참여인물, 관련문증, 사회적 배경, 정치적 배경 등 그 책판이 만들어낸 다양한 스펙트럼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새로운 가치를 구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앞으로 개별 책판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동일한 해에 제작된 목판을 동시에 기념할 수도 있다.

4. 결론

현재까지 드러난 서원 고문헌의 보존 관리 실태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체계적인 보존관리의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도 극히 일부의 서원에서 지자체와 함께 소규모로 진행되었을 뿐이다. 고문헌 보존의 선결조건인 고문헌 목록작성은 문화재청 및 전문연구기관의 서원 고문서 조사와 시도 단위의(전남, 충남 등) 서원조사보고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전문연구기관의 서원 고문서 조사의 경우 서원의 소장 자료에 대한 기초조사로 현황, 수량, 자료의 종류 파악되었지만 고문서를 단순히 유물정리방식으로만 조사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자료 정리결과가 서원문화사로 종합되거나 활용, 홍보되지 못하고 있다. 종합적이고 통합된 서원 고문헌 목록시스템이 꼭 필요한 이유이다.

시도 단위의 서원고문헌 조사에서도 지역별로 서원을 분류하여 조사하여 서원의 종합적 성격을 밝히는 시도로 의미 있지만 서원자료 심층 조사에는 시간과 예산부족으로 무리가 따른다.

서원 고문헌의 올바른 보존 관리를 위해서는 처음 발굴에서부터 고문서의 가치를 손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발굴시 현장 정보, 묶음 형태의 유지가 필수적이고 최소한의 보존관리로 응급처리 방식에 대한 이해가 절실히 필요하다. 문화재청이나 조사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존지원책으로는 복원, 1차적 보존처리, 중성지, 제습기, 보관함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도난, 화재에 무방비 상태인 것이 많으므로 소장자가 기탁, 기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응급처리 방식 외에 본격적인 복원이나 과학적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앞서 언급한 “보존처리가 필요한 서원 고문헌조사표”를 작성해볼 수 있다.

보존관리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고문헌에 대한 안정적인 보존관리 기반이 확립되는 의미가 있으며, 보존지원을 통하여 국가적 문화유산관리의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아울러 유실 위기에 처한 문화재에 대한 내용적인 영구보존을 도모하여 장기적인 연구자료 축적과 보존처리를 위한 정보 확보가 가능해진다.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서원 고문헌의 보존관리의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유물의 훼손 단계별로 유형화시키고 각 유형별로 보존상황에 따른 체계적인 보존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서원 강학 관련 자료의 유형과 특징

1. 서론

이 글에서는 서원 강학 관련 자료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 서원별 강학 자료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장에서는 먼저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규약류, 강학 시행 기록, 강학 재정, 강학 의례의 4가지로 유형을 분류한 뒤, 유네스코 등재 대상 서원을 중심으로 서원별 강학 자료 현황을 정리해보았다. Ⅲ장에서는 서원별 강학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각 서원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중 소수서원은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강학 관련 자료가 시계열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자료의 양도 많아 서원 강학 연구의 좋은 사례가 된다. 반면, 그 외 서원은 자료가 매우 한정되어 있어 연구에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Ⅲ장에서는 소수서원을 모델로 삼아 소수서원의 강학 사례를 전 시기에 걸쳐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그 외 서원은 자료의 목록과 해제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간략히 정리하였다.

2. 서원 강학 관련 자료의 유형

1) 강학 관련 자료의 유형과 분류 기준

이하에서는 서원 강학 관련 자료를 그 내용과 성격에 따라 크게 규약류, 강학 시행 기록, 강학 의례, 강학 재정 관련 자료의 네 가지로 유형화해 보았다. 규약류와 강학 시행 기록은 강학의 규범과 실재를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다. 원규, 완의, 절목 등 규약류 자료는 강학 운영을 위한 규칙이며, 강학 시행 기록은 실제 전개된 강학활동에 대한 기록이다. 규약류가 강학의 규범적 측면을 드러낸다면, 강학 시행 기록은 강학의 실제적 측면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서원 의례라고 하면 흔히 제향 의례만 떠올리지만, 庭揖禮나 相揖禮 같은 正式的 의례부터 敬讀, 開接禮, 罷接禮, 酬唱詩, 摯禮 같은 관습적 의례에 이르기까지, 서원에서 행해진 강학 관련 의례는 조선시대 서원 교육의 의미와 특색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다. 따라서 강학 의례 관련 자료도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조선시대 서원 강학의 존폐를 좌우했던 가장 큰 계기는 바로 각 서원의 재력이었다. 조선후기 서원의 강학 기능이 한 때 쇠퇴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양사청, 강수청, 강학계 등 강학을 위해 설치된 별도의 재정 기구들은, 강학의 부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조선후기 서원들의 다양한 시도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유형별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약류에는 院規, 學規, 講規, 節目, 完議, 立議 등이 있다. 원규가 상위 규범이라면, 절목, 완의, 입의는 강학이 개설될 때마다 형편에 맞게 만든 중간 단계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절목, 완의, 입의는

규범과 실제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다. 원규는 강학 뿐 아니라 서원 운영 전반에 걸친 규약으로, 강학활동이 체계화되지 못했던 초기 서원의 규약은 대부분 원규 안에 강학, 제향, 서원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규정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었다. 강학에 대한 규정은 아예 없거나(백운동서원원규) 있더라도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서 규정되었다. 강학 조직의 정착과 함께 원규 안에 강학에 대한 규정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道東書院院規), 원규 외에 學規, 講規, 講儀 등으로 서원 규약이 분화되는 것은 18세기(石室書院學規.講規.講儀)부터이다. 이를 분석해보면, 서원관의 변화, 서원 강학의 정착 과정, 강학의 형태와 운영 방식, 교육과정의 변화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규약류 자료 중 完議와 立議는 강학과 관련된 주요 정책 결정, 節目은 실제 강학의 개설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강학의 시행 세칙으로, 규범과 실제의 양면적 성격을 갖는 규약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서원 설립 초기에 제정된 원규는 한 번 제정되고 나면 거의 바뀌지 않지만, 절목은 실제 강학의 전개 과정에서 제정되는 규범이므로 강학의 실제 모습과 변화상을 반영한다. 조선후기 소수서원의 居齋節目 12개는 그 좋은 예이다.

원규 중 처음으로 서원 교육의 이념을 제시함으로써 후일 여타 서원 규약의 전범이 된 것은 퇴계의 伊山院規와 율곡의 隱屏精舍學規이다. 최초의 원규인 백운동서원원규에서는 강학에 대한 규정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주세붕을 포함한 당시 지배층들의 서원관, 즉 서원을 道學處나 講學處보다는 科業之所나 尊賢之所로 인식했던 당시의 서원관을 반영한다. 이는 16세기 소수서원의 실제 강학이 과거공부 위주로 이루어진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이후 서원이 강학처이자 도학처로서 그 본령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 것은 퇴계와 율곡에 의해서였다.¹ 퇴계는 이산원규에서 서원 교육의 본질은 과거공부가 아닌 爲己之學에 있음을 역설함으로써 서원의 교육 이념을 제시하였고, 율곡은 「示精舍學徒」에서 ‘立志와 存心은 비록 타인을 바라보기만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麗澤의 힘을 통해서 점차 아름다운 경지에 들어갈 수 있으니, 정사의 설립은 구차한 것이 아니라 藏修하여 서로 仁을 돕는 그 실상을 보고자 함이다.’²라고 함으로써 麗澤之力³이라는 서원의 강학 이념을 제시하였다. 이후 이산원규는 백운동서원원규와 함께 대체로 영남 남인계, 은병정사학규는 서인계 서원 원규의 모델이 되었다. 도산서원원규는 이산원규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옥산서원원규는 백운동서원원규와 이산원규를, 돈암서원과 무성서원원규는 은병정사학규를, 병산서원은 소수·도산·천곡서원 원규를, 도동서원은 천곡서원 원규를 저본으로 작성되었다.

1. 주세붕과 퇴계의 서원관의 차이에 대해서는 정만조의 논의 참조(정만조, 『朝鮮時代 書院研究』, 1997, 집문당, 23-47쪽).

2. 『栗谷全書』 권 15, 雜著.

3. 『周易』, 兌卦 象傳에 “붙어 있는 澤이 兌이니, 君子가 보고서 朋友들과 講習한다(象曰 麗澤兌 君子以朋友講習)” 하였고, 傳義에 “麗澤은 두 못이 서로 붙어 있는 것이다. 두 못이 서로 붙어 있어 서로 적셔주니, 서로 滋益함이 있는 象이다. 그러므로 군자가 그 象을 보고서 朋友들과 강습하니, 朋友들과 강습함은 서로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麗澤二澤相附麗也 兩澤相麗 交相浸潤 互有滋益之象 故君子觀其象而以朋友講習 朋友講習 互相益也)” 라고 하였다.

둘째, 강학 시행 기록은 실제 강학에 대한 기록으로, 다시 형태와 내용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居接⁴, 居齋⁵, 通讀⁶, 巡題(旬製)⁷, 白日場 등 강학의 형태에 따른 자료는 居接錄, 居齋錄, 通讀案, 巡題榜目과 白日場榜目이 있다. 이를 자료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다시 구분하면, 강학 참여자의 명단 위주로 기록한 講案류, 강학 기간 중 매일의 일과를 날짜별로 기록한 일기류, 강학 시 토론과 문답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講錄류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형태에 따른 분류는 강학 형태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만 자료의 성격을 드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같은 통독이라 하더라도, 병산서원의 통독안에는 참여자의 명단 외에 다른 정보가 전혀 없지만, 소수서원의 통독일기에는 매일 출입한 사람의 인원수와 명단, 통독의 순서, 통독한 서책의 범위, 심원 유생이나 수령의 방문, 날씨로 인한 통독의 중단, 매일의 사건 사고 등 특기 사항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즉, 같은 통독이지만 통독안과 통독일기는 자료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자료의 성격을 보다 잘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그 중 소수서원의 居齋雜錄과 居齋錄은 강안과 일기가, 講所雜錄은 강안, 일기, 강록의 세가지를 모두 포함한 종합적인 자료이다. 그 중 강소 잡록에 수록된 강록일기는 일기와 강록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각 서원의 강학 시행 기록을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강학 시행 기록의 분류

분류	강안류	일기류	강록류
소수	講案, 居齋講案, 榜目, 居齋錄(1721~1760)	講錄日記, 居齋日記, 通讀日記	講錄日記
도산	講會錄	講會日記	淸涼講義, 淸涼吾山堂講錄
병산	居齋案, 講案	-	-
도동	居接錄	-	-
옥산	入學記, 講紙, 講案	-	-
필암	講案, 文契案	-	-

셋째, 강학 의례에는 庭揖禮, 相揖禮, 講習禮와 같이 흥기를 갖춘 正式的 의례와 그 외 敬讀, 開接禮(入接禮), 罷接禮(後接禮, 歸家禮), 酬唱詩 등 강학 절차에서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의례, 그리고 돈암서원의 전신 靜會堂에서 확인되는 摯禮 등이 있다. 정식적 의례는 소수, 필암, 무성서원에 별도의 기록이 있으나 나머지는 규약이나 강록 등 각종 자료에서 散見되는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넷째, 각 서원의 강학 재정 마련을 위해 설립된 기구로는 소수서원의 養士廳, 돈암서원의 學契, 필암서원의 講需廳 등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료는 이들 기구를 설립하면서 작성한 序文이나 記文, 운영 과정에서

4. 거접은 일정기간 서원에 유숙하며 과거 대비 제술을 행하는 것으로, 고려시대 夏課에서 유래하였다. 夏課는 최충의 문헌공도에서 시작되어 나중에 12도 전체가 매년 여름철 더위를 피해 조용하고 청량한 山寺나 누대에 모여 詩賦 製述을 겨루던 일종의 私學 하계학교로 가을철에 접어들면 파하였다. 이 하과의 풍속이 뒷날 서원의 거접으로 전승되었다고 한다(정순목, 『韓國 書院教育制度 研究』, 11쪽, 76쪽, 197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화총서 3).

5. 거제는 거접과 대비되는 강학 형태로, 위기지학으로서의 독서를 의미한다. 거제 시에는 일정 기간 서원에 유숙하며 대부분 개별 독서를 행하였으나, 소수서원의 경우 독서와 통독, 제술을 병행하기도 하였다.

6. 통독은 유생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의 교재를 정하여 한 장씩 읽어나가며 심도 있게 토론하는 강학의 형태로, 거제 중에 병행되기도 하고 ‘통독회’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시행되기도 하였다.

7. 순제에 대한 설명은 각주 42~44 참조.

작성된 完議나 節目 등이 있다. 남계서원의 경우는 별도의 재정 기구는 확인되지 않지만, 16세기에 원장 姜翼이 강학 개설을 위해 자금을 마련한 기록이 哀寶錄에 남아 있다.

2) 서원별 강학 자료 현황

유네스코 등재 대상 서원을 중심으로 유형별 강학 자료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서원별 강학 자료 현황

분류	규약류	강학시행 기록	강학의례	강학재정
소수	院規·斯文立議·完議(5)· 居齋措置·居齋定規· 居齋節目(9)·通讀節目	居齋雜錄·居齋錄· 通讀雜錄·講所雜錄	庭揖禮笏記 (開接禮·罷接禮·酬唱詩)	養士廳 관련 完議·養士廳別有司 명단(任事錄)
도산	院規	講會錄·講會日記· 清涼講義· 清涼吾山堂講錄	(庭揖禮)	-
병산	院規·院中可行條件	居齋案·講案	-	院中可行條件
도동	院規·育英齋完議·節目	居接錄	(後接禮·歸家禮)	-
옥산	院規·乙亥完議·立議	山堂居接騰錄·入學記·講紙·講案	(入接禮·罷接禮)	甲午立議
돈암	靜會堂立議·講規· 節目·上同春堂[己酉](明齋遺稿)	-	(摯禮·相揖禮·酬唱詩)	鳩財節目·學·節目
필암	院規	講案·文契案	相揖禮圖·相揖禮笏·講座圖	講需廳記
무성	院規	講經錄	講習禮節目·講習禮執事· 講習禮笏記	-
남계	院規	-	-	哀寶錄

3. 서원별 강학 관련 자료와 특징

1) 소수서원

소수서원은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강학 자료가 비교적 많이 남아 있어, 조선시대 서원 강학 연구에 좋은 사례가 된다. 설립 초기부터 17세기 중반까지는 강학에 대한 별도의 기록은 없지만 紹修書院騰錄과 雜錄類에 수록된 기사를 통해 간략하게나마 강학의 개설 사실과 대강의 흐름을 살필 수 있다. 특히 잡록류에는 서원 운영에 관련된 각종 기사가 망라되어 있어 시기별 강학의 개설, 수령의 강학 참여와 지원 등 강학에 대한 내용 뿐 아니라, 등록에 수록된 재정 관련 규정인 斯文立議의 조항이, 실제 현실에서 이행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살필 수 있다.

17세기 중반부터 19세기까지는 居齋雜錄, 居齋錄, 通讀雜錄, 講所雜錄 등에 강학의 진말에 대한 기록이 매우 상세히 수록되어 있어, 강학의 다양한 형태와 절차, 구체적 운영 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2007년 소수서원에서 간행한 紹修書院誌에 수록된 入院錄, 任事錄, 연표 등도 참고하였다. 이하에서는 관련 자료를

위에서 분류한 유형별로 구분하고, 그 중 강학 시행 기록은 수록 시기에 따라 다시 잡록류, 거재잡록, 거재록, 강소잡록으로 세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대상 자료

먼저, 대상 자료의 수록 시기와 소장처, 수록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소수서원 대상 자료

제목		수록 연대	내용	소장/간행처
紹修書院騰錄		1546~1669	安珪이 경상감사로 부임하여 서원의 경제기반 마련을 위해 작성한 順興文成公廟白雲書院斯文立議 ⁸ 와 실제 물품 조달 및 서원 운영을 위해 관찰사와 경상도내 각 고을에서 수발한 공문서를 등서한 白雲洞加造成及讀書儒生常養雜物分定行移騰錄 ⁹ 으로 구성.	국사편찬위원회
雜錄 ¹⁰	雲院雜錄	1545~1615	항사, 강학, 중수에 관련된 각종 기사, 공문서 및 도내 각 고을 인사와 수령들이 보내온 물품목록, 시, 편지 등 서원 운영 과정에서 생산된 제반 기록.	소수서원
	雜錄a	1625~1678		국사편찬위원회
	雜錄b	1667~1720		국사편찬위원회
	雜錄c	1712~1718		국사편찬위원회
	雜錄d	1720~1759		소수서원
	雜錄e	1759~1832		소수서원/ 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
	雜錄f	1794~1798		국사편찬위원회
	雜錄g	1799~1900		국사편찬위원회
	雜錄h	1826~1827		소수서원(박물관)
	雜錄i	미상	紹修書院故事撮要, 竹溪實記, 白鹿洞事實	소수박물관
	雜錄m	미상(19세기)	1810년 居齋日記 등 수록	*
居齋錄(入院錄) ¹¹		1721~1760	1721년부터 1760년까지 거재 참여자의 명단.	소수박물관
居齋雜錄		1761~1780	1761년부터 1780년까지 시행된 居齋, 居接, 巡題, 白日場에 대한 기록.	국사편찬위원회
居齋錄		1780~1793	1780년부터 1793년까지 시행된 居齋, 通讀에 대한 기록.	국사편찬위원회
雲院居齋 題名		1792	1792년 11월 한 달간 거재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으로 『雲院齋錄』에 수록.	소수박물관
通讀雜錄		1801	1801년 通讀에 대한 기록.	소수박물관
癸酉正月廟宇重修記事		1813~1815	1813년 1월 5일부터 3월 9일까지 묘우 중수 기사와 1815년 3월과 8월의 巡題榜目 기록. 『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에 수록.	소수서원
講所雜錄		1826~1828	1826년부터 1828년까지 시행된 巡題, 居接, 通讀, 文會에 대한 기록.	소수서원/ 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

8. 이하 「斯文立議」로 약칭.

9. 이하 ‘分定行移騰錄’으로 약칭.

10. 잡록류 중 윤원잡록, 잡록e, 강소잡록은 『소수서원 잡록』이라는 제목으로 2005년 영주시에서 번역, 간행하였다.

11. 이 거재록은 서원지에 ‘표지 결락으로 입원록으로 추정’하여 입원록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었으나 이는 잘못 추정된 것이다.

(2) 규약류

규약류 자료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4. 소수서원 규약류 목록

제목	연도	내용	수록처
院規	1543	謹祀·禮賢·修宇·備康·點書의 5개 강령 하에 제향, 조직과 운영, 입원 자격 규정	竹溪志 晦軒先生實記 海東雜錄
順興文成公廟白雲書院斯文立議	1547	경상감사 安珪이 서원의 경제기반을 마련하고 실제적 운영방침을 규정. 상시 공궤유생을 10명으로 정함	紹修書院謄錄
完議	1690	거재유생의 자격과 공궤에 대한 규정	雜錄b
完議	1700	거재유생의 자격과 공궤에 대한 규정	雜錄b
堂中完議	1719	罷格 확정(科擧入格者 기준으로 하던 입원 자격을 없애기로 정함)	雜錄b
居齋措置	1720	11월 10일부터 윤번 거재를 시작하기로 함	雜錄d
居齋定規	1727	거재에 대한 규정. 10명씩 1개월 단위로 윤번 거재하기로 함.	雜錄d
居齋節目	1730	재정상 거재를 시행하지 못하다가 약간의 식량을 마련하여 10명씩 보름 단위로 수개월간 윤번 거재를 시행하기로 함	雜錄d
居齋節目	1738	부사 임상정이 작성한 거접에 대한 규정 (제목은 거재절목이나 실제 내용은 거접)	雜錄d
居齋節目	1749	거재에 대한 규정. 15명씩 보름 단위로 교체하기로 함.	雜錄d
院中完議	1759	강학을 위한 재정을 별도로 배정하고 폐지되었던 居齋를 재개하기로 함	雜錄e
居齋節目	1760	거재에 대한 규정. 20명씩 보름 단위로 교체하기로 함.	雜錄d
居齋節目	1761	거재에 대한 규정. 10명씩 보름 단위로 교체하기로 함.	居齋雜錄
居齋節目	1780	거재에 대한 규정. 10명씩 보름 단위로 교체하기로 함.	居齋錄
完議	1788	향중에서 선출하던 원임을 道內로 확대. 폐지된 養士廳을 복설, 가을부터 재정을 따로 책정하여 거재를 재개하기로 함.	雜錄e
通讀節目	1789	통독에 대한 규정	居齋錄
居齋節目	1790	거재에 대한 규정. 10명씩 열흘 단위로 교체하기로 함.	居齋錄
居齋節目	1793	거재에 대한 규정. 10명씩 열흘 단위로 교체하기로 함.	居齋錄
居齋節目	1900	거재유생의 인원 제한을 없애고 小學 이상을 읽은 자와 양식을 지참하는 자만 거재하도록 함.	貞山先生文集

그 중 원규는 주세붕이 지은 것으로, 『晦軒先生實記』 권4 부록의 祠院 편 紹修書院 조에는 ‘院規’라는 제목으로, 『竹溪志』의 竹溪志雜錄 권5에는 ‘竹溪志雜錄後’라는 제목으로, 『海東雜錄』3의 本朝 3, 周世鵬 편에는 ‘白雲洞紹修書院立規’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내용상 약간의 출입이 있으나 대체는 같다. 입원 선발 및 춘추제향에 대한 두 가지 조항에서 회헌선생실기에 없는 세주가 죽계지에 추가된 것과, 죽계지의 원규 서

두에 서문이 수록된 것을 제외하면 두 원규의 내용은 모두 같다.¹² 세주의 추입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세주 외에 두 책에 수록된 원규는 주세붕이 지은 원문이며 해동잡록의 내용은 이를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서두에 ‘謹祀, 禮賢, 修宇, 備廩, 點書’의 5개 강령을 제시하고 이하에서는 이 5개 강령에 대한 설명 및 임원 조직, 수령 자제에 대한 경계, 활쏘기와 잔치에 대한 경계, 守直의 부세 면제, 입학 자격, 入院錄의 작성과 의미 등에 대하여 상술하고 있다. 서책 점검에서는 수령 자제들이 멋대로 책을 서원 밖으로 유출시키는 것을 금하고, 재계일에 현관이 서책을 점검하고 햇빛에 말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1759년 院中完議에는 ‘관가에서 시도 때도 없이 빌려가 돌려주지 않는 것’을 서책 유실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서책 관리가 중시된 것은 유실에 대한 염려 뿐 아니라 당시 서적의 생산과 유통이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주세붕은 서원 건립 후 장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자금이 부족하여, 때로는 돈이 있어도 조선에서 미처 간행되지 못했거나 유통이 되지 않아 원하는 책을 끝내 구하지 못하고 남의 책을 빌려 수십권씩 전사하거나, 청탁과 기증에 의존하거나, 관리들에게 서적의 간행을 촉구하기도 하였다.¹³

임원은 원장과 院貳 각 1인으로 서원의 일을 주관하게 하고, 재정 및 제향 담당으로 司馬有司와 有司를 두었으며, 제향일은 문묘 석전일과 겹치지 않도록 3월과 9월의 上丁日로 정하였다. 강학에 대한 조항은 없고 입원자격만 명시하였는데, 사마시 입격자를 1순위, 초시 입격자를 2순위로 하고 입격자가 아니라도 학문하고자 하는 마음과 操行이 있는 자는 斯文에 품의하여 맞아들인다고 하였다. 이 같은 과거 입격자 위주의 입원 자격은 17세기 초반부터 약 100년에 걸쳐 소수서원 유생 뿐 아니라 영남 전역에 걸쳐 대대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켜, 罷格과 舊禮의 회복을 거듭하다 결국 1719년 1월 5일 파격으로 마무리되었다.¹⁴

유생의 정원은 斯文立議에서 처음 규정하였다. 10명을 정원으로 사시사철 공궤하되, 결원이 생기면 본읍이나 인근읍의 유생들로 빈자리를 채우도록 하였으며, 혹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성심껏 공궤하도록 했다. 이 때 10명의 정원에 대해 윤희면은 ‘상주 유생의 정원이 아니라 거점 유생의 수이며, 총원이 아니라 거점기간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¹⁵, 즉 윤번 교체 인원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윤번 교체 거점은 소수서원의 경우 18세기 초반 무렵부터 확인된다. 이는 서원 재산의 침탈, 양란, 흉년 등으로 서원의 재정난이 심각해진 반면, 거점 인원은 상대적으로 많아 수용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윤번 거점이 시행된 18세기 이전에도 거점 인원의 증가로 인한 재정난은 여러 차례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나 실제로 윤번 교체를 시행하지는 않았다. 1547년에는 ‘고을의 서원에 상시 숙식하는 유생을 10명으로 정하였지만 원근에서 소문을 듣고 온 이름 있는 유생이 수십 명에 이르러 음식에 쓸 食鹽을 마련할 길이 없다’¹⁶고 하였는데, 이 때에도 윤번 교체를 시키지 않고

12. 원장 선발 규정 중 ‘멀리 살면 형편상 서원을 자주 돌볼 수 없으므로 5리 이내 거주자로 한다’는 대목에서 죽계지에는 마을 이름(이하 원문의 밑줄 친 부분)까지 명시하였으나 회현선생실기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다(須以大平內外竹內外東五里人爲之可也). 또 춘추제향일은 季月 상정일로 하되 사유가 있으면 中丁일로 바꾼다는 조항에서 사유를 명시한 細注도 죽계지에만 수록되어 있다(上丁有故改卜中丁有故者如國諱私諱之類).

13. 『晦軒先生實記』 권4 부록, 祠院, 紹修書院 條, 「與牧使安瑋承旨安孩書」 및 「與安瑋然書」. 여기서 주세붕은 『朱子全書』와 『朱子語類』를 아직도 구입하지 못해 자나 깨나 갈망하고 있고, 『綱目』은 사고 싶으나 책값이 비싸 구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二程全書』는 3년 전 관찰사에게 간행을 청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여 백발이 다 되도록 구하지 못하다가 한 번 빌려본 후 잠을 못 이루고 있으니 간행을 주선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14. 이 논쟁의 경과 및 이를 둘러싼 영남지역 향론의 추이는 「소수서원 罷格論爭」(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5) 참조.

15. 윤희면, 「서원교육의 전개와 효과」, 같은 책, 353쪽 각주 15.

16. 嘉靖 26년 2월 18일, 在醴泉, 「白雲洞書院加造成及讀書儒生常養雜物分定行移膳錄」(이하 「分定行移膳錄」으로 약칭).

관찰사가 인근 고을에 식염 마련 대책을 주선했주었다. 이후 17세기 초반까지도 유생 수와 서원 재정에 대한 문제가 여러 차례 거론되었으나¹⁷, 윤번 거점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즉, 초기에는 10명을 넘더라도 윤번시키지 않았으며, 후기로 가면서 점차 거점 인원이 증가하여 재정난을 겪게 되자 18세기 무렵부터 차선책으로 윤번 교체 방식을 택하게 된 것이다. 초기에는 10명을 초과하더라도 숙식을 제공하였으나¹⁸ 이후 서원 재정이 열악해지면서 입원록에 입록된 유생과 거점(혹은 거재)유생을 구별하여 거재유생은 입원자에 한하여 공궤하고 입원하지 않은 자는 양식을 가져와서 거재하도록 하다가 (1690 完議), 1700년의 完議, 1720년의 居齋措置와 1727년 居齋定規에서는 10명이 한 달에 한 번씩 교체하는 윤번 교체 거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원은 대개 10명을 기본으로 하되 기간이 길 때는 대체로 10명의 규정을 따르고, 짧을 때는 인원수를 15명(1749), 20명(1760)으로 늘리기도 하였다. 교체 간격도 18세기 초반에는 1개월 간격(1720, 1727)으로 하다가 점차 보름(1730, 1749, 1760, 1761, 1780), 열흘(1790, 1793)로 줄어들고 있다. 다만, 1789년 통독절목에는 인원수를 규정하지 않았는데, 당시 재정이 부족해 서원에서 숙식 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 통독에 매일 적게는 26명에서 많게는 110명까지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거재 혹은 거점 유생의 선발은 斯文立議에 ‘상주훈도와 협의하여 불러와 거점하게 하라’고 한 것을 보아, 초창기에는 경상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던 것 같다.¹⁹ 이후 18세기 초에는 원임의 임의대로 뽑다가 18세기 중반 이후 면훈장으로 하여금 선발하도록 하였다. 1727년에는 ‘매월 유사를 뽑을 때 원임의 이목이 미치지 못하여 한쪽에서 소외되었다는 탄식이 있을까 걱정되니, 이후로는 각 서당과 洞內에 통고하여 마을의 자체 중 제술과 통독이 가능한 자를 뽑도록(거재정규)’ 하였으며, 1749년에는 ‘거재유생은 각 면 서당에서 책자로 만들어 서원에 보낸다(거재절목)’고 하고, 1789년에는 ‘각 면의 훈장은 해당 면의 유생 중 講義에 참여할 만한 자를 모아 朔望으로 훈련시키고, 통독할 때 데리고 와 應講하게 한다’고 하였다.

제생은 연령에 따라 동몽, 冠者, 老儒로 구분되었다. 초기에는 정확한 연령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1749년 거재절목에 따르면, 동몽은 15세 이상, 관자는 40세 이하, 노유는 4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몽에게는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지 않고 양식을 가지고 오는 자에게만 입재를 허락하였다.²⁰ 그러나 18세기 중반에, 동몽은 사리를 이해하지 못하여 거재에 부적합하므로 집에서 공부하도록 하고 다만 제술과 강독에 능한 경우

17. 1607, 1610, 1615년 기사(『雲院雜錄』).

18. 안현은 서원유생의 공궤를 위해 경상도 지역의 漁基 3곳을 확보하여 매 년 2250동음의 물고기를 서원에 봉상하게 하였는데, 그 중 10명 유생의 1년 반찬거리로 720동음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다른 어물과 바꾸어 정원 외의 유생에게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嘉靖 25년 10월 27일, 在永川, 「分定行移膳錄」).

19. 거점 유생 선발을 풍기훈도가 아닌 상주훈도에게 맡긴 이유는, 참여 대상으로 풍기군이 아닌 경상도 전역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상주는 1596년 대구로 옮기기 전까지, 경상도의 관찰사령이었으므로 경상도 전 지역을 아우르는 상주의 훈도에게 유생 모집을 맡긴 것으로 해석된다.

20. “동몽제 일에 있어서는 애당초 어린이로서 학문에 뜻을 두고 있으나 공부를 할 곳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 설립한 것인데 공적인 양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식을 부담하는 이는 받아들이고 공적인 양식을 쓰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雲院雜錄』, 1607); “동몽은 타관과 본관을 물론하고 양식을 가지고 와서 숙식한다.”(1700년 완의).

에만 예외적으로 일반 유생과 함께 입재를 허락하였다.²¹ 1605년에 풍기군수 노경임과 윤길이가 속공 암말 1필, 식모 玉卜과 齋直 5명, 식량, 백지 등을 동몽재에 보냈다는 기사에 따르면, 이 무렵 동몽재가 건립되어 동몽도 거재에 참여시키다가 18세기 중반 무렵부터 재능이 뛰어난 동몽은 예외로 하고 동몽 거재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²² 참고로 1810년 11월의 거재에는 23일간 총 85명이 참여하였는데 그 중 동몽은 4명으로 2명은 詩賦 제술에도 참여하였다.²³

老儒는 모든 교육과정과 평가에 젊은 유생들과 똑같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학습수준이 각기 다른 모든 유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부하는 통독 시간에 신진 유생들에게 어렵고 의심나는 부분을 함께 풀어주고 토론해주는 안내자 역할을 하였으며, 공부 시간 뿐 아니라 여가 시간에도 젊은이들과 함께 시를 읊으며 선행의 본보기가 되었다. 따라서 노유에게는 背講이나 제술은 하지 않더라도 敬讀과 通讀에 참여하여 제생들과 함께 토론하도록 하였으며, 보통 정원이나 나이에 구애하지 않고 예우함으로써 교육의 본보기로 삼았다.²⁴

교육과정은 거재 시 독서는 小學과 四書三經 중 각자 수준에 따라, 통독은 보통 心經, 近思錄, 朱子書節要를 기본으로 하였다. 그 외 통독 교재로는 소학과 三綱二倫行實圖(1730년 거재절목), 혹은 소학과 퇴계집을 추가하고(1749년 거재절목), 1789년 통독절목에는 대학-논어-맹자-중용의 순으로 통독하도록 하였다. 1730년에 삼강이륜행실도를 넣은 것은 그 해 경상도감영에서 이륜행실도²⁵가 간행되었기 때문이다. 기록에는 확인되지 않지만, 당시 감영을 포함하여 인근 서원, 향교에서 서적이 간행되면 으레 소수서원에도 한 부씩 보내는 것이 상례였으므로, 이 때 간행된 이륜행실도 역시 소수서원에서 소장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서적의 간행과 유통이 서원 교육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강학 시행 기록과 비교해보면, 절목에 없는 교재를 통독한 것은 1826년의 통감절요(4편), 절목에 규정된 통독 교재 중 가장 많이 읽은 것은 퇴계의 주자서절요이다. 통독을 행했던 열 한 번의 거재 중 1763, 1766, 1780, 1790, 1793, 1801, 1826년 총 일곱 번의 통독에서 주자서절요를 읽었다.

(3) 강학 시행 기록

① 紹修書院謄錄.雜錄.入院錄(1546~1760)

소수서원에서는 설립 이후 19세기까지 비록 성쇠가 있긴 하였으나 꾸준히 강학을 시행하였다. 설립 초기부터 18세기 중반까지는 강학에 대해 상세히 기록한 단행본 자료는 없으나 소수서원등록과 잡록류, 입원록

21. “동몽으로서 아직 사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학사에 있더라도 학령을 따르지 않고 여럿이 모여 멋대로 놀면서 분란만 일삼을 뿐이다. 따라서 가정에서 날마다 과정을 공부시켜 조금 자라 학문을 지향하기를 기다렸다가 모두 입재하게 하는 것이 무방하다. 그러나 강독과 제술, 경독과 통독 등에 능숙한 동몽은 거재하는 일반 유생과 더불어 입재하도록 한다.”(1761년 거재절목).

22. 1730년 동몽재를 중수하여 ‘學求齋’로 이름을 바꾸면서 작성한 원우수리기사에는 ‘동몽 거재는 지금 이 규정이 없어진지 이미 오래되었다’고 하고 또, ‘동몽재가 본부 복설 전인 정사년(1677)에 창건’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소수서원지』876~877쪽). 그러나 윤원잡록에 세 차례나 동몽재에 물품을 보낸 기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1605년에 이미 동몽재가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雲院雜錄』, 1605).

23. 1810년 거재일기.

24. 1760, 1761, 1780, 1790, 1793년 거재절목.

25. 이륜행실도는 長幼有序와 朋友有信의 二倫을 권장기 위해 모범이 될 만한 인물 48명을 뽑아 그 행적을 삼강행실도와 같이 그림과 기사, 시의 형식으로 설명한 책으로, 兄弟, 宗族, 朋友, 師生의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삼강행실도는 이미 널리 유포되었으나 이륜에 관한 책이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 金安國의 건의로 중종 13년(1518)에 초간, 1730년 경상도감영에서 다시 간행되었다.

등에 散見되는 기사를 종합해보면 당시 강학의 성격과 대강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경상감사 안현이 재정기반을 마련해준 1546년 이전의 강학은 체계적으로 시행되지 않았던 것 같다. 斯文立議에서 ‘이 서원에서 공부하면 5년도 안되어 모두 과거에 급제한다’고 한 안현의 언급과, 1545년 봄에 ‘관찰사 권응창이 油煙 20홀과 名楮 30장을 서원에 보냈다’²⁶는 기사에 따르면, 초기 3~4년 동안에도 서원에서 공부하는 유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창기의 강학은 체계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다. 이는 유생들의 숙식에 충당할 재정 기반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분정행이등록에 따르면,

서원에서 유생들을 거접시키는 것은 규약으로 정해져 있어 지금에 폐지할 수 없고, 인재를 양육하는 일은 실로 국가의 중대한 일이다. 유생 양육의 일은 다른 사람이 이미 지성으로 설립한 일을 폐지하고서 행하지 않고 있으며 …(가정 25년(1546) 5월 21일)

라고 하여, 서원 설립 4년 만인 1546년에 이미 거접이 폐지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서원 거접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안현이 경상감사로 부임하여 경상도 지역 전역에 걸쳐 백운동서원의 재정기반을 마련해준 1546년부터였다. 안현은 右水使에게 영구히 제공 받은 웅천의 漁基 3곳으로부터 매년 총 2,520冬音²⁷의 청어를 서원에 捧上하게 하였으며, 울산 관아에서 철염분 2좌를 매입, 이를 영덕 관아에서 鹽漢에게 대여하여 매년 서원에서 필요한 식염을 대도록 하였다. 유생들의 음식을 마련하고 서원을 관리할 노비로는 풍기군의 사찰 노비 5구, 흥해군 살인강도의 가족으로 속공된 비 4구, 진주와 산음, 거창에서 온 범죄자의 가족으로 속공된 비 5구 등을 서원에 소속시키고, 인근 고을에서 발생한 의복 등 賊人 장물들을 모두 가져다 서원 노비들에게 지급하였으며, 서원 전답 30결의 경작인에게는 잡역을 탈급해주기도 하였다. 또 거접 개설 이후 유생 공궤를 위한 쌀, 된장, 콩, 등유 등의 물품을 필요할 때마다 인근 고을에서 제공하도록 바로 조치해주었다.²⁸ 아울러 거접 유생들을 위한 房舍도 추가로 조성하였다.²⁹ 이처럼, 고을을 넘어선 경상도 전역의 전폭적 지원 하에 1546년 5월, 드디어 소수서원의 거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결과, ‘고을의 서원에 상시 숙식하는 유생을 10명으로 정하였지만 원근에서 소문을 듣고 온 이름 있는 유생이 수십 명에 이르러 공궤할 식염을 마련할 길이 없다’³⁰고 할 정도로 입원 유생의 수가 증가하여 1544년과 1545년에 11명이던 유생이 1546년에 18명, 1549년에 24명, 1551년에는 22명까지 증가하였다(입원록). 이후 거접 관련 기사는 분정행이등록에 1550년까지, 운원잡록에 1596년까지, 거접·거재 관련기사는 그 외 잡록류에서 1760년까지 여러 차례 나타난다. 관련 기사 목록은 다음과 같다.

26. 『雲院雜錄』.

27. 1동음은 0.5두름(10마리). 1두름은 물고기나 나물을 쪄서 두 줄로 엮은 것(한 줄에 10마리씩). 안현은 1년에 유생 정원 10명의 반찬으로는 720동음이면 족하니 나머지는 다른 어물과 바꾸어 쓰라고 하였다. 즉, 유생 1인당 한 달에 6동씩이므로 1인당 하루에 2마리씩 제공되었던 셈이다(嘉靖 25년 10월 27일, 「分定行移膳錄」).

28. 「分定行移膳錄」, 가정 25년(1546) 5월 21일~가정 26년(1547) 2월 17일.

29. 같은 책, 가정 25년 6월 26일; 9월 14일.

30. 같은 책, 가정 26년 2월 18일.

표 5. 소수서원 강학 관련 기사(1546~1670)

분류	연월일	내용	관련 자료	수록처
居接	1546. 6. 11	경상감사 안현이 서원에서 공부한다는 소식에 부채, 붓, 묵(각 11점)과 종이 5속을 보냄	가정 25년 6월 11일	雲院雜錄
	1546. 6. 12	유생 10여명 거접에 공궤할 식량이 부족하여 인근 고을에 분정	가정 25년 6월 12일, 在密陽	分定行移騰錄
居接	1547. 2. 14	백운동에서 공부한다는 소식에 우병사 김순고가 관목(과메기) 30동음, 청어 100동음, 통대구 30마리를 보냄	丁未 2월 14일	雲院雜錄
	1547. 2. 18	거접유생이 수십 명에 이르러 음식에 쓸 식염이 없으므로 안현이 식염 마련책 주선	가정 26년 2월 18일 在醴泉	分定行移騰錄
	1547. 2. 23	안현이 백운선생(황효공, 안공신)에게 試題와 함께 술과 음식을 보내면서 이후 시각을 정하여 製科하는 것을 서원 관례로 삼도록 함	가정 26년 2월 23일	雲院雜錄
居接	1547. 4. 11	관찰사가 거접 유생에게 장지 15첩, 유연묵 10자루, 송묵 5자루, 고모필 20자루를 보냄	가정 26년 4월 11일 在盈德	分定行移騰錄
居接	1547. 7. 27	영천군수가 출제, 채점한 제술에 대한 시상으로 관찰사가 명지, 붓, 묵 등을 보냄	가정 26년 7월 27일, 在安康	分定行移騰錄
居接	1548. 11. 19	풍기군수로 부임한 이황이 현재 서원에 도착한 인원과 아직 오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인지 묻고 술과 음식을 보냄	戊申 11월 19일	雲院雜錄
居接	1549. 4. 4	이황이 試題(詩賦와 疑義)를 보내며 근래 제생이 송독에 전념하고 제술은 늦춘다는 소식에 기뻐함	己酉 孟夏 4일	雲院雜錄
居接	1550. 3. 12	관찰사가 서원 유생들의 제술 상품으로 종이 등을 보냄	가정 29년 3월 12일, 在醴泉	分定行移騰錄
居接	1558. 6. 30	군수 장문보가 試題(策)와 함께 청주 1병, 蘇魚 40마리를 보냄	戊午 季夏 晦日	雲院雜錄
-	1566. 4. 8	군수 조완벽이 諸君盛會鍊做하니 술과 안주를 보냄	丙寅 4월 초8일	雲院雜錄
-	1568. 6. 8	군수 이두춘이 부임 당시 서원이 빈 것을 보고 착잡했는데, 지금 諸賢聚會하니 기뻐 술과 음식을 보냄	戊辰 6월 초8일	雲院雜錄
-	1568. 6. 26	數賢加聚했다고 하니 술과 잣을 다시 보냄	6월 26일	雲院雜錄
-	1569. 4. 12	군수 이두춘이 諸賢雅集하니 청주 1동이, 닭 2마리를 보냄	己巳 首夏 旬二	雲院雜錄
文會	1579. 7. 17	문회가 성대하게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군수 배삼익이 박주 2병과 해송자 3말을 보냄	己卯 7월 17일	雲院雜錄
居接	1581. 11	군수 안鳳이 분주하여 제술 시권을 채점하지 못한 것에 미안함을 전하고 내일 罷接한다고 하므로 청주 1동이, 生肉 5근, 약과 1그릇, 생치 1마리, 해송자 1말, 고모필 6자루를 보냄	辛巳 至月	雲院雜錄
居接	1582. 11. 22	군수 안봉이 제군들이 서원에 와서 머물며 공부한다고 하므로 상청주 1병, 중청주 1병, 獐脚 2개를 보냄	壬午 11월 22일	雲院雜錄
居接	1583. 11. 30	군수 안봉이 제군들이 서원에 모여 공부한다고 하니 양모필 7자루, 청주 2병, 벽어 4마리를 보냄	癸未 中冬 既晦	雲院雜錄
居齋	1594. 8. 28	김구정이 제수에 쓸 해물 소금 3섬, 건대구 5마리, 광어 3마리, 麻魚 12마리, 도야미 5마리, 잡어 40마리, 白條 2첩, 전복 1첩, 蚌鰯 200개, 홍합 3말을 보냄	答紹修書院居齋儒生	雲院雜錄
文會	1596. 秋	창락찰방 최산립이 서원문회집사에게 酒米 3말, 누룩 2장, 닭 2마리, 대구 2마리, 미역 5속, 가지 10개를 보냄	丙申 秋	雲院雜錄
居接	1645. 1	풍기군수 李蕭가 거접 때 쓰도록 버 2석, 들깨 5두, 眞麴 10개, 청어 10관, 송묵 5자루를 보냄	연표 ³¹	雜錄a

31. 이하 연표와 入院錄은 소수서원지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였음.

분류	연월일	내용	관련 자료	수록처
居接	1696. 7	거접 때 순흥부사 鄭重昌이 청주 15병, 개 2마리, 角黍 1그릇, 米食 1그릇을 보냄	연표	雜錄b
白日場	1720. 4. 25	제월루 낙성 기념 백일장 거행, 노소 300여 명 참여.	연표	雜錄b
居齋	1720. 11. 10	1720년 거재조치에 따라 거재 시작. 유생 10명이 처음 들어와 상읍례를 행함.	居齋措置/奉諭齋中/연표	雜錄d
居接	1721. 7. 3	부사 李明熙가 유생의 製述接中에 면가루 5말, 참외 70개를 보냄	연표	雜錄d
居齋	1727. 11월 ~1728. 3. 1	1727년 9월에 정한 거재정규에 따라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거재 시행. 총 44인 참여(입원록).	居齋定規/入院錄(丁未) ³² /연표	雜錄d/소수서원지
居接	1729. 7. 20	순흥부사 申弼夏가 거접 때 쓰도록 백미 10두를 보냄	연표	雜錄d
居齋	1737. 11. 1 ~1737. 12. 8	거재 시작. 천연두로 오래 거접할 수 없어 정원에 구애받지 않고 많은 인원을 받아들여 12월 그믐 전에 파함. 총 50인(입원록).	入院錄(丁巳)/연표	雜錄d/소수서원지
居接	1738. 11. 26 ~1738. 12. 27	1738년 부사 임상정이 작성한 거재절목에 따라 거접 시행. 11월 26일 백일장을 열고 23인을 선발하여 12월 27일까지 거접. 총 20인(입원록).	居齋節目/入院錄(戊午)/연표	雜錄d/소수서원지
居齋	1749. 10. 16 ~1749. 12. 19	1749년 거재절목에 따라 각 면에서 선발, 동몽 포함 15명씩 보름 간격으로 윤번. 동몽 포함 총 65인(입원록).	居齋節目/入院錄(己巳)/연표	雜錄d/소수서원지
居齋	1754. 11. 1 ~1754. 12. 1	원촌 전염병으로 한 달 만에 중단. 총 43인(입원록).	入院錄(甲戌)/연표	雜錄d/소수서원지
居齋	1760. 10. 22 ~1760. 12. 7	1760년 거재절목에 따라 거재 시행, 총 109인(입원록).	居齋節目/入院錄(庚辰)/연표	雜錄d/소수서원지

이를 시기별로 분석해보면, 먼저 16세기에는 주로 과거 위주의 강학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강학 형태도 1594년만 제외하면 거재나 통독은 한 번도 없고 모두 거접만 나타난다. 1549년 풍기군수 이항도 서원에 詩賦疑義의 試題를 보내면서 ‘들으니 제군들이 근래 誦讀에 힘쓰고 제술은 늦추고 있다고 하니 이는 뜻이 매우 좋습니다’³³라고 하였다. 16세기 거접의 試題는 원내에서 출제하지 않고 주로 지방관이 출제하였다. 보통 본관 수령이 가장 많고, 그 외 관찰사나 인근 고을의 수령도 출제와 考試에 참여하였으며, 제술 과목은 詩賦가 대부분이나 간혹 疑義나 策問을 출제하기도 하였다. 또 지방관들은 시험문제를 서원에 보낼 때 으레 시제와 함께 음식과 부채, 지필묵 등의 물품도 함께 보내곤 하였다. 음식은 生雉, 대구, 광어, 청어, 蘇魚, 貫目[과메기], 닭, 사슴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쌀, 荒租, 콩, 잣, 술 등으로 그 중 가장 많은 것이 술(과 안주)이다. 술은 淸酒(上淸酒, 中淸酒), 酒米, 麴, 燒酒, 合酒, 秋露, 藥酒, 薄酒 등을 보통 1동에 서 4동 정도, 많게는 15동까지 보냈으며, 1547년 경상도관찰사 안현은 술과 함께 술잔(藥玉)을 보내기도 하였다. 거접 기간과 참여 유생의 규모는 알 수 없지만, 개접이나 파접 시에 수령이 음식을 보낸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16세기부터 이미 상시 거접이 아니라 정해진 기한 동안에만 숙식을 제공하며 거접시켰음을 알 수 있다. 단, 개설 시기에 있어 18세기부터는 봄, 여름에만 거접을 개설하고 겨울에는 ‘三冬居齋’라 하여 보통 10월~12월 사이에는 거재가 개설되었는데, 16세기에는 四時居接이 시행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 같은 과거 위주의 서원 교육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17세기부터이다. 1615년 원

32. 이하 이 표에 언급한 입원록은 원래 거재록인데, 잘못 추정하여 서원지에 ‘입원록’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33. 「僉案下拜問白雲書院」, 『雲院雜錄』.

장 광진은 ‘멀리서 찾아오는 제생들이 전보다 더 많아져 書齋 문 앞에 늘 신발이 가득하고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의 공부가 내면을 수양하는 것은 거의 드물고 다수 燕許楊劉의 餘習이니 이것이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³⁴라고 하면서 독서보다 科業에 치우친 유생들의 공부 방식에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이 무렵 科學이 아닌 道學을 서원 교육의 본질로 천명했던 퇴계의 서원관이 소수서원에서조차 공유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서원에서의 과거공부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17세기 초 풍기군수 李堧은 과거에 응시하는 서원의 유생들에게 ‘과거 응시자의 올바른 자세’³⁵를 가르침으로써, 서원에서의 과거 교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하였다.

18세기에 이르면, 이전까지 科業을 위한 거점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강학이 거재 중심으로 바뀌고, 과업과 독서의 병행이 시작되는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거재에 대한 기록인 거재록도 이 때 처음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1720년부터 1760년까지 총 열 차례의 강학 중 거재 6회, 거점 3회, 백일장이 1회 개설되고 있다. 18세기에 (거점이 아닌) 거재가 이처럼 활성화된 배경은, 서원 외적으로는 경상감사 조현명의 勸學節目 반포(1732), 퇴계 서원관의 정착, 내적으로는 강학 전담 재정 기구인 養士廳³⁶의 설립 등을 들 수 있다.

1727년에는 ‘5일에 한 번 제술하고 10일에 한 번 통독하며, 방학이라도 과거시험이 있는 해에는 대동접과 백일장 등을 폐지해서는 안된다(거재정규)’고 하여, 제술에 비중을 더 두긴 했으나 거재 기간에 제술과 통독을 병행하도록 하였다. 1730년에는 ‘독서하여 도를 추구하는 것이 선비의 본업이지만 과거공부도 하지 않을 수 없으니 반 개월 기한 내에 혹 한두 차례 출제하여 재능을 시험한다(거재절목)’고 하여, 과업에서 독서 위주로 그 비중이 전도되었다. 1749년에는 ‘거재하면서 여럿이 함께 생활하는 것은 오로지 誦讀만 일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요체는, 봉우끼리 강습하여 서로 인을 돕고 선행을 보아[麗澤觀善] 심신을 일깨우는 것이다(거재절목)’고 함으로써 거재의 본의가 독서에 그치지 않고 麗澤之力的 실현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초창기 과업 위주의 강학에서 18세기 초에는 독서와 통독 중심의 강학으로, 18세기 중반에 이르면 독서를 넘어, 일찍이 퇴계와 율곡이 천명했던 이택지력의 실현에서 서원 강학의 본질을 찾고 있다.

1727년부터 1760년까지의 거재는 서원지에 수록된 入院錄(서원소장본 b)을 통해 거재 개설 기간과 그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서원지에는 ‘표지가 낙장이라 제목을 알 수 없으나 내용으로 보아 입원록으로 추정한다’고 하였는데, 사실은 입원록이 아니라 거재록이다. 여기에는 1720년부터 1760년까지 거재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재록과 거재절목의 작성 연도가 일치하며, 入齋日과 귀가일, 수창시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거재록이 분명하다. 또한 잡록에는 이 거재록을 작성할 때의 기록인 ‘題居齋錄’이라는 글이 남아 있다. 이는 1720년 11월에 거재를 개설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거재록을 작성하게 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34. 「上蒼石」, 『丹谷集』 권3.

35. “무릇 글을 지음에 있어서는 반드시 義理를 주로 하여, 정신을 온전하게 기르고 志氣를 화평하게 가져야 마음과 이치가 하나가 되고 붓과 손이 서로 응하여 맥락이 두루 통하고 精華가 빛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은 글만 볼 만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두텁고 차분한 기상도 모든 선비들이 우러르는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주히 준비하고 진중일 고생하더라도 이미 혈기와 심신이 혼란하여 붓을 들면 생각이 엉키고 붓 가는 길이 거칠게 됩니다. 차분함과 조망함이 이미 달라 득실이 절로 갈리니, 지금에 글을 잘 짓는다는 명성이 있으면서도 왕왕 합격하지 못하는 자를 보면 거의 이런 사유에 기인합니다. 이것이 어찌 응시자로서 경계할 바가 아니겠습니까.”(「論赴舉士子文」, 『蒼石集』 권 13).

36. 養士廳은 정확히 언제 설립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서원지에 수록된 「소수서원임사록」에 따르면 1749년에 ‘養士廳別有司’가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 때 설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돌아보건대, 원중에서 답습하고 있는 근자의 규례는 옛날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入院’ 두 글자에 대하여 꼭 논쟁하지 않아도 될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지금에 갑자기 입원록 제목을 보면 역시 논쟁의 단서가 있는 듯하고 너무 지나치다는 비난이 또 장차 나에게 가해질 형편이다. 이 때문에 곧 바로 실질에 의거하여 ‘居齋錄’이라 이름 붙이고 모든 군자들이 와서 독서한 월일을 직접 쓰게 하였다.³⁷

거재록에 따르면 1727년 거재는 4개월간 총 44명, 1737년 거재는 2개월간 총 50명, 1738년 거접은 1개월간 총 20명(절목에는 23명으로 규정), 1749년 거재는 63일간 총 65명, 1754년 거재는 한 달간 총 43명, 1760년 거재는 45일 간 총 109명이 참여하였다. 또 1754년과 1760년에는 마지막에 수창시를 지었다는 기록도 있다. 1727년 거재에서는 ‘11월부터 다음 해 3월 안에 방학한다’는 거재정규의 규정이 정확히 지켜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주로 봄, 여름에는 거접이나 백일장이, 겨울에는 거재가 개설되고 있다.

거재록에는 명단만 있고 강학 내용에 대한 기록이 없어 그 이상은 알 수 없으나, 절목에 따라 대부분 제술과 독서, 혹은 통독이 병행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단, 1738년의 거접은(절목에는 거재절목이라 하였으나 내용은 거접), 절목 제정부터 거접 유생의 선발, 제술과 考試, 종지와 음식, 땀감 등의 지원에 이르기 까지 전 과정이 철저하게 府使를 주축으로 시행된 점이 특이하다. 부사 임상정은 접중에서 가장 연소한 자 1인으로 接有司를 삼아 매일 아침 식사 전에 試券을 걷어 부사에게 올리면 직접 채점하였다(거재절목).

② 居齋雜錄(1761~1780)

거재잡록은 1761년부터 1780년까지 개설된 총 19차례의 강학에 대한 기록이다. 그 중 순제와 백일장이 각 7회, 거재가 3회, 거접이 2회 개설되었다. 순제와 백일장의 개설이 거재나 거접보다 훨씬 많은 이유는, 거재와 거접은 숙식을 제공해야 하는 반면, 순제나 백일장은 숙식을 제공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비용이 훨씬 적게 들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시기는 강학 전담 재정 기구인 養士廳이 폐지된 상태여서 서원의 재정 형편이 좋지 않았다. 따라서 거재와 거접의 개설 횟수 뿐 아니라 개설 기간도 18세기 초에 비해 훨씬 짧았다. 18세기 초의 거재는 많게는 4개월(1727), 거접도 보통 한 달 동안 개설된 반면, 이 때의 거재는 15일~45일, 거접은 고작 5일~10일간만 개설되었다. 먼저, 거재잡록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居齋雜錄의 구성

분류	연도	구성
居齋	1761	題居齋錄奉諭諸君子, 居齋節目, 酬唱詩(원장 權九淵 등 4편), 居齋講案. 製錄, 通讀日記
巡題	1762	巡題計畫
居齋	1762	居齋講案. 製錄, 通讀日記, 酬唱詩(12편)
巡題	1763	癸未巡題計畫榜
居齋	1763	居齋講案. 製錄, 通讀日記
巡題	1764	甲申五月初一日巡題榜
白日場	1764	甲申七月十九日白日場榜目
白日場	1765	乙酉七月二十二日白日場榜目

37. 雜錄』d: 『소수서원지』 729쪽.

분류	연도	구성
巡題	1766	丙戌七月日巡題四巡計畫榜目
居接	1766	丙戌七月二十二日大同居接食器榜目, 同月二十三日接榜目, 同月二十四日接榜目, 同月二十五日接榜目, 同月二十六日白日場榜目
居齋	1766	居齋講案.製錄, 通讀日記, 酬唱詩(17편)
巡題	1767	丁亥巡題榜目
白日場	1767	丁亥白日場榜目
白日場	1769	乙丑七月二十六日白日場榜目
白日場	1770	庚寅七月初六日白日榜目
白日場	1771	辛卯四月二十九日白日場榜目
居接	1772	壬辰正月十七日居接食器榜目, 同月二十八 ³⁸ 日榜目, 同月二十九 ³⁹ 日榜目, 同月二十日榜目, 同月二十一日榜目, 同月二十二日榜目, 同月二十三日榜目, 同月二十四日榜目, 同月二十五日榜目, 同月二十六日榜目
旬題	1778	戊戌五月日旬題榜目
巡題	1780	庚子八月二十九日三巡巡題計畫

그 중 거재는 1761, 1763, 1766년 세 차례에 걸쳐 개설되었으며 거재 기간은 15일~45일이었다. 1761년의 ‘題居齋錄奉諭諸君子’에서는 ‘본원의 물력이 비록 옛날 같지는 않지만 수백 곡의 餘財와 수천 권의 서적이 있어, 옛날의 恒供之規는 지키지 못하지만 三冬居齋의 비용으로는 쓸 수 있으니 한 달 간 거재를 개설한다’는 거재 개설 배경을 말하고, 이어 절목과 講案, 통독일기를 수록하고 있다. 養士廳이 폐지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1760년대에 거재가 세 차례나 개설될 수 있었던 것은, 1759년에 강학을 위한 재정으로 해마다 추수 후 50석을 별도로 배정하기로 하고 完議를 작성하였는데(1759 院中完議), 이 때 마련된 재정을 기반으로 개설된 것으로 보인다. 三冬居齋란 1730년 거재절목에서 처음 나타나는데, 형편상 본래 斯文立議⁴⁰에 규정되었던 四時居齋가 어렵게 되자 三冬 즉, 10월~12월 사이에만 거재를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 1730년 이후 19세기까지 삼동거재는 꾸준히 시행되었다.

거재에 대한 기록은 講案과 製錄-通讀日記-酬唱詩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강안은 거재 기간에 각자 독서한 책을 背講하여 通-略-粗-不의 4단계로 평가한 점수를, 제목은 詩賦 제술의 점수를 기록한 것이다. 배강과 제술은 각자 거재기간을 마치고 윤번 교체하는 날 시행하였으며 전체 거재를 마치는 날에는 수창시를 지어 역시 기록에 남겼다. 통독일기에는 매일 통독한 서책의 범위를 하루 일과, 매일 참석한 인원수와 함께 기록하였다. 통독 교재는 절목의 규정대로 심경, 근사록, 주자서절요를 주로 읽었다. 이를 통해 거재 시 강학 절차는 朝食 후 <敬讀-通讀-개별 讀書-歸家時 背講 및 製述-罷齋時 酬唱詩>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때의 거재는 세 차례 모두 귀가일에 한 번만 제술을 행하여 철저하게 독서와 통독 위주로 시행된 것이 특징이다.

거점은 1766, 1772년 두 차례 개설되었다. 매일 詩賦 제술을 시행하고 성적을 날짜별로 작성하여 ‘大同居

38. 二十八은 十八의 誤記.

39. 二十九은 十九의 誤記.

40. “儒生十員爲額 四時常養”.

接食器榜目’과 ‘居接食器榜目’이라는 제목 아래 기록하였다. 이 때 ‘大同居接’은 거점의 다른 말로, 大同接⁴¹이라고도 한다. 1727년 거제정규에도 ‘과거시험이 있는 해에는 대동접과 백일장 등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여 거점 대신 대동접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1766년 거점은 4일간 詩賦 제술에 매일 25명이 참여하고, 마지막 날은 백일장을 열어 29명에게 장지와 백지를 시상하였다. 1772년의 거점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매일의 출제자와 마지막에 채점관(考官)도 기록하였다. 출제는 官과 서원에서 번갈아 하였으며, 전직 관리 2명과 진사 2명이 考官을 담당하였다. 또 罷接 전날에는 부사가 방문하여 오전에 60여 명의 유생과 함께 大學를 강독하고, 오후에는 서원에서 출제하여 제술을 시행하였다. 이 때 60명은 평소 거점 인원이 아니라 이 날 부사의 강독에만 참여한 인원이다. 이처럼 파접일 혹은 파접 전날에는 ‘罷接禮’라고 하여, 으레 부사가 방문하여 특별히 강독을 하거나 평소와 달리 큰 규모의 제술을 행하며 주연을 베풀기도 하였다.

순제는 총 7차례로 詩賦 혹은 疑義를 시험하여 성적(分)과 시상 내역을 방목에 작성하였다. 방목의 제목은 ‘巡題榜目’ 혹은 ‘巡題計畫榜目’이라 하였는데, 이 때 ‘畫’은 점수를 뜻하며, 計畫은 점수의 총계, 즉 총점을 뜻한다. ‘榜目’이라 하지 않고 ‘計畫榜目’이라 쓴 이유는, 순제는 대개 試題를 여러 개 출제하여 그 점수를 합산했기 때문이다. 1763년의 방목을 보면, 試題가 몇 개인지는 기록하지 않았으나 詩 장원이 47문, 賦 장원이 43문의 점수를 받았다. 한 문제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는 12문이므로, 이 때의 순제에는 적어도 4문제 이상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1778년에는 ‘旬題’라 쓰고 나머지는 ‘巡題’라 쓰고 있다. 巡題는 본래 수령이나 관찰사가 고을, 道 단위로 試取하여 선발된 자들에게 특혜나 시상을 베풀던 것이며⁴², 旬題(혹은 旬製)는 성균관에서 열흘에 한 번씩 행하던 제술 시험으로⁴³, 서원에서도 이를 모방한 것이다. 1826년 소수서원의 순제에서도 열흘에 한 번씩 출제한 사례가 발견되는데, 이 때 ‘巡題’라 쓰지 않고 ‘旬製’라 쓰고 있다. 백일장은 당일 정해진 장소에 모여 한 번에 치는 시험이었지만, 순제는 試題를 미리 내주고 집에 가서 작성하여 정해진 기일에 제출하는 것⁴⁴이었으므로 공간이나 비용 면에서 백일장보다 훨씬 경제적이었다. 순제에서 여러 문제를 출제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현장에서 보는 시험이 아니라 과제 형태로 부과하는 시험이었기 때문이다. 7회의 순제 중 나머지는 모두 원내에서 출제하고 1778년에는 관에서 출제, 1780년에는 부사가 채점관으로 참여하였으며, 1762년에는 관에서 일부 施賞을 보조하기도 하였다. 백일장 역시 총 7회로, 詩賦 혹은 古風을 출제하여 방목을 작성하고 때때로 시상하였으며 1771년에는 부사가 채점하였다.

연도별 개설된 강학의 형태와 개설 기간, 참여 인원 및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41. “옛적의 儒士들은 大同接이란 것이 있어 제술한 글을 가지고 서로 이기려고 다투었는데, 근래에는 점점 그전과 같지 않아 이런 일이 있음을 들어보지 못하겠습니다.”(『중종실록』, 중종 37년(1542) 2월 1일).

42. “辛未趙竹陰希逸爲方伯 巡題二賦 魁於一道 累被獎賞”(『自叙』, 『八松集』 권 5, 序).

43. “내가 즉위한 이후로 모든 명절이나 式年試 등 程式이 정해진 것 외에, 抄啓文臣의 月試와 泮儒의 旬製, 대궐에 숙직하는 신하들에게 때때로 보이는 應製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험 문제를 직접 出題하였다.”(『臨軒題叢』, 『홍재전서』 권 182).

44. 소수서원의 1826년 5월 순제에서도 “又出二題 限今二十五日製呈”(『旬製時雜錄』, 『講所雜錄』)이라 하여 시제를 미리 내주고 기한을 정해 올리도록 하였으며, 그 외 경광서당의 “只以朔望日設場課試詩賦 而每會預出巡題 以會日各自製來 考定高下 則不費三十石穀而可做得七八篇詩賦也”(『與鏡光書堂僉座』, 『山澤齋集』 권 3, 書)라는 기사와 양양향교의 “如或習懶荒嬉 雖出旬題 或作或否 或過限製呈 則答捶之罰”(『襄陽鄉校勸諭文』, 『艮翁集』 권 23, 雜著)이라는 기사에서도 이 같은 순제의 방식이 확인된다.

표 7. 居齋雜錄에 수록된 강학 현황

분류	연도	날짜	참여자	비고
居齋	1761	11. 24~ 12. 13	유생 25, 동몽 1	·거재절목을 만들어(忝任 權九淵 등) 매일 敬讀(白鹿洞規 등), 通讀(心經, 近思錄), 독서(小學, 四書三經)를 행함. ·거재를 마칠 때 背講, 詩賦 제술을 하고 마지막에 수창시 남김.
巡題	1762	夏	33	·등수대로 점수를 기록하고 전체 시상. ·宦家에서 일부 상품 보조.
居齋	1762	10. 15~ 11. 29	유생 27, 동몽 6	·10~12명이 보름단위로 교체, 歸家일에 背講과 제술. ·근사록 통독. 수창시 남김.
巡題	1763	夏	36	詩賦를 출제하여 14등까지 시상.
居齋	1763	11. 2~ 12. 3	유생 29, 동몽 8	·8~18명이 보름 단위로 교체. 배강은 8, 제술은 11명만 참여. ·朱子書節要 통독. 수창시 없음.
巡題	1764	5. 1	24	등수대로 점수를 기록하고 전체 시상.
白日場	1764	7. 19~ 7. 20	19일 26, 20일 37	詩賦 출제, 날짜 별 방목 작성
白日場	1765	7. 22	詩賦 33, 古風 10	방목 작성, 전체 시상
巡題	1766	7월	15	詩賦 출제, 방목 작성, 전체 시상.
居接 白日場	1766	7. 22~ 7. 26	22~25일: 매일 25 26일: 29	·4일간 거접에서 詩賦 제술, 날짜 별로 방목 작성. ·마지막 날 백일장 개설, 시상(원임 成顯寅 등).
居齋	1766	10. 15~ 12. 13	유생 38, 동몽 13	·8~11명이 보름 단위로 교체, 마지막 교체(12월 1일) 시에는 32명이 입재하여 제술을 4차례나 시행. ·그 중 4명은 배강과 제술은 하지 않고 통독에만 참여. ·주자서절요 통독, 수창시 남김(원임 權九淵 등).
巡題	1767	2. 15~ 7. 30	50	·기간을 初巡과 終巡(3월 이후) 둘로 나누어 초순에는 詩賦疑義 각 5首, 종순에는 각 10首씩 출제. ·초순과 종순에 장원 각 3명씩 뽑고 나머지는 초중 점수를 합산하여 윤7월 3일에 방목을 작성하고 시상(원임 權九淵 등).
白日場	1767	윤7.25 (방목)	詩賦 30, 古風 5	詩賦와 古風 출제, 윤 7월 25일 방목 작성하고 시상(원장 權九淵 등).
白日場	1769	7. 26	詩賦 37, 古風 10	詩賦와 古風 출제, 8월에 방목 작성. 장원 3명 뽑고 전체 시상(원임 姜潤 등).
白日場	1770	7. 6	52	·詩賦 출제, 7월 8일 방목 작성(원임 金塾 등). ·방목 마지막에 채점관 기록(考官 前正言 金陞 등 4인).
白日場	1771	4. 29	38	·詩賦 출제, 방목 작성. ·채점관은 府使 金履信 등.
居接	1772	1. 17~ 1. 26	매일 15~38	·매일 詩賦 제술, 날짜별로 방목 작성(원임 黃羽漢). 試題는 官과 서원에서 번갈아가며 출제. ·25일 오전에는 부사가 방문하여(主倅祿院) 60여 명의 유생과 함께 대학 강독, 오후에 詩賦 제술. ·채점관은 前主簿 黃麟采 등 4인(전직 관리 2, 進士 2).
旬題	1778	5월	19	·방목에 점수 없이 명단만 작성(그 이유는 官에서 출제하였으나 한 차례 실시한 뒤 府使가 喪을 당해, 20인을 뽑아 시상하고 旬題를 중지함). ·채점관은 府使 朴師海, 원장 金始重 등 4인.
巡題	1780	8. 29	46	·詩賦 출제, 장원은 백지 1束, 그 외 10장씩 시상. ·채점관은 前正言 柳翼之, 원장 鄭惟簡 등 4인(방목 명단은 없음).

③ 居齋錄(1780~1793)

거재록은 1780년부터 1793년까지 개설된 4차례의 강학에 대한 기록으로, 거재는 보통 한 달, 통독은 6일간 이루어졌다. 거재록의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8. 居齋錄의 구성

분류	연도	구성
居齋	1780	居齋錄奉諭齋中, 居齋節目, 酬唱詩, 居齋日記, 酬唱詩
通讀	1789	己酉通讀節目, 日記, 通讀節目識(1790, 成彦根)
居齋	1790	居齋節目, 講案, 日記, 酬唱詩,
居齋	1793	居齋節目, 書節目後(權益休), 講案, 日記, 試題, 酬唱詩

1780년에는 흥년과 재정 고갈로 강학을 개설하지 못하다가 가을 향사 때 당중에서 논의하고 토지를 分出하여 유사 2인을 뽑아 관리하도록 하고, 10월 23일부터 거재를 시작하였다(居齋錄奉諭齋中). 이 해에는 講案과 通讀日記를 따로 기록하지 않고 ‘거재일기’라는 제목하에 함께 기록하였으며, 명단을 山長, 訓長, 養士有司, 齋儒, 童蒙, 尋院, 考官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하였는데, 尋院 중에는 향교장이나 단계서원 원장 등이 있었다.

1788년에는 폐지되었던 養士廳을 복설하고(1788 完議), 이후 통독과 거재를 개설하여 한달 내지 50일간 거재를 시행하였다. 거재 시 통독 교재는 모두 주자서절요, 1789년에는 대학을 통독하고 있다.

1780년과 1790년의 거재 사례는 거재가 개설되기까지의 준비 과정을 보여준다. 먼저, 춘추 향사 혹은 분향례에서 당회를 열어 거재 개설과 날짜를 확정하고, 원장이나 원임을 중심으로 강학 재정을 마련한 뒤, 각 면에 통문을 발송하고, 실제 강학을 주도할 훈장 2인을 선출한 뒤, 거재절목을 제정함으로써 준비 절차가 마무리된다. 요약하면, <당회-재정 마련-통문 발송-훈장 선출-절목 제정>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1793년에는 부사가 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원장부사는 절목의 작성에도 관여하고, 12월부터는 매일 시제를 출제하였으며, 과제일에도 직접 방문하여 詩賦疑義策問을 출제, 酒饌을 베풀기도 하였다. 소수서원의 원장부사 겸임제도는 1764년 제정되어(甲申년 立議), 1792년부터 1897년까지 총 34차례에 걸쳐 원장부사가 임명되고 있다.⁴⁵이처럼 18세기 후반에 원장부사 겸임제를 만든 것은, 부사가 원장을 겸임하게 되면 무엇보다 서원 운영과 재정 면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1793년 거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원장부사는 절목 제정부터, 강학과 제술에 이르기까지 매우 활발하게 참여하였으며, 거재 기간 중에 乾柿와 魚尾를 보내거나 파접례 때 酒饌을 베푸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 제술이나 통독 등 부사가 서원에 직접 방문하여 강학하는 경우에는 보통 평소의 2~3배 이상이나 많은 유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1772 거접). 그 외 강학 절차와 하루일과는 거재잡록의 경우와 거의 유사하며, 연도별 강학의 개설기간과 참여 인원,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45. 甲申년 5월 25일 立議에 따르면, ‘本官은 으레 원장을 겸한다’고 하였는데 갑신년이 언제인지 불분명하다, 「紹修書院任事錄」에 따르면, 원장직은 보통 幼學이나 生員, 進士, 간혹 전직 관리가 말아 오다가, 1788년 무렵부터 대부분 전현직 관리가 원장에 임명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순흥부사가 처음 원장이 된 것은 1792년으로, 이후 19세기 말까지 원장부사는 총 34차례나 된다. 이를 통해 갑신년은 1764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雜錄』g의 기사에 따르면, 1805년 7월 ‘당회를 열어 부사를 원장으로 천망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고 하였으나, 이후 1806년부터 1897년까지 계속해서 총 32회나 임명되고 있다.

표 9. 居齋錄에 수록된 강학 현황

분류	연도	날짜	참여자	비고
居齋	1780	10. 20 ~12. 8	매일 6~25, 마지막 이들은 51, 47	·거재절목을 제정하고 童蒙, 尋院, 院任, 齋任, 訓長 포함 매일 6~25명이 주자서절요 통독, 歸家 시 각자 독서한 책 배강, 보름에 한 번씩 府使가 詩賦 출제하여 제술(11월 1일, 3일(朔題), 11월 15일, 16일, 12월 1일). ·10월 20일부터 입재, 23일부터 통독, 11월 18일은 府使가 방문하여 주자서절요 通講. ·수창시 남김. 山長 鄭惟簡, 養士有司 金燦元, 講官 柳翼之(考官) 등.
通讀	1789	5. 10 ~5. 16	매일 26~110 여명	·1788년 가을 養士廳 重設, 1789년 3월 通讀節目 마련, 5월 11일부터 각 면훈장이 유생을 데리고 와서 대학 통독 시작(숙식은 각자 해결). ·11, 12월 이틀만 통독, 인원이 너무 많아 통독이 불가능해 12~15일까지 관에서 詩賦 출제, 제술하여 매일 詩賦 각 10~18명씩 試取.
居齋	1790	10. 25 ~11. 28	매일 10~44	·10월 15일 焚香禮에서 거재일을 정하고 통문 발송, 훈장 2인 선출, 25일 居齋節目 제정, 入齋하기 시작해 11월 1일부터 주자서절요 通讀 시작. ·전체 28일 중 1/3은 官이나 서원에서 출제하여 詩賦 제술, 각 1인씩 壯元 선발. ·수창시 남김. 院長 金重鍊, 訓長 安恂·成彥根 등.
居齋 ⁴⁶	1792	11월 한 달	총 37	11월 한 달간 강독과 제술을 하고 12월 1일 참여자 명단인 雲院居齋題名 작성.
居齋	1793	11. 13 ~12. 16	齋儒60 童蒙13 老儒36	·11월 13일부터 入齋, 16일 훈장과 원임이 거재절목을 만들어 부사에게 품의, 17일 부사가 와서 거재규례 10조를 벽에 게시, 경재잠과 숙흥야매잠을 친히 써서 매일 敬讀 교재로 삼음. ·18일부터 강학 시작, 인원이 적어 통독 못하고 경독만 함. 훈장 외출로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통독 못함. ·12월 1일부터 부사에게 요청하여 이후 매일 詩賦 제술하는 것을 규례로 삼음. ·12월 6일 훈장이 돌아와 7일부터 주자서절요 통독, 이후 매일 경독, 제술, 통독 병행, 8일에는 관가에서 乾柿와 魚尾 보냄. ·15일 부사가 와서 경독, 정음례를 함께 하고 酒饌을 베풀(罷接禮).

④ 講所雜錄 등(1799~1828)

1799년부터 1828년까지의 강학 기록은 여러 자료에서 발견된다. 1799년부터 1813년까지의 백일장과 거재 등은 잡록류에, 1815년에 열린 두 차례의 순제방목은 『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에 수록된 「癸酉正月廟宇重修記事」⁴⁷, 1826년부터 1828년까지의 순제, 거접, 거재 등은 『紹修書院講所雜錄』에 수록되어 있다.

설립 초기 四時居接을 시행하던 소수서원은, 재정이 열악해진 18세기에 이르러 四時居齋를 三冬居齋로 바꾸고, 18세기 중반에는 養士廳을 설치함으로써 교육 기능을 지속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다. 1788년에는 중도에 폐지되었던 양사청을 복설하여 강학을 지속하고자 하였으나, 복설된 양사청도 얼마 못가 다시 폐지되었다. 그리하여 1801년 11월에는 재정이 열악하여 거재를 개설한지가 오래되었음을 한탄하면서, 형편상 삼동거재의 개설도 어려우니 우선 통독을 열기로 하고 26일간 통독을 개설하였다. 이 때 보낸 回文에는 ‘지금 후생들이 오로지 과거 공부에만 몰두하고 옛 사람의 위기지학에는 전혀 힘을 쓰지 않아 주자서절요 한 질을 읽지 못한 자가 많습니다’라고 하면서 통독 교재를 주자서절요로 정하고, 각자 소장한 주자서절요를 가지고 와서 읽도록 하였다. 또한 앞으로 겨울밤이 길어지니 나이 어린 유생들에게 낮에는 강독, 밤에는 제술을 시켜 두 가지를 동시에 익히도록 하였다.

46. 雲院居齋題名은 『雲院齋錄』(소수박물관 소장)에 수록되어 있다. 居齋錄에는 수록되지 않았으나 자료의 시계열적 파악을 위해 표에 삽입하였다.

47. 윤희면은 이 때의 순제방목이 『講所雜錄』에 수록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1815년 순제방목 2건은 『講所雜錄』이 아니라 「癸酉正月廟宇重修記事」의 말미에 수록되어 있다.

1810년과 1813년 거재는 개설 기간 중 제술을 한 차례 시행하거나, 제술 없이 독서와 통독 위주로만 시행되었으나, 1826년의 통독과 1827년 거재에서는 낮에는 통독하고 밤에는 제술함으로써 매일 통독과 제술을 병행하였다. 또 1810년과 1813년은 ‘居齋日記’를 작성하여 매일의 출입 유생과 하루일과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1813년 거재도 분향례에서 당회를 열어 거재를 결정하고 통문 발송, 훈장 선출의 과정을 거쳐 거재가 개설되었다. 이 때 거재는 본래 14일간 열기로 계획하였으나 부사가 상을 당해 12일 만에 파접하였다. 이는 당시 부사가 원장을 겸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재 중간에는 관아 뿐 아니라 단계서원, 구만서원 등 인근 서원과 향교에서 尋院하거나 콩, 미역, 명태, 홍시 등 술과 음식을 보내기도 하고 과거에 급제한 유생이 인사차 방문(1827)하기도 하였다. 1815년 두 차례의 순제에는 모두 50여 명이 참여, 부사도 한 차례 재점에 참여하였으며, 1826년 순제는 두 차례 모두 부사가 출제, 고시, 시상에 전부 참여하였다.

1826년의 통독에서는 낮에는 통독하고 밤에는 제술하였는데, 이 때의 제술은 ‘燭刻試’로 치러졌다. 그런데 통독을 마치고 수창시 앞에 기록한 서문에는 ‘통독하는 사이에 과거 시험 과목으로 詩賦 각 5수씩 시험하였다. 오직 문장을 수식하여 선후를 다투는 것에 대한 경계를 조금 범하였으니 부끄럽고 두렵다.’⁴⁸라고 쓰여 있어, 서원에서의 과거 공부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1827년에는 거접과 거재가 한 차례씩 개설되었다. 거접에서는 부사가 날마다 아침에 입원하여 직접 시제를 출제하고, 파접 이틀 전에 주연을 베풀기도 하였다. 부사가 이렇게 열성적으로 참여한 것은 이 해에도 부사가 원장을 겸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827년의 열흘 간 거재는 낮에는 통독하고 오후와 저녁에 매일 시부 2수씩 제술을 시행하였으며, 통독 교재는 주자의 글 몇 편과 중용이었다. 특히 중용을 집중적으로 통독하여 16편까지 마쳤는데, 통독 시 문답 및 토론 내용을 ‘講錄日記’에 매우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강록일기에 따르면, 매일 아침 명륜당에서 상읍례와 경독을 행한 뒤 日新齋로 옮겨 통독을 하였다.

1828년에는 ‘文會’를 열었는데, 이는 백일장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당일로 詩賦와 古風 각 한 수씩 출제하여 방목을 작성하고 문회를 마친 뒤, 그 날(4월 22일)이 퇴계가 소백산 유람을 시작한 날과 같은 날이라 하여, 원임 등 20여 명이 퇴계의 고사⁴⁹를 따라 9일간 소백산을 유람한 뒤 수창시, 기문과 서발문 등을 엮어 ‘小白遊山錄’을 남겼다. 그 외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48. ‘講會時酬唱并小序’, 『講學時雜錄』, 『講所雜錄』.

49. 퇴계는 풍기군수로 재임하던 1549년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소백산을 유람하고 『遊小白山錄』을 남겼다(『퇴계집』 권 41, 雜著).

표 10. 講所雜錄 등에 나타난 19세기 강화 현황

분류	연도	날짜	내용	관련 자료	수록처
白日場	1799	6. 18	원자 탄신 기념 백일장. 부사가 원장이라 朝陽閣 ⁵⁰ 에서 시행. 詩賦·古風 6백여 명, 방목 84인.	연표	雜錄g
白日場	1801	7월	방목 작성	연표	通讀雜錄
通讀	1801	12. 7~ 12. 22	·11월 15일 回文 발송, 12월 7일부터 通讀 시작. ·강학 재정이 열악하여 거재를 개설한지가 오래되었음을 한탄, 재정상 거재는 어려우니 우선 通讀(주자서절요)을 개설하기로 함. ·낮에는 通讀, 밤에는 제술. ·훈장 權思浩(원장), 成彦根	通讀時回文 / 연표	通讀時回文 / 연표
居齋	1810	11. 29~ 12. 22	·11월 29일부터 入齋, 12월 1일부터 강화 시작. ·매일 敬讀과 讀書 시행, 제술은 12월 10일 1회(부사가 詩賦 각 3수씩 출제, 채점), 파접일이 아닌 12월 12일에 수창시 지음. ·중간에 향교 재임, 단계서원 재임 등 방문, 관가에서 명태, 소금 등 음식 보냄. ·洞主 成宗魯, 別任 金樂顔 등	居齋日記	雜錄m
居齋	1813	12. 7~ 12. 18	·11월 30일 분향례에서 거재일 결정, 각 면에 통문 발송, 훈장(前洞主 孫思百, 金熙發)선출, 12. 7~12. 20까지 거재 계획이었으나 부사의 부인상으로 18일 파접(원장부사 柳季麟). ·매일 25~55명이 敬讀과 讀書. ·향교 재임, 부사, 단계서원, 구만서원 재임 등 방문, 관아에서 콩, 미역, 명태, 향교에서 건시, 홍시, 단계서원에서 술과 음식, 구만서원에서 건시 등 보냄. ·파접일에 수창시 남김.	居齋日記	雜錄m
巡題	1815	3월	·詩賦 제술 51명, 부사가 채점, 점수 없이 명단만 기록. ·考官府使 柳季麟, 원장 朴攄, 별유사 柳輝 등.	乙亥三月巡題榜目	「癸酉正月廟宇重修記事」(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
旬題	1815	8월	·詩賦 출제. 1등 3, 2등 13, 3등 36명, 총 52명. 점수 없이 등수와 명단만 기록. ·考官: 進士 成彦根, 生員 李雲燮, 원장 金赫鍊 등.	乙亥八月日巡題榜目	上同
旬製	1826	4월	·3월 享祀 때, 흉년으로 文會는 어려우니 旬製 개설 결정, 부사에게 시부출제 요청, 4월 4일 부사가 試題 각 2수씩 보내며 앞으로 열흘마다 서원에서 출제하도록 함. ·25일 試券 400여 장을 거둬 부사에게 보내 채점, 草三下 이상 150명의 방목 작성.	旬製時雜錄	講所雜錄
旬製	1826	5월	·부사가 바빠 여러 차례 출제를 고사하다 5월 14일 詩賦 각 2수씩 보냄, 25일까지 試券 제출, 28일 부사가 채점, 방목 작성. ·6월 1일 4품 이상 75인에게 부사가 보낸 상품으로 시상(詩賦 각 장원 부채 1자루와 연초 1근, 이하 1, 2등은 白紙 1속, 3등은 白紙 15장). ⁵¹	旬製時雜錄	講所雜錄

50. 朝陽閣即外東軒也(宮室·樓亭, 『順興誌』, 『梓鄉誌』).

51. 처음에 부사가 詩賦 각 장원에게 시상하려고 부채 2자루와 연초 2근을 보냈으나 부의 장원으로 11분짜리 동점자 2인이 나와 부사가 다시 장원의 상품으로 香草와 백지(부채 대신)를 추가로 보내고, 또 서원에서 試官에게 답례로 보낸 백지 2속을 다시 서원에 돌려보내 佳作를 추가로 뽑아 상품으로 쓰게 하였다(「旬製時雜錄」, 『講所雜錄』).

분류	연도	날짜	내용	관련 자료	수록처
通讀	1826	11. 19~ 11.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월 초에 모여 26일부터 通讀, 다음 해 봄에 居接을 열기로 정하고 19일부터 入齋, 21일 각 면에 통문 발송, 26일부터 30일까지 주자서절요 3편, 통감절요 4편까지 통독. ·26~28일까지는 오전에 相揖禮, 敬讀 후 낮에는 통독, 밤에는 詩賦 제술, 29일은 오전.오후.밤 세 차례 燭刻試로 詩賦 제술, 30일 수창시 남기고 罷齋. ·27일 방목은 9명, 28일 22명, 29일 오전 22명, 오후 26명, 밤 21명. ·同住 李家淳, 訓長(講任) 宋相奎, 徐幹發 등. 	講學時雜錄	講所雜錄
居接	1827	3. 14~ 3.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前 山長 李家淳이 國事로 상경하여 2월 28일 堂舍에서 부사 金祖淵을 산장으로 임명, 3월 14일부터 6일간 居接을 열기로 함. ·매일 아침 부사가 입원하여 詩賦 출제, 날마다 午時(17일만 巳時)에 試券을 걷어 저녁에 방목 작성. ·17일은 부사가 이른 아침 입원하여 주안상과 떡 등 잔치를 베풀고, 18, 19일은 臥丹舍 分給으로 부사가 불참하여 鄉試官이 출제, 훈장 徐幹發 등이 채점. ·방목 인원은 매일 69~102명. ·罷接日에 講任을 새로 뽑음(柳燾, 朴奎元). 	居接時雜錄	講所雜錄
居齋	1827	12. 7~ 12.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월 1일 洞主 姜樓, 講任 柳燾, 朴奎元이 모여 거재일을 7일로 정하고 각 면에 통문을 보내 6일부터 入齋. ·6일 과거에 급제한 金哲濤이 광대를 데리고 와서 하룻밤 묵고 감. ·7~9일은 입재유생이 너무 적고, 큰 비로 유생들이 오지 못해 주자대전외의 글 몇 편(白鹿講舍序 등)을 통독, 賦 1, 2수씩 제술, 방목은 작성하지 않음. ·11일부터 相揖禮, 敬讀 후 中庸 通讀 시작, 매일 낮에는 통독, 오후와 저녁에 詩賦 각 2수씩, 罷接日에는 詩賦疑 제술(14~17일은 부사, 나머지는 서원에서 출제). ·15일 오후에는 부사가 입원하여 원임 등 몇 명과 함께 광풍대-취한대-반계-영귀루를 둘러보며 수창시를 짓고 저녁에 돌아옴. ·매일 적게는 10, 많게는 80여 명 참여. ·마지막에 ‘講錄日記’라는 제목으로 중용 통독 시 문답, 토론 내용(16장까지)을 상세히 기록 	居接時雜錄 / 酬唱錄	講所雜錄
文會	1828	4.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洞主 姜樓이 文會를 열어 詩賦, 古風 각 한 수씩 제술, 방목 작성(총 215명). ·문회를 마친 뒤 4월 22일이 퇴계가 소백산에 들어간 날이라고 하여 동주 강운이 소백산 유람을 제안, 원임 등 20여 명이 9일간 유람하고 수창시, 서발문 등을 남김. 	戊子四月二十二日文會時古風榜目 / 小白遊山錄 등	講所雜錄

(4) 강학 의례 관련

소수서원의 강학 의례 자료로는 庭揖禮笏記⁵²가 있으며, 그 외 강학과 관련하여 행해지는 의례로 敬讀, 開接禮와 罷接禮, 酬唱詩를 들 수 있다. 庭揖禮는 居齋나 通讀 시 강학을 시작하기 전에 명륜당 앞 뜰에 제생이 동서의 두 대열로 나누어 서면 동서의 각 堂長(혹은 班首)이 제생을 이끌고 나아가 스승과 원임에게, 혹은 제생이 서로 인사를 주고 받으며 揖讓의 예를 행하는 것으로 相揖禮라고도 한다. 의례의 절차는 대개 유사하지만, 서원별 혹은 지역별로 所任의 명칭, 의례의 내용과 범위가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면, 소수서원에서는 동서 대열의 대표 유생을 堂長이라 하고 필암서원에서는 班首라고 하며, 소수서원에서는 相揖禮와 敬讀이 별

52. 소수서원지 407~408쪽. 서원지에는 원 수록처가 居齋雜錄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거재잡록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도의 의례로 독립되어 있으나 도산서원과 필암서원은 相揖禮 안에 敬讀이, 무성서원은 講習禮 안에 敬讀이 포함되어 있다. 또 전라도의 필암서원과 미천서원은 相揖禮의 절차와 敬讀의 텍스트까지 거의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홀기에 나타난 소수서원 정읍례의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정읍례를 행하기 전에 당일 모인 사람들의 擧案을 작성하여 東西 두 대열로 나누고 대열 별로 堂長, 副堂長, 曹司를 정한다.
- 다음으로 執禮가 東西唱을 인도하여 먼저 명륜당 뜰 안으로 들어가 선생에게 인사한다.
- 그 뒤, 당장이 각 대열을 이끌고 뜰 안으로 입장하고, 동서조사가 부당장에게 揖하면 부당장이 답례한다.
- 다음으로 동편 부당장이 선생에게 擧案을 올리면 동서대열이 선생에게 인사한다.
- 다시, 동서 대열이 모두 돌아 서로 마주보고 서면, 동서조사가 부당장 앞에 나아가 序立하였음을 고하고 부당장은 답례한다.
- 다음으로 제생끼리 相揖禮를 행하고, 집례와 동서창도 뜰 중앙에 이르러 마주보고 相揖한 뒤 퇴장함으로써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절목과 강학 시행 기록에 따르면, 정읍례는 거재나 통독 시에만 행하고 거접 시에는 행하지 않았으며, 정읍례와 상읍례가 서로 구분되기도 하고 혼용해서 쓰이기도 하였다. 1780년 절목에는 ‘아침에 식당에서 제생이 상읍례를 행한 뒤 拱手하고 序立하여 敬讀을 행한다’고 하고, 1790년 절목에는 ‘아침에 일어나 정읍례를 행한 뒤 식당에 모여 敬讀한다’고 하였으며, 1793년에는 ‘아침에 일어나 의관을 갖추고 식당에 참여하여 먼저 상읍례를 행한 뒤, 식후 명륜당에서 敬讀을 행한다’고 하였다.

1780년 거재일기에 따르면, 거재를 시작한 첫째 날에만 상읍례 후 경독, 통독을 행했고, 1789년 통독에서는 아침 통독 전에 상읍례를 행했으며, 1790년과 1793년 거재에서는 경독 후 정읍례를 행하기도 하고, 경독과 통독 후 정읍례를 행하기도 하였다. 1810년 거재에서는 경독 전이나 후에 상읍례를, 1813년에는 아침에 상읍례를 행하기도 하고 경독 후 정읍례를 행하기도 하였으며, 1826년 통독과 1827년 거재에서는 명륜당에서 경독 전 상읍례를 행하였다.

그 외 강학에 관련된 의례로는 敬讀, 開接禮와 罷接禮, 酬唱詩 등을 들 수 있다. 소수서원의 居齋 시 강학 절차는 朝食 후 相揖禮-敬讀-通讀-개별 讀書-背講-酬唱詩로 이루어진다. 그 중 敬讀은, 본격적인 강학을 시작하기에 앞서 글을 잘 읽는 한 사람에게 유학 공부론의 핵심이 되는 글을 큰 소리로 聲讀하게 함으로써 공부의 목적과 방법을 내면화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보편적인 텍스트는 주자의 白鹿洞規이며 당색이나 서원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소수서원은 白鹿洞規, 敬齋箴, 夙興夜寐箴을 기본으로 하고, 때에 따라 퇴계의 伊山院規, 주자의 朱文公十訓, 장횡거의 東西銘 및 서원에서 제정한 居齋節目을 읽도록 하였다.⁵³

開接禮, 罷接禮, 酬唱詩는 正式的 의례는 아니지만 居接이나 居齋의 시작과 끝에 행하는 일종의 관습이라고 할 수 있다. 서원 강학의 개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개접례에는 수령이 음식과 함께 직접 詩賦

53. 1749년 거재에서는 주문공십훈과 거재절목, 1760년에는 이산원규, 1761, 1790년에는 주문공십훈, 1810년 거재에서는 동서명을 경독하도록 하였다.

를 출제하여 보내고⁵⁴, 파접례에는 수령이 으레 酒宴을 베풀고 평소와 달리 제술도 성대하게 거행하였다. 雲院雜錄에는 16세기부터 소수서원의 開接日과 罷接日에 수령이나 관찰사가 試題와 함께 술과 음식을 보내는 기사를 자주 발견할 수 있다. 또 평소 거접 시에는 詩賦 제술만 행하다가 파접일(1793, 1827)에는 부사가 詩賦 외에 疑義나 策問까지 출제하며, 서원에 직접 방문하여 주연을 베푸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옥산서원에서는 개접례(入接禮)와 파접례에 쓸 용도로 아예 서원에서 쌀 한 섬으로 미리 술을 담그도록 규정하기도 하였다.⁵⁵ 파접례의 마지막은 그동안 강학한 내용에서 운자를 내어 다함께 수창시를 짓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으로 마무리되며, 파접례 다음 날 향음주례를 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竹林書院의 경우에는 ‘罷齋日에 향사례와 향음주례를 행하여 젊은이들과 나이 어린 유생들로 하여금 古禮를 익히도록 해야 한다’⁵⁶고 하여 아예 파접례 절차에 향음주례를 공식적으로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파접례는 後接禮 혹은 歸家禮(도동서원)라고도 하였으며, 고려시대에는 洗硯禮라고도 하였다. 도동서원 원규에 ‘음담패설과 같은 부정한 말이나 음식물을 요구하는 염치없는 일은 모두 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이어 세주에서 ‘음식물을 요구하는 것은 지금 학교에서 행해지는 이른바 후접례, 귀가례라고 하는 것이 모두 그런 것들이다.’라고 하였다.⁵⁷ 소수서원과 달리 도동서원에서는 파접례 때 관에서 물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해 오히려 음식물을 요구하는 관행이 폐단으로 여겨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통해 각 서원이 관아와 맺는 관계 및 물적 지원에 각각 차이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강학의 마지막 절차가 수창시로 갈무리된다는 사실은, 조선시대 서원 교육의 본질과 수준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대목이다. 수창시는 과거 대비를 위한 형식적 詩賦 제술과 달리, 통독 때 읽은 글 중에서 운자를 내면 그 운자를 활용해 각자 통독 모임에서 얻은 所懷와 깨달은 바를 담아 시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를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타인의 교육적 성과도 함께 공유할 수 있었다. 詩賦 제술이나 經書 背講처럼 점수를 매기지는 않았지만, 수창시아말로 麗澤之力과 爲己之學이라는 서원 교육의 본질적 의미를 보여주는 실질적 성과였다고 할 수 있다.

그 외 순제에서 試官을 맡은 수령에게 답례로 서원에서 선물을 보내면, 수령은 다시 답례로 받은 선물을 유생들의 제술 상품으로 쓰도록 돌려보내는 관례⁵⁸도 확인되며, 서원과 관아에서 제사가 있을 때마다 으레 서로에게 음복을 보내는 관례⁵⁹도 있었다.

54. 1826년 5월 순제 때 서원에서 수령에게 試題 출제를 부탁하자, 수령은 바쁘다는 이유로 사양하면서, ‘이전에 두 개의 시제를 출제하고 고시한 것은 이른바 開接禮로서 한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는 원내에서 출제하길 당부하고 있다.

55. 「山堂居接禮錄」, 『玉山書院誌』.

56. “罷齋之日 獻官爲賓爲介 鄉射飲禮 惟意行之 使新進年少 習熟古禮爲宜”(『竹林書院節目』, 『市南先生別集』 권 7, 雜著),

57. “淫媒女色不正之言 干索食物無恥之事 皆不得爲之 干索食物 始今學中所謂後接禮歸家禮等事皆是”(『道東書院院規』, 『寒岡集續集』 권 4, 雜著).

58. 1826년 순제에서 ‘試官에게 선물을 보내는 관례에 따라 수령에게 백지 2속을 선물로 보낸다’고 하였다(『旬製時雜錄』, 『講所雜錄』).

59. 雲院雜錄.

(5) 강학 재정 관련

소수서원의 강학 재정과 관련된 기록은 1788년 完議와 養士聽別有司의 명단을 기록한 「紹修書院任事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원 설립 초기에는 문성공의 후예인 안현이 경상감사로 부임하여 斯文立議를 제정하고 경상도 전역에 걸쳐 재정기반을 마련해줌으로써, 강학을 위한 별도의 재정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후 양란을 거치고 안현이 마련해준 海邑의 어염과 도내 각 고을의 물자 공급이 끊기면서 서원 재정이 점차 고갈되기 시작하였고,⁶⁰ 이는 곧 강학의 중단으로 이어졌다. 이전의 강학에서는 10명의 정원을 넘더라도 윤번을 시키지 않았으나, 1720년부터 윤번 교체 거재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 같은 재정상의 이유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18세기에는 강학을 위한 별도의 재정 기구인 養士聽을 마련하기에 이른다. 양사청의 정확한 설립 시기는 확인되지 않는데, 任事錄에 養士聽別有司의 명단이 1749년에 처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 무렵에 설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임사록에 1756년 이후 양사청별유사의 명단이 다시 사라진 것으로 보아, 1756년 이후 폐지되었던 것 같다.

당시 서원 재정 고갈의 구체적 원인과 실상은 1759년 院中完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완의에서는 서원의 채용 고갈로 여러 가지 폐단이 속출하게 되었는데, 그 중 가장 큰 것은 회계의 법도가 엄하지 않아 재물이 낭비되기 때문이며, 재물이 낭비되자 강학도 폐지되기에 이르렀음을 지적하고, 이에 완의를 정하여 1개월 단위로 엄격히 회계하도록 규정하였다. 또 매년 추수 후에 50石을 따로 배정하여 養士之需로 삼고, 다른 용도에 재정이 모자라도 절대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 때 서원의 물자가 낭비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 것은 과객 접대였다. 여기서 과객이란 官衙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소수서원은 관아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예부터 관아의 관리나 관아에 일이 있어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들을 접대하고 숙식을 제공하는 데 서원 채용의 많은 부분이 소모되어 강학에 쓸 물자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었다. 특히 관아에서는 식사나 접대 외에 시도 때도 없이 서책을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아 서원문고 유실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으며, 서원의 하인을 함부로 데려다 쓰기도 하였다. 이에 완의에서는 ‘이는 경중이 도치된 폐단이니, 멀리서 서원을 방문한 현인을 제외하고 그 외 모든 사람에게 일체 식사 제공이나 접대를 중지’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재정 고갈의 원인으로는 선현(문성공) 자손들의 공공물자 사용⁶¹, 소작인들의 도조 미납, 寶穀을 빌려다 쓰고 갚지 않는 경우, 강학이나 향사가 없을 때에도 서원에서 숙식하는 入格 유생들의 폐단⁶² 등을 들 수 있다. 또 俎豆의 법식에 없는 油密果를 써서 재물을 낭비하는 폐단⁶³도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는데, 이 역시 빈객 접대를 위한 것이었다.

1756년 이후 폐지된 양사청이 복설된 것은 1788년이다. 1788년 완의에서는 ‘양사청은 애당초 있었던 것이 중간에 폐지되었는데, 이는 서원의 재정이 풍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양사청이 폐지된 후에 재정상 여력이

60. 1606년 2월, 서원에서 순찰사에게 올린 글에 따르면, 당시 웅천의 漁基는 난리를 겪은 후 이미 폐지되었고 영덕과 영해의 염분만 존속하고 있다고 하였다(「上方伯柳永詢書」, 『雲院雜錄』).

61. 1700년 庚辰三月享祀時完議.

62. 1700년 庚辰三月享祀時完議.

63. 1625년 立議.

없어 강학의 옛 규례마저 동시에 잃어버렸다. 지금 양사청을 復設하고자 하는 것은 서원의 지위를 높이고, 옛 규례를 따르는 도리가 될 것이다'고 하면서, 양사청을 복설한 뒤 養士聽別任 1명을 두어 이를 관리하게 하였다. 이후 1789년 5월 통독 기록에 따르면, 養士聽有司 金永斗가 강회를 주관하였으며, 1790년 10월의 거재 기록에서도 養士別任 權益邵를 발견할 수 있다. 임사록에도 1788년부터 양사청별유사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여 1792년까지 기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복설된 양사청이 적어도 1792년까지는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수서원에서는 양사청이 폐지된 시점에서도 원임들이 힘을 모아 곡식을 별정하거나(1759), 토지를 分出(1780)함으로써 강학의 개설을 꾸준히 도모하였으며, 19세기에는 三冬居齋가 어려우면 대신 통독을 개설하거나 원장부사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서원의 교육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2) 도산서원

표 11. 도산서원 강학 관련 자료

분류	제목	연도	수록처/소장처	간행처
規約	院規	-	陶山書院古文書 I	퇴계학연구소
講案	講會錄	1795	陶山書院古文書 I	퇴계학연구소
日記	講會日記	1854	陶山書院古文書 I	퇴계학연구소
講錄	淸涼吾山堂講錄 표제: 吾山堂講錄	1850. 3. 26~3. 28	한국국학진흥원	-
講錄	淸涼講義 표제: 吾山堂講錄附溪齋講義	淸涼講義: 1850. 3. 26~3. 28 溪齋講義: 1853~1857	규장각	-

(1) 院規

도산서원 원규는 1558년에 퇴계가 작성한 이산원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총 1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육과정과 공부의 지침으로 삼을 중국 선현들의 글을 제시한 2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10개는 대개 서원에서의 언행 및 조직과 운영에 대한 것이다. 백운동서원 규약과 가장 큰 차이는 교육과정 및 서원의 강학 이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점, 서원에서의 공부와 과거공부의 관계에 대한 관점의 변화, 제향 관련 규정이 없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제향 관련 조항이 없는 것은 백운동서원과 달리, 이 원규의 저본이 된 이산서원이 애초에 제향 기능 없이 강학만을 위해 설립된 서원이었기 때문이다. 도산서원의 제향의례는 '陶山書院儀節'의 香謁, 正謁, 享禮 조항과 '笏記'의 告由時笏記, 享禮笏記, 鄉飲酒禮笏記 등⁶⁴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둘째, 교육과정은 사서 오경을 근본으로, 소학과 가례를 門戶로 삼고 역사서와 문집, 문장과 과거 공부는 말단으로 할 것을 규정하였다. 또한 공부의 방법과 지침을 제시한 정이천의 사물잡, 주희의 백록동규, 진무경의 숙흥야매잡을 서원 내 벽에 걸어놓고 경계로 삼도록 하였다.

64. 『陶山書院古文書』I, 53~70쪽.

셋째, 서원에서의 공부와 과거공부의 관계에 대해 서원에서의 공부를 과거와 인재등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며 서원에서의 과거급제자 배출을 외려 자랑스럽게 여겼던 백운동서원과 달리, 퇴계는 서원에서의 과거공부에 대해 좀 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과거공부 또한 널리 힘쓰고 통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마땅히 내외.본말.경중.완급의 순서를 알아서 타락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함으로써, 서원에서도 과거공부를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이는 바깥과 말단에 해당하는 비본질적인 것이며, 서원 교육의 본질은 ‘성현의 가르침을 지켜 온갖 善이 본래 나에게 갖추어져 있음을 알고, 옛 道를 지금에 실천할 수 있음을 믿어 몸소 행하고 마음에 얻으며, 體를 밝히고 用에 맞게 하는’ 爲己之學에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그 외 임원 구성은 원장-부원장(院貳)-유사 체제였던 백운동서원과 달리 원장은 두지 않고 상유사-유사 체제로 하였다. 유사는 品官 출신으로 2인, 상유사는 행의가 있고 존경받는 자 1인을 두어 모두 2년마다 교체하도록 하였다.

(2) 講會錄

강회록은 1794년 봄에 정조가 御製 1책 및 經書 1질을 도산서원에 하사하고, 다음 해 2월 또 御定朱書百選 3책을 하사한 것을 계기로,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고 서원 설립 본연의 목적을 되돌아보기 위해 1795년 2월에 개설한 강회의 경과와 당시 강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한 것으로, 講案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때의 강회는 당시 山長 李龜書의 주도로 釋菜 罷齋日에 강회를 열어 총 60여인이 참여하였으며, 정조에게 하사받은 朱書百選과 大學을 輪讀하여 3일만에 파하였다. 山長 李龜書 외에 講長은 生員 金台翼이 맡고, 聽講으로 수령 朴獻源 등 6인이 참여하였으며, 명단에 수록된 講生은 幼學 金洛儒 등 총 44인이다. 이처럼, 임금의 서책 반사는 조선후기 서원 강화 개설의 주요 계기 중 하나로, 다른 서원이나 향교에서도 종종 발견된다.

(3) 講會日記

강회일기는 1854년, 강회가 오랫동안 이어지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기던 長老와 僉員들이 재회를 열어 12월 15일 강회를 개설하기로 하고, 강회 전날부터 강회를 마친 17일까지 3일간의 강회 사실을 날짜별로 기록한 것이다. 먼저 1854년 10월에 재회를 열어 각 마을 유생들에게 통문을 보내고, 동몽부터 40세에 이르기까지 매일 초하루에 私塾에서 강화하게 한 뒤, 연말에 그 중 우수자를 뽑아 도산서원에서 大同會講을 열기로 하였다.

12월 14일에는 洞主 李希淳과 貳席 崔雲璜이 들어와서 光明室에 소장된 四子六經과 심경, 근사록, 朱書, 退書 등 여러 질을 꺼내와 應講의 도구로 삼았으며, 訓長으로 원장 이희순, 前承旨 李彙寧, 前參判 李孝淳, 前牧使 李彙載를 추대하였다.

15일에는 이른 아침 훈장 등이 들어와 時到有司로 李晚嵩, 李晚郁을, 直日로 李彙暉, 李彙徹을 추천하여 뽑았다. 식후에 도착한 사람이 모두 30여인이 되어 典敎堂 뜰에서 정음례를 행하였다. 정음례는 제생이 전교당 뜰에 序立하면 동반수와 서반수가 제생을 이끌고 동편 층계에 서서 백록동규를 敬讀한 뒤 음례를 행함으로써 끝났다. 정음례를 마친 후 閑存齋에 鼻比(강석)를 설치하고 제생이 각자 독서한 책을 가지고 나와 한 편씩 進講하고 文義를 강하다가 날이 저물면 파하였다.

16일과 17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의례와 진강을 행하였는데, 이를 모두 정읍례 대신 상읍례를 행하였다. 17일에는 상읍례와 진강을 모두 마치고 훈장과 장로들이 먼저 나간 뒤 제생이 뒤이어 退歸하였다. 이 강회일기를 통해 유생의 선발 방식, 강회 시 서원문고의 활용, 각 공간(閑存齋 등)의 활용 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 淸涼講義

청량강의는 당시 도산서원 원장이었던 李漢膺⁶⁵의 주도 하에 1850년 淸涼精舍에서 시행된 강회에 대한 기록으로, 『大學』 강론 시 문답과 토론을 상세히 기록한 講錄류 자료이다. 청량강의에 나타난 토론의 수준과 문답의 전개방식은 매우 정교하여, 당시 영남 유림들의 『대학』 이해 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며, 서원 강학에 있어 토론문화의 정수와 교육적 의미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청량강의는 한국국학진흥원과 규장각의 두 본이 있는데, 그 중 규장각 본에는 청량강의 뒤에 1853년부터 1857년까지 敬義堂에서의 강회 기록인 ‘溪齋講義’도 수록되어 있다.

두 본 모두 표제는 ‘吾山堂講錄’이라 되어 있다. 오산당은 청량정사의 堂號이며, 청량정사는 1832년, 퇴계가 소시적 공부하던 청량산에 사림들의 합의로 건립된 정사로, ‘청량정사’라는 편액은 李光庭이 지은 것이다.⁶⁶ 퇴계 생존 당시 청량산 紫霄峯 아래 白雲菴이 있었는데, 이광정은 퇴계가 젊은 시절 공부하던 백운암을 도산서당의 모습에 의거하여 다시 짓고 ‘청량정사’라는 편액을 정하였다. 그 뒤 1832년 청량산 자소봉 아래 청량정사는 오산당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세워졌다. 퇴계는 평생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청량산을 방문하여 학문을 닦고 산전을 노래했는데 모두 55편의 시와 하나의 발문, 하나의 기문이 전한다. 퇴계가 주세붕의 ‘청량산록’에 쓴 발문에 “안동부의 청량산은 예안현에서 동북쪽으로 수십리 거리에 있다. 나의 고장은 그 거리의 반쯤 된다. 새벽에 떠나서 산에 오를 것 같으면 5시가 되기 전에 산 중턱에 다다를 수 있다. 비록 지경은 다른 고을이지만, 이 산은 실지로 우리 가문의 산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부형을 따라 고향에 뭇짐을 메고 이 산에 왕래하면서 독서하였던 것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⁶⁷라고 하였는데, 청량산을 ‘吾家山’, 청량정사를 ‘吾山堂’이라고 부른 것은 여기서 연유한다. 淸涼講義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청량정사는 19세기 퇴계 문인들이나 도산서원의 강학소가 되기도 하고, 1896년에는 淸涼義陣이 조직되어 의병 투쟁의 근거지가 되기도 하였다.

강회는 1850년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총 600여 명이 모여, 『대학』을 한 장씩 읽어가면서 각 장의 章旨와 핵심 개념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였다. 강회의 소임은 다음과 같다.

- 訓長-원장 李漢膺
- 執禮-幼學 李在閭
- 司正-生員 蔡周郁

65. 이한응은 19세기 중엽 유지명과 함께 영남유림을 대표하는 학자로, ‘소퇴계’라는 칭호를 듣던 李東標의 현손이며 호는 敬庵다. 학문은 심경, 근사록을 기본으로 삼고 주희와 이황의 책을 아울러 공부하였다. 그의 호 ‘敬庵’에서 말해주듯이 경 공부를 가장 중시하였다. 관직에 여러 차례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고 고향에서 학문에 전념하여 續近思錄, 屏銘發揮, 朱書訣旨, 喪禮抄節, 溪齋講錄 등의 저술을 남겼으며, 문집으로 『敬菴集』이 있다(권오영, 「19세기 영남유림의 강회와 학술활동」, 『조선시대 사회의 모습』, 집문당, 2003, 224쪽에서 재인용).

66. 「吾山堂重建記」, 『吾家山志』; 「題白雲菴堂室圖」, 『訥隱集』 권 6, 雜著.

67. 「周景遊淸涼山錄跋」, 『退溪集』 권 43, 跋

· 東班首-幼學 南有樞

· 西班首-幼學 趙彥綱

· 直日-進士 安行準.幼學 孫永德.柳星鎮.金東建.金龍鎮.進士 高聖謙.幼學 洪煥五.南萬星.許禧

첫째 날은 강당 뜰에서 정읍례를 행하고 『대학』 서문부터 강독을 시작하였다. 정읍례의 절차는 앞의 강회 일기와 같다. 강회 진행 방식은 한 사람을 시켜 한 장을 통독하게 한 다음, 각 장에 대한 제생의 질문과 훈장의 발문, 토론이 이어졌다. 주로 『대학』의 3강령과 8조목의 文義와 체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정이천, 주희, 옥계노씨, 신안진씨, 황간 등의 중국 학자와 권근, 이황, 정경세, 한원진 등 조선 학자의 학설도 폭넓게 인용하고 있다. 토론은 단어의 개념이나 文義에 대한 간단한 즉문즉답도 있으나, 훈장 등이 논쟁의 단서가 될 만한 발문을 던지면 제생이 돌아가면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한 뒤 마지막에 훈장이 쟁점을 갈무리해주는 방식으로 주로 진행되었다. 즉, 제생이 묻고 훈장이 대답해주는 일방적인 토론이 아니라, 모든 참여자들이 매우 자유로운 방식으로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발문의 예는 ‘明德은 心에 속하는가, 性에 속하는가?’, ‘本末은 어찌해서 物이라 하며, 終始는 어찌해서 事라 하는가?’, ‘백성이 잇을 수 없다는 것과 죽은 뒤에도 잊지 않는다는 것은 차이가 있는가?’, ‘自謙은 무엇을 뜻하는가?’ 등이다. 그 중 ‘明德이 心에 속하느냐, 性에 속하느냐’는 발문에 이어진 토론 장면을 예시로 들면 다음과 같다.

이한응: 선유들은 心이라 하기도 하고, 性이라 하기도 하고, 心性情을 통칭한다고도 했으나 나는 本心으로 이해하고 있다.

고성겸: 심성정을 포괄하지만 주된 것으로 말하면 심이다.

이만호: 氣와 관련해서 논할 수는 없고 마땅히 理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

류성진: 심이라 할 수도 없고, 성이라 할 수도 없고, 다만 明德이라 해야 한다.

이한응: 한 마음 안에 얼마나 많은 件數가 있는가?

류성진: 오장 육부를 일러 각기 건수가 있다고 하지는 않는다. 다만 부여받은 바의 이치가 이러한 것을 포괄하고 있을 뿐이다.

안행준: ‘虛靈’ 두 글자에는 이미 寂感和 表裏의 구분이 있는 듯하니, 오로지 성을 위주로 하지는 않는다. 또한 마음을 떠나 덕을 구할 수 없으니 밝고 환한 덕은 내 마음의 고유한 것인 듯하며, 본심이라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다.

남만성, 이만보: 심성정으로 통괄해서 말하면 氣에 간섭되므로 理를 위주로 해서 말한 듯 하다.

이판사: 理氣를 합한 가운데 理를 위주로 말한 것 같다.

여기까지 논의가 전개되자, 유택흠이 다시 ‘이한응의 말대로 명덕을 본심으로 보면 기를 겸한 것으로 간주함인가?’라고 물음으로써 이제 ‘명덕을 이로 볼 것인가, 기로 볼 것인가’로 논쟁의 국면이 전환되었다. 이에, 이 때까지 듣기만 하던 이한응은 주자와 勉齋, 중용 등의 설을 들어 心에 體用의 차이가 있으며, 용례마다 명칭과 한계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쟁점을 하나씩 갈무리해주고 있다. 이를 통해 서원 강회에서 훈장의 역할과 리더십을 살필 수 있다. 나머지 이들은 정읍례는 행하지 않고 강론만 하여 전문 10장까지 모두 마치고 강회를 파하였다.

권오영은 이 강회의 의미를 ‘이한응의 문인 외에도 영남의 명망 있는 인사를 총망라하고 있어 이상정, 유치명의 직계 문인들이 주도했던 19세기 고산강회나 호계강회와는 차이가 있으며, 당시 병호시비로 분열된 영남유림을 도산서원 원장이 중심이 되어 통합하고자 했던 상징적 성격을 띤 것’⁶⁸으로 해석하고 있다.

규장각 본에 수록된 溪齋講義는 역시 이한응을 丈席으로 하여 1853년부터 1857년까지 溪齋의 敬義堂에서 열린 강회에 대한 기록으로, 작성 방식과 강회의 절차는 청량강의와 같다. 溪齋는 이한응이 1851년 안동의 녹동에 지은 두 칸짜리 서재로, 시내 옆에 지어 ‘계재’라 하고 당호는 ‘경의당’이라 하였다.⁶⁹ 그는 계재를 지은 후 매년 10월 강회를 열어 중용, 대학, 심경, 근사록 등을 강론하였다. 1853년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는 32명이 참여하여 中庸 서문부터 13장까지, 1854년 10월 28일에는 중용 14장부터 18장까지, 1855년 10월 28일에도 중용을 이어 강론하였다. 1857년 2월 18일부터 2월 22일까지는 30여 명이 참여하여 18일은 近思錄, 19일~22일은 이한응이 自編한 續近思錄을 강독하였다. 특히 1857년의 강회에서는 훈장 이한응의 자편 교재를 활용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3) 병산서원

표 12. 병산서원 강학 관련 자료

분류	제목	연도	수록처	간행처
規約	院規(書院規範 中)	미상	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	국사편찬위원회
規約	院中可行條件 (屏山書院記事 中)	1678~1679	古文書集成 2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講案	居齋案	1781~1782	古文書集成 2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講案	講案	1854	古文書集成 2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 院規

이 원규는 임고서원의 書院規範에 수록된 것으로, 서원의 운영과 원임의 선발, 유생 공궤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상시 공궤하는 유생은 5인, 饌價로는 매달 2石 5斗씩 1년에 30石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만약 유생이 모이지 않아 비축미가 생기더라도 절대로 다른 용도에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8. 권오영, 「19세기 영남유림의 강회와 학술활동」, 『조선시대 사회의 모습』, 집문당, 2003, 229쪽.

69. 같은 책, 같은 곳, 각주 38.

(2) 院中可行條件

院中可行條件은 「屏山書院記事」안에 享禮聚士改規通文, 廟內儀節, 院事節目 등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屏山書院記事」는 1718년에 원장 李浹이 서원의 재정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여 새로 만들면서 작성한 것으로, 院中可行條件은 그 卷首에 실려 있다. 李浹은 1717년 봄, 원임들과 함께 서원에 소장된 낡은 서적을 열람하다가 ‘書院學規’ 1책과 낱장으로 된 ‘院中可行條件’을 발견하였는데, 그 중 원중가행조건은 재정에 대한 규정으로 柳世翊이 원장으로 있을 때(1678~1679) 지은 것이었다. 이에 이를 새로 장책하여 「屏山書院記事」 권수에 수록하고, 常目之資로 삼는다고 하였다. 書院學規는 1705년 원장 權泰時가 지은 것으로 그 발문에 ‘이 학규는 죽계, 도산, 천곡 각 서원학규에서 취하여 본원의 학규로 삼은 것이다’라고 쓰여 있었다고 하는데, 그 학규는 전하지 않아 서원규범에 수록된 원규와 같은 내용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원중가행조건の内容은 유생 공궤와 향사 시 재정 운영, 노비추쇄 등에 관한 것이다.

원중가행조건에 따르면, 본래 원규에는 유생 5인을 상시 공궤하되 2월부터 8월까지 朝夕으로 각 米 1升, 9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朝夕으로 각 米 7合으로 합 21石, 饌價는 매 월 2石 5斗씩 모두 皮穀으로 78石 6斗를 1년의 공궤 비용으로 규정하였는데, 이후 다시 立議를 만들어 4월부터 7월까지의 하인들의 농사를 위해 방학하고, 방학 4개월 간의 공궤 비용으로는 50석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서원 경작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유생의 거재 비용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할 걱정이 생기자 다시 규례를 정하여 매년 추수하는 200石 중 60石을 유생 공궤 비용으로 별도 배정하도록 하였다.

(3) 居齋案

거재안은 1781년부터 1782년까지 한 차례의 통독과 두 차례의 거재에 대한 기록으로 참여자의 명단 중심으로 기록한 講案류 자료이다. 1781년의 통독은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원장 柳宗春의 주도 하에 총 107명이 참여하여 대학을 통독하고, 유종춘이 통독회의 전말을 기록한 屏山書院通讀案序와 참여자 명단인 通讀時會案을 수록하였다. 서문에 의하면 강학의 절차는 相揖禮-敬讀(백록동규)-謁廟-通讀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소수서원과 도산서원의 강학 절차에 없는 謁廟가 들어간 점이 특이하다. 통독의 방법은 청량강의와 마찬가지로 한 장씩 읽고 강론과 토론을 거친 뒤 다음 장으로 이어졌다.

나머지 두 차례의 거재는 18세기 소수서원의 거재와 같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개설된 三冬居齋이다. 두 차례 모두 10월 16일~12월 15일까지 보름씩 4巡으로 나누어 윤번으로 시행되었으며, 순마다 적게는 8명, 많게는 17명까지 참여하여 원규에 규정된 常供 인원을 초과하고 있다. 1781년에는 총 45명, 1782년에는 46명이 참여하였으며 각 居齋案에 자, 생년, 각자 독서한 서책과 함께 명단을 수록하였다.

(4) 講案

강안은 1789년 2월 1일과 4월 2일 두 차례의 考講 기록이다. 2월에는 講生 41명과 동몽 22명, 4월에는 講生 25명과 동몽 20명이 講한 서책의 범위, 성적, 자, 생년 등을 기록하였다. 2월의 동몽은 고강 기록 없이 명단과 생년만 기록하고, 4월에는 모두 자, 생년은 기록하지 않았다. 고강 서책으로는 사서삼경과 소학이 보인다.

4) 도동서원

표 13. 도동서원 강학 관련 자료

분류	제목	연도	수록처	간행처
規約	院規	1604	寒岡續集 권 4	-
序	育英齋序	1788	道東書院誌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規約	育英齋完議	1787	道東書院誌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規約	育英齋節目	1787	道東書院誌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規約	居接錄	1788. 4/ 1789. 5	道東書院誌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規約	鄉中改完議	1789	道東書院誌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規約	(鄉中改)節目	1789	道東書院誌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기타	道東書院示居接儒生	1631	東溟集 권 3	-

(1) 院規

도동서원 원규는 서원의 주향인 한훤당의 외증손 寒岡 鄭逵가 1604년에 작성한 것으로, 16세기 원규에 비해 강학에 대한 조항이 매우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謹享祀, 尊院長, 擇有司, 引新進, 定坐次, 勤講習, 禮賢士, 嚴禁防’이라는 8개의 강령 아래 해당 내용을 상술하고 있다. ‘인신진, 정좌차, 근강습’에서는 유생의 선발 방식 및 강학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였다. 유생의 선발은 매년 춘추 향사일에 유생들이 천거하면 의논을 거쳐 선발하되 천거한 사람의 명단도 명부에 함께 기록함으로써 향후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실제로 입원록⁷⁰에는 원임이나 공사원 등 천거인의 명단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천거인은 보통 1명, 많게는 3명에서 5명까지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다. 천거 대상은 ‘20세 이상 학행이 있는 자, 사마시나 향시 입격자, 재주와 행실이 뛰어난 자’로 규정하였으나 이하의 세주에 ‘대개 학행의 성취가 어떤지를 살필 뿐, 어찌 과거 입격 여부를 따지겠는가’라고 하여 과거 입격 여부보다는 학행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또 연령에 따라 입학생의 거주공간과 교육과정 및 학습방법에 차이를 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처음 배우는 어린 아이나 20세 이하는 양몽재에 입학한다’는 대목에서 도동서원의 학생은 20세 이상의 유생과 20세 미만의 동몽으로 구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거주공간 뿐 아니라 부과되는 교육과정과 학습방법에도 차이가 있었다. 유생은 경전·성리서·역사서·자서·문집을, 양몽재생은 소학을 읽도록 하되, 유생에게는 표준화된 학습량을 부과하지 않고 능력에 따라 각자의 진도에 맡긴 반면[任其所讀], 양몽재생은 소학을 암송[誦習小學]하게 함과 동시에 철저한 계획에 따라 학습과정을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70. 「入院錄」, 『道東書院誌』, 70~119쪽.

과거공부에 대해서는 ‘서원에 입학한 선비는 과거공부를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과거공부에 마음이 완전히 쏠리지 않고 위기지학에 마음을 기울이도록’ 경계함으로써 서원에서의 과거공부를 소극적으로 인정한 퇴계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또 勤講習 조항 아래, 後接禮나 歸家禮 때 음식물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소수서원의 파접례와 같은 것으로, 파접 때마다 관에서 보내온 술과 음식으로 성대하게 연회를 열었던 소수서원의 파접례와 대조되는 대목이다.

(2) 育英齋序·完議·節目

育英齋는 18세기 후반 현풍현에서 설치한 것으로, 도동서원에 직접 속해 있던 것은 아니지만, 육영재의 학은 대부분 도동서원의 구성원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며, 1789년 완의에 ‘校院’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향교도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育英齋序는 1787년 현풍 현감으로 부임한 趙廷獻이, 전임 수령 金光泰가 육영재를 창설한 뜻을 이어 1788년 2월에 太古軒에서 백일장을 개설하여 15인을 뽑아 육영재에서 거접을 시작하면서 작성한 것이다.

완의와 절목은 한 해 전, 1787년 3월 초4일에 訓長 郭漢相 등 3인과 接儒 金洪器 등 15인에 의해 만들어졌다. 완의의 주 내용은 거접 유생과 임원 선출에 관한 것으로, 거접 유생은 官에 품의한 뒤 백일장을 개설하여 15인을 선발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고, 임원은 파접 시에 접 중에서 천거하여 뽑도록 하였다.

절목에 따르면, 거접은 매년 3월 초 1일에 개설하며, 거접 유생의 선발은 관에 품의하여 백일장을 설치하고 15인을 뽑되 詩에서 11인, 賦에서 4인을 뽑도록 하였다. 임원은 파접 시 접중에서 뽑되 뽑힌 사람이 다음 해 백일장에서 선발되지 못하면 거접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훈장 외에 他鄉員은 공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접 중의 부조에 대한 규정도 있는데, 문과와 생원 진사에게는 5貫錢, 무과 출신에게는 2貫錢씩 부조하고, 그 외에는 鄉中에 큰일이 있더라도 절대 육영재의 재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다. 그 외 육영재의 회계 운영과 문서출납에 대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3) 居接錄

거접록은 1788년 4월과 1789년 5월 두 차례의 거접에 참여한 유생들의 명단을 자, 생년과 함께 기록한 講案류이다. 1788년에는 14인, 1789년에는 16인이 참여하여 절목에 규정한 인원수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참여자는 曹씨 1인을 제외하면 모두 郭씨와 金씨이다.

(4) 鄉中改完議·節目

이 완의와 절목은 1789년 8월에 이전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만든 것이다. 이 완의와 절목에 따르면, 육영재의 재정은 그다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였던 것 같다. 이전 절목에서 1년에 한 번씩 개설하기로 했던 거접을 式年에 한 번으로 줄이고, 육영재의 재정을 鄉中이나 校院의 일에 범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 등, 재정 관리에 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외, 金世濂이 현풍현감 재직 시(1631) 도동서원 거접유생에게 보낸 시에 따르면, 17세기 초에도 도동서원에서 거접이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옥산서원

표 14. 옥산서원 강학 관련 자료

분류	제목	연도	수록처	간행처
規約	院規	미상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規約	立議	1618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規約	完議	乙亥(1755?)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講案/節目	入學記	1649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講案	講紙	1802. 8. 17 1817. 1. 5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講案	講案	1813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規約	山堂居接騰錄	辛卯 2. 16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강학재정	立議	甲午 2. 15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기타	年譜	1582	惺齋集	-
기타	年譜	1607	黔澗集	-
기타	會海隱姜先生于玉山書院講太極圖西銘 玉山講義及仁說敬次先生韻	1818	果齋集 권1	-

(1) 院規

옥산서원원규는 백운동서원원규와 이산원규를 저본으로 작성된 경주부의 서악서원원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총 17조 중 5조는 이산원규를, 7조는 백운동원규를 그대로 따르고, 나머지 5조에 몇 가지 내용을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그 중 입원자격은 백운동원규를 따라 사마시나 초시 합격자를 우선으로 하고, 학문에 뜻을 두고 조행이 있는 자는 입원을 허락한다고 하였으나, 18세기 후반 유생 선발은 합격자가 아닌 경우 薦主의 천거와 考講에 의해 엄격하게 이루어졌다. 유생의 명단을 기록한 新薦에 따르면, 합격자의 경우 ‘入格 혹은 入格別薦’이라 기록하고, 합격자 외에는 薦主의 성명과 증용, 대학, 소학, 가례 등의 고강 결과를 ‘畢講’이라 기록하고 있다.⁷¹ 이를 통해 옥산서원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학문적 소양을 지닌 사람만을 원생으로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원임 구성도 백운동원규를 따라 院長과 院貳 체제로 규정하였으나, 서원 소장 고문서에는 그 외에도 直日, 曹司, 刊任, 公事員, 典穀 등이 확인된다. 이 중 간임은 서책 인출 및 서원중수를 맡은 소임이며, 공사원은 원임의 선거인이자 유생을 取士하여 유안에 올리는 추천인으로 서원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외에 서원재산의 보존관리 및 원내 질서유지와 기강을 세우기 위한 원내 상시출입, 형벌의 집행, 射侯遊宴 등을 엄금하는 조항이 있고 또한 입원생, 재임의 위법 과실에 대한 경계조항도 있다.

71. 「新薦」, 『玉山書院誌』, 672~676쪽.

(2) 立議

이 입의는 1618년 10월 7일에 작성된 것으로, 유생 선발, 院屬人의 침책 및 院案에 있는 유생을 강제로 鄉任에 勒定하는 것에 대한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유생 선발은 매년 大享 때 新進을 천거하여 可否의 의론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考講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3) 完議

이 완의는 乙亥년 2월 13일, 당시 任司의 해이로 인한 여러가지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유생 선발, 齋宇의 보수, 刊所 穀物의 관리, 회계 운용, 노비 추쇄 등 주로 재정 운영에 대한 폐단을 지적하고 있다. 그 중 첫째 조항에 유생 선발의 폐단으로, 중용, 대학, 소학, 가례[庸學學禮]를 考講한 후에 儒籍에 이름을 올리기로 한 舊法이 해이해져, 고강 시 사사로이 청탁하는 것을 능사로 여기는 습속을 지적하며, 이후로는 치졸하게 청탁하지 못하도록, 원장이 고강할 서책의 章을 직접 추첨하여 堂中에 보여준 뒤 應講하게 하여 誤讀하거나 文意를 해석하지 못하는 자는 엄격히 출척하여 입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4) 入學記

입학기는 1649년 10월에 개설된 옥산서원의 거재에 대한 기록이다. 5명씩 6개로 번[學]을 나누어 5일간 윤번 거재[輪回入學]를 시행하였으니, 이 때의 거재는 30일동안 개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두에는 1學에서 6學까지 각 5명씩 명단을 수록하고, 말미에는 거재 시 지켜야 할 14개의 조례를 절목의 형식으로 부기하였으며, 마지막에 원장(鄭)과 유사 3인(孫·李·權)이 서압을 하였다. 절목의 주요 내용은 5員이 일시에 와서 5일간 입학할 것, 제자백가 중 각자 형편에 따라 독서하되 밤낮으로 부지런히 하여 낭비하는 시간이 없도록 할 것, 독서 뿐 아니라 律身修行에도 힘쓸 것, 매일 朝夕으로 食點錄에 착명할 것,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리 식점록에 5일치를 착명하여 5일간 머무른 것처럼 속이는 자는 損徒할 것 등이다. 또한 불참자의 경우 횡수에 따라 처벌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였는데, 5회 불참하면 黜院하되 單刺를 올려 미리 사유를 고하면 削去, 4회는 削去하되 단자를 올리면 削籍, 3회는 削籍하되 단자를 올리면 損徒, 2회는 損徒하되 단자를 올리면 永損하도록 하였으며, 단자를 올릴 경우에도 무조건 처벌을 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긴요함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講紙·講案

講紙는 1802년과 1817년, 講案은 1813년의 유생 고강에 대한 기록이다. 모두 중용, 대학, 소학, 가례의 고강 결과를 通略粗로 평가하고 과목마다 평가 아래에 서압을 하였다. 평가 과목이 乙亥년 完議에 있는 유생 선발 시 고강 과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서원 강학 중 이루어진 평가가 아니라 입원 시 유생 선발 시험에서 행한 평가로 보이며, 서압은 薦主 혹은 試官의 것으로 추정된다. 4과목에서 모두 粗 이상을 맞으면 합격시켰다.

(6) 山堂居接膳錄

山堂居接膳錄은 옥산서원의 거접을 산당으로 옮겨 시행하기로 하면서 辛卯년 2월 16일에 작성한 것이다. 서두에, 원래 전 해 가을 문회를 열어 매년 서원에서 거접을 열기로 정하였는데, 해마다 서원에서 거접을 하게 되면 그 폐해를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다시 재회를 열어 산당으로 옮겨 개설하기로 하였음을 밝히고, 이하에 절목의 형식으로 거접 시 지켜야 할 규례를 열거하였다. 절목의 내용은 서책 관리 외에 음식, 종이, 南草 등 주로 거접 유생의 공궐에 대한 내용을 매우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원의 서책을 밖으로 가지고 가지 말 것, 正草紙는 2절지, 敦厚白紙는 4절지로 각각 장씩 지급할 것, 술은 1石米를 담아 入接과 罷接禮에 쓸 것, 거접을 위한 양식은 院儒에게만 공급할 것, 朝夕 공궤 시 사람마다 상차림[排盤]이 서로 다른 폐단이 심하므로 이후로는 展布로 대신하고 식기와 수저는 각자 준비해 올 것, 魚饌은 生鹽魚 중 한 가지씩 공궤하고 여력이 있으면 건어물과 미역도 겸용할 것, 南草는 入接일에 인원의 다소에 따라 분급하고 이후에는 절대 다시 찾지 말 것, 醬은 미리 기한에 맞춰 산당에 담가 둘 것, 僧徒들에게 菜價로 租 3石과 鹽 5斗를 지급할 것 등이다.

그 중 서책 관리를 첫머리에 언급한 것은, 당시 서원의 거접 외에도, 개인적으로 서원의 책을 대여해가 인근 山寺에서 독서, 제술하는 사례가 많아 서책 분실이 잦았기 때문이다.⁷² 또 종이 지급에 대한 조항을 통해, 거접 시 제술에 쓰이는 종이를 서원에서 직접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개접례와 파접례에 쓸 술을 서원에서 한 섬씩 직접 담그는 것과 남초를 분급하는 것은 소수서원의 사례와 비교할 때 흥미로운 대목이다. 소수 서원에서는 1789년 통독 시에 ‘체모에 흠이 된다’고 하여 서원에서 술, 담배의 제공을 금지하기도 하고, 1826년 순제에서는 수령이 1등에게 연초를 상품으로 주기도 하였다.

(7) 立議

이 立議는 甲午년 2월 15일에 작성된 것으로, 근래 해마다 거접이 성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점차 거접에 배정된 재용을 다른 용도에 移用하거나 取利는 등 폐단이 늘어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재회를 열어 거접 재정에 대한 규정을 다시 정하면서 작성한 것이다. 春秋 移下錢 50兩 중 10兩은 지난 해 추수 때 의논하여 減除하기로 하고, 나머지 40兩錢 30石穀은 거접 비용으로 책정하였으니, 절대로 대여하거나 다른 용도에 移用하거나 取利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문집에서, 1582년 겨울에는 琴蘭秀가 孫曄, 李景海 등과 함께 옥산서원에서 晦齋의 글을, 1607년 8월에는 趙靖이 여러 선생들과 옥산서원에서 주자의 옥산고사를 모방하여 태극도설을, 1818년에는 成近默이 강필효를 모시고 인근의 수령 및 영남의 士友들과 옥산서원에서 태극도설, 서명, 옥산강의 등을 강론했다는 기사도 확인된다.

72. 「完議」, 癸酉 2월 초 10일, 『玉山書院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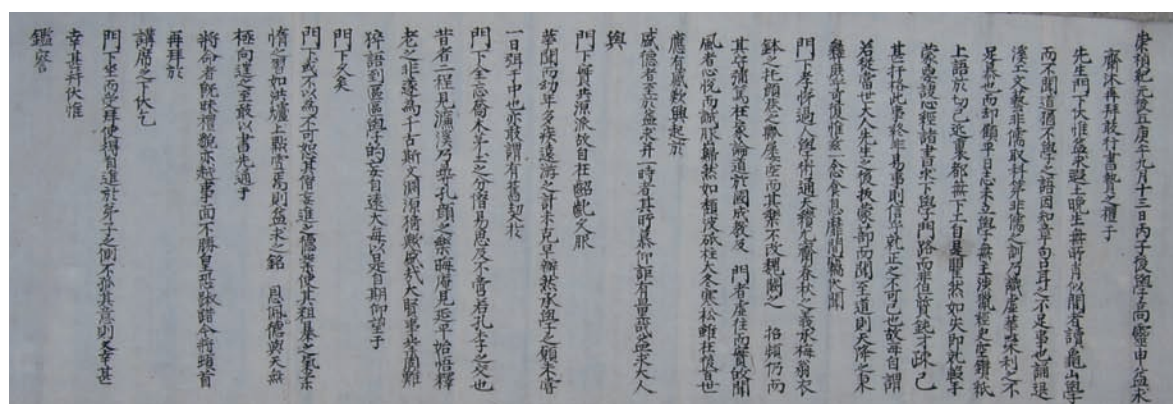
6) 돈암서원

표 15. 돈암서원 강학 관련 자료

분류	제목	연도	수록처	간행(소장)처
規約	靜會堂立議	1582 이전	靜會堂誌/ 黃岡先生實記 4	국립중앙도서관
規約	上同春堂	1669. 10. 17	明齋遺稿 권9	-
規約	立議	1870	靜會堂誌	국립중앙도서관
規約	講規	1870	靜會堂誌	국립중앙도서관
規約	節目	1862. 12	靜會堂誌	국립중앙도서관
강학재정	學稷節目	1886. 4	遜巖書院誌	돈암서원
강학재정	鳩財節目	1903. 10. 1	遜巖書院誌	돈암서원

(1) 靜會堂立議

돈암서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靜會堂은 1557년⁷³ 김장생의 아버지 黃岡 金繼輝가 孤雲寺에 마련한 講學所이다. 이 입의는 정회당의 운영을 위해 김계휘가 작성한 규약으로, 靜會堂誌와 黃岡先生實記에 수록되어 있다. 총 11개 조항으로 주요 내용은 입학 자격과 재정 운영에 대한 것이다. 입학 자격은 초시 입격자와 文理解通者를 기준으로 하고 他官人은 3인으로 제한하였으며, 初入者는 반드시 保學人의 천거를 받도록 하였다. 임원은 유사 2인, 書記僧과 庫直僧 각 1인을 두어 1년에 한 번씩 교체하도록 하고, 서책의 유출 및 여색과 잡기도 엄금하고 있다. 마지막 조항에는 ‘初入時 관례에 따라 摯禮를 행한다’고 하여, 다른 서원의 규약에서 볼 수 없는 ‘摯禮’라는 독특한 의례가 언급되고 있다. 摯禮는 조선시대 사제지간의 연을 맺을 때 행하는 의례의 한 절차로, 일종의 강학 의례라고 볼 수 있다. 정회당이나 돈암서원에는 摯禮에 관한 문서가 확인되지 않지만, 충남 연기군의 임헌회를 모신 덕성서원에 ‘書贊’라는 문서가 남아 있어 摯禮의 절차와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73. 『年譜略』, 『黃岡先生實記』1.

이 書贊은 1870년에 申益求라는 사람이 임헌회에게 제자의 예를 청하면서 올린 것이다.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은 이처럼 ‘書贊’을 올리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예물과 함께 書贊을 올리면 스승은 그 글을 통해 상대의 수준과 뜻을 살피고, 동시에 자신의 분수와 학덕, 의리를 헤아려 감당할 수 있는지 따져본 뒤에 제자로 받아들일지의 여부를 결정하였다.

이 글에서 신익구는 첫째, 자신이 설립한 공부의 방향을 말하고, 둘째, 현재 자신의 공부가 처한 한계와 임헌회에게 就正을 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고백하였으며, 셋째, 임헌회 문하의 학문적 성과를 언급하고, 마지막으로 스승을 만나 학문과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중국 선현의 사례를 예로 들며, 거친 기질과 유약한 마음의 습성을 고칠 수 있도록 제자로 받아주길 간곡히 청하고 있다.

(2) 上同春堂[己酉]

靜會堂立議 외에 돈암서원의 원규나 학규는 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1669년 10월 17일 명재가 동춘당에게 보낸 편지에 학규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있는데, 우암, 초려, 신독재의 견해와 정회당 규약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보아, 돈암서원 학규에 대한 논의로 추정된다. 학규 중 쟁점이 된 것은 묘정에 설 때나 당상에 앉을 때 혹은 분향례 때의 위치를 나이, 작위, 품계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또 학규에는 율곡의 은병정사학규에 따라 삭망분향을 해 뜨는 시각에 하며, 분향 전후에 재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 학규에 입학자는 원적에 올리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원적 작성이 중단된 것, 학규에 원근에 관계없이 입학을 허락하되 원적에 이름만 올리고 왕래하지 않는 자는 입학을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 원적에 이름만 올리고 멀리 있어 왕래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적에 올리지 말자는 것, 귀천에 관계 없이 입학을 허락한다는 규정에 대해 정회당의 예를 따라 서족, 서열, 양민 중 생원진사는 사족과 함께 나이 순으로 원적에 기록하고, 그 외는 각각 줄을 달리 하여 기록하자는 것, 원적에 올릴 때 40세 이상은 소학, 가례, 사서를 시험하여 文義를 해석하지 못하면 올리지 말자는 것 등이다. 위치에 대해서 명재는 70세 노인을 가장 상위에 두고 이하는 관작 순으로 하며, 유생은 나이순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돈암서원 학규는 은병정사학규를 따라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학규 제정 시 주요 쟁점이 되는 사안 등을 살필 수 있다.

(3) 立議

이 입의는 1870년 金志洙의 주도 하에 정회당의 遺址에 새로 堂을 짓기로 하고 講學契를 만들면서 작성한 것으로, 김계휘가 지은 舊立議를 그대로 기술한 뒤 時宜에 따라 가감한 내용을 부기하였다. 구입의와 비교하면, 입학 자격은 나이와 귀천, 他鄉과 本鄉을 따지지 않고 학문에 뜻이 있는 자는 받아들이며, 비록 文理該通 하더라도 수신에 근면하지 않는 자는 허락하지 않도록 하였다. 구입의에 규정한 유사 2인은 掌議, 有司, 司貨로 바꾸고 장의는 계의 모든 의론을 주관하고, 유사는 서책과 문서를, 사화는 재정을 담당하게 하였다. 또 서기승과 고직승 각 1인 대신 守直僧 1인을 主僧이 차정하여 서책 등의 물품을 유사와 함께 관리하도록 하였다. 마지막 摯禮에 대한 규정은, 계를 설립한 본의는 오로지 강학에 있으나, 재력이 있어야 堂을 짓고 강학할 수 있으니, 모든 계원으로 하여금 摯禮에 올리는 예물 대신으로 약간의 재정을 보태도록 하고 있다.

(4) 講規

이 강규도 1870년 講學契를 만들면서 작성한 것이다. 沙溪가 중시했던 가례와 소학, 우암이 중시했던 중용과 대학을 위주로 매년 9월 20일에 모여 강학하도록 하였다. 절차는 奉審 후 講長의 자리를 남향으로 설치하

고 강장의 자리 앞에 書案을 두어 백록동규 등의 서책을 놓고 상읍례를 행한 후 백록동규를 敬讀한 뒤 유생이 차례도록 강장에게 나아가 進講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에는 수창시를 지어 기록에 남기도록 하였다.

(5) 節目

이 절목은 1862년에 작성된 것으로, 유생 및 원생의 課講, 액내외 원생 및 保奴의 액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유생의 課講은 이전 거재 시 이미 정한 조례가 있지만 재정상 그대로 따르기 어려우니 춘추 제향이 있는 兩丁日과 四孟朔에만 東齋 齋任이 통문을 돌려 會講하도록 하였다. 원생은 향교의 서재생과 같이 군역 면제를 조건으로 願納한 사람들로, 이들의 課講은 落講자를 추려 군역에 충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원생의 과강은 매달 시행하면 번잡스러우니 춘추로 동재 재임과 부근 유생이 날을 정하여 회강하도록 하였다. (액내)원생의 액수는 百憲撮要에 의거하여 50명으로 한정하고, 액외는 10명으로 한정하여 액내에 껴수가 생길 경우 보충하도록 하였으며, 保奴의 액수 역시 원생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다.

(6) 學稷節目

學稷節目은 1886년 4월, 관찰사 沈相薰이 재정을 마련하여 열읍 향교에 學稷을 설치하고, 특별히 돈암서원에는 300官廩을 마련하여 학계를 설치하고 강학 비용으로 삼게 하면서 작성한 절목이다. 절목에는 학계 설치 후 매년 한 차례씩 향음주례와 강회, 사상견례를 시행하도록 하고, 원금은 매년 식리를 놓고 강학 비용은 그 이자만으로 충당하여 원금을 보존하도록 하였으며, 매년 이자 중 남은 돈이 있으면 유실된 서책을 보충하도록 하였다.

(7) 鳩財節目

鳩財節目은 수령 李重翼이 1903년 8월 서원 제향에 참여하고 제생들과 강학한 뒤, 재정이 없어 돈암서원의 강학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겨 강학 비용을 마련해주면서 작성한 것이다. 같은 해 10월 俞一濬은 그 전말을 기록하여 ‘題凝道堂壁右’라는 제목으로 응도당의 벽에 걸어 두었다. 李重翼은 이 때 結卜口 중 2口를 돈암서원에, 5口를 향교에 소속시키고, 還米色落 70斗 중 30斗는 서원에, 40斗는 향교에, 儒錢 1500兩 중 500兩은 서원에, 1000兩은 향교에 소속시켜 강학 재정으로 삼게 하였다.

4. 결론

이상에서 서원 강학 관련 자료의 유형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첫째, 규약류 자료를 통해서는 학파, 당파별 원규의 계승과 절목에 나타난 원규의 변용, 서적의 간행과 유통이 교육과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하였다. 원규는 대개 당색에 따라 형식적으로 계승되는 경우가 많은데 원규와 실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원규의 변용이 절목이나 완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원규에서는 백운동서원의 입원 기준을 따랐으나 실제에서는 천거와 고강의 엄격한 선발 절차를 거쳤던 옥산서원, 斯文立議에는 상시 거점 인원을 10명으로 규정하였으나 18세기 절목에서 15명, 20명으로 인원을 늘리고, 주세붕의 원규에서 입격자 위주였던 선발 기준이 1719년 완의에서 罷格으로 확정되는 소수서원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경상감영에서의 서적 간행과, 정조의 서적 반사가 소수서원과 도산서원의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친 사례도 확인하였다. 그 외 돈암서원의 학규 논의를 통해서는 원규나 학규가 형식적 계승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입각한 철저한 논의와 검증을 거치는

과정 및 학규 제정 시 주요 쟁점이 되는 사안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강학 시행 기록 중 강안류 자료를 통해서 참여자의 규모와 소임 및 고강성적, 일기류 자료에서는 朝食-相揖禮-敬讀-通讀-개별 讀書-背講-酬唱詩 등으로 이루어지는 강학의 절차와 시행 방법 및 서원에서의 하루 일과, 강록류 자료에서는 통독 시 토론 방법과 문답의 수준, 토론 시 훈장의 역할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강학 의례에서는 홀기를 갖춘 정읍례나 상읍례의 정식적 의례 외에도 경독, 개접례, 파접례, 수창시 등 관습적 의례를 살펴보았다. 소수서원과 도동서원에서는 개접례나 파접례 시 제공되는 관의 지원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옥산서원에서는 아예 서원에서 입접례나 파접례에 사용하기 위해 쌀 한 섬씩 술을 담그는 사례도 볼 수 있었다. 특히 돈암서원의 전신 정회당에 나타난 摯禮는 조선시대 사제관계의 고유한 의미와 특성을 보여주는 강학의례임을 확인하였으며, 소수서원과 정회당에서 강학의 마지막 절차가 수창시로 갈무리된다는 사실은, 조선시대 서원 교육의 본질과 수준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대목임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강학 재정 관련 자료를 통해서 조선 후기 각 서원의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양사청, 강학계 등 강학 전담 재정기구를 설치하여 강학 개설을 시도하고자 했던 각 서원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이 같은 시도는 소수, 병산, 옥산서원의 경우 서원 내부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 돈암서원의 경우 수령과 관찰사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으며, 도동서원의 경우는 관에서 설치한 육영재를 적극 활용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소수서원의 사례에서는 지방관의 물적 지원 및 관과 서원의 밀착 관계가 한편으로는 서원의 강학 기능을 유지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서원을 마치 관아의 부속기관처럼 여겨 과도한 항응과 빈객, 관아의 침탈로 인한 재정난을 야기함으로써 결국 강학 중단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양면성을 살필 수 있었다.

도산서원의 강회일기와 청량강의에서는 강회 시 서원문고의 활용, 국왕의 서적 반사 및 병호시비와 같은 당시 지역사회 이슈가 서원 강학 개설의 계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청량강의는 19세기 영남지역 내 도산서원의 위상을 잘 보여준다.

이 외에도, 본고에서는 활용하지 못했지만 각 서원 관련 인물들의 문집에는 서원 강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들이 비교적 많이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문집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제한된 강학 자료의 한계를 상당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서원 강학활동 사례 연구: 『호계강록』을 중심으로

1. 서론

서원에서 강학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퇴계가 서원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할 당 시부터 서원은 강학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되었고, 그 정신은 서원의 각종 규약에 반영되어 왔다. 그러나 서원 강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서원 연구는 강학활동에 대해서 그다지 활발하게 조명하지 않았던 감이 있다.¹

여기에는 현대 연구자의 선입견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된다. 물론 서원의 강학활동을 추적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이 부족하다는 점은 근본적인 어려움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가중 시킨 데에는 조선 후기 교육사를 정치경제사적 관점에서 조명하려는 경향이 강하여, 강학관련 자료를 발굴하고 정리하려는 노력이 제한되고 그나마 얻은 자료도 한 측면에서 해석하는 요인이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서원의 강학활동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관점부터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새로운 관점이란 우선 서원의 강학활동을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 들어 있다. 서원의 강학활동에 접근한다고 할 때, 현대의 연구자들은 부지불식간에 현대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양식을 염두에 두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안경을 고집하게 되면, 서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강학활동을 시야에서 놓치게 된다. 물론 서원 강학의 핵심은 講規 등에 표현된 것처럼 재생들이 거접하면서 일정한 과정을 이수하는 활동이었지만, 이 외에도 학자의 강의, 학자와 유생들의 집중세미나, 선생과 학생의 질의응답, 그리고 편지교환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講義』, 『講錄』, 『問答』, 『問目』, 『書』 등으로 남겨졌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서원 강학자료를 새롭게 발굴하여 정리하는 노력은 물론이고, 그 동안 확보되어 있는 자료도 포괄적인 관점에서 다시 읽어내는 노력이 요청된다. 이때 이러한 노력은 서원의 강학활동을 유형화시키는 일과 표리관계를 이루면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자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강학에 포함되는 여러 유형에 대한 이해가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서원의 강학활동을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당시인의 교육적 관심을 재구성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 말은 역사적 현실과 상관없이 당시인들의 주장을 찬양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현대의 연구가 서원을 지나치게 정치경제적 층차로 환원시키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문제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역사적 현실에는 정치경제적 층차 말고도, 다양한 층차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당시인의 교육적 관심을 통해서 현대 연구자들이 포착하지 못하는 새로운 교육문화적 층차를 발견할 수 있다면, 서원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보다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조선 후기 교육사가 구체적인 맥락을 실증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또 그러한 상태에서 서원을 조명해 왔다면, 이러한 접근의 필요성은 말할 나위도 없다.

1. 정만조는 2000년대 이전의 서원연구 동향을 정리하면서 80년대 후반부터 정치사회적 연구가 단연 활기를 띠어 왔다고 지적한다.(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조선시대사 연구총서1, 집문당, 1997, pp.329~353. 참고) 2000년대 이후 서원의 강학활동에 주목한 연구들은 뒤의 참고문헌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虎溪講錄』²에 나타난 강학의 유형과 강학의 정신을 조망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³ 『호계강록』은 1856년에 호계서원에서 이루어진 강회를 생생하게 묘사한 자료이다. 호계강회는 호계서원 관련자에 한정되지 않고 안동 인근의 학자가 함께 참여한 대규모의 행사였지만, 조선 후기 서원 강학활동의 꽃으로서 강학활동의 구체적인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판단된다. 어려움 속에서 강회가 개설되는 과정, 개방적이고 진지한 강학의 모습 그리고 장석 유치명의 관후한 태도에 나타나는 교육적인 배려 정신은 호계강회라는 교육공간을 19세기 중반의 조선 상황에서 새롭게 부각시켜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호계강록』에 기록된 내용은 이 자료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강회에 참석하고 있다는 착각마저 들게 한다. 이하의 내용은 이러한 연구자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당시의 교육공간을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논의순서는 호계강회의 개황, 호계강회의 강학유형 그리고 호계강회의 강학정신을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2. 호계강회의 개황

1) 호계강회의 개설 배경

(1) 지방관의 교육진흥책

호계강회는 1856년 11월에 호계서원에서 진행된 강회를 말한다. 『호계강록』의 서론 부분에는 강회가 개설되는 배경을 알려주고 있는데, 우선 눈에 띄는 내용은 ‘丙辰(1856)五月 巡相申公錫愚 憂學政廢弛 行關列邑 令選士講學’이라 한 기록이다. 이 기록에 따르면 호계강회가 개설되는 직접적인 계기는 서원의 자체적인 발의가 아니라, 경상감사 신석우(海藏, 1805~1865)의 학정쇄신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신석우가 경상감사로 부임한 것은 1855년 10월 6일로 확인되는데⁴, 부임 초부터 지역의 강학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인 셈이다. 호계강회는 이러한 분위기에서 시작되었다.⁵

그러나 호계강회는 감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열리지는 못했다. 감사의 관문은 5월에 안동부사 趙在應(1803~?)을 거쳐 호계서원에 도착했지만 응답하지 못했고, 8월에 재차 관문이 도착하였을 때에는 前參奉 柳致皞(東林, 1800~1862) 등을 책임자로 선발하여⁶ 강회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당시 지역 유림사회 내부

2. 『虎溪講錄』의 표제는 『虎溪講錄 附高山講話私劄』로 되어 있지만, 이 글에서는 간단히 『虎溪講錄』이라 하였다. 이 자료는 한국학 대학원에서 입수한 ‘安東法興 固城李氏古文書’에 들어 있다. 이 글에서는 2007년에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영인한 『조선시대 서원 일기-원문-』을 활용하였는데, 여기에는 講學日記로 분류해 놓았다. 그러나 이 책에 수록된 『호계강록』은 착간 부분이 있다. p.426은 p.428 다음에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호계강록』의 내용 가운데 장석 유치명과 관련된 답문은 그의 문집 『定齋文集』에 발췌해서 수록되어 있다. 卷11 ‘答虎溪講會諸生問目’이 그것이다.

3. 권오영은 「19세기 안동유림의 학맥과 사상」에서 『호계강록』에 실린 호계강회와 고산강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한 바 있고, 전병철은 「대산학파의 고산정사 강회와 성리설 강론」에서 1811년에 이루어진 「고산강의」를 연구하였다. 이 글은 이 연구들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각 연구의 출처는 참고문헌에 수록하였다.

4. 『哲宗實錄』 卷7, 6年 10月 6日, 以申錫愚爲慶尙道觀察使.

5. 1856년에는 경상도에 큰 홍수가 일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학정쇄신정책은 계속 진행되었다.(이관성, 「海藏 申錫遇의 생애와 문학론」, 『한문학보』 제17집, 우리한문학회, 2007. 김명호, 「海藏 申錫遇의 『入燕記』에 대한 고찰」, 『고전문학연구』 제32집, 한국고전문학회, 2007.)

6. 유치호를 훈장으로 선임하면서, 幼學 權璉夏, 金弘洛을 直月로 임명하였다.

문제로 인하여 진행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9월에는 감사가 선비들을 모아 樂育齋에서 회강하도록 하였지만, 이 지역의 선비들은 참가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강회를 열라는 감영의 요구는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10월 보름에 장석 전참판 柳致明(定齋, 1777~1861)이 臨川書院에서 여러 선비와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부터 구체적인 강회 개설계획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 회의 결과 11월 10일에 강회를 개설하기로 결정하였고, 관련 내용을 지역에 통문하여 준비에 들어갔다.

호계서원에서 강회가 개설되는 일련의 과정은 당시 강회를 여는 일이 상당한 애로가 있었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의지가 강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지로 신석우는 향교교육도 장려하여 같은 해에 崔孝述(止軒, 1786~1870)로 하여금 『心經』을 강론하게 했고⁷, 관련 자료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이 시기에 다른 지역에서도 강회가 개설되도록 지원한 것 같다.

(2) 유치명의 교육적 관심

호계서원 강회가 몇 차례에 걸친 감사의 독촉 과정에서 어렵게 개설되기는 하였지만, 서원 관계자의 의지가 약했던 것은 아니다. 특히 개설 과정에 촉진자 역할을 했던 유치명은 서원의 강학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 인물이었고, 호계강회 개설 논의도 그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부터 구체화되었다. 그는 李滉 → 金誠一 → 張興孝 → 李玄逸 → 李緯 → 李象靖으로 이어지는 퇴계학파의 학통을 계승한 학자로서 이상정(大山, 1711~1781)의 학문을 천양해야 한다는 책임의식도 강했다.⁸ 철종이 즉위하자 大山の 享祠를 세워 유교를 숭상할 것을 요청하였던 사례는 그의 사명의식을 잘 보여준다.⁹

이 때문에 그는 서원의 강학활동을 진작시키는 데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것은 1846년에 고산서당에서 강의를 마치고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장면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 道를 강하고 그 사람을 사모하여 제사지내는 것은 학교를 세운 큰 뜻이다. … 대략 1년이나 3년 또는 5년을 정하여 講座를 개설하되, 臨講하는 날에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마친 후에는 3~5일 혹은 6~7일간 자리를 연다면(開筵) 죽히 옛날의 마땅한 뜻을 오늘까지 영구히 드리우는 일일 것이고, 또 인하여 인심을 勸慕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면 斯文을 흥기 시키는 데에 그 방도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나의 구구한 의견은 이와 같은데 여러 사람의 뜻은 어떠한가?¹⁰ 座中이 한결같이 동의하면서 말하기를 ….

그의 이러한 제안은 당시 서원에서 강회를 여는 일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유학 특히 대산의 학문을 진흥시키는 사명감이 반영된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유치명의 제안에 원론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그 일을 추진하는 데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이후 이 지역에서는 10년 동안 대규모의 강회를 개설하지 못한 듯하다. 따라서 이 지역의 사정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호계강회는 유치명이 경상감사

7. 홍원식, 『조선시대 심경부주 주석서 해제』, 예문서원, 2007, p.401. 참고. 『止軒文集』 卷9에 수록된 「心經講錄」이 이 강론의 내용이다. 홍원식은 어느 향교에서 이루어진 강론인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 9월에 낙육재의 회강에서 이루어졌던 강론일 것이다.

8. 권오영, 「19세기 안동유림의 학맥과 사상」, 『조선후기 유림의 사상과 활동』, 돌베개, 2003.

9. 장지연 저, 유정동 역, 『조선유교연원 하편』, 삼성문화문고135, p.456.

10. 「高山講話私劄」…講其道思其人而祭之又設學之大義也 … 約爲一年三年或五年之規爲設講座 臨講之日處誠「祀 祀訖開筵或三五日或六日 足以推古宜今垂之永久 而因得以勸慕人心 興起斯文未必無其道也 區區所見如此 未知於僉意何如也 座中一辭同然曰 ….

의 교육진흥책을 계기로 삼아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서원강회를 개설하고자 했던 자신의 뜻을 강하게 반영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강회 진행 과정

(1) 강회 일정

강회개설 논의 초기에는 11월 10일에 시작하기로 하였지만, 몇 가지 사정으로 며칠 늦어지게 되었다. 훈장에 선임되었던 유치호는 癘患을 이유로 사임의사를 밝혔고, 그를 대신하여 洞主였던 進士 金建壽(1804-1866)를 훈장에 임명하였으나 그도 고사하였기 때문이다. 그 사이 齋有司 李文稷과 朴馨壽는 먼저 講儒들을 데리고 서원에 머물고 있었다.

11월 14일에는 동주가 강회의 훈장직을 수용하고 15일에 享禮를 시행하여 강회가 시작되는 듯 했지만, 이때에도 동주가 庭揖禮를 사양하면서 강회는 지체되었다. 강회가 시작된 것은 司儀 柳致儼이 丈席 柳致明에게 어려움을 호소하자, 그가 유치호를 대동하여 직접 서원에 나가면서부터였다. 호계강회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겪은 후 17일부터 5일 동안 진행되었다. 그리고 강회 후에는 지역 인사가 함께 참여하는 鄉飲酒禮를 거행함으로써 호계강회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2) 강회 목적

호계강회에서 다룬 책은 『심경부주』 1권 전체였다. 그런데 호계강회에서 『심경부주』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 것은 심상한 일이 아니다. 호계강회처럼 대규모의 강회가 이루어진 것은 고산서당강의 이후 10년 만의 일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호계강회가 오랜만에 개설되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유치명과 그 제자들은 어떠한 텍스트를 어떠한 방식으로 강학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였을 것이고, 그 결과로 『심경부주』를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심경부주』는 퇴계가 그 중요성을 인정한 이래로, 퇴계학파는 물론이고 서인계나 양명학계에서도 여러 주석서를 제출했던 책이다.¹¹ 또한 『심경부주』는 조선 후기 서원의 교육과정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특히 퇴계학파에서 그 중요성은 더 컸다.¹²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 이외에도 호계강회가 대산 이상정의 추존 작업과 관련이 있다는 점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대산 이상정은 그 동안 『심경부주』의 주석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송시열의 『심경석의』 대하여 퇴계학파의 입장에서 변론한 『심경강록간보』를 저술하였는데, 이 강회에서 제자들과 함께 대산의 관점에서 『심경부주』에 대한 이해를 정립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이 강회의 목적은 유치명과 그 제자들이 퇴계 이후 지속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이 책에 대해서 의견들을 소통함으로써, 새롭게 교육의 진흥을 꾀하는 데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1. 홍원식 외, 『조선시대 심경부주 주석서 해제』, 한국철학총서27, 예문서원, 2007. 참고.

12. 박종배, 「학규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의 서원 강회」, 『교육사학연구』 제19집 제2호, 2009. 참고.

(3) 참가 인원

호계강회에 참석한 사람은 30여명이 확인된다. 이 가운데 『호계강록』에서 확인되는 선생과 유사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丈席	前參判	柳致明(1717-1861, 80세)
訓長	前參奉	柳致皐(1800-1862, 57세)
洞主	進士	金健壽(1804-1866, 53세)
執禮	前正字	李敦禹(1807-1884, 50세)
司儀	幼學	柳致儼(1810-1876, 47세)
直月		權定夏(1813-1896, 44세), 金弘洛(1817-1869, 40세) 등 2인
直日		李祺稷, 金鎮愨 등 2인
講錄有司		柳致淑, 金毅壽, 柳胥鎬, 金道和, 金斗永, 權世淵 등 6인
(齋有司)		李文稷, 朴馨壽 등 2인

丈席 이하 유사들은 호계강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우선 강회에서 선생의 위치에 속한 인물부터 보자. 장석 유치명은 전체 강회를 총괄하는 책임자였고 다른 학자나 강유의 스승이었다. 그와 함께 선생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訓長 유치호와 洞主 김건수이다. 장석 유치명도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강회를 진행한다고 하면서 두 訓長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¹³ 따라서 선생의 위치에 속한 사람은 장석을 포함하여 3인이 된다.

유사는 조금 복잡한 성격을 갖는다. 우선 유사 가운데 비교적 나이도 많고 강회에서 거의 선생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발견되는데, 執禮 이돈우와 司儀 유치엄이 그들이다. 특히 유치엄은 이하에서 밝힐 것이지만, 호계강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다. 다음으로 直月은 강유 가운데에서도 선배에 속한 사람들이다. 기록에는 권정하만이 직월에 임명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김홍락도 직월의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⁴ 마지막으로 直日과 講錄有司는 유사로서의 담당직책이 부여되어 있지만, 다른 강유와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이들 유사 외에도 미리 강유와 함께 강회를 준비하였던 齋有司 이문직과 박형수도 강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따라서 집례 이하 유사는 14인이 된다.

講儒는 강회에서 주로 進讀과 質問을 하는 방식으로 강회에 참여하였다. 『호계강록』에는 각 장의 독서를 맡은 인물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들만 독서를 담당한 것은 아닌 듯하다. 경우에 따라서 각장의 중간 중간에 진독을 담당한 사람의 이름도 수록하고 있고, 또 서문에서 강유들이 『심경부주』를 돌아가면서 읽었다고 한 것을 보면, 모든 강유들이 진독에 참여했다고 판단된다. 참고로 『호계강록』에 진독자로 명시된 강유를 각 장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3. 이 명단은 원래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원래는 동주 김건수가 훈장으로 임명되었고, 유치호는 이후에 유치명과 함께 참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유치호가 참가하게 되자 『호계강록』에는 이전의 결정대로 유치호를 훈장으로 하고, 대신에 김건수는 자신의 직함대로 동주라고 명시한 듯하다.

14. 처음에 직월에는 권연하가 임명되었는데 상을 당하여 권정하로 대신하였다. 그리고 명단에는 빠져있지만 김홍락도 직월급에 해당되는 인물로 보인다. 김홍락은 권연하와 함께 직월에 선임되었었고, 강록의 본문을 보면 강회에서 다른 선생들 못지않게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心經序	李鍾泰	
贊	金奭洛	
心學圖說	李祺稷	直日
人心道心章	金斗永	講錄有司
上帝臨汝章	權世淵	講錄有司
視爾友君子章	-	
閑邪存誠章	-	
敬直義方章	-	權岾淳(主一無適條)
懲忿窒慾章	柳建鎬	
遷善改過章	-	
不遠復章	柳建欽	
子絕四章	-	
克己復禮章	金漢謨	
主敬行恕章	李宜龍	
中庸天命之謂性章	柳基洛	金養鎮(道鄉鄒氏條) 朴齊學(謹篤是念慮初萌條)
潛雖伏矣章	金弼洛	
*이외의 강유	金鎭萬, 金相鎭, 柳衍文, 權玉淵, 李堦, 李宅進 6인	

이 명단에 따르면 진독자로 명시된 강유는 14인이고 명시되지 않은 강유는 6인이다. 이들을 합치면 총 20인이 되지만, 이 가운데 이기직(직일), 김두영(강록유사), 권세연(강록유사)은 유사명단에서 확인하였기 때문에 실지로는 17인이 된다. 결국 호계강회의 참석인원은 장석 이하 선생이 3인, 집례이하 유사가 14인, 강유 17인 등 총 34인으로 추정된다.

매일의 강회는 새벽에 庭揖禮를 거행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장석이 崇敎堂 두 기둥 가운데 서면 훈장과 동주가 좌우에서 시립하였고, 執禮는 阼階에서 서향한 후 笏記를 외치고 白鹿洞規를 읽었다. 이 때 제생은 정원 아래에 동서로 분립하여 강을 청하였다. 정음례를 마친 후에는 송교당에 강석을 설치하여 동주와 훈장이 자리하고, 집례와 사의 이하는 각자의 자리에 열을 짓고 앉아 강회에 참석하였다. 이 때 장석 유치명은 주로 송교당 옆 主敬齋에 있었던 것 같다. 자리를 잡은 후에는 제생이 돌아가면서 『심경』을 읽고 그 다음 주요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다음 절에서는 『호계강록』 본문에 기록된 이들의 담론을 분석하여 담론의 종류를 추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호계강회의 강학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호계강회의 특징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3. 호계강회의 강학유형

1) 『호계강록』의 담론 분포

『호계강록』의 본문에는 『심경부주』의 각 장마다 참석자들의 문답이 실려 있다. 이 기록은 강록유사들이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누군가가 정리한 결과물일 것이다.¹⁵ 따라서 이 기록 이외에도 다른 문답이 있었고,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애초와는 다르게 수록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최종작성자는 매일 진행되는 담론의 맥을 짚어가면서 가능한 중요한 사항을 수록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문에는 이러한 노력의 흔적이 나타난다.

최종작성자는 몇 개의 문답이 마무리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 경우 한 칸을 띄우고 다음 내용을 기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이 강록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강회의 진행상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도한 결과로 보인다. 이 글에서 담론을 분석한다고 할 때, 일차적으로 염두에 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구분되어 있는 한 덩어리의 문답이다. 그러나 원문에 하나의 담론으로 취급하여 문단을 연결시켜 놓았더라도, 개중에는 내용상 구분해야 하는 담론도 들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의미상 분절시킬 수 있는 담론은 분리해서 구분해 보았다. 논의의 진행을 위해서 본문에 나오는 문답과 담론 현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1. 『호계강록』의 문답과 담론 현황

출처	문답수			담론수		평균 문답수
	문	알	총수	원문	재조정	
심경서	5	16	21	7	7	3.0
찬	2	10	12	5	5	2.4
심학도설	3	17	20	6	7	2.8
인심도심장	4	21	25	9	9	2.7
상제임여장	1	1	2	1	1	2.0
시아우군자장	1	2	3	1	1	3.0
한사존성장	4	10	14	5	5	2.8
경직의방장	8	31	39	8	12	3.2
징분질육장	2	13	15	4	4	3.8
천선개과장	2	3	5	2	2	2.5
불원복장	1	3	4	1	1	4.0
자절사장	1	3	4	1	2	2.0
극기복례장	2	23	25	6	7	3.6
주경행사장	2	14	16	3	4	4.0
중용천명지위성장	4	34	38	5	7	5.2
잠수복의장	0	6	6	1	2	3.0
합계	42	207	249	65	76	-

15. 『호계강록』의 최종 작성자가 누구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강회에서 이루어진 담론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강회를 주도하였던 유치엄이 가장 유력하지 않은가 하고 추정하고 있다. 특히 호계강회의 기록에 덧붙여 실려 있는 고산강화를 보면 이러한 추정은 더욱 강화된다. 여기에는 약 10일간의 『대산실기』 편집작업을 마친 후 다음날에 행한 향음주례의 진행상황을 기록하면서 ‘장식은 주인이었고 … 치엄은 외람되게 빈상의 자리에 있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비록 고산강화와 호계강회가 진행된 것은 10년의 차이가 있지만, 각 강회의 기록인 고산강화와 호계강록은 동일한 시기에 다시 정리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호계강록』의 최종 작성자는 동일인물로 판단된다.

<표1>에 의하면 호계강회는 『심경부주』의 1권을 텍스트로 하여, 총 76개의 답론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문답은 249개가 이루어졌다. 답론의 숫자로 보면 「상제임여장」등과 같이 1개에 그치는 것도 있고, 「경직의방장」처럼 12개의 답론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답론의 숫자가 곧 각 장의 비중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답론의 숫자는 적지만,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경행서장」의 경우 답론수는 4개 인데 비하여 문답수는 16개로서, 1개 답론 당 평균 4.0개의 문답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이 장에서 상대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각 장의 비중은 답론수와 문답수를 함께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이때 주목되는 장은 「人心道心章」, 「閑邪存誠章」, 「敬直義方章」, 「懲忿窒慾章」, 「克己復禮章」, 「主敬行恕章」, 「中庸天命之謂性章」 등이다. 이에 비하여 「上帝臨汝章」, 「視爾友君子章」, 「遷善改過章」, 「不遠復章」, 「子絕四章」, 「潛雖伏矣章」 등은 1-2개의 답론에 그쳐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고, 「心經序」, 「贊」, 「心學圖說」의 경우 답론은 여럿이지만 개념이나 문장 해석과 관련된 문답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추론은 개략적인 것에 불과하다. 구체적인 상황은 각 답론에서 다른 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관심은 각 답론의 종류를 구분하는 데에 있는 만큼, 여기에서는 답론의 주제에 대해 논의하되 각 답론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각 답론의 종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답론 분석

각 답론에 포함된 문답들은 000문, 000왁이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000문으로 된 경우는 총 42개이고, 000왁으로 된 경우는 총 207개이다. 그러나 호계강회가 누군가 질문하면 그것에 대답하는 단순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다. 000문으로 표현된 문장은 대개 강유가 선생이나 선배에게 질문을 제기한 것이지만, 000왁으로 표현된 문장의 경우는 최소한 4가지 다른 의미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강유의 질문에 대한 答辯인 경우, 강유에게 답변을 유도하는 發文인 경우, 다른 선생 및 강유의 의견을 촉구하는 發題인 경우 그리고 논의를 총괄하거나 특정한 주장을 펴는 講說인 경우가 포함된다. 이러한 의미의 차이는 결국 각 답론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글에서는 문답형, 발문-대답형, 발제-토론형 그리고 강설형으로 구분해 보았다. 다음의 표는 76개의 답론을 각 종류별로 구분한 것이다.

표2. 「호계강록」의 답론 종류별 분포

출처	문답형	발문-대답형	발제-토론형	강설형	합계
심경서	5	1	-	1	7
찬	5	-	-	-	5
심학도설	5	-	1	1	7
인심도심장	6	1	1	1	9
상제임여장	1	-	-	-	1
시이우군자장	1	-	-	-	1
한사존성장	3	-	1	1	5
경직의방장	7	2	3	-	12
징분질욕장	3	1	-	-	4

출처	문답형	발문-대답형	발제-토론형	강설형	합계
천선개과장	2	-	-	-	2
불원복장	1	-	-	-	1
자절사장	2	-	-	1	2
극기복례장	4	-	2	-	7
주경행서장	0	-	4	-	4
천명지위성장	1	-	6	-	7
잠수복의장	0	-	1	1	2
합계	46	5	19	6	76

<표2>에 의하면 호계강회의 답론은 주로 문답형(46개 답론)으로 진행되었고, 그 다음으로 발제와 토론(19개 답론)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 강회가 강유에 대한 교육에 큰 비중을 두었음을 보여준다. 강유의 질문에 대하여 선생이나 선배가 답변하는 문답형의 답론은 물론이고, 특정 주제를 토론하는 발제-토론형의 답론에서도 교육적 배려의 모습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 논의하겠지만, 선생들이 참여하여 토론을 벌이는 경우에도 논의의 방향은 강유들이 마음 공부를 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적 의도는 발제와 강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선생들은 강유들이 『심경부주』의 해당 항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강회를 진행하였고, 이것이 선생의 발문과 강유의 대답(5개 답론)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선생들은 각 장의 처음이나 마지막 부분에 강설(6개 항목)의 형태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강유들이 『심경부주』를 공부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을 적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4가지 답론별 주요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1) 문답형

문답형은 강회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그 안에 또 몇 개의 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 강유들이 제기하는 질문에는 글자의 뜻을 묻는 경우(1개 답론), 문장 해석 방식을 묻는 경우(1개 답론)처럼 기초적인 질문도 있지만, 대체로 개념의 의미(29개 답론)를 묻거나 자신이 해석한 의견의 타당성(14개 답론)을 묻는 항목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글자의 뜻을 묻는 경우에도 그 배경에는 의미에 대한 이해가 게재되어 있으며, 단지 낱말풀이를 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호계강록』의 첫 번째 문답인 다음의 사례를 보자.¹⁶

김상진: 參三才의 參은 무슨 뜻입니까?

유치엄: 『禮記』에 있는 無往參焉¹⁷의 參이라는 뜻이다.

김상진이 「심경서」에 나오는 참(참삼재)이라는 글자의 뜻을 묻은 데에 대하여, 집의 유치엄은 『예기』의 말을 빌려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답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참삼재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진

16. 『虎溪講錄』 心經序, 金相鎮問參三才之參 柳致儼曰參如禮記無往參焉之參.

17. 『禮記』 「曲禮上」에 나오는 말인데, 원문은 ‘離座離立 毋往參焉 離立者 不出中間’이다. 離는 兩의 뜻으로,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거나 서 있을 때 그 옆에 가서 말참견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예기』를 인용한 것은 參의 발음과 관련된 것으로, 參三才 전체의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參의 발음을 설명할 때, 곡례의 이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 같다. 『聖學輯要』 3, 修己第2中, 誠實章 第5에서 이 방식으로 설명하였고, 이후의 여러 학자들도 이 구절을 인용하였다.

다. 유치엄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¹⁸

하늘은 이처럼 높고, 땅은 이처럼 넓은데 渺然한 인간이 어떻게 천지와 함께 병립해서 셋이 된다는 것일까? 오직 그 마음(心) 때문이다. 천지의 마음을 받아서 한 몸을 이루니, 그 마음의 큰 작용으로 천지와 서로 윤통함으로써 가히 천지가 萬物을 化育하는 일을 도울 수 있고, 가히 中和의 極致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어찌 인간이 參三才하는 소이가 아니겠는가?

이러한 문답은 참이라는 글자 풀이를 설명하는 데에 초점이 있기 보다는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강회에서 『심경부주』를 공부하는 의미를 천명하는 데에 주목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점에서 이 문답은 강회의 시작을 알리는 서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심경부주』는 성인의 마음을 함양하는 내용의 텍스트이고, 그 공부의 목적은 참삼재하는 인간으로 거듭나는 데에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유들이 강회에서 제기하는 질문의 배경에는 이러한 마음 공부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부딪친 문제들이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징분질육장」에서 김홍락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훈장이 답변하는 담론이다. 이 문답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¹⁹

김홍락: 노여움이 사라진 후에 찬찬히 그 이치를 살피면, 노여움의 當否와 일의 是非를 분명하게 알 수 있지만, 노여움이 솟구쳐 오르는 초기에는 據忘하기 어려우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훈장: 모름지기 煞用工夫하면 가히 산을 깎아내는 공효를 얻을 수 있다. 노여움이 일어날 때에는 기운을 낮추되, 밝은 지혜로써 노여움을 살피고 고요함으로써 노여움에 대응해야 한다. 처음에는 비록 어렵겠지만, 습관이 쌓이고 오래되면 점차로 쉬워질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호계강회에서 진행된 문답이 용어의 개념이나 의미를 묻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질문자 자신이 공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딪친 문제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선생들은 강유들의 질문에 대하여 용어의 뜻을 직접 풀이하기도 하고, 다른 전거를 들면서 의미상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 지향점은 『심경부주』의 개념을 천착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공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데에 있다는 점도 시사한다. 호계강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강회의 목적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는 데에 두드러진 역할을 한 인물은 장석 유치명²⁰과 집의 유치엄이다. 다음의 한 사례를 보자.²¹

18. 『虎溪講錄』 心經序, 天如此高地如此廣 而人以渺然者 身何以能與天地并立而爲三 其心 改天地之心而體與天地同 其大用與天地相流通 可以贊天地之化育 可以致中和之極功 豈非所以參三才者乎.

19. 『虎溪講錄』 懲忿窒慾章, 金弘洛曰 忘怒之後徐以觀理 則怒之當否事之是非 可以見得分明 而怒是慙突 凡起來底當其初發之際 遽忘爲難. 訓長曰 須煞用功夫 可收摧山之功 當其怒豈 要乎心下氣 明以察之 靜以應之 初豈雖難然 積習之久 自當漸易.

20. 敬直義方章에서 장석 유치명은 글을 지나치게 분석적으로 해석하는 병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重疊해서 설명하면 종래는 병폐가 생긴다. 비단 이 문제만이 아니라, 虛靈知覺과 心之體用을 가지고 2層說을 짓는다는가, 動而主一 靜而主一이라고 구분한다든가 하는 것들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것들은 모두 精切하지 않다.’

21. 『虎溪講錄』 心經序, 李鍾泰問 先言謹獨次言涵養 是分動靜而言否. 洞主曰 謹獨是要坊處 涵養是通動靜 然此引兩節則似分動靜而言. 柳致儼曰 就見成說如此分屬 因無不可 然此序所引之義 則只取其要坊處言 以示其下手之方 不必遷就說也.

이종태: 먼저 謹篤이라 하고, 다음에 涵養이라 하였으니, 이 말을 動과 靜으로 나누어 이해하면 안 됩니까?

동주: 근독은 실로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要切處)이다. 함양은 본래 동정을 포괄하지만, 여기에서 근독과 함께 두 구절을 끌어왔으니 동과 정으로 구분해도 무방한 듯하다.

유치엄: 견해에 따라 이렇게 나누어 말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心經序」의 의미는 근독을 공부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끌어와 공부에 착수할 곳을 보이는 데에 있으므로, 그러한 설명으로 까지 옮겨갈 필요는 없다.²²

이종태의 질문은 程敏政이 「심경서」에서 程子の 말을 인용할 때, 謹篤에 관한 말을 먼저 제시하고, 涵養에 관한 말을 다음에 제시한 것에 대해서, 근독을 靜 공부로 함양을 動 공부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은 것이다. 동주는 이종태의 해석이 일리가 있다고 하였지만, 유치엄은 그러한 개념 구분은 「심경서」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쓸데없이 개념을 분류하지 말도록 주의를 주고 있다. 이후 강회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념의 분석과 구분이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모두 마음 공부를 진척시키는 방향으로 수렴하는 논의였지, 개념 자체에 매몰되어 구분해가는 확산적인 논의는 아니었다.

(2) 발문-대답형

발문-대답은 4개의 장에서 5개가 발견된다. 이러한 담론은 먼저 선생이 강유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강유가 대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선생의 보충설명이 뒤따르기도 한다. 발문-대답형의 전형적인 방식은 「경직의방장」의 다음과 같은 담론이다.²³

동주: 주자께서 말한 三方入處 皆在其中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김의수: 醒醒(常醒醒)하면 마음이 昏昧하지 않아서, 자연히 하나에 집중(主一)이 되고, 자연히 마음이 수렴되며(收斂), 자연히 整齊嚴肅해진다는 뜻입니다. 성성 대신에 다른 세 가지로 말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엄: 그렇게 말하면 밝게 안다고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해야 한다. ‘主一無適을 좇아 들어가면 또 다시 나머지 공부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른바 엄숙, 성성, 수렴이라는 것들은 주일무적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이것이 三方入處 皆在其中를 일컫는 것입니다.’ 하고 말이다.

동주의 질문에 대해서, 김의수는 논리적으로 가능한 대답을 제시하였다. 즉 주일무적, 상성성, 기심수렴, 정재엄숙의 관계에 대하여, 먼저 상성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나머지 개념도 동일한 방식으로 말할 수 있다고 답한 것이다. 그러나 유치엄은 김의수의 답변에 대해, 주자의 뜻은 주일무적을 중심으로 나머지 공부를 포함시키는 데에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분명히 해야 이 구절의 뜻을 이해한 것이라고 하면서 김의수의 답변을 교정하고 있다. 이러한 발문-대답형은 강유들이 『심경부주』에 대한 이해정도를 드러내서, 講儒의 의견을 보충하거나 교정하려는 목적으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22. 『虎溪講錄』 心經序, 李鍾泰問 先言謹獨次言涵養 是分動靜而言否. 洞主曰 謹獨是要坊處 涵養是通動靜 然此引兩節則似分動靜而言. 柳致儼曰 就見成說如此分屬 因無不可 然此序所引之義 則只取其要坊處言 以示其下手之方 不必遷就說也.

23. 『虎溪講錄』 敬直義方章, 洞主問 三方八處皆在其中之義. 金毅壽對曰 惺惺則心不昏昧 而自然主一自然收斂自然整齊嚴肅 餘三說皆然. 柳致儼曰 此說似未瑩 如從主一無適入頭則更不須各致其工 而所謂嚴肅與惺惺收斂 皆不外是 所謂三方八處皆在其中者也.

이 외에 발문-대답형으로 진행된 담론은 「심경서」에서 김홍락이 ‘修德凝道の 요체는 그 핵심이 謹篤에 있는데, 德은 天과 연결짓고, 道는 王과 연결지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²⁴라고 묻은 것, 「인심도심장」에서 유치엄이 ‘虛靈과 知覺을 對說로 설명하면 體用關係가 분명하지만, 單說로 말하면 각각은 모두 체와 용을 갖추고 있다. 虛靈의 用의 측면과 知覺의 體의 측면을 어떻게 증험할 수 있는가?’라고 묻은 것,²⁵ 「경직의방장」에서 동주가 ‘把敬來做라고 하면 敬을 가지고 直內한다는 것이 되니 해석상의 病通이 생기지 않는가?’라고 묻은 것²⁶, 「징분질욕장」에서 동주가 ‘九思 중 忿思難 見得思義의 경우는 思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視思明 聽思聰 등은 어째서 思라 할 수 있는가?’²⁷라고 묻은 것 등이다.

이러한 발문-대답형의 담론이 이루어진 것은 관련 구절이 『심경부주』의 핵심적인 개념인 謹篤, 心, 敬과 관련되면서도 강유들이 해석하는 데에 종종 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일 것이다.

(3) 발제-토론형

발제와 토론으로 이어지는 담론은 19개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선생이 먼저 문제를 제기하여 토론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고, 강유가 한 구절의 의미를 묻는 것을 계기로 토론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강회에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된 담론은 강회의 참석자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주제였던 만큼, 이 담론의 특성을 논의하기 위해서 우선 각각의 주요사항을 요약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표3. 발제-토론형 담론의 주요사항

출처	연번	참가자		소주제	대주제
		발제자	토론자		
심학도설	1	동주	동주, 유치엄, 장석, 훈장	심의 주재성이 리에 있는가 기에 있는가?	心
인심도심장	2	유치엄	유치엄, 동주	인심도심에 대한 주자의 두 가지 설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사존성장	3	김상진	유연문, 유치엄, 동주	한사존성과 극기복례는 같은가 다른가?	克己復禮
경직의방장	4	김진만	유치엄, 장석, 훈장	경직과 의방을 동과 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가?	敬
	5	이돈우	이돈우, 유치엄, 동주	欲과 忿 중 어느 것이 더 큰 과실인가?	
	6	장석	장석, 동주, 훈장, 유치엄	주일무적의 뜻은 무엇인가?	
극기복례장	7	유치엄	유치엄, 동주, 훈장, 장석	仁體事而無不在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仁
	8	동주	동주, 훈장, 유치엄, 장석	극기와 복례는 하나인가 둘인가?	克己復禮

24. 『虎溪講錄』 心經序. 程子の ‘天德王道 其要只在謹篤’이라는 구절에 대한 발문.

25. 『虎溪講錄』 人心道心章. 朱子の ‘心之虛靈知覺 一而已矣’라는 구절에 대한 발문.

26. 『虎溪講錄』 敬直義方章. 程子の ‘敬以直內…必有事焉 須把敬來 做件事著’이라는 구절에 대한 발문.

27. 『虎溪講錄』 懲忿窒慾章. 楊氏(楊時)의 ‘九思終於忿思難見得思義’라는 구절에 대한 발문.

출처	연번	참가자		소주제	대주제
		발제자	토론자		
주경행서장	9	이의룡	동주, 유치엄, 이돈우, 유연문	공자가 안연과 중궁에게 인을 다르게 답변한 이유는 무엇인가?	仁
	10	훈장	훈장, 이돈우, 유치엄	근독을 심광체반의 기상을 지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가?	謹篤
	11	유치엄	유치엄, 동주	무사시에 엄약사라 한 것은 공부의 착모가 없는 것이 아닌가?	
	12	김상진	유치엄, 훈장	충과 서의 관계는 무엇인가?	仁
중용천명지위성장	13	김상진	장석, 유치엄, 김진만, 훈장	性에 偏과 全의 구분이 있는가?	謹篤
	14	훈장	훈장, 김의수, 김도화, 유치엄, 동주, 장석	率性の 率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15	동주	동주, 유치엄, 훈장	具於內者性 著於外者道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16	동주	동주, 유치엄, 장석, 훈장	不睹不聞에 대한 정자의 해석은 타당한가?	
	17	김홍락	김홍락, 훈장, 유치엄, 장석	연평과 양려의 공부법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18	이택진	동주, 유치엄, 장석	莫現莫顯의 뜻은 무엇인가?	
잠수복의장	19	훈장	훈장, 김의수, 김홍락, 유치엄	『중용』의 首章과 末章에서 근독과 계구를 다른 순서로 기술한 이유는 무엇인가?	

<표3>에 제시된 것처럼, 호계강회에서는 8개 장에 걸쳐 19개의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표에서는 각 토론의 발제자와 토론자 그리고 제기된 문제를 표시하였는데, 이들 담론에서는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토론을 주도하는 인물들이 장석, 훈장, 동주, 유치엄 그리고 김홍락이라는 점이다. 토론자 가운데 강유(김상진, 유연문, 김진만, 김의수, 김도화)가 참가한 경우도 있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호계강회에서 토론의 형식으로 담론이 진행된 경우는 선생과 선배들이『심경부주』의 학습에서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생각되는 주제에 대하여 자신들의 견해를 조율하고 강유들에게 제시하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토론의 모든 주제들이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주제를 몇 개의 범주로 다시 분류하면 心, 仁, 克己復禮, 敬, 謹篤 등의 주제와 관련된다. 그러나 이 주제를 다루는 방식에서 心에 관한 토론은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마음의 주재성이 리에 있는가 기에 있는가?’를 묻는 토론(1번)에 대해서는 마음 공부에 초점을 맞추는 본 강회에서 리나 기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정도에서 논의가 마무리되었다. 또한 ‘인심과 도심에 대한 주자의 두 가지 설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토론(2번)은 유치엄과 동주 사이의 간단한 문답에 그치고 있다.

셋째는 여러 주제 가운데에서 謹篤이 가장 핵심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우선 근독에 관한 토론은 「주경행서장」의 2개 담론과 「중용천명지위성장」의 6개 담론으로 전체 담론의 반 정도를 차지한다. 또한 근독은 첫날의 「심경서」와 마지막날의 「잠수복의장」에서 수미일관되게 강조되고 있다. 「심경서」에서는 집의 유치엄이 근독을 『심경부주』의 핵심(要切處)이라고 규정하면서 호계강회의 서언을 장식하였는데 이점은 앞에서 문답형 담론을 논의할 때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잠수복의장」에서는 유치엄이 강회를 총괄하면서 다시 근독을 중심으로 강설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 절 강설형을 논의할 때 살펴보고자 한다.

발제-토론형 담론이 가지는 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때, 호계강회에서 강조하고자 한 것은 강유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謹篤의 의미에 주목하여, 그것을 마음 공부의 착수처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하는 데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4) 강설형

이 글에서 강설형에 포함시킨 담론은 6개이다. 이 담론들은 질문이나 발제 없이 단독으로 언급된 진술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점은 형식적 동일성에 불과하고, 내용상으로는 몇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이 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강설형 담론의 주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4. 강설형 담론의 주요사항

출처	연번	강설자	내용	특성
심경서	1	유치엄 동주	체용현미는 『심경부주』와 『역서』에서 의미가 다르다	각장의 모두 발언
심학도설	2	김홍락 유치엄	양심과 본심은 가리키는 바가 다르지만 결국 같은 말이다.	
인심도심장	3	유치엄	왕노재의 도설은 문제가 있다.	각장의 종결
한사존성장	4	장석	오징의 설명은 지나친 면이 있다.	
극기복례장	5	동주	진덕수의 설명은 지나친 면이 있다.	
점수복의장	6	유치엄	근독은 군자와 소인을 구분시키는 가장 중요한 공부이다.	총설

우선 1번 강설과 2번 강설은 각각 각 장의 강회를 시작할 때 모두 발언의 성격을 갖는다. 1번 강설은 「심경서」 첫 부분에서 2개의 문답이 끝난 후 제시되어 있지만, 앞의 두 문답은 전체 강회의 서언을 장식하는 성격이 강한 만큼, 「심경서」와 관련해서는 이 강설이 첫 번째 담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강설은 「심경서」의 ‘古之人 … 使體立用宏 顯微不二 用底于希聖希天之極功 有以也’라는 구절과 관련해서 유치엄이 『심경부주』에서 말하는 體用顯微는 『역』에서의 의미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 말이다.²⁸ 동주는 이 말을 받아서 ‘『易序』에서는 理와 象을 말한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마음의 寂感和 誠神을 말한 것이다’라고 부언하였다.²⁹ 이 두 사람의 강설은 모두 『심경부주』를 마음 공부의 측면에서 읽어야지, 용어상의 유사성 때문에 『역』에서 취하고 있는 관점과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2번 강설은 「심학도」의 강학을 시작하면서 진술된 것으로서, 심학도에 기록된 양심과 본심의 관계를 ‘가리키는 바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규정은 심학도 전체를 이해할 때 마음의 근본을 상호 연계되는 방식으로 파악하도록 요구하는 말이다.

다음으로 3번 강설부터 5번 강설은 앞의 경우와는 반대로 각 장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고, 주로 각 장에서 검토한 주장 가운데 오류라고 판단된 것에 대해서 주의를 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인심도심장」 마지막에서 유치엄은 王魯齋의 圖說에 대해서는 선배들이 여러 번 문제를 지적하였다고 하면서, 강유들로

28. 유치엄이 말하는 「易序」는 『周易』의 「易傳書」를 말한다. 관련된 구절은 ‘至微者理也 至著者象也 體用一源 顯微無間 觀會通以行其典禮 則辭無所不備.’이다.

29. 『虎溪講錄』 心經序, 洞主曰 易序則理與象言 此則以心之寂感誠神而言.

하여금 스스로 그 문제를 연구할 것을 권하였다.(3번) 「한사존성장」 마지막 부분에서 장식 유치엄은 오징의 견해에 들어 있는 문제점을 비판하였다.(4번) 오징의 견해란 『論語』의 思無邪와 『易』 文言傳의 閑邪存誠을 각각 『大學』에 나오는 誠意 공부와 正心 공부에 연결 지은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장식은 두 경전의 원래 의미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이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오징의 견해가 私慾과 惡念을 제거한 뒤(意誠)에야 二而且雜한 병폐를 치료할 수 있다(心正)는 점은 수공하면서도, 誠意 공부와 正心 공부를 반드시 선후 단계로 파악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제시하였다. 「극기복례장」에서는 동주가 강설을 하였는데 眞德秀의 주장을 비판하는 내용이다.(5번) 이 강설은 「극기복례장」의 마지막 답론은 아니지만 강회의 뒷부분에 수록되어 있다. 진덕수가 箕子의 洪範五事(貌言視聽思)를 공자가 안희에게 답변한 四勿(視聽言動)과 연결 지으면서, ‘四勿에 생각이 없는 듯이 보이지만 하지 말라는 뜻의 勿자에 思의 의미가 들어 있다’고 설명한 것을 비판한 내용이다. 이러한 강설들은 강유가 각 장을 이해하는 데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염려 때문에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잠수복의장」에서 유치엄은 근독의 지엄함을 다시 강조하는 강설을 하였는데, 이것은 「중용 천명지위성장」과 「잠수복의장」의 토론을 요약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강회 첫날에 『심경부주』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근독과 연계하여 호계강회 전체를 총괄하는 내용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³⁰

隱微하고 幽獨한 장소는 사람들이 쉽게 풀어지는 곳이다. 그러므로 항상 上帝鬼神이 좌우에 내려와 계신 듯 여겨야 한다. 尋常하고 卑近한 장소는 사람들이 쉽게 소홀해지는 곳이다. 그러므로 항상 깊은 물의 얕은 얼음이 책상자리에 깔려있는 듯 생각해야 한다. 옛 사람은 ‘배우는 자는 알 수 있다’고 하였다. 謹篤은 이제 까지 살펴 본 모든 장의 핵심 내용으로 또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군자와 소인은 판이하게 다른 것이니 이 장을 歸宿處로 삼기 바란다. 무릇 똑같이 은미한 장소에 있더라도 君子가 거처하면 더욱 열심히 戒愼해서 한 터럭도 흐트러짐 없이 밝은 빛이 퍼지는 데에 이르고, 小人이 거처하면 거리낌 없이 不善을 행함이 무소부지하여 용서받지 못할 지경에 이른다. 그러니 배우는 자가 두려운 바를 몰라서는 안 되겠는가?

3) 강학유형

답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호계강록』의 내용을 재구성하면, 호계강회에서 이루어진 강학활동의 모습이 연상된다. 매일 강유들은 『심경부주』의 해당 내용을 번갈아 읽으면서, 질문할 내용에 이르면 문답을 전개하였고, 토론해야 할 주제가 제기되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또한 선생들은 강유에게 질문을 던져 이해정도를 파악하기도 하고, 『심경부주』를 이해하는 데에 저해가 되는 내용이 있으면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 점에서 호계강회는 『심경부주』를 텍스트로 한 고급 세미나였다고 할 수 있다.

호계강회의 이러한 특성은 서원에서 이루어진 보통의 강학활동과 비교할 때 보다 분명해진다. 보통의 강학은 강장을 비롯한 몇 명의 강원이 서원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아울러 학업진도를 점검하는 교육과 평가의 장이었다. 「閭塾講規」에 따르면, 강원에는 講長 이외에 문서기록을 담당하는 司講, 영접과 수작의

30. 『虎溪講錄』 潛雖伏矣章, 隱微幽獨之處 人之所易肆也 而常若上帝鬼神之陟降左右 尋常卑近之地 人之所易忽也 而常若深淵薄氷之迫在几席 古人之所謂學者可知矣 謹獨說上下諸章 因已無復餘蘊 而君子小人之判 則此章爲之歸宿 盖同一隱微之地 君子居之 則尤加兢愼一毫不放 以至於輝光宣著 小人居之 則肆爲不善無所不至 以至於貫盈罔赦 學者可不知所懼哉.

업무를 담당하는 司禮가 있었고, 書院生이나 童蒙이 응강자로 참여하였다.³¹

강학은 庭揖禮를 행한 다음 講長이 講書 가운데 한 편을 읽고, 尊賓이 또 다른 한 편을 序誦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司禮는 응강자 1명을 자리에 나아가게 해서 정해진 내용을 암송하게 하고, 그것을 마치면 의심스러운 뜻을 묻도록 하였다. 이렇게 한 사람의 강을 마치면 司講은 講記에 응강자의 이름을 적고, 講義에 講說을 기록하였다. 이후의 과정은 강을 다 마친 학생이 제자리에 돌아가면 순서대로 동일한 절차가 반복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볼 때, 일반적인 강회는 講長과 應講者 사이의 1:1식 문답과 평가활동으로 요약될 수 있다.³²

다음으로 호계강회가 축소된 형태라고 할 만한 특강 유형의 강학도 있다. 그것은 유명한 학자를 초빙하여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이다. 주자의 玉山講義가 대표적인 예이고, 이 옥산강의를 주제로 한 高山書堂의 講義도 이 사례에 해당된다. 고산강의는 1846년 유치엄이 고산서당에서 진행한 것으로서, 형식만으로 보면 호계강회를 축약한 유형에 속한다.³³ 有司를 정하고 庭揖禮를 행하는 기본적인 절차는 호계강회와 비슷하고, 강유가 「옥산강의」를 읽어가다가 특정 부분에 이르러 장석 유치명이 설명하거나 참석자간의 문답이 이루어지는 진행방식도 유사하다. 예를 들어 ‘一心中 仁義禮智 各有界限’이라는 구절에 이르러 장석 유치명이 요지를 설명한다든가, 다시 읽어 가다가 ‘孔子之言仁 以其專言者言之’라는 구절에 이르러 장석과 참석자들이 문답을 진행하는 강의의 모습은 일견 호계강회의 강회진행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성격에서, 고산강의는 호계강의와 구별되는 면이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호계강의는 5일간의 집중세미나의 형식이었기 때문에 강학 과정에서 선생, 선배, 후배가 다양한 방식으로 강학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하여 고산강의는 기본적으로 장석 유치명에 문답이 집중되는 경향을 띠고 있다. 이점에서 고산강의는 유치명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특강의 성격이 강하다.

결국 호계강회는 서원생의 교육과 평가를 위한 일반적인 강학이나 장석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특강형식의 강의와 구별되는 강화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호계강회는 여타의 강화활동과 구별되는 최고의 교육적 소통 활동이라는 것이다. 호계강회가 보여주는 이러한 소통방식은 서양 대학에서의 세미나를 연상시킨다. 서양 교육사에서 세미나는 17-18세기 경 중세 대학의 논변(disputatio)을 대치한 교육방법으로 시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⁴ 중세 대학의 논변이 아리스토텔레스식의 삼단논법에 의존하면서, 성경에서 진리를 확인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면, 세미나는 교수를 중심으로 참여 학생들이 특정 주제를 탐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호계강회가 선생의 지도 하에 모든 참여자가 다양한 답론을 전개하면서 마음 공부라는 주제를 탐색하는 모습은 서양 근세 대학에서의 세미나와 다르지 않다.³⁵

31. 『華西先生文集』卷31, 閭塾講規.

32. 김대식, 「화서 문인공동체 강회의 실제」, 『교육사학연구』 제21집 제1호, 2011.

33. 『虎溪講錄』附 高山講話私笥.

34. 이흥우 외역, 『윌리엄 보이드의 서양교육사』, 교육과학사, 2008, pp.350-351.

35. 이 시기 서양대학에서 이루어진 ‘세미나 강록’이 남아 있다면, 『호계강록』과 비교해보는 일도 가능할 것이다.

호계강회에서 진행된 세미나의 결과는 상당히 만족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호계강록』에서 이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수준의 참석자들이 10년 만에 개최된 대규모의 강회에서 이처럼 성공적인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공유했던 모종의 강학 정신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그들이 공유했던 강학의 정신은 어떠한 것일까?

4. 호계강회의 강학정신

1) 대산학 계승의 사명감

호계강회가 개설되는 배경에는 경상감사의 교육진흥책이라는 계기와 유치명의 개입이라는 요인이 있었다. 이 때 유치명의 개입은 호계강회의 내용을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호계강회에서 『심경부주』를 텍스트로 삼아 30여명의 학자와 강유들이 학술세미나를 전개하기로 것은 우연히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유치명이 전개한 대산 추송활동의 연장선상에서 기획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은 강학하는 과정에도 반영되어 있다. 호계강회는 『심경부주』의 기본체제를 인정하면서 진행되었다. 율곡의 비판이 있는 다음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심학도설」에 대해서 별다른 이론을 제기하지 않았던 것은 한 사례이다. 또한 『심경부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했을 때 『대산집』의 규정을 근거로 논란을 종식시킴으로써, 『대산집』을 『심경부주』 이해의 기준으로 삼는 모습도 발견된다.³⁶

이러한 사례들은 이 강회의 기본 정신이 대산 학설의 계승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호계강록』의 표지 다음에 굵은 글씨로 쓴 강록 작성의 취지문은 강회 전체에 흐르는 이들의 사명감을 잘 보여준다. 강록 작성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³⁷

학문에 뜻이 있는 사람은 이 책(『심경부주』)을 버리고 다른 곳에서 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호계강회가 누차 이 책으로 한 것이다. 이미 『講錄刊補』도 있고, 지금 또 『虎溪講錄』을 간행하니 이 책을 배우는 데에 어려움이 있겠는가? 다만 학자들이 보지 않을까 염려될 따름이다.

이 취지문의 작성자는 퇴계에 의해 존송된 『虎溪講錄』, 대산에 의해 정리되기 시작한 『강록간보』를 이어 『호계강록』을 발간한다고 말하고 있다. 『호계강록』의 위치를 분명히 하는 진술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로써 학자들이 『심경부주』를 공부하는 데에 어려움이 해소되었다는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학자들이 열심히 공부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는 학자들이 노력만 하면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어 있다. 이 글에 나타나는 이러한 자신감과 기대감은 강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점차 강하게 형성된 것이다. 강회를 시작할 때에는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참석자들이 의기소침한 상태에 있었지만³⁸,

36. 『虎溪講錄』主敬行恕章, 柳致儼曰 大山集 已以保守氣像 爲斷案.

37. 『虎溪講錄』有志於學者 不可舍此書而他求 虎溪講會屢次是書 前者已有講錄刊補焉 今又講錄行焉 學此書者其難也哉 唯患不觀耳.

38. 『虎溪講錄』虎溪書院講錄, 司儀以諸生意上書于丈席曰 訓長既辭不出 洞主又不敢當 士心解弛 莫可振作 咸願奉邀函席倡率其始 然後門下老成承其旨教以諭諸生 則庶可以喚醒人心 而嚴不敢請云云.

강회가 진행되면서 자신감과 상호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었다. 강회를 마치고 파회할 즈음에 호계서원의 동주는 자신의 감회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³⁹

이번 講會는 실로 근래에 없었던 盛學입니다. 大老가 왕림해서 함께 해 주셨고, 고을의 뛰어난 선비들이 다 모였던 강회였습니다. 어찌 鄉飲酒禮를 거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많은 선비들은 향음주례에 참가하여 盛代의 化民成俗하는 가르침이 뚜렷이 드러나고, 어진 方伯이 尙禮興學하는 뜻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강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그렇다’고 하였다.

이처럼 유지명이 견지했던 대산학 계승의 사명감은 강회의 강학활동을 통하여 제자와 강유들에게 전해졌고, 이들의 사명감은 다시 강학활동을 열띤 문답과 토론활동으로 승화시키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

2) 절제와 소통의 토론정신

강회의 담론을 일별하면, 잘 짜인 기획 하에 참석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장석을 고문으로 모시면서 동주, 훈장 등 선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담론을 지도하고, 강유들은 선배와 후배로 나뉘어져 각각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담론에 참여하였던 것이다. 또한 토론이 이어지면서 담론이 지나치게 개념을 천착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될 듯하면, 『심경부주』를 공부하는 목적이 마음 공부에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면서 스스로 자제하도록 분위기를 유도하였다. 이러한 절제된 모습은 강회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정신이었고, 강회가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호계강회는 이러한 절제된 정신만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이와 함께 자신의 역할을 넘어 서로 의견을 소통하고자 하는 개방적인 모습도 확인되기 때문이다. 강회에서 비록 선생과 강유의 역할이 다르고, 실제로 상당한 정도의 역할 구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경우도 발견된다. 강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담론에 참여하는 정도를 나타낸 다음의 표는 이러한 양상을 살펴보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표5. 강회 참가자별 담론수

구분	역할	성명	담론수
선생	장석	유치명	27
	훈장	유치호	30
	동주	김건수	51
유사	집례	이돈우	4
	사의	유치엄	53
	직월	권정하	1
	(직월)	김홍락	17

39. 『虎溪講錄』 虎溪書院講錄, 今茲之會 實年來所未有之盛學也. 大老臨止 鄉秀畢集 蓋因此行鄉飲酒禮 而今多士觀瞻 以彰聖代化民成俗之教 答賢方伯尙禮興學之意. 乎僉曰諾.

구분	역할	성명	답론수
유사	직일	이გი직	진독
		김진각	1
	강록유사	유치숙	8
		김의수	9
		유서호	-
		김도화	5
		김두영	7
		권세연	2
	재유사	이문직	1
		박형수	-
강유	진독 강유	이종태	4
		김석락	진독
		권시순	진독
		유건호	3
		유건흠	1
		김한모	진독
		이의룡	1
		유기락	3
		김양진	진독
		박제학	진독
		김필락	진독
	강유	김진만	7
		김상진	8
		유연문	3
		권옥연	1
		이집	1
		이택진	1

우선 <표5>는 34명의 참석자 가운데 거의 모든 사람이 질문과 답변을 하고 있고, 최소한 진독자로라도 강회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록 유서호(강록유사)와 박형수(재유사)의 사례는 확인되지 않지만, 실지로는 이들도 참여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강회의 참석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답론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던 당시의 분위기를 말해준다.

그러나 이 표에서 보다 주목되는 것은 강회의 진행과정에서 참석자가 자신의 역할을 넘어 논의에 참여하는 모습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의 유치엄인데 그는 호계강회에서 가장 많은 담론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위치는 담론을 많이 하였다는 점보다는 사실상 호계강회를 주도하였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강회 첫 날에 『심경부주』의 핵심이 謹篤에 있다고 천명한 것도 그였고, 강회 마지막에 謹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총괄적인 강설을 한 사람도 그였다. 그리고 토론 진행과정에서는 심지어 선생의 위치에 있었던 동주나 훈장의 의견에 대해서도 강회의 취지에 비추어 그 내용을 보충하거나 교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심학도설」에서 ‘마음의 주재성이 리에 있는가 기에 있는가?’를 둘러싼 토론의 예를 보자.⁴⁰

동주: 마음은 몸의 주재자이다. 그 마음의 주재성은 리에 있는가 기에 있는가?

유치엄: 이른바 주재라 할 때에는 이 마음 외에 별도로 다른 것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 다시 리인가 기인가를 논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동주: 비록 마음이 리와 기를 합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주재성은 리이다. 만약 섞어서 구별하지 않는다면 주기론에 빠질 우려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유치엄: 一身을 주재하고 萬化에 걸쳐 있는 것이 마음이다. 주재한다는 것은 주장하고 운영하는 실체를 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리와 기가 다른 점을 거론할 수 있겠지만, 마음이 몸을 주재한다는 측면에서는 이것은 리이고 저것은 기라고 구분할 필요가 없다.

장석: 마음은 이기를 합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주재할 때에 그 도를 얻게 되고, 어리석은 사람은 주재할 때에 그 지위를 잃게 된다. 따라서 현명하고 어리석음에 따라 나름대로 한 몸을 주재하는 것이니 눈, 귀로 보고 듣는 것이나 손, 발로 잡고 달리는 소이도 주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훈장: 마음은 이기를 합한 것으로, 性情을 통섭하며 일신을 주재한다. 그러나 기가 일을 벌이면 마음이 달려 나가서 주재함을 잃어버리니, 마땅히 리가 주이다.

동주: 마땅함을 위주로 말하면 본연에 주재처가 있다고 해야 하지만, 명백하지는 않은 듯하다.

동주가 ‘마음의 주재성은 결국 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취지에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하여, 유치엄은 그런 구분이 필요 없다고 반론을 제출하였다. 동주가 그의 주장을 반박하자 유치엄은 자신의 의견을 재차 천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장석은 유치명의 의견에 동조하였고, 훈장은 동주의 의견에 동조하였다. 마지막에 동주는 자신의 의견을 어느 정도 굽히면서 논의를 마무리 지었다. 이러한 양상은 이후 벌어진 선생들 사이의 토론과정에서 비슷하게 확인된다. 따라서 유치엄의 역할은 사의라는 역할을 넘어 사실상 선생의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유치엄과 함께 주목되는 인물은 직월을 담당하였다고 추정되는 김홍락이다. 그는 직월 권정하가 한 차례 담론을 제출한 것에 비해 17번을 제출하였고, 그것도 대부분 담론을 주도하는 내용이었다. 「심학도설」에서 김의수가 ‘心學圖의 心在와 操存은 의미상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하자 각각을 알인육 공부와

40. 『虎溪講錄』 心學圖說, 洞主又曰 心者一身之主宰 其主宰者 理歟氣歟. 柳致儼曰 所謂主宰者 非此心之外 別有一物 則於此不必更問其理與氣也. 洞主曰 心雖合理氣 而其主宰者理也 若渾淪無別 則恐有 主氣之失 如何. 柳致儼曰 主一身而該萬化者 心也 而主宰者 其主張運用之實也 雖有泛言提說之不同 而其爲一身之主 則原無此理彼氣之殊也. 丈席曰 心是合理氣而得名 故在賢知則主宰得其道 在愚不肖則主宰失其官 然亦隨其賢愚而自爲一身之主宰 所以耳目能視聽 手足能持走 亦不可謂無主宰也. 訓長曰 心合理氣統性情爲一身之主宰 而氣若用事 則馳驚走作而失 其主宰當理爲之. 主洞主曰 以當爲主言之 則於本然主宰處 恐未明白也.

존천리 공부로 구분하여 설명한 것이 그였다.⁴¹ 이 김의수는 표에서도 보이지만 강유 가운데 가장 많은 답론을 제출한 사람이다. 이점에서 김홍락은 선배의 위치에서 강유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강유 가운데에서도 주목할 인물들이 보이는데, 앞에서 언급한 김의수와 강록유생 유치숙 그리고 강유 김상진 등이다. 이들도 강회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인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호계강회의 분위기는 기본적으로 참석자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절제된 토론을 전개하였지만, 이러한 원칙이 무조건 적용되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선생층이 강회를 주도하지만, 사의 유치엄은 실질적인 선생으로 참여하고 있고, 김홍락도 선생들에게 질문을 제기하면서도 후배 강유에게는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강유 가운데에서 질문을 던지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의견을 제출하는 인물들도 확인된다.

그러나 절제와 소통이 결합된 분위기 속에서 참가자들이 진지한 논의를 지속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장석유치명이 있었다. 그는 비록 상대적으로는 답론을 제출하는 경우가 적었지만, 토론과정을 주시하면서 논의가 갈라지려 할 때에는 의견을 정리하고, 중요한 논점을 지나치면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려 할 때에는 주의를 환기하는 방식으로 강회의 진행을 조율하였다. 유치명이 유일하게 직접 문제를 제기한 것은 「경직의방장」에서였는데, 그때 그는 참석자들이 경의 핵심적인 개념인 主一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고 다음 논의로 넘어간다고 여겼던 것 같다. 이 때 그는 ‘主一의 뜻에 대해서 諸君들은 상세하게 언급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주의를 환기시켰고, 학자들이 주일의 개념에 대하여 토론하고 정리하도록 유도하였다.

따라서 호계강회에 나타나는 절제와 소통의 토론정신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참가자들의 노력, 모든 참가자들이 답론에 참여하도록 하는 분위기 그리고 유치엄이라는 표면의 교사와 유치명이라는 이면의 교사가 구현해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치열한 논변의식

호계강회의 참석자들은 『심경부주』가 학자들이 공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심경부주』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비판의 칼날은 吳澄이나 王魯齋처럼 부주에서 인용된 인물의 주장에 그치지 않았고, 『심경부주』 자체에도 겨냥했다.

우선 『심경』에 부주를 단 程敏政에 대해서는 그의 주석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정민정은 「심경서」에서 敬에 관한 논의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많은 주석을 실었다고 한 바 있는데⁴², 훈장 유치호는 그 주장에 만족하지 않은 것이다. 유치호의 주장은 敬工夫가 주가 되어야 하지만 강유들은 集義工夫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심경부주』는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41. 『虎溪講錄』 心學圖, 金毅壽曰 心在與操存 似不甚異. 金弘洛曰 省察而不走作故曰心在 持守而有存主故曰操存 所以分屬於遏欲存理也.

42. 『心經附註』 心經序, 晩生末學 何所知識 輒手錄成秩 以告同志者 而於言敬之說 特加詳焉.

에 대해 그는 二程과 朱子の『全書』에 비추어 부주의 내용을 고찰하도록 강유들에게 조언하였다.⁴³ 그의 이러한 지적은 『심경부주』에 실린 경에 관한 주석이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동주는 『심경』의 편찬자인 眞德秀에 대해서도, 「극기복례장」의 四勿에 대해 주석한 것이 주자의 『答陳明仲書』와 다르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지나친 해석이라고 지적하였다. 『심경』 편찬자의 해석이라도 비판적 검토 대상의 예외가 아닌 셈이다.

이와 같이 시비를 분명하게 가리려는 치열한 논변의식은 토론 과정에서 참석자 상호간에도 나타났다. 이들은 유치명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공동의 학문적 자세와 학풍을 견지하였고, 강회 분위기도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밀고나가기 보다는 서로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학자들 사이에는 서로 이견이 있었고 이러한 이견은 번번히 토론 장면에서 표출되었다. 앞에서 유치명과 동주가 마음의 주재성에 대한 해석에서 논란이 일어났던 것도 하나의 사례이다. 토론의 마지막에 동주는 자신의 의견을 일부 수정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철회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모습은 강회 과정에 몇 차례 참여하지 않았던 집례 이돈우에게서도 발견된다. 이돈우는 5일 동안의 강회에서 토론에 참여한 것은 단 한 차례였다. 그것도 그가 문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논변을 지켜보다가 개입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그의 개입은 「주경행서장」의 연이은 토론에서 공부에 대한 논의가 功效, 즉 공부의 효과의 측면으로 이어지는 분위기에서 촉발되었다. 첫 번째 토론은 ‘공자가 안연에게는 天下歸仁焉이라고 하고, 중궁에게는 邦家無怨이라고 답변한 것은 功效의 대소를 구별한 것이 아닌가?’라고 물은 이의룡의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이 질문에 대해 동주와 유치엄이 공효의 대소에 차이가 있다고 하자, 이돈우가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그의 요지는 성인의 가르침은 ‘先難後獲’⁴⁴ 즉 추구하기 어려운 인륜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실제적인 효과는 낮추는 데에 있는 것인데, 왜 논의가 공부의 효과 문제로 이어지는 것인가 하는 데에 있었다. 둘째 토론은 訓長이 謹篤을 心廣體胖의 氣像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시작되었다. 훈장의 이러한 설명에 대해 이돈우는 근독 공부를 논하면서 기상과 같은 외면공부를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돈우는 마음 공부와 관련해서 공부의 효과나 외면상의 변화를 언급하는 논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부정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반론에 대하여 유치엄이 『大山集』에서 謹篤을 保守氣像이라고 단안을 내렸다고 하자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이돈우가 자신의 견해를 취소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⁴⁵

이처럼 학자들 사이의 치열한 논변의식은 강회 기간 내내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긴장감은 장식 유치명의 부드러운 조율과 학자들 자신의 절제에 의하여 조절될 수 있었다. 그리고 『심경부주』 마지막까지 성공적으로 강회를 마치면서 이들은 서로의 공감대, 즉 斯文意識을 한 단계 더 강화할 수 있었다. 호계강회의 다

43. 『虎溪講錄』 敬直義方章, 訓長曰 工夫到熟後 敬便有義 義便有敬 然學者用工 當以敬爲主 而更加集義之工 程朱論敬義說甚備 附註不盡載 就考全書可也.

44. 『論語』 雍也, 子曰 仁者先難而後獲 可謂仁矣.

45. 이돈우의 문집 『肯菴集』 卷7에는 「心經箚錄」, 「心經贊圖」이 수록되어 있다. (홍원식 외, 『조선시대 심경부주 주석서 해제』, 한국철학총서27, 예문서원, 2007. pp445~450.)

음과 같은 마지막 답론은 강회 참석자들의 이러한 득의함을 보여준다.⁴⁶

훈장: 『中庸』首章에서는 먼저 戒懼를 말한 다음에 謹篤을 말하였는데, 末章에서는 먼저 근독을 말하고 다음에 계구를 말하였다. 왜 그런가?

김의수: 上章에서는 天命으로부터 아래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體를 말한 것이고, 下章은 下學而上達에 입각하여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用을 말한 다음 體를 제시한 것입니다.

김홍락: 首章은 一理로 시작해서 萬事로 전개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靜에서 動으로 이어진 것이고, 末章은 萬事로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一理로 합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動에서 靜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유치엄: 首章은 根源에서 아래로 分析한 것이고 末章은 分殊에서 위로 합해지는 것을 설명한 것이므로 戒懼와 謹篤의 선후가 다른 것입니다.

훈장: 세 사람의 말이 모두 옳다.(三說皆通)

훈장의 질문에 답변한 사람들은 강회 참석자 각각의 역할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위치에 있다. 김의수는 강록유사의 일원으로서 모든 강유의 대표자이고, 김홍락은 직월에 해당되면서 선배 강유의 대표자이며, 유치엄은 강회 내내 선생의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이 순간 만큼은 사의로서 상급유사를 대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장면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강장이 응강자를 평가하는 보통의 강학 모습을 연상시킨다. 이 때 강장은 훈장이다. 훈장이 던진 질문은 이제까지 『심경부주』의 핵심이라고 규정한 근독과 관련해서, 근독의 출처인 『중용』의 첫장과 마지막장의 뜻을 묻은 것이다.⁴⁷ 이에 대해 세 사람은 응강자의 자격으로 후배부터 차례로 답변하였다. 그들의 답변은 표현만 달리 할 뿐 동일한 내용이다. 세 응강자의 훌륭한 답변을 들은 훈장은 마지막에 ‘세 사람의 말이 모두 옳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이 말은 ‘세 사람 모두 통이요!’라 한 것이고, 결국 ‘모든 사람이 다 통이요!’라고 외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유머스러운 모습은 그저 장난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절제된 분위기 속에서 벌였던 치열한 논변의 긴장감이 세 사람의 답변을 통해 공동의 의식으로 승화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5. 결론

『호계강록』은 여타의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 그 자체로 흥미를 준다. 진지하게 토론하는 학자들의 모습을 가능한 한 생동감 있게 보여주려는 작성자의 의도가 곳곳에 배어 있다. 이 점에서 『호계강록』은 글로 적은 한 편의 기록영화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호계강록』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힘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호계강회를 19세기 서원에서 이루어진 강학활동의 한 사례로 주목하여, 『호계강록』에 수록된 답론 분석을

46. 『虎溪講錄』潛雖伏矣章, 訓長曰 中庸首章先戒懼而後謹篤 末章先謹獨而後戒懼 何. 金毅壽曰 上章自天命而說下來 故先體而後用 下章自下學而上達 故先用而後體. 金弘洛曰 首章始言一理而中散爲萬事 故自靜而趨動 末章中散爲萬事而復合爲一理 故自動而趨靜. 柳致儼曰 首章從原頭上分析說下來 末章從散殊上等底說合去 此戒懼謹獨先後之不同也. 訓長曰 三說皆通.

47. 수장은 앞에서 다른 「중용천명지위성장」을 말하고, 말장은 『중용』의 33장을 말한다. 말장은 『시경』에서 인용한 몇 개의 구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자는 이 장의 요지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右第三十三章 子思因前章極致之言 反求其本 復自下學爲己謹獨之事 推而言之 以馴致乎篤恭而天下平之盛 又贊其妙 至於無聲無臭而後已焉 蓋舉一篇之要而約言之 其反復丁寧示人之意 至深切矣 學者其可不盡心乎.’

시도하였다. 이러한 예비작업을 통해 본 연구에서 말하려 한 것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호계강회의 사례는 서원의 여러 강학활동 가운데 고도의 교육적 소통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호계강회는 서원생의 교육과 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일반적인 강학이나 장석에게 집중되는 특강 유형의 강의와는 달리 참석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담론을 통해 지성을 완성해 가는 세미나 유형에 속한다. 둘째 호계강회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개설되었음에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강회 전체에 흐르는 그들의 강학정신에 있었다는 점이다. 그 정신은 대산학을 계승하려는 사명의식, 절제와 소통의 토론정신 그리고 치열한 논변의식을 말한다.

이러한 호계강회의 사례는 이 외에도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호계강회와 같은 대규모의 강회가 빈번하게 열리지는 못했더라도, 서원에서는 다양한 강학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 가능성은 다른 기록이 있어서가 아니라 『호계강록』에 묘사된 내용 때문이다. 호계강회의 참석자들이 수준 높은 담론을 진행하거나 서로 절제하면서 논의를 심화시키는 모습은 평소에 강학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 점에서 평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강학활동의 다양한 양상을 포착할 필요가 생긴다. 이 글에는 그 가운데에서도 최고의 강학활동인 세미나를 살펴 본 것이지만, 이외에 이들이 벌인 독서, 문답, 서신교환, 일반적인 강회 그리고 저술활동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호계강회는 그러한 강학활동의 정점에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호계강록』이라는 자료가 가지는 가치가 특별하다는 점이다. 『호계강록』에서 확인된 강회 방식은 비단 여기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강회의 기록을 이처럼 생생하게 묘사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이 점에서 『호계강록』은 단순한 강회에 관한 기록이 아니라,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작성한 기록물로 보인다. 『호계강록』의 최종 작성자도 언급했지만 이미 『심경부주』와 『강록간보』가 있는 상황에서, 더욱이 수많은 여타 주석서가 있는 상황에서, 『호계강록』을 간행한 이유가 또 하나의 주석서를 제출하는데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호계강록』의 가치는 『심경부주』를 강학하는 실제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였다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 이 점에서 최종 기록자가 ‘지금 또 강록(『호계강록』)을 간행하니 이 책(『심경부주』)을 배우는 데에 어려움이 있겠는가? 다만 학자들이 보지 않을까 염려될 따름이다.’라고 한 것은 학자들이 『호계강록』을 열심히 볼 것을 촉구한 뜻으로 해석되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이 『호계강록』을 열심히 볼 것을 촉구한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 만큼 『호계강록』은 기존의 저서들과는 다른 측면에서 학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강점이 있다.

셋째는 호계강회의 사례는 조선후기 역사에서 교육문화의 충차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조선시대의 학자들이 추구하였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 이 자료는 중요한 한 장면을 그려내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강유가 제기하는 질문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제기되고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는 질문인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선생의 답변이 어떠한 의도로 제시된 것이고 과연 충분한 답변이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호계강회가 19세기 중반에 이루어진 수준 높은 세미나였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만든 교육문화의 공간이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호계강회의 사례는 조선 후기의 역사에서 교육문화의 충차에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라고 생각된다. 다만 이 통로는 현대의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에서 벗어날 때에야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서원 현판류(기문) 자료의 기록문화적 가치

1. 머리말

서원 현판류 자료는 금석문으로서의 가치를 포함하여 문화사적 내용, 인적 교류의 실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번 ‘제4차 서원워크숍’은 이러한 서원현판자료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유산 가치를 배가시키는 자료로 개발, 활용하고자 마련한 귀중한 자리이다.

이번 워크숍을 서원의 현판자료 중 사상사, 문화사, 교육사 부면에서 기록사적으로 중요한 자료를 선별하고, 이후 이러한 자료들에 포함된 콘텐츠들을 주목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중요자료의 가치와 의미를 소개하는 자료집(단행본 책자)이 발간되고, 그것이 세계문화유산의 지정과정에서 한국서원의 독특한 문화특성을 부각시키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이들 자료는 각 서원의 문화를 이해하고 교육, 홍보를 위한 문화컨텐츠로도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발제자는 이들 현판류 자료 유형 중 기문자료를 중심으로 그 가치와 성격을 강조하고, 향후 활용의 방안을 제안하여 보고자 한다.

현판류 자료를 크게 편액(당호), 기문, 제영문(주련)으로 구분할 수 있다. 편액은 대부분 건물의 당호(액호)로, 건물이 지닌 상징적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심은 해당 서원의 정신사적 배경을 검색할 좋은 자료이며, 동시에 액자를 쓴 인물과 금석문으로서의 가치를 함께 살필 수 있다. 제영문은 작자의 지명도와 서원과의 관련성(인적 교류), 서원의 경관 및 서원 문화를 문학적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자료이다.

기문류 자료들은 편액이나 제영문과 비교하면 기록내용의 사실성에서 큰 차별성을 지니고 있는 자료원이다. 즉 기문류는 서원의 변화나, 특별한 사안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과정, 상황,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계판 된 기문 자료라는 것은 결국 그 사건을 ‘기리고 알릴 필요가 있는’, 그러므로 ‘선택되어 게시’ 된 자료로 시대성과 역사성을 반영한다. 나아가 모든 기문 자료의 계판은 당대 구성원들의 합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며, 찬자와 서자의 선택도 당시의 지위, 의미, 공적에 따라 정해진 것이므로 모두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셈이다.

2. 현전 기문류 조사결과

기초조사결과 수합된 9개 서원의 현전 기문 자료는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총 91건이다.

紹修書院(1543년) : 至樂齋上樑文, 夙興夜寐箴(1827), 心箴, 敬齋箴(1827), 四勿箴(1827) 白雲洞紹修書院記(1550), 白雲洞安文成公祠堂記(1545), 白雲書院榜(1545), 白雲洞書院學規(1545), 白雲洞書院令(1545),

完文順興, 啓下關文, 嘉靖二十五年立案(1546), 乾隆十五年立案(1750), 文成公享祀執事(分定板, 1543), 鳳樓樓重營記 1, 2(乙酉), 紹修書院童蒙齋重建記(1854), 紹修廟宇重修記(1874), 儒道教育館記(1992)

瀟溪書院(1552년) : 瀟溪書院記(1561), 風詠樓記(1849), 風詠樓重建記(1849)

玉山書院(1573년) : 無邊樓(1572), 玉山書院記(1573), 書冊不出門外(1618), 國忌, 白鹿洞規, 傳教謄書, 御製祭文, 玉山精舍記(1802), 書院書冊不出院門(1840?)

陶山書院(1574년) : 四勿箴, 白鹿洞規, 國忌(① 19세기, ② 20세기), 院規, 肅廟丙辰....(18세기), 忌日, 享祀時獻官執事板, 壬子三月初三日..., (1792), 陶山書院遣閣臣致祭文(1792), 李主簿公事蹟(1848), 眞城李東俊公功績記(2102)

筆巖書院(1590년) : 國忌(懸板)(1887), 文廟從祀頒教文(1796), 文廟從祀教書/文廟陞配祝文(1796), 教書(1691/1710), 白鹿洞學規/附先生讀白鹿洞規詩(1710), 頒祭文(1662), 御製賜祭文(1786), 筆巖書院重修記(1889), 鼓巖先生追配時儒林上言/儀曹回啓 批答(1786), 執事分定記 院中執綱記, 廓然樓記(1760), 筆巖書院廓然樓重建上樑文(1772)

道東書院(1605년) : 傳教, 書道東書院額板下, 書院規目, 白鹿洞規, 國忌, 水月樓上樑文(1849), 水月樓重修上樑文(1863), 水月樓重建記(1974), 水月樓重建顛末小記(1974)

屏山書院(1613년) : 屏山尊德祠復享記(1630), 尊德祠享祀執事分定板 ① ②

遯巖書院(1634년) : 養性堂記(1603), 遯巖書院上樑文(1633), 養性堂後記(1883), 養性堂重修記(1956), 養性堂移建記①(1971), 養性堂移建記②(1978), 山仰樓重建上樑文(2006)

武城書院(1696년) : 講堂重創記(1828), 武城書院崔先生文集重刊記(1834), 武城書院重修記(1847), 武城書院重修記(1854), 武城書院重修記(1875), 武城書院重修記(1879), 武城書院復戶保奴還復記(1882), 武城書院誌改刊記(1884), 武城書院重修記(1886), 武城書院重修記(1888), 武城書院絃歌樓記(1891), 武城書院絃歌樓創建記(1891), 武城書院重修記(1892), 武城書院重修記(1895), 武城書院賢宇重修記(1901), 武城書院記(1902), 武城書院重修記(1904), 武城書院絃歌樓重修記(1903), 武城書院重修記(1906), 武城書院記(1906), 武城書院記(1916), 武城書院記(1916), 武城書院重修記(1917), 武城書院重修記(1927), 武城書院椅盤重修記(1927), 武城書院墻垣重修記(1928), 賢宇重修及典祀所創建記(1930), 武城書院重修記(1932), 絃歌樓重修記(1936), 武城書院院址復舊記(1937), 武城書院慕賢記(1953), 武城書院講修齋重修記(1965), 武城書院祭器改修記(1967), (無題)(1977), 金榮得讚揚文(1994)

이들 자료는 현전, 계관 된 기문류 자료만을 조사 표집 한 것이기 전통시기의 모든 현판을 망라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예컨대 계관 되었던 건물이 화재로 불에 타서 기문들이 훼손¹ 되었으나 사정상 이를 복원하지 못한 경우라든가, 계관 자료가 오랜 시일을 경과하면서 자연 훼손 된 경우, 그런가하면 기문의 숫자가

1. 예컨대 무성서원의 경우 현판류 자료는 1825년의 서원 화재로 당시까지 계관되었던 현판류 자료들이 회진된 탓으로 18세기 이전으로 시대가 올라가는 자료는 없다.

증가하는데 따른 교체, 의식·가치의 문제로 근대시기의 자료가 선택 교체된 경우 등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문집이나 서원지 등의 문헌자료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확인되는 기문 자료가 의외로 많다. 때문에 이들 자료만으로 온전하게 정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들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서원별 독특한 성격과 자료들을 추적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앞으로의 관심과 연구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3. 유형별 자료와 기록문화적 성격

1) 유형별, 내용별 분류

서원 기문자료들은 매우 다양하며 종합적 성격이어서 엄격하게 분류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시기별로 역사성을 부여하여 나눈다던가, 기문의 題名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시 가장 적절한 것은 자료의 정리와 유형화를 위하여,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대개

- ① 건물의 창건과 중수 연혁 자료,
- ② 인물과 제향 관련 자료,
- ③ 교육·강학 관련 자료
- ④ 서원의 재정·경제 관련 자료
- ⑤ 기타 자료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이번에 조사된 자료들을 이러한 분류, 구분방법에 따라 성격[내용]별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서원기문자료

서 원	총 수	건물기록	인물·제향	교육·강학	재정·경제	기 타
紹修書院	20	8	-	6	4	2
濫溪書院	3	3	-	-	-	-
玉山書院	9	3	2	3	-	1
陶山書院	12	-	6	2	-	4
筆巖書院	13	3	6	1	-	3
道東書院	9	4	2	2	-	1
屏山書院	3	-	3	-	-	-
遯巖書院	7	7	-	-	-	-
武城書院	35	27	1	1	3	3
계	111	55	20	15	7	14

건물의 기문, 즉 창건기, 상량문, 중수, 보수기록이 55건으로 과반수를 상회하며, 제향인물이나 제향 관련 기문도 20건에 이른다. 이에 반하여 원규, 학규, 완의 등 교육이나 강학관련 기문 자료는 의외로 적은 편이며, 기타로 분류한 자료는 國忌처럼 분류가 애매하거나 최근의 자료들의 경우이다.

2) 건물의 창건과 중수 연혁 자료

서원의 창건과 중수, 사액, 이건 등 사적에 관련된 자료로 추진배경과 과정, 재원의 마련 및 관련 인물들을 설명하여 준다. 창건기, 상량문, 중수기, 개건기 등등의 형태로 전해지며, 편액(당호)과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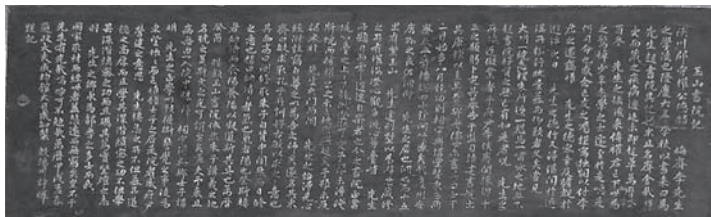


그림1. 玉山書院記(1573년)

여창을 모시는 서원을 건립하게 된 동기, 서원의 규모, 강당과 재실의命名, 그리고 죽계서원 다음으로 세운 남계서원에 거처하는 선비들에 대한 기대를 기록하고 있다. 玉山書院記에는 이언적 사후 경주유림들이 공의로 경주부윤과 경상감사에게 서원의 건립을 요청하게 된 本末을 적고 있다. 또한 서원건립을 계기로 경주가 鄒魯之鄉이 되어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하기를 바라는 소망도 담겨 있는 의미 있는 기문이라 하겠다.

중수기들은 우선 수량이 매우 많고 각기 중수시기의 사정이 기록하며, 모두가 역사적 배경과 변화, 주도인물 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특기할 자료를 선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다만 필자가 조사한 무성서원 講堂重創記(무자 1828년 金玟 기)는 시대는 늦지만, 무성서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무성서원이 1825년(순조 25) 불의의 화재로 소실되자 이를 중창하기 위하여 제향인의 후손들이 힘을 합치고, 태인현감 서호순에게 품보하여 그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면모를 일신한 내력을 적고 있다. 또한 이 글에서 김민은 아버지가 지은 중수상량문이 화재로 불탔음도 매우 안타깝게 서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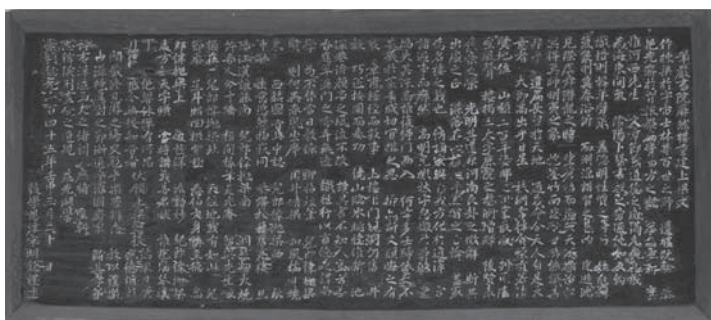


그림2. 筆巖書院 廓然樓重建上樑文(1772년)

(1772년, 93×42cm, 宋明欽 찬)은 문루인 확연루 중건 때의 상량문으로 1772년(영조 48) 樸泉 宋明欽(1705-1768)이 지었다.

창건기 중에는 濫溪書院記(1561년, 姜翼 찬)나 玉山書院記(1573년, 130×44, 草堂 許曄 찬)가 시기도 빠르며, 서원의 설립 당시의 분위기와 의미를 전해주고 있어 귀중한 자료이다. 남계서원기의 경우 설립을 주도한 강익이 정

상량문으로는 遯巖書院上樑文(1633년, 金尙憲)이 년대나 내용으로 주목되는데, 이는 돈암서원 건립 당시의 상량문으로 金尙憲(1570-1652) 찬이다. 글에는 돈암서원이 유학의 전통을 잇고 향후 많은 학자와 선비들을 배출하기를 기원하고 있다. 상량문이면서 중건을 겸한 筆巖書院 廓然樓重建上樑文

한편 돈암서원의 養性堂記(1603년, 鄭曄)는 서원이 성립하기 이전의 유서를 기리는 기문으로, 현존하고 있는 돈암서원의 현판 중 가장 이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사계 김장생이 55세가 되던 1602년에 아한정의 옛 터에 양성당을 세우고 강학활동을 시작하였는데, 글에는 당시의 정황이 잘 나타나 있다. 사실 이러한 기문의 경우는 서원 성립 이전의 것이지만 돈암서원의 연혁과 발전사에서 매우 주요한 기문자료이며, 鄭曄는 당시 양성당 주변의 경관까지도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3) 인물과 제향 관련 자료

서원 제향인물의 성격(지위)은 관념상 다른 어느 것보다 우선하며, 최고의 예우가 이루어진다. 제향인물과 관련된 기문으로는 사제문, 어제문, 전교(등서), 문집발간, 화상찬, 제향축문 등등이 계판 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옥산서원의 御製祭文(220×95cm, 正祖 御製)은 강당 중앙 윗부분에 걸려 있다. 바로 정조가 이언적의 학문을 특별히 존송하여 옥산서원에 내린 치제문이나, 원본은 강당 화재 시에 소실되었다. 내용은 이언적이 스스로 깨달아 얻은 성리학적 세계와 그의 충을 기리는 것으로 정조가 지은 제문을 새긴 것이다. 1792년에 정조가 제물과 제문을 보내 致祭한 일과 1839년(헌종 5)에 강당에 불이 난 일, 그리고 중건과 함께 다시 사액을 내린 일에 대한 전말이 적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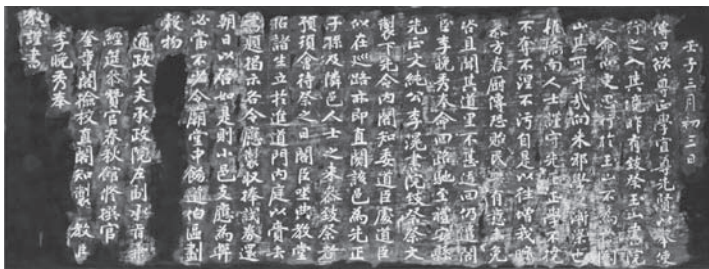


그림3. 陶山書院 致祭文(1792)

陶山書院의 壬子三月初三日...(1792년, 56×82cm, 정조) 치제문은 도산서원 정당 중앙 들보 위에 걸려있는데, 1792년(정조 16) 정조의 傳敎로 규장각 각신 李晩秀를 보내어 致祭하고 시험을 치르게 한다는 내용이다. 글씨는 정조의 전교를 받들어 각신 이만수가 썼다. 같은 해의 기문이 2매가 있다.

필암서원에는 주향인 하서 김인후를 문묘에 종사하고 내린 교서를 새겨 기리는 기문 2매가 있다. 하나는 文廟從祀頌敎文(1796년, 100×41cm)으로 정조가 김인후를 문묘에 배향하면서 경향각지의 대소신료들에게 하서의 학식과 덕망을 본받으라는 내용이다. 원본의 첫 부분에는 ‘敎中外大小臣僚耆老軍民閑良人等書’ 대신 ‘文廟從祀頌敎文’이라 하였고, 끝부분에는 연기 표기는 제외하고 ‘嘉慶元年十一月初九日’이라 판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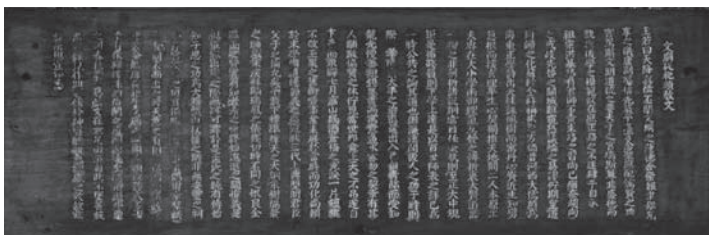


그림4. 文廟從祀頌敎文(1796)

필암서원에는 이와 함께 文廟從祀敎書/文廟陞配祝文(1796년, 110×39cm, 具庠/朴載淳) 현판도 있다. 提學 具庠(1730-?)이 지었고 부기된 文廟陞配祝文은 知製敎 朴載淳(1737-?)이 지은 것이다.

서원별로 제향인물과 관련된 특수한 기문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한강 정구가 제향 된 도동서원에는 그가 쓴 書道東書院額板下 현판이 있다. 이 기문은 도동서원 강당 전면 현판아래 걸려 있는데 정미년(1607, 선조 40) 가을에 현재 장소에 도동서원을 건립한 정구가 국왕이 하사한 판액과 함께 스승인 퇴계의 글씨를 모각한 현판을 강당 안팎에 건 사유를 밝힌 글이다. 정구는 先師의 옛 필치와 聖主가 하사한 판액이 장차 안팎에서 빛을 발하게 되었으니, 서원에 들어오는 우리 선비들은 어찌 서로 이 편액을 우러러보고 김 선생의 학덕을 흠모하며, 도동의 의미를 깊이 체득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 吾道의 전통이 끊이지 않기를 기원하고 있다.

무성서원은 고운 최치원을 제향 하는 서원이다. 무성서원에는 고운 최치원의 계원필경 간행 사실을 기록한 武城書院崔先生文集重刊記가 계관 되어 있다. 武城書院崔先生文集重刊記(갑오 1834년, 朴海彦 찬)는『계원필경』이 산질되어 볼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던 중, 沈能淑이 무성서원을 방문하고 선생을 주향으로 하는 서원에서 당연히 문집을 보장하여야 함을 감사 서유구에게 강조하면서 보고하였다. 이에 전주 감영에서 중간하도록 하였고, 무성서원에 문집을 소장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무성서원지』上(1884년간)에는 별도로「계원필경집개간기」라 하여 개간 전후 상황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놓았다.

필암서원에 계관 된 鼓巖先生追配時儒林上言/儀曹回啓 批答(1786년, 70×39cm, 金履鉉 등)은 김인후의 자제이자 사위인 鼓巖 梁子微(1523-1594)의 추배 상언과 예조의 회계에 대하여 1786년(정조 10) 2월 28일 내린 批答을 기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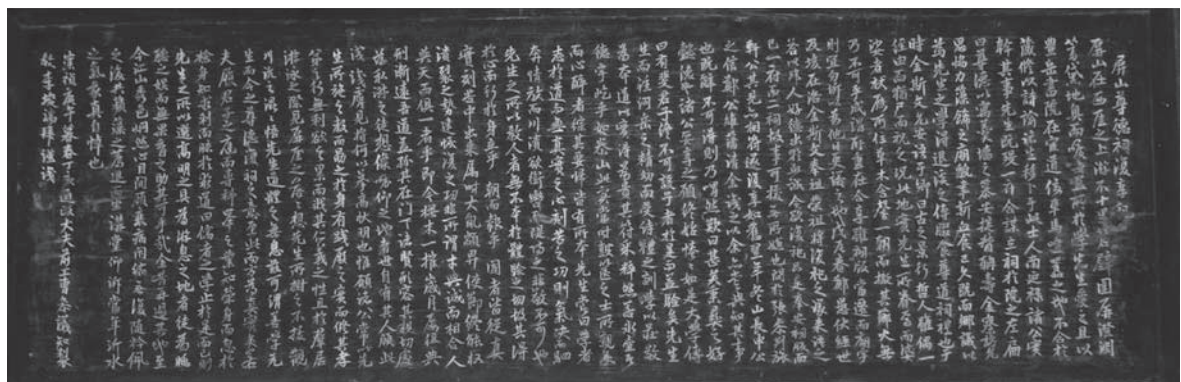


그림5. 屏山書院 屏山尊德祠復享記(1630년)

屏山書院의 경우도 屏山尊德祠復享記(1630년), 47.0×130cm 李穡 찬)가 있는데 이는 1620년 서애 류성룡의 위패를 여강서원에 봉안한 뒤, 1629년에 병산서원 존덕사로 다시 위패를 모시면서 쓴 것이다. 당시 류성룡의 제자로 부제학을 지낸 蒼石 李穡(1560-1635)이 병산서원 건립내력과 선생의 학덕에 대해 적었다.

4) 교육 강화 관련 자료

서원은 지역별, 학맥별로 다양한 교육·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각 서원은 독자적인 교육사상과 철학을 토대로 독특한 교육 방식과 운영 모습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바로 書院規約, 節目, 立議, 完文, 講案(講規), 學規 등의 자료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陶山書院 院規(55.5×145cm)는 퇴계 이항이 지은 것으로 도산서원 정당 북쪽 벽면에 걸려있다. ‘원규’는 이산서원(伊山書院)의 교과과정, 공부방법 등을 규정한 서원 규칙으로 이후 이 원규는 영남지역 서원 원규의 모범이 되었다.



그림6. 남계서원의 院規

남계서원의 院規는 ‘癸丑 四月 重刊’이라 적혀있고 院生이 독서할 서책과 서원 생활 규칙 및 예절을 아주 상세하게 열거하고 있다. 한편 도동서원에는 規目이라 하여 1917년에 새로 제정한 것이어서 다소 문제이나 서원 학규로는 매우 상세하다. 이들 院規와 學規 자료는 고문서로도 많이 남아 있으며, 구체적으로 講會錄, 考講錄, 講習禮 節目, 講禮 笏記 같은 자료가 전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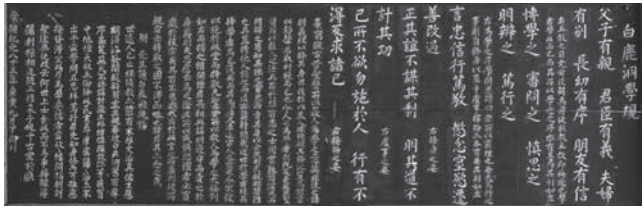


그림7. 필암서원 白鹿洞學規 附先生讀白鹿洞規詩(1710년)

한편 서원에는 朱熹의 白鹿洞規나 程의 四勿箴이 계관 되어 있다. 陶山書院에는 白鹿洞規(38×98cm)와 四勿箴(37×81cm) 현판이 계관 되어 있고, 도동서원에는 白鹿洞規 學者十訓이라 하여 주자의 白鹿洞書院의 五教之目, 窮理之要, 修身之要, 處事之要, 接物之要를 기록하고, 學者十訓을 추가해서 적어 놓았다. 특히 필암서원에는 특별하게 白鹿洞學規 附先生讀白鹿洞規詩(1710년, 210×75cm)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자의 백록동학규와 함께 후반부에 해서 김인후의 오언고시「讀白鹿洞規」가 함께 새겨져 있다.

끝으로 서원의 서책을 외부로 유출하지 말라는 규약은 적지 않게 보이나, 옥산서원과 같이 현판으로 내걸어 경계한 것은 특이하다. 옥산서원에는 두 개의 서책관련 기문이 있는데, 書院書冊不出院門(1840년?, 138×86cm)은 어서각(경각) 문 위에 걸었던 현판으로 1972년 청분각 문루에 옮겨 걸었다가 현재는 옥산서원유물 전시관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이 현판은 ‘서원의 책을 서원문밖으로 내지 않는다.’는 원규 중 하나를 적어 놓은 것이다. 일찍이 퇴계 이황이 정해서 서원의 책을 보존했고, 이후 300년이 지나 정조 또한 이 일을 가상히 여긴다는 綸音이 있었다. 이에 사람들이 이를 기억하기 위해 일의 전말을 기록해서 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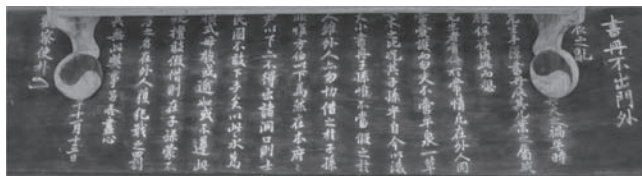


그림8. 옥산서원의 書冊不出院門外(1618년)

또 다른 옥산서원의 書冊不出院門外(1618년, 113×29.5cm, 관찰사 朴慶新 찬) 기문은 어서각 내 어서각 현판 아래에 걸려 있으며 관찰사의 어서각 서책의 반출을 금한다는 명을 편액에 새겨 걸어 놓은 기문이다. 御書閣에 회재가 사용하였던 서적과 수필고본 및 인종의 세자시절 친필 서찰을 보관하여 왔으나 회재 사후에 회재의 서적 보관을 둘러싼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에 회재의 옥산과 후손들은 경상도 관찰사에게 청원하여 어서각 내의 문적 유출을 영구히 막음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 내지 높이는 한편,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매우 흥미로운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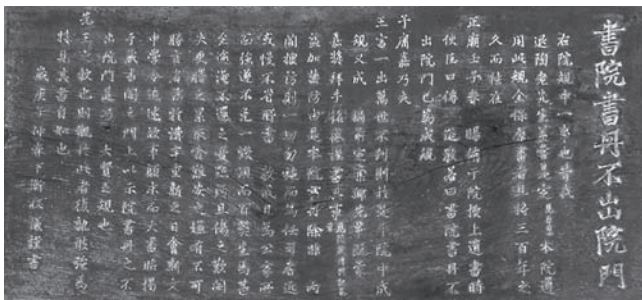


그림9. 옥산서원 書院書冊不出院門 기문

5) 書院 財政 經濟 관련 자료

서원의 재정 및 경제 관련 자료는 田畝이나 奴婢案, 額外院生案, 院保案, 院直案, 그리고 書院村 除役 등에 관련된 것, 그리고 서원의 重修나 居接을 위한 官·士族의 현물 증여와 사안별로 이루어지는 義捐과 각종 부조기 등이 있다. 한편 書院村의 면세 면역을 바라는 通文, 上書, 所志類가 기문으로 기록되거나 확증된 사실을 현판으로 만들어 증거를 삼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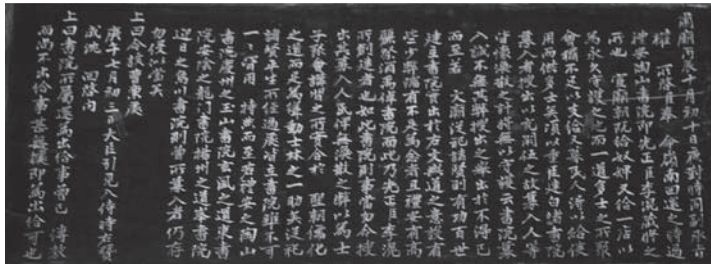


그림10. 陶山書院의 肅廟 傳教 記文(1676년)

도산서원, 옥산서원, 도동서원에 모두 걸려있는 숙종의 傳教 謄書는 1676년(숙종 2) 10월 10일 숙종이 夜對에서 서원에 내려진 인력들이 흩어져 선비들이 학문에 전념할 수 없음을 염려하는 글이다. 때문에 당시 문묘종사 등 공이 큰 현인을 향사하는 서원(禮安 陶山書院, 慶州 玉山書院, 玄風 道東書院, 安陰 龍門書院, 楊州 道峰書院, 迎日 烏川書院 등)에는 특전을 주는 것을 허용하도록 한 국왕의 傳教를 등서하였다. 옥산서원의 傳教는 강당 화재 때에 영조조의 備望記板, 정조조의 御製祭文板 등과 함께 소실되었는데 이를 다시 제작한 것이다. 옥산서원의 獨樂堂 完文(갑인년, 152×65cm)도 직접 서원관련 기문은 아니지만, 옥산서원과 관련된 독락당의 선조묘 수호에 잡역을 면제해 준다는 관찰사의 완문을 새겨 놓아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武城書院復戶保奴還復記(임오 1882년, 金稷欽 기)는 무성서원 사액 시 복호 3결과 보노 30명이 획급되어 서원의 재원으로 삼았으나, 서원철폐 때에 보노의 관할권이 넘어가 이를 복구하려는 노력들을 상세하게 적은 것이다. 그리하여 무인년에 송정순 등 본손들이 열읍에 청원하고, 당시 영상 이최응에게도 부탁하여 특별히 원상회복 명령이 있었으나, 여전히 미진함을 토로하였다. 그러다가 태인현감 李定植이 부임하여 원장으로 재임하면서 마저 원상 복구한 사실을 기록하였다. 당시의 전말이『무성서원지』(1884년간)에『復戶保奴還復記』라 하여 별도로 자료로 정리되어 있다. 이와 함께 武城書院記(1902년 金直述 기)는 서원지에는 '作脯事實'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갑오경장으로 서원의 제수 마련이 어렵게 되자 유림들이 관부에 요청하여 보면 庖肆의 세금 60냥을 받아 제수를 마련하도록 한 사정이 기록되어 있다.

6) 기타 자료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분류한 애매한 자료들이다. 예컨대 國忌, 忌日板처럼 분류가 애매하거나 최근의 자료들을 이곳에 포함시켰다.



그림11. 도산서원의 國忌板(19세기 초)

역대 왕과 왕비의 忌日과 陵號를 적은 國忌板은 여러 서원에 전해지는데 도산서원 2매, 도동서원 1매, 도동서원 1매(純祖 翼宗까지), 옥산서원 1매, 필암서원 1매(1887년 추정)가 전해진다.

陶山書院 國忌(1)은 태조부터 정조까지 역대 왕과 왕비의 기일(忌日)과 능호(陵號), 그리고 왕릉이 있는 지명까지 적고 있다(42.0 × 138cm). 이들 자료는 서원이 국왕과 왕비의 제일에 제향을 올렸다는 증거로서 서원 제향의례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목할 자료는 도산서원忌日板(63.0×35.0cm)이다. 이는 도산서원 정당 서쪽에 걸려있으며, 退溪와 趙穆의 기일이 적혀있다.



그림12. 퇴계선생 忌日板

다음으로 집사분정기나 분방기로 대부분의 서원에 게판 되어 있다. 대개 현관 3인, 진설, 집례, 대축, 봉향, 봉로, 봉작, 전작, 알자, 찬자, 찬인, 사전, 전향, 장생, 세작, 척기, 관세, 학생 등 20개의 소임을 새겨 놓고 소임자는 제향시마다 종이에 기록하여 붙인다. 다만 이들 자료는 계속 사용해온 것으로 거의가 년대 불명이다.

陶山書院의 경우는 享祀時獻官執事(40.5×131.2cm)라 하였고, 필암서원의 執事分定記(甲寅, 160×38cm)라 하였다. 屏山書院 尊德祠의 경우는 尊德祠享祀執事分定記와 祠從祀位執事分定記가 별도로 남아 있어 주향과 종향의 집사분정이 별도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현재도 사용하고 있다.



그림13. 武城書院誌改刊記(1884년)

기타 자료로 특별한 기문은 陶山書院에 게판 된 李主簿公事蹟(1848년, 35.5 × 96.5cm)이다. 이 기문은 古溪 李彙寧 찬으로 이는 임진왜란 때 도산서원의 서적과 퇴계선생의 위패를 안전하게 보관한 영천이씨 농암 이현보의 증손 芝山 李芸(1568-1638)의 사적을 기록한

글이다. 원래 1678년에 만든 구판이 있었으나 세월이 지나 닳고 흐려져서 새로 만들어 게판 하였다.

도산서원에서는 그의 고마움을 잊지 않기 위해 지금까지 매년 기일에 약간의 제수물품을 보내주고 있다고 한다.

武城書院誌改刊記(1884년, 30×80cm, 奇亮衍 찬)도 특기할 사례가 되어 준다. 이 기문은 정읍현감 奇亮衍이 무성서원지의 편간에 이르는 상세하게 기록하여 전하는 기문이다.

4. 기문자료의 향후 연구와 활용

이상에서 간략히 살핀 것처럼 기문류 자료들은 내용과 성격이 다양하며, 각 서원별 특성과 역사적 진정성을 증거 하는 문화유산이다. 현판들은 서원의 유래와 그 의미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 해당 서원의 역사와 문화사적 성격을 보여주는 원형 콘텐츠이다.

(1) 따라서 이러한 서원의 역사성을 그대로 지닌 현판의 의미와 가치를 일반인들에게 알기 쉽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이들 자료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기문은 물론이려니와 편액, 시문, 주련 등을 정밀 조사하여 한 권의 책으로 엮어 의미와 해설을 덧붙이고 번역을 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누가 짓고 누가 썼으며, 글을 쓰고 부탁하는 과정과 사연이 모두 스토리가 될 것이다. 즉 현판에 얹힌 수많은 이야기들과, 기문자료가 지닌 의미와 가치를 일반인들이 알 수만 있다면, 즉 보다 상세한 설명이 뒤따른다면 서원은 이전보다 훨씬 가깝고 정겨운 유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시대 상황의 이야기가 그 속에 묻어 있고, 관련 인물과 서원생활사, 문화사가 스토리-텔링 자료로 되살아 날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 이를 통하여 서원교육, 계승 활용의 구체적 자료로 이용할 보다 다양한 방안도 모색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토대로 각 서원의 현판의 의미를 상호 비교해보는 작업도 필요하다. 예컨대, 지형지세에 맞는 건물의 배치와 구조, 배향인물의 가치관에 따른 건물의 명명 등을 대조해보면 그 서원만이 지니는 독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계관 자료가 오랜 전통을 계승한 것이 아니고, 화재 등의 이유로 새롭게 제작되어 교체되었거나, 최근의 자료로 교체된 경우가 문제이다. 기문의 교체 이유는 숫자가 증가하는데 따른 교체, 오래되어 화재로 인한 훼손, 의식·가치의 문제로 근대시기에 선택 교체된 경우 등등이 상정된다. 즉 계관문의 상징성·대표성·역사성이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현전하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있었던 현판자료를 문헌 기록들에서 찾아야 한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번 기초조사 과정에서 문헌기록 검색으로 추가 확보된 자료들로,

- 옥산서원 : 玉山書院記略(權德麟, 龜峯集 권2), 玉山書院體仁廟重建日記(李能允, 谷圃集 권4), 玉山書院記(許曄, 李彦迪, 晦齋先生集 부록), 玉山書院 致祭文(弘齋全書 권22), 玉山書院記(許曄, 草堂先生文集).
- 필암서원 : 筆巖書院上樑文(金友伋, 秋潭先生文集 권8), 筆巖書院祠宇重建記(金漢翼, 華東遺稿 권2)
- 돈암서원 : 養性堂記(1602, 金長生, 사계선생유고, 돈암서원지(1958)), 遯巖書院講堂上樑文(尹宜學, 노서유고), (정회당)重建記(1883, 金尙鉉, 정회당지(1909)), 書揭遯巖院儒(宋時烈, 송자대전, 돈암서원지(1995))
- 무성서원 : 泰山祠事續(1616, 김일정 외), 院宇 丹腹重修記(1784, 김인행 기) 芝山處士安在護藏書記(1884, 金堯昇 기), 賢宇重修記(1832, 金玟 기), 院規 17조, 白鹿洞 5규, 講習禮節目 5조, 講修齋重修記(1887, 김영상 기) 書院重修記(1917, 김환풍) 이상 『武城書院院誌』(1884, 1927년간)에 수록

등등의 검색 사례를 보더라도 그 가능성은 충분히 예감된다.

또한 이렇게 서원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할 새롭게 찾아진 기문자료가 있다면 이를 복원 계판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일부 서원사례에서 보듯 교체된 구 현판자료가 전시관이나 유물관에 보관된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례는 가치와 역사성이 인정될 경우 다시 계판하거나, 보존상태가 아주 좋지 않아 계판이 불가능한 경우는 복제 모각하여 계판 하는 방법도 구상할 필요가 있다.

(3) 다음으로 기문류 중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유일한 사례로 紹修書院 明宗御筆‘紹修書院’ 懸板(경북 유형문화재 제330호)가 있다. 향후 다른 서원의 현판류도 지정하여 보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화재기록과 화재로 인한 현의 훼손을 감안하여 보존 복제하여 계판하고, 원본을 별도 보존 관리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는 정밀 스캔을 통해 자료화를 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서원 현판류(제영) 자료의 의미와 가치

1. 머리말-현판의 의미와 가치

현판(懸板)은 글씨나 그림을 종이와 비단에 쓰거나 나무판에 새겨서 문 위에 거는 액자류이다. 일반적으로 현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편액(扁額)은 건물 정면의 문과 처마 사이에 거는 판을 일컫는 것으로, 건물에 거는 모든 목판을 지칭하는 현판보다 좁은 의미로 쓰인다.

현판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지만 중국 진(秦)나라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하며, 문헌상으로는 한(漢)나라 고제(高帝) 때 개국공신인 소하(蕭何)가 궁궐에다 창룡(蒼龍)과 백호(白虎)를 써 붙인 기록이 최초이다.

우리나라에서 현판문화는 삼국시대 한자가 전래된 직후부터 있었다고 추정되지만, 끊임없는 전란과 외침과 화재로 인해 전해지는 것은 거의 없다. 현재 가장 오래된 현판 글씨는 고려 공민왕(恭愍王)이 쓴 것으로 전해지는 청량사의 유리보전(琉璃寶殿), 영주 부석사의 무량수전(無量壽殿)과 안동웅부(安東雄府) 등이 있다.

현판은 게시 장소와 내용에 따라 대체로 한 집안의 훌륭한 선조가 후손들에게 물려준 정신적 가치를 담고 있는 당호(堂號) 현판, 국가나 선현들의 교육이념과 목표 등을 담고 있는 서원이나 향교 등 교육 공간의 현판, 자연과 벗하며 유유자적하는 선비들의 여유와 풍류를 담고 있는 누정(樓亭)의 현판, 선조의 학덕을 존경하고 추모하는 뜻을 담고 있는 재사(齋舍)의 현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현판들은 대체로 조선후기 이후에 제작되었고, 그 내용은 교육과 교화, 수신에 관계되는 유교적 내용이 대부분이며, 글씨는 국왕에서부터 사대부, 문인학자, 명필가, 승려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분만큼 다양한 필치와 풍격을 보인다.

현판은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훌륭한 유교문화의 일부분으로서 현판이 담고 있는 의미를 알면, 건물의 기능과 용도뿐만 아니라 건물 안에서 생활했던 선현들의 삶의 지향을 엿볼 수 있고, 나아가 현판의 글씨를 통해 시대정신과 서예사도 복원할 수 있다.

요컨대, 현판은 대중들에게 그 공간을 상징하는 뜻을 시각에 호소하여 의미를 전달하는 홍보성을 띤 뛰어난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2. 서원관련 제영시 조사결과

조선시대 지방 교육은 주로 관학(官學)인 향교와 사학(私學)인 서원에서 이루어졌다. 물론 이보다 앞서 사설 초등교육기관인 서당에서 학문의 기초를 배우기도 하지만, 16세기 사림파가 정치의 주도권을 잡은 이후로는 성리학의 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세운 서원교육이 특히 중시되었다.

서원은 서당과는 달리 존현(尊賢)과 양사(養士)의 기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원규에 의해 운영되는 특징을 가졌다. 그래서 서원은 지방 사림세력의 구심점이 되기도 하고, 나아가 중앙 정치세력의 재지 기반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서원의 공간에는 다양한 의미의 현판들이 있다. 서원이 위치한 곳의 지명이나 선현의 교육이념을 담은 서원의 현판, 선현의 위패를 모신 사당의 현판, 유생들의 공부 공간인 강당의 현판, 원임(선생)이 기거하는 강당 좌우 협실의 현판, 유생들의 기숙공간인 동·서재의 현판 등이 있다. 이외에도 서적을 보관하는 서고(書庫)와 그 책판을 보관하는 장판각, 제사를 준비하는 전사청, 관리인이 거주하는 고직사 등의 현판이 있다.

특히 국가가 인정해 주는 사액서원은 다른 서원에 비해 격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글씨 또한 당대 최고의 명필이 썼다.

이들 서원의 현판은 설립목적과 기능에 맞게 교육이념이나 철학은 물론, 경전이나 성현이 남긴 구절을 인용하여 심신을 수양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래서 건물에 걸린 현판의 의미를 되새겨보면 그 서원 주인공이 지향한 학문정신을 엿볼 수 있다.

이번에 조사한 서원관련 제영시(題詠詩)는 각 서원 건물 공간에 이름을 부여한 편액류가 아니라, 서원(서당)의 주인공과 그 후학들이 서원(서당)을 짓게 된 배경이나 이념, 그리고 서원주변 경관의 자연물을 보고 느낀 심회를 시로써 형상화한 작품들이다. 이들 제영시는 편액류나 일반 산문과는 달리 서원을 찾는 이들에게 문학적 상상력을 일으키게 할 뿐만 아니라, 선조들의 자연을 경외(敬畏)하는 아름다운 마음가짐까지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각 서원별로 조사된 제영시의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소수서원

宋希奎(1494-1558), 『椰溪集』 권1, 「紹修書院, 次李退溪板上韻」

周世鵬(1495-1554), 『武陵雜稿』(原集) 권3, 「題新曆寄白雲洞諸彦」

趙昱(1498-1557), 『龍門集』 권1, 「題豐基白雲洞書院」

李滉(1501-1570), 『退溪集』 권1, 「白雲洞書院, 示諸生」(己酉(1549)○赴豐邑後)

李滉(1501-1570), 『退溪別集』 권1, 「景濂亭」(亭在白雲洞)

李滉(1501-1570), 『退溪集』 권4, 「書院十詠, 竹溪書院(豐基)」

李滉(1501-1570), 『退溪別集』 권1, 「柏與竹名曰翠寒, 贈同遊諸彦」

李滉(1501-1570), 『退溪集』 권45(祭文), 「白雲洞書院, 祭安文成公文」

趙穆(1524-1606), 『月川集』 권1, 「向小白, 宿白雲洞書院, 夜坐景濂亭」

琴蘭秀(1530-1604), 『惺齋集』 권1, 「白雲洞書院, 次南景祥(夢鰲)三絕韻」

權好文(1532-1587), 『松巖續集』 권1, 「白雲洞, 次板上韻」

裴三益(1534-1588), 『臨淵齋集』 권2, 「過白雲洞書院」

柳雲龍(1539-1601), 『謙菴集』 권1, 「白雲洞築臺, 命名濯纓, 留題二首」(癸巳)

安憲(1551-1613), 『竹溪集』 권1, 「敬次退溪先生紹修板上韻」

安憲(1551-1613), 『竹溪集』 권1, 「敬次趙觀察士秀紹修板上韻」

- 高尙顔(1553-1623),『泰村集』권2,「小白山祈雨歸路, 會白雲洞景濂亭, 與黃參判(暹), 金景鎮(九鼎), 郭丹谷(진), 琴皓如(復古)唱和。」
- 郭진(1568-1633),『丹谷集』권1,「紹修諸友, 徒步來訪, 謹投拙句以謝。」
- 申敏一(1576-1650),『化堂集』권2,「白雲洞書院, 次金獻納(應祖)韻」
- 洪宇定(1593-1654),『杜谷集』권3,「次周慎齋(世鵬)白雲洞景濂亭韻」
- 李景奭(1595-1671),『白軒集』권12,「謝白雲洞書齋諸生見訪」
- 柳世鳴(1636-1690),『寓軒集』권1,「白雲洞書院, 吟示齋中諸友。」(二首)
- 李栽(1657-1730),『密菴集』권1,「紹修書院, 敬次景濂亭韻。」
- 權德秀(1672-1759),『逋軒集』권1,「白雲洞, 次景濂亭韻。」
- 蔡彭胤(1669-1731),『希菴集』권20,「夜登白雲洞景濂亭, 敬次板上韻。」
- 姜再恒(1689-1756),『立齋遺稿』권5,「白雲洞」(洞有安文成祠, 奉夫子畫及七十二弟子像, 并從祀諸賢.)
- 吳瑗(1700-1740),『月谷集』권4,「白雲洞書院」
- 金元行(1702-1772),『溪湖集』권1,「白雲洞景濂亭, 敬次退陶先生壁上韻」
- 安錫徹(1718-1774),『雪橋集』권1,「順興白雲洞書院, 謁文成公晦軒先生廟。」
- 李獻慶(1719-1791),『艮翁集』권9,「晨謁白雲洞書院」
- 金煜(1723-1790),『竹下集』권2,「瞻拜白雲洞書院」
- 金煜(1723-1790),『竹下集』권2,「登景濂亭, 次板上韻。」(亭在白雲洞, 而白雲洞在順興)
- 洪翰周(1798-1868),『海翁詩藁』권5,「紹修書院謁宣聖像」
- 申佐模(1799-1877),『澹人集』권8,「白雲洞(順興)紹修書院, 奉審五聖十哲七十弟子影幀暨晦軒慎齋漢陰梧里眉叟五先生寫真, 謹述長篇八百五十六言, 用寓山仰之忱。」
- 郭鍾錫(1846-1919),『俛宇集』권4,「紹修書院, 敬次老先生板上韻。」
- 郭鍾錫(1846-1919),『俛宇集』권4,「紹修十詠」

[28명 총 35제]

- 소수서원 관련 제영시는 16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창작되고 있다.
- 소수서원과 관련해서는 퇴계 이황의 작품이 다른 작가에 비해 많으며, 소수서원을 제목으로 해서 지은 시보다는 백운동서원을 제목으로 하여 지은 시가 의외로 많다.
- 내용상 분류해 보면, 서원전체에 대해 읊은 시와 서원 안의 특정한 건물에 대해 읊은 시들로 구분할 수 있다. 서원을 총괄한 시는 서원 주인공의 학덕과 서원에 관한 의미(사상, 이념)를 집약한 것이라면, 개별 공간에 대해 읊은 시들은 그 공간을 명명한 의미와 주변풍광을 읊은 시가 대부분이다. 이를테면 퇴계의 「죽계서원」과 「취한대」를 들 수 있다.
- 퇴계의 「경림정」시에 후학들이 차운한 시가 많다. 소수서원(백운동서원)을 찾은 후학들은 주로 경림정에 올라서 선현들을 추억하고 주변풍광이 주는 현재적 심회를 형상화하고 있다. 그만큼 경림정의 주변 환경이 시상을 일으키기에 적합하기 때문이었으리라.
- 서원을 읊은 대표적인 시나 서원 건물과 주변경관을 연작시 형태로 읊은 시들을 조사하여 홍보용 자료나 문화콘텐츠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런 자료들은 현판에 새겨게시함으로써 서원에 대한 의미를 일반 대중들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퇴계의 「경림정」, 「죽계서원」(서원십영)과 곽종석의 「소수십영」등을 들 수 있다.

2) 도산서원

李滉(1501-1570),『退溪集』권3,「陶山雜詠」(并記)

李滉(1501-1570),『退溪集』권3,「秋日,遊陶山夕歸」(己未)

李滉(1501-1570),『退溪集』권5(續內集),「次韻南義仲陶山雜興」

李楨(1512-1571),『龜巖集』권1(續集),「宿陶山,夜雨曉霽,月色如畫,卽占所見」

黃俊良(1517-1563),『錦溪集』권2,「陪李退溪,遊陶山亭基,次口占韻」

黃應奎(1518-1599),『松澗集』권1,「暮春謁陶山祠」

琴輔(1521-1584),『梅軒集』권1,「陶山書院董役之暇,吟示諸公」

趙穆(1524-1606),『月川集』권6,「陶山書院尙德祠春秋常用祝文」

趙穆(1524-1606),「月川集」권1,「陶山祭後,登天淵臺」

奇大升(1527-1572),『高峯續集』권1,「陶山書堂」

琴蘭秀(1530-1604),『惺齋集』권1,「陶山祭後登天淵臺有感」

李純仁(1533-1592),『孤潭逸稿』권2,「追慕陶山」

柳成龍(1542-1607),『西厓集』권1,「陶山」

裴應裘(1544-1602),『安村集』권1,「陶山」

金圻(1547-1603),『北厓集』권2,「陶山書院,次月川丈韻」(四首)

申達道(1576-1631),『晚悟集』권1,「祇謁陶山尙德祠」

金光繼(1580-1640),『梅園遺稿』권1,「陶山詠竹」

鄭以諶(1590-1656),『慕軒遺集』권1,「謁陶山玉山兩書院歸路有吟」

李回寶(1594-1669),『石屏集』권1,「陶山謁廟日,登天雲臺」

金佺(1597-1638),『敬窩集』권2,「登陶山示同遊」

趙錫胤(1605-1654),『樂靜集』권1,「過陶山書院」

趙錫胤(1605-1654),『樂靜集』5,「謁陶山書院」(丙子)

李選(1632-1692),『芝湖集』권1,「陶山書院有吟」

金昌翁(1653-1722),『三淵集』권8,「陶山書院」

申聖夏(1665-1736),『和菴集』권2,「謁陶山書院」

蔡彭胤(1669-1731),『希菴集』권20,「自退溪先生舊宅,轉謁陶山書院,諸生請以韵語書于尋院錄,辭以不敢,請愈固,黽勉敬草」

權桀(1672-1749),『屏谷集』권1,「謁陶山」(二絶)

申靖夏(1681-1716),『恕菴集』권3,「陶山四詠,書堂」

尹鳳九(1681-1767),『屏溪集』권2,「謁陶山書院」

尹鳳九(1683-1768),『屏溪集』권2,「謁陶山書院」

沈鎔(1685-1753),『樗村遺稿』권8,「宿陶山」

吳光運(1689-1745),『藥山漫稿』권3,「陶山」

姜再恒(1689-1756),『立齋遺稿』권5,「陶山」

姜再恒(1689-1756),『立齋遺稿』권5,「陶山院齋,酬蘇一渾」(凝天○二絶)

姜再恒(1689-1756),『立齋遺稿』권6,「陶山」

- 徐錫麟(1710-1765),『睡聲集』 권1,「陶山」
- 權侗(1723-?),『南窓集』 권1,「拜陶山書院」
- 丁範祖(1723-1801),『海左集』 권5,「謁陶山祠院」
- 宋煥箕(1728-1897),『性潭集』 권1,「重尋陶山,用前韻」
- 李恒茂(1732-1799),『濟庵集』 권1,「敬謁陶山書院,用先生陶山書室韻」
- 俞漢雋(1732-1811),『自著』 권4,「陶山」
- 鄭宗魯(1738-1816),『立齋集』 권6,「敬次陶山雜詠」(十八首)
- 安德文(1747-1811),『宜庵集』 권2,「陶山書院」
- 盧國賓(1747-1821),『晚軒遺稿』 권1,「陶山巖棲軒」
- 趙秀三(1762-1849),『秋齋集』 권4(漢陽趙秀三芝園著),「拜陶山書堂」
- 河範運(1792-1858),『竹塢集』 권1,「謁陶山書院」
- 申佐模(1799-1877),『澹人集』 권8,「奉審陶山書院,敬述」
- 權▼(土+末, 1800-1873),『龍耳窩集』 권1,「尋陶山書院」
- 鄭來錫(1808-1898),『顧軒集』 권1,「謁陶山書院」
- 崔匡鎮(1816-1885),『梅隱集』 권1,「謹次陶山十八詠」
- 崔匡鎮(1816-1885),『梅隱集』 권1,「謹次陶山溪堂偶興十絕」
- 李濟權(1817-1881),『覺圃集』 권1,「拜定齋歸路謁陶山廟」
- 宋秉璿(1836-1905),『淵齋集』 권2,「謁陶山書院」
- 許薰(1836-1907),『舫山集』 권1,「謁陶山祠院」
- 許薰(1836-1907),『舫山集』 권5,「陶山」
- 崔琰民(1837-1905),『溪南集』 권2,「陶山書院,次韻李仲圓贈詩」(二首)
- 崔琰民(1837-1905), 권2,「敬次陶山十八絕」
- 尹炳謨(1839-1934),『弦齋集』 권2,「陶山書院」
- 安鍾惠(1841-1907),『石荷集』 권1,「謁陶山尙德祠」
- 安鍾惠(1841-1907),『石荷集』 권1,「宿陶山有感」
- 崔正基(1846-1905),『可川集』 권1,「謁陶山書院」
- 尹胄夏(1846-1906),『膠宇集』 권1,「陶山書院」
- 郭鍾錫(1846-1919),『俛宇集』 권3,「謁陶山廟」
- 郭鍾錫(1846-1919),『俛宇集』 권3,「院中效高峯古事,謹次老先生陶山雜詠十八絕」
- 李道樞(1847-1921),『月淵集』 권2,「謁陶山尙德祠」
- 崔元根(1850-1923),『二山集』 권2,「陶山書院」
- 金時洛(1857-1896),『莊庵文集』 권1,「陶山」
- 李壽安(1859-1928),『梅堂集』 권1,「謁陶山祠有感,用先生寒棲菴韻」(壬寅)
- 崔鶴吉(1862-1936),『懼齋集』 권1,「敬次退陶先生陶山雜詠」
- 河鳳壽(1867-1939),『柏村集』 권2,「尙德祠陶山書院」
- 河鳳壽(1867-1939),『柏村集』 권1,「宿陶山書院」
- 崔東翼(1868-1912),『晴溪集』 권2,「陶山書院」

宋浚弼(1870-1940),『恭山集』권1,「謁陶山尙德祠」
 黃炳中(1871-1935),『鼓巖集』권1,「謁陶山書院」
 沈相福(1871-1951),『恥堂集』권2,「謁陶山書院 禮安」
 沈相福(1871-1951),『恥堂集』권2,「登陶山書堂光明室」
 朴世煥(1874-1966),『梨山文集』권1,「登陶山」
 崔圭瀚(1875-1935),『恒齋集』권1,「謁陶山尙德祠」
 沈鶴煥(1878-1945),『蕉山集』권1,「謁陶山祠」
 李翊九(1838-1912),『恒齋集』권1,「謁陶山廟」
 張錫英(1851-1926),『晦堂集』권2,「謁陶山書院」(四絶)
 李斗勳(1856-1918),『弘窩集』권1,「謁陶山書院」(二首)
 安鍾彰(1865-1918),『希齋集』권1,「謁陶山書院」

[70명 총 84제]

- 도산서원 관련 제영시는 16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창작되고 있다.
- 도산서원은 퇴계가 만년에 직접 제자들을 가르친 도산서당에서 시작되었으며, 서당(서원)을 건립한 목적이 뚜렷하다. 특히 퇴계는 도산서당을 창건하고 각 건물과 서당 주변경관에 이름을 부여하고 그 의미를 「도산잡영」이라는 한시를 통해 형상화하였다.
- 도산서원을 찾은 이들은 한결같이 퇴계의 학덕을 추모하고 직접 배우지 못한 안타까운 심정과 퇴계가 남긴 글을 통해 그 학문정신을 받들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 도산서원을 찾았던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우선 당색에 구애됨이 없이 많은 인물들이 다녀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조선후기 여항시인으로 알려진 추재 조수삼이 도산서원을 방문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도산서원을 방문하여 시를 남긴 이들을 정밀하게 조사, 수집, 분석하면 또 다른 문학적 심원록(尋院錄)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도산서원과 관련한 다양한 인적 교류양상을 살필 수 있다.
- 서원과 관련한 대표적인 작품을 선별하여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위의 예시 참조)

3) 병산서원

柳成龍(1542-1607),『西厓別集』권1,「屏山書院, 奉別金鶴峯還朝.」(3수)
 柳成龍(1542-1607),『西厓別集』권1,「屏山, 與諸君, 校先師文集, 有感呈鶴峯兄侍者.」
 柳成龍(1542-1607),『西厓別集』권1,「戊子夏, 與士純諸友, 會屏山, 編退溪先生文集. 今十三年, 而諸君復會院中, 輯年譜, 感舊興懷, 吟一律錄呈. 幸各和之, 以記一時之事.」
 金允安(1560-1622),『東籬集』2권,「九月到屏山書院」
 金允安(1560-1622),『東籬集』2권,「屏山獨起」(2수)
 鄭弼(1601-1663),『愚川集』2권,「忝屏山院任, 謁廟後口占.」
 鄭弼(1601-1663),『愚川集』2권,「在屏山書院, 與諸友會話.」
 鄭弼(1601-1663),『愚川集』2권,「與諸友, 會屏山書院, 座上走筆.」
 洪柱世(1612-1661),『靜虛堂集』상,「屏山書院」

- 李惟樟(1625-1701),『孤山集』권1,「屏山書院, 與諸友修正西厓先生年譜.」
- 權斗經(1625-1701),『蒼雪齋集』권4,「屏山書院夜坐, 同荷塘從兄賦.」
- 金如萬(1625-1711),『秋潭集』권1,「次權靈山題晚對樓韻」(2수)
- 權泰時(1635-1719),『山澤齋集』권2,「屏山晚對樓, 詠朱子晚對亭詩, 仍以蒼翠矗寒空爲韻, 賦五絕示同志.」
- 權聖矩(1642-1708),『鳩巢集』권1,「屏山晚對樓洞主權亨叔, 以文公詩蒼翠矗寒空爲韻成五絕, 余乃續貂以呈.」
- 金侃(1653-1735)『竹峯集』2권,「晚對樓步前韻贈休仲」
- 申佐模(1799-1877),『澹人集』8권,「奉審屏山書院, 敬述.」
- 權(土+耒)(1800-1873),『龍耳窩集』권1,「尋屏山書院」
- 張錫龍(1823-1907),『遊軒集』권2,「屏山書院, 與諸益共賦」
- 崔正基(1846-1905),『可川集』권1,「謁屏山書院」
- 李承熙(1847-1916),『大溪集』권1,「謁屏山書院」
- 安昌烈(1847-1925),『東旅集』권2,「屏山書院, 春享翌日有感.」
- 金鎮璿(1854-1919),『雲西集』권1,「登屏山書院, 寓慕感吟」
- 河鳳壽(1867-1939),『柏村集』권1,「屏山書院」
- 崔圭瀚(1875-1935),『恒齋集』권1,「謁屏山尊德祠」
- 河謙鎮(1876-1946),『晦峯遺書』권1,「屏山書院」
- 宋基植(1878-1949),『海窓集』권1,「屏山書院, 與柳田下渭卿湜榮共賦.」

[21명 중 26제]

- 병산서원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앞에는 낙동강이 흐르고, 그 흐름에 따라 암벽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 있다. 병산서원 만대루에 올라 그 병산을 바라보면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 같으며, 그때 느끼는 정회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의외로 만대루에서 지은 시는 몇 수에 지나지 않는다. 왜 그럴까?

4) 도동서원

- 金世濂(1593-1646),『東溟集』권3,「道東書院, 示居接儒生」
- 吳道一(1645-1703),『西坡集』권5,「道東書院」(寒暄堂院宇, 在玄風)
- 安命夏(1682-1752),『松窩集』권2,「道東書院, 與宋丈士受及郭聖瑞(珽), 謁祠感吟.」
- 安德文(1747-1811),『宜庵集』권2,「謁道東書院, 此下系東遊錄」
- 宋秉璿(1836-1905),『淵齋集』권2,「拜道東書院」
- 郭鍾錫(1846-1919),『俛宇集』권7,「謁道東書院」
- 宋浚弼(1870-1940),『恭山集』권2,「謁道東書院」
- 曹兢燮(1873-1933),『巖棲集』권2,「道東書院, 次慕齋韻」

[7명 중 7제]

5) 남계서원

李滉(1501-1570),『退溪集』「書院十詠」4권,「藍溪書院」(咸陽)
 姜翼(1523-1567),『介庵集』상,「初建濫溪書院,得一絕示諸生」
 曹湜(1526-1572),『梅菴逸稿』권1,「濫溪書院會話」(丁卯)
 柳世彰(1657-1715),『松谷遺集』권1,「濫溪書院」
 柳汶龍(1753-1821),『槐泉集』권1,「宿濫溪書院」
 閔在南(1802-1873),『晦亭集』권3,「次濫溪書院明誠堂韻」
 崔琬民(1837-1905),『溪南集』권2,「濫溪院,讀一蠹先生實紀,有感」
 鄭載圭(1843-1911),『老栢軒集』권1,「敬展濫溪書院」
 權雲煥(1853-1918),『明湖集』권1,「濫溪院,酬河君宋運(琪鉉),見贈」(2수)
 李之榮(1855-1931),『訥菴集』권1,「咸陽拜濫溪書院」
 鄭奎榮(1860-1921),『韓齋集』권3,「濫溪書院,敬次退溪先生韻」
 崔秉軾(1867-1928),『玉潤集』권1,「濫溪書院,敬次退溪先生板上韻」
 宋浚弼(1870-1940),『恭山集』권2,「濫溪書院,用鄭先生頭流詩韻」
 朴亨東(1875-1920),『西岡集』권1,「濫溪書院用板上韻」

[14명 총 14제]

- 퇴계 당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원 9곳을 정하여 시를 짓고, 마지막 10번째 시에 서원에 관한 자신의 뜻을 나타낸 「총론제원(總論諸院)」을 지었다. 그것이 유명한 「서원십영」으로, 그 중에 하나가 「남계서원」이다. 남계서원을 찾은 이들은 퇴계의 「남계서원」에 차운한 시를 남겼다.

6) 돈암서원

李文載(1615-1689),『石洞遺稿』권1,「展謁遯巖兩先生書院」
 沈相福(1871-1951),『恥堂集』권1,「遯巖書院參春享」

[2명 총 2제]

7) 필암서원

金麟厚(1510-1560),『河西全集附錄』권2,「題筆巖書院」(權輶)
 金麟厚(1510-1560),『河西全集附錄』권2,「次筆巖書院松江板上韻」(金鎮玉)
 金友伋(1574-1643),『秋潭集』권6,「筆巖書院,重營後,有感」
 金昌翁(1653-1722),『三淵集拾遺』권10,「筆巖書院,謹次曾祖考韻」
 申聖夏(1665-1736),『和菴集』권3,「筆巖河西金先生書院,謹次先生韻」
 尹鳳九(1683-1767),『屏溪集』권4,「筆巖書院,次清陰先生韻」(河西金先生所享,卽長城地)
 宋明欽(1705-1768),『櫟泉集』권2,「筆巖書院,次清陰先生韻」
 柳遠重(1861-?),『西岡集』권2,「筆巖書院」

權載奎(1870-1952),『而堂集』권3,「拜筆巖書院」

李教宇(1881-1944),『果齋集』권3,「筆巖書院」

權龍鉉(1899-1987),『秋淵集』권1,「同族君輝遠(玉鉉)金君平叔(衡浩)許君文卿(鎬九)謁筆巖書院」

[10명 총 11제]

- 필암서원과 관련한 시들 중에는 청음 김상헌이 지은 시가 주목되고, 이 시에 차운한 시가 몇 수 있다.

8) 무성서원

沈鎭(1685-1753),『樗村遺稿』권2,「武城書院」

[1명 총 1제]

9) 옥산서원 (추후 검토)

3. 제영시 자료의 향후 연구와 활용

이상과 같이 서원관련 제영시들을 살펴보았다. 각 서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성격과 내용의 제영시들이 창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제영시들은 서원을 찾은 이들의 문학적 감수성을 확인해 줄뿐만 아니라, 자연을 사랑하는 착한 심성을 시적으로 형상화했기에 서원과 관련한 또 다른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 1) 우선 9개 서원과 관련하여 제영시들에 대한 치밀한 조사, 수집이 필요하다고 본다. 위에서 확인했듯이 조사된 서원의 제영시들을 살펴보면 서원마다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할 방법이 없지만, 여하간 기존에 나온 서적들을 살살이 뒤져 관련한 시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이후에야 각 서원간의 편차도 줄일 수 있고, 각 서원의 제영시의 특성을 밝히는 기초자료가 확보되는 셈이다.
- 2) 1차 자료 수집이 끝났으면 2차적인 가공작업을 해야 한다. 어려운 한문으로 된 시를 알기 쉽게 번역하는 작업이 동반되어야 한다. 9개 서원마다 아름다운 제목을 붙여 한 권의 제영시 모음집을 간행한다면 훌륭한 서원홍보 책자가 될 것이다. 더군다나 한 편의 시마다 약간의 해설을 곁들인다면 일반인들에게 문학적 상상력과 감응력은 배가 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중국에는 각 서원의 제영시를 상호 비교해 보면 그들 나름의 특성도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3) 그런 과정에서 서원의 특징을 잘 드러내주는 작품을 선별하여 현판에 새겨 서원의 적당한 공간에 게시한다면, 서원을 찾은 이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서원문화에 대한 인식도 제고되리라 생각한다.
- 4) 서원에 대한 후학들의 끊임없는 방문과 그에 따른 제영시의 창작은 자신의 학문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

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자신의 삶을 반추해 보는 여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제영시를 남긴 이들을 한 곳에 모아보면 또 다른 심원록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이력을 살펴보면 다양한 인적 교류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4. 보충자료

1) 소수서원

「紹修書院, 次李退溪板上韻.」

(缺)道于今道再興, 藏修傑閣湧千層. 清冷境界今安(缺), 蕭灑源流見未曾. 丈室每尋黃卷聖, 平臺遙看白雲騰. 心神日(缺)恬虛地, 可使襟懷澹似水.

宋希奎(1494-1558), 『倬溪集』 권1

「題新曆寄白雲洞諸彥」

凡三百五十五日, 願日存心書院中. 邪說譸譌何足道, 春風獨立是英雄.

周世鵬(1495-1554), 『武陵雜稿』(原集) 권3

「題豐基白雲洞書院」

霽月明山色, 光風送水聲. 聊將萬里目, 登眺景濂亭.

趙昱(1498-1557), 『龍門集』 권1

「白雲洞書院, 示諸生.」(己酉(1549)○赴豐邑後)

小白南墟古順興, 竹溪寒瀉白雲層. 生材衛道功何遠, 立廟尊賢事匪曾. 景仰自多來俊碩, 藏修非爲慕騫騰. 古人不見心猶見, 月照方塘冷欲冰.

李滉(1501-1570), 『退溪集』 권1

「景濂亭」(亭在白雲洞)

草有一般意, 溪含不盡聲. 遊人如未信, 蕭洒一虛亭.

李滉(1501-1570), 『退溪別集』 권1

「書院十詠, 竹溪書院(豐基)」

竹溪風月煥宮牆, 肇被恩光作國庠. 絃誦可能追白鹿, 明誠誰似導南康.

李滉(1501-1570), 『退溪集』 권4

「柏與竹名曰翠寒, 贈同遊諸彥.」

斷石臨溪勢欲騫, 搜奇初得共欣然. 試除荒草開蒼壁, 規作平臺挹翠烟. 正好冠童春暮月, 翻思松柏歲寒天. 自慙老守摧頽甚, 登陟猶能廁衆賢.

李滉(1501-1570), 『退溪別集』 권1

「白雲洞書院, 祭安文成公文」

尊信斯道, 闡教吾東. 功存學校, 百世攸宗.

李滉(1501-1570),『退溪集』卅45(祭文)

「向小白, 宿白雲洞書院, 夜坐景濂亭」

山擁千秋色, 溪含萬古聲. 幽人明月夜, 長嘯倚孤亭.

趙穆(1524-1606),『月川集』卅1

「白雲洞書院, 次南景祥(夢鰲)三絕韻。」

堂堂急景似頽波, 前路工程恨未多. 分寸光陰宜自惜, 如何奔走逐紛華.

溪源沿泝得從君, 開豁衿懷似罷雲. 學道由來貴自得, 役心科目奈迷門.

洞天深處白雲飛, 歸鳥投林帶夕暉. 微物尙能知所止, 我生寧不愧冠衣.

琴蘭秀(1530-1604),『惺齋集』卅1

「白雲洞, 次板上韻」

地饒清勝嶺之南, 屏擁雲林百轉深. 塵岸雪花侵破戶, 滿塘溪響洒靈襟. 勤穿管榻窮朝暮, 閒對匡山翫古今.

興到有時何所弄, 一輪明月一張琴.

權好文(1532-1587),『松巖續集』卅1

「過白雲洞書院」

雲滅烟沈野寺空, 水聲山色古今同. 自從賁飾文成廟, 德業風流更不窮.

裴三益(1534-1588),『臨淵齋集』卅2

「白雲洞築臺, 命名濯纓, 留題二首」(癸巳)

地藏問幾歲, 鬼關始知今. 築石鳴清珮, 疏林列茂陰. 奇巖初露面, 佳賞已盈襟. 寄語遊仙侶, 應須取次尋.

暖日沿溪曲, 偷閒樂此今. 塵泥浣逝水, 光景惜流陰. 脈脈思懸佩, 盈盈積寸襟. 蟻珠價自重, 味雋愛難尋.

柳雲龍(1539-1601),『謙菴集』卅1

「敬次退溪先生紹修板上韻」

虛幌光明敬夙興, 白雲生處嶽千層. 當年德業人無間, 後日文風學有曾. 靜察鳶魚飛又躍, 動觀星月落而騰.

孱孫歲晚尋遺跡, 翠栢蒼松保雪冰.

安憲(1551-1613),『竹溪集』卅1

「敬次趙觀察士秀紹修板上韻」

道學千年作指南, 山高小白竹溪深. 巖巖遺像誰強項, 肅肅來儒自整襟. 幽壑納晴雲色古, 虛堂迎夜月光今.

神呵鬼噤離兵燹, 願慕顏回日奏琴.

安憲(1551-1613),『竹溪集』卅1

「小白山祈雨歸路，會白雲洞景濂亭，與黃參判(暹)，金景鎮(九鼎)，郭丹谷(진)，琴皓如(復古)唱和。」
 景濂亭上會，盡日磬聲聞。雪鬚慚烏帽，龍驤換虎賁。(祈雨之行，到院中設虎皮，以爲吾座。予謂黃令曰，此所謂露朝族叔耶？又謂黃令曰，今日雨來。黃令曰，城主何以知其雨來也？予戲而答曰，龍驤衛來故云。一座莫不諧笑，故詩意如此。) 風流團一席，世事任浮雲。拜退聖賢像，此心更覺敦。(院莊先聖像，故詩意云云)

高尙顏(1553-1623),『泰村集』 권2

「紹修諸友，徒步來訪，謹投拙句以謝。」
 家貧最恨無雞黍，仙客飢還度碧林。目送荷裳殘照外，時時玉貌憩松陰。

郭진(1568-1633),『丹谷集』 권1

「白雲洞書院，次金獻納(應祖)韻」
 偶來白雲洞，相對翠屏山。暮靄生松外，秋聲在竹間。幸因無世累，聊此得心閑。尊酒論文地，留連盡日還。

申敏一(1576-1650),『化堂集』 권2

「次周慎齋(世鵬)白雲洞景濂亭韻」
 天地瘡痍日，猶聞絃誦聲。溪山白雲洞，風月景濂亭。

洪宇定(1593-1654),『杜谷集』 권3

「謝白雲洞書齋諸生見訪」
 泥途來訪謝諸君，十里徒行意亦勤。擬待暮春風日暖，傍花同踏北山雲。

李景奭(1595-1671),『白軒集』 권12

「白雲洞書院，吟示齋中諸友。」(二首)
 大業鴻名冠海東，皓天當日挺吾公。斯文倡起箕疇後，遺像長留闕里中。混混源泉流不息，深深宮院祀無窮。卽知昭代隆賢意，千古雲山鬱并崇。
 (右安文成公畫像)

辛勤儒院倡茲東，千載文成得我公。悅悅儀形光霽裏，于于衿佩詠歌中。白雲滿谷芬猶在，流水循除化不窮。試會景濂亭上趣，碧山無語更崇崇。
 (右周慎齋畫像)

柳世鳴(1636-1690),『寓軒集』 권1

「紹修書院，敬次景濂亭韻。」
 臺老三春色，溪含萬古聲。依稀見遺躅，盡日獨登亭。

李栽(1657-1730),『密菴集』 권1

「白雲洞，次景濂亭韻。」
 灑落濂溪老，難求色與聲。偶來雲院裏，想像倚虛亭。

權德秀(1672-1759),『逋軒集』 권1

「夜登白雲洞景濂亭，敬次板上韻。」

吾道淵源遠，溪流萬古聲。空山不見月，長夜獨登亭。

蔡彭胤(1669-1731),『希菴集』卷20

「白雲洞」(洞有安文成祠，奉夫子畫及七十二弟子像，并從祀諸賢。)2个

白雲洞裏白雲深，碧石蒼崖氣鬱森。半夜北風吹積雪，三更孤燈映青衿。

龍章鳳篆神所護，古廟英靈松柏陰。壁上復瞻夫子畫，景濂亭下發孤吟。

(院額紹修書院四大字，明廟御筆，院門外有亭，名景濂。)

姜再恒(1689-1756),『立齋遺稿』卷5

「白雲洞書院」

涼雨清礪谷，夕氣正鮮潔。幽泉送歸人，激激出深樾。巒宇儼門阨，洞壑藏曲折。縈紆水容舒，蔭蔚松翠列。晴沙若鋪雪，雲影與澄澈。賢祠肅攀跼，繪真瞻髣髴。尼父未居夷，箕條亦久缺。絃誦左海教，微公其已絕。洋洋竹溪流，沿溯足來哲。經始慎齋規，詠歸陶翁筆。徘徊豈能去，感激未終歇。林鳥已歸還，谷靄澹明滅。幽花翳秋徑，芳香猶可掇。

吳瑗(1700-1740),『月谷集』卷4

「白雲洞景濂亭，敬次退陶先生壁上韻」

獨來蒼松下，靜聽溪水聲。古人今不見，落日上孤亭。

金元行(1702-1772),『溪湖集』卷1

「順興白雲洞書院，謁文成公晦軒先生廟。」

穆穆吾祖文成公，排邪扶道正大東。小白山邃竹溪長，廟食千秋棟宇崇。童孫齊邀遠來趨，一路循溪向山通。德業卓朗天地間，氣像澄嚴松柏中。始以何者示童孫，苦旱甘雨澤遍蒙。更以何者示童孫，光風霽日開真衷。一雨一霽無非教，童孫再拜正發矇。鈞斫燕雲非先務，筆參馬杜亦何功。欲學吾祖學晦翁，戰戰兢兢大英雄。

安錫儼(1718-1774),『雪橋集』卷1

「晨謁白雲洞書院」

晨趨白雲洞，壑淨松聲滿。巖扶古竹列，溪送春流緩。古時無書院，學者各分散。周氏創於此，絃誦率游懶。儒宮遍大東，後來有述纘。煌煌杏壇圖，歲久不漫漶。宣尼儼端綏，左右陳磬管。環階七十子，列侍錯閭侃。瞻仰不同時，寸心如焚嘆。吾道倘一貫，千歲縮可短。安得倚宮牆，永追游夏伴。

李獻慶(1719-1791),『艮翁集』卷9

「瞻拜白雲洞書院」

白雲洞裏白雲深，暮出寒溪萬古心。慎老何年修盛制，文成當日倡孤音。松蹊寂寂秋容淨，澗戶幽幽木影森。後學平生山仰意，景濂亭上整衣襟。

金燿(1723-1790),『竹下集』卷2

「登景濂亭，次板上韻。」(亭在白雲洞，而白雲洞在順興)

壓水青山色，侵欄碧瀨聲。烟霞千古意，天地一孤亭。

其二(更疊前韻)

山帶三秋色，溪含萬古聲。平生仁知樂，落日景濂亭。

金燮(1723-1790),『竹下集』卷2

「紹修書院謁宣聖像」

院在順興府東白雲洞，即安文成先生舊基也。先生嘗入中國，購夫子遺像，奉安一室，每焚香禮拜。後人因其址立廟祀先生，置夫子像於正堂，而院外有小亭，名曰景濂，蓋舊矣。

凍石水泉上，千年屋數楹。地仍安氏卜，圖自蜀藩成。(像額有金字書蜀王讚，似是皇朝諸藩中所自來，而此則在晦軒後事也。)古壁凝絲竹，中堂儼斗衡。荒庭叢竹在，蕭瑟歲寒聲。

洪翰周(1798-1868),『海翁詩藁』卷5

「白雲洞(順興)紹修書院，奉審五聖十哲七十弟子影幀暨晦軒慎齋漢陰梧里眉叟五先生寫真，謹述長篇八百五十六言，用寓山仰之忱。」

東國古無祠院制，紹修創自明宣際。時則慎齋周先生，倣白鹿洞遵規例。白雲水石似武夷，長松落落間叢桂。何代緇流建佛宇，琳宮寶塔經羅麗。聖朝龍興崇儒教，前朝巨剎多榛廢。爰始拓地設院此，募工經記誡龜筮。毀去佛像沈諸沼，芟除穢萊修灌漑。邃石奇岳豁呈露，林巒拱抱如螺髻。退陶夫子實相度，講定位置審面勢。下有深潭深更黑，惡風毒霧多乖戾。夫子大書敬字刻于石，筆畫嚴正不啻古篆隸。自後鬼恠不敢近，長蛇巨蛟低尾逝。迺立正堂縱九楹，繚以垣牆環階砌。左爲翼室壁設龕，中安聖幀垂旒綴。西廡數武建祠屋，每歲春秋一開閉。正中主壁安文成，文節文介配食餼。聖朝宣額貢相扁，劃給院田蠲租稅。蓋昔晦軒安先生，倡明吾道功開繼。掌成均法崇四術，訓誨學徒申孝悌。乃購墳籍貯經閣，復納僮指充館隸。奉使中國觀文廟，殿廡東西以次詣。玉斗珠衡儼天縱，想像尼邱載誕睿。命工移寫一幅絹，五聖十哲摹次第。封號名諱一一書，下及七十身通藝。及歸妥度素壁上，朝夕爇香誠靡替。麗社既屋後承微，幀本流落塵煤翳。慎翁用是發深誠，改摹奉安殫勞勩。鄉黨一篇畫在此，曠百世下若合契。永使東人誦法孔，微二先生伊誰惠。我來祇謁正冠帶，上堂鞠躬握衣袂。申天侃閭宛親覩，聖師在坐環諸弟。恰像農山撰對夕，奉几設席趨跼濟。更憶雙圃延射日，張幃束矢揚解洗。古杏扶疎影在地，光風澹蕩徐轉蕙。歲後地去幾千餘，恍若當時耳目逮。復有五先生寫真，後人景仰北壁揭。晦軒灑落似濂翁，玉色山立揚光霽。慎齋魁梧望可畏，拳鬚環眼頗嚴厲。漢陰中秋端正月，淨無些滓半點滯。梧老雙眉進退憂，社稷安危素襟繫。眉翁道骨真天人，出塵濁中若蟬蛻。屢回瞻仰起欽敬，灑然胷中豁蒙蔽。朝鮮舊是箕子國，東來白馬知何歲。至今西京開字田，八條九疇傳荒裔。夫子之先亦殷人，曳杖嘗夢兩楹祭。每眷東顧欲居夷，不然詎有浮海計。況今無地讀春秋，四海陸沉歸瓊毳。吁嗟世無魯連子，坐見西戎肆然帝。長夜晦冥何時朝，白日無光陰有噎。一種邪類孽其間，橫行萬國恣吞噬。獨我一片乾淨土，尙秉尊周大義諦。羣賢輩出源洙泗，諸不在科黜一切。矧我列朝崇正學，敦尚禮義嚴闢衛。噫夫子道德如日中天無不照，盡收螢燭掃欃彗。夫子精靈如水在地無不之。上下四方窮陬澁，世與吾道交相喪。仰視蒼蒼天方蹶，鳳鳥不至圖不出。也應重灑泣麟涕，嗚乎夫子捨此奚適矣。高山仰止兮，惠我東方萬萬世。

申佐模(1799-1877),『澹人集』卷8

「紹修書院，敬次老先生板上韻。」

吾東院教此先興，占據山南第一層。爲愛真源追泗婺，思將化雨育顏曾。溪清漾月魚涵泳，巒翠連雲鳳翥騰。一宿虛櫺涵夜氣，朗然相對玉壺冰。

郭鍾錫(1846-1919),『俛宇集』卅4

「紹修十詠」

小白山

左海群山祖白頭 相承正脉我南州 鸞翔玉立雲屏列 斷不挺生俗子遊

白雲洞

古壑深深古洞虛 白雲曾與古人居 斂却霖姿思媚獨 此間堪讀晦翁書

竹溪

一道真源九曲川 明沙寒月共漪漣 來來活水流無息 不到滄溟不舍旃

文成廟

奮起迷塗認大方 仲尼元晦屬羹墻 遺居俎豆誠無愧 千載傳心一瓣香

文宣影室

居夷當日聖興嗟 天眷吾東竟不遐 周禮如今專在魯 唐虞舊物奈中華

日新齋

心源自是鏡光涵 氣滓翻招物累貪 須向朝朝磨洗盡 雲消雨霽見澄潭

直方齋

主宰吾心敬最云 兼須精義節羣紛 行看表裏工夫到 上達圓融太極君

景濂亭

物累清時摸不黏 天機活處語還嫌 人人無限公風月 何用全輸讓老濂

翠寒臺

歲晏蒼然栢悅梢 寒流白石許神交 登臺最可論心事 灑落崢嶸絕滯膠

敬石(世傳洞有鬼恠 周先生書敬字于石面 自是妖不敢作)

千聖相傳一片腔 鐫崖猶得百邪降 若待自家真宰立 世間甚物更嬰撞

郭鍾錫(1846-1919),『俛宇集』卅4

2) 도산서원

「陶山雜詠」(并記)

靈芝之一支東出 而爲陶山 或曰 以其山之再成 而命之曰陶山也 或云 山中舊有陶竈 故名之以其實也 爲山不甚高大 宅曠而勢絕 占方位不偏 故其旁之峯巒溪壑 皆若拱揖環抱於此山然也 山之在左曰東翠屏 在右曰西翠屏 東屏來自清涼 至山之東 而列岫縹緲 西屏來自靈芝 至山之西 而聳峯巍峨 兩屏相望 南行迤邐 盤旋八九里許 則東者西 西者東 而合勢於南野莽蒼之外 水在山後曰退溪 在山南曰洛川 溪循山北 而入洛川於山之東 川自東屏而西趨 至山之趾 則演漾泓渟 沿泝數里間 深可行舟 金沙玉礫 清瑩紺寒 卽所謂濯纓潭也 西觸于西屏之崖 遂竝其下 南過大野 而入于芙蓉峯下 峯卽西者東而合勢之處也 始余卜居溪上 臨溪縛屋數間 以爲藏書養拙之所 蓋已三遷其地 而輒爲風雨所壞 且以溪上偏於閨寂 而不稱於曠懷 乃更謀遷 而得地於山之南也 爰有小洞 前俯江郊 幽窅遼廓 巖麓悄蒨 石井甘冽 允宜肥遯之所 野人田其中以資易之 有浮屠法蓮者幹其事 俄而蓮死 淨一者繼之 自丁巳至于辛酉 五年而堂舍兩屋粗成 可棲息也 堂凡三間 中一間曰玩樂齋 取朱先生名堂室記樂而玩之 足以終吾身而不厭之語也 東一間曰巖栖軒 取雲谷詩自信久未能 巖栖冀微效之語也 又合而扁之曰陶山書堂 舍凡八間 齋曰時習 寮曰止宿 軒曰觀瀾 合而扁之曰隴雲精舍 堂之東偏 鑿小方塘 種蓮其中 曰淨友塘 又其東爲蒙泉 泉上山脚 鑿令與軒對平 築之爲壇 而植其上梅竹松菊 曰節友社 堂前出入處 掩以柴扉 曰幽貞門 門外小徑緣澗而下 至于洞口 兩麓相對 其東麓之脅 開巖築址 可作小亭 而力不及 只存其處 有似山門者 曰谷口巖 自此東轉數步 山麓斗斷 正控濯纓 潭上巨石削立 層累可十餘丈 築其上爲臺 松棚翳日 上天下水 羽鱗飛躍 左右翠屏 動影涵碧 江山之勝 一覽盡得 曰天淵臺 西麓亦擬築臺 而名之曰天光雲影 其勝槩當不減於天淵也 盤陀石在濯纓潭中 其狀盤陀 可以繫舟傳觴 每遇潦漲 則與齊俱入 至水落波清 然後始呈露也 余恆苦積病纏繞 雖山居 不能極意讀書 幽憂調息之餘 有時身體輕安 心神灑醒 俛仰宇宙 感慨係之 則撥書攜筇而出 臨軒玩塘 陟壇尋社 巡圃時藥 搜林擷芳 或坐石弄泉 登臺望雲 或磯上觀魚 舟中狎鷗 隨意所適 逍遙徜徉 觸目發興 遇景成趣 至興極而返 則一室岑寂 圖書滿壁 對案默坐 競存研索 往往有會于心 輒復欣然忘食 其有不合者 資於麗澤 又不得則發於憤悱 猶不敢強而通之 且置一邊 時復拈出 虛心思繹 以俟其自解 今日如是 明日又如是 若夫山鳥嚶鳴 時物暢茂 風霜刻厲 雪月凝輝 四時之景不同 而趣亦無窮 自非大寒大暑大風大雨 無時無日而不出 出如是 返亦如是 是則閒居養疾 無用之功業 雖不能窺古人之門庭 而其所以自娛悅於中者不淺 雖欲無言 而不可得也 於是 逐處各以七言一首紀其事 凡得十八絕 又有蒙泉，冽井，庭草，澗柳，菜圃，花砌，西麓，南泚，翠微，寥朗，釣磯，月艇，鶴汀，鷗渚，魚梁，漁村，烟林，雪徑，櫟遷，漆園，江寺，官亭，長郊，遠岫，土城，校洞等五言雜詠二十六絕 所以道前詩不盡之餘意也 嗚呼 余之不幸晚生遐裔 樸陋無聞 而顧於山林之間 夙知有可樂也 中年 妄出世路 風埃顛倒 逆旅推遷 幾不及自返而死也 其後年益老 病益深 行益蹢 則世不我棄 而我不得不棄於世 乃始脫身樊籠 投分農畝 而向之所謂山林之樂者 不期而當我之前矣 然則余乃今所以消積病 豁幽憂 而晏然於窮老之域者 舍是將何求矣 雖然 觀古之有樂於山林者 亦有二焉 有慕玄虛 事高尚而樂者 有悅道義 頤心性而樂者 由前之說 則恐或流於潔身亂倫 而其甚則與鳥獸同群 不以爲非矣 由後之說 則所嗜者糟粕耳 至其不可傳之妙 則愈求而愈不得 於樂何有 雖然 寧爲此而自勉 不爲彼而自誣矣 又何暇知有所謂世俗之營營者 而入我之靈臺乎 或曰 古之愛山者 必得名山以自託 子之不居清涼 而居此何也 曰 清涼壁立萬仞 而危臨絕壑 老病者所不能安 且樂山樂水 缺一不可 今洛川雖過清涼 而山中不知有水焉 余固有清涼之願

矣 然而後彼而先此者 凡以兼山水 而逸老病也 曰 古人之樂 得之心而不假於外物 夫顏淵之陋巷 原憲之甕牖 何有於山水 故凡有待於外物者 皆非真樂也 曰 不然 彼顏原之所處者 特其適然而能安之爲貴爾 使斯人而遇斯境 則其爲樂 豈不有深於吾徒者乎 故孔孟之於山水 未嘗不亟稱而深喻之 若信如吾子之言 則與點之歎 何以特發於沂水之上 卒歲之願 何以獨詠於蘆峯之巔乎 是必有其故矣 或人唯而退 嘉靖辛酉日南至 山主老病畸人 記

十八絕(七言)

陶山書堂

大舜親陶樂且安, 淵明躬稼亦歡顏. 聖賢心事吾何得, 白首歸來試考槃.

巖栖軒

曾氏稱顏實若虛, 屏山引發晦翁初. 暮年窺得巖栖意, 博約淵冰恐自疎.

玩樂齋

主敬還須集義功, 非忘非助漸融通. 恰臻太極濂溪妙, 始信千年此樂同.

幽貞門

不待韓公假大龜, 新居縹緲映柴扉. 未應山徑憂茅塞, 道在幽貞覺坦夷.

淨友塘

物物皆含妙一天, 濂溪何事獨君憐. 細思馨德真難友, 一淨稱呼恐亦偏.

節友社

松菊陶園與竹三, 梅兄胡奈不同參. 我今併作風霜契, 苦節清芬儘飽諳.

隴雲精舍

常愛陶公隴上雲, 唯堪自悅未輸君. 晚來結屋中間臥, 一半閒情野鹿分.

觀瀾軒

浩浩洋洋理若何, 如斯曾發聖咨嗟. 幸然道體因茲見, 莫使工夫間斷多.(幸手本作縱)

時習齋

日事明誠類數飛, 重思複踐趁時時. 得深正在工夫熟, 何啻珍烹悅口頤.

止宿寮

愧無雞黍謾留君, 我亦初非鳥獸群. 願把從師浮海志, 聯床終夜細云云.

谷口巖

東躡江臺北入雲, 開荒谷口擬山門. 此名偶似前賢地, 耕隱風聲詎易論.

天淵臺

縱翼揚鱗孰使然, 流行活潑妙天淵. 江臺盡日開心眼, 三復明誠一巨編.

天光雲影臺(或只稱天雲臺)

活水天雲鑑影光, 觀書深喻在方塘. 我今得意清潭上, 恰似當年感歎長.

濯纓潭

漁父當年笑獨醒, 何如孔聖戒丁寧. 我來叩枻吟風月, 卻喜清潭可濯纓.

盤陀石

黃濁滔滔便隱形, 安流帖帖始分明. 可憐如許奔衝裏, 千古盤陀不轉傾.

東翠屏山

簇簇群巒左翠屏，晴嵐時帶白雲橫。斯須變化成飛雨，疑是營丘筆下生。

西翠屏山

崑崙羣峯右翠屏，中藏蘭若下園亭。高吟坐對眞宜，一任浮雲萬古青。

芙蓉峯(趙上舍士敬家在峯下)

南望雲峯半隱形，芙蓉曾見足嘉名。主人亦有烟霞癖，茅棟深懷久未成。

「二十六絕」(五言○逐題又有四言詩一章)

蒙泉(書堂之東，有泉曰蒙。何以體之？養正之功。)

山泉卦爲蒙，厥象吾所服。豈敢忘時中，尤當思果育。

冽井(書堂之南，石井甘冽。千古烟沈，從今勿幕。)

石間井冽寒，自在寧心惻。幽人爲卜居，一瓢眞相得。

庭草(閒庭細草，造化生生。目擊道存，意思如馨。)

庭草思一般，誰能契微旨。圖書露天機，只在潛心耳。

澗柳(澗邊垂柳，濯濯風度。陶邵賞好，起我遐慕。)

無窮造化春，自是風流樹。千載兩節翁，長吟幾興寓。

菜圃(節友社南，隙地爲圃。下帷多暇，抱甕何苦。)

小圃雲間靜，嘉蔬雨後滋。趣成眞自得，學誤未全癡。

花砌(堂後衆花，雜植爛爛。天地精英，莫非佳玩。)

曲砌無人跡，幽香發秀姿。風輕午吟處，露重曉看時。

西麓(悄蒨西麓，堪結其茅。以藏以修，雲霞之交。)

舍西橫翠麓，蕭灑可幽貞。二仲豈無，愧余非蔣卿。

南汧(石之揭揭，樾之陰陰。于江之汧，納涼蕭森。)

異石當山口，傍邊澗入江。我時來盥濯，清樾興難雙。

翠微(翠微翠微，書堂之東。九日故事，感慨余衷。)

東隴上翠微，九日攜壺酒。卻勝陶淵明，菊花空滿手。

寥朗(寥朗寥朗，精舍之西。仰眺俯瞰，孰知其倪。)

西隴上寥朗，矯首望烟霞。安得陵八表，仍尋羽人家。

釣磯(臨江苔石，一絲颺風。貪餌則懸，冒利則訐。)

弄晚竿仍裊，來多石亦溫。魚穿青柳，蓑帶綠烟痕。

月艇(一葉小艇, 滿載風月. 懷人不見, 我心靡歇.)
寒潭如拭鏡, 乘月弄扁舟. 湖老烟波, 坡仙桂棹秋.

櫟遷(櫟之不材, 多至壽老. 厥或不免, 乃壽之道.)
緣崖路呼遷, 其上多樹櫟. 何妨抱離奇? 壽已過數百.

漆園(漆有世用, 其割焉保? 厥或免割, 乃割之道.)
古縣但遺基, 漆林官所植. 見割有警言, 蒙莊亦高識.

魚梁(丙穴底貢, 編木如山. 每夏秋, 我屏溪間.)
玉食須珍異, 銀脣合進供. 峨峨梁截斷, 濺濺罟施重.

漁村(太平烟火, 宜仁之村. 漁以代徭, 式飽且溫.)
隔岸民風古, 臨江樂事多. 斜陽如畫裏, 收網得銀梭.

烟林(吟不盡興, 畫不盡變. 春濃繡錯, 秋老霞綯.)
遠近勢周遭, 漠漠迷烟樹. 延望足玩心, 變態多朝暮.

雪徑(皓皓崖壑, 迢迢磴徑. 踏作瑤迹, 誰先乘興.)
一徑傍江潯, 高低斷復遠. 積雪無人蹤, 僧來自雲表.

鷗渚(舞而不下, 渠未可干. 狎而有盟, 吾何敢寒.)
浩蕩浮還沒, 毳毼晒復眠. 閒情乃如許, 機事定無緣.

鶴汀(鳴皋聞天, 掠舟驚夢. 野田有侶, 盍慎媒弄.)
水鶴烟霄下, 晴沙立遠汀. 那能無飲啄, 得處莫留停.

江寺(江上招提, 老仙舊居. 月寒庭蕪, 風悲室虛.)
古寺江岸空, 仙遊杳方丈. 蟠桃定何時, 結子重來賞.

官亭(官作之亭, 歲月茫茫. 樂匪知濠, 學似如棠.)
小亭境自佳, 後江前阜隰. 阜蓋不來時, 野禽自栖集.

長郊(郊原膾膾, 籬落依依. 戴星而出, 帶月而歸.)
炎天彌翠浪, 商節滿黃雲. 薄暮歸鴉望, 遙風牧笛聞.

遠岫(如黛如簪, 非烟非雲. 入夢靡遮, 上屏何分.)
微茫常對席, 縹緲定何州. 雨暗愁無奈, 天空意轉悠.

土城(維彼南山, 因山作城. 海桑一朝, 蠻觸何爭.)
禦難何代人, 古籍莽難考. 時平久已頹, 兔穴深蔓草.

校洞(古縣鄉校, 遺址宛然. 麗季辱王, 教化無傳.)

宮牆沒澗烟, 絃誦變山鳥. 誰能起廢規? 張皇道幽眇.

李滉(1501-1570), 『退溪集』 卍3

「秋日, 遊陶山夕歸」(己未)

秋懷慄慄蕙蘭腓, 水落天空雁欲飛. 不係窮通憂與樂, 何知今古是兼非. 天淵臺迴閒吟坐, 柞櫟遷長帶醉歸. 但使淵明終老地, 衣沾夕露願無違.

李滉(1501-1570), 『退溪集』 卍3

「次韻南義仲陶山雜興」

曠絕天開洞, 高明地抱陽. 幽居觀物化, 同寓襲蘭香. 菊色團楓色, 山光映水光. 圖書滿四壁, 心事一何長?

李滉(1501-1570), 『退溪集』 卍5(續內集),

「宿陶山, 夜雨曉霽, 月色如畫, 卽占所見。」

光風吹綠柳, 霽月照清江. 院靜人如玉, 對山闌曉窓.

李楨(1512-1571), 『龜巖集』 卍1(續集)

「陪李退溪, 遊陶山亭基, 次口占韻」

暫輟雲臺讀易牀, 冠童春服陟南崗. 仙蹤放浪煙霞外, 天眼披尋水石傍. 專壑耕漁真樂足, 滿川風月道心長. 林間異日開精舍, 肯許承顏一飲芳.

黃俊良(1517-1563), 『錦溪集』 卍2

「陪李退溪遊陶山亭基, 次口點韻」

一臥溪堂歲月深, 買田移卜闢雲岑. 淵源洛水傳文獻, 淳古陶山蔭樹林. 風月剩添光霽趣, 簡編長對聖賢心. 從遊外客猶堪詫, 假步門牆得賞音.

黃俊良(1517-1563), 『錦溪集』 卍5(外集)

「暮春謁陶山祠」

束脩承指掌, 喬木未遷鶯. 時雨千林化, 和風百卉榮. 齊明如左右, 髣髴拜平生. 霽月濂溪後, 何人是兩程?

黃應奎(1518-1599), 『松澗集』 卍1

「陶山書院董役之暇, 吟示諸公。」

志道難窺室, 攻文未嚼英. 終知圖揣分, 初豈郭無情. 幸賴邦多士, 相期義顧名. 藏修贏得地, 盍亦勵仁榮.(司空圖居中條山作亭, 名三休. 量才一宜休, 揣分二宜休, 老而聵三宜休. 溫嶠問郭文曰, 飢思食壯思室, 自然之理, 先生獨無情乎? 文曰情由憶生. 不憶故無情.)

琴輔(1521-1584), 『梅軒集』 卍1

「陶山書院尙德祠春秋常用祝文」

心傳孔孟，道紹閩洛。集成大東，斯文準極。

趙穆(1524-1606),『月川集』卷6

「陶山祭後，登天淵臺」

人去山空谷鳥悲，薜蘿松桂自相依。秋雲太是無情思，閒向天淵弄晚暉。

趙穆(1524-1606),『月川集』卷1

「陶山書堂」

容膝堂成審易安，陶匏登案足怡顏。優游卒歲知何事，象在方圓水在槃。

奇大升(1527-1572),『高峯續集』卷1

「陶山祭後登天淵臺有感」

不盡三年築室悲，巖栖立雪夢依依。隴雲咫尺登臺感，無限秋山媚夕暉。

琴蘭秀(1530-1604),『惺齋集』卷1

「追慕陶山」

陶山昔日喪斯文，綿酒生芻往哭門。千載相傳惟水月，一生無過自乾坤。床頭書帙塵埋匣，溪上梅花雪擁根。世事累翻完者少，到今方識道彌尊。

李純仁(1533-1592),『孤潭逸稿』卷2

「陶山」

忽忽流年瀉，悠悠舊迹虛。人文今寂寞，天意竟何如。落日江波動，荒原古木疎。悲涼千古恨。

柳成龍(1542-1607),『西厓集』卷1

「陶山」

陶山芳躅我曾欽，今日風巖歷歷尋。試上天淵臺上坐，鳶飛魚躍自無心。

裴應裴(1544-1602),『安村集』卷1

「陶山書院，次月川丈韻」(四首)

一道江流兩岸秋，胸中舊恨與新愁。逢場莫緩行盃手，忍負黃花對白頭。
今秋悲思倍前秋，處處干戈物物愁。千里美人消息斷，愛而搔首暮江頭。
過盡冬春又夏秋，一身兼摠四時愁。算來憂患年來劇，塵世如何不白頭。
平戎何日罷防秋，鐵鎧霜多壯士愁。四海干戈今二載，星文夜夜看旄頭。

金圻(1547-1603),『北厓集』卷2

「祇謁陶山尙德祠」

青山深處白雲堆，夫子宫牆萬古開。四十年來生晚歎，滿江風月獨徘徊。

申達道(1576-1631),『晚悟集』 권1

「陶山詠竹」

階上新萁一丈長，薄薄清露滴永香。光風霽月添幽興，考臥閑軒夢亦涼。

金光繼(1580-1640),『梅園遺稿』 권1

「謁陶山退溪先生祠院」

嘗讀陶山，永懷晚隱翁。典刑或入寐，微言頗啓蒙。白首訪遺躅，緬揖洙泗風。絃誦不復古，咄嗟齋舍空。溪山自舊觀，梅竹長新叢。宮牆比國庠，香火文廟同。儒冠困稅役，科學終盲聾。斯文一蕭條，撫迹尤增忡。獨有天淵月，千秋印深衷。

李植(1584-1647),『澤堂集』 권4

「謁陶山玉山兩書院歸路有吟」

吾東禮俗賴誰存？童卒猶知晦退賢。短策飄然前路指，德川流水又潺湲。

鄭以諶(1590-1656),『慕軒遺集』 권1

「陶山謁廟日，登天雲臺」

春日溫 and 雨乍晴，閒花開盡午風輕。先生真樂從何問，識得雲臺水月明。

李回寶(1594-1669),『石屏集』 권1

「登陶山示同遊」

十里光風蕙草稠，輕雲淡日晚悠悠。詩成鷄鶩群飛影，眼落芙蓉百丈頭。鳥作艷聲聊緩唱，花分春色與清流。秉簡續魄渾閑事，遙想風流洛社遊。

金杰(1597-1638),『敬窩集』 권2

「過陶山書院」

山水清幽似武夷，先生已去有遺祠。斯文一脈無人繼，小子亡羊泣路岐。

趙錫胤(1605-1654),『樂靜集』 권1

「謁陶山書院」(丙子)

先生生南紀，上繼四賢統。道高喜卷懷，於世不大用。終老此一壑，路人軾遺塚。德宜百世祀，多士極尊奉。建祠卽平居，棟宇雲端聳。地形擅奇勝，溪山共環擁。陶山揭大字，賜額承天寵。春秋奠蘋藻，朝暮隸絃誦。小子偶過此，祇謁屏驢從。焚香上堂廡，瞻拜心自竦。藏修有舊齋，退詣爲端拱。杖屨與几席，宛然平昔供。長松偃庭除，想應經手種。悅承函丈誨，恨未及親捧。土生天地間，抱負一何重。貿貿過此生，寧不惕然恐。景賢欲其齊，遷善貴在勇。今日若有得，書紳庶自訟。

趙錫胤(1605-1654),『樂靜集』5.

「陶山書院有吟」

太白清涼踏遍來，又於陶院暫徘徊。惆悵主人難共賞，強扶多病獨登臺。

李選(1632-1692),『芝湖集』卷1

「陶山書院」

几杖依然舊考槃，若將承誨整衣冠。巖泉不敢加題品，明廟曾移畫裏看。

金昌翁(1653-1722),『三淵集』卷8

「謁陶山書院」

先生我國之朱子，惟此陶山即武夷。不遇道非甘隱遯，所嗟天未欲平治。冠童解講滄洲諭，院宇昭垂白洞規。肅肅廟庭瞻禮地，高風餘韻起遐思。

申聖夏(1665-1736),『和菴集』卷2

「自退溪先生舊宅，轉謁陶山書院，諸生請以韻語書于尋院錄，辭以不敢，請愈固，黽勉敬草」

宇宙生何晚，溪山思不窮。恭尋闕里宅，獨遡舞雩風。秀色芙蓉出，寒流玉鏡空。迷途千古恨，駐節夕陽中。

蔡彭胤(1669-1731),『希菴集』卷20

「謁陶山」(二絕)

緬憶先生此考槃，至今松檜護溪山。如何一片幽居地，曾入當年御畫看。

山形不改枕江灣，往蹟依然指顧間。卻歎瑤琴空寶匣，風前獨立淚潸潸。

權渠(1672-1749),『屏谷集』卷1

「陶山四詠」(첫째수)

書堂

小屋一畝半，小牆三尺餘。問孰所盤桓，先先昔此居。我來不敢入，再拜啓虛牖。想見臨古經，焚香坐清晝。青衿講奧義，溪叟許同聽。今來一百載，空看宵飛螢。

申靖夏(1681-1716),『恕菴集』卷3

「謁陶山書院」

每讀陶山記，不禁心神。書堂十八詠，光景森紙上。今焉足目到，悅矚前度樣。下馬谷口門，仰瞻巖棲榜。堂隅坐竦肩，儼若叨函丈。益切生晚歎，莫覲真氣像。吾道既東來，圃老實先倡。中間數君子，靡不重吾黨。惟我考亭學，先生大宣朗。沈濃以發揮，實踐由存養。蓄德五十年，英華著粹盎。諄諄善勉學，後學猶興想。治平本誠正，奈何別人讓。無亦世不幸，士林迄歎快。君子大出處，小人論之妄。張皇理發論，自信無差爽。高峯來質疑，非爲敢頡頏。後來諸先正，論說非一狀。

尹鳳九(1681-1767),『屏溪集』卷2

「謁陶山書院」

每讀陶山記，不禁心神。書堂十八詠，光景森紙上。今焉足目到，悅矚前度樣。下馬谷口門，仰瞻巖棲榜。堂隅坐竦肩，儼若叨函丈。益切生晚歎，莫覲真氣像。吾道既東來，圃老實先倡。中間數君子，靡不重吾黨。惟我考

亭學，先生大宣朗。沈濃以發揮，實踐由存養。蓄德五十年，英華著粹盎。諄諄善勉學，後學猶興想。治平本誠正，奈何別人讓。無亦世不幸，士林迄歎快。君子大出處，小人論之妄。張皇理發論，自信無差爽。高峯來質疑，非爲敢頡頏。後來諸先正，論說非一狀。此處非等閒，去取安所做。肅肅拜廟訖，天淵臺上向。小江清瀏瀏，遠翠開野廣。飛潛妙上下，吟弄乍俯仰。歸路濯纓去，回首黯青嶂。

尹鳳九(1683-1768),『屏溪集』卷2

「宿陶山」

天爲東方生此人，不然吾道屬荊榛。文章自好徒成癖，言語相傳未是真。灑落襟懷岩月在，清明氣志野流新。廿年重入陶山裏，千古氤氳別有春。

沈鎔(1685-1753),『樗村遺稿』卷8

「陶山」

立巖千仞仰，盤逕百迴穿。心內先香炷，堂中悅瑟絃。洞天如昨日，雲月滿前川。惆悵疑醒酒，蒼騰四十年。

吳光運(1689-1745),『藥山漫稿』卷3

「陶山」

空庭日落鳥飛還，雲影天光自在閑。先哲已亡祠廟屹，斯文一脉此中看。

姜再恒(1689-1756),『立齋遺稿』卷5

「陶山院齋，酬蘇一渾。」(凝天○二絕)

雪滿江頭風月清，沙邊白鳥兩三聲。良朋此夜話難足，耿耿孤燈曉未明。
驅馬江郊踏雪清，同攜蘇子獨詩聲。來朝分手湖山遠，細話衷情到曉明。

姜再恒(1689-1756),『立齋遺稿』卷5

「陶山」

箕疇一發千年祕，左海居然生大賢。山色微微通粵峽，水光渺渺瀉沂川。青梧影斷空寒月，碧沼沙明獨遠天。廟貌肅清几杖在，巖棲軒下問遺絃。(巖棲軒下，有碧梧桐一株今老死，光影池亦沙塞無水。故三四句及之。先生藜杖几案，皆在軒中，故末句及之。)

姜再恒(1689-1756),『立齋遺稿』卷6

「陶山」

陶岑真面果如何，曾向圖中着眼過。會得龍眠難狀處，滿山松籟象弦歌。

徐錫麟(1710-1765),『睡聲集』卷1

「拜陶山書院」

(八字缺)年誠。暖暖如親炙，洋洋若喚惺。淵源開後學，衣鉢宛遺(四字缺)前路，遲遲不勝情。

權侗(1723-?),『南窓集』卷1

「謁陶山祠院」

天挺宗師左海隅，日星千古揭昏衢。唐虞制度璣衡器，洙泗淵源性命圖。皎月潭光澄不動，遠山嵐翠澹還無。

心香半炷祠堂邃, 內愧風埃一俗儒。

丁範祖(1723-1801),『海左集』卷5

「重尋陶山, 用前韻。」

後生何處拜先生, 江上陶山偃蹇青。春盡古齋人復到, 牆梅庭竹似含情。

宋煥箕(1728-1897),『性潭集』卷1

「敬謁陶山書院, 用先生陶山書室韻」

日觀頽久仰將安, 廟食百年配孔顏。欲識先生修進處, 一心須着奉盈盤。

李恒茂(1732-1799),『濟庵集』卷1

「陶山」

我行入陶山, 山水馬前動。來峯鳳翼翔, 去波龍鱗送。上有萬株松, 窅然中作洞。下馬肅余容, 徘徊瞻畫棟。再拜廟門前, 慕情如隔夢。不有先生賢, 疇廸此土衆。導以禮讓俗, 播以詩書種。嶺人重爲邪, 餘訓宗祐奉。卓爲南紀標, 迥接東方統。昔我恭憲王, 畫圖垂天寵。至今通三家, 一辭無異頌。小子苦生晚, 但抱圖書誦。先生今不在, 且與鳶魚弄。

俞漢雋(1732-1811),『自著』卷4

「敬次陶山雜詠」(十八首)

陶山書堂

洙泗宮牆是所安, 却將山號揭堂顏。陶成後學知凡幾, 負笈皆從在澗槃。

巖栖軒

道體元來得太虛, 人人皆稟有生初。縱然識得全難得, 細玩軒詩學莫疎。

玩樂齋

上達專須敬義功, 聖謨賢訓理相通。除非學力如朱子, 玩樂終身與誰同。

幽貞門

卜得幽貞不用龜, 乾坤闢闔只存扉。蹈繩出入恒由是, 正路人間更莫夷。

淨友塘

朵朵敷紅映水天, 向人解使遠觀憐。花中馨德全惟爾, 不是先生取友偏。

節友社

竹松梅菊益人三, 故把貞姿一社參。也識風霜嚴苦節, 細看容色始真諳。

隴雲精舍

剛憐澹白隴頭雲, 難把幽姿遠贈君。盡日無心山外出, 却和嵐氣混無分。

觀瀾軒

有本川流不逝何, 晝宵無舍聖曾嗟。苟知道體元如此, 肯使眞工作輟多。

時習齋

習飛雛鳥卒能飛, 行解俱臻會有時。悅意深來方不住, 先須將敬此心頤。

止宿寮

置齋宣爲及門君，好與磋磨永樂羣。堪笑莊生昧仁義，謂當一宿妄云云。

谷口門

谷口休言鎖白雲，欲尋精舍此其門。坦然正路趨深域，且把階梯歷躡論。

天淵臺

俯仰江臺意豁然，飛鳶天又躍魚淵。箇中化育流行妙，揭示昭昭述聖編。

天光雲影臺

徘徊雲影與天光，一一涵來半畝塘。更有澄湖收萬象，源頭活水較尤長。

濯纓潭

碧潭澄闊我心醒，斗覺天清又地寧。鏡裏纖塵留不許，先生去後濯誰纓。

盤陀石

賦得盤陀一定形，水中鋪在自分明。奔流濁浪渠徒爾，確不回移確不傾。

東翠屏

疊碧層丹是左屏，天教畫障入簾橫。最憐雨過山晴日，無數巖花盡意生。

西翠屏

玉笋瑤簪是右屏，鐘鳴蕭寺鶴飛亭。西風落盡盈山木，更露孱顏突帆青。

芙蓉峯

恰似芙蓉一朵形，古人多意錫峯名。雖然若未逢夫子，此地何緣勝地成。

鄭宗魯(1738-1816),『立齋集』卷6

「陶山書院」

退老當年此有臺，清涼萬丈望中寬。士林南嶺春秋享，吾道東方日月迴。翫樂齋邊幽草綠，詠歸亭上夕陽來。小子彷徨瞻仰久，依然風物爽襟開。

安德文(1747-1811),『宜庵集』卷2

「陶山巖棲軒」

東國陶山北斗尊，巖棲流澤百年存。冠巾共赴宗師義，圭璧西來聖主恩。淵活臺前流放海，雲歸隴上影垂繁。乾坤吾道悠悠在，正學淵源孰敢論。

盧國賓(1747-1821),『晚軒遺稿』卷1

「拜陶山書堂」

陶山書室退溪濱，扁字端嚴墨尚新。水有平和寬大像，山如溫藉篤恭人。隣邦刊稿媿朱子，太守圖居進紫宸。藜杖竹儀餘手澤，函筵提命忭承親。

趙秀三(1762-1849),『秋齋集』卷4(漢陽趙秀三芝園著)

「謁陶山書院」

遺祠祇謁展余衷，天啓斯文界大東。宛聽山中歌棹唱，眞源應是洛閩通。

河範運(1792-1858),『竹塢集』卷1

「奉審陶山書院, 敬述」

陶山淑氣鎮南維, 白鹿遺規大老祠。杖几盤壺餘舊物, 笙簧金石宛當時。書中妙悟真儒契, 畫裏幽居聖主知。仰認精靈如水在, 一潭秋月照清漪。(院中有巖棲軒, 僅三楹。先生講學之所, 几席杖履槃壺璣衡尚在焉)

申佐模(1799-1877),『澹人集』卷8

「尋陶山書院」

巖棲軒外掩柴扉, 風韻千秋自發輝。眇眇吾生生苦晚, 一心猶恨未搆衣。

權▼(土+末, 1800-1873),『龍耳窩集』卷1

「謁陶山書院」

先祖文穆公, 嘗謁先生于巖棲軒, 以廳事狹隘, 請稍加補闕。先生曰, 有意未就。庚午, 先生易簣後, 文穆公, 爲安東守, 親自來臨, 以繩量其長短廣狹以補, 而用制儉朴云云, 感懷有作。
海東生夫子。嶠南有遺祠, 我祖曾補構, 至今宛如斯。

鄭來錫(1808-1898),『顧軒集』卷1

「謹次陶山十八詠」

陶山書堂

爰居仁宅一身安, 景仰師門好學顏。萬卷詩書生計足, 時時三復碩人槃。

巖棲軒

惟人心界本靈虛, 何幸斯翁乃復初。扁以巖棲因自勉, 始知塵世與相疏。

玩樂齋

篤學平生敬字工, 前溪活水泗濱通。翫索遺經知有味, 其歸終與聖賢同。

幽貞門

一心肯作泥中龜, 無事山堂日掩扉。衛護師門開後學, 終令非惠又非夷。

淨友堂

一畝蓮堂映半天, 濂翁以後退翁憐。含香美質清如玉, 二老當時愛汝偏。

節友社

栽得寒梅枝二三, 百花譜上爾嵬參。昨夜江村霜雪裏, 新春消息最先諳。

隴雲精舍

一片浮來隴上雲, 悠然自得我心君。靜中與爾同棲息, 非是閒忙渾不分。

觀瀾軒

爲學之方取水何, 曾於川上聖人嗟。靜觀不息生瀾意, 認是其中道體多。

時習寮

相彼春林鳥數飛, 群才初入德門時。常常溫故知新處, 成就無非養正頤。

止宿寮

許巢幸遇舜堯君, 甘作雲林鳥獸群。時有良朋來遠地, 讀書談道樂乎云。

谷口門

陶山一抹起祥雲, 來此堂時入此門。嗟吾蔑學生何晚, 恨未登筵日夕論。

天淵臺

山自然時水自然,上爲臺築下爲淵.幾多此地沂雩興,風味無窮詠一篇.

天光雲影臺

閒雲淡影霽天光,活水前頭起此堂.晦老餘吟溪老和,流通千古一源長.

濯纓潭

衆人皆醉主翁醒,著處無非自得寧.俯看寒潭秋水淨,長歌一曲濯其纓.

盤陀石

隣川大石若盤形,淨洗塵埃鑿鑿明.萬古風渦磨一片,願將隻手補天傾.

東翠屏山

東望蒼崖若畫屏,臨軒淑氣半天橫.美材蔥蔚千章拔,始信牛山雨露生.

西翠屏山

西有名山亦翠屏,巖巖氣像獨亭亭.緬想先生居處樂,物中惟見老松青.

芙蓉峯

依得千年太古形,待人然後擅其名.孜孜當日爲山績,一簣無虧九仞成.

崔匡鎮(1816-1885),『梅隱集』권1

「謹次陶山溪堂偶興十絕」

霽月如明鏡,名花錯繡羅.鮮能知味者,樂意與誰誇.

茅棟塵區遠,松扉別界開.胸衿覺爽豁,隨處任徘徊.

造化非無意,千年石作門.春風噓滿谷,萬壑氣氤氳.

雲樹深藏處,四時佳景幽.遊人自不到,獨上意悠悠.

邵子吟安樂,嚴陵臥富春.名區非自擅,留待此人賢.

虛心對棐几,玩物倚明牕.四勿指揮處,千邪豎幟降.

不有斯翁出,誰任衛道愁?乾乾日夕惕,進步向竿頭.

飢饒商岫紫,夢遠洛橋青.窮通自有命,名利不須營.

滿壑得精彩,先生卜此居.一心誠敬字,四壁聖賢書.

適因偶起興,非是愛吟詩.十絕幽閒意,後生豈易知.

崔匡鎮(1816-1885),『梅隱集』권1

「拜定齋歸路謁陶山廟」

眞源泗洙出,正派閩洛回.東韓千百世,獨一天淵臺.(訪祀孫於古第,觀其海東闕里山南考亭之大書八字,因景仰彌高,感吟一絕)

李濟權(1817-1881),『覺圃集』권1

「謁陶山書院」

瞻拜遺祠曠感深,空山肅肅大江臨.幽貞門外梧桐月,想得先生灑落襟.

宋秉璿(1836-1905),『淵齋集』권2

「謁陶山祠院」

雙屏翠影蘸清漪，海左陶山卽武夷。歲晏靈芝餘古洞，夜來寒月照方池。日星典訓中天揭，河洛眞傳百世師。昭示後人門路坦，還慚末學走傍歧。

許薰(1836-1907),『舫山集』卷1

「陶山」

一行三千里，海嶽恣遊屐。動靜驗仁智，胷中如有得。卻恐久勞攘，心爲景物役。衣裳忽齊整，仰瞻陶山卓。瑤琴宛餘韻，水木涵澄澤。圖書昭至象，如入孔林宅。小子生苦晚，傍走迷塗轍。蹶蹶始歸來，粗欲補黥剔。恭惟夫子靈，庶幾垂陰隲。

許薰(1836-1907),『舫山集』卷5

「陶山書院，次韻李仲圓贈詩」(二首)

海東闕里宅，墻仞仰彌高。百世摳衣願，平生我退陶。
兩絕瓊琚幅，蒼黝驚法書。粹然全鼎味，略綽一嚮餘。

崔瑛民(1837-1905),『溪南集』卷2

「敬次陶山十八絕」

陶山書堂

行到陶山心界安，齋堂牀席宛承顏。(先生書牀枕席等遺物尚在)處非忘世出非仕，爛熟思來臥澗槃。

巖棲軒

此行眞免此生虛，夫子巖棲我見初。博約淵氷真切訓，悠悠皆坐這工疏。

玩樂齋

樂之專藉玩而功，反復沈潛自有通。洽到終身不厭處，方知此樂古今同。

幽貞門

幽人素履協靈龜，縹緲雲山闢一扉。乾坤也識此間在，開闔隨宜却坦夷。

淨友塘

數朶馨香一鑑天，天然淨友正堪憐。主人一去巖棲寂，離索之憂久爾偏。

節友社

節友社前發歎三，逕荒草鞠一無參。(社時埋沒，無一友存)寄語書堂讀書子，風霜舊契恐宜諳。

隴雲精舍

我謂隴雲是谷雲，霖姿不乏合輪君。四海蒼生無福久，還將一半鹿兒分。

觀瀾軒

道之浩浩觀於何，有本如斯聖發嗟。前此此言非不誦，登軒更覺省心多。

時習齋

時習須如鳥數飛，無時不習是云時。齋名儘有無窮味，白首沈吟要自頤。

止宿寮

當年止宿豔諸君，幾箇英才共作群。賤子嘒嘒生苦晚，夜牀不復細云云。

谷口巖

呀然谷口蘸江雲,兩麓相當作洞門.想像逍遙當日趣,那將耕隱與同論.

天淵臺

努力登臺眼豁然,上有青天下有淵.箇中飛躍伊誰使,開發玄機思聖編.

天雲臺

活水天雲鑑影光,退翁潭是晦翁塘.挹清不是玄虛想,真的觀書有味長.

濯纓潭

漁父辭中嘲獨醒,聖言自取更丁寧.此潭之水清如許,宜有高賢來濯纓.

盤陀石

盤陀奚取此巖形,濁浪安流異隱明.明隱何曾加損有,蒼然本質不移傾.

東翠屏

不問吾知左翠屏,群巒簇簇帶雲橫.飛翔六六清涼骨,遠抱江郊活畫生.(東屏自清涼山來)

西翠屏

回首欣瞻右翠屏,群峯嶷嶷下園亭.偶然觸發簣簻歎,一抹靈芝萬古青.(西屏自靈芝山來)

芙蓉峯

一朵芙蓉半露形,至今精彩足嘉名.晚生亦有烟霞癖,敬挹遺芬拙句成.

崔淑民(1837-1905), 卽2

「陶山書院」

纔到天淵日隱岑,清江如畫樹陰陰.赤烏天球藏在地,心香瑤匣敬敷襟.左海千秋歸道德,寒霜十月始登臨.宇宙如今多幻景,茫茫墜緒竟誰尋.

尹炳謨(1839-1934),『弦齋集』卽2

「謁陶山尚德祠」

退陶夫子讀書亭,望若中天耀日星.常對卷中思欲渴,暫趨庭下夢如醒.一區泉石留精彩,百世衣冠有典型.却恨武夷看未遍,行人催發趁嚴程.

安鍾惠(1841-1907),『石荷集』卽1

「宿陶山有感」

滿山風月不論錢,畫裏幽居上閨天.闕里考亭恩賜字,煌煌楣額至今圓.

安鍾惠(1841-1907),『石荷集』卽1

「謁陶山書院」

兩對東西蒼翠岑,幽貞門開晝陰陰.長瞻間丈天秋色,列挹諸生濟濟衿.四七分開朱以後,命圖垂示帝如臨.如何今日迷途客,枉向陶山山外尋.

崔正基(1846-1905),『可川集』卽1

「陶山書院」

清涼南下好山川,會合真元降大賢.休明左海三千里,的脉朱門數百年.光明屋祕傳心寶,飛躍臺高主理詮.

百拜先生無一語，逝將林下讀遺篇。

尹胄夏(1846-1906),『膠宇集』卷1

「謁陶山廟」

天祚東方降大賢，真元當日會精專。朱氏遺文三百載，黃池流水一千年。玉鑰金繩昭啓後，光風霽月浩無邊。祇愁賤子生來晚，巾几寥寥祕妙詮。

郭鍾錫(1846-1919),『俛宇集』卷3

「院中效高峯古事，謹次老先生陶山雜詠十八絕」

陶山書堂

陶唐世遠我將安，羲上清風灑醉顏。占據中原高一著，江山全局等棋槃。

巖棲軒

上聖如愚道太虛，闔然網錦葆真初。當年冀效終腴燁，始信巖棲計非疎。

玩樂齋

主敬吾門第一功，還須精義入神通。年來靜觀成真趣，太極圖中妙理同。

幽貞門

不向名途舍爾龜，悠然天澤映山扉。任渠朝暮閒開闔，無限雲蘿鎖武夷。

淨友塘

友道嗟衰叔季天，濂溪翁後鮮相憐。從今莫作淤泥想，共爾亭亭不倚偏。

節友社

增一吾家益者三，貞姿堪與臭蘭參。分外風霜成女玉，歲寒心事孰相諳。

隴雲精舍

隴上多年悅白雲，山人非是永忘君。無寧乍慰三農望，教雨終看澤十分。

觀瀾軒

聖人觀水術如何，逝者如斯足一嗟。道體無窮流不滯，臨軒頗賞契心多。

時習齋

庭林日日鳥羣飛，看取諸君習習時。溫思篤踐無停息，漸覺神腴勝蓁頤。

止宿寮

山水中央喜對君，隱居非爲樂離羣。留連賴有論心事，雞黍駒苗不足云。

谷口巖

谷裏宮牆谷口雲，世人常寡得其門。小可子真聊憶汝，別般深處肯同論。

天淵臺

層臺來坐正超然，鳶在青天魚在淵。非助非忘渾潑潑，異時辛苦抱陳編。

天光雲影臺

登臺姑緩別風光，天作澄江一鑑塘。徘徊乍會源頭活，當日觀書意味長。

盤陀石

灤瀕孤根蘸怪形，仙翁茶竈却分明。潦霽行藏無不可，偃然相對兩心傾。

濯纓潭

一曲滄浪好喚醒,銀波瞥瞥浪花寧。乘流扣柁知何許,羞遣風埃染鬢纓。

東翠屏

東折蒼巒小隱屏,清涼佳氣望中橫。似嫌大界仍遮障,恐有人烟眼際生。

西翠屏(聾巖,賀淵,屏菴亭,皆在西翠屏)

西望逶迤大隱屏,緣崖作態簇仙亭。瑤環玉筍還多事,靜對儀刑萬古青。

芙蓉峰(下有月川書堂)

水盡南天露異形,亭亭玉幹可堪名。高人定住前川月,一樣馨姿喜育成。

郭鍾錫(1846-1919),『俛宇集』卷3

「謁陶山尚德祠」

嶷嶷山增翠,源源水恬波。夫子修初服,眷言此婆娑。百世宮牆在,緬懷考槃邁。苦我生也晚,志業易蹉跎。幸茲俎豆地,周旋警惕多。願以平生志,加之歲月磨。神聽如不棄,一心矢靡他。

李道樞(1847-1921),『月淵集』卷2

「陶山書院」

猗吾夫子鳳朝陽,庭宇深深曠感長。雲谷由來傳此道,靈光復出見茲堂。蘋蘩南國休儀重,山斗東方淑氣蒼。士齒衣冠皆有賴,千秋扶植大綱常。

崔元根(1850-1923),『二山集』卷2

「陶山」

洛水澄源遠遠來,清涼秀色眼前開。江山本自成奇特,不獨先生好品裁。

金時洛(1857-1896),『莊庵文集』卷1

「謁陶山祠有感,用先生寒棲菴韻」(壬寅)

啼鳥夕歸林,寒泉夜自瀉。先生不可見,誰復寒棲者?

李壽安(1859-1928),『梅堂集』卷1

「敬次退陶先生陶山雜詠」

屏退陶山意泰安,書堂自此倍生顏。隨時出處皆中道,晦德何年詠考槃。(陶山書堂)

靈府寬閒灝氣虛,紛華掃退復吾初。巖雲巖月同棲息,不妨漁樵訪我疏。(巖樓軒)

貞吉幽居已協龜,天教雲霧護山扉。陽開陰闔玄機妙,胸裡何曾滯險夷。(幽貞門)

松菊竹爲益友三,晚年神契與之添。嚴霜虐雪皆經過,寒後貞姿獨爾諳。(節友社)

隴舍三間一朵雲,長隨處處不離君。欲知夫子安閒趣,千載悠悠證十分。(隴雲精舍)

瞻彼書林習鳥飛,不曾造次有休時。人如體物功無間,可免窮廬歎老頤。(時習齋)

魚躍鳶飛體自然,玄機誰識動天淵。天淵肇錫斯臺號,默究中庸費隱篇。(天淵臺)

雲葉霞叢列畫屏,化翁神筆任縱橫。障遮東面重重立,罨世侵氛不敢生。(東翠屏)

一朵金芙九疊屏,深深扶護主人亭。西來爽氣衣衿積,海岱如今未了青。(西翠屏)

崔鶴吉(1862-1936),『懼齋集』卷1

「尙德祠陶山書院」

尙德祠中曉爇香, 香煙左右宛洋洋. 洋洋尙是興高景, 親炙當時矧可量.

河鳳壽(1867-1939),『柏村集』卷2

「宿陶山書院」

行程六百豈憚長, 已足陶山一夜觴. 徒爾平生如仰斗, 依然曠世若升堂. 人言吾黨歸無地, 我謂斯文壽似岡. 不識當年偏愛物, 古樓猶得幾盆香.

河鳳壽(1867-1939),『柏村集』卷1

「陶山書院」

如古人無作, 昏衢此海東. 千年箕子國, 百世陶山翁.
星日懸無極, 淵源溯不窮. 門墻高肅肅, 俛仰起予躬.

崔東翼(1868-1912),『晴溪集』卷2

「謁陶山尙德祠」

淑氣吾東降大賢, 青邱文物倍光鮮. 詩書禮樂三千子, 濂洛關閩五百年. 壁立天淵瞻道像, 春深玩樂想函筵. 摳衣不及平生恨, 尙有遺編可習傳.

宋浚弼(1870-1940),『恭山集』卷1

「謁陶山書院」

江樹蔥濃鎖暮煙, 陶山何似古寒泉. 升堂此日如親見, 只恨琴絃久寂然.

黃炳中(1871-1935),『鼓巖集』卷1

「謁陶山書院 禮安」

陶山蒼翠古猶今, 幾樹寒梅手植林? 沂水春風曾氏瑟, 玉溪晴月考亭琴. 先王備盡尊崇義, 外國猶存景慕心. 愧我疏蹤誠意薄, 白頭此日始來尋.

沈相福(1871-1951),『恥堂集』卷2

「登陶山書堂光明室」

夫子風徽慕一生, 行尋遺蹟此光明. 投壺几杖渾依舊, 隱隱如聞佩玉聲.

沈相福(1871-1951),『恥堂集』卷2

「登陶山」

昔聞陶山好, 今見陶山好. 陶山何以好, 李子講道好. 李子何以好, 山好水亦好. 山水何以好, 幽靜光明好.

朴世煥(1874-1966),『梨山文集』卷1

「謁陶山尙德祠」

一脈淵源正, 後人敢有紊. 道德千年師, 文章百世訓.

崔圭瀚(1875-1935),『恒齋集』卷1

「謁陶山祠」

潢池流水一源深，尙德祠前拜起欽。萬古洪鍾鉤徹耳，中天白日燭幽心。
無邊光霽濂溪宅，博約門牆洙泗林。節友壇前梅數萼，長留手澤後來尋。

沈鶴煥(1878-1945),『蕉山集』 권1

「謁陶山廟」

吾東理學祖先生，只麼陶山萬古青。再拜遺祠仍肅敬，恍如親炙侍軒屏。

李翊九(1838-1912),『恒齋集』 권1

「謁陶山書院」(四絕)

壇高古址傳崇典，山對澄江見道心。至今一草一花石，海內含生誰不欽。
平生敬讀先生文，爲拜先生始及門。賤子進前疑欲質，先生巾几寂無言。
東方理學賴誰明？爲有先生集大成。歎息後人謾出入，山河全陸氣機橫。
同堂何事久操戈，公眼看來堪一嗟。打得如何成一片，斯文永使大羹和。

張錫英(1851-1926),『晦堂集』 권2

「謁陶山書院」(二首)

天生夫子惠吾東，聖道千年日正中。猗歟晚暮藏修地，俎豆無窮百世崇。
東楹獨享月川翁，輿議于今同不同。匪惟居近薰陶久，效力師門最有功。

李斗勳(1856-1918),『弘窩集』 권1

「謁陶山書院」

無窮陶水的源流，禮樂絃歌三百秋。河洛圖書凝石壁，璣衡制度儼巖樓。此遊汗漫何須說？吾道光明有所由。
端拜庭前因想像，清涼日月照心頭。

安鍾彰(1865-1918),『希齋集』 권1

3) 병산서원

「屏山書院，奉別金鶴峯還朝。」(3首)

何事危欄悵望頻，爲君終日獨傷神。滿天風雨江雲黑，誰向孤舟欲問津。
凌波不見美人遊，清洛無情獨自流。從此江蘼與芳杜，露香風葉共殘秋。
漢水終南入夢思，亂蟬秋樹別魂悲。男兒自有平生志，莫使楊朱泣路歧。

柳成龍(1542-1607),『西厓別集』 권1

「屏山，與諸君，校先師文集，有感呈鶴峯兄侍者。」

江樓日夕恣徜徉，濟濟羣賢更滿堂。共撥遺編重理緒，此生寧復望門牆。

柳成龍(1542-1607),『西厓別集』 권1

「戊子夏，與士純諸友，會屏山，編退溪先生文集。今十三年，而諸君復會院中，輯年譜，感舊興懷，吟一律錄呈。幸各和之，以記一時之事。」

文會當年盛，編摩此日同。干戈頭白後，山水眼青中。亦足看天意，何須怨化工。斯文還一脈，吾道未應窮。

柳成龍(1542-1607),『西厓別集』 권1

「九月到屏山書院」

秋山錦繡明如許，咫尺塵蹤自不來。惟有老夫看不厭，有時搖棹月中回。

金允安(1560-1622),『東籬集』2 권

「屏山獨起」(2首)

水邊寂寞黃金院，竹下平鋪白玉沙。朝日照來開戶牖，儒宮還訝太繁華。(階前黃菊爛開)

高齋獨卧三竿日，長簟閒拋萬卷書。黃菊淡香凝盞面，碧山寒影入函虛。

金允安(1560-1622),『東籬集』2 권

「忝屏山院任，謁廟後口占。」

恭瞻廟貌整冠襟，跼薦清香罄我忱。冰玉精神天與厚，經綸德業世爭欽。撐空卓爾蒼崖峻，入望淵然碧水深。杖屨逍遙餘馥在，只今追想爽塵心。

鄭伋(1601-1663),『愚川集』2 권

「在屏山書院，與諸友會話。」

鐵壁瑤潭暎畫堂，洞天風日最清涼。莫將塵世紛紛事，話我蒼松翠竹傍。

鄭伋(1601-1663),『愚川集』2 권

「與諸友，會屏山書院，座上走筆。」

湖海風流石屏子，錦標文彩烏臺郎。聯鑣來訪意非偶，名區物色增輝光。主人驚喜情倒極，冰盤膾雪飛瓊觴。坐中談笑儘佳賓，金聲玉韻何鏗鏘。炎天蒸鬱豈愁逼，世間煩惱還能攘。百年今日是良辰，此會此樂誠難忘。須憑健筆傳勝事，洛水與之爭流長。

鄭伋(1601-1663),『愚川集』2 권

「屏山書院」

山如屏處水如藍，廟貌巍然入翠嵐。問世人豪不可作，獨留明月印寒潭。

洪柱世(1612-1661),『靜虛堂集』상

「屏山書院，與諸友修正西厓先生年譜。」

樑折山頽歲幾周，編摩遺事屬吾儔。晚生未遂樞衣願，代斲還增血指羞。蒼壁暮江如昨日，清風孤竹感千秋。平生慣却明裡地，好德誠心老未休。

李惟樟(1625-1701),『孤山集』 권1

「屏山書院夜坐，同荷塘從兄賦。」

古院添新構，奇觀取次生。簷牙山矗矗，樓面水盈盈。竹笑風徐動，禽驚月迴明。携壺思泛夜，近渚小舟橫。

權斗經(1625-1701),『蒼雪齋集』 권4

「次權靈山題晚對樓韻」(2句)

快閣携朋上,炎天爽氣生。暢悃要夕永,耽靜愛弦盈。玉色凝波淨,沙光詫雪明。移罇向洲渚,喚泊小舟橫。
屏山古書院,幽勝說園林。絕壁當空矗,澄江俯瞰深。松聲入戶靜,竹影上階陰。偶爾成良晤,持盃細話心。

金如萬(1625-1711),『秋潭集』卷1

「屏山晚對樓,詠朱子晚對亭詩,仍以蒼翠矗寒空爲韻,賦五絕示同志。」

武夷亭中額,屏山樓上光。俯仰成今古,惟有月蒼蒼。
天淵臺下流,悠悠至晚對。上有壁千層,倒影涵蒼翠。
高樓出重霄,詎敢媚幽獨。良友共徘徊,川迴山更矗。
俎豆千年地,依然竹樹間。肅穆庭宇靜,清飈拂面寒。
醉興因霽月,詩情爲光風。永懷愁不歇,嗒然對春空。

權泰時(1635-1719),『山澤齋集』卷2

「屏山晚對樓洞主權亨叔,以文公詩蒼翠矗寒空爲韻成五絕,余乃續貂以呈。」

肅嚴俎豆地,草木衣被光。樓上坐相對,峭壁薄穹蒼。
欲選樓上勝,不獨山與對。鎔銀一練白,戛玉千竿翠。
名勝崙南多,晚對樓也獨。俯臨綠水環,上有青壁矗。
春服浴沂罷,冥觀上下間。誰能會此意,鏗爾瑟聲寒。
後前知揆一,千載挹遺風。氣像從何見,山高月在空。

權聖矩(1642-1708),『鳩巢集』卷1

「晚對樓步前韻贈休仲」

危樓對翠壁,中得大江開。倚檻煩襟豁,吟詩逸興催。霞齊孤鷺遠,鷗帶夕陽來。把酒留行客,臨軒復一盃。

金侃(1653-1735)『竹峯集』2卷

「奉審屏山書院,敬述。」

晚對高樓卜窈深,(門樓扁晚對)滿山蒼翠肅森森。圖書杖履渾如昨,俎豆絃歌式至今。涉海遇風須副手,還山弄月遂初心。退陶正嫡真源在,看取前灘寫玉琴。

申佐模(1799-1877),『澹人集』8卷

「尋屏山書院」

巖壁蒼然繞畫屏,河流一帶卽滄溟。樞衣如入薰陶化,永日忘歸對晚櫺。

權(土+末)(1800-1873),『龍耳窩集』卷1

「屏山書院,與諸益共賦」

峯回路轉水涓涓,此地宮牆二百年。磐泰神功經亂後,鳶魚至理退休邊。漁燈欲散星同耿,江雨初晴月更圓。到此胸襟真灑落,南風又是麥涼天。

張錫龍(1823-1907),『遊軒集』卷2

「謁屏山書院」

岌嶮屏山仰彌尊，先生風韻此猶存。崑崙方召中興業，嫡嫡濂伊上溯源。滢澈長河回百折，繁延遺裔列千門。可人亦有同三四，白首青眸意更敦。柳寢郎賢弼美洞，金洛升諸友共座。

崔正基(1846-1905),『可川集』卅1

「謁屏山書院」

天爲吾東國，先生盛際當。宗社千年業，土流一綫陽。正脈陶山屹，洪流洛水長。顓蒙猶自出，何以拜斯堂。

李承熙(1847-1916),『大溪集』卅1

「屏山書院，春享翌日有感。」

春享屏山趁上丁，斯文遺裔景行行。龍蛇已邈盟壇變，宇宙誰支大廈傾。長夜深燈讀遺劄，一天明月想儀形。祇將愛禮存羊感，拜退祠堂雙淚零。

安昌烈(1847-1925),『東旅集』卅2

「登屏山書院，寓慕感吟」

千古南康復此名，潭心藍碧(艸+醺)樓平。盟書泰礪光前烈，的訣師問啓後生。已矣蓁苓應舊感，愀然梧竹尙餘情。遊人也亦羹牆慕，晚棹來尋故渡橫。

金鎮璿(1854-1919),『雲西集』卅1

「屏山書院」

屏山六七里，緩緩繞明湖。鬱鬱千家外，寥寥一字孤。先賢今已遠，此學幾將無。如使重泉作，中興尙復圖。

河鳳壽(1867-1939),『柏村集』卅1

「謁屏山尊德祠」

追誦當年事，天光晦復明。貞忠奠宗社，正學啓後生。

崔圭瀚(1875-1935),『恒齋集』卅1

「屏山書院」

山河間氣柳文忠，父子春秋并一宮。早歲陶門承的訣，中興宣廟有元功。山鬟翳日危將落，水面無塵淡若空。稍喜玄孫扶正脈，至今絃誦月明中。(西厓後孫，都事丈道性，以本院山長事，排衆議，獨扶正脈，士林皆稱快。)

河謙鎮(1876-1946),『晦峯遺書』卅1

「屏山書院，與柳田下渭卿湜榮共賦。」

明沙翠壁坐深秋，秋雨蕭蕭水滿洲。百世淵源看實地，三韓勳業仰高樓。俗累初除如化鶴，清盟自在不要鷗。遺篇朗誦東岡答，萬動須從靜裏求。

宋基植(1878-1949),『海窓集』卅1

4) 도동서원

「道東書院, 示居接儒生」

學海爭雄氣格豪, 青衿縹軸映綢毫. 使君地主安能長, 諸子天才莫厭勞. 金山雨歇蟬聲急, 洛水秋生月色高. 一日圖南應不遠, 會看鵬翼擊波濤.

金世濂(1593-1646), 『東溟集』 권3

「道東書院」(寒暄堂院宇, 在玄風)

天佑吾邦大道東, 考亭遺派是真宗. 孤忠不救當時禍, 至訓長開後學蒙. 依舊江山芳躅在, 祇今俎豆闕宮崇. 門前清洛流如馬, 一脈惟應泗水通.

吳道一(1645-1703), 『西坡集』 권5

「道東書院, 與宋丈士受及郭聖瑞(琰), 謁祠感吟.」

源流一派接文忠, 吾道東來揭額崇. 可憐薰灼當年焰, 留得先生不沫風.

安命夏(1682-1752), 『松窩集』 권2

「謁道東書院, 此下系東遊錄」

拜謁先生廟, 依然道在東. 澄江流素月, 疎杏立清風. 杖屨千年後, 宮牆數仞中. 今來重葺地, 瞻仰想前功.

安德文(1747-1811), 『宜庵集』 권2

「拜道東書院」

戴尼山下道東祠, 杏樹陰濃春日遲. 分明此地遺風在, 小學書中早得師.

宋秉璿(1836-1905), 『淵齋集』 권2

「謁道東書院」

小學心經兩部書, 昔賢當日敬尊如. 崇祠合餽瞻巍座, 一瓣今朝替束脩.

郭鍾錫(1846-1919), 『俛宇集』 권7

「謁道東書院」

山河間氣降先生, 小學書中百世名. 銀杏壇邊清夜月, 至今心法照人明.

宋浚弼(1870-1940), 『恭山集』 권2

「道東書院, 次慕齋韻」

聖代文治自世宗, 先生儒學冠吾東. 光風霽月依然在, 歎息如今大道窮.

曹兢燮(1873-1933), 『巖棲集』 권2

5) 남계서원

「藍溪書院」(咸陽)

堂堂天嶺鄭公鄉, 百世風傳永慕芳. 廟院尊崇真不忝, 豈無豪傑應文王.

李滉(1501-1570), 『退溪集』 「書院十詠」4 권

「初建濫溪書院,得一絕示諸生。」

爲憐吾道已寒灰,月冷鍾城歲幾回。凜凜遺風能起敬,庶今狂簡幸知裁。

姜翼(1523-1567),『介庵集』상

「濫溪書院會話」(丁卯)

蘭室薰然氣正溫,百年心事二三君。厭厭夜話眠無足,喜見東牕曉色分。

曹湜(1526-1572),『梅菴逸稿』권1

「濫溪書院」

天嶺千年邑,宗師百世儒。絃歌昔鄒魯,禮讓今唐虞。羅帶水如咽,鈎芒岑似吁。山川前後態,茹恨愁城隅。

柳世彰(1657-1715),『松谷遺集』권1

「宿溪書院」

東方千載說淵源,繼開分明旨訣存。若識形容有道處,噉然板上退陶言。

柳汶龍(1753-1821),『槐泉集』권1

「次濫溪書院明誠堂韻」

天人性命不相懸,誠在中庸德最賢。體本真純心保赤,功成位育理參玄。萬微乍動前知驗,一念纔差外誘遷。高揭堂扁明示訓,吾人同得降衷年。

閔在南(1802-1873),『晦亭集』권3

「濫溪院,讀一蠹先生實紀,有感。」

百世高山一喟然,花開四月寂寥篇。時違端合斯人覺,稷契何曾遺集傳。

崔琰民(1837-1905),『溪南集』권2

「敬展濫溪書院」

先生倡絕學,一掃羅麗塵。高景曷云足,炙薰恨未身。心香今始薦,德義舊維新。濫水流無盡,勸哉吾黨人。

鄭載圭(1843-1911),『老栢軒集』권1

「濫溪院,酬河君宋運(琪鉉),見贈。」(2个)

濫溪秋日好,邂逅舊時顏。襟抱何珍重,蒼然江上山。

共君三夜宿,霜月滿亭顏。惟是前頭事,指證九仞山。

權雲煥(1853-1918),『明湖集』권1

「咸陽拜濫溪書院」

濫水泱泱日夜清,院堂輪奐奉先生。平時著作都灰燼,泛泛風蒲獨振聲。

李之榮(1855-1931),『訥菴集』권1

「濫溪書院, 敬次退溪先生韻」

山南鄒魯擅名鄉, 賴有遺風倡衆芳. 若使經綸需一世, 不難堯舜致君王.

鄭奎榮(1860-1921), 『韓齋集』 권3

「濫溪書院, 敬次退溪先生板上韻」

先生生此鄉, 百世遺芬芳. 經綸如得試, 堯舜致君王.

崔秉軾(1867-1928), 『玉澗集』 권1

「濫溪書院, 用鄭先生頭流詩韻」

濫溪四月理檣柔, 宿戒祠門已十秋. 欲問先生承授旨, 青山無語水空流.

宋浚弼(1870-1940), 『恭山集』 권2

「濫溪書院用板上韻」

大賢祠宇鄉, 草木亦含芳. 絳帳何時輟, 遺風百世長.

朴亨東(1875-1920), 『西岡集』 권1

6) 돈암서원

「展謁遯巖兩先生書院」

金聲玉色更難陪, 世享千年廟貌開. 爽氣依稀山獨立, 寒雲寂寞水空迴. 生平徒切羹牆慕, 薰炙其如魯莽才. 小子祇今餘白首, 展參瞻痛泰山頽.

李文載(1615-1689), 『石洞遺稿』 권1

「遯巖書院參春享」

四賢醴享一高祠, 道德文章百世師. 曉起幸參蘋藻禮, 優然如得拜威儀.

沈相福(1871-1951), 『恥堂集』 권1

7) 필암서원

「題筆巖書院」(權輶)

烏川之後得先生, 東國千年道復明. 灑落如光風霽月, 精純有玉色金聲. 真人已駕青牛去, 古洞空傳白鹿名. 末學永嘉權輶者, 作詩聊記景賢情.

金麟厚(1510-1560), 『河西全集附錄』 권2

「次筆巖書院松江板上韻」(金鎮玉)

學問與出處, 吾祖說河翁. 今來香一瓣, 耿耿宿心中.

金麟厚(1510-1560), 『河西全集附錄』 권2

「筆巖書院, 重營後, 有感」

百歲猶親炙, 依歸自少年. 無端回祿禍, 不敢向人傳. 幸得新樑屹, 依然古杏邊. 將期吾道復, 敦事賴諸賢.

金友伋(1574-1643), 『秋潭集』 권6

「筆巖書院, 謹次曾祖考韻」

韜光未欲作人師, 難掩千秋出處奇. 一幅霜筠宸翰在, 此翁心事此君知.

金昌翁(1653-1722),『三淵集拾遺』 권10

「筆巖河西金先生書院, 謹次先生韻」

春陰欲雨景熹微, 澗水交流山四圍. 一畝祠宮千古恨, 明良相遇却相違.

申聖夏(1665-1736),『和菴集』 권3

「筆巖書院, 次清陰先生韻」(河西金先生所享, 卽長城地)

先生百世可爲師, 出處惟常不是奇. 非若一時慷慨做, 皆從道義學而知.

尹鳳九(1683-1767),『屏溪集』 권4

「筆巖書院, 次清陰先生韻」

詩酒沈冥百代師, 人倫至處不爲奇. 當年亦有松江老, 衆未知時忒早知.

斯民長恨失宗師, 盛德寧論一節奇. 崇義齋前聊痛飲, 此心應有鬼神知.

苦節純誠君父師, 從容潦灑亦非奇. 天心不欲平治我, 却恨當年結主知.

宋明欽(1705-1768),『櫟泉集』 권2

「筆巖書院」

祠前一拜曠懷生, 故國雲山更別情. 三復遺編敬義什, 灑然光霽滿清亭. 祠前講堂名清節.

柳遠重 (1861-?),『西岡集』 권2

「拜筆巖書院」

清節人言百世師, 先生不獨此爲奇. 天地仲尼紫陽句, 眞源正學也從知.

權載奎(1870-1952),『而堂集』 권3

「筆巖書院」

邃學清名百世師, 卯山一事又何奇. 東方出處無之語, 當日不多松老知.

李教宇(1881-1944),『果齋集』 권3

「同族君輝遠(玉鉉)金君平叔(衡浩)許君文卿(鎬九)謁筆巖書院」

道學文章節義俱, 先生之外更誰誰. 孔朱論贊眞元氣, 出處光明進退時. 正廟哀哀多曠感, 華陽巨筆發潛輝.

筆巖祠下請風起, 百世那無興起兒.

權龍鉉(1899-1987),『秋淵集』 권1

8) 무성서원

「武城書院」

院宇丹青照碧山, 年深古壁綠苔斑. 絃歌古縣依然在, 千歲孤雲去不還.

沈鎭(1685-1753),『樗村遺稿』 권2

9개 서원 현판자료의 정리 현황과 과제

사적 제55호인 소수서원(紹修書院)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나라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서원이며, 사액서원의 효시(嚆矢)가 되는 서원이기도 하다. 경북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152-8번지에 소재하며, 서원을 세운 분은 당시 풍기군수로 재임 중이던 신재(愼齋) 주세붕(周世鵬)이다. 창건 배경은 우리나라에 주자학(朱子學)을 처음 도입한 분이기도 한 이 고장 출신의 명현(名賢)인 회현(晦軒) 안향(安珦) 선생을 기리고자 함이었다.

또한 여말 국운쇠퇴기에 새로운 이데올로기였던 주자학을 도입, 인재양성과 국운융성을 꾀했던 선생의 나라사랑 민족사랑 교훈을 되새겨 보고자 함에서였다. 지금의 장소에 서원을 창건한 것은 회현 안향 선생이 어린 시절 숙수사(宿水寺)라는 절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이었다. 1542년(중종37) 사묘(제향시설)를 세워 백운동(白雲洞)서원을 부르게 된 것은 중국 주자의 백록동(白鹿洞) 서원을 본 뜬 것이다. 그 해 문성공 묘우(文成公 廟宇)를 세워 안향선생을 주향(主享)하고, 이어 안축(安軸), 안보(安輔) 두 형제분을 배향(配享)하였다. 1550년(명종 5년)에는 퇴계 이황 선생의 건의 끝에 「소수서원(紹修書院)」이란 이름의 사액을 받게 되면서 서원으로서의 그 기능과 체제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 서원은 인조 때에는 주신재를 추배(追配)하여 네 분을 모시면서 매년 춘추로 음력 3.9월 초정일(初丁日)에 지금까지 제향을 드리고 있다.

또한 유생들을 모집하여 인재양성을 시작한 것은 1543년, 서원(강학시설)을 세우면서 그 해 첫 입원유생(박승건 외 2)을 필두로 하여 353년간 약 4천여 명의 인재를 배출한 바 있다. 이 가운데는 퇴계 선생의 문하생 대부분을 비롯 경향각지에서 찾아온 유생들이 운집하여 명성을 높이기도 했다.

경내에는 숙수사의 옛 흔적으로 당간지주(幢竿支柱, 보물 55호)가 남아있고, 학문을 정진하면서 머리를 식히던 소혼대(消魂臺)자리, 자연친화적으로 오픈된 정자에서 학문을 강론하던 경렴정(景濂亭), 취한대(翠寒臺)며, 서원의 주 건물인 강학시설(강학당과 교수들의 집무실, 도서관, 교수와 학생들의 거재공간)과 제향장소(문성공 묘우 전사청 등)가 동학서묘(東學西廟)의 형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조선 말엽에 이르러 전국에서 서원이 남설되면서부터 대부분의 서원은 휘철이란 아픔을 당하게 되나, 나라로부터 이미 사액을 받은 27개 서원과 20개의 사액사당은 존치시켜 유맥과 향화(香火)가 끊어지지 않게 한 바 있다. 1965년도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면서,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한 때 정비가 되었으며, 그동안 유림들이 관리, 운영 해오다 영주시로 관리전환 되었다. 1996년도에 충효교육관 관리사무소라는 독립 관서로 발전, 경내에 유교박물관, 선비촌 재현, 한국선비문화수련원 등 부대시설을 확충하는 등 사라지는 전통문화와 도의 문화진작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

소수서원 현판 자료 보고

1. 소수서원의 현판 자료

1) 조사 현판목록(표)

건물명 (계첩)	당호류 (편액)	기판 (중수, 상량, 규 등)	시판 (오언, 칠언절구)	주련	비고
경렴정 (정자A)	현판 : 2점 (경렴정 행 . 초)	-	시판 : 16점 주세붕·이항·황준량·김응조· 오건·최응·황응규·황시·강침· 주세붕②, 이항②, 홍우정, 안현 외 2, 황섬, 정한, 유세명 등 16인	-	• 현판 2 • 시판 16 소계 18점
지락재 (정자B)	현판 : 1점 (지락재)	기판 : 1점 중수상량문	시판 : 12점 이감외1·성이민외1· 김진우·황준량·윤탁연· 박승건·강침·정종로·이의원· 류운룡·조사수·이준	-	• 현판 1 • 시판 12 • 상량문 1 소계 14점
유물관 (사료관)	현판 : 1점 (유물관)	기판 : 4점 유도교육관기, 사료관기, 완문순흥, 계하관문	시판 : 1점 황용한	-	• 현판 1 • 시판 1 • 기판 4 소계 6점
강학당 (강당)	현판 : 2점 (백운동/ 소수서원)	기판 : 11점 백록동부, 숙흥야매장, 침장 . 경재장, 사물장, 묘우중수기, 백운서원방, 백운서원규, 백운서원령	-	-	• 현판 2 • 기판 11 소계 13점
학구재 (기숙사)	현판 : 1점 (학구재)	기판 : 1점 동몽재중건기	-	-	• 현판 1 • 기판 1 소계 2점
일신재 . 직방재 (교수 집무실)	현판 : 2점 (일신재, 직방재)	-	-	-	• 현판 2 소계 2점
전사청 (제수)	현판 : 1점 (전사청)	기판 : 1점 기문	-	-	• 현판 1 • 기판 1 소계 2점
문성공묘 (사묘)	현판 1점 (문성공묘)	-	-	주련(종) : 2점	• 현판 1 • 주련 2 소계 3점
영정각 (초상봉관)	현판 : 1점 (영정각)	-	-	-	• 현판 1점

건물명 (개칭)	당호류 (편액)	기판 (중수, 상량, 규 등)	시판 (오언, 칠언절구)	주련	비고
사료관	현판 : 1점 (사료관)	-	-	-	• 현판 1점
충효교육관	현판 : 1점 (충효교육관)	-	-	-	• 현판 1점
취한대 (정자)	현판 : 2점 (박기진 / 강태균)	-	-	-	• 현판 2점
지도문	현판 : 1점 (강태균)	-	-	-	• 현판 1점
기타 (박물관 수장고)	현판 : 17점 백운동, 소수서원, 문성공묘, 경렴정①, 경렴정②, 일신재, 직방재, 학구재, 지락재, 봉서루, 영봉루, 유물관, 유도교육관 경지당①, 경지당② 흥주도호부아문 문선왕영정실	기판 : 18점 소수서원기, 문성공사당기, 봉서루중영기, 동몽재중건기, 묘우중수기, 백운서원방, 백록서원규, 악문서원령, 원문순흥, 계하관문, 입안(주세붕), 입안(신종하), 집사분정판, 백록동부, 지락재상량문, 숙흥야매잡, 심잡, 사물잡	시판 : 19점 류운룡, 황준량, 주세붕 이황, 이감·노경린 김응조·오건, 최웅, 황응규, 강침, 황시, 성이민·조옥, 김진우, 황준량②, 주세붕② 이황②, 윤탁연, 박승건, 강침②, 정종로	주련·시호·명구 : 8점 학구성현①, 학구성현②, 학구, 성현, 학구성현(중), 연비어약 연비어약(중)	• 현판 17 • 기판 18 • 시판 19 • 주련 8 소계 61점
-	현판 34점	기판 36점	시판 48점	주련 10점	128점

2) 소수서원 소장 현판자료(카드)

(1) 경렴정

題詠詩, 景濂亭 현판(1) / 행서, 1543년, 48×104, 傳 周世鵬, 傳 周世鵬

풍기군수로 부임한 주세붕 선생이 백운동서원을 창건하면서 1542년에는 문성공묘를, 1543년에 강학당과 함께 정자를 지으며 정자명을 성현을 경모하여 북송의 렴계학과처럼 많은 후학을 길러내라는 뜻에서 경렴정이라 명명함.

제영시, 景濂亭 현판 (2) / 초서, 조선 중기, 51×118, 周世鵬, 孤山 黃耆老

당대 명필(초서)로 이름 높던 고산 황기호가 소수서원 입원수학 중 스승 퇴계 선생의 명을 받아 쓴 글씨임. 필력이 뛰어나 정(亭)자의 꼬리 부분이 승천하는 모습이며, 일제 초 조선의 기를 끊고자 왜병이 의도적으로 잘라낸 흔적이 남아 있음.

題詠詩, 景濂亭 시판(1), 해서, 1543년, 27×43, 신재 주세붕, 신재 주세붕

주세붕 선생이 풍기군수 재임시절 「백운동 서원」을 창건하고, 「경렴정」정자를 세운 뒤 지은 5언 절구의 시

제영시, 경령정 시판(2), 해서, 차운, 1610년(추각), 25×43

이퇴계 선생이 처음 차운한 시판이 걸려 있었으나 오랜 세월로 마모되니 만력 경술년(1610) 봄 추각을 한 것임.

題詠詩, 景濂亭 시판(3), 초서, 1546년, 26×43, 금계 황준량, 금계 황준량

주세붕 선생의 “경령정” 시에 차운한 시임.

題詠詩, 경령정, 시판(4), 행서, 1547년, 28×53, 이감/노경린, 이감/목사 노경린

1547년 이감이 경상감사로 부임하여 도내 순행길에 목사 노경린과 동행 방문하여 남긴 것

題詠詩, 景濂亭 시판(5), 행서(차운), 1658년 / 1562년, 28×59, 김응조/오건, 김응조/오건

1658년 가을에 풍산 김응조가 차운한 시판에다, 이 앞서 1562년에 오건이 차운한 시를 함께 판각 계판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다.

題詠詩, 경령정 시판(6), 행서, 차운, 1560년, 27×43, 최웅, 최웅

1560년(경신년) 경상도 암행어사로 순행 중 이곳을 들린 최웅(崔顥)이 차운한 시판

題詠詩, 景濂亭 차운 시판, 초서, 1590년, 30×44, 송간 황응규, 송간 황응규

1590년 봄에 송간 황응규가 주세붕 시에 차운한 시판임

題詠詩, 景濂亭 시판 (8) / 해. 초서, 차운, 1610년, 27×59, 成以敏/趙 昱, 성이민/조옥

성이민과 조옥이 쓴 경령정 차운시판임.

題詠詩, 景濂亭 시판(9), 해서, 차운, 1619년, 23×34, 黃是, 황시

황섬의 동생이 되는 황시가 경령정을 차운한 시판이며, 해서로 판각되어 있음.

題詠詩, 景濂亭 시판(10), 초서, 차운, 1799년, 37×58, 姜忱, 강침

1798년 강침이 지은 차운시판이며, 1799년 초서 판각한 것임.

題詠詩, 景濂亭 시판(11), 초서, 차운, 조선 중기(병인년), 27×36, 金鎭雨, 김진우

조선 중기 병인년 어느 해에 주신재의 원운에 차운하였으며, 모두 입성 “靑”자를 운자로 붙인 것이 특이함.

題詠詩. 「경령정」시판. 해서, 1543년, 30×49, 慎齋 周世鵬,, 신재 주세붕

시판에 서각된 시는 칠언절구 2수로 되어 있으나 후학들이 차운한 경우는 퇴계와 달리 드문 편임.

제영시, 퇴계 선생 판상운 시판, 행.초서, 1549년, 38×56, 퇴계 이황, 이 중 두

이퇴계 선생이 “백운동 서원 제생들에게” 보인 시이며, 시판이 너무 오래 되어 글자 마멸 등으로 읽기가 어렵자, 12대 후손인 이중두(李中斗)가 퇴계 선생 판상운(판上韻)을 새로 계첨한 것임.

題詠詩, 황준량의 차운시, 초서, 1551년, 36×55, 금계 黃俊良, 금계 황 준 량

위 시는 금계가 35세 되던 해인 1551년 2월 경상도 감군어사(監軍御使), 그해 6월 추생어사(抽生御使)로 임명을 받아 압행길에 들러 스승 퇴계의 칠언절구 시에 차운한 시판임.

題詠詩, 景濂亭 차운 시판, 행서, 1636년, 32×52, 洪宇定, 송정처사 두곡 홍우정

병자호란 시 태백산속에 은거했던 송정처사로 그 절의가 후세에 알려진 인물이며, 1636년(병자호란) 이후 차운한 것으로 보임.

題詠詩, 景濂亭 차운 시판, 1547년, 30×60, 안현/황효공/안공신, 安鉉/黃孝恭/ 安公信

겸암 류운룡 선생이 남긴 2수의 시판임. 임란 직전. 직후 풍기군수 재임 시 백운동 서원을 배알하고, 이어 지락재(至樂齋)에서 옆의 내를 탁영대(濯纓臺)라 명명하고 앞쪽 낮은 곳에는 못을 파 탁청지(濯淸池)라 명명한 내용이 부기(附記)되어 있음

題詠詩, 景濂亭 차운 시판, 초서, 1610년, 30×45, 황섬, 黃暹

경림정의 원운에 황섬이 차운한 시판임.

題詠詩, 景濂亭 차운 시판, 초서, 28×37, 鄭澣, 정한

경림정의 원운에 정한이 차운한 시판임. 정조 19년(1795) 춘당대병과에 급제한 인물로 1806년(순조 6) 순흥부사로 부임하여 차운한 시판임.

題詠詩, 景濂亭 차운 시판, 초서, 27×33, 柳世鳴, 류세명

경림정 판상운에 차운한 시판임. 풍기군수를 역임한 겸암 류운룡의 증손으로 1675년 증광문과 병과급제 자임.

(2) 지락재

題詠詩, 景濂亭 차운 시판, 초서, 1592년, 33×72, 尹卓然, 윤탁연

퇴계의 경림정 원운에 경상감사로 부임하여 도내를 순행차 이곳에 들린 윤탁연이 차운한 시판임.

題詠詩, 문성공 사우건립 시판, 초서, 30×62, 찰방 朴承健, 찰방 박승건

박승건이 문성공 사우건립을 경하하면서 지은 시판임.

題詠詩, 창석 이준의 원운 차운 시판, 초서, 1799년, 27×56, 강침, 강침

풍기 군수를 역임했던 창석 이준의 「경림정」원운에 순흥 부사로 부임해 온 강침이 차운한 시판임. 이 외에도 그가 남긴 지락재 증수 상량문도 계첨되어 있음.

題詠詩, 濯纓臺 시판, 해. 초서, 1593년, 32×52, 謙庵 柳雲龍, 겸암 류운룡

겸암 류운룡 선생이 남긴 2수의 시판임. 임란 직전. 직후 풍기군수 재임 시 백운동 서원을 배알하고, 이어 지락재(至樂齋)에서 옆의 대(臺)를 탁영대(濯纓臺)라 명명하고 앞쪽 낮은 곳에는 못을 파 탁청지(濯淸池)라 명명한 내용이 부기(附記)되어 있음.

題詠詩, 景濂亭 차운 시판, 초서, 1550년, 33×62, 趙士秀, 조사수
퇴계 선생의 경림정 원운에 경상관찰사 조사수가 차운한 시판임.

題詠詩, 景濂亭 차운 시판, 초서, 1614년, 30×62, 창석 李埈, 창석 이준
창석 이준이 차운한 시판임.

상량문, 지락재 중수 기판, 해서, 1799년, 37×98, 姜忱, 姜忱
영조 49년(1773) 문과에 급제한 강침이 1799년 순흥부사로 부임해 그해 중추절에 지락재를 중수하면서 상량기문을 쓴 것임.

至樂齋 편액, 해서, 조선 후기, 41×95
1730년 소수서원 잡록 기록에 의하면, 원래의 이름은 ‘동몽재’였음.

上樑文 - 姜忱의 至樂齋 重修 上樑文, 37×98, 강침
지락재 중수 상량문의 기판의 원본임.

(3) 유물관

題詠詩, 景濂亭 차운 시판, 행 . 초서, 40×59, 立齋 鄭宗魯
정입재(1738~1816)가 서원에 들려 경림정을 차운한 시판임. 연대 미상의 행 . 초서로 혼용하여 쓴 3수임.

題詠詩, 京濂亭 차운 시판, 초서, 25×51, 完山人 李穀遠, 완산인 이의원
정조 14년(1790)에 증광시에 합격한 바 있는 이 의원이 언제 들려 시를 남긴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정종로의 원운에 차운한 것으로 보임.

題詠詩, 景濂亭 차운 시판, 초서, 창원인 黃龍漢, 창원인 황용한
입재 정종로의 시를 차운한 것으로 보이며, 초서로 게첨이 되어 있는 시임.

景濂亭 편액 (초서, 행서), 48×104/51×118, 주세붕/황기로, 주세붕/황기로
행서(경림정)와 초서(경림정)의 이 두 글씨가 원본임.

文聖王影幀室 편액, 해서, 조선말, 39×136
옛날 영정을 봉안했던 장소에 게첨되었던 현판임.

散文類, 記文, 鳳棲樓 重營記, 記板, 고려말, 119×60, 근재 안축, 근재 안축
소수서원 문성공 문우에 배향된 근재 안축 선생이 삼남에서 가정 오래된 누각이던 봉서루를 증건하면서 중영기문을 남긴 것이다. 서원에는 원판으로 추정되는 것과 을유년에 각을 한 판각 두 점이 함께 전해옴.

散文類(記文), 儒道教育館記, 1992년, 47×173, 달성인 徐丙極, 달성인 徐丙極
소수서원 도감이었던 달성인 서병극이 서원 경내에 건립된 충효교육관에 게첨코자 판각한 것임, 산업화 이래 전통 질서와 도의문화가 무너지고 사라지는 데 대해 선비의 고장 영주가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는 정신사의 보루임을 소개한 내용임.

散文類, 記文, 史料館記文, 기관, 해서, 1992년, 48×153, 달성인 徐丙極, 달성인 徐丙極

소수서원 경내에 충효교육관과 사료전시관을 건립하게 된 것은 자손만대 도의문화 진작과 민족정기 계승을 잇는 계기가 될 것임을 천명하며 유도회의 막중한 책무를 토로한 내용임.

公用文, 完文順興, 完文, 해서, 36×112

경상감사 ○○○가 순흥고을의 돈암 서한정을 제향한 구고서원에 내린 완문임. 이미 조정에서 내린 노비와 신역면제 등을 감사가 재확인하고 영구히 함을 기록한 것임.

公用文, 啓下關文, 關文, 해서, 1726년, 45×152, 경상감사, 경상감사

경상도 4개 서원의 휘철에 대한 군정의 논의를 경상감사와 순흥부에 내린 관문임. 당시 휘철령을 따르지 않는 단계 서원 등을 역사가 오래된 서원이니 휘철대상이 아님을 알리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

名言 名句, 鳶飛魚躍 2, 편액, 29×98, 회암 주희, 주희

회암 주희의 연비아약을 종서판각한 것임.

其他건물, 興州都護府 편액, 해서, 1413년(추정), 35×160, 傳 공민왕, 傳 공민왕

순흥이 려말 홍주도호부 시절, 홍건적 난리에 몽진 온 공민왕이 부석사 무량수전 현판과 봉서루 누각 현판 글씨를 남긴 것임. “홍주도호부아문”이란 현판이나, 비를 맞아 한쪽 모서리가 삭아 “司”자만 보임.

遺物館 편액, 해서

소수서원이 소장하고 있는 중요 유물을 보관했던 60년대 과거 유물관 현판임.

名言 名句, 學求聖賢 1, 주련, 해서, 28×108, 회암 주희, 회암 주희

회현 안향 선생이 48세 때 원(元)나라에 가서 공자 영정과 함께 주희암의 글씨 체본을 직접 가져와 판각한 것임.

名言 名句, 學求聖賢 2, 28×108, 회암 주희, 회암 주희

No 44번의 학구성현을 다시 판각한 것임.

名言 名句, 學求聖賢 3, 주련, 해서, 29×106, 회암 주희, 회암 주희

횡서 판각된 원판을 모본으로 종서판각한 주련임.

名言 名句, 鳶飛魚躍 1, 주련, 해서, 122×36, 회암 주희, 주희

회암 주희의 연비아약 주련을 종서 판각한 것임.

(4) 강학당

부(賦), 白雲洞次朱文公白鹿洞賦, 1543년, 43×120, 慎齋 周世鵬, 慎齋 周世鵬

신재 주세붕 선생이 1542년 문성공 묘우를 건립하고, 이듬해 소수서원(강학시설)을 준공하여 그해 첫 입원유생이 3명이었음. 거재유생들이 지켜야 할 원규 등을 각하여 게첩하면서 함께 주자의 「백록동부」를 차운한 부(賦)임. 부는 산문과 운문의 중간에 해당되는 글이나 운자가 들어가고, 맺구를 지키는 등 운문적 요소가 강하므로 운문(韻文)으로 봄.

잠명류(箴銘類), 夙興夜寐箴 편액(扁額), 1827년, 44×120, 宋代 南塘 陳柏, 진성인 李家淳

유생들이 학문을 통해 인격함양에 있어 자신을 스스로 훈계함을 목적으로 판각한 것임. 오래되어 퇴계 선생의 후손인 이가순이 다시 판각한 것임. 잠명류는 총 4편으로 범난계의 心箴, 주자의 敬齋箴 진남당의 夙興夜寐箴, 정이천의 四勿箴임. 소수서원은 심잠, 경재잠이 같은 판에 판각되어 있고, 숙흥야매잠 끝에는 이 잠명을 제작한 내력이 소개되어 있음.

賦, 周世鵬, 행서, 1593년, 43×120, 회암 주희, 신재 주세붕

주세붕 선생의 백록동 부 기관의 원본임.

箴銘類, 心箴과 敬齋箴, 편액, 1827년, 43×114, 范蘭溪(심잠), 朱子(경재잠), 진성인 이가순

이 편액은 범난계의 심잠과 주자의 경재잠이 함께 판각되어 있음.

箴銘類, 四勿箴, 편액, 행서, 1827년, 40×125, 宋代 伊川 程頤, 진성인 李家淳

입원 유생들이 스스로 지켜야 할 덕목과 본받아야 할 가르침을 통해 성인의 길로 나가는 첩경이 되는 글을 판각 게첩하여 들고 나며 낭송 실천했음.

散文類, 백운동소수서원기, 記文, 해서, 1550년 4월, 58×253, 申光漢, 신광한

퇴계 이황 선생이 조정에 청하니 명종이 기재 신광한으로 하여금 백운동서원의 이름을 소수서원으로 새로 짓게 하여 사액을 내리게 된 경위 등이 기록된 기문판임.

散文類, 記文, 백운동안문성공사당기, 1545년, 60×104, 성세창, 성세창

당시 양관 대제학이었던 성세창이 왕명을 받아 안향 선생을 모신 사당의 기문을 지으면서, 안향선생의功德과 추모의 뜻을 서술하였고, 자신 또한 회헌 선생의 6대 외손 됨을 밝혔음.

散文類, 記文, 紹修廟宇 重修記, 1874년, 48×98, 李義憲, 주신재 22세손 周龍鎬

1874년(갑술년) 연안인 이의덕이 문성공묘우의 중수기문을 짓고, 주신재 22세손인 주용호가 쓴 기관임. 성세창의 안문성공 사당기가 1545년 쓰였음을 비교, 중수내력에 담긴 사료적 가치와 문장의 유려한 문학적 가치가 돋보임.

公用文, 白雲書院榜, 방(榜), 1545년, 40×109, 신재 주세붕, 신재 주세붕

고을 수령의 자제들이 서원에 머물며 민폐를 끼치거나, 책을 함부로 빌리지 못하게 하고, 유흥과 활쏘기 등을 금하고 학문정진에 힘쓰게끔 규칙을 주신재 선생이 제정한 내용을 판각한 것임.

公用文, 白雲洞書院規, 학규, 예서, 1543년, 46×146, 주세붕, 주세붕

백운동 서원의 운영에 필요한 학규로 주자의 백록동서원 학규를 당시 그대로 차용하였으며, 이것은 중용에서 발췌한 내용임.

公用文, 白雲洞書院令, 학칙, 해서, 1543년, 32×60, 주세붕, 주세붕

백운동 서원의 학칙으로서, 거재유생들이 지켜야할 내용을 간략히 기술한 것임.

公用文, 嘉靖二十午年立十日月日立案(白雲洞書院 立案), 1546년, 36×61, 주세붕, 주세붕

안향 선생을 주향한 사묘와 서원을 관리함에 있어 4인의 수직(守直)에 대해 수령들이 함부로 하지 말 것을 경상감사에 계청하여 왕의 윤허를 받게 된 입안임.

公用文, 乾隆 十年年 庚午 立案, 해서, 1750년, 37×62, 순흥부사 申宗夏, 순흥부사 申宗夏

순흥부사 신종하가 1750년 부사 재임시 주세붕 선생이 1546년 국왕의 윤허를 받아 4인의 수직인들에게 대한 외부간섭을 막고 서원 업무에 충신토록 한 입안을 바탕으로 그들 4사람의 후손들에게도 영구히 잡역 면제시켜 서원 사환으로 전념토록 발급해준 입안임.

其他, 文成公 享祀 執事 粉定記, 분정판, 1543년, 187×43, 주세붕, 주세붕

문성공 묘우에 춘추 제향시, 제의 참여자의 역할을 분담케 한 집사 분정기임.

(5) 학구재

學求齋 편액, 해서, 37×72

지락재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구성현에서 따온 명칭임.

散文類, 記文, 紹修書院 童蒙齋 重建記, 1854년, 41×86, 金曾鉉, 김증현

순흥부사로 재임하던 김증현이 서원 경내 학구재 일명 동몽재를 중건하면서 그 기문을 짓되, 그동안 퇴락해 온 동몽재의 모습과 원임(院任)인 琴舜奎, 朴顯道 등의 일신한 모습, 그리고 순흥 고을의 유품과 文道가 진작되길 바라는 내용임.

(6) 일신재 · 직방재

日新齋 편액, 해서, 53×96,

성언근의 문집(가은집)에 소개되었으며, 일신재 중건기가 전해오며, 대학에서 따온 구절임.

直方齋 편액, 해서, 1720년(개각), 46×120, 퇴계 이황, 퇴계 이황

퇴계 선생이 직접 쓰신 글씨가 마모가 심해 이징도가 재생중의 한 사람인 이진주에게 의뢰 개각한 것임.

(7) 경지당

敬止堂 편액, 해서, 조선 중기, 52×132, 퇴계 이황, 퇴계 이황

이산서원 경지당 건물의 당호현판 원본임.

(8) 전사청

其他, 典祀廳 기문, 초서, 33×210

(9) 명륜당

白雲洞 편액, 해서, 47×108

죽계 건너 암벽에 새겨진 백운동 글씨를 탁본하여 모각한 것임.

(10) 사당

扁額, 文成公廟 扁額, 해서, 1605, 52×164, 명사 주지번, 明使 朱之蕃

주희의 후손인 명나라의 사신 주지번이 선조 38년인 1605년에 사신으로 와 서원을 참배하고 묘우명을 쓴 것임.

2. 소수서원의 주요 현판

1) 소수서원의 주요현판으로는 먼저 「백운동」과「소수서원」 두 현판이 있다.

강학당에 걸려있는 이 현판은 서원의 첫 이름과 사액 명칭으로 그 가치를 지닌 채, 강학당에 게첨되어 있다. 만력 경술 어느 봄에 새로 각을 했다는 백운동 현판과 명종이 열두 살에 보위에 올라 5년이 지난 열일곱 살 때 썼던 소수서원 현판이 밖과 안에 같이 게첨되어 있다. 사액현판인 「소수서원」은 퇴계의 건의를 받은 경상감사 심성희의 요청으로 왕은 당시 대제학 기재 신광한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하고, 그 결과 낙점한 이름을 직접 쓰고 각수로 하여금 새기게 하여 하사한 현판이니 그 의미가 매우 깊다.

그리고 경제잡, 사물잡, 숙흥야매잡 등 서원 거재유생들이 지켜야할 덕목과 학문정진에 필요한 교훈들이 강학당 내부 대들보와 상도리에 게첨되어 기백년의 세월을 통해 서원의 정신을 담아내고 있다.

문성공묘우의 「문성공묘」글씨는 명사(明使) 주지번(朱之蕃)의 친필이다. 묘(廟)는 왕이나 제후급의 사당에 부치는 극존칭의 묘호이다.

2) 스승의 집무실, 제자들의 기숙사의 편액에 담긴 의미도 매우 크다.

동주의 거처에는 직방재(直方齋)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주역 곤괘편에서 따온 말로 경이직내(敬而直內)의의방외(義而方外)에서 따온 글귀로서 선비는 겉과 속이 같으라는 뜻이다. 겉다르고 속다르지 말라는 의미이며, 먼저 사람이 되라는 말이다.

또한 일신재(日新齋)는 일반 교수·제임들이 사용하던 건물이다. 「일신」역시 대학(大學)의 日日新又日新(일일신우일신)에서 따온 말로 “나날이 새로워지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직방재 글씨는 퇴계 이황선생의 친필이기도 하다.

3) 학구재, 지락재, 경렴정 등 기존의 건물에 게첨된 편액에도 남다른 깊은 의미있다. 학구재는 학구성현(學求聖賢)에서, 지락(至樂)은 명심보감의 “至樂은 莫如讀書~”에서 따온 말이다.

4) 소수서원은 기승전결처럼 기경정결(起景情結)로 건물의 공간배치가 이뤄져 있다. 도입부, 경승부, 사색과 학문의 자리, 그리고 기숙처로 구분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서원은 전학후묘(前學後廟)의 공간배치이나, 이곳은 동학서묘(東學西廟)로서 이서위상(以西爲上)이란 전통위차법을 따랐다.

3. 조사결과(제언)

1) 문제점

- (1) 대부분 목판에 각을 하여 게첩된 것이 대부분이다. 큰 글자인 현판은 나름대로 괜찮지만, 기문이나 시문을 서각한 경우 작은 글자 때문에 오랜 세월 박락 등의 현상으로 판독이 어려운 점이 문제이다.
- (2) 한자문맹시대라 읽고 해석하는 이들이 드물어 접근의 한계가 있다.
- (3) 서각을 전문으로 공부했거나 연륜을 쌓아온 각수가 전무하여 다시 판각하기 어렵다.
- (4) 유명인이나 명사 글씨는 도난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유효관리 방안이 시급하다.

2) 의미 활용

- (1) 이번처럼, 기초전수조사를 통한 매뉴얼-북 마련이 급선무이다.
- (2) 뜻풀이, 내용설명 등을 담은 소책자로 발간, 공유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 (3) 해설사, 문화재지킴이, 관리자, 문화재 담당자 등이 상호정보교류의 폭을 넓혀야 한다.
- (4) 당호에 함축된 의미는 압축파일이라면, 그 속에 담긴 내용은 방대한 자료들이다. 자료와 현장이 동시에 이뤄지는 시청각적 안내가 이뤄질 수 있는 시의적절한 인물도 필요하다.
- (5) 당해 서원의 특징, 제향인물의 면면, 건물당호의 내용과 가치, 건물의 용도와 배치사항 등을 현판과 의고리를 연결하여 그동안 드러내지 못했던 서원의 묻혀있던 이미지를 되살려 세계유산에 걸 맞는 장소로 정착시켜야 할 것임.

남계서원 현판 자료 조사보고

瀟溪書院은 현재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에 있다. 이 서원은 1552년(명종 7)에 개암 介菴 姜翼이 함양군수의 지원을 받아 一蠹 鄭汝昌을 제향하는 서원으로 창건되었다. 1566년(명종 21)에 서원 앞의 시내 이름을 따서 瀟溪書院으로 賜額되었다. 조선의 두 번째 사액서원이다. 1597년 정유재란으로 소실되어 1605년(선조 38)에 羅村으로 옮겼다가, 1612년 옛 터인 현 위치에 다시 중건되었다. 1675년(숙종 원년) 鄭蘊, 1689년(숙종 15)에 姜翼을 각각 배향하였다.

강익의 ‘瀟溪書院記’에 “남계서원이 남계 위에 있다(瀟溪書院在瀟溪之上也).” 하였다. 남계서원은 蓮花山의 끝 줄기에 해당하는 언덕 경사면에 서향하여 앞들을 흐르는 남계와 먼 산으로 白巖山을 바라본다. 주변에 산이 높지 않고 평야가 펼쳐 있어 視界가 개방되어 편안하고 즐거운 느낌이다. 따라서 案對 경관은 경사지에서 들판을 전망하는 野景이 된다. 안대 경관을 전망하는 서원 문루 風詠樓는 ‘瀟溪書院記’에 收錄되지 않았으므로 후대에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남계서원의 안대경관은 ‘風詠樓記’에 잘 묘사되어 있다. 정여창의 후손이 쓴 기문에는 “사방으로 바라보는 경치가 들판이 평평하게 넓고, 냇물이 감돌아 얹히듯 했는데, 먼 숲은 푸르고 저녁노을이 아름답다.(臨有四望之攸同郊垌平曠川澤縈迢遙林蒨晚靄)” 하였다. 또 “이 다락에 오르면 넓어지는 마음과 편안한 정신이 자연 속에 자매질하여서 유연(悠然)히 스스로 얻은 것이 있는 뜻이 있다. 頭流山의 만첩 봉우리와 花林川 아홉 구비의 흐름에서 거의 선생의 風標를 보고 선생의 氣像을 우러러 볼 수 있음이니, 흡사 선생이 계신 자리에 뒹고 서서 曾點이 쟁그렁하고 비파를 밀쳐놓던 뜻이 있는 듯하여 風詠樓라 이름 하였다(登斯樓也則心廣神怡涵泳灑落攸然有自得這意矧乎頭流萬疊之峰花林九曲之流庶可以覽先生之清風仰先生之氣象恰若列侍函筵有點也鏗爾舍瑟之趣故因名之風).” 고 밝힌다.

당대의 대표적 老論系 유학자 奇正鎭의 風詠樓 기문에는 정여창의 기상을 曾點에 비유한다. “정여창 선생 심오하신 학문과 독실했던 행실이 어떠하였던가. 또한 ‘외로운 배로 큰 강을 내려간다.’ 라는 글귀를 음미하니, 은연중에 舞雩에 바람 쏘이고 沂水에서 목욕하겠다던 기상이 있다. 이는 어찌 멀리 사모하고 바람으로써 얻어진 것이리오. 지킴이 오래되면 절로 이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一蠹先生淵源實學 雖非後生之所蠹測 集諸先生之尙論而想像之 蓋所謂不動而敬 不言而信者 其深厚篤實何如也 及味孤舟下江數句 則隱然有風浴氣像 此豈懸慕企望而得之哉).” 하였다.

남계서원의 안대 경관은 瀟溪를 앞에 두고, 멀리 白巖山을 바라보는 野景이다. 남계서원의 野景은 높지 않은 산을 案對로 하고 柔軟하면서도 生氣가 가득한 평야를 편안하게 바라보며 風詠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경관이다. 이는 곧 大自然과 일체가 되는 曾點之樂(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을 의미한다. 曾點의 氣像은 이 서원이 祭享하는 鄭汝昌과도 통하는 것이다.

남계서원에 걸린 편관은 풍영루(風詠樓)·준도문(遵道門)·명성당(明誠堂)·동서재인 보인재(輔仁齋)·영매헌(詠梅軒), 양정재(養正齋)·애련헌(愛蓮軒) 등이 있다. 영매헌과 애련헌은 각각 그 앞에 조성된 방지(方池)와 관련된 명칭이다. 강당 명성당 건물 전면에 걸린 서원 현판이 좌우로 ‘瀟溪’, ‘書院’로 분리되어 걸려

있는 것이 특성이다. 명성당 좌측 방에 ‘居敬齋’, 우측 방에 ‘集義齋’ 현판이 걸려 있다.

기문으로 강당에 걸린 강익의 <濫溪書院記>, 풍영루에 걸린 정환필의 <風詠樓記>, 奇正鎭의 <風詠樓重建記>가 있다. 기문에는 인근의 경치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하면서, 특히 이 경치를 즐겁이 曾點이 風詠하는 즐거움과 같을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풍영루에서 남계서원 앞에 전개된 경치를 바라보는 감회는 一蠹가 지리산 유람을 다녀오며 지은 頭流詩와도 그 기상이 통한다.¹ 조사한 남계서원의 현판 목록은 아래 표와 같다.

1. 남계서원의 현판 자료

1) 조사 현판목록(표)

건물	당호류	기문류	기타	비고
사우	-	-	-	-
서원현판 (강당)	濫溪書院	-	-	-
강당	明誠堂 居敬齋 集義齋	濫溪書院記	院規	-
동서재	養正齋, 愛蓮軒 輔仁齋, 詠梅軒	-	-	-
문루	遵道門 풍영루	風詠樓記(정환필 찬) 風詠樓重建記(기정진 찬) 風詠樓重建記(민병승 찬)	-	-

2) 남계서원 소장 현판자료(카드)

(1) 서원현판



濫溪書院, 사액현판

남계서원 현판은 남계와 서원이 두 개의 현판으로 나뉘어 좌우로 걸려 있다. 濫溪란 서원 앞을 흐르는 시내 이름이다. 濫은 ‘물 맑을’ 남이지만, 물이 넘친다는 ‘濫’과도 통한다.



濫溪書院, 1566년(명종21) 7월 사액, 사액현판

남계서원 현판은 남계와 서원이 두 개의 현판으로 나뉘어 걸려 있다. 강당이 사당-명성당-풍영루 축선에서 서쪽으로 치우쳐 있다. 강당 대청이 두 칸이므로 강당의 중앙에 서원 현판을 나누어 걸면서 濫溪 현판을 축선과 일치시키는 방식을 추구한 결과로 보인다.

1. 風蒲泛泛弄輕柔, 四月花開麥已秋, 看盡頭流千萬疊, 孤舟又下大江流

(2) 강당

明誠堂, 1564년(명종19), 姜翼, 梅菴 조식

강당 이름이다. 서원 창립을 주도한 姜翼이 찬술한 書院記에 의하면, 명성이란 중용의 明則誠의 뜻을 취한 것이라 하였다. 『中庸』, 第21章 1절에는 “참됨으로 말미암아 밝아지는 것을 성품이라 하고 밝힘으로써 참된 것을 가르침이라 하니 참되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참된 것이다.(自誠明, 謂之性; 自明誠, 謂之教. 誠則明矣, 明則誠矣)” 하였다.

濫溪書院記, 1561년(신유년), 姜翼

남계서원 설립을 주도한 강익이 정여창을 모시는 서원을 건립하게 된 동기, 서원의 규모, 강당과 재실의命名, 그리고 죽계서원 다음으로 세운 남계서원에 거처하는 선비들에 대한 기대를 기록하였다.

院規, 癸丑 四月 重刊

院生이 독서할 서책과 서원 생활 규칙 및 예절을 열거하고 있다.

居敬齋, 梅菴 조식



강당의 동쪽 협실이다. 姜翼의 書院記에 의하면, 居敬이란 程子の ‘居敬窮理’에서 뜻을 취한 것이라 하였다.

‘居敬窮理’는 『朱子語類』 卷9 學3 論

之下에 나온다. 즉, “학자의 공부는 오직 거경과 궁리 두 글자에 있으니 이 두 가지 일은 서로 계발한다. 능히 리를 궁구하면 거경의 공부가 점점 나아지고 능히 거경하면 궁리의 공부가 날로 더욱 정밀해진다.(學者工夫, 唯在居敬, 窮理二事 此二事互相發 能窮理, 則居敬工夫日益進; 能居敬, 則窮理工夫日益密)” 하였다.

集義齋, 姜翼, 梅菴 조식

강당의 서쪽 협실이다. 姜翼의 書院記에 의하면, 集義란 『孟子』의 ‘集義所生’에서 뜻을 취한 것이라 하였다. 즉 浩然之氣는 道와 짝이 되는 義를 축적해서 생기는 것이니 갑자기 엄습하듯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 말에서 나왔다.

(3) 동서재

養正齋, 姜翼, 梅菴 조식

남계서원 동재이다. 姜翼의 書院記에 ‘蒙以養正’에서 뜻을 취한 것이라 한다. 『周易』 蒙卦 彖辭에 보면, “교육함으로써 사람을 바르게 기르는 것은 성인의 공덕이다.(蒙以養正, 聖功也)” 하였다.

詠梅軒, 姜翼, 梅菴 조식

姜翼의 書院記에 동재인 養正齋에 딸린 마루를 詠梅軒이라 하였다.

輔仁齋, 姜翼, 梅菴 조식

西齋의 이름이다. 姜翼의 書院記에 ‘以友輔仁’의 뜻을 취한 것이다 하였다. -『論語』, 顏然 편에 “군자는 글로써 벗을 사귀고, 벗으로써 인을 돕는다.”(曾子曰, ‘君子以文會友, 以友輔仁’)라 하였다.

愛蓮軒, 姜翼, 梅菴 조식

남계서원 동재인 보인재에 딸린 마루이다. 앞에는 방지가 있어 愛蓮軒이라 이름하였다. 주염계의 愛蓮說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4) 문루

遵道門, 姜翼, 梅菴 조식

남계서원 문루 이름은 풍영루이고, 문루 내측에 ‘遵道門’이란 현판이 걸려 있다. 정환필의 ‘風詠樓記’에는 “遵道란 이로 말미암아 행하면 도가 여기에 있다.(遵道者由是而行道在斯焉)”라는 뜻으로 풀이했다. ‘遵道’는 中庸 10장에 나오는데,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도를 좇아 행한다.(君子遵道而行)’ 하였다.

風詠樓, 1841(辛丑), 鄭煥弼

창립 당시부터 있던 준도문 위에 올린 다락집이다. 정환필은 風詠樓記에, 그 의미를 “두류산의 만첩 봉우리와 花林川의 아홉구비의 흐름에서 거의 선생의 風標를 보고 선생의 기상을 우리러 볼 수 있음이니, 흡사 선생이 계신 자리에 뒹고 서서 曾點이 쟁그렁하고 비파를 밀쳐놓던 뜻이 있는 듯 한 까닭으로 말미암아서 風詠樓라 이름하였다.” 고 설명하였다. 풍영이란 말은 『논어』 先進 편에 나오는 曾點의 “風乎舞雩詠而歸”에서 유래한 것이다.

風詠樓記(정환필 찬), 1849년(헌종15년 기유), 鄭煥弼

풍영루를 낙성하면서 쓴 기문이다. 남계서원의 건립 연혁을 기술하고, 후대에 이르러 풍영루를 건립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였다. ‘학문을 강론하고 휴식하는 여가에 심회를 펼칠 곳이 없어서는 안 된다. 선부로들이 피했으나 미처 하지 못한지가 벌써 수 백 년이 되었다. 1840년에 여러 사람들이 도와 1841년에 드디어 낙성하였다고 하였다. 아울러 풍영루에 올라 보이는 경치를 읊었는데, 곧 曾點의 詠而歸하는 지취이다.

風詠樓重建記(기정진 찬), 1849년(憲宗15년 기유), 奇正鎭

일두선생의 후손인 鄭煥弼의 요청으로 기정진이 기문을 지었다. 누를 창설하고 그 이름을 風詠이라고 한 것은 ‘학문을 하면서 긴장하기만 하고 조금도 풀지 않으면 문과 무에도 능하지 못한 것이다. 정신을 펼치고 성정을 휴양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기정진은 기문에 적었다.

風詠樓重建記(민병승 찬), 1940년(庚辰), 閔丙承

풍영루 2층에 걸려 있다. 풍영루가 1840년 창건되었으며, 1847년(丁未) 화재를 입어서 1849년(己酉)에 중건하고, 1937년(丁丑)에 전면 개축한 후 1940년(庚辰)에 민병승이 그 전말을 기록한다는 중건기이다.

2. 문헌기록에서 확인되는 현판 자료

1) 남계서원기(濫溪書院記)

대저 천하의 이치인 도(道)란 것은 혼운(混淪)한 중에 방박(磅礪)하게 뚜렷이 형성되어 유구한 세월에도 쉬지 않고 전해오는 바 그 오고 감이 시작도 끝도 없으니 도(道)의 도(道)됨이 지극히 위대하다. 온 천지간에 존재한 만물 중에 해와 달이 번갈아 밝으며 춘하추동이 서로 바뀔과 산이 높이 솟고 하수(河水)가 흘러가며 새와 짐승이 날고 달리며 초목이 꽃피고 잎지며 그 밖의 모든 삼라만상이 각기 그 품성에 맞게 정립되는 것이 즉 천리(天理)인 도일 것이다. 우리 인생이 이 천지간에 나서 천리의 정기를 받아 천지인삼재(天地人三才)에 참여하여 만물의 이치를 마음 속에 감추게 되었으니 도의 행해짐이 우리 인생들의 책무일 것이다. 그런데 이 도의 불씨가 꺼진지 오래되었는데 다행히 우리 문헌공 일두(一蠹) 정선생(鄭先生)이 정자(程子) 주자(朱子)의 뒤를 이어 조선에 태어나시어 도학의 맥을 이어 어둡던 이치를 밝히고 진실로 행하고 실천하였으며 심오한 이치를 깨달아 체험 자득하였으므로 그 영화가 나타나고 진실이 쌓이고 공덕이 높았으니 진실로 천년동안 드문 대유현(大儒賢)이며 백세의 사표(師表)이시다. 하늘이 부자를 낳으심이 우연이 아닐 터인데 어찌 또 부자를 화(禍)입게 함이 이같이 참혹하게 하였는고 만일 하늘이 부자의 도를 행하게 하였으면 세상은 요순성치(堯舜聖治)시대가 되고 사람들은 정자 주자같이 모두 현인들이 되었을 것인데 슬프다! 하늘이 부자에게 화를 내림이 이같이 참혹한가! 하늘이 부자의 도를 행하게 했더라면 세상은 요순시대와 같고 사람은 정주와 같아졌을 것인데 슬프다! 하늘이 부자에게 화를 내려 북방의 종성으로 하여금 송(宋)의 부(浚)와 소리를 같게 하였으니 하늘이여 이 도가 장차 상하겠는가. 희(噫)라! 부자 몰세(沒世)한지 오십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부자의 사당이 없으니 이것은 우리 군의 수치며 우리 도의 통탄할 바이다. 옛날 정자와 주자가 몰세한 뒤에 제자들이 사모하여 소영(嘯詠)하거나 유식(遊息)한 곳마다 서원을 지어 제사를 지냈으니 천부(天賦)의 호덕(好德)하는 천성을 엿볼 수 있도다. 하물며 부자가 나신 고향이니 말할 나위 없도다. 다행히 우리들 여러 군자들이 마음과 뜻을 합하여 임자년에 서원을 시공하여 신유(辛酉 1561)년에 준공하였으니 시종(始終) 십년간에 모든 지도(指導)와 경리(經理)를 근실(勤實)히 한 분은 실로 우리 삼후(三侯)의 수완(手腕)이었다. 처음에 부자가 화액을 당하여 그 축적한 재능을 전포(傳布)하지 못하게 하고 끝에는 삼후를 보내며 부자를 제사지내게 하여 후학으로 하여금 의귀(依歸)할 바를 알게 하였으니 하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었던고. 내가 부자보다 늦게 나서 부자의 문하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부자의 유풍(遺風)을 듣고 유훈(遺訓)에 감복하여 스스로 힘써 부자의 도에 죄를 얻지 않으려한 고독한 말학(末學)이 더듬더듬 길을 찾지 못하다가 이제야 부자의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냄에 뜰에 가득한 선비들이 질서정연하게 승강배음(升降拜揖)함이 선생 앞에 열시(列侍)하여 경해(警效)함을 받들고 있는 것 같고 나약한 사람이 뜻을 세우고 공경심이 일어나는 가운데 어렴풋이 자득한 락(樂)이 있는 것 같으니 후학들이 절의에 격려되고 성정(性情)을 고무(鼓舞)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사우와 강당과 동서재와 전문을 합하여 모두 삼십여간이 되는지라 제군자(諸君子)가 나를 사업주관을 하였다하여 건설전말(建設顛末)을 기록하게 하고 또 재사의 명칭을 지으라 하기에 사양타 못해 서원 세운 뜻을 기록하고 또 강당 이름을 명성(明誠)이라 함은 증용의 명칙성(明則誠矣)란 뜻을 취함이고 강당 협실(夾室)을 좌는 거경(居敬)이라 하고 우는 집의(集義)라 함은 정자의 말씀 ‘거경궁리’와 맹자의 말씀 ‘집의이생(集義以生)’이란 뜻을 취함이고 재실의 동을 양정(養正)이라 함은 주역의 몽이양정(蒙以養正)에서 서(西)를 보인(輔仁)이라 함은 증자의 말씀이 이우보인(以友輔仁)에서 취함이고 동헌을 애련이라 하고 서헌을 영매라 하고 대문을 준도문이라 하였으니 모든 명칭이 각각 의의가 있는

지라 액(額)을 선사하기를 남계서원이라 함은 서원이 남계수 위에 있음이로다. 희라! 우리 동국에 처음 서원이 설립된 것은 주무릉(周茂陵)이 지은 죽계서원이요 두 번째 이 서원이 설립되었으니 우리들의 이 일이 참 남하다 할런지? 삼후의 성의가 지극하고 나라의 은전이 빛나니 오도(吾道)를 호위하고 세교(世敎)를 부지하여 민생을 깨우침이 참으로 위대하도다. 원컨대 이 서원에 거처하는 분들은 삼후의 현인존상(賢人尊尙)하는 정성에 감복하고 부자의 창명도학(倡明道學)하신 유풍을 존모하여 그 도학을 배우고 행하여 부자의 침잠정밀(沈潛精密)한 공업(工業)과 독실강의(篤實剛毅)한 지도를 체득함으로써 함양존성(涵養存省)하여 기질을 변화하고 덕성을 훈도(薰陶)게 하면, 부자의 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많은 선비가 울연히 일어날 것이며 삼후의 공이 빛나고 국가의 문교(文教)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오호라! 모두들 힘쓸지어다. 삼후는 누구인고 하면 서공구연(徐公九淵)과 윤공학과 김공우흥이니 모두 유행(儒行)으로 한때 들어난 분들이다.

명종21년 병인(1566년) 강익 기(記)

濫溪書院記

夫道之在天下混淪磅礴悠久不息其來也無始其往也無終大哉道之為道也上而天下而地日月之代明寒暑之錯行山之所以峙河之所以流禽獸之飛走也草木之榮枯也洪纖高下各正性命者是道而已人生於天地間得是道而為人參三才而中立備萬物於一心天地所以與我者厚而道之所以行者亦人而已噫斯道之熄久矣惟我文獻公後程朱而挺生於東國傳不傳之學明久晦之道允蹈實踐而所以力行者篤精詣深造而所以體認者至和順積中而闡然日章英華發外而粹然體胖其真積力久之功心得躬行之實寔千載之真儒也百世之師表也天地生夫子既非偶然而天地禍夫子又何至是哉使天而行夫子之道庶幾世唐虞人程朱而嗟天之厄夫子之道徒使塞之鍾並聲於宋之涪天乎天乎斯道之將喪乎噫夫子沒五十稔于茲而夫子祠尚有闕然顧非吾郡之深羞而亦豈非吾道之深恫哉昔程朱子沒而學者慕之一嘯詠一遊息之地無不起院而祀之秉彝好德之天自有不容誣者況夫子之鄉乎幸我諸君子協心同志始事於壬子訖功於辛酉首尾十年凡指揮籌度之勤實我三侯之掌中耳始焉厄夫子俾不克展其所蘊而終焉惠三侯而祠夫子使後學知有依歸天之意亦有在也耶余之生後於夫子雖未及摳衣於夫子之門聞夫子之遺風服夫子之遺訓竊自振勵圖所以不獲罪於夫子之道而俛俛末學摘埴迷途者久乃今設夫子之廟祀夫子靈而盈庭章甫升降有次拜揖進退恍然若列侍函丈親承警欵立懶起敬之間藹然有自得之樂則凡我後學之所以激勵其節操鼓舞其性情者未必不在於斯矣呼亦幸矣哉祠宇與講堂暨東西齋及乎前門總三十餘間諸君子以余為首事請記其顛末且名其齋舍辭不獲謹識其立院之意而遂名其講堂曰明誠取中庸明則誠之意也堂之夾室左曰居敬右曰集義取程訓之居敬窮理鄒經之集義以生之旨也齋之室東曰養正取義於蒙以養正也西曰輔仁取義於以友輔仁也齋之二軒曰愛蓮曰味梅前之大門曰遵道名各有義而宣額曰濫溪書院院在濫溪之上也

噫書院之設於吾東者周茂陵竹溪之後始興於斯吾儕僭踰固所難逃而三侯之誠意既極繾綣朝家之恩典又已炳煥其衛吾道扶世教而啟迪乎我民可亦遑矣哉惟願諸君之居是院者感三侯尚賢之誠慕夫子倡道之風不徒慕之而思所以學其道不徒學之而思所以盡其道體夫子沉潛精密之功勵夫子篤實剛毅之志而藏修於斯涵養於斯于以審動靜存省之際而變化其氣質于以察性情隱微之間而薰陶其德性則庶幾夫子之道賴以不墜而蔚然多士之有興矣於是乎始無負於三侯而吾儕之僭踰亦有裨於國家右文之萬一爾鳴乎可不勉哉三侯為誰徐公九淵尹公確金公宇弘也各以儒行著于時

-明宗二十一丙寅(一五六六)年 姜翼記

2) 풍영루기(風詠樓記)

남계서원(瀟溪書院)이 창설된지는 오래이다 주무숙(周茂叔)이 죽계서원(竹溪書院)을 처음 창설하면서 서원이 시작되었는데,² 그 다음에 서원을 창설(創設)한 사람이 강개암(姜介菴) 선생이다. 개암은 문헌(文獻) 공보다 오십년 후에 태어났으나 선생의 덕을 사모하고 선생의 도(道)를 강론하였다. 고을 선비 몇 분과 더불어 같은 마음으로 협찬(協贊)해서 사우, 강당(講堂), 동서재사(東西齋舍), 및 전문(前門) 등 아울러 수십여 칸을 세워서 선현(先賢)을 높이고 후학(後學)을 계도하는 곳으로 하였다. 이어 명명하여 각각 그 뜻이 있었는데, 명성(明聲), 거경(居敬), 집의(集義) 같은 것이 그것이니라. 또 애련(愛蓮), 영매(詠梅)라 함은, 재사(齋舍) 앞에 연못을 파고 못의 옆에 독을 쌓아서 연(蓮)을 구경할만 하고 매화를 읊조릴만 하다는 것이니라. 준도(遵道)라 함은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행하면 도가 여기에 있다는 것인바, 여기에서 서원제도가 크게 갖추어진 것이다.

그런데 배우는 자 학문을 강론하고 휴식하는 여가에 심회(心懷)를 창서(暢敘)할 곳이 없을 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선부로(先父老)께서 하기를 피하였으나 미처 이루지 못한 지가 이미 수 백년이었던 바, 이에 경자년의 가을에 선비들의 논의가 다시 일어나서 가형(家兄) 환조(煥祖)께서 그 일을 맡도록 부탁하였다. 그가 어진이를 높이고 도를 지키는데 일찍이 성력(誠力)이 있었기 때문이니라. 이리하여 영선(營繕)하는 온갖 일이 실지(實地)에서 거행되었는데, 여기에는 노광표군(盧光表君), 강대로군(姜大魯君) 족제(族弟) 환용(煥龍)이 또한 함께 도운 바가 있었다. 모두 이르기를 층계(層階)집을 새로 지어서 한갓 보기만 아름답게 하기 보다는 차라리 옛것에다 새로운 제도를 더해서 우리의 가슴 속을 넓게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하였다. 드디어 준도문(遵道門) 위에다 작은 다락집을 올리니 열칸쯤 되도다. 다음해 신축(辛丑) 유월 이십사일에 낙성(落成)을 하였는데, 원근(遠近)의 선비들이 많이 달려와 축하하고 고을의 원이던 강이문(姜彝文) 군수도 또한 모임에 와서 읍양(揖讓)하는 모습과 진퇴하는 절차가 울연(蔚然)히 불만하였다.

대저 다락집의 제도(制度)가 매우 굉결(宏傑)하지는 않지만 빛나고 날듯하여 잠시동안 다시 보게 되었다. 높이가 백자도 되지 못하나, 멀리 임해서 사방으로 바라보이는 경치가 들판이 평평하게 넓고, 냇물이 감돌아 얹히듯 했는데, 먼 숲은 푸르고 저녁 노을이 아름답도다. 백암산의 두어집이 저문 빛속에 들어 반쯤이나 숨었고, 뇌계(礪溪)의 한쪽 면은 아침 햇볕에 온전히 드러났도다. 대나무와 잣나무 우거진 앞마을에는 우는 새들이 봄을 재촉하고, 과아벼의 옛 골목에는 늙은 농부가 가을 농사를 점치도다. 풍월이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운애(雲顰)가 재주를 드리우는데, 한번 슬쩍 보아도 천가지 기이함이 황홀하여 형상(形象)하기 어렵도다. 이 다락에 오르면 넓어지는 마음과 편안한 정신이 자연 속에 자맥질하여서 유연(悠然)히 스스로 얻은 것이 있는 듯한 뜻이 있도다. 두류산의 만첩 봉우리와 화림천(花林川)의 아홉구비의 흐름에서 거의 선생의 풍표(風標)를 보고 선생의 기상을 우러러 볼 수 있음이니, 흡사 선생이 계신 자리에 뒹고 서서 증점(曾點)이 쟁그렁하고 비파를 밀쳐놓던 뜻이 있는 듯한 까닭으로 말미암아서 풍영루(風詠樓)라 이름하였다. 준도문의 옛 현판은 개암이 지은 이름이고 매암의 마음껏 쓴 글씨이기에 문 위에다 걸어서 선현의 남기신 자취를 없애지 않는다는 뜻을 보였도다. 아! 증점은 부자(夫子)의 무리이고, 우리들은 선생의 무리이다. 부자에게서 배워서 바람쐬이고 시를 읊조리는 지취(志趣)가 있었던 즉 선생에게 배운 자로서 어찌 저와 똑같은 생각이 없

2. 주세붕(周世鵬)이 조선 최초의 서원으로 백운동서원(나중에 소수서원으로 사액)을 창건한 것을 잘못 적은 것이다. 죽계(竹溪)는 소수서원 앞을 흐르는 시내 이름이다. 주무숙은 중국 북송의 도학자 주돈이(周敦頤)의 자이다. 호는 염계이다. 태극도설을 지었다.

졌는가. 드디어 비파를 당겨 노래하기를 고운 햇별이 천천히 오르는데 봄옷은 더 입는구나. 큰 사람 작은 사람 할 것 없이 관동(冠童)은 오륙인(五六人)이라. 봉황은 높게 날아오르는데 어찌 나는 쉬지 않으리. 한가롭게 놀기를 실컷하여서 저절로 깨치게 하나니. 이미 큰 뜻을 보았으니 이(理)에 젖어들어 욕심을 버렸도다. 남계수(南溪水) 일렁이니 목욕을 할 만하고, 높은 대(臺)가 우뚝하니 바람쐬일 만하도다. 이 다락이 마침내 낙성하니 장차 시원히 읊조리며 돌아가리라.

낙성하던 날 나에게 고을 어른들이 기문을 부탁하였다. 나의 적은 식견으로써 극히 외람됨을 알지만 어른들의 부탁을 저버릴 수 없음이 있기에 이렇게 기문을 적는다. 후손 환필 근기

風詠樓記

瀟院之創設久矣. 始於周茂叔竹溪之後而創之者惟介菴姜先生也. 介菴生于文獻公五十載之下, 慕先生之德講先生之道. 與鄉士若干人同心協贊立祠于講堂東西齋及前門數十餘間以為尊先賢牖後學之地而仍以命名焉各有義若明誠居敬集義之類是也. 且夫曰愛蓮曰詠梅者齋前鑿塘塘外築塢蓮可賞而梅可賦也曰遵道者由是而行道在斯焉於是乎

院之制始大備矣, 然而學者於講論遊息之暇不可無暢敘之所. 先父老圃惟經始之未遑者數百年于茲. 迺於庚子秋儒議復起屬家兄煥祖幹其事蓋以其尊賢衛道夙有誠力故耳. 于以營繕百務實檢姜君大魯族弟煥龍亦與有相焉成以謂與其創立層榭徒取觀美曷若因舊貫增新制恢拓我胸次也. 遂就遵道門上葺之以小樓樓凡上下十許間以翌年辛丑六月二十日落之. 遠近章甫濟濟趨賀主守姜侯彝文亦來會揖讓之. 風進退之節蔚然可觀也. 夫樓之為制也不甚宏傑而奐輪輦革然改觀不百尺而迥臨有四望之攸同. 郊垌平曠川澤縈迴遙林蔥蒨晚霏依巖山數黛入暮雨而半隱礪溪一面帶朝旭而全露. 竹佰前村啼鳥催春擺櫺占巷老農如秋風月呈美煙霞獻技一瞥千奇恍惚難狀登斯樓也則心廣神怡涵泳灑落攸然有自得這意矧乎頭流萬疊之峰花林九曲之流庶可以覽先生之清風抑先生之氣象恰若列侍函筵有點也. 鏗爾舍瑟之趣故因名之風詠樓. 若遵道舊楣則介菴之錫號梅菴之心畫列揭于門上以示不泯先賢遺蹟之意. 噫曾點夫子之徒也吾儕先生之徒也. 學夫子而有風乎詠而之趣則學先生者烏可無一般這箇想耶. 遂援瑟而為之歌曰. 麗景遲遲兮增乎春服無小無大兮冠童五六. 鳳凰高騫兮盍余遊息優遊厭飫兮使自得已見大意兮融理而脫慾. 瀟水之洋洋兮可以浴孤臺之屹屹兮可以風茲樓之適成兮. 五將詠歸淅淅減落成之日鄉長老屬余為之記. 余以洩識極知僭汰而長老之勤託有不可孤是為之記. 後孫煥弼謹記

3) 풍영루중수기(風詠樓重修記)

대행왕 십삼년 정미에 남계서원의 풍영루가 화재를 입어 3년을 경과한 기유년에 비로소 거듭 짓게 되었다. 상상(上庠)의 유생(儒生) 정환필은 일두선생의 후손으로서 많은 선비의 뜻을 알리면서, 그의 벗인 기정진에게 기문을 부탁하거늘 정진은 조심스러워 감히 곧 붓을 잡지 못하고 먼저 누(樓)에 명명된 이름을 물으니,

환필이 이르기를 “대개 들으니 성인(聖人)은 도(道)에 대하여 일찍이 한 모서리만 말하지 않은다고 하였다. 또 그 한 두 가지를 말한다면 산과 물로써 인자(仁者)와 지자(知者)의 좋아함을 말하고 높고 낮은 모습으로서 예(禮)의 덕을 알게 하고, 당(堂)과 실(室)으로써 도에 이르는 경지를 비유한 것이 모두 이것이니라.

그 뜻을 미루어 본다면 증점(曾點)의 기수(沂水) 변에서 바람 쏘이고 시를 읊조림(會氏之沂上風詠)과 안자(顔子)의 더러운 골목에 살면서도 어리석은 듯 했던 것(顔子之巷居如愚)이 규모(規模)와 기상(氣象)은 비록 같지 않으나 배우는 자가 하나라도 폐(廢)해서는 안되고 강습(講習)하지 않을 수 없음이 분명하니라. 이 서원에 거경(居敬) 집의(集義)의 재(齋)가 있음은 대개 증씨(曾氏)와 맹씨(孟氏)의 뜻을 쫓아서 체용(體用)하는 학문을 일삼는 것이니라. 이것이 이른바 안자(顔子)의 학문하는 바를 배우면서 긴장하기만 하고 조금도 풀지 않으면 문(文)과 무(武)도 능하지 못한 것이다. 정신을 펼치고 성정을 휴양하는데 어찌 한 가지 일이 더 없겠는가. 이리하여 누(樓)를 후일에 창설하게 되었고, 이름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라고 하였다.

정진이 일어나면서 대답하기를 “그 이름이 또한 좋지 않은가. 이것이 진실로 우리들이 듣기를 원하던 바이니라. 배우는 자로서 이 누에 오르고 이 재에 들어와서 재와 누의 현판에서 그 뜻을 깨달아 안다면, 쫓는 바에 있어 아득하게 멀지 않을 것이니, 정진이 또 무슨 말로써 돕겠는가. 다만 생각하건데 ‘바람 쏘이고 시를 읊조린다.(風詠)’는 뜻이 솔개 날고 물고기 뛰는 것과 같은 자연이 활발한 경지이니, 어찌 다만 긴장을 푸는 것만으로 말할 것인가. 이 일은 다만 타고난 자질과 학문하는 힘에 관한 것이다. 증점은 타고난 자질이 높아서 능히 계단을 말미암지 않아도 큰 뜻을 넉넉히 모았던 분이니라. 그러나 증점의 타고난 자질은 없으면서 증점의 ‘바람 쏘이고 시를 읊조린다(風詠)’를 사모함은 학문하는 힘이 아니고 어찌하리오. 오직 지켜서 오래된 다음이라야 거(居)함이 편안해지고 편안히 거한 다음에야 밀천으로 삼음이 깊어지고, 밀천으로 삼음이 깊어진 뒤라야 좌우 모두가 그 근원을 만나게 될 것이니라. 이런 다음이라야 비파를 밀치면서 공자께 대하던 뜻이 나의 가슴 속에도 있게 되나니, 그렇다면 지키는 것에 어찌 다른 것이리오. 이른바 경(敬)과 의(義)에 불과하다.

선생의 연원(淵源)하신 실학은 비록 후생이 헤아릴 수 없으나 선생의 아름다운 언론(言論)을 모아서 상상하건데, 대개는 이른바 움직이지 않아도 공경스럽고 말하지 않더라고 미덥다는 것이니, 그 심오하신 학문과 독실했던 행실이 어떠하였던가. 또한 “외로운 배로 큰 강을 내려간다”라는 글귀를 음미하니, 은연중에 무우(舞雩)에 바람 쏘이고 기수(沂水)에서 목욕하곤했던 기상이 있구나. 이는 어찌 멀리 사모하고 바람으로써 얻어진 것이리오. 지킴이 오래되면 절로 이 경지에 이르는 것이니라. 정진이 늙고 고질(痼疾)이 있어 비록 그곳의 공부하는 반열(班列)에 달려가지는 못하나 여러분과 더불어 서로 권면하기를 원하나이다. 서원에 정우(正宇)가 있어 선생을 향사(享祀)하면서 동계(桐溪)와 개암(介菴) 두 선생을 배향하고 별사(別祠)에는 뇌계송탄 두 선생님을 봉향(奉享)하니라. 두류산 백암산과 남계와 위수는 모두다 조망이 아름다운 산수로서 기록할 만하다.

- 기정진 기

風詠樓重修記

大行王十三年丁未 濫溪書院之風詠樓燬 粵三年己酉 始克重建 上庠生鄭煥弼 一蠹先生裔孫 致多士之意 命其友生奇正鎮記之 正鎮踟躇不敢卽泚筆 先問樓所以命名之由 煥弼曰 蓋聞聖人之於道 未嘗爲一隅語 且言其一二 則如山水言仁智之樂 崇卑狀知禮之德 堂室況造道之域者 皆是也 推斯義也 曾氏之沂上風詠 與顔子之巷居如愚 規模氣象 雖有不同 而學者不可廢一而不講也明矣 是院之有居敬集義齋者 蓋將追曾孟之旨 以事體用之學 是所謂學顔子之所學 而張而不弛 文武不能 發舒精神 休養性情

又烏可無一段事乎 此樓之所以創於後 而命名之不得不然者也 正鎮作而對曰 不亦善夫 其名之也 此固鄙生之所願聞 學子之登斯樓入斯齋者 卽齋樓之扁而體認之 亦可以不迷於所從矣 正鎮又何辭以贊 第念風詠之旨 與鳶飛魚躍 同活潑潑地 豈可但以張弛言乎哉 此事只問天姿學力 曾氏惟天姿高 能不由階級而優見大意 無曾氏之天姿 而慕曾氏之風詠 非學力何以哉 惟守之久而後居之安 居之安而後資之深 資之深而後左右逢其原 於是乎舍瑟之對 在吾方寸間矣 所守之地 豈有他哉 不過所謂敬與義而已 一蠹先生淵源實學 雖非後生之所蠡測 集諸先生之尙論而想像之 蓋所謂不動而敬 不言而信者 其深厚篤實 何如也 及味孤舟下江數句 則隱然有風浴氣像 此豈懸慕企望而得之哉 守之久而自至耳 正鎮衰遲痼廢 雖不獲進於藏修之列 願與諸君子相勉焉 院有正字 以享先生 而桐溪，介菴二先生配侑焉 有別祠 湓溪，松灘二先生享之 頭流白巖 濫溪渭水 皆眺望山水之可記者云

-奇正鎮 記

옥산서원 현판 자료 조사보고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216-27번지(구: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7 옥산서원)에 위치하고 있는 玉山書院은 대원군의 서원 궤철시에도 존속한 47개 서원 중 하나로 도산서원과 더불어 영남지역의 首院 역할을 해왔다.

옥산서원은 회재 이언적의 학통을 계승하기 위하여 1572년에 회재의 평소 藏修之地였던 紫玉山 아래에 서원을 건립하게 되었다. 이곳은 회재가 別業을 짓고 학문에 힘썼던 곳으로서 회재 사후 내외손, 향촌사림(權德麟 외 13인), 지방관(府尹 李齊閔, 朴承任)의 상호 협조 하에 건립되었다. 이때 경주부윤 이제민은 서원 인근의 定惠寺와 斗德寺 및 沙器, 水鐵, 冶鐵 各店을 서원에 소속시켜 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1573년 2월 서악서원에 봉안되어 있던 회재의 위판을 이안하고, 같은 해 12월 監司 金繼輝의 啓達로 賜額을 받았다. 또한 주향자인 회재가 1610년 東方5賢의 한 분으로 文廟에 종사되자 그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옥산서원은 엄격한 기준으로 유생을 선발하여 교육활동 뿐만 아니라 경주지역 유림들의 공부를 위한 도서관적 역할 및 유생교육 교재·문집 등 서적을 직접 출판하기도 하여 지방출판문화의 중심지로서 기여하였다. 이러한 기능은 1577년과 1590년에 四書六經과 性理書를 宣賜받음으로써 가능하였다. 또한 서원 측에서는 서책출판을 담당하는 刊所를 별도로 설치·운영하였다.

옥산서원은 경주유림들의 근거지로서 유생들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등의 역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개별, 집단적 정치·사회적 활동에 구체적인 물질적 지원을 담당하기도 했다. 즉, 옥산서원은 동서·남북 분당 이후 이언적이 이황과 함께 남인의 정신적 지주로 자리 잡으면서 퇴계를 배향하는 도산서원과 함께 영남남인을 대표하는 서원으로 인식되었다.

옥산서원은 1967년 사적 제154호로 지정 되었으며, 서원에 보관 중인 『三國史記』(9책)는 보물 제525호로 지정되었다. 주변에는 회재의 별장이자 서재였던 獨樂堂(보물 제413호)과 屬寺였던 정혜사의 터가 남아있는데, 독락당 어서각의 『續大學或問』(1책), 『李彦迪 手稿本 一括』(13책)은 보물 제586호로 지정되어 있다.

옥산서원은 공부하는 장소인 求仁堂이 앞에 있고, 제사를 지내는 體仁廟가 뒤에 위치한 前學後廟의 형식이다. 체인묘는 앞면 3칸·옆면 2칸으로, 지붕 옆면이 人자 모양을 하고 있는 맞배집이다. 안에는 이언적의 위패를 모셔 놓았다. 구인당은 앞면 5칸·옆면 2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1839년에 화재로 사라졌다가 다시 지어진 건물로 ‘玉山書院’ 현판은 이산해와 김정희가 각기 썼다. 그 외에도 정문인 亦樂門을 지나면, 2층 누각인 無邊樓가 나오는데 그 현판은 한호가 쓴 것이다. 학생들의 기숙사인 동·서재인 敏求齋와 闇修齋가 있다. 강당과 묘우사이에는 회재의 神道碑(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76-1호)가 있는 비각이 있으며, 이외에도 經閣(御書閣), 文集版閣, 典祀廳, 庫直舍, 庖舍, 마구간 등의 건물이 있다. 서원 동남쪽에 1972년 후손들이 세운 유물 전시관인 ‘淸芬閣’이 있었지만, 2010년에 <玉山書院遺物展示館>을 지으면서 헐어버리고 모든 유물을 신축한 유물전시관에 보관하고 있다.

1. 옥산서원의 현판자료

1) 옥산서원 조사 현판 목록(표)

건물	명칭	찬자	서자	크기 (가로x세로)	연대
外三門	亦樂門	盧守愼	韓濩	129×49	1572
無邊樓(문루)	無邊樓	盧守愼	韓濩	114×62	1572
	玉山書院記	許曄	-	130×44	1573
	國忌	-	-	200×49	-
玉山書院(강당)	求仁堂	盧守愼	韓濩	182×84	-
	兩進齋	盧守愼	韓濩	110×63	-
	偕立齋	盧守愼	韓濩	111×63	-
	白鹿洞規	-	-	150.5×62	-
	傳教謄書	-	-	158×62	-
	御製祭文	-	-	220×95	-
	玉山書院	-	金正喜	180×79	-
	玉山書院	-	李山海	240×83	1573
講修齋	敏求齋	許曄	裴大維	82×35	-
	闇修齋	許曄	裴大維	84×34	-
體仁廟(사우)	體仁廟	盧守愼	韓濩	133×92	-
御書閣	經閣	-	-	94×42	-
	御書閣	-	李滉	102×61	-
	書院書冊不出院門	-	-	138×86	庚子 (1840?)
神道碑閣	碑閣	-	-	100×63	-
藏板閣	文集板閣	-	-	188×51	-
遺物展示館	淸芬閣	-	-	102×61	-
其他	洗心門	-	-	55×17.5	-

2) 옥산서원 소장 현판자료(카드)

(1) 外三門

亦樂門, 1572년, 129×49, 蘇齋 盧守愼(1515-1590), 石峯 韓濩(1543-1605)

역락문의 이름은 중종때 영의정을 지낸 蘇齋 盧守愼(1515-1590)이 명명하고, 현판 글씨는 石峯 韓濩(1543-1605)가 썼다. 역락문은 『論語』 「學而」편에 나오는 “벗이 멀리서 찾아오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有朋而自遠方來不亦樂乎)”라는 글에서 취한 것이다. 학문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출입하는 문이라는 의미이다.

(2) 無邊樓

無邊樓, 1572년, 114×62, 蘇齋 盧守愼(1515-1590), 石峯 韓濩(1543-1605)

이 현판은 누마루 서쪽 벽 가운데 칸 윗부분에 걸려 있다. 韓濩의 글씨이다. 무변루의 본래 명칭은 ‘納淸樓’였는데, 노수신이 이언적의 유적으로서서는 마땅치 않은 이름이라 하여 바꾸었다. ‘무변’이란 북송의 유학자 주돈이의 ‘風月無邊’에서 유래한 것으로, 말 그대로 서원 밖 계곡과 산이 한눈에 들어오게 하여 그 경계를 없애는 곳을 의미한다.

玉山書院記, 1573년, 130×44, 草堂 許曄(1517-1580)

이 기문은 무변루 누마루 서쪽 벽 왼쪽(남쪽)칸 윗부분에 걸려 있다. 이 기문은 草堂 許曄이 1573년에 이언적의 문인인 龜峰 權德麟의 부탁을 받고 지었다. 그 내용은 이언적 사후 경주유림들이 공의로 경주부윤과 경상감사에게 서원의 건립을 요청하게 된 本末을 적고 있다. 또한 서원건립을 계기로 경주가 鄒魯之鄉이 되어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하기를 바라는 소망도 담겨 있다.

國忌, 200×49

太祖부터 正祖까지 역대 왕과 왕비의 忌日을 적은 것이다.

(3) 玉山書院

求仁堂, 182×84, 盧守愼, 韓濩

옥산서원의 강당인 구인당의 현판으로, 강당 대청 뒷벽의 가운데 윗부분에 걸려 있다. 이 편액은 석봉 한호의 글씨이다. 구인당의 ‘求仁’은 이언적이 쓴 『求仁錄』에서 따온 것으로 성현의 학문이 오로지 仁을 求하는데 있다는 이언적의 성리학의 핵심사상을 의미한다.

白鹿洞規, 150.5×62

대청 뒷벽 왼쪽(남쪽) 윗부분에 걸려 있다. 주자의 白鹿洞書院 學規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다. 학규는 五教之目, 爲學之書, 修身之要, 處事之要, 接物之要의 다섯 조목에 각각의 세목이 있다.

傳教謄書, 158×62

강당 뒷벽 오른쪽(북쪽) 윗부분에 현판이 걸려 있다. 1676년(숙종 2) 10월 10일에 숙종이 밤에 신하를 불러 경연을 베푸는 야대(夜對) 때 서원에 내려진 인력들이 흩어져 선비들이 학문에 전념할 수 없음을 염려하는 논의가 있었다. 이에 모든 서원에 특전을 줄 수는 없기에 교화에 정도가 큰 서원에 먼저 조치를 취할 것을 傳敎한 내용을 등서한 것이다. 원래의 전교는 강당 화재때에 영조조의 備望記板, 정조조의 御製祭文板 등과 함께 소실되었다.

御製祭文, 220×95

강당 중앙 윗부분에 현판이 걸려 있다. 정조가 이언적의 학문을 특별히 존숭하여 옥산서원에 내린 치제문이다. 원본은 강당 화재시에 소실되었다. 이언적이 스스로 깨달아 얻은 성리학적 세계와 그의 뜻을 기리는 내용을 담아 정조가 지은 제문을 새긴 것이다. 1792년에 정조가 제물과 제문을 보내 致祭한 일과 1839년(헌종 5)에 강당에 불이 난 일, 그리고 중건과 함께 다시 사액을 내린 일에 대한 전말이 적혀 있다.

兩進齋, 110×63, 盧守愼, 韓濩

구인당 내 남쪽방(동방)의 출입문 위에 걸려 있다. 양진재의 ‘兩進’은 ‘明(도덕을 밝힌다)’과 ‘誠(의지를 성실하게 한다)’을 갖추어 진진함을 말하는 것이다. 『중용』에 ‘명은 선을 밝게 얹이요, 성은 진실하고 망령됨이 없음이니, 천리의 본연이다(誠者眞實無妄之謂 天理之本然也)’라는 뜻이다. 이는 가르치는 이가 明善을 거쳐 誠實함을 이루어야 함을 말한다.

偕立齋, 111×63, 盧守愼, 韓濩

‘偕立’은 ‘敬義偕立’, 즉 ‘경건한 마음가짐과 신의로써 사물에 대처한다’는 뜻에서 취한 것이다. 敬義와 明誠은 성리학의 으뜸이 되는 뜻이다. 程子是 『주역』 <전>에서 “군자는 경을 주장해 안을 곧게 하고, 의를 지켜 밖을 방정하게 해서, 경과 의를 확립하면 덕이 성해진다(君子敬以直內 義以方外 敬義立而德不孤)”고 하였다.

玉山書院, 1839년, 180×79, 秋史 金正喜(1786-1856)

강당 건물 앞면에 있는 ‘玉山書院’ 편액은 구인당 화재 이후 1839년(헌종 5)에 다시 받은 편액이다. 秋史 金正喜(1786-1856)가 쓴 글이다. 현판의 좌측에 “萬曆甲戌 賜額後二百六十六年 己亥失火改書 宣賜”라 적혀 있다.

玉山書院, 1573년, 240×83, 鵝溪 李山海(1539-1609)

강당 대청 앞면에 있는 ‘玉山書院’ 편액은 1574년(선조 7) 사액 당시의 鵝溪 李山海(1539-1609)의 글씨를 모각한 것이다. 흔히 ‘舊額’이라 한다. 현판의 좌측면에 ‘舊額摹揭’라 적혀 있다.

(4) 講修齋**敏求齋, 82×35, 許曄, 裵大維**

구인당 앞 마당의 남쪽에 있다. 東齋 혹은 南齋라고도 한다. 민구재의 敏求是 『論語』 「述而」편에 공자가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옛 것을 좋아하여 부지런히 찾아서 배운 사람(好古敏以求之)”이라고 했던 글에서 따온 것이다.

闇修齋, 84×34, 許曄, 裵大維

구인당 앞 마당의 북쪽에 있다. 西齋 혹은 北齋라고도 한다. 암수재의 闇修는 朱子가 스스로의 학문에 대해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나날히 새롭고 밝게 학문을 펼쳐 나간다(闇然自修)”고 한 말에서 취한 것이다.

(5) 體仁廟**體仁廟, 133×92, 盧守愼, 韓濩**

구인당 뒤에는 內三門인 體仁門이 있고, 그 뒤 담으로 둘러싸인 공간에 사당인 體仁廟와 典祀廳이 있다. ‘體仁’은 어질고 착한 일을 실천에 옮긴다는 말로 성리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다. 이언적의 일생은 자기 완성인 成己를 바탕으로 백성의 완성인 成物을 이루는데 있었다. 성물의 근본이 되는 성기는 仁을 體得함으로써 얻는 것이기에 이언적을 모신 묘우의 이름을 體仁이라 하였다.

(6) 御書閣

經閣, 94×42

원래 御書閣으로 불렸다. 內賜本과 회재수필, 퇴계수필 외에 기타 귀중도서와 각종 서원 문서를 보관하였다.

御書閣, 102×61

원래 經閣을 御書閣이라 했었는데, 1972년 유물전시관인 청분각을 지으면서 어서각 현판도 청분각에 걸게 되었다. 현재는 2010년에 신축한 유물전시관 내 수장고에 보관중이다.

書院書冊不出院門, 庚子(1840?) 仲春, 138×86

어서각(경각) 문 위에 걸어둔 현판이었지만, 1972년 청분각을 지으면서 청분각 문루에 옮겨 걸었다. 현재에는 옥산서원유물전시관을 신축하면서 전시관 내 수장고에 있다. 이 현판은 “서원의 책을 서원 문 밖으로 내지 않는다”는 원규 중 하나를 적어 놓은 것이다. 일찍이 퇴계 이황이 정해서 서원의 책을 보존했고, 이후 300년이 지나 정조 또한 이 일을 가상히 여긴다는 綸音이 있었다. 이에 사람들이 이를 기억하기 위해 일의 전말을 기록해서 걸었다.

(7) 神道碑閣

碑閣, 100×63

사당 담 밖 북쪽으로는 碑閣이 있으며, 비각 내에 神道碑가 있다. 이 신도비는 1577년(선조 10)에 회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후학들이 뜻을 모아 건립하였다. 奇大升이 신도비문을 지었고, 1577년에 李山海가 글을 썼다. 이언적의 신도비는 이후 1586년에 기대승의 신도비명을 良洞 출신의 孫曄이 다시 쓰서 포항에 있는 회재의 묘소 앞에 건립되었다.

(8) 藏板閣

文集板閣, 188×51

서원 영역 남쪽에 문집판각이 있다. 『회재집』 판목을 비롯한 서원에서 출간한 서적의 판목을 보관하고 있었다. 현재 신축한 유물전시관내 수장고에 판목을 보관하고 있다.

(9) 遺物展示館

淸芬閣, 102×61

1972년에 건립된 서원 영역 남쪽에 위치한 유물 전시관이다. 2010년 옥산서원유물전시관이 신축되면서 청분각은 허물어지고 현판은 전시관내 수장고에 있다. 淸芬은 깨끗하고 맑은 향기이니 상대방의 인품이나 덕행을 칭송하는 말이다. 서고를 ‘청분’이라 명명한 것은 책이 머금고 있는 단아한 향기를 표현한 것이다.

(10) 其他

洗心門, 55×17.5

碑閣과 옥산서원 앞 계류의 洗心臺로 이어지는 통로의 문 위에 걸려 있다. 문명은 세심대로 통하는 문이란 뜻이다.

3) 독락당 조사 현판 목록(표)

구분	명칭	찬자	서자	크기 (가로x세로)	연대
獨樂堂(사랑채)	玉山精舍	-	李滉	154×48.5	1570년 이전
	獨樂堂	-	李山海	126.5×57.2	?
	玉山精舍記	南公轍	-	166×66.7	1802
御書閣(장서각)	御書閣	朴慶新	-	135×51	1618
	書冊不出門外	朴慶新	-	113×29.5	1618
溪亭(정자)	溪亭	-	韓濩	82×48	-
	養眞菴	-	李滉	142×58	-
	仁智軒	-	韓濩	62×32	-
敬淸齋(행랑채)	敬淸齋	-	鄭壽岩	×	-
亦樂齋(안사랑채)	亦樂齋	-	韓濩	50×19	-

4) 독락당 소장 현판자료(카드)

(1) 獨樂堂

玉山精舍, 1570년 이전, 154×48.5, 退溪 李滉(1501-1570)

독락당 정면 처마 아래의 ‘玉山精舍’ 현판은 退溪 李滉의 글씨이다. 옥산정사는 독락당 건물 마당 둘레의 담으로 형성된 마당과 함께 극히 개인적이고 숨겨져 있는 듯 하면서도 자연속에 스며들어간 듯 땅에 낮게 깔려 자연과 함께 하는 배치와 구성을 하고 있어서, 선비가 계곡에 묻혀 학문을 하며 은자의 생활을 한 精舍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 이에 紫玉山 자락에 있는 精舍라는 의미로 ‘玉山精舍’라 명명하였다.

獨樂堂, 126.5×57.2, 鵝溪 李山海(1539-1609)

독락당은 이언적이 1532년 관직을 그만두고 돌아와 6년간 성리학 연구에 전념하였던 서재 겸 사랑채였다. ‘獨樂堂’은 말 그대로 ‘홀로 즐겁다는 뜻이다’. 송나라 司馬光이 왕안석의 개혁정치를 거부하고 낙향하여 향촌에 ‘獨樂園’을 경영하고 은거생활에 들어갔던 것에서 유래한다. ‘독락당’ 현판은 鵝溪 李山海의 글씨이다.

玉山精舍記, 1802년 8월 下澣, 166×66.7, 金陵 南公轍(1760-1840)

대청내 서쪽면 우측 상단에 기문이 걸려 있다. 이 기문은 1802년 8월 下澣에 경상도 관찰사 南公轍이 경주 일대를 순회하던 중 독락당을 들렀다가 후손들의 청으로 지은 글이다. 독락당의 정취에 대하여 적고 있다.

(2) 御書閣

御書閣, 1618년, 135×51, 朴慶新

마당을 중심으로 서쪽에 위치해 있다. 이언적의 서자 李全仁이 1554년 안채를 중수하고, 御書閣과 사당을 건립하였다. 어서각에는 이언적의 手筆稿本과 생전에 사용하던 유품·서적, 인종이 세자시절 안동부사로 나아간 스승 회재에게 멀리 떨어진 아쉬움을 표현한 친필 서찰 등을 보관하고 있다.

書冊不出門外, 1618년, 113×29.5, 朴慶新

어서각내 어서각 현판 아래에 걸려 있다. 이언적의 서자 李全仁이 1554년 御書閣을 건립하였다. 이후 회재가 사용하였던 서적과 수필고본 및 인종의 세자시절 친필 서찰을 보관하여 왔다. 그러나 회재 사후에 회재의 서적 보관을 둘러싼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에 회재의 옥산과 후손들은 경상도 관찰사, 즉 공권력을 빌어 어서각내의 문적 유출을 영구히 막음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 내지 높이는 한편,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관찰사의 어서각 서책의 반출을 금한다는 명을 편액에 새겨 걸어 놓은 것이다.

(3) 溪亭

溪亭, 82×48, 石峯 韓濩(1543-1605)

마당을 중심으로 동쪽에 계정이 있다. 마루 남쪽 벽면 위에 현판이 걸려 있다. 계정은 동쪽 마루가 계정이고, 북쪽은 창고와 방 2개인데 서쪽 방은 양진암이고, 동쪽 방이 인지현이다. 이언적은 1532년 낙향한 이후 안채와 사랑채인 독락당을 지었고, 1533년 선친 李蕃이 지었던 亦樂齋를 개수하여 ‘溪亭’으로 이름을 고쳤다. 지금의 건물은 1629년 경 소실된 것을 1650년에 다시 지은 것이다. ‘계정’이란 현판은 韓濩의 글씨이다.

養眞菴, 142×58, 退溪 李滉(1501-1570)

지금의 溪亭, 양진암과 仁智軒 자리는 1515년 초려삼간이 있던 자리이다. 안채를 지금의 자리로 확장 신축하고 양진암을 들인 것은 평소 회재와 이곳에서 수학하며 공양하던 정혜사 주지 상재가 떠나지 않고 회재를 시종하니, 회재는 상재의 도움으로 초려삼간을 헐어 계정에 방 한 칸을 들여 머물게 하였고, 그 방을 ‘養眞菴’이라 하였다. ‘양진’이란 유가와 불가의 진리 속의 양진을 뜻한다. 또한 유학자의 공부방인 ‘齋’가 아닌 불가의 암자와 같은 ‘菴’을 사용함으로써 승려가 편안히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양진암’이란 현판은 退溪의 글씨이다.

仁智軒, 62×32, 石峯 韓濩(1543-1605)

양진암 옆 계정 마루와 연결된 방이다. 인지현은『論語』에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한다(仁者樂山 智者樂水)”라는 말을 계정 경관에 부합되게 한 의미로 회재가 1550년에 지은『求仁錄』에 仁을 구하는 방법인 仁道之天에도 부합된다.

(4) 敬淸齋

敬淸齋, 德峰 鄭壽岩

경청재는 숨방채라고도 불리었다. 행랑채로 사용되는 건물로 대문의 정면에 있다. 현판은 방문 위에 걸려 있다. 이 건물은 1601년 3월 12일에 회재의 서손자 李浚, 李淳 형제가 옥산별업을 奉守하기 위하여 和議文을 작성하면서 세운 것이다. 회재는 1538년 3월에 淸白吏에 加資 되었는데, 청백은 恭敬之心에서 나온다고 하여 후손들이 이 건물을 敬淸齋라 이름 하였다. 1900년 이후 머슴들이 사용하기도 하였다.

5) 기타 현판·기문 자료 카드

(1) 용추

龍湫, 退溪 李滉(1501-1570)

霞溪 李家淳이 설정한 玉山九曲 중 제2곡은 ‘龍湫’이다. 용추는 상·하 2개가 있는데 상용추는 세심대 아래에 있으며, 서원마을 입구에 하용추가 있다. 이가순이 설정한 제2곡은 하용추를 일컫는다. 세심대 부근의 상용추에는 퇴계 이황이 쓴 ‘龍湫’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다만, 세심대 근처에 있기에 상용추는 하나의 굽이로 설정되지 못하였다.

(2) 세심대

洗心臺, 退溪 李滉(1501-1570)

옥산구곡 중 제3곡은 ‘세심대’이다. 옥산서원과 서원 앞을 흐르는 옥산천 사이에 너럭바위가 층을 이루며 넓게 자리하고 있는데, 그 중간 지점에 퇴계 이황이 쓴 ‘洗心臺’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세심대는 회재가 명명한 四山五臺 중 하나로서 맑은 시냇물의 굽이와 넓은 바위를 보면서 시속의 티끌을 깨끗이 씻을 수 있었기에 이를 염두해 두어서 너럭바위를 ‘세심대’라 이름 하였다.

(3) 독락당

李安訥 詩板, 1770년, 74×44, 李瀾

독락당 대청에는 걸려있는 시판으로 東岳 李安訥의 溪亭 板上韻을 그의 오대손인 李瀾가 1770년에 차운한 것이다.

尹斗壽 詩板, 37×50, 梧陰 尹斗壽

독락당 대청에 걸려있는 편액 가운데 하나로 梧陰 尹斗壽의 옥산서원 板上韻이다.

朴素立 詩板, 1576년, 192×47, 朴素立

독락당 대청에 걸려있는 편액 가운데 하나이다. 蘇齋 盧守愼의 獨樂堂 十四詠을 차운한 시판으로 1576년 관찰사 朴素立이 찬하였다.

朴啓賢 詩板, 1568년, 173×43, 近思齋 朴啓賢

독락당 대청에 걸려있는 편액 가운데 하나이다. 近思齋 朴啓賢이 1568년 紫溪十六詠을 題詩하고 그 후 附하여 懸板한 것이다.

完文, 甲寅, 152×65

독락당의 선조묘 수호에 잡역을 면제해 준다는 완문

國忌板, 190×53

독락당 대청에 걸려있는 편액 가운데 하나인 國忌板이다.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후의 기일이 기록되어 있다.

尹致謙 詩板, 46×31, 尹致謙

독락당 대청에 걸려있는 편액 가운데 하나로 윤두수의 후손인 尹致謙이 차운한 시판이다.

權泰一 詩板, 癸丑(1613), 46×35, 藏谷 權泰一

독락당 대청에 걸려있는 시판으로 藏谷 權泰一의 獨樂堂韻을 揭板한 것이다.

沈東龜 詩板, 1636년, 82×28, 沈公俊

독락당 대청에 걸려있는 편액 가운데 하나인 晴峯 沈東龜의 시판이다. 1636년 심동귀의 5대손인 沈公俊이 揭板한 것이다.

尹仁涵 詩板, 庚寅(1590), 51×36, 尹仁涵

독락당 대청에 걸려있는 시판 가운데 하나로 府尹 尹仁涵이 溪亭을 차운한 것이다.

尹得雨 詩板, 癸巳, 49×35, 尹得雨

독락당의 대청에 걸려있는 시판으로 府尹 尹得雨가 자신의 6대 선조인 尹斗壽의 옥산서원 판상운을 차운한 시판이다.

尹匡烈 詩板, 48×33, 尹匡烈

독락당 대청에 걸려있는 시판으로 尹斗壽의 8대손인 尹匡烈이 윤두수의 판상운을 차운한 시판이다.

李重協 詩板, 丙申(1716), 64×43, 李重協

독락당 대청에 걸려있는 편액 가운데 하나이다. 丙申년에 작성된 李重協의 시판이다.

李慶山 洛城送 詩板, 己亥, 134×38, 李慶山

독락당 대청에 걸려있는 李慶山의 시판이다. 還鄉이라는 이 시판은 五峯 李好閔과 西厓 柳成龍의 시를 次韻한 것이다.

權泰一 詩板, 1793, 66×34.5, 李益運

독락당 대청에 걸려있는 시판으로 이익운의 獨樂堂韻을 계판 한 것이다.

李安訥 詩板, 1614, 107×39, 東岳 李安訥

독락당 대청에 걸려있는 시판으로 동악 이안눌(東岳 李安訥)이 독락당에서 오봉 이호민의 운을 차운하여 1614년 구암공 이준에게 보낸 시를 갈판(揭板)한 것이다.

盧守愼 詩板, 1574, 153×53.5, 蘇齋 盧守愼

독락당 대청에 걸려있는 편액 가운데 하나로 蘇齋 盧守愼의 獨樂堂 十四詠 시판이다.

(4) 계정

李彦迪 詩板, 77×36, 晦齋 李彦迪

계정에 걸려있는 李彦迪의 澄心臺卽景 시판이다.

趙綱 詩板, 1629년, 73×35, 龍州 趙綱

계정에 걸려있는 龍州 趙綱의 시판이다.

李陽鼎 詩板, 1781, 61×37, 李養鼎

계정에 걸려있는 李養鼎의 시판이다.

李殷敬 詩板, 1768년, 101×39, 李殷敬

계정에 걸려있는 시판으로 東岳 李安訥의 시를 차운한 것이다.

趙明鼎 詩板, 89×40, 趙明鼎

계정에 걸린 趙明鼎의 시판으로 그의 시와 함께 趙明謙, 趙明澤의 시가 차운되어 있다.

金陽淳 詩板, 癸巳年, 88×36, 金陽淳

계정에 걸려있는 시판으로 玉山溪亭 시가 차운되어 있다.

吳翻詩板, 승정 신미(1631), 58×38, 吳翻

李穡 詩板, 甲寅年(1614), 48×38, 李穡

계정에 걸려있는 이육(李穡)의 시판이다.

趙基復詩板, 戊戌年, 55×26, 趙基復

李安訥 詩板, 만력 갑인(1614), 132×38, 李安訥

계정에 걸려있는 東岳 李安訥의 시판이다.

漁得江 詩板, 68×35, 漁得江

계정에 걸려있는 灌圃堂 漁得江의 시판이다.

2. 문헌자료에서 확인되는 현판 자료

- (1) 權德麟, 『龜峯集』 권2, 「玉山書院記略」
- (2) 盧守愼, 『穌齋先生文集』 권7, 「玉山書院諸額贊」.
- (3) 李能允, 『谷圃集』 권4, 「玉山書院體仁廟重建日記」.
- (4) 李彦迪, 『晦齋先生集』 부록, 「玉山書院記」(許曄).
- (5) 吳 翻, 『天波集』 권4, 「遊玉山書院記」.
- (6) 正 祖, 『弘齋全書』 권22, 祭文4 「玉山書院 致祭文」
- (7) 許 曄, 『草堂先生文集』記, 「玉山書院記」.

3. 옥산서원의 주요 현판

(1) 亦樂門



역락문의 이름은 종종 때 영의정을 지낸 蘇齋 盧守愼(1515-1590)이 명명하고, 현판 글씨는 石峯 韓濩(1543-1605)가 썼다. 역락문은 『論語』「學而」편에 나오는 “벗이 멀리서 찾아오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有朋而自遠方來不亦樂乎)”라는 글에서 취한 것이다. 학문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출입하는 문이라는 의미이다. 현판 좌측에 “聞風則回望道而來不亦樂哉邦之英才”라는 글이 있다.

(2) 無邊樓



이 현판은 누마루 서쪽 벽 가운데 칸 윗부분에 걸려 있다. 韓濩의 글씨이다. 무변루의 본래 명칭은 ‘納清樓’였는데, 노수신이 이언적의 유적으로서서는 마땅치 않은 이름이라 하여 바꾸었다. ‘무변’이란 북송의 유학자 주돈이의 ‘風月無邊’에서 유래한 것으로, 말 그대로 서원 밖 계곡과 산이 한눈에 들어오게 하여 그 경계를 없애는 곳을 의미한다. 현판의 좌측에 盧守愼이 찬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으며, 끝도 없고 시작도 없다. 넓고도 시원하니 태허에서 노닐리라(靡欠靡餘罔終罔初 光歟霽歟游于太虛)”라는 글이 적혀 있다.

(3) 求仁堂



옥산서원의 강당인 구인당의 현판으로, 강당 대청 뒷벽의 가운데 윗부분에 걸려 있다. 이 편액은 석봉 한호의 글씨이다. 구인당의 ‘求仁’은 이언적이 쓴 『求仁錄』에서 따온 것으로 성현의 학문이 오로지 仁을 求하는데 있다는 이언적의 성리학의 핵심사상을 의미한다. 현판의 좌측에 노수신이 찬한 “마음의 덕은 어디를 내어놓아도 멀리서 돌아온다. 한 생각이 돌아옴을 아니 곧 이것이 근본이로다(心德何損放而回遠 一念知反卽此是本)”라는 글이 적혀 있다.

(4) 兩進齋



구인당 내 남쪽방(동방)의 출입문 위에 걸려 있다. 양진재의 ‘兩進’은 ‘明(도덕을 밝힌다)’과 ‘誠(의지를 성실하게 한다)’을 갖추어 전진함을 말하는 것이다. 『중용』에 ‘명은 선을 밝게 밝히요, 성은 진실하고 망령됨이 없음이니, 천리의 본연이다(誠者眞實無妄之謂 天理之本然也)’라는 뜻이다. 이는 가르치는 이가 明善을 거쳐 誠實함을 이루어야 함을 말한다. 현판의 좌측에 노수신이 찬한 “선한 것 택하기를 오직 밝게 하고,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오직 정성스럽게 하니, 어느 것이 무겁고 어느 것이 가벼우랴, 성현과 같이 행동할 뿐이라네(擇善惟明反身惟誠 孰重孰輕聖賢同行)”라는 글이 적혀 있다.

(5) 偕立齋



‘偕立’은 ‘敬義偕立’, 즉 ‘경건한 마음가짐과 신의로써 사물에 대처한다’는 뜻에서 취한 것이다. 敬義와 明誠은 성리학의 으뜸이 되는 뜻이다. 程子是 『주역』 <전>에서 “군자는 경을 주장해 안을 곧게 하고, 의를 지켜 밖을 방정하게 해서, 경과 의를 확립하면 덕이 성해진다(君子敬以直內 義以方外 敬義立而德不孤)”고 하였다. 현판의 좌측에 노수신이 찬한 “경으로 안을 곧게 하고, 직으로 밖을 방정하게 하여 안과 밖이 서로 돕게 하며, 천덕의 밝음을 부여잡고 잊지 말아야 한다(敬直義方內外交相 惟操弗忘天德之光)”라는 글이 적혀 있다.

(6) 傳教謄書



강당 뒷벽 오른쪽(북쪽) 윗부분에 현판이 걸려 있다. 1676년(숙종 2) 10월 10일에 숙종이 밤에 신하를 불러 경연을 베푸는 夜對 때 서원에 내려진 인력들이 흩어져 선비들이 학문에 전념할 수 없음을 염려하는 논의가 있었다. 이에 모든 서원에 특전을 줄 수는 없기에 교화에 정도가 큰 서원에 먼저 조치를 취할 것을 傳敎한 내용을 등서한 것이다. 원래의 전교는 강당 화재 때에 영조조의 備望記板, 정조조의 御製祭文板 등과 함께 소실되었다.

원래 전교의 내용은 『서원등록』 권1, 丙辰(1664) 11월조에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은, 陶山.玉山.道東.龍門.道峰.烏川書院 등 文廟從祀諸賢을 봉사하는 서원은 다소 폐단이 있더라도 모입자를 물침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월 초 10일 夜對時에 동부승지 權某의 啓에 의하면 (...) 문묘종사제현은 百世에 공이 있다. 서원을 건립한 것은 실은 右文興道の 뜻에서 나왔다. (...) 從祀諸賢의 평생의 經過處에 모두 서원을 건립하였다. 비록 일일이 모두 특전을 주는 것은 불가하지만 예안의 도산서원 경주의 옥산서원 현풍의 도동서원 안음의 용문서원 양주의 도봉서원 영일의 오천서원과 같은 서원은 募入者을 그대로 두고 勿侵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다. (“今11月初十日夜對時 同副承旨權所啓 臣奉名 (...) 文廟從祀諸賢則有功百世 建立書院 實出於右文興道之意 設有少弊端 有不足爲念者 (...) 從祀諸賢平生所經過處 皆立書院 雖不可一一皆用特典 而至若禮安之陶山書院 慶州之玉山書院 玄風之道東書院 安陰之龍門書院 楊州之道峰書院 迎日之烏川書院 則曾所募入者 仍存 勿侵似當矣”)

(7) 御製祭文



강당 중앙 윗부분에 현판이 걸려 있다. 정조가 이언적의 학문을 특별히 존숭하여 옥산서원에 내린 치제문이다. 원본은 강당 화재 시에 소실되었다.

이언적이 스스로 깨달아 얻은 성리학적 세계와 그의 뜻을 기리는 내용을 담아 정조가 지은 제문을 새긴 것이다. 1792년에 정조가 제물과 제문을 보내 致祭한 일과 1839년(헌종 5)에 강당에 불이 난 일, 그리고 중건과 함께 다시 사액을 내린 일에 대한 전말이 적혀 있다.

정조는 『대학』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따라서 주자의 『대학장구』의 결유된 부분을 보완하여 『대학장구보유』를 다시 편한 이언적의 학문이 주목되면서 그를 봉양하는 옥산서원도 중앙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이에 정조는 이언적에 대한 존경의 뜻으로 5년 4월에 도산서원과 함께 관리를 보내 致祭토록 하였다. 또 18년에는 이만수가 『속대학혹문』을 가져온 것을 돌려 보내면서, <題先正晦齋續大學或問卷首>를 지어 옥산서원에 보내 이를 소장하게 하였다.

(8) 體仁墓

구인당 뒤에는 內三門인 體仁門이 있고, 그 뒤 담으로 둘러싸인 공간에 사당인 體仁廟와 典祀廳이 있다. ‘體仁’은 어질고 착한 일을 실천에 옮긴다는 말로 성리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다. 이언적의 일생은 자기완성인 成己를 바탕으로 백성의 완성인 成物을 이루는데 있었다. 성물의 근본이 되는 성기는 仁을 體得함으로써 얻는 것이기에 이언적을 모신 묘우의 이름을 體仁이라 하였다. 현판의 좌측에 노수신이 撰한 “만물을 낳는 봄이 나에게 있어 인(仁)을 행하고, 스스로 체득하니 어찌 다른 사람을 자라게 하지 못하리오 (生物之春在我爲仁 體之以身何不長人)”라는 글이 적혀 있다.

4. 조사결과(제언)

옥산서원과 이언적의 별업인 독락당의 현판류 자료는, 1839년 강당(구인당)의 화재로 강당내의 이산해 所 書의 賜額板, 숙종조 傳敎謄書板, 영조조의 備望記板, 정조조의 御製祭文板 및 백록동규판, 本院院規板 등 현판은 모두 소진되었지만, 나머지 건물내의 대부분 현판은 건립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 따라서 현판들은 옥산서원의 유래와 그 의미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러한 현판들은 그 역사성 뿐만 아니라, 그 찬자와 서자들이 노수신, 이황, 이산해, 한호, 김정희 등 당대를 대표하는 학자 내지 명필이라는 데서 그 역사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옥산서원 건립 당시의 건물 중 체인묘·구인당·양진재·해립재·무변루·역락문은 영의정 盧守愼이 명명하고, 목사 韓濩가 썼으며, 민구재(동재)·암수재(서재)는 대사성 許曄이 명명하고, 현판은 승지 裒大維가 썼다. 특히 이들 현판에는 당호 글씨 좌측에 짧은 해설문을 적어 당호가 가지는 의미를 밝혀 놓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이들 당호는 회재의 학문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 또한 洗心臺는 정조가 이언적의 『속대학혹문』의 序文을 짓고 지방 初試를 개최했던 곳으로 유명하다. 독락당에도 이언적과 관련된 퇴계의 유묵이 많이 보관되어 있다.

이와 같이 서원의 역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현판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고, 그리기 위해서는 이들 자료에 대한 번역 및 그 의미와 해설을 덧붙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도산서원 현판 자료 조사보고

1. 도산서원의 현판자료

1) 조사 현판목록(표)

건물	당호류	기문류	기타	비고
사우	尙德祠	-	-	-
서당(서원)	陶山書堂 陶山書院	-	암서헌, 완락재	-
강당	典敎堂 閑存齋	-	夙興夜寐箴, 四勿箴, 白鹿洞規 國忌(1,2), 院規, 肅廟丙辰.... 忌日, 享祀時獻官執事 壬子三月初三日..., 陶山書院遣閣臣致祭文	-
동서재	博約齋(동재) 弘毅齋(서재)	-	-	-
기숙사	룡운정사	-	시습재, 관란헌	-
외삼문	進道門	-	-	-
장서루	光明室(동/서)	진성이동준공공적기	이주부공사적,	-
서재	亦樂書齋	-	時習齋	-
유물전시관	玉振閣	-	-	-

2) 도산서원 소장 현판자료(카드)

(1) 사우

陶山書院 尙德祠, 16세기, 70.0 × 169.5

도산서원 사우 편액으로, ‘상덕’은 『논어』 「현문(憲問)」편에 “군자로다, 이 같은 사람이여! 덕을 숭상하다, 이 같은 사람이여! 子曰 君子哉 若人 尙德哉 若人”라고 한데서 인용한 것으로, 퇴계의 학덕을 숭상한다는 의미이다.

(2) 서당



陶山書院 陶山書堂, 16세기, 58.5 × 27.8, 퇴계 이황, 퇴계 이황

도산서당의 편액으로, 퇴계가 61세 때 도산서당을 창건하고 직접 글씨를 썼다. ‘도산’의 명칭에는 성군(聖君)인 순임금과 진나라 도연명의 인품을 흠모한 퇴계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 편안한 기분을 주지만 정통성을 벗어난 상당히 독창적인 글씨다. 기본적으로 안진경체의 웅혼한 기풍을 바탕으로 삼으면서, ‘산’자를 상형자로 구성하고, ‘서당’ 두 글자에 예서에서나 볼 수 있는 파책을 가미한 점이 이채롭다.

陶山書院 陶山書院, 1575년, 57.5 × 206.3, 한석봉(사액편액)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서원의 편액이다. 퇴계 사후 1574년에 서원이 지어졌고, 이듬해 1575년에 사액된다. 도산서원은 퇴계가 생전에 진

리를 강론하던 도산서당 뒤에 세워진 곳으로 여타 서원과는 차별성이 있으며, 퇴계학파의 학문적 중심 역할을 하였다. 글씨는 선조의 명에 의해 당대 명필인 한석봉이 썼으며, ‘만력 3년(1575) 6월 일에 사액한다’라고 부기되어 있다. 사적 제170호로 지정되었으며, 훼손되지 않은 47개 서원 중의 하나이다.

陶山書院 巖栖軒, 16세기, 29.0 × 54.5, 퇴계 이황, 퇴계 이황

도산서당 건물 안의 마루에 걸린 편액으로, ‘암서’는 주자의「운곡이십육영(雲谷二十六詠)」의 하나인「회암(晦庵)」의 전구와 결구인 “오래되어도 자신이 없으니, 암혈에 살면서 작은 효험을 바라네.[自信久未能巖栖冀微效]”에서 인용한 것이다. 주자에 대한 존모의 마음과 현실정치에 참여하기보다 자연에 은거하는 삶을 지향한 정신을 읽을 수 있다. 쓰기보다는 그린 듯한 예서풍의 글씨로 고매한 기풍을 느낄 수 있다. 퇴계 친필이다.

陶山書院 玩樂齋, 16세기, 30.0 × 62.0, 퇴계 이황, 퇴계 이황

도산서당 건물 안에 있는 작은 방의 편액으로 퇴계가 기거하던 곳이다. ‘완락’은 주자의「명당실기(名堂室記)」에 나오는 “도(道)와 이(理)를 즐기고 완상하여 일생을 마치어도 싫증내지 않으려나.[樂而玩之 足以終吾身而不厭]”고 한 것에서 인용하였다. 납작한 것이 예서의 틀을 본뜬 해서이다.

(3) 강당

陶山書院 典教堂, 16세기, 76.1 × 208.8

도산서원 정당(正堂) 편액으로, ‘전교’는 오전(五典)을 가르친다는 것인데 인륜을 밝힌다는 뜻이다.

陶山書院 閑存齋, 16세기, 57.1 × 147.1

도산서원 정당의 서쪽 협실의 편액으로, ‘한존’은『주역』「건괘, 문언전」의 “사악함을 막고 그 성실함[誠]을 보존한다.[閑邪存其誠]”는 것에서 인용하였다. 사악함을 막으면 자연히 성실함이 보존되는 것으로, 이는 경(敬) 공부의 방도이며, 퇴계철학의 핵심요소이다.

陶山書院 夙興夜寐齋, 37.0 × 61.5, 남당(南塘) 진백(陳柏)

도산서원 정당 오른쪽 벽에 걸린 현판으로, ‘숙흥야매잠’은 ‘새벽 일찍 일어나 밤에 잠들 때까지 자신을 경계하고 정신을 가다듬는 자세’를 논한 글이다. 송(宋)나라 때 남당(南塘) 진백(陳柏)이 지은 글로, 한마디로 공부와 수양에 필요한 지침을 담고 있다. 퇴계의「성학십도」중 제10도가「숙흥야매잠도」이다.

陶山書院 四勿齋, 37.0 × 81.0, 이천(伊川) 정이(程頤)

도산서원 정당 오른쪽 벽에 걸린 현판으로, ‘사물잠’은 눈(보는 기능), 귀(듣는 기능), 말(정보나 의사를 표현하는 기능), 움직임(의지나 마음의 표현 기능) 등 네 가지 기능에 대한 경계를 논한 글이다. 북송 때 주돈이의 제자인 정이(程頤)가 지었다.

陶山書院 白鹿洞規, 38.0 × 98.0, 주희(朱熹)

도산서원 정당 오른쪽 벽에 걸린 현판으로, ‘백록동규’는 남강군(중국 江西省 廬山の 五老峰 아래)에 있던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의 학자들에게 제시하기 위해 송나라 주자가 지은 학규(學規)이다. 여기에는 오륜(五倫)과 위학지서(爲學之序), 수신지요(修身之要), 처사지요(處事之要), 접물지요(接物之要) 등의 내용들이 적혀 있다. 퇴계의 「성학십도」중 제5도가 「백록동규도」이다.

陶山書院 國忌(1), 42.0 × 13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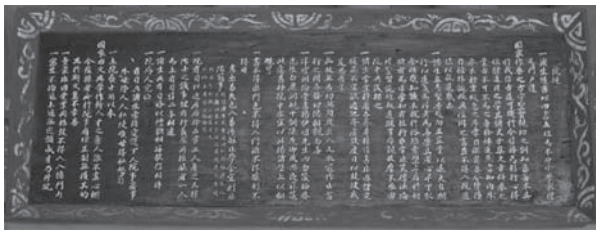


도산서원 정당 북쪽 벽면에 걸려있는 현판으로, ‘국기’는 조선시대 역대 임금들의 제삿날을 기록한 것이다. 태조부터 정조까지 역대 왕과 왕비의 기일(忌日)과 능호(陵號), 그리고 왕능이 있는 지명까지 적은 것이다.

陶山書院 國忌(2), 35.5 × 55.5

도산서원 정당 북쪽 벽면에 걸려있는 현판으로, ‘국기’는 조선시대 역대 임금들의 제삿날을 기록한 것이다. 효의왕후 김씨부터 명성황후 민씨까지 역대 왕과 왕비의 기일(忌日)과 능호(陵號), 그리고 왕능이 있는 지명까지 적은 것이다.

陶山書院 院規, 55.5 × 145.0, 퇴계 이황



도산서원 정당 북쪽 벽면에 걸려있는 현판으로, ‘원규’는 이산서원(伊山書院)의 교과과정, 공부 방법 등을 규정한 서원 규칙으로 ‘이산원규(伊山院規)’를 가리킨다. 이후 이 원규는 영남지역 서원원규의 모범이 되었다.

陶山書院 肅廟丙辰十月初十日..., 18세기, 34.5 × 75.0

도산서원 정당 북쪽 벽면에 걸려있는 현판으로, 서원을 운영하기 위해 백성들을 뽑아들인 일에 대해 퇴계와 도산서원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그대로 인정해 줄 것을 바라는 내용이다. 이후 공급해 주도록 전교한다는 내용이 부기되어 있다.

陶山書院 忌日, 63.0 × 35.0

도산서원 정당 서쪽에 걸려있는 현판으로, 퇴계선생의 기일과 종향위(從享位) 월천(月川) 조목(趙穆)의 기일이 적혀있다. 퇴계선생은 12월 8일이고 월천은 10월 29일이다.

陶山書院 享祀時獻官執事, 40.5 × 131.2

도산서원 정당 북쪽 벽면에 걸려있는 현판으로, 도산서원 향사시 현관집사 분정판이다. 임진(2012) 8월 18일 추향 때의 분정이 걸려있다.

陶山書院 壬子三月初三日..., 1792년, 56.0 × 82.0, 정조, 규장각각신 이만수(李晩秀)



도산서원 정당 중앙 들보 위에 걸려있는 현판으로, 1792년(정조 16) 3월 3일에 정조가 전교(傳敎)한 내용이다. 규장각각신 이만수를 도산서원으로 보내 제문을 지어 치제(致祭)하고 시험을 치르게 한다는 내용이다. 퇴계선생 연보 부록에는 시험보는 날에 이 내용을 전교당에

간게(刊揭)한다는 글이 첨부되어 있다.

陶山書院 陶山書院遣閣臣致祭文, 1792, 54.0 × 73.0, 정조, 규장각각신 이만수



도산서원 정당 중앙 들보 위에 걸려있는 현판으로, 1792년(정조 16) 3월 24일에 정조대왕이 규장각각신 이만수를 도산서원으로 보내 치제(致祭)한 제문이다. 글씨는 정조대왕의 전교를 받들어 각신 이만수가 썼다.

(4) 동서재

陶山書院 博約齋(동), 16세기, 53.5 × 141.5

도산서원 동재(東齋) 편액으로, ‘박약’은 『논어』 「자한(子罕)」편에 “안연이 크게 탄식하며 말하기를 ‘부자께서 차근차근히 사람을 잘 이끄시어 문(文)으로써 나의 지식을 넓혀주시고 예(禮)로써 나의 행동을 요약하게 해 주셨다.[顏淵喟然歎曰 夫子循循然善誘人 博我以文 約我以禮]’”고 한 구절에서 인용하였다. 강하면서 아름답고 묵직한 해서체이다.

陶山書院 弘毅齋(서), 16세기, 58.0 × 148.0

도산서원 서재(西齋) 편액으로, ‘홍의’는 『논어』 「태백(泰伯)」편에 “증자가 말하기를, ‘선비는 도량이 넓고 뜻이 굳세지 않으면 안 되니, 책임이 무겁고 길이 멀기 때문이다.’[曾子曰 士不可以不弘毅 任重而道遠]”라고 한 데서 인용하였다. 강약이 어우러져 있는 해서로 한석봉의 편액서에서 보여주는 기풍이 엿보이는 글씨로, 대단히 활달하면서도 숙달된 필치를 보여주고 있다.

(5) 기숙사



陶山書院 隴雲精舍, 16세기, 58.0 × 28.0, 퇴계 이황, 퇴계 이황

도산서당의 유생들이 기숙하던 곳의 편액이다. ‘농운’은 양나라 은사(隱士) 도홍경(陶弘景)의 “산중에 무엇이 있는가? 언덕 위엔 흰 구름이 많지. 다만 내 스스로 기뻐할 뿐, 가져다 그대에게 줄 수는 없네.[山中何所有 隴上多白雲 只可自怡悅 不堪持贈君]”라는 시에서 인용한 것으로, 현실의 이욕을 멀리하고 자연을 벗하며 학문에 침잠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퇴계 친필이다.

陶山書院 觀瀾軒, 16세기, 25.3 × 56.7, 퇴계 이황, 퇴계 이황

유생들의 기숙사인 농운정사 서쪽 마루에 걸려있는 편액으로, ‘관란’은『맹자』「진심(盡心)」상(上)에 “물을 보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그 물결을 보아야 한다.[觀水有術 必觀其瀾]”고 한 데서 인용하였다. 이는 물결이 세찬 물은 그 원천(源泉)이 깊듯이 성인(聖人)의 학문도 그 근원이 깊음을 말한 것이다. 전서, 예서, 해서의 서풍이 어우러져 상당히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편안한 글씨이다.

(6) 외삼문

陶山書院 進道門, 76.0 × 209.0

도산서원으로 들어가는 문의 편액으로, ‘진도’는 도에 나아간다는 뜻이다. 주자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이 ‘도’라고 하였다. 도는 사람이 가야할 길이며 서원에서 공부하는 유생들은 이 길을 가야 한다. 그러므로 서원 교문에 ‘진도’라는 편액을 걸어놓았다. 강하면서도 날카로운 해서이다.

(7) 장서루

陶山書院 光明室(동), 48.2 × 108.3, 퇴계 이황, 퇴계 이황

도산서원 동쪽 장서고(藏書庫)의 편액으로, ‘광명’은 주자의「장서각서주자호명(藏書閣書厨字號銘)」의 “나에게 광명을 준다(惠我光明)”는 데서 인용한 말이다. 퇴계는 역동서원이 건립되자 서고를 ‘광명실’이라 이름하고 친히 글씨를 썼는데, 후에 도산서원이 설립되자 역동서원의 ‘광명실’ 글씨를 모각하여 도산서원에 게시하였다.

陶山書院 光明室(서), 46.5 × 106.2, 퇴계 이황, 퇴계 이황

도산서원 서쪽 장서고(藏書庫)의 편액으로, ‘광명’은 주자의「장서각서주자호명(藏書閣書厨字號銘)」의 “나에게 광명을 준다(惠我光明)”는 데서 인용한 말이다. 퇴계는 역동서원이 건립되자 서고를 ‘광명실’이라 이름하고 친히 글씨를 썼는데, 후에 도산서원이 설립되자 역동서원의 ‘광명실’ 글씨를 모각하여 도산서원에 게시하였다.

陶山書院 眞城李東俊公功績記, 21세기(2012), 37.0 × 107.0, 유성중(劉成鍾), 문재구(文在球)

도산서원 서쪽 광명실 건물의 뒤쪽 벽면에 걸린 현판이다. 퇴계학의 창달을 위해 퇴계학연구원을 창립하고 국제퇴계학회를 결성하는 등 퇴계학 현창에 지대한 공을 세운 퇴계의 15대 후손인 춘곡(春谷) 이동준(李東俊)의 공적을 기록한 기문이다.

陶山書院 李主簿公事蹟, 19세기(1848), 35.5 × 96.5, 고계(古溪) 이휘녕(李彙寧)

도산서원 동쪽 광명실 건물의 뒤쪽 벽면에 걸려있는 현판이다. 임진왜란 때 도산서원의 서적과 퇴계선생의 위패를 안전하게 보관한 영천이씨 농암 이현보의 증손인 지산(芝山) 이운(李芸, 1568 ~ 1638)의 사적을 기록한 글이다. 원래 1678년에 만든 구판이 있었으나 세월이 지나 닳고 흐려져서 이휘녕에게 새로 지어서 개판하도록 한 것이다. 도산서원에서는 그의 고마움을 잊지 않기 위해 지금까지 매년 기일에 약간의 제수 물품을 보내주고 있다.

(8) 서재

陶山書院 亦樂書齋, 42.0 × 120

죽헌(竹軒) 정두(鄭耉, 1508-1576)가 도산서당에 수학하는 아들 지헌(芝軒) 정사성(鄭士誠, 1545-1607)과 매창(梅窓) 정사신(鄭士信, 1558-1619)을 위해 지은 건물의 편액이다. ‘역락’은『논어』「학이」편의 “벗이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라는 구절에서 인용한 것이다. 힘이 강하면서 우아함과 멋스러움을 함께 한 해서체이다.

陶山書院 時習齋, 16세기, 24.7 × 57.3, 퇴계 이황, 퇴계 이황

유생들의 기숙사인 농운정사 동쪽 방에 걸려있는 편액으로, ‘시습’은『논어』「학이」편의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學而時習之 不亦說乎]”에서 인용한 것이다. 학문에 부지런히 매진하라는 의미이다. 퇴계의 친필이다.

(9) 유물전시관

陶山書院 玉振閣, 20세기, 80.5 × 177.0, 연민(淵民) 이가원(李家源), 연민 이가원

도산서원 유물전시관 입구에 걸려 있는 편액으로, ‘옥진’은『맹자』「만장(萬章)」하(下)의 “집대성이란 것은 금속 소리로 시작하고 옥의 소리로 거둔다. [集大成也者 金聲而玉振之也]”고 한 데서 인용하였다. 이는 원래 처음과 끝을 두루 갖춘 공자의 성덕(聖德)을 음악에 비유하여 찬양한 말인데, 여기서는 퇴계가 추구했던 학문을 높여서 표현한 것이라고 하겠다.

필암서원 현판 자료 조사보고

필암서원은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78번지 일원(조선시대 전라도 장성부 서일면 필암리, 도로명 주소: 장성군 황룡면 필암서원로 184)에 위치한다.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철폐되지 않은 47개 서원 가운데 하나이다. 사적 제242호로 지정되었다.

‘筆巖’의 유래는 하서 김인후의 태생지인 황룡면 맥호리 맥동 마을 입구의 붓바위에서 유래한다. 붓바위는 붓처럼 생겨 불리운 이름이다. 풍수지리학에서는 터를 잡은 곳에 붓모양의 산[文筆山]이나 바위가 있으면 대학자가 난다고 한다. ‘필암’과 인연을 맺은 대학자를 김인후로 보고 있는 것이다. ‘筆巖’이라는 글씨는 윤봉구(尹鳳九, 1681-1767)가 썼다고 알려져 있으며 필암서원은 이 붓바위에서 연유하였다. 필암서원 건립 이전인 조선초기에 간행한 『신증동국여지승람』(1486년 간, 1530년 신증) 제36권 장성현(長城縣) 산천조에 ‘문필천(文筆川)은 장성 현 서쪽 7리에 있는데, 송현에서 나온다.’는 기록도 있다.

필암서원은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70)를 배향한 서원으로 1590년(선조 23)에 하서의 문인인 기효간(奇孝謙, 1530~1593), 변성온(卞成溫, 1540~1614), 변이중(邊以中, 1546-1611) 등의 발의로 장성읍 기산리(長城府 邑西面 外岐山 鰲山南)에 창건되었다.

그러나 건립된 바로 뒤에 임진왜란이 발생하자, 이에 전라도 광주를 중심으로 한 많은 지역이 선비들이 의병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다가 순절·희생되었다. 특히 장성 남문창의(南門倡義)의 수창자가 하서와 종향간인 김경수(金景壽, 1543-1621)이며, 하서의 문인인 기효간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당시 서원 건립의 주역들이었을 하서의 문인 대부분도 의병에 참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이 또 발생되고 이때 필암서원이 병화로 불에 타버림으로서 초창기 서원은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겨우 명맥만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

왜란의 피해와 혼돈이 어느 정도 정리 되자, 1624년(인조 2) 문인들은 하서의 학문적인 전통을 계승하고 선사(先師)와 후학과의 학문적 연계성을 맺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서원의 복설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때 복설은 옛터(장성읍 기산리)에서 황룡면 필암리 증산동으로 자리를 옮겨 이설한다. 추담(秋潭) 김우급(金友級, 1574-1643)이 필암서원상량문을 짓는다.(『秋潭先生文集』 권8)

이전 복설 이후 장성의 인근 유생[오이익 등]들은 공론으로 김인후 서원의 사액을 요청하게 된다. 즉, 1658년(효종 9) 전라도 유생들의 연명 상소로, 그 이듬해인 1659년(효종 10, 기해)에 조정으로부터 김인후서원에 ‘筆巖’이라는 액호가 내려 졌다.(『효종실록』 권21, 효종10년 기해 윤3월 무자[28일]) 실제적인 선액은 3년 뒤인 1662년(현종 3, 임인)에 이루어졌다. 사액 이후 곧이어 당상에 추증(『현종실록』14권 현종 9년 4월 신사[13일])되고 1669년(현종 10, 기유)에는 김인후에게 ‘문정(文靖)’이란 시호가 내려 졌다.(『현종실록』17권 현종 10년 4월 갑신[24일]) ‘문정(文靖)’의 시호는 1796년(정조 20) 10월에 ‘문정(文正, 道德博聞曰文以正服之曰正)’으로 고쳐 내렸다.(『정조실록』45권, 정조 20년 10월 무자[16일]) 시호를 고쳐 내릴 때 교지, 사간원과 사헌부의 서경장(署經狀), 영의정 및 시호 추증 교지가 전해 온다.(국립광주박물관 소장, 광3887, 광3885, 광3884, 광3886)

그뒤 1672년(현종 13) 3월에 이르러 증산동에 복설하였던 서원을 현 소재지인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로 다시 옮겨 짓게 된다. 그 이유는 증산동이 지대가 낮아 물난리로 흠다리가 위험해지는 등 수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공문이 있어 새로이 서원자리를 모색하던 중 필암리로 이권이 결정되었다 한다. 기정익(奇挺翼, 1627-1690)이 필암서원해우상량문(筆巖書院垓宇上梁文)(『松岩先生文集』 권5)을 짓고,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이 이건고유문(移建告由文)(『同春堂先生文集』 권16),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하서선생 봉안제문(移建後奉安河西金先生文)(『宋子大全』 권151)을 짓는다. 이 시기 이건 때 청절당, 진덕재, 송의재(송준길), 학연루(송시열) 편액을 송시열과 송준길이 쓴 것으로 보인다.

1697년(숙종 23) 호남 유림(창평 정유달, 나주 나천추 등)이 소를 올려 고암(鼓岩) 양자징(梁子徵, 1523-1594)을 필암서원에 배향하여 줄 것을 청하였으나 조정에서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17세기 초반은 이미 전국적으로 서원건립이 급격히 증가한 때이고, 또한 고암은 주벽인 하사의 문인이면서 사위라는 점에서 마땅히 서원에 배향할만한 인물이지는 않지만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너무 많다는 점이 지적되어 허락을 받지 못했다.

그 뒤 1703년(숙종 29)에도 전라도 생원 나천형(羅天衡, 1658-?) 등이 소를 올려 김하서의 문인인 현감 양자징, 처사 변성온, 처사 기효간 등 3인을 필암서원에 추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역시 허락되지 않았다.(『서원등록』 1703년 계미 10월 4일조)

1744년(영조 20) 학연루를 보수하는데 수년 뒤 화재로 불에 타자 1752년(영조 28) 중건한다. 송명흠(宋明欽, 1705-1768)이 중수상량문(長城筆巖書院廓然樓重修上梁文)(『櫟泉先生文集』 권14)을 짓는다. 송명흠은 옥과현감을 지낼 때(1756년 4월) 김인후를 배향한 옥과 영귀서원 사액 상소를 올리기도 한다. 1759년(영조 35)에 동재와 서재를 중수하고 1764년(영조 40)에는 문루에 단확(丹腹)을 한다.

한편 1771년(영조 47) 전라도 유생 양학연(梁學淵, 1708-?) 등은 김인후를 문묘에 배향할 것을 소청하였지만 허락되지 않았다. 이를 계기로 하여 1786년(정조 10) 8월 팔도유생 박영원(朴盈源) 등이 김인후 문묘배향을 소청하고, 이어서 1786년 10월 팔도 유생 정현(鄭穗) 등, 1789년 4월 팔도 유생 심익현(沈翼賢) 등, 7월 신광례(申光禮) 등, 1790년 3월 방외(方外) 유생 유학(幼學) 이악겸(李岳謙) 등, 1796년 6월 유학 김무순(金懋淳) 등, 9월 관학 유생 심내영(沈來永) 등, 9월 관학 유생 이광헌(李光憲) 등 외방유생과 관학 유생들의 계속적인 요청이 있었다. 1796년(정조 20, 병진) 9월 17일 관학 유생 홍준원(洪準源) 등이 상소하여 문정공(文靖公) 김인후(金麟厚)를 문묘에 종사할 것을 거듭 청하니 문묘배향을 윤택하고 영의정에 추증하고, 천묘하지 않고 영구히 제사지낼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필암서원지』 권2, 陞廡疏條/『정조실록』 45권, 정조 20년 9월 기미[17일])

1786년(정조 10)에는 전라도 진사 이경집(李敬集, 1775-?) 등의 상언에 따라 앞서 장성 유림들에 의하여 소청된 바 있던 양자징의 필암서원 추배도 허락되었다.(『정조실록』 정조 21권, 정조 10년 병오 2월 경자[26일])

1868년(고종 5)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전국적으로 47개소의 서원만을 남겨 놓고 대대적인 서원 철폐가 단행 될 때 필암서원은 무성서원, 포충사와 함께 전라도 지역 존치 원사 3개소에 든다.

1887년(고종 24) 장성부사 김승집(金升集, 1826-?)의 후원에 따라 서원이 중수되는 한편 서원 운영을 위한 토지 매득을 실시한다. 이때 하서의 후손들이 협력하여 동재와 서재를 중수하고 또한 강당과 문루도 함께 보수 하였다. 청절당에 필암서원중수기(6-20)가 있는데, 1888년(고종 25, 무자) 6월에 김승집부사가 써서 이듬해 계관을 하다. 끝에 ‘院貳道伯李憲植, 摺紳有司地主金升集, 儒林都有司進士郭環鍾, 副有司幼學朴萬升, 本縣都有司奉金義柱, 副有司進士金琪中, 監董有司進士金興煥, 幼學金理中, 掌議 宋榮淳, 色掌 奇宇仁’ 등 당시의 소임이 기록되어 있다.

이후의 근현대 시기 중개수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26년에는 광명등 건립, 고사·행랑신축, 사우·강당·양재·문루의 장대석을 설치한다.

1938년에는 강당과 고사를 개수하고 문랑(門廊)과 묘정(廟廷)을 포장한다.

1941년에는 사우를 중건하고 신문과 경장각을 수리한다.

1953년에는 산양계와 강회를 설치하고, 1956년에는 한 장사(汗丈舍)를 개수한다.

1967년에는 확연루·양재·신문·고직사를 보수하고 확연루 단청을 한다. 1968년에는 필암교를 건설한다.

1970년에는 장서각을 건립하고, 1972년에는 청절당 개와(蓋瓦)와 전기설비 설치, 1973년에는 주변건물 8동을 철거하면서 대지를 넓힌다.

1975년 4월 23일에는 장성 필암서원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42호, 5월 1일에는 필암서원 문적일괄[14책 64매]이 보물 제584호로 각각 지정된다.

2000년대에 이르러 정화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였다. 2000-2001에는 토지 매입(12,949평), 건물 17동 보수, 유물전시관 건립 등, 2002-2003에는 오수차집관로 설치, 2004-2005에는 부지 성토, 진입로 개설, 개거·암거 등 설치, 2005-2006에는 전통 조경, 연지, 정자 건립, 2006-2010에는 유물전시관 증축, 진덕원·송의관 건립 등이다. 매년 2.8월 중정일에 제향을 행한다.

필암서원의 공간 구성은 문루인 확연루(廓然樓), 강당인 청절당(淸節堂), 서측의 송의재와 동측의 진덕재, 서재 옆으로 3칸의 경장각, 내삼문 안에는 신실인 우동사가 배치되었다.

1. 필암서원의 현판자료

1) 필암서원 조사 현판 목록(표)

필암서원 현판류 목록을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이다. 신실(우동사), 장판각, 경장각, 동서재(진적재, 송의재), 강당(청절당), 문루(확연루)의 순으로 하였고, 근래 건립한 원진각과 집성관, 김인후 태생 맥동마을 입구의 ‘筆巖’ 석각도 포함하였다. 강당인 청절당은 많은 현판이 있어 “淸節堂” 현판을 중심으로 서쪽(향우)로 돌아가면서 번호를 부여하였다. 명칭은 건물이름인 경우는 편액 명칭을 그대로 썼고, 시판이나 기문 등의 경우 제목이 함께 있는 경우는 현판의 제목을, 시판에 제목이 없지만 문집 등에서 확인되는 경우는 (제목)을,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인명)으로 표기하였다. 후학들이 근년에 쓴 청절당의 방에 있는 액자글씨(金麟厚 五歲作詩 上元夕, 正祖丙辰 致祭文)는 제외하였다.

조사에는 임도현(장성군청 문화재담당), 사진촬영은 이영범(사진있는 풍경 디자인공간 대표)선생이 함께 참여해 주었다. 현판 탈초(일부)는 안동교박사(조선대 고전번역센터 선임연구원), 국역(일부)은 박경래선생(녹양고문연구원장)이 자문해 주었다. 그리고 교서나 제문, 상량문 등의국역문은 <국역하서전집>(하서선생 기념사업회, 1987)에서 인용 하였다.

건물명	연번	명칭	인물	연대	크기(cm)	비고
우동사	1-1	祐東祠	-	-	111×47	-
경장각	2-1	敬藏閣	-	-	88×46	-
진덕재	3-1	進德齋	송준길(1606-1672)	-	141×45	-
	3-2	國忌(懸板)	-	1887	170×33	-
	3-3	(朱熹尺牘, 與彥修少府帖)	朱熹 書	-	61×25	-
송의재	4-1	崇義齋	송준길(1606-1672)	-	146×52	-
	4-2	(謁河西書院次松江使相鄭公(澈)韻)	趙憲(1544-1592)	-	-	-
장판각	5-1	藏板閣	-	-	80×39	-
청절당	6-1	筆巖書院	尹鳳九(1681-1767)	-	148×54	-
	6-2	清節堂	송준길(1606-1672)	-	146×54	-
	6-3	文廟從祀頒教文	정조	(1796.11.1)	100×41	-
	6-4	文廟從祀教書/文廟陞配祝文	정조 具序, 朴載淳	(1796.10.26)	110×39	-
	6-5	傳教	-	1691.8.10 / 1710	101×62	숙종실록
	6-6	白鹿洞學規/ 附先生讀白鹿洞規詩	주희/하서 김인후	1710	210×75	-
	6-7	頒祭文	지제교 신상(1598~1662)	1662	57×35	-
	6-8	(魚允中詩)	一齋 魚允中(1848-1896)	1887	39×27	-
	6-9	筆巖書院敬次清陰族祖韻	荅泉 金時榮	-	41×35	-
	6-10	筆巖書院敬次清陰金先生韻	屏溪 尹鳳九(1681-1767)	-	51×34	屏溪集
	6-11	筆巖書院謹次曾祖韻	三淵 金昌翁 (1653-1722)	1657	58×40	三淵集拾遺
	6-12	筆巖書院敬次松江先生韻	韞齋 金鎮玉(1659-1736)	-	32×26	-
	6-13	筆巖書院敬次西峒柳相公韻/ 題書院重營廳	秋潭 金友俊(1574-1643)	-	61×29	-
	6-14	(題河西書院)	西峒 柳根(1549-1627)	1617	70×38	-
	6-15	(石洲權輶詩)	石洲 權輶(1569-1612)	-	51×30	-
	6-16	嗟韻河西先生書院	石洲 權輶(1569-1612) 西峒 柳根(1549-1627) (盤桓 洪千環 1553-1632)	1618	87×45	-
	6-17	(懷河西/龍山雜詠 河西先生)	松江 鄭澈(1536-1593) 清陰 金尙憲(1570-1652)	-	45×24	-
	6-18	(讀河西集)	霽峯 高敬命 1533-1592	-	40×22	-

건물명	연번	명칭	인물	연대	크기(cm)	비고
청절당	6-19	御製賜祭文	左副承旨 朴天行(1730-1791)	1786	49×30	遣左承旨朴天行致祭
	6-20	筆巖書院重修記	知府 金升集	1888(1889계판)	149×38	-
	6-21	鼓巖先生追配時儒林上言/儀曹回啓 批答	金履鉉	1786	70×39	-
	6-22	執事分定記	-	-	160×38	-
	6-23	院中執綱記	-	-	-	-
	6-24	講修齋(執綱記)	-	-	-	-
확연루	7-1	廓然樓	尤庵 宋時烈(1607-1689)	-	192×90	-
	7-2	廓然樓	尤庵 宋時烈(1607-1689)	-	192×90	-
	7-3	廓然樓記	荅泉 金時榮	1760	136×46	-
	7-4	筆巖書院廓然樓重建上樑文	櫟泉 宋明欽(1705-1768)	1772	93×42	-
	7-5	筆巖書院前方塘/口呼於筆巖	自然堂 金時瑞(1652-1707)	-	68×35	-
원진각	8-1	水墨世家	訥人 曹匡振(1772~1840)	-	-	-
	8-2	元眞閣	-	2008	-	-
	8-3	元眞閣上樑文	都有司 金鎮雄撰 執綱 李炳珪書	2008	-	-
집성관	9-1	集成館	-	2009	-	-
	9-2	集成館記	光山 金忠浩記 十六代孫 金鎮雄書	2009	-	-
맥동	10-1	筆巖 石刻	屏溪 尹鳳九(1681-1767)	-	-	-

2) 필암서원 소장 현판자료(카드)

(1) 우동사

祐東祠, 111×47, 주자서 집자

필암서원 신실의 명칭으로 중국 송나라 주자[朱熹, 1130-1200]의 글씨를 집자 하였다. 우동사 안에는 북쪽에 하선 김인후, 동쪽에 고암 양자정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2) 경작각

敬藏閣, 88×46, 정조

하서 김인후를 문묘에 배향코자 할 때 정조가 내탕금으로 경장각을 세우도록 했으며, 인종이 하사한 묵죽도 판각을 보관한 곳이다. 정조 어필로 전한다.

(3) 진덕재

進德齋, 141×45, 同春堂 宋浚吉(1606-1672)

필암서원의 동재에 해당하는 진덕재의 편액이다. 동춘당 송준길(同春堂 宋浚吉, 1606-1672)의 글씨로 전한다.

國忌(懸板), 1887년(崇禎기원5정해, 고종 24), 170×33

필암서원 도재인 진덕재에 걸려 있다. 태조에서 철종까지 역대 왕과 왕비의 기일과 능호, 능의 소재지를 기록하고 있다. 끝에는 ‘崇禎紀元五丁亥九月重修時重建’이라는 연기와 계관 사유를 적고 있다. 27인의 왕과 38인의 왕비가 기록되어 있는데, 추존왕인 원종(元宗, 1580-1619, 인조의 아버지, 선조의 아들), 진종(眞宗, 1719-1728, 영조의 맏아들, 1725년 왕세자 책봉), 익종(翼宗, 1809~1830, 순조의 세자, 1812년 왕세자 책봉)이 포함되어 있다. 연대는 1887년(고종 24) 9월이고 이 무렵에 장성부사 김승집(金承集)의 지원하에 중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이전의 것을 보완하여 계관한 것으로 보인다. 김승집의 필암서원중수기(6-20)(1888)는 청절당에 있다.

朱熹尺牘(與彥修少府帖), 61×25, 朱熹

중국 송나라의 주자(朱熹, 1130-1200) 尺牘 ‘與彥修少府帖’를 새겨 계관한 것이다. 처음에 宋朱熹書라 기록하고 끝에는 仲春六月이라는 표기가 있다. ‘與彥修少府帖’은 원래 지본(紙本)으로 台北故宮博物院에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4) 승의재

崇義齋, 146×52, 同春堂 宋浚吉(1606-1672)

필암서원의 서재에 해당하는 승의재의 편액이다. 동춘당 송준길(同春堂 宋浚吉, 1606-1672)의 글씨로 전한다.

(謁河西書院 次松江使相鄭公(澈)韻), 重峯 趙憲(1544-1592)

필암서원의 서재인 승의재의 방에 보관되어 있는 重峯 趙憲(1544-1592)의 시판이다. <重峯先生文集> 권1에는 ‘謁河西書院 次松江使相鄭公(澈)韻’의 제목으로 2수의 시가 있는데, 그 가운데 1수를 판각한 것이다.

謁河西書院 次松江使相鄭公(澈)韻(<重峯先生文集>권1/한국문집총간 a054집-140a쪽)

長城有霞谷 淸絕天下聞 會當登絕頂 一望太行雲

百年安宅欠經營 最愛河西保性情 今到祠前容一拜 春風如舊繞溪亭(현판 시)

重峯

(5) 장판각

藏板閣, 80×39

필암서원 목판을 보관하는 장판각의 편액이다. 장판각에는 하서문집목판(초간본 목판 1매, 중간본 목판 258매, 삼간본 목판 391매, 총 650매,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15호)이 보관되어 있다.

(6) 청절당

筆巖書院, 148×54, 屏溪 尹鳳九(1681-1767)



필암서원 편액이다. 끝에 ‘壬寅 正月 日 賜額’이라 사액 연기가 표기되어 있다. 액자는 용문양을 장식하였으며 단청을 하였다. 필암서원은 1658년(효종 9) 전라도 유생들의 연명 상소로, 1659년에 ‘筆巖’이라는 액호가 내려

졌으며, 실제적인 선택은 3년 뒤인 1662년(현종 3, 임인)에 이루어졌다. 병계 윤봉구(屏溪 尹鳳九, 1681-1767)의 글씨로 전한다.

淸節堂, 146×54, 同春堂 宋浚吉(1606-1672)

필암서원 강당인 청절당의 편액이다. 동춘당 송준길(同春堂 宋浚吉, 1606-1672)의 글씨로 전한다.

文廟從祀頌教文, 1796년(정조20) 11.9, 100×41, 藝文提學 具庠(1730~?)



필암서원 주향인 하서 김인후를 문묘에 종사하고 내린 교서를 새겨 게판한 것이다. 김인후에 내린 교서는 3종이 원본(국립광주박물관 소장)으로 전하는데 1796년(정조 20) 11월 9일 세 번째로 내린 교서(광3892)이다. 정

조가 김인후를 문묘에 배향하면서 경향각지의 대소신료들에게 하서의 학식과 덕망을 본받으라는 내용으로 교서를 내린다. 원본의 첫부분 ‘教中外大小臣僚耆老軍民閑良人等書’ 대신 ‘文廟從祀頌教文’이라 하였고, 끝부분 ‘嘉慶元年十一月初九日’의 연기 표기는 제외하고 판각하였다.

文廟從祀教書/文廟陞配祝文, 1796년(정조 20) 10. 26., 110×39, 具庠/朴載淳



필암서원 주향인 하서 김인후를 문묘에 종사하고 내린 교서를 새겨 게판한 것이다. 김인후에 내린 교서는 3종이 원본(국립광주박물관 소장)으로 전하는데 1796년(정조 20) 10월 26일 첫

번째로 내린 교서(광3889)이다. 정조는 1796년 9월 17일 성정각(誠正閣)에서 김인후를 동방의 주염계(周濂溪)와 같은 인물이라 하면서 문묘배향을 허락하였고 10월 26일 교서를 내렸다. 원본의 첫부분 ‘教贈領議政文正公金麟厚從祀 文廟書’ 대신 ‘文廟從祀教書’라 하였고, 끝부분 ‘嘉慶九年十一月初九日’의 연기 표기는 제외하고 판각하였다. 提學 具庠(1730-?)이 지었다.

뒷부분에는 文廟陞配祝文이 있는데, 知製教 朴載淳(1737-?)이 지은 것이다.

傳教, 1692년(숙종 17/1710(숙종 36), 101×62

1691년(숙종 17, 신미) 8월 10일에 내린 교서이다. 끝에 ‘崇禎紀元八十三年庚寅九月下澣刊’의 게판 연기가 표기되어 있다.

白鹿洞學規/附先生讀白鹿洞規詩, 주희, 하서 김인후, 1710(숙종 36), 210×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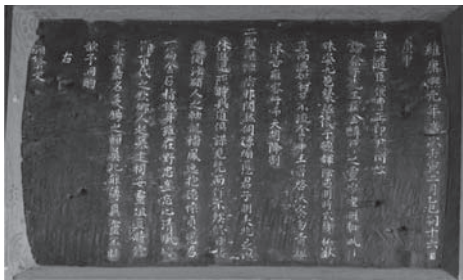


주자의 백록동학규를 새겨 놓은 것이다. 백록동학규는 중국 장시성[江西省] 싱즈현[星子縣] 북쪽의 여산오로봉(廬山五老峯) 밑에 송대에 세운 백록동서원을 주자가 남강군(南康軍)의 지사(知事)가 되었을 때 재흥시켜서 스스로 백록동서원 원장이 되어 유교(儒敎)의 이상 실현에 힘썼는데 그 교육 목표와 순서에 대한 것이다. 백록동학규에서는 학문의 목표로 오륜(五倫)의 도를 들고 있으며, 이 오륜의 도를 배우는

순서를 박학, 심문, 신사, 명변, 독행을 들고 있다. 그리고 수신, 처사, 접물의 생활훈련방식까지 체계있게 구성되어 있다.

후반부에는 김인후의 오언고시 ‘讀白鹿洞規’가 있고, 끝에 ‘崇禎紀元八十三年庚寅九月下澣刊’의 계관 연기가 표기되어 있다.

頒祭文, 1662(현종 3), 57×35, 예조정랑 윤형



662(현종 3) 2월 16일 국왕이 내린 제문이다. 파견관은 예조정랑 윤형(尹衡)이었다.

(魚允中詩), 1887년(정해), 39×27, 어윤중(魚允中, 1848-18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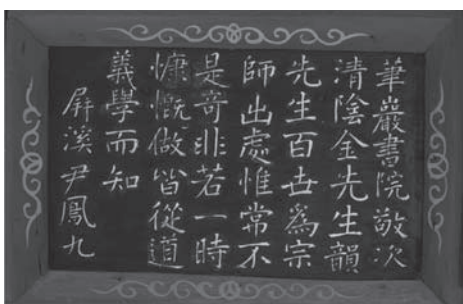
일재(一齋) 어윤중(魚允中, 1848-1896)의 시를 정해년(1887년) 중수 때 계관한 것이다. 어윤중은 1877년 전라우도암행어사로 임명되어 만 9개월간 전라도 일대를 고을마다 살살이 돌아다니면서 지방행정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탐관오리들을 징벌하고 돌아와서 파격적인 개혁안을 제안한다. 이 무렵 장성부사 김승집이 필암서원을 중수하는데 관련이 있어 보인다.

當年事經濟 白日忽西沈 痛哭冤無極 誰知千載心 魚允中 丁亥重修時揭板

筆巖書院敬次清陰族祖韻, 41×35, 金時榮

안동인 김시찬의 시판이다. 선조인 청음 김상헌(淸陰 金尙憲, 1570-1652)의 시를 차운 한 것이다. 청음의 시는 ‘龜山雜詠’ 8수 가운데 ‘河西先生’ 시판(6-8)이 청절당에 있다.

筆巖書院敬次清陰金先生韻, 51×34, 屏溪 尹鳳九(1681-1767)



병계 윤봉구(屏溪 尹鳳九, 1681-1767)의 시판이다. 청음 김상헌(淸陰 金尙憲, 1570-1652)의 시를 차운 한 것이다. 청음의 시는 ‘龜山雜詠’ 8수 가운데 ‘河西先生’ 시판(6-8)이 청절당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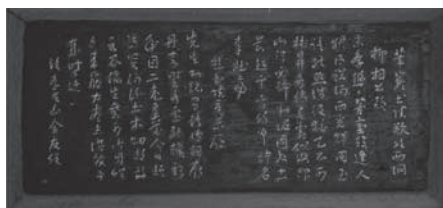
筆巖書院謹次曾祖韻, 31×79.5, 金昌翁(1653-1722)

삼연(三淵) 김창흠(金昌翕, 1653-1722)의 시판이다. 증조인 청음 김상헌(淸陰 金尙憲, 1570-1652)의 시를 차운 한 것이다. 청음의 시는 ‘鼇山雜詠’ 8수 가운데 ‘河西先生’ 시판(6-8)이 청절당에 있다. 끝에 ‘崇禎後丁酉’의 연기가 있는데 1657년(효종8)에 해당한다. 확인이 필요하다.

筆巖書院敬次松江先生韻, 32×26, 金鎮玉(1659-1736)

온재(溫齋) 金鎮玉(1659-1736)의 시판이다. 송강 정철(松江 鄭澈, 1536-1593)의 시를 차운 한 것이다. 송강의 시는 ‘懷河西’ 인데 시판(6-17)이 청절당에 있다.

筆巖書院敬次西峒柳相公韻/題書院重營廳, 61×29, 金友伋(1574-1643)



추담(秋潭) 김우급(金友伋, 1574-1643) 시판이다. 서경 유근(柳根, 1549-1627)의 시를 차운 한 시 등 2수이다. 서경의 시는 시판(6-14, 6-16)이 청절당에 있다.

(題河西書院), 1617(광해군 9), 70×38, 西峒 柳根(1549-1627)

서경 유근(西峒 柳根, 1549-1627)의 시판이다. 끝에 萬曆 丁巳之仲夏下澣‘의 연기가 있다.

(權石洲詩), 51×30, 石洲 權輶(1569-1612)

석주 권필(石洲 權輶, 1569-1612)의 시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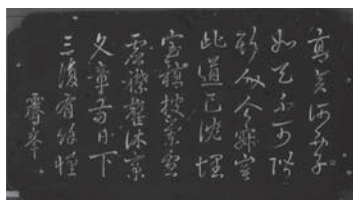
嗟韻河西先生書院 2, 1618(광해군 9), 87×45, 石洲 權輶(1569-1612), 西峒 柳根(1549-1627), 盤桓 洪千璟(1553-1632)

석주 권필(石洲 權輶, 1569-1612)과 서경 유근(西峒 柳根, 1549-1627)의 시판이다. 끝에 ‘戊午春 洪千璟’의 간지와 인명이 있는데, 무오년인 1618년(광해군 9) 봄에 반환 홍천경(盤桓 洪千璟, 1553-1632)이 석주와 서경의 시를 보고 쓴 것을 계판한 것으로 보인다.

(懷河西/鼇山雜詠 河西先生), 45×24, 松江 鄭澈(1536-1593), 淸陰 金尙憲(1570-1652)

송강 정철(松江 鄭澈, 1536-1593)의 오절구와 청음 김상헌(淸陰 金尙憲, 1570-1652)의 칠언절구 시판이다. 시판에는 제목이 기록되지 않았는데, 문집을 통하여 송강의 시는 ‘懷河西’, 청음의 시는 ‘鼇山雜詠 贈柳安世赴長城’ 8수 가운데 ‘河西先生;임을 알 수 있다.’ ‘鼇山雜詠’은 청음이 장성으로 부임하는 문하생 안세유 시정(安世 柳時定, 1596~1658)에게 장성 경관 8수를 지어준 것이다. 縣裏, 葦嶺, 山城, 丹巖驛, 雙溪樓, 印月寺, 物産과 河西先生 등이다.

(讀河西集), 40×22, 霽峯 高敬命(1533-1592)



제봉 고경명(霽峯 高敬命, 1533-1592)의 시판이다.

高矣河西子 如天不可階 斯人今寂寞 此道已沈埋 寶稿披蘭雪 虛襟罄沐齋 文章方日下 三復有餘懷 霽峯

御製賜祭文, 1786년(정조 10).4.4, 49×30, 左副承旨 朴天行(1730-1791)

1786년(정조 병오) 4월 4일에 임금이 내린 어제사제문이다. 좌부승지 박천행(左副承旨 朴天行, 1730-1791)이 치제관으로 파견되었다.

筆巖書院重修記, 1888년(고종 25) 6월, 149×38, 知府 金升集

1888년(고종 25, 上之25年 戊子) 6월에 필암서원을 중수한 기문으로 기축년(1889년) 3월에 게판(己丑揭板)하였다. 1886년(고종 23) 10월 7일 장성부사로 부임(<일성록>)한 김승집(1826~?)이 정해년(1887) 봄에 서원이 낡아서 掌議 宋榮淳 등 원임과 후손들이 신실과 敬藏閣, 淸節堂, 廓然樓 등을 중수하고 기문을 청하자는 글이다. 전반부는 중수 경위, 후반부는 하서의 생애와 서원의 내력에 대해서 간략히 기록하였다. 끝에 서원의 소임자들을 기록하였다. 院貳 道伯李憲植, 摺紳有司 地主金升集, 儒林都有司 進士郭環鍾, 副有司 幼學朴萬升, 本縣都有司 叅奉金義柱, 副有司 進士金琪中, 監董有司 進士金興煥, 幼學金理中, 掌議 宋榮淳, 色掌 奇宇仁. 김승집은 김홍집(1842-1896)의 형이다.

鼓巖先生追配時儒林上言/儀曹回啓 批答, 1786년(정조 10) 2월 28일, 70×39, 金履鉉

필암서원에 김인후의 자제이자 사위인 고암 양자징(鼓巖 梁子徵, 1523-1594)을 추배해달라는 유림들의 상언과 예조(儀曹)의 회계(回啓)에 대하여 1786년(정조 10) 2월 28일 내린 추배윤허 비답(批答)을 기록한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기사[정조 21권, 정조10년(1786) 병오 2월 경자(26일)]에서도 확인이 된다.

執事分定記, 甲寅 八月刊, 160×38

필암서원 제향시의 집사 분정기이다. 헌관 3인, 진설, 집례, 대축, 봉향, 봉로, 봉작, 전작, 알자, 찬자, 찬인, 사전, 전향, 장생, 세작, 척기, 관세, 학생 등 20개의 소임을 새겨 놓고 소임자는 제향시마다 종이에 기록하여 붙인다. 갑인년 8월에 게판한 것이다.

院中執綱記, 壬申三月 刊

필암서원 임원 집강기이다. 종이에 써서 붙이고 있다. 임신년 3월에 게판한 것이다.

講修齋(執綱記), 癸亥 五月

필암서원의 강수재(講修齋)의 집강기(執綱記)이다. 강장, 접유사, 장재유사의 소임이 기록되어 있다. 해년 5월에 게판하였다. 필암서원에서는 매월 초하루와 보름[朔望] 분향(焚香) 뒤에 강당(講堂)에서 설강(設講)하였다. 이를 강수재라 한 것으로 보인다.

(7) 확연루

廓然樓, 192×90, 尤庵 宋時烈(1607-1689)

필암서원 문루인 확연루의 편액이다.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 1607-1689)의 글씨로 전한다. 확연루에는 외부와 누각안 등 2개의 ‘廓然樓’ 편액이 있다.

廓然樓, 192×90, 尤庵 宋時烈(1607-1689)

필암서원 문루인 확연루의 편액이다.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 1607-1689)의 글씨로 전한다. 확연루에는 외부와 누각안 등 2개의 ‘廓然樓’ 편액이 있다.

廓然樓記, 1760년(영조 36), 136×46, 菴泉 金時榮

필암서원 문루인 확연루의 중수기문이다. 1760년(영조 36, 崇禎紀元後3庚辰) 2월 안동인 초천 김시찬(菴泉 金時榮)이 지었다. 강당 앞의 문루 이름을 확연으로 명명한 것은 우암이었고, 글씨도 자서 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廓然大公’에서 연유한 명명 유래 등을 기록하였다

筆巖書院廓然樓重建上樑文, 1772년(영조 48).3.20, 93×42, 櫟泉 宋明欽(1705-1768)

필암서원 문루인 확연루 중건 때의 상량문으로 1772년(영조 48, 崇禎紀元 145年 壬申) 3월 20일 역천 송명흠(櫟泉 宋明欽, 1705-1768)이 지었다.

筆巖書院前方塘/口呼於筆巖, 68×35, 自然堂 金時瑞

필암서원 문루인 확연루에 있는 自然堂 金時瑞의 시판이다. ‘筆巖樓前方塘’은 주자의 ‘讀書有感’ 시를 모방한 듯한데, 필암서원 앞에 방당이 있음을 암시한다.

(8) 원진각

水墨世家, 訥人 曹匡振(1772~1840)

필암서원 유물 전시관인 원진각에 있는 訥人 曹匡振(1772~1840)필 현판이다.

元眞閣

필암서원 유물전시관인 원진각의 편액이다.

元眞閣上樑文

필암서원 유물전시관인 원진각의 편액이다.

(9) 집성관

集成館

필암서원 재실인 집성관의 편액이다.

集成館上樑文

필암서원 재실인 집성관의 편액이다.

(10) 마을

筆巖 石刻, 병계 윤봉구

서원의 명칭 유래와 연관이 되는 석각으로 하서 김인후 태생 마을 입구 산 기슭에 있다.

2. 문헌기록에서 확인되는 현판 자료

각종 문집에서 산견되는 필암서원 관련 기사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한국고전번역원)과 『전남권문집해제』1·2(전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7) 등을 통하여 검색한 필암서원 관련기사는 다음과 같다. 『필암서원지』(1949/1975)에도 다수의 기문이 정리되어 있다. 필암서원 현지 건조물에 현판(“필암0-00”으로 표기)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본 자료를 정리하는데 있어서 검색어는 “필암”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추가 검색과 조사, 그리고 원전의 확인, 국역 주석 등이 필요하다.

소문류(상소, 상언 등), 기문류(중수기, 중건기, 상량문), 서간류(통문, 간찰 등), 제문류(축문, 고유문, 봉안문 등), 제영류, 금석문류로 크게 구분하여 관련 인물의 활동연대순으로 제목과 문집명, 한국문집총간의 경우 총서번호와 면수를 표기한다.

[소문류(疏文類)]

- 請配享筆巖書院疏, <瀟灑園事實> 권8 諸賢贈章
- 이경집(李敬緝, 1775-?) 등, 本道儒林請享鼓岩先生于筆巖書院上章(全羅道 儒生 李敬緝 등), <瀟灑園事實> 권8 諸賢贈章

[기문류]

- 김우급(金友弼, 1574-1643), 筆巖書院上樑文, <秋潭先生文集> 권8 ; 한국문집총간 속집 018-161표
- 기정익(奇挺翼, 1627-1690), 筆巖書院桉宇上梁文, <松岩先生文集> 권5
- 송명흠(宋明欽, 1705-1768), 長城筆巖書院廓然樓重修上梁文, <櫟泉先生文集> 권14 ; 한국문집총간 221-290
- 김한익(金漢翼, 1863-1944), 筆巖書院祠宇重建記, <華東遺稿> 권2
- 김재석(金載石, 1895-1971), 筆岩書院重修記, <月潭遺稿> 권3

[서간류]

- 송준길(宋浚吉, 1606-1672), 答金久之[辛亥], <同春堂先生文集> 권13 ; 한국문집총간 107-051[장성 필암서원의 상량문을 청하는 내용]
- 송시열(宋時烈, 1607~1689), 答筆巖院儒[辛酉五月十三日], <宋子大全續拾遺> 권1 ; 한국문집총간 116-222
- 김평묵(金平默, 1819-1888), 與金穉敬 祿休[丁亥七月二十日], <重菴先生文集> 권12 ; 한국문집총간 319-255
- 박기중(朴淇鍾, 1824-1898), 答筆巖書院通文, <竹圃集> 권10
- 송병선(宋秉璿, 1836-1905), 答筆巖院儒[壬寅十月], <淵齋先生文集> 권 15 ; 한국문집총간 329-252
- 구문모(具文謨, 1844-1918), 筆巖書院儒生鄭公源外二十六人[辛未八月 日], <松澗遺稿> 권4 通文
- 조종덕(趙鍾惠, 1858-1927), 乙丑二月中丁參河西先生筆巖書院, <滄庵集> 권1
- 안규용(安圭容, 1873-1959), 筆巖書院山仰契發起通文, <晦峯遺稿> 권5
- 이종욱(이종욱, ?-1926), 長城筆巖書院通狀, <蒙巖集> 권3

- 여창현(呂昌鉉, 1897-1975), 答筆巖書院執綱, <雲沙遺稿>
- 민영석(閔泳碩) 등, 武城院發通于筆巖院, <靈光金氏四孝錄> 권2
- 김홍수(金鴻洙) 등, 筆巖發通, <靈光金氏四孝錄> 권2

[제문류]

- 송준길(宋浚吉, 1606-1672), 長城筆巖書院移建告由文[院享河西金先生], <同春堂先生文集> 권16 ; 한국문집총간 107-117
- 송시열(宋時烈, 1607~1689), 長城筆巖書院移建後奉安河西金先生文, <宋子大全> 권151 ; 한국문집총간 113-242
- 송시열(宋時烈, 1607~1689), 筆巖書院春秋享祝文, <宋子大全拾遺> 권8 ; 한국문집총간 116-155
- 송달수(宋達洙, 1808-1858), 筆巖書院。鼓巖梁公春秋享祝文, <守宗齋集> 권10 ; 한국문집총간 313-144

[제영류]

- 김우급(金友級, 1574-1643), 筆巖書院重營後有感, <秋潭先生文集> 권6 ; 한국문집총간 속집 018-130
- 김창흠(金昌翕, 1653-1722), 筆巖書院。謹次曾祖考韻, <三淵集拾遺> 권10 ; 한국문집총간 166집 404쪽 ; 필암 6-11
- 오대시(吳大始, 1658-1727), 擬次筆巖書院齋壁韻, <默軒詩集>
- 신성하(申聖夏, 1665-1736), 筆巖河西金先生書院。謹次先生韻, <和菴集> 권3 ; 한국문집총간 속집 056-049
- 윤봉구(尹鳳九, 1681-1767), 筆巖書院。次淸陰先生韻[河西金先生所享 卽長城地], <屏溪先生集> 권4 ; 한국문집총간 203-079 ; 필암 6-10
- 송명흠(宋明欽, 1705-1768), 筆巖書院。次淸陰先生韻, <櫟泉先生文集> 권2 ; 한국문집총간 221-033
- 이휘규(李徽圭[鼎圭], (1779-1857), 奉審筆巖院, <默齋遺稿> 권1
- 김평묵(金平默, 1819-1888), 長城途中, <重菴先生文集> 권4 ; 한국문집총간 319-085
- 송진봉(宋鎭鳳, 1840-1898), 謹次金玉汝璣烈金正三台漢過筆巖韻, <思復齋集> 권1
- 김기열(金璣烈, 1845-1914), 筆巖書院, <覺齋遺稿> 권1
- 양재경(梁在慶, 1859-1918), 謹次筆巖書院淸節堂韻, <希庵遺稿> 권1
- 김용선(金容璿, 1865-1927), 奉審筆巖書院, <省菴遺稿> 권1
- 조우식(趙愚植, 1869-1937), 筆巖書院奉審金河西先生, <省菴集> 권2
- 위계룡(魏啓龍, 1870-1948), 筆巖書院謹次重峰先生板上韻, <梧軒遺稿> 권1
- 위계룡(魏啓龍, 1870-1948), 筆巖書院秋亭韻, <梧軒遺稿> 권1
- 이정원(李正遠, 1871-1957), 筆巖書院祭享韻, <樂吾齋遺稿> 권2
- 조덕승(曹惠承, 1873-1960), 題筆巖書院, <欽齋先生文集> 권1
- 유흥선(柳興善, 1875-1952), 敬次筆岩書院淸節堂板上韻, <東川遺稿>
- 김옥섭(金玉燮, 1878-1930), 奉審筆巖書院步其原韻, <愼軒遺稿> 권1
- 김정현(金敬鉉, 1879-1947), 筆巖書院次淸陰先生韻, <沙隱遺稿> 권1
- 박기청(朴淇靑, 1882-?), 過筆巖院慕河西金先生, <竹坡遺稿> 권1
- 송석의(宋錫義, 1884-1967), 筆巖書院重修韻, <松隱集>

- 임동선(任東宣, 1892-1960), 筆巖院舍業日訪裔孫時中, <守菴逸志>
- 김재석(金載石, 1895-1971), 自然堂先生筆岩廓然樓前方塘韻伋感吟, <月潭遺稿> 권1
- 정철환(鄭喆煥, 1901-1981), 筆岩書院重修後, <東樵文稿> 권1
- 정철환(鄭喆煥, 1901-1981), 筆岩書院謹次權譚先生韻, <東樵文稿> 권1
- 정철환(鄭喆煥, 1901-1981), 筆岩書院秋享日講, <東樵文稿> 권1
- 김규태(金奎泰, 1902-1966), 筆巖書院敬次淸陰先生韻, <顧堂遺稿> 권1
- 김규태(金奎泰, 1902-1966), 筆巖書院謹次河西先生韻, <顧堂遺稿> 권3
- 김상진(金相晉, 1902-?), 謁筆巖書院, <碧農私稿> 권1
- 김상진(金相晉, 1902-?), 筆巖書院重修韻, <碧農私稿> 권1
- 김상진(金相晉, 1902-?), 筆巖書院享禮後京鄉多士(止)明燭達曙, <碧農私稿> 권2
- 고재익(高在益, 1912-1982), 謁筆巖書院, <省窩遺稿> 권1
- 고재익(高在益, 1912-1982), 筆巖書院齊宿吟(二), <省窩遺稿> 권1
- 고재익(高在益, 1912-1982), 筆巖書院春享齊宿吟, <省窩遺稿> 권1

[금석문류]

- 윤행임(尹行恁, 1762-1801), 卵山碑銘[并序], <碩齋稿> 권18 ; 한국문집총간 287-340(장성군 황룡면 맥호리 105 소재)
- 송병선(宋秉璫, 1836-1905), 筆巖書院廟庭碑, <淵齋先生文集> 권32 ; 한국문집총간 330- 115

3. 필암서원의 주요 현판

장성 필암서원 현판류는 모두 43건이 조사 되었다. 그리고 문집에서 산견되는 자료는 60종을 확인하였다.

현판류를 종류별로 보면는 건조물의 편액 11건, 학규 1건, 기문류 5건, 제영류 13건(16題 16수), 서간류 1건, 교서류 4건, 제문류 2건, 집강명록 3건, 석각 1건, 국기(國忌)현판 1건, 서예각자 1건 등이다.

관련인물은 국왕인 정조를 비롯하여 중국 송의 유학자 주희(尺牘; 與彥修少府帖[필암3-3], 백록동학규[필암6-6])와 하서 김인후 본인, 그리고 하서와 교류를 하였던 당대 인물인 제봉 고경명(1533-1592), 송강 정철(1536-1593)을 비롯하여 중봉 조헌(1544-1592), 서경 유근(1549-1627), 반환 홍천경(1553-1632), 자연당 김시서(1652-1707), 석주 권필(1569-1612), 청음 김상헌(1570-1652), 추담 김우급(1574-1643), 신상(1598~1662), 동춘당 송준길(1606-1672), 우암 송시열(1607-1689), 삼연 김창흡(1653-1722), 온재 김진옥(1659-1736), 병계 윤봉구(1681-1767), 역천 송명흠(1705-1768), 박천행(1730-1791), 구상(1730-?), 박재순(1737-?), 눌인 조광진(1772~1840), 일재 어윤중(1848-1896), 초천 김시찬, 장성부사 김승집, 김리현 등이다.

현판류의 연대를 보면, 하서 김인후 당대 교류 인물들의 제영도 있어 시기를 앞 당겨 볼 수 있으나 현재 현판의 계관 연대는 정확히 알 수 가 없는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서원 건립은 하서 사후의 일이고, 현 위치로 이전한 것도 1672년이기 때문에 필암서원 현판류의 계관 연대는 17세기 후반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

다. 다만, 현판류 기록상에 연기가 표기된 것은 17건인데, 1600년대 5건, 1700년대 7건, 1800년대 2건, 최근 3건 등이다.

장성 필암서원 현판류의 특징을 몇가지 정리해 보자.

첫째는 서원 연혁과 관련되는 자료이다. 초천 김시찬의 廓然樓記(1760년, 필암 7-3), 역천 송명흠의 筆巖書院廓然樓重建上樑文(1772년, 필암 7-4), 장성부사 김승집의 筆巖書院重修記(1888년, 필암 6-20)를 들 수 있다. 이들 기록을 통하여 17세기 후반 확연루의 중건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 기문을 통해 확연루의 의미가 ‘廓然大公’에서 연유하였고 편액 글씨를 우암 송시열이 썼음을 알 수 있다. 장성부사 김승집의 중수기는 조선시대 말기에 서원을 대대적으로 중수했음을 알 수 있다. 1887년(고종 24) 장성부사 김승집(金升集, 1826-?)의 후원에 따라 필암서원이 중수되는 한편 서원 운영을 위항 토지 매득을 실시한다. 이때 하서의 후손들이 협력하여 동재와 서재를 중수하고 또한 강당과 문루도 함께 보수 하였다. 필암서원중수기(6-20)는 1888년(고종 25, 무자) 6월에 김승집부사가 써서 이듬해 게판을 하였다. 끝에 ‘院貳道伯李憲植, 搢紳有司地主金升集, 儒林都有司進士郭璟鍾, 副有司幼學朴萬升, 本縣都有司參奉金義柱, 副有司進士金琪中, 監董有司進士金興煥, 幼學金理中, 掌議宋榮淳, 色掌 奇宇仁’ 등 당시의 소임이 기록되어 있어 서원의 조직과 서원 중건시의 소임을 알 수 있다.

둘째는 하서 김인후의 추송과 관련되는 자료이다. 조선시대 인물의 추송은 증직, 증시, 문묘배향, 원사 배향, 사액(賜額), 사제(賜祭) 등을 들 수 있는데, 필암서원에는 문묘종사 반교문(필암 6-3)과, 문묘종사 교서(6-4), 문묘종사 축문(6-4), 전교(6-5), 어제사제문(6-19), 고암 양자징 추배시 비답(6-21) 등이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정조때 내린 교서는 3종이 원본(국립광주박물관 소장)으로 현존하고 있어 사료가치도 크다. 조선시대 제도사를 알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셋째는 필암서원의 추배와 제향과 관련되는 자료이다. 둘째와도 연관되는데 전교(6-5), 어제사제문(6-19), 고암 양자징 추배시 비답(6-21)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을 통하여 사액 서원의 제향의례 제도에 대해서 알 수 있다.

넷째는 서원의 운영과 학습의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료로 백록동학규(1701년, 필암 6-6)를 들 수 있다. 백록동학규는 중국 장시성[江西省] 싱즈현[星子縣] 북쪽의 여산오로봉(廬山五老峯) 밑 송대에 세운 백록동서원을 주자가 남강군(南康軍)의 지사(知事)가 되었을 때 재흥시켜서 스스로 백록동서원 원장이 되어 유교의 이상 실현에 힘썼는데 그 교육목표와 순서에 대한 것이다. 백록동학규에서는 학문의 목표로 오륜의도를 들고 있으며, 이 오륜의도를 배우는 순서를 박학, 심문, 신사, 명변, 독행을 들고 있다. 그리고 수신, 처사, 접물의 생활훈련방식까지 체계있게 구성되어 있다. 백록동학규(필암 6-6)의 끝에는 하서 김인후의 오언고시 ‘讀白鹿洞規’가 있다.

다섯째는 서원이 학문과 인물의 교류처로 기능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다양한 제영문 13건(16제 16수)이 남아 전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하서 김인후 당대 인물로서 고경명과 정철, 그리고 조현, 유근, 김시서, 권필, 김상헌, 김우급, 김창흡, 윤봉구, 어윤중 등이다. 이 가운데 송강 정철과 청음 김상헌의 제영은 후손과 후학들이 세대를 뛰어 넘어 차운하고 있다. 문학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소통과 교류의 공간으로서 서원이 기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겠다.

여섯번째는 편액이나 시판의 글씨를 통하여 서예 등 예술사적인 측면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편액은 17-18세기에 활동한 송시열, 송준길, 윤병구 등의 정연한 글씨가 돋보이며, 시판의 다양한 행초서를 통하여 서예사 측면의 가치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본다.

4. 조사결과(제언)

장성 필암서원의 현판류 기록자료는 43건이 조사 되었다. 강당인 청절당에 가장 많은 24건이 게판되어 있다. 그리고 각종의 문집에서 보이는 자료도 ‘필암’이라는 검색어만으로도 60건이 확인되었다. 몇가지 제언하는 것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무엇 보다도 종합 정리가 필요하다. 현판류 기록은 대부분 현지 건조물에 게판되어 있지만, <하서전집>이나 <필암서원지> 등에 전해지는 기록자료 가운데에도 필암서원 이해에 중요한 자료가 있다. 물론 관련 인물들의 문집에도 많이 있지만, 현지 현판류는 지극히 한정적이고, 게판 당시의 정치 사회적 역학관계가 반영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게판되지 않은 자료들까지 한꺼번에 정리 집대성하는 자료집의 발간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자료의 집대성과 함께 이를 해설하여 일반화 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국역 주석은 물론 쉽게 간추려 서원의 역사는 물론 인물과 제도사 이해에 도움되는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료집의 간행과 한글화 등 일반화된 자료는 보급을 잘 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비교연구도 필요하다. 지역내에서 사림과 서원이라는 향촌사회 동향과도 관련이 있지만, 조선 시대 후기의 정치 사회적 변화와 서원의 연관성, 각 서원과 관련 되는 자료의 분석 등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기록류 현판을 중심으로 하더라도 정치, 사회, 문학, 서예, 고문서, 의례, 강학 등 제반 측면을 검토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 연구는 필수요소라 하겠다. 세계유산 차원에서 비교연구가 중요하다.

네 번째는 서원의 원래의 기능을 현대의 활용과 연계하여 이같은 기록자료를 활용하는데도 지혜를 모아 야 한다. 서원의 원래 기능은 제향과 강학인데, 제향은 이어지고 있지만 강학은 사실상 단절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한문교실이나 서예강습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편액이나 시판, 기문 등의 기록자료를 모본으로 강독[한문]하고 강습[서예]하고 판독[탈초], 판각[서각] 등을 실시하는 방안도 있다. 또한 각종의 고문서나 통문 등의 자료는 실제로 그 당시의 제도를 재현해 보는 것도 활용의 한 방법일 수 있다.

필암서원 현판류의 조사와 사진 촬영, 판독과 탈초, 정서와 국역 등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잘못 이해 정리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정을 구한다.

도동서원 현판 자료 조사보고

1. 도동서원의 현판자료

道東書院은 현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에 있다. 寒暄堂 金宏弼을 제향하는 서원이다. 낙동강 본류를 북쪽으로 바라보는 입지로 드물게 北向한 江景이다. 도동서원은 1568년(선조1)에 현풍현 비슬산 기슭 쌍계동에 雙溪書院이라는 이름으로 건립되었고, 1573년에 賜額을 받았다. 임진왜란에 불탄 후 1604년(선조 37)에 당시 ‘玄風縣 西 15里 烏舌面 松楸 下’로 옮겨 지금의 자리에 甫老書院라는 이름으로 중건되었다. 이곳은 김굉필의 묘소 아래이다. 1607년(선조40)에 道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사액되었다.¹ 서원의 중건은 寒暄堂의 外曾孫인 寒岡 鄭述가 주도하였다 한다. 1677년(숙종 3)에 한강 정구를 도동서원에 從享하였다. 정구는 도동서원에 한훤당 김선생을 봉안하는 글에서, 서원이 戴尼山을 背山하여 낙동강을 전망하는 입지라고, 서원 移設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²

대니산 높디높고 낙동강은 넘실넘실 戴尼崇崇 清洛沄沄
그 가운데 서원 사당모습 엄숙하네 中有精廬 廟貌攸尊
전의 쌍계 터는 시끄러운 저자거리 昔日雙溪 城市湫喧
여기 옮긴 자리는 은거지와 가깝다네 茲焉移卜 密邇丘園

도동서원은 2007년 사적 제488호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한편 서원의 강당·사당 그리고 담장이 1963년 ‘도동서원강당사당부장원(道東書院講堂祠堂附牆垣)’이라는 이름으로 보물 제350호로 별도로 지정되었다.

도동서원의 현판은 사당 공간에는 존재하지 않고, 강당·동 서재·대문과 문루에 편액과 기문으로 다수 걸려 있다. 道東書院 현판은 두 개가 있는데, 강당 전면 미간에는 퇴계 글씨를 집자한 서원 현판, 강당 내부 후면 벽에는 사액현판이 걸려 있다. 강당 중정당(中正堂) 현판은 사액현판 아래에 걸려 있다. 정한강수서(書道東書院額板下)가 강당 미간의 서원현판 아래에 있다. 강당 중정당 안에는 傳教, 金安國詩板, 白鹿洞規, 國忌, 書院規目가 걸려 있다. 강당 앞에 동재인 거인재(居仁齋), 서재인 거의재(居義齋) 현판이 있다. 서원의 대문에 해당하지만 작은 규모의 환주문(喚主門) 현판, 1974년 중건된 문루인 수월루에는 水月樓 현판과 ‘水月樓上樑文’ ‘水月樓重建記’, ‘水月樓重修上樑文’, ‘水月樓重建顛末小記’가 걸려 있다.

1.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道東書院誌』, 1997, p.6.

2. “道東書院奉安寒暄堂金先生文” -『寒岡先生文集』 권11.

2. 문헌자료에서 확인되는 현판 자료

1) 조사 현판목록(표)

건물	당호류	기문류	기타	비고
사우	-	-	-	-
서원현판 (강당)	道東書院(1607년 선조40년 사액) 道東書院(퇴계서 집자)	-	-	-
강당	中正堂	傳教 정한강수서(書道東書院額板下) 金安國詩板	書院規目 白鹿洞規 國忌	-
동서재	居仁齋 居義齋	-	-	-
문루	喚主門 水月樓	水月樓上樑文(1849) 水月樓重修上樑文(1863) 水月樓重建記(1974) 水月樓重建顛末小記(1974)	-	서원설립 당시에 환주문이 있었고, 문루 수월루는 19세기 중반에 신설, 2차에 걸친 중수 중건

2) 도동서원 소장 현판자료(카드)

(1) 서원현판

도동서원, 17세기 초반, 퇴계 이황

강당 앞면에 걸린 서원 현판이다. 퇴계 이황의 서원 글씨를 집자하여 모각한 것이다.



도동서원(사액현판), 1607년(선조 40), 慶尙道 都事 裨大維

강당 안쪽 정면에 걸린 서원현판으로 선조 임금의 사액 현판이다.

(2) 강당

中正堂, 18세기 숙종연간, 奉朝賀 李觀徵

사액 현판 도동서원 아래에 걸려 있다. 강당 이름 ‘中正’의 의미는 주돈이『태극도설』 가운데 “성인은 中·正·仁·義로써 온갖 일은 안정시키고 고요함을 위주로 사람의 표준(人極)을 세우셨다.(聖人定以中正仁義, 而主靜, 立人極焉)”에 나타난다. 강당 中正堂과 앞에 있는 居仁齋 居義齋가 中·正·仁·義를 표상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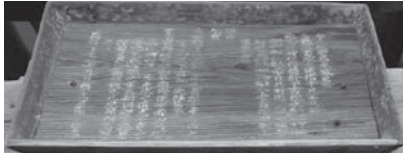
傳教, 書院謄錄 권1



1676년(숙종 2) 10월 10일에 숙종임금이 밤에 신하를 불러 경연을 베풀는 자리(夜對)에서 서원에 내려진 인력들이 흩어져 선비들이 학문에 전념할 수 없음을 염려하는 논의하면서, 문묘종사 등 공이 큰 현

인을 향사하는 서원에는 특전을 주는 것을 허용하도록 한 국왕의 傳敎를 등서한 것이다. 경주 옥산서원 강당에 걸려 있는 傳敎謄書와 같은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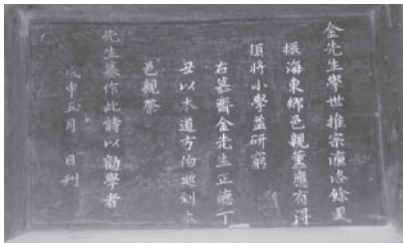
정한강수서(書道東書院額板下), 鄭述, 鄭述



강당 전면 현판아래 걸려 있는 정구의 글이다. 현재의 장소에 도동서원을 건립한 정구가 국왕이 하사한 판액과 함께 스승인 퇴계의 글씨를 모각한 현판을 강당 안팎에 건 사유를 밝힌 글이다.

示玄風學者, 金安國

강당에 좌측 벽면에 걸려 있다. 경상감사 金安國이 경상도 각읍 학자에게 학문을 장려하는 시를 지어 보냈는데, 현풍의 학자들에게는 현풍 사람인 김굉필의 학문을 세상에서 으뜸으로 추존한다는 내용을 적었다.



도동서원 規目, 승정후 오무오 6월 중간

강당 뒷면 벽 왼편에 걸려 있다. 도동서원의 학규이다. 다른 서원에 제시된 학규에 비하여 매우 상세하다.

白鹿洞規 學者十訓,

강당 중정당 뒷벽 오른 편에 걸려 있다. 주자의 白鹿洞書院 學規과 학자십훈이 적혀 있다. 백록동규는 五敎之目, 窮理之要, 修身之要, 處事之要, 接物之要를 기록하고, 學者十訓을 추가해서 적어 놓았다.

國忌

강당 중정당 뒤 오른 편에 걸려 있다.太祖부터 純祖 翼宗(추존왕)까지 역대 왕과 왕비의 忌日과 陵號를 적은 것이다.

(3) 동서재

居仁齋

도동서원 동재에 해당한다. 도동서원이 북향을 하고 있어 서쪽이지만 강당에서 바라보면 좌측이 되므로 동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仁義禮智信의 순서에 따라 居仁齋가 된다. 강당 중정당의 中正과 함께 동서재 이름을 仁과 義로 하여 『태극도설』이 말하는 中正·仁·義를 상징화하였다.

거인(居仁)과 거의(居義)는 『맹자』 離婁 上에 “내 몸이 인(仁)에 머물러 의(義)를 말미암을 수 없다는 것은 스스로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인은 사람의 편안한 집이고 의는 사람의 바른 길이다.(吾身不能居仁由義 謂之自棄也. 仁 人之安宅也 義 人之正路也)”에 나온다.

居義齋

도동서원 서재에 해당한다. 도동서원이 북향을 하고 있어 동쪽이지만 강당에서 바라보면 우측이 되므로

서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仁義禮智信의 순서에 따라 居義齋가 된다. 강당 중정당의 中正과 함께 동·서재 이름을 仁과 義로 하여 『태극도설』이 말하는 中·正·仁·義를 상징화하였다.

거인(居仁)과 거의(居義)는 『맹자』 離壘 上에 “내 몸이 인(仁)에 머물러 의(義)를 말미암을 수 없다는 것은 스스로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인은 사람의 편안한 집이고 의는 사람의 바른 길이다.(吾身 不能居仁由義 謂之自棄也. 仁 人之安宅也 義 人之正路也)”에 나온다.

(4) 문루

喚主門

도동서원의 문 이름이다. 창립초기부터 있었던 서원 문이다. ‘내 마음의 주인을 부른다.’ 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갓 쓴 선비들은 고개를 숙여야 들어올 수 있을 만큼 문이 낮고 두 사람이 함께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좁다. 문지방 자리에 꽃봉오리 문양의 돌부리가 있어 더욱 출입이 조심스럽다.

水月樓, 1974년 중건

水月樓는 도동서원 창립 초기에 존재하지 않았다. 1849년(憲宗 乙酉 3월)에 건립되었다가, 1863년에 重修하였으며, 1888년(고종25)에 소실된 후 오랫동안 없었다. 1974년에 지금의 四架三間 규모로 다시 중건하였다. 水月樓上樑文(1849), 水月樓重修上樑文(1863), 水月樓重建記(1974), 水月樓重建顛末小記(1974) 참조

水月樓上樑文, 1849년(憲宗 乙酉 3월), 李源祚

창건 당시 서원 문의 규모가 갖추어지지 못함을 한스러워 하다가, 19세기 중반에 문루를 세우게 된 경과와 감회를 기록한 상량문이다. 또한 서원 밖 넓은 평야 평평한 백사장을 바라보며 밝고 상쾌한 경치를 구경하며 궁극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水月樓重修上樑門, 1863년(哲宗 癸亥 6월), 李鍾祥

수월루를 중수하면서 올린 상량문이다.

水月樓重建記, 1974년, 鄭華植

도동서원 창건과 수월루 건립 과정을 기술하고, 수월루의 의미가 주자 시 “秋月照寒水”와 한훤당 시 “處獨居間絕往還 只呼明月照孤寒”에서 연유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水月樓重建顛末小記, 1974년, 金殷永

수월루의 건립, 중수, 그리고 1888년(고종25)에 소실된 후 오랫동안 없었다가, 1974년에 지금의 모습으로 다시 중건하게 된 과정을 밝히고, 중건에 물심양면으로 도움 준 사람들에게 대한 감사를 표하고 있다.

2. 문헌자료에서 확인되는 현판 자료

1) 정한강 수서(書道東書院額板下)

“도동서원(道東書院) 액판(額板) 밑에 쓰다(書道東書院額板下)”

이 선생(李先生 이황(李滉))이 일찍이 김 선생(金先生 김굉필(金宏弼))의 서원을 건립하는 일에 크게 관심을 가졌으나 안타깝게도 선생의 생존 시에 이 일이 미쳐 이루어지지 않아 열 곳의 서원이 채워지지 못하였다. - 문집 속에 〈서원십영(書院十詠)〉이라는 시가 있으나 아홉 곳의 서원만 있고 열 개의 수효가 채워지지 못했다. - 만일 도동서원이 그 당시에 존재하였더라면 액호(額號)를 손수 쓰시는 일을 어찌 여느 서원보다 뒤에 하였겠는가. - 여러 서원의 액호는 대부분 선생이 손수 쓰신 것이다. -

지금 서원이 중건되어 이름을 도동(道東)으로 하라는 명이 대궐에서 내려오고 뒤이어 판액(板額)이 장차 내려올 예정인데, 마침 또 선생이 쓰신 편액의 글씨 중에서 네 자의 큰 글씨를 찾아서 본을 떠 각(刻)하여 서원으로 보냈다. 이리하여 선사(先師)의 옛 필치와 성주(聖主)께서 하사한 판액이 장차 안팎에서 빛을 발하게 됨으로써 배우는 유자(儒者)로 하여금 무엇을 모범으로 삼을 것인지를 알게 하였으며, 따라서 또 이 선생의 유지(遺志)를 이루게 되었다. 이 어찌 다행스럽지 않은가. 이 서원에 들어오는 우리 선비들은 어찌 서로 이 편액을 우러러보고 김 선생의 학덕을 흠모하며, 도동의 의미를 깊이 체득하여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써 오도(吾道)의 전통이 끊기지 않을 방도를 생각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만력 정미년(1607, 선조40) 가을 7월 일에 후학 서원(西原) 정구(鄭逵)는 삼가 쓰다.

(李先生嘗拳拳致意於金先生書院之建 惜乎其不及於先生之時 以得備於十書院也 文集中 有書院十詠 而只有九書院 不備十數 若在其時 則親題額號 何後焉 諸書院額 多先生所自寫 今者書院重新 而道東嘉命 錫自九重 宣額將下 適又於先生書額之中 得四大字摹刻 送于書院 先師舊筆 聖主寵額 將交映內外 庶幾使學者知所宗範 亦所以成李先生之遺志也 寧不幸歟 凡我入院之士 盍相與觀瞻想慕 深體道東之意 勉勉不已 思所以不墜也哉 萬曆丁未秋七月日 後學西原鄭逵 謹書 - 『寒岡先生別集』 卷之二 雜著)

2) 현풍의 배우는 사람들에게 보임(示玄風學者)

“金先生學世推宗 濂洛餘風振海東 鄉邑親薰應有得 須將小學益研窮” 金先生宏弼 首倡性理之學 至今學者知所趨向 願學程朱 皆先生之力也 公 邑人也 - 『慕齋先生集』 卷之一, 詩

3) 傳敎(『서원등록』 권1, 丙辰(1664) 11월조.)

“今11月初十日夜對時 同副承旨權所啓 臣奉名 (...) 文廟從祀諸賢則有功百世 建立書院 實出於右文興道之意 設有자少弊端 有不足爲念者 (...) 從祀諸賢平生所經過處 皆立書院 雖不可一一皆用特典 而至若禮安之陶山書院 慶州之玉山書院 玄風之道東書院 安陰之龍門書院 楊州之道峰書院 迎日之烏川書院 則曾所募入者仍存 勿侵似當矣”.

4) 道東書院 水月樓 上樑文

유생들을 모아 성현이 전한 지결(旨訣)을 강하니,
차가운 강물에 비친 달처럼 맑고,
비취빛 물을 바라보다 높다란 서원 우러르니,
단청 칠한 동량이 구름처럼 높구나.
근원이 있는 거울 같은 연못 원두에서 흘러내리고,
빛나는 수월루(水月樓) 세 글자 현판이 걸렸구나.
생각건대 우리 유교 영남에서 처음으로 열린 곳,
아, 그 유촉 오히려 대니산(戴尼山)에서 전해졌네.
하동정씨 일두(一蠡)³ 선생과 도의로 벗하니,
이원(伊院)⁴과 서로 나란히 우뚝하며,
한수(漢水) 서쪽 고제(高弟)⁵가,
희천(熙川)⁶에서 비로소 문하에 들어왔네.
옥계(玉溪)⁷에서 여운을 다스리니,
옛 정자엔 거금고가 늑늑하고,
검택(劍澤)⁸에서 옛 비각을 찾으니,
내원의 비석은 마모되었네.
대개 선생은 도의 연원에 직접 접하여,
후학으로 하여금 문로를 미혹치 않게 했네.
광풍제월이 모두 있으니,
소학의 근기를 즉시 얻을 수 있고,
대성 공자의 영역에 이르길 기약하리.
공경을 주로 하여 직접 천덕에 도달하니,
우리나라서 성리의 의론을 창도하였고,
예를 따름 우연히 솔례(率禮)라는 지명과 부합되니,
현풍 땅에 문명의 기운을 세웠네.
그러므로 백세토록 공의가 일어,
유종으로 한 사람도 말하지 않는 이 없네.

李源祚,『凝窩先生文集』 권4 上樑文
集青衿而講衣鉢之傳
寒水照月
控翠渚而仰門牆之卓
畫棟連雲
混混一鑑源頭
煌煌三字楣額
念斯文始闡於環嶠
猗遺囑尙傳於戴尼
河東道交
相聯卓於伊院
漢西高弟
肇登門於熙川
理餘韻於玉溪
古亭琴濕
尋舊刻於劍澤
內院碑刊
盖先生直接於淵源
俾後學不迷於門路
光風霽月之都在
立得小學根基
期至大聖闡域
主敬直達於天德
青邱倡性理之論
率禮偶符於地名
玄都值文明之運
所以百世之公議
莫不一辭於儒宗

3. 일두(一蠡): 정여창(鄭汝昌)의 호.

4. 이원(伊院): 미상. 일두 정여창을 향사하는 서원이 있는 곳인 듯하다.

5. 고제(高弟): 조광조(趙光祖)를 가리킴.

6. 희천(熙川): 평안북도 희천군으로 한훤당 김굉필이 유배되었던 곳이다.

7. 옥계(玉溪): 미상.

8. 검택(劍澤): 미상.

시축이 처음으로 쌍계(雙溪)⁹에 자리를 잡았는데,
 팔 년 만에 병화를 만나 소실되었네.
 화려한 제례의식 문묘의 양무에서 거행되니¹⁰,
 위대하구나, 다섯 선현 문묘에 종사됨이여.
 묘소에서 너무 가깝다는 말이 있어,
 중간에 옮겨 봉안하는 일을 시작했네.
 규모가 작은 데 유감이 있었는데,
 성스런 조정에서 사액을 내리셨네.
 적통의 학맥이 서로 전한 것 생각하면,
 한훤당 선생이 이어 일어나심 있으시네.
 우리가 태어난 천성에서 아름다움을 인하여,
 문을 열고 정로를 열어주셨네.
 사람들이 모두 할 수 있는 데서 지업을 궁구하여,
 방안까지 들어가 큰 규모를 만들었네.
 후인들이 경모하는 마음 변함이 없어,
 동쪽 기둥에 공경한 시 걸려 있고,
 제현들이 낮을 읽고 서로 바라보는 곳,
 별도의 사당이 넓게 서 있네.
 문의 규모 갖추어지지 않음이 유독 한스러우니,
 서원의 힘으로는 미칠 겨를이 없기 때문.
 중정당 앞에는 담장이 빙 둘러 있으니,
 이미 장수하고 유식하는 장소가 되었구나.
 환주문 밖에는 계단이 차례로 있지만,
 오히려 높고 밝고 상쾌하고 명랑한 구경할 곳 없네.
 한가한 날 이 누각에 올라 보면,
 거의 순서에 따라 궁극에 나아갈 수 있으리.
 선생의 유품이 아득하지만
 어찌 단청을 하고 담장을 쌓는 일 더디하리.
 마침내 온 고을의 선비들을 모아,
 비로소 세 칸의 누각을 짓기로 했네.
 이층 난간에 깊숙한 누각,
 단정한 방향으로 향하게 했네.
 넓은 평야 평평한 백사장,

尸祝初卜於雙溪
 蕩然八載之燹
 縉儀克舉於兩廡
 巍乎五賢之班
 謂密邇於墳庵
 中年倡移安之舉
 起曠感於涓濩
 聖朝渙頒額之音
 矧惟嫡脈之相傳
 迺有寒翁之繼起
 襄徽美於我之自出
 啓正路於抽關
 究志業於人皆可爲
 奉洪規於入室
 肆後人景慕靡間
 東楹揭虔
 粵諸賢磊落相望
 別祠旁列
 獨恨門制之不備
 只緣院力之未遑
 繚垣牆於中正堂前
 既有藏修遊息之所
 歷階級於喚主門外
 尙欠高明爽朗之觀
 暇日登臨
 庶幾循序而造極
 遺風緜邐
 詎緩塗腹而飾墉
 遂合一鄉之衿紳
 載營三間之架棟
 層欄邃閣
 占面勢於端方
 曠野平沙

9. 쌍계(雙溪): 현풍 읍치 2리쯤 되는 곳에 세웠던 김굉필을 모신 쌍계서원을 말함.

10. 이 말은 한훤당이 성균관 대성전에 배향되었다는 말이다.

저 멀리 시계가 시원하구나.
 만 겹의 구름에 닿을 듯한 높은 비석,
 눈길 가는 데마다 선생이 보이는 듯.
 한 굽이 맑은 강의 참된 근원,
 곧장 이천(伊川)·낙수(洛水)에 닿았구나.
 옛날보다 크고 사치하게 하려는 것 아니니,
 이로부터 우리 유림에 무게가 더하리라.
 허공의 누각에서 바람을 쏘이면,
 거의 소강절의 가슴속처럼 활달할 것이며,
 작은 배를 타고 안개 낀 달밤에 노닐면,
 주자의 무이도가를 이어 부를 수 있으리.
 시와 예와 현가를 후진에게 가르치니,
 빗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듯,
 읊하고 양보하고 오르내리는 데서 선배를 사모하니,
 북두성이 하늘에 있는 듯.
 그 문을 통해 들어가면,
 경당과 의창이 차례로 보이고,
 이 누각에 올라 바라보면,
 지혜로운 물과 어진 산이 나열해 있네.
 애오라지 저 긴 백 척의 동량에 의지하여,
 감히 육위(六偉)¹¹의 짧은 노래 감히 부르네.
 들보를 동쪽으로 들어 올리세,
 활수가 근원에서 흘러내려 좌우에서 만나네.
 옥 거문고 연주하니 뱃머리에 달이 떴으니,
 솔개와 물고기에 깃든 천리가 거울 속에 있구나.
 들보를 서쪽으로 들어 올리세,
 푸르른 여러 봉우리들이 난간 아래로 보이네.
 열 겹의 구름 병풍 살아 있는 그림처럼 펼쳐졌고,
 유견 쓰고 단정히 앉아 서책을 보는 듯하네.
 들보를 남쪽으로 들어 올리세,
 제일 강산이 안계에 들어오네.
 절차탁마하던 그 옛날 잠시 만났던 곳,
 지금도 그 유적지 서민들도 알고 있네.
 들보를 북쪽으로 들어 올리세,

敞眼界於縹緲
 萬疊雲嶂穹碑
 如見於羹牆
 一曲清江真源
 直通於伊洛
 非欲侈大於舊制
 自此增重於吾林
 駕風靈於空樓
 庶豁堯夫之胷次
 裝烟月於小艇
 擬續武夷之棹歌
 課後進於詩禮絃歌
 雨珠迸地
 慕前修於揖讓升降
 星斗在天
 得其門而入焉
 次第敬堂義牖
 登斯樓而望也
 羅列智水仁山
 聊凭百尺之脩梁
 敢陳六偉之短唱
 拋樑東
 活水源流左右逢
 瑤琴試奏舷頭月
 理契鳶魚在鏡中
 拋樑西
 蒼翠群巒入檻低
 十疊雲屏開活畫
 幅巾端坐簡編稽
 拋樑南
 第一江山眼界參
 麗澤當年傾盖處
 至今遺躅野人諳
 拋樑北

11. 육위(六偉) : 동서남북과 상하의 여섯 바위를 가리킨다.

낙고재 안에는 선대 법도 생각나네.
 연꽃 갇힌 서안에 닿고 앉은 곳 더욱 깊지만,
 활발한 천기를 곳곳에서 얻는다네.
 들보를 위로 들어 올리세,
 계곡 운무 숲속 가랑비 감히 가라지 못하네.
 사물(四勿)¹²과 삼성(三省)¹³의 진결이 전하니,
 어찌 어두운 집안에 있는 이들에게 향할 바를 어렵게 하리.
 들보를 아래로 들어 올리세,
 차가운 정자가 달밤에 명월이 비추네.
 모름지기 마음이 신령스럽게 통함을 증명하리,
 보배 거울 검은 구슬이 빛과 기운 뿜어내네.
 삼가 바라건대, 상량한 한 뒤에는,
 더욱 기초를 공고히 하여,
 영원히 향기로운 간직하기를.
 뻗어 내린 능선은 보호하는 신령이 있어,
 기제(既濟)¹⁴의 공역을 이루었고,
 풍우가 뒤흔드는 걱정이 없어서,
 대장(大壯)¹⁵의 규모가 세워졌네.
 우리 도가 이로부터 더욱 밝아져서,
 넓은 언덕에 우뚝하여 높이 바라보리.
 유풍이 완연히 크게 펼쳐져,
 주나라의 길 바라보며 일제히 나아가게 하소서.

洛阜齋裏思先則
 蓮纓抵案坐深更
 活潑天機隨處得
 拋樑上
 谷霧林霏不敢障
 勿四省三眞訣傳
 肯教冥槩終迷向
 拋樑下
 照寒亭畔月明夜
 須將方寸證靈通
 寶鑑玄珠光氣射
 伏願上樑之後
 益鞏基礎
 永藏苾芬
 流峙有控護之靈
 既濟功役
 風雨無動撓之患
 大壯規模
 吾道由是而益明
 跼曠原而高覩
 儒風苑然而丕振
 望周行而齊趨

헌종 기유년(1849) 3월 모일 후학 성산 이원조(1792-1871) 삼가 지음.

憲廟 己酉 三月 日 後學 星山 李源祚 謹撰

12. 사물(四勿): 『논어』에 보이는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을 가리킨다.

13. 삼성(三省): 『논어』에 보이는 “吾日三省吾身 爲人謀而不忠乎, 與朋友交而不信乎 傳不習乎”를 가리킨다.

14. 기제(既濟): 『주역』의 괘 이름. 일을 완성한 것을 의미함.

15. 대장(大壯): 『주역』의 괘 이름. 씩씩하고 건장한 것을 의미함.

병산서원 현판 자료 조사보고

1. 병산서원의 현판자료

1) 조사 현판목록(표)

건물	당호류	기문류	기타	비고
사우	尊德祠	-	-	-
서원	屏山書院	-	-	-
강당	立教堂 明誠齋(東) 敬義齋(西)	屏山尊德祠復享記	존덕사향사집사분정 尊德祠從祀位執事分定	-
동서재	動直齋(동재) 靜虛齋(서재)	-	藏書室	-
문루	晚對樓	-	-	-
외삼문	復禮門	-	-	-
장판각	藏板閣	-	-	-
전사청	典祀廳	-	-	-

2) 도산서원 소장 현판자료(카드)

(1) 사우

屏山書院 尊德祠, 82.0 × 171.0

병산서원 사우 편액으로, ‘존덕’은 서애 류성룡의 학덕을 존모한다는 의미이다. 이 사우를 서애가 세상을 떠난 7년 후인 1614년(광해 6)에 정경세, 이준, 김윤안, 안담수 등 그의 문인들과 유림이 힘을 합해 세우고 위패를 모셨다고 한다. 그 후 1620년 여강서원에 위패를 봉안한 뒤, 1629년에 병산서원으로 다시 위패를 봉안하였다. 1937년에 중건하였다. 특히 사당으로 들어가는 삼문에는 태극이, 삼문의 기둥에는 팔괘가 그려져 있다.

(2) 서원

屏山書院 屏山書院, 78.3 × 226.0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에 있는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의 학문과 업적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서원의 편액이다. ‘병산’은 서원 앞 낙동강을 끼고 흐르는 산이 병풍을 두른 듯이 펼쳐져 있는데서 유래하였다. 원래 풍

산현에 있던 풍악서당을 서애가 1573년(선조 6)에 이곳으로 옮겼고, 1614년(광해 6) 존덕사를 세워 그의 위패를 모시고 병산서원으로 개칭하였다. 1662년(현종 3) 셋째 아들 수암(修巖) 류진(柳軫, 1582~1635)을 추가 배향하였으며, 1863년(철종 4) 사액을 받았다. 류성룡은 퇴계의 고제로서 도학과 문장, 덕행과 글씨로 이름을 떨쳤을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때는 재상으로 이순신과 권율 장군을 천거하고, 성곽수축·화기제작 등 군비확충에 힘써 많은 공을 세웠다. 사적 제260호로 지정되었으며, 휘철되지 않은 47개 서원 중의 하나이다.

(3) 강당

屏山書院 立教堂, 80.5 × 177.5

병산서원 정당(正堂)의 편액으로, ‘입교’는 유생들이 배워야 할 성현의 가르침, 이를테면 오교(오륜)를 바르게 세운다는 의미이다. 유생들은 성현의 가르침을 받아 자기의 몸을 바로 세우고, 나아가 선비로서의 사명을 바로 세우는 공부를 하였다. 현재의 건물은 1921년에 중수하였다.

屏山書院 明誠齋(동), 37.3 × 88.0

병산서원 정당의 동쪽 협실의 편액으로, ‘명성’은『중용』21장에 “성(誠)으로 말미암아 밝아짐을 성(性)이라 이르고, 명(明)으로 말미암아 성(誠)해짐을 교(教)라 하니, 성(誠)하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성(誠)하게 된다.[自誠明 謂之性 自明誠 謂之教 誠則明矣 明則誠矣]”고 한 구절에서 인용한 것이다. 성(誠)은 성실히 하는 것으로 행(行)에 해당하고 밝음[明]은 이치를 밝히는 것으로 지(知)에 해당하며, 성(性)은 배우지 않고 본성대로 하는 것으로 성인(聖人)을 이르고, 교(教)는 가르침을 받아야 비로소 선행을 하는 현인(賢人)을 이른다.

屏山書院 敬義齋(서), 40.0 × 84.0

병산서원 정당의 서쪽 협실의 편액으로, ‘경의’는『주역』「곤괘(坤卦), 문언전(文言傳)」에 “군자는 경으로써 내면을 곧게 하고 의로써 외면을 바르게 한다.[君子 敬以直內 義以方外]”는 구절에서 인용하였다. 경으로써 내면을 수양하고, 의로써 외부적 행동의 판단준거를 삼는다는 뜻이다.

屏山書院 屏山尊德祠復享記, 17세기(1630), 47.0 × 130.0, 창석(蒼石) 이준(李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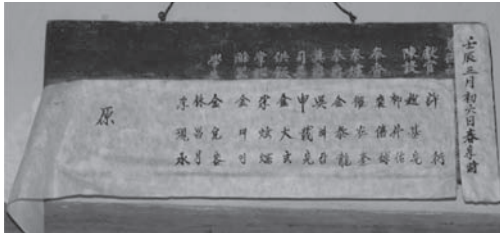
병산서원 정당 북쪽 벽면에 걸려있는 현판이다. 1620년 서애 류성룡의 위패를 여강서원에 봉안한 뒤, 1629년에 병산서원 존덕사로 다시 위패를 모시게 되었다. 이때 서애의 제자로 부제학을 지낸 창석(蒼石) 이준(李垞, 1560-1635)이 병산서

원 건립내력과 선생의 학덕에 대해 적은 기문이다.

屏山書院 尊德祠享祀執事分定(1), 29.5 × 83.0

병산서원 정당 북쪽 벽면에 걸려있는 현판으로, 병산서원 존덕사 향사시 집사 분정판이다. 임진(2012) 3월 6일 춘향 때의 분정이 걸려있다.

屏山書院 尊德祠從祀位執事分定(2), 29.5 × 82.5



병산서원 정당 북쪽 벽면에 걸려있는 현판으로, 병산서원 존덕사 종사위 집사 분정판이다. 한 가지 특기할 것은 주향(主享)과는 달리 종향하는 배위의 집사 분정판이 별도로 있고, 분정판의 구성요소도 다르다는 것이다. 이 또한 임진(2012) 3월 6일 춘향 때의 분정이 걸려있다.

(4) 동서재

屏山書院 動直齋(동), 40.0 × 91.0

병산서원 동재(東齋) 편액으로, ‘동직’은 주렴계의 『통서(通書)』에 어떤 사람이 성인이 되는 방법을 묻자, “한결같음[一]이 요체가 되니, 한결같음이란 욕심이 없는 것이다. 욕심이 없으면 고요할 때에는 텅 비고 움직일 때는 곧게 된다. 고요할 때에 텅 비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천하의 이치에 통하게 된다. 움직일 때에 곧으면 공평하게 되고 공평하면 천하의 서무(庶務)를 널리 처리할 수 있다. 밝아서 통하고 공평하여 넓게 되면 성인의 도에 거의 가까워지지 않겠는가? [一爲要 一者 無欲也 無欲 則靜虛動直 靜虛則明 明則通 動直則公 公則溥 明通公溥 庶矣乎]”고 한테서 인용하였다. 결국 경(敬)을 통해 마음을 수양하여 사욕이 없는 경지에 나아가기를 바라는 뜻이 내재해 있다.

屏山書院 靜虛齋(서), 38.0 × 87.0

병산서원 서재(西齋) 편액으로, ‘정허’은 주렴계의 『통서(通書)』에 어떤 사람이 성인이 되는 방법을 묻자, “한결같음[一]이 요체가 되니, 한결같음이란 욕심이 없는 것이다. 욕심이 없으면 고요할 때에는 텅 비고 움직일 때는 곧게 된다. 고요할 때에 텅 비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천하의 이치에 통하게 된다. 움직일 때에 곧으면 공평하게 되고 공평하면 천하의 서무(庶務)를 널리 처리할 수 있다. 밝아서 통하고 공평하여 넓게 되면 성인의 도에 거의 가까워지지 않겠는가? [一爲要 一者 無欲也 無欲 則靜虛動直 靜虛則明 明則通 動直則公 公則溥 明通公溥 庶矣乎]”고 한테서 인용하였다. 결국 경(敬)을 통해 마음을 수양하여 사욕이 없는 경지에 나아가기를 바라는 뜻이 내재해 있다.

屏山書院 藏書室, 50.5 × 107.0

병산서원 서재에 있는 장서실 편액으로 서원의 서책을 보관하는 곳이다.

(5) 문루

屏山書院 晚對樓, 78.5 × 202.0



병산서원 2층 누대의 편액으로, ‘만대’는 당나라 두보의 「백제성루(白帝城樓)」시의 “푸른 절벽 저물녘에 마주하기 마땅하네.[翠屏宜晚對]”라는 구절에서 인용하였다. 향사나 행사가 있을 때는 유생들의 개좌석(開座席)이 되고, 학문을 강의할 때는 강학처가 되기도 한다. 특히 만대

루에 올라 낙동강과 병산을 바라보는 운치는 더 없이 뛰어나다.

(6) 외삼문

屏山書院 復禮門, 67.0 × 183.0

병산서원 정문의 편액으로, ‘복례’는『논어』「안연(顏淵)」편에 “안연이 인(仁)에 대해 묻자, 공자가 말하기를, ‘자신의 사욕을 이겨 禮로 돌아가는 것이 인을 실행하는 것이니, 하루라도 자신의 사욕을 이겨 예로 돌아간다면 천하 사람이 모두 어질다고 허여(許與)할 것이다.’[顏淵問仁 子曰 克己復禮爲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고 한 구절에서 인용하였다. ‘복례’는 ‘극기복례’의 준말로써, 자기의 사욕을 극복하고 天理를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7) 장판각

屏山書院 藏板閣, 31.0 × 98.5

병산서원 정당 뒤에 있는 장판각 편액으로, 유생들의 학습에 필요한 각종 도서의 목판이나 선조의 문집 목판 등을 보관하는 장소이다. 보통 서원이나 향교 등 교육기관에 장판각을 두고 여러 종류의 목판을 보관하였다. 이 건물은 가장 단아한 장판각 건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8) 전사청

屏山書院 典祀廳, 28.0 × 68.5

병산서원 사우 동쪽에 있는 전사청의 편액으로, 제사를 지내기 전날에 제수를 보관하는 곳이다. 평상시에는 제기와 제구를 보관한다. 사당과 같은 울타리에 있는 것이 보통인데 이 전사청은 별도로 담장을 두르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무성서원 현판 자료 조사보고

사적 제166호로 지정된 무성서원은 전북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500번지(구 : 태인현 고현내면 원촌리)에 위치하며, 1868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철폐되지 않은 47개 서원 중 하나로 전라도의 首院 역할을 해왔던 서원이다.

무성서원은 원래 태산현감을 지낸 崔致遠(857년~?)을 제향하기 위하여 생사당을 月延臺(현재 무성리 성황산 서쪽 능선)에 지어 제향했던 곳으로 靈川 申潛(1491~1554)은 1543년(중종 38)에 현감으로 부임하여 현내에 5학당을 개설하여 흥학의 기틀을 마련하자 역시 생사당을 건립하여 기렸다고 한다. 그러다가 1615년(광해 7)에 鄕人들은 태산서원을 건립하고 태산사에 모셔져 있던 孤雲 崔致遠(857~?)과 향학당의 지원과 향학 진흥에 공이 컸던 靈川 申潛(1491~1554)을 합향하므로서 사묘인 태산사와 향학당을 결합하는 특이한 서원의 발전사를 가지게 되었다.

이후 1630년에 향학당을 만든 不憂軒 丁克仁和, 향학당의 운영을 맡았던 訥菴 宋世琳(1479~?), 默齋 鄭彦忠(1479-1557), 誠齋 金若默(1500~1558), 그리고 1675년에는 역시 향학당 운영을 맡았던 鳴川 金灌(1575-1635)까지 추배하여 최치원을 주향으로 모두 7위를 제향하였다.

1695년(숙종 21) 12월 1일 도내 유림들은 청액소를 올리기로 합의하고, 다음해인 1696년 1월 5일에 청액소를 올려「武城」으로 사액받았다. 1784년(정조 8)에는 雙溪寺로부터 최치원의 影幀을 가져와 봉안하였으며, 1834년에는『계원필경집』을 간행하여 서원에 비치하였다. 1884년에는 崔成在 등에 의하여『武城書院誌』가 간행되었다.

무성서원은 한말 丙午義兵으로 유명한데 1906년 병오창의에서 최익현과 임병찬의 창의거점이었기 때문이다. 崔益鉉과 林炳瓚(1851~1916)은 1906년 6월 4일 武城書院에 모여 강회를 열고 80여 명의 의사가 함께 창의를 기치를 높이 들고 격문을 돌려 태인, 정읍, 순창, 곡성을 점령하였으나 6월 12일 순창에서 관군의 공격을 받아 최익현, 임병찬 등 13명은 붙잡혀 서울로 압송되어 감금 2년 선고를 받고, 대마도(對馬島)로 유배되었다.

1968년 사적 제166호로 지정되었다. 1983년 · 1989년 · 1993-4년 · 1997년에 서원을 보수하여 현재에 이른다. 현재 무성서원 門樓인 絃歌樓는 두리기둥을 쓴 정면 3칸, 측면 2칸 기와집이고, 그 안에 정면 5칸, 측면 2칸의 단층 기와집인 강당이 있으며, 오른쪽에 4칸의 講修齋, 왼쪽에 3칸의 興學齋가 있어 東西齋를 이룬다. 3칸인 神門을 지나면 祠宇인 단층 3칸의 태산사가 있다(제2회 서원워크숍 자료 참조)

1. 무성서원의 현판 자료

1) 조사 현판목록(표)

건물	記 文	
泰山祠(사우)	泰山祠(편액)	柱聯 2매
武城書院(강당)	武城書院(편액, 사액) 講堂重創記(1828) 武城書院崔先生文集重刊記(1834) 武城書院重修記(1847) 武城書院重修記(1854) 武城書院重修記(1875) 武城書院重修記(1879) 武城書院復戶保奴還復記(1882) 武城書院誌改刊記(1884) 武城書院重修記(1886) 武城書院重修記(1888) 武城書院重修記(1892) 武城書院重修記(1895)	武城書院賢宇重修記(1901) 武城書院重修記(1906) 武城書院記(1906) 武城書院重修記(1917) 武城書院重修記(1927) 武城書院椅盤重修記(1927) 武城書院墻垣重修記(1928) 賢宇重修及典祀所創建記(1930) 武城書院重修記(1932) 武城書院院址復舊記(1937) 武城書院祭器改修記(1967) 武城書院慕賢記(1953) 柱聯 6매
絃歌樓(문루)	絃歌樓(편액) 武城書院絃歌樓記(1891) 武城書院絃歌樓創建記(1891)	武城書院絃歌樓重修記(1903) 絃歌樓重修記(1936)
講 修 齋	講修齋(편액) 武城書院記(1902) 武城書院重修記(1904) 武城書院記(1916) 武城書院記(1916)	武城書院講修齋重修記(1965) (無題)(1977) 金榮得讚揚文(1994) 柱聯 4매

2) 무성서원 소장 현판자료(카드)

(1) 泰山祠

泰山祠(편액), 50×190, 石田 黃旭(1898-1992)

무성서원이 자리한 칠보면 일대는 통일신라 이후 태산현(泰山縣)에 속했던 곳이다. 무성서원은 1543년(중종 38)에 현감으로 부임한 申潛이, 태산현감을 지낸 崔致遠(857-?)의 생사당을 건립하고 홍학의 기틀을 마련한데서 시작하였다. 石田 黃旭(1898-1992)의 글씨로 좌수체로 유명하였다.

泰山祠 柱聯, 118×18

聖朝恩額 士林首善(어진 임금의 은전과 사액으로 선비들이 학문하는 곳이라는 의미)

(2) 講堂

武城書院(편액), 1696년(숙종 23), 54×201

‘武城’이란 서원이 속한 태인현의 신라 때 이름이다. 무성서원은 1696년(숙종 23) 1월 5일 도내 유림들이 청액소를 올려 같은 해 11월에 사액 받았다.

講堂重創記, 1828년, 34.5×90, 金玟

무성서원이 1825년(순조 25) 불의의 화재로 소실되자 이를 중창하기 위하여 제향인의 후손들이 힘을 합치고 태인현감 서호순에게 품보하여 그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면모를 일신한 내력을 적고 있다. 김민은 鳴川金灌의 6대손이고 당시 협조한 직임 명단이 적혀있다. 현재 계관된 기문 중에 가장 앞선 시대의 것이며 이 글에서 김민은 아버지가 지은 중수상량문이 화재로 불탔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武城書院崔先生文集重刊記, 1834년, 38×94, 朴海彦

계원필경을 전주 감영에서 중간하여 무성서원에 문집을 소장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당시의 관련 직임들이 연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무성서원지』권상(1884년간)에는 별도로 「계원필경집개간기」라 하여 개간 전후 상황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놓았다.

武城書院重修記, 1847년, 34×90, 金秉欽

誠齋 金若默의 10대손인 김병흠이 찬한 무성서원 중수기로 화재 이후 중수한 서원이 다시 황폐하여 건물은 무너질 지경이고 제복과 기물들도 불품이 없어지게 되자 訥菴 宋世琳의 후손과 불우현의 후손. 묵재의 후손들이 출연하여 서원을 중수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김병흠은 아버지는 40년 전인 갑자년(1804)에 원임으로 신문과 장담을 수축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성상 즉위 13년 정미로 현종 13년 1847년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武城書院重修記, 1854년, 40×140, 宋持灝

1854년(철종 5)에 한산인 李承敬의 태수로 부임하여 서원 중수에 지원과 협조로 아끼지 않았음을 기록한 것으로 글을 지은 송지호는 訥菴 宋世琳의 10세손이다. 뒤에 당시의 서원 원임으로 중수에 참여한 인명이 기록되어 있다.

武城書院重修記, 1875년, 35×93, 宋鍾壽

무성서원이 徐灝淳 현감의 지원으로 중수된 이후 그 아들인 徐相鼎이 경오년에 호남을 순시하면서 서원에 들러 비각건립하고 중수의 자금을 지원하여 준 것, 그리고 태인현감 李敏泰의 재정지원으로 중수가 이루어졌음을 기록하고 있다

武城書院重修記, 1879년, 31×82.5, 宋程淳

訥菴 宋世琳의 11대손 송정순이 찬한 중수기이다. 병자년(1876) 대홍년으로 서원관리와 운영이 어려웠던 사정과, 그럼에도 향론이 일어나 힘을 모아 서원을 중수한 사실을 적고 있다.

武城書院復戶保奴還復記, 1882년, 33.5×96.5, 金稷欽

무성서원 사액 시 복호 3결과 보노 30명이 획급되어 서원의 재원으로 삼았으나 서원훼철 때에 보노의 관할권이 넘어가 이를 복구하려는 노력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하여 무인년에 송정순 등 본손들이 영읍에 청원하고, 당시 영상 이최응에게도 부탁하여 특별히 원상 회복 명령이 있었음에도 미진하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태인현감 李定植이 부임하여 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원상 복구한 사실을 기록하였다. 찬자는 誠齋 金若默의 10대손인 金稷欽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전후 사정이 기록이 『무성서원지』(1884년간)에 「복호보노환복기」라 하여 별도로 정리되어 있다.

武城書院誌改刊記, 1884년, 30×80, 奇亮衍

무성서원 원지의 발간 및 서원 연혁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원지 발간이후의 중수사실을 적은 글이다. 찬자는 鳴川 金灌의 8대손인 金永朝이다. 정읍현감 奇亮衍이 찬한 무성서원원지 개간기로 서원지의 편간에 이르는 과정을 약술하고 있다. 奇亮衍은 무성서원지의 발문도 지었으며, 그 글이 서원지에 전한다.

武城書院重修記, 1886년, 32.5×90, 金永朝

무성서원 원지의 발간 및 서원 연혁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원지 발간이후의 중수사실을 적은 글이다. 찬자는 鳴川 金灌의 8대손인 金永朝이다.

武城書院重修記, 1888년, 34.5×88.5, 金光欽

김완순의 물력으로 서원을 중수하였음을 칭송한 글이다. 무성 현가지성의 고사를 소개하고 무자년은 강당이 소진된 지 4주갑이 되는 해이고, 백일장으로 시사한 지 회갑이 되는 해임을 강조하고 있다. 誠齋 金若默의 10대손 金광흠 찬이다.

武城書院重修記, 1892년, 32×105.5, 尹濟翼

무진 서원훼철이후 서원의 수보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사람들의 발의와 도내 유림들의 부조로 현가루 창건, 신문 중수, 제기를 수보한 사실들 모아 기록하고 칭송하였다. 찬자는 담양도호부사 尹濟翼이다.

武城書院重修記, 1895년, 30.5×119.5, 尹秉

진신장의였던 고부군수 尹秉이 찬, 서한 것으로 1895년 중수를 기리는 글로 구체적인 중수사실은 보이지 않음

武城書院賢宇重修記, 1901년, 34×99, 閔申鎬

1901년 사우를 중수하면서 당시의 과정과 다짐을 기록한 기문으로 閔申鎬가 짓고 썼으며, 당시 원장은 관찰사 조한국이었다.

武城書院重修記, 1906년, 26×92, 金秉述

1906년 서원의 제향을 비롯한 제반 운영에 문제가 생기자 진신장의였던 종2품 金昌禧의 출연으로 중수한 사실을 기록한 기문이다. 鳴川 金灌의 9대손 金秉述 찬이다.

武城書院記, 1906년, 31×79.5, 金麟○,

武城書院重修記, 1917년, 44×154, 李在宇

1917년에 유림들의 부조와 출연으로 서원을 중수한 사실을 기록한 기문이다.

武城書院重修記, 1927년, 37×106, 金煥一 찬 金○聲 서

원장 尹用求

武城書院椅盤重修記, 1927년, 34×119, 金澤 찬, 金奉斗 서

옥구인 申泰貞이 재임 김인기 등과 뜻을 모아 椅盤을 새로 마련한 사실을 기록하였다.

武城書院墻垣重修記, 1928년, 95×41, 金煥豐

1929년 재임 李熙元과 원유 金東浩 金炳鈺 등이 담장을 수보한 사실을 기록한 기문

賢宇重修及典祀所創建記, 1930년, 39×106, 金煥豐 찬, 姜直秀 서

서원 중수가 미진하던 차에 도내장의 朱燦馨이 중수를 발의하고 스스로 출연하여 마침내 사우를 중수하였고, 동시에 5현의 문중과 협력하여 고직사 북쪽에 2칸의 전사소까지 건립하였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武城書院重修記, 1932년, 37×106, 金煥一 찬, 金秀聲 서

도내 유지와 각 가문의 협조로 유림장의 尹二炳 등이 강당 및 홍학재 등의 개와, 개토로 면모를 일신하였음을 기록한 기문으로 당시 원장은 尹用求였다.

武城書院院址復舊記, 1937년, 35×105, 金煥豐 찬, 李喜元 서

서원의 대지가 개인 소유로 넘어간 것을 1936년에 다시 복구한 내용으로 당시 모든 재원을 부담한 해주오씨 吳琪煥의 공적을 칭송하는 기문이다.

武城書院慕賢記, 1953년, 33×83, 柳源模

효우로 행적이 있던 안동인 權寧祚가 기묘년(1939)에 모현의 정신으로 출연하여 서원 제향에 도움을 준 사실을 칭송하는 기문

武城書院祭器改修記, 1967년, 37×99, 金麟基

서원의 제기와 의물들이 일제강점기와 6.25로 인하여 10종의 2,3만이 남아 있는 지경이었는데 宋榮玉이 수만 원을 희사하여 재정비하였음을 기록한 기문

柱聯 6매, 140-142 × 17.0-17.5

春秋講磨經義四子 月朔參拜享禮兩丁

文藝時習讀書禮樂 德業日新孝悌忠和

勸規交恤藍田古約 揖讓進退杏壇遺教

(3) 絃歌樓

絃歌樓(편액), 1904년, 50.0×149, 태인군수 孫秉浩

현가루는『論語』의「陽貨」편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유래 한 것이다. 공자의 제자 자유(子游)가 노나라 武城의 현감이 되었는데, 그는 禮樂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고 한다. 공자가 이 고을을 찾아가니 絃歌之聲이 들려와 탄복했다는 고사와 연관된다.

武城書院 絃歌樓記, 1891년, 32.0×122, 金奎弘

전라관찰사이자 당시 원장인 金奎弘의 현가루 창건기문으로 무성서원의 연혁과 제향인물, 원장 재임 중 황기환 김직술 등 원임들이 문루를 건립하고자 노력한 일과 필암서원, 포충사의 예와 같이 전라남북 열읍 유림들의 예부전을 모아 1891년 현가루를 창건한 사정을 기록하고 있다.

武城書院絃歌樓創建記, 1891년, 50.0×148.5, 閔正植

무성서원의 연혁과 제향인물, 주요 연혁을 적고 관찰사로 부임하여 황기환, 김직술 등 원유들의 요청으로 무성서원 원장에 취임하였음과 대대적인 서원 중수와 함께 현가루 창건에 유림들이 협조와 지원이 이루어졌음을 기록한 기문이다.

武城書院絃歌樓重修記, 1903년, 50.5×119, 鄭寬求

함열군수 鄭寬求가 지은 현가루 중수기로 무성서원의 연혁과 제향인물, 현가지성의 고사를 상세히 소개하고 현가루 창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이때의 현가루 중수과정을 적고 있다.

絃歌樓重修記, 1936년, 38.0×139.5, 高元勳

현가루가 창건이후 세월이 지나 수보가 필요하여지자 전라남북도의 유림들이 힘을 모아 중수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찬자는 전북지사 高元勳이다.

(4) 講修齋

講修齋(편액), 1884년(?), 26 × 63, 불명

강수재중수기(정해, 1887년 김영상 기)에 의하면 사액후 유생들의 거점소로 고사를 사용하다가 1707년에 동, 서재와 중앙청을 갖춘 강수재를 창건하였고, 1884년 서원지 간행을 마친 황기환, 김형식 등이 5현의 후손과 유림들에게 구재하여 중수하였다 한다. 이대의 현판으로 추정된다.

武城書院記, 1902년, 金直述

서원지에는 ‘作脯事實’로 기록되어 있다. 갑오경장으로 서원의 제수 마련이 어렵게 되자 황기환, 김직술 등 서원 유림들이 관부에 요청하여 본면 庖肆의 세금 60냥을 받아 제수를 마련하도록 한 사정이 기록되어 있다. 당시 관찰사는 조한국, 군수는 손병호였다

武城書院重修記, 1904년, 權直相 찬, 金煥玟 서

전주군수 권덕상이 짓고 명천 김선생의 10대손인 김환민의 서로 11879년 이래 서원의 변천과 수호, 강학의 기틀이 정비된 이후 세월이 흘러 다시 퇴폐해지자 재원을 마련하여 중수한 사정을 기록한 것이다. 원장 관찰사 이용직 원임 등이 열서되어 있다.

武城書院記, 1916년, 金思謙

김제 사인 전주최씨 崔庸植, 崔南廷이 장의가 되어 출연한 사실을 기록한 글로 당장인 金思謙의 찬하였고, 당시 직월이 金直述이었다.

武城書院講修齋重修記, 1965년, 金麟基

申祥雨 군수가 무성서원 방문을 계기로 원우를 일신하기로 하고, 도내 사람들의 구재로 강수재를 중수한 사실을 기록한 기문으로 집강 외 직임이 기록되어 있다.

(無題), 1977년, 宋興燮

정사년 춘향시 출연하여 도움을 준 吳邦煥의 모범으로 칭송하는 기문

金榮得讚揚文, 1994년, (재장 金東基)

재장 김영기 외 본원 유림색장으로 7-8년간 재임하면서 어려운 서원 재정운영에 모범을 보였던 金榮得을 찬양하는 기문

2. 문헌기록에서 확인되는 현판 자료

무성서원 「賢宇重修記」(임진, 1832년, 金玟 기)에 의하면 무성서원의 상량문과 현판 기문들이 순조 25년(1825) 을유년 화재로 모두 소실되었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이때에 대부분의 오래된 현판들이 불에 타서 소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현전 현판류들은 1825년 이후의 것들인 셈이고, 계관하여 현전하는 하는 기문류 외에도 서원지에는 추가 참작할 자료들이 보인다.¹

즉 무성서원은 호남지역의 다른 서원에 비한다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서원지가 편찬되었고, 연이어 중간되었다. 즉 1884년에『武城書院誌』 2권 2책(崔成在 등 편, 武城書院開刊, 金聲根, 鄭履源 序, 寄亮衍, 申岐朝 跋)이 간행되었으며, 당시 무성서원 유림들의 자료정리 소명과 식견이 잘 반영되어 있고, 그만큼 서원지 편찬내용도 충실하다. 그리고 곧이어 1929년(1925년 김환풍 서, 1929년 김인기 발)과 1936년(金麟基 등 편, 3권 3책, 석판본)에 연이어 중간되었다. 그리하여 현재 계관되어 있지 않은 기문류 자료들도 서원지에는 수록되어 있다. 예컨대 1884년『무성서원지』에 수록된 기문으로 현전하지 않는 것으로

流觴臺重修記(무오, 조항진기)

泰山祠事績(만력 44 병진, 김일정 외),

延額時 各邑例賻記

院生關文

院宇 丹腹重修記(승정후 3갑진 김인행 기)

芝山處士安在護藏書記>(갑신 1884년 金堯昇 기)²

賢宇重修記(임진, 1832년, 金玟 기)

院規 17조

白鹿洞 5규

講習禮笏記

鄉飲酒禮唱笏

講習禮節目 5조

등이 있고, 1929년 중간 서원지에는 수록되어 있으나 현전하지 않는 기문들로

1. 무성서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아니었지만, 2008년 국립중앙박물관의 태인지역의 역사문화유산 조사에서도 무성서원의 현판류 자료를 조사한 바 있다(현판 38개, 주련 23개 : 『태인고현동 향약』국립중앙박물관, 2009년, 36면 참조)

2. 芝山處士 安在護가 1872년의 南學堂 증건과 1873년의 무성서원 강습례를 보고 집안에 소장하던 서책 수백 권을 무성서원에 기증하여 講習과 藏修의 자료로 삼도록 하였다는 기록을 보면 많은 장서가 비치되었음도 알 수가 있다.

講修齋重修記(정해, 1887년 김영상 기)

書院重修記(정사 1917년, 김환풍)³

絃歌樓 柱聯⁴

등이 있다.⁵

그리고 문집류 자료에서 무성서원의 제영문이나 기문류가 검색되리라 기대하였지만, 의외로 樗村先生遺稿에 武城書院 詩 ‘宇丹青照碧山 年深古壁綠苔斑’(卷2 詩) 1수와 孤雲集에 肅廟丙子武城書院致祭文(粵惟文昌 挺生羅季 歷敷中朝 蔚爲國瑞 文章學術 輝映千祀 膾食將聖 斯文未墜 我東儒教 實自公始 厭世混濁 韜光就閒 鸞棲枳棘 于彼泰山 流風餘韻 赫赫耳目 邑人追思 報祀靡忒 常享祝文 北學莫先 與道俱東 倡我後學 萬古英風)이 보일 뿐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많은 자료들이 앞으로 좀 더 추적, 보완될 것이다.

3. 무성서원의 주요 현판

무성서원의 현판류 자료는 1825년의 서원 화재로 당시까지 게판되었던 현판류 자료들이 회진된 탓으로 18세기 이전으로 시대가 올라가는 자료는 없다. 한편 찬자와 서자들도 대개의 경우 서원 원임이거나, 원장을 역임한 도백과 지방관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현판류 자료의 찬자와 서자에서도 특기할 사항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1) 다만 무성서원 사액현판과 현가루 현판은 이 서원의 유래와 의미를 상징하는 의미 있는 현판이다. 태산이라는 옛 사우 이름이 있었지만 “武城”이라 사액되는 까닭이나, 絃歌之聲의 고사를 에두르며 이 서원의 흥

학과 예교의 정신을 강조하게 만든 것, 이 서원의 품격과 유서, 가치를 격상시킨 것이 바로 이 두 현판이었다.



武城書院 사액 현판은 ‘병자 11월 일 사액’이라는 제기가 적혀 있어 1696년(숙종 23)에 게판된 것임을 알 수 있다. 武城이란 서원이 속한 태인현의 신라 때 이름이면서, 자유의 현가지성의고사가 깃든 지명이기도 하였다. 絃歌樓는

3. 정문술과 권재일 등이 서원 중수와 백일장 등을 개최한 공을 기리는 기문

4. 현가루 주련은 吏判 尹用求 書, 金煥豐 製, 金麟基 創修로 내용은 “兩賢治泰 遺蹟尙存 一變至魯 宣額自在 朝歌暮咏 民皆變甲 春誦夏絃 士欲達己 治小用大 君子道順 上和下太 守風莞爾 割鷄千載 後儼然遺像一祠中”이었다.

5. 1929년 발간 서원지「범례」2조에 중수 비문 및 현판 기문을 모두 수록하여야 하지만, 발간 경비가 부족하여 긴요한 것만을 선정하여 기록한다고 한 것을 미루어 보면 기문의 일부만 선정 수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1891년 창건된 문루로『論語』의「陽貨」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유래 한 것이다. 공자의 제자 자유(子游)가 노나라 武城의 현감이 되었는데, 그는 禮樂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고 한다. 공자가 이 고을을 찾아가니 마침 絃歌之聲가 들려와 탄복했다는 일화와 연관되는 명칭으로 1904년 태인군수 孫秉浩의 글씨이다. 다른 서원의 문루가 신유학의 天人合一의 의미를 함축하는 내용인 것과 달리 絃歌樓는 원시 유학의 현실 참여의 의미를 가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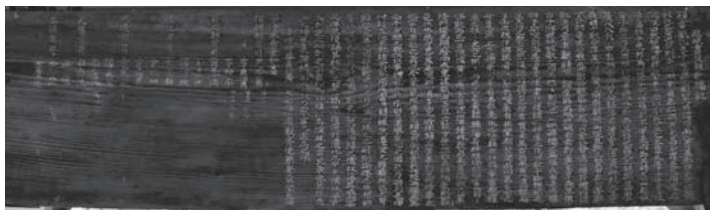
(2) 무성서원 기문류 자료들 중에서 역사적 변천과 운영의 특징을 보여주는 자료로 중수, 창건기와 운영관련 자료들을 들 수 있다.



講堂重創記(무자 1828년 金玟 기)

중수, 창건기로는 현전하는 기문자료 중 가장 시기가 빠른 講堂重創記(무자 1828년 金玟 기)를 주목하고자 한다. 물론 이 기문은 흔히 보는 중수기 자료가기는 하지만, 이 자료는 무성서원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무성서원이 1825년(순조 25) 불의의 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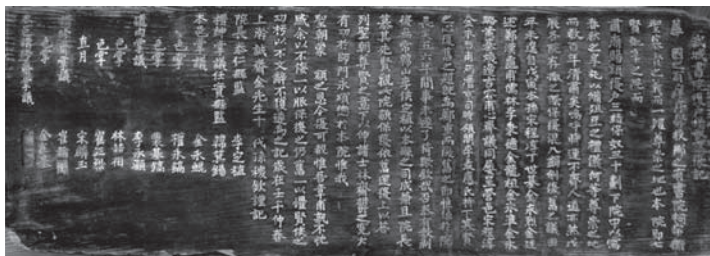
로 소실되자 이를 중창하기 위하여 제향인의 후손들이 힘을 합치고 태인현감 서호순에게 품보하여 그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면모를 일신한 내력을 적고 있으며, 이 글에서 김민은 아버지가 지은 중수상량문이 화재로 불탔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絃歌樓記(1891년 金奎弘 찬서)

絃歌樓(창건)記(신묘 1891년, 관찰사 金奎弘 찬서)도 무성서원의 연혁과 현가지성의 고사, 제향인물의 특징, 문루건립 일화, 필암서원, 포충사의 예와 같이 전라남북 열읍 유림들의 예부전을 모아 1891년 현가루를 창건한 사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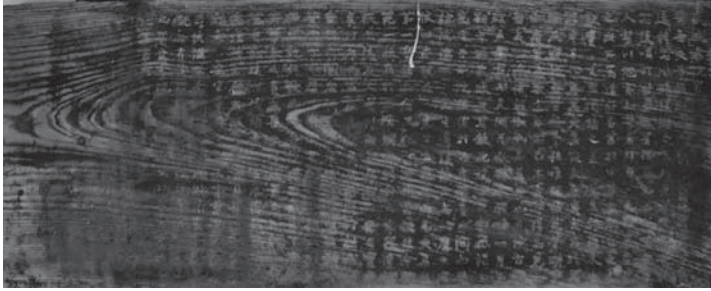
기록한 기문으로 주목할 자료이다.



武城書院復戶保奴還復記(임오 1882년, 金稷欽 기)

(3) 다음으로 武城書院復戶保奴還復記(임오 1882년, 金稷欽 기)는 무성서원 사액 시 복호 3결과 보노 30명이 획득되어 서원의 재원으로 삼았으나 서원 훼철 때에 보노의 관할권이 넘어가 이를 복구하려는 노력들을 상세하게 적은 것으로,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전후 사

정이 기록이『무성서원지』(1884년간)에「복호보노환복기」라 하여 별도로 정리되어 있다.



武城書院崔先生文集重刊記(1834년)

武城書院記(임인 1902년 金直述 기)는 서원지에는 ‘作脯事實’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갑오경장으로 서원의 제수 마련이 어렵게 되자 유림들이 관부에 요청하여 본면 庖肆의 세금 60냥을 받아 제수를 마련하도록 한 사정이 기록되어 있다.

(4) 끝으로 고운 최치원의 계원필경 간행 사실을 기록한 武城書院崔先生文集重刊記와 무성서원지 간행의 전말을 기록한 武城書院誌改刊記가 있다.



武城書院誌改刊記

武城書院崔先生文集重刊記(갑오 1834년, 朴海彦 찬)는 계원필경이 산질되어 볼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던 중 沈能淑이 무성서원을 방문하고 선생을 주향으로 하는 서원에서 당연히 문집을 보장하여야 함을 강조하면서 감사 서유구에게 보고하여 전주 감영에서

중간하도록 하였고 무성서원에 문집을 소장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무성서원지』권상(1884년간)에는 별도로 「계원필경집개간기」라 하여 개간 전후 상황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놓았다.

武城書院誌改刊記(갑신 1884년, 奇亮衍 찬)은 정읍현감 奇亮衍이 찬한 무성서원원지 개간기로 서원지의 편간에 이르는 과정을 약술한 것이다.

4. 조사결과(제언)

이상에서 간략히 살핀 것처럼 무성서원의 현판류 자료들은 내용과 성격이 다양하며, 무성서원의 현판들은 서원의 유래와 역사적 진정성을 그 의미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문화유산이자 기본적인 콘텐츠이다.

따라서 이들 현판의 의미와 가치를 일반인들에게 알기 쉽게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이들 자료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기문은 물론이려니와 편액, 시문, 주련 등을 정밀 조사하여 한 권의 책으로 엮어 의미와 해설을 덧붙이고 번역을 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기문을 누가 짓고 누가 썼으며, 글을 쓰고 부탁하는 과정과 사연이 모두 스토리가 될 것이다. 즉 관련 인물과 서원생활사, 문화사가 스토리텔링 자료로 되살아 날 수 있고 아마 이를 통하여 서원교육, 계승 활용 자료로 이용할 보다 다양한 방안도 모색 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서원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할 새롭게 찾아진 기문자료를 복원 계판하는 것이 필요하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번 기초조사 과정에서 일부 문헌기록 검색으로 추가 확보된 무성서원 자료들의 검색 사례는 좋은 예가 될 듯하다. 그리고 보존상태가 아주 좋지 않아 계판이 불가능한 경우는 복제 모각하여 계판하는 방법도 구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화재기록과 화재로 인한 현판류의 훼손을 감안하여 보존 복제하여 계판하고, 원본을 별도 보존 관리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정밀 스캔하여 자료화 해두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돈암서원 현판류 조사보고

돈암서원은 1634년(인조 12) 충청도 연산현 임리에 창건되었다. 1659년(효종 10)에 사액 받았으며,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남겨진 호서지역의 대표적 서원이다.

연산현은 광산김문의 성장과 향촌교화활동, 그리고 金長生(1548-1631)의 등장으로 山林과 禮學의 시대인 17세기 조선 정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또한 그 아래로 걸출한 제자들을 배출하면서 명실공이 기호사림을 영도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그러던 중 김장생이 세상을 떠나자 1632년(인조 10) 충청지역의 20여 군현 사족들이 호응하여 서원 창건을 발의하였다. 창건 시 김장생을 주향으로 하였으며, 1658년(효종 9) 신독재 김집을 추배하였고, 1659년(효종 10) 비로소 ‘돈암’으로 사액 받았다. 이어 1688년(숙종 14)에 송준길, 1695년(숙종 21)에 송시열을 각각 추배하였다. 이때 윤선거의 추향론도 있었으나 박세채, 윤극 등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돈암서원의 건립 유서는 김장생의 강학에서 비롯되는데, 그는 원래 아버지 김계휘가 고운사에 건립한 靜會堂에서 교육 받았다. 당시 정회당「儒案」에 100여 명의 명단이 전한다. 그리고 김장생 또한 1602년(선조 35) 벼슬을 그만두고 낙향하여 雅閑亭의 유지에 養性堂을 건립하여 30여 년간 학문연구와 후학을 양성하였다. 이후 양성당은 그를 추앙하는 각지의 유생들이 내왕하며 강학과 교류를 꾀하는 곳으로 면모를 갖추었다. 당시 양성당을 왕래하던 인물들은 그의 아들 김집을 비롯하여, 송준길, 송시열, 이유태 등 서인의 중진들로 호서산림이 중앙정계에 진출하는데 교두보 역할을 하였다.

한편 김장생은 정묘호란 시 兩湖號召使로서 의병과 군량의 모집에도 활약하였는데, 그가 창의하여 격문을 보내자 호서와 호남의 문인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돈암서원은 이러한 강학과 의병활동, 재지적 기반과 향촌사회에서의 영향력, 그리고 문인들의 광범위한 활동력을 기반으로 건립 된 것이다. 이들은 서원의 건립 당시에도 중앙 정계에 대거 진출해 있었기 때문에, 조정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돈암서원은 원래 연산면 임리 숲 말에 처음 건립되었는데, 서원 서북쪽에 ‘遯巖’이라는 큰 바위가 있어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지대가 낮아 홍수 때마다 서원 뜰 앞까지 물이 차므로 1881년(고종 18)에 이르러 지대가 높은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응도당은 1971년 이전)

돈암서원은 기호에서 김장생 제향 서원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서원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송준길을 시작으로 이유태, 권상하, 이재, 박필주 등으로 이어지는 서원장들의 면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돈암서원을 중심으로 교류와 강론, 서적 출판, 추송활동 등이 활발하게 추진하였으며, 정치적인 협조도 긴밀했다.

1. 돈암서원의 현판 자료

1) 조사 현판목록(표)

堂號	記文	柱聯
凝道堂	養性堂記(1603, 鄭曄)	8매
	養性堂後記(1883, 金尙鉉)	
	養性堂移建記(①, 1971, 宋在晟)	
	養性堂移建記(②, 1978, 金永玩)	
	孔孟程朱之道 …(1988, 金永玩)	
	養性堂題詠	
養性堂(1602)	遯巖書院上樑文(1633, 金尙憲)	6매
	養性堂重修記(1956, 黃澤秀)	
	扶安郡儒林	
	遯巖書院重修記(1955)	
	(무제)書院扶助記	
	(무제)書院扶助記	
	(무제)書院扶助記	
	本院扶助記(甲子)	
	本院扶助記(乙丑)	
	本院扶助記(癸亥)	
	무제(本院扶助記)	
	무제(本院扶助記)	
	養性堂十詠	
	遯巖書院重修記	
	崇慕契員名單(一)	
	崇慕契員名單(二)	
	崇慕契員名單(三)	
	崇慕契員名單(四)	
	養性堂重修補助	
	養性堂重修補助記	
	題凝道堂壁右	
	雅閑亭題詠	
	養性堂記	
靜會堂(韓末, 金禮山)	-	-
藏板閣(韓末)	-	-

堂號	記文	柱聯
遯巖書院(1660)	-	-
山仰樓	山仰樓重建上樑文	12매
	山仰樓重建上樑文解釋	
	浩然之氣	
	吟風弄月	
	謹題山仰樓	
	祝詩山仰樓重建	
기록자료확인	養性堂記(金長生) 遯巖書院講堂上樑文(尹宣舉) (靜會堂)重建記-1 (靜會堂)重建記-2 (靜會堂)重建記-3 (靜會堂)上樑文 藏板閣記 書揭遯巖院儒 題凝道堂壁右	
1950년 이후 당호	崇禮祠 精義齋 居敬齋 慶會堂 入德門 山仰樓	

2) 돈암서원 소장 현판자료(카드)

돈암서원의 당호 현판으로 문루 山仰樓, 入德門(遯巖書院, 1660년, 현종 1), 강당 凝道堂, 養性堂, 靜會堂, 사당 唯敬祠(崇禮祠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등이다. 양성당의 좌우 방에는 居敬齋와 精義齋 현판이 있다. 최근에 중수한 문루 山仰樓에는 吟諷弄月와 浩然之氣이라는 편액과 시판도 있는데 최근의 것으로 보인다.

(1) 堂號

養性堂, 1602년(선조 35) 추정

「養性堂記」에 의하면 사계 김장생이 이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이름을 바꾸어 ‘양성당’이라 하였다. 김장생은 ‘양성’이란 ‘오래도록 힘들여 쌓아온 곳’이라는 의미로 늙더라도 게으르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고자 붙였다고 하였다.

遯巖書院, 1660년(효종 10) 1월, 宋時烈(1607-1689) 추정

‘遯巖’이란 서원 서북쪽에 자리한 커다란 바위를 일컫는 말이다. 『효종실록』 1659년 3월 28일의 기사에 김장생과 김집 등을 제향하는 서원의 편액을 ‘遯巖’이라 내렸다고하였다. 지금의 현판은 尤庵 宋時烈이 쓴 것으로 전해지며, 사액을 받은 이듬해 正月에 쓴 것이다.

凝道堂

‘凝道’란 ‘도가 엉긴다’는 뜻으로 『中庸』의 구절에서 유래한 것이다. 응도당은 돈암서원의 강학활동이 펼쳐진 강당이자 학생들의 학습장이었다.

靜會堂, 한말 이후, 金禮山

정회당은 김장생의 아버지 金繼輝가 1557년(명종 12)에 파직되어 낙향한 후 연산현 벌곡 양산리에서 후학을 양성하던 곳이다. ‘靜會’란 고요히 모인다는 의미로 실제로 이 정회당이 훗날 돈암서원을 건립하는 기

반이 되었다.

藏板閣, 한말 이후

돈암서원 장관각에는 김장생과 김집부자의 문집을 비롯하여, 『喪禮備要』 등 서원에서 발간한 책자의 목판이 보관되어 있다.

崇禮祠, 현대

현재 돈암서원의 중심 건물로 김장생, 김집, 송시열, 송준길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까지는 이 승례사에 ‘遯巖書院(1660년)’ 현판을 걸었었다.

居敬齋, 현대

주자의 학문수양 방법 중 ‘居敬’은 내적 수양을 강조한다. 유생들이 거처하는 곳이다.

精義齋, 현대

서원의 유생들이 거처하며 경전의 의의를 강론하는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慶會堂, 현대

최근에 지어진 건물로 관리인들의 근무공간이다.

入德門, 현대

돈암서원의 외삼문 기능을 한다.

山仰樓(東, 西), 현대

최근 돈암서원 외삼문 밖에 건립 된 누각이다. 높은 산을 우러르는 것과 같이 김장생을 모신다는 뜻을 내포하며, 이는 「양성당기」 내용 중 ‘仰而樂山’에서 취한 것으로 보인다.

(2) 응도당

돈암서원의 기문으로 書揭遯巖院儒(송시열), 雅閑亭題詠, 養性堂記(김장생), 養性堂記(1603년, 정엽 찬), 養性堂後記(1883년 김상현 찬), 憶沙溪先生有感(이유태), 從享遯巖書院(김집), 題凝道堂壁右(유일준), 藏板閣記(1926년, 李商永), 遯巖書院上樑文(1633년, 김상헌), 遯巖書院重修記(1955년 군수 박유진), 遯巖書院重修記(유사 황택수), 養性堂重修記(1956년), 양성당 이건기(1971년, 송재성), 양성당이건기(1978년, 김영완), 산양루중건기(2006년), 산양루중건상량문 등이 있다.

養性堂記, 1603년(선조 36) 4월 8일, 鄭曄(1563-1625)

김장생은 1602년(선조 35) 고향으로 돌아와 양성당을 짓고 鄭曄에게 記文을 부탁하였다. 정엽은 이 글에서 김장생이 양성당을 건립하게 된 사연과 함께 그의 행적을 칭송하였으며, ‘養性’의 의미처럼 학문의 큰 줄기가 이어지기를 기원하고 있다. 김장생은 정엽에게 양성당 주변의 경관을 설명하며 기문을 부탁하였고, 정엽의 기문에도 일부 양성당 주변경관의 아름다움을 소개하였다.

養性堂後記, 1883년 3월, 金尙鉉(1811-1890)

김장생의 9대손 김상현이 지은 기문이다. 응도당(강당)의 현판을 ‘양성당’이라 한 것에 대해, 이는 김장생의 원래 뜻과 이치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양성당의 내력을 이야기 하면서 김장생이 쓴 「양성당 기문」중 경관에 관해 묘사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養性堂移建記, 1971년 7월, 宋在晟

퇴락한 양성당을 1969년 林里에서 현재의 자리로 이진한 사실과 이 일을 주도한 黃敎性, 宋喜燮의 공로를 기록하였다.

孔孟程朱之道 …, 1988년, 40 × 100, 金永玩

후손 金永玩이 돈암서원의 연혁과 의미, 사계 김장생의 행적 등을 기록하였다.

養性堂題詠, 45 × 120

돈암서원의 연혁과 양성당 창건기록, 국내 명사들의 시문을 모아 쓴 것이다. 내용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전계조어」, 「후훈탁족」, 「계룡방은」, 「대둔심승」, 「매소명월」, 「죽오청풍」, 「연지취우」, 「유정취연」, 「횡사담경」, 「임정관덕」 등을 기록하였다.

(3) 양성당

遯巖書院上樑文, 1633년(인조 11) 3월, 金尙憲(1570-1652)

돈암서원 건립 당시 대들보를 올리면서 쓴 글로, 이 서원이 유학의 전통을 잇고 수많은 학자와 선비들을 배출하기를 기원하고 있다.

養性堂重修記, 1956년, 黃澤秀

오래되고 낡은 양성당을 김장생의 11대손 金千洙가 주도하여 중수하게 되었음을 기록한 글이다. 당시 충남 고적현창회의 기금 조성 내역과 중수사실이 기록되어 있어 당시 건물의 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자료이다.

扶安郡儒林, 20세기

전라북도 부안군 내 유림들의 부조록이다. 성명과 거주지 부조금액을 나열하였다.

遯巖書院重修記, 1955년, 朴有鎭, 『돈암서원지』(1958년) 수록

1955년 새롭게 돈암서원을 중수하면서 쓴 기록이다.

(무제) **遯巖書院扶助錄**, 20세기

열읍의 유림들이 부조한 목록이다. 성명과 거주지, 부조금액 등을 기록하였다. 거주지는 연산을 비롯하여 부여, 공주, 사천, 함양, 순창, 담양 등 다양하다.

(무제) **書院扶助記**, 1924년 7월, 金在夏

돈암서원의 부조인을 기록한 현판이다.

本院扶助記(甲子), 1924년

열읍의 유림들이 부조한 목록이다. 성명과 거주지, 부조금액 등을 기록하였다. 거주지는 연산을 비롯하여 금산, 담양, 나주, 익산, 강진 등 다양하다.

本院扶助記(乙丑), 1925년

열읍의 유림들이 부조한 목록이다. 성명과 거주지, 부조금액 등을 기록하였다. 거주지는 연산을 비롯하여 금산, 담양, 남원, 나주, 익산, 강진 등 다양하다.

本院扶助記(癸亥), 1923년

열읍의 유림들이 부조한 목록이다. 성명과 거주지, 부조금액 등을 기록하였다. 거주지는 연산을 비롯하여 금산, 담양, 남원, 나주, 익산, 강진 등 다양하다.

무제(本院扶助記), 20세기

열읍의 유림들이 부조한 목록이다. 성명과 거주지, 부조금액 등을 기록하였다. 거주지는 연산을 비롯하여 금산, 담양, 남원, 나주, 익산, 강진 등 다양하다.

무제(本院扶助記), 20세기

열읍의 유림들이 부조한 목록이다. 성명과 거주지, 부조금액 등을 기록하였다. 거주지는 연산을 비롯하여 익산, 정읍, 부여, 영암 등 다양하다.

養性堂十詠, 李端夏 외

김장생은 雅閑亭에 걸린 시들을 읊조리기도 하고, 스스로 당시 名士들의 작품을 구해 새겨 놓는 등 시를 즐겼다. 養性堂에도 많은 사람이 시를 남겼으나, 이 현판에는 가장먼저 松礪 李端夏가 지은 것(五言)이 소개 되었다. 다음은 黃赫의 글(五言)이며 세 번째는 당대의 문장가 張維, 마지막 제영은 梁慶遇(七言)의 글이다.

崇慕契員名單(一), 20세기

돈암서원 숭모계원의 명단과 거주지 기록이다. 대부분 연산에 거주하며, 논산, 공주, 대전 등에 거주하는 계원도 일부 확인된다.

崇慕契員名單(二), 20세기

돈암서원 숭모계원의 명단과 거주지기록이다. 대부분 연산에 거주하며 광산김씨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崇慕契員名單(三), 20세기

돈암서원 숭모계원의 명단과 거주지기록이다. 대부분 연산에 거주하며, 논산, 공주, 대전 등에 거주하는 계원도 일부 확인된다.

崇慕契員名單(四), 20세기

돈암서원 숭모계원의 명단과 거주지기록이다. 서천, 서울, 대전 등 거주지가 다양하다.

養性堂重修補助, 1927년

논산군 채운면 하리에 거주하는 申錫順이 양성당 중수 시 보조한 기록이다.

養性堂重修補助記, 1927년

양성당 중수 시 기금을 낸 사람들의 성명, 거주지, 금액을 기록한 것이다.

題凝道堂壁右, 1903년 10월, 俞一濬

서원운영에 관한 기금 등을 모으는 절목 등을 기록하였다.

雅閑亭題詠, 1881년, 金國光 外, 崔昌煥

아한정에 관한 여러 시를 모아 놓은 것이다. 金國光, 申叔舟, 宋翼弼 등의 시가 있다.

養性堂記, 1602년, 金長生 書

1602년 김장생이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임리에 건립된 양성당을 기념하여 지은 기문이다.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雅閑亭 터에 김장생이 건립한 양성당에 대한 기문으로, 유고집『沙溪先生遺稿』권5에 수록되어 있다.

(4) 산양루**山仰樓重建上樑文, 2006년 10월**

외삼문 밖으로 산양루를 중건하면서 지은 기문이다. 돈암서원의 간단한 역사와 산양루를 건립하게 된 배경 등을 기록하였다.

山仰樓重建上樑文解釋, 2006년 10월

외삼문 밖으로 산양루를 중건하면서 지은 기문이다. 돈암서원의 간단한 역사와 산양루를 건립하게 된 배경 등을 기록하였다.

浩然之氣, 2006년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넓고 큰 원기.『맹자』의 상편에 나오는 말이다.

吟風弄月, 2006년

바람을 말하고, 달을 바라보고 즐긴다.

謹題山仰樓, 2007 8월, 田光弘

산양루를 읊은 시이다.

祝詩山仰樓重建, 현대, 池載熙

산양루 중수를 기념하는 祝詩이다.

(5) 주련

凝道堂柱聯, 6매(4연 8구)

범준(范浚)이 지은 심잠(心箴)의 일부분으로 마을을 다스리면 천지에 함께 할 수 있다 하여 경계와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다.

養性堂柱聯, 6매(3연 6구)

朱子의 경계잠(敬齋箴)에서 골라 낸 글로 복장과 행동을 신중히 하고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면 세상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山仰樓柱聯, 12매(6연 12구)

소강절(邵康節)의 「세한(歲寒, 1-4구)」과 「청야음(淸夜吟, 5-8구)」을 걸어두었으며, 9-12번째의 주련은 돈암서원의 번성을 기원하는 내용이다. 어려움이 있어도 지조와 절개를 지킬 것이며, 고요한 자연 속에서 천지의 이치를 깨닫고자 하는 내용이다.

2. 문헌기록에서 확인되는 현판 자료

1) 養性堂記, 1602년(선조 35), 金長生, 『사계선생유고』, 『돈암서원지』(1958년) 수록

김장생은 임진왜란 이후 자신의 백조부 金錫이 지은 雅閑亭의 옛 터에 양성당을 건립하고 이를 학문하는 장소로 삼고자 하였다. 기문에는 당시 김장생의 양성당 건립 과정과 연원, 그리고 대둔산과 계룡산을 비롯한 양성당 주변 원근의 자연경관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미 아한정에 걸려 있었던 先祖 政丞公과 여러 명인들의 작품들이 임진왜란으로 정자와 함께 타버린 것을 무척 아쉬워하고 있다. 이 기문에서 당시 김장생은 양성당을 새로이 하고, 다시 시를 구해 새겨 붙였다고 하였다. 한편 인근 공주의 청송심씨가에는 「雅閑養性二亭題詠」(1631년)이 전하고 있어, 당시 이 두 정자에 걸렸을 제영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¹

2) 遯巖書院講堂上樑文, 조선후기, 尹宣學(1610-1669), 『노서유고』 수록

김장생의 문인 尹宣學가 쓴 강당상량문으로 김장생의 행적과 학문의 깊이를 칭송하고 서원강당을 건립하는 경위를 기록하였다.

3) (정회당)重建記, 1883년, 金尙鉉, 『정회당지』(1909년 간행) 수록

돈암서원의 이건 이후 1883년 金繼輝의 10대손 세자좌빈객 김상현이 작성한 정회당 중수기이다. 황강 김계휘로부터 시작 된 정회당의 위치와 유서 등을 밝히고 있다.

4) (정회당)重建記, 1883년, 宋秉璿, 『정회당지』(1909년 간행) 수록, * 원문확보

5) (정회당)重建記, 1887년, 金洛鉉, 『정회당지』(1909년 간행) 수록

1. 아한정은 세조 때 지어진 崔淸江의 別業으로 병란에 소실되었으나, 金國光, 申叔舟, 宋翼弼, 金殷輝가 지은 제영만은 남아 있다. 양성당에 관련된 제영으로는 金尙容, 鄭曄, 申欽, 金尙憲, 李廷龜, 張維가 지은 것이 있다.

6) (정회당)上樑文, 1883년, 李憲永, 『정회당지』(1909년 간행) 수록

7) 藏板閣記, 1926년, 李商永, 『돈암서원지』(1958년) 수록

1926년 새롭게 장판각을 중수하면서 쓴 기록이다. 돈암서원 장판각 내에 소장 된 『沙溪全書』의 각종 서책 판각의 수량과 내역을 함께 기록하였다.

8) 養性堂題詠, 1636년(선조 14), 金棐

돈암서원의 연혁과 후에 養性堂을 건립한 일에 대하여, 국내 명사들의 시문을 게액한 글을 모아 만든 것이다. 김장생의 막내아들 김비가 후세에 제영이 없어질까 염려하여 만든 것이다. 제영은 사계 10영, 즉 前溪釣魚, 後澗濯足, 鷄龍訪隱, 大芑尋僧, 梅梢明月, 竹塢清風, 蓮池驟雨, 柳汀炊煙, 黌舍談經, 林亭觀德의 글을 다루고 있다. 돈암서원의 연혁과 변화과정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

9) 書揭遯巖院儒, 宋時烈, 大字筆帖, 『송자대전』권135, 『돈암서원지』(1958년) 수록

3. 돈암서원의 주요 현판



1) 遯巖書院(1660, 宋時烈 추정) : 돈암서원은 1659년 3월 28일 ‘遯巖’이라 사액받았다. 이 현판은 사액 받은 이듬해 정월에 내려진 것으로 尤庵 宋時烈이 쓴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현재는 외삼문(입덕문) 바깥쪽에 걸려 있는데, 이는 계관위치가 매우 잘못 된 것으로 격에 맞지 않다.

2) 養性堂記(1603년, 鄭曄) : 「양성당기」는 1603년(선조 36) 정엽이 쓴 것으로 현존하고 있는 돈암서원의 현판 중 가장 이른 것이다. 김장생은 55세가 되는 1602년, 아한정의 옛 터에 양성당을 세우고 강학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현판에는 김장생이 양성당을 건립하게 된 정황을 기록해 놓아 이를 통해 돈암서원의 연원이 되는 양성당의 연혁을 정리할 수 있다. 또한 정엽은 김장생에게 직접 들은 양성당 주변의 경관을 묘사해 두었는데, 이 부분은 당시 돈암서원 주변의 경관을 복원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만하다.



3) 養性堂後記(1883, 金尙鉉) : 돈암서원은 잦은 홍수로 인해 1881년(고종 18) 지금의 위치로 이건하였다. 다만 응도당 만은 원래의 위치에서 이건하지 않았는데, 당시 응도당을 ‘양성당’이라 한 것에 대해, 이는 김장생의 원래 뜻과 맞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이 현판에서는 서원의 이건 당시 정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찬자는 김장생의 9대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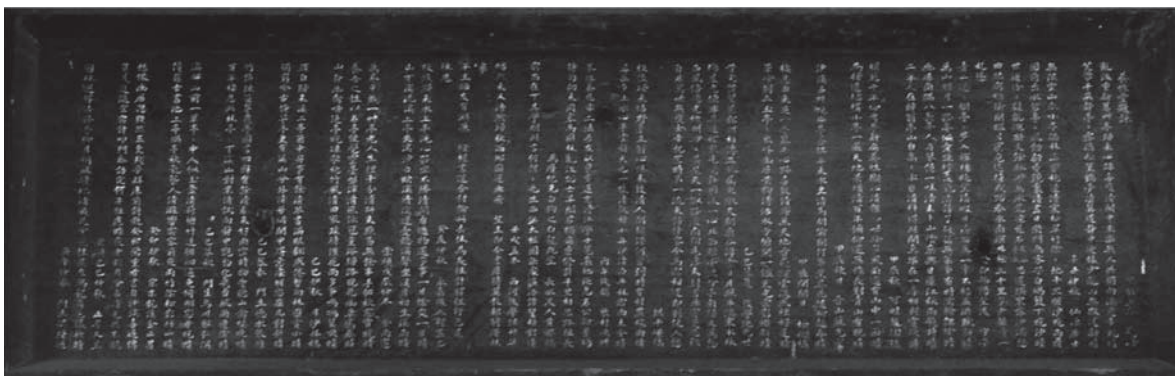
이 외에도 돈암서원에 현존하지는 않지만 기록으로 전해오는 현판에는「養性堂記」(1602, 金長生),「遯巖書院講堂上樑文」(尹宣學), 그리고「養性堂題詠」(1636, 金集)등이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돈암서원의 각 부속건물에 계판 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나, 현재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 역시 돈암서원의 연혁과 건물의 중수, 역사적 사건과 관련 된 각종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기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養性堂記(1602, 金長生): 돈암서원의 건립 이전 양성당에서 이루어진 강학활동과 건립경위, 주변경관 등을 가장 상세하게 기록한 자료이다.



5) 遯巖書院講堂上樑文(尹宣學): 尹宣學은 김장생의 문인으로 훗날 소론의 영수 尹拯의 아버지이다. 그는 돈암서원에서 김집, 송시열, 이유태, 유계 등과 깊이 교류하였다. 노·서의 대립구도가 첨예해지기 이전 돈암서원을 중심으로 긴밀했던 호서산림의 활동일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현판은 현존하지 않으며『노서유고』에 수록되어 있다.



6) 養性堂題詠(1636, 金槴) : 김장생은 그가 쓴「양성당기」에서 ‘정자에는 옛적에 판각하여 걸어 놓은 詩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바로 우리 선조 政丞公이 쓴 시이다.’라고 하여, 이전부터 양성당에 각종 시문이 계판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다시 김장생의 막내아들 김비가 정리하여 엮은 것으로, 돈암서원의 연혁과 관련인물, 학맥 등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

4. 조사결과(제언)

돈암서원은 그 역사적 중요성과 위상에 비해 관련 기록 자료가 부족한 형편이다. 서원의 현판자료 역시 타 서원에 비해 현존하는 유물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물론 원래는 이보다 더 많은 현판이 계판 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나, 임진왜란과 같은 병화 등으로 인해 상당수가 유실된 것으로 여겨진다.

다행스러운 것은 서원의 건립시기에 작성된 당대의 기록에, 일부나마 이전에 사라진 현판에 관한 내용이 남아 전하고 있는 점이다. 김장생이 쓴「양성당기」중 ‘정자에는 옛적에 판각하여 걸어 놓은 詩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바로 우리 선조 政丞公이 쓴 시이다.’라고 한 부분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유실된 각종 현판을 당대에 복원, 또는 새로 계판하지 않은 점은 한편으로 아쉬운 점이다.

금번의 현판조사는 이러한 자료의 중요성을 조명하고, 활용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한 기초조사이다. 돈암서원의 경우에도 각종현판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서원의 건립의 유서와 각 건물의 연혁, 그리고 당시 서원주변의 경관까지도 복원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돈암서원 고유의 사상적 특생이나 교류인사들의 면면도 확인할 수 있다.

서원 교육

서원은 16세기에서 19세기 중엽에 걸쳐 조선조의 중요한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사림에 의해 설립된 사설 교육기관이지만 관학에도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선현을 제사하는 장소로도 역할을 했는데, 이 또한 선현의 학문을 본 받고 계승하여 자신의 학문을 닦고자한 사림들의 교학적 관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전통 서원의 교육적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 ① 서원은 지방 최고 지성인들이 교류하며 강론과 토론을 통해 성리학 발전에 기여했다.
- ② 서원은 지방(지역)에 위치하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강학과 제향의례, 향약의 보급을 통해 향촌 사회를 교화시켰다.
- ③ 서원은 원생들의 교육문고로서 도서의 보존역할과 서적 출판을 담당하여 지식의 보급에 힘썼다.

서원의 교육은 요즘의 학칙이라 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제정한 원규에 의하여 수행되었습니다. 원규에는 서원의 입학자격, 교육목표, 별칙조항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서원의 교육활동은 나라의 통제 밖에 있었고, 사림들의 성향과 각 지방의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설립 의도나 교육목표가 성리학에 바탕을 두었으므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① 교육목표

서원의 교육목표는 성인을 본 받는다는 ‘법성현(法聖賢)’과 ‘관인양성(官人養成)’이다.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성현을 본 받고자 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동시에 관계 진출을 위한 과거 준비교육도 겸해 현실적인 측면도 중요시 했다.

② 교육내용

교육은 성리학적이고 도학적인 내용이 주를 이뤄 학문을 위한 학문이 진행되었다. 소학과 가례를 입문으로 삼고 사서오경을 근본으로 삼았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과거 응시에 필요한 사장(詞章)도 교육과정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서학(西學) 등 이단시되는 서책이나 음사·벽사 등의 내용은 철저히 금하였다.

③ 교육방법

교육방법은 암기보다는 문리를 깨치는 것을 중시하는 개인 중심 교수방법을 택했다. 실천적 도덕교육도 강조했다. 교육평가는 구두(句讀)에 밝고 설명에 막힘이 없어서 책의 취지를 잘 알고 있는 척도에 따라 4~5단계로 나누었다. 오늘날의 서원은 퇴락해 보이고, 유학의 본산, 전통제례를 지내는 정도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현대 건축의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고, 첨단을 달린다는 지금 사회에서 “한국 서원의 현대적 계승과 활용”이라는 주제의 이번 학술대회는 ‘이게 뭐지, 어떻게 해야 하나,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특히 ‘서원 교육의 현대적 계승과 활용’ 발표의 토론자로 나서 마음이 무겁기까지 합니다. 전통과 현실, 이론과 실제의 관계는 역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발표자의 고견을 듣기 위해 몇 가지 질문

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 전통적인 서원의 교육기능과 교육활동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여러 서원에서 답사를 통한 현장학습, 충·효 교육, 선비교육, 예절교육, 무예교육, 한문학당, 공무원 청렴교육, 다도 배우기, 백일장 개최, 문화재(서원) 그리기 대회, 민속놀이 경연 등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운영을 잘하는 서원이 있는 반면, 대부분의 서원에서는 일회성 행사에 그친 경우가 많습니다. 발표자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발전방향이 있다면?

2. 서원교육 활용을 위한 전문교육자의 문제입니다. 현재의 서원 구성원(임원, 원임)으로 교육대상자에게 만족할만한 활용교육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라면 전문교육자 양성 등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3. 선택과 집중, 그리고 재원의 문제입니다. 전라남도에는 장성 필암서원을 비롯한 국가지정문화재와 다수의 도지정문화재 서원이 있고, 또한 향교와 문화원 등에서도 비슷한 교육 활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교육을 할 수 없을 터인데, 각 서원, 향교와 문화원을 상대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과 소요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 것인지?

4.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인 「생생 문화재 사업」은 ‘문화재 알고 찾고 가꾸기’ 일환으로, 교육을 통해 보존의 필요성을 깨우치고, 동시에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보존중심의 문화재를 더욱 재미있게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활용에 역점을 두고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꼈던 점과 행정기관에 건의하고 싶은 것 등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월봉서원 강기욱 선생님의 발표는 현재 시설공사중인 남계서원이 추구해야 할 한 방향을 얻음으로써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이해를 돕고자 남계서원의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함양읍(군청)에서 약 6km거리인 수동면 원평리에 위치한 남계서원은 일두 정여창선생을 제향하는 공간으로 남명 조식선생의 문도인 개암 강익선생의 주도로 1552년(명종7년)에 지어져 1566년(명종21년)에 남계서원으로 사액되었으며, 배향선생은 일두 정여창(1566년) 동계 정온선생(1675년 숙종원년), 개암 강익선생(1698년 숙종15년) 세분입니다.

현재의 건물은 총 2만여평의 부지에 외삼문인 준도면(풍영루 누각), 강당인 명성당, 동서재인 양정재, 보인재, 내삼문 및 사우, 전각 및 비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옆에 고직사가 있습니다.

서원의 교육 및 체험을 위한 별도시설은 없으나 현재 공사중인 한옥 6개동(소규모 건물)으로 계획되어 향후 2년내 완비될 것입니다.

현재 서원의 연간 소요예산은 1천5백만원(군 지원금 4백만원)정도로서 추, 향사 및 원회2회의 행사와 제세비용을 감안하면 여타한 일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읍내에 있는 함양향교나 현대식 시설이 잘 갖춰진 함양군 유도회 회관에서는 자체재정과 군 지원행사로 서 년 중 기획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반적 교통환경이나 시설환경이 잘 갖춰진 두 유림단체 행사는 각계의 관심으로 성황리에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월봉서원에서 진행중인 제반 행사 프로그램이 저희로서는 한옥체험동이 완공되어 운영되기 전 관계기관 과 협의를 조정하고 준비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쭙고자 합니다.

- ① 서원이 갖는 정적인 공간으로서 숙박 등이 아닌 2-3시간 옛 공간을 산책하고 향기를 느끼는 조용한 서 원으로서는 시대에 뒤떨어지는지?
- ② 서원교육, 체험 행사는 해마다 개최하는 지속성이 있는 교육행사인지?
- ③ 행사의 주체는 서원인지? 군청(또는 문화재청)지원사업인지?
- ④ 교육(행사)에 지역유도회, 향교등과 연관성,중복성은 없는지?
- ⑤ 교육시설,체험동이 있다면 실제적 관리주체는 어떻게 하는지?

현재 주변정비공사로 공사현장 속에 있는 저희 남계서원이 앞으로 갈 방향을 제시해준 월봉서원 강기욱 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저희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참다운 서원으로서의 역할이 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2013 국내 학술대회
“한국 서원의 현대적 계승과 활용”

서원 교육

2013. 4.

강기욱(광주 월봉서원)

가. 서원 교육 의미

1. “서원”을 교육하다?
2. 유학경전 내용을 가르치다?
3. 서원이 품은 꿈을 나누다?



지금 여러분 서원은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나. 현 서원 교육 모습

“현 근대교육을 그대로 답아 있다: 단절과 고립, 괴리”

- 교육자, 피교육자간 거리(위계 고착화)
- 지역사회와 단절, 고립
- 교육 내용과 삶과 괴리



“접매기만 덩그러니, 혹은 화려하게 남다!”

나-1. ‘심청전’에 내포된 본질이야기

-‘효(孝)’에 가려진 진실은?



지금 서원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 서원은 꿈(Dream)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서원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현재진행형

“애일(愛日)”

“빈당익가락(貧當益可樂)”

“전통과 현실”

다-1. 애일(愛日)

：“하루하루를 아끼고 사랑하라”

‘애일당’ 당호를 지닌 곳
-능암 이현보 종택 별채
-허균의 외가 터
-고봉 기대승 후손 고택



‘하루’가 지닌 적극적인 의미!

다-2. 빈당익가락(貧當益可樂)

：“가난할수록 더욱 즐길 수 있어야 한다”(퇴계 이황)

-논어 학이편 15장에 나오는 ‘가난하면서도 즐겁게 사는 것(빈이락, 貧而樂)’에서 유래

-고봉 기대승의 ‘낙암(樂菴)’.



貧, 樂과 현재의 힘

다-3. ‘전통과 현실’

-고봉학술원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명

-한 치의 어긋남이 없는 과거-현재-미래 상호관계성



일체(원)론=영원성

라. 서원 교육 당면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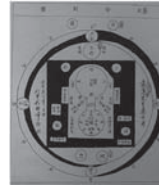
물성(몸, 감정, 자연, 실천 등)회복
관계성 회복



당대 지성의 최고 정원,
계산풍류가 살아 숨쉬는 품격과 위상 회복!

라-1. 성리학의 핵심

“하늘(天), 땅(地), 사람(人)의
이치를 깨달고 조화로운 세계를 구하는 것.”



라-2. 고봉기대승 선생 사상적 핵심

“氣”

<속성>
- 스스로 발하다.(=자기힘, 자가생산)
- 역동적이다.(=운동, 변화)
- 계성적이다(=공유하다)

마-1. 서원 (Dream) 교육 향후 대안¹

머리가 아닌 몸과 마음으로
체화할 수 있는 ‘자연스러움’과 ‘부드러움’ 본질 회복

- 자신의 신체 시간을 알아보는
‘초속 5센티놀이’



마-2. 서원 (Dream) 교육 향후 대안²

서원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마을이나 지역사회와
의 적극적 결합이 요구됨

- 지역아동센터와 함께한
21세기어린이선미교실



마-3. 서원 (Dream) 교육 향후 대안³

현 시대 담론과 이슈를 생
생하게 만날 수 있는 매력
적 인문주강당으로 자리
매김

- 삼룡드림봉



마-4. 서원 (Dream) 교육 향후 대안⁴

시민들의 자발적 문(文),
사(史), 철(哲) 모임 및 활동
활성화

- 월봉서원 달빛사랑방



바. [참조]문화재청 문화재생생사업

광주월봉서원
프로그램 자료

2008. ~ 2010.

2009문화재生生+활용프로그램
“2009설레는 발걸음, 월봉서원에서 무양서원까지”

사진촬영:
달인 판화지아
고봉 김서진



2009문화재生生+활용프로그램
“2009설레는 발걸음, 월봉서원에서 무양서원까지”

사진촬영:
함소년 철학지기 투어
월봉서원 철학스태이



2010문화재生生+활용프로그램
“고봉선생이 띄우는 미래로의 초대”

■ 상징적, 대표적 문화콘텐츠
개발
■ 차별화된 교육문화프로그램
유지 및 확장
■ 교육&문화 콘텐츠 개발

- 월봉서원 드라마 판화지아(Drama Fantasia)
 - 서원 체험과 연극과의 결합
 - 당시 인물과 시대를 재현한 서원에서 '입장 관객 모두가 배우로 참여하는' 대형 참여 연극 마당
- '광산 500년 역사 초대장을 찾아서'
 - 광산구 문화재 투어 및 문화 놀이 체험 프로그램의 결합
 - '월봉서원 드라마 판화지아' 초창장 최옥 미선 극명 발의
- 월봉서원 교육 문화 프로그램 운영
 - 월봉서원 철학스태이
 - 이야기가 있는 월봉서원 놀이(철학놀이투어)
 - 21세기 어린이 선비교실
 - 영초남 선비문화교류 프로그램
- 월봉서원/고봉 기대승 교육&문화 콘텐츠 개발
 - 월봉서원 홈페이지 구축
 - 월봉서원 교육용 안내 가이드북&홍보 팸플릿 제작
 - 고봉 기대승 연극 창작 및 교육용 DVD제작

2010문화재生生+활용프로그램
“고봉선생이 띄우는 미래로의 초대”

사진촬영:
광산500년역 사독어



2010문화재生生+활용프로그램
“고봉선생이 띄우는 미래로의 초대”

사진촬영:
월봉서원 드라마 판화지아



2010문화재生生+활용프로그램
“고봉선생이 띄우는 미래로의 초대”

사진촬영:
21C어린이선비교실
영초남편대문화교류



문화재生生프로그램 홍보물



감사합니다.

월봉서원
www.wolbong.org

도산서원의 교육과 활용 사례

1. 들어가면서

서원은 조선시대 사림(士林)의 활동기반이며 근거지였고 국가 경영과 사회 운영을 논하는 경륜을 펼친 곳이며, 조선 시대의 지배 계층인 유가(儒家)에서 갈무리 되어 온 사림문화를 꽃 피운 곳이다. 그러므로 서원에는 조선시대 유교문화의 핵심이 되는 양반사회와 그들이 펼친 정신문화가 오롯이 담겨 있다. 서원은 한국사회에 유교 도통(道統)의 계보를 정착시켰다. 서원을 중심으로 주희의 예학(禮學)을 한국사회에 적합한 형식으로 변형시켜 고유의 예문을 확립 발전시켰으며, 인격의 완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도학적 학문 전통을 내재화하였다. 지식을 권력이나 세속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적 가치로 삼지 않고, 인(仁)의 실현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얻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하는 전통을 확립하였으며 조선 사회의 사림 집단이라는 지식 공동체를 성립 발전시켰다. 나아가 서원은 안으로는 덕성의 실현, 밖으로는 국가의 공동의 선을 실현하는 공간이었다. 또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이 추구하는 극기복례(克己復禮)와 천인합일(天人合一)을 체득하기에 적합한 터를 선택하고, 주변경관과 조화하는 독특한 외부와 내부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한국의 서원은 서원 관련한 동아시아 문화유산 중에서 가장 완비된 형태로 재현되는 제향 의식(儀式)을 오늘날까지 행하고 있다. 또 지역 내 인적(人的)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문화 활동의 구심체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나아가 서원은 서적과 판본의 유통과 확산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각 서원에는 서적을 간행하기 위해 제작한 목판과 서적이 잘 보관되어 있다. 따라서 서원은 조선시대 선비의 학문성과 도덕적 실천성 그리고 지역 문화의 역사성과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역사, 교육, 제향 의례, 기록문화 등)까지 고루 갖추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며 설립된 한국의 서원이 지닌 탁월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드러내고 전세계 인류가 공동으로 지켜가기 위해서 추진하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는 우리문화에 대한 자긍심이자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 민족의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서원을 중심으로 축적된 유교문화는 현대 산업사회가 되면서 그 가치가 폄하되고 왜곡되었으며 굴절되었다. 또 유교는 비현실적이고 비실용적이며 전근대적인 모든 것의 원천인 것처럼 매도되기도 했다. 특히 조선시대 500년 동안 뿌리 깊었던 당쟁과 이에 기인한 유교망국론에 이르면 유교는 분열, 배타, 혈연, 보수 등의 원천인 것처럼 평가되었다. 이는 일제식민지 치하의 문화정책과 한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의 급속한 사회변화를 겪으면서 더욱 가속화 되어 유교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상태에서 우리문화는 굴절되고 문화의 깊이와 폭이 축소되었다. 하지만 유교는 21세기 글로벌화된 지구촌이 직면하고 있는 계층간의 갈등과 도덕적 해이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해 낼 대안이 되고 있다. 유교적 이념이 국가통치의 근본이 되었던 조선시대는 ‘도덕과 지성’이 존중되는 사회였다. 조선 500년의 역사가 남긴 유교문화는 현대 인문학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신문화의 깊이와 기록문화의 방대함, 현실적 인문학을 위한 실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서원이 중심이 되어 꽃 피운 유교문화는 도덕성과 학문적 사회실천성을 겸비한 지성집단이 정치적 문화적 중심이 되어 활동하면서 건강한 비판과 통합의 리더십을 통해 민중의 대변자 역할을 수행했다. 그 중심에 도학으로 무장한 선비들의 처사적 삶은 오늘날 지식인들에게 귀감이 되며 시민들에게 올바른 삶의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문화적 지향점을 보여 준다. 조선의 선비들은 인생의 거취문제에 있어서 ‘출

처지의(出處之義)’를 가장 중시했다. ‘출’은 출사(出仕)를 의미하고, ‘처’는 사직하고 물러나 은거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퇴계를 정점으로 하는 영남학맥을 지탱해 온 선비들에 있어서 출처의 도리는 그들이 추구한 학문적 이상을 실천하는 바탕이 되기도 했다. 그들은 숨거나 나타남에 있어서 그것이 의리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또한 도리로 보아 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헤아렸다. 대의에 맞으면 벼슬길로 나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물러나 쉬었다. 그런데 낙향하여 쉬는 일도 세상에 나아가 벼슬하면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 일하는 것 못지않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것 역시 명분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즐긴 ‘휴’의 시간은 인위적 허식을 벗고 인간의 근원적 행복을 찾는 창조적 쉼의 시간이었으며 그 중심에 그들이 펼쳐내고자 했던 도덕적 이상을 학문적으로 실천하고자 했던 서원이 있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선비의 학문성, 도덕적 실천성, 개성을 보여주며 지역문화의 역사성과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

도산서원은 퇴계 선생의 학문적 성찰과 유교 도통을 확립하고, 성리학이 추구하는 극기복례(克己復禮)와 천인합일(天人合一)을 체득하기에 적합한 터를 선택하고, 주변경관과 조화하는 독특한 외부와 내부공간을 구성한 모범 답안과도 같은 곳이다. 퇴계선생께서 도산서당을 창건하여 후학을 양성했던 자리에 선생 사후 유림과 제자들에 의해 사당인 상덕사와 강학공간인 전교당과 동재[博約齋]와 서재[弘毅齋] 등과 같은 서원 건축물들이 갖추어지고 이듬해에 사액을 받음으로써 퇴계선생의 학문적 성찰과 제향의례가 오늘날까지 440여년을 끊이지 않고 이어져오고 있다. 이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우리 서원이 지닌 단절되지 않은 가치이다.

도산서원은 퇴계가 지어 후학을 양성하던 도산서당과 농운정사의 영역과 퇴계사후에 건립한 도산서원의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퇴계는 한서암 건너편 초당골에 서재로도 쓰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학당으로 쓰기 위해 서당[溪堂]을 지었다. 이때부터 퇴계는 필생의 낙이자 소원인 오업(吾業)에 매진한다. 퇴계에게 있어 오업은 ‘학문하고자 하는 착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책에서 성현을 만나 배우고 제자를 길러 군자를 만든다. 그 군자들이 세상을 바로 이끌어 주는 것’이야말로 퇴계의 소원이요 즐거움이었다. 계당은 퇴계와 율곡이 사제의 정을 나눈 유서 깊은 집이고 도산서당의 시작이다. 또 퇴계가 소원한 오업의 시작이고 본격적인 교육사업의 개시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제자들은 계당의 비좁음을 들어 도산에 터를 마련하고 옮길 것을 여러 차례 청하였다. 퇴계는 여러 차례 제자들의 간곡한 청에도 불구하고 계상서당을 고집하였으나 끈질긴 제자들의 소청을 끝내 만류하지 못하고 도산으로 나아가 보니, 도산의 여러 언덕, 남쪽 강변, 흰구름이 깔려 있는 산골, 길가의 바위, 새소리, 아름다운 꽃과 풀, 바위와 숲의 아름다움에 취했다. 퇴계는 평생을 찾던 학문할 곳이 바로 여기다 기뻐하며, ‘계남에 도산이 있을 줄이야. 이렇게 가까이 두고도 몰랐으니 정말 이상도 해라! (溪南有陶山 近祕良亦怪)’는 시를 남겼다. 이때가 1557년 3월이었다.

퇴계는 착한 사람을 많이 만들기 위해 험로 밭을 가는 일을 도산서당에서 실현했다. 퇴계는 성현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체험을 통해 얻은 철학과 사상이론을 알기 쉽게 풀이해서 강의했다. 도산서당은 퇴계 학문의 실험장이고, 군자가 되는 도의생활의 수련장이며, 도산문도의 학습 강당이었으며, 나아가 16세기 우리나라 철학연구의 본산인 동시에 참된 학문연구의 전당이였다. 선생께서 ‘평생사업’으로 실천한 교육사업은 시대를 넘어 오늘날까지 단절되지 않고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 글은 도산서원 설립 이후 단절되지 않은 가치인 교육사업에 대한 현황을 사례발표하기 위해 준비한 글임을 밝혀둔다.

2. 도산서원 현황

1) 연혁

- 1561년(명종16) - 陶山書堂, 隴雲精舍 創建(退溪)
- 1570년(선조 3) - 退溪先生 易簣(12月 8日, 享年 七十)
- 1574년(선조 7) - 陶山書院 建立(儒林 發起)
- 1575년(선조 8) - ‘陶山書院’ 賜額/偏額 韓石峯 筆
- 1610(광해 2) - 先生 文廟從祀,
- 1614(만력42) - 月川 趙穆 從享
- 1792년(정조16) - 科擧試驗 陶山別科 施行(試士壇)
- 1963. - 尙德祠/ 典教堂 國家寶物 指定
- 1969. 5. 28 - 史蹟 第170號 指定 (面積 :324,945㎡)
- 1970. - 淨化事業 竣工式 舉行, 朴正熙大統領 紀念植樹
- 1977. 1. 1 - 陶山書院管理事務所 設置
- 1999. - 金大中大統領 陶山書堂, 隴雲精舍, 玉振閣 觀覽
- 2001. - 附設 선비文化修鍊院 開設
- 2002. - 婦女子 尙德祠 謁廟 許容
- 2003. - 古典籍 및 木板類 韓國國學振興院 寄託
- 2009. - 書院儀節 午時(11시) 奉行 變更
- 2011. 4. 20 - 陶山書院 선비文化修鍊院 竣工
- 2012. 1. 10 - UNESCO 世界遺産 暫定目錄 登載
- 2012. - 孔子·孟子 奉祀官 一行 春享祀 參禮

2) 관리방식

- 서원 운영·존현의례 봉행 : 운영위원회
- 양사(인성함양) :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 시설관리 : 안동시(관리사무소 운영)
- 고전적·목판보존 연구 : 한국국학진흥원

3) 관람객(최근 5년간, 단위 : 명)

구 분	연평균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248,407	229,925	243,867	278,944	251,000	238,300
선비문화수련	11,259	3,912	6,242	12,312	13,389	20,438
알묘객	360	330	353	412	363	343
관광객	236,562	225,470	237,048	265,985	237,021	217,289
공무 등 기타	226	213	224	235	227	230

4) 운영조직

(1) 당회

- 정원: 없음,
- 구성: 전현임사(前現任司) 등
- 임무: 최고의결기구, 규정 제정 및 개정 등 중요사안 의결

(2) 운영위원회

- 정원: 13명
- 구성 및 임무
- 위원장: 1명. 제반운영사항 총괄.
- 위원: 7명. 예결산, 임사후보자, 중요사안 및 당회 상정안건 심의
- 감사: 2명. 운영위원회 업무감사
- 상임위원(별유사): 3명. 존현의례봉행, 위원회실무처리, 위원장 보좌.

3. 도산서원 교육과 활용

1) 교육활동

(1) 부설 양사(養士) 기구

구분	설립	법인격	목적	대상	방법	2012년말 누적실적	2013년 계획
선비문화 수련원	2001	사단 법인	도덕입국을 위한 윤리실천	학생, 교원, 군인, 기업인 등	생활체험, 현장탐방, 자기성찰	63,407명	25,000명
거경대학	2006	없음	성학십도생활화	학생, 일반인	정좌, 경독, 활인운동 등	4,598명	200명

(2) 퇴계학연구기관/ 단체

	명 칭	창립	목 적	소재	업 적
대학부설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1973	선생 교학정신 계승	대구	한국철학(연간) 발행
	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988	선생과 후학의 학문사상 연구	안동	퇴계학(연간) 발행 퇴계학자료총서간행 고전번역실 운영
	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986	퇴계학 연구로 한국사상 심화확산	서울	도산서원 고문헌조사 2009년부터 동양학 연구소와 병합
민간단체	퇴계학연구원	1970	퇴계학통의 학문 사상연구	서울	퇴계학보(연간) 발행 한적 구역 퇴계학 연구지원
	퇴계학부산연구원	1982	선생과 제현학문 사상연구	부산	퇴계학논총(연간)발행 유학강연회 월 1회

명 칭		창립	목 적	소재	업 적
민간단체	영남퇴계학연구원	2007	퇴계학통의 업적연구	대구	퇴계학논총(년간)발행 학술대회 년2회
	국제퇴계학회 및 지부	1985	퇴계학 선양으로 세계의 사상문화발전	서울 국내외	국제학술대회 개최 퇴계학 국제교류

(3) 퇴계사상 보급운동 / 단체

단체명	창립	창립목적	소재	회원수	업 적
박약회	1987	퇴계선생 학행 연구, 학습, 실천적 사회운동	서울	26지회, 4천명	학술행사(년 2회), 박약(교양지, 연간), 실천적 학습지 다수간행
도운회	2000	선현학덕 선양과 시의에 맞는 도덕과 예절정립 및 충신독경하는 사회기풍 조성	안동	500餘名 (陶山及門 後裔)	선생 탄신 500주년 송모제 년1회 정기모임
퇴계학 진흥 협의회	2007	퇴계학 전승, 전개, 진흥사업 지원과 국제적 선양	서울	400餘名	매월 조찬모임 강연회, ※ 퇴계학연구원 부설

2) 도산서원 활용

(1) 서원행사

제일(祭日)은 2월과 8월의 중정(中丁)이다. 다만 제일이 국기일(國忌日)과 겹치거나 유고(有故)가 있을 경우에는 중월(仲月)인 2월과 8월 하정(下丁)일로 물려지낸다. 그러나 때에 따라 하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일(亥日) 또는 병일(丙日)로 옮겨서 올린다. 1995년(乙亥年) 춘향(春享)의 경우에는 세종(世宗)의 기일(忌日)과 겹쳐 하정(下丁)으로 물려지냈다.

· 春季 : 3.21.~ 22.(陰 2.10.~11.)

· 秋季 : 9.17.~ 18.(陰 8.13.~14.)

(2) 거경대학(居敬大學)

퇴계선생은 ‘안으로는 자신의 마음과 몸을 살피고 밖으로는 모든 존재를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경(敬)이라 했고, 이러한 선생의 철학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 거경대학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몸 공부, 마음 공부, 글 공부를 통하여 "나"를 발견하고 삶의 참된 가치를 찾기 위해 수양하는 "인간본성개발" 프로그램이다.

내용은 퇴계선생의 경재잠, 숙흥야매잠 실천과정을 중심으로 성현과 같이 움직이며 행동하고, 성현과 같이 말하며 소리 내고, 성현과 같이 마음 쓰고 생각하는 가운데 "나" 자신이 성현을 만나서 그 순간 성현이 된다는 마음으로 수양한다.

• 수양과목은

- 거경1 잠자리명상: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음을 고요히 한다.
- 거경2 활인명상: 옛 선비들의 건강법 체험
- 거경3 묵식명상: 음식에 대한 예와 깨끗한 식사법
- 거경4 걷기명상: 올바른 자세로 걷기를 통한 정신수양
- 거경5 경전묵송: 자연 속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경전을 읽음. 경전은 소학, 사서삼경, 퇴계학, 금강경, 도덕경을 묵송한다.

• 수양과정은

- 거경과정: 심신수련, 개별 20명(금, 토, 일), 단체 25명(토, 일)
- 중화과정: 서당체험, 초중고등학생 단체 25명 당일(세째주 금), 일반 단체 25명(둘째주 목)
- 궁리과정: 글 읽기, 개별 25명, 당일(매월 첫째 수)
- 국제과정: 성학십도, 개별 20명
- 서원고가체험: 마음과 몸을 잘 쉬게 해주는 체험, 단체 40명(수시)

• 거경과정 프로그램

시간	만나는 날[金]	머무는 날[土]	기약의 날[日]	
05 ~ 06	-	정좌	정좌	
06 ~ 07	현장 도착 [숙소: 안동시도산면 토계리 열화 054-855-8332]	온천욕	활인공부	
07 ~ 08		묵식정반(默食淨飯)	묵식정반	
08 ~ 09		걷기명상	걷기명상	
09 ~ 10		經典輪讀[聖學十圖] 활인공부	經典輪讀[聖學十圖] 진경식	
10 ~ 11				
11 ~ 12				
12 ~ 13		묵식정반	묵식정반	
13 ~ 14	현장 도착 [숙소: 안동시도산면 토계리 열화 054-855-8332]	숲 속에서 소요유(퇴계선생 유족지 탐방)	정리 후 해산	
14 ~ 15				
15 ~ 16				
16 ~ 17	안내/入敬式 활인공부	자율시간		
17 ~ 18				
18 ~ 19				
19 ~ 20	묵식정반	묵식정반		
20 ~ 21	걷기명상	걷기명상		
21 ~ 22	정좌	-		
22 ~ 05	취침	취침		

(3)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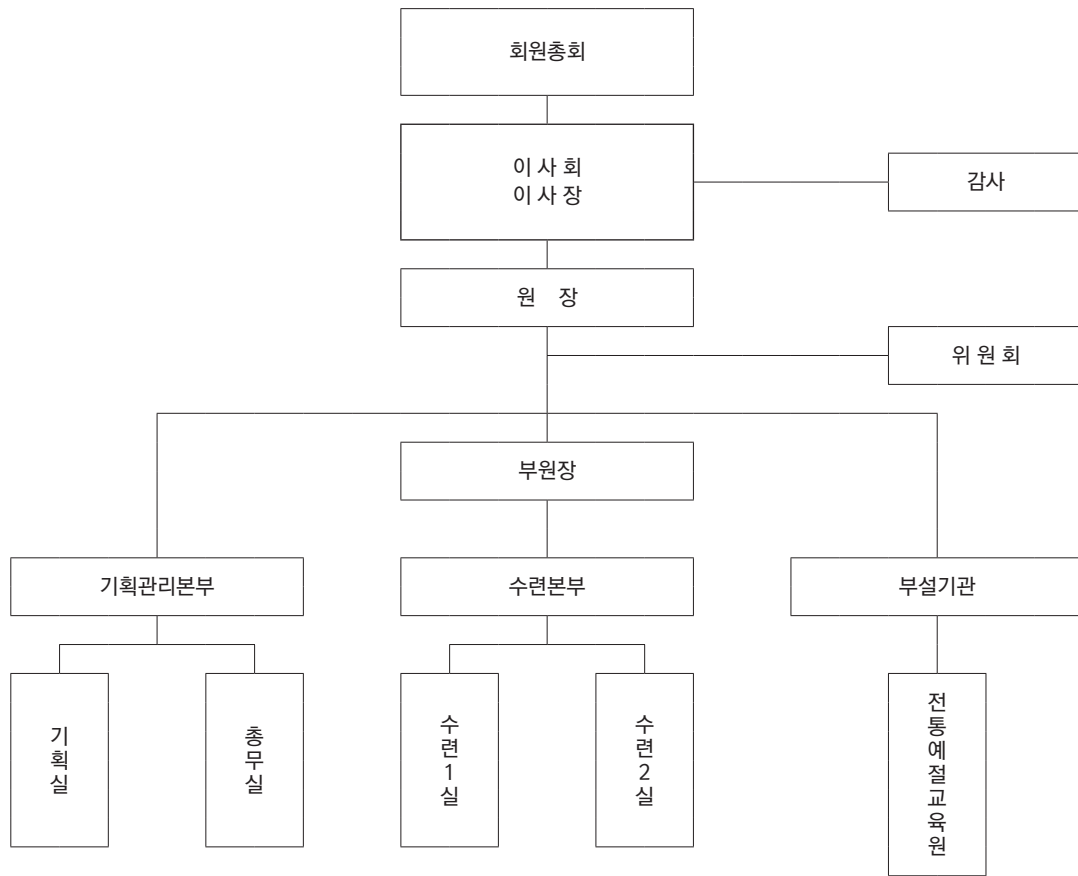
가. 주요 연혁

- 2001. 11. 1. 도산서원 운영위원회에서 도산서원 부설 선비문화수련원 개설승인
- 2003. 1. 28. 사단법인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허가
- 2004. 1. 28. 대구교육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 2004. 7. 20. 한국국학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 2005. 1. 26. 본원 부설 전통예절교육원 개설 승인(대구)
- 2006. 1. 31. 경상북도 민간교육기관 연수기관 지정(수련생에게 가산점 3점 부여)
- 2008. 7. 28. 경상북도안동교육청과 업무협약 체결
- 2009. 7. 1. 안동독립운동기념관과 업무협약 체결
- 2011. 4. 20. 원사신축 준공식
- 2012. 6. 22. 대구광역시 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 2012. 7. 18. 경상북도 교육연수원 업무협약 체결
- 2012. 7. 30. 부산광역시 교육연수원 업무협약 체결
- 2012. 8. 13. 대구광역시 연수원 업무협약 체결
- 2012. 10. 12. 안동경찰서 업무협약 체결
- 2012. 11. 28.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업무협약 체결
- 2012. 11. 30.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업무협약 체결
- 2012. 12. 31. 선비문화 체험 수련생 981기 63,407명 수료

나. 설립목적

- 설립이념 : 도덕입국(道德立國)
- 설립목적 : 사회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선비문화체험을 통해 선비문화를 계승, 창달하여 올바른 사회윤리 실천 주체를 양성함
- 성 격 : 경상북도 교육청 특수분야연수기관으로 승인받은 비영리 수련기관
- 원 훈 : 정직, 합리, 절약
- 수련대상 : 전국 교육관계 공무원, 행정공무원, 교원양생기관 학생, 기관단체, 일반기업체, 초·중등·대학생, 학부모, 외국인 등

다. 조직



라. 교육과정

- 현장탐방 : 안동지역에 형성된 선비문화 유적 탐방을 통한 선비정신, 선비문화의 다양한 모습과 정신을 이해
- 의례체험 : 읍, 인사법, 봉심하는 법, 도산서원 의례 체험 등 존현양사 정신 이해 제사의 의미와 현대에 맞는 제례문화 습득, 보모와 조상에 대한 보은 의미 깨달음
- 선비와의 대화 : 국가사회 원로 인사와 대화를 통해 철학과 경험담을 듣고 삶의 지혜를 터득하고, 종손으로부터 정신적 자산과 선비의 일상과 정신세계를 이해함
- 체험수련 : 선비의 체력단련, 마음 공부법, 학습 등 일상을 체험, 종가의 일상생활, 예절, 공동체생활 체험, 절제된 선비문화 체험
- 강의.토론 : 선비정신과 문화, 특색, 선비정신의 근저인 유학의 정신 탐색, 현대사회에서 유학 가치 구현, 실천과제 등 토론, 발표
- 영상수련 : 다시 태어난 퇴계, 기록문화보존관리, 선비의 참모습, 철수의 시골여행 등 영상물을 통한 시청각 교육

마. 선비문화 체험 수련생 현황

구분	계	교원	전통 예절반	공무원	기업인	초·중·등 학생	일반인	가족 단위	대학생	군장병	외국인
2012	20,438명	504	61	338	2,766	15,001	490	91	491	530	166
2002~ 2012	63,407명	2,720	398	1,878	7,097	41,898	2,449	91	3,865	2,377	634

바. 선비문화수련원 원사 증축

- 현 시설 : 2011.4. 준공(퇴계종택 우측언덕)
 - 면적 : 부지 5,699㎡, 연건평 2,070㎡(지상 2층)
 - 용도 : 강의실, 분임토의실, 체험실, 숙소, 식당.
 - 건축비 : 60억원(국고 32억, 지방비 등 28억)
- 증축 : 2013. 10. 준공예정
 - 위치 : 현 원사 뒤 50m
 - 면적 : 대지 6,600㎡, 연건평 2,310㎡(지하 1, 지상 1층)
 - 용도 : 강당, 숙소, 사무실, 창고, 기계실
 - 소요예산 : 80억원(국고50%, 지방비 등 50%)

(4) 도산별시(陶山別試) 재현행사

- 일시 : 5. 4.(토) 10:00~16:00
- 장소 : 도산서원
- 주관 : 한국국학진흥원
- 주요행사
 - 어제(시제) 파발 재연
 - 상덕사 고유(한국국학진흥원장)
 - 한시동호인 백일장

(5) 퇴계학 학술상 시상

- 일시 : 2013. 10. 25.(잠정계획)
- 장소 : 도산서원 또는 한국국학진흥원
- 주관 : 도산서원, 퇴계학연구원
- 주요행사
 - 수상자 및 관계인사 상덕사 알묘
 - 시상(학술 및 효행)
 - 학술 수상자 강연

4. 마무리

도산서원은 우리나라 성리학의 최고 학자인 퇴계 이황선생이 공부하고 후학을 가르치던 곳으로 인근에 있는 종택과 태실(노송정), 묘소는 한국정신문화의 산실이자 성지로 추앙 받고 있는 곳이다. 퇴계 선생의 사상은 한국에서는 영남학파를 구성하여 400여년의 학문적 전통을 이어 오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퇴계학연구소 설립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대인들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도산서원은 우리나라 최고 서원으로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생활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공간배치, 존현양사(尊賢養士)로 대별되는 서원의 기능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도산서원은 교육과 추모(祭祀) 기능을 중심으로 하면서 여론의 결집과 사회적 교화 등이 수행되던 복합적 공간이며, 그러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원규에 의거해 운영되고 있다. 특히 도산서원운영위원회는 앞서 정리한 다양한 실천적 활용사업뿐만 아니라 퇴계학의 해외 확산을 통해 인류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사해춘택운동(四海春澤運動)도 펼치고 있어 오늘날 서원의 가치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사해춘택운동은 참여회원 1인당 1만원을 모금하여 해외 한국학 개설 대학·연구소에『퇴계선생일대기』보급하는 사업이다. 또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한 도산서원의 자료를 분석하고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실제적인 생활사를 중심으로 한국의 서원문화를 정립해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도산서원은 겸손과 절제를 추구하는 선비정신과 자연과 더불어 심신을 단련하고 수양하며 학문연구를 통해 인류애를 실천하고자 한 자아 성찰과 자기 고뇌의 산실이었던 서원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활용하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의 사례에서 잘 보여주듯이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수익창출이라는 기업현상과 사회공익구현이라는 통합적 목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접근법을 통해 유학의 대중화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서원문화는 지성적 가치관과 지도층이 이끌어 온 고급문화이다. 이러한 고급문화에 적합한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사회 지도층에 대한 고급화 전략은 어찌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서원의 현대적 계승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 도산서원은 선비문화수련원을 통해 연령별, 직업별, 성별, 가족별 등 특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 속으로 한발 더 다가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은 생명과 평화, 소통과 화합, 나눔과 배려의 정신과 선비들의 교육적 이상을 실천하는 귀중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서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서원은 세계에 자랑할 우리의 문화유산이며, 또 인본주의적 정신과 존현양사 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진정성은 전 인류가 보존하고 지켜내야 할 인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지금 우리가 한국의 서원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고자 하는 최고의 가치가 될 것이다.

평생학습사회에서 서원의 교육프로그램 주제

1. 도입

오늘 저는 유학의 가르침 곧 유교의 현대적 활성화, 특히 서원에서의 교육 전통의 부흥에 대하여 의견과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교는 다른 종교적 사상과 비교할 때 두드러진 특성이 있다. 곧, 자기 성찰과 자기 계발에 기초한 전 생애에 걸친 교육의 역할과 공자의 인(仁) 사상에서 도출된 인간이 중심이 된 정신적-사회적-우주론적 관계의 중요성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인류의 스승인 예수나 석가와 달리, 공자는 자신을 지칠 줄 모르는 끈기 있는 학생으로 표현하였다.(默而識之, 學而不厭, 誨人不倦 -『論語』「述而」2장). 또 그는 자신이 요임금 순임금 같은 성인과 달리,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我非生而知之者 -『술이』19장)”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리하여 자신의 사람됨을 “공부에 빠지면 먹는 것도 잊고, 즐거움 때문에 근심을 잊고 늙어가는 것도 알지 못한다.”(其爲人也, 發憤忘食, 樂以忘憂, 不知老之將至云爾 -『술이』18장)고 하였다. 이처럼 유교는 배움의 철학이고 평생 배움에 대한 지혜이다. 공자는 인(仁)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樊遲問仁. 子曰愛人. 問知. 子曰知人 -『논어』「顔淵」) 그리고 “자기가 서고자 하면 먼저 남을 세우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면 먼저 남을 이루도록 하라(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하였다. ‘인’을 주로 사람간의 관계로 나타낸 것이다. 신유학의 송나라 유학자들은 “인이란 천지만물과 하나가 되는 것이며 어느 것 하나도 나 아닌 것은 없다(仁者天地萬物爲一體 幕非己也)”, “모든 사람들은 내 형제요 모든 사물들은 나의 동료이다(民吾同胞 物吾與也)”라 하였다. 인간관계에 중심을 두었던 공자의 인(仁)을 인문학적 생태사상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저는 이러한 유교의 전통, 즉 교육의 역할과 인문학적 생태사상이 현대 사회 특히 현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주요 문제에 대처하는데 매우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유교적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활성화 하자는 주장의 진정한 의의는 새로운 유학이 결코 사회적 유한증(有閑層)이나 노년층의 기호에 부응하거나, 회고적 문화 혹은 과거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교 역시 다른 인류의 위대한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전망이라는 입장에 서서, 현대 인류에 대한 새로운 정신적 지혜를 창출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의 문제에 대응하는 안목과 지혜를 찾는 방향은 유교 전통을 현대적으로 회복하고 또 현대 수요에 맞게 재구성이 되어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현대적 회복이란 유교의 평생교육 전통을 말하고, 현대적 재구성이란 현대 사회의 문제에 적용시켜 유교 사상을 재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발표에서는 첫째, 21세기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평생교육사회>와 유교의 교육전통과의 관련성을 언급함으로써, 서원 교육프로그램 활성화의 당위성과 적합성을 찾고자 한다. 둘째, 현대사회의 주요 의제인 생태적 위기와 평생교육 욕구에 부응하는 서원교육 프로그램의 큰 주제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저는 法古創新의 의지를 가지고 유교의 최고 개념 仁을 인문적 생태사상으로 재해석하여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공자의 자기실현 교육사상을 현대적 평생교육 주제로 재구성하자는 주장을 성급게나마 제안하고자 합니다.

2. 배경

유교의 현대적 부흥은 결코 과거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전망이 되어야 한다는 문화적 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러한 반성은 동시에 현대 인류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대안적 세계관을 요구한다. 위대한 사상은 그것이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고, 인류에게 보편적이고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가치관과 행위규범을 제시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현대 인류가 직면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인간과 그 주변 환경과의 관계의 문제이다. 현대 세계가 성취한 물질적 부의 총량, 인구의 수, 개간된 토지의 규모, 생산물과 정보를 교류하는 능력 등에서 인류는 역사상 정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현대 인류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가운데 핵심은 이들 간의 관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인간과 자신의 정신과의 관계, 인간과 타인 및 사회와의 관계, 서로 다른 문화 집단 즉 민족 집단 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지구 생태계) 간의 관계에서 현대는 절대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자연-우주 등 다양한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인문적 생태사상으로서 ‘인’>이라는 주제를 설정하여 이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둘째는 현대 사회의 변화된 생활조건에 대응하는 개인의 자세이다. 최근 인류의 수명은 길어지는 반면 직접적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아지고 있다. 대다수 사람들이 취업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십대 후반까지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들 중 다수가 50대 이후 직접적 생산현장에서 물러나서 길게는 30년 이상 은퇴 이후 제2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 길어진 수명, 특히 은퇴 이후 ‘제2의 생애’란 조건 아래서, 새로운 삶의 전 구간을 의미 있게 주체적으로 대응하며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지혜가 절실해지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이를 <평생학습사회에서 유교의 생애교육 지혜>라는 주제로 설정하고자 한다. 현대를 평생학습사회로 정의하고, 이를 유교 재활성화의 계기로 설정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얘기할 필요가 있다.

1) 학력사회에서 평생학습사회로 이행

『논어』는 이렇게 시작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고 그것을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먼곳에서 찾아온다면 즐겁지 아니한가.”(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 -『논어』「學而」1장) 여기서 배우이란 인간 자신의 내면적 충족(說)에서 말미암는 것이며, 나아가 배움이 남에게 미침에 이르는 즐거움(樂)을 지적한 것이다. 그리고 배움은 원래 자신을 위한 것(爲己之學)이니 남이 알아주거나 그것으로 직위나 대가를 얻지 못하더라도,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아, 천명(天命)을 편안하게 여기는 것이 선비 군자가 평생 추구할 사업임을 천명한 것이다.

인류의 위대한 교육자 ‘만세사표(萬世師表)’ 공자의 이 말씀은 유교 재활성화의 방향을 가리켜 주는 것일 뿐 아니다. 21세기 평생학습사회의 의의와 필요성에까지 한가지로 통하는 것이다.

(1)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한 인생 후반기의 배움, 학습사회

1972년 유네스코 「교육개발국제위원회」는 「Faure Report」 보고서에서 「미래의 학습 Learn to be」을 ‘전 생애에 걸쳐 학습을 계속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신체적·지적·정서적·윤리적으로 통합된 완전한 인간(complete man)을 이루기(be) 위한 배움을 말한다. 즉 학습은 학력·지위·재산 등을 ‘가지기(have)’ 위

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학습사회’란 인생 전반기 노동을 위하여 준비하는 학력이 중시되는 학력사회에서 성인기 이후에도 학습이 가능한 사회로 전환되는 평생학습 사회를 말한다. ‘학습사회’는 Hutchins, R. M이 1968년 간행한 저서 「학습사회론 The Learning Society」을 계기로 세계에 널리 알려진 개념이 되었다. 이 책에서 ‘학습사회’란 “모든 사람이 배우는 것, 무엇을 성취하는 것, 인간적이기 위한 목적에, 모든 제도가 그 목적을 실현하도록 가치가 전환되는 사회”라고 정의하고 있다.

「평생학습사회론」은 전 프랑스 재무장관 Delors, J.를 위원장으로 하여 1993년에 발족한 「21세기교육국제위원회」에서 이어받았다. 이 위원회는 1996년에 21세기의 교육이나 학습의 본연의 자세로서 「학습: 숨겨진 보물 Learning: The Treasure Within」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었다. ‘학습이 보물’이라는 말은 사람들의 내부에 숨겨진 보물과 같은 잠재적 능력이나 미래에의 가능성을 발굴하는 프로세스로서 학습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학습하면 숨겨진 보물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보고서에는 전 생애를 관통하는 학습의 4가지 본성을 들고 있다. 곧 ‘지식을 배움(learning to know)’, ‘일을 배움(learning to do)’, ‘함께 사는 것을 배움(learning to live together, learning to live with others)’,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움(learning to be)’ 등이다. 「21세기교육국제위원회」는 평생학습을 21세기의 문을 여는 열쇠로 정의한다. 사람들이 배우고자 할 때, 전 생애(lifelong)를 통하여,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학습사회’의 구축을 제창한 것이다.¹

(2) 평생교육법

우리나라는 1999년 평생교육법을 제정하였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법률이다. 이 법에서 평생교육의 이념으로 “①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하며, ③ 평생교육은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하며, ④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5조에서 평생 교육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였다. 제9조에서는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평생교육진흥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 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 직속 평생교육위원회와 교육관련 부서에 담당과가 설치되고,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대학교가 평생교육 업무를 주관 시행하고 있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2025년 이후 대학입학정원의 30%이상이 미 충원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대학 구조조정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전 생애에 걸쳐 성인의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직무능력 향상이 가능하도록 대학의 기능이 열린 평생학습체제로 개편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3~2017)>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대학중심 평생교육체제 실현, 온-오프라인 종합지원 체제 구축,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평생학습 등 4대 영역으로 설계되어 있다. 교육부는 대학중심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으로 2013년에 총 34개 대학을 평생학습 중심 대학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1. 中村香・三輪建二 編著, 2012, 『生涯學習社會の展開』, 일본 玉川大學出版部

교육부는 대학중심 평생학습활성화 사업으로 2013년에 총34개 대학을 평생학습 중심 대학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시도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 학습관은 2013년 421개이며,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평생학습관은 102개이다. 그런데 평생교육 수요자가 다수 상주하는 서울지역 대학의 참여가 저조하고, 지역 대학은 지역사회 또는 관련기관과의 협력 방안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²

2) 현대의 위기와 유교의 재활성화

(1) 왜 유교는 현대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가

한국 전통사회, 특히 조선시대 유교가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유교가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지위를 가졌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유교는 국가의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는 공식적 교육이념이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유교는 여러 가지 사상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고 다른 사상과 경쟁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세계적인 종교는 인류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를 쉽게 설파하고 있다. 종교들의 경전은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세계적인 종교들은 보편적 가치 중심으로 하되 현대적인 문제에 대답하는 재해석·재구성·재수용이 끊임없이 계속하여 새롭게 정리해 왔다. 그러나 한국 유교는 그렇지 못하였다. 현대 한국에서 유교의 침체는 유교의 가르침을 현대사회에 맞게 재구성하여 재수용시키지 못한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유교의 가르침을 전파할 주도 집단이 취약한 것이 두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제안을 미흡하나마 시도하고자 한다.

(2) 새로운 방향 설정

유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유교 혹은 유교 경전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재해석해서, 재수용이 가능하도록 재구성해야 한다. 유교적 가르침을 재구성하는 방향은 자본주의적 경쟁사회에서 인간성 상실, 수명연장에 따른 고령화, 도시적 삶에서 인간·자연의 관계와 같은 현대사회의 보편적 문제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서원과 같은 전통 유교문화 유산이 교육 현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본다.

현대 유교의 전반적 쇠퇴에도 불구하고, 한국 서원은 강력한 두 가지 기반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지역적 향토적 기반이다. 다른 하나는 신유학의 천인합일 사상을 체현하는 자연친화적 입지와 경관이다. 한국 서원의 두 가지 기반은 서원을 중심으로 한 유교전통의 재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탁월한 사회적 자연적 기반구조(infrastructure)이다. 이러한 기반구조를 활용하여, 서원은 본래의 고유기능인 강회 전통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대 한국 서원의 강회 주제는 단순히 전통적 유교 사상을 재현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유교사상의 핵심 범주와 현대사회·현대인의 관심사 간에 공유 공감하는 부문을 찾아서, 과감하게 재해석 재구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물론 변화된 내용에 부응하여 강회의 형식도 새롭게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³

2. 유의정·정수정, 2014,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개선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3. 조선시대 서원 강회에 관한 연구는 김대식(, 2001, “조선 서원 강학 활동의 성격·회강과 강회를 중심으로-”, 교육사학연구 11집), 최광만(2012, “19세기 서원 강학활동 사례 연구 -「호계강록」을 중심으로-”, 교육사학연구 22-1호)를 참조하였다.

3. 현대 서원의 강회 주제

1) 현대 한국 서원의 강회 주제 설정방향

- (1) 유교 경전과 성현의 말씀에 근거하고,
- (2) 서원의 당호 등에 제시되고 있는 개념을 구체화하되,
- (3) 전통적 서원 강회주제에 구속되지 않고,
- (4) 현대사회의 주요 관심사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재구성한다.

2) ‘천인합일의 장소’ 한국의 서원

유교의 가르침은 다른 종교적 가르침과 달리 시-공적으로 초월한 정신세계를 추구하지 않는다. 현재 이 시간과 이 공간 안에서 초월과 불후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다. 현 존재의 감성적 생명과 현 순간의 조건 속에서 우주와 합일하여 영원을 자각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유교의 천인합일(天人合一)이다. 이러한 경지를 공자는 “逝者與斯夫”, 맹자는 “上下與天地同流”로 표현하고, 『禮記』에서는 ‘大樂與天地同和’로 표현했다. 이러한 말들의 공통적 의미는 사람이 자연과 하나가 되어야만 최고 지극한 즐거움의 경지와 감수(感受)에 도달할 수 있으며, 동시에 바로 이 시점과 공간에서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교적 가르침이 지배한 동아시아에서 최고의 경지는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심미로 나타났다. 이 경지는 결코 인간의 감성을 비하하거나 도외시하지 않으며, 자연을 항상 크게 긍정한다. 이 자연합일 경지가 가지는 가치를 주돈이(周惇頤)는 “성인은 자연을 희망하고, 현인은 성인을 희망하며, 선비는 현인을 희망한다.”(聖希天, 賢希聖, 士希賢)라고 표현하였던 것이다. 산수 풍광이 아름다운 장소에 입지한 한국 서원이 바로 이러한 경지를 지각적으로 체득 인식하는 현장이 된다.

3) 강회 주제의 특성화

강회의 주제는 일반 공통 주제와 특성화 주제로 2원화할 수 있다. 일반 공통 주제의 사례로 아래에서 제시하는 <인문적 생태사상으로서 천인합일의 인>, <평생학습사회에서 유교의 생애교육 지혜> 등을 들 수 있다. 특성화 주제는 공통 주제의 의미를 각 서원의 교학전통·제향인물의 정신세계, 그리고 각 서원의 당호 및 경관 특성에 따라 보다 세부화·특성화한 주제로 만들어 갈 수 있다. 물론 학습대상의 지적 사회적, 그리고 연령층에 따라서도 주제의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인문적 생태사상, 천인합일의 ‘인’

1) 유교의 ‘인’과 생태사상

유가(儒家)의 보편성과 영원한 가치는 ‘인(仁)’이다. 인은 본래 인간관계에 대한 개념은 아니다. 모든 인간에 내재한 도덕적 마음이라 할 수 있다. 인은 유교적 가치 체계의 통합적 의미를 가진 가장 높은 등급의 덕목으로 기독교의 신(神), 도교의 도(道)에 비교할 수 있다. 공자 당시의 원시 유학에서 인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

는 개인의 도덕성을 가리켰다. 송대 이후의 신유학에서는 인간과 우주를 관련시키는 형이상학적 정당화에 사용되었다. 오늘날 유교의 현대화라는 문제의식과 관련해서, ‘인’을 송대 신유학자들이 말한 ‘모든 사람들은 내 형제요 모든 사물들은 나의 동료이다(民吾同胞 物吾與也)’, ‘천지만물은 하나’(仁者天地萬物爲一體 幕非已也), ‘천지의 마음(仁便是天地之心)’이라는 천인합일(天人合一) 사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천인합일의 인’은 현대의 대안적 세계관으로 대두한 생태사상에 인문학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세계의 대표적인 유학자인 첸무(錢穆), 탕준이(唐君毅) 평유란(馮友蘭)은 공통적으로 유학전통이 전 인류에게 미친 가장 의미 있는 공헌을 천인합일 사상이라고 단언하였다.⁴ 천인합일 사상을 동중서(董仲舒)는 ‘천인감응(天人感應)’, 이택후(李澤厚)는 ‘천인동구(天人同構)’ 그리고 뚜웨이밍(杜維明)은 ‘동형동성(同形同性)’으로 표현하였다. 위기에 처한 현대 세계에 대하여, 천인합일 사상은 두 가지 의미에서 유학의 중대한 공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하늘과 인간의 상호성을 강조함으로써 자연을 일방적으로 지배하려는 현대사회의 일방적 개발주의 발전관에 대한 반성과 인문주의적 보완 사상이다. 둘째는 자연과 인간의 호혜성을 강조함으로써 인문적 생태주의로의 현대 유학의 전환을 촉구한다.

유학의 생태론은 서구 기원의 과학적 생태주의에 대비하여 인문적 생태주의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널리 알려진 과학적 생태주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특정 공간 즉 장(場)에서의 에너지 순환의 상호의존성에 관한 것이다. 19세기 서구의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생물학적 사상은 맬서스와 다윈 시대에 ‘암울한 과학’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서구문명은 극히 최근 현대에 와서 핵무기의 위험과 환경위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성이란 관점에서 윤리적 태도를 가지고 생태계의 상호의존성의 원리에 주목하였다.⁵ 생태윤리학(生態倫理學)이란 모습이 1970년대 이후의 ‘생태학의 시대(age of ecology)’에 대두한 것이다.⁶

공자의 ‘인’은 인간 사랑에서 출발했다. “인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도 강요하지 말라.”(己所不欲, 勿施於人) “자기가 서고자 하면 먼저 남을 세우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면 먼저 남을 이루도록 하라.(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하고 말했다. ‘인’은 인간의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일종의 평등한 사상을 말한다. 공자의 사상을 발전시킨 맹자는 “인은 사람의 마음이다.”(仁 人心也 -『맹자』 「고자상」) 라고 언급하고, 차별적 사랑의 관계를 친친(親親) 인민(仁民), 애물(愛物)로 표현하여 리일분수(理一分殊)의 차원에서 ‘인’을 자연과의 관계로 확장시켰다.⁷

4. 뚜웨이밍 지음/김태성 옮김, 2006, 『문명들의 대화』, 휴머니스트, 336쪽

5. “축적된 정보를 근거로,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자연의 모든 사적 개인적 투쟁들에서 상호의존성의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고 말할 수 있다. 어떤 생물이나 생물종도 다른 생물과 종들의 도움 없이는 생존기회를 가질 수 없다. <우리가 무언가를 골라내려 시도할 때, 우리는 이것이 우주의 다른 모든 것과 얽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도널드 위스터/강현·문순홍 옮김, 2002, 『생태학 그 닫힌과 열림의 역사』, 아가넷, 530쪽.

6. 지구의 날(Earth Day) 1970년 4월 22일 미국에서 시작된 민간주도의 지구 환경문제에 대처하자는 기념행사로 수백만명이 참석하였다. 이 기념식에서 생태학의 시대라는 구절이 등장하였으며,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한 뿐인 지구’라는 제목 하에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가 열려 전 세계인의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도 매년 4월 22일 민간환경단체 주관으로 지구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7. 孟子曰：君子之於物也，愛之而弗仁；於民也，仁之而弗親。親親而仁民，仁民而愛物。物，謂禽獸草木。愛，謂取之有時，用之有節。程子曰：仁，推己及人，如老吾老以及人之老，於民則可，於物則不可。統而言之則皆仁，分而言之則有序。楊氏曰：其分不同，故所施不能無差等，所謂理一而分殊者也。尹氏曰：「何以有是差等？一本故也，無僞也。」 -『맹자』 「진심장구」 상 45

복송의 신유학자 정호(程顥)는 고대 한의학에서 말하는 ‘수족불인(手足不仁)’이란 표현을 ‘인’의 비유로 삼았다. 사지(四肢) 가운데 어느 한부분이 마비되면 마비된 부분이 신체의 일부분이었다고 느낄 수도 없어 지는데, 이러한 상태를 ‘불인(不仁)하다’고 말하였다. ‘인’은 잘 통하는 상태와 생기 활발한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인’의 본체론적 의미는 끊임없이 생성 유행하며, 막힘없이 느끼고 통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인’의 윤리적 의의는 마땅히 만물과 사람 모두를 자신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사랑해야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인’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천지만물과 한 몸이 되는 경지’와 ‘자기 아닌 것이 없는 경지’를 느끼게 된다.⁸ ‘인’의 개념이 정자의 ‘천지만물과 일체의 인’(仁者, 以天地萬物爲一體) -『二程全書』, 권1), 주자의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하는 인”(仁者 天地生物之心, 而人之所得以爲心- 朱子, 『朱子語類』 下 권105, ‘仁說圖’), “인은 본래 살려는 뜻, 측은지심”(仁本生意, 乃惻隱之心也) - 『朱子語類』 下 권 68), “사랑의 리(理)이며 마음의 덕(德)”(仁者 愛之理, 心之德也 - 『논어집주』 「學而」)로 전개 되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인’ 개념은 사람 간의 관계에서 출발하여 우주만물에 대한 관계론으로 재정립된 것이다. 1993년 9월, <세계종교기구>는 ‘글로벌 윤리를 향한 세계종교기구 선언’을 통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도 강요하지 말라(己所不欲, 勿施於人)”는 내용을 인류가 공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세계 보편적인 윤리로 삼기에 이르렀다.⁹

유교가 다른 종교적 가르침과 다른 점은 유교의 자기 수양은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하늘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내포한다는 점이다. 몸-가정-공동체 그리고 천지만물에 뿌리를 둔 유교의 세계관은 이 뿌리를 떠나거나 초월함으로써 신령스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천명(天命)이 우리 본성 속에 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서 하늘의 덕이 우리를 통해 행해지도록 노력한다는 ‘내재적 초월성’, ‘인간-우주 동형동성적 관점’이다.¹⁰ 인문적 생태론으로서 유교는 자기수양을 이룬 개인, 화목한 가정, 정의로운 국가, 광대한 우주를 관통하는 유기적 연계의 집안(天下一家) 의식이다. 유가(儒家)는 우주 속에서 “만물이 각각 제자리를 얻음(萬物各得其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2) 유학자들의 생태주의 지혜, ‘인’

- 중국 자연철학의 효시이자 동아시아 철학의 최고 권위인 『주역(周易)』의 「계사전(繫辭傳)」에는, “끊임없는 생성과정을 역이라 하는데(生生之謂易), 천지(자연)의 큰 공덕을 일컬어 생이라 부른다.(天地之大德曰生)” 하였다. 자연의 섭리에서 우주적 생명정신을 본 것이다. 또 “다시 돌아오는 봄에서 천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復, 其見天地之心乎 - 「象傳」 復卦)이라 하여, 계절의 순환 속에서 우주도 사람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생명계임을 직관한다. 우주 자연과 인간은 감성적으로 서로 통하는 존재로 지각한다. 우주 자연의 특성이 생명활동이기 때문에 자연의 변화는 생명체의 생성 소멸로 대표되고 자연 자체를 생명체로 인식한 것이다.

8. 陳來 지음 · 안재호 옮김, 1997, 『송명성리학』, 예문서원 성리총서 5. 130~131.

9. 喬清學, 2010, “‘인(仁)’의 측면에서 본 유교문화와 가치의 불변성”, 한국국학진흥원 심포지엄 발표문, 1993년 9월 4일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종교회의의 대표들은 종교 역사에서 처음으로 ‘지구윤리를 향한 선언(Declaration of Human Responsibilities)’을 채택했다.

10. 卍웨이밍 지음 김태성 옮김, 2006, 『문명들의 대화』, 휴머니스트, 338~339쪽

“자연계의 운행은 건전하고, 군자는 그것을 본받아 끊임없이 노력한다.”(天行健 君子以自強不息 -『주역』 乾卦 象辭) 하여, 자연에 도덕적 성격을 부여하고 자연에 합치하도록 노력하는 삶이 군자의 길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자연관과 인생관의 통일을 추구하는 ‘천인합일’에 대하여 『주역』은 다시 “무릇 대인은 천지와 그 덕을 합하고, 일월과 그 밝음을 합하고, 사시와 더불어 그 순서를 합하고, 귀신과 더불어 그 길흉을 합하는 사람이다.”(夫大人者與天地合其德, 與日月合其明, 與四時合其序, 與鬼神合其吉凶) -『乾卦』 文言傳) 하였다. 사람은 반드시 천도에 순응하고 음양의 이치에 따르고, 자연(天) 역시 인간의 품격과 성능을 가진다는 의미이다.¹¹⁾

• 증점의 즐거움

“증점이 말하기를 ‘저는 늦은 봄날 봄옷이 완성되면 관을 쓴 어른 5·6인과 동자 6·7인과 함께 기수에 가서 목욕하고 무우에 올라서 바람을 쏘이고 시를 읊조리며 돌아오고 싶습니다.’라고 하자, 공자께서 탄식을 하며 말씀하시기를 ‘나는 증점과 함께 하고 싶구나.’ 하였다.”(子路曾皙冉有公西華侍坐 子曰 以吾一日長乎爾 毋吾以也 居則曰不吾知也 如或知爾 則何以哉 子路率爾而對曰……曰 莫春者 春服既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 夫子喟然歎曰 吾與點也 -『논어』 「先進」 25)

주자는 이를 풀이하기를 “그 마음이 유연하여 곧바로 천지만물과 함께 위아래로 흘러 각기 그 묘한 곳을 얻으니 은연 중 말 밖으로 스스로 드러났다.”(曾點之學, 蓋有以見夫人欲盡處, 天理流行, 隨處充滿, 無少欠闕. 故其動靜之際, 從容如此. 而其言志, 則又不過即其所居之位, 樂其日用之常, 初無舍己爲人之意. 而其胸次悠然, 直與天地萬物上下同流, 各得其所之妙, 隱然自見於言外. 視三子之規規於事爲之末者, 其氣象不侔矣, 故夫子歎息而深許之.” -『논어집주』) 하였다. 이 ‘증점의 즐거움(曾點之樂)’을 유학자들은 ‘공자와 안자가 즐거워 한 바(孔顏樂處)’로 보고, 인생 최고의 경지로 생각했다. 따라서 그들은 ‘이 즐거움을 바꾸지 않는(不改其樂)’ 삶을 통하여 천인합일하는 경지에 이르고자 했다.

- 『논어(論語)』를 보면, 증자(曾子)는 ‘공자의 도(夫子之道)’는 ‘충서(忠恕)’일 뿐이라고 하였다. 충(忠)은 ‘자기를 다함(盡己)’, 서(恕)는 ‘나를 미루어 남을 헤아림(推己)’을 말한다. 송대(宋代)의 정자(程子)는 (자기 자신으로써 물건에 미침은 ‘인’이요, 자기 자신을 미루어서 물건에 미침은 ‘서’이다. “(以己及物, 仁也; 推己及物, 恕也)라고 말하였다. 여기서 ‘진기(盡己)’는 자신의 사랑을 발휘하는 것을 말하고, ‘추기(推己)’는 이러한 사랑을 모든 사물로 확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유가(儒家)의 ‘인(仁)’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물 더 나아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곧 유가(儒家) 철학에 있어서 사람과 자연은 나누어 생각되지 않는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연장되면 자연을 사랑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어 결국 일치한다고 보는 것이다.

- 『대학』 첫 장의 「팔조목(八條目)」은 세계가 자기수양을 이룬 개인, 화목한 가정, 잘 다스려지는 국가 간의 유기적 연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밝힌 것이다.

“예로부터 천하에 밝은 덕을 더욱 밝히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가정을 다스리고, 그 가정을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몸을 닦고, 그 몸을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앎을 지극하게 하고, 앎을 지극하게 하는 것은 사물의

11. 『주역』 「서괘」에서는 “有天地然後 有萬物, 有萬物然後 有男女, 有男女然後 有夫婦, 有夫婦然後 有父子, 有父子然後 有君臣, 有君臣然後 有上下, 有上下然後, 禮義有所錯....”

이치를 밝히는데 있다.”

- 이처럼 수신제가에서 치국평천하에 이르는 생태론적 관계는 우주적 관점에서 인간과 그 마음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들어 있다. 이러한 ‘천하일가(天下一家)’의 정신이 『중용』의 우주관에도 보인다.

“만물은 함께 길러져 서로를 해치지 않으며, 도는 함께 행하여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작은 덕은 시냇물 같이 흐르고 큰 덕은 조화를 돈독하게 하니, 이것이 천지의 위대한 까닭이다.”(萬物並育而不相害 道並行而不相悖, 小德川流 大德敦化 此天地之所以偉大也 -『중용』 30장) 이에 대하여 주자가 주석하기를 “‘큰 덕’은 바로 조화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고, 작은 덕은 조화를 돈독히 한데서 흘러나온 것이다. 이것은 바로 충(忠)과 서(恕)는 같으니 충은 바로 그 서를 만들어 내는 것이고, 서는 그 충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며, 중(中)과 화(和)와도 같으니, 중은 바로 그 덕이 조화를 돈독히 함이고, 화는 바로 작은 덕이 넷물과 같이 흐름이다. 그러나 이는 단지 하나의 도리일 뿐이다.” 하였다.

- 성인은 자아실현과정으로서 천지의 변화 양육에 참여한다는 『중용』의 천지인(天地人) 사상은 송대 신유학에 이르러 새로운 우주관으로 발전한다.

“오직 하늘아래 지극히 성실한 사람만이 그 자신이 가진 본성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다. 자신의 본성을 온전히 실현하게 되면 타인의 본성을 실현시키게 되고 타인의 본성을 실현할 수 있게 되면 만물의 본성 또한 완전히 실현시켜 준다. 모든 사물의 본성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으므로 천지의 변화와 양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천지의 변화와 양육을 도우므로, 사람이 천지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唯天下至誠, 爲能盡其性; 能盡其性, 則能盡人之性; 能盡人之性, 則能盡物之性; 能盡物之性, 則可以贊天地之化育; 可以贊天地之化育, 則可以與天地參矣. -『중용』 22장)

- 『맹자』의 우산지목(牛山之木) 비유는 자연이 황폐해가는 사례를 들어, 인성(人性)도 보존하려는 의지 없이 놓아버린다면, 상실되어 동물처럼 되어 버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자연과 인성의 보존을 연계시키면서 주체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우산의 나무가 일찍이 아름다웠다. 그런데 대국의 교외이기 때문에 도끼와 자귀가 매일 나무를 베니, 어찌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 낮과 밤에 자라는 바와 비·이슬로 적셔주는 바에 싹이 나오는 것이 없지 않지만, 소와 양이 또 방목된다. 이 때문에 저와 같이 헐벗게 되었다. 사람들이 그 헐벗은 모습을 보고 일찍이 훌륭한 재목이 있을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것이 어찌 산의 본성이었겠는가. 인간에게 간직된 것도 어찌 어질고 정의로운 마음이 없었다고 하겠는가? 사람이 자신의 훌륭한 마음을 잃어버린 것도 역시 나무들을 도끼와 자귀로 베어내는 것 같다. 날마다 도끼질을 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孟子曰: 『牛山之木嘗美矣, 以其郊於大國也, 斧斤伐之, 可以爲美乎? 是其日夜之所息, 雨露之所潤, 非無萌蘖之生焉, 牛羊又從而牧之, 是以若彼濯濯也. 人見其濯濯也, 以爲未嘗有材焉, 此豈山之性也哉? 雖存乎人者, 豈無仁義之心哉? 其所以放其良心者, 亦猶斧斤之於木也, 旦旦而伐之, 可以爲美乎? -『맹자』 「告子章句」 上 8장)

비슷한 시기에 서구에서도 자연의 황폐를 인간의 각박함에 비유하는 사고가 있었다. 플라톤은 기원전 4세기의 아테네 토양 침식을 평가하면서, 한때 비옥했던 지역이 토양 유실이 이루어진 결과 이제는 앙상한 뼈대만 남아서 마치 병든 자의 해골처럼 변해버렸다고 탄식하였다.

- 동중서(董仲舒), 인간은 천지와 함께 셋이 된다.

· “사람은 만물을 초월하여 천하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이다. 사람은 아래로 만물을 기르며 위로는 천지와 함께 셋이 된다.(人之超然萬物之上, 而最天下貴也. 人, 下長萬物 上參天地)” -『춘추번로(春秋繁露)』 「天地陰陽」)

· “천지인은 만물의 근본이다. 하늘은 만물을 낳고 땅은 기르고 인간은 완성시킨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수족이 되어 일체를 이루니 이 중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天地人萬物之本也. 天生之, 地養之, 人成之. 『춘추번로』, 「입원신(立元神)」 19)

- 정호의 仁, 천지만물과 하나가 된다.

· “仁은 천지만물과 일체가 되는 것이다.”(仁者, 以天地萬物爲一體-『二程全書』, 권1)

“천지가 만물을 낳는 기상을 보아라. 만물의 생의가 가장 볼만하니, 元(봄)이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니 이것을 인이라 한다.”(觀天地生物氣象, 萬物之生意最可觀, 此元者善之長也 斯所謂仁也 -『近思錄』, 道體類).

· 사심 없이 공정한 마음(廓然而大公); “천지의 상도는 그 마음이 만물에 두루 미치나 사사로움이 없고, 성인의 상도는 그 정이 만물에 순응하나 사사로운 정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의 학문은 확 트여서 크게 공정하니, 사물이 와서 순응하지 않음이 없다.”(夫天地之常, 以其心普萬物而無心. 聖人之常, 以其情順萬事而無情, 故君子之學 莫若 廓然而大公, 物來而順應 - 程顥, 『定性書』)

· 천인합일의 경지; “孔顏樂處”, “吾與點也”

정호는 청년 시절에 주돈이에게 수업을 받았다. 주돈이는 안연과 공자의 즐거움을 찾아보고, 어떤 일을 즐거워했는지 알아보라고 했다.(令尋顏子仲尼樂處 所樂何事) 나중에 정호가 다시 주돈이의 배움을 얻고 돌아가면서 “음풍농월(吟風弄月)하며 돌아와, 나는 증점과 함께 하리라는 뜻을 지니게 되었다.”(自再見周茂叔後 吟風弄月以歸 有吾與點也之意 - 『二程集』, 「遺書」) 하였다.

· ‘방화수류과전천(傍花隨柳過前川)’

“구름은 맑고, 바람은 가볍고 한낮에 가깝구나. 꽃에 기대고 버드나무에 의지하여 아 시내를 건너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의 즐거움을 모르고, 한참 공부해야할 젊은 시절을 허비한다 말하네.”(雲淡風輕近午天 傍花隨柳過前川 旁人不識予心樂 將謂偷閒學少年 - 『二程集』, '偶成')

- 장재(張載); 그 마음을 크게 하라(大其心). 우주적 마음의 천인합일 체험

· 장재는 “자기 마음을 확대하면 천하 만물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사물 중에 체득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마음의 밖에 있는 것이다. 보통 사람의 마음은 건문의 협소한 틀에 얽매지만 성인은 본성을 다하므로 건문으로 그 마음을 가두어 놓지 않는다.”(大其心則體天下之萬物 物有未體 卽心爲有外 世人心止漁見聞之狹 成人盡性 不以見聞梏其心- 『張載集』, 『正蒙』, ‘大心’) 이는 천지만물을 체득하는 의미를 감각으로 직접 파악할 수 있는 범위(건문)를 넘어서 ‘마음을 사물에다 두는 것’으로 보았다. 대심으로 얻는 지식은

전문이라는 경험적 지식을 넘어 덕성으로 아는 것, 참됨과 밝음으로 아는 것이다. ‘대심의 앞’이란 ‘천하의 어떤 것도 나 아닌 것이 없다’는 우주적 마음으로 얻을 수 있는 천인합일의 체험이다.

· 장재의 「서명(西銘)」: 백성은 내 동포요 만물은 모두 내 친구이다.

천지인의 합일을 설명하는 핵심적 신유학 고전이 張載의 「서명(西銘)」이다. 장재는 사회적 약자야말로 우리 형제인데 이들을 돕는 것이 효자라고 하고 있다. 효를 가정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효로 확장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 복지사회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바탕을 「서명」에서 읽을 수 있다.

“하늘은 아버지라 부르고 땅을 어머니라고 부른다. 나의 이 조그만 몸이 그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에 가득한 것이 내 몸을 이루고 하늘과 땅을 이끄는 것은 내 본성이 되었다. 백성은 내 동포요 만물은 모두 내 친구이다. 천자는 집안의 맏이에 해당하고 대신들은 그 맏이를 도와주는 사람들이다.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내 집 어른을 받드는 것이고, 힘없고 외로운 자를 보살피는 것이 내 자식을 거두는 일과 같다. 성인은 천지와 덕을 합한 사람이요, 현인은 우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다. 천하에 고단하고 병든 사람, 고아와 자식 없는 노인, 홀아비와 과부는 모두 내 형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해서 호소할 데 없는 가련한 사람들이다. 이에 하늘의 뜻을 지킨다는 것은 자식된 사람의 공경이요, 이 길을 싫어하지 않고 즐겨 따르는 자가 진정한 효자이다. 이 덕성(仁)을 어기는 것을 패덕(悖德)이라 하고, 인을 해치는 것을 적(賊)이라 이른다. 악을 이루는 것은 흉악한 족속이요 그 형제를 실현하는 자는 그 어버이를 닮은 자이다. 조화를 알면 하늘의 일을 잘 이어받고 신묘함을 궁구하면 하늘의 뜻을 잘 어어 받든다. 방구석에서 부끄럽지 않는 것이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요, 마음을 보존하여 본성을 기르는 것은 하늘을 섬김에 게으르지 않는 것이다 부귀와 복록은 나의 삶은 운택하게 하고, 빈천과 근심은 그대를 온전하게 이루도록 한다. 살아 있는 동안 나는 순종하며 섬기고, 죽으면 나는 편안할 것이다.” (橫渠先生作訂頑曰, 乾稱父, 坤稱母. 予茲藐焉, 乃混然中處. 故天地之塞, 吾其體, 天地之帥, 吾其性. 民吾同胞, 物吾與也. 大君子, 吾父母宗子, 其大臣, 宗子之家相也. 尊高年, 所以長其長, 慈孤弱, 所以幼其幼. 聖其合德, 賢其秀也. 凡天下疲癯殘疾, 惻獨鰥寡, 皆吾兄弟之顛連而無告者也. 于時保之, 子之翼也. 樂且不憂, 純乎孝者也. 違曰悖德, 害仁曰賊. 濟惡者不才, 其踐形, 惟肖者也. 知化則善述其事, 窮神則善繼其志, 不愧屋漏爲無忝, 存心養性爲匪懈. 惡旨酒, 崇伯子之顧養. 育英才, 穎封人之錫類. 不弛勞而底豫, 舜其功也. 無所逃而待烹, 申生其恭也. 體其受而歸全者, 參乎. 勇於從而順令者, 伯奇也. 富貴福澤, 將厚吾之生也. 貧賤憂戚, 庸玉女於成也. 存吾順事, 沒吾寧也).

· 장재의 「서명」은 개인의 입장에서 우주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우주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어떻게 개인과 사회생활에 적용해 갈 것인가를 말한 것이다. 우주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우주의 모든 것이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사상에서 왔다. 노인에 대한 공경, 힘없는 자에 대한 배려 등 개인의 모든 도덕적 활동도 우주 만물의 책임 있는 구성원인 개체로서 마땅히 실현해야 할 직접적 의무이다. 이것이 천하의 어떤 것도 나 아닌 것이 없다고 여기는 ‘만물일체의 경지’이다. 이것을 천인합일의 경지라고 말한다. 이 만물일체의 경지에서 각자의 도덕적 자각은 크게 향상되고 도덕적 행위는 우주적 위상을 얻어 더욱 높은 가치를 획득하게 된다. 생명이란 우주에 속한 것으로 살아 있을 때는 하늘과 땅에 부응하는 효도를 행해야 한다. 그리고 죽음이란 사람을 영원히 안식하게 한다. 따라서 사람은 마땅히 뜻을 크게 세워, “하늘과 땅을 위해 마음을 두고, 백성을 위해 명을 세우며, 옛 성인을 위해 학문을 계승하고, 후대 만세를 위해 태평의 시대를 연다”라는 대업에 생명을 바쳐야 한다.

· 천지인(天地人)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삼재(三才) 관념은 그동안 과학적 세계관에서 부정적으로 비취졌다. 그러나 지구촌 시대의 생태학적 세계관에서는 우주적 변화에 대한 책임과 동참을 의미하는 온고지신의 메시지가 된다. 퇴계가 선조에게 올린 『성학십도』에도 “세상 사람들은 모두 나의 동포이고, 만물은 모두 나와 같은 평등한 존재이다. 성인은 이 같은 이치를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는 「서명」을 싣고 있다. 세상사람 모두를 동포로 보자는 퇴계와 장재의 사상은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현대 한국 사회, 글로벌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인’의 생태주의적 적용이다.

• 주자의 仁,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

· “인이란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이요, 사람이 그것을 얻어 마음으로 삼는 것이다.” (仁者 天地生物之心, 而人之所得以爲心 - 朱子, 『朱子語類』 下 권105, '仁說圖')

· “높이 솟은 정자에서 굽어보는 시내,

이른 새벽에 올라 저녁에 이르도록 보는구나.

아름답고 따뜻한 봄날에, 이 시내 건너편 나무들을 바라보도다.

잇달아 숲을 이루어 아름다움을 뽐내니, 각각 생의가 드러난다.

위대한 조화는 본래 말이 없거늘 뉘라서 이 마음 함께 깨달을꼬.”

(危亭俯清川 登覽自晨暮 佳哉陽春節 看此隔溪樹 連林爭秀發 生意各呈露 大化本無言 此心誰與晤 - 『주자대전』 권6 ‘題林澤地之欣木亭’)

• 왕양명(王陽明), 대인이란 천지만물과 하나가 된 사람이다

“대인이란 천지만물과 일체가 된 사람이다. 그는 천하를 한 집안으로 여기고 국가를 한사람으로 여긴다. 대상들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이유로 자신과 남을 구분하는 사람은 소인이다. 대인이 천지만물과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을 의도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속의 어진 본성이 본래 같아서 천지만물과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大人者以天地萬物爲一體者也. 其視天下猶一家 中國猶一人焉. 若夫間形骸而分爾我者小人矣. 大人之能以天地萬物爲一體也. 非意之也 其心之仁本若是. 其與天地萬物而爲一也. - 王守仁, 『傳習錄』 「大學問」)

• 천지만물과 감응 감통

그 마음을 크게 하여 천지만물과 하나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대인이다. 이는 마음의 인지적 정서적 측면 양자를 모두 포함한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한한 감수성이 있어, 우리는 이를 통해서 가까운 꽃에서부터, 사계절의 산, 그리고 우주의 별까지 모든 존재와 감응(感應)하는 관계를 가지고 일체화되어 감통(感通)할 수 있다.

· “봄 산은 화답하는 듯하고 여름 산은 화난 듯하며, 가을 산은 화장한 듯하고, 겨울 산은 잠자는 듯하니, 사계절 산의 뜻을 산은 말할 수 없으나 사람은 말할 수 있다.” (春山如答, 夏山如怒, 秋山如妝, 冬山如睡, 四山之意 山不能言, 人能言之 - 이택후, 1990, 『화하미학』, 103-104쪽)

· 정명도는 “천지간에 감응이 있을 뿐이다.”(天地之間 只有一箇感應而已...天下只有箇感應) 하였다. 주희는 “모든 일과 모든 사물에는 감응이 있다(事事物物皆感應)” 하고. “천지간에 감응의 리가 아닌 것이 없다.(在天地間非無感應之理)” 하였다. 또 『論語』의 ‘德不孤 必有隣’ 을 설명하면서, “같은 소리는 서로 응하고 같은 기는 서로를 찾는다.”(同聲相應 同氣相求’ -『朱子語類』)

· “사물에서 감응하는 것은 마음이다.”(感於物者 心也 -『朱子大全』 상 권32 答張敬夫) 하였다. 심과 사물은 주체와 대상의 관계로 구별된다. 『大學』에서 사물에 응해도 능히 움직이지 않는 것을 고요함(靜)이라고 하였는데, 주희는 마음이 외물에 동요되지 않는 것을 고요함이라고 하여 심과 사물을 분명히 구별하고, 사심(私心)이 끼어들면 체득인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감응은 사물과 사물의 기계적 감응에 한정되지 않고, 사심 없는 정성스러운 마음에 感하여 應이 발생하는 예를 제사나 기우제를 들어 설명한다.(『朱子語類』)

• 퇴계의 천인합일, 자연경치와 사람의 뜻이 하나로 됨

· “꼭지 한 장을 아침에 보냈는데, 조금 후 두통의 서신을 받아 도의를 강마하는 즐거움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니 가상하고 가상한 일입니다. 보여준 청야음(淸夜吟)은 그 의사가 대개 옳습니다. 다만 어리석은 내 생각으로는 아마 아무런 욕심이 없고 스스로 얻은 사람이 깨끗하고도 맑으며 높고 먼 마음의 상태에서 광풍제월을 만날 때 저절로 자연 경치와 사람의 뜻이 하나가 되는 천인합일을 이루어 흥취가 빼어날 것입니다.” (一紙朝遣。俄獲兩柬。知有講劇道義之樂。可尙可尙。示喻淸夜吟。意思大槩得之。但愚恐只是無欲自得之人。淸明高遠之懷。閒遇著光風霽月之時。自然景與意會。天人合一。興趣超妙。潔淨精微。從容灑落底氣象。言所難狀。樂亦無涯。康節云云。只此意耳。以是揆之。前說近是。而後說則似涉於牽強附會也。如何如何。心經所論。具悉 - 『퇴계문집』 36권 答李宏仲)

· 퇴계가 말한 소강절(邵康節) 시 淸夜吟의 “月到天心處, 風來水面時, 一般淸意味. 料得少人知”은 지금 돈암서원 문루 산양루 기둥에 주련으로 걸려 있다.

· 퇴계의 樂山樂水

“樂山樂水는 성인의 말이지만, 산은 어질고 물을 지혜롭다는 말도 아니며 또한 사람과 산수는 본래 성이 같다는 것을 이르는 말도 아니다. 다만 어진 자는 산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산을 즐긴다는 것이며, 지혜로운 자는 물과 비슷하기에 물을 즐긴다고 하는 것이다. 이른바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특히 어질고 지혜로운 사람의 기상과 의사를 지적해서 하는 말일 뿐이다. 이 두 가지 즐거움의 뜻을 알려고 하면. 마땅히 어진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기상과 마음을 탐구해야 한다. 어진 사람 지혜로운 사람의 기상과 마음을 탐구하려고 하면 다른데서 구할 수 없다.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보아 그 깊은 곳의 진실을 취할 수밖에 없다. 내 마음에는 어짐과 지혜의 씨앗(實)이 있다. 그것이 마음을 채우고 바깥까지 확산될 때, 자연스럽게 산을 즐기고 물을 즐기게 되며, 구하려고 하지 않아도 마음이 어진 사람 지혜로운 사람의 즐거움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어짐과 지혜의 씨앗을 확충하지 않고서, 오로지 높이 솟은 나무가 무성한 산을 보고 어진 사람이 즐기는 것을 즐긴다고 하고, 거칠고 도도하게 흐르는 냇물을 보고 어진 사람이 즐기는 것을 즐긴다고 하는

것은 심하게 틀린 것이며, 구하려고 하면 할수록 진실에서 더욱 멀어지지 않을 수 없다...”

『退溪先生文集』 권37 書, ‘答權章仲好文’)

- 조선 개국의 원훈 정도전의 경세사상에도 유교의 자연친화적 ‘인’이 바탕을 이룬다.

“대숲을 보호하려 길을 굽게 만들었고, 산을 아껴 누각을 작게 세웠네.” “護竹開迂徑 憐山起小樓 - 『(三峯集) ‘山中’)

3) 서원 경관에서 찾는 천인합일의 사례

- 남계서원 풍영루

남계서원 풍영루(風詠樓)는 서원의 전망경관에서 천인합일하는 즐거움을 얻는 곳이다. 『風詠樓記』에, “사방으로 바라보이는 경치가 들판이 평평하게 넓고, 냇물이 감돌아 얹히듯 했는데, 먼 숲은 푸르고 저녁 노을이 아름답다” 하였다. 또 “이 다락에 오르면 넓어지는 마음과 편안한 정신이 자연 속에 자맥질하여 유연히 스스로 얻은 뜻이 있다. 頭流山(지리산)의 만첩 봉우리와 花林川(남계의 상류) 아홉 구비의 흐름에서 거의 일두 선생의 風標를 보고 선생의 기상을 우리러 볼 수 있으니, 흡사 선생을 모신 자리에서 曾點이 쟁그렁하고 비파를 밀쳐놓던 뜻이 있는 듯해서 풍영루라 이름 하였다”고 밝힌다. 또 19세기 대표적 유학자의 한 사람인 奇正鎭의 풍영루 기문에는 정여창의 기상을 증점에 직접 비유하였다. “일두 선생의 심오한 학문은 비록 후생이 헤아릴 수 없으나 여러 선배들의 말씀을 상상해보건대, ... ‘외로운 배로 큰 강을 내려간다.’ 라는 글귀를 음미하니, 은연중에 舞雩에 바람 쏘이고 沂水에서 목욕하겠하던 기상이 있다. 이는 어찌 멀리 사모하고 바라는 것으로만 얻어진 것이리오. 지킴이 오래되면 절로 이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두류산 백암산과 남계와 위수는 모두 조망할만한 아름다운 산수로 기록할만하다.” 하였다.

증점의 기상이란 공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증점이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에 올라 바람을 쏘이고 노래하며 돌아오겠습니다. 하니 공자께서 탄식하며 너와 함께 하고 싶구나.”(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 夫子喟然歎曰 吾與點也) 했다는 기상을 말한다. 풍영루에 올라 서원 앞 경치를 바라보는 감회는 공자의 탄식을 자아낸 증점 답변을 떠올린다. 정여창이 지리산 유람을 다녀오며 지은 頭流詩에 “바람결에 냇버들 가볍게 나부끼니 사월 화개 땅에 보리가 이미 익었구나. 두류산 봉우리를 모두 둘러보고 외로운 배는 다시 큰 강으로 내려가네(風蒲泛泛弄輕柔, 四月花開麥已秋, 看盡頭流千萬疊, 孤舟又下大江流)” 하였다. 이러한 정여창의 기상이 곧 증점의 기상과 같다는 것이다.

문루 풍영루에서 보이는 탁 트인 들과 아지랑이 낀 시내 그리고 구름 속에 아득한 산들이 주는 감회는 증점의 기상과 통한다. 주자는 증점의 기상을 “마음이 유연하여 곧바로 대자연과 혼연일체가 되어 얻게 된 심오한 경지”로 평가한다. 이 경지는 마음이 유연한 군자가 남계서원의 전망 경관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여창의 기상과 경지도 이것이며, 또 정여창을 흠모하는 선비들의 기상이기도 할 것이다. 문루 풍영루는 남계서원의 전망경관, 대자연과 하나가 되는 천인합일의 경지, 그리고 일두 정여창의 기상을 함께 느끼게 하는 장소이다.

- 소수서원 경림정

퇴계는 경림정(景濂亭) 시에서, 경림정에서 지각하는 천인합일감을 ‘초유일반의(草有一般意)’ 곧 천지 만물의 본성인 생의(生意)의 자각으로 표현한다. 퇴계는 산에서 자라는 풀들도 생의를 가진 것으로 읊고, 끝없이 흐르는 시냇물 소리는 그 생의를 머금은 것으로 인식한다. 여기서 죽계와 경(敬)자 바위를 바라보

는 경림정은 함양(涵養)의 장소에서 나아가 성리학에서 말하는 인(仁)을 지각하는 장소라는 의미로 발전한 것이다.

경림정(景濂亭)

풀도 우리 인간처럼 생의를 가졌으니,	草有一般意
흐르는 시내 끝없는 소리를 머금었네.	溪含不盡聲
유람객들 내 말 아직 믿지 못하는 듯,	遊人如未信
씻은 듯이 상쾌한 텅 빈 정자를 보게나.	蕭洒一虛亭

‘풀도 나와 마찬가지로 생의를 가진다(草有一般意)’는 말은 염계(濂溪) 주돈이(周敦頤)가 창 앞의 풀을 뽑지 않아 제자들이 그 이유를 물었더니, “내 마음과 같기 때문이다(與自家意思一般)”라고 한데서 유래했다. ‘경림정(景濂亭)’이란 이름은 염계 주돈이를 사모한다는 뜻이다. 퇴계는 사람들이 경림정 위에서 송림과 시냇물을 보며, 염계(濂溪)처럼 생의(生意)를 함축한 자연 경치를 통해서 ‘인’을 깨닫기 바라는 것이다. 퇴계는 경림정에서 바라보는 전망 경관 죽계와 취한대(翠寒臺)를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을 얻어 나의 마음으로 하는(仁者 天地生物之心, 而人之所得以爲心)’ ‘인’을 체득하게 하는 안대 경관으로 본 것이다. 경림정은 ‘천지만물과 하나가 되는 인’(仁者 以天地萬物爲一體)을 지각하고 본성을 함양하는 장소라는 의미를 얻게 된 것이다.

• 옥산서원 무변루

무변루의 ‘無邊’은 북송시대의 시인 黃庭堅이 염계 주돈이의 인품을 “風月無邊 庭草交翠”로 찬양한 데서 나온 말이다. 주렴계의 인품을 ‘풍월무변’으로 부른 것은 염계가 光風霽月 같이 넓고 밝은 마음으로 자연을 즐기는 흥취가 무궁무진하다는 의미이다. 또 ‘庭草交翠’라 한 것은 염계가 ‘나와 뜻과 같다(與自家意思一般)’ 하여 정원의 풀을 제거하지 말라고 한 生意尊重 사상을 가리킨다. ‘意思一般’은 대자연과 하나가 되어 ‘天人合一의 仁’을 지각하는 의미로 자주 사용된다. 염계는 『太極圖說』을 저술하여 新儒學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며 宋學·道學의 시조로 불리진다. 이언적은 염계의 『태극도설』 ‘無極而太極’에 대하여, “道の 어디까지나 物的 형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만물의 바탕이 되는 것”이라고 논한 바 있다. 회재의 제자인 노수신은 무변루의 의미를 “부족함도 없고 남음도 없으며, 처음도 없고 끝도 없구나. 마음이 광풍제월처럼 맑고 빛나 태허의 경지에서 노니네.”(靡欠靡餘 罔初罔終 光與霽與 遊于太虛)라고 풀이하였다. 이는 염계의 ‘無極’을 말하면서, 염계의 인품을 함께 말한 것이다. 결국 노수신은 무변루의 의미를 풀이하면서 생기 충만한 자연과 합일하는 마음이 곧 천인합일의 ‘인의’ 지각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노수신의 무변루 해석은 염계의 光風霽月의 경지를 옥산서원이 모신 이언적에 비유하는 은유를 함축한 것이다.

• 필암서원 학연루

학연루의 ‘학연’은 ‘廓然大公’에서 왔다. 학연루 전망경관에 私心이 없다면, “드넓게 공평할 수 있고, 사물이 이르면 순응할 수 있다.”(廓然而大公 物來而順應)는 감흥이 있다. ‘학연’은 북송시대 유학자 정호의 “대체로 천지의 상도는 그 마음이 만물에 두루 미쳐서 사심이 없는 것이며, 성인의 상도는 그 정이 만사에 순응하여 사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자의 학문은 확연히 공평하여 만사 사물이 왔을 때 그대

로 받아들여 따를 뿐이다.”(夫天地之常 以其心普萬物而無心, 聖人之常 以其情順萬事而無情 故君子之學 莫若廓然而大公 物來而順應)에서 취한 것이다. 학연루에 걸려 있는 하서의 후손 金時榮의 「廓然樓記」에는 학연루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풀이한다.

“아, 내 삼가 尤庵의 隱微한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편리하게 생각한 적이 있다. 정자의 말에 “군자의 학문은 확 트이게 넓혀 크게 공평하게 하고서, 사물이 다가오면 의리에 맞게 순응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주자가 연역하기를 “확 트이게 넓혀 크게 공정하게 한다는 것은 ‘인’ 몸체(體)가 되는 것이고, 사물이 다가오면 의리에 맞게 순응한다는 것은 義가 쓰임(用)이 되는 것이다. 인이 확립되고 의가 행해지면 본성이 고요해져서 이 세상의 움직임이 한결같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대개 사람의 한 치 마음이 담박하여 텅 비고 밝아서 사사로운 생각이나 잔꾀에 얽매임이 없게 되면, 거울처럼 텅 비고 저울대처럼 평평하여 치우치지도 기대지도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중에 늘 마음을 두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연히 마음이 확 트이게 되어 밖에서 비추는 것들이 그에 순응하지 않음이 없게 될 것이다”

4. 평생학습사회에서 유교의 생애교육 지혜

1) 나에서 비롯되는 심신지교(心身之教) 유교

- ‘하늘이 명하는 것을 본성(性)이라 말하고, 본성을 따르는 것을 길(道)이라 말하며, 길을 닦는 것을 가르침(教)이라 한다. “유가 최고의 철학책 『중용』 제 1장 서두이다. 하늘의 길과 사람의 일은 잠시도 나뉘질 수 없으며, 길은 인간 본성의 전개이므로 가르침(教育)은 길을 실현하는 것이 된다. 또한 그 가르침은 하늘이 인간에게 본성으로 부여한 것을 실현하는 자기 실현을 의미한다.
- 유교는 본성으로서 인간성(仁)의 완성을 위한 끊임없는 자기 심신의 계발을 위한 가르침(心身之教)이다. 일찍이 맹자는 자기실현을 위한 노력으로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을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이미 나 자신 안에 모두 갖추어져 있다. 인을 향하는 진정한 노력을 돌이켜 보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다. 그러나 이 즐거움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크고 중요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남에게도 자신의 마음처럼 힘써 행하는 엄청난 노력이 요구된다.”(孟子曰 萬物皆備於我矣. 反身而誠, 樂莫大焉. 強恕而行, 求仁莫近焉. - 『맹자』 盡心上 4)
- 전체 인생을 통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배우며 자신을 계발해야 한다. 인격적 지식을 심화시키는 학문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변화시킬 수 있다. 배우는 과정은 죽은 뒤에나 끝나는 평생학습이다.
- “배움은 뜻을 세움에서 시작하는 것이며 배움은 기질을 변화시키고 구습을 극복시켜 사람을 변화시킨다.”(學者爲奇所勝 習所奪 只可責志 - 『근사록』 「위학편」 38, 『程氏遺書』 제16)
- “배우지 않으면 후퇴할 뿐 아니라 늙고 병든다.”(不學便老而衰 - 『위학편』 36, 『정씨유서』 제16).
- 증자가 말하기를, “선비는 모름지기 마음이 넓고 뜻이 굳세어야 할 것이니, 그 임무는 무겁고 갈 길은 멀기 때문이다. ‘인’으로써 자기 임무를 삼았으니 어찌 무겁지 않으랴. 죽은 뒤에야 그칠 것이니 어찌 멀지 않으랴.”(曾子曰 士不可以不弘毅 任重而道遠 仁以爲己任, 不亦重乎 死而後已, 不亦遠乎 - 『논어』 「泰伯」)

- 주돈이(周惇頤)는 “성인은 자연을 희망하고, 현인은 성인을 희망하며, 선비는 현인을 희망한다.”(聖希天, 賢希聖, 士希賢 - 『通書』「志學章」 제10)하고, 성인은 배울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배울 수 있다. 요점이 있습니까? 있다. 하나가 요점이니 하나는 바로 욕심이 없는 것이다. 욕심이 없으면 고요하고 텅 비고 움직임이 바르게 된다. 고요하여 텅 비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통한다. 움직임이 바르면 공정하고 공정하면 넓어진다. 밝고 통하고 공정하고 넓어지면 거의 성인에 가깝다. (聖可學乎 曰：可 曰：有要乎 曰有 請聞焉 曰一為要 一者無欲也，無欲則 靜虛 動直，靜虛則明，明則通；動直則公，公則溥·明通公溥，庶矣乎！-『通書』)
- 유교는 공부를 계속하여 자기 수양에 매진하는 한, 인간은 노쇠하지 않고 성장 성숙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람은 성장하기 때문에 늙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멈추면 늙는 것이다.’라는 말처럼,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선비는 그 뜻을 크고 굳건하게 하여 평생토록 각고의 노력을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참된 선비의 임무는 넓고 깊게 배우고 실천하여 그 길을 확장하는 것이다.

2) 공자의 자기실현 평생교육

사람은 생애의 각 시기에 따라 상이한 육체적 정신적 욕구가 있고 성숙도가 다르다. 이러한 생애 단계의 상이한 여건에 맞추어 자기실현으로서 배움의 성격이 규정되고, 그 내용도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 『논어』에는 공자가 인생의 단계를 청년·장년·노년이라는 세 가지로 구분하고, 경계해야 할 점에 대해서 수록하고 있다.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세 가지를 경계해야 하는데, 청년은 혈기가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욕을 경계하고, 장년은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싸움을 경계하고, 노년은 혈기가 약해졌기 때문에 탐욕을 경계해야 한다.”(孔子曰：君子有三戒：少之時，血氣未定，戒之在色；及其壯也，血氣方剛，戒之在鬪；及其老也，血氣既衰，戒之在得) 하였다.

젊은 시기의 지나친 성욕과 같은 혈기는 몸과 마음의 건강에 해쳐 자연스러운 성장을 저해하는 ‘조장(助長)’의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 장년기의 지나친 열정은 과시적인 경쟁에 몰두하게 되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는 남을 위한 인간이 되는 길을 갈 수 있다. 외적 지향성을 위주로 하면, 내적 방향성을 상실하고, 역경을 이겨내고 즐거움을 오래 유지하는 능력이 약화될 것이다.”(子曰：「不仁者不可以久處約，不可以長處樂。仁者安仁，知者利仁 -『논어』, 「里仁」 2장)

이러한 열정은 외적인 간섭이나 도전에 쉽게 흔들리게 된다. 늙었을 때의 탐욕은 이미 얻은 것에 대한 집착이다. “더 많이 얻기 위해 근심하고 잃지 않기 위해 고민하는” 소인배의 모습은 노인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혈기는 젊은 시절에는 동요하고 장성해서는 강하고 늙어서는 쇠한다. 혈기를 통제함으로써 길러지는 것이 지기(志氣)이다. 지기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쇠하지 않는다. 지기를 기르는 학습을 통하여 군자는 나이가 높을수록 오히려 덕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긴 생애에서의 개인의 배움과 실천의 과정에 대한 공자의 언명은 나이에 따라 개인이 성숙해가는 다양한 단계를 의미 깊게 묘사한 불후의 명언이다.

- “나는 15세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志于學), 삼십에는 예절에 맞게 자아를 확립했다(而立). 사십에는 더 이상 미혹되지 않았고(不惑), 오십에는 하늘의 명령을 알았다(知天命). 그리고 육십에는 자연스럽게 각종 비판을 편안하게 수용했고(耳順), 칠십에는 내 마음에 쫓아서 행동해도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從心所欲不踰矩)” (『논어』「爲政」 4장)

나이에 따른 공자의 성숙단계 구분은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에 경계해야 할 가르침과도 관련된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으로 자각적 인간이 나타내는 성숙성의 실현을 의미한다. 학문에 뜻을 두었다는 것은 의지를 세움 다시 말해 입지(立志)를 뜻한다. 특히 젊은 사람의 경우 도덕적 능력을 세우려는 욕구가 이성에 대한 관심과 욕구만큼 강하지 못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자는 자신의 기본적인 감정을 조율하는 안내자로 시(詩) 공부를 권장한다(興於詩). 15세에 학문에 뜻을 둔다는 것이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변화 성장시키기 위한 새롭고 지적이면서 시적(詩的) 상태의 성장과정을 의미한다면, 30세에 예절이라는 사회적 책임에 적합하게 인격을 세우는 것은 성숙성의 실현을 의미한다. 예절이란 인간관계망 속에서 실현되므로 예절로 자기를 세운다는 것(立於禮)은 다양한 유대 관계 속에 맡게 되는 책임감을 가리킨다(自任).

- ‘40에 더 이상 미혹되지 않았’는 것은 중년이 된 공자의 상태를 상징한다. 미혹되지 않음은 마음의 주체성을 의미한다. 의지가 확고하게 일에 머무르기 때문에 공자에게 부귀와 명예는 뜬 구름과 같아 더 이상 마음을 흐리게 할 수 없다.(子曰; 飯疏食飲水, 曲肱而枕之, 樂亦在其中矣. 不義而富且貴, 於我如浮雲 - 『논어』 「술이」 15장) 그것은 사회적 곤란에 대한 반발이 아니다. 내면의 힘이며 평정이 주는 침착함이다. “나는 조용히 듣고 기억하였다. 나는 결코 배우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데 게으르지 않았다.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매우 자연스럽다.”(默而識之, 學而不厭, 誨人不倦 何有漁我哉 - 『논어』 「술이」 22장). 동요되지 않는 마음이다. 동요되지 않는 마음이란 사회적 관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도 전체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혜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동요되지 않는다.(知者不惑 仁者不憂 勇者不懼 - 『논어』 「子罕」 28장) 동요되지 않는 사람은 완성된 사람을 의미한다. “오늘날 완성된 사람은 어찌 굳이 그러할게 있겠느냐. 이익이 생기면 정의를 생각하고 위기에 처하면 목숨을 던질 각오를 하고, 평생토록 지킬 말을 잊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을 완성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曰: 今之成人者何必然? 見利思義, 見危授命, 久要不忘平生之言, 亦可以爲成人矣 - 『논어』 「憲問」 13장) 사회적 관계에서 자득(自得)하는 인생 단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더 이상 미혹되지 않는 것이 배움에서 얻게 되는 인간의 지혜와 용기를 의미한다면, 노년기를 앞두고 피할 수 없는 괴로움을 겪으면서 ‘하늘의 명령을 아는 것’(知天命)은 위대한 자연과의 조화를 향한 스스로의 마음 다짐이다. 노경에 인생의 고초를 겪으며 느끼는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대한 적극적 긍정이며, 그 시기를 정면으로 대처하는 정교한 마음의 틀이 되기도 한다. 공자는 세상으로부터 소외를 느끼며 하늘만이 나를 알고 있다.(子曰, “不怨天, 不尤人, 下學而上達. 知我者其天乎 - 『논어』 「현문」 37장) 선택의 범위가 제한된다. 늙었지만 그의 선택은 분명하다. 결코 ‘인의’ 길을 포기 하지 않는 것이다.(子曰 詩之好仁如此, 嚮道而行 中道而廢 忘 身之老也 不知 年數之不足也 俛焉日有孳孳 斃而後已 - 『예기』 32편 「表記」) 하늘의 명령을 알기 때문에, 실패와 고초를 격을수록 더 강한 의무감을 느끼고 묵묵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子曰: 予欲無言. 子貢曰: 子如不言, 則小子何述焉? 子曰: 天何言哉? 四時行焉, 百物生焉, 天何言? - 『陽貨』 19장; 子曰: 天生德於予, 桓魋其如予何 - 『述而』 22장)

- 60세에 편안하게 듣게 되었다는 말(耳順)은 타인과 세상에 대한 수용성을 의미한다. 듣는 능력은 초연한 정신으로 세상을 긍정하는 것이다. 세상을 음미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주희는 『논어집주』에서 “음성이 들리면 마음을 열고 어기고 거스르는 바가 없다. 아는 것이 지극하여 생각하지 않아도 얻어지기 때문이다.” 하였다. 공자는 고집 독단 억지 이기심이라는 마음의 4가지 결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이

다.(子絕四: 毋意, 毋必, 毋固, 毋我.-「자한」4장) 이러한 마음의 평화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子曰, 朝聞道 夕死可矣 -「里仁」8장)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긍정은 결코 세상에서 탈출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 투쟁하지 않으면서도 세상과 연대를 이루는 자기실현을 상징한다.

- 70세에 ‘마음을 좇아서 행해도 법도를 아가지 않았다(從心所欲不踰矩)’는 자연을 포함한 모든 세계와의 조화를 뜻한다. 이 인생의 마지막 단계는 그 이전 모든 단계의 결실을 상징하는 듯하다. 맹자가 “큰 사람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잊지 않는다.”(大人者 不失其赤子之心者也 -「離婁」下 13장) 하였듯이, 70세의 공자는 구애 받지 않는 자유의 즐거움과 훌륭하게 수양한 사람이 얻게 되는 어린아이 같은 자연스러움을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공자가 ‘음악으로 이룬다’(成於樂) 했을 때의 경지를 말하는 듯하다. 공자는 노나라의 악관에게 “음악이 처음에는 합하여 일지로 시작하고, 다음부터는 연주가 보다 자유스럽지만 그 소리가 끝날 때까지 조화롭고 웅장하며 연결되어 완성된다.”(子語魯大師樂. 曰: 樂其可知也: 始作, 翕如也; 從之, 純如也, 皦如也, 繹如也, 以成. -「八佾」23장)하였다.
- 공자의 일생을 현대인에게 비유하자면, 20·30대는 전체 인생에 대한 뜻을 세우는 청년기의 입지(立志)를 통해서 지기(志氣)를 축적하고 원대한 이상을 추구하는 자임(自任)의 시기이다, 40·50대는 배움을 통해서 지혜가 무르익은 장년기의 자득(自得)의 시기이다. 노년인 60·70대 이후는 욕심을 버리고 고집하지 않는 경지를 배움으로써 세상과 조화롭게 어울리는 평화 속에 자연스러움을 완성하는 자취(自取) 혹은 자족(自足)의 경지를 의미한다. 생애를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세 시기로 구분한다면, 각 시기의 배움의 성격은 청년기의 입지(立志: 自任), 장년기의 자득(自得), 노년기의 자족(自足)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

3) 입지(立志; 自任)

역사상 큰 인물들이 우리들에게 위대해 보이는 이유는 신의 소명을 받았거나 천부적 재능을 타고 났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가장 뛰어난 인간성의 실현자로서 온 힘을 다해 우리 모두의 짐을 떠맡았기 때문이다.

- 『논어』에 자기 임무를 인(仁)으로 삼았으니, 어찌 무겁지 않으랴.
「태백(泰伯)」편에 “증자가 말하기를, “선비는 모름지기 마음이 넓고 뜻이 굳세어야 할 것이니, 그 임무는 무겁고 갈 길은 멀기 때문이다. 인(仁)으로써 자기 임무를 삼았으니 어찌 무겁지 않으랴. 죽은 뒤에야 그칠 것이니 또한 멀지 않으랴.”(曾子曰 士不可以不弘毅 任重而道遠 仁以爲己任, 不亦重乎? 死而後已, 不亦遠乎 -「태백」7장)
- 『맹자』에 이윤(伊尹)이 탕왕(湯王)에게 나아간 것을 “스스로 천하의 무거운 짐을 스스로 만는다”(其自任以天下之重如此, 故就湯而說之以伐夏救民 -「만장(萬章)」7장) 하였다.
- 정이(程頤)는 황제에게 올리는 글에서 “입지란 지극한 정성으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도를 행하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기꺼이 떠맡는 것을 말한다.”(所謂立志者 至誠一心 以道自任) 하였다. 자임(自任)한다는 것은 결국 마음을 성실하게 하여 도덕적 책무를 자신의 마음으로 받아 들여 뜻을 세우는 입지를 의미한다.

- 맹자, “먼저 마음을 크게 세우면 작은 욕망들이 마음을 빼앗지 못한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대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소인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큰 것을 따르는 사람은 대인이 되고, 그 작은 것을 따르는 사람은 소인이 되는 것이다. ... 마음의 기능은 생각하는 것이니 생각하면 큰 것을 얻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얻지 못한다. 이는 하늘이 우리들에게 준 것이니, 먼저 큰 마음을 세우면 작은 욕망들이 마음을 빼앗지 못한다.” (公都子問曰: 鈞是人也, 或爲大人, 或爲小人, 何也? 孟子曰: 從其大體爲大人, 從其小體爲小人. 曰: 耳目之官不思, 而蔽於物, 物交物, 則引之而已矣. 心之官則思, 思則得之, 不思則不得也. 此天之所與我者, 先立乎其大者, 則其小者弗能奪也. 此爲大人而已矣. -- 맹자 告子 상 15장)

『맹자』에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커다란 임무를 부여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의 근육과 뼈를 수고롭게 하며, 그의 몸뚱이를 굶주리게 하고, 그를 가난하게 만들며, 그가 추구하는 길을 장애물로 막는다. 그렇게 만들어서 그의 마음을 분발시키고, 그의 성질을 단련시켜서 그가 잘하지 못하는 것을 개선시켜 준다.”(故天將降大任於是人也, 必先苦其心志, 勞其筋骨, 餓其體膚, 空乏其身, 行拂亂其所爲, 所以動心忍性, 曾益其所不能 - 「告子」 하 15장).

- 장재, “천지만물을 위해 마음을 세운다.”

천지를 위해서 마음을 세우고, 백성을 위해서 삶의 길을 세우고, 옛 성인을 위해서 끊어진 학문을 잇고 만세를 위해 태평을 연다.(爲天地立心 爲生民立道 爲去聖繼絕學 爲萬歲開太平 - 『張載集』, 「近思錄拾遺」)

4) 천지는 낳고 낳는 것을 마음으로 삼고 성인은 그 화육에 참여하여 만물이 각기 그 본성의 바름을 얻도록 도와주니 이것이 천지를 위해 마음을 세운다는 것이다. 의리를 세워 밝히고 삼강과 오상의 윤리를 도와 세우는 것, 이것이 백성을 위해 삶을 길을 세우는 것이다. 끊어진 학문을 잇는다는 것은 도통을 모아 서술하는 것을 말한다. 태평을 연다는 것은 제왕이 일어나면 반드시 나에게서 법을 구해 그 은택이 만세에 미치게 하는 것이다. 배우는 사람이 이것으로 뜻을 세우면 책임이 극히 커서 작은 성취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요. 품은 생각이 지극히 공정해서 구차하게 눈앞의 실용만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 장재, “학자는 뜻이 작고 기질이 가벼우면 절대로 안 된다.

“뜻이 작으면 쉽게 만족하고 쉽게 만족하면 나아갈 방도가 없게 된다. 기질이 가벼우면 알지 못한 것을 알았다고 여기고 아직 배우지 못한 것을 이미 배웠다고 여긴다.”(學者大不宜志小氣輕. 志小則易足, 易足則無由進. 氣輕則以未知爲已知, 未學爲已學 - 『근사록』 「爲學」 111)

- 김성일(金誠一), 걱정해야 할 것은 뜻을 세움에 참되지 못한 것이고, 재주가 부족한 것은 걱정할 것이 아니다.

“사람은 뜻을 세움에 참되지 못한 것을 걱정해야 할 것이고 오히려 재주가 부족한 것은 걱정할 것이 아니다. 재주가 있다는 해서 소인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재주가 없다는 것이 군자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人患立志不誠, 何患才不足. 有才不免爲小人, 無才不防爲君子 - 『학봉전집』 「언행록」)

서원의立志 사례

- 도산서원의 西齋의 당호는 홍의재이다. ‘홍의(弘毅)’는 마음이 넓고 뜻은 굳세야 한다는 뜻을 세움(立志)의 중요성을 말한다.
- 남계서원 외삼문은 준도문(遵道門)’이다. 공자는 “군자가 도에 좇아 행하다가 중도에서 그만두기도 하는데, 나는 그만둘 수 없다. 군자는 중용에 의탁하여 세상을 숨어 살아 알아주는 이 없어도 뉘우치지 않으니, 오직 성자라야 그렇게 할 수 있다”(君子遵道而行, 半塗而廢, 吾弗能已矣. 君子依乎中庸, 遯世不見知而不悔, 唯聖者能之 『중용』 10장) 하였다. 남계서원 대문 준도문(遵道門)은 세상이 알아줄까 근심하지 않고, 힘들더라도 중도에 그만두지 않고, 중용에 의탁하여 도를 실천궁행하는 군자를 키우는 서원임을 천명한 당호이다.
- 돈암서원 山仰樓; 돈암서원이 제향하는 사계 김장생의 「養生樓記」에 나오는 “仰而樂山 俯而觀水 觸物悟理 涵泳優游”의 ‘仰而樂山’에서 취한 것으로 보인다.(若早尋初服 仰而樂山. 俯而觀水 觸物悟理. 涵泳優游. 則未必無助於心地上工夫 - 『沙溪先生遺稿』 권五 「記養性堂記」) 과거 서원이 있던 자리에서 보면 멀리 남으로 대둔산과 북으로 계룡산을 바라보는 ‘仰而樂山’하는 경관이 뚜렷하다. ‘山仰’은 “높은 산을 우러르고 큰 길을 따라간다(高山仰止 景行行止-『詩經』)”하는 ‘인’에 대한 공자의 불굴의 노력을 상기시킨다.
- 도동서원 강학공간의 당호
강학공간의 당호는 강당 중정당(中正堂), 동 서의 재사는 거인재(居仁齋)와 거의재(居義齋), 대문은 마음을 주재자로 부르는 환주문(喚主門)이다. 이는 염계 주돈이의 『태극도설』 가운데 “성인은 중(中)·정(正)·인(仁)·의(義)로서 온갖 일은 안정시키고 고요함을 위주로 사람의 표준(人極)을 세우셨다”(聖人定之以中正仁義 而主靜立人極焉, 故聖人與天地合其德, 日月合其明, 四時合其序, 鬼神合其吉凶. 君子修之吉, 小人悖之凶, 故曰 立天之道曰陰與陽, 立地之道曰柔與剛, 立人之道曰仁與義...” - 『太極圖說』)에서 가져온 것이다.
배움의 뜻을 세운 선비는 주정(主靜)의 敬을 마음의 주재(主宰; 喚主門)로 세워, 居敬齋와 居義齋에서 仁義를 닦아서, 마침내 中과 正의 경지인 성인이 될 수 있다. 유교의 위대성은 ‘배움을 통해서 聖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며, 그 시작은 입지(立志)에 있다는 것을 도동서원 강학공간 당호가 담고 있다.

4) 자득

- 군자는 자득하기를 원한다.
『맹자』에 군자가 깊이 나아가는 것을 도(방법)로써 하는 것은 자득하고자 함이다. 자득 곧 스스로 터득하면 거처함에 편안하고, 거처함이 편안하면 이용하기 편하고, 이용하기 편함은 좌우에서 취하여 씹어 그 근원을 만나게 된다. 그러므로 군자는 자득하기를 원한다. (孟子曰: 君子深造之以道, 欲其自得之也. 自得之, 則居之安; 居之安, 則資之深; 資之深, 則取之左右逢其原, 故君子欲其自得之也. - 『맹자』 「離婁」 하 14)

- 군자는 자득하지 못할 바가 없다

『중용』에 “군자는 자신의 처지에 마땅하도록 처신할 뿐이다. 처지 밖의 것을 바라지 않는다. 부귀(富貴)에 처하면 부귀에 마땅하게 처신하고, 빈천(貧賤)에 처하면 빈천에 마땅하게 처신하고, 이적(夷狄)에 처해서는 이적에 마땅하게 처신하고, 환난(患難)에 처해서는 환난에 마땅하게 처신한다. 군자에게는 들어가지 자득하지 못할 바가 없는 것이다.” (君子素其位而行, 不願乎其外. 素富貴, 行乎富貴; 素貧賤, 行乎貧賤; 素夷狄, 行乎夷狄; 素患難, 行乎患難; 君子無入而不自得焉 -「道論」)

- 스스로 아는 것이 자득이다.

정자(明道 程顥)가 말씀하셨다. “학문을 하는데 말하지 않고 스스로 아는 것이 곧 자득이다. 안배하고 포치함이 있는 것은 모두 자득함이 아니다. 그러나 반드시 마음을 담그고 생각을 쌓아서 그 사이에서 오랫동안 여유롭게 충분히 행한 다음에야 자득함이 있을 수 있다. 만일 급박하게 구한다면, 이는 사사로움일 뿐이어서 끝내 얻지 못할 것이다.” (程子曰: 學不言而自得者, 乃自得也. 有安排布置者, 皆非自得也. 然必潛心積慮, 優游饜飫於其間, 然後可以有得. 若急迫求之, 則是私己而已, 終不足以得之也. 『정씨유서』 11)

- 정호, 만물을 조용히 바라보니 모두 자득이로다.

‘가을날에 읊어보다(秋日偶成) -『河南程氏文集』, 권3, 『明道先生語』 3, 銘詩

“한가히 살아오니 조용하지 않을 일이 없고,	閒來無事不從容,
잠에서 깨니 동창의 해가 이미 붉구나.	睡覺東窓日已紅.
만물을 조용히 바라보니 모두 자득함이요,	萬物靜觀皆自得,
사계절의 좋은 흥취는 여러 사람과 함께 할 것이라.	四時佳興與人同.
도는 천지 형상 밖까지 통하고,	道通天地有形外,
생각은 풍운 변화 속으로 들어간다.	思入風雲變態中.
부귀해도 지나치지 않고 빈천해도 즐거워하니,	富貴不淫貧賤樂,
남아가 이에 이른다면 호걸이라 하겠다.”	男兒到此是豪雄.

- 자연의 경지를 자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명대의 유학자 진헌장(陳獻章: 1428~1500)은 “산림과 조정 저자거리는 매 한가지이고, 삶과 죽음, 항상과 변화도 마찬가지이며, 부귀와 빈천 외적인 환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이름 하여 ‘자득’이라 한다. ‘자득’이란 외부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남의 이목에도 얽매이지 않고,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따라서 ‘술개가 날고 물고기가 뛰는다.’는 경지가 나에게 있는 것이다.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선이라고 말하고,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배울지라도 무익하다. 이러한 경지는 막힘이 없고 어떠한 사물도 없기 때문에 ‘허’라고 부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공부를 ‘지극히 텅 비게 함(치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연이란 마음에 번거롭고 막힌 것들을 텅 비워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헌장의 ‘자득’은 즐거움이나 쾌락(灑落)의 심령 경지를 뜻하며, ‘자연’은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공부의 의미도 함께 지닌다. 이 자연 공부가 바로 맹자가 말하는 ‘잊지도 말고 조장하지도 말라(勿忘勿助)’는 공부이다. -『송명성리학』, 361쪽

서원의自得 사례

· 도산서원 천연대와 천광운영대

텅 비고 고요한 마음으로 자연과 하나 됨으로써 얻어지는 경지의 즐거움에 대하여 퇴계는 「도산십이곡」에서 “봄바람에 꽃 온 산 가득하고, 가을밤에는 달이 臺에 가득하니, 사계절 아름다운 흥취가 사람과 하나가 되는구나. 하물며 鳶飛魚躍 天光雲影이야 끝이 있으랴.” 하였다. 천연대와 천광운영대에서 낙동강 물을 바라보며 천지자연과 일체가 되는 즐거움을 말한 것이다. 천연대의 천연(天淵)은 『詩經』의 “솔개는 날아서 하늘에 이르고, 물고기는 못에서 뜬다.(鳶飛戾天 魚躍于淵)”에서 온 말이다. 천연대에 서서 강물 위로 솔개가 날고 물고기가 뛰는 모습을 바라보면, “위아래에서 활발히 流行하는 천지의 造化 곧 天理를 살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정호는 『중용』에서 ‘솔개는 날고 물고기가 뛰논다.’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잊지도 말며 조장하지도 않는 것에서부터 도달한 자유롭고 활발한 정신 경지라고 풀이한다. 퇴계는 그가 평생 추구한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人慾)을 막는 공부의 효험을 천연대에 올라 확인하는 즐거움에 대하여, “천연대에서 자연의 활발한 운행을 보고 오묘한 하늘 뜻을 깨달았으며 하루 종일 마음의 눈을 열었다.”(縱翼揚鱗孰使然 流行活潑妙天淵 江臺盡日開心眼 三復明誠一巨編)고 술회했다.

5) 자족

· 공자, 나를 아는 자는 아마도 하늘이로다.

“공자가 말했다. ‘나를 알아주는 자가 없구나.’ 자공이 말했다. ‘왜 아무도 선생님을 모릅니까?’ 공자가 말했다. ‘하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탓하지 않고 일상적인 삶을 통하여 학문을 이루어 위로 진리에 도달하니 나를 아는 자는 아마도 하늘이로다.’”(莫我知也夫! 子貢曰, “何爲其莫知子也?” 子曰, “不怨天, 不尤人, 下學而上達. 知我者其天乎! -『논어』「현문」 37장)

· 공자,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중용』에 “윗자리에 있으면 아랫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아랫자리에 있으면 위사람을 당겨 잡지 않는다. 자신을 바로잡고 남에게서 구하지 않으면 원망하는 마음이 없나니 위로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아래로는 사람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평이하게 머물면서 하늘의 명을 기다리고 소인은 위험한 행동을 하면서도 요행을 바란다. 공자는 활쏘기가 군자의 태도와 유사한 바가 있다고 했는데, 정곡을 맞히지 못하면 돌이켜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기 때문이다.”(在上位不陵下, 在下位不援上, 正己而不求於人則無怨. 上不怨天, 下不尤人. 故君子居易以俟命, 小人行險以徼幸. 子曰: 射有似乎君子; 失諸正鵠, 反求諸其身 - 『중용』 14장)

· 자취(自取), 마음을 열고 세상을 음미함

“어린애들이 노래하기를 창랑에 물이 맑거든 나의 소중한 갓끈을 빨래할 것이요. 창랑의 물리 흐리거든 더러운 발을 씻겠다 하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자들아 저 노래를 들어보아라. 물이 밝으면 갓끈을 빨고 흐리면 발을 씻는 것이니 이는 물을 자취(自取)하는 것이다. 하였다.”(有孺子歌曰: 滄浪之水清兮, 可以濯我纓; 滄浪之水濁兮, 可以濯我足. 孔子曰: 『小子聽之! 清斯濯纓, 濁斯濯足矣, 自取之也. - 『맹자』「이루」 상 8장)

주자가 이를 주석하기를, “물이 맑고 흐림을 자취(自取)함을 말한 것이다. 성인은 소리가 귀에 들어가면 마음으로 통하여 지극한 이치가 아님이 없으니 이런 것에서 볼 수 있다.”(言水之清濁有以自取之也。聖人聲入心通, 無非至理, 此類可見 -『맹자집주』「이루」상 8장) 하였다.

• 주희의 사조명(寫照銘)

주자는 노경에 자신의 초상을 그리게 하고 명(銘)을 쓰기를, “너의 몸을 단정하게 하고, 얼굴빛을 공경하게 하라. 밖은 단속하고, 마음속은 하나로 일관하라. 처음 뜻을 세운 바를 힘써 닦아 그 마지막을 잘 맺으라. 요점을 잡은다면 무궁함을 얻으리라.”(端爾窮 肅爾容, 檢於外, 一其中, 力於始, 修其終 操有要, 保無窮)

- 죽음 終; 죽음이란 하나의 몸에 구현된 인격체로서 시작된 자신을 마지막까지 힘써 올바르게 보전하여 그 마지막을 성실하게 맞는 것이라 할 것이다.

· 증자가 병환이 심해지자 제자를 불러 말하기를 “이불을 헤쳐 나의 발을 보고 나의 손을 보아라 시경에 이르기를 ‘전전하고 궁궁하여 깊은 못에 임한 듯하고 얇은 얼음을 밟는 듯이 하라’ 하였는데, 이제 나는 그 몸을 훼손할까 하는 근심에서 면한 것을 알았노라. 제자들아!”(曾子有疾, 召門弟子曰: “啓予足! 啓予手! 詩云 ‘戰戰兢兢, 如臨深淵, 如履薄冰’ 而今而後, 吾知免夫! 小子!” -『논어』「태백」3장)

· 군자의 죽음을 종(終)이라고 하고, 사(死)라고 한다. 군자는 몸을 보전하고 죽는 것을 자신의 일을 마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程子曰: 君子曰終, 小人曰死. 君子保其身以沒, 爲終其事也 -『논어집주』「태백」3장,)

• 자족하는 즐거움

· 신흠(申欽, 1566~1628)의 「인간삼락(人間三樂)」

문을 닫고 마음에 드는 책을 읽는 것, 閉門閱會心書,
문을 열고 마음에 맞는 손님을 맞이하는 것, 開門迎會心客,
문을 나서서 마음에 끌리는 곳을 찾아가는 것, 出門尋會心境,
이것이 바로 인생의 세 가지 즐거움이다. 此乃人間三樂.

· 이상정(李象靖, 1711~1781) 「입춘(立春)」

바람과 눈 스산한 밤은 몹시도 긴데 風雪蕭蕭夜苦長
잠 깨인 찬 창가엔 새벽빛 흔들린다 寒窓睡罷動晨光
매화 향기 새어들어 봄소식 전해오니 梅香漏洩春消息
음기 가득한 대지에 한줄기 양기여라 大地窮陰一線陽
누런 닭 울음 울어 새 하늘을 알리니 黃雞喔喔報新天
유수 같은 세월 속에 내 나이 칠십이라 流水光陰七十年
세상만사 유유함은 전혀 관여치 않고 萬事悠悠渾不管
전전궁궁 일념 속에 온전히 돌아가리. 淵冰一念且歸全

서원의 自足 사례

· 병산서원 만대루의 만대(晩對)

‘晩對’는 杜甫의 시 ‘白帝城樓’의 “푸른 절벽은 해질녘에 마주하기 마땅하고(翠屏宜晩對 白谷會深遊)”하는 ‘翠屏晩對’에서 처음 왔다. 나중에 주자는 무이정사(武夷精舍)의 경치를 그린 『무이잡영(武夷雜詠)』의 ‘晩對亭’ 시에서 “지팡이에 의지해 남산 머리에 오르니, 멀리 만대봉이 있네, 푸르고 가파른 모습 차가운 하늘에 우뚝한데, 지는 해는 푸른 절벽을 비추네(倚筇南山巔 卻立有晩對 蒼峭矗寒空 落日明影翠)” 하여 해질 녘에 취병을 바라보는 감회를 읊었다. 저녁 해가 병풍처럼 펼쳐진 푸른 절벽을 비스듬하게 비추는 모습에서, 두보와 주자는 산의 생기를 더 선명하게 느꼈던 것이다.

낙동강은 동쪽에서 흘러 병산서원 앞을 지나가는데, 이미 서쪽으로 기운 해는 높은 산 사이로 흐르는 강을 거슬러 빛을 뿌린다. 비스듬하게 비치는 햇살에 반사되는 낙동강과 병산의 푸름은 비취빛으로 더욱 황홀하게 반짝인다. 이 때 빛나는 산과 물의 생기가 보는 이의 눈으로 전해지고 가슴으로 젖어들면서, “천지의 만물을 낳은 마음이 지금 나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天地生物之心, 而人之所得以爲心 - 주자, 「仁說」)”는 느낌이 된다. 산과 물이 생기가 내 마음 속으로 전해진다는 것은 안대 경관의 山色과 사람의 마음이 生意라는 하나의 의미로 서로 감통하는 것이다. 저녁때의 산색에서 느끼는 생기에서 생의를 지각하는 능력은 아마도 주자처럼 만년의 삶이 더 가까울지 모른다.

· 주자의 병중한좌(病中閑坐)

주자는 40대부터 다리가 아파 걷기가 힘들어졌고, 60세 이전에 왼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60대 후반부터는 글자를 전혀 읽지 못하게 되었다고 편지에 쓰고 있다. 30대에 스스로 병웅이라 칭했으나, 만년에 이르러는 백가지 병이 번갈아 공격하는 고통 속에서 ‘病中閑坐’라는 말을 즐겨 했다고 한다.

“제 병은 올해는 다행스럽게도 더 이상 심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력은 점점더 쇠약해지고 기력도 심하게 떨어져 글자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放心)을 수습할 수 있고 눈앞의 외계 사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니 좀더 빨리 장님이 되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한스러워 할 정도입니다.”

또 65, 6세 경에는 환간(黃幹)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최근 눈병 때문에 글자를 전혀 읽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토론을 통해서 도리를 점점더 확실히 알게 되었으며 나아가야 할 길을 더욱 확연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였다.”¹²

자득을 넘어 자족하는 경지에 이른 것이다. 만대정의 푸른 생기는 50대 후반 노경의 주자가 걷기조차 힘든 다리를 지팡이에 의지하여 산위에 올라 침침한 눈으로 바라보며 생의를 체득 인식한 천인합일의 인(仁)이라 할 수 있다. 육신이 노쇠해진 이 시기에 주자의 학문은 원숙해지고 있었다. 관직을 박탈 당하고 귀향하던 도중에 옥산에서 강의(玉山講義)를 하고 고정(考亭)으로 돌아온다. 조정의 ‘偽學의 禁’에도 불구하고, 『禮書』를 편집하는 의욕을 보였다.

· 유성룡의 은퇴와 자족

유성룡은 25세(1566년)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른 이래 부모상을 입은 각각 2년을 제외하고 줄곧 관직에 있었다. 1598년 10월에 부원군으로 물러나고 11월에는 그마저 그만두고 안동 하회 고향으로 내려왔

12. 미우라 쿠니오 지음 김영식 이승현 옮김, 1996, 『인간주자』, 창작과 비평사, 253쪽

다. 12월에는 다시 삭탈관직이라는 비운을 맞기도 했다. 약 30여년 동안 영상(領相) 등 고위 관직에 있었지만, 일단 벼슬길에서 물러난 다음에는 일체 조정(서울)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이후 여러 번의 국왕의 부름이 있었으나 은퇴 9년 후인 1607년(정미)에 66세로 운명할 때까지 일체 응하지 않았다. 다만 1600년 선조 비 의인왕후 박씨의 상여를 전송하기 위해 단 한 번 상경하였는데, 행인과 같이 길가에서 곡송(哭送)하고 곧 되돌아 왔다.

그는 벼슬살이로 성현 공부에 힘쓰려던 초지가 잊혔음을 한탄하면서, “임금과 부모의 은혜를 보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요, 작위가 크고 넘쳤는데 일찍 은퇴하지 못한 것이 둘이요, 도를 배우려는 뜻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루지 못한 것이 세 번 째 한이다.”(未報君親之恩一恨也 爵位太濫而不能早退二恨也 忘有學道之志而無成三恨也 - 『서애집』 별집 권4 잡저). 하였다. 은퇴하여 원지정사 등에서 장수처(藏修處)를 마련하고 약 10년 간 고향에 살면서 그간 소원이었던 어머니를 봉양하고 배움과 연찬에 전념하였다. 이 은퇴기에 고향에서 「퇴계연보」를 찬술(1600년)하고, 왜란에 대한 반성을 정리한 「懲毖錄」(1603년경)과 「軍門謄錄」, 「신종록(愼終錄)」, 「영모록(永慕錄)」, 「관화록(觀化錄)」 등 많은 논저를 남겼다.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서애집』, 해제, 고전국역총서

6) 생애에서 입지·자득·자족의 관계

- 한 인간의 생애 과정에서 단계별 배움의 목표와 경지를 의미하는 입지·자득·자족은 각각 청년기·장년기·노년기에 해당하는 자기실현의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움은 “시에서 자극을 받고 다음에 예절로 몸을 바르게 세우고, 마지막에 음악이라는 조화로 완성된다.”(子曰: 興於詩, 立於禮, 成於樂. -『논어』 「태백」 8장)라고 하는 인격체의 문화적 성숙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단계별 배움이 학교의 교과과정처럼 한 단계를 끝내고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생애에서 입지(立志)는 공자의 말씀처럼 열다섯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해이해지지 않도록(懈意一生 便是 自暴自棄),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리하여 도를 깨우칠 때까지(朝聞道 夕死可矣), 항상 스스로를 단속하고 확인해야 할 마음가짐일 것이다.
- 『시경』의 “높은 산을 우러르고 큰 행적을 따르네.”(高山仰止 景行行止)에 대하여, 공자께서는 “詩에 仁을 좋아하는 것이 이와 같구나. 도를 향해 가다가 중도에 그만두더라도 몸이 늙는 줄도 모르고 헛수가 부족한 줄도 모르며 부지런히 날마다 힘을 기울여 죽은 뒤에야 그만두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도(道)에 뜻을 세우는 입지(立地)와 그 수행을 평생 과업으로 삼을 것을 감동적으로 토로한 것이다.
- 자득(自得) 공부 역시 평생을 통한 것임은 말할 나위없다. 노년에 이르러는 외부의 비판을 거슬리지 않게 듣고, 고집과 이기심, 가진 것을 놓지 않으려는 탐욕에서 해방되는 ‘정신적’ 자족(自足)이라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나이가 자득의 단계에 들었으면 입지가 부족하더라도 자득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또 자족의 단계에서도 입지와 자득의 공부가 미흡하더라도 자족을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성(仁)의 성숙을 위한 교육은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그만둘 수 있는 평생 배움이다.

한국의 전통적 교육 공간, 서원의 인문적 가치

1. 서원의 역할

조선시대는 한국의 정치이념이 유학이었고, 유학을 통해 문화를 꽃피웠다. 세종대왕은 유학을 바탕으로 정치를 했고, 한글을 만들었다. 퇴계 선생은 유학을 바탕으로 수양철학을 완성했고, 한국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조선시대가 500년을 넘게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선비정신 덕분이었다. 조선의 선비정신은 향교와 서원을 통한 유학교육을 통해 배양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서원교육을 통해 배양된 바가 크다.

2. 서원교육이 사멸한 원인

서원교육은 조선이 멸망함과 동시에 사멸하고 말았다. 서원교육이 사멸하게 된 원인은 일차적으로는 조선이 멸망한 뒤 일제가 서원교육을 중단시켰기 때문이고, 이차적으로는 광복 이후 정치, 경제, 교육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제도를 서구 근세의 방식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한국인은 오랫동안 한국인의 마음을 가지고 한국의 실정에 맞게 정치를 해왔고 교육을 해왔다. 한국인의 마음과 문화는 근세의 서구인들과 정반대라고 해도 될 만큼 독특하다. 한국인과 서구인들의 차이를 대밭에 자라고 있는 대를 판단하는 방식의 차이로 비유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대밭에 있는 대들은 지상에서는 여러 그루가 각각 다르게 자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하에서는 하나의 뿌리로 이어져 있다. 근세의 서구인들은 지상의 대만 인정하여 대들을 각각 독립적인 개체로 보지만, 한국인들은 지하에서 하나로 이어져 있는 하나의 뿌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지상의 대들을 독립적인 개체로 보지 않는다.

대의 지상의 부분이 사람의 몸이고, 지하의 뿌리가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지하의 뿌리 중에 지상의 대와 연결되어 있는 뿌리가 마음이고, 땅 밑에서 하나로 이어져 있는 뿌리가 한마음이다. 한국인들은 마음의 본질은 모두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마음이라는 말을 쓴다. 한국인들은 한마음을 중시하고, 한마음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여, 사람들을 남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서구의 개인주의가 한국에서는 소화되지 않는다.

한국인의 정서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핵심은 너와 나가 하나라는 ‘너 = 나’의 등식이다. ‘너 = 나’이기 때문에 ‘너’도 없어지고 ‘나’도 없어져서 ‘우리’로 바뀐다.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나누어지는 것이 서툴다.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은 뒤에 한 사람이 밥값을 다 지불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이처럼 한국인에게 독특한 정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제도를 받아들였다. 그 까닭은 서구가 지구상의 대부분을 지배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모든 분야에서 서구인의 방식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서구의 방식을 빨리 도입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소와 개에 비유하여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어느 날 개에게 물려 고생하던 소가 개를 조사해보고 개는 풀을 먹지 않고 개밥을 먹는다는 사실을 안 뒤, 자기도 풀 먹기를 중단하고 개밥을 먹기 시작한 것과 같다.

소가 고기가 들어있는 개밥을 먹으면 영양가 높은 개밥 덕분에 잘 자라지만, 나중에는 광우병에 걸려 아주 망가지고 만다. 서구화를 열심히 추진하던 한국이 정치, 교육, 경제를 위시한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이 때문이다.

한국의 정치방식은 우리의 전통적인 방식을 계승하여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통째로 버리고 서구의 개밥정치로 바꾸었다. 교육도 그러하고 경제도 그러하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버리고 서구의 방식을 추종했다. 그 결과 한국은 광우병에 걸린 소의 신세가 되어 갈팡질팡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란의 도가니로 빠져 들고 있다.

서구가 계속 앞서갈 수밖에 없다면 한국인은 참으로 불행하다. 한국인은 계속 개밥을 먹지 않을 수 없는 소처럼 되어 점점 더 혼미한 상태로 빠져 들 것이다.

그러나 서구인의 삶의 방식과 문화가 한계를 맞이할 때가 온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서구 근세는 기독교를 부정하면서 시작되었으므로, 하느님을 부정한다. 하느님을 부정하면 하늘마음이 부정되고 한마음도 부정된다. 한마음을 부정하면 사람들은 남남의 관계가 되므로 인간관계는 본질적으로 경쟁하고 투쟁하는 관계로 바뀐다. 사람들이 목숨을 건 투쟁을 할 때는 죽기 살기로 노력하기 때문에 물질문화가 급속하게 발전하지만, 어느 정도 발전한 뒤에는 많은 문제가 생긴다.

3. 서구의 사상과 문화의 한계

중세기 말에 서구인들은 교회로부터 독립하여 인간의 해방을 선언했다. 기독교로부터 등을 돌리면 하느님을 부정하기에 이른다. 하느님을 부정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전에는 삶의 방식이 간단하고 단순했다.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나 딸이다. 다른 사람들도 하느님의 아들이나 딸이다. 우리들은 형제자매이다. 형제자매인 우리들은 서로 사랑해야 하고 용서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나는 누구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결론을 내렸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렇다면 남들은 누구인가? 역시 알 수 없다. 우리들은 어떤 관계인가? 남남이다. 남남끼리 사랑하면 이상하다.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바보다. 서로 많이 차지하기 위해 경쟁해야 하고 싸워야 한다. 남은 경쟁의 대상이고 투쟁의 대상이다. 그래서 남이란 불안한 존재이고 위험한 존재이다. 나에게 어떤 일을 가해 올지 예측 불가능한 존재다. 사람은 불안한 사람들 틈에서 많이 차지하기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는 존재이다. 불안해하지 않고 많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모두 죽이고 독차지 하든가, 손아귀에 넣어놓고 빼앗아 가는 것이다. 첫 번째 방식이 영국인들이 북미나 호주에 가서 한 방식이고 스페인 포르투갈 사람들이 남미에 가서 한 방식이며, 두 번째 방식이 서구인이 아시아에 와서 한 방식이고 일본인이 한국에 와서 한 방식이다.

노자는 빼앗기 위해 싸울 때 가장 많이 발전한다고 했다. 전쟁을 할 때는 무기개발을 위해 목숨을 건다. 그럴 때 과학이 가장 많이 발전한다. 서구인들은 발달한 과학과 무기의 힘을 이용해 전 세계를 지배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서구를 따라가기 바쁘다. 빨리 서구를 따라가는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여기고 있다. 서구를 가장 빨리 따라간 나라는 일본이었다. 일본은 서구의 사상으로 무장하여 많은 아시아 나라들을 침략했고 점령했다. 서구인들은 겉으로는 교양을 갖춘 신사로 위장하지만, 바탕에는 폭력성이 도사리고 있다. 서구인들이 아무리 교양으로 평화를 위장해도 본질적인 폭력성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오늘날 인간성 파괴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근본원인은 바로 이 때문이다. 폭력은 파괴한다. 자기를 파괴하고 이웃을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고 세계를 파괴하고 지구를 파괴한다.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인간성 파괴에서 오는 여러 현상들이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다.

1) 불안에서 오는 폭력성과 우울증

인간성의 오해에서 오는 여러 현상 중에서 으뜸인 것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남들에게 제압당할까봐 불안하고, 제압을 당하면 우울해진다. 현대인은 불안과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성적 절제력을 기른 교양인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바닥에는 폭력성과 우울증의 요인이 잠재해 있다.

2) 고독한 인간과 왜소한 인간

오늘날 사람들에게 고독은 필연적이다. 남남이라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혼자 고립된 상태로 세상을 사는 것이다. 부모형제와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친구와도 하나가 되지 못하며, 애인과도 하나가 되지 못한다. 그런데도 가족을 찾고 친구를 만들고 애인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라도 어울려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고, 덜 외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다른 사람과 어울린다 해도 하나가 될 수는 없으므로, 현대인에게 고독은 절대적이고 필연적이다. 어떤 시인이 ‘임 앞에 있어도 임이 그림다.’고 한 적이 있다. 임 앞에 있어도 고독이 해소되지 않으므로 임 앞에 있어도 외롭다. 절대고독을 해소할 수 있는 또 다른 임을 고대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사람들은 왜소하다. 물질주의가 만연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자기라고 생각한다. 자기의 몸은 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십분의 일이 되고 백 사람과 함께 있으면 백 분의 일이 된다. 지구상의 칠십억 사람들 중에서는 칠십억 분의 일이 된다. 칠십억 분의 일은 거의 제로이다. 나의 가치는 제로이고 너의 가치도 제로이다. 사람들의 가치가 제로라면 사람 죽이는 일은 제로를 하나 제거하는 것이므로 어렵지 않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왜소하게 여기므로, 부평초처럼 가볍다. 가벼울수록 잘 흔들린다. 남의 말 한마디에 충격을 받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사람이 부평초처럼 흔들리면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중독이 되어 빠져 있거나, 팬클럽 등의 모임을 만들어 그 속에서 안주하기도 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쓸쓸히 늙어가다가 절망적으로 죽는다. 오늘날 사람들은 거의가 영생을 안 믿기 때문에, 죽음에 다가갈수록 절망의 늪에서 헤어내기 어렵다. 죽음이 두려워 치매에 걸리는 사람도 있다. 사람이 죽는

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라고 판단하고 자기의 죽음을 위로하며 체념하는 경우도 있다.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을 정해놓고 차례차례 가보기도 하고, 죽기 전에 먹어봐야 할 것들을 정해놓고 그것을 먹으러 다니기도 한다. 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스스로 위로하는 사람도 있다. 사후에 이름이라도 남기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서도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 이것이 사람들이 비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3) 중독된 인간의 불행한 종말

사람들은 욕심의 노예가 되었다. 욕심의 노예가 된 사람은 오직 욕심 채우는 방향으로만 달려간다. 욕심을 채우면 행복해하고, 못 채우면 불행해한다. 그러나 욕심은 채우는 순간 커져버린다. 일억 모우는 것이 목표였던 사람이 일억을 모아 행복을 만끽하려는 순간, 욕심이 훌쩍 커져서 ‘뭐 해 십억 채워.’ 하고 보챈다. 십억을 채우는 순간에는 또 ‘뭐 해 백억 채워.’ 하고 보챈다. 그러면 사람은 다시 백억을 채우기 위해 달린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힘이 부쳐 쓰러진다. 욕심에 중독되어 사는 사람은 욕심을 채워도 불행하고 못 채워도 불행하므로 종착역은 불행뿐이다.

욕심은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다. 없었던 것이 들어와 본심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다. 마치 뱀새가 알을 낳은 둥지에 빠꾸기가 알을 낳으면 빠꾸기 알이 먼저 부화해 뱀새의 알을 다 없애버리고 혼자 있으면서 먹이를 달라고 보챈는 것과 같다. 새끼빠꾸기가 보채면 어미뱀새는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열심히 먹여 기른다. 어미빠꾸기는 설 틈이 없다. 어미뱀새가 자기 새끼를 다 없애버린 새끼빠꾸기를 정성을 다해 길러놓으면 다 자란 새끼빠꾸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날아간다. 뱀새는 불쌍하지만, 자기가 불쌍한 줄도 모른다. 사람이 그렇다. 욕심이라는 새끼빠꾸기를 기르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사람은 불쌍한 뱀새의 신세이지만, 그것을 모르고 있다. 불쌍한 중생이고 구원받지 못한 외로운 영혼이다.

4) 인간성 파괴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질수록 남들과의 관계가 자꾸 악화된다. 그럴수록 남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자기도 남으로부터 상처를 받는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남들과 어울리기보다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술을 마신다. 그러다가 남들에게서 멀어져 사이버에 갇히거나 도박 등에 중독되기도 한다. 차츰 사람을 멀리하고 개 등의 반려동물과 함께 놀기도 한다. 그러면서 자꾸 인간성이 파괴되어 간다.

5) 지구의 파괴

인간성 파괴는 자연의 파괴로 이어진다. 부모를 버리는 사람에게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고 한들 귀에 들어갈 리 없다. 사람들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한다. 그것이 법에 걸리는 일이면 법망을 피할 방법을 연구한다. 욕심을 채우는 것 중에는 남을 파괴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자기에겐 이익이 된다면 못할 것이 없다. 지금은 자연환경이 급속히 파괴되고 있다. 나무를 남벌하여 산소가 부족하기에 이르렀다. 공기가 오염되어 숨쉬기 어려운 곳도 많다. 공기를 오염시키는 근본 원인은 그것이 욕심을 채우는 빠른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일전에 스티븐호킹은 30년 안에 인류가 지구를 떠나야 한다고 경고한 적이 있다. 스티븐호킹의 말이

아니더라도 이제 지구는 심각할 정도로 파괴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가 파괴되어 인류가 전멸할 지도 모른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인류가 지구를 떠나야 할 때가 되면 지구의 것은 다 버리고 가되, 오직 하나 한국의 효도사상은 가지고 가자고 했다.

한국의 효도사상은 한국인의 독특한 인간관에서 나온 것이다. 한국인의 인간관은 근세 서구인들의 인간관과 반대이다. 한국인들은 한국인들의 정서 속에는 ‘나 = 너’라는 등식이 깔려 있다. 나와 너는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다. 한국인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고백을 할 때 ‘아이 러브 유(I love you)’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사랑합니다.’ 또는 ‘사랑해.’라고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와 너는 남남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아이 러브 유’는 남남끼리 만나 사랑게임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의 사랑은 사랑게임을 아니다. 나와 나가 만나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면 희생을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희생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남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희생하는 것은 내가 나에게 희생하는 것이다. 나에게 희생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행복이다.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여주는 사랑의 내용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희생하는 것으로 주종을 이룬다. 외로워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희생하는 사랑을 보면, “나도 저런 사랑을 한 번 받아봤으면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이 한류 붐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이다.

토인비가 한국의 효도사상을 귀하게 여긴 것은 한국인의 효도에서 희생정신을 봤기 때문이다. 부모는 자녀에게 희생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희생한다. 형제간에 서로 희생하고 애인끼리 서로 희생한다. 이 한국인의 희생정신은 경쟁이 치열했던 시기에는 경쟁력이 없어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지만, 인류가 멸절하고, 지구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지도 모르는 위기의 상황에서는 인류를 구하고 지구를 구하는 명약이 될 수 있다.

4. 희망의 빛은 동방에서

지구적 위기에 처한 현재의 상황에서 지구를 구하는 희망을, 지구를 위기에 빠트린 서구인들에게서 찾을 수는 없다. 서구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면 희망은 동방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극동에 있는 세 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이다. 이 세 나라 중에서 서구문화를 뒤흔들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서구인들이 매료되는 것은 한마음사상이고, 한마음사상은 한국밖에 없는 한국의 고유사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일찍이 타고르가 깨우쳤듯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은 한국에서 타오를 것이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절에
찬란히 빛나던 등불의 하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 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한국에서 타오르는 등불이 동방의 밝은 빛이 된다는 것이다. 동방의 지혜가 인류를 구하고 지구를 구한다고 한다면, 동방의 밝은 빛은 한국에서 타오르는 빛일 수밖에 없다. 지금 한국에서 타오르는 불빛은 문화예술부분에서 시작되고 있지만, 문화예술은 마음에서 나오는 표현이므로, 한국의 문화예술에서 타오르는 불

빛은 한국인의 마음에서 타오르는 불빛이다.

한국인의 한마음을 표현하는 한국의 정신이 선비정신이다. 한국의 선비정신은 유학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한국의 선비정신이 유학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면, 선비정신은 중국에도 있어야 하고, 일본에도 있어야 하며, 중국의 문화예술이나 일본의 문화예술에서도 한류와 같은 붐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한국인의 선비정신은 한국의 고유사상에서 기인하는 정신이다. 한국의 유학은 중국의 유학과도 다르고 일본의 유학과도 다르다. 한국의 유학은 중국의 유학과 한국 고유사상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독특한 유학이다. 중국 유학의 발원지가 한국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유학은 한국 고유사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5. 한국사상과 한국유학의 특징

한국의 유학은 송나라 때 중국에서 들어온 성리학에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한국의 고유사상이 결합하여 하나의 체계로 융합한 독특한 사상이다. 한국 고유사상의 특징은 하나사상과 하늘사상으로 압축된다.

한국의 성리학은 하나사상이 깔려 있기 때문에 <천인무간> <천인일체> <만물일체> 등이 전제되고, 하늘 사상을 바탕으로 종교성이 강한 이(理)중심의 철학이 도출된다.

있이 자기가 있던 줄만 알고 있으면, 왜소하고 힘이 없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뿌리와 하나로 연결된 존재임을 알게 되면 거대하고 강력한 존재로 바뀐다. 사람이 자기의 몸이 자기의 전부인 줄 알면, 왜소하고 힘없는 나약한 존재가 되지만, 하늘과 하나로 연결된 존재임을 알면,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로 바뀐다. 한국 선비의 힘은 하늘에서 나오는 힘이다. 있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으면 왜소하고 나약해 보이는 것처럼, 선비를 바라보는 사람이 몸을 기준으로만 보면 선비는 외형적으로 왜소하고 나약한 존재로 보일 뿐이다. 그러나 선비의 내면을 알면 달라진다. 선비의 힘은 몸에서 나오는 외형적인 힘이 아니라 하늘마음에서 나오는 위대한 힘이다. 선비의 움직임은 하늘의 움직임이다. 한국 가수들의 몸놀림이 신들린 상태의 몸놀림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선비의 유전자를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모든 창의력은 하늘에서 나온다. 하늘은 전지전능하므로, 하늘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전지전능한 힘을 발휘한다. 한국인들이 엄청난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기상천외한 발명을 한다. 한글 같은 위대한 글자를 일시에 만든 사람은 한국인 이외에는 없다. 거북선을 만들어 수많은 적선을 물리친 것도 한국인 이외에는 없다.

한국인이 하나가 될 때는 위대한 힘을 발휘하지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면 모래알처럼 흩어져 자멸하고 만다. 지금 시급한 것은 한국인들에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나가 되는 것은 한마음을 회복할 때 가능하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유학교육을 통해 한국인들에게 한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지만, 지금의 서원은 서원에 배향된 현인의 후손들이 모여 제사지내는 공간으로만 변모해버렸다. 서원이 폐쇄되어 서원교육이 실종한 지금 한국인들은 한마음을 회복할 기회가 많지 않다. 일부 기독교나 불교에서 부분적으로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종교적 배타성으로 인해 한마음의 온전한 회

복을 유도하기 어렵다. 한국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가, 아니면 뿔뿔이 흩어져 자멸하는가는 한마음을 회복하는가, 못하는가의 여부에 달렸다.

오늘날 한국에서 한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되살리고자 한다면 서원교육의 부활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6. 서원교육의 부활

한국의 서원이 과거 위대한 힘을 발휘했던 이유는 서원이 한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서원이 당파싸움에 휘말려 일부 부작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서원 본래의 기능은 한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교육을 한 것에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서원의 교육기능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한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교육내용과 방법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서원에서는 유학을 교육했지만, 그때의 교육내용과 방법을 되살리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다.

앞으로 우리가 개발해야 할 교육내용은 한국고유의 사상과 지구상에 내려오는 세계의 정신문화를 융합하여 오늘날의 상황에 맞게 창조하는 것이다. 오늘날 지구상에서는 각종 종교에서 오는 분열과 폐해가 심각하다. 중동지방에서 벌어지는 끝없는 전쟁은 종교적 갈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모든 종교와 철학을 다 포용하여 하나의 체계로 재정리하는 것이다. 최치원 선생이 말한 것처럼, 한국의 고유사상인 현묘한 도는 유불도 삼교를 포용하여 하나의 사상으로 융합할 수 있다. 최치원 선생시대에는 유불도 삼교가 전부였으므로, 오늘날의 상황에 대입해서 말한다면, 한국의 고유사상은 오늘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철학을 포용하여 하나의 체계로 원융회통할 수 있다.

한국고유의 하나사상은 한국불교에도 녹아있고, 한국의 유학에도 녹아 있다. 물론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에도 녹아 있다. 오늘날 한국인은 한국교육의 하나사상을 이어받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두 종류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사상을 이어받고 있는 사람은 열려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닫혀있는 사람이다. 열려있는 한국인은 불교신자이면서도 기독교와 소통하고, 기독교신자이면서도 불교와 소통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불교신자는 불교 안에 갇혀서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기독교 신자는 기독교 안에 갇혀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 좌파이론이나 우파이론을 신봉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한국에 갇힌 사람이 득세하면 한국의 미래는 암담하지만, 열린 사람이 득세하여 한국인의 한마음을 회복한다면 한국인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살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안정맞춤인 공간이 한국의 서원일 수 있을 것이다. 서원에서의 교육은 종교에 국한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다.

서원에서 해야 할 두 가지 과제는 교육내용을 개발하는 것과 새로운 교육기관으로서의 제도를 갖추는 것이다.

서원의 본래기능은 교육이었다. 교육을 하지 않는 서원은 서원이라 할 수 없다. 서원의 교육기관으로서의 부활은 오늘의 실정에서 보면 대학원대학으로 인가받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학원대학으로 인가를 받는 일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노력하면 새로운 교육내용을 개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7. 새로운 서원교육의 부활

저는 개인적으로 단군할아버지 때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교육내용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한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단군조선시대 때의 교육은 동굴에 들어가 21일간 합숙하면서 이루어졌다. 『삼국유사』에서는 곰이 동굴에서 21일간 썩과 마늘을 먹으며 햇빛을 보지 않고 수련하여 사람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삼국유사』에서 곰이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진짜 곰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 것은 아니다. 한국인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짐승이라 불렀다. 짐승이란 동물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폄하해서 하는 말이다. 사람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마음은 한마음이다. 한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이지만, 한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짐승이다. 단군할아버지의 눈으로 보면 오늘날 사람들은 거의 다 짐승이다. 사람이 짐승으로 살면 안 된다. 사람이 짐승으로 살면 한이 맺힌다. 한국인에게 한이 많은 것은 한국인에게 한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정서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시급한 것은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 참된 사람으로 거듭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다. 참된 사람으로 거듭 나는 것이 예수가 말한 부활이다. 21일간의 교육내용을 개발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어서 대중들에게 널리 펼치는 것이 한국의 서원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서원의 교육환경

-세계유산 등재 이전과 이후 문화재청 정책과 9개 서원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1. 서론

얼마 전 사범대 수강생들에게 ‘서원’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는지 조사해보았다. 많은 학생들이 ‘훈구파와 사림파, 조광조,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 권력 유지를 위한 양반들의 세력 근거지, 세금 세탁하는 곳, 계파 싸움, 당쟁의 온상, 조선이 망한 이유’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장 먼저 떠올렸다. 예상은 했지만 부정적인 답변이 생각보다 훨씬 압도적이었고, ‘세금 세탁’ 같은 표현은 좀 충격적이었다. 그 중 10%도 채 되지 않는 소수의 학생들이 ‘사학, 훈장, 시골 명문학교, 국제학교 같은 고급스런 학교’가 떠오른다고 하였다. 씁쓸함과 동시에 서원 전공자이자 교육사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뜨끔하였다.

그러나 2년 전, 한국의 서원이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서원의 이미지와 위상이 차츰 달라지고 있다. 세계유산 등재에 앞서 향교, 서원 등 전통문화재의 현대적 활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과 지원은 이미 2013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로부터 시작하였다. 특히 지난 정부는 2013년 7월 관광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대통령 지시 사항에 따라, 문화재청 주최로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활용 사업을 각 지자체에 공모하여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해오고 있다. 2014년에는 전국 38개소 향교·서원에 총 12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시작하여 단기적으로는 2019년까지 120개소에 지원을 확대해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며,¹ 정권이 바뀐 현재까지도 이 사업은 문화재청 지원 아래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오랜 세월 문화산업에서 소외되었던 향교와 서원이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관광산업 육성 방안의 혜택을 입게 된 것은 한편, 문화재청이 사적으로 지정된 9개 서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도 관련되어 있었다. 2013년 당시 잠정 목록으로 선정된 9개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를 대비하여 각 서원의 활용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이 사업의 현실적 추진 배경 중 하나였다. 특히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이 사업은 더욱 활성화, 내실화되고 있으며, 문화재청은 2019년 9월 세계유산 등재 이후 향후 5개년간 ‘한국의 서원’ 중장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정부의 관광산업 육성 정책과 맥을 같이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의 향교·서원을 대상으로 하는 ‘유교 아카데미’ 사업 및 ‘인문정신과 전통문화콘텐츠’²를 주제로 한 국제 컨퍼런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유교 아카데미’는 대학, 전문기관 및 향교, 서원의 유교 전공자들이 인문학 강좌(아카데미), 독서 토론(콜로키움), 청소년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향교·서원을 현대적 교육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1. 「2015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활용 사업 공모 계획(안)」, 문화재청(활용정책과), 2014년 6월.

2. 문체부는 국사편찬위원회, 규장각,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국학 연구기관 및 각종 작가협회, 영화감독조합 등과 연합하여 2016년 10월 18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아시아의 이야기로 전하는 감동’이라는 주제로 2016 인문정신과 전통문화콘서트 개최하였다. 이 콘퍼런스에서는 ‘장자의 소요유를 활용한 판타지 애니메이션’ 등 동아시아의 전통문화 콘텐츠와 현대 인문 정신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주제들로 구성되었다.

이상에서 언급한 세계유산 등재 이전, 정부의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 사업들은 ‘관광산업 육성’이라는 정책적 목적 하에, ‘전통 유교문화의 가치 계승과 현대적 재해석’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에 잠들어 있던 전통 자원을 문화콘텐츠와 관광자원으로 개발, 활용하기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 각종 유관 기관들의 지원과 노력에 더하여 한국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가 그 기폭제 역할을 함으로써 오랫동안 대중들의 관심에서 밀려나 있던 향교·서원이 마침내 대중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과 프로그램들 역시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제 각 지역의 향교·서원은 예절교실·한자교실·충효교실·서예교실 등 지역을 막론하고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만 기계적으로 답습해오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특수성과 독자적 가치를 반영하는 동시에 유교문화의 현대적 재해석과 적용을 통해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지역사회의 문화공간이자 현대적 교육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이 같은 지원과 노력으로 전통문화재가 대중화, 개방화, 활성화되는 데에 일정부분 성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성과가 과연 ‘전통문화의 가치 계승과 현대적 재해석’이라는 목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은 좀 더 면밀히 따져볼 문제이다. 특히, 유네스코가 인정한 한국 서원의 ‘OUV(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핵심은 첫째, 조선왕조의 성리학 교육기관을 대표하는 9개 서원이라는 점, 둘째, 몸과 마음의 전인적 수양을 위한 교육환경을 구비하고 있다는 점(산수 근처에 위치), 셋째, 중국에서 발원한 성리학을 한국의 교육적, 사회적 관행으로 토착, 발전시킨 문화적 전통의 우수한 증거라는 점, 넷째, 그 정신적 가치의 많은 부분이 계승되고 있으며, 건축물의 보존상태가 우수하다는 점으로 압축할 수 있다. 한국 서원의 ‘진정성 있고 지속 가능한’ 교육과 활용을 위해서는 유네스코가 지적인 바와 같이, ‘대중성’ 뿐 아니라 ‘정신적 가치’의 계승과 재해석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정신적 가치’와 ‘대중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서원의 교육환경과 콘텐츠를 현대적으로 활용, 계발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원칙과 방향이 과연 무엇일까.

이 같은 문제의식 하에, 이 글에서는 첫째, 지난 정부 때부터 국정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최근 전국 향교·서원의 활성화와 교육콘텐츠 개발을 주도해온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 및 세계유산 등재 이후 문화재청이 발표한 2019년 ‘한국의 서원 중장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정책의 목적과 성격을 검토하고, 둘째, 세계유산 등재 이후 시행해온 문화재청 및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의 사업, 9개 서원의 교육 프로그램과 2021년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사업의 내용을 9개 서원 중심으로 검토, 분석함으로써 그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2.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의 목적과 성격

박근혜 정부는 국정 과제(113-1-2)의 하나인 ‘향교·서원 관광자원화’의 일환으로 2013년 7월 대통령 지시 사항을 발표하고, 2013년 첫 번째 사업 공모 계획안을 발표, 선정하여 2014년부터 문화재청 주최로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을 시행했다. 2014년에는 전국에서 38개소를 선정하여 총 12억, 2015년에는 71개소를 선정하여 약 2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는 총 77개소, 2017년 87개소, 2018년 95개소, 2022년

107개소(예정)에서 시행하였다.³

표1. 2014~2015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 지원 경과

(단위 : 건, 백만원)⁴

연도	구분	향교			서원			합계		
		국가	시도	계	국가	시도	계	국가	시도	합계
2014	건수	1	23	24	8	6	14	9	29	38
	지원	60	569	629	343	228	571	403	797	1,200
2015	건수	2	49	52	6	14	20	8	63	71
	지원	70	1,335	1,405	272	443	715	342	1,778	2,120

문화재청은 이 사업의 추진 배경으로 첫째, ‘문화재 가치 활용 및 산업화, 문화재 활용 콘텐츠 다각화, 지역 문화재 생생 활용’을 핵심 과제로 하는 문화재 5개년(2012~2016) 기본계획의 이행, 둘째, ‘향교·서원문화재 관광자원화 및 전국 확대 실시 기반 구축’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 목표 달성, 셋째,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9개 서원의 활용 기반 구축, 넷째, 대내외적으로 문화재를 이용한 경제적 가치 창출의 욕구 증대를 들고 있다.⁵

이 같은 배경 하에 이 사업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첫째,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이 최대의 보존이라는 새로운 가치 정립, 둘째, 정신 문화재의 본래 가치와 진정성을 계승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창조, 셋째, 향교·서원문화재를 지역 사회의 대표 문화재 활용자원으로 육성, 넷째,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을 통한 문화 향유 기회의 균등화 실현의 네 가지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향교·서원의 전통적 기능을 되살려 현대적인 교육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특화된 콘텐츠와 개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문화향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며, 역사문화 체험 공간 및 우리문화 배움 공간으로 기능하게 하자는 전략을 제시하였다.⁶ 이 같은 목적과 전략 하에 단기적으로는 지자체별로 최소 1 향교·서원 문화재 사업을, 장기적으로는 향교·서원 1개소마다 1개의 활용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음으로, 응모 대상자 심사에서 선정에 유리한 기준과 우대 조건, 제외 요건과 감점 사항 중 핵심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⁷

3. 「2015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활용 사업 공모 계획(안)」(문화재청(활용정책과), 2014년 6월); 「2016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 공모 계획(안)」(문화재청(활용정책과), 2015년 6월); 「2017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87선」(문화재청); 「2018년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 문화유산 유유자적」,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95선」(문화재청); 「2022년도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선정 목록」(문화재청). 2022년도 선정 목록에는 현재 세계유산 9개 서원이 모두 빠져 있는데 이유는 알 수 없다.

4. 「2016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 공모 계획(안)」, 문화재청(활용정책과), 2015년 6월, 6쪽.

5. 「2016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 공모 계획(안)」, 문화재청(활용정책과), 2015년 6월, 4쪽.

6. 같은 문서, 6~8쪽.

7. 같은 문서, 11쪽.

<선정에 유리한 조건 및 우대 조건>

- 향교·서원의 본래적 기능을 되살려, 현대적으로 향교·서원의 내재적 가치를 새롭게 발굴하여 활용한 사업
- 다양한 문화유산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지속가능한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
- 지역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향토문화 진흥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지역문화재 답사 프로그램 운영 등
- 향교·서원과 연관된 유적·유물이나 이야기를 활용하는 사업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린이~중장년층 등 각 수요계층에 맞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
- 향교·서원 특색을 살려 인문학 강좌 등의 프로그램이 포함된 사업
- 다문화가정, 보육원 아동 등의 문화 소외 계층 대상 프로그램 운영 사업

<사업 선정의 제외 요건 및 감점 사항>

- 향교·서원의 내재적 가치 발굴·활용과 관계없는 관광위주의 축제 사업
- 향교·서원문화재의 단순 공개 사업
- 단순 경서강독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전통 유교 교육으로만 구성된 사업

이 중 상술한 사업 목적과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하면 주목되는 부분이 ‘다양한 문화유산의 융·복합적 가치 창출’, ‘지속가능한 활용 사업’, ‘다양한 수요계층에 따른 특화된 프로그램’, ‘인문학’, ‘소외 계층 대상 프로그램’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또한 ‘관광위주의 축제 사업’, ‘단순 경서 강독’이나 ‘전통 유교교육에 한정된 프로그램’을 감점 사항에 적시한 것을 통해 이 사업의 성격과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성 사업이나 유교문화에 한정된 지식의 단순 습득과 일방적 전달보다는, 전통가치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현재 삶에 활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콘텐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과 2016년의 정책 목표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2015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정책 목표>⁸

제향문화 중심의 엄격하고 지루한 향교·서원	▶	본질적인 가치를 계승하고 다양한 문화거점으로 살아나는 향교·서원
잠기고 텅 빈 향교·서원	▶	사람과 이야기가 가득하여 생기가 넘치는 향교·서원
어디든 유사한 활용 프로그램	▶	특화된 콘텐츠 발굴 및 개성 있는 프로그램 보급·운영
찾아가기 힘든 향교·서원	▶	누구라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가까운 문화동산
불편한 향교·서원	▶	현대적 시설을 갖추고 안전하고 편리한 문화 놀이터

8. 「2016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 공모 계획(안)」, 문화재청(활용정책과), 2014년 6월, 8쪽.

〈‘2016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정책 목표〉⁹⁾



2015년과 2016년의 정책 목표를 비교해보면, 다양한 문화거점으로서의 기능, 대중성과 활용성, 유사한 프로그램의 지양과 특화된 콘텐츠의 강조 등 몇 가지 공통점도 있으나, 2016년에는 그 외에 지역성과 특수성, 현대적 활용, 인문정신, 평생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지속성 등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이 사업의 목적과 성격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향교·서원의 관광 산업화를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이라는 정책적 측면, 둘째, 전통 유교문화의 가치 계승과 현대적 해석이라는 내용적 측면이다. 관광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전통 가치의 계승과 현대적 해석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후자의 목적은 산업의 차원 뿐 아니라 인문학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전통문화재 활용을 통한 관광 산업 육성이 단순히 경제적 가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전통 가치의 현대적 계승에 진정한 목적을 두고 있다면, 이를 위한 인문학적 자원의 발굴, 연구, 가공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물론 인문학에 대한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3. 세계유산 등재 이후 문화재청 및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사업

세계유산 등재 이후 문화재청은 2020년 12월, 편당 약 15분짜리 총 6편으로 구성된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배경 웹드라마 <300살, 20학번>을 제작, 방영하였다. 1720년 병산서원 장기 거점에 참여하여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유생 3인방이 성적 미달로 서원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원장실에 들어가 다음 제술 시

9. 〈2016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 공모 계획(안)〉, 문화재청(활용정책과), 2015년 6월, 8쪽.

험문제를 훑치기로 한다. 원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시험지를 훑쳐 달아나려고 외삼문(복레문)을 연 순간, 300년 뒤 2020년의 병산서원 외삼문으로 떨어지며 시작되는 좌충우돌 성장스토리를 담은 드라마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웹드라마라는 형식의 미디어를 통해 서원에 대한 국내외 미래 세대의 관심을 촉진하고, 인지도를 높인다는 의도로 기획, 높은 시청률과 호응에 힘입어 국내외 한국문화 홍보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자막도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현재 유튜브에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그리스어 등 자막 제공).



2021년 2월에는 약 1년여의 기간을 들여 다큐멘터리를 제작,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자연을 품은 정신의 공간>이라는 제목으로 KBS에서 방영하였다.



이에 앞서 2019년 9월, 문화재청은 ‘예학의 공간, 세계유산 서원의 가치 제고’라는 비전 아래 ‘세계유산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증진’, ‘서원을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 및 활용 계획’을 위한 6대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¹⁰

첫째, 세계유산의 체계적 보존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2019) 안으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이후 시행령을 마련해 5년 단위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종합계획(문화재청)과 시행계획(지자체)을 수립, 9개 서원을 통합 관리할 주체와 홍보·활용방안 등을 포함한 통합관리체계를 2020년까지 마련하고, 안내판과 누리집, 홍보영상물, 해설사 양성 등도 통합 추진한다.

둘째로, 서원의 진정성·역사성을 높이기 위해 서원 주변의 경관 저해 시설을 옮기고, 둘레길과 진입로 조성, 전시·교육·편의시설 확충 계획 등을 담은 종합정비계획을 2023년까지 수립한다. 특히 서원 수리에는 전통단청, 전통기와 등 전통재료와 전통기법을 확대 적용하고, 특히, 기와·전돌(벽돌) 등 품질기준이 이미 마련된 재료는 2021년부터 의무 적용된다.

셋째로, 서원이 소장한 기록유산을 연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서원이 소장한 기록유산들을 목록화해 2023년에 조사보고서를 발간하고 국가문화유산포털에 공개하며, 2024년에는 학술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로, 안전관리를 위해 ICT(정보통신기술) 원격 전기안전 감시시스템,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 및 안전경비원 확충, 돌봄사업 활동 강화, 정기적 합동점검 등을 추진해 효과적인 재난대응과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다섯째, 한국의 서원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2020년부터 ‘한국의 서원’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세계유산을 보유한 지역에서 세계유산 축전을 개최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살아 숨쉬는 서원·향교 프로그램’을 예절교육 중심에서 탈피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개발·보급하고(2019년 6.2억원→ 2023년 25억원), 2021년부터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초·중·고교에 교육 콘텐츠로 제공한다.

여섯째, 서원의 세계적 위상강화를 위해서 중국 취푸의 공자 유적, 베트남 후에 기념물 복합지구 등 해외의 유사한 유산(유학, 교육유산 등) 관리주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 심포지엄 개최, 유학시설 교류전 등을 통해 서원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개성 송양서원, 평양 용곡서원 등 북한 서원에 대한 공동조사, 학술교류 등을 추진해 서원을 통한 남북문화재 교류를 강화한다.

10. “문화재청,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중장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울문화IN 2019년 9월 11일자 기사).



이를 통해 그동안 저조했던 서원 인지도와 방문객 수를 향후 5년간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서원 방문객 현황과 목표〉

(단위: 명)

문화재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목표	2024년 목표
			7월까지	12월까지 목표		
소수서원	250,529	254,261	211,834	300,000	373,000	457,000
남계서원	42,332	42,851	39,686	80,000	90,000	100,000
옥산서원	23,200	24,000	13,450	45,000	50,000	70,000
도산서원	245,519	227,303	144,776	250,000	272,000	360,000
필암서원	9,477	15,343	6,311	20,000	23,000	25,000
도동서원	26,937	24,713	15,286	20,000	37,000	40,000
병산서원	260,842	304,802	173,189	350,000	375,000	413,000
무성서원	12,424	13,234	8,265	25,000	30,000	35,000
돈암서원	78,519	78,500	45,321	110,000	150,000	200,000
총계	958,779	985,007	658,118	1,200,000	1,400,000	1,700,000

〈2021년 서원 방문객 현황〉¹¹

(단위: 명)

구분	7월	8월	9월	합	2018년 누적
소수	17,035	20,662	21,299	58,996명	254,261
도산	9,520	13,708	17,386	40,614명	227,303
옥산	12,209	9,868	6,011	28,088명	24,000
병산	6,556	10,774	9,988	27,318명	304,802
도동	2,109	2,688	5,213	10,010명	24,713
돈암	2,102	2,743	2,374	7,219명	78,500
무성	2,125	2,221	2,792	7,138명	13,234
필암	1,608	2,464	2,556	6,628명	15,343
남계	766	949	1,749	3,464명	42,581

참고로, 하회마을 연평균 방문객은 2014년 105만 5천 153명, 2015년 103만 5천 760명, 2016년 102만 1천 843명, 2017년 104만 5천 493명, 2018년 100만 797명(12월 1일 기준)이다.¹² 하회마을과 비교하면 방문객이 가장 많은 소수, 도산, 병산서원은 하회마을 방문객의 1/4, 가장 적은 필암, 무성서원은 하회마을 방문객의 1/10 수준이다. 또한 소수, 도산서원의 연평균방문객 중 외국인 비율은 2012년~2016년 기준 1.21%로 매우 낮은 편이었다. 최근 2년간은 코로나로 인해 방문객 현황이 큰 의미가 없지만 그럼에도 2021년 7월~9월 3개월간 옥산서원의 방문객 수는 코로나 발생 전인 2018년 전체 방문객 수보다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11.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홈페이지 참조.

12. “안동 하회마을 5년 연속 관광객 100만 돌파”(경북뉴스 2018년 12월 3일자 기사)

문화재청이 제시한 정책의 핵심은 크게 ‘통합보존 관리 체계의 구축’과, ‘한국 서원의 세계화, 국제화’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서원을 세계적 브랜드로 만들고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과거 예절 중심 교육에서 탈피한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 및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 지원, 보급하고 국제협력과 교류를 증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전 정부의 ‘향교, 서원의 관광산업화’에서 서원의 ‘국제화, 세계화’로 정책의 초점이 변화되었다.

‘통합보존 관리 체계의 구축’은 현재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2019년 통합홍보사업으로 세계유산 등재 이후 세계유산 등재 기념식 및 기념행사,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백서 발간, 한국의 서원 통합 홍보 및 활용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통합보존관리사업으로는 통합모니터링 지표개발 및 온라인시스템 구축 계획 연구 및 통합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세계유산 등재기념 표지석을 디자인하였다.

2020년에는 등재 1주년을 기념하여 2020 세계유산축전, 한국의 서원 통합교육교재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안내서> 발간, 한국의 서원 통합 홈페이지를 제작하였으며, KTX 홍보영상 방영,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를 제작하고, 한국의 서원 소식지 ‘서원산책’ Vol. 1, Vol. 2를 발간하였다. 통합보존관리사업으로는 통합모니터링 온라인 시스템 구축, 무인계수시스템 구축(1차, 3개서원),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안내서> 제작,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통합 안내판 설치 및 9개 서원의 건축 도면집을 제작하였다.

2021년에는 국제·국내 학술포럼 개최, 한국의 서원 소식지 ‘서원산책’ Vol. 3, Vol. 4 발간, 문화관광해설사 및 서원관계자 대상 세계유산과 한국의 서원 심화교육, 청소년 한국의 서원 알리기 운영(10월 23일 청소년 지킴이 1기(70명) 발대식), 한국의 서원 가상체험 AR을 제작하고, 통합보존관리사업으로 통합 모니터링, 무인계수시스템 구축(2차, 6개서원), 세계유산 정기보고, 통합 관제 시스템 구축, 고정밀 정사영상 촬영, 주요 건축물 이력 데이터 구축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서원 청소년 지킴이 1기 발대식(2021. 10. 23)>



현재 한국의 서원 통합 홈페이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의 서원문화, 9개 서원이야기, 소통&교류, 디지털아카이브, 사무국’의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조선의 서원문화’에서는 텍스트 외에 음성오디오 파일(10분 59초로 역사, 기능, 제향, 강학, 교류와 유식의 5개 항목으로 구성)로 서원을 소개하고, ‘서원의 하루’라는 제목의 AR을 탑재, <제향, 강학, 교류 및 유식공간>의 세 주제로 나누어 서원의 일상과 기능을 현대적으로 재구성, 각 주제별로 5분씩 보여준다.

‘9개 서원이야기’에서는 각 서원의 개요를 텍스트와 사진으로 소개하고, 로드투어 ‘서원의 어제와 오늘’에서 9개 서원의 진입로부터 길을 따라 이동하면서 각 건물의 기능과 명칭을 로드뷰와 자막으로 소개하는 3분짜리 로드투어 VR영상, 360도 항공뷰 VR영상, 8분짜리 음성 오디오 서비스를 제공한다. 360도 VR영상에서는 서원 전경과 공간구조(교류 및 유식, 강학, 제향, 지원공간)를 항공뷰와 360도 VR로 소개, 음성 오디오 파일은 각 서원의 개요, 제향, 강학, 교류 및 유식, 문화재 및 기념물을 8분으로 소개한다.

‘소통&교류’는 9개 서원의 공지사항, 행사일정, 온라인공모전 작품, 갤러리, 독자참여로 구성되어 있고, ‘디지털아카이브’에서는 현재까지 관리단에서 발행한 모든 책을 E-book(한국의 서원 도록 1-3권, 한국의 서원 종합 안내서, 한국의 서원 사진집과 도면집, 서원 유람기, 소식지 ‘서원 산책’ 등)으로 제공하고 9개 서원의 방문객 현황(2021년 7월부터), 정사영상 등을 제공하며, ‘사무국’에는 재단 소개, 추진사업, 공지사항 등이 있다.

4. 문화재청 및 통합보존관리단 사업의 성과와 과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재청이 제시했던 ‘통합보존 관리 체계의 구축’과, ‘한국 서원의 세계화’라는 정책 목표는 짧은 기간동안 다양한 사업을 통해 많은 성과를 축적해왔다. 무엇보다 통합보존관리단의 활동 및 한국의 서원 통합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9개 지역에 흩어져 있던 개별 서원들의 소개, 교육, 활용, 홍보 등을 위한 구심점이 마련되었고, 통합 홈페이지는 9개 서원과 관련된 풍부한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통합 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문화재청이 제시한 6대 추진전략의 하나인 ‘서원의 세계적 브랜드화’ 및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의 육성’을 위해 제작, 초중고에 교육 콘텐츠로 제공하겠다고 했던 ‘실감형 콘텐츠’¹³가 바로 한국의 서원 통합 홈페이지에 탑재된 9개 서원의 로드투어 VR, 360도 항공뷰 VR, ‘서원의 하루’ AR 및 8분짜리 오디오 음성파일이다.

- 소수서원 로드투어 VR(<https://www.youtube.com/watch?v=jDxv7LQoxgA>)
- 소수서원 360도 VR(소수서원 홈페이지)
([https://www.yeongju.go.kr/vr/170620sosu/tour.html?startscene=0&startactions=lookat\(-13.43,26.44,120,0,0\);](https://www.yeongju.go.kr/vr/170620sosu/tour.html?startscene=0&startactions=lookat(-13.43,26.44,120,0,0);))
- 서원의 하루(<http://k-seowon.or.kr/images/seowon/build/index.html>)

13. ‘실감형 콘텐츠’란 ‘ICT를 기반으로 인간의 감각과 인지를 유발하여 실제와 유사한 경험 및 감성을 확장하는 기술’ 혹은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인간의 오감을 극대화하여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차세대 콘텐츠’를 말한다(위키백과).

이 실감형 콘텐츠들은 교과서나 텍스트로 서원을 접하는 것보다 훨씬 입체적이고 생생한 체험을 제공한다. 학교 교사들이나 문화유산해설사 등 전문가 외에도 어린 아이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초월하여 그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 문화재청은 애초에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초·중·고에 교육 콘텐츠로 제공, 널리 보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개별 홈페이지를 개설한 소수, 남계, 도산, 병산, 돈암서원의 홈페이지조차 이 활용 가치가 높은 실감형 콘텐츠들을 전혀 소개하거나 링크하지 않고 있다(소수서원 홈페이지에만 별도로 제작한 VR이 사이버체험관에 탑재). 특히 도산서원 홈페이지에는 오래 전에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화질이 매우 떨어지는 1분 21초짜리 '3D로 보는 도산서원' 영상만 올라와 있다. 아무리 좋은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하더라도 홍보되고 활용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애써 제작한 이 실감형 콘텐츠들을 개별 서원 홈페이지에 연동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9개 서원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더욱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9개 서원에 대한 콘텐츠가 집약되어 있는 한국의 서원 통합 홈페이지의 존재 자체에 대한 홍보와 활용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문화재청이 제작한 웹드라마와 다큐멘터리도 '서원의 세계적 브랜드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작한 콘텐츠이다. 특히, 웹드라마 <삼백살, 20학번>은 방영된지 10개월이 지난 최근까지도 한국을 넘어 베트남, 러시아, 아랍, 영미, 인도, 스페인, 독일, 터키, 그리스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인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최종 느린점♥

경말 영상 보는 내내 감탄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영상을 너무 아름답게 잘 찍어주셔서 우리나라의 서원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던 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서원 홍보 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홍보하는 동영상으로 사용해도 될만큼 너무 아름다웠어요! 게다가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한국사를 배울 때는 서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정도만 간단히 배우고 종선대원군이 서원을 철폐했다는 내용들을 더 중점적으로 배워서 사실 서원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 정말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오늘 겹쳐한 서원 사진보고 너무 감동 받아서 나중에 코로나가 종식되면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꼭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상 하단에 문화재청이라는 로고가 아니었다면 공공파 드라마인지 착각할 정도로 웹드라마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어쨌든 첫 장면부터 한국의 서원이 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는지 알 수 있는 수려한 아름다움 있는 서원의 풍경은 나를 태워라기 충분했다. 차후 9곳의 서원이 나오는데 정말이지 와 라는 말이 안나 올 수 가 없겠다.

또 중간 중간 서원 역할에 대한 설명 또 한 우리는 그냥 이쁜곳 이라고 생각 할 수 있는 우리의 문화를 배우고 참된 가치를 알게 된 드라마였다.

300여만 시간을 넘어 이렇게 유교적 사상이 있는 유생들과 2020년의 학생이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전원이 되다니 드라마를 자주 보지 않는 나에겐 참으로 새로웠다.

그리고 6화 마지막 크레딧이 올라가는 장면에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한국의 서원 9곳의 풍경을 놓치지 말고 보기를 추천하는 바로 너무 좋습니다.

'삼백살 20학번' 이세진 "웹드라마로 서원 소개, 고루함 깨고 감각적"

Felicity Doe. 9개월 전
It was a nice journey to Seowon through this drama. Can we wait for a second season, maybe? I will be here to translate it into Greek, again.

Lydia Barlow 5개월 전
Found this on tick tock and had to come watch the whole thing I loved it

Aesth 9개월 전
It was a beautiful series. 2nd season please. Looking forward to such more contents like this. I will definitely share this with my friends. Love from India

Prabhjot Sekhon 5개월 전
Hope there is a season 2!!

Ἡραία ιστορία, θα ήθελα να είχε λίγα επεισόδια ακόμη. Μου άρεσαν οι ελληνικοί υπότιτλοι, μπράβο.

Luna Rix 5개월 전
me encanta que no se esforsaron al esconderlo y aun asi segun sobrevivio

ᄇᆞᆫᆯ 5개월 전
such a good idea to do a drama to discover these places!! i loved watching it!

<삼백살, 20학번>은 방영 2개월 만에 조회수 1만뷰를 돌파, 편당 적게는 3만뷰에서 많게는 10만뷰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들은 '서원'이라는 '장소'에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며 시즌 2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한국인들은 '궁궐이 아닌 서원 배경 드라마는 처음이라 신선, 회차마다 어떤 서원이 나올까 하는 기대감, 서원이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었나, 도산서원밖에 못 가봤는데 9개 서원 전부 가봐야겠다, 우리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이 절로 생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9개 서원이 스토리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억지스럽지 않게 아름다운 배경으로 등장한 것은 좋았으나 9개 서원의 이모저모를 상세히 알 수 없어 아쉽고 궁금했다'는 비판도 있다.

비판이든 환호든, '엄격하고 고루한 곳, 굳게 닫힌, 찾아가기 힘든 서원'에서 '아름답고 수려한 곳, 가보고 싶은 곳'으로의 이미지 변신, 외국인들에게 한국 서원의 존재감과 아름다움을 알리고 관심을 촉발시키는 데

에는 적어도 확실히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 서원의 ‘진정성 있고 지속 가능한’ 교육과 활용을 위해서는 단지 ‘대중성과 흥미’를 넘어 유네스코가 인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해당하는 ‘정신적 가치’의 계승과 재해석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 <삼백살, 20학번>은 한국 서원의 아름다움이라는 장소성과 건축미를 보여주기에 충분했지만 9개 서원의 ‘정신적 가치’까지 담아내지는 못했다.

예로, 옥산서원은 타임슬립한 유생 3인방이 300년 전 조선에서 가져온 유물을 팔아 돈을 구하기 위해 그저 유물 감정사를 만나는 ‘약속장소’ 정도로 소모되고 있을 뿐이다. 웹드라마의 제작 목적 자체가 서원에 대한 국내외 미래 세대의 ‘관심 촉발’과 ‘인지도 상승’에 있었으니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고, 이 정도면 대단한 성과이다. 그러나 1단계로 홍보에 성공했다면, 이제 대중성과 흥미 뿐 아니라 ‘한국 서원의 정신적 가치’를 다양한 방식으로 담아낼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형식의 고품격 콘텐츠들이 생산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세대 학제간 융합연구팀에서 3년간 연구 끝에 제작한 ‘성학십도 VR’은 전통문화의 ‘정신적 가치’와 ‘대중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현대적으로 재창조하는 데 성공한 콘텐츠의 좋은 예시 중 하나이다.

이 연구팀은 VR의 인문학적 가능성을 3년 전부터 탐색하고, 퇴계가 평생 탐구, 압축해 성학십도에 담아낸 조선 성리학의 개념들이 현대인들에게 매우 유용하지만 지나치게 난해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이를 현대의 VR 기술로 재구성하여 생생한 시공간에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며 만져질 듯한 경험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다수의 퇴계 철학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고 VR 테크 기업들과 MOU를 맺어 연구의 완성도와 엄밀함을 높였으며, ‘성학십도 VR’을 통해 조선 성리학이 풀어낸 생태적 세계관을 ‘K-철학’이란 이름 하에 세계에 새로운 화두로 던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 성학십도 VR(<https://youtu.be/dc3Xr4WQBcU>)
- 성학십도 VR 제작 및 각 도 소개(<https://youtu.be/1ttmjt0u6RQ>)

첨단 기술을 포함한 학제 간 융합연구와 ‘성학십도 VR’은 ‘한국 서원의 진정성 있고 지속 가능한 교육’을 위한 기반으로 미래 서원 연구가 나아가야 할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문화재청이 계획하고 있는 서원 연구를 위한 인문학적 지원은 ‘서원 기록유산의 DB 구축’ 정도에 그치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조선의 서원문화에 대한 기초 정보와 9개 서원의 공간구조를 소개하는 실감형 콘텐츠들은 이미 제작, 한국의 서원 통합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 연구와 지원으로 완성 가능한 실감형 콘텐츠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성학십도 VR’ 수준으로 재구성이 가능한 다양하고 풍부한 원형 콘텐츠들이 서원에도 얼마든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서원 기록유산의 DB 구축’ 뿐 아니라 원문 자료의 번역, 가공 등 보다 장기적 연구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예학의 공간, 세계유산 서원의 가치 제고’라는 문화재청이 제시한 서원 활용 계획의 비전과 ‘세계유산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증진’ 및 ‘서원을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과업이다.

5. 9개 서원의 교육 프로그램

1) 남계서원 : “백세청풍을 탐닉하다”(함양군청 문화관광과, 남계서원)

- 함양 화림동천길-함양문화재 중심의 1박 2일 인문학여행

- 기간: 10월~11월 토요일 총 5회

- 코스: 남계서원, 함양상림숲, 화산십이곡, 화림동천, 동계고택, 모리재

- 대상: 수도권 5~60대(2회 50명씩) / 경남권 6~70대(3회 50명씩)

- 일두 백세청풍길-영남유학자 유적지 중심의 당일 문화관광

- 기간: 9월 매주 일요일 총 4회

- 코스: 남계서원, 함양상림숲, 화산십이곡, 화림동천, 동계고택, 모리재, 남명 산천재, 점필재 생가

- 남계서원 사예체험-남계서원 중심의 예악사서(禮樂射書) 체험형 프로그램

- 기간: 9월 매주 토요일 총 4회

- 장소: 남계서원, 청계서원, 군자의 길, 논어의 길

- 대상: 경남권 30~50대(매회 100명)

- 내용: 의례체험, 다례체험, 활쏘기, 캘리그래피와 함께 하는 문자도 체험, 군자의 길 산책

- 숲길 인문학강좌

- 11월~12월 매주 토요일 총 4회

- 대상: 함양군 유림, 군민(매회 50명)

- 내용: 군자의 길 산책하며 논어공부와 숲 체험

계획서에는 <1강-김종직의 무오사화/ 2강-정여창과 백세청풍정신/ 3강-남명 조식과 영남선비/ 4강-함양의 선비정신/ 5강-공자에게 지혜를 묻다>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논어 강독.

2) 도동서원 : “‘東’에서 피어나는 선비의 ‘道’”(달성군청 관광과, (재)달성문화재단 담당)

- 도동서원의 하루

- 기간: 5월~11월

- 장소: 도동서원

- 대상: 어린이

- 내용: 도동서원의 건축, 풍경, 공간 등을 활용하여 제작한 체험 교구를 통해 다각화적인 시선으로 서원 탐방하기

- 도동 선비생활

- 기간: 5월~11월

- 장소: 도동서원

- 대상: 청소년

-내용: 한훤당 김굉필 선생이 지은 시를 감상하며 그의 인문학적 사상을 이해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선비문화 이해하기(시조, 사자소학, 목판인쇄체험)

• **도동 문화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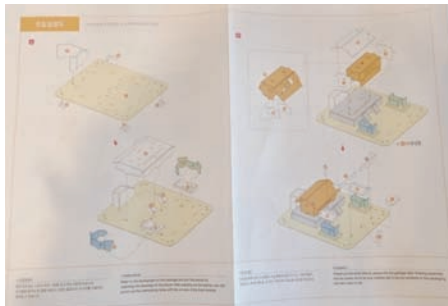
-기간: 5월~11월

-장소: 도동서원

-대상: 성인

-내용: 도동서원을 문화가 넘치는 공간이자 쉼터로 활용하며 다양한 예체능을 체험하며 일상의 여유와 즐거움을 느껴보기

• **도동서원 모형 만들기(대구 교육박물관)**



3) 도산서원

• **도산서원 참 알기 해설 및 알묘체험 프로그램(안동시청 문화유산과,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기간: 1월~12월

-장소: 도산서원

-대상: 일반인

-내용: 도산서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가치와 퇴계선생의 선비정신 등을 서원 참알기 도우미를 통해 체득하고 서원의 고유행사인 알묘례를 직접 체험.

• **도산서원과 함께하는 시민 인성체험 프로그램**

-기간: 1월~12월

-장소: 도산서원 및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도산유적지 일대

-대상: 학부모, 성인(200~300명)

-내용: 학부모 및 성인 등을 대상으로 한 도산서원과 함께하는 선비정신 인성교육 프로그램

• 서원 고문서를 통한 서원문화 탐색 프로그램

-기간: 1월~12월

-장소: 도산서원

-대상: 서원 입사 및 시민 등(15명, 연인원 300명)

-내용: 서원에 전승된 고문서를 집중탐색, 서원문화의 체계적 정리를 통한 사회 고급문화로의 승화 및 제공

• 서원스테이

-기간: 4월~10월, 매주 주말

-장소: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과 주변 일대

-대상: 가족(학부모, 자녀, 조부모 등), 일반인(동호인 등)

-내용: 퇴계선생과 후손, 후학들의 삶을 배우고 체험, 힐링, 사색을 위한 1박 2일 서원스테이

구분	가족		일반인(동호인)	
영역	현장 탐방 (선비의 삶 느껴보기)	체험 실습 (선비의 삶 체험하기)	현장 탐방 (선비의 삶 느껴보기)	체험 실습 (선비의 삶 체험하기)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산서원 탐방 · 퇴계종택 방문 · 노송정종택 · 온계종택 · 학봉종택 · 이육사 문학관 · 퇴계시공원 산책 · 유교문화박물관 탐방 · 산림과학박물관 탐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산서원 의례 (알묘례, 도산십이곡, 사자소학) · 도산서원모형만들기 · 퇴계명상길 걷기 · 예의범절 · 정심투호 · 제기차기 · 탁본체험 · 영상시청 · 청량산유산(遊山) · 부모와의 대화시간 · 가족에게 편지쓰기 · 가족 얼굴 그리기 · 가족화합 한마당 · 예안교(선성수상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산서원 탐방 · 퇴계선생 묘소 · 하계마을 탐방 · 퇴계종택 방문 · 이육사 문학관 · 퇴계시공원 산책 · 유교문화박물관 탐방 · 종가문화 탐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송정종택 - 온계종택 - 학봉종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산서원 의례 (알묘례, 도산십이곡, 백록동규) · 활인심방(마음과 몸 관리) · 정심투호 · 퇴계명상길 걷기 · 청량산유산(遊山) · 예안교(선성수상길) · 영상시청
비고	퇴계선생과 후손/후학들의 삶 배우기	체험, 힐링과 사색	퇴계선생과 후손/후학들의 삶 배우기	체험, 힐링과 사색

• 퇴계선생 마지막 귀향길 재현 걷기 <퇴계의 길에서 길을 묻다>(매일 유튜브 영상 제공)

일자	구간	주제/주요 행사	
4.15.목 (1일차) 8k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궁 사정전 · 두물개나루터공원 	퇴계를 배우는 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막 13:20~14:00 · 도산십이곡 제창 · 귀향길 재현이 갖는 의미 - 이광호 국제퇴계학회 명예회장 · 귀향길 노정의 개관 및 특징 - 이기봉 국립중앙도서관 학예연구사 	경복궁 사정전, 광화문
4.16.금 (2일차) 7k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물개나루터공원 · 봉은사 	참 좋은 사람을 따라 걷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연 ① 퇴계와 불교: 이상하 한국고전번역원 교수 ② 사명대사와 안동선비: 임노직 한국국학진흥원 박사 · 시(詩) 창수: 권진호 한국국학진흥원 국학기반본부장 - 사암 박순, 고봉 기대승, 고담 이순인의 전별시와 선생의 화답시 	봉은사 (보우당) 동호대교 남측 한강변

일자	구간	주제/주요 행사	
4.17.토 (3일차) 19km	· 봉은사 · 미음나루	나의 진휴(眞休)를 막지 마시오	
		· 시 창수: 권진호 한국국학진흥원 국학기반본부장 - 정존재 이담에게 준 퇴계선생의 화답시 · 낭독: 권진호 한국국학진흥원 국학기반본부장 - 퇴계와 정존재, 광나루에서 만나다	광나루 (광진교 북쪽) 미음나루
4.18.일 (4일차) 29km	· 미음나루 · 한여울(국수역)	퇴계의 학맥을 이은 성호와 다산	
		· 낭독: 이한방 영남퇴계학연구원 사무국장 - 이익의 <이자수어>, 정약용의 <도산사속록> - 매화분을 선물한 김취려	한여울 전망대
4.19.월 (5일차) 23km	· 한여울 · 배개나루 (이포나루)	사상을 초월한 퇴계의 폭넓은 우정	
		· 낭독: 정순우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 퇴계와 모재(김안국), 두 명현의 만남	이포보 인근
4.20.화 (6일차) 31km	· 배개나루 · 흔바위나루 (강천섬)	풀려나간 마음을 찾아서	
		· 시 창수: 이갑규 한국국학진흥원 한문교육원 주임교수 - 치재 홍인우를 그리워하는 퇴계선생의 시 · 낭독: 박경환 한국국학진흥원 국학진흥본부장 - 신록사 나루에서 옛 제자 생각에 눈물짓다	신록사 건너편 (조포나루터)
4.21.수 (7일차) 29km	· 흔바위나루 · 가흥창 (가흥초등학교)	이곳에 와보지 않은 사람은 한국사람이 아니다	
		· 시 창수: 이갑규 한국국학진흥원 한문교육원 주임교수 - 충청감사 송당 유희의 증시와 퇴계선생의 차운시 첫 번째 수 · 낭독: 김언종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 퇴계사상의 핵심은 敬	가흥창 터 (가흥초등학교)
4.22.목 (8일차) 20km	· 가흥창 · 충청감영 (충주관아공원)	높은 산 우러르며 큰 길을 간다	
		· 시 창수: 이갑규 한국국학진흥원 한문교육원 주임교수 - 퇴계선생의 차운시 두 번째 수 · 낭독: 이갑규 한국국학진흥원 한문교육원 주임교수 - 퇴계와 송당 유희의 특별한 인연	충청감영 (충주관아공원)
4.23.금 (9일차) 5km+ 선편20km	· 충청감영 · 청풍관아 (청풍문화재단지)	한벽루에 올라 청풍호를 바라보니	
		· 한벽루 퇴계선생 시판 제막 행사 - 제막: 이상천 제천시장, 김병일 도산서원 원장 등 - 시 창수: 강구울 동양대학교 교수 - 퇴계선생의 한벽루 시 · 낭독: 안병걸 안동대학교 명예교수 - 퇴계와 성암 이지번의 교유	한벽루 (청풍 문화재단지)
4.24.토 (10일차) 선편13km +9km	· 청풍관아 · 단양향교	퇴계는 물길로 우리는 물길로	
		· 시 창수: 강구울 동양대학교 교수 - 단양군수 시절의 퇴계선생 시 · 낭독: 권갑현 동양대학교 명예교수 - 단양의 절경을 시에 담다	단성수물 이주민 기념관 앞 단양향교 앞
4.25.일 (11일차) 22km	· 단양향교 · 풍기관아 (풍기초등학교)	두려운 벼슬길 정녕 넘기 어려웠네	
		· 시 창수: 강구울 동양대학교 교수 - 퇴계선생의 축령대운과 온계선생의 차운시 · 낭독: 강구울 동양대학교 교수 - 축령을 넘으며 형님을 그리워하다	교남제일관 (축령루) 풍기관아터 (풍기초등학교)
4.26.월 (12일차) 20km	· 풍기관아 · 영주 두월리	퇴계의 공감 능력과 여성 존중	
		· 낭독: 황상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 인생의 나침반이었던 할머니와 어머니 · 참배: 김해허씨(퇴계선생 초취부인) 묘소	두월1교차로 종착지 김해허씨묘소

일자	구간	주제/주요 행사	
4.27.화 (13일차) 20km	· 영주 두월리 · 삽골재	드디어 도산이다	
		· 시 창수: 허권수 경상대학교 명예교수 - 퇴계선생의 삽골재 시 · 낭독: 이치영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원 - 도산이 멀지 않구나	삽골재 시판 앞 삽골재 넘어 종착지
4.28.수 (14일차) 1km	· 삽골재 · 도산서원	도산에서 마주한 장엄한 낙조	
		· 폐막 10:00~12:00 · 상덕사 고유 · 도산십이곡 제창 · 시 창수: 허권수 경상대학교 명예교수 - 퇴계선생의 매화 시 · 소감 나누기/ 마무리	상덕사(사당) 도산서당

4) 돈암서원 : “돈암서원 禮 힐링캠프”(논산시청 문화체육과, 돈암서원)

• 돈암만인소운동-“우리의 예절을 우리가 지키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기간: 3월~12월

-장소: 돈암서원

-대상:

- 병아리만인소: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 유아(15회)
- 꿈길만인소: 청소년(40회)
- 오픈만인소: 일반인, 외국인, 관광객(15회)

-내용: 선비들의 사회참여, 실천운동이었던 만인소 소재를 현대적으로 해석, 재구성하여 도덕적 가치의 실천을 위한 전국민 캠페인 프로그램으로 기획

- 병아리만인소: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어려서 배우는 올바른 예절교육으로 착한 인성을 마음에 담기
- 꿈길만인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계김장생선생의 예학정신을 일깨워 인성을 함양하고, 바른 인성을 다짐하는 선언 프로그램
- 오픈만인소: 지역민과 외국인, 관광객 등 성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예학정신을 알아보고 고유의 전통예절을 알리는 교육활동

• 돈암 콜로키움

① 돈암, 동고동학(同考同學)

-기간: 3월~11월 매주 목요일 19:00~21:00

-장소: 돈암서원

-대상: 문화해설사, 문화재전문가(회당 15명, 총 240명)

-내용: “돈암, 그 기록을 살피다”-돈암서원의 원문 자료 번역, 역주 작업과 지역 유림 및 문화재 전문가 등이 함께 하는 고품격 포럼.

② 서원 동자(童子)

-기간: 3월~11월 매주 토요일 09:00~14:00

-장소: 돈암서원

-대상: 사회적 배려대상자(회당 18명, 총 432명)

-내용: '서원에서 다 같이 아이를 기른다.'라는 의미로 문화재 접근이 어려운 발달장애 청소년과 성인에게 문화체험 공방, 문화 쉼터 제공

• 돈암 예절 사관학교

① 사계의 길

-기간: 3월~11월 매주 토요일 09:30~12:30(총 20회)

-장소: 돈암서원

-대상: 학교 교사 및 관련 산업 종사자(회당 20명, 총 400명)

-내용: 예술적 조형성이 뛰어난 돈암서원의 현판과 꽃담 글씨를 직접 써보고 글씨를 쓸 때 힘의 강약과 표현의 자유로움, 추상성, 회화성, 적합성을 알아보기.

② 사계의 귀환

-기간: 4월~11월

-장소: 돈암서원

-대상: 문화재전문가, 지역민, 관광객(200명 이상)

-내용: 사계선생 서거 390주년 기념 판각 봉안 행사 및 축하 공연

③ 생활예절교실

-기간: 3월~11월(총 16회)

-장소: 충남 인터넷고

-대상: 실업계 고등학생(회당 40명, 총 640명)

-내용: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시 필요한 면접 및 직장 예절교육과 자기관리 수업을 통하여 사회의 일원으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 2014년부터 교육과정 이수 후 시험을 통해 '인성교육예절사' 자격증 수여.

• 돈암 문화살롱

-기간: 4월~10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 14:00(월 2회, 총 10회)

-장소: 돈암서원

-대상: 청소년, 지역민, 관광객(회당 50명, 총 500명)

-내용: 서원의 향촌교화 기능을 현대적으로 적용, 청소년 및 시민의 화합과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문학강연과 문화예술공연 프로그램.

C O N T E N T S

- **생활 속 국악이야기** / 유은선
국악실내악단 다스룸(DASRUM)
2021년 4월 10일
- **시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 / 공혜경
'로맨틱 앙상블'과 함께 하는 세계음악여행
2021년 4월 24일
- **퍼스널브랜딩이 답이다** / 지성언
더클래식 목관오중주
2021년 5월 8일
- **일상에서 디자인하기, 나의 이미지 만들기** / 엄주원
가야금앙상블 사계
2021년 5월 22일
- **아다지에도 - 광고 감독의 사적인 카메라** / 유대열
한국가곡앙상블 아랑
2021년 6월 12일
- **내앞에 펼쳐진 풍경** / 안보현
색소폰콰르텟 SaxoFOUR
2021년 6월 26일
- **디지털변화와 디지털아트** / 안승준
앙상블 Odeum
2021년 7월 10일
- **한국의 미, 한국무용에서 답을 얻다** / 이윤정
더클래식 오페라앙상블
2021년 7월 24일
- **예술과 기술의 특이점 : 예술과 데이터가 만났을 때** / 조흥연
더클래식 현악앙상블
2021년 8월 14일
- **소소한 이미지 메이킹** / 박나현
프로젝트 앙상블 마치 & 바리톤 오세민
2021년 8월 28일

5) 무성서원 : “최치원의 사상과 현가루絃歌樓의 풍류를 찾아서”(정읍시청 문화예술과, 무성서원 모현회, 무성서원 문화재활용사업단)

• **풍류방에서 피어나는 풍류와 도**

-기간: 3월~12월(강연 4회, 공연 1회)

-장소: 무성서원

-대상: 일반인(회당 100명)

-내용: 최치원과 무성서원의 배향 인물로 알아보는 풍류와 도

• **최치원, 정극인 관련 국내 답사**

-기간: 3월~12월(총 5회), 1일 또는 1박2일

-장소: 국내관련 유적지 일원

-대상: 지역 유림 및 일반인(회당 30명)

-내용: 최치원과 정극인 관련 국내 답사

• **무성서원 예에서 놀다**

-기간: ①3월~12월(1박2일, 8회)/ ②5월 중(1회)/ ③ 월 2회(총 20회)

-장소: 무성서원

-대상: ①다문화가족, 학생, 일반인(회당 20명)/ ②③도내 중·고등학생, 유림

-내용: ①서원스테이 프로그램으로 1박2일 동안 선비정신과 전통문화 체험 ②상춘백일장 ③삭망분향례

• **선비정신, 학에 기대다**

-기간: 3월~12월(총 20회, 2강좌)

-장소: 무성서원, 태산선비관

-대상: 학생 및 일반인(회당 20명)

-내용: 강학당(정가, 서예)을 운영하여 고전의 지혜를 느끼고 서원 본연의 목적 기여

• **제1회 무성서원 백일장**

-기간: 2021년 8월 16일~10월 15일

-응모방법: 무성서원 이메일

-대상: 누구나(장르는 시, 산문)

-주제: ①불우현(不憂軒) 정극인 등 무성서원 배향 인물의 삶과 사상

②정읍시 소재 문화재(유무형) ③봄(春)

-시상: 500만원(대상, 부문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6) 병산서원 : “서원건축의 백미 만대루”(안동시청 문화유산과, (사)하회마을보존회)

• 세계유산 인문캠프 및 강학

-기간: 인문캠프-3월~12월 1박 2일(총 12회, 회당 20명 내요)/

강학-유교문화 관련 명사 초청 강의(14시~17시, 총 2회)

-장소: 병산서원

-대상: 중고생부터 시작, 8월부터 일반인으로 확대

-내용: ① 서원체험을 통해 옛 선조들의 공부법 및 서원교육 이해

② 병산서원과 하회마을을 잇는 유교 문화길(선비길)을 걸으면서 선비정신을 체험

③ 서원에서의 1박을 통해 서원의 예절을 배우고 경험

〈세계유산 인문캠프 세부 프로그램〉

세계유산 인문캠프 세부시간계획

시간계획		세부일정	장 소	비 고
1 일 차	15:00~15:30	서원입교	서원동재	시도기 작성 및 입교준비
	15:30~16:00	방배경 및 도복착용	입교당	숙소별 사물정리, 도복 착용
	16:00~17:00	입교식 및 모우참배	입교당 및 존덕사	
	17:00~18:00	제1강의(백록동규)	입교당	백록동규, 서원예절, 가계도
	18:00~19:00	저녁식사	주사채	
	19:00~20:00	제2강의	입교당	서원역사 및 선현의 발자취
	20:00~21:00	부모님께 효도편지 쓰기	만대루	서원입교에 대한 소감정리
	21:00~21:30	소감문 발표 및 야화	만대루	
	21:30~22:00	세면 및 취침		
2 일 차	07:00~08:00	기상 및 낙동강변 걷기	서원 앞 강변	
	08:00~09:00	세면 및 아침식사	주사채	
	09:00~09:30	수료식	입교당	
	09:30~10:00	검정리 및 퇴소		

• 목판, 알묘 체험프로그램

-기간: 3월~12월

-장소: 병산서원

-대상: 일반인

-내용: 서애선생 묘우 참배 목판체험과 해설 지원

7) 소수서원

• 유네스코 세계유산 소수서원 스테이(동양대학교 한국선비연구원)

-기간: 3월~12월(1박 2일, 총 8회)

-장소: 소수서원, 선비촌

-대상: 일반인, 신청자(회당 40명, 총 320명)

-내용: 유네스코 세계유산 소수서원 제향문화계승 및 체험 / 유생복 체험과 생활 예절 실습 / 우리가락의 아름다움과 전통문화 체험 / 선비촌 고택 숙박 및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활동

• 소수서원 학맥계승을 위한 사마선비 양성과정(동양대학교 한국선비연구원)

-기간: 2021년 5월~10월 매주 토요일(총 24회)

-대상: 제한없음

-내용: 조선시대 소수서원에서 실제로 배우던 유가경전과 시문 중심의 강학교육을 계승하여 그대로 시행. 생원반 수업을 통하여 실제로 소수서원 생원 학위증을 수여하여 조선시대 서원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소학, 사서, 주자서, 선진·진한·위진산문, 경제잡, 소수서원학규, 소수서원 도동곡)

• 소수박물관 특별기획전 '최초의 사액서원, 소수서원'

-기간: 2019년 9월 20일 ~ 2020년 5월 31일

-내용: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념 특별기획전. 백운동서원의 건립부터 소수서원으로의 사액, 2019년 세계유산 등재까지의 과정을 소개.

- 1전시- 최초의 사액서원 '소수서원'
- 2전시- 소수서원의 '보물'
- 3전시- 소수서원의 배향인물 및 제향
- 4전시- 소수서원의 역할과 기능
- 5전시- 소수서원의 출신인물
- 6전시- 세계문화유산 소수서원

-온라인전시관 운영(5분 11초)

• 소수박물관 특별기획전 '서원, 세계의 꽃이 되다.'

-기간: 2020년 6월 15일~7월 31일

-내용: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 2020 세계유산 축전 소수박물관 특별기획전. 소수서원을 포함한 9개 서원의 풍광을 그린 '이호신' 화백의 수묵화 전시.

-온라인전시관 운영(22분 15초)

• 소수박물관 특별기획전 '선비의 영원한 벗, 문방사우'

-기간: 2020년 8월 7일~2021년 9월 30일

-내용: 2020 세계유산 축전을 기념하여 조선시대 선비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고, 문방사우 장인들의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

-온라인전시관 운영(14분 42초)

- 소수박물관 특별기획전 '찬란한 문화의 보고寶庫, 순흥'

- 기간: 2021년 10월 15일~2022년 4월 22일

- 내용: '순흥도호부'로 이름난 큰 고을이었고,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고분문화, 불교문화, 유교문화
화를 발전시켜 문화의 꽃을 피웠던 '순흥(현재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

- '문화가 있는 날' 무료 관람

- :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하여 소수서원, 소수박물관, 선비촌 관람을 무료로 운영.

- 소수서원 사이버체험관(소수서원 홈페이지 내)

- : 항공뷰와 360도 VR 영상, 각 건물 내부의 VR 영상도 제공, 소수박물관 각 전시실 VR 영상.

8) 옥산서원 “서원書院에서 배우는 21C 문화 리더쉽”(경주시청 문화재과, 신라문화원)

- 茶香 가득한 옥산서원

- 기간: 4월~10월 매주 토, 일요일 11:00~17:00(월 8회, 총 58회)

- 대상: 청소년, 시민, 단체, 다문화가족, 취약계층 (회당 80명, 총 4,640명)

- 장소: 옥산서원

- 내용: 배향인물 탐구/ 다도&생활예절/ 붓글씨/ 이언적 소개극/ 선비풍류(국악공연)/ 옥산 구곡 탐방/
선비향기체험(석고방향제 만들기)

- 유유자적(悠悠自適) 선비체험(4월~10월 1, 3주 토요일)

- 新화랑풍류체험(4월~10월 2, 5주 토요일)

- 신라달빛기행(5월~10월 4주 토요일)

- 옥산서원, 서악서원 사진 공모전

- 기간: 10월 14일~31일

- 내용: 옥산, 서악서원 사계를 촬영한 작품 공모.

총 30점 선정, 11월 23일 시상, 총상금 250만원.

- 옥산, 서악 음악회(4월 24일부터 매 주 토요일)

9) 필암서원 : “청림·절의·의기 찾아 떠나는 선비여행”(장성군청 문화관광과, 장성향교)

- 청림, 절의, 의기 찾아 떠나는 1박2일 선비문화체험 여행

- 기간: ①1박 2일, 4월~12월(10회), ②4월~12월(8회)

- 대상: 학생, 일반인(회당 25~30명)

- 장소: 장성향교, 필암서원, 고산서원

-내용: ①인성교육(인문학강좌)/ 승경도 놀이/ 전통 예절 및 다례체험/ 서원 관련 탁본 체험, 캘리그래피/ 전통문화체험, 전통한지공예체험/ 주먹밥 및 탕평채 만들어 먹기(청렴 체험) / 사랑의 편지 쓰기(유서쓰기) 및 세족식 / 편백비누 만들기 / 전통 천연염색체험 / 세계문화유산 필암서원 모빌 제작/ ②풍등 날리기

• **수요문화 마실 “문화의 날 풍류여행”**

-기간: 4월~12월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8회)
 -대상: 지역민, 관광객(회당 100명 이내)
 -장소: 장성향교, 필암서원, 고산서원, 향교 등
 -내용: 국악 공연(가야금 병창, 사물놀이, 판소리 등)

6. 9개 서원 교육프로그램의 성과와 과제

1) 성과

첫째, 한국의 서원 통합 홈페이지 구축으로 9개 서원의 통합관리 시스템 및 통합 교육, 홍보, 소통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며 한국 서원 및 9개 서원에 대한 풍부한 콘텐츠를 통합 홈페이지에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둘째, 7~8년 전의 교육프로그램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연령(유초등, 중등, 대학생, 성인), 대상(외국인, 관광객, 유림, 학부모, 가족, 교사, 해설사 등 전문인력, 다문화가정,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 수요층의 성격에 따른 차별화, 다양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차츰 구축되고 있다. 또한 수요 대상의 다양화 뿐 아니라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예절교육, 한문, 서예, 의례체험 등 획일화된 천편일률적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전통 가치의 현대적 재해석을 시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예학’을 돈암서원만의 특성화된 공통 테마로 삼되, 연령별, 수요 대상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돈암서원의 교육프로그램은 좋은 사례이다.

셋째, ‘폐쇄적, 구시대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대중에게 좀 더 친숙하고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차츰 변모해가고 있다. 그 예로, 최근 인문학의 트렌드와 대중적 관심사를 반영하여 현대 인문학 주제와 다양한 문화공연을 결합시킨 돈암서원의 ‘돈암 문화살롱’은 서원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의 테마가 꼭 서원이나 전통문화일 필요는 없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또한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소수서원, 소수박물관, 선비촌 관람, 도산서원을 무료로 개방하는 소수서원과 도산서원의 사례는 서원에 대한 보다 친숙하고 자유로운 접근을 유도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넷째, 자유학기제, 직업 및 진로 체험 등 공교육의 커리큘럼과 연계한 몇몇 서원들의 교육프로그램은 서원 교육과 활용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 향후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

2) 과제

첫째, 한국 서원의 ‘정신적 가치’와 ‘대중성’ 중 대중화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으나 여전히 단편적, 일회성 체험 프로그램에 치중된 경향이 강하다. 또한 한국 서원 가치의 ‘보편성과 특수성’ 중 보편성에 더 치우친 경향이 있다. ‘정신적 가치와 대중성’, ‘보편성과 특수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 미래와 접목하기 위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 예로, 남계서원의 경우 ‘함양문화재 중심’, ‘영남유학자 유적 중심’이라는 컨셉으로 기획한 당일 및 1박 2일의 인문학여행은 남계서원 뿐 아니라 인근의 역사문화유적과 인문학적, 자연적 자원을 폭넓게 활용,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 일반 관광객 및 여행객들에게 유의미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연령별, 관심사별로 수요층에 따라 특성화, 차별화된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부족하다. 사실 화림동계곡과 선비문화탐방로는 세계유산 등재와 무관하게 이전부터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던 곳이었다. 또한 인문학강좌도 홈페이지 상에는 남계서원 및 지역학 관련 내용으로 구상되었으나 실제 프로그램은 숲길 산책과 논어 강독으로 4회차 모두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다른 서원에는 없는 남계서원의 풍부한 원형 콘텐츠를 활용, 가공하여 보편성과 더불어 특수성이 확보된 남계서원만의 고유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일반대중이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많이 개발되었으나 대학생, 전통문화 전공자, 전문 연구자 등 엘리트층을 대상으로 한 아카데미한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전문 연구자를 대상으로 퇴계학 강연과 시 낭독, 걷기와 답사 체험을 결합한 도산서원의 ‘퇴계의 귀향길 재현 걷기’는 그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일회성 교육 프로그램 외에 각 서원이 소재한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교양과목이나 지역학 강좌에 서원을 주제로 한 강좌를 지속적으로 개설하여 차세대 서원 전문가를 장기적으로 양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셋째, 한국의 서원 통합 홈페이지에 구축된 풍부한 콘텐츠들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통합 홈페이지의 존재 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 활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9개 서원 관련 소식이나 정보가 통합 홈페이지에 수시로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예로, 남계서원 홈페이지가 오픈되었으나 통합 홈페이지에서는 링크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 9개 서원 중 홈페이지가 개설된 소수, 남계, 도산, 병산, 돈암서원의 홈페이지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 활용될 필요가 있다. 홈페이지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긴 하나 최근 게시물에 대부분 1-2년 전 것으로 아직까지 적극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넷째, 각 서원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서원마다 프로그램의 운영주체가 서로 다른데, 운영주체와 서원 등 유관기관들 사이의 연계나 협력이 미비하여 수요 대상자에게 교육 프로그램의 홍보나 실질적인 참여가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 예로, ‘소수서원 스테이’ 등 소수서원의 경우 현재 문화재청이 지원하는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사업’은 소수서원이 아닌 동양대학교 선비연구원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소수서원 홈페이지에 이 사업에 대한 공지나 홍보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특히, 홈페이지가 아직 개설되지 않은 옥산, 필암, 도동, 무성서원은 일반인의 경우 사전정보를 갖고 있지 않는 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구체적인 참여방법을 찾기가 더욱 어렵다.

옥산서원의 경우 신라문화원 홈페이지에 ‘살아있는 향교서원’ 사업을 공지하고 있으며, 필암서원은 장성군청 홈페이지에 필암서원 항공 및 360도 VR, 음성 오디오, 연혁 등을 소개하고 있으나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사업’ 공지는 찾기 어렵다. 또 도동서원은 달성문화재단 홈페이지 ‘문화마당’ 중 2021년 주요사업에 「2021 지역문화재 활용사업(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東'에서 피어나는 선비의 '道'(4월~11월)라는 공지만 있고, 구체적인 시행 일정이나 신청방법, 프로그램 내용은 찾을 수 없다. 무성서원의 경우도 정읍시청, 무성서원 모현회, 무성서원 문화재활용사업단 등에서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네이버에 무성서원 블로그가 있다고 하나 찾기 어렵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유관 기관들 사이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 및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 가능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서원의 인성교육

1. 서론

인터넷 검색창에 ‘서원’과 ‘인성교육’을 입력하고 검색하면 “영천 임고서원, ‘인성교육’은 영천(永川)”(2014. 3. 12. 영천타임뉴스), “돈암서원, 인성교육의 장(場)으로 거듭난다”(2015. 10. 20. 목요저널), “도동서원 인성교육 체험활동”(2018. 8. 3. 영남선비문화수련원) 등과 같은 기사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서원 인성교육’ 관련 프로그램들 중에 “조선시대 교육기관이었던 서원을 인성 및 예절, 창의성 키우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소개하는 ‘옥계서원 인성사랑 캠프’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가족 단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유치원’은 울동으로 배우는 다도·예절 체험, 협동으로 즐기는 민속놀이 체험(팽이, 딱지, 비석), 오물조물 짝꿍 닳은 쿠키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인성교육 나들이’는 전통문양 탐험놀이(공동체놀이), 부모님께 드리는 예쁜 쿠키 만들기, 공예 클래스(가죽, 짚풀, 와이어, 목공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편, 문화재청이 2015년부터 추진고 있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어떤 기사에서는 “지금까지 엄숙하고 굳게 닫힌 폐쇄적인 공간으로 인식되던 향교와 서원을 사람과 이야기가 가득하고 생기 넘치는 문화공간이자,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인문정신과 청소년 인성을 함양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펼치는 사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기사는 관련 사진으로 해당 서원에서 진행한 판소리 공연 사진을 싣고 있다.



돈암서원 판소리 공연

여기에서 예로 든 서원에서 진행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것이 굳이 서원이라는 공간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인가’, 또는 ‘이런 프로그램의 내용이 인성교육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런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센터나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관련 프로그램과 하등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물음은 여기에서 예로 든 해당 서원에 제기하는 것이라기보다 오늘 우리가 ‘서원의 인성교육’에 접근하는 방식을

이 사례들에 기대어 제기하는 것일 뿐이다. 이와 같은 전시성 활동이나 일회성 이벤트를 지양하고, 조금 더 ‘서원’과 ‘인성’의 본질을 진지하게 묻고 그 위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불가능할까? 즉, ‘서원’이 아니면 불가능한 방식의 프로그램이 있다면 무엇일까? 서원에서 진행하는 ‘인성교육’만이 갖는 특별함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본 발표문은 이런 문제의식 위에서 儒學이 지향하는 ‘聖人’지향형 인성교육에 주목하고자 한다. 21세기, 4

차산업혁명시대 등과 ‘聖人’ 사이에는 이질적 괴리감이 느껴진다. 하지만 유학에서 ‘聖人’은 끊임없이 그 성격과 내용이 변화하면서 인성교육의 뜻대로 제시되었다. 서원의 인성교육 역시 유학의 ‘聖人’지향형 인성교육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산을 오르다 길을 잃었다면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와 길을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것이 얼핏 바보스러워 보일지 몰라도, 오히려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聖人’이라는 지극히 원론적 접근을 하려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유에서다.

2. 맹자의 성선설과 성인

孔子 이전 시기의 고전들 속에 등장하는 ‘聖’ 또는 ‘聖人’은 대체로 ‘충명함’ 또는 ‘충명한 사람’을 가리킨다. 顧詒剛(1893 - 1980)은 ‘聖’자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를 유력하게 증언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聖’자는 원래 ‘귀[耳]’와 ‘입[口]’이 결합된 간략한 형태의 회의자인 ‘聦’였고, 나중에 여기에 ‘王’자가 더해져 형성자인 ‘聖’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의미는 ‘소리가 들어오면 마음이 이해한다[聲入心通]’ 또는 ‘귀로 들어와서 입으로 나온다[入于耳而出于口]’로 설명되며, 이는 모두 ‘충명함’을 설명하는 것들이라고 한다.¹ 許慎(58?-147?)의 『說文解字』에서는 ‘聖’자를 ‘귀[耳]’의 뜻에 ‘정(呈)’의 소리가 결합된[從耳呈聲] 形聲字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설명은 일견 顧詒剛의 문자학적 설명과 유사하다. 그러나 段玉裁(1735-1815)는 『說文解字注』에서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함으로써 ‘聖’자의 ‘충명함’이 가리키는 차원이 특별한 것임을 연상케 한다.

“‘聖’자가 ‘耳’자를 따른 것은 ‘귀가 모든 소리에 거스름이 없음’[耳順]을 말한다. 『風俗通』에는 ‘聖은 聲이다’라고 했는데, 이는 소리를 들으면 정황을 알아차린다는 뜻이다. 생각건대, ‘聲’자와 ‘聖’자는 옛날에 서로 가차해서 사용했을 것이다.”²

段玉裁가 인용한 應劭(?-204)의 『風俗通』에서 언급한 ‘聖은 聲이다’라는 설명은 ‘聖’자가 단순히 똑똑하다는 의미의 ‘충명함’ 이상의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하게 만든다. ‘聲’ 즉 ‘소리’는 어떤 소리를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이 단순히 사람들의 ‘말’만을 가리키는 것일까? 혹시 인간의 말과는 다른 차원의 ‘메시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보통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어떤 소리에서 특별한 메시지를 감지해낼 수 있는 특별한 사람 또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말이 ‘聖’이 아닐까? 『國語』『楚語』의 다음 이야기는 이러한 상상이 전혀 엉뚱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방증한다.

“그 ‘智’는 위와 아래를 헤아릴 수 있고, 그 ‘聖’은 멀리까지 빛이 퍼져 밝게 할 수 있으며, 그 ‘明’은 모든 것을 밝게 비출 수 있고, 그 ‘聰’은 모든 것을 모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다면 밝은 신명이 강림 하나니, 그가 남자이면 ‘覲’이라 하고 여자이면 ‘巫’라고 합니다.”³

여기에서 ‘聖’은 신명의 강림을 받는 ‘巫覲’이 갖춘 능력들 중 한 가지로 언급되고 있다. 『說文解字』에서는

1. 顧詒剛, 「聖賢觀念和字意的演變」, 『中國哲學』第1輯, 三聯書店, 1979, pp.80~81쪽

2. 段玉裁, 『說文解字注』.

3. 『國語』『楚語』下.

‘巫’를 “춤을 추어 신명을 강림하게 하는 사람”[以舞降神者]으로, ‘覡’을 “정돈되고 엄숙함으로 신명을 섬기는 사람”[能齊肅事神明]으로 각각 설명하고 있다. 韋昭(201-273)는 『國語』「楚語」의 위 글에 대한 주석에서 “巫와 覡은 반드시 여자와 남자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巫覡은 귀신을 보는 사람”[巫覡, 見鬼者.]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巫覡은 신명을 강림하게 하고, 신명을 섬기기도 하며, 귀신을 보기도 하는 사람들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와 같은 巫覡이 갖추어야 할 능력들 중 하나로 ‘聖’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吳震은 “실제로 가장 이른 ‘聖’의 개념은 상고시대의 무격문화에서 이미 나타났다”고 하면서, “聰明·聖·智는 무격이 평범함과 다른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그것이 보통사람들의 감각능력보다 뛰어난 것임을 보여주며, 이러한 종류의 능력을 ‘聰明’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⁴ 김종석은 “이러한 능력을 지닌 자들은 聖을 체득한 신의 대변자이며, 지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라고 보았다.⁵ 張光直은 상고시대 제왕이 하는 일이 곧 무격이 하는 일과 같다면, 제왕은 곧 무격의 우두머리라고 보았다. 나아가 그는 적어도 무격문화가 정치에서 핵심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⁶ 즉, 祭·政이 분리되지 않았던 신화의 시대에 제사장(무격)이 곧 제왕이었다는 주장이다. 이른바 聖王이라는 개념의 원형에는 이와 같은 역사적 흔적들이 깃들여 있다.

堯는 그의 후계자인 舜에게 “아! 너 舜아, 하늘의 曆數가 너의 몸에 있으니”라는 말로 제위를 선양하였고,⁷ 섭위를 받아들인 舜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상제에게 類라는 제사를 올리고, 六宗(계절·기후·해·달·별·홍수와 가뭄을 관장하는 신들)에게 禋이라는 제사를 올리고, 산천의 신들에게 望이라는 제사를 올리고, 그밖에 여러 신들에게도 빠짐없이 제사를 올리는 것이었다.⁸ 이후에 가미된 철학적 해석의 도움을 견어내고 오래전 기록에 등장하는 堯와 舜의 행위들을 있는 그대로 읽는다면 그들에게서 제사장이었던 제왕의 모습을 상상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하지만 유학을 창시한 공자에 이르면 ‘聖’ 관념에 약간의 변화가 발견된다. 공자의 ‘聖’ 관념에서도 제사장의 흔적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이미 무격이 아닌 성왕의 모습으로 변모해 있다.

子貢이 말했다. “만일 백성에게 널리 베풀고 대중을 능히 구제하는 이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仁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孔子가 말했다. “어찌 仁에 해당하겠는가? 필시 聖일 것이다. 堯임금과 舜임금도 이 점에서 부족하다고 여기셨다.”⁹

‘聖王’에 담긴 공자의 ‘聖’ 관념은 명백하게 ‘주술의 도덕화 또는 종교의 학문화’라는 인문주의적 성취를

4. 吳震, 「중국사상사에서의 성인 관념」, 『퇴계학논집』 제10호, 영남퇴계학연구원, 2012, p5.

5. 김종석, 「유가사상과 신화적 사유의 상호관계성 연구」, 『한국철학논집』53, 한국철학사연구회, 2015, 261쪽.

6. 張光直(이철 옮김), 『신화 미술 제사』, 동문선, 1995, 85~86쪽.

7. 『論語』「堯曰」.

8. 『書經』「舜典」.

9. 『論語』「雍也」.

보여주고 있다.¹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의 ‘聖’은 여전히 인간의 노력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인간형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인 인간에게는 아직 요원한 존재이다.¹¹

유학에서 ‘聖’ 또는 ‘聖人’이 인간 존재를 설명하고 인간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인간관 속으로 들어온 것은 공자 이후의 일이다. 공자는 결코 그의 제자들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聖人이 되기를 요구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聖人이라고 칭하려는 주변의 시선도 단호하게 거부했다.¹² 공자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는 제왕이 아닌 사람들 중에 인격적으로 聖人에 도달한 인물을 현실에서 확인한 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자의 제자들과 그 계승자들은 공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에서 聖 또는 聖人을 논의할 수 있었다. 이들에게는 제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의 조건을 충족시킨 ‘孔子’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주어졌기 때문이다.¹³

공자 이후 변화된 성인상을 학술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정립한 인물은 단연 孟子이다. 그의 ‘聖’관념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무래도 “사람은 누구나 堯舜이 될 수 있다”¹⁴는 분명하고도 단호한 주장일 것이다. 堯舜으로 상징되는 성인을 누구나 도달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인격체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성인을 더 이상 신화 속의 신격화된 인물로서가 아니라 보통의 인간들과 同類라는 인식 위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은 맹자 이전에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선언이다.

滕文公이 아직 세자였을 당시 맹자는 세자에게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性善] 이야기를 해주면서 반드시 요순을 언급했다.¹⁵ 초나라에 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찾아온 세자에게 맹자는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해 다시 찾아온 것이냐”면서, 요순과 같은 성왕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이나 의구심을 버리라고 충고한다.¹⁶ 맹자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제나라의 宣王에게 요순은 물론 殷王朝의 湯王과 周王朝의 文王·武王으로 대표되는 왕도정치의 사례들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를 진술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요순의 도가 아닌 그 어떤 말도 임금 앞에서 아뢰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¹⁷

聖과 聖人에 대해 몹시 조심스러워했던 공자와 달리, 맹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당시 군주들에게 소개하면서 벤치마킹(Benchmarking)하라고 권유했다. 또한 공자가 인간의 본성 문제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던 데 비해, 맹자는 적극적으로 性善說을 개진하면서 당시의 군주들이 仁政을 베풀 수 있는 존재임을 자각하게 하는 논리로 활용했다. 이런 점에서 맹자는 공자의 원칙을 계승하면서도 방법론에서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을 보

10. 장현근, 「성인의 재탄생과 성왕 대 폭군 구조의 형성」, 『정치사상연구』, 17집 2호, 한국정치사상학회, 2011 가을, 110쪽.

11. 김종석, 「유가사상과 신화적 사유의 상호관계성 연구」, 『한국철학논집』53, 한국철학사연구회, 2015, 266쪽.

12. 『論語』「述而」.

13. 『孟子』「公孫丑上」.

14. 『孟子』「公孫丑上」.

15. 『孟子』「滕文公上」.

16. 『孟子』「滕文公上」.

17. 『孟子』「公孫丑下」.

여주었다. 공자를 닮는 것이 소원이라면서¹⁸ 私淑했던¹⁹ 맹자는 공자라는 새로운 유형의 성인을 적극 발굴하고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성인상을 만들어갔다.

3. 주자의 성리설과 성인

“처음 배우는 사람은 모름지기 뜻을 세우되, 반드시 聖人이 되겠다고 스스로 기약해야 하며 털끝만큼이라도 자신을 작게 여겨서 물러서거나 핑계 대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²⁰

栗谷 李珥(1536-1584)는 1577년 황해도 해주의 은병정사에 머물면서 초학들에게 학문의 향방을 제시하기 위해 『擊蒙要訣』을 저술했다. 이 책에서 율곡은 “聖人이 되겠다”는 뜻을 세워야 학문이 올바른 방향을 잡게 된다는 점을 가장 먼저 강조했다. 그런데 율곡은 이보다 앞선 1575년 이미 『聖學輯要』를 저술하여 임금에게 바쳤고, 그보다 앞선 1568년 退溪 李滉(1501-1570) 역시 『聖學十圖』를 편찬하여 임금에게 올린 바 있다.²¹ 이 글들의 제목에 들어간 ‘聖學’은 물론 帝王學을 의미하며, 그것은 聖學에서 거론하는 제왕들이 본래 성왕들이었던 데서 비롯되었다. 그렇다고 하여 聖學의 내용이 제왕이 아닌 사람들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 맹자 이후 聖人は 모든 인간이 지향해야 할 보편적 인격이 되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聖學’이라는 말이다. ‘聖學’은 ‘聖人에 대한 學’ 또는 ‘聖人이 되기 위한 學’으로 해석할 수 있다.²² 어떻게 해석하든 이 말 속에는 ‘배움을 통해 聖人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으며, 그런 이유로 어린 초학자부터 지존인 임금에 이르기까지 배움의 궁극적 목적이 여기에 두어져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는 것이다. 성리학은 이렇게 ‘聖人이란 배움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濂溪 周惇頤(1017-1073)가 “聖人は 배울 수 있다”²³ 고 한 것을 이어, 伊川 程頤(1033-1107)도 “聖人は 배움을 통해 도달할 수 있다”²⁴고 했다. 이후 이러한 생각은 성리학에서 움직일 수 없는 정론이 되었다. 성리학을 집대성한 晦庵 朱熹(1130-1200)²⁵ 역시 다음과 같이 말했다.

18. 『孟子』「公孫丑上」.

19. 『孟子』「離婁下」.

20. 『擊蒙要訣』「立志章第一」.

21. 참고로 中國에서 ‘聖學’을 書名에 넣은 저술은 한국의 『聖學十圖』나 『聖學輯要』보다 약간 늦은 17세기 초에 양명학자인 海門 周汝登(1547-1629)이 저술한 『聖學宗傳』과 念臺 劉宗周(1578-1645)가 저술한 『聖學宗要』에 처음 등장한다.(吳震, 「중국사상사에서의 성인 관념」, 『퇴계학논집』 제10호, 영남퇴계학연구원, 2012, 3쪽.)

22. ‘學’은 ‘학문’ 또는 ‘배움’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이후 논의 과정에서 ‘學’이 중요한 독립적 개념으로 사용됨을 고려하여 ‘學’으로 사용함을 밝힌다.

23. 『通書』「聖學第二十」.

24. 『二程集』「顏子所好何學論」.

25. 이하에서는 편의상 ‘朱子’라고 칭한다.

“聖人の道는 크지만 근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는 사람이 반드시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하며, 그리하면 도달할 수 있다.”²⁶

그렇다면 성리학에서는 성인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주자에 따르면 “성인은 곧 하늘이다.”²⁷ 이 간명하더라도 단호한 정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이 세상은 하늘의 뜻에 따라 주재되지만, 정작 하늘은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늘을 대신해 그 뜻을 시행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가 바로 성인이다.²⁸ 성인은 그 자신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뜻에 따르는 사람이다.²⁹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天理만이 충만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의 행사에 드러날 뿐이다.³⁰ 그렇기 때문에 그의 一動一靜은 모두 하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의미 없이 행해지는 것은 없다.³¹ 주자가 “성인은 곧 육신으로 서있는 천리”³²라고 한 것은 이 때문이며, 이 모든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이 바로 “성인은 곧 하늘이다”라는 정의이다.

성리학에서는 성인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무한책임을 자각하는 인물이 또한 성인이라고 설명한다. 성인은 천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서 천하를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온 천하를 한 집안처럼 생각하는 인물이다.³³ 주자는 성인의 무한책임의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聖人の 마음은 무궁하여, ‘세상이 아무리 지극히 잘 다스려진다 한들 온 천하에 제자리를 얻지 못한 것이 과연 하나도 없다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堯舜도 백성을 편안히 하는 문제에 대해 오히려 부족하다고 여기셨던 것이다. 만일 ‘나는 이미 충분히 잘 다스리고 있다’고 한다면 聖人이 아니다.”³⁴

문제는 보통의 일반대중들이 정말 이처럼 엄청난 성인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배움[學]’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더욱 궁금해진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리학에서 말하는 성인은 초학자들이 아무리 뜻을 단단히 세운다 해도 결코 도달하기 쉽지 않아 보이며, 천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발분망식을 하며 기질을 교정해간다 해도 성취하기 어려울 듯하다. 성리학이 理氣와 心性에 관해 그토록 정치한 논의들을 축적하고, 수양과 공부에 대해 것처럼 방대한 방법들을 제시했지만, 그 ‘배움’을 통해 성인이 되었다는 사례는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였을까? 주자도 그것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토로한 적이 있다.

26. 『孟子集註』「盡心上」.

27. 『朱子語類』68:82.

28. 『朱子語類』14:58.

29. 『朱子語類』73:116.

30. 『朱子語類』130:95.

31. 『朱子語類』116:30.

32. 『朱子語類』31:67.

33. 『論語集註』「憲問」.

34. 『論語集註』「憲問」.

“내가 십여 세 무렵 ‘聖人과 나는 同類’라고 하신 孟子의 말씀을 읽고, 말할 수 없이 기뻐하면서 ‘聖人也 쉽게 될 수 있구나’라고 여겼었다. 지금에 와서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다.”³⁵

그렇다고 이 모든 논의들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배움’을 통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믿었던 그들의 의도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주자는 사람이 ‘배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람이 생명을 갖게 될 때, 하늘은 분명 사람에게 仁義禮智라는 본성을 부여하여 君臣·父子의 윤리를 가르치고 사물의 당연한 법칙을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氣質의 치우침과 物慾의 가림으로 인해 그 본성을 분명히 알지 못해서 윤리를 어지럽히고 법칙을 망가뜨리고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줄 모릅니다. 반드시 ‘배움’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한 뒤에야 正心과 修身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齊家와 治國의 근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배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³⁶

주자는 윗글에서 그 도덕적 가능성이 우리들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밝혔을 뿐 아니라, 그것이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움’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배움은 우리가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실현하는, 그리하여 도덕을 존재하게끔 해주는 과정”³⁷이 되었으며, 성인이 되겠다고 뜻을 세우고 실천을 해나간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이미 도덕적 권위를 갖는다는 의미가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피터 볼(Peter K. Bol)의 다음과 같은 분석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도덕에 대한 권위는 정치적 권위를 쥐고 있는 이들보다 도덕을 갈고 닦은 이들에게 있으며, 도덕은 정부의 훈령과 무관하게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신유학자들이 사용한 어휘는 바로 ‘배움[學]’이다. 이때 ‘배움’과 정치 사이에도 역시 구분이 이루어진다. 정치는 ‘배움’에 의해 인도되어야만 하는데, ‘배움’에 대한 권위는 ‘배움’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법을 아는 이들에게 있을 뿐, ‘배움’에 종사하고 사회변혁을 위해서 정치적 입지를 가질 필요는 없다.”³⁸

우리는 이 장면에서 다시 성리학적 제왕학으로서의 聖學을 떠올리게 된다. ‘성학’의 논리를 수용하는 순간 군주는 성리학의 자장 안에서 성리학이 제시하는 과정과 그것이 요구하는 목적에 순응할 수밖에 없게 된다. 즉, 성학은 군주 스스로 ‘자신은 행정조직의 수반일 뿐이며, 인간적으로는 ‘배움’의 지도를 받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³⁹ 그리고 이의 연장선에서 주자의 ‘道統論’을 연상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35. 『朱子語類』104:4.

36. 『朱子全書』「行宮便殿奏劄二」.

37. Peter K. Bol(김영민 옮김), 『역사 속의 性理學』, 예문서원, 2010, 252쪽.

38. Peter K. Bol(김영민 옮김), 『역사 속의 性理學』, 예문서원, 2010, 247쪽.

39. Peter K. Bol은 “통치자에게 올린 그리고 통치자에 대해 쓴 朱子의 글에는 두 가지 거대한 테마가 있다”면서 다음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는 “통치자도 다른 인간들과 같은 도덕적·지적 잠재력을 가진 존재이며, 마찬가지로 타락에 노출된 인간이라는 점”, 둘째는 “통치자는 행정체계의 한 부분이라는 점”이다.(Peter K. Bol(김영민 옮김), 『역사 속의 性理學』, 예문서원, 2010, 218~220쪽.)

4. 퇴계가 지향한 서원교육

退溪 李滉(1501-1570)은 당시 영남 지역에 세워진 서원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가장 먼저 시작되었고 그 숫자도 가장 많다고 남 얘기하듯 했지만,⁴⁰ 그 중심에 퇴계가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서원의 확산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까닭이 향교가 학문의 장으로서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원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교육과 학문을 실현해보고자 했다는 것도 익히 알려진 바이다. 퇴계는 白雲洞書院에 賜額해줄 것을 청하기 위해 方伯인 沈通源에게 올린 글에서 國學과 달리 鄉校는 교육이 붕괴되었음을 지적하하면서, 교육을 다시 되살릴 희망이 書院에 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오직 書院에서의 교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오늘 같은 상황에서 盛興한다면 學政의 잘못된 부분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고, 학자들이 依歸할 곳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선비들의 기풍도 따라서 크게 변할 것이고 習俗은 날로 아름다워져서 王化가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니, 그것이 聖治에 기여하는 바 작지 않습니다.”⁴¹

이 글에서 퇴계가 향교가 아닌 서원에서 교육의 희망을 찾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교육을 되살려내야 하는 이유에 관한 퇴계의 생각을 읽는 것이다. 퇴계는 교육을 시행하는 근본 이유가 王化와 聖治로 표현된 이른바 ‘좋은 나라’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동인으로 ‘선비들의 기풍 변화’와 ‘아름다운 풍속’을 들고 있다. 정리하자면, 좋은 나라[國]는 결국 그것을 만들어갈 주체인 선비들이 어떤 교육을 받느냐와 직결된다는 말이 된다.

「伊山書院記」에서 퇴계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三代의 배움은 모두 인륜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었지만, 후세에 성왕이 나오지 않고 옛 도가 붕괴되어 文詞와 科擧, 利祿만을 익히고 사람의 心術은 궤멸시키면서 광란의 물결 속으로 내달려 돌아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 결과 안으로 國學과 밖으로 鄉校 모두가 가르침이 무엇인지 모를 뿐더러 배움과 관련하여 하는 일이 없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뜻있는 선비들이 긴 한숨을 내쉬며 서책을 부둥켜안고 산속이나 물가로 숨어들어 서로 배운 것을 강론하면서 도를 밝히고 이를 통해 자신을 완성하고 타인을 완성시킨 이유이다. 그렇다면 후세에 書院이 등장한 것은 형편상 부득이한 것이었으며, 높이 평가할 만한 사건이었다.”⁴²

여기에서 퇴계는 국가가 교육의 방향을 어디에 설정할 것인지와 배우는 사람들이 배움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三代로 상징되는 이상적인 시대에는 人倫으로 대변되는 도덕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교육이 시행되었지만, 후세로 내려오면서 國學이나 鄉校 할 것 없이 利祿으로 대변되는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느라 科擧와 文詞를 익히는 데만 치중하고 가르침과 배움의 본질을 망각하거나 배반했다. 그래서 학문의 본질에 충실하고자 하는 뜻있는 선비들이 국학이나 향교가 아닌 서원이라는 대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40. 『退溪全書』 卷42, 「易東書院記」.

41. 『退溪全書』 卷9, 「沈方伯通源○己酉」.

42. 『退溪全書』 卷42, 「伊山書院記」.

교육에 대한 퇴계의 이러한 진단에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인륜’이다. 퇴계가 말하는 ‘인륜’이란 단순히 부자와 군신, 장유 등 인간관계에서 실천해야 할 윤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퇴계가 말하는 ‘인륜’은 우주자연으로 소급해서 찾아낸 인간 존재에 관한 이해와 그로부터 연역된 수많은 행위규범의 당위,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한 필요로부터 시작된 학문의 목적과 방법 일체와 연관된 광범위한 것이다. 『開寧鄉校聖殿重修記』에서 퇴계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三代의 배움은 모두 人倫을 밝히려는 것이었다. 인륜을 밝힌다는 것은 곧 正道를 밝히는 것이다. 덕성을 기르고 근본을 세우는 것은 『小學』에 달려 있고, 규모를 넓히고 줄기를 뺏어나가게 하는 것은 『大學』에 달려 있다. 三書(『論語』·『孟子』·『中庸』)와 五經으로 이것을 충실하게 채워나가고, 다양한 역사서와 여러 사상들을 통해 이를 폭넓게 넓혀나간다. 正學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正道가 여기에 있다. 스승이 무엇을 가르칠지, 선비가 무엇을 배울지, 鄉人들이 무엇을 실천해야 할지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각각 그 바를 얻게 된다.”⁴³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륜’이라는 개념은 단어의 사전적 의미보다 그것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이 고려된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퇴계가 왜 교육과 학문의 목표로서 이것을 중시하였는지, 나아가 이 ‘인륜’을 밝히는 것에서 서원이 등장하게 된 이유까지 찾고자 했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퇴계는 『易東書院記』에서 서원이 세워진 본질적 의미[本意]와 서원에서 수행해야 할 실질적 역할[實事]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학문하는 주체로서 인간 존재와, 그가 배워야 하는 학문의 내용과 과정 그리고 서원이라는 학습 공동체의 유익한 점 등에 관해 훨씬 풍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도의 큰 근원은 하늘에서 나왔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어서, 지혜롭다고 더 풍부한 것도 아니고 어리석다고 더 모자란 것도 아니다. 성현의 말씀은 사람들을 깨우쳐주지만 책속에 펼쳐져 있는 것이어서, 그 옛날 처음 나왔으나 지금도 빠짐없이 갖추어져 있다. 사람들이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일 뿐 구하기만 하면 알지 못할 이치가 없으며,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일 뿐 행하기만 하면 모두 실천할 수 있는 도이다. 영성하게 시작하여 정밀한 경지에 이르고, 얇은 곳으로부터 시작하여 심오한 경지에 도달하라. 배운 것을 익히는 기쁨과 벗과 함께 성장하는 즐거움을 맛보고, 스승의 가르침은 때마침 내리는 비와 같고 제자들은 썩처럼 성장한다. 노니는 모습은 의젓하고, 이루어가는 모습은 성실하다. 평소에는 仁을 품고 義를 안더니, 벼슬에 나아가서는 임금을 높이고 백성들을 보호한다. (서원을 세운) 본질적 의미[本意]와 (서원에서 해야 할) 실질적 역할[實事]이란 이런 뒤에야 말할 수 있을 것이다.”⁴⁴

퇴계는 『迎鳳書院記』에서도 서원이 등장하게 된 원인을 앞서 살펴본 것들과 유사한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 다만 이 글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서원의 등장을 家의 塾, 黨의 庠, 州의 序와 같은 사회 단위별 교육 체제의 붕괴에 대한 대안적 성격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⁴⁵ 그러면서 퇴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43. 『退溪全書』卷42, 『開寧鄉校聖殿重修記』.

44. 『退溪全書』卷42, 『易東書院記』.

45. 『退溪全書』卷42, 『迎鳳書院記』.

“書院이 家塾이나 黨庠과 그 제도는 비록 같지 않지만 추구하는 의의는 같으며, 風化에 관계됨이 대단히 크다. 그러므로 도를 아는 선비와 치세를 원하는 군주가 서원의 진흥에 열과 성을 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⁴⁶

규모와 성격 등의 제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書院이 추구하는 바는 家塾이나 黨庠이 추구하는 바와 같다고 퇴계는 말하고 있다. 家塾, 黨庠, 州序, 國學 등은 『禮記』 「學記」에 나오는 고대의 교육 기구들로, 이를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다름 아닌 ‘化民易俗’이다.⁴⁷ 그렇다면 서원이 추구하는 바 역시 ‘化民易俗’이라는 점을 퇴계는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변역시킨다’는 뜻의 ‘화민역속’은 유학이 상정한 동심원형 파장의 구도에 대입하면 家를 너머 鄉 단위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고대에는 학습 연령기에 따라 家와 黨, 州에 설치된 교육 기구들에 차례로 진학하게 함으로써 한 개인을 완성된 인격체로 성장시켜나간다고도 이런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와 같은 시스템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결국 ‘화민역속’의 주체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도록 하려는 데 교육의 방향이 설정되었던 것이다. 국학과 향교의 교육이 이미 이러한 방향에서 이탈한 현실에서 퇴계가 서원을 통해 무엇을 희망했는지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같은 글에 나타난 퇴계의 다음 언술은 이를 보다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은 최고의 경지에까지 오를 수 있을 테지만 낮은 수준의 사람들도 吉人과 修士가 되는 데 문제가 없어서, 관직에 나아가지 않을 때는 집안을 반듯하게 하고 풍속의 표상이 되며, 관직에 나아가서는 나라를 바로잡고 시대를 구제하리니, 이리하여 서원을 세우고 선비를 양성하는 본의에 저버림이 없을 것이다.”⁴⁸

굳이 서원을 세운 본의가 단순히 고을 한복판에 있는 향교에서 산수 좋고 한적한 서원으로 교육공간의 교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선비를 양성한다는 것 또한 과거공부를 하던 것으로부터 성리학을 공부하는 것으로 커리큘럼이 변경되는 것만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聖人이라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지는 못하더라도 누구나 吉人과 修士가 될 수 있는 교육이 바로 퇴계가 꿈꾸었던 서원 교육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개인의 인격적 성취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을 때엔 집안을 반듯하게 하고 풍속의 표상이 될 주체를, 관직에 나아가서는 나라를 바로잡고 시대를 구제할 주인공을 염두에 둔 것이다. 서원을 세우고 선비를 양성하는 본의가 여기에 있다.

46. 『退溪全書』卷42, 「迎鳳書院記」.

47. 『禮記』 「學記」

48. 『退溪全書』卷42, 「迎鳳書院記」

5. 인성교육의 현재적 시사

인류 역사에는 수많은 논쟁거리가 있었다. 신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놓고 벌였던 종교적 논쟁거리도 있었고, 지구는 돈다 또는 돌지 않는다는 같은 자연과학적 논쟁거리도 있었다. 그에 비견될 만한 인간 본성에 관한 논쟁거리도 있었다. 인간의 본성이 선한지 혹은 악한지에 관한 논쟁거리가 그것이다. 孟子를 대표로 하는 性善說과 荀子를 대표로 하는 性惡說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입장이 半分될 만큼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논쟁거리다. 물론 인간의 본성에 관한 주장 중에는, 본래부터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고, 선한 본성을 가진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주장들까지 더해지면 인간의 본성이 과연 어떤지를 해명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인간의 본성을 해명하기도 어렵고 합의에 이르기에도 어려운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애당초 인간의 본성이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서, 실험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어쩌면 인간의 본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우리들은 각자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람들의 경향을 통해 주관적으로 취집한 경험의 결과치를 이야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하면, 선한 사람을 많이 만난 사람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성선설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고, 악한 사람을 많이 만난 사람은 그 반대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렇게 개개인의 경험이 균질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애당초 인간 본성에 관한 합의는 쉽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맹자와 순자는 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거나 악하다는 주장을 내놓았을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과학자가 아니라 철학자이자 사상가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즉, 이들은 실험의 데이터에 바탕을 두고 그 결과를 성선설 또는 성악설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戰國時代라는 참혹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전국시대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맹자와 순자의 접근법은 달랐다. 맹자는 우리(특히 위정자들)가 선한 본성을 가진 존재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타락한 모습에 안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본래의 선한 본성을 회복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비해 순자는 우리는 본래 악한 본성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상황을 야기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본래의 악한 본성을 교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성선설과 성악설은 각각의 이름에 제시된 ‘善’과 ‘惡’의 상반된 이미지로 인해 결코 만날 수 없는 두 주장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성선설과 성악설은 궁극적 지향치가 같다. 선을 회복해야 한다는 성선설이 지향하는 것도 선이고, 악을 교정해야 한다는 성악설이 지향하는 것도 선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생각해 보면,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나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 모두 공자의 사상을 잇는 유학자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사상적 지향이 다를 수 없음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이들의 인성론에서 읽어내야 하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이들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본성 즉, ‘人性’에 주목했다는 사실이다. ‘인성’은 특정 개인의 성질이나 성격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적 성질이나 성격을 지칭한다. 따라서 ‘인성’에 관심을 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인간이라는 존재에 관하여 보편적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성’이 시대의 문제 또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것은 문제의 원인에 대해 우리 모두의 책

임을 환기함과 동시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의 동참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성선설과 성악설의 차이는 없다.

결국 인성론은 관련 논의를 하는 시간과 공간이 맞닥뜨린 문제상황과 분리될 수 없다. 문제를 양산한 원인을 그 주체인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 해명하고, 문제를 해결할 대안 역시 그 주체인 인간의 본성에 근거하여 도출하고자 하는 논의가 인성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유학의 인성론은 더욱 그렇다. 유학의 인성론은 이러한 특징 이외에도 그 내용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방향을 지향한다는 특징이 강하다. 개별적 인간이 아닌 보편적 인간에 관심을 둔 것부터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내용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맹자의 성선설은 말할 것도 없고, 순자의 성악설마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방향을 향하고 있는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성리학은 맹자의 성선설이 지향하는 방향을 채택하면서 유학의 인성론이 갖는 특성을 또렷이 하였다. 理·氣로부터 心·性·情의 구조와 의미를 해명하는 복잡한 이론체계를 구사하고 있지만, 성리학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목적은 분명하다. 인간 존재[人]를 다른 존재들[物]과 함께 乾坤 또는 天地로 표현되는 우주적 차원에서 조망하고, 이로부터 인간 개인이나 사회가 지향해야 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당위를 연역해내는 것이다. 즉, 맹자의 성선설을 인성론의 기본 방향으로 채택하면서도 단순히 이를 답습하지 않고 좀 더 세련되고 정치한 이론체계로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성리학의 인성론이다.

‘서원의 인성 교육’이라 하여 특별할 것은 없다. 이상과 같은 유학(성리학)의 인성에 관한 내용을 서원에서 교육한 것을 가리킬 뿐이다. 물론 ‘서원’이라는 특별한 환경적 공간에서 그와 같은 인성을 교육했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애당초 서원이 향교와 같은 교육기구와 구별되는 교육 환경을 추구했던 문제 의식을 환기한다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앞서 퇴계의 언급에서도 확인했던 바와 같이 서원이 서원인 이유를 단순히 교육공간의 교체에서만 찾아서는 안 될 것이다. 어쩌면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서원을 설립한 본질적 의미[本意]와 서원이 수행해야 할 실질적 역할[實事] 측면에서 교육했던 ‘인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원의 인성교육이 한결같이 추구했던 것은 우리들 개개인이 ‘성인’이 되는 것이다. 앞서 원시유학(맹자)과 성리학(주자)의 ‘성인’에 대한 이해를 검토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퇴계가 지향한 서원교육 역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성인이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처럼 신비스러운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는 점이다. 맹자 이후 유학이 추구했던 ‘성인 됨’은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는 ‘모든 인간은 同類’라는 전제이고, 둘째는 ‘인간 존재에게 선천적으로 부여된 것 이상을 더 성취함으로써가 아니라, 부여받은 바를 상실하지 않고 보존함으로써 성인이 된다’는 논리이다. 생김새만큼이나 상이한 인간들을 ‘人類’이라는 하나의 범주에 귀속시킬 수 있는 것은 ‘인성’에 기인한다는 전제, 그런데 그 ‘인성’은 지극히 완벽한[萬善具足] 것이어서 그것에 준해서 살아가기만 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것을 실천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쳤던 것이 유학의 인성교육이고, 서원의 인성교육이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하고 진정성 있는 서원의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회성, 전시성 행사를 지양해야 한다. 서원이라는 시설을 이용하여 참여자들에게 한복을 입히고 짙은 경전 구절을 외우도록 하는 등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서원의 인성교육이라 할 수 없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처한 사회적 문제, 더 나아가 현대문명이 당면한 시대적 문제 상황을 유학의 논리로 해명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유학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서원이 문화재를 넘어 살아있는 문화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원의 인성교육 역시 이와 같은 기조 위에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사회적·시대적 문제를 양산한 공동의 책임을 인성에 착안하여 성찰하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해결하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방법을 인성으로부터 도출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본질적 고민을 결여한 채 전통의 외양만을 모방하는 전시성 행사나 경전의 한두 구절을 외워보는 일회성 이벤트만으로는 진정성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어려울 것이다.

원시유학에서부터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을 동류로 간주했던 유학의 인성론, 그것으로부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성취에 먼저 도달한 개인이 타인과 사회를 위해 기여해야 한다는 유학의 인성론, 뿐만 아니라 인간을 우주자연의 생태계 속에서 성찰했던 유학의 인성론은 현재의 사회적·시대적 문제상황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이상적으로는 ‘성인’을 지향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길인’과 ‘수사’를 양성할 가능성에 주목했던 서원의 인성교육, 개인의 성공과 발전만이 아니라 ‘화민역속’으로 표현된 좋은 공동체를 위한 기여에 초점을 맞추었던 서원의 인성교육은 교육의 본질이 왜곡되고 가치가 전도된 오늘날 학교 교육의 오류를 성찰하고 대안을 제시할 참신한 내용과 방향을 담고 있다.

6. 결론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 찌꺼기조차 그 청명함에 화하여 가을 하늘이 되는 듯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그 파란 하늘이 빛의 굴절에 의한 착시현상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것이 과학적으로는 참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면서 느꼈던 얇은 수준의 ‘天人合一’의 감정이 거짓이라 할 수 있을까?

公孫衍과 張儀는 엄청난 힘을 가진 자들이었다. 그들이 한번 노하면 세상의 모든 제후가 두려움에 떨었고, 그들이 조용히 지내면 온 천하의 전쟁도 멈추었다. 그래서 景春은 그들을 大丈夫라고 평했다. 하지만 孟子는 그들이 가는 길은 妾婦의 길이라고 했다. 첩부는 순종을 제1의 미덕으로 삼는다. 순종, 그것은 흐름을 거역하지 못하고 편승하는 것이다. 시대의 흐름이 옳은지 그른지 묻지 않는 것이 순종이다. 순종으로 얻은 힘은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저 첩부의 길일 뿐이다. 진정한 대장부는 자신이 추구하는 뚜렷한 신념이 있다. 그 신념의 크기는 세상을 판단한다. 세상이 자신의 신념에 부합할 때만 세상과 함께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아닌 신념을 선택한다. 그가 大丈夫다.

과학이 항상 참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과학에서 파생된 기술문명이 세상의 유일한 방향이 기만 한 것도 아니다. 그 어떤 것도 맹목적 순종은 있을 수 없다. 인류는 축의 시대를 거치면서 神話에서 벗어나 스스로 사유하는 삶을 살았다.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우리가 다시 神話 속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AI)의 출현 등을 보면서 그것을 가늠할 신념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또 다른 神話 속에 매몰될 것이다. 자신의 생각으로 세상을 가늠하고,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기보다 세상의 흐름을 비판할 수 있는 大丈夫의 浩然之氣. 서원의 인성교육은 그런 큰 사람을 길러내는 길 위에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1.b.3 교류와 유식

한국의 서원과 주변경관¹

조선시대의 서원과 주변경관에 대해 쓴 이 글은 1. 한국의 서원이 터를 잡은 곳, 2. 서원 터잡기와 건축에 반영된 유가 사상, 3. 서원이 자리한 곳의 주변경관과 현황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의 서원은 군현 소재지에서 벗어난 곳이면서 산수가 수려한 곳에 주로 자리를 잡았다. 뒤로는 나지막한 산이 있고, 앞으로는 내가 흐르거나 들판이 펼쳐진 곳이다. 서원은 산수가 빼어나 유가(儒家)가 강학(講學)과 장수(藏修)를 하기에 좋은 곳이면서, 봉향하고자 하는 선현(先賢)과 연고가 있는 곳에 많이 건립되었다.

서원 터잡기와 건축에 반영된 유가 사상은 천인합일사상(天人合一思想)이 가장 대표적이다. 인간과 우주의 도덕적 근본을 동일시하는 천인합일사상은 유가들이 체득하려고 한 최고목표이다. 천인합일사상은 도덕적 의지의 실천을 통해 주체와 객체,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지향한다. 이 사상은 서원(書院)과 누정(樓亭) 건축에 잘 나타나 있다. 서원이 주변 산수가 좋은 곳에 자리를 잡게 되는 데에는 유가들이 자연 속에 은둔하여 심신을 수양하며 천인합일 할 수 있는 곳을 찾았던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유가들은 서원에서 장수하며 유식하기 위한 공간으로 누(樓)를 짓거나 앞으로 트인 건축을 조영하였다.

서원이 자리한 곳의 주변경관과 현황은 소수서원·남계서원·옥산서원·도산서원·필암서원·도동서원·병산서원·무성서원·돈암서원에서 살펴보았다. 이들 서원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서원과 주변경관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한국의 서원은 시내에서 떨어진 산수가 수려하고, 앞으로 시내가 흐르거나 들판이 펼쳐진 곳에 조성되었다.
- 한국 서원의 주변경관은 조선시대 도학자들의 사상과 한국의 전통자연관을 반영한다.
- 한국의 서원이 들어선 장소는 유가들이 최고의 덕목으로 여긴 천인합일을 체득하는 경관, 풍수적 위요 공간으로 형성되었다.
- 조선시대 유가들은 서원 주변 자연경관을 이루는 나무·돌·물·산 등에 도학적 사고로 전환케 하는 이름을 붙여 사람들이 유가들의 세계관으로 자연과 조우하도록 하였다.

1. 이 글은 이상해: 『서원』(열화당, 2002), 강경환·이해준·김덕현·이왕가·김영범: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문화재청, 2011), 김덕현: 『서원 경관 답사자료: 무성·필암·남계 서원 문루 기문, 기타』(2011년 4월 16~17일, 유인물), 이상해: 「도산서당과 도산서원에 반영된 퇴계의 서원 건축관」(『퇴계학보』, 사단법인 퇴계학연구원, 110집, 10월호, 2001)을 바탕으로 하여 재정리한 것이다.

- 한국 서원의 주변경관은 서원이 들어서는 터, 앞이 낮고 뒤로 갈수록 높아지는 지형, 앞으로 산이나 들
판 혹은 냇물을 조망하는 산수 경관, 건물 주변의 간략한 식재, 서원 주변의 지물(地物), 지당의 조성 등
으로 형성되었다.
- 한국의 서원 주변은 산수가 빼어나 유가가 강학과 장수를 하기에 좋은 곳이다.
- 한국 서원건축에는 주변경관과 관계를 맺기 위한 수단으로 누(樓), 건물로 둘러싸인 안마당 등이 조성
되어 있고, 강당은 앞으로 트인 건축 형식을 하였다.

그런데,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유가들이 서원을 조영하면서 형성한 주변경관을 현재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고 있다. 훼손된 서원 주변경관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한국의 서원이 현재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져야 하고 원형에 대한 학술조사가 요구된다.

1. 한국의 서원이 터를 잡은 곳

조선시대에 풍기군수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이 1543년(중종 38년) 경상도 순흥에 세운 백운동서원을 효시로 삼는 한국의 서원은 군현 소재지에서 벗어난 곳이면서 산수가 수려한 곳에 주로 자리를 잡았다. 뒤로는 나지막한 산이 있고, 앞으로는 내가 흐르거나 들판이 펼쳐진 곳이다. 서원이 터를 잡은 이러한 곳은 관학(官學)인 향교가 읍치에 세워진 점에서, 불교 사찰이 깊은 산 속에 주로 터를 잡은 점에서 대비를 이룬다.

서원은 산수가 빼어나 유가(儒家)가 강학(講學)과 장수(藏修)를 하기에 좋은 곳이면서, 봉향하고자 하는 선현(先賢)과 연고가 있는 곳에 많이 건립되었다.² 이러한 연고지는 선현의 출생지거나 고향, 성장지, 은거하여 후학을 지도했던 곳, 관리로 있었던 곳, 유배지, 충절과 연관된 곳, 묘소가 있는 곳 등으로 구분된다. 산수가 빼어난 곳이란 서원이 들어설 합당한 ‘지리조건’을, 선현의 연고지란 서원이 그곳에 건립될 명분을 가진 ‘인문조건’을 갖추었음을 말한다.³

경상도 순흥은 주자학을 중국에서 고려사회에 도입한 안향(安珦, 1243~1306)의 고향이다. 주세붕은 그를 기리기 위한 백운동서원을 순흥에 세웠고, 백운동서원은 이황(李滉, 1501~1570)의 노력으로 1550년(명종 5) 소수서원으로 사액을 받았다. 소수서원 앞으로는 소백산 아래에서 발원한 죽계가 흐른다. 주세붕이 이곳에 서원 터를 잡고 서원 이름을 ‘백운동’이라고 한 것은 중국 송나라 때 주희가 재흥시킨 백록동서원이 있는 “여산(廬山)에 못지않게 구름이며, 산이며, 언덕이며, 강물이며, 그리고 하얀 구름이 항상 서원을 세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다.

2. 서원의 입지에 대해 이황은 “서원은 존경받을 만한 선현의 일정한 연고지여야 하고, 그와 동시에 사림들이 은거하여 수양하며 독서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이황의 서원 입지에 관한 생각은 이황이 백운동서원의 사액을 청한 “상심방백서(上沈方伯書)”에 잘 나타나 있다.

3. 서원이 건립되면 서원의 이름을 짓게 된다. 특히 사액서원의 경우, 왕은 사액하는 서원의 이름을 서원이 위치한 지역의 산이나, 강, 지형, 또는 지명에 따라 붙이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는 서원이 위치한 산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 도산서원·옥산서원·병산서원 등은 서원이 위치한 곳의 산 이름인 도산·병산·자옥산에서 각각 붙인 이름이다. 남계서원은 서원 앞으로 흐르는 개천 이름 남계에서 따온 것이다. 필암서원과 돈암서원은 서원 근처의 바위 이름 필암, 돈암에서 각각 가져왔다. ‘필암’은 필암서원이 창건된 마을인 기산리 동구에 마치 붓처럼 예리한 형상을 하며 서있는 붓바위이고, ‘돈암’은 돈암서원이 원래 있던 연산면 하임리 숲말 산기슭에 있는 큰 바위이다.

이황을 주향으로 모신 안동(예안) 도산서원 역시 이러한 조건을 갖추었다. 도산서원 영역의 남쪽 바로 아래는 이황이 도산서당을 짓고 독서하며 강학한 곳이다.⁴ 이황은 서당 건물을 짓고 난 다음 「도산잡영(陶山雜詠)」을 썼는데, 서당 주변의 경개와 그의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게 한다.⁵ 이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영지산(靈芝山)의 한 줄기가 동쪽으로 나와 도산(陶山)이 되었는데, 이 산은 그리 높거나 크지 않으며, 그 골짜기가 넓고 형세가 뛰어나고 치우침 없이 높이 솟아, 사방의 산봉우리와 계곡들이 모두 손잡고 절하면서 그 산을 사방으로 둘러 안은 것 같다. 도산 왼쪽에 있는 산을 동취병(東翠屏)이라 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서취병(西翠屏)이라 한다. 동병은 청량산(淸凉山)에서 나와 산 동쪽에 이르러서 벌려 섰고, 서병은 영지산에서 나와 서쪽에 이르러 봉우리들이 우뚝우뚝 솟았다. 두 병풍이 마주 바라보면서 남쪽으로 꾸불꾸불 팔, 구리쫘 내려가다가 동병은 서쪽으로 달리고, 서병은 동쪽으로 달려서 남쪽의 넓고 넓은 들판의 아득한 밖에서 합세했다. 산 뒤에 있는 물을 퇴계(退溪)라 하고 산 남쪽에 있는 것을 낙천(洛川)이라 한다. 퇴계는 산 북쪽을 돌아 낙천에 들어 산 동쪽으로 흐르고, 낙천은 동병에서 나와 서쪽으로 산기슭 아래에 이르러 넓어지고 물이 깊어졌다. 거기에는 조그마한 골이 있는데, 앞으로는 강과 들이 내다보이고, 깊숙하고 아늑하면서도 멀리 트였으며, 산기슭과 바위들은 선명하며 돌우물은 물맛이 달고 차서 이른바 비둔(肥遯)할 곳으로 적당했다.

이러한 산세(山勢), 수세(水勢), 야세(野勢)를 보아 합당한 위치를 택하여 이황은 도산서원의 모태가 되는 도산서당을 지은 것이다.

이외에도 함양 남계서원·경주 옥산서원·장성 필암서원·달성 도동서원·안동 병산서원·정읍 무성서원·논산 돈암서원 역시 주향으로 모신 선현과 연고가 있는 곳이며, 서원이 들어설 자연조건이 잘 구비된 곳이다.⁶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옥산서원은 서쪽을 향하도록 중요한 건물들을 배치하여 서원 앞으로 흐르는 계류를 건너 자옥산을 바라보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도동서원은 서원 앞으로 흐르는 낙동강을 바라보며 동북향을 하고 자리 잡음으로서 주변 자연 지세에 잘 어울리도록 하였다. 안동 병산서원은 서원 앞으로 흐르는 낙동강과 그 건너 병산을 바라보며 서원과 자연을 하나의 공간으로 엮어내었다. 논산에 있는 돈암서원은 동향을 하며 서원 앞으로 펼쳐진 넓은 들판을 내다보게 배치함으로서 자연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

4. 도산서당은 이황이 신일곱 살 되던 해에 도산 남쪽에 터를 잡아 짓기 시작하여 1561년에 낙성하였다.

5. 정순목: 『퇴계평전』 (지식산업사, 1989), 79~80쪽. 도산십이곡은 이황이 도산서당을 건립한 후 지었다. 이황은 자연에 은둔하며 “이런들 엇더하며 저런들 엇더하랴, 초야우생(愚生)이 이러타 엇더하랴, 하물며 천석고황(泉石膏肓)을 곳쳐 무슨하리.”라고 노래하며 인간 속세를 떠나 자연에 흠뻑 취해 사는 생활의 낙을 솔직 담백하게 표현해 놓았다.

6. 소수서원은 안향, 남계서원은 정여창의 고향에 세운 서원이며, 도동서원은 김굉필이 살던 곳에 세웠다. 이황의 도산서원, 김장생의 돈암서원, 김인후의 필암서원, 류성룡의 병산서원은 강학하던 곳 또는 서당이 모체가 되어 설립된 서원이다. 옥산서원은 이언적의 은거하며 학문했던 곳에, 무성서원은 신라말 최치원이 태산 고을에서 현감을 지내며 선정을 베풀었던 곳에 세운 태산사(泰山祠)를 모체로 하여 세웠다.

2. 서원 터잡기와 건축에 반영된 유가 사상

서원이 들어선 곳, 건물배치, 공간구성, 건축형식 등에는 유가들이 중요하게 여긴 사상이 크게 반영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서원의 입지와 공간구성은 유가 사상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유가들의 인간관과 자연관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 중의 하나는 천인합일사상(天人合一思想)이다. 유가들에게 천(天)은 자연 사물이 존재하게 되는 원리이자 종교적 근원으로 파악되어, 하늘의 섭리는 최선의 도덕이다. 이러한 세계관에 의해 천도(天道)는 하늘이 인간사회를 포함한 우주의 운행을 조절, 변화시키는 원리를 가리키고, 인도(人道)는 인간의 본성에 갖추어진 도리를 다 하는 것을 가리킨다. 천도는 인간을 통해 이해, 실현되는 존재로 규정한 유학에서는 하늘의 근본적인 덕성이 인간의 심성 속에 내재한다고 보고, 인간 도덕의 근원을 하늘에 둔다. 인간과 우주의 도덕적 근본을 동일시하는 관념이 바로 천인합일사상이며, 이의 체득은 유가들의 최고목표이다. 천인합일사상은 도덕적 의지의 실천을 통해 주체와 객체,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천인합일사상은 자연과 천명에 순응하려는 사상으로 집약된다. 도학(道學)의 하늘(天)은 가시적인 실체로서의 하늘이나, 모든 자연 현상을 내포하는 상징적인 개념 등의 물리적 의미에서부터 자연 법칙, 운명, 도덕의 근원이나 우주의 주재자 등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의미의 하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뜻을 담고 있다. 주희에 의해 집대성된 도학의 인식론은 하늘이 가지고 있는 원리와 만물의 원리가 궁극적으로 서로 다르지 않다는 전제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인간의 삶은 그 원리에 따르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 때문에 도학자들이 보는 자연은 ‘하늘의 원리(天理)’를 가지고 질서 지어진 것이었지만 그들이 언급하는 우주론은 단순한 우주의 생성 이론이 아니라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는 것이었으며, 그 속에 가치의 문제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었다.

도학자들에게 천인합일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깨달음(覺悟)을 통하여 감통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단계에 이를 때, 그것은 곧 정신적으로 최대의 자유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기도 하였다. 천인합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곧 자연과 인간은 둘이면서 하나가 되는 경지일 때 가능하다. 이것은 바로 도학이 추구하는 천인합일사상을 서로가 관계를 맺는 ‘유기적 사고 체계’라고 해석하는 관건이 되며,⁷ 인간이 만든 건축 역시 자연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혀주는 기본 사상체계가 된다.

인간을 하늘(天)과 합일적(合一的)으로 파악하려는 천인합일사상은 유교건축에서는 건축과 자연이 하나가 되게 하는 건축형식을 형성케 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조선시대 도학이 꽃을 피우면서 형성된 서원(書院)과 누정(樓亭)⁸ 건축에 잘 나타나 있다.

7. ‘유기적 사고 체계’라는 용어는 조셉 니덤(Needham, Joseph) 저, 이석호 번역: 『중국의 과학과 문명』(을유문화사, 1985)에서 인용한 것이다.

8. 누정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주변의 경관을 완상하며 즐기거나, 학문을 하며 사색하는 곳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누정은 누각과 정자루에 속하는 모든 건축물을 지칭한다. 누정건축에서 유가들이 학문과 강학도 하고 휴식도 취하기 위해 경관이 좋은 곳에 세운 것으로는 정자, 정사, 별서 등이 있다. 이러한 정자루에 속하는 건축에는 유가들의 세계관이나 자연관이 크게 반영되어 있다. 정자는 사대부 선비들의 휴식과 학문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조선 후기가 되면 여러 목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서의 역할도 크게 했다.

이외에도, 조선시대 사대부 선비들은 도학을 집대성한 주희가 중국 복건성 송안현 무이구곡을 경영하며 무이정사를 짓고 세상의 질곡에서 벗어나 자신의 학문을 발양하고 자연과 함께 한 삶을 이상으로 여기기 시작하고, 주희가 지향한 이상향을 실현하기 위해 점차 적극적으로 구곡을 경영하며 자연에 은거하는 정자(亭子)와 정사(精舍)⁹를 경영하였다. 이 글에서는 정자나 정사건축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고, 서원건축에 나타난 천일합일 사상에 대해서만 서원의 주변경관과 연관시켜 다루도록 한다.

도학자들은 자연 속에서 자연을 흠상하고 인격을 수양하기 위해 아름다운 산수가 있는 곳을 배움의 터전으로 삼았다. 도학자들은 산수를 매개로 하여 그들의 인격과 우주를 연결시킬 천일합일사상의 근간이 되는 천지, 자연의 조화와 질서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서원을 건축한 것이다.

서원이 주변 산수가 좋은 곳에 자리를 잡게 되는 데에는 유가들이 자연 속에 은둔하여 심신을 수양하며 천인합일 할 수 있는 곳을 찾았던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유가들에게 천인합일사상은 가장 중요한 유가적 정신 관념으로서 자연과 인간은 하나가 되어 우주의 생명 전체는 융화하고 교섭할 수 있는 최고 이상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자각적으로 천인합일의 경지에 이르는 것은 중요하였다. 이런 이유로 유가들은 골짜기가 있어 물이 흐르고, 산이 있어 풍월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연에 서원을 건립하여 학문을 연마하고 후학을 양성하였다.

유가들은 서원에서 장수하며 유식하기 위한 공간으로 누(樓)를 짓거나 앞으로 트인 건축을 조영하였다. 특히, 서원의 누는 주변 자연 속에 건물이 그대로 스며들게 하여 그 속에 자신을 투영해 세계를 관조하게 하는 공간을 만들었다. 이러한 건축은 건축물 자체를 밖에서 바라보는 감상의 대상이 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건물 안에서 밖을 내다보며 자연을 감상하며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뿐만 아니라, 도학자들은 주변 자연경관을 이루는 나무·돌·물·지형·산 등에도 도학적 사고로 전환해 하는 이름을 붙여 그 존재 가치를 부여해 사람들이 다양하게 자연과 조우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자연을 의인화, 인간화함으로써 세계 속에서 개체의 가치를 확인하며 천인동구(天人同構)하는 차원의 공간을 만들었다.¹⁰

9. 도학자들이 조영했던 정사의 건축공간은 간단한 방과 마루만으로 단출한 구성을 한다. 그러나 정사의 공간은 건축물만으로 한정되지 않고 건물 외부로 확대되어 자연을 건물 속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사의 공간이 단출한 구성을 하며 자연과 전체를 이루는 것은 ‘경건한 마음으로 이치를 구하는 것(居敬窮理)’, ‘사물의 이치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格物致知)’을 이상적으로 생각한 도학자들의 학문수양의 방법과 연관된다. 정사가 들어서는 곳은 궁극적으로 어떤 자연 속에서 학문을 닦고 인격을 수양할 것인가와 연관되며, 정사의 공간은 자연과 건축공간이 어떤 관계에 의해 만날 것인가와 밀접한 관계를 이룬다. 이와 같이 학문을 닦고 인격을 수양할 자연을 선택하고, 그 자연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정사를 조영한 도학자의 자연에 부여한 관념과 연관되는 천인합일사상을 반영한다. 정사에서 학문을 하며 문인들로부터 추앙을 받던 주인공이 사망하면, 그 정사는 훗날 문인들에 의해 강학과 제향 기능을 갖는 서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 도산서당이 이황 사후, 그의 제자들에 의해 서당 뒤에 도산서원을 조영하는 것이나. 이이가 은거하며 학문을 한 고산 석담구곡의 은병정사가 소현서원이 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10. 사대부 선비들은 사물의 근원을 알기 위해 산수를 관찰하였으며, 산수의 덕성을 따라 덕을 기르고, 그 이치를 깊이 체득하였다. 공자의 말처럼 지혜로운 자가 사랑하는 물을 즐긴다면, 하늘에 솔개가 날고 연못에 봉어가 뛰노는 우주 생명의 이치와, 빛과 그늘이 배회하는 묘리를 산수에서 터득하려고 한 것이다.

3. 서원이 자리한 곳의 주변경관과 현황

서원은 유가의 관점에서 보면 예(禮)를 실천하기 위해 형성된 건축으로 해석될 수 있다.¹¹ 서원은 강학(講學)과 장수(藏修)를 통해 유가들이 지향하는 예를 구현할 사림을 배출한 곳이다.

서원은 강학과 장수를 위해 시정에서 떨어져 시끄럽지 않은 곳에 자리를 잡았으며, 유생들이 기거하며 수학하는 건물들인 동재와 서재는 외부로는 등을 돌리고 서 있어 폐쇄적인 배치를 하였다. 하지만, 서원은 학문하는 긴장에서 벗어나 유식(遊息)하며 자연과 함께할 수 있도록 서원 영역 내부에서는 앞으로 시선이 열리도록 건축 공간 처리를 하였다.¹² 서원의 중심이 되는 강당이나 강당 앞 마당에서 멀리 안산이 보이도록 건물배치와 공간처리를 한 것이다.¹³ 서원이 자리 잡은 터는 유생들이 장수와 유식을 하는 건축공간을 조성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춘 곳이다.¹⁴

서원이 주변 풍광이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자연과 함께 하기에 가장 적합한 건축은 외부로 공간이 트인 누(樓) 형식의 건물이다. 누에서 선비들은 격렬한 논쟁도 하고 시회(詩會)도 열며 풍류를 즐겼다. 누는 선비들이 긴장된 학문의 길에서 벗어나 자연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고 심신을 고양하는 유식공간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누는 서원이 자연과 접하는 위치인 서원 진입부에 배치되었다. 서원에 따라서는 외문을 설치하지 않고 누를 세워 외문을 겸하도록 한 서원도 있고, 외문 안에 별도의 누 건물을 세운 서원도 있고, 누가 없는 서원도 있다. 남계서원의 풍영루, 도동서원의 수월루, 필암서원의 확연루, 무성서원의 현가루 등은 모두 외문 대신에 세운 누문이고, 옥산서원의 무변루, 병산서원의 만대루 등은 외문을 지난 다음 그 안에 세운 누다.

이렇게 세워진 건물들은 장대하거나 화려하지 않고 절제되고 단아한 모습으로 조영되어 도학적 세계관을 건물배치와 공간구성의 차원으로 응축시켜 승화시키고 있다. 서원과 주변경관의 관계를 소수서원·남계서원·옥산서원·도산서원·필암서원·도동서원·병산서원·돈암서원·무성서원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에 있는 소수서원(紹修書院)은 주향으로 모신 안향이 어린 시절 노닐며 공부를 하던 곳이다. 소수서원은 풍기 순흥면 동북쪽 영구봉(靈龜峰) 아래, 죽계수(竹溪水) 위에 있다. 소백산이 남쪽으로 뻗어 내려와 그윽하고 아늑한 곳에 있는데, 죽계수는 이곳을 거쳐 흐른다. 조징(趙澄)은 ‘소수’라는 이름을 얻은 연유를 이곳의 경관으로 찬양하며 “우뚝 한 소백산, 높이 우리를 만하고, 죽계의 물결, 맑

11. 유교 윤리규범에서 예(禮)는 중요하다. 예는 통치자가 국가를 경영하는 데 사상적인 기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사항까지를 언급하고 있다. 유교사회에서 건축은 예에 입각한 유교적 기능을 충족시켜야 한다. 특히 건축형제(建築形制)는 유교의 예제(禮制)가 지니는 중요한 내용의 일부여야 하고, 이에 따라 예의 요구에서 나온 예제건축(禮制建築)이 별도로 형성되었다. 예제건축이란 의례에 필요한 건축물, 또는 예부에 소속된 건축물을 뜻한다. 제사를 위해 설치한 교구(郊丘), 종묘(宗廟), 사직(社稷), 교화(敎化)를 위해 설치한 명당(明堂), 벽옹(辟雍), 학교

12. 장수, 유식은 『예기』「학기」편에 나오는 말이다. 이에 대해 정현(鄭玄, 127~200)은 “장(藏)은 마음 속에 품는 것을 말함이고, 수(修)는 익히는 것이다. 식(息)은 일삼다가 열심히 하다가 멈춰서 휴식하는 것을 말함이고, 유(遊)는 한가하게 일삼는 바 없이 노니는 것을 말한 것이다.”고 하였다. 공영달(孔穎達, 574~648)도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풀이하였다. 이들 해석에서 장수란 학문하는 과정에서 유생들이 마음을 집중해서 학문에 힘쓰며 수양을 하는 것을, 유식이란 학문하는 긴장에서 벗어나 정신과 마음을 풀어내는 것을 뜻하며, 모두 학문을 하는 올바른 자세를 설명한다.

13. 남계서원이 건립된 이후, 조선시대 서원의 건물 배치는 사당이 있는 제향공간이 서원 영역 가장 후면에, 제향공간 앞에 강학공간이 위치하는 형식으로 정착한다.

14. 서원을 구성하는 건축공간은 선현을 배향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제향공간, 유생들의 장수를 위한 강학공간, 유식을 위한 누문공간, 제향과 강학 기능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부속공간, 그리고 서원의 주변공간으로 구분된다.

고 아름다워라, 그름 깊고 골짜기 그윽한 곳, 찾으려 해도 자취가 없네, 맑은 바람, 솔솔 불어오는데, 선현의 향기 적막하니, 뒤따라 이어야 하리라, 우리 소자들이, 어찌 길이 사모하지 않으랴”는 사(辭)를 지어 표현하였다.¹⁵

주세붕은 『회헌선생실기(晦軒先生實記)』에서 “왼쪽으로는 죽계수가 휘감아 흐르고, 오른쪽으로는 소백산이 높이 솟아 구름과 산과 언덕과 물줄기가 실로 여산(廬山)에 못지 않다,” “구름이며, 산이며, 언덕이며, 강물 그리고 하얀 구름이 항상 골짜기에 가득하므로 감히 이곳을 이름하여 ‘백운동’이라 하였고 감회에 젖어 배회하다가 비로소 사당 건립의 뜻을 갖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 이곳은 이황이 이야기한 것처럼 마을이 그윽하고 깊숙하여 구름에 잠긴, 골짜기가 아늑한 곳이다. 유생들이 노닐고 강독하는 장소로 삼을 만한 곳이다.

서원 입구 계류를 낀 곳에는 주세붕이 세운 경렴정(景濂亭)이 있다. 물 건너 취한대(翠寒臺)를 마주 보는 곳이다. 경렴정은 주렴계(周濂溪)의 뜻을 경모(景慕)하기 위해 지은 이름이다.¹⁶ 경렴정 천장과 들보에 걸린 시판은 서원 주변경관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황은 “소백산 남쪽 옛날 순흥 고을, 죽계 찬 냇물 위에 흰 구름 떠다니네, 인재 기르고 도(道) 보위한 공 더 없이 우뚝하고, 사당 세워 현인 높인 일 일찍이 없었지, ..”라 하였고, 황섬은 “산은 맥을 이어 우뚝 솟아 있고, 물결은 끊임없이 흘러가네, 냇가에서 성인이 느낀 뜻, 이제 보니 경렴정에 있음을 알겠네.”라 하였다.

경렴정에서 동남쪽으로 죽계 건너에는 물가로 튀어나온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주세붕은 거기 ‘경(敬)’자를 음각하였다. 경은 송대 신유학에서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수양론의 핵심이 되는 화두이다. 주세붕은 ‘경’자를 음각하고, “오, 회헌 선생을 선사로 경모(景慕)하여 서원을 세우고 후학들에게 선사의 학리를 수계(受繼)하고자 하나, 세월이 흐르게 되면 건물이 허물어져 없어지더라도 ‘경’자만은 후세에 길이 전하여 회헌 선생을 선사로 경모하였음을 전하게 되리라”고 하였다. 주세붕이 백운동 석벽에 경자를 새겨 후에 사람들이 ‘경석(敬石)’으로 부르게 한 것은 원래 숙수사 터였던 이곳에 서원을 지어 불가(佛家)의 공간을 유가(儒家)의 공간으로 전환케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김철수가 경자석(敬字石) 시에서 “당시에 불교 숭상 실로 비통한 일, 유언비어 일으켜 세상을 속였는데, 경 자 한 글자 씬에 만고를 깨우치니, 푸른 하늘 밝은 태양 아래 돌은 의심할 것은 없네.”라고 노래한 것에서 알 수 있다. ‘경석’은 직방재의 ‘직방’, 경렴정의 ‘경렴’ 등과 함께 소수서원이 주희에 의해 집대성된 송대 신유학 정신을 함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황은 죽계 남쪽 물가에 우뚝 서 있는 바위 위를 평평하게 하여 대를 만들고 잣나무, 소나무, 대나무를 심고 취한대라 이름 짓고 시 한 수를 지었다. “냇가에 깎아지른 절벽 우뚝 서 있는 곳, 경관 찾다가 얻고 나서 다 같이 기뻐하였네, 가시덩굴 제거하고 푸른 벽을 열고, 평평한 대를 만들고 푸른 연기 감돌게 하였네, 늦은 봄 관동(冠童) 모여 시 읊기에 딱 좋고, 엄동설한에도 늘 푸른 송백 잊지 못하네, 이 몸은 노쇠하여 보잘 것 없는 몸인데, 그래도 대에 올라 훌륭한 이들 사이에 끼었네.”

이황은 이외에도, 서편 동편 죽계 건너편에 있는 절벽 위 평지의 대를 광풍대라 이름을 지었는데, 이는 이황이 서원 주변경관을 도학자가 추구한 경관으로 가꾸었음을 말해준다.

15. 조징(趙澄): 소수서원 기문 (영남문화연구원 편: 『소수서원지』, 소수서원, 2007), 71쪽.

16. 『열읍원우사적(列邑院宇事蹟)』2, 「경상도」편.

남계서원(蘆溪書院)은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에 있다. 서원 이름은 서원 곁의 시내 이름을 따서 ‘남계(蘆溪)’라는 이름으로 1566년(명종 21)에 사액되었다.

서원은 구릉을 등지고 남쪽으로 약간 틀어 앉은 서향을 하고 있는데, 지형은 뒤가 높고 앞이 낮다. 주변 형국을 보면 연화산(蓮花山)을 주산으로 하여 그 좌우로 뻗어 나온 산줄기가 에워싸고 있고, 서원 앞으로는 덕유산에서 발원한 남계천이 북에서 남으로 흘러가는 화림구곡(花林九曲)이 있는 곳이며, 그 앞 넓은 들판 너머로 안산인 백암산(白岩山)이 서원을 마주 보고 있다.

서원은 강당영역이 앞에 있고, 사당영역이 뒤에 있는 조선시대 서원 배치의 전형을 처음으로 보인다. 서원의 강학공간을 보면, 서원의 문루인 풍영루(風咏樓)가 가장 앞에 자리 하였고, 이 누문과 마주보는 곳에 강당인 명성당(明誠堂)이 있다.¹⁷ 강당과 누문 사이에는 동재인 양정재(養正齋)와 서재인 보인재(輔仁齋)가 마당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보고 있으며, 보인재 서남쪽에 묘정비각이 있다. 동재와 서재는 각각 두 칸 규모의 건물인데, 강당 쪽 각 한 칸은 온돌방이고, 풍영루 쪽의 나머지 한 칸은 각각 애련헌(愛蓮軒), 영매헌(咏梅軒)이라고 이름 붙인 누마루로 되어 있다. 누마루 아래 누문 쪽으로는 서원을 건립하면서 조성한 연당이 각각 하나씩 있다. 누마루인 애련헌과 영매헌에서 관상하기 위해 연당을 조성한 것이다. 서원에 주향으로 모신 정여창은 송나라 때의 도학자 주돈이(周敦頤, 1017~1073)의 『애련설(愛蓮說)』에 영향을 받아 매화와 연꽃을 사랑했다¹⁸고 한다. 누 이름을 애련헌, 영매헌으로 한 것과 연당 주변에 매화를 심고 연당 안에 연꽃을 심은 것은 이를 반영한다.

서원은 장수와 유식 공간이 어떻게 조성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창건 당시 남계서원은 사당과 강당은 장수 공간, 동서재의 애련헌과 영매헌은 유식 공간으로 조성되었음을 보여준다. 대지의 경사를 이용하여 동재와 서재를 조성하여, 지면이 높은 강당 쪽에는 온돌방인 실(室)을, 낮은 쪽에는 누마루 헌(軒)을 조성하여 외부 자연을 조망하도록 것이다. 시위를 뺄뺄하게 당기는 강당의 장수 공간에 대응하여 긴장에서 풀어나는 유식 공간을 동재와 서재의 헌으로 조성한 것이다. 동재와 서재는 서원의 장수와 유식 공간이 경계를 이루는 곳에 세워진 구조물로서 다른 서원에서는 그 사례를 보기 힘들다.

풍영루의 기문은 장수와 유식이 어떻게 서원건축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학문의 대체는 ‘안자가 누추한 거리에 살면서 어리석은 사람같이 보이는 것’으로 대표되는 거경, 집의와 ‘증점이 기수가에서 풍영하는 것’으로 대표되는 발서, 휴양으로 대별되나 배우는 자들은 어느 하나라도 폐해서 강론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거경, 집의는 장수와, 그리고 발서, 휴양은 유식과 대응한다. 거경, 집의의 공간은 서원의 강당에, 발서, 휴양의 공간은 풍영루에 구비되었음을 기문은 말하고 있다. 서원의 장수 공간인 강당 명성당의 왼쪽 협실은 거경재이고, 오른쪽 협실은 집의재이다. 유식 공간은 동재와 서재 남쪽으로 각각 마련한

17. 명성당은 정면 네 칸 규모의 건물로 중앙의 두 칸 마루와 양쪽 협실 각 한 칸으로 되어 있는데, 왼쪽 협실은 거경재(居敬齋), 오른쪽 협실은 집의재(集義齋)이다.

18. 『애련설』에서 염계는 “나는 유독 연(蓮)을 사랑하노니, 진흙에서 자라나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으니, 군자가 속세에 처신하여도 악에 물들지 않은 것과 같으며, 맑은 물결에 씻기어 요염하지 않으니, 그것은 품위있는 청결한 사람과 같다. 속은 비어서 통해 있고, 밖은 곧으니, 마음은 도리에 통하고 품행이 깨끗한 선비와 같다. 향기는 멀리 풍기고, 빛깔은 더욱 맑으니, 군자의 덕행이 멀리까지 영향함과 다르지 않다. 물 가운데 우뚝 조출히 섰으니, 가히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어도 가까이서 매만질 수는 없으니, 위엄이 군자와 같은 데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나는 연을 좋아한다”고 했다.

애련헌, 영매헌으로 마련되었다.

장수공간에 헌(軒)의 형식으로 나타난 남계서원의 유식공간은 1841년(헌종 7) 건립된 풍영루에서 그 지향하는 바가 더욱 공고하게 확보된다.¹⁹ 풍영루는 평지에 자리 잡아 낮은 산과 들이 평온하고 생기 있는 경관을 형성함을 풍영루 기문은 말하고 있다.

다락집의 제도가 매우 평결하지는 않지만 빛나고 날듯 함이 잠시 동안 다시 보게 되었다. 높이가 백자도 되지 못하나, 멀리 임해서 사방으로 바라보이는 경치가 들판이 평평하게 넓고, 냇물이 감돌아 얹히듯 했는데, 먼 숲은 푸르고 저녁노을이 아름답도다. 백암산의 두어 집이 저문 빛속에 들어 반쯤이나 숨었고, 석뢰계(石雷溪)의 한쪽은 아침 햇볕에 온전히 드러났도다. 대나무와 잣나무 우거진 앞마을에는 우는 새들이 봄을 재촉하고, 논에서는 늙은 농부가 가을 농사를 점치도다. 풍월(風月)이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구름과 아지랑이가 재주를 드리우는데, 한번 슬쩍 보아도 천 가지 기이함이 황홀하여 형상하기 어렵도다. 이 다락에 오르면 넓어지는 마음과 편안한 정신이 자연 속에 자맥질하여서 유연히 스스로 얻은 것이 있는 듯 뜻이 있도다. 두류산(頭流山)의 만첩 봉우리와 화림천(花林川) 아홉 구비의 흐름에서 거의 선생의 풍표(風標)를 보고 선생의 기상(氣象)을 우러러 볼 수 있음이니, 흡사 선생이 계신 자리에 뒹고 서서 증점(曾點)이 쟁그렁하고 비파를 밀쳐놓던 뜻이 있는 듯하여 풍영루라 이름 하였다.²⁰

옥산서원(玉山書院)은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있는 서원으로, 1573년(선조 6)에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1491~1553)의 덕행과 학문을 기리기 위해 건립되었다. 서원은 서향인데, 동·서·북쪽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남쪽은 트여 있다. 옥산리로 가다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자계천(紫溪川)을 끼고 올라가다 보면 동네 어귀가 열리는 곳에 서원이 자리하고 있다.²¹

옥산서원에서 자계천을 따라 북쪽으로 700미터쯤 떨어진 곳에는 독락당이 있다. 이 집은 이언적이 관직에서 물러나 낙향한 후 16세기 중엽에 옥산리에 지은 살림집이자 정사(精舍)다. 옥산서원의 주변경관의 특성은 이언적이 독락당을 지으면서 주변 산과 계곡에 ‘사산오대(四山五臺)’로 붙인 이름에 남아 있다.

이언적은 독락당 북쪽의 산은 도덕산(道德山), 남쪽으로 멀리 보이는 산은 무학산(舞鶴山), 동쪽의 산봉우리는 화개산(華蓋山), 서쪽 봉우리는 자옥산(紫玉山)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독락당의 동, 서, 남, 북쪽에 있는 4곳의 산에 이름을 지어 독락당이 유가의 세계관을 가진 산들로 에워싸이게 한 것이다. 옥산서원은 서쪽으로 마주 보이는 자옥산을 향하고 있다. 독락당과 마찬가지로 서원 뒤 동북쪽에는 화개산(華蓋山)이 있고, 북쪽에는 도덕산(道德山)이 자리하며, 남쪽으로는 무학산(舞鶴山)이 있다. 오대는 계정 아래 있는 관어대(觀魚臺), 맞은편의 영귀대(詠歸臺), 관어대 북쪽에 자리한 탁영대(濯纓臺), 더 북쪽에 있는 정심대(澄心臺), 그리고 옥산서원 앞의 세심대(洗心臺)를 말한다.

19. 남계서원의 풍영루는 1847년(헌종 13) 일어난 화재로 인해 1849년 중건되었다.

20. 남계서원 ‘風詠樓 記文’, 이해준·김덕현·이왕기: 「서원 보존·정비 관리방안 연구보고서」, 문화재청, 2010.

21. 옥산서원이 있는 자계천은 주희의 무이구곡과 다름없이 합치하는 바가 있어 이언적의 8대손인 이정엄(李鼎儼, 1755~1831)은 옥산구곡(玉山九曲)이라 이름 붙이기도 했다.(南廬遺稿, 玉山九曲歌, 玉山同行記). 옥산구곡의 제1곡은 송단(松壇), 제2곡은 용추(龍湫), 제3곡은 세심대(洗心臺), 제4곡은 공간(孔澗), 제5곡은 계정이 있는 관어대(觀魚臺), 제6곡은 계정 북쪽의 폭포, 제7곡은 정심대(澄心臺), 제8곡은 탁영대(濯纓臺), 제9곡은 사자암 앞 골짜기이다.

옥산서원은 화개산을 주산으로 앞으로 흐르는 깨끗하고 맑은 자계천과 주변의 울창한 수목이 빼어난 경관을 이룬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서원 앞으로 흐르는 자계천 계곡물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 용추(龍湫)라는 소(沼)를 이루며 상·중·하 폭포를 형성한다. 서원은 용추 일대의 너럭바위인 세심대와 마주 보는 곳에 있다. ‘세심대’는 용추에서 떨어지는 물로 마음을 씻고 자연을 벗 삼아 학문을 구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서원의 정문인 역락문(亦樂門)을 들어서면 무변루(無邊樓)가 위치한다. 무변루의 본래 이름은 납청루(納淸樓)였다.²² ‘납청’의 청(淸)은 기(氣)를 뜻하고, 기(氣)는 곧 양(陽)이다.

이 누에 오르면 기를 받아 양(陽)을 양생해서 도(道)를 맺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변루는 누 앞으로 펼쳐진 자연 풍광으로 인해 무한한 천리(天理)를 체득(體得)하는 장(場)이 될 만한 곳이라는 의미를 가졌다. 도학자들이 추구하는 천인합일의 경지를 갖게 하는 곳이다. 무변루 양 끝의 누마루에 서면 서원 쪽으로는 강당 앞마당이 처마 사이로 보이고, 서원 밖으로는 계곡과 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에 있는 도산서원(陶山書院)은 이황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제자들에 의하여 1574년(선조 7) 7월 본래 있던 도산서당 뒤편 언덕에 창건되어, 그 이듬해인 1575년 8월에 건물이 낙성됨과 함께 ‘도산(陶山)’이라는 사액을 받았다. 도산서당의 영건 경위는 이황이 1561년 11월에 쓴 「도산잡영(陶山雜詠)」에 적혀있다. 그 중에서 경관과 관련되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도산잡영」은 도산서당에서 부용봉에 이르기까지 7언 18절,²³ 몽천에서 교동에 이르기까지 5언 26절, 농암에서 병암에 이르는 5언 4절로 되었다. 7언 18절 가운데 도산서당 암서헌, 완락재에서 유정문, 정우당, 절우사에 이르는 공간은 기거하며 강학하던 곳을, 농운정사와 관련한 시습재는 학생들의 기거하던 곳을, 곡구암, 천연대, 천광운영대에서 탁영담, 반타석까지는 자연의 묘경을, 동취병산 등은 주변 형세를 읊은 내용이다. 5언 26절은 7언 18절에서 언급하지 않은 몽천, 열정 등 서당 주변 스물여섯 개의 경물을 서술하였고, 5언 4절은 천연대에서 바라보이는 농암, 분천, 하연, 병암 등을 읊은 것으로 이들은 도산서당의 차경(借景)이 된다.

이황은 서당의 동쪽으로 치우친 곳에 작고 네모난 못을 파고, 거기에 연(蓮)을 심어 정우당(淨友塘)이라고 했으며, 또 그 동쪽에 몽천(蒙泉)이란 샘을 만들었다. 1561년 3월에는 샘 위의 산기슭을 파서 암서헌과 마주 보게 평평한 단(壇)을 쌓아, 그 위에 매화·대나무·나무·국화를 심어 절우사라고 불렀다. 그는 또한 서당 앞을 출입하는 곳을 막아 싸리문을 만들고 유정문(幽貞門)이라고 이름하였다. 완락재에서 남쪽으로 난 방문을 열면 바로 보이는 문이다. 현재의 도산서원 입구 넓은 마당에는 우물 ‘열정(冽井)’이 있다. 지금의 돌우물은 1969년 도산서원 성역화 사업 때 고친 것이다.

열정 남쪽에는 원래 도산서당 입구인 곡구암으로 통하는 길이 있었다. 안동댐이 건설되기 전 도산서원에 가려면 안동에서 예안을 거쳐 지금은 수몰된 분천 마을을 지나 낙동강 서쪽 강변에 난 길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다가 서원 앞의 곡구암에 난 오솔길을 올라가야 했다. 곡구암 언덕을 오르면 눈앞에 전개되는 서원 주변

22. 옥산서원의 납청루는 훗날 노수신(盧守愼)이 주렴계(周廉溪)가 찬(贊)한 ‘풍월무변(風月無邊)’에서 뜻을 취해 ‘무변루’로 이름을 고쳤다(『玉山書院記』).

23. 7언 18절은 1. 도산서당, 2. 암서헌, 3. 완락재, 4. 유정문, 5. 정우당, 6. 절우사, 7. 농운정사, 8. 관란현, 9. 시습재, 10. 지숙료, 11. 곡구암, 12. 천연대, 13. 천광운영대, 14. 탁영담, 15. 반타석, 16. 동취병산, 17. 서취병산, 18. 부용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 경관은 극적이었다. 그런데, 1976년 준공된 안동댐으로 인하여 진입로가 수몰(水沒)되고 새 진입로가 나면서 옛 풍광은 사라졌다. 지금 도산서원으로 들어가는 주차장, 넓은 길, 주변의 축대는 1970년 도산서원을 대대적으로 정화하면서 새로 만든 것이다. 옛 진입공간의 아름다운 경관을 이황은 「도산잡영」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문 밖의 오솔길은 시내를 따라 내려가 마을 어귀에 이르면, 양쪽 산기슭이 마주 대하여 있다. 그 동쪽 기슭 옆에 바위를 부수고 터를 쌓으면 조그만 정자를 지을 만한데, 힘이 모자라서 만들지 못하고 다만 그 자리만 남겨 두었다. 마치 산문(山門)과 같아 이름을 곡구암(谷口巖)이라 하였다. 여기서 동으로 몇 걸음 나가면 산기슭이 끊어지고 탁영담(濯纓潭)에 이르는데 그 위에는 큰 돌이 마치 깎아 세운 듯 서서 여러 층으로 포개진 것이 10여 길은 될 것이다. 그 위를 쌓아 대(臺)를 만들고, 우거진 소나무는 해를 가리며, 위로 하늘과 밑으로 들에는 새와 고기가 날고 뛰며, 좌우 취병산의 물에 비친 그림자가 흔들거려, 강산의 훌륭한 경치를 한눈에 다 볼 수 있으니, 이름을 천연대(天淵臺)라 한다. 그 서쪽 기슭 역시 이것을 본떠서 대를 쌓고 이름을 천광운영(天光雲影)이라 하였으니, 그 훌륭한 경치는 천연대에 못지 않았다. 반타석(盤陀石)은 탁영담 가운데 있다. 그 모양이 반타(盤陀: 편편한 것)하여 배를 매어두고 술잔을 서로 전할 만하며, 큰 홍수를 만날 때면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이 빠지고 물결이 맑은 뒤에야 비로소 드러난다.

천운대로 불리는 천광운영대는 지금도 서원 밖 서편에 자리하고 있다. 강 쪽으로 돌출한 이곳에 서면 눈앞이 확 트이며 주변 풍광이 한눈에 들어온다. 천연대는 서당을 사이에 두고 천운대와 대청이 되게 동쪽에서 강으로 돌출한 언덕이다. 그 아래로 낙동강 물이 굽이 흐르던 경치가 빼어난 곳이었으나 지금은 그 풍광이 사라졌다. 이황은 1558년 3월 이곳에 창랑대(滄浪臺)를 쌓고 조경을 하는 일로 도산서당 조영을 시작하였으며, 나중에 이 창랑대라는 이름을 천연대로 바꾸었다. 이황이 조영한 도산서당은 암서헌, 절우사, 유정문을 거쳐 천연대로 이어지는 자연과 함께 하는 공간이었다.

도산서당은 세 칸인데(三間堂), 서쪽 한 칸은 골방이 딸린 부엌이고, 중앙의 방 한 칸은 완락재(玩樂齋), 동쪽의 대청 한 칸은 암서헌(巖棲軒)이다. 이 도산서당은 주변 산수와 하나가 되게 한 도학자 이황의 조영의지를 알게 한다.

이황은 완락재는 장수의 공간, 암서헌은 장수와 유식의 공간이 되도록 조영하여 서당 건물이 자연과 하나가 되도록 하였다. 유가가 지향하는 천인합일사상을 서당 건축에 반영되게 한 것이다. 그는 도산서당 앞과 왼쪽의 담을 완전히 막지 않고 끊어 쌓음으로써 반(半) 개방, 반 차단된 구조로 하였다. 암서헌 마루에서 앞을 내다볼 때 멀리 낙동강으로 펼쳐지는 전경이 시선에 들어오도록 해서 건축과 자연이 함께 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서당 대청 암서헌의 장수하는 공간이 유식하는 공간으로 전환되어 절우사, 천연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자연(自然)과 합일(合一)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임을 읽게 한다. 도산서

당에서 건축을 자연의 한 부분으로 만든 이황의 의도는 그의 사후에 지은 도산서원에 이어진다. 서원으로 출입하는 정문은 진도문이다. 진도문에 이르러 서원 앞을 내려다보면, 남쪽으로 낙동강 물줄기를 가둔 안동

호 일대로 시야가 넓게 펼쳐진다.²⁴

필암서원(筆巖書院)은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에 있다. 김인후(金麟厚, 1510~1560)의 도학을 추모하기 위해 1590년(선조 23) 장성읍에서 서쪽으로 십 리 떨어진 기산리(岐山里)의 기산 아래에 창건되었다가 1672년(현종 13) 현재 위치에 건립한 서원이다. 필암서원은 경사지가 아닌 평지에 세워진 서원인데도 누(樓) 아래로 출입하게 되어 있다. 이는 서원 자리를 이곳으로 옮기면서, 원래 경사지인 증산에 있던 누문 형식을 그대로 답습했을 가능성이 큼을 보여준다.

기산 주변경관은 필암서원의 창건 정신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1662년(현종 3) ‘필암(筆巖)’으로 사액을 받은 것은 필암서원이 창건된 곳에서 두어마장도 채 못 되는 곳에 있는 기산 동구(洞口)의 바위가 깎은 듯이 서 있는 것이 마치 붓처럼 예리한 형상을 하였기 때문이다.²⁵ 김인후가 출생한 맥동에는 그의 생가 유허와 그가 학문하며 제자 교육에 힘쓴 정사인 백화정(百花亭)이 있다.²⁶ 백화정은 김인후가 매년 인종의 기일(忌日)에 북망 통곡을 한 난산(卵山)을 향하고 있다. 난산 정상에는 망곡단과 난산비가 있다.

현재 서원의 누문 이름을 ‘확연루’라고 한 것은 정자(程子)의 말에 “군자의 학(學)은 확연(廓然)하여 크게 공정하고, 사물이 다가오면 의리에 맞게 순응한다.”고 하였는데, 하서 선생은 가슴이 맑고 깨끗하여 확연(廓然)히 크게 공정하므로 이에 송시열이 특별히 ‘확연’이란 두 글자를 발휘(發揮)하였다고 한다.²⁷ 사람의 마음이 담박하여 텅 비고 밝아서 사사로운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저울대처럼 평평하여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확연’이라는 명칭에 어울리듯 문루인 확연루 이층은 외부 쪽으로 판문을 달아 시선을 차단하고 있는 반면, 서원 경내인 강당 쪽으로는 트여 있다. 안과 밖을 향한 공간에 균형을 취하도록 배려한 건축 수법을 보인다. 확연루에서 바깥쪽으로 난 판문을 열면 서원 앞으로 넓게 펼쳐진 들판이 한 눈에 들어온다.

도동서원(道東書院)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에 있다. 김굉필(金宏弼, 1454~1504)의 도학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서원이다. 서원은 현풍에서 구지면사무소를 지나 낙동강을 오른편에 끼고 약 사킬로미터쯤 가면 닿는 곳에, 낙동강을 향하여 돌출한 작은 구릉 위에 동북향을 하여 자리 잡고 있다. 서원 앞으로는 수심이 깊은 낙동강이 흐르고 있고, 뒤로는 대니산(戴尼山)이 솟아 있다. 서원 앞에는 수령이 오래 된 은행나무가 있고, 그 뒤로 비교적 경사가 급한 지형을 따라 자연 지세에 어우러지며 서원이 조성되어 있다.

서원은 문루, 강당, 사당을 잇는 중심축에 중요 건물들을 배치했는데, 전체적인 건축구성과 배치형식이 서원건축으로서 가장 규범적이고 전형적이며, 건축물들의 건축적 완성도와 공간구성도 우수하다. 이러한 공간구성을 한 서원의 강당인 중정당(中正堂)에서 앞으로 바라보면 서원 정문인 환주문(喚主門)과 그 너머 수

24. 도산서원에서 마주 보이는 호수에 위치한 시사단(試士壇)은 정조가 이황의 학문을 기려 1792년(정조 16) 3월 낙동강변 도산서원에서 별과를 보게 했는데, 이 과거를 보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 1796년 채제공(蔡濟恭)이 지은 글을 비에 새겨 세운 장소다. 원래 도산서원과 마주 보이는 강변에 있었는데, 안동댐 건설로 이 장소가 수몰되어 원위치에 돌출대를 쌓아 올려 지었다.

25.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 1836~1905)이 1872년(고종 9)에 쓴 필암서원 묘정비문에 의함

26. 현재의 백화정은 625전쟁 때 소실된 것을 1961년 다시 지은 것이다.

27. 1760년(영조 36)에 초전(苕泉) 김시찬(金時燾)이 쓴 「확연루기」에 의함.

월루(水月樓)가 중심축 선상에 서 있고 그 너머로 서원 전경이 다가온다. 서원 주변경관은 문루인 수월루(水月樓)는 공부하던 유생들이 자연을 바라보며 답답한 마음을 후련하게 풀던[消暢] 곳이다.²⁸ 서원의 유식 공간에 속한다. 수월루 이층 누마루에 오르면 더욱더 극적으로 한눈에 들어온다. 누의 이름을 ‘수월루’라고 한 것도 “삼가 천년을 전해 온 군자의 마음, 가을 달 찬물 위에 비추네(恭惟千載心, 秋月照寒水)”, “가을 달 찬물에 비추는 군자의 마음(秋月照寒水)”을 느끼는 경관을 접하는 곳임을 나타낸다.

도동서원의 주변경관에는 서원에서 서남쪽으로 7킬로미터 정도 떨어졌으나 김굉필이 정여창과 거닌 낙동강변에 세운 제일강산이로정(第一江山二老亭) 일대도 포함된다. 고령평야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절경에 위치한 정자인데, ‘이로(二老)’란 김굉필과 정여창을 가리킨다. 이 일대의 경관은 서원의 사당 내부 양 측면 중앙칸 벽체 상부에 그린 벽화와도 관계가 있다. 왼편인 북벽에 그린 ‘설로장송(雪路長松)’, 오른편인 남벽의 ‘강심월일주(江心月一舟)’ 벽화는 김굉필이 남긴 시(遺詩)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 일대의 경관과 무관하지 않다.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에 있는 병산서원(屏山書院)은 서애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을 모신 서원이다. 서원은 화산을 주산으로 하여 그 산자락에 남향을 하며 자리잡았다. 서원 앞으로는 낙동강 물이 흐르고 강 건너에는 병풍처럼 펼쳐진 병산이 있다. 병산은 산의 형상을 따라 붙인 이름이다. 서원에서 앞을 바라보면 강변에는 넓은 모래사장이 펼쳐지며 그 옆 언덕에는 노송들이 꿈틀거리며 서 있고, 강물 속에는 병산이 깊게 그림자를 띄우고 있다. 병산서원은 바로 이러한 강물과 병산을 마주 보는 산자락에 자리잡고 있다.

서원의 정문을 들어서면 정면 일곱 칸 규모의 만대루(晩對樓)가 가로로 길게 서있다. 만대루 이름은 두보(杜甫)의 시 ‘푸른 절벽은 해질녘에 마주하니 좋고(翠屏宜晚對)’와 주희의 시 ‘만대봉 저녁놀은 푸르고 높아 차가운 하늘과 가지런한데, 푸른 절벽을 선명하게 비추네(蒼峭矗寒空, 落日明影翠)’에서 취한 것이라고 한다. 서원 앞으로 펼쳐진 생기 충만한 병산의 푸른 산색(山色)을 마주하며 도학자가 천인합일하기 위해 생의(生意)를 체득할 경관임을 알게 하는 곳이다.

만대루는 유생들이 유식도 하고, 풍광을 보며 시회(詩會)를 가졌던 곳이다. 이 누 건물의 위층 다락에 오르면 한쪽으로는 병산과 낙동강을 낀 자연이 펼쳐지는 주변 풍광을 다 끌어안을 수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서원 일곽을 한눈에 살필 수 있다. 서원의 자리로 번잡한 거리의 우마(牛馬) 소리와 멀리하여 뛰어난 경치를 지닌 곳을 택하는 까닭은 영기(靈氣)를 지니고 있는 곳이어야 걸출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데, 만대루 누마루에 서면 그것이 뜻하는 바를 알 수 있다.

만대루와 복레문 사이에 조성된 공간 서쪽으로는 물길을 끌어 만든 작은 연당 광영지(光影池)가 있는데, 방형의 연당 속에는 원형의 작은 섬이 조성되어 있다. 이 방지원도(方池圓島)의 주변에는 봄부터 붉게 피는 배롱나무와 사철 청청한 대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28. 수월루는 1888년(고종 25)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1973년 중건되었다. 수월루의 건축적 품격은 서원 내 다른 건물들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편이지만, 난간을 두른 이층 누마루에 오르면 서원 주변의 경관이 한눈에 들어오는 공간을 형성한다.

강당인 입교당(立敎堂) 대청 한가운데에 앉아 만대루가 들어선 앞쪽을 바라보면, 서원 일대의 경관이 또 다른 모습으로 얹혀 들어온다. 만대루 이층 일곱 칸 기둥 사이로 강물과 병산과 하늘이 일곱 폭 병풍이 되어 얹히며 펼쳐지는 풍경은 한 폭의 그림이다. 그것은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닌 극적인 공간 분위기를 만들어 바로 나 자신이 자연 가운데에 묻혀 있는 느낌을 갖게 한다. 병산서원은 서원의 주변경관을 건축과 하나가 되도록 한 대표적인 서원에 속한다.

무성서원(武城書院)은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500에 있는 서원으로, 고려시대에 최치원(崔致遠, 857~?)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한 태산사(泰山祠)에 기원을 두고 있다. 무성서원은 마을에 세워진 서원에 속한다. 서원 앞으로 개울물이 흐르고 뒤로는 낮은 구릉을 등진 곳이다.

유가들에게 예(禮)와 악(樂)은 잠시도 몸에서 떼어서는 안 된다. 예악이 질서를 잃게 되면 모든 일이 전도되고 만다. 집이 열 채밖에 안 되는 작은 동네라도 예와 악으로 교화하면 서로 음양(揖讓)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것은 교도하여 선(善)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도다. 『논어(論語)』의 자유(子游) 문치고사(文治故事)를 인용하여 ‘무성’으로 사액한 것도 이와 연관된다. 노(魯)나라의 고을인 ‘무성’은 공자의 제자인 제자인 자유(子游)가 읍재(邑宰)로 있던 곳이다. 공자가 무성에 가서 예악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빙그레 웃으며, “닭을 자르는데 어찌 소 잡는 큰 칼을 쓰는가(割雞焉用牛刀)”라고 말하자, 이에 자유가 “군자가 도를 배우면 백성들을 사랑하고, 소인이 도를 배우면 부리기 쉽다”고 한 공자의 가르침을 들었다고 답한다. 그러자 공자가 “애들아 자유의 말이 옳다. 아까 한 말은 농담이었다.”고 하였다는 고사다. 자유 같은 능력 있는 자가 무성 같은 작은 고을을 다스리는 것을 개탄하여 공자는 “닭을 자르는데 어찌 소 잡는 큰 칼을 쓰느냐”고 했는데, 자유는 이에 대하여 예악을 왜 쓰느냐는 뜻으로 오해하고 공자에게 답했던 것이다. 이에 공자는 아까 내가 한 말은 농담이라고 받아넘겼다. 공자는 자유의 고지식함을 탓하지 않고, 예악의 덕치(德治)를 그대로 계속하기를 바라면서 농담이었다고 말한 고사다.

현가루(絃歌樓)는 서원의 입구인 누문이다. 이층 누에서 밖을 바라보면, 서원 서남쪽 밖으로 홍살문이 있고, 그 건너에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으며, 그 너머에 안산이 옆으로 길게 펼쳐져 있다. ‘현가루’라고 이름한 것은 『논어』 「양화」편에 나오는 “공자께서 무성에 가셔서 현악에 맞추어 부르는 노랫소리를 들으셨다(子之武城聞絃歌之聲)”, “예악을 울리는 것은 백성을 교화하는 것(絃歌禮樂教化之衆也)”의 구절과 뜻을 취한 것이다.

돈암서원(遯巖書院)은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임리에 있다. 1634년(인조 12)에 사계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고, 그의 학문을 잇기 위해 세운 서원이다. 원래 연산면 하임리에 창건되었던 것을 1880년(고종 17년) 이곳으로 이관하였다. 서원이 원래 있던 연산면 하임리 숲말 산기슭에는 큰 바위가 있어 ‘돈암(遯巖)’이라 불렀는데, 이 지명을 따라 ‘돈암’으로 사액을 받았다.

김장생은 1602년(선조 35) 연산으로 내려와 양성당(養性堂)을 세워 학문연구와 후진양성에 힘을 기울였다고 한다. 양성당은 김장생을 따르고 그에게 배우고자 하는 유생들이 모여 강학하던 서재로서, 이러한 분위기는 후대에 사계학파로 계승 발전되어 돈암서원 창건을 주도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쳤다. 「양성당기(養性堂記)」에 의하면, 김장생은 돈암에 아한정(雅閑亭)을 짓고 시를 읊었으며, 임진왜란으로 정자가 불타 버리자

다시 양성당을 지어 옛 시들을 걸어 놓고 시인들과 화답을 하며 감상했다고 한다. 따라서 아한정과 양성당은 돈암서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다. 창건 당시 강당 이름은 양성당이였다. 「양성당기」는 서원 주변의 경관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양성당 뒤쪽에 작은 산이 있고, 그 산 아래 송죽을 심었으며 앞에는 울창한 숲이 있는데 숲밖에 맑은 시내가 흘러 흰모래가 빛나며 배를 띄울 만큼 깊기도 하다. 뒤쪽 바위 사이에 물이 흘러내리는데 이를 끌어와 아래 위로 못을 만들고 붉고 흰 연꽃을 심었으며 또한 복숭아와 버드나무 심은 혜정(蹊汀)이 있고 떼를 덮은 제방이 수백 보 길이로 있는데 대추·감·밤·뽕나무들이 좌우로 돌아가며 서 있다.

서원은 동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펼쳐진 일대의 들판을 내다보고 있다. 현재의 돈암서원은 평지에 세워 지는 서원건축에서 볼 수 있는 건축공간의 미학을 잘 보여준다. 다른 많은 서원과 마찬가지로 돈암서원의 사당도 서원 경내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잡고 있고, 외삼문 - 강당 - 내삼문 - 사당은 중심축을 형성한다. 사당에서 들어열개문을 열고 앞을 바라보면, 내삼문을 지나 양성당 지붕을 건너 멀리 앞으로 펼쳐지는 산야의 전경이 장관을 이룬다. 사당 제향공간 일곽, 내삼문과 강당 사이의 공간, 강당 앞마당, 그리고 외삼문을 지나 멀리 들판 너머 옆으로 길게 펼쳐지는 안산(案山)에 이르기까지, 중첩되며 계속 이어지는 외부공간은 우리나라 서원건축이 엮어내는 건축공간 구성기법의 백미에 속한다.

이상 살펴본 한국의 서원과 주변경관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다.

- 한국의 서원은 시내에서 떨어진 산수가 수려하고, 앞으로 시내가 흐르거나 들판이 펼쳐진 곳에 조성되었다.
- 한국 서원의 주변경관은 조선시대 도학자들의 사상과 한국의 전통자연관을 반영한다.
- 한국의 서원이 들어선 장소는 유가들이 최고의 덕목으로 여긴 천인합일을 체득하는 경관, 풍수적 위요 공간으로 형성되었다.
- 조선시대 유가들은 서원 주변 자연경관을 이루는 나무·돌·물·지형·산 등에 도학적 사고로 전환케 하는 이름을 붙여 사람들이 유가들의 세계관으로 자연과 조우하도록 하였다.
- 한국 서원의 주변경관은 서원이 들어서는 터, 앞이 낮고 뒤로 갈수록 높아지는 지형, 앞으로 산이나 들판 혹은 냇물을 조망되는 산수 경관, 건물 주변의 간략한 식재, 서원 주변의 지물(地物), 지당(池塘)의 조성 등으로 형성되었다.
- 한국의 서원 주변은 산수가 빼어나 유가가 강학과 장수를 하기에 좋은 곳이다.
- 한국 서원건축에는 주변경관과 관계를 맺기 위한 수단으로 누(樓), 건물로 둘러싸인 안마당 등이 조성되어 있고, 강당은 앞으로 트인 건축 형식을 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유가들이 서원을 조영하면서 형성한 주변경관을 현재 제대로 온전하게 보존하지 못하고 있다. 훼손된 서원 주변경관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한국의 서원이 현재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져야 하고 원형에 대한 학술조사가 요구된다. 서원 주변의 정비 사업이란 명목으로 새로 들어선 건물, 시설, 조형물, 조경은 ‘서원 주변경관’의 보존과 관리가 아닌 훼손이나 변형으로 나타난 것이 적지 않다.

소수서원에는 충효교육관 등이 들어섰고,²⁹ 남계서원 주변은 정비를 위해 주변의 건물들이 현재 모두 철거되었다. 옥산서원 입구에는 유물전시관이 들어섰고, 도산서원은 안동댐 건설로 주변의 원래 입지조건이 크게 상실되었다. 필암서원은 주변에 크게 세운 유물전시관, 교육관으로 인해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도동서원 역시 서원 앞을 지나는 도로의 확장, 주변에 난립한 건물들로 경관이 훼손되었다. 병산서원은 서원 앞으로 흐르는 낙동강변의 백사장이 사라질 위험에 있고, 서원 앞과 주변의 환경이 개선을 요한다. 돈암서원은 최근에 서원 앞으로 누와 담장을 새로 조성하면서 서원의 진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한다. 무성서원은 현재 주변 건물을 철거하고 정비할 계획에 있다.

- 1) 서원 주변경관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되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 서원 건립의 목적에 맞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 2) 서원 주변경관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경관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 3) 서원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원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고, 주변경관의 보전·관리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4) 서원 주변의 주민은 경관지침의 기본원칙을 따르고 경관 보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5) 서원 주변에 개발행위를 할 때는 서원과 주변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세계유산목록 등재 제도는 세계의 모든 인류가 주권과 소유권을 초월하여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을 공동으로 보존하고 관리해서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기 위해 유네스코에서 만들었다.

인류가 남긴 공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하게 넘겨주기 위해 진정성과 완전성을 보존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임무다.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이 조선 중기를 거치면서 중국에서 받아들인 성리학을 점차 조선의 것으로 만들며 피운 꽃이다. 서원의 주변경관은 유교문화경관을 형성하는 원천이다. 우리는 조선시대의 서원과 주변경관을 조선시대 유교문화와 전통의 살아있는 증거물로 보존(보전), 관리해야 한다.

29. 이외에도 소수서원 주변에는 선비촌, 소수박물관, 선비문화수련원 등이 들어서 있다.

조선시대 지방정치와 문화의 핵심 기지로서의 서원

조선시대에 존재했던 서원이라는 지역 유교교육기관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장소와 관련된 역사는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한국의 다양한 주요 사건 및 활동들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밖에서는 그 중요성이 대부분 무시되고 있다. 이 논문은 서양 문학에서 전반적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역학, 즉, 한 편으로는 인상적인 지적·문화적 발전을 가져왔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19세기 학원 시스템을 거의 사라지게 만들었던 서원이 보여준 권력의 중심에 대한 도전을 밝히기 위한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주제들은 ‘근대성’, ‘전근대성’, ‘진보’, ‘속국으로서의 한국’ 등 서양 역사문헌의 익숙한 거대담론들과 어울리기 힘들기 때문에, 조선시대 중·후기에 대한 역사문헌의 새로운 공간을 새기기 위한 시도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지방과 서원 시설을 갖춘 수도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은 사립학교와 지역의 사당, 그리고 국가의 인정을 받은 도덕성 함양 장소라는 혼성적 특성을 갖춘 서원의 설립 초기부터 예측된 것이었다. 즉, 서원이 가진 역사의 대부분은 처음부터 서원이 가지고 있던 복합적인 특성 안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었다. 한편, 주세붕(1495~1554년)과 이황(1501~1570년)의 개인적인 역사와 활동들은 초기 서원이 한국 사회 안에서 독특한 입지를 갖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즉, 초기의 서원은 한 때 국가에 의해 인정 받는 지성과 도덕성을 갖춘 특별한 장소였을 뿐 아니라, 대개 권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밖에 존재하는 학문 기관이었다. 1550년 풍기의 소수서원을 위해 개발된 사액(royal charter) 제도는 서원에 대한 명예가 널리 추구되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는데, 사액을 받은 학문 기관은 명성뿐 아니라 강력한 자율성 또한 확보하였다. 하지만 1570년까지 수많은 사액을 내려지면서 이미 조정의 일각에서는 불안을 감지하기 시작하였고, 1576년 선조(1567~1608년)는 이름난 철학자 조 식(1501~1572년)과 유명한 정치 개혁가 조광조(1482~1519년)에 대한 사액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선조가 그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대개 신유교에 대한 신봉자들과 특히 서원에 대한 사액을 청원하는 자들의 동기에 대한 의심과 관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도에 서원이 없었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그 이유는 대개 당시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던 농촌적 특성 때문이기도 했고, 자신의 학교와 사당을 사회적 혼돈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조용한 곳에 두고자 했던 지식인들의 어찌 보면 당연한 바램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적 규모의 서원을 건축해야 하는 정당성, 또는 퇴계 이황이 언급하였듯, 서원이 ‘모든 국민들이 배울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할’ 정당성은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왕실과의 지리적 인접성은 권력 집단을 위해 서원에 명예를 부여하는데 있어 유리하다는 사실이 쉽게 입증되었을 것이다. 광해군(1608~1623년) 시절, 서울 근교에 복인파를 지지하던 철학자가 된 조식을 기리는 서원을 설립하고자 했던 시도는 왕에 의해 반대되었고, 사액은 거부되었다. 그러한 결정은 선례를 남겼고, 최소한 후대 왕들 중에는 수도 안에 서원의 설립을 허용한 왕이 없었으며, 그러한 시도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마저도 분명치 않다. 서울로부터 그러한 의식적 거리를 허용한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몇 가지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첫째, 조선 전역에 위치하고 있던 수백 개의 서원들은 도덕적, 교육적 자율성을 부여 받게 된다. 소수의 서원들이라도 수도 내부 또는 근교에 건축되었다면, 지식인들 사이에는 당연히 자신이 선호하는 서원에 명예를 부여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을 것이다. 그 결과 발생하는 상황은 누구나 상상할 수 있듯 서원의 존엄성뿐 아니라 전반적인 서원 제도의 자율성에 해로움만을 가했을 것이며, 그 결과

서원이 생존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했을 수도 있다.

두 번째 결과는 서원이 서원에 모셔진 선현과 강력한 지리적 연계성을 가진 장소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서원의 생존과 공식적인 억압기간, 그리고 심지어 파괴까지도 허용하는 강력한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장소에 대한 연계성과 혈통 및 지역 사회의 깊은 뿌리가 없었다면, 서원은 서원이 가진 정체성이나 도덕적 힘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세 번째 결과는 서원이 종종 중앙 정부의 용이한 감시에서 벗어나 정치적 행동을 조직할 수 있는 농촌 네트워크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서원은 정치 기관은 아니지만, 일관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양반들로 구성된 지역 사회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색채를 띠는 것도 가능했을 것이다. 17세기와 18세기 전반에 걸쳐 서원을 제한하고 통제하게 만든 것은 바로 그러한 성향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다양한 서원의 열망과 중앙 정부간에 발생한 갈등은 17세기 들어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1625년 경상도 지사 원탁이 유명한 도산서원의 원장 이유도를 구타한 사건이나 원탁의 후임 도지사인 임탐(1596~1652년)과 소필원(1614~1671년)이 서원을 비난하며, 전반적으로 서원에 대한 소리 없는 적대라는 새로운 분위기를 가져온 사건이 이 시기에 발생하였다.

하지만 17세기 후반 현종(1659~1674년)과 숙종(1674~1720년) 시대에는 전반적으로 서원을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우세해 지면서 다수의 칙허가 내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18세기까지 서로 적대적인 정치적 파벌들간의 긴장된 대결의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영조와 정조는 서원에 대한 국가적 후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새로운 사액을 요구하는 탄원을 매년 거부하였다. 그러한 현상은 특히 1728년 서원을 포함하여 지역의 양반 조직들을 통해 조직된 것으로 보이는 이 인좌의 난 이후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이후 대원군이 대다수의 서원을 대량 훼손시킨 사건은 17세기와 18세기에 시작된 그러한 동향이 극단적 이지만 논리적인 연장선 상에서 나타난 것이다. 1868년과 1871년의 서원 훼손이 더 끔찍했던 것은 그 엄청난 규모 때문이었다. 1868년에는 사액을 받지 못한 전국의 모든 서원과 사당들이 파괴되었는데, 경상도에서만 훼손된 서원과 사당의 수가 639개에 이르렀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그 수가 1,000 곳을 훌쩍 넘었다. 더욱 충격적인 1871년의 마지막 훼손 사건 당시에는, 47곳을 제외한 모든 서원과 사당들, 심지어 사액을 받은 서원들까지도 대부분 파괴되었다.

대원군이 그러한 규모의 대담한 행동을 했던 배경에는 농촌과 도시, 그리고 지방과 수도권 간 균형의 엄청난 변화가 존재하고 있었다. 17세기에는 정인홍, 송준길, 송시열과 같은 도의 산림들이 왕에게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권력의 중심지로 소집되었던 반면, 19세기까지 농촌의 지식인들은 소외되었고, 가장 재능 있는 사람들조차도 수도를 본거지로 한 권력 있는 소수 가문들에 의해 지배되던 시절의 복잡하고 변화무쌍하던 국가 정치 안에 자리를 잡고 설 장소가 없었다. 지방이 서울의 영향력 안에 복속되면서, 당시 존경을 받을만하다고 여겨지던 성인들조차도 멀리 있는 도시 귀족들의 달갑지 않은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서원 당호 현판의 교학적 의미

1. 서원 당호의 의미

서원은 유교의 교육기관이다. 동시에 서원은 유교의 발전에 기여한 선현을 제향하는 기구이므로 종교적 시설이기도 하다. 서원의 건축과 경관은 교육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유교가 지향하는 세계관을 실현하기 위한 종교적 상징체(象徵體)의 역할을 한다. 기독교의 교회나 불교의 사찰이 건축 조각 회화 등 화려하고 장엄한 다양한 상징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널리 알려져 있다. 유서 깊은 상징체를 가진 종교적 시설은 신자들의 신심을 돈독하게 할뿐 아니라, 인류 문화유산으로 주요한 문화관광 자원이 된다. 일반적으로 유교는 기독교나 불교 서원에서 볼 수 있는 탁월한 시각적 상징체가 없다. 유교는 내세관이 없기 때문에 천상세계 혹은 사후세계를 상징화하지 않고 그 교화 내용도 현세적이다. 그러나 유교 역시 특정한 세계관으로 인류를 인도하려는 종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교적 세계관을 상징하는 건축·회화·언어 등의 상징체를 가진다. 다만 상징체의 표현 방식이 다르다. 발제자는 유교적 상징체의 특성은 언어적 기호경관이라고 생각한다. 서원의 당호(堂號)가 언어적 기호경관을 대표한다.

중세 유럽의 교회는 가장 높고 아름다운 건물이며 또 도시 중심에 위치했다. 이처럼 종교건축은 상징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위 환경과 확연하게 분리되는 탁월성을 추구한다. 높고 웅장하며 화려한 것이 천상세계를 지향하는 종교건축의 일반적 특성이 된다. 유교의 대표적 종교건축인 서원과 향교 건축은 반대로 주위 자연 환경과 조화를 추구하고 시각적 탁월성이 적다. 그렇다면 서원은 무엇을 통해서 그들의 세계관을 표현하는가? 상징체의 기본은 기호이다. 기호는 외적 형태인 기표(記標)와 내적 의미인 기의(記意)로 구성된다. 불교나 기독교 건축이 기호의 기표적 측면, 즉 형태적 시각적 탁월성을 강조한다. 유교 건축인 서원은 형태적 탁월성이 약하고 상징성은 기의적 측면, 즉 내적 의미 체계에 집중되어 있다. 당호 현판과 같은 개념어를 통해 의미를 전한다..

『논어』의 첫 구절이 “배우고 때때로 익히는 즐거움”으로 시작된다. 유교는 학습을 강조하는 사상이다. 기독교가 신에 대한 절대적 믿음, 불교가 무상한 현상세계에 대한 깨달음에 비중을 두는 것과 분명하게 차별된다. 건축에서 나타나는 유교 경관이 상징성은 시각적 지각보다는 학습을 통해서 인지되는 언어적 기호 경관에서 찾아야 한다. 서원의 내적 의미체계를 담고 있는 記意 중심의 기호가 서원 당호이다. 내적 의미체계로서 서원의 기호 상징성은 서원 건물의 입지, 형태, 배치에서도 알 수 있지만, 건물의 이름인 당호 현판에서 가장 잘 읽어낼 수 있다. 서원에는 신유학(성리학)이 추구하는 윤리관 세계관 자연관이 상징적으로 구현되어 있다. 서원에 구현된 유교적 상징 기호는 화려한 기표가 아니라, 단순 소박한 형태의 기의 중심의 당호 현판에 집약되어 있다. 나무로 만든 서원 당호 현판은 형태적으로는 매우 소박 간명한 기호이지만, 깊은 의미를 읽어내야 할 쉽지 않은 텍스트이다.

서원 당호 현판은 우선 한자로 되어 있어서 이해가 어렵다. 설령 한자를 알더라도 유교 사상에 대한 학습이 없으면, 당호 현판에 함축된 의미를 읽어낼 수 없다. 당호 현판의 의미를 충분히 해독하지 못하면, 서원이 추구하는 유교적 세계관에 대한 이해도 피상적인 것에 멈춘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유교는 믿음이나 깨달음

이 아닌 배움의 종교, 혹은 종교적 교학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유교 신자를 유학자와 동일시하는 전통적 인식도 유교의 교학적 성격을 말해 준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교양교육 지식정보는 보편화되고 다양한 전달 매체를 통해서 대중들에게까지 수용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교 교학사상의 특성과 의미체계에 대한 현대적 해석과 대중 전파는 유교의 현대화에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 서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계기로 유교를 현대화 대중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연구될 수 있다. 서원 당호 현판에 대한 본 발표는 교학사상으로서 유교의 특성을 당호 현판에 담긴 의미 학습을 통해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2. 현전 서원 당호의 현황

세계문화유산 등재추진 대상이 된 9개 서원 당호 현판 자료를 분석하였다. 서원에 실제로 걸려 있는 당호 현판을 중심으로 하고, 부속시설과 최근에 만들어진 당호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기초조사 결과 수합된 9개 서원의 현전 당호 현판은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총 93개이다.

표 1. 9개 서원 당호 현판 현황 집계

서원	당호		비고
	교학과 제향 시설	지원 시설	
소수서원	文成公廟 紹修書院, 白雲洞, 日新齋, 直方齋, 學求齋, 至樂齋, 景濂亭(초서), 景濂亭(해서), 翠寒臺, 光風亭(?)	影幀閣 典祀廳 藏書閣	-
도산서원	尙德祠 陶山書院, (陶山書堂) 典教堂, 閑存齋, (巖栖軒, 玩樂齋) 博約齋, 弘毅齋 進道門	光明室 亦樂書齋 隴雲精舍, 時習齋, 觀瀾軒	도산서당(현판) 포함
병산서원	尊德祠 立教堂, 動直齋, 靜虛齋 復禮門, 晚對樓,	典祀廳 藏板閣	-
옥산서원	體仁廟 玉山書院(김정희), 玉山書院(이산해), 求仁堂, - 兩進齋, 偕立齋, 敏求齋, 闇修齋, 亦樂門, 無邊樓,	經閣 御書閣 碑閣 文集板閣 洗心門	옥산서원 당호 현판은 당호 글씨 좌측에 노수신의 짧은 해설문이 있다.
도동서원	道東書院(퇴계서집자) 道東書院(사액), 中正堂, 居仁齋, 居義齋 水月樓, 喚主門,	-	-
남계서원	濂溪, 書院, 明誠堂 - 居敬齋, 集義齋 輔仁齋, 詠梅軒, 養正齋, 愛蓮軒, 風咏樓, 遵道門,	-	서원현판을 남계, 서원으로 분리하여 게판
돈암서원	崇禮祠(唯敬祠) 遜巖書院, 凝道堂, 養性堂, 靜會堂, 居敬齋, 精義齋 山仰樓, 入德門,	藏板閣 典祀廳 慶會堂	사당에 걸린 현판은 송례사이다.
무성서원	泰山祠 武城書院, 講修齋, 絃歌樓,	-	강당 이름이 별도로 없다.

서원	당호		비고
	교학과 제향 시설	지원 시설	
필암서원	祐東祠 筆巖書院, 淸節堂, 進德齋, 崇義齋 廓然樓	藏板閣 敬藏閣	-
9개서원	73개 현판	20개 현판	93개 현판

본 발표에서 일차적으로 서원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서원 명칭과 입지 특성을 나타내는 문루를 살핀다. 다음으로 서원 건물의 당호 현판을 고찰하여 서원의 교학적특성을 분석한다. 당호는 문루 현판, 강당과 동서재 현판, 그리고 사당의 현판을 서원 별로 분석한다.

3. 서원 이름과 문루

서원 영역은 유식 공간, 강학 공간, 제향 공간 등 서원의 본질을 구성하는 공간과 고직사 등 지원시설 공간으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서원 당호의 교학적 의미는 서원 전체를 대표하는 서원 명칭, 유식공간의 문루, 강학공간의 강당과 동 서재, 그리고 제향공간의 사당 당호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개별 서원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서원 명칭과 문루를 현판을 통해서 살펴보자.

1) 서원 이름 현판

서원 명칭은 엄밀한 의미에서 당호는 아니다. 그러나 서원 전체를 대표하는 현판으로 사액 받은 서원 현판을 강당의 전면이나 강당 마루의 후면 중앙에 걸어 놓았다. 국왕으로부터 받은 현판임을 강조하기 위해 사액 현판은 연호를 옆에 적은 경우가 많다. 서원 이름 현판은 그 서원의 정체성을 가장 잘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서원 이름 뿐 아니라 글씨를 쓴 사람과 서체를 통해, 일부는 두 개의 서원현판을 걸어 그 서원의 역사와 전통을 강조하기도 한다. 도산서원의 현판은 당대의 명필인 한석봉의 글씨이다. 도산서원 경내에 있는 도산서당의 현판은 퇴계가 61세 때 도산서당을 창건하고 직접 글씨를 썼다. 상당히 독창적인 서체로 기본적으로 안진경체의 웅혼한 기풍을 바탕으로 삼으면서, ‘山’자를 상형자로 구성하였다. 옥산서원과 도동서원은 각각 강당에 두 개의 서원현판을 걸어 놓았다. 옥산서원은 창건당시의 사액 현판(이산해 글씨)의 모각판과 다시 받은 사액 현판(김정희 글씨)을 강당의 대청 안쪽과 강당 전면에 각각 걸었다. 도동서원은 사액 현판과 퇴계 글씨를 집자하여 모각한 현판을 대청 안쪽과 강당 전면에 각각 걸었다. 특히 퇴계 글씨를 모각한 도동서원 현판 아래는 그 사유를 적은 현판이 걸려 있다. 이 서원의 이전 설립을 주도한 寒岡 鄭逵는 “선사(先師: 퇴계)의 옛 필치와 聖主께서 하사한 판액이 장차 안팎에서 빛을 발하게 됨으로써 배우는 儒者로 하여금 무엇을 모범으로 삼을 것인지를 알게 하였으며, 따라서 또 이 선생의 遺志를 이루게 되었다.” 라고 두 개의 서원 현판을 걸게 된 까닭은 적었다. 도동서원의 학문적 전통이 퇴계를 스승으로 한 정구 자신과 밀접함을 암시하였다 하겠다.

9개 서원의 명칭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해당 서원이 입지하는 장소명과 관련된 지연(地緣) 명칭이다. 도산·병산·옥산·남계·돈암·필암 서원의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유교적 가치관과 관련

된 이름이다. 소수서원·도동서원·무성서원의 경우이다. 장소명과 관련된 서원 이름이라 하더라도 서원이 입지한 장소의 기존 지명을 그대로 따른 것은 사실상 없다. 서원이 제향하는 인물이 사실상 작명하거나(도산·옥산), 인접한 연고지의 장소를 인용한 경우(돈암·필암), 인근 하천이나 산을 새롭게 명명한 경우(남계·병산) 등이다. 이처럼 자연에 따른 서원 명칭 부여는 서원 제향인물이 추존하는 유교 성현의 연고와 중첩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도산은 陶淵明, 병산과 옥산은 주자의 연고와 관련된다. 지명 연고와 거리가 있는 서원은 紹修書院이다. 紹修는 주자 이후 끊어진 신유학의 정통을 다시 잇는다는 의미이며, 도동서원은 道東은 신유학의 도통이 동국 곧 우리나라로 왔다는 의미이다. 武城書院은 백성을 다스림은 고을이 크든 작든 禮樂으로 해야 한다는 공자의 教化思想을 함축한다. 서원이름으로만 볼 때, 무성서원은 유일하게 고대 유교의 外王의 전통을 가진 서원이다. 內聖을 추구하는 신유학 전통의 다른 8개 서원과 구분된다. 또 소수서원과 도동서원을 제외하면, 모든 서원 이름이 지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다. 이들 서원은 지명을 서원 이름에 담음으로써 서원이 제향하는 인물 자신이나 공자·주자에 대한 추존의식을 상징화한다. 따라서 서원 명칭은 서원의 제향인물과 공자·주자와의 연고를 관련 지명을 통해서 드러내는 방식으로 서원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다.

2) 서원 문루 당호 현판

서원 건물의 당호는 건물의 기능에 따라 크게 3 가지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서원의 건물배치는 가장 전면에 문루와 외삼문이 있고, 서원에 진입하면 前學後廟의 배치에 의하여 동서 양재와 강당으로 이루어진 강학 건물을 만난다. 그리고 서원의 가장 안쪽에 사당이 있다.

문루는 서원 제도에 필수적 요소는 아니다. 하지만 문루를 서원이 규모를 갖추는데 바람직한 요소로 생각하여 다수 서원이 문루를 두고 있다. 문루는 서원의 주위 경관을 전망하는 遊息 장소이다. 아름다운 산수를 즐길 수 있는 곳은 서원 입지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다.¹ 서원이 추구하는 공부는 학문을 익히고 선현을 제향하는 것만이 아니다. 때때로 자연풍광을 즐기면서 천인합일의 경지를 느끼는 전인 교육을 추구한다.² 따라서 제향과 강학 공간과는 별도로 遊息 공간을 두게 된다. 서원에서 전망하는 자연경치를 가장 잘 볼 수 있도록 서원 전면에 이층의 누각을 세운 것이 문루이다. 대체로 문루는 서원 창립 당시에는 함께 이루지 못하고 외삼문만 두다가, 시대를 경과한 후 유식 공간이 없을 수 없다고 하여 설립한 경우가 많다. 문루를 세우면서 아래 대문에는 외삼문 현판을 걸고 위 이층에는 문루 현판을 걸게 되었다. 문루가 서원에서 바라보는 案對 경관을 감상하는 곳이므로 현판에 새겨진 문루이름은 전면 안대경관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문루 이름에는 유교적 수양을 갖춘 선비들이 서원에서 전망하는 경관에서 통해 느끼는 天人合一의 감수성을 반영되어 있다. 더 나아가 문루이름 결정에는 서원이 제향하는 인물의 학문적 특성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서원 전망경관의 특성, 유교의 천인합일, 그리고 제향인물의 학문 경향이라는 자연·사상·개성의 통합적 관점을 서원 문루 현판에서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된다. 9개 서원 가운데 7개 서원에 문루가 있고 현판이 걸려 있다. 소수서원과 도산서원에는 문루가 없으나 문루에 해당하는 장소가 있다.

1. “그 사면 산수를 보면 깨끗하고 깊은 것이 빙 둘러 합쳐지고, 저자거리의 시끄러운 소리가 없으며, 시원한 샘과 돌이 아름다운 곳이니, 진실로 모여 살면서 학문을 논하고 자취를 숨겨서 글을 쓰는 곳이다.(觀 其四面山水 清邃環合, 無 市井之喧, 有泉石之勝 群居講學 遜迹著書之所) - 『朱子大全』 권99, ‘白鹿洞牒’)

2. “그러므로 군자는 배울 적에 학업을 마음속에 늘 품고, 그것을 수시로 익히며, 학문하는 가운데서 쉬고, 학문하는 가운데서 노닌다.”(大學之教也, 時 教必有正業, 退息必有居學. 不學操縵, 不能安弦. 不學博依, 不能安詩. 不學雜服, 不能安禮. 不興其藝, 不能樂學. 故君子之於學也, 藏焉, 修焉, 息焉, 遊焉. -『禮記』 권17 학기 18

4. 현전 서원 당호의 교학적 의미

1) 소수서원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은 건물이 불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사당과 동 서재는 출입문의 방향인 남향이지만, 강당과 경림정의 방향은 동향하여 죽계천을 바라본다. 서원의 외삼문 명칭이 없고 문루도 없다. 그러나 문 앞에 문루에 해당하는 정자가 있는데 景濂亭이다. 이 서원을 창건한 주세붕의 시 ‘白雲洞書院’ 註에 의하면, 경림정은 숙수루 옛 터에 건립되었는데, 경림정이 선 자리에는 불교 사찰 숙수사의 누각 숙수루가 있었다.³ ‘景濂亭’이란 이름은 북송의 도학자 염계 주돈이를 추존한다는 의미이다. 불교사찰 숙수사가 유교 서원으로 전환되었듯이 불교의 누정 숙수루에서 유교의 누정 경림정으로 전환된 것이다. 경림정에는 두 개의 현판이 걸려 있다. 정자 외측에 걸린 해서체 현판이 이황의 글씨이고, 정자 안에 걸린 초서체는 孤山黃耈의 글씨이다. 경림정에 오르면, 죽계와 그 너머 산의 생기가 눈을 가득 채우고 가까운 곳에 ‘敬’자를 새긴 바위가 있다. 경림정에는 많은 시판이 걸려 있는데, 대부분이 주세붕과 퇴계의 시를 차운한 시이다. 경림정에 걸려 있는 주세붕의 시는 아래와 같다.

경림정 景濂亭⁴

산은 우뚝 서 있는데 공경한 빛깔,	山立祇祇色
시내는 졸졸 흐르는데 층층의 소리.	溪行亶亶聲
은거한 이 마음도 이를 얹어 있겠지,	幽人心有會
한 밤중에 나 홀로 정자에 기대 있네.	夜半倚孤亭

주세붕은 우뚝한 산색을 공경한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시냇물 소리는 정자에 은거한 사람의 마음과 감통한다고 읊었다. 경림정에 은거하여 본성을 함양하는 사람의 恭敬하는 자세가 산 빛깔·물소리와 感通한다는 所懷를 읊은 것이다.⁵ 이어 퇴계 이황은 주세붕의 시를 차운하면서 경림정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읊었다.⁶

경림정(景濂亭)

풀도 우리 인간처럼 생의를 가졌으니,	草有一般意
흐르는 시내 끝없는 소리를 머금었네.	溪含不盡聲
유람객들 내 말 아직 믿지 못하는 듯,	遊人如未信
씻은 듯이 상쾌한 텅 빈 정자를 보게나.	蕭洒一虛亭

퇴계는 敬자 바위를 바라보는 의미를 공경으로 涵養한다는 것에서 나아가, 성리학에서 말하는 仁의 개념으로 발전시킨다. 程子は『周易』坤卦 文言傳의 ‘君子敬以直內 義以方外’에 대하여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자

3. “홍주에 백운동 서원이 있으니 바로 숙수사 옛터이다. 숙수루 옛 시에 ‘차갑게 산 빛을 밀며 스님은 문을 닫고 싸늘한 물소리 밝으며 나그네는 정자에 오르네.’ 하였다. 그 숙수루가 지금의 경림정이 되었다.(興州有白雲洞書院 則宿水寺舊址 宿水樓舊題云 ‘寒推嶽色 僧扃戶 冷踏溪聲客上樓’ 樓今爲 景濂亭)” - 숙수루 시는 魯珉의 ‘順興宿水寺樓’를 말한다, 앞의『紹修書院誌』p.508에서 인용.

4. 『武陵雜稿』 권2, 別集, 詩, 『한국문집총간』

5. “涵養須用敬 進學則在致知” - 『近思錄』, 爲學類.

6. 『退溪集』 別集, 권1, 詩, - 『한국문집총간』 제031책 028a.

연스러운 敬으로써 內心을 바르게 하는 것을 곧 仁이라고 풀이한 바 있다.⁷ 퇴계 이황은 敬의 의미를 주세붕의 恭敬에서 나아가 ‘草有一般意’ 곧 生意로 의미 부여하였다. 경령정을 ‘천지만물과 하나가 되는 인(仁者以天地萬物爲一體)’⁸을 함양하는 장소로 읊는 것이다. 퇴계는 산야에서 자라는 풀들도 일반의로서 생의를 가졌다고 보고, 경령정에 오르는 이들이 끝없이 흐르는 시냇물 소리에서 생의를 깨닫기 바란 것이다.

소수서원의 사당 현판은 文成公廟이다. 사당 안에는 文成公 諡號와 諡註 현판이 있다. 시주는 ‘道德博聞曰文, 安民立政曰成’이다.

소수서원의 강당은 죽계전을 바라보며 남향을 한다. 그러나 대문 쪽으로도 문을 내어 두었다. 강당 안에 紹修書院 현판이 걸려 있고 맞은편에 옛 이름인 白雲洞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소수서원 현판 좌우에 嘉靖 29년(1550년) 4월, 明廟御筆이라고 쓰여 있다. 소수서원 재사 건물은 日新齋, 直方齋, 學求齋, 至樂齋가 있다. 강당 앞에 동 서재로 있지 않고 강당 후면에 배치가 각각이다. 日新齋는 독립건물이 아니라 直方齋를 증축한 것으로 新房으로 부르다가 日을 보태고 房을 齋로 고쳐 독립 서재가 되었다 한다. 直方齋는 퇴계의 친필이다. 『주역』 「곤괘(坤卦), 문언전(文言傳)」에 “정직한 것은 바른 것이요. 방정하다는 것은 의에 맞는 것이다. 군자는 공경으로써 내면을 바르게 하고 의로써 외면이 해동을 방정하게 한다. 공경하는 마음과 의로운 행동이 확립되면, 덕은 외롭지 않다. 라는 말과 같이 그 덕행은 널리 퍼져 나갈 것이다. 곧고 방정하고 큰 덕을 갖춘 자는 배우지 않아도 모든 일이 순조롭다는 신념을 가지므로 그 행동에 의심을 하지 않는다.”(直其正也 方其義也, 君子 敬以直內 義以方外, 敬義立而德不孤, 直方大不習无不利 則不疑其所行也) 하였다. 곧 군자는 내면을 敬으로써 마음을 바르게 하고, 외면은 義로써 행동을 방정하게 하면 부끄러움이 없다는 의미이다. 學求齋는 원래 童蒙齋로 至樂齋와 新房 사이에 남향으로 있었다. 童蒙의 居齋 제도가 없어지진 오래되어 편액을 學求齋로 바꾸었다. 주자의 글씨를 모각하였는데, 주자의 글씨 ‘學求聖賢 鳶飛魚躍’에서 딴 것이다. 至樂齋는 죽계전을 바라보도록 강가에 동향으로 지어졌다. 蒼石 李堧이 건축하면서, 歐陽脩의 “至樂莫如讀書”에서 딴 것이다.

2) 도산서원

도산서원에는 별도의 문루가 없다. 1970년대 도산서원 성역화 공사 전까지 서원 입구 좌우에 있던 천연대(天淵臺)와 천광운영대(天光雲影臺)가 자연지형으로 이루어진 전망대로서 문루 구실을 하였다. 도산서원 앞에 있던 천연대와 천광운영대가 퇴계 본인과 후대 선비들에게 자연적 누정의 역할을 하였지만, 인위적 누정이 없으니 퇴계선생의 인자한 현판글씨를 볼 수 없어 참으로 아쉽다.

도산서원 강당 현판은 전교당(典教堂)이다. ‘전교(典教)’는 오전(五典)을 가르친다는 것인데 인륜을 밝힌다는 의미가 된다. 도산서원 강당 협실은 서쪽 한 곳에만 있는데 한존재(閑存齋)이다. ‘閑存’은 『주역』 「건괘, 문언전」의 “용의 덕이 있으면서 때와 곳을 얻어 정당한 지위에 사람이니, 중용을 지켜 말에는 신의로써 하고, 행동에는 근신하여, 간사함을 물리치고 그 성실함[誠]을 보존하여 선한 일을 하지만 자랑하지 아니하며 은덕을 널리 베풀어 사람들을 감화시킨다.”(龍德而正中者也 庸言之信 庸行之勤 閑邪存其誠 善世而不伐 德

7. “敬以直內 義以方外 仁也” - 『程氏遺書』 제11권.

8. 『二程全書』 권1.

博而化)”에서 나온 말이다. 퇴계는 경(敬)을 실천할 것을 강조했는데, 사악함을 막아 참된 마음을 보존하는 경(敬) 공부의 원칙을 강당 협실에 현판으로 건 것이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동재(東齋) 현판 ‘박약(博約)’은 『논어』「자한(子罕)」편에 “안연이 크게 탄식하며 말하기를 ‘부자께서 차근차근히 사람을 잘 이끄시어 문(文)으로써 나의 지식을 넓혀주시고 예(禮)로써 나의 행동을 요약하게 해 주셨다.[顏淵喟然歎曰 夫子循循然善誘人 博我以文 約我以禮]”고 한 구절에서 인용하였다. 서재(西齋) 현판 ‘홍의(弘毅)’는 『논어』「태백(泰伯)」편에 “증자가 말하기를, ‘선비는 도량이 넓고 뜻이 굳세지 않으면 안 되니, 책임이 무겁고 길이 멀기 때문이다.’[曾子曰 士不可以不弘毅 任重而道遠]”라고 한 데서 인용하였다. 따라서 도산서원의 강학 중심에는 인륜을 밝힌다는 당호 전교(典敎)를 학업의 목표로 내걸고 경(敬)을 실천하는 한사존성(閑邪存誠)을 공부 원칙으로 밝혔다. 이러한 교학의 목표와 원칙에 따라 공부하는 학생은 박약(博約)과 홍의(弘毅)를 학습 자세로 가지도록 동서 양재의 현판에 교학정신을 새긴 것이다.

도산서원 사당의 현판은 ‘尙德祠’이다. 『논어』「헌문(憲問)」편의 “군자로다, 이 같은 사람이여! 덕을 숭상하도다, 이 같은 사람이여!(子曰 君子哉 若人 尙德哉 若人)”에서 인용한 것이다. 위대한 스승 퇴계의 학덕을 평소 우러르며 제사하는 사당이다. 도산서원 대문 현판이 도(道)에 나아간다는 진도(進道)이다. 『근사록』에 “도를 밝히는 것은 어리석은 것처럼 하고 도에 나아감에는 물러서지 말라.”(明道若昧, 進道若退) 하였다. 도(道)는 잠시도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의 길이며, 앞서 간 스승의 학덕을 부지런히 좇음으로써 도의 성취를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 상덕(尙德)과 진도(進道)가 아래 위에서 유생의 학업과 수도를 격려하는 교학 정신을 대문과 사당의 현판에서 시종일관하게 보여준다.

3) 병산서원

병산서원 문루는 ‘晩對樓’이다. 만대루 현판의 ‘晩對’는 杜甫의 시 ‘白帝城樓’의 “푸른 절벽은 해질녘에 마주하기 마땅하고(翠屏宜晩對 白谷會深遊)”에서 ‘翠屏晩對’의 의미로 해석한다. 그러나 주자가 자신의 武夷精舍의 경치를 읊은 ‘武夷雜詠’ 가운데 ‘晩對亭’이 있다. 이 시에서 “지팡이에 의지해 남산 머리에 오르니, 멀찍이 만대봉이 있네, 푸르고 가파른 모습 차가운 하늘에 우뚝한데, 지는 해는 푸른 절벽을 밝게 비추네(倚筇南山巔 卻立有晩對 蒼峭矗寒空 落日明影翠)” 하였다. 저녁 해가 병풍처럼 펼쳐진 산기슭을 비스듬하게 비추는 모습에서, 杜甫와 朱子は 산의 生氣를 더 선명하게 느낀 것이었다. 병산서원 앞에서 낙동강은 서쪽으로 흐르는데, 서쪽으로 기운 해는 높은 산 아래 흐르는 강을 거슬러 빛을 뿌린다. 비스듬하게 비치는 이 햇살에 낙동강과 병산은 함께 비취빛으로 어울려 더욱 황홀하게 빛난다. 이 빛나는 산과 물의 생기가 보는 이의 눈으로 전해지고 가슴으로 젖어들면서, “천지의 만물을 낳은 마음이 지금 나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天地生物之心, 而人之所得以爲心)”는 지각도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병산서원의 문루 현판 晩對樓는 이처럼 해질녘에 마주하는 山色과 바라보는 이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天人合一의 仁”을 상징한다.

병산서원 강당의 현판 立敎堂의 ‘立敎’는 유생들이 배워야 할 성현의 가르침, 이를테면 오류를 바르게 세운다는 의미이다. 병산서원의 입교당은 도산서원의 전교당과 같은 의미 맥락으로 보인다. 병산서원 강당의 동쪽 협실의 현판은 ‘明誠齋’이다. 『중용』21장에 나오는 “성(誠)으로 말미암아 밝아짐을 성(性)이라 이르고, 명(明)으로 말미암아 성(誠)해짐을 교(敎)라 하니, 성(誠)하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성(誠)하게 된다.[自誠明謂之性 自明誠謂之敎 誠則明矣 明則誠矣]”을 딴 것이다. 성(誠)은 성실히 하는 것으로 행(行)에 해당하고 밝

음(明)은 이치를 밝히는 것으로 지(知)에 해당한다. 성(性)은 배우지 않고 천명에 따르는 것으로 성인(聖人)을 이르고, 교(敎)는 가르침을 받아서 道를 따르는 현인(賢人)을 이른다. 유교는 聖賢이 되고자 하는 학문임을 나타낸다. 서쪽 협실의 현판 ‘敬義齋’의 ‘敬義’는 『주역』 「곤괘(坤卦)」, 문언전(文言傳)에 나오는 “군자는 경으로써 내면을 곧게 하고 의로써 외면을 바르게 한다.”(君子 敬以直內 義以方外)에서 딴 것이다. 敬으로써 마음을 수양하고, 義로써 행동의 판단 준거를 삼는다는 뜻이다. 유교가 敬과 義를 추구하는 실천 학문임을 밝힌 것이다.

병산서원 동재의 현판은 ‘動直齋’이다. 주렴계의 『통서(通書)』에 어떤 사람이 성인이 되는 방법을 묻자, “한결같음[一]이 요체가 되니, 한결같음이란 욕심이 없는 것이다. 욕심이 없으면 고요할 때에는 텅 비고 움직일 때는 곧게 된다. 고요할 때에 텅 비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천하의 이치에 통하게 된다. 움직일 때에 곧으면 공평하게 되고 공평하면 천하의 서무(庶務)를 널리 처리할 수 있다. 밝아서 통하고 공평하여 넓게 되면 성인의 도에 거의 가까워지지 않겠는가?”(一爲要 一者 無欲也 無欲 則靜虛動直 靜虛則明 明則通 動直則公 公則溥 明通公溥 庶矣乎) 한데서 딴 것이다. 서재의 현판은 ‘靜虛齋’이다. 역시 주렴계의 『통서(通書)』에 어떤 사람이 성인이 되는 방법을 묻자, “한결같음[一]이 요체가 되니, 한결같음이란 욕심이 없는 것이다. 욕심이 없으면 고요할 때에는 텅 비고 움직일 때는 곧게 된다. 고요할 때에 텅 비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천하의 이치에 통하게 된다. 움직일 때에 곧으면 공평하게 되고 공평하면 천하의 서무(庶務)를 널리 처리할 수 있다. 밝아서 통하고 공평하여 넓게 되면 성인의 도에 거의 가까워지지 않겠는가?”(一爲要 一者 無欲也 無欲 則靜虛動直 靜虛則明 明則通 動直則公 公則溥 明通公溥 庶矣乎)고 한데서 딴 것이다. 결국 동서재의 현판 靜虛와 動職은 사욕을 버리는 극기(克己)의 경지로 나아가 仁을 이루는 공부를 하라는 교학적 의미를 함축한다.

병산서원 사우 현판은 ‘尊德祠’은 이 서원이 제향하는 서애 류성룡의 학덕을 존모한다는 의미이다. 도산서원의 사당 현판 ‘尙德祠’와 같은 의미 맥락이다. 병산서원 정문의 현판은 ‘復禮門’이다. 논어 「안연(顏淵)」편에 “안연이 인(仁)에 대해 묻자, 공자가 말하기를, ‘자신의 사욕을 이겨 예(禮)로 돌아가는 것이 인을 실행하는 것이니, 하루라도 자신의 사욕을 이겨 예로 돌아간다면 천하 사람이 모두 어질다고 허여(許與)할 것이다.’”(顏淵問仁 子曰 克己復禮爲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에서 따왔다. 위의 ‘克己復禮’에서 나온 ‘復禮’는 동·서재의 動直·靜虛이 의미하는 사욕을 버리는 공부 克己와 상응하는 교학적 의미를 함축한다.

4) 옥산서원

옥산서원은 창건과 사액 시기가 거의 일치하는 서원이다. 관(官)이 서원 건설을 주도하는 체계적인 서원 건설 덕분에 옥산서원은 건물의 공간배치가 가장 전형적이다. 또 노수신(盧守愼)이 <옥산서원 여러 편액 찬(玉山書院諸額贊)>을 지어 여러 서원 당호 현판의 의미도 체계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아래 <옥산서원제액찬>은 옥산서원 주요 당호 현판 좌측에 작은 크기로 적혀 있다.

옥산서원 여러 편액 찬(玉山書院諸額贊)

노수신(盧守愼)

체인묘 體仁廟

만물을 소생해주는 봄 기운,
내 안에 있는 것 인이 되니,
몸으로써 그것을 체득하면,
어찌 장대한 사람이 아니라.

生物之春
在我爲仁
體之以身
何不長人

구인당 求仁堂

마음의 덕이 어찌 줄어들겠냐만,
놓아버리면 멀어진다고 말하네.
일념으로 인을 돌이킬 줄 알면,
곧 이 인이 나의 근본이 되리.

心德何損
放而曰遠
一念知反
卽此是本

양진재 兩進齋

선을 택하여 그 이치를 밝혀야 하고,
자신에 돌이켜 참되게 해야 하네.
어느 것 중하고 어느 것 가벼우랴,
옛 성현들 둘 다 모두 행한 것인데.

擇善惟明
反身惟誠
孰重孰輕
聖賢同行

해립재 偕立齋

경으로 안을 곧게 의로 밖을 방정하게,
안과 밖을 번갈아 서로 닦아야 하네.
오직 그 마음 꼭 붙잡고 잊지 말아야,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한 덕이 빛나리.

敬直義方
內外交相
惟操弗忘
天德之光

무변루 無邊樓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으며,
끝도 처음도 없는 이 무변루.
광풍제월의 빛나고 맑은 경계,
태허에서 노니는 자유로운 정신.

靡欠靡餘
罔終罔初
光歟霽歟
游于太虛

역락문 亦樂門

풍도를 듣고서 돌아오고,
도를 우리르며 찾아오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온 나라 안의 영재들이여.

聞風則回
望道而來
不亦樂哉
邦之英才

옥산서원 문루는 서원 창건과 동시에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문루의 이름은 원래 納淸樓였으나 無邊樓로 개명하였다. 옥산서원 창건 때 許曄이 지은 ‘玉山書院記’에 ‘납청루’에 대한 설명이 있다. 허엽의 ‘玉山書院記’에서, ‘납청루’의 “이름은 納淸인데 淸은 곧 氣이니, 氣는 곧 陽이다. 이 樓에 오르는 자는 淸 곧 氣와 陽을 받아들여 陽氣를 기를 것이다. 양기를 기르는 것은 道를 凝縮하는 것이다. ‘납청루’는 이 陽氣 涵養과 道의 凝縮를 모두 갖춘 것이다.”⁹하였다. <옥산서원제액찬>에서 노수신은 납청루를 개명한 無邊樓의 의미를 해설하면서, 옥산서원의 제향인물 晦齋를 중국의 도학자와 관련시키고자 했다고 생각된다. 無邊樓의 ‘無邊’은 濂溪 周敦頤의 인품을 “風月無邊 庭草交翠”로 찬양한 黃庭堅의 ‘濂溪先生 - 六先生畫像贊’에 나오는 말이다.¹⁰ 周敦頤의 인품을 風月無邊으로 부른 것은 濂溪가 光風霽月 같은 한 없이 넓고 밝은 마음으로 자연을 즐기는 흥취가 무궁무진하다는 의미이다. 또 ‘庭草交翠’라 한 것은 濂溪가 ‘與自家意思一般’이라 하여 정원의 풀을 제거하지 말라고 한 生意尊重 사상을 가리킨다. ‘意思一般’은 대자연과 하나가 되어 ‘天人合一의 仁’을 지각하는 의미로 자주 인용된다. 濂溪는 『太極圖說』을 저술하여 新儒學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며 宋學·道學의 시조로 불리진다. 濂溪의 『太極圖說』 ‘無極而太極’에 대하여, 晦齋는 “道의 어디까지나 物的 形成이 있는 것이 아니면서도, 실제로는 萬物의 根底가 되는 것”이라고 논한 바 있다.¹¹ 회재의 제자인 노수신이 무변루 당호를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으며, 처음도 없고 끝도 없구나.(靡欠靡餘 罔初罔終)”라고 해설한 것은 ‘無極’을 말한 것이다.¹² 또 “광풍제월처럼 빛나고 맑은 경계, 태허에서 노니는 정신(光與霽與 遊于太虛)”이라 한 것은 『太極圖說』을 지은 濂溪 周敦頤의 人品을 말한 것이다. 결국 노수신은 무변루가 생기 충만한 자연 속에서 풍월을 즐기며 학문을 도야하는 즐거움을 얻는 곳으로 해설하면서, 동시에 濂溪의 光風霽月의 경지를 晦齋에 비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하였다.

노수신은 <옥산서원제액찬>에서 무변루의 의미가 함축하는 仁의 경지가 옥산서원의 외삼문에서부터 사당에 이르는 과정에서 실현되는 것으로 각 당호의 뜻을 풀이했다. 곧, 천하 영재들이 학문을 배우러 들어오는 외삼문 亦樂門, 영재들이 善을 택하여 이치를 밝히고 자신을 돌이켜 참되게 하는 방식으로 수학하는 兩進齋, 敬으로 안을 굳게 하며 義로서 밖을 방정하게 수행하는 偕立齋, 마음을 방일하지 않고 一念으로 仁을 추구하는 講堂 求仁堂, 그리하여 마침내 仁을 체득하여 위대한 인물이 되는 祠堂 體仁廟에서 성숙된 仁의 경지가 실현된다는 것이다. 실현된 仁의 경지는 無邊樓에서 광풍제월처럼 빛나고 태허에서 노니는 천인합일 정신 경지로 나타난다고 해설하였다. 노수신이 <옥산서원제액찬>에서 옥산서원 여러 당호에 부여한 仁의 성숙과 실현 과정은 당호뿐만 아니라, 외삼문에서 사당에 이르는 정연하고도 위계적인 공간배치로 구현되어 있음을 서원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9. “樓曰納淸 淸者氣也. 氣者陽也. 登斯樓者 納淸而養陽 養陽而凝道. 斯其具也.”

10. “염계 선생께서는, 도가 천년 동안 없어진 뒤에 나셨으니, 성인(공자)과 떨어져 그 말씀도 가물가물했네. 선생 같은 선각자 없었다면, 누가 우리 후인들을 열어주었으리. 『通書』에서도 말을 다하지 못하셨고, 太極圖說에서도 뜻을 다하지 못하셨네. 광풍제월 같은 마음 한없이 넓으셨으니, 뜰의 풀에 푸른 생기 짙어지는 것 어찌 말하리.(濂溪先生 道喪千載 聖遠言湮 不有先覺 孰開我人 書不盡言 圖不盡意 風月無邊 庭草交翠)” - 黃庭堅, ‘六先生畫像贊’, - 『性理大全』 권39.

11. ‘書忘齋忘機堂無極太極說後’, 『국역회재전서』, pp.17-22

12. ‘無極’이란 용어는 유가 經傳에는 애초에 없었다. 『道德經』 28장에 “다함이 없는 데로 들어간다.” 『莊子』 ‘在宥’의 “다함이 없는 문에 들어가 다함이 없는 들판에 노닌다.”, 『列子』의 “사물의 시작과 끝은 애초에 다함이 없었다.” 등의 無極은 모두 끝이 없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주희는 무극은 이치는 있지만 형체는 없는 무형의 진리라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 이광호 옮김, 『聖學十圖』, 홍익출판사, 31, 2001.

5) 도동서원

도동서원의 문루는 현판은 수월루(水月樓)이다. 수월루는 19세기 초에 창건된 후 여러 차례의 중건을 거쳐 1970년대에 지금의 수월루가 지어졌다. 지금의 수월루는 서원의 전망을 방해하고 건축적으로 우수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수월루’라는 이름은 도동서원의 경관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또 서원이 제향하는 한원당 김굉필의 지취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가파른 경사지에 입지해서 북향하여 낙동강을 바라보는 도동서원의 전망 경관 이미지는 찬물을 비치는 밝은 달을 연상시킨다. 1849년의 수월루 上櫟文에 ‘寒水照月’의 이미지를 취한 것이 수월루임을 기술하고 있다.

유생들을 모아 성현이 전한 지결(旨訣)을 강하니,	集靑衿而講衣鉢之傳
차가운 강물에 비친 달처럼 밝고,	寒水照月
비취빛 물을 바라보다 높다란 서원 우러르니,	控翠渚而仰門牆之卓
단청 칠한 동량이 구름처럼 높구나.	畫棟連雲
근원이 있는 거울 같은 연못 원두에서 흘러내리고,	混混一鑑源頭
빛나는 수월루(水月樓) 세 글자 현판이 걸렸구나.	煌煌三字楣額

김굉필은 스스로 ‘회포를 씀(書懷)’이라는 시에 “홀로 한가롭게 사니 오가는 이 없고(處獨居閒絕往還), 다만 밝은 달 불러 외롭고 찬 사람을 비추려네(只呼明月照孤寒), 그대여 번거로이 내 생애 묻지 말게(煩君莫問生涯事), 아지랑이 낀 두어 가닥 물결과 몇 겹 산 뿐이니.(數頃烟派數疊山)”하고, 세상과 떨어져 홀로 살면서 밝은 달과 벗하는 고고한 삶을 그린 바 있다. 또 ‘船上’이라는 詩에서, “배는 하늘 위에 앉는 듯 물고기는 거울 속에 노는 듯, 술 마신 후 거문고 끼고 돌아가니 강 가운데 달빛이 배 하나 가득하구나.(船如天上左, 魚似鏡中遊. 飲罷休琴去, 江心月一舟)” 하였다. 이 ‘江心月一舟’는 그림으로 그려져 도동서원 사당에 게시되어 있다. 주자는 군자의 마음을 “삼가 천년을 전해 온 군자의 마음, 가을 달 찬물 위에 비추네(恭惟千載心, 秋月照寒水)”¹³하고 노래한 바 있다. 밝은 가을 달이 찬 강물을 비추는 이미지는 사심 없이 공정한 군자의 정신세계를 상징하고, 이는 곧 도학자 한원당의 정신이기도 하다.

도동서원 강당 현판은 중정당(中正堂)이다. ‘中正’의 의미는 주돈이 『태극도설』 가운데 “성인은 中·正·仁·義로써 온갖 일은 안정시키고 고요함을 위주로 사람의 표준(人極)을 세우셨다.(聖人定以中正仁義, 而主靜, 立人極焉)”에 나타난다. 강당 中正堂과 앞에 있는 동 서재의 현판은 居仁齋와 居義齋이다. 또한 거인(居仁)과 거의(居義)는 『맹자』의 “내 몸이 인(仁)에 머물러 의(義)를 말미암을 수 없다는 것은 스스로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인은 사람의 편안한 집이고 의는 사람의 바른 길이다.(吾身不能居仁由義 謂之自棄也. 仁人之安宅也 義人之正路也)”에 나온다. 이는 인과 의가 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도동서원 강학 공간에서 강당 중정당이 中·正을, 동재가 仁, 서재가 義를 표상한다. 도동서원의 교학정신은 성인을 바라며 일상생활에서 中·正·仁·義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학정신이 강당과 동서 양재의 당호로 상징한 것이다.

13. 『朱子全書』 卷66, ‘齋居感興二十首’ 第10首의 1句.

도동서원의 문 이름은 환주문(文喚主)이다. 창립초기부터 있었던 서원 문이다. ‘내 마음의 주인을 부른다.’ 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갓 쓴 선비들은 고개를 숙여야 들어올 수 있을 만큼 문이 낮고 두 사람이 함께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좁게 지어진 작은 문이다. 문지방 자리에 꽃봉오리 문양의 돌부리가 있어 더욱 출입이 조심스럽다.

6) 남계서원

남계서원의 문루 현판은 ‘風詠樓’이다. 풍영루는 서원 창설 후 19세기에 이루어졌다. ‘風詠’이란 『논어』에 나오는 “기수에 멍감고 무에 올라 바람을 쐬고 노래하며 돌아오겠습니다.”(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라는 曾點의 말에서 딴 것이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를 알아준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냐? 고 질문하자 위와 같이 증점이 대답하였다. 이에 대해서 “공자께서 탄식하면서 나는 점과 함께 하겠노라.”(夫子喟然嘆曰 吾與點也) 하였다. 주자는 증점의 이 말에 대하여 “마음이 유연하여 곧바로 대자연과 혼연일체가 되어 심오한 경지를 얻으니 이는 은연중 말로써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其胸次悠然 直與天地萬物 上下同流 各得其所之妙 隱然自見於言外-『論語集註』, ‘先進’)라고 해석하였다. 또 程顥는 “음풍농월하며 돌아와 나는 증점과 함께 하리라.’는 뜻을 지니게 되었다.”(吟風弄月以歸 有吾與點也之意- 程顥, 『二程全書』 遺書).라 하였다.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를 줄인 ‘風詠’이란 말은 대자연과 하나가 되는 경지를 말한 것이다. 풍영루에 오르면 이러한 天人合一의 경지를 의미하는 내용이 풍영루 기문에 보인다. 정여창의 후손 정환필의 ‘풍영루기’에 “사방으로 바라보이는 경치가 들판이 평평하게 넓고, 냇물이 감돌아 얹히듯 했는데, 먼 숲은 푸르고 저녁노을이 아름답다(臨有四望之攸同 郊垌平曠 川澤縈洄 遙林蒨晚靄).”하였다. 또 “이 다락에 오르면 넓어지는 마음과 편안한 정신이 자연 속에 자맥질하여서 유연(悠然)히 스스로 얻은 것이 있는 뜻이 있다. 頭流山의 만첩 봉우리와 花林川 아홉 구비의 흐름에서 거의 선생의 風標를 보고 선생의 氣像을 우러러 볼 수 있음이니, 흡사 선생이 계신 자리에 뒹고 서서 曾點이 쟁그렁하고 비파를 밀쳐놓던 뜻이 있는 듯하여 風詠樓라 이름 하였다(登斯樓也則心廣神怡 涵泳灑落 悠然有自得這意 矧乎頭流萬疊之峰 花林九曲之流 庶可以覽先生之清風 抑先生之氣象 恰若列侍函筵 有點也鏗爾舍瑟之趣 故因名之風).”고 하였다. 奇正鎮의 風詠樓 기문에는 정여창의 기상을 曾點에 비유한다. “정여창 선생 심오하신 학문과 독실했던 행실이 어떠하였던가. 또한 ‘외로운 배로 큰 강을 내려간다.’ 라는 글귀를 음미하니, 은연중에 舞雩에 바람 쏘이고 沂水에서 목욕하곤했던 기상이 있다. 이는 어찌 멀리 사모하고 바람으로써 얻어진 것이리오. 지킴이 오래되면 절로 이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一蠹先生淵源實學. 雖非後生之所蠡測. 集諸先生之尙論而想像之. 蓋所謂不動而敬. 不言而信者. 其深厚篤實何如也. 及味孤舟下江數句. 則隱然有風浴氣像. 此豈懸慕企望而得之哉).” 하였다. 풍영루에 올라서 느껴지는 ‘風乎舞雩 詠而歸’ 하는 기상은 남계서원이 제향하는 정여창의 기상이란 것이다. 풍영루에서 남계서원 앞에 전개된 경치를 바라보는 감회는 一蠹 정여창이 지리산 유람을 다녀오며 지은 頭流詩 “風蒲泛泛弄輕柔, 四月花開麥已秋, 看盡頭流千萬疊, 孤舟又下大江流”에 보이는 기상이란 것이다. 결국 문루 풍영루는 “마음이 유연하여 곧바로 대자연과 혼연일체가 되어 얻게된 심오한 경지”를 의미한다. 이 경지는 남계서원에서 바라보는 전망 경관에서 느껴질 수 있다. 이는 또한 남계서원의 제향 인물 일두 정여창의 기상이기도 하다. 문루 풍영루 현판은 남계서원의 전망경관, 이미지와 대자연과 하나가 되는 천인합일의 경지, 그리고 일두 정여창의 기상을 하나로 상징하는 기호 경관이 된다.

남계서원 창설을 주도한 개암 강익은 ‘남계서원기’를 통해 서원의 강학공간과 제향 건물들의 당호가 품은 의미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

“... 강당 이름을 명성(明誠)이라 함은 중용의 ‘명즉성의 (明則誠矣)’란 뜻을 취함이요. 강당 협실(夾室)을 좌는 거경(居敬)이라 하고 우는 집의(集義)라 함은 정자의 말씀 ‘거경궁리(居敬窮理)’와 『맹자』 ‘집의이생(集義以生)’이란 뜻을 취함이요. 재실의 동을 양정(養正)이라 함은 『주역』의 몽이양정(蒙以養正)에서, 서(西)를 보인(輔仁)이라 함은 증자의 말씀인 ‘이우보인(以友輔仁)’에서 취함이요. 동헌을 愛蓮이라 하고 서헌을 영매(詠梅)라 하고 대문을 준도문(遵道門)이라 하였으니 모든 명칭이 각각 의의가 있는지라 액(額)을 선사하기를 濫溪書院이라 함은 서원이 濫溪水 위에 있음이로다...”

남계서원 강당 현판은 明誠堂이다. 『中庸』, 第21章 1절에는 “참됨으로 말미암아 밝아지는 것을 본성이라고 하고 밝힘으로써 참된 것을 가르침이라 하니 참되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참된 것이다.(自誠明 謂之性 自明誠 謂之教. 誠則明矣 明則誠矣)”하였다. 가르침을 통해 참된 본성을 밝히는 것을 남계서원의 교학 이념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강당의 동쪽 협실 현판은 居敬齋이다. 姜翼의 書院記에 居敬이란 程子の ‘居敬窮理’에서 뜻을 취한 것이라 하였다. ‘居敬窮理’는 『朱子語類』 卷9 學3 論之下에 나온다. 즉, “학자의 공부는 오직 거경과 궁리 두 글자에 있으니 이 두 가지 일은 서로 계발한다. 능히 리를 궁구하면 거경의 공부가 점점 나아지고 능히 거경하면 궁리의 공부가 날로 더욱 정밀해진다.”(學者工夫, 唯在居敬, 窮理二事. 此二事互相發. 能窮理, 則居敬工夫日益進; 能居敬, 則窮理工夫日益密) 하였다. 강당의 서쪽 협실 현판은 集義齋이다. 集義는 『孟子』의 ‘集義所生’의 뜻을 취한 것이다. 즉 浩然之氣는 道와 짝이 되는 義를 축적해서 생기는 것이니 갑자기 엄습하듯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교학이념 明誠은 꾸준한 居敬 공부와 오랫동안의 義를 축적해서 생겨나는 호연지기 함양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는 공부론을 현판이라는 기호 경관으로 상징화한 것이다.

남계서원 서재의 현판은 輔仁齋이다. 書院記에 ‘以友輔仁’의 뜻이라 하였다. 『論語』 顏然 편에 “군자는 글로써 벗을 사귀고, 벗으로써 인을 돕는다.”(曾子曰, ‘君子以文會友, 以友輔仁’)라 하였다. 동재의 현판은 養正齋이다. 書院記에 ‘蒙以養正’의 의미라 하였다 『周易』 蒙卦 彖辭에 “교육함으로써 사람을 바르게 기르는 것은 성인의 공덕이다.(蒙以養正, 聖功也)”하였다. 동서재의 현판의 의미 ‘蒙以養正’과 ‘以友輔仁’은 유생이 서로를 깨우치며 공부에 매진해야 한다는 교학정신을 상징하는 기호경관이다. 특이하게 남계서원 동 서재는 앞에는 작은 방지가 있다. 이 연못을 완상하는 마루 愛蓮軒과 詠梅軒이 양정재와 보인재에 붙어 있다. 문루 풍영루와 어울리는 남계서원의 風詠하는 기상을 나타낸다.

서원 문루 풍영루 내측에 ‘遵道門’이란 외삼문 현판이 걸려 있다. 정환필의 ‘風詠樓記’에 “遵道란 이로 말미암아 행하면 도가 여기에 있다.(遵道者由是而行道在斯焉)”라는 뜻으로 풀이했다. ‘遵道’는 中庸 10장에 나오는데,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군자가 도에 좇아 행하다가 중도에서 그만두기도 하는데, 나는 그만둘 수 없다. 군자는 중용에 의탁하여 세상을 숨어 살아 알아주는 이 없어도 뉘우치지 않으니, 오직 성자라야 그렇게 할 수 있다.”(君子遵道而行, 半塗而廢, 吾弗能已矣. 君子依乎中庸, 遯世不見知而不悔, 唯聖者能之). 남계서원 대문 현판 ‘遵道門’은 군자는 세상이 알아줄까 근심하지 않고, 힘들더라도 중도에 그만두지 않고, 중용에 의탁하여 도를 실천궁행해야 한다는 교학정신을 상징한다.

7) 돈암서원

遯巖書院 문루 현판은 ‘山仰樓’이다. 山仰樓는 최근 건립되었으나 이곳으로 서원을 옮기기 전의 서원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산양루는 돈암서원의 제향 인물 沙溪 金長生의 ‘養生樓記’에 나오는 “仰而樂山。俯而觀水 觸物悟理 涵泳優游”의 ‘仰而樂山’에서 취한 것으로 보인다.¹⁴ 遯巖書院은 1634년에 창립되었는데, 1980년에 현재의 장소로 移建되었다. “仰而樂山 俯而觀水”이라는 서원 입지와 경관 특성은 현재 서원이 아닌 과거 서원의 입지 경관이다. ‘仰而樂山’이 이미지는 과거 서원 자리에서 멀리 남으로 大屯山과 북으로 鷄龍山을 바라보는 경관에서 도출되었을 것이다. 공자는 仁을 따르는 마음을 『詩經』의 “높은 산을 우러르고 큰 길을 따라간다.”(高山仰止 景行行止)로 표현하였다. 산양루의 ‘山仰’도 높은 산으로 상징되는 仁을 우러르며 좇는 沙溪의 정신세계를 나타낸다고 해석된다.

최근에 현재 자리로 이진된 돈암서원은 강당에 해당하는 건물이 여럿이다. 따라서 당호 현판도 凝道堂, 養性堂, 靜會堂 등이 있다. 서원이 옮겨지기 전의 자리에서 강당 자리에는 응도당이 위치했으나 지금은 養性堂이 강당 자리에 있다. 養性堂記에 의하면 沙溪가 이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이름을 바꾸어 ‘양성당’이라 하였다. 沙溪는 ‘養性堂’이란 ‘오래도록 힘들여 쌓아온 곳’이라는 의미로 늙더라도 게으르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고자 붙였다고 하였다. 凝道堂은 돈암서원의 원래 강당이었다. ‘凝道’란 ‘도가 응집한다.’는 뜻으로 『中庸』에 나온다. 靜會堂은 김장생의 아버지 金繼輝가 1557년(명종 12)에 파직되어 낙향한 후 연산현 별곡 양산리에서 후학을 양성하던 곳이다. ‘靜會’란 고요히 모인다는 의미이다. 이 정회당이 훗날 돈암서원을 건립하는 기반이 되었다.

돈암서원의 사당은 唯敬祠라고 하나 지금 사당에는 崇禮祠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김장생, 김집, 송시열, 송준길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까지는 이 승례사에 ‘遯巖書院(1660년)’ 현판을 걸었었다. 돈암서원의 대문 현판은 入德門이다. 송시열의 글씨인 遯巖書院 현판은 입덕문 바깥쪽에 걸려 있다.

8) 무성서원

무성서원은 서원의 설립 내력, 제향인물, 입지 등에서 다른 8개 서원과 다르다. 다른 서원들은 도학 계열이 유학자를 제향하고 한적한 경승지에 입지한다. 무성서원은 신라 말의 인물인 崔致遠을 제향하기 위해 고려 시대에 건립된 泰山祠에 기원한다. 원래 流觴臺에 있던 태산사를 1484년(성종 14) 丁克仁의 鄉學堂 자리로 이진한 것이다. 무성서원은 지방 수령이 건립을 주도하고 이곳 수령을 역임한 최치원, 申晳 등을 제향하며, 입지 장소도 한적한 경승지가 아닌 읍치 내부이다. 이러한 무성서원의 특성은 서원 이름 무성이 신라시대 지명이며 또한 공자의 제자 子游가 다스린 읍의 이름을 딴 것에서 나타난다.

무성서원의 문루는 ‘絃歌樓’이다. 현가루는 ‘絃歌之聲’을 의미하는데, 아래 인용문처럼, 읍이 크던 작던 간에 다스림은 반드시 禮樂으로 해야 한다는 공자의 教化 思想을 나타낸다. 絃歌樓의 ‘絃歌之聲’이 함축하는 의미는 心學 중심의 신유학의 內聖 추구가 아닌 前漢 儒學의 經世의 教化와 관련된다.

14. 若早尋初服 仰而樂山 俯而觀水 觸物悟理 涵泳優游 則未必無助於心地上工夫 - 『沙溪先生遺稿』卷5, 記, 養性堂記.

공자께서 武城에 가서 음악 소리를 들으셨다. 선생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닭을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는가.” 하고 말씀하셨다. (이에 무성의 수령으로 있는) 子游가 대답했다. “예전에 선생님께서 군자가 예악을 배우면 사람을 사랑하고 백성이 예악을 배우면 부리기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그대들이여 자유의 말이 옳다. 앞에서 한 말은 농담이었다.” - 『論語』陽貨 4.

무성서원 사액 현판과 현가루 현판은 이 서원의 독특한 유래와 의미를 상징한다. 태산이라는 옛 사우 이름에도 불구하고 ‘武城’이란 이름을 사액한 것과, “絃歌之聲”의 고사를 딴 문루 현판은 이 서원이 內聖을 추구하기보다는 興學과 禮敎의 교화를 통한 外王을 교학 정신으로 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무성서원은 강당 현판이 별도로 없고 무성서원이란 서원 현판만 있다. 무성서원 현판이 걸린 강당은 전후에 입지한 문루와 사당에 시각적으로 개방되어 있어 다른 서원의 강당에서 느끼는 독립적 권위공간의 이미지와 다르다. 무성서원의 동 서재에 해당하는 건물이 講修齋이다. 강수재는 강당과 문루 사이에 입지하지 않고 서원의 좌측에 별도의 영역으로 자리하고 있다.

무성서원의 사당 당호 현판은 ‘泰山祠’이다. 태산은 통일신라 시대의 현 이름이다. 사당 당호를 지명으로 한 것 역시 특이하다. 태산사 현판은 다른 서원의 해서체의 단정한 서체와 다르게 좌수체로 유명한 石田 黃旭(1898-1992)의 글씨이다. 무성서원의 독특한 정체성은 서원 이름에서부터 문루와 사당의 당호 현판에까지 기호 경관으로 상징화되어 있다.

9) 필암서원

필암서원의 문루 현판은 ‘廓然樓’이다. 확연루에 올라서면 앞에 펼쳐진 평야의 모습에서 ‘廓然樓’가 의미하는 ‘廓然大公’을 느낄 수 있다. 탁 트인 경관처럼, “私心이 없다면 크게 公正할 수 있고, 外在 사물 세계에 대해서도 義理에 맞게 잘 처리할 수 있다.”(廓然而大公 物來而順應)는 정신세계가 ‘廓然大公’이다. “대체로 천지의 상도는 그 마음이 만물에 두루 미쳐서 사심이 없는 것이며, 성인의 상도는 그 정이 만사에 순응하여 사정이 없기 때문이다. 고로 군자의 학문은 확연히 공정하여 만사 사물이 왔을 때 그대로 받아들여 따를 뿐이다.”(夫天地之常 以其心普萬物而無心, 聖人之常 以其情順萬事而無情 故君子之學 莫若廓然而大公 物來而順應).”¹⁵ 明道 程顥의 말이다. 지금 필암서원 확연루에 걸린 河西 金麟厚의 후손 金時絜의 ‘廓然樓記’에 풀이된 확연루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아, 내 삼가 우암의 은미한 뜻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편리하게 생각한 적이 있다. 程子의 말에 “군자의 학문은 확 트이게 넓혀 크게 공정하게 하고서, 사물이 다가오면 의리에 맞게 순응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주자가 연역하기를 “확 트이게 넓혀 크게 공정하게 한다는 것은 仁이 體가 되는 것이고, 사물이 다가오면 의리에 맞게 순응한다는 것은 義가 用이 되는 것이다. 仁이 확립되고 義가 행해지면 본성이 고요해져서 이 세상의 움직임이 한결같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대개 사람의 한 치 마음이 담박하여 텅 비고 밝아서 사사로운 생각이나 잔꾀에 얽매임이 없게 되면, 거울처럼 텅 비고 저울대처럼 평평하여 치우치지 도 기대지도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中에 늘 마음을 두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연히 마음이 확 트이

15. 『二程文集』 권3, 明道文集3, 「答橫渠先生定性書」; 『近思錄』 권2, 「爲學」.

게 되어 밖에서 비추는 것들이 그에 순응하지 않음이 없게 될 것이다.(嗚呼竊嘗妥意,尤翁之微旨居可知矣.程夫子之言曰,君子之學莫若廓然而大公物來順應.朱子演之曰,廓然而大公者,仁之所以爲體也.物來而順應者,義之所以爲用也.仁立而義行,則性靜而天下之動一矣.蓋人方寸之地,湛然虛明而無私智之爲累,則鑑空衡平存諸中者,自然廓然而見於外者無不應矣).

확연루 이름은 尤庵 宋時烈이 짓고 현판도 직접 썼었다고 한다. 그러나 우암 자신이 廓然樓의 의미를 분명히 밝힌 것은 아니다. ‘확연루기’의 작자 金時稔은 黃庭堅이 주염계의 기상을 ‘光風霽月’로 형용한 것처럼, 尤庵도 河西를 尊崇하는 마음을 “나타난 것을 미묘하게 하고 깊숙한 것을 드러낸다(微顯闡幽)”¹⁶는 방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짐작한다.

필암서원 강당은 淸節堂이다. 청절당 현판은 동춘당 송준길(同春堂 宋浚吉, 1606~1672)의 글씨로 전한다. 進德齋는 필암서원의 동재이다. 진덕재 현판 글씨는 동춘당 송준길(同春堂 宋浚吉, 1606~1672)의 글씨로 전한다. 崇義齋는 필암서원의 서재이다. 역시 宋浚吉의 글씨이다. 필암서원은 齋舍가 강당 뒤 사당 앞에 위치하고 강당이 사당 쪽으로 띄어져 동·서재와 사당이 함께 눈에 들어온다. 前低後高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는 平地 입지 서원에서 祠堂을 드러내어 尊崇하기 위한 공간구성 방법으로 생각된다.

필암서원 사당은 ‘祐東祠’이다. 주자의 글씨를 집자한 것으로 전한다. 우동사 안에는 북쪽에 하서 김인후, 동쪽에 고암 양자징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필암서원은 독특하게 藏經閣을 서원의 중심부에 두었다. 장경각 현판은 정조 어필로 전한다. 하서 김인후를 문묘에 배향코자 할 때 정조가 내탕금으로 경장각을 세우도록 했으며, 인종이 하사한 묵죽도 판각을 보관한 곳이다.

5. 서원 당호의 교학적 의미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향

유교는 가르침과 배움을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교학 사상이다. 유교의 교학정신은 서원 당호 현판에서 집약적으로 상징화되어 나타난다. 당호 현판은 서원이 추구하는 세계관 가치관을 상징하는 기호 경관이다. 9개 서원을 대상으로 살펴본 서원 당호의 상징적 의미는 크게 두 갈래이다. 하나는 仁을 중심으로 하는 유교의 핵심 개념을 당호 기호경관으로 나타낸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자연 풍광을 즐기며 천인합일이 경지를 느끼는 仁智之樂의 당호 기호경관이다.

유교 개념의 당호는 仁을 중심으로 敬, 義, 中, 正, 德, 道, 誠, 禮, 教 등이 직접적으로 혹은 함축적으로 현판에 올라 있다. 仁智之樂의 당호는 至樂, 晚對, 無邊, 水月, 風詠, 絃歌, 山仰, 廓然, 愛蓮, 詠梅 등 문루와 마루의 현판과 주로 관련된다. 한국 서원에서 주목할 것은 이 두 가지의 개념어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문과 문루에서 시작하여 동서 양재를 거쳐 강당에 오르고, 가장 높은 사당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연풍광을 즐기는 인지지락과 성인의 학문은 장소적으로 개념적으로 항상 함께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당호 현판에서 알 수 있다. 배움과 즐거움이 함께 한다는 것은 유교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초점인

16. 『周易』「繫辭傳」.

데, 이것이 서원 당호에 충분히 녹아 있다.

주요한 유교 개념이 당호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옥산서원의 亦樂門·敏求齋·闇修齋·求仁堂·體仁廟는 仁을 이루는 단계로 봐도 좋을 것이다. 도동서원의 강당 中正堂과 양재인 居仁齋·居義齋는 『태극도설』의 “聖人定以中正仁義”를 당호라는 기호를 사용하여 그대로 구현한 것이다.

서원의 당호는 그 서원의 고유한 정체성을 나타낸다. 특히 서원의 제향인물의 지취가 당호에 상징화되어 있다. 도동서원의 水月樓, 남계서원의 風詠樓, 필암서원의 廓然樓가 대표적이다. 결국 서원 당호는 서원의 개성, 교학정신, 그리고 자연풍광과 어울리는 풍류정신까지 함축적으로 담은 기호 경관이 된다. 현대는 인성 교육과 자연친화 교육이 강조되는 시대이다. 이 두 가지 방향의 교육 현장이 하나로 된 곳이 서원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다.

서원의 당호는 보다 쉽게 이해되는 그림이나 조각품이 아니다. 문자로 된 기호이며 그것도 읽기 어려운 한자로 표기되어 있다. 유교문화의 현대적 가치를 믿고 그 현장인 서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심오하지만 읽혀지지 못하는 서원 현판을 대중들에게 젊은이들이 읽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한국 사람의 학습능력은 세계적으로 정탄을 자아낸다. 서원 현판에 대한 이해가 “즐거움이란 이런 배움을 즐기는 것이요. 배움이란 이런 즐거움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옛말이 현대의 서원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

1.c 비교연구

동아시아의 서원 : 빛나는 교육 전통

1181년,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가 중 한 사람이었던 주희(Zhu Xi, 朱熹)(1130-1200)는 자신의 논적인 육구연(Lu Jiuyuan, 陸九淵)(1139-1193)에게 자신의 서원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백록동서원(Bailudong shuyuan, 白鹿洞書院)은 동아시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서원이라고 볼 수 있다. 백록동서원은 주희가 서원의 모델로서 건립했으며 서원의 규범을 작성한 것으로 유명하다. 서원 규범이 채택된 후 지난 800년 동안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및 베트남의 수 백만 명의 학생들이 이 규범을 다시 암송하면서 자신의 학습 과정으로서 습득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당시 육구연의 강연 내용은 사상 토론, 강연 및 학습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서원의 목적에 대한 것이었다.

서원(shuyuan, 書院)은 동아시아의 오랜 역사에 걸쳐 지속되어 온 가장 중요한 학습 기관 중 하나이다. 지난 천 년 동안 중국에는 동시에 최소 8,000 개의 서원이 존재했고 한국에는 1800년까지 800개 이상의 서원이 존재했다. 한국과 중국에서 서원은 당시 왕조가 설립하고 관리하던 공립 학교와 경쟁하고 결과적으로 공립 학교를 능가했던 중추적인 교육 기관이었다. 당시 교육 사상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은 중국의 주희(Zhu Xi)와 한국의 주세붕(周世鵬)(1495-1554) 그리고 이황(李滉)(1501-1570)이다.

1130년에 태어난 주희는 매우 총명하고 성숙한 젊은이로서 당대의 핵심 사상가로 성장했다. 일반적으로 “예학(Learning of Principle, lixue)”으로 구분되고 서구에 “성리학(Neo-Confucianism)”으로 알려져 있는 주희의 철학은 중국 세계관과 도덕관의 토대가 되었으며, 유학에 대한 주희의 비평은 주희의 사후 수세기 동안 전통 사상의 위상을 정립했다. 하지만 주희는 무엇보다도 백록동서원의 설립자로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주희가 백록동서원을 복원한 것은 19세기를 향한 중국의 교육 경험의 초석인 서원의 부활의 시작을 의미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유명 서원인 소수서원(紹修書院)과 도산서원(陶山書院)을 설립한 주세붕과 이황은 주희의 사상을 혁신적으로 계승하였으며 서원의 설립을 통해 이후 500년 동안 한국의 사상적 기반의 형이상학적 그리고 교육적 철학 기반을 구축했다.

주희의 영향력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는 서원은 여러 개가 있다. 백록동서원 외에도 아호서원(鵝湖書院)과 악록서원(岳麓書院)이 있다. 악록서원은 10세기 말에 설립되었으며 아직도 운영이 되고 있는 전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등 교육 기관 중 하나이다. 악록서원은 현재 호남 대학교(Hunan University)에 소속되어 있다. 1167년, 악록서원의 대표였던 장식(Zhang Shi, 張栻)(1133-1180)의 초청으로 주희는 악록서원을 방문하였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이 성리학 이론의 여러 주요 이슈를 토론을 하였다는 점에서 주희의 악록서원 방문은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논쟁은 "인간성"(또는 인(仁, humanness, jen))의 의미에 대한 토론이었다.

마찬가지로 이황 또한 설립자인 주세붕이 서원은 떠났지만 아직 생존해 있었던 1550년에 소수서원을 방문하였다. 설립자인 주세붕이 소수서원을 주희의 성리학 사상을 한국에 도입한 고려 시대의 학자 안향(安珦)(1243-1306)에게 바치고자 했던 뜻에 따라 이황은 조선 명종(明宗)(r. 1545-1567)에게 성리학의 선구자이자 대스승인 주희를 기념하여 공식적인 위상과 현판을 요청하는 서안을 보냈다. 이렇듯 학자들 간의 서로에 대한 존경과 우정 덕분에 소수서원은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교육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황이 설립한 소수서원과 도산서원은 시대를 거슬러 19세기 말 그리고 현재까지도 유교 학습의 중요한 전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 동아시아 서원의 기원

서원이라는 용어는 8세기부터 중국에서 사용되어 왔지만 보통 개인적인 학습 공간 또는 가족이 설립한 학당을 가리키는 용어였다. 10세기 말 효과적이고 통일적인 지배력을 가진 중앙 정부가 등장한 이후에도 사립 학당은 사회적 그리고 정부의 지원과 승인없이 존속되었다. 이런 사립 학당은 공립 학교를 보완하는 기관으로서 여기에서 가문의 자제들이 중국의 관료 및 엘리트 계층이 되기 위한 관문인 과거 시험을 준비하였다. 그 이후 천 년 동안 과거 시험은 부, 특권 및 지위라는 사회적 보상을 분배하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되었다. 좋은 가문의 자제들은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관직에 입문하고 싶어 했다.

주희는 정부가 개입되지 않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고 공자와 같은 위대한 사상가와 선현들이 후대에게 남긴 글과 사상을 공부하여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한 진정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개인의 학습에 중점을 두는 교육 사상을 강조했다. 주희에게 서원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간이었다.

교육에 있어서 개인의 영역을 구축하기 위한 성리학의 노력은 중국의 교육 역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한국에서도 이런 사상이 상당히 일찍 주목을 받았다. 1278년 몽골이 중국을 정복했을 당시, 중국에는 이미 400개가 넘는 서원이 설립되어 있었다. 그 이후 서원은 한국의 주요 교육 기관으로 성장했으며 16세기 당시 서원의 수는 600개 이상에 달했다.

2. 서원, 산간 지역 그리고 교육에 대한 동아시아의 전통 사상

주희의 사상을 따르는 초기 서원들은 평화롭고 조용하며 경치가 좋은 산간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통적인 중국 및 한국 문화에서 학자들이 외지고 조용한 산간 지역을 선호하는 특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필자는 이런 경향이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중국 및 한국의 사상가들 모두 이런 산간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에 매료되었으며 자연 환경과 명상을 연관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선호도가 나타내는 교육 철학과 유수의 유교 또는 성리학 사상자들이 서원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역사적 맥락에는 모두 이런 사상

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런 선호도는 전세계 보편적인 성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수도원에 대한 서구의 이상 또는 비하라(vihara)에 대한 불교적 이상 또한 평화롭고 외진 환경에서만 진정한 학습이 가능하다는 비슷한 신념을 기반으로 한다. 일부의 경우 서원의 이름에 “정사(residence of mind, 精舍)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푸른 산 중의 소박한 오두막에는 정적이 흐르고 오직 단순함과 고요함이 존재할 뿐 마음을 구속하는 불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자연 환경이 자신이 추구하려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라는 점은 말할 나위도 없다. 많은 한국 서원은 지금도 이런 “정사”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사를 서원 대표의 처소로 사용하기도 했다. 한국 서원 또한 외진 산간 지대에서 자주 발견되었다. 앞서 언급한 소수서원과 도산서원도 모두 조용하고 외진 산간 지대에 위치해 있다. 병산서원(屏山書院)의 정경세(鄭經世)(1563-1633)와 같이 후대의 많은 서원 설립자들도 목적의식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서원 이름과 같은 산간 지대에 서원을 설립했다. 말 그대로 병산(屏山)은 벽면처럼 생긴 산을 의미한다. 또 다른 예로서 무성서원(武城書院)은 17세기 초에 두 명의 애국적인 현관 최치원(崔致遠)(857-951)과 신잠(申潛)(1491-1554)을 기리기 위해 설립되었다. 무성서원 또한 산간 지대에 위치한다. 하지만 이런 경향을 제대로 확립한 서원은 이황의 도산서원이다. 도산서원은 중국 시인 도연명(Tao Yuanming, 陶淵明)이 시간과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 어느 멀고 외딴 나라의 상상 속 마을의 아름다움과 고요함 그리고 호젓함을 극찬한 <도화원기>와 비슷한 형식으로 이황 자신이 쓴 <도산기>에서 이름을 따왔다. 도연명이 그려낸 상상 속 자연 환경은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잘 알려져 왔다.

중국 교육의 핵심적 이슈는 언제나 자비롭고 도덕적으로 정부를 올바르게 운영하기 위해 황제를 보좌하는 관직을 맡을 남성들을 교육하는 것이었다. 관료를 선발하기 위한 과거 시험은 11세기에 그 체계를 갖추고 완성되었다. 주희가 자신의 학문 사상을 주창할 당시에 중국의 수 십 만 명의 과거 시험 응시생들은 일 년에 3회의 시험을 준비하면서 큰 고통을 받고 있었다. 당시 중국 젊은 남성들은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교육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서원은 교육의 목적을 두고 당대 정부와 경쟁해야 했다. 한국에도 과거 시험 시스템이 구축되었지만 한국의 과거 시험은 중국과는 차이가 있었다. 중국이 9세기 이후 귀족제를 거치지 않고 군주제를 채택한 반면 한국은 광범위하게 귀족제가 구축되었고, 과거 시험 체제는 귀족이었던 양반이 운영하고 관리하였다. 요약하자면, 중국의 과거 시험이 관료를 양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메카니즘이었다면 양반 제도를 유지하였던 한국의 경우에는 양반 자체만이 관료가 될 수 있는 과거 시험에 참가할 수 있었다. 양반 지위는 상속되었지만, 지역 영향력을 가진 평민들이 증가하면서 학식이 양반 지위의 더 확실한 표시가 되었고 16세기 이후 양반 제도가 유동적이 되면서 서원이 더욱 존경받게 되었다. 서원에서 고전을 공부한 지주는 지역 평민들에게 양반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었다.

중국의 시험 제도는 표면상으로 다른 사회 계층보다 월등한 수입, 권력 및 영향을 갖게 되는 관료를 양성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남성들이 시험을 볼 수 있었지만, 중국 유생들은 과거 시험이 위기지학(爲己之學), 즉 “자기 수양을 위한 학습(learning for one's own sake)”이라는 유교적 교육의 핵심 목적에 심각한 폐해를 미친다고 비판했다. 주희는 “위기지학”을 주창하는 사상가였으며 학생들에게 도덕성 및 도덕적 세계에 대한 자신의 의무에 대한 자각을 교육하는 것을 서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았다. 중국 지식인들은 곧 이 사상과 서원의 설립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고귀한 사상이 확산되고 있었지만, 젊은이들은 서원에서 공부하면서도 과거 시험을 계속 보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 양반들에게 학습은 당연한 것으로서 서원의 설립은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 의무와 더불어 사회적 우위 계층으로서의 학생들의 자가 이미지와 대립되지 않았다. 그래서 관료라는 지위와 도덕성 함양 간의 모순을 끊임없이 되새겨야 하는 과거 시험에 합격한 유생들에게 한국의 서원에서의 학습은 그렇게 어려운 의무가 아니었다. 과거 시험 공부와 서원의 학습은 하나였다. 따라서 관료의 의무와 서원에서의 학습에서 비롯되는 차이점이 평민들에게 유교적인 도덕적 가르침을 반영하는 도덕적 모범을 세우고 동시에 훌륭한 관료도 제공해야 한다는 중요한 조건을 훼손하지 않았다.

16세기 초부터 왕양명(Wang Yangming, 王陽明)(1473-1529)과 같은 성리학 사상가들은 모든 인간은 도덕적으로 완성될 수 있는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대중 교육(mass education) 또는 민중 교육(popular education)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대중 강연이 평민들의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으며 서원은 이런 강연을 위한 만남의 장소가 되곤 했다. 대중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서원을 교육 대상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도심 근처에 설립하는 것이 중요했다. 중국에서 17세기의 많은 서원들이 대중 강연을 열었다. 이런 대중적 교육 활동은 중국 제국 시대 말의 학문 및 정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교육 발전 과정은 중국과는 약간 차이가 존재한다. 서원과 과거 시험의 긴밀한 관계가 사회 계층간의 이동(social mobility)을 위한 유일하고 중요한 관문이었으나 한국 서원은 양반 계층을 절대적으로 보존하는 역할을 했다. 따라서 과거 급제가 더 존경받을 수 있는 위치와 명예를 보장해 줄 수는 있었지만 과거 급제를 하지 못한다고 해도 양반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중국과 한국 교육의 내용은 유학이었지만 중국의 과거 시험 합격을 위한 경쟁은 한국보다 더 치열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흥미롭고 역설적인 상황으로 이어졌다. 교육적 측면에서 학문적 독립성에 역점을 두었던 서원이 중앙뿐만 아니라 지역 정부의 정치적 폐단에 항의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소가 되곤 했다. 중국보다는 과거 시험 경쟁이 덜 치열했던 한국에서는 서원이 정부의 압력으로부터 좀 더 독립적이었으며 정치 논쟁의 장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적었다. 17세기 중국 정부는 서원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여러 차례(1368년부터 1661년까지 명나라에서만 4차례의 폐쇄 명령) 내렸다. 한국 서원 또한 지역 권력 분쟁에 개입한 적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19세기(1871년)까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

3. 교육학, 서책 수집과 출판, 건축 및 학습의 즐거움

중국 서원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아마도 서원 건축 양식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공립 학교의 건축 양식과 비슷하지만, 서원의 건축 양식은 계속 발전하여 20세기 초까지 중국의 학교 건축 양식의 전형을 구축했다.

요약하자면, 전통적인 중국 서원은 상당히 개별화된 교육 과정으로 학생들을 교육하였다. 특히 이런 교육 과정은 대중 연설이 주요 학습적 방법이 아니었던 12세기까지 유지되었다. 스승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선호하는 교육 방법은 대화 및 토론이었으며 학생들은 스승의 사상을 발전시키고 보완하기 위해 이런 학습 과정에 참여했다.

자연스럽게 동일한 교육 방법이 한국, 일본 및 베트남에서도 발전하였다. 대중 강연에 대한 중국 명나라

말기 사상의 영향력이 비교적 크지 않았던 이런 나라들에서는 유학자인 스승과 함께 공부하는 소규모 학생들의 모임이 서원이 쇠락하던 마지막 시기까지 존재했었을 것이다.

서원은 서책 수집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했다. 11세기에 지어진 어느 시에는 “언제쯤 서원으로 돌아가서 수만 권의 책을 읽고 류트를 들고 바둑을 둘 수 있을까?”라는 구절이 있다. 이 시는 아름다운 풍경과 수많은 서책에 매료되어 학습의 즐거움을 느꼈던 나날을 그리워하고 찬미하고 있다.

서책 수집 활동은 경학(經學)과 이를 해석하는 철학적 작업을 이끌었던 성리학 사상가들의 교육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서원에서 장서각은 시작부터 중요하게 다뤄졌다. 반면에 중국 정부는 12세기 초반에 와서야 공립 학교에 서고를 짓도록 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교정의 중심부에 서고가 위치했다는 사실이다. 15세기 이후 거의 모든 서원에서 학교 교정의 축선을 따라 일직선으로 장서각을 배치하였으며 주로 공자 및 과거 또는 지역 명사들의 그림이나 신주를 모셔놓고 정기적으로 제사를 올리던 사당 겸 강의실 바로 뒤에 서재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놀랍고 역설적인 사실은 한국의 서원 또한 이황을 시작으로 유학의 중심 기관이 되었지만 한국 유학은 리(li, 理(원리))의 개념 및 원리의 다양한 발현에 대한 해석 방법, 주희의 이원적 해석이 “우주의 만물에서 스스로 발현되는 원칙(principle manifesting itself in the myriad of things in the universe)”의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 일원적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주희 사상의 잠재적 딜레마를 해결하고자 했던 이황의 일원적 또는 단일화된 접근법으로 대체되었다는 점에서 중국의 유학과는 독립적인 모습을 띠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한국의 서원은 공통적으로 유학의 중심 기관이었으며 서원과 과거 시험 간의 사상적 대립이 중국보다는 덜 했던 한국의 서원이 중국의 서원보다 더 유학의 중심적 기능을 했다.

한국의 서원에게도 서책 수집은 중요한 활동이었다. 서책의 양적 측면에서 볼 때, 한국 서원의 서책 수가 중국 서원보다 훨씬 적었지만 대부분의 한국 서원은 서책 인쇄에 쓰인 목판을 보관하였다. 한국이 중국보다 활자 인쇄를 더 많이 활용했지만 두 나라 모두 유학서를 계속 목판 인쇄로 생산했다. 많은 한국 서원들은 이런 목판을 보관하기 위한 특별 장판각을 건립했다. 이런 점은 서책을 인쇄하였지만 목판을 보관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중국 서원과 큰 차이점이다.

장서각과 관련해서도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중국 서원은 주요 강의실 뒤에 일직선으로 위치하는 장서각과 같은 주요 시설의 건축에 있어서 거의 모든 경우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 한국의 서원은 이런 상징적인 건축 양식을 따르지 않고 자연 환경에 좀 더 가깝도록 지어졌다.

초기 단계에서 서원의 강연 기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왕양명의 영향으로 중국 사상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었던 16세기 이후 강연 기능은 중요하게 되었다. 왕양명과 제자들은 대중 교육 및 강연 모임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이 중요해졌다. 대부분의 서원은 교정의 가장 중심부에 강의실을 마련하고 당시 존경받던 사상가들을 초청하여 여기에서 강연을 하도록 하였다.

중국에서 서원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공자와 유명 유학 사상가들의 제사를 모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서원에는 이런 중요한 롤 모델들의 신주를 모시는 특별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었다. 모든 서원에서 동일한 명사

들을 모시는 것은 아니었다. 많은 서원이 지역에서 유명한 지식인 또는 관료들을 기리기 위해 건립되었기 때문에 서원마다 모시는 신주의 대상은 달랐다. 하지만 중국 서원의 모든 사당에는 공자와 공자의 제자들이 모셔져있다. 그래서 제사를 모시는 것은 중국의 유학 서원의 교육 목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었다.

서원 설립자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여겨진 명사들을 위한 제사와 신주 봉안은 한국의 경우 더욱 큰 중요성을 가졌다. 대부분의 중국 서원이 주요 유학 사상자들과 일부 지역 인사들을 모시기 위해 건립된 반면, 한국의 서원은 유학자, 도덕적 인물 또는 애국 무사까지도 기리는 공간이었다. 서원을 방문한 사람은 누구나 이 서원이 누구를 기리기 위해 건립된 것인지를 쉽게 알 수 있었다. 한국 서원이 가지고 있는 제의(祭儀)적인 특성과 가치는 동아시아에서 유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한국 서원과는 달리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또는 베트남 서원에서는 이와 같은 제례가 그렇게 강조되지 않았다. 물론 지역 명사들의 제사와 숭배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 "봄과 가을 제사에만 정성을 들이고 있다"고 비판한 이재(李穡)(1680-1746)와 같이 일부 유학자들은 공부를 뒷전으로 미루면서까지 제사를 더 중요시하는 실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여기에서 한국과 중국 서원의 차이점이 나타난다. 한국 유학 역사의 다원적 특성은 존경하는 서원 설립자 및 선현들을 기리는 서원의 방식에서 나타난다. 반면에 중국의 학계에서 널리 제사의 대상으로 인정받았던 중요 인물은 한두 명 정도였다.

앞서 언급했던 차이점이 중국 서원과 한국 서원은 완전히 다른 기관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차이점도 있지만, 중국과 한국 서원은 명백하게 도덕적 수양(moral cultivation)과 지적 완성(intellectual integrity)을 위한 성리학적 노력을 기울였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런 다원적 가치는 주희의 유명한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unity amid diversity)"라는 격언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한국인들의 학문적 사상은 한국의 교육 과정에 밀접하게 반영되었다.

마지막으로 서원은 지식인들이 모여서 시를 짓고 감상하는 공간으로도 종종 사용되었다. 일부 서원은 수많은 그림(특히 학자들의 그림)과 서예 작품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한국 서원에서도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 한국 서원에서 유명한 사상가의 그림 또는 서예 작품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종합하자면 글 짓기와 그림 그리기와 같은 예술적 역량 강화는 유교 교육의 주요한 부분이었다. 최고의 유교 교육의 목적은 또한 음악과 마차술(chariotteering)을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는 현대적으로 관점으로 보자면 예술과 스포츠 역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부 중국 서원에 일명 "궁도 연습장(archery range)"가 있었다는 게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안타깝게도 실제적인 시설 및 프로그램 과정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하지만 스포츠 교육의 목적, 도덕적 관련성 및 물리적 이점에 대한 이론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원은 이런 시설을 갖추어야 했다.

반면에 한국 사상가들은 이 지점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유교적 군사 체계(Cofucian military commander)"가 자주 언급되었고 왕양명이 실제 이 사상을 구현한 사상가였지만 중국의 서원 역사에서도 군사 훈련이 유학자들의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점을 크게 강조하지 않겠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군사와 관료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고, "궁도 연습장"이 설치된 한국 서원의 존재가 알려진 바는 없지만 한국 서원에서는 중국 서원보다 더 많이 군사 지도자들의 신주가 모셔졌다.

4. 학규 및 서원의 교육적 성과

서원 교육이 부흥했던 결정적인 역사적 동기는 주희와 육구연과 같은 사상가들이 당대 교육의 현실에 불만을 가지고 개혁을 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11세기와 12세기, 중국 정부는 여러 차례 모든 공립 학교에 대한 규율을 발표했다. 이런 규율의 대부분은 본질적으로 정부의 법과 규율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었다. 많은 사상가들이 이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주희는 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 학습에 있어서 개인적인 주도성을 가지라고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다른 학교에서 따르고 있는 규율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주희는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주희는 "권고문(exhortations)"을 작성하고 제자들이 이 글을 암기하도록 했다 이것이 거의 모든 중국 학생들이 지난 800년 동안 배우고 암기했던 유명한 백록동규(Exhortations of the White Deer Hollow Academy, 白鹿洞規)다.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

위의 내용은 요와 순 두 왕이 교육 장관인 쉘(Hsieh)에게 널리 전파하라고 당부했던 바로 그 가르침인 오교(五教, the Five Teachings)이다. 공부하는 사람이 배워야 할 것은 이 다섯 가지 가르침이다. 적절한 학습 절차에 대해서도 다음의 다섯 가지 권고가 있다.

"광범위하게 공부하라, 신중하게 물어라, 깊이 생각하라, 면밀히 조사하라 그리고 진지하게 실천하라."

위의 내용은 학습 과정의 적절한 순서이다. 공부하고, 묻고, 생각하고 조사하는 과정은 가장 깊이있는 연구 조사의 원칙이다. 진지한 실천과 관련해서 개인 수양부터 일 처리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 이르기 까지 각 단계마다 제기되는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진실한 말을 하고 진정성있게 행동하라(Be faithful and true to your words and firm and sincere in conduct)."

"화를 참고 욕망을 다스려라(Curb your anger and restrain lust)."

"장점은 찾고 잘못은 고쳐라(Turn to the good and correct your errors)."

위의 내용은 개인 수양에서의 핵심 내용이다.

"도덕적 원칙을 지키고 이익을 위해 책략을 꾸미지 말고, 좋은 방법을 모색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계산하지 말라(Be true to moral principles and do not scheme for profit; illuminate(exemplify) the Way and do not calculate the advantage [for oneself])."

위의 내용은 일 처리에서의 핵심 내용이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Do not do to others what you would not want them to do to you)."

"성공할 지 못했을 때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라(When in your conduct you are unable to succeed, reflect and look [for the cause] within yourself)."

위의 내용은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핵심 내용이다.

쉬(Hsi)[나, Chu]는 선현들과 사상가들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 목적으로만 공부를 하라고 가르쳤으며 토론을 통해 제자들이 도덕적 원칙의 의미를 이해하여 자기 수양을 할 수 있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선현들과 사상가들은 제자들이 문구나 암기하고 관직만을 추구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오늘날 학생들은 선현들과 사상가들이 의도했던 학습 목적에 반하는 공부를 하고 있다. 선현들과 사상가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구현했던 방법들을 유학 고전에서 모두 배울 수 있다. 모든 학자들은 이 책들을 자주 읽고, 깊이 사색하고 난 후 이에 대해 묻고 조사해야 한다.

이런 원칙들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 공감한다면 이제 할 일은 누군가가 따를 수 있는 규칙과 금지 조항을 만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최근 학교마다 학칙이 존재하지만 학생들은 이를 대소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학칙을 세우는 것은 고대 선현들의 의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기 강의실에서는 이런 학칙을 적용하려고 애쓰지 않겠다. 차라리 선현들과 사상가들이 대중들에게 가르친 학습 방법의 핵심과 원리를 선택해서 문 위에 걸어 놓았다. 여러분은 서로 이 원리에 대해 토론하고 따르며 원리를 준수하는 것을 개인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생각과 말 또는 행동에서 신중하고 조심하는 사람은 학칙을 따르기 보다는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거나 내가 말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학칙"의 지배를 받게 되고 이 학칙에서 벗어날 길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에 대해 심사숙고 하길 바란다.

"백록동규"는 거의 모든 중국 서원이 채택하게 되는 학칙의 전형이 되었다. 사실 한국, 일본 그리고 베트남과 대만의 많은 서원들도 백록동규를 원규로 도입했다. 이황이 작성한 이산서원의 "원규"가 좋은 예이지만 여기에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 이런 학칙(그리고 모든 동아시아 서원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학칙)의 중요성은 지식 습득의 목적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긍정적 가치에 대한 강조에 있다. 학칙은 학생들의 마음과 정신에 높은 도덕성을 체득하고자 하는 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작성되었다. 서원의 원규와 중국 황제 시대 정부의 학칙의 차이점은 서원이 주창한 순수한 유교적 교육의 이상과 목적을 여실히 보여준다. 서원의 원규는 비석에 새겨 서원에 잘 보이도록 전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백록동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원의 원규는 자기 수양을 위한 학습과 도덕적이고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진정한 인간성의 체득에 대해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원마다 서로 다른 중점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원규에 포함되는 학칙의 중요도도 서로 달랐다. 예를 들어, 19세기 중국의 일부 서원에서는 체육 교육, 과학 및 기독교 사상과 같은 전통적인 유교적 교육 사상과는 상당히 다른 사상이 학칙으로 제정되기도 했는데, 이는 점점 더 현대적이고 다양한 교육 방향으로 변해가는 서원의 현황을 반영한다.

여전히 원규는 서원을 건립한 유학자들의 신념과 헌신을 반영했다. 또한 학생들의 위한 교육 사상을 가리켰다. 또한 원규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목적이 아니라 자기 수양을 위한 학습, 지식 습득의 의미는 도덕성 함양이라는 정의 그리고 학습의 목표는 인간성(인(仁)), 정의 및 도덕성의 측면에서 인간성 체득이라는 유교적 그리고 성리학적 교육 사상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사상은 19세기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사실 유교 서원은 일본에서 20세기 중반까지도 존속이 되었다. 중국과 한국 그리고 정도가 될 하긴 하지만 일본과 베트남의 학자들의 특성과 세계관이 서원의 교육 사상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5. 동아시아 서원의 쇠락

한국에서는 유학 전파의 교육 기관에서 현대 과학 또는 기독교를 가르칠 수 있는 기관이 되는 변화 과정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1871년까지 대원군은 공립 지역 학교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했던 유학 서원들에게 치명타를 가했다. 한국 서원은 유학을 더욱 신봉하였으며, 자체의 사회 구조 및 목적을 고수하였다. 중국과 한국 서원에서 나타난 서로 다른 변화 과정은 한국이 중국보다 더 다원적 사회라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과 한국은 비슷한 시기에 현대화를 시작했지만, 중국 서원이 한국 서원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현대화 과정에 참여했다. 서원 주창자들은 중국 서원은 1911년과 1949년 두 번의 혁명을 거치면서도 계속 존속되었다고 주장하며 국수주의 정부와 사회주의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어떤 약속도 실천하지 않았다. 마오쩌둥이 전통적인 유교 서원에 대해 우호적인 언급을 한 바가 있긴 하지만, 마오쩌둥의 문화 정책은 근본적으로 반 유교, 반 전통 사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1949년 이후 지난 50여 년 동안 서원이 중국 교육에 영향을 미치기는커녕, 존속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다수의 서원이 다시 복원된 것은 마오쩌둥이 사망한 이후였으나 대부분의 사원은 관광지 이상의 기능을 하지 못 하고 있다.

여기서 필자의 결론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서원은 유교적 교육 기관으로서 빛나는 역사를 구축했지만 서원의 사명은 이제 끝났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덕적 교육의 성과와 "자기 수양을 위한 학습"이라는 사상은 앞으로 공부를 하는 미래의 동아시아 학생들에게 이어져 나갈 것이며 다른 방식으로 계속 교육될 것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서원을 보완적인 교육 기관으로 부활시키려는 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주희, 육象山(Lu Xiangshan, 陸象山), 왕양명과 동림 유학자들, 그리고 한국의 이황, 이율곡(李栗谷)(1536-1584), 성혼(成渾)(1535 - 1598) 그리고 송시열(宋時烈)(1607-1689)과 같은 사상가들의 위대한 실험을 기억하고 있다.

서원 복원을 위한 시도에 있어서도 다양한 신화가 창조되었다. 역사학자들이 이런 이슈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의 젊은 유생들이 서원에서 지식과 도덕적 인간성을 함양하기 위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를 느껴보려면 오래된 서원을 방문해 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다. 빛나는 역사를 가진 동아시아의 서원이라는 표현은 전혀 지나친 과장이 아니다.

근세 이전 그리스도교의 교육과 교육시설의 역사와 유산적 가치

1. 들어가는 말

고대 그리스의 ‘교육’(paideia)은 젊은 귀족들에게 전통이나 관례 또는 자신의 속한 도시(pólis)의 법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했다. 교사는 학생의 의지를 자극하기보다 스승이 거쳐 온 과정과 유사한 지적 과정을 습득시키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았다. 사실상 인간이 올바르게 행동하게 하는 모든 결정은 선을 궁극 대상으로 삼는 지식¹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반면 성경에서의 가르침은 젊은이들에 대한 지적 양성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전인교육을 지향하고, 지능보다 의지에 더 호소했다. 이처럼 그리스도교의 교육은 서양문화에서의 교육에 비해 지식 차원뿐만 아니라 경험, 의지, 관계의 모든 영역을 포함했다. 하느님은 개념 전달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활동을 통해 가르치신다. 즉 하느님은 자신을 당신 백성이 닮아야 할 귀감으로 제시하면서 교육하신다(레위 19,2 참조). 결론적으로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스승인 야훼 하느님은 자신의 업적과 율법을 통해 자신을 알리고, 충실과 순종의 길로 백성을 인도한다. 하느님은 백성을 교육하기 위해 모세, 사제들, 현인들 같은 중개자를 이용하시는데, 그들이 전문 학자가 된 것은 후대에서의 일이다.²

신약에서 교육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복음서들에 의하면 예수의 제자들은 율법학자의 제자들처럼 교사가 되어 자기들이 배운 가르침을 전달하도록 정해진 학생들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메시지를 말과 행동으로 선포하도록 파견된 추종자들이다. 그리스도교 교육에서 스승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그리스도는 새롭고 초월적인 계시를 통해 인간 본성과 인간 실존의 의미와 목표에 대한 완전한 교육 정신을 보여주었다.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기록한 근본적인 책은 성경이다. 참된 그리스도교 교육은 성경의 하느님 말씀에 비추어 그의 활동을 해석하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하느님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조명해야 하며, 언제나 그에 근거한 실천이 동반되어야 한다.³

그러면 근세 이전까지 그리스도교회의 교육의 역사와 그에 따른 교육시설의 특성과 유산적 가치를 살펴보기 전에 세계유산의 개념과 문화유산등재기준을 살펴보자. ‘세계유산’이란 온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이를 후손에게 전할 보편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말한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려면 일정한 국제적 기준에 적합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기준 중 1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 2)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 3)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4)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5) 특히 번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

1.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지식과 그에 대한 가르침을 지적 특성을 지닌 과정으로 이해했다. 즉 지식은 인간이 외부 현실과 접촉한 후 ‘객관적 특성’을 지니면서도 이를 자신의 고유한 것으로 만들어 이념과 개념을 통해 다시 표현하는 지적인 과정이었다.

2. A. Sacchi, “가르침”, P. 로싸노 외, 『새로운 성경신학사전 (1)』, 바오로딸, 2007, 23-34 참조.

3. A. Sacchi, “가르침”, 34-44 참조.

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 6)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다른 기준과 함께 적용 권장).⁴ 이하의 글에서 문화유산 등재기준은 번호로만 적시하기로 한다.

2. 고대 그리스도교회의 교육

1) 교육의 발전

부활한 후 그리스도는 사도들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며, 세례를 베풀고 인도하라는 사명을 주었다(마태 28,19-20). 따라서 초창기의 교회에서 가장 우선적인 지도자는 ‘사도들’이었다. 사도들은 카리스마의 은사를 받은 ‘예언자들’과 ‘교사들’의 도움을 받았다(1코린 12,28 이하; 사도 13,1; 에페 4,11; Did. 11.13.15). 사도들은 본연의 선교 사업에 전념한 반면, 예언자들과 교사들은 신도들을 교화시키고 가르치는 것을 임무로 삼았다.⁵ 사도들이 한 설교의 결과로 ‘제자들’이 초기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이들은 사도들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다(참조: 사도 6,1.2.7; 9,1-26).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인격적인 접촉을 통해서 가르치셨듯이 사도들도 자신들의 제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교육시켰다. 이러한 교육방법은 일반적으로 고대 교회 안에서 사도시대 이후 오랫동안 계속되었다.⁶

초기 4세기 동안의 고대 그리스도교 교회의 기본적인 교육 과제는 1) 신자들의 자녀들과 개종자들을 그리스도교 교리, 생활양식과 예배로 이끌기 위한 종교 교육을 제공하고, 2) 자신들의 그리스도교적 생활과 세속 문화의 백미를 종합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종교 생활과 세속 생활의 두 차원을 발전시키기 위해 고안된 교육인 소위 “그리스도교 인문주의”(Christian humanism)를 창출해 그리스도교의 교육 지침으로 삼았다.

2) 종교적 양성

사도시대에는 가톨릭 신앙을 고백한 후에 즉시 세례를 집전했다(사도 2,41; 8,37 등). 그 후 이미 2세기에는 일정한 시험 기간과 함께, 2년 내지 3년까지의 충분히 긴 교육이 선행되었다. 이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세례 지원자들’(κατηχούμενοι, catechumeni)이라고 불렀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신앙의 진리 안에서 교육을 받아야만 했기 때문이었다.⁷ 그리스도교 교리는 일찍이 신경(σύμβολον, symbolum) 안에서 종합되었는데, 세례 받는 사람들에게 이 신경을 신앙의 규범(κανὼν τῆς πίστεως, regula fidei) 또는 진리의 규범(regula

4.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The Criteria for Selection, 2013, <http://whc.unesco.org/en/criteria/>, (검색일: 2013. 5. 1); 유네스코와 유산, 세계유산 등재기준, 2009, http://www.unesco.or.kr/heritage/wh/reg_criterion.asp, (검색일: 2013. 5. 1);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유럽』,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감수, 중앙M&B, 2002', 2-3 참조.

5. K. Bihlmeyer, H. Tuechle, Igino Regger (trans), Storia della chiesa, vol 1, 128-129 참조.

6. K. Bihlmeyer, Storia della chiesa, vol 1, 134 참조.

7. K. Bihlmeyer, Storia della chiesa, vol 1, 144-145.

veritatis)으로 제시했다.⁸ 예비자들은 세례지원기를 거친 후에 세례를 받았고, 그 후에는 ‘성사들’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비밀스러운 교리교육을 특권으로 간주했던 시기에는 오직 세례 받은 자들만 성사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⁹

초세기에 사도교부들(로마의 클레멘스, 안티오키아의 이그나티우스, 스미르나의 폴리카르푸스 등)은 이 교도들을 조명하거나 세례지원자들을 교육하기 위해 고안된 교육학적 특성을 지닌 문헌들을 저술했다. 2-3세기에는 호교교부들(유스티누스, 타티아누스, 클레멘스, 아테나고라스와 테오필루스 등의 그리스교부들; 미누키우스 펠릭스, 테르툴리아누스 등의 라틴 교부들)이 이교도 청중들에게 교회를 변호하기 위한 문헌들을 저술했다. 이렇게 고대 교회에서 종교 교육 자료들의 첫 번째 범주는 이교도들을 교화하거나 세례지원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 범주는 신자들이나 세례지원자들에 대한 교육을 위한 것이었다.¹⁰

3) 교육시설: 가정교회, 교리학교

초세기 그리스도인들의 교육시설은 처음에는 ‘가정’(사도 2,46)이었다. 초세기 그리스도인들은 타종교인들처럼 신을 위한 ‘성전들’이 아니라 기도를 하기 위한 회중이 모이기 위해 마련된 ‘회중의 집들’ 또는 ‘가정교회’(=‘교회의 집’, domus ecclesiae, oikoi ekklesias)을 사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교의 신앙적인 건물은 지역 교회의 공간적인 이콘이라고 할 수 있다.¹¹ 그 후 2세기 말엽부터는 공동체가 때때로 사용하던 공간에서 주로 묘지들과 관계있는 도시 주변의 고유한 ‘성당’이 고정된 주요 교육 장소가 되었다.¹² 도심에서는 전부터 있던 집회 장소들, 이른바 가정교회가 계속 사용되었으나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토지와 주택을 구입했다.¹³ 이러한 가정 교회의 가장 오래된 건물은 3세기 초(또는 250년경)에 지어진 유프라테스 강 상부에 있는 두라 유로포스(Dura Europos)의 가정교회이다. 이 집은 벽을 없애서 두 방을 한 방으로 만들었고, 강단을 만들었으며, 한편 출입구 오른쪽에 있는 작은 방을 세례당으로 개조했고, 이 세례당은 성수반과 벽장식을 갖추으로써 완성되었다.¹⁴

세례지원자들은 성당 건물이나 선생님의 집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이들에 대한 교육은 주교, 사제, 부제(副祭) 또는 교육받은 평신도들이 담당했다. 이 형태의 교육기관을 ‘세례지원자 학교’(Catechumenal School)라고 불렀다.

8. K. Bihlmeyer, Storia della chiesa, vol 1, 146-147. 170.

9. K. Bihlmeyer, Storia della chiesa, vol 1, 394.

10. J. W. Donohue, “Education: 1. Early Christian Education”, New Catholic Encyclopedia, vol. 5, Washington, D.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1967, 112 참조.

11. Matias Augé, Liturgia: storia celebrazione teologia spiritualità, Milano: Paoline, 1992, 75-76 참조.

12. 카를 수소 프랑크, 하성수 역, 『고대 교회사 개론』, 가톨릭, 2008, 268 참조.

13. 카를 수소 프랑크, 『고대 교회사 개론』, 731 참조.

14. J. G. Davies, “교회건축양식”, 박근용 외 편, 『기독교대백과사전 (2)』, 기독교문사, 1981, 44 참조.

그 후 2세기 말부터 교리교육 전문학교들이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카이사레아에 생겼는데, 190년에 설립된 알렉산드리아의 ‘교리학교’(τῆς κατηχήσεως διδασκαλεῖον, Catechetical School)가 대표적이다.¹⁵ 교리학교들은 원래 개종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성직자들을 교육시키는 학교로서도 봉사했다. 반면에 초세기에 교리학교들은, 가르침에 있어서나 교회의 통치에 있어서나, ‘카리스마를 받은 사람들’(1코린 12,28 이하)의 특별한 도움을 이용했다.¹⁶

알렉산드리아 교리학교를 지도한 알렉산드리아의 성 클레멘스(Clemens, 150경-215)와 그의 후계자 오리게네스(Origenes, 185경-253)는 그리스 철학과 기타 학문을 폭넓게 가르치는 교과목을 마련하여, 후대에 교회의 신학이 본격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미 3세기에 그리스도교 신학은 깊이와 활발함에 있어서 고대 후기의 세속적인 저작물들을 훨씬 능가했다. 그 후 4-5세기는 그리스도교 신학의 고전 시대요, 고대 교회 교부들 중에 가장 뛰어난 아우구스티누스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교부들의 시기를 이룬다. 교부문학의 전성기와 설교의 황금 시기는 일치한다(약 325-451). 강론은 주일과 축일 외에도 한 주간과 사순시기 동안에는 매일 행하여졌다.¹⁷

4) 교육시설의 건축양식: 서방교회의 바실리카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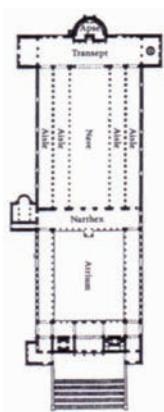


그림 1. 초기 베드로 대성당 평면도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관용령으로 그리스도교가 공인되자, 교회는 ‘성전’을 건설하지 않고 공공 모임을 위한 시민적 건축물(시장과 재판소의 방들)인 ‘바실리카’(basilica: βασιλική로부터 scil. στοά=royal hall)의 이름과 건축양식을 빌려 예배를 위한 건물로 삼는다. 로마에서 315년경 세워진 가장 오래된 바실리카인 라테라노 바실리카의 뒤를 이어 성 베드로 대성당, 성 마리아 대성당, 성 바오로 대성당, 성 라우렌티우스 성당, 성 클레멘스 성당, 성녀 사비나 성당(그림 1), 성녀 아녜스 성당 등이 건설되었다.¹⁸ 이런 바실리카 성당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표상(表象)하도록 “십자가 형태가 성전이 된다.”(Forma crucis templum)는 성 암브로시우스(Ambrosius, 340~397)의 가르침에 따라 건축되었다.¹⁹

그리스도교 바실리카들의 내부는 장방형의 직사각형 형태로서, 보통 중앙부인 신랑(nave)보다 낮고 좁은 보행통로인 측랑(aisle)이 양쪽에 3열 또는 5열로 평행하게 배치되었다. 바실리카의 공간은 다양한 양식으로 조직되었지만, 그 부분들은 모든 참석자들과 전례거행의 각 행위자들을 질서 있게 조직적으로 배치했다. 이렇게 넓고 장엄하고 고상한 공간인 동시에 거리의 소음으로부터 분리된 바실리카는 회중의 모임에 적합했다. 바실리카 양식의 성당은 후진(ἄψις, apse)과 제대를 동쪽으로 향하고, 출입문을 서쪽으로 향하도록 설계해 동서의 장축을 이루었다. 제대를 동쪽으로 배치한 것은 부활한 그리스도를 떠오르

15. K. Bihlmeyer, Storia della chiesa, vol 1, 221 참조.

16. K. Bihlmeyer, Storia della chiesa, vol 1, 134.

17. K. Bihlmeyer, Storia della chiesa, vol 1, 403.

18. K. Bihlmeyer, Storia della chiesa, vol 1, 424 참조.

19. 가톨릭대사전, 가톨릭미술, <http://info.catholic.or.kr/dictionary/view.asp?txtIdNum=61&keyword=%B7%CE%B8%B6%B3%D7%BD%BA%C5%A9&gubun=01>(검색일: 2013. 4. 28) 참조.

는 태양에 비유한 것이며, 신자들의 시선을 제대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예배에 극적인 효과를 주려는 건축적인 배려였다. 이런 바실리카 구조를 초기의 ‘베드로 대성당’에서 잘 볼 수 있다(그림 2). 4세기의 바실리카 양식에서, 건물내부와 수랑(transept, 십자형 교회의 좌우 날개부분)의 연결지점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제단부(presbyterium)로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 개선문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상징적으로 극대화하려는 것이었다.²⁰ 이렇게 해



그림 2. Santa Sabina outside

서 하느님의 백성의 이상적인 위치인 제단부와 신랑(nave) 사이를 강조했는데, 이것은 분리가 아니라 친교를 드러내는 표현이다.²¹ 로마 근교의 ‘산 파올로 푸오리 레 무라’(S. Paolo fuori le mura) 바실리카가 대표적으로 이런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다. 강론 설교대는 본당 내부의 앞부분에 위치했고, 그곳에서 성경에 대한 설교를 하거나 성경내용을 봉독하기도 했다.²²

가톨릭교회의 총본산인 바티칸은 콘스탄티누스가 성 베드로의 무덤에 바실리카를 지으면서 그 영광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도시로 손꼽힌다. 바티칸 시국의 유산들과 산 파올로 푸오리 레 무라 대성전은 1980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등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2, 3, 4, 6²³

바실리카 외에 고대의 건축물 양식인 중앙 집중식(central plan) 성당과 세례당도 있었다. 이런 건축물은 주로 둥글거나 팔각형 또는 정사각형의 평면도에 중앙 공간이 있는 건물이었다. 성 암브로시오에 의하면, 팔각형은 완성을 상징한다.²⁴ 그리스도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세례를 위해 4세기 초 로마에서 라테라노 바실리카에 부속된 산 조반니 세례당이 건축되었는데, 8각형을 기본 구조로 하는 중앙 집중식 양식이었다. 라테라노의 산 조반니 세례당을 원형으로 팔각형으로 지어진 라벤나의 네오 세례당(Neonian Baptistery)과 아리우스파의 세례당은 5세기의 건축물이다. 이 라벤나의 초기 그리스도교 기념물은 그리스와 로마의 전통, 그리스도교의 도상학(iconography), 동·서방의 양식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등재연도: 1996년, 등재기준: 1, 2, 3, 4).²⁵

20. 박성은, 『기독교 미술사』, 대한기독교서회, 2008, 34-35 참조; 그러나 5세기까지 많은 교회들(특히 로마에서)은 반대 방향이나, 적어도 “기록한 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공통적이었다. K. Bihlmeyer, Storia della chiesa, vol 1, 425 참조.

21. Matias Augé, Liturgia: storia celebrazione teologia spiritualità, 76 참조.

22. K. Bihlmeyer, Storia della chiesa, vol 1, 427 참조.

23. 유네스코와 유산, 로마 역사 지구 - 바티칸 시국의 유산들과 산 파올로 푸오리 레 무라 대성전, 2009, <http://terms.naver.com/entry.nhn?cid=3409&docId=1392108&categoryId=3707>

24. 카를 수소 프랑크, 『고대 교회사 개론』, 733 참조.

25. 유네스코와 유산, 라벤나의 초기 기독교 기념물, 2009, <http://terms.naver.com/entry.nhn?cid=3389&docId=1392181&categoryId=3389>

3. 중세 초기(476-1073) 서방 교회의 교육

중세에 이르러 그리스도교 교육은 성숙한다. 중세의 교회는 교육의 현장이었고, 성직자들이 주요 교육자들이었다. 이 시기에 교육과 가르침은 구원의 한 방법으로 간주되었고, 인간 성숙뿐 아니라 완덕에 이르는 방법이었다. 나아가 교육은 야만족들을 계몽하고 문화생활로 이끄는 중요한 방법이었다.

1) 수도승적 양성 교육

529년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Justinianus: 527-565)는 그때까지 거의 전적으로 이교도들이 신플라톤철학자들이 강의하고 있던 아테네의 철학학교를 폐쇄했다.²⁶ 바로 그 무렵인 529년경 이탈리아 누르시아(Nursia)의 성 베네딕토(Benedictus, 480경-547경)는 옛날에 주피터 신전이 있던 부지 위에 “주님을 섬기는 학원”(dominici schola servitii, RB.²⁷ 머릿말 45)인 베네딕토회 수도승원들의 요람이 될 몬테카시노(Montecassino) 수도승원을 세웠다. 베네딕토는 아마 534년 이후 이 수도승원에서 복음적 휴머니즘의 토대 위에서 자신의 규칙을 저술한다.²⁸ 복음서의 중심사상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듯, 베네딕토 규칙의 교육 목표도 인간성 형성의 완성에 비전을 두고 복음서가 시사하는 생활양식을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복음서가 인간의 생물학적 조건을 긍정하고 토대로 하여 땅에 사는 인간을 하느님과 일치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듯,²⁹ 서구 수도생활의 조상이라 할 성 베네딕토의 수도승생활은 신플라톤의 수행자가 생물학적 조건의 탈피를 목표로 하는 것과는 달리 복음적 인간관을 토대로 하여 복음에서 가르치는 길을 따라 그 가르침의 목적에 도달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다.³⁰ 이렇게 베네딕토적 영성은 복음적 영성이고, 베네딕토의 휴머니즘은 복음적 휴머니즘이다. 베네딕토는 그 때까지 교육목표를 향한 수단으로 여겨졌던 문화를 버리고 성경적이고 수덕적인 입장에서 새로운 생활양식의 틀을 창조했다. 수도승생활의 목표는 “모든 일에 있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는 것”(Ut in omnibus glorificetur Deus, RB. 57)이며, 이 목표를 위해 “주님을 섬기는 학원”(schola dominici servitii)의 주요 사명으로 전례적 경신행위(Opus Dei, Work of God, officium divinum)를 제시했다. 나아가 그는 ‘노동’과 어떤 형태의 교육을 요구하는 ‘성독’(lectio divina)을 강조했다. 수도승들의 교육은 주님을 섬기기 위한 열망 때문이었기에, 학식이 아니라 영성을 지향했다. 즉 그들의 학식은 하느님의 신비를 관상하기 위한 것이었다.³¹ 베네딕토는 매일의 생활에서 끊임없는 기도와 노동과 성독(lectio divina)을 조화롭게 배치함으로써 수도승들을 하느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인간의 품위를 완전성에 접근시키려고 했다. 결국 베네딕토는 모든 이가 원래의 목적인 인간의 완성, 하느님 사랑과 일치에로 나아가는 길, 하느님 나라의 동거인이 되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³²

26. K. Bihlmeyer, Storia della chiesa, vol 1, 260 참조.

27. 베네딕토 수도규칙을 뜻하는 Regula Benedicti의 약어. 이하 RB.

28. K. Bihlmeyer, Storia della chiesa, vol 1, 441-442 참조.

29. 가꾸노 게이사꾸, 주시문 역, “성 베네딕토와 인간형성의 규칙”, 『코이노니아』 3, 1979, 20 참조.

30. 가꾸노 게이사꾸, “성 베네딕토와 인간형성의 규칙”, 22 참조.

31. 헤수스 알바레스 고메스, 『수도생활역사 (2)』, 강운자 편역, 성바오로, 2002, 48-49 참조.

32. 베네딕토는 성경에 바탕을 두고 인간을 전적으로 하느님을 향한 존재로 본다. 하느님을 찾는 일, 주님을 섬기는 삶은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구현된다. 그는 하느님의 집에 거하는 모든 이들이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로써 특히 약한 이들, 병든 이들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섬기라고 말한다.

성 베네딕토는 후대의 성 프란치스코처럼 청빈이란 이상이나 성 도미니코처럼 설교의 사명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에 따라 인간을 완성하고 최종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사회의 규율을 세웠다. 따라서 그의 규칙의 정신은 수도승들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나아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베네딕토 규칙이 서양 문명을 탄생시킨 어머니로 불리고, 서구적 인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아직 야만이었던 서구의 모든 민족을 교육했다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³³ 이렇게 해서 수도승은 오랫동안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제시되었다.³⁴

베네딕토는 성독 외에 다른 학습 연구는 염두에 두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 당시가 민족 대이동 시기로서 학문연구에 대한 열의가 대체로 식어 있었고 대다수의 수도승들이 평범한 평신도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변화가 생겼다. 로마 귀족이었던 카시오도루스(Cassiodorus)가 540년경에 칼라브리아에 있는 자신의 영지에 비바리움(Vivarium) 수도승원을 설립해 학문의 중심지로 만들었고, 자신의 수도승들에게 고전과 신학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옛 사본을 수집하고 필사하는 일을 맡겼다.³⁵ 이런 방식은 중세 수도승원 학교에서 교과과정의 기본으로 자리 잡았고, 수도승원이 학문의 중심지가 되게 했다. 많은 베네딕토회원들이 이러한 예시를 따라 생활함으로써 그들은 고전과 신학의 학문들에 있어서 인류의 위대한 은인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베네딕토 규칙은 그레고리우스 대교황(Pope Gregory the Great, 재임 590-604)을 비롯한 여러 교황들의 전제적인 승인과 더불어 왕들에 의해 온 서방에 급속히 전파되었다. 그러나 800년까지 서방 수도승생활은 전적으로 베네딕토회적이지는 않았다. 베네딕토 규칙은 카롤루스 대제(Carolus Magnus, Charles the Great, 프랑크왕 재임 768-814)가 실시한 카롤링거 개혁운동의 결과로 서방 수도승생활을 독점하게 된다. 카롤루스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권력과 교황의 보편적 권위를 기본으로 한 제국 안에서 로마 민족과 게르만 민족들을 통일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 그는 철저히 그리스도교화 된 로마제국의 문화로 돌아가려고 했다. 수도원들은 이런 계획에 큰 역할을 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도승원들의 규칙준수가 통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통일의 표준으로는 베네딕토 규칙이 채택되었다. 왜냐하면 이 규칙은 그 당시 가장 훌륭한 것으로 인정받던 “로마의 규칙”(Roman rule)이었기 때문이다.³⁶ 이 “로마의 규칙”이 카롤루스 왕조가 계획했던 로마-게르만 주축에 근거한 하나의 제국 건설에 가장 알맞았던 것이다.³⁷

카롤루스가 죽은 후, 아니아네의 성 베네딕토(Benedict of Aniane, 750경-821)가 이 방향으로 결정적으로 나아갔다.³⁸ 그의 지도 아래 816-17년에 아헨(Aachen)에서 열린 아빠스들의 개혁 교회회의에서 개선되고 보

33. 가꾸노 게이사꾸, “성 베네딕토와 인간형성의 규칙”, 6 참조.

34. 장 롱비, 『세계교회사여행 (1)』, 노성기 · 이종혁 역, 가톨릭, 2012, 466 참조.

35. K. Bihlmeyer, Storia della chiesa, vol 1, 443-444 참조; 카시오도루스는 교회 문헌과 세속 문헌을 구분하지 않고 많은 책을 수집했고, 평생 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했다. 당시 교육의 주요 목표는 신학, 교회사, 성경 주해에 대한 연구였다. 그는 이런 기본 전제를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교양과목에 적합한 근거를 부여해 ‘보편 지식의 교과과정’을 작성했다. 그의 주요 저작 『신성한 지식과 세속적 지식의 교과서』(Institutiones divinarum et saecularium litterarum)는 결과물이다. 피터 왓슨, 『생각의 역사 (1)』, 남경태 역, 들녘, 2009, 371 참조.

36. Timothy Fry, The Rule of St. Benedict,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1981, 121 참조.

37. Timothy Fry, The Rule of St. Benedict, 124 참조.

38. Timothy Fry, The Rule of St. Benedict, 121 참조.

충된 베네딕토 규칙의 도입을 모든 아바스들에게 명령했다(817년 수도승법).³⁹ 그 결과 초기 게르만족과 로마계통의 국가들에게 공동 수덕생활의 일정한 표준을 제시할 수 있었고, 수도승원은 영성과 문화의 중심지로서 일상생활과 국민들의 문화적 진보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12세기까지 베네딕토 규칙은 서구의 수도승생활의 유일한 근거가 되어 그 뒤에 생겨나는 수도회들도 베네딕토 규칙에 근거해서 그 모습을 결정지어야 했다.⁴⁰

그러나 10세기에 이르자 모든 규정된 제도의 이완으로 수도승생활은 쇠퇴하였고, 많은 수도승원들이 노르만인, 사라센인들과 헝가리인들의 침입으로 파괴되었다.⁴¹ 이렇게 교회와 문화가 일반적으로 쇠퇴했을 때, 910년에 아퀴타니아의 귀욤 경건공작은 부르고뉴에 있는 클뤼니(Clugny)에 수도원을 설립해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수도승생활의 개혁을 시작한다. 그는 초대 아바스로 베르노(Berno, +927)를 지명했다.⁴² 클뤼니 수도원은 아니아네의 베네딕토가 첨가한 옛날의 엄격한 베네딕토회적 규칙에 새롭게 돌아갔고, 가대 기도와 전례의 장엄한 거행, 엄격한 수덕 규율, 침묵과 외부 세상으로부터의 격리를 특별히 중요시했다. 반면에 학문은 덜 중요시했다.⁴³ 클뤼니 수도원의 개혁운동은 11-12세기에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어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베네딕토회 수도승들은 고대 말엽과 중세 초기에 교회와 그리스도교적 문명에 불멸의 봉사를 했고, 게르만족의 개종, 교육과 문화의 대부분은 그들의 헌신에 힘입고 있다.⁴⁴ 베네딕토회 수도승들은 민족 대이동 시대에 따른 참화로부터 교부시대와 고대 고전의 값진 유산을 구출해 냈고, 유럽의 미개한 주민들에게 경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물질적인 번영을 가져오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고전 학문의 보물에 대한 연구의 길을 열어 주었다. 베네딕토회는 서방의 위대한 교육자이고 고등교육을 전수하는 전당이었으며 특히 초기 중세에 있어서 신학을 발전시키는 학교가 되었다.

2) 수도승적 양성

베네딕토가 열은 ‘사랑의 학교’는 수사학이나 스콜라 철학, 또는 세속적인 과학을 배우는 곳이 아니었다. 책을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풍성하게 배우는 것이었다. 교사들은 탁월한 논법가(論法家)들이 아니라 하느님을 만났고 그분의 길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느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돌리게 했고, 학자들에게 하느님을 찾는 기술을 가르쳤다. 자기 자신을 알고 하느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식이었다. 성 베네딕토의 수도승들은 참으로 스승 밑에 있는 제자들이며 교육을 받기 위하여 학원에 온 사람들이다. 이 사랑의 학교의 학생들은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사랑해주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되어 점차적으로 자신의 마음도 하느님의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9. K. Bihlmeyer, H. Tuechle, Igino Regger (trans), Storia della chiesa, vol 2, Brescia: Morcelliana, 1993. 148 참조.

40. K. Bihlmeyer, Storia della chiesa, vol 1, 444 참조.

41. K. Bihlmeyer, Storia della chiesa, vol 2, 148-149.

42. K. Bihlmeyer, Storia della chiesa, vol 2, 150-151.

43. K. Bihlmeyer, Storia della chiesa, vol 2, 151.

44. 현대 독일의 종교교육자인 알프레드 레플레(Alfred Läpple)는 베네딕토회 수도승들의 업적을 ‘십자가’(그리스도교 신앙 전파), ‘책’(서방 문화의 개척과 보존), ‘쟁기’(문명과 새 정착지의 발굴)란 세 가지 상징들로 요약하고 있다. 영국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은 하나의 베네딕토 수도원이 지식 운동에 있어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를 합해 놓은 것보다 더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할 정도이다.

수도승의 시간은 공동기도, 독서(lectio)와 일의 세 가지 활동들로 분리되었다. 수도승들이 함께 기도하는 이유는 함께 살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의 준 지역교회(quasi-local church)를 형성한다. 매일 몇 시간을 성무일도 또는 “하느님의 일”에 바쳤는데, 초기에는 하루의 약 4시간을 할애했지만, 개혁이 가중되면서 클뤼니 수도원에서는 하루에 7시간을 성무에 바치기도 했다.⁴⁵

매일 약 4시간을 성독(lectio)에 바쳤는데, 이는 성경 본문들에 대한 독서, 개인기도와 묵상(meditatio), 암기, 반복, “되새김”(rumination)을 포함한다. 수도승은 성경과 교부들과 수도승 저술가들이 쓴 주석서를 되새김하여 자신의 마음을 항상 하느님의 말씀으로 채우며,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내적 마음자세와 외적 활동의 형태를 결정했다. 외부 세계와는 가능한 한 접촉을 피하고 침묵과 고독을 지킴으로써 수련하기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다.⁴⁶

베네딕토 규칙에는 학구적이거나 문화적인 목적이 없다. 배움은 매우 심원했어도 특성상 순수하게 종교적이거나 수덕적인 끊임없는 독서를 통해 얻었다. 그렇기에 수도승원에 입회한 사람들은 성독(lectio divina)과 하느님의 일(opus Dei)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문법과 수사학을 배워야 했다. 후대에서와 같은 성직적인 사도직은 없었다.⁴⁷

중세의 수도승들은 증거적인 삶의 형태로 유럽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 이상에 따라 한 형제가 되어 함께 기도하고 일하며, 같은 수도규칙에 따라 평화롭게 살아가면서 애덕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어떤 형태의 사회에서도 대안적인 공동체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문화에 끼친 중세 수도승들의 위대한 공헌이었다.⁴⁸

3) 신앙에 기초한 교육의 발전

최초의 주목할 만한 신학적·학문적 교육들은 먼저 영국에서 일어났는데, 캔터베리(Canterbury)와 오크(York)의 주교좌와 많은 베네딕토회 아바스좌 수도원들에 훌륭한 학교들이 설치되었다.⁴⁹ 그러나 9세기에 이교도인들인 덴마크인들의 침입으로 교육과 학교가 아주 쇠퇴해졌다. 그러나 알프레드 대왕(Alfred, 871-901)이 성당들과 아바스좌 수도원들과 학교들을 복원하고, 그 스스로 보에티우스(Boethius)와 오로시우스(Orosius)의 저서들, 그리고 그레고리오 대교황(Gregorius Magnus)의 유명한 사목규칙을 앵글로 색슨어로 번역함으로써 상황을 호전시켰다.⁵⁰

그 후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 대제(Carolus Magnus, Charles the Great, 재위 768-814)는 교육을 국가와 교회를 위한 주요 과제들 중의 하나로 보고 성직자와 백성의 문화적 향상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이른바 카롤루

45. 헤수스 알바레스 고메스, 『수도생활역사 (2)』, 45 참조.

46. Timothy Fry, The Rule of St. Benedict, 95 참조.

47. Timothy Fry, The Rule of St. Benedict, 96 참조.

48. 헤수스 알바레스 고메스, 『수도생활역사 (2)』, 57 참조.

49. K. Bihlmeyer, Storia della chiesa, vol 2, 90 참조.

50. K. Bihlmeyer, Storia della chiesa, vol 2, 91 참조.

스 문예부흥(Carolingian renaissance)을 일으켰다. 카롤루스 대제는 몇몇 교육직령들을 반포해 모든 주교좌 성당들과 아빠스좌 수도원들에 학교들을 개교하게 하고(Admonitio Generalis 789), 수도승들의 자유 교육(liberal education)을 장려하며 성직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교육을 마련하게 했다. 이 학교들은 일차적으로 사제와 수도승생활을 준비하고 영성을 진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지정되었지만, 그 다음으로는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었다.

나아가 카롤루스 대제는 우선적으로 장래의 국가의 고급 관리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교육하기 위해 아헨의 자신의 궁정에 궁정학교(Schola Palatina, Palace School)와 투르(Tours)의 종교학문들의 고급학교를 설립했는데, 이 학교는 Fulda, Reichenau, Corbie, Korvey, Werden 등의 아빠스좌 수도원들의 유사한 시설들을 위한 모범이 되었다.⁵¹ ‘라이헤나우 수도원 섬’(Monastic Island of Reichenau)이 중세 초기 수도승원 건축의 정수를 보여주기 때문에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2000년, 등재기준: 3, 4, 6).⁵² 궁정학교에 모인 당대의 석학들은 대부분 수도승들이었다: 알쿠이누스(Alcuinus, +804), 파울루스 디아코누스(Paulus Diaconus, +799), 아인하르트(Einhard, +840) 등. 그들은 성경과 교부들의 문헌들과 전례를 연구했고, 고전 라틴어를 다시 도입하려고 시도했다. 카롤루스 제국의 이러한 학문의 부흥은 9세기 초 절정에 달했는데, 특히 신학 영역에서 두드러졌다: 파스카시우스 라드베르투스(Paschasius Radbertus, +860경), 라바누스 마우루스(Rabanus Maurus, +856경) 등.⁵³ 그 후 오토 대제의 형제인 쾰른의 대주교 브루노(Bruno, +965)는 열정적으로 ‘자유 7과목’에 전념했다.⁵⁴ 최고의 학교들은 벨기에의 리에주(Liège)의 주교좌와 몇몇 수도원들 그리고 로브(Lobbes) 수도원과 예노(Hainaut)에 있었다.⁵⁵

카롤루스 왕조의 문화 활동은 고전 고대와 교회의 교부들(특히 Gregorius Magnus와 Augustinus)에게 밀접히 종속된 문화였기 때문에 주로 과거에 대한 고착과 모방의 특징을 지녔고, 따라서 자주성과 독창력은 결여되어 있었다. 게르만 국가적인 요소는 간신히 감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롤루스 르네상스 또는 오토 르네상스는 중세 초기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한 면들 중 하나로서 고대 그리스도교 정신과 독일 정신의 풍요로운 결합을 보여준다.⁵⁶

4) 교육시설: 수도승원 학교(monastic school)과 주교좌성당 학교(cathedral school)

(1) 문화의 전달자인 수도승원 학교

중세 초기 그리스도교 교육의 중심 기관은 수도승원 학교들(monastic schools)과 주교좌성당 학교들(cathedral schools)이었다. 수도승원들(Monasteries)은 고전 서적들의 가치를 알고 잘 보존했고, 수도승들(Monks)이 공부하는 시설을 잘 갖추고 있었다.

51. K. Bihlmeyer, Storia della chiesa, vol 2, 91-92 참조.

52. 유네스코와 유산, 라이헤나우 수도원 섬, 2009, <http://terms.naver.com/entry.nhn?cid=3389&docId=1392181&categoryId=3389>, (검색일: 2013. 5. 2).

53. 장 콩비, 『세계교회사여행 (1)』, 416 참조.

54. K. Bihlmeyer, Storia della chiesa, vol 2, 95.

55. K. Bihlmeyer, Storia della chiesa, vol 2, 95-96 참조; 리에주의 학교는 리에주의 유명한 주교 노트커(Notker, +1008)가 특별히 돌보았다. 그래서 리에주 시는 과장해서 복구의 아테네로 불렸다.

56. K. Bihlmeyer, Storia della chiesa, vol 2, 93 참조.

“주님을 섬기는 학원”인 수도승원의 학교들은 근본적으로 수도승들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유일한 목적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례 성무, 성도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신들의 지성을 계발하도록 도와야 했다.⁵⁷ 이를 위해 도서관과 필사실뿐만 아니라 수련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내부 학교를 설치해야 했다.⁵⁸ 이를 통해 수도원들은 그리스도교의 문화적 재보들, 즉 교부 문헌들을 후대에 전달해 주었다.⁵⁹

베네딕토회 수도승원은 지원자들의 교육을 위해 “수도원 학교들”(monastic schools)을 설립하고, 가장 유식한 수도승들에게 그 교육 임무를 맡겼다. 중세 초기의 전형적인 수도원 학교들로 프랑스의 투르(Tours), 독일의 풀다(Fulda), 북영국의 재로우(Jarrow), 이탈리아의 몬테 카시노(Monte Cassino) 수도원의 학교를 들 수 있다. 거의 모든 수도원이 필사실(筆寫室, scriptorium)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서 필사된 성경, 교부문헌, 고전문헌 수사본들을 모은 수도원의 도서관을 갖추었다.⁶⁰ 카롤루스 시대의 큰 아바스와 수도원은 흔히 수백 명의 수도승들과 수도승원학교(monastery school)에서 교육받는 수많은 소년들로 구성된 방대한 기관이었다.⁶¹ 몇몇 수도원들 안에는 어린 수도승들(oblati)을 위한 원내 학교(Schola interior) 옆에 재속 사제와 평신도들을 위한 하나의 원외 학교(Schola exterior)가 있었다.⁶²

(2) 주교좌성당 학교

수도승원 학교들에 발맞추어 주교들은 자신들의 성직자들을 교육하기 위해 주교좌성당 학교들(Cathedral schools)을 설립했다. 주교좌성당 학교는 주교의 감독 아래 운영되지만 실제로는 스콜라스티키(scholastici, schoolmen)라 불리는 학자들이 운영했다. 중세 초기의 유명한 주교좌성당 학교들로는 스페인의 세비야(Sevilla), 영국의 캔터베리(Canterbury), 벨기에의 리에주(Liège), 프랑스의 파리(Paris), 독일의 쾰른(Köln)의 학교들이 있다.⁶³ 주교들은 주교좌성당 학교에서 양성된 성직자들을 신학교 교사와 교장으로 임명했다.⁶⁴

주교좌성당 학교로부터 몇몇 본당들에도 학교가 설립되었는데, 본당 학교들에서는 평신도들도 교사들로 봉사했다(특히 이탈리아에서). 비록 카롤루스 대제가 지방의 주임사제들에게도 아이들을 위한 초등학교들을 보유하도록 권고했지만(813년의 마인츠 시노드), 특별히 상황이 좋아야만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었다. 사제 지망자들은 수품 전에 자신들의 교육 수준에 대한 시험을 쳐야 했다(법령집 803).

5) 교육훈련과 교육과목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게르만족이 교육과 학문의 영역에서 고유한 학술적 업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우

57. 헤수스 알바레스 고메스, 『수도생활역사 (2)』, 45.

58. 헤수스 알바레스 고메스, 『수도생활역사 (2)』, 46.

59. 헤수스 알바레스 고메스, 『수도생활역사 (2)』, 47.

60. D. D. Mc Garry, “Education: 1. Early Christian Education”, 113 참조.

61. Timothy Fry, The Rule of St. Benedict, 123 참조.

62. K. Bihlmeyer, Storia della chiesa, vol 2, 92 참조.

63. D. D. Mc Garry, “Education: 2. Medieval Education”, New Catholic Encyclopedia, vol. 5, Washington, D.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1967, 113 참조.

64. 장 롱비, 『세계교회사여행 (1)』, 497 참조.

선 오랜 세월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했다.⁶⁵ 이러한 임무는 무엇보다 교회에 위임되었고, 중세 초기에 교회, 특히 수도승원들은 꾸준히 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좋은 성과를 얻어냈다. 따라서 중세의 교육제도는 교회적 성격이 우세하여 교육 자체가 성직자들의 지도와 감독 아래 있었고, 고등교육의 강의와 학문의 언어는 라틴어였다.

중세 초기의 수도승원 학교들과 주교좌성당 학교들의 강의는 고전 고대로부터 유래하는 세속적 과목들(secular subjects)로 편성되었다. 즉 초보 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두 부분으로 세분된 ‘자유 7과목’(Artes Liberales, Seven liberal arts)이 이어졌다. 먼저 소위 세 가지 언어 교과(Trivium), 즉 문법학, 수사학, 변증법(논리학)을 이수한 후, 네 가지 수학 교과(Quadrivium), 즉 산술, 기하, 천문, 음악을 이수해야 했다. 문법에는 고전 및 교부들의 문헌에 대한 강독이 합치되어 있었다.⁶⁶ 세속적 과목들인 자유 7과목을 이수하고 나면 이를 기초로 성경들, 전례 문헌들, 교부 문헌들, 교황들과 주교들과 교회 공의회들의 교령집 등 “거룩한 학문”(divine learning)이라고 하는 종교적 학문들(religious studies)을 가르쳤다. 신학 교육은 주로 성경에 대한 이해와 사목 직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획득함을 주요 목표로 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중세에는 성직자에게 고유하고 참된 영성적, 수덕적 양성이 일반적으로 매우 불충해서 유감스러운 상황들이 생겨났다.

한편 하느님의 말씀을 알릴 의무인 ‘설교’는 고대 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의무로 여겨졌다. 교육을 적게 받은 성직자들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된 것에 따라 설교하도록 견본을 준비하기도 했다.⁶⁷ 여러 교회회의들이 그것을 명백히 명령했거나(라스 813; 마인츠 813) 혹은 설교집 번역을 지시했다(투르 813; 마인츠 847). 대부분의 성당에서는 일요일과 축일에 거의 규칙적으로 설교가 있었는데, 물론 신도들에게 하는 설교는 그 지방 언어로 하였지만 일반적으로 성직자와 수도자들에게만은 라틴어로 설교하였다.⁶⁸

6) 교육시설의 건축양식: 동방교회의 비잔티움 양식



그림 3. Basilica of San Vitale

6세기 초부터 서방교회에서 바실리카는 하느님의 집의 가장 이상적이고 표준적인 형태로 간주되었다.⁶⁹ 한편 동방교회에서는 동방의 반구형의 지붕(cupola)을 가진 원형 건물에 서방의 바실리카 양식(장방형)을 합쳐진 소위 비잔티움 건축 양식이 발전했는데, 6세기에 절정을 이룬다. 보다 역동적인 건축물인 비잔티움 양식의 교회는 하나의 반구형의 돔(cupola)이 있는 중앙부를 강조한다.⁷⁰

65. K. Bihlmeyer, *Storia della chiesa*, vol 2, 88.

66. K. Bihlmeyer, *Storia della chiesa*, vol 2, 89 참조.

67. 베다 베네라빌리스의 설교와 카롤루스 대제가 Paulus Diaconus를 통하여 교부들에게서 뽑아 편찬토록 한 설교집이 크게 전파되었다.

68. K. Bihlmeyer, *Storia della chiesa*, vol 2, 139 참조.

69. K. Bihlmeyer, *Storia della chiesa*, vol 1, 425 참조.

70. Matias Augé, *Liturgia: storia celebrazione teologia spiritualità*, 76 참조.

서방교회가 동서 장축의 바실리카 양식을 선호한 반면, 콘스탄티노폴리스와 라벤나를 중심으로 전개된 동방교회의 비잔티움 양식은 중앙에 돔을 얹은 중앙집중식 건축을 발전시켰다. 돔은 하늘을 추상화한 공간이다. 중앙집중식 성당에서 돔이라는 공간은 수직과 수평, 성과 속의 차원이 통합되는 곳, 즉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이다. 이러한 중앙집중식 성당은 생명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중앙의 원형 공간으로 집약되는 그리스도교의 통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부 세계로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확장이라는 이중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⁷¹



그림 4. Basilica of Hagia Soph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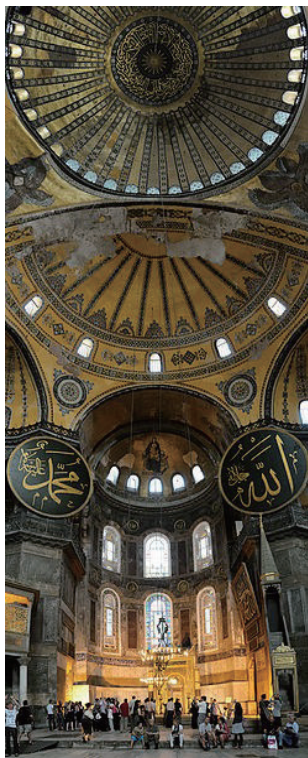


그림 5. 성 소피아 대성당 내부와 돔

이러한 정신을 석재로 구현한 비잔티움 양식의 대표적인 성당으로는 라벤나의 산 비탈레성당(S. Vitale, 526-547)(그림 3)과 유스티니아누스(Justinianus I, 527-565) 황제가 콘스탄티노폴리스에 532년부터 537년까지 건축한 “성부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께 봉헌된 성 소피아(Hagia Sophia) 대성당(그림 4)⁷²을 들 수 있다. 성당의 내부는 가장 위대한 예술적 표현 능력과 종교적 영감의 승리를 나타내고 있다.⁷³

산 비탈레 성당은 벽돌로 벽과 부벽(buttress)을 쌓아올린 단순한 외형을 지닌 팔각형의 중앙 집중식 성당이다. 성 소피아 대성당(532-537)은 바실리카의 장축 개념과 중앙집중식 배치를 혼합한 건축사상 가장 완벽한 돔 건축물이다. 성 소피아 대성당은 돔 하단부의 40개의 창문(그림 5)을 통해 비물질적인 빛을 물질로 가시화하려는 비잔티움 건축양식의 정신을 잘 구현하고 있다. 돔을 통해 내부로 들어오는 빛은 물질적인 중력감을 탈피한 비물질화된 영적 공간을 창조하고 있다.⁷⁴ 현재 터키 정부는 하기아 소피아를 인류 모두의 공동유산인 박물관으로 지정하고 아야소피아 박물관(Ayasofya Müzesi)으로 개조했다.

71. 박성은, 『기독교 미술사』, 대한기독교서회, 2008', 47 참조.

72. 성 소피아 대성당의 건축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신앙 이념과 관계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통일된 그리스도교의 기초 위에 로마 제국의 재기’를 목적으로 수많은 교회들을 건축함과 동시에 교회 내정에도 관여했다. 그는 지상에 군림하는 신의 대리자인 신정주의적 군주로 행동하면서 정통적 신앙의 보호자로 자처하며 교의뿐만 아니라 신학 논쟁에도 관계했다. 배승록, 『교부와 교회』, 대전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05', 659-660 참조.

73. K. Bihlmeyer, Storia della chiesa, vol 1, 424-425 참조.

74. 박성은, 『기독교 미술사』, 48-53 참조.

4. 중세 전성기 교육(1073-1300)

중세 전성기는 중세 초기의 교육 제도를 이어받아 주교좌성당 학교 제도를 더욱 강화했다. 도시들이 확장되고 교역이 증가함으로써 읽고 쓰는 능력과 직업 훈련의 필요성이 증가했다. 도시의 발달로 교회 바깥의 직업들, 예를 들어 법률가, 서기, 교사 등이 생겨났다. 중세 전성기는 또한 다양한 학문 영역의 시대적 추이에서 큰 성장을 보였다. 11세기와 12세기 초엽의 대학 연구의 주 초점은 살리스버리의 존(John of Salisbury, 1120경-1180) 같은 학자들로 대표되는 12세기 르네상스의 “그리스도교 인문주의”(Christian humanism)가 산출한 라틴 고전 문학의 연구와 모방에 있었다. 그러나 강조점은 이미 논리학과 스콜라철학(scholasticism)을 향한 감정으로 옮겨가 있었다. 스콜라철학은 11세기와 12세기의 그리스도교 인문주의를 구축하면서 마침내 13세기의 대학을 탄생시켰다. 학교와 대학들이 설립되면서 교육에 헌신할 지식인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궁극적인 일치와 모든 지식의 신적인 기원에 대한 중세의 확신은 중세 전성기의 교육적 진보를 촉진함으로써 교리가 심화되고 체계화되었다.

1) 주교좌성당 학교와 직업학교의 도약

비록 프랑스의 벡(Bec) 수도승원 학교와 클뤼니(Cluny) 수도승원 학교 같은 많은 수도승원 학교들이 교육의 중요한 중심지들로 존속하고 있었지만, 이런 수도승원 학교들은 주교좌성당 학교들과 직업학교들에 자신들의 지도력을 잃게 된다. 13세기에는 도시에 위치한 학교가 시골에 위치한 수도원 학교보다 우위를 차지한다. 도시 생활이 확장되고 도시가 문화 중심이 되면서 도시에 자리 잡은 주교좌성당 학교와 직업적으로 세워진 학교에 학생들이 몰리게 되어 성직자 양성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교사를 지망하는 학생들, 철학 신학을 연구하려는 학생들까지도 주교좌성당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때의 유명한 학교들로는 파리(Paris), 샤르트르(Chartres), 오를레앙(Orléans), 랑(Laon), 리에주(Liège), 위트레흐트(Utrecht), 톨레도(Toledo) 등의 주교좌성당 학교가 있다.

젊은 수도승과 나이 든 수도승의 짝으로 수업이 이루어졌던 수도승원 학교와 달리 주교좌성당 학교의 수업은 학생들이 스승의 발밑에 모여 공부했다. 도시에 평신도들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수도승이 되어 은둔하기보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는 사목자가 되려는 학생이 점차 많아졌다.⁷⁵

직업학교는 특히 이탈리아에서 성행했는데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유명한 볼로냐(Bologna)의 법학 전문학교, 살레르노(Salerno)의 의학 전문학교, 남부 프랑스의 몽펠리에(Montpellier) 의학 전문학교 등이 있었고, 살레르노 의학 전문학교에서는 아라비아와 그리스의 의학서를 라틴어로 번역하기도 했다.⁷⁶ 지금까지 교육은 성직자들의 전유물이었지만 이제 평신도들도 지식인들의 대열에 합류했다. 학문과 교육은 도시 일터에서 전문화된 여러 활동 중 하나로서 직업이 되었다. 수도승회에서 성스러운 특성을 지녔던 책은 이제 교사와 학생들이 사용하는 지식의 매체라는 단순한 일의 도구가 되었다. 수도승회들에서 관상을 위한 도구였던 책들은 이미 더 이상 숭배 대상이 아니었다. 책들은 모든 도구처럼 대량 생산되는 경향을 지녔고 생산과 교환

75. 피터 왓슨, 『생각의 역사(1)』, 530-531 참조.

76. D. D. Mc Garry, “Education: 2. Medieval Education”, 114 참조.

의 대상이 되었다.⁷⁷

2) 대학(University)과 스콜라철학의 출현

중세 전성기에 대학들은 기원적으로 선구적인 주교좌성당 학교들과 직업학교들로부터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발전했다. 교육열과 그 내용이 고급화해짐에 따라 자동적으로 한 학교에서 모든 학과(universal)를 가르치고 연구하는 학교 체제인 대학(University)이 탄생한 것이다. 이런 대학들은 법률, 의학, 신학과 자유학과들의 수업을 위한 더욱 고급의 배움을 자유롭게 추구하는 교사들과 학생들 또는 이 양자들의 연합들 또는 조합들(학문적 길드들)이었다.⁷⁸ “기원후 1000~1300년대에” 사상이 통합되었고, 토론의 규칙과 방식이 정해졌고, 중요한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것도 신학적 사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건축, 법, 교양과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통합이었다. 서던에 따르면 신학, 법, 교양과목은 12~13세기에 유럽의 질서와 문명이 세워진 세 가지 토대였다. ... 이 세 가지 생각이 분야는 일관성과 세계적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은 유럽 전역에 걸쳐 학교가 발달한 덕분이었다. 유럽 각지의 스승과 제자가 유수한 학교를 찾아와서 학문을 익혀 귀국했다.”⁷⁹ 초기의 선도적인 대학들 중 1300년까지 최초로 생겨난 대학은 프랑스의 파리(Paris, 1150경), 몽펠리에(Montpellier, 1289); 이탈리아의 볼로냐(Bologna, 1088), 살레르노(Salerno) (후에 Napoli); 스페인의 살라망카(Salamanca); 포르투갈의 리스본(Lisbon) (후에 Coimbra); 영국의 옥스퍼드(Oxford, 12세기말), 캠브리지(Cambridge, 1209) 등의 대학들이다. 모두 다 국제적인 대학이었다. 그 밖에도 각 나라마다 도시마다 앞 다투어 대학을 창설해 1500년까지 75개소 이상의 대학이 생겨났다.

살라망카 대학은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대학 기관의 다양한 기능을 보여 주는 우수한 건축 유산을 보존하고 있다(그림 6). 살라망카 대학은 1218년 알폰소 9세(Alfonso IX de León, +1230)가 설립했다. 12세기 말부터 존재해 왔던 살라망카의 신학교는 13세기 초에 수도회 대학으로 바뀌었고, 1243년 4월에는 페르난도 3세(Fernando III de Castilla, +1252)는 왕실의 특별한 지위를 부여했다. 볼로냐 대학을 모델로 한 살라망카 대학은 학생 조합(universitas studentium)을 기초로 한다. 설립 첫 단계에서부터 15세기까지는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성당 건물 또는 빌린 공간에서 수업을 했다. 졸업식은 옛 대성당의 경당에서 열렸고, 이러한 전통이 1843년까지 이어졌다. 살라망카 대학은 유럽에서 볼로냐, 파리, 옥스퍼드 대학보다 늦게 건립되었지만, 1250년에 이미 유럽 최고의 대학 중 하나로 입지를 굳혀 살라망카의 황금시대에 전성기를 누렸다. 이것을 주요 근거로 ‘살라망카 옛 시가지’(Old City of Salamanca)가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1988년, 등재기준: 1, 2, 4). 무엇보다 살라망카란 도시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 대학에서 나



그림 6. University of Salamanca

77. 자크 르코프, 『서양 중세 문명』, 유희수 역, 문학과지성사, 2008, 145 참조; 헤수스 알바레스 고메스, 『수도생활역사 (2)』, 163-165 참조.

78. 파리(Paris) 대학은 교수들의 연합의 형태로, 볼로냐(Bologna) 대학은 학생들이 나라 별로 또는 학과 별로 연합하는 형태로 생겨났다.

79. 피터 왓슨, 『생각의 역사 (1)』, 479-480.

왔다. 15~18세기에 이르는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양식의 우수한 건축물군이 스스로 ‘미덕과 학문과 예술의 어머니’라고 선포한 대학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이는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처럼 살라망카가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오랜 전통을 가진 대학 도시가 될 수 있게 했다.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다양화된 단과 대학들과 같은 건축물이 있는 살라망카 대학은 역사 도시 안에서 특출하게 일관된 집단을 형성하며 수많은 문명과 종교 기념물로 주목받고 있다.⁸⁰

교회는 신앙의 시대에 신앙인들을 배출하는 대학들의 기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다. 학생들은 각국에서 마음대로 대학을 선택하여 갈 수 있었고, 각 대학마다 가르치는 교과목과 그 목표가 신앙을 이성으로 밝히는 같은 방향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어느 학교를 나와도 어디서나 가르칠 수 있는 면허증을 딸 수 있었다. 당시의 대학 공부를 일반학문(studia generalia)이라 불렀다. 당시는 신앙의 시대였고 온 세상이 같은 신앙과 같은 언어 라틴어를 사용하는 시대였고 모든 것, 특히 교육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은 그 창설과 운영에서 성직자들의 역할이 컸다. 각 대학은 교황의 인가를 받아 자격과 특권을 얻었고, 대부분의 교수와 학생들은 성직자들이었다.

스콜라철학은 “12세기 후반에 체계화되어 자연과 조직화된 그리스도교 사회에 대한 새로운 세계관을 낳았다. …국제적 성격을 가진 초기 대학들에서 똑같은 방법과 가치관을 공유한 수많은 스승과 제자들이 배출되었다. 그들은 유럽 전역에서 광범위한 지식인층(주로 남성)을 이루었다.”⁸¹ 12세기 동안에 강화된 스콜라철학은 13세기에 전성기에 들어가는데, 이러한 약진은 근본적으로 대학의 창설과 학문분야에 있어서 탁발수도회의 출현과 관련돼 있지만, 좀 더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교육소재의 도입과도 특별히 연관되어 있다.

수도승원에서는 홀로 성경을 독서하는 것이 위주였다. 반면에 파리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서로 마주보고 토론을 펼쳤다. 교과과정은 여전히 중세 초기에 정해진 자유 7과목이었지만 그중에서도 3학(문법, 논리, 수사)이 기본 과목으로 간주되었다. 12세기에 논리학은 3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 발전했다. 3학의 목표는 성직자의 주요 기능인 성경을 읽고 비판적 해석을 하고 진리를 끄집어내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었다. 주요 지적 과목이 문법과 수사에서 논리학으로 이행한 것은 중대한 지적 변화였다. 그것은 ‘과거의 사유 양식에 의거한 교육 체계에서 벗어나 창조적 탐구의 전향적 정신을 동력으로 하는 교육 체계로의 변화’였다. 11-12세기의 논리학은 현대 논리학과 달리 하느님에게 다가가는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⁸²

이 시대의 학교는 수도승원 학교와 선생들의 학교로 구분될 수 있는데, 지성의 계발을 통해 하느님을 만난다는 목적은 같다고 해도 스콜라신학의 선구자인 베네딕토회의 성 안셀모(Anselmus, 1033-1109)의 지성을 추구하는 신앙(fides quaerens intellectum)은 전통적인 수도승 교육의 고유한 특징인 신비적인 방법에서 처음으로 이성적인 과정으로 우월권을 양보했다.⁸³ 스콜라철학은 신앙의 신비와 신학을 이해하는데 이성을 동

80. 유네스코와 유산, 살라망카 옛 시가지, 2009, <http://terms.naver.com/entry.nhn?cid=3389&docId=1392430&categoryId=3389>, (검색일: 2013. 4. 20) 참조.

81. 피터 왓슨, 『생각의 역사(1)』, 484-485.

82. 피터 왓슨, 『생각의 역사(1)』, 532-535.

83. 헤수스 알바레스 고메스, 『수도생활역사(2)』, 165 참조.

원했는데, 신앙과 이성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된다고 생각했다. 스콜라철학은 신앙과 이성, 계시와 인간학, 계시된 그리스도교(revealed christianity)와 철학(특히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협동적인 일치를 보여주었다. 인간 지식과 자연적이고 계시된 추론(speculation)의 다양한 분야들은 일괄하여 철학 또는 지혜의 추구로 알려졌다. 이러한 학풍을 학교(schola)의 학풍이라 하여 scholasticism(스콜라철학)이라 했다. 서방의 학자들은 그리스어와 아라비아어로 된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서와 문학서들을 라틴어로 번역하고 연구하여 철학을 체계화하고, 그 원리를 기초하여 신학 체계를 구축했다. 이들의 작업은 교회의 학교교육 교과서로 채택되어 제 모습을 갖춘 학교교육이 실시되었다.⁸⁴

3) 중세 전성기 교육자들과 교육에 관한 저서

11세기의 중요한 교육지도자들은 주로 베네딕도회원들인데, 샤르트르의 풀베르트(Fulbert of Chartres, +1028)와 벡의 란프랑크(Lanfranc of Bec, +1089), 성 엠메람의 오틀로(Otloh of St. Emmeram, +1072경), 히르사우의 빌헬름(William of Hirsau, +1091)이 있다.

12세기의 교육 관계 서적으로는 생 빅토르의 위그(Hugues de Saint-Victor, +1141)가 쓴 「교육」(Didascalicon)이 유명하다. 그는 이 책에서 자유 과목(문과)에 이르는 폭넓은 교육을 강조하는데, 이 모든 지식들은 결국 하느님을 묵상하고 알아 모시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이 외에도 12세기의 히르사우의 콘라트(Conrad of Hirsau O.S.B., +1150경)의 저서 Didascali, 살리스버리의 존(John of Salisbury, 1120경-1180)의 논리학 교과서 Metalogicon, 샤르트르의 티에리(Thierry de Chartres, +1155이전)의 「7과목」(Heptateuchon)과 같은 저서들은 세속 학문을 배우는 것이 지성을 밝게 깨우쳐 편견 없이 성경과 종교를 연구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12세기 저서들은 주로 성직자들을 위해 성직자들의 손으로 쓰였지만, 도미니코회원 보배의 뱅상(Vincent de Beauvais, +1264)과 아우구스티누스회 총장 에지디오 콜론나(Egidio Colonna, Aegidius Romanus, Giles of Rome, +1316)는 평신도를 위한 책들을 냈다.

결론적으로 12세기 말에서 13세기 초엽의 중세 전성기에 이르면 사회와 학문의 세속화, 교회의 평신도화가 진행되면서 대학의 출현으로 ‘학문’이 ‘교권’과 ‘황제권’에 이어 제3의 권력이 되기에 이른다.

4) 탁발수도회들의 교육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베네딕도회에 이어 이제 13세기에 새로운 형태의 수도회인 도미니코회, 프란치스코회, 아우구스티노회 등의 탁발수도회들이 설립되어 교육을 수도회의 사도직으로 삼기에 이른다. 나아가 13세기는 복음 설교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시기였다. 탁발수도회들은 농촌에 정주하는 전통적인 수도승회들과 달리 도시에 수도원을 건설하고 탁발의 순회 설교로 자신들의 사도적 생활(vita apostolica)의 이상을 실현했다. 탁발수도자들은 도시민들로부터 육신의 양식을 얻는 대신 그들에게 영적, 문화적 양식을 제공했다.⁸⁵

84. D. D. Mc Garry, "Education: 2. Medieval Education", 114 참조.

85. 헤수스 알바레스 고메스, 『수도생활역사(2)』, 188 참조.

프란치스코회와 도미니코회의 수도자들의 독창성은 도시 대중들에게 의도적으로 설교를 했다는 것이다.⁸⁶ 지금까지 설교는 주교들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탁발수도자들은 주교의 허락 없이도 설교할 수 있는 교황의 특전을 받았다. 그들은 성전에서 길가와 광장으로 나와 모국어로 설교했다.⁸⁷ 그들은 도시라는 새로운 사회 속에서 설교와 고백과 모범적 생활이라는 새로운 해결책을 통해 교육과 문화에 기여했다.

탁발수도자들은 설교 대상이 교육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성인이어야 했다. 그래서 그들은 공부와 강의에 시간을 내기 위해 공동 가대 기도를 대폭 축소했다. 13세기에 등장한 신학자, 철학자, 법률가 같은 새로운 지식인들에게 성경과 신학에 대한 지식에 바탕을 둔 설교로 그들의 지식 에너지를 교회 안으로 인도했다. 베네딕토회와 달리 조직보다 소명을 강조하고, 위계보다 양심을 앞세웠던 프란치스코회와 도미니코회가 개인을 발견하게 한 것은 중요한 문화적 발전의 하나였다.⁸⁸ 프란치스코회는 “신학의 목적이 지식인에게 정보와 확신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심금을 울리는 데 있다”는 것을 확립했는데, 이것은 신앙의 내면화 운동이 낳은 또 다른 결실이었다.⁸⁹

탁발수도자들, 특히 도미니코회원들은 대중설교와 함께 자신들이 정착해서 활동을 했던 수도원 성당에서의 강좌 자리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강의했다. 도미니코회원들은 자신들의 수도원을 설립하는 도시마다 수도원에 신학교를 개설했고, 이 신학교는 시간이 흐르면서 대학의 중심이 되었다.⁹⁰ 각각의 탁발수도회들은 자신들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철학 신학 학파를 형성했다. 둘 다 연구의 중심인 파리 대학교수였던 도미니코회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74)와 프란치스코회 보나벤투라(Bonaventura, +1274)가 대표적인 인물들이었다.⁹¹ 보나벤투라는 이성을 전통과 신앙의 권위에 부차적으로 이용하면서 전통 신학에 신비적으로 접근했다.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스는 성경과 교부들의 가르침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합치시킨 신학 체계, 즉 이성으로 조명된 신앙을 통해 그리스도의 계시 전체를 이해하는 통일된 체계로 발전시켰다.⁹²

전통적인 수도승생활에서 공부는 '성독'(lectio divina)에 한정되고 개인 성화와 영적인 성장을 위한 것이었다. 반면에 탁발수도회들에서, 특히 도미니코회에서 공부는 자신들의 이상을 기도와 공부와 설교로 양식화했다. 공부가 수도생활의 본질적인 요소가 되었고, 특수하게 사도적인 목적을 지닌 것과는 별도로, 독서

86. 자크 르고프, 『서양 중세 문명』, 151 참조.

87. 헤수스 알바레스 고메스, 『수도생활역사 (2)』, 194 참조; 대중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탁발수도자들은 백과전서들, 성경과 교부학의 인용집들, 야사 전집들까지도 공부했다. 헤수스 알바레스 고메스, 『수도생활역사 (2)』, 195 참조.

88. 피터 왓슨, 『생각의 역사 (1)』, 490-491 참조.

89. 피터 왓슨, 『생각의 역사 (1)』, 506 참조.

90. 헤수스 알바레스 고메스, 『수도생활역사 (2)』, 195-196 참조.

91. 자크 르고프, 『서양 중세 문명』, 152 참조.

92. 알란 슈레크, 박정수 역, 『가톨릭 교회사』, 가톨릭, 2000', 80 참조.

(lectio), 질문(quaestio), 토론(disputatio)을 포괄한다.⁹³

성 프란치스코와 그 수도회와 관련된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성당과 프란체스코회 유적’(Assisi, the Basilica of San Francesco and Other Franciscan Sites)은 아시시를 이탈리아·유럽의 예술과 건축 발달에 핵심적인 준거 도시가 되게 했다(2000년 등재, 등재기준: 1, 2, 3, 4, 6)(그림 7).⁹⁴



그림 7. Assisi San Francesco

5) 다른 학교들과 교육

다른 유형의 학교들과 교육 형태들 중 초급의 읽기 교육이 교회에 봉사하기 위한 성가대원 훈련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소위 ‘성가 학교들’(song schools)에서 이루어졌다. 반면 주교좌성당과 수도원 학교들에서의 교육은 문법학교 유형의 사실상 중등교육이었다. 시중의 길드와 시청에서는 각종 직업인들을 위한 학교를 운영했는데, 특히 독일에서 1300년까지 12개의 시립학교들(municipal schools)이 있었다. 기사(騎士) 계급을 위한 기사 학교도 운영되었다.⁹⁵

평신도들과 나아가 여성들에 대한 학문적 교육이 중세 전성기에 증가했다. 13세기에는 왕족과 봉건 귀족들의 교육열이 높아 그들의 자녀들의 교육은 성직자가 아닌 일반인들의 교육으로 번지는 실마리가 되었다. 의학과 법학 부문에서는 평신도 교수가 교육을 담당했다.

6) 교육시설의 건축양식: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

(1) 로마네스크 양식: 하느님 중심적 예술

서방에서 고대 교회의 로마식 바실리카는 중세 초기에 카롤루스 제국과 오토 제국의 양식으로 발전하는데, 이 양식이 로마네스크(romanesque) 양식이다. 로마네스크란 명칭은 고대 로마 건축의 반원 아치(round arch)와 원주를 응용한 점에 착안해 ‘로마적인’이란 뜻으로 붙여졌는데, 여기에 게르만적 예술요소도 첨가되었다. “이것은 작센의 건축이자 노르만의 건축이고 또 ‘오푸스 로마눔 Opus Romanum(로마의 작품)’이기도 하다.”⁹⁶ 로마네스크 양식은 수직선과 수평선, 장엄성과 단순성, 프랑크-독일 민족들의 역동성과 로마의

93. 전통적인 수도승회와 탁발수도회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수도승회(Ordo monastico)	탁발수도회(Ordo mendicantes)
수도승(평신도)	형제(성직자)
교육받지 않았던 수도승	교육받은 형제
자립적인 수도승원(monasterium)	의존적 집회(conventus)
농촌-수도승원, 고독	도시-수도원, 집회
정주	순회
경신례에 헌신	순회 설교 사도직에 헌신
수직주의	수평주의

94. 유네스코와 유산,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성당과 프란체스코회 유적, 2009, <http://terms.naver.com/entry.nhn?cid=3389&docId=1392197&categoryId=3389>

95. D. D. Mc Garry, “Education: 2. Medieval Education”, 114-115 참조.

96. 토마스 R. 호프만, 『어떻게 이해할까? 로마네스크』, 안상원 역, 미술문화, 2008, 10.

안정성의 조화에 성공한 양식이다.⁹⁷



그림 8. Speyer Cathedral

11세기 로마네스크 양식 교회 건축물들은 서구 전역에서 반원 아치, 종탑과 장 십자가형 구조의 사용이라는 공통적인 형식을 지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출현한다. 1050-1150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수도승원 수가 건축과 예술(특히 스테인드글라스)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⁹⁸ 10세기 초에 생긴 클뤼니 수도승원을 이어 11세기에 카말돌리회, 카르투스교회, 시토회가 설립되었다. 12세기에도 정도는 탈해도 수도승원적 환경은 교육과 건축이 발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었다. 또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순례길도 특히 로마네스크 양식의 탄생과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클뤼니회를 비롯한 많은 수도회들이 이 새 건축양식을 모든 수도원에 도입해 로마네스크 양식을 확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⁹⁹ 신비적 영성의 표현인 로마네스크 양식을 주로 확산시킨 사람들은 베네딕토회 클뤼니 수도승들이었다. 황제, 주교, 아바스들의 건축 활동이 증가했던 약 1080년부터 1200년까지가 로마네스크 건축 양식의 전성기였는데, 클뤼니(Cluny)¹⁰⁰와 히르사우(Hirsau) 수도승원들과 시토회 수도승원들이 이러한 성공에 큰 역할을 했다. 중요한 로마네스크 건축물들로는 독일의 로마네스크 양식의 시작을 알리는 최대 규모의 종교 건축물인 슈파이어(Speyer, 1030-1097 건축: 1981 문화유산, 등재기준 2: 세계의 한 문화권 내에서 시대를 초월하여 건축, 기술, 기념물, 도시계획, 조경디자인 등의 발전에 있어 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보여주는 것¹⁰¹)(그림 8), 마인츠(Mainz), 보름스(Worms)에 있는 세 개의 제국 대성당(duomo)들과 트리어(Trier)의 대성당(1986년 문화유산, 등재기준 1, 3, 4, 6: = 인간의 창조적 자질을 나타내는 걸작, 인류 역사의 의미심장한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또는 건축적, 기술적 복합체 등의 탁월한 본보기, 보편적 중요성을 가진 사건 또는 현존하는 전통, 사상, 신앙, 예술 또는 문학 작품에 직접적으로 또는 명백히 관련된 것¹⁰²), 마리아 라흐(Maria Laach) 수도원이다; 프랑스의 클레르몽(Clermont)의 주교좌성당과 툴루즈(Toulouse)에 있는 생 세르냉 대성당(Basilica of St. Sernin, 1070: 1998년 문화유산, 등재기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순례길의 '순례성당'¹⁰³); 이탈리아의 모데나(Modena), 파르마(Parma), 피사(Pisa)의 대성당 등이 있다. 피사의 주교좌성당과 세례당, 사탑, 묘지는 중세 건축의 걸작들이기에 1987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등재기준: 1, 2, 4, 6). 이탈리아에서 로마네스크 건축은 지역에 따

97. Matias Augé, Liturgia: storia celebrazione teologia spiritualità, 76 참조.

98. 피터 왓슨, 『생각의 역사(1)』, 490 참조.

99.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유럽』,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감수, 중앙M&B, 2002', 102 참조.

100. 클뤼니 수도승원의 대성당은 1088년 성 후고가 짓기 시작해 1130년에 완공되었는데, 그렇게 대성당의 홀 안에서 발전된 웅장한 전례의 찬미는 조각과 미술들 안에서 그 최고의 완성을 이루었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노래하는 수도승들의 끊임없는 합창기도와 행렬들이 이어졌고, 그것은 또한 수도원 근교에 살던 농부들만이 아니라 멀리서도 그 웅장함에 이끌려 몰려든 사람들에게 영구한 가르침이 되었다. 헤수스 알바레스 고메스, 『수도생활역사(2)』, 51-52 참조.

101. 『유네스코 세계유산: 북·중앙유럽』,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감수, 중앙M&B, 2002', 2. 112 참조.

102. 『유네스코 세계유산: 북·중앙유럽』,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감수, 2-3. 144 참조.

103. Wikipedia, Basilica of St. Sernin, http://en.wikipedia.org/wiki/Basilica_of_St._Sernin,_Toulouse(검색일: 2013. 4. 29) 참조.

라 매우 다르게 꽃피었다.¹⁰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건물은 하느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바쳐져야 했다. 로마네스크 양식 건축은 우선적으로 수도승생활을 위한 기능적인 의도를 지니고 있다. 웅장한 대성당들이나 수도승원들의 성당은 전례 성무의 육성을 보장해야 했다. 그러나 예배를 위한 건물들은 각 세부 공간에서 방향에 따른 이차적인 의도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모든 교회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떠오르는 태양을 향하게 한 것이다.¹⁰⁵ 이런 의도들을 성취하기 위해 로마네스크 양식 성당은 한쪽 팔이 긴 장 십자가형(Latin Cross)을 기본 구조로 하면서도, 동서의 종축을 가진 바실리카식 성당의 동쪽 제단부에 남북으로 익랑(transept)을 붙여 장 십자가형 평면을 만들었다(그림 9). 이렇게 해서 수도승들은 기도라는 자신의 특수한 기능을 성당 안에서 실현했다. 로마네스크 양식이 성행했던 시기의 기도는 공동기도와 합창기도였다. 개인기도와 침묵기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수도승원의 공동기도와 합창기도를 위해서는 성대한 행렬을 할 수 있는 긴 홀의 넓은 성당이 필요했다.¹⁰⁶ 이를 위해 내부 공간에서 시선을 신속히 후진으로 유도하던 원주열의 간격을 한층 넓게 해 중후함을 느끼게 했다. 여기에 수도승, 기사, 농부라는 질서를 신성시했던 사회를 기능에 따라 첫째 자리에 수도승들을, 이어서 기사들과 농부들을 배치했다. 하나의 수도승원은 천상생활을 미리 맛보게 하는 질서와 평화를 만들어내는 지상의 신국인 제국 자체의 하나의 축소판이었다. 수도승들의 생활은 시간기도와 수덕생활과 전례적 예배를 통해 하느님을 계속적으로 찾는 생활이었다.¹⁰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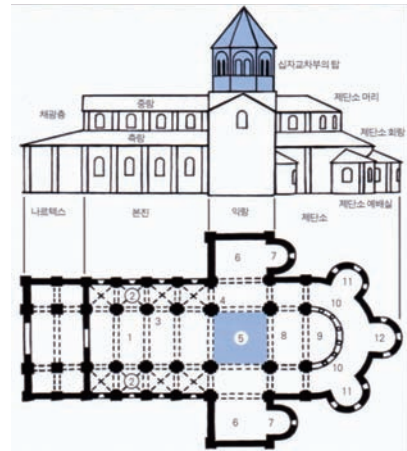


그림 9. 로마네스크 성당의 평면도와 외부
1. 중랑, 2. 측랑, 5. 십자교차부, 6. 익랑, 7. 익랑 경당, 8. 제단부 전실, 9. 제단부 머리, 10. 제단부 회랑, 11. 제단부 경당, 12. 정점 경당



그림 10. Saint-Sernin Basilica Nave

신랑과 트랜셉트가 만나는 교차점(crossing)에 팔각형 탑을 올려서 어두운 실내에 빛이 들어오게 했는데, 이는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가슴에 해당되는 교차부의 팔각형 광탑에서 빛을 받아들이는 창과 입구를 넓게 할 수 없어서 실내가 어두울 수밖에 없었지만, 내부 공간이 신비감을 갖게 한 것이 특징이다(그림 10).¹⁰⁸ 이것은 성당에 들어간 사람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교차부의 광탑을 통해 빛이 내려오는 곳으로 인도하면서 제단 주변의 빛이 연출하는 분위기에 깊은 감동을 받도록 한다. 그것은 밝고 현란한 고딕의 빛이

104. K. Bihlmeyer, Storia della chiesa, vol 2, 268-269 참조.

105. 헤수스 알바레스 고메스, 『수도생활역사 (2)』, 49 참조.

106. 헤수스 알바레스 고메스, 『수도생활역사 (2)』, 50 참조; 클뤼니 수도승들의 생활은 매우 예식화되어, 베네딕토회적 하느님의 일(opus Dei)에 많은 시편과 기도문이 추가되었고, 성당과 제대와 개인 미사가 증가했으며, 제대와 성해를 공경하기 위한 행렬들이 매일 진행되었다. Timothy Fry, The Rule of St. Benedict, 123 참조.

107. Timothy Fry, The Rule of St. Benedict, 123 참조.

108. 정영목, “가톨릭 미술”, 한국가톨릭대사전 편찬위원회, 『한국가톨릭대사전』, vol. 1, 한국교회사연구소, 1995, 134 참조.

아니라 어두운 명상적 빛인 것이다.¹⁰⁹

로마네스크식 성당의 가장 새로운 점은 고대 교회 바실리카의 평평한 목조 천장을 궁륭형의 석조로 개조한 것이다. 그런데 터널식 궁륭으로 된 무거운 석재 천장의 하중을 견디기 위해 육중한 기둥들과 엄청난 두께의 벽이 필요했기 때문에 석재가 많이 사용되었다.¹¹⁰ 이렇게 11세기의 수도승들이 대성당들을 바위로 지은 것은 단순히 교회를 튼튼히 짓겠다는 의도만이 아니라, 하느님이 성체요 그리스도는 바위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2) 고딕 양식: 그리스도 중심적 예술

고딕(Gothic) 양식은 12세기 중반에 프랑스에서 생겨나 1500년경까지 전 유럽으로 확산된 그리스도교 건축의 정수이다. 그것은 극적이고 격동적인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그리스도교 고유의 기질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현이다.¹¹¹ 고딕이란 개념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사가 바사리(G. Vasari)가 민족이동기의 “야만적인” 고트(Goth)족과 연관지으면서 순수한 형식을 지닌 이탈리아의 고전 양식과 반대로, 첨탑과 박공, 아치형 버팀벽을 사용한 노르만 건축양식을 야만적이라고 비하하는 명칭으로 사용했다. “사실 고딕 양식처럼 고대의 모범으로부터 철저히 등을 돌리고 자기만의 형식 규범을 발전시킨 양식은 없었다. 빛을 추구하며 천국을 향하는 성당건축예술은 이제 로마네스크 시대의 “암울한 세계상에 대한 위대한 반대계획으로 이해되었고, 그것은 동시에 새롭게 다가오는 시대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했다.”¹¹² 지금까지 농촌 사회를 바탕으로 전개된 로마네스크 양식과 달리 고딕 양식은 근본적으로 상공업을 바탕으로 하는 부르주와 계급의 생활 터전인 도시의 산물이었다.

프랑스는 고딕양식의 기원지로서 생 드니(St. Denis) 왕실 수도원 성당에서 시작되었다(1140-1144).¹¹³ 고딕 양식은 나라에 따라 시간적 편차를 두고 확산되었지만, 초기 고딕(12세기), 전성기 고딕(13세기), 후기 고딕(14-15세기)로 시대를 구분할 수 있다.¹¹⁴ 고딕 성당은 하느님의 신비를 빛으로 보는 그리스도교의 빛에 대한 개념을 건축학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천상의 빛으로 가득한 성당 내부를 실현하기 위해 천장의 무게를 경감시켜 로마네스크의 두꺼운 벽을 제거하기 위해 첨두아치와 늑재 궁륭을 사용했다(그림 11). 스테인드글라스(stained glass)를 기둥 사이에 끼워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빛에 의해 천상의 신비스런 분위기를 연출했다.¹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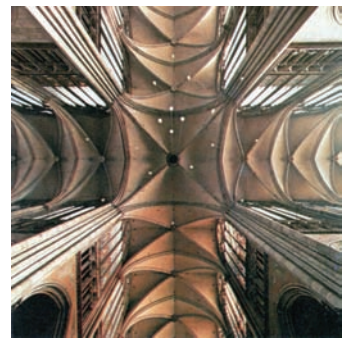


그림 11. 늑재 궁륭

109. 박성은, 『기독교 미술사』, 79 참조.

110. 박성은, 『기독교 미술사』, 73-74 참조.

111. Matias Augé, Liturgia: storia celebrazione teologia spiritualità, 76.

112. 카린 자그너, 『어떻게 이해할까? 고딕』, 안상원 역, 미술문화, 2007, 6-8.

113. 서쪽 정면 파사드와 동쪽 콰이어, 즉 제단부에 고딕 양식의 형식적 특징이 드러나고 있다. 생 드니 서쪽 파사드에서 강력한 부벽으로 구분된 새 개의 정문 구조(내부의 3랑과 일치한다), 2층의 좌우에 난 창들과 중앙의 장미창, 3층의 쌍탑 형식은 이후의 모든 고딕 성당의 전형이 된다. 또한 생 드니 성당 제단부 천장에 사용된 늑재 궁륭과 첨두 아치로 된 큰 아케이드, 그리고 두터운 벽체 대신 기둥 사이를 메우고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는 고딕 양식의 기본적인 건축 언어가 된다.

114. 카린 자그너, 『어떻게 이해할까? 고딕』, 6 참조.

115. 박성은, 『기독교 미술사』, 95-98 참조.

고딕 양식은 그리스도교 미술의 절정을 이룬다. 왜냐하면 그리스의 신전건축 이래 모든 인간 역사의 가장 완전한 것들로 열거된 건축물들을 생산했기 때문이다. 고딕성당은 그리스도교 건축사상 처음으로 인간적 척도(human scale)에 반대되는 명제를 고려했다. ‘무한’의 개념을 동경한 고딕 건축가는 내부적으로는 로마네스크 성당의 천장을 끌어올려 신을 상징하는 빛을 끌어들이고자 했고, 외부적으로는 하늘을 향해 끝이 뻗어있는 첨탑을 세웠다. 이는 모두 신과의 합일(合一)을 동경하는 고딕 정신의 표현이다.¹¹⁶ 이를 위해 고딕 성당은 일반적으로 구조 기술상의 3요소, 즉 늑재 궁륭(肋材穹窿, ribbed vault) · 버팀도리[飛樑, flying buttress] · 첨두아치(pointed arch)를 유기적으로 조합해 건축함으로써 로마네스크보다 가늘어지고 강해져 앙고성(仰高性)이나 상승감(上昇感)이 강조되는 성당을 건축할 수 있었다.¹¹⁷ 양손을 하늘로 향하여 구원을 바라는 것과 같은 모습은 중세 사람들의 신앙심을 잘 나타내고 있다.

고딕성당의 기본 형태는 십자가형 바실리카로서 이 기본 형태에 특수한 형태가 무수히 존재한다(그림 12). 성당의 평면은 본진과 익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태에 상응하고, 성지 방향인 동쪽을 향해 배치된다. 좌우 측랑은 대개 중랑보다 낮다. 본진과 익랑이 만나는 장소를 십자교차부라 부른다. 본진은 십자교차부를 지나서 동쪽의 제단부로 이어진다. 제단부는 전례의 중심지이다. 따라서 성당건축은 언제나 제단부부터 시작해 가능한 한 빨리 전례 공간을 마련하려고 했다. 중앙 파사드와 함께 제단부는 성당 안의 신자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신학적 계획에서 핵심이 되는 형상부분이다. 이 길은 서쪽 입구로부터 제단부의 희미한 어둠 속에 있는 중앙 제대로 향했다. 이 반원형 제단부 공간은 화려하게 장식된 제단부 뒤쪽 회랑과 화환모양의 경당에서 위엄 있게 마무리 되었다. 그래서 방문객이 서쪽 파사드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그의 걸음은 천국문을 지나 “천상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 신비로운 목표지를 향하게 된다. 불가사의한 빛과 현기증이 날 정도로 높은 성당 공간 때문에 신자들이 실제로 지상의 삶으로부터 초월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한 것이다.¹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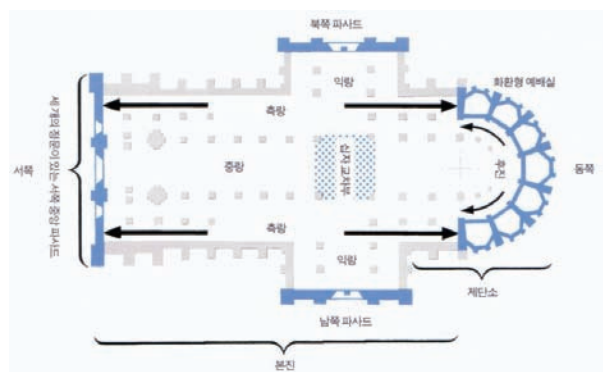


그림 12. 고딕 양식의 평면도와 구조

고딕 이전의 양식인 강한 벽과 세 개의 본채(nave)를 가진 로마식 바실리카와 로마네스크식 바실리카는 전통적인 수도승들이 선호하는 양식이었는데, “모든 사람을 이미 바실리카 평면에 배치된 하나의 교계적 질서들 안에 상류층부터 모든 참석자들을 모아,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찬의 빵을 통한 양식으로 신자들을 양육하시는 곳인 후진(後陣, apse)으로 향하게 했다. 반면에 오직 단 하나의 본채를 가진 고딕식 건물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말씀의 선포를 위한 하나의 거대한 강의실이었는데, 설교에 전념하는 탁발수도회들이 선호하였다.”¹¹⁹

116. 정영목, “가톨릭 미술”, 137 참조.

117. 김정신, “고딕 예술”, 한국가톨릭대사전 편찬위원회, 『한국가톨릭대사전』, vol. 1, 한국교회사연구소, 1995, 404 참조.

118. 카린 자그너, 『어떻게 이해할까? 고딕』, 21-25 참조.

119. Matias Augé, Liturgia: storia celebrazione teologia spiritualità, 78.

고딕 성당은 수직과 수평의 대립적 공존, 영적인 내부와 이치적인 외관의 대조를 달성함으로써 신앙과 이성의 구별과 조화를 추구한 스콜라철학이란 그 당시의 시대정신을 담았다.¹²⁰ “고딕 양식은 스콜라학과 신비 신학의 양식이요, “진정 가톨릭적이고 세계적인 건축양식”(Dehio)으로서 재료의 지배와 영성화, 그 창조의 일치적이고 단한 특성과 내재적인 법칙에 대한 엄격한 종속, 하늘을 향한 두드러진 경향과 신적 세계로의 몰입이 이 양식에서 두드러진다.”¹²¹

프랑스의 샤르트르(Cathédrale Notre-Dame de Chartres, 1145/94-1220), 노트르담(Cathédrale Notre-Dame de Paris, 1163-1250/1345), 랭스(Cathédrale Notre-Dame de Reims, 1225-1299: 1991년 등재, 등재기준: 1, 2, 6), 아미앵(Cathédrale Notre-Dame de Reims, 1211-1275/1475)의 장엄한 주교좌성당들은 전성기 4대 고딕 양식



그림 13. Chartres Cathedral

으로 꼽히며, 파리에 있는 루이 경건왕의 황홀한 궁전성당 “Sainte Chapelle”로 훌륭하게 발달했다. 샤르트르 대성당은 고딕성당의 대명사로서 이 성당을 지을 때 새로 개발한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신랑에 여러 개의 창을 만들 수 있었다. 스테인드글라스 창을 통해 밝은 빛이 들어오면서 흰 석재와 대조를 이룬다. 1979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등재기준: 1, 2, 4)(그림 13). 랭스 대성당(1991년 문화유산, 등재기준: 1, 2, 6)은 프랑크 왕국의 클로도베우스(Clovis I, +511)가 496년에 개종해 레미기우스 주교로부터 세례 받은 후 역대 프랑스 왕들이 대관식

이 거행된 성당이였다. 멋진 고딕 조각들이 웃는 표정을 짓고 있어서 ‘프랑스의 미소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아름답다.’¹²² 아미앵 대성당(1981년 문화유산, 등재기준: 1, 2)은 프랑스 최대의 고딕성상으로서 특히 서쪽 정면의 ‘돌 백과사전’이라 불리는 조각군이 깊은 인상을 준다. 1220년에 신랑을 지으면서 착공되어 1288년에 주요 작업을 완료했다. 이런 대건축의 공기가 단축된 것은 각 부분의 건축 자재를 규격화해 컨베이어 시스템식으로 대량 생산했던 새로운 공법 덕분이었다. 또한 석재를 현장이 아닌 난방 설비가 된 옥내에서 작업해 가공함으로써 날씨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었다.¹²³

영국에서 초기 고딕 양식은 캔터베리 주교좌성당(Canterbury Cathedral, 1175부터), 솔즈베리의 주교좌성당(Salisbury Cathedral, 1220-1265년경), 전성기 고딕 양식은 웨스트민스터 수도승원(Westminster Abbey, 1245-58)¹²⁴과 대성당 등이 있다.

120. 김정신, “고딕 예술”, 404, 407.

121. K. Bihlmeyer, Storia della chiesa, vol 2, 353.

122. 『유네스코 세계유산: 서유럽』,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감수, 2. 140 참조.

123. 『유네스코 세계유산: 서유럽』,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감수, 2. 236-238 참조.

124. 웨스트민스터 수도승원은 중세 영국 건축에 미친 영향 외에도 영국 고딕 예술의 놀라운 연속성을 보여 주는 독특한 예술 건축물이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수도승원은 1066년 이래 모든 영국 국왕들의 대관식을 거행한 영국의 의회 역사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대영 제국의 진정한 역사박물관과 다름없다. 유네스코와 유산, 웨스트민스터 궁,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세인트 마거릿 교회, <http://terms.naver.com/entry.nhn?cid=3389&docId=1392523&categoryId=3389>, 2009, (검색일: 2013. 5. 4) 참조.

한편 독일에서는 고딕양식이 아주 서서히 도입되었으나 프랑스가 이루어 놓은 토대(“opus francigenum”) 위에서 독자적인 발전을 했고, 특히 여기서는 수직양식(Perpendicular Style)을 통해 수직주의에로의 경향이 강조되었다.¹²⁵ 무엇보다도 중세 독일의 가장 고귀한 기념물은 쾰른(Köln) 대성당(1248년 호흐스타텐의 콘라드 대주교에 의해서 착공, 1322년 가대를 축성, 1842-1880년 본채와 탑들의 건설을 완성함)이다.¹²⁶

이탈리아에서도 13세기에는 고딕이 유행했고, 훌륭한 대표작은 시에나(Siena), 오르비에토(Orvieto), 피렌체(Firenze)의 주교좌성당들과 많은 탁발수도회 성당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 지방에 비해서 남부에서 그 양식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수평적인 발전이 수직적인 발전에 비해 우세했고, 위를 향한 긴장이 완화되었으며, 탑들은 독립적이었다).¹²⁷

캔터베리 대성당은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e of Canterbury, +604경)가 처음으로 자신의 주교좌를 정한 곳으로서 영국 교회의 요람지이며, 토머스 베크트(Thomas Becket, +1170) 대주교가 암살된 곳으로도 널리 알려졌다. 이후 그의 무덤에 참배하려는 순례객들로 영국 제일의 순례지가 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제프리 초서(Geoffrey Chaucer, +1400경)가 「캔터베리 이야기」를 지었다. 또한 영국 최초의 고딕 성당이었기에 1988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등재기준: 1, 2, 6.¹²⁸

쾰른 대성당은 ‘중세 건축 예술의 정수’로 간주되고 있고, 종교 재생의 표시, 민족 고유성의 시각적 표현,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군주제의 상징 등을 통해 쾰른 대성당은 1248년에 시공을 시작해 1880년에 완공되기까지 632년이 걸려 민족의 기념비로 재탄생했다. 그것은 당시의 애국적인 동기를 바탕으로 한 중세의 소박한 예술성에 대한 소중함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1996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등재기준: 1, 2, 4).¹²⁹

시에나 대성당은 전성기를 누린 13-14세기에 형성된 옛 시가지의 궁전과 저택과 예술품들과 함께 토스카나 지방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시에나 공화국의 문화적 상징이었다. 1297년 공포된 캄포 광장에 대한 법령은 세계 최고(最古)의 도시 계획 관련 법령이었는데, 이 법령에 의해 중세 도시의 면모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시에나의 역사 지구는 1995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등재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1, 2, 4.

125. K. Bihlmeyer, Storia della chiesa, vol 2, 353 참조; 독일 지역에 있어서 가장 엄격하고 소박한 고딕 초기의 첫 번째 기념물은 Marburg의 S. Elisabeth 성당(1235-1283)과 Trier의 S. Maria 성당(1247-1257, 바닥 중앙부에 고딕식 구조)이다. 그 후 곧 화려한 고딕 중반기의 대성당들이 라인 강변과 기타 지방에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건축하고 준비하는 데 성직자와 세속건축가들, 수도원과 그 창설자들, 도시의 부르주아들과 조합, 형제단들의 대표자가 경쟁했다.

126. 그 후의 스트라스부르크, Freiburg(이 두 주교좌성당들은 로마네스크 시대에 시작되었음), Halberstadt, Regensburg의 주교좌성당들과 Oppenheim에 있는 성 카타리나 성당과 Lübeck의 성 마리아 성당(벽돌건물)들도 유명하다.

127. K. Bihlmeyer, Storia della chiesa, vol 2, 354 참조.

128. 『유네스코 세계유산: 서유럽』,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감수, 2, 140 참조.

129. 『유네스코 세계유산: 북·중앙유럽』,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감수, 130-134 참조.

5. 중세 후기 교육(1300-1500)

중세 후기의 교육에서는 이탈리아 인문주의적 르네상스 사조와 알프스 이북의 말기 고딕(transalpine late Gothic) 사조란 두 개의 경향들이 점진적으로 융합되고 있다. 말기 고딕이 약간 과장되고 타락한 중세 전성기적 발전의 성직 과정을 이어가고 있었던 반면, 르네상스는 우선적으로 그리스도교 이전의 고전에서 영감을 받은 평신도적, 세속적 과정이었다.

1) 이탈리아 르네상스 인문주의 교육

이탈리아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은 이성(또는 논리)와 형식적인 철학을 반대하여 감성(또는 감상)과 문학을 강조함으로써 중세 전성기의 변증가들과 스콜라철학자들과 갈라섰다. 그들은 또한 교육에 대한 성직자적 접근 방식에서 평신도적 접근 방식으로 교육의 방향을 돌렸다. 그 결과 그들은 일차적으로 평신도 지도자들의 기초적이고 비전문적인 또는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고안된 새로운 유형의 보통 중등교육을 촉진시켰다. 이런 교육을 성취하기 위해 그들은 기사도 교육 위에 학문적 교육이 존재하도록 접목시켰다. 그들은 초기 그리스도교 문학을 배제하지 않고 주로 플라톤(Platon),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베르길리우스(Vergilius), 키케로(Cicero), 호라티우스(Horatus) 같은 이교적 고전문학 저술가들의 작품을 사용했다. 그들은 교육과정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자유 7과목에 더 많은 세속학문 영역을 더하고 신체적이고 윤리적 훈련과 사회적 기술들을 포함해 과목을 넓혔다.

새로운 인문주의 교육은 만토바(Mantova)에 있는 펠트레의 빅토리노(Vittorino da Feltre, 1373/74-1446)의 학교와 페라라(Ferrara)에 있는 베로나의 과리노(Guarino da Verono, 1370-1460)의 학교에 포함되었다. 이 두 학교들은 단지 상급 학과의 이탈리아 청년들뿐만 아니라 독일, 영국과 프랑스에서 온 알프스 이북의 학자들도 불러들였다. 새로운 인문주의는 또한 이탈리아의 파도바(Padova), 파비아(Pavia), 피렌체(Firenze)의 대학교에도 퍼졌다(그림 14)



그림 14. Gymnasivm Patavinvm, 1654년

여성 교육열은 중세 전성기에 그랬던 것처럼 중세 말기에 들어서도 계속적으로 증가했다. 1405년경에 레오나르도 브루니(Leonardo Bruni, 1370-1444)는 「연구와 학습」(Studies and Learning)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여성들의 학교교육을 강조한 것은 교육사에서 역사적인 일이었다. 이 외에도 여성 교육의 선봉에 나선 사람들은 르네상스 이론가들 중 바티스타 과리노 2세(Battista Guarino the Younger, 1434-1513)와 비토리오 다 펠트레(Vittorio da Feltre)와 과리노 1세(Guarino the Elder, Guarino da Verona, 1374-1460)였다.¹³⁰

130. D. D. Mc Garry, "Education: 2. Medieval Education", 116 참조; 당시의 여성 교육을 받고 유명해진 여성으로는 이탈리아 여성 작가들 비토리아 콜로나(Vittoria Colonna, 1490-1547), 루크레치아 토르나부오니 디 메디치(Lucrezia Tornabuoni di Medici, 1425-1482), 마르그리트 드 나바르(Marguerite de Navarre, 1492-1549) 등이고, 여왕들은 프랑스의 앤(Anne de France, 1461-1522), 카스티야의 이사벨(Isabel I de Castilla, 1451-1504), 아라곤의 카탈리나(Catalina de Aragón, Catherine of Aragon, 1485-1536)이 있고,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Catherine of Siena, 1347-1380), 스웨덴의 성녀 카타리나 등이 있다.

2) 중세 후기 교육의 특징

중세 후기의 교육은 문예부흥 시대를 겪으면서 새로운 교육의 3가지 일반적인 특징들을 강조하였다. (1) 고전문학을 강조함으로써 라틴어가 일반 교육 과정의 핵심이 되었다. (2) 다방면의 지식을 추구하고 인간의 감성에 역점을 두는 문예부흥 시대의 인간상은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한 인간 또는 보편적 인간(uomo universale)이었다. (3)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교리와 윤리관은 보전되었다.

중세 말기 교육에서는 논리 위주의 스콜라학과식 교조주의 교육에 반대하는 풍조가 일었고, 이탈리아 문예부흥 사조에 발맞추어 철학적 회의론이 교육계에도 스며들었다. 나아가 새로운 교육 풍조가 갑작스럽게 등장함으로써 교회 밖에서도 교사들의 수가 부족한 현상이 초래되었다. 중세 말기 알프스 넘어 각국에서는 평신도 교육의 증가와 이에 상응하는 대학들을 포함한 교육기관들의 증가가 특징적이었다. 이러한 시대 요청에 따라 네덜란드의 흐루테(Geert Groote, 1340-1384)가 데벤테르(Deventer)와 츠볼레(Zwolle)에서 ‘공동생활의 형제들’(Brethren of the Common Life, 1376) 수도회를 설립하였다.¹³¹ 새로운 종교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공동생활의 형제들’(Brethren of the Common Life)의 학교와 같은 정규학교들(full-time schools)에서 평신도 보통 중등교육이 증가한 것은 중요한 발전이었다.

6. 나가는 말

그리스도교 교육은 참다운 인간으로의 변화와 성숙은 하느님과 일치에서 가능하며,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가르쳤다. 그리스도교 교육은 구약성경에서 유래하는 교육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언행과 가르침으로부터 복음을 전수받은 제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 후 고대 교회의 주도적인 교육자들인 교부들은 점차 교회 고유의 교육 자료에 그리스철학의 도구를 사용하여 신앙을 학문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복음 선포, 강론, 교리교육 등의 형태로 행해진 그리스도교 교육은 ‘세례지원자 학교’에서 세례지원자들에게 하느님, 그리스도, 파스카 신비 등 대한 기본적인 교리교육을 했다. 그 후 ‘교리학교’에서는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신학과 함께 세속의 철학, 수사학도 가르쳤다. 중세에는 ‘수도승원 학교’, ‘주교좌성당 학교’와 ‘직업학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마침내 대학이 출현하게 된다. 그리스도교 교육은 신앙 교육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그리스와 로마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켜 중세 유럽문명을 낳았다. 또한 여러 기술과 학문들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크게 공헌했다. 교회는 창설기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교육을 통해 인류 문화를 발전시켰다.

그리스도교 교육시설은 성당 건축이 교회와 신앙에 의해 그 형태가 영향을 받았듯, 그리스도교 교육이념과 신앙과의 관계 안에서 설립되고 발전했다. 그리스도교 교육시설물의 방향과 구조, 공간 배분 등은 바로 이런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시대와 환경, 민족과 문화에 따른 변천을 겪었다. 가정교회에서 수도승원, 대성당, 대학으로의 변천, 바실리카 양식, 로마네스크 양식, 고딕 양식으로 이어지는 건축 양식이 이를 증거하고

131. 그 후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새로운 수도회들이 속속 생겨났다: 우르술라 수녀회(Ursulines, 1535), 예수회(Jesuits, 1540), 노트르담 수녀회(Sisters of Notre Dame, 1598), 방문 수녀회(Visitation Nuns, 1610), 애덕의 딸들 수녀회(Daughters of Charity, 1633), 성 요셉 수녀회(Sisters of St. Joseph, 1650), 그리스도교 형제 수도회(Christian Brothers, 1684) 등.

있다. 성당이 지역 교회의 공간적인 이콘이었듯, 다양한 그리스도교 교육시설 역시 각 시대 교육의 공간적 이콘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역사 안에서 여러 나라의 종교, 문화 등의 유산들이 신앙과 문화의 창조성과 고유한 표현, 민족적 특성의 구현과 역사적 가치, 시대를 초월하는 건축과 기술의 기념물로서 지니는 가치로 말미암아 세계문화유산으로 많이 지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문화유산이 될 수 있던 것들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로 말미암아 훼손되거나 사라진 것들도 많다.

그리스도교 교육시설들이 세계문화유산들로 많이 지정된 것은 그 시설들이 그리스도교 고유한 신앙과 교육 전통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보편적 중요성을 지닌 신앙, 예술이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유산으로서의 진정성(authenticity; 재질, 기법 등에서 원래 가치 보유)을 잘 보호해왔고, 보호와 관리체계를 잘 유지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화유산들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다. 나아가 더욱 중요한 것은 문화유산들이 오늘날에도 살아 있는 신앙, 예술, 건축이 되도록 하는 살아 있는 신앙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그리스도교 교회는 과거 자신의 세계문화유산을 단순히 지금 보존하고 활용하고 있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세계문화유산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여기서부터 고민하고 찾고 만들어 내고 있다.

이슬람 문화권의 메드레세(Medrese) 교육과 유산으로서의 가치

이슬람권의 전통적인 교육 기관의 목적은 광범위한 맥락에서 대중들의 일상생활 및 제반 법규와 관련한 이슬람교에 대한 교육이었다. 초창기 교육은 학자들이 최초의 사원이라고 보는 종교 지도자들의 집에서 진행되었으며 그 이후 사원에서 진행되었을 것이다. 교육 기관인 메드레세(Medrese)의 최초 건축 양식은 11세기에 터키 가즈네비즈(Ghaznevids) 왕조와 셀주크(Seljuks) 왕조에 의해 이슬람 건축에 도입되었다. 이런 교육 기관들은 시아파(Shiite sect)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니파(Sunni sect)의 관료들을 양성하여 현재의 북부 인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터키의 아나톨리아(Anatolia) 지역에 파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셀주크 왕조 또한 이런 목적으로 교육 기관을 설립했다. 역사적 문서를 통해 메드레세의 존재 여부는 확인할 수 있지만 무굴(Mogul) 침략 시기에 모두 파괴되었고 수세기를 거치면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¹. 지금 남아있는 메드레세의 최초 유적은 레이(Rey) 지역의 셀주크 술탄 멜리크사(Seljuk Sultan Meliksah)(1055-1092) 왕조의 통치 시기에 설립된 것이다. 이 건물은 중앙에 안마당이 있고 안마당의 사방에 4개의 이완(iwan)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완 사이에 여러 개의 방이 있는 구조였다.² 이런 건축 양식은 15세기까지 양식의 차이가 거의 없이 지속되어 터키 왕조, 지역 왕조 및 기타 이슬람 왕조의 메드레세의 주요 건축 양식이 되었다. 학자들은 이런 건축 양식을 코라산(Khorassan)과 투르크스탄(Turkistan)의 주택 건축 양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이런 양식은 당시의 궁전, 사원, 여행자 숙소 등 여러 건축 양식에서 관찰된다.³

이슬람 왕조의 중요한 메드레세에는 바그다드에 위치한 압바시아조 시대(Abbasid period) 말기의 무스타시리아 메드레세(Mustansiriya Medrese)(1233), 알-피르다우시 메드레세(Al-Firdawsī Medrese)(1234-1247) 그리고 카이로에 위치한 아이유브 시대(Ayyubis period)의 알 살리흐 아이유브 메드레세(Al-Malik as-Salih Najmaddin Ayyub Medrese), 칼라운 메드레세-병원-묘소 복합 단지(Qala'un medrese- hospital-tomb complex)(1284-1285), 카이로에 위치한 맘룩 시대(Memluk period)의 술탄 하산 모스크-메드레세(Sultan Hasan mosque-medrese)와 바르쿠크 메드레세(Barquq medrese) 그리고 이란 카르기르드(Khargird)에 위치한 티무르 시대(Timurid period)의 카르기르드 메드레세(Khargird medrese)(1445) 등이 있다. 모든 메드레세에는 안마당에 4개 이하의 이완이 있었다. 무스타시리아 메드레세만이 2층 구조로 되어 있다. 무스타시리아 메드레세와 바르쿠크 메드레세의 경우 가장 큰 이완이 사원의 기능을 한다. 알-피르다우시 메드레세와 술탄 하산 메드레세는 사원이 있는 복합 단지(complex)이다.

터키 공국(principalities)들을 세우고 나중에 이들을 아나톨리아 셀주크 왕조로 통일한 셀주크 왕조의 침략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나톨리아 지역에 메드레세가 건립되었다. 이런 메드레세는 수니파 교리를 가르치고 시아파의 교리와 새로 유입된 터키 유목민들의 사상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셀주크 왕조의 술탄 또

1. Suut Kemal Yetkin, Türk Mimarisi, Bilgi Yayınevi, Ankara, 1970, p. 27 (터키 건축).

2. Oktay Aslanapa, Türk Sanatı, Kultur Bakanlığı Yayını, Ankara, 1990, p. 91-92 (터키 미술).

3. Dogan Kuban, Türkiye Sanatı Tarihi, Gerçek Yayınevi, İstanbul, 1970, p. 122 (터키 미술의 역사); O. Aslanapa, Türk Sanatı ..., p. 91.

는 고관(viziers)들에 의해 운영되었다. 이 지역에서 메드레세는 12세기에 처음 등장했다. 수많은 메드레세가 아나톨리아 지역에 12세기와 14세기 사이에 건립되었으며 그 중 60개 이상의 메드레세가 온전한 상태 또는 일부 파괴된 상태로 남아있다. 중앙에 안마당이 있고 안마당 사방에 4개의 이완(iwan)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완 사이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는 구조를 가진 이 시기의 메드레세의 건축 양식은 중앙 및 서남 아시아의 이전 메드레세의 양식과 유사하긴 하지만, 일부 메드레세의 경우에는 둥근 창이나 각등으로 마무리한 돔(dome)이 안마당의 지붕으로 설계되어 있다. 학자들은 이 시기의 메드레세를 안마당이 탁 트이고 돔으로 꾸며진 개방형 메드레세(open medrese)로 분류한다. 동일한 시기 그리고 동일한 지역에 건설된 메드레세는 두 가지의 양식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아나톨리아 셀주크 왕조의 건축 양식에서 돔으로 꾸며진 안마당에 대한 명확한 정보는 없다. 아나톨리아 셀주크 왕조의 메드레세에는 4개 이하의 이완이 있었고 교실로 사용하기 위해 중앙 이완이라고 불렸던 큰 이완이 한 개가 있었다. 이완 사이에 있는 방들은 학생들의 기숙사였다. 각 기숙사 방은 화덕과 두 개의 벽장이 있는 일인용 방이다. 일부 메드레세에는 기숙사 방보다 더 큰 방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메드레세의 설립자의 묘가 있다. 또한 2층 구조로 된 개방형 메드레세도 있다. 대부분의 메드레세의 목적은 이슬람 교리와 법의 교육이었지만, 의술을 가르치는 병원과 같은 기능을 하는 메드레세도 있었다. 이런 메드레세는 사원 근처의 도시에 건립되었다. 하지만 이런 메드레세가 복합 단지(complex)를 형성하기 위해 항상 사원과 동시에 건립되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의 메드레세가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알려진 바가 없다. 교육과 강의를 담당하는 종교적 스승인 호카(hoca)에게는 비서가 있었으며 학생들은 모두 기숙사 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최근 연구 결과 밝혀졌다. 메드레세의 호카가 이슬람계에서 유명한 교수인 경우 이 메드레세에서 공부하기 위해 멀리에서도 학생들이 찾아왔다고 한다.

최초 메드레세는 토캇에 위치한 야기바산 메드레세(Yagibasan Medrese)이다(12세기 중반). 야기바산 메드레세는 3개의 이완이 있는 비개방형 건물(covered building)이었다. 3개의 이완 중 한 개는 입구 공간(entrance space)이고 그 반대편에 있는 이완은 미흐라브(mihrab)라는 기도를 위한 니치(niche)가 있는 교실로서 메드레세의 구성원들이 예배 시간동안 기도를 올리는 공간으로 사용된다. 나머지 이완은 학생들의 공용 휴게실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야기바산 메드레세는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전면(façade)에 창문이 전혀 없다. 환기 및 조명은 돔에 설치되어 있는 둥근 창을 통해 이루어졌다.

1228년에 두 개의 별도 시설이 하나의 건물에 건립된 디브리지(Divrigi)의 메드레세와 사원은 세계유산 목록(World Heritage List)에 등재되어 있다. 디브리지 메드레세는 이슬람 교육 기관이 아니라 병원이자 의술 학교였다. 메드레세 건물은 남쪽에 위치하며 입구는 서쪽을 향하고 있다. 이 메드레세는 3개의 이완이 있는 건축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큰 이완은 입구 반대편에 위치하고 작은 이완들은 건물 양쪽에 위치한다. 건물의 입구 부분은 2층 구조이다. 직사각형의 안마당은 주변에 4개의 기둥과 볼트형 천장(vault)으로 지지되는 중심부에 둥근 창이 설치된 돔으로 덮혀져 있다. 빗물을 모으기 위해 돔의 둥근 창 바로 아래의 마당에는 연못이 있다. 건물의 돔과 여러가지 종류의 천장은 돌로 만들어져 있으며 일부 돔과 천장에는 장식이 새겨져 있다. 중앙 이완의 지붕은 중앙 아시아 터키 문화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인 이중 셸(double shell) 지붕이다. 디브리지 메드레세의 내부에는 별 모양의 천장이 있고 외부에는 피라미드 형태의 지붕이 있다. 중앙 이완의 북쪽에 위치한 돔으로 덮힌 방은 무덤이다. 이완의 높이는 안마당의 층 높이보다 한 층이 높다. 디브리지 메드레세의 대문(monumental gate)에는 디브리지 사원의 북문과 같이 독특한 장식이 있다. 디브리지 메드레세의 크고 단순한 전면에서 돌출되어 있는 대문은 기하학 및 앞 문양으로 꾸며진 뾰족한 아치에 얹은 니치

(niche)가 있다. 플라스틱 야자수 잎(plastic palm leaves), 연잎 그리고 햇빛마니바퀴(sun discs) 장식이 옆면에 겹쳐져 있다. 문 위의 니치(niche) 안쪽에는 중간에 잎 문양으로 장식된 기둥이 있는 위층 창문이 있다. 창문 상단에는 별들이 새겨져 있고, 양쪽에는 햇빛마니바퀴 문양이 새겨져 있다. 나중에 문의 출입구를 낮아졌지만 주변 장식 문양이 잘 유지되어 있다. 문의 양쪽에는 한 남성과 여성의 초상이 새겨져 있었지만 현재는 모두 훼손되어 확인할 수 없다. 이 초상은 디브리지 메드레세를 운영하고 이 지역의 지역 대표였던 아흐메트 샤(Ahmet Shah)와 그의 아내 투란 메리키(Turan Meliki)라고 알려져 있다. 이슬람 전통에서는 인간 형상의 그림 또는 조각을 금지하고 있지만, 사원을 제외하고 아나톨리아 셀주크 왕조 시대의 건물에서는 인간을 형상한 작품이 발견된다. 이슬람 전통이 자리잡기 전의 터키 문화는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중세까지 이어졌다. 디브리지 사원과 메드레세 모두 천장과 돔의 둘레 장식에 새겼는데 이는 코카서스 아르메니아(Caucasian Armenian)와 그루지아(Georgian) 건축 양식과 관련이 있다. 메드레세의 대문의 장식은 중앙 아시아 터키 미술과 관련이 있고, 야자수와 연잎은 인도 미술과 관련이 있다. 마치 여러 다른 문화에서 온 여러 명의 장인들이 디브리지 건물을 함께 지은 것 같다. 디브리지 건물을 지은 건축가의 이름이 중앙 이완의 뒷벽에 "아흐랏(아나톨리아 동부의 마을)의 후렘 샤(Hurrem Shah)의 작품"이라고 새겨진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브리지 건물에는 기초적인 사원과 메드레세 건축 양식이 적용되었지만, 문, 돔 그리고 천장의 장식은 독특한 아나톨리아 셀주크 왕조의 건축 양식이다.

아나톨리아 셀주크 왕조의 대고관(grand vizier)이 운영한 콘야의 카라타이 메드레세(Karatay Medrese)(1251)는 한 개의 중앙 이완이 있는 비개방형 메드레세이다. 카라타이 메드레세의 각 모퉁이 방들은 기숙사 방보다 더 크고 돔으로 덮혀져 있다. 좌측의 돔으로 덮힌 방은 외부로 통하는 입구이고 이완 좌측의 뒷쪽에 있는 방은 묘가 있는 방이다. 안마당의 지붕인 돔에는 둥근 창이 있고 바로 아래에 빗물을 모으기 위한 연못이 있다. 이 돔의 전환 요소(transition element)는 벽의 각 모퉁이와 돔의 바닥 부분에 꼭지점이 있는 부채와 같이 서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 평면 삼각형이다. 이런 전환 요소는 12세기 및 15세기의 전환 요소로서 터키 삼각형 벨트(Turkish triangle belt)와 함께 아나톨리아 셀주크 왕조의 건축에서 사용되었으나 나중에는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이후에 14세기와 15세기의 오토만(Ottoman) 건축의 주요한 전환 요소로서 다시 등장했다. 안마당의 돔, 전환 요소로서의 부채꼴과 그 시작 선까지의 벽면, 그리고 아치, 천장 및 이완의 벽면은 모두 타일로 장식되어 있다. 타일은 꽃무늬 및 기하학적 문양을 가지고 있다. 이완의 아치의 타일에는 조각이 새겨져 있다. 이런 건축 문화는 사산(Sassanian) 문화에서 기인했으며 현재 이란의 셀주크 건축 양식까지 이어졌다. 카라타이 메드레세의 대문에는 기하학적 문양으로 이루어진 돌 장식이 있다. 문의 니치(niche)에 기하학 문양과 아치가 교차하는 문양을 새기는 것은 옛날 로마 시대의 시리아에서는 흔한 양식이었다. 카라타이 메드레세를 건축한 건축가나 장인에 대한 정보는 알려진 바가 없다. 하지만 카라타이 메드레세의 장식에는 다른 두 그룹의 장인들이 건축에 참여했다는 점이 분명히 나타난다. 내부 장식을 맡은 그룹은 페르시아 출신이었고 문의 장식을 맡은 그룹은 시리아 출신이었다. 당시에 건축된 다른 건물에 장인들의 출신 지역에 대한 비문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추정을 할 수 있다.

카이세리의 후안드 하툰 메드레세(Huand Hatun Medrese)(1238)는 지붕이 덮혀있지 않은 마당이 있는 개방형 메드레세이다. 이 메드레세는 하안드 하툰의 사원 옆에 건립되었고 중앙 이완의 남부에 있는 방을 통해 사원의 서북 방향 모퉁이에 위치한 하툰의 묘에 갈 수 있다. 후안드 하툰 메드레세는 측면에 기숙사 방이 있고 2개의 이완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완 중 작은 한 개는 입구 공간으로 사용되고 큰 이완은 교실이

다. 안마당은 사방이 리바크(콜로네이드)로 둘러싸여 있다. 이 메드레세에는 문을 제외하고 장식이 없다. 대문의 출입구 중앙에는 니치(niche)가 있고, 니치(niche)는 앞과 기하학적 문양으로 꾸며져 있다. 후안드 하톤 메드레세는 건축 구조 및 문을 제외하고 장식이 없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아나톨리아 셀주크 건축 양식을 잘 보여준다. 또한 아나톨리아 셀주크 건축 양식에서는 흔히 문을 장식하였다.

토캇에 위치한 곱 메드레세(Gok Medrese)(13세기 하반기)는 2층으로 된 개방형 메드레세다. 곱 메드레세의 건축 구조는 일반 직사각형이 아니며 서쪽을 계단 형태를 만들었는데 이는 아마도 건축 당시 대지의 형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두 개의 이완이 있는데, 한 개는 입구고 반대편의 큰 이완은 미흐라브 니치(mihrab niche)가 있는 교실이다. 곱 메드레세에는 4개의 큰 방이 있는데, 이 중 두개의 방은 돔으로 지붕이 덮혀져 있고 다른 두 개의 방은 궁륭 천장(barrel vaults)으로 덮혀 있다. 위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은 건물의 동북 방향 모퉁이에 있다. 기숙사 방은 1층의 방 사이에 자리잡고 있다. 안마당은 중앙 이완 측면을 제외하고 세 면이 리바크(rivag)로 둘러싸여 있다. 이완은 2층의 발코니로서 기숙사 방의 환기를 담당한다. 중앙 이완과 큰 4개의 방은 1층 구조이지만 2층 높이이고 기숙사 방과 입구 이완은 2층 구조이다. 2층의 기숙사 방은 외부 전면에 창문이 있다. 안마당 전면과 중앙 이완의 벽은 기하학적 또는 앞 문양의 타일로 꾸며져 있다. 중앙 이완 전면의 외부 타일은 조각으로 새겨져 있다. 이완 아치는 빨간색과 터키색의 유약 처리된 벽돌로 만들어졌다. 안마당과 중앙 이완의 전면 장식은 사산(Sassanian) 양식이지만 곱 메드레세의 문은 출입구 니치 주변을 기하학적 또는 앞 문양을 새겨넣은 돌로 장식한 것은 아나톨리아 셀주크 양식이다. 입구 이완의 기숙사 방의 두 개의 창문은 문의 장식과 통합되어 있다.

에르주룸에 위치한 치프테 미나레 메드레세(Cifte Minareli Medrese)(13세기)는 아나톨리아 셀주크 메드레세의 모든 특징을 다 보여주는 건축물이다. 이 메드레세는 4개의 이완과 2층 구조로 된 개방형 메드레세다. 교실 또는 중앙 이완이 더 규모가 크고 입구 반대편에 위치해 있다. 다른 이완들은 작고 크기가 동일하다. 중앙 이완의 뒷편에는 묘가 있다. 양쪽 이완의 지붕은 별 모양의 천장으로 꾸며져 있다. 이완 사이에는 기숙사 방이 있다. 안마당의 모퉁이에 리바크 뒤에는 2층으로 이어지는 4개의 계단이 있다. 안마당은 사방이 리바크로 둘러싸여 있다. 이완 앞에 있는 리바크 기둥은 이완의 너비와 일치하는 큰 스패ن(span)이 있다. 4개의 이완과 그 앞에 있는 리바크 유닛 그리고 입구 이완의 서쪽에 위치한 성원(mesjid)은 2층과 높이가 같은 1층 구조이다. 기숙사 방 앞에 있는 리바크는 2층에 발코니와 기숙사 방의 전환 공간(transition area)이 있는 2층 구조이다. 2층의 전환 공간은 이완 앞의 2층 높이의 리바크 유닛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2층의 4개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4개의 계단이 필요했다. 리바트의 아치에는 앞 문양의 장식이 있고, 옆면이 발코니 높이의 건물을 둘러싸고 2층 높이의 이완 리바크의 외부 선의 경계까지 올라간다. 일부 리바크 기둥에는 기하학 문양의 조각이 있다. 치프테 미나레 메드레세의 입구 전면은 조형 미술로 장식된 외부 면에 위치해 있다. 입구 전면의 외측 끝부분에는 두 개의 둥근 플라스터(plaster)가 비대칭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벽면의 중앙 지점에 대문이 돌출되어 있다. 돌출된 문의 외측에는 문의 상단 라인에 두 개의 뿔족탑(minaret)의 밑둥이 위치하는 넓은 플라스터가 있다. 뿔족탑의 밑둥과 몸체에는 빨간색과 터키색의 유약 처리된 벽돌이 사용되었다. 뿔족탑의 몸체는 세로 문양이 새겨져 있다. 뿔족탑의 밑둥은 유약 처리된 벽돌과 타일을 사용해 둥근 모양으로 정사각형의 패널이 장식되어 있다. 문에는 니치 안의 중앙에 출입구가 있으며 니치는 꽃과 앞 문양으로 꾸며져 있다. 측면 플라스터의 하단에는 여러 개의 야자수 잎 위로 머리가 두 개 달린 독수리 문양이 두 마리의 용으로 변하는 모양이 옆면 상단을 구성하는 문양으로 새겨져 있다. 문의 외부 장식의 하단의 양면에는 천국의

문의 양쪽에 있다는 생명의 나무(life tree)의 문양이 새겨져 있다.

아나톨리아 셀주크 왕조는 13세기 말과 14세기 초에 여러 차례 외부의 침입을 당했으며 결국 작은 터키 공국에게 영토를 내어주고 말았다. 터키 공국의 통치 기간 동안에도 이 지역에는 아나톨리아 셀주크의 전통이 이어졌다. 아나톨리아 서북 지역에 세워진 오토만 공국은 나중에 오토만 제국으로 발전했고 14세기 하반기에 아나톨리아 지역 전체를 정복했다. 오토만 제국은 서부로의 영토 확장과 유럽에서 이슬람을 분리시키는데 많은 관심을 가졌다. 13세기의 번영을 누렸던 아나톨리아 셀주크 도시들은 오토만 제국 시기에 도외시되었고, 대부분의 아나톨리아 셀주크 메드레세는 방치되었고 일부 메드레세는 19세기에 이미 쇠퇴하고 말았다.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 기관은 오토만 제국의 수도였던 버사(Bursa), 에딘(Edirne) 그리고 이스탄불(Istanbul)에 연달아 설립되었다. 오토만 제국의 메드레세는 복합 단지(complex)라고 불렸던 공공 건물의 일부분으로서 술탄, 술탄의 가족, 고위 관료 및 군장성들이 운영을 했으며 소유주의 가족들에 의해 종교적 재단으로 관리되었다. 초기 오토만 제국 시기의 메드레세는 모두 개방형 안마당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제외하고 아나톨리안 셀주크 건축 양식을 따랐다. 중앙 이완은 점차 방으로 변경되었고 측면 이완은 사라졌다. 또한 지붕 양식은 천장에서 돔으로 바뀌었고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졌던 대문은 몰딩으로 수수하게 바뀌었다. 오토만 제국의 메드레세는 17세기까지 복합 단지를 구성하는 건물로서 건립되었다.

버사의 일디림 메드레세(Yıldırım Medrese)(1399/1400)는 사원과 술탄 일드림 바예지드의 묘로 구성된 복합 단지 내의 건물이었다. 일디림 메드레세에는 장방형의 직사각형 건물에서 돌출된 중앙 이완이 한 개가 있다. 안마당은 중앙 이완을 제외하고 세 면에 리바크가 있다. 기숙사 방은 건물의 측면과 입구를 따라 배치되어 있다. 이완과 입구 방에는 돔이 있으며 기숙사 방의 지붕은 천장이다. 기숙사 방과 이완은 외벽에 창문이 있다. 일디림 메드레세의 문은 전체 건물 크기(mass)보다 높다. 입구 공간은 거리를 향하고 있는 이완이며 몰딩으로 꾸며져 있다.

버사의 무라디예 메드레세(Muradiye Medrese)(1425/1426)도 동일한 건축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처마와 창문의 아치 주변의 송곳니 모양의 프리즈(frieze), 창문 위와 입구 이완의 아치 위에 블라인드 아치의 돌과 벽돌 작품, 벽과 입구 이완의 아치에 돌과 벽돌이 교차하는 석축에서 비잔틴 건축 양식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이스탄불의 파티흐 복합 단지(Fatih Complex)(1471)는 여러가지 기능을 가진 건물들에 대한 기하학적 배치 구조로 설계된 최초의 대형 복합 단지이다. 메드레세가 복합 단지의 건물들을 대부분을 구성하였다.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건축 양식을 가진 총 16개의 메드레세 건물이 사원의 외부 정원의 동쪽과 서쪽에 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양쪽에 위치한 8개의 메드레세 건물은 사원의 정원과 분리되어 있는 자체의 정원에 위치하고 있다. 정원에는 복합 단지의 외부 모퉁이에 위치한 메드레세로 이어지는 사원의 외부 정원으로 통하는 두 개의 문이 있다. 사원의 외부 정원 옆에 있는 메드레세에는 안마당이 있는데 여기에는 측면 중앙에 교실로 사용되던 큰 방이 있다. 사원의 외부 정원의 반대편에 위치한 교실 옆에는 화장실이 있는 비개방형의 작은 정원이 있다. 안마당은 교실 측면을 제외하고 세 면이 리바크로 둘러싸여 있다. 기숙사 방과 입구 방은 리바크 뒷면에 있다. 사원의 외부 정원에 메드레세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다. 사원의 외부 정원을 따라 일반 거리가 있는 북쪽으로 4개의 메드레세가 위치한다. 첫번째 메드레세의 교실은 정원을 바라보며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두번째 메드레세의 구조는 세번째 메드레세를 등지고 나란히 건립되어 있기 때문에 교실은 중심부에 가깝게 배치되어 있다. 네번째 메드레세의 교실은 복합 단지의 병원, 호스피스 및 목욕탕 등과 같은 다른 건물들의 정원을 바라보며 북쪽에 위치해 있다. 오토만 등록부에 메드레세라고 언급되어 있는 복합 단지의 외부 가장자리의 정원에 위치한 네 개의 메드레세 건물은 파티흐 메드레세의 학생 기숙사였다. 이 메드레세는 주요 메드레세와 나란히 건립되었으며 거리를 따라 안마당을 배치하는 좁은 직사각형 건물 구조다. 중심부의 두 개의 메드레세는 서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며 맞닿아 있는 측면에 기숙사 방을 설치하지 않는 동일한 건물 구조를 가진다. 입구는 이완의 형태로 메드레세 정원을 따라 길쭉한 구조의 중심부에 위치한다.

술레이마니예 복합 단지(The Süleymaniye Complex)(1552-1558)는 이스탄불에서 두번째로 규모가 큰 복합 단지이며 파티흐 복합 단지보다 다양한 기능을 가진 건물이 더 많았다. 술레이마니예 복합 단지는 경사지에 건립되었으며 모든 건물이 자체의 정원을 가지고 있었다. 복합 단지의 교육 장소는 네 개의 메드레세와 다룰하디스(darulhadis)(선구자의 말씀으로 번역), 한 개의 다룰쿠라(darulkurra)(훌륭한 코란 교육 기관), 한 개의 의학 메드레세 그리고 한 개의 기초 학교였다.

첫번째와 두번째 메드레세, 그리고 의학 메드레세와 기초 학교는 복합 단지의 중심부에 위치한 사원과 낮은 지대 간의 거리가 조성되어 있는 복합 건물의 서부 가장자리의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다. 메드레세와 기초 학교의 1층에는 동쪽으로 뻗어있는 거리를 따라 상점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첫번째 그리고 두번째 메드레세의 건축 구조는 동일했지만 방향이 완전히 정반대이다. 두 메드레세 사이에는 거리가 조성되어 있다. 두 건물은 거리를 따라 그리고 높은 정원 벽이 있는 의학 메드레세와 기초 학교의 건물을 따라 좁은 정원이 있다. 거리를 따라서 서쪽에는 큰 정원도 있다. 각 건물의 입구는 서쪽 방향 양단 사이에 있는 거리와 통한다. 이런 메드레세의 건물 구조는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전통적인 양식이다. 메드레세는 모두 사원을 향해 있는 교실 반대편에 위치한 기숙사 방 사이의 세 개의 아치 모양의 공간이 있는 이완이 있다. 메드레세의 입구 방(entrance chamber)의 서쪽 방면에는 입구 방으로 창문이 나 있는 접수실과 같은 방이 있다. 이 방 옆에는 서쪽 정원에 갈 수 있는 작은 정원의 화장실 유닛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있다. 거리의 서쪽 모퉁이에 위치한 메드레세의 L자 모양의 평면 공간은 종교적 지도자인 호카(hoca)의 2층 집이다. 거리에서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입구가 있고 2층에는 두 개의 방이 있다. 또한 메드레세의 서쪽 정원으로 이어지는 문도 있다.

세번째 그리고 네번째 메드레세는 복합 단지의 서쪽 가장자리의 가장 낮은 지대에 위치한다. 메드레세와 사원 사이에는 메드레세보다 더 높은 지대에 위치한 거리가 있다. 메드레세는 서쪽으로 향하는 거리를 따라 배치되어 있는 상점들 뒤에 자리잡고 있으며 상점들 사이에 메드레세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 세번째 그리고 네번째 메드레세의 건축 구조는 동일했지만 방향이 완전히 반대로 설계되어 있다. 두 건물 모두 높은 정원 벽으로 둘러 싸인 정원이 있다. 이런 메드레세의 건축 구조는 전통적인 것이지만 건축 당시의 대지 지형으로 인해 일부 설계가 변화되었다. 아치 모양의 공간이 있는 벽이 설치되어 있고 측면 정원을 내려다보는 L자 모양의 평면 통로를 통과해야 메드레세로 들어갈 수 있고 리바크에 갈 수 있다. 건물의 서쪽 방면에 위치한 교실은 안마당 보다 1층이 더 높고 리바크에서부터 시작되는 계단이 있다. 교실에는 1층의 안마당 전면에서 수조와 분수가 있다. 교실은 양쪽 측면 모두에 리바크로 이어지는 두 개의 문이 있다. 메드레세의 북쪽 및 남쪽에 위치한 각 기숙사 방의 높이는 서로 다르다. 리바크의 높이는 서로 다르고 외부 가장자리에 위치한 계단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리바크의 내부 측면에 위치한 높은 리바크 플랫폼에는 기숙사 방 앞에 있는 테

라스로 이어지는 입구가 있는 세 측면에 난간이 있어서 기숙사 방 주인의 개인적인 휴식 공간으로 활용된다. 안마당 또한 높이가 서로 다르고 리바크의 외부 측면에 설치된 계단을 통해 안마당이 연결된다. 메드레세의 동쪽은 2층 구조이다. 중간 정원을 바라보며 동쪽에 위치해 있는 두 개의 메드레세 사이에 있는 두 개의 방에는 1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다. 1층에는 기숙사 방이 위치해 있고 이 방들은 두 개의 메드레세의 동쪽에 있는 공용 정원으로 이어진다. 이런 방들은 메드레세의 비서들의 기숙사로 사용되었다. 정원 벽에는 대각선으로 세 개의 화장실 유닛이 있다. 이 정원의 남쪽에는 거리로 통하는 문이 있다. 메드레세의 이 공간은 비서들의 전용 공간이었다.

선구자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다룰하디스(darulhadis)는 기존에 조성된 거리때문에 다른 건물들과 비스듬한 각도로 복합 단지의 동북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설의 구조는 전통적인 메드레세 건축 구조와는 다르다. 사원의 묘지의 남쪽에 있는 대지는 직사각형 형태이다. 다룰하디스(darulhadis)는 거리 측면을 따라 기숙사 방이 있는 삼각형의 동북 방면에 자리잡고 있다. 직사각형 교실은 건물의 북단에 위치한다. 오늘날 다룰하디스(darulhadis)의 앞에는 좁은 정원이 있다. 옛날에 건물은 파괴되었으며 정원 공간 또한 훼손되었다. 현재 복원된 건물에는 원래의 지붕 양식, 리바크 및 정원이 사라지고 없다.

코란 교육 시설인 다룰하디스(darulhadis)는 오토만 건축 양식의 메드레세 건축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건물은 16세기에 건립되었으며 돔이 있는 방이 한 개가 있다. 술탄이마니예 복합 단지(The Süleymaniye Complex)는 묘지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16세기 교실을 사원으로 사용하는 초기 이슬람 메드레세를 상기시키는 새로운 건축 설계를 발견되었다. 일부 사원의 경우 기숙사 방은 사원 안마당의 리바크 뒤편에 배치되어 있다. 일부 사원-메드레세 건물의 경우, 메드레세의 교실은 없고, 사원의 기도 공간을 교실로 사용했다. 카디르가 이스탄불에 위치한 소콜루 메흐메트 파샤 사원(Sokollu Mehmed Pasha Mosque)(1571)이 이런 교실을 가진 건물이다. 기숙사 방은 사원의 리바크 주변에 자리잡고 있다. 교실은 안마당의 북쪽 중심부에 위치한다. 건물은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마당과 기숙사 방의 북쪽이 북쪽에 위치한 거리보다 1층이 더 높다. 메드레세의 북쪽 지역 아래에는 중앙에 사원의 대문(북쪽)이 있는 상점들이 있다. 교실 아래 계단에 있는 통로를 통해 사원에 들어간다. 교실 입구는 두 개의 손잡이가 있는 계단 옆에 있고 통로 계단과 통한다.

16세기는 여러가지 대중적 기능을 하는 건물들로 구성된 대형 및 중형 복합 단지가 건설되었던 시기였다. 하지만 17세기에는 대형 복합 단지가 많이 건립되지 않았으며 복합 단지의 구성을 위한 메드레세 건축이나 사원과 통합된 구조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인 단일 건물로만 메드레세를 구성하였던 초기의 메드레세의 개념으로 복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건축 구조가 점차 바뀌었다. 로마 발렌스 수도교(Roman Valens Aqueduct) 옆에 건립된 가잔페르 아가 메드레세(Gazenfer Aga Medrese)(1596)는 소유주의 묘와 분수 시설(a fountain building, sebil⁴)이 있는 입구 정원을 설계하는 전통적인 건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쿠유쿠 무라드 파샤 메드레세(Kuyucu Murad Pasha Medrese) 또한 묘와 분수 시설이 있다. 이 메드레세는 이스탄불의 주요 거리를 따라 건립되어 있기 때문에 늘어선 상점들이 메드레세를 가린다. 페이줄라흐 에펜디 메드레세(Feyzullah Efendi Medrese)(1700)는 안마당과 기숙사 방보다 약간 높은 곳에 위치한 넉넉한 공간을 가진 이

4. 벽에 한 개 이상의 분수가 설치되어 있는 키오스크(kiosk)건물. 성일(holy days) 기간 동안 자선 목적의 소르베(sorbe)가 제공된다.

완과 두 개의 교실이 있다. 교실까지는 안마당에서 이어지는 계단을 통해 연결된 이완을 통해 교실에 들어간다.

오토만 행정 시스템은 19세기에 개혁을 거치면서 전체 교육 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온 유럽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관료들을 교육하기 위한 새로운 학교들이 설립되었으며 메드레세는 점차 영향력을 잃게 되었다. 18세기 이후에는 새로운 메드레세가 설립되지 않았다. 오토만 제국의 경제 상황도 점점 악화되어 메드레세 시설 및 건물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19세기 이스탄불에서 메드레세 건물의 훼손이 더욱 심각하게 진행되었다. 공화국이 건설된 이후, 메드레세는 폐쇄되었고 대학의 교수들이 종교 교육을 담당하였다. 귀족에게 속한 건물의 유지는 재단총괄국(General Directorate of Foundations)이 맡았다. 아나톨리아 셀주크 왕조 시대의 대부분의 메드레세와 오토만 제국 시대의 일부 메드레세는 이미 학생이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재단총괄국에서 인수하여 관리했다.

대부분의 메드레세는 중요한 역사적 건물들로서 예술적 그리고 건축학적 가치를 지닌다. 아나톨리아 셀주크 시대의 메드레세의 예술적 가치는 대문, 돔 그리고 천장과 안마당 전면의 장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런 메드레세 건물의 장식을 통해 또한 건물을 지은 건축가와 예술가들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타일과 벽돌 장식을 이용해 사산 양식으로 건물을 지은 사람들은 페르시아 출신이고 하얀색과 회색의 돌로 기하학적 설계를 한 사람들은 시리아 출신일 것이다. 또한 디브리지 사원과 메드레세의 돔과 천장을 돌로 장식한 사람들은 코카서스 출신임이 분명하다. 디브리지 메드레세의 문 장식을 만든 사람들의 출신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다. 당시의 일부 메드레세 장식은 아나톨리아 셀주크 양식이다. 이런 장식들은 아나톨리아 셀주크 왕조의 엄청난 부 그리고 페르시아, 시리아 및 코카서스 지역에서 많은 장인들이 메드레세 건축을 위해 터키로 이주한 후 자생적인 건축 양식을 발전시켜 나갔다는 것을 증명한다. 돔형 지붕이 있는 안마당을 가진 비개방형 메드레세는 당시의 터키 지역의 독특한 건축 양식이다. 또한 건축물에서 터키의 삼각형 전환 벨트(triangle transition belt)로 이어지는 실험적 시도의 흔적도 찾아 볼 수 있다.

오토만 왕조의 메드레세에는 아나톨리아 셀주크 메드레세의 장식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시기의 메드레세도 광범위한 건축 양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특히 16세기에 건립된 메드레세는 다른 건물들과 통합되어 대형 복합 단지의 일부분으로 존재했다. 이런 건축 양식에서는 화려한 장식보다는 기능을 더 중요시했다. 일부 메드레세는 경사지에 건립되었고 메드레세의 위치에 따라 상점 또는 비서실과 같은 시설이 낮은 층에 설계되었다. 18세기에 들어서서 메드레세는 복합 단지가 아닌 독립적인 단일 건물로 건립되었다. 이런 단일 건축 구조를 통해 넓은 방이 있는 기존의 전통적인 건축 구조로부터 탈피할 수 있었다.

터키의 메드레세는 사회, 역사, 건축 그리고 예술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메드레세는 터키 지역에 900년 간 존재했던 교육 기관을 증언하는 유산이다. 일부 메드레세는 화려한 장식을 자랑하고 일부 메드레세는 설계와 건축 예술의 조화를 보여준다. 또한 메드레세를 통해 당시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추측해 볼 수 있다. 21세기 초부터 메드레세 건물의 보존과 복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일부 메드레세 건물은 전기 및 난방 시스템을 설치하여 박물관, 연구 센터 및 도서관으로 사용될 수 있다.

배움의 고향, 시즈타니학교(閑谷学校)

1. 시즈타니학교란

1) 시즈타니학교의 개요

교육은 인류의 중요한 문화활동의 일부이며 그 족적을 나타내는 교육 유산은 인류 발달의 역사 그 자체이다. 그 교육활동은 각국과 각 지방에서 각각의 시대에 걸맞은 내용과 형태로 이루어져왔다.

동아시아에서는 예로부터 한자와 유학이 문화의 공통적인 기반이며, 일본에서도 중국과 조선을 통해 한자와 함께 전파된 ‘사서오경’ 등이 종교, 문화와 결합하여 승려와 귀족에게 서서히 침투되었다. 이것이 유학으로서 일본 전국 곳곳에 퍼지게 된 것은 17세기 에도시대였다.

오랜 전란을 끝내고 평화를 실현한 근세 봉건영주들은 정치를 지탱할 사상으로 유학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정치를 직접 담당하는 무사계급의 교육(인성)을 위해 교육시설을 정비했다. 나아가 지역과 촌락의 지도자 계층의 교육을 위한 시설도 마련되었다.

한편 ‘겐나엔부(元和偃武)’로 일컬어지는 전란 없는 태평한 세상이 약 300년간 이어진 에도시대 중기 이후에는 농업생산력의 향상과 함께 상품경제가 크게 발전하여 시간적,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진 서민에 의한 서민(상인(町人))문화가 꽃을 피운 시대이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정세 속에서 무사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교육열이 확대되고 다양한 교육시설이 건설되었다. 다만 신분제도가 명확한 에도시대에는 “과거” 제도가 없었으며, 학습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고자 하는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읽기, 쓰기, 셈’과 같은 기초 학력과 인간으로서의 보편적인 윤리를 배우는 유학이 중심을 이루었다.

오카야마(岡山) 지역에서는 학문을 좋아하고 계몽적인 군주인 이케다 미즈마사(池田光政)에 의해 무사를 위한 번학교(藩学校)와 서민을 위한 시즈타니학교(향학)가 다른 번보다 앞선 17세기 후반에 설치되었다.

특히 시즈타니학교는 서민의 교육이 중심을 이루면서도 지방의 무사나 다른 영지의 자체도 수용했으며, 지도자인 교수를 포함하여 학교 운영에 서민 출신자를 등용하는 등 번과 민간의 협동에 의한 열린 학교로서 막부 말까지 200년에 걸쳐 존속되었다. 메이지(明治) 이후에는 그 지방의 유지나 지역 사람들의 지원을 받으며 무수한 교육제도의 변천에 대응하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민에게 교육의 기회와 교육의 장을 제공해온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교육시설이다.

2) 시즈타니학교의 현황

에도시대 후기에 이르자 시즈타니학교의 명성이 널리 퍼져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참관자가 늘어났다.



시즈타니학도(閑谷學圖) 文化 10년(1813): 大原民聲

이들 참관자용으로서 시즈타니학교의 설립과 전경을 기록한 것으로 당시 시즈타니학교의 교수였던 타케모토 쿤리츠(武元君立)가 작성했다.

학교그림(學圖)의 동쪽은 학교의 성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배움의 장’으로서의 시즈타니학교의 중심이다. 현재에도 ‘시즈타니학도(閑谷學圖)’ 그대로의 모습이 눈 앞에 펼쳐져 있다.

인공 방화대인 ‘히요케야마(火除山)’의 서쪽은 숙사 겸 교실인 ‘학방(學房)’과 수습소(手習所)가 있다. 생활공간이자 ‘읽기, 쓰기’ 등의 기초학습과 자주자습의 장이기도 하다.

‘반지(津池)’, ‘교문(校門)’, ‘성묘(聖廟)’

학교의 중심선을 이루고 가장 높은 곳에 성묘(聖廟)를 설치했다. 공자를 스승으로 삼고 유학을 배우는 학교임을 나타낸다.

‘강당(講堂)’

교수로부터 직접 강의를 듣기 위해 그 달의 1과 6이 붙는 날만 입당했던 ‘배움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물이다. 원기둥과 각기둥을 짜맞춰 넓은 공간을 지혜롭게 구분하고, 사면의 출입구와 모든 벽면에 설치된 아치형의 창(花頭窓) 등 특이한 의장이 엄숙함을 자아낸다. 또한, 3과 8이 붙는 날은 인접한 ‘습예재(習芸齋)’에서 독서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다. 그리고, 교내의 25건에 달하는 건조물이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강당(講堂)’은 학교 건축으로서 일본 내에서 유일하게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돌담(石塀)’

일본 건축에서 담은 판자나 토담으로 되어 있으며, 돌을 쌓는 경우는 방토(土留め)로서 석벽(石垣)에 이용되는 것이 통례인데, 시즈타니학교의 석조 담은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다. 부정형으로 자른 돌을 퍼즐처럼 짜 맞추고 윗면은 아치형으로 만들고, 중간에는 잡석을 끼워 넣어 흙은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 시즈타니학교의 경관을 대표하는 건조물의 하나이다.



3) 시즈타니학교의 위치

시즈타니학교는 오카야마성이 있었던 오카야마시에서 동쪽으로 약 50km 떨어진 효고현과의 경계 부근의 비젠시(備前市) 산간부에 위치하고 있다. 에도시대에는 찾아가려면 하루가 꼬박 걸리는 변경지였다. 학교 주변에는 학교를 지주(地主)로 하는 학교전(田)과 학교림(林)이 있으며 교문에서 약 1km 남쪽에는 학교 부

지 내부를 나타내는 ‘석문(石門)’이 있다. 현재는 흙에 파묻혀 50cm 정도의 돌기동이지만, 당시에는 4.5m 높이의 위용을 자랑했다.

또한 남쪽으로 약 6km 떨어진 해안선에 논을 개간하여 학교령이 된 시즈타니 개간농지(新田)의 환지로 삼았다. 중국 주나라의 ‘정전(井田)’을 모델로 하여 시행했다.



2. 시즈타니학교 창설

1) 창설자: 이케다 미츠마사(池田光政)(1609~1682)

시즈타니학교는 신분제도가 명확했던 근세봉건제 속에서 지배자인 무사계급이 피지배자인 서민의 위해 건설한 당시에는 유례 없는 선진적인 교육시설이었다. 시즈타니학교의 창설에는 전제적인 계몽군주인 이케다 미츠마사(池田光政)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에도시대(1603~1868)는 도쿠가와 막부를 중심으로 한 막부체제에서 개역(改易; 토지 몰수)이나 전봉(転封; 영지 이전)을 통해 번(藩)을 통제했다. 이케다 미츠마사는 8세에 아버지 이케다 토시타카(池田利隆)의 대를 이어 히메지번 52만석 영주가 되는데, 어리다는 이유로 다음 해에 돗토리번 32만석으로 전봉을 명 받는다. 그리고 24세에는 오카야마번 31.5만석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 예민한 시기에 3번의 전봉을 경험하게 된다. 봉건영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깊이 통감할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케다 미츠마사에 관계된 고서를 편집한 ‘유비록(有斐錄)’에 젊은 시절의 미츠마사의 고뇌가 기록되어 있다¹.

오카야마 번주가 된 후부터 일본 양명학의 시조이자 오우미성인(近江聖人)이라고 불렸던 나카에 토쥬(中江藤樹)(1608-1648)를 신봉하고, 고제(高弟)인 쿠마자와 반잔(熊澤蕃山)(1619~1691)을 가신으로 삼아 유학에 의한 인정(仁政)의 실현을 도모했다. 쿠마자와 반잔을 통해 학문의 중요성을 더욱 의식하게 된 미츠마사는 자신과 뜻을 같이 하며 인정(仁政)을 보좌하기 위한 번사(藩士)를 육성하는 학교를 건설하고자 결의하게 된다.

나아가 미츠마사는 불교를 민중을 타락시키는 종교로 규정하고, 유교로 종지(宗旨)를 바꾸게 된다. 칸분(寛文) 5년 (1665) 막부의 사사통제(寺社統制)를 기회 삼아 영지 내에 사법(邪法) 유포 금지를 명하고 불교를 탄압했다. 당시 영지 내의 1044개의 사원이 481개로 격감할 정도의 대대적인 탄압이었다².

1. 특별사적 시즈타니학교 현장보존회 편저 “증정 시즈타니학교사” (福武書店 1963년) 16p.

‘나의 선조의 은덕으로 이런 대국을 받게 되어 분에 넘치는 마음이 드니, 이 국민을 어떻게 다스리고 보살펴야 할지 여러 가지로 마음을 다하여 고심하니 오래 잠들 수 없다……(중략)……작일 논어를 읽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군자의 가르침(儒)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결단을 내리니 별다른 걱정 없이 잠을 잘 잘 수 있었다.’

2. 타니구치 스미오(谷口澄夫) “오카야마번 정사 연구” (山陽新聞社 1964년) 576p.

당시 사원이 지방의 교육기관의 역할도 했기 때문에 지방 행정 책임자(村役人)나 촌장(庄屋·名主) 자체들의 교육의 장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칸분 8년(1668)에는 지방의 행정 책임자와 촌장 자체들의 교육의 위해 영지 내에 123개의 ‘수습소(手習所)’의 설치를 명했다³.

2) 시즈타니학교의 현황

미즈마사는 유례(儒礼)에 기초한 이케다가 묘소 건설의 후보지인 키다니마을(木谷村) 실사를 위해 칸분 6년(1666)에 방문했다. 이 산수가 아름다운 땅은 묘소보다는 학교가 더 잘 어울린다고 판단하여 학교 건설 예정지로 삼고 칸분 10년(1670)에 츠다 나가타다(津田永忠)에게 학교 건설을 명했다⁴. 츠다 나가타다는 이후 2기로 나눠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서민을 위한 학교(향교)의 건설에 임하게 된다.

제1기는 칸분 10년(1670)의 ‘임시학교’ 건설에서 시작하여 칸분 12년 학생 숙사 겸 교실인 ‘학방(學房)’과 ‘음실(飲室)’, 옴포(延宝) 원년(1673)에는 지붕을 새로 고친 ‘강당(講堂)’, 옴포 2년에는 ‘사당(聖堂)’을 건설한다. 학교 건설이 시작된 것을 지켜본 미즈마사는 옴포 12년에 은거한다. 이 옴포기에는 2년 연속 발생한 큰 홍수로 인해 번의 재정이 궁핍해졌다. 미즈마사의 대를 이은 2대 번주 이케다 츠나마사(池田綱政)는 재정난을 이유로 옴포 2년 군(郡)의 수습소를 1군에 1곳으로 축소하고 그 다음해에는 모두 폐지하여 시즈타니학교로 통합시켰다⁵. 그 후 나가타다는 군다이(郡代; 역주·관직명)로서 개간농지(新田) 개발과 조선통신사의 접대, 고라쿠엔(後樂園)의 조원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번 재정의 재건에 힘을 쏟아 츠나마사의 신임을 얻으며 시즈타니학교 건설공사의 재개를 기다렸다.

텐나(天和) 2년(1682)에 미즈마사가 서거하고, 학교 부교(奉行)인 이즈미 츠아이(泉仲愛)와 함께 시즈타니학교의 영속을 염원하는 미즈마사의 유언⁶을 받은 나가타다는 제2기 건설을 시작했다. 죠쿄(貞享) 원년(1684)의 ‘신사당(新聖堂)’(현 성묘), 죠쿄 3년 미즈마사를 기리는 ‘동어당(東御堂)’(현 시즈타니신사)를 완성하자, 그 전까지 봄과 가을에 번교에서 지냈던 제향(祀業)을 가을에는 시즈타니학교에서 치르게 되었다.

한편, 나가타다는 반토(番頭, 1000석: 가로(家老) 다음으로 높은 관직)까지 올랐고 더 많은 개간농지의 조성 성과 성읍을 홍수에서 지키는 학켄가와(百間川)의 조성, 키비츠비코(吉備津彦) 신사 대공사(자료1) 등을 차례차례 실시했다.

3. 특별사적 시즈타니학교 현장보존회 편저 “증정 시즈타니학교사” (福武書店 1987년) 33p.

4. 시즈타니학교 창학 330년 기념사업실행위원회 편저 “시즈타니학교자료도서관” (2000년) 자료편 1p.

“이케다가 이력 약기 (칸분10년 조) 시즈타니학교

칸분 5년 츠다 지지로에게 명하여 묘를 이장해야 할 땅을 찾아 칸분 6년 직접 순시를 나섰을 때 와게군(和気郡) 키다니마을의 산중에 이르게 되었다……(중략)…… 이 곳은 학교를 세워야겠으니 그 뜻을 따르라 말씀하시고……(중략)……올해에 이르러 츠다에게 명하여 이 시즈타니에 임시학교를 세우게 되었다……”

5. 특별사적 시즈타니학교 현장보존회 편저 “증정 시즈타니학교사” (福武書店 1987년) 46p.

6. 시즈타니학교 창학 330년 기념사업실행위원회 편저 “시즈타니학교자료도서관” (2000년) 자료편 3p.

“이케다 미즈마사 서신 템포 2년 4월

近年伊よ志、大方我等存候様ニ相成、大悦此事候兩人猶以奉公相勤可申候、右の書付之外ニモ被申付義共、不怠可勤事 (花押：池田光政)

泉八右衛門殿津田十二郎殿”

미즈마사는 같은 해 5월에 서거한다. 직전인 5월에 학교 부교인 이즈미와 츠다 앞으로 보낸 서신의 의미는 크다.

자료1. 츠다 나가타다의 주요 업적

개간농지개발	치수사업	신사 및 기타
友延新田(1664) 井田地割(1670) 倉田新田(1679) 幸島新田(1684) 高浜新田(1688) 沖新田 (1692)	倉安川·吉井 수문 (갑문식) (1679) 타하라 용수·돌 홈통 (수로교) (1694) 牛窓石破止 (1695) 大多府港 (1698)	和意谷 묘소(1667) 번교 (1668) 조선통신사 접대(1682) 고라쿠엔(後樂園)(1687) 吉備津 신사(1696)

※시바타 하지메(津田永忠) “츠다 나가타다 (상·하)” 산요신문사 (1990) 참고 작성

나가타다는 실로 다방면에 다재다능한 업적을 남겼는데, 바쁜 와중에도 군주 미즈마사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겐로쿠(元禄) 10년(1701)년 ‘석문(石門)’, 겐로쿠 14년에는 3년을 들여 ‘신강당(新講堂)’의 대규모 개축 및 돌담을 완성하고 다음 해인 겐로쿠 15년에는 이즈마사의 손톱과 머리카락을 묻은 ‘츠바키야마(椿山)’를 조영하여 30년이란 세월을 들여 시즈타니학교의 전체 모습을 정비했다.

3) 시즈타니학교의 교육

시즈타니학교의 설립 당시에는 군(郡)에 설립된 수습소와 기본적으로는 동일했다고 생각된다. 그 내용을 보면 습자, 셈을 주로 하고 원하는 학생은 사서오경을 배운다⁷. 수습소가 폐지되고 시즈타니학교가 학교로서 정비됨에 따라 교육내용도 정비되었는데 초기의 기록이 없어 불명확하다. 가장 오래된 것은 옴포(延宝) 8년(1680)의 장부(留帳)에 기록으로, 오카야마번의 교관이었던 이치우라 세이치로(市浦清七郎)가 가끔 시즈타니에 다니던 것을 두 사람의 번교 교수가 10일~15일 교대로 시즈타니에 다니게 되었다⁸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교수는 번교와 겸임이며, 기본적으로 번교와 동일한 교육내용이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정확한 기록으로는 분카 11년(1814)에 탄고(丹後)(현재 효고현)의 타나베 번주: 榎野豊前守의 문의로 교수였던 타케모토 쿤리츠(武元君立)가 기록한 제칙(諸則)이 남아 있다(자료2).

4) 시즈타니학교의 교수와 학생

시즈타니학교의 교수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초기에는 번교에서 겸임을 했다. 호레키(宝暦) 13년(1763)에 아리요시 와스케(有吉和介(臟器))가 교수가 된 후에는 적어도 1명은 시즈타니에 상주하게 되었다. 또한 아리요시 와스케(有吉和介)나 아리스케 교조(有吉行臟), 아리요시 겐스케(有吉謙介), 타케모토 쿤리츠(武元君立) 등의 시즈타니학교에서 배운 인근의 서민(촌장급)에서 교수가 된 자도 있다. 그리고 타케모토 쿤리츠는 번교의 교수로도 근무했다. 이처럼 시즈타니학교는 재정적으로는 번에서 독립되어 있었지만 창설 시부터 막부 말까지 번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반민반관(半民半官)의 향교(향학)로서 존속했다.

서민 자체의 다수는 3개월에서 1년 이내로 취학했기 때문에 인원수 파악이 어렵긴 하지만 분카 연간(1804~1817) 즈음에는 8세에서 15세까지의 학생이 주를 이루며 60명 정도였다⁹. 상세 내역을 보면 인근에서

7. 타니구치 스미오(谷口澄夫) “오카야마번 정사 연구” (山陽新聞社 1964년) 561p.

8. 특별사적 시즈타니학교 현창보존회 편저 “증정 시즈타니학교사” (福武書店 1987년) 67p.

9. 쿠라치 카즈나오(倉地克直) “오카야마현 교육사” (思文閣出版 1988년) 117p.

다니는 자와 학방 입거자로 나뉘고, 학방생에는 다른 번의 자제도 많았는데 카에(嘉永) 4년(1851)년에는 23명이 재적했고, 분큐(文久)(1860) 경에는 다른 번의 자제는 30명으로 제한¹⁰될 정도로 인근 번에 문호를 개방한 학교로서 알려졌다.

3. 에도기의 교육

1) 무사의 교육

막부체제 하에서는 신분=직업이기 때문에 대대로 세습에 의해 고정되어 있었다. 무사 세계에서도 번주를 필두로 가로(家老) 등의 중신은 출신에 의해 정해졌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이나 자질 등이 국가의 통치(정치)에 활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유능한 관리를 채용하기 위한 ‘과거’는 제도화되지 않았으며 입신양명을 위한 학문이나 이를 위한 교육기관 등의 시스템도 부재했다.

18세기가 되면 상품경제의 발전에 따른 서민(상인) 문화의 대두에 비해 ‘무사도’는 쇠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배계급의 일원으로서 무사의 인격에서 천하와 국가까지 구축할 수 있는 사상체계가 필요해졌으며 이것을 유학(송자학)에서 찾게 되었다. 이를 위한 가신의 교육의 장으로서 번교가 속속 창설되었고 막부 말에는 약 300개교에 달했다. 에도기는 300제번(諸藩)이라 불렸으므로 각 번에 1개교는 설치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자료2).

자료2. 번교개설연대

연호	서력	학교수
寛永 - 貞享	1624~1697	9
元禄 - 正徳	1688~1715	17
享保 - 寛延	1716~1750	15
宝暦 - 天明	1751~1788	53
寛政 - 文政	1789~1829	84
天保 - 慶応	1830~1867	63
明治1~4	1868~1871	48
不明		6
합계	-	295

※「일본교육자료」참고

2) 서민의 교육

서민을 보면 18세기가 되면 농업생산력이 향상되어 상업적 농업이 더욱 발달했다. 이를 다루는 상업도 발전하여 도시의 번영이 이루어지고 서민문화(町民文化)가 개화하게 되었다. 이 문화를 수용하기 위한 ‘읽기, 쓰기, 셈’은 서민의 필수 교양 항목이었다.

10. 특별사적 시즈타니학교 현창보존회 편저 “증정 시즈타니학교사” (福武書店 1987년) 92p.

이를 위한 교육기관이 ‘테라고야(寺子屋)’였다. 템메기(天明期)(1781~1788) 부터 증가하여 템포기(天保期)(1830~1843)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막부 말에는 전국에 15,000개를 넘어 (자료3), 당시 일본의 식자율은 세계 톱 클래스였다고 한다.

자료3. 테라고야 개설연대

연호	서력	년	학교수	연평균
寛永~享保	1624~1735	112	94	0,8
元文~安永	1736~1780	45	123	2,7
天明~淳和	1781~1803	23	324	14,1
文化	1804~	14	387	27,4
文政	1818~	12	676	56,3
天保	1830~	14	1984	142,7
弘化~嘉永	1844~1853	10	2398	239,8
安政~慶応	1854~1867	14	4293	306,6
明治	1868~	-	1035	129,4
不明			4175	
합계	-	-	15489	-

※ 이시카와 켄(石川謙) “테라고야(寺子屋)” 참고

3) 향교(郷校)와 사숙(私塾)

번교는 무사를 위해 성읍에 세워진 학교이나, 지방에 설치된 학교는 향교라 하고 시즈타니학교는 향교의 범주에 있다.

그러나 에도시대에는 향교의 명확한 개념이 없고, 지방 거주 무사의 자제를 위한 번교의 분교 목적과 지방 행정책임자의 육성 및 영지 내 주민의 교육 목적으로 번(藩)이 설치한 것과, 촌락 주민의 자체적 조직이 세운 것 등이 있으며, 모두를 가리켜 일반적으로 향학(郷学)이라 부른다. 이러한 시설도 칸세기(寛政期)(1789~1800)부터 증가하여 막부 말에는 약 200개교가 있었다¹¹⁾. 또한, 번교나 향학은 무사나 영지 주민만 입학할 수 있었지만, 보다 고도의 교육을 원하는 자는 영지 밖의 저명한 학자의 사설 학교에 제자로 들어가 개인적으로 배우기도 했다. 에도 초기에는 주로 유학이나 국학 등 인격형성이나 고전의 연구가 주를 이뤘지만 템포기(天保期) 이후에는 양학, 의학이나 포술, 주산, 검, 창 등 다채롭고 개성적인 사설 학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4. 시즈타니학교의 역사적 의의

1) 시즈타니학교의 보편성

시즈타니학교는 다른 번보다 앞선 17세기 후반에 창설된 서민을 위한 학교이다. 신분제 봉건사회 속에서

11. 난바 유키오(難波征男) “에도기 학교의 전개와 특징” (“동아시아 전근대 학교와 교육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논문집”) 2010년) 89p/

무사와 서민이 동석하여 배울 수 있었던, 당시로서는 예가 없는 선진적이고 개방된 학교였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에도 시대의 교육 목적이 무사도 서민도 거의 동일하다면 시즈타니학교는 예외적이고 특이한 교육기관이라고는 할 수 없다.

시즈타니학교에서는 교수가 번교와 겸임을 했으며 서민 출신 교수의 탄생과, 다른 영지의 자제에 대한 개방 등 당시로서는 선진적인 교육이 실천되었지만, 계급이나 계층을 뛰어넘은 인성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누구에게나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 시즈타니학교의 교육 시스템은 교육의 본질이라 할 수 있으며, 교육의 보편성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사실 19세기에 들어서 문화문정기(文化文政期; 1804~1829)에는 견학을 오는 문인묵객이 끊이지 않았고 타나베번(효고현)이나 돗토리번(돗토리현), 쇼나이번(아마가타현) 등지에서 관찰¹² 등 시즈타니학교는 당시 학교의 모델로서 보편성을 갖고 있었다.

2) 시즈타니학교의 영속성

시즈타니학교는 계몽구주인 이케다 미즈마사와 그에게 커다란 영향을 준 양명학자인 쿠마자와 반잔, 그리고 학교건설과 경영의 기초를 확립한 츠다 나가타다의 3인의 출중한 인물이 결합하여 비로소 실현할 수 있었던 학교이다.

특히, 나가타다는 탁월한 토목적 지식과 보기 드문 실무능력을 겸비하고 많은 개간농지 개발과 치수공사, 묘소와 공원의 조영, 사원과 신사 등의 건설, 수 많은 토목공사에 임하며 오카야마번의 재정 기반을 확립시켜 토목공자라 불렸다. 이러한 나가타다가 갖고 있는 모든 기술을 총동원하여 건설한 것이 시즈타니학교이다.

나가타다가 학교를 건설하는 도중에 최대의 후원자인 미즈마사가 서거하고 2대 번주인 츠나마사는 학교 건설에 그렇다 할 열정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존속의 위기를 느꼈다. 그래서 나가타다는 학교 존속을 위해 시설의 대대적인 개수(改修)에 착수했다. 먼저 신성묘(新聖廟)와 방렬사(芳烈祠)를 건설하고 제향(祀業)을 실시하여 공자와 미즈마사에 의한 권위를 부여하고자 했다. 나아가 견고한 돌담과 3년을 공들여 신강당(新講堂)을 건설했다. 또한, 지붕 기와는 일반 도기인 흑기와에서 몇 배나 내구력이 뛰어난 고온에서 구운 비젠야키(備前焼) 기와로 바꾸고, 지붕은 만에 하나 비가 세더라도 대처할 수 있도록 3중 구조로 만들고 기와 아래에 배수관을 설치했다. 일본의 목조건축은 정기적인 손질과 수리가 필요하지만, 시즈타니학교의 건조물에서는 미즈마사의 유언을 충실히 따라 영속성에 중점을 두고 심혈을 기울인 나가타다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운영 면에서도 오카야마번의 영지에서 독립한 학교전과 학교림을 소유함으로써 재정기반을 확립시켜, 개역(改易)이나 전봉(轉封) 등의 만일의 사태에도 학교가 존속하도록 체제정비에 만전을 다했다.

영속성이라는 하나의 의도를 갖고 당시 건축기술을 집약시켜 건설된 시즈타니학교는 유례 없는 장대한 건조물군이 되었다. 건축된 지 300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서민(청소년) 교육의 장으로서 존속하는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교육시설이다.

12. 쿠라치 카즈나오(倉地克直) “오카야마현 교육사” (思文閣出版 1988년) 191p.

5. 세계유산 등재를 위하여

1) 일본내 유산과의 관계

에도시대의 교육유산은 번교가 250개 이상, 학문을 위한 사설 교육시설은 문부성이 발간한 “인본교육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해도 1,500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 국가의 특별 사적으로 지정된 것은 구 코도칸(旧弘道館)(이바라키현), 모토오리 노리나가 구택지(本居宣長旧宅跡)(미에현), 염숙(廉塾) 및 관차산택지(管茶山宅跡)(히로시마현), 구 시즈타니학교로 4개이다. 이 외에 국가 지정 사적은 16건이 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건조물이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시설은 구 코도칸(旧弘道館), 타쿠성묘(多久聖廟)(사가현), 오카타코안 구택(緒方洪庵旧宅) 및 사설학교 (오사카현), 구 시즈타니학교로 4개이다. 시즈타니 학교는 돌담에 둘러 쌓인 대부분의 건조물이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다가 강당은 학교건축 중에서도 유일하게 국보로 지정되었다.

근세의 교육유산의 대부분이 근현대의 개발과 전쟁으로 인해 중요 건조물이 유실되거나 범위가 좁아진 경우가 많다. 그러한 가운데 구 시즈타니학교는 대부분이 창건 당시(1702)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 귀중한 사례이다. 또한 생도가 학습용으로 사용한 전적(典籍)과 자료 등도 건조물과 함께 지금까지 보존되었다. 이러한 전적류도 크게 산실되지 않고 전해져 학교자료로서 일본의 교육사에 있어서 의의가 깊다고 인정받아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구 시즈타니학교 외에 양호한 상태로 현존하는 시설로는 구 분부학교(文武学校)(나가노현)가 있다. 구 분부학교는 준공 당시(1853)의 건물이 모두 남아 있다.

동 아시아 유학교육 시설은 교육을 실시하는 장소인 강당(講堂), 서적을 보관하는 장소인 장서(藏書), 공자를 비롯한 선현을 모시는 제사시설, 경제기반인 학전(學田)의 4가지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다. 일본 국내에서 이 4가지 구성요소가 현존하는 교육유산은 구 시즈타니학교 외에는 전무하다¹³.

이처럼 구 시즈타니학교는 유적, 건조물로서는 일본에서 최고의 평가를 얻고 있으며, 또한, 동아시아 유학(한자) 문화권의 교육시설로서 필요한 구성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일본 국내에서 유일한 사례이다.

2) 시즈타니학교의 가치와 평가

시즈타니학교는 교육의 이상을 체현한 실현한 시설이다.

- *선진성 - 17세기 후반 다른 번보다 앞서 설립된 공립 서민교육시설로, 학교 교육과 운영에도 서민 출신자를 등용하고 무사와 서민, 다른 영지의 자제까지도 받아들인 학교이다.
- *보편성 - 출신제도가 확립된 근세봉건 사회 속에서 계급이나 계층을 뛰어넘은 인성 교육을 목적으로 동아시아에 공통된 유학교육을 실천했다.
- *지속성 - 번(공의(公儀))과 민간의 협력으로 에도시대에 200년 이상에 걸쳐 존속했다. 나아가 메이지 이후에도 교육제도의 변화에 맞춰 지역주민의 협력을 받아 일관되게 교육의 장으로서 존속하여 현재에도

13. 비젠시 편저 “세계유산 잠정 일람표 기재 자산후보제안서” (비젠시 2012년)

교육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현재형 교육시설이다.

- *영속성 - 암거배수와 돌담, 방화를 위한 인공산, 3층의 지붕 공사, 견고한 비젠야키 기와 등, 목조건축의 약점을 최대한 보완하면서 건조물로서 영속시키기 위한 기술자의 노력이 집약된 건조물군이다. 또한, 학교전과 학교림을 보유하여 번으로부터 독립된 재정기반을 확립했다.
- *예술성 - 강당과 돌담, 대성전의 사양 등 그 기능을 초월한 의장은 높은 예술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높은 기술력이 있었음을 현세에 전하고 있다.
- *종합성 - 동아시아 유학문화권의 교육시설로서 필요한 구성요소를 완비한 창건시의 모습이 거의 완전히 현존하고 있다. 나아가 사용된 학습용 전적과 자료 등이 큰 산실 없이 건조물과 함께 일체가 되어 보관되어 있다.

또한, 구 시즈타니학교는 일본 최고(最古)의 서민 교육학교로서 국가 특별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창건 당시의 학교 건축이 거의 그대로 현존하고 있어 국보인 강당을 포함하여 25건에 달하는 건조물이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에도시대에서 메이지시대에 걸쳐 사용된 전적류가 잘 보존되어 있어 역사자료로서도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등 3중으로 국가 문화재 지정을 받아 일본을 대표하는 교육유산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구 시즈타니학교는 교육유산으로서 필요한 요소 모두를 현재에 전하고 있는 동시에 이 요소들의 품질이 너무나 우수하며, 학문과 교육에 대한 보편성과 높은 이상을 느낄 수 있는 교육유산이다. 이 한정된 자연 속에 공생하는 높은 예술성과 정신성 및 교육자산으로서의 종합성에서 볼 때 세계 공통의 교육유산으로서 높이 평가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¹⁴.

14. 비젠시 편저 “세계유산 잠정 일람표 기재 자산후보제안서” (비젠시 2012년)

조선시대 한국 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

1. 조선시대 한국의 서원 개관

조선(朝鮮, 1392~1910) 왕조의 건국은 많은 면에서 고려(高麗, 918~1392) 왕조와 성격을 달리하는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의미한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사상, 문화, 대외 관계 등 모든 면에서 조선 왕조는 고려 시대와 달랐다. 그 중에서도 조선 왕조는 성리학을 국가 통치 이념으로 내세우고, 도교(道敎)나 고려 왕조가 국교로 삼은 불교(佛敎)와 같은 비유교(非儒敎)적인 것을 배척하였다.

중국 송(宋, 960~1279)나라 때 회암(晦庵) 주희(朱熹, 1130~1200)에 의해 집대성된 신유학인 성리학은 우주의 본체(本體)와 인성(人性)을 형이상학적으로 설명하였다. 신유학은 송나라를 이어 중국을 지배한 원(元, 1271~1368)나라 조정(朝廷)에 받아들여지고, 고려 말 신진 학자들은 원(元)으로부터 성리학을 수용하였다.

성리학에 기반을 둔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은 사(士)의 단계에서는 수기(修己)하고, 대부(大夫)의 단계에서는 치인(治人)하는 수기치인을 근본으로 하여 사고하며 행동하였다. ‘수기’는 자기 자신의 인격 수양과 학문 도야를 하는 것이고, ‘치인’은 사람들을 위해 세상을 다스리고 봉사하는 것이다. 수기치인의 도학(道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조선 중기 이후 향촌에 서원(書院)을 건립하기 시작하였다.

서원은 조선시대에 향촌 사회에 근거지를 둔 사림 세력이 건립한 사립(私立) 교육기구이자 자치운영기구였다. 서원은 본받을 만한 유학자, 충절을 지킨 인물 등 정신적 구심점이 되는 선현(先賢)의 위패를 사당에 모셔 제사지내고, 학문을 연구하며 제자를 양성하고, 도서를 수집, 보존하거나 출간하며, 향촌을 교화하는 기능을 하였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서원은 성리학이 지향하는 학문과 교육을 위한 강학(講學)공간, 그리고 선현의 위패를 모신 제향(祭享)공간을 반드시 갖추어야 했다.

서원은 제향과 강학의 기능을 가진 점에서는 조선시대의 관학(官學)인 향교와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러나 서원은 제향의 중심 대상이 공자와 그의 제자가 아닌 선현이라는 점, 설립의 주체가 국가가 아닌 사림이라는 점, 설립의 동기와 배경이 과거 준비를 위한 곳이 아니라 학문하고 수양하는 곳이라는 점, 그리고 설립된 장소가 중앙 정부의 직접적인 관여를 받는 군현 소재지나 그 주변이 아니고 산천경계가 빼어난 곳이라는 점에서 관학과 차이가 있다.

조선시대 서원의 효시는 풍기 소수서원이다. 소수서원은 1541년(중종 36) 7월에 풍기군수로 부임한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이 이듬해인 1542년 8월 15일에 이곳 출신의 회헌(晦軒) 안향(安珦, 1243~1306)을 배향하는 사묘(祠廟)를 설립하기 위해 개토(開土)를 하고 이듬해인 1543년 8월 11일에 완공하여 안향의 영정을 봉안하고, 군학사(郡學舍)를 이건하여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사당 동쪽에 설립하여 사와 원(祠院)을 완성한 데에서 비롯한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되고 약 150년이 지난 시기이다.

조선시대에 서원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16세기는 여러 면에서 전환기였다. 정치적으로는 사림파가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여 집권 훈구 세력과 대립하면서 여러 희생을 치른 끝에 집권하고, 사상적으로는 성리학이 이

기론(理氣論) 중심으로 발전하여 확고하게 조선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시기였다. 서원의 성립은 그 당시 정치, 사회적인 변화와 사림세력이 성장한 결과 나타난 시대적 산물에 속한다. 역사적인 흐름으로 보면, 서원은 조선시대 사대부 계층이 성리학을 차차 자신의 것으로 정착시키며 조선 중기에 만들어 낸 시대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조선 건국과 함께 통치에 필요한 궁궐과 관아, 그리고 유교 이념 보급에 필요한 제사시설인 종묘, 사직 및 교육시설인 성균관, 향교 등이 이루어진 후, 나타난 것이 서원이다. 서원의 건립은 성리학이 조선사회에 뿌리를 내리면서 사림세력이 중앙정계에 진출하는 전후에 나타난 사회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소수서원 전경

2. 조선시대 서원의 기능

1) 교육 기능

서원은 조선 중기를 거치면서 관학인 성균관과 향교의 교육 기능을 대신하는 중심 기구로 건립되었다. 서원은 관학과 달리 교육의 자율성이 존중되어 과거 시험을 통한 출세나 공리주의 대신 유생들의 호연지기를 키우고 인격을 도야하는 산실이 되었으며, 그 교육은 유교 경전을 통한 성리학, 그리고 우주의 본질과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서원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교육과 학문을 통하여 조선의 성리학은 주자학적 세계관이 투영된 사상적 깊이를 더 해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서원 교육에서 구현하려고 한 것은 ‘선비의 길’로 표방되는 사림 정신이었기 때문에 도통(道統)의 연원을 이으려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초기의 서원들은 거의 모두 설립자들의 스승이 되는 성리학자들의 위패를 사당에 모신 도학(道學) 서원들이었다.

서원의 교육은 선생이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강의하여 자신의 지식을 주입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유생들은 재사(齎舍)인 동재 및 서재에서 경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서로 자유로운 토론과 논증을 통하여 자신의 경전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욱 깊게 했다. 유생들의 공부의 성취도는 강회(講會)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유생들은 강회가 열리면 강당 대청에서 한 사람씩 선생 앞에 나가 공부한 내용을 소리높이 읽고 의리(義理)를 문대(問對)하는 방식을 통해 학습의 성취도를 검증받는 강(講)이라는 교수 방법으로 평가를 받았다. 강(講)은 단순히 경전을 암송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리(文理)를 터득하는 일이 중요하다. 서원의 교육은 유생이 강회에 합격하면 다음 진도를 나가는 방식을 취하여 철저하게 각 유생의 능력에 맞추어 이루어졌다. 강은 순강(旬講), 망강(望講), 월강(月講) 등으로 나뉜다. 순강은 10일마다, 망강은 보름마다, 월강은 매월 열리는 것을 말한다. 강을 받는 데는 일정한 의례와 절차가 있었다.



그림 2. 도산서원 강학공간

2) 제향 기능

제향 기능은 교육 기능과 함께 서원의 양대 기능을 형성한다. 서원의 제향은 사당에서 행한다. 사당에 선현의 신주나 영정을 봉안하고 제향을 행하였던 것이다. 송유정책을 표방하던 조선시대의 서원은 사당에 모신 선현의 학덕으로 그 지방의 풍속(風俗)과 예속(禮俗)의 교화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림 3. 소수서원 사당 문성공묘

서원의 향례는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향(香)만 사르는 분향(焚香)과 봄가을에 제사 음식인 제수(祭需)를 올리는 향사(享祀)로 나뉜다. 서원의 향사는 일반적으로 음력 2월과 8월의 중정일(中丁日, 그 달의 日辰 중 중간에 있는 丁日), 또는 음력 3월과 9월의 중정일에 행하였는데, 지금은 봄가을 두 번 향사를 행하지 않고 일년에 한번만 향사를 행하는 서원도 있다.

향사가 있게 되면, 원래 제사 삼 일 전부터 제관들이 모여 재계(齋戒)를 하고, 깨끗하고 한결한 마음으로 향사를 행하였다. 향사의 주관은 선출된 헌관, 집사가 담당하며 그 절차는 문묘 향사에 버금가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다. 특히 이 때 서원 정문 출입은 복인(服人)이나 예복(禮服)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허락되지 않았다. 제관 구성은 제사 일을 맡아 보는 집사(執事), 홀기(笏記)를 맡아 읽는 찬자(贊者), 축을 읽는 축관(祝官), 술을 따르는 사준관(司鑄官), 반찬을 만지는 집찬자(執饌者), 첫 술잔을 올리는 초헌관(初獻官), 둘째 잔을 올리는 아헌관(亞獻官), 마지막 잔을 올리는 종헌관(終獻官) 등으로 된다. 서원의 제향 기능은 조선 후기로 내려올수록 서원의 강화 기능이 약화되면서 더욱 증대되었다.

3) 도서관 및 출판 기능

서원은 그 설립의 일차적인 목적이 학문 연구에 있었으므로, 서원은 학문의 연구를 위한 교육 문고로서 도서관의 수집, 보존의 기능도 하였다.

서원은 이러한 도서관 기능뿐 아니라 서적을 직접 출판하기도 하여 지방 출판문화의 중심지로서 문화 창달과 지식 보급에 큰 역할을 하였다. 서원에는 출판을 전담하는 간소(刊所)가 있었으며, 간행된 책은 주로 교육용과 서원에 배향된 인물의 문집(文集)과 유고(遺稿) 등이었다. 간행된 서책은 다른 서원 및 각 문중과 흥문관, 규장각 등에 배부되었다.

서원이 도서관 및 출판의 기능을 당시에 할 수 있었던 것은 조지(造紙) 기술이 발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쇄술의 발달로 도서를 대량 인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4) 사회 교화 기능

서원은 기본적으로 학문하는 강학의 기능과 제사를 드리는 제향의 기능을 갖춘 곳이다. 하지만 서원은 이러한 기능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향촌에 사회 윤리를 보급하고 향촌 질서를 재편성하며 지역공동체를 이끌어 간 정신적 지주가 되는 기능을 하였다.

서원은 향촌 사림의 강학 및 장수처(藏修處)로서 향촌사림의 여론을 수렴하는 거점이 되어 향약의 시행을 통해 지방민의 교화에도 크게 이바지하여 지방민들이 서원을 중심으로 일체감을 느끼는 구심점이 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서원은 인근의 선비들이 모여 세상사를 논의하는 지방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선현이 쓰던 각종 집기를 보존하기도 하였고, 서원을 찾아 온 선비들에게는 숙식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서원은 또한 시대가 내려오면서 봉당의 분화와 이에 따른 당쟁의 심화로 사론(士論)·공론(公論) 조성의 집약소 역할을 하였다. 서원은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집성촌의 발달과 함께 문중 내부의 상호결속과 사회적 지위 유지의 필요성에 따라 그 중심 기구로서 사회적 역할을 증대시켜 나갔다. 그러나 시대가 내려오면서 서원은 당쟁 및 문중 시비에 휘말리고 또한 대민(對民) 작폐(作弊)의 온상으로 변모되어 사회문제화 되자 국가의 통제를 받게 되었으며, 마침내 조선말에 이르러 흥선대원군(이하응, 1820~1898)에 의하여 서원철폐령이 내려져 많은 서원들이 철폐되었다.

3. 서원이 건립된 장소와 선지(選地)의 배경

서원이 설립된 곳은 서원에 봉향하고자 하는 선현의 연고지가 가장 많다. 이러한 연고지는 선현의 출생지이거나 고향, 성장지, 은거하여 후학을 지도했던 곳, 관리로 있었던 곳, 유배지였던 곳, 묘소가 있는 곳 등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이 서원이 설립되는 장소는 존경을 받을 만한 선현의 연고지이면서, 그와 동시에 사람들이 은거하여 수양하며 독서하기에 좋은 곳, 즉 산수가 빼어난 곳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건은 백운동서원이 소수서원으로 사액을 받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또 서원창설운동을 펼쳤던 이황이 일찍 주장한 내용이다. 선현의 연고지는 서원이 바람직한 인문조건을, 산수가 뛰어난 곳은 서원이 좋은 지리조건을 갖춘 곳에 건립되어야 함을 말한다. 실제로 조선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세워진 많은 서원들은 이러한 조건을 갖춘 곳에 세워졌다.

서원이 주변 풍광이 좋은 곳에 자리를 잡게 되는 요인으로는 성리학자들이 자연 속에 은둔하여 심신을 수양하며 천인합일(天人合一) 할 수 있는 곳을 찾았던 것이 중요한 이유였다. 성리학자들에게 천인합일사상은 가장 중요한 유가(儒家)의 정신 관념으로서 자연과 인간은 하나가 되어 우주의 생명 전체는 융화하고 교섭할 수 있다는 인생의 최고 이상이었다. 따라서 자각적(自覺的)으로 천인합일의 경지에 이르는 것은 중요

하였다. 이런 이유로 사대부들은 골짜기가 있어 물이 흐르고, 산이 있어 풍월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연에 서원을 건립하여 학문을 연마하고 후학을 양성하였다.

또, 사림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도학과 사회개혁적인 성향 때문에 겉으로 부각시키지는 않았으나 가사문학(歌辭文學)을 이끄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벼슬살이가 아닌 산림생활을 하는 그들에게는 자연 경관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서나 마음가짐을 표현하기에 시(詩)나 가사(歌辭)가 적합했기 때문이다. 퇴계의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은 그 중의 좋은 예이다. 그들의 이러한 취향은 서원 건립의 입지조건으로 산수가 수려한 곳을 선호하게 하였다.

때문에 조선시대의 성리학자들은 자연을 흠상하고 인격을 수양하기 위해 산수(山水)가 아름다운 곳을 배움의 터전으로 삼았다. 서원은 이러한 곳에 성리학자들이 조영(造營)한 대표적인 건축이다.

서원의 누(樓)는 사방으로 트인 건축으로서 주변 자연 속에 건축공간이 그대로 스며들게 하여 그 속에 자신을 투영해 세계를 관조하게 만든다. 이러한 건축은 건축물 자체를 밖에서 바라보는 감상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오히려 건물 안에서 밖을 내다보며 자연을 감상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성리학자들은 주변 자연경관을 이루는 나무, 돌, 물, 산 등에도 성리학적 사고로 전환케 하는 이름을 붙여 그 존재 가치를 부여해 사람들이 다양하게 자연과 조우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자연을 의인화(擬人化), 인간화(人間化) 함으로써 세계 속에서 개체의 가치를 확인하며 천인동구(天人同構)하는 차원의 건축 공간을 서원의 누는 만들었으며, 이러한 건축은 한국건축의 중요한 특성을 이루는 공간이 되었다.



그림 4. 병산서원 만대루

천인합일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서원이 들어설 터는 앞이 낮고 뒤가 높아지는 경사면으로 된 곳이었다. 서원 뒤로는 건물들이 기대어 설 수 있는 나지막한 산이 있고, 앞으로는 내가 흐르거나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으며, 들판 건너편에는 서원에서 마주보는 안산이 있는 입지조건을 갖춘 곳이었다. 이러한 곳에 터를 잡아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서원을 구성하는 건물들이 배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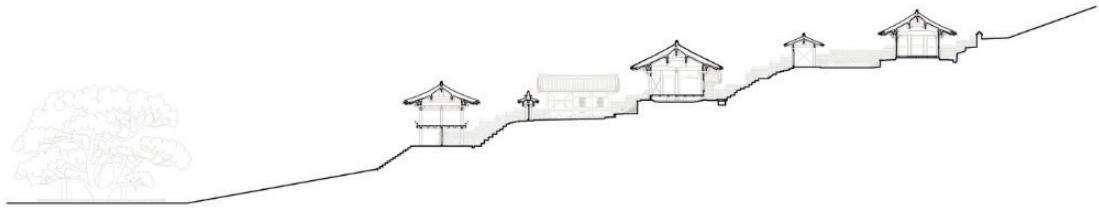


그림 5. 도동서원

서원들 중에는 안동 도산서원이나 장성 필암서원, 안동 병산서원 등과 같이 주변 경관과 지형지세에 잘 조화하면서 중심을 이루는 건물들이 남향을 하도록 배치된 서원들도 있지만, 남향을 하지 않으면서 주변 자연과 어울리게 배치된 서원들도 있다. 이러한 사례로는 경주 옥산서원, 달성 도동서원, 논산 돈암서원 등이 있다. 옥산서원을 구성하는 중심축에 자리 잡은 건물들은 서원 앞으로 흐르는 계류를 건너 자옥산을 바라보며 서향을 하도록 배치되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도동서원의 중심 건물들은 서원 앞으로 흐르는 낙동강을 바라보며 북향을 하며 자리를 잡았고, 돈암서원은 동향을 하였다.



그림 6. 도동서원

4. 서원을 구성하는 공간과 건물 배치

1) 서원의 공간 구성

서원을 구성하는 공간은 선현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제향공간, 유생들의 장수(藏修)를 위한 강학공간, 유식(遊息)을 위한 누문(樓門)공간, 제향과 강학 기능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부속공간, 그리고

서원의 진입공간으로 구분된다. 장수란 유생들이 마음을 집중해서 학문에 힘쓰며 수양을 하는 것을, 유식이란 학문하는 긴장에서 벗어나 편안히 쉬고 즐기면서도 학문에 마음을 두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서원 전체 영역의 가장 앞에는 누문공간이 중심을 이룬다. 누문공간 뒤에는 강학공간이, 그 뒤에는 제향공간이 각각 별도의 둘레담으로 싸여 배치되어 있다. 서원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풍광은 주변공간을 이룬다. 강당은 강학공간의 중심을 이루며, 학생들이 공부하며 잠자는 공간인 동재와 서재는 강당의 전면(前面)이나 후면(後面)에 위치한다. 강학공간과 누문공간은 사람들의 드나들이 자유롭도록 조성되어 있어서 항상 활달하고 생동하는 공간으로 느껴지며, 제향공간은 사람들의 출입이 제한되어 항상 존엄(尊嚴)하고 정밀(靜謐)한 느낌이 들도록 조성되었다.

조선시대 서원의 효시인 백운동서원(소수서원으로 사액)은 제향공간으로서의 사묘와 강학공간은 별개의 것으로 받아들여져 건립된 서원이다. 이를 반영하듯, 소수서원의 건물 배치형식은 후대의 서원 건물 배치와 다르게 이루어졌다. 소수서원의 제향공간과 강학공간은 별개의 영역에 설립되어 있지만, 서로간의 상관성은 잘 보이지 않는다. 강학공간의 주건물인 강학당(명륜당)과 재사도 일정한 관계의 설정 없이 배치되어 있다. 이와 같이 소수서원의 배치형식은 사당, 강당, 재사 간의 상호관계가 뚜렷하지 않다.



그림 7. 필암서원 강학공간

서원이 강학의 기능을 가지며, 동시에 제향의 기능을 갖게 되고, 특히 강학의 기능이 우선하게 된 것은 퇴계 이황의 노력에 의해서다. 명종말부터 선조대(1568~1608)를 거쳐 현종대(1660~1674)까지 약 백여 년 간에 이르는 시기에 세워진 많은 서원들은 강당 중심의 배치를 하였다. 강당 중심의 서원에서 재사는 강학공간의 앞쪽에, 강당은 뒤쪽에 위치한다. 전재후당(前齋後堂)의 배치를 한 것이다. 도산서원, 옥산서원, 남계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등이 이러한 사례에 속한다. 이와는 달리 강학공간의 앞쪽에 강당이, 뒤쪽에 재사가 배치되는 이른바 전당후재(前堂後齋)의 배치형식을 한 서원도 있다. 필암서원이 이러한 배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2) 서원을 구성하는 건축물과 시설물

서원의 건축물과 시설물을 서원을 구성하는 공간별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진입공간

진입공간에 위치한 건축물과 시설물로는 홍살문, 하마석, 외문(外門), 누문(樓門), 누(樓), 연당(蓮塘) 등이 있다.

서원의 영역은 홍살문에서 시작된다. 홍살문은 서원이 엄숙하고 신성한 구역임을 알리는 상징적인 문으로서 서원을 찾아오면 입구 길목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구조물이다. 홍살문에는 실제로 출입문은 달려 있지 않고, 지붕도 없다. 하마석은 서원과 같이 사당에 선현의 위패를 모신 존귀한 장소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신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거기에 모셔진 분에 대한 존경심의 표시로 말이나 가마에서 내려야 한다는 글을 새긴 돌비석이다.

외문은 서원의 정문이다. 일반적으로 세 칸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외삼문(外三門)이라고도 한다. 누는 사방으로나 앞뒤로 트인 2층 다락 건물이다. 서원에 따라서는 외문을 설치하지 않고, 누를 세워 외문을 겸하도록 한 서원도 있고, 밖에서 서원으로 들어오며 외문을 지난 다음 그 안에 별도의 누 건물을 세운 서원도 있고, 누가 없는 서원도 있다. 남계서원의 풍영루, 도동서원의 수월루, 필암서원의 확연루, 무성서원의 현가루 등은 모두 외문 대신에 세운 누문이고, 옥산서원의 무변루, 병산서원의 만대루 등은 외문을 지나면 그 앞에서 있는 누(樓)다.

(2) 강학공간

외문이나 누문을 지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공간이 강학공간이다. 강학공간은 유생들이 강독하고 수양하는 공간으로서 강당과 재사(齋舍)로 이루어졌다.

강당은 유생들이 유교 경학을 공부하는 중심 건물이며, 원장과 원이(부원장)가 기거하는 곳이기도 하다. 강당은 원장이 유생들에게 강회를 베푸는 장소이면서, 유회(儒會)나 제사 때는 유림들의 회의 장소가 된다. 강당은 정면이 다섯 칸이 되는 규모의 건물이 가장 많고, 서원에 따라 규모의 증감이 있는 경우가 있다. 강당이 다섯 칸일 경우, 중앙의 세 칸은 대청이고, 그 양측 각 한 칸은 온돌방이다. 건물 앞에서 건물 쪽으로 봐서, 오른쪽 온돌방에는 원장이, 왼쪽 온돌방에는 원이가 기거한다. 외관상, 강당 건물은 유학자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표명하듯 대체로 규모가 아주 크지 않고 전아(典雅)한 모습을 하였다.

재사는 원생들이 기거하며 독서를 하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마루와 온돌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사는 일반적으로 동재(東齋)와 서재(西齋), 두 건물로 구성되며, 강당의 전면이나 후면에 마당을 사이에 두고 동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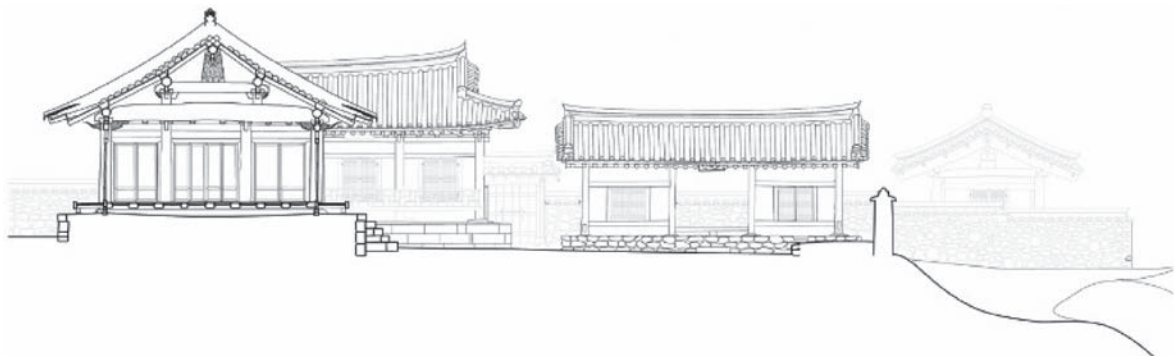


그림 8. 소수서원 강학공간 건물들 위계

와 서재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 재사가 강당 전면에 배치될 경우, 동재는 강당에서 앞을 보았을 때 왼쪽에 위치한 건물이고, 서재는 오른쪽에 위치한 건물이다. 재사가 강당 후면에 배치될 경우, 동재는 강당에서 앞을 보았을 때 오른쪽에 위치한 건물이고, 서재는 왼쪽에 위치한 건물이다.

재사는 대개 정면 2~5칸, 측면 1~3칸 정도로 그 규모가 다양하다. 재사는 강당 건물 보다 지면 높이가 한 단 낮은 곳에, 강당보다 규모가 작은 건물로 세워졌고, 지붕도 강당이 팔작지붕인데 비하여 격이 낮은 맞배 지붕이 되도록 하여 성리학적 위계를 반영하도록 세워진 것이 많다.

(3) 제향공간

강학공간 뒤에는 별도의 담으로 둘러싸인 사당 일곽이 있는 제향공간이 형성되어 있다. 제향공간은 신문(神門), 사당, 전사청 등으로 구성되었다.

신문은 사당으로 통하는 제향공간의 정문으로서, 서원의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을 경계 짓는 기능을 한다. 신문은 서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문이기 때문에 서원 정문인 외문(外門)에 대하여 내문(內門)이라 부르고, 일반적으로 세 칸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내삼문(內三門)이라고도 한다. 내삼문의 경우, 가운데 문은 제향시 제관과 제수만이 통과할 수 있다.

사당은 제향공간의 중심으로서 사림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선현의 위패나 영정을 모시고 춘추로 제향을 베푸는 곳으로서, 서원 경내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지존한 곳이다. 사당에는 성균관이나 향교의 문묘(文廟)에 공자와 그 제자들을 모시는 것과는 달리 안향, 이황 등과 같이 도덕과 학문이 높은 인물들을 모시고 있다.



그림 9. 돈암서원 제향공간

사당에 봉향하는 인물의 수는 건립 당시에는 주로 한 분을 주향으로 하여 모시나, 훗날 여러 이유로 존송하는 인물을 추가로 모셔 종향하는 경우가 많다. 사당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건물로 구성되었으나 남계서원, 도동서원처럼 사당 옆에 별사(別祠)를 두었다가 고종 때 훼손된 서원도 있다. 18세기 후반을 지나면서 서원

이 점차 교육의 기능을 경시하고 제향의 기능을 더욱 강화함에 따라 서원에서 사당이 더 중요시되는 시대상을 보인다.

사당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가 가장 많다. 건물 기단에는 전면 좌우에 계단을 각각 설치하였고, 건물 전면에 툇간을 설치하여 제향 때 의례공간으로 사용토록 한 서원이 많다. 지붕은 주로 맞배지붕으로 만들었다. 사당 건물은 신위를 모시는 곳이기 때문에 정면에만 출입문을 내고 나머지 세 벽에는 두터운 벽을 둘러 내부를 어둡게 하여 유현(幽玄)한 분위기가 감돌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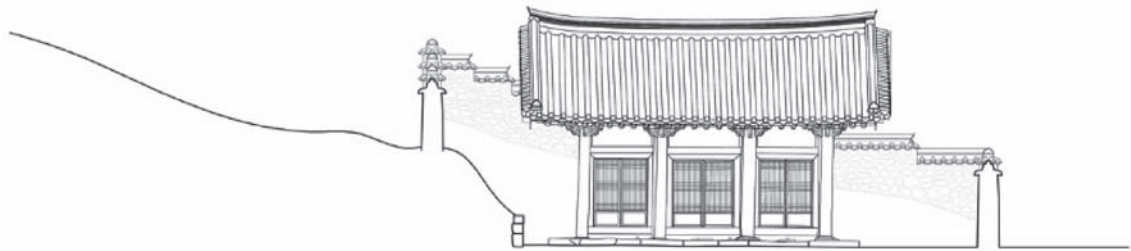


그림 10. 소수서원 제향공간

이외에도, 제향공간에 부속된 시설로 관세위(盥洗位), 망례위(望瘞位), 정료대(庭療臺) 등이 있다.

관세위는 향사 때 헌관들이 손을 씻는 대야를 두는 곳으로서 석재 기둥을 세워 그 위에 관분(盥盆), 즉 대야를 올려놓는다. 사당이 남향을 할 경우 사당 앞 동쪽 계단의 동쪽에 위치한다. 헌관은 일반적으로 사당 앞 뜰에 사당을 향하여 옆으로 길게 서 있다가, 동쪽 계단으로 올라 사당에 들어가 제향하기 전에 관세위에 이르러 손을 씻는다.

망례위는 제향공간에 부속된 시설로서 제향을 지내고 난 뒤 축문을 태우고 묻는 곳이다. 망례위는 망료위(望療位)라고도 한다. 향사가 끝나면 축관(祝官)은 축판과 폐백(幣帛)을 모시고 사당 앞 서쪽 계단으로 내려와, 사당 서쪽에 마련된 망례위에 나아가 축을 태우고 난 뒤 거기에 묻는다. ‘례(瘞)’는 묻는 것이고, ‘료(療)’는 태우는 것을 뜻한다. 도동서원은 담에 감(坎)을 설치하여 불을 사른 후 거기에 묻는다.

정료대는 석조로 된 구조물로서 불을 밝히는 관솔불을 놓는 곳이다. 정료대는 사당 뿐 아니라, 강당 앞 마당에도 설치된다. 요거석(療炬石)이라고도 한다.

(4) 부속공간

강학공간의 부속공간으로는 장판각(藏板閣)이나 장서각(藏書閣), 그리고 고직사(庫直舍)가 있고, 제향공간의 부속공간으로는 전사청(典祀廳), 제기고(祭器庫) 등이 있다.

서원은 유생들이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서적의 수집, 보관, 관리 및 인간(印刊)은 중요하였다.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서원은 서적을 직접 제작하였는데, 그럴 경우 대개 선현들의 문집 등을 목판에 판각하여 인쇄하

였다. 장판각은 서적을 펴내는 목판을 보관하는 곳이며, 장서각은 판본이나 서적들을 수장한 곳으로 강학공간에 부속되는 건물이다. 규모가 큰 서원은 장판각과 장서각을 별도로 설치하기도 하였다. 장판각이나 장서각은 강학공간에 위치하면서도 다른 건물의 화재 등으로 화를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강당이나 재사에서 떨어져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 배치하였다.

장판각이나 장서각은 일반적으로 맞배지붕을 한 건물로서, 정면에는 가운데 칸이나, 각 칸마다 판문(板門)을 달았고, 내부는 마루를 깔았다. 습기는 종이와 목판을 상하게 하므로 공기가 잘 통하도록 벽에는 환기구나 살창을 설치하였고, 대부분의 벽체는 흙벽에 비해 통풍 효과가 큰 판자벽으로 하였으며, 건물 바닥은 지면에서 띄워 올려 마루를 깔아 지면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방지하였다.

고직사는 서원을 지키고 관리하며, 서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원지기가 거주하는 곳이다. 일반적으로 강학공간 일곽 밖 좌측이나 우측에, 담으로 둘러싸인 별도의 영역에 위치한다. 원지기는 평상시에는 유생과 원생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제향 때에는 제수를 준비한다. 이를 위해, 고직사에는 식량, 용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다.

고직사는 방과 대청, 부엌 등으로 평면이 구성되는 점에는 일반 살림집과 비슷하나, 안마당이 부엌 공간이 연장된 작업공간으로 되어 있고, 사대부 주택의 남성들의 공간인 사랑채가 없는 점이 다르다. 고직사의 평면 유형은 일반적으로 ㄱ자형이나 ㄷ자형이 많은데, 전라도 지방은 ㅡ자형, 충청도 지방은 ㄱ자형, 경상도 지방은 ㄷ, ㄱ자형이 주로 나타난다. 고직사에서 장만한 음식은 강학공간과 고직사 사이의 협문을 통해 운반되며, 원장 등은 강당의 원장실 등에서 각 상을 받아 식사를 하고, 원생은 동재와 서재에서 겸상을 한다.

전사청은 제향시 제수를 마련하는 곳이고, 제기고는 제사에 필요한 제기와 제례 용구를 보관하는 곳이다. 서원에 따라서는 전사청에 제기를 보관하는 공간을 함께 마련하여 별도의 제기고를 두지 않는 곳도 있고, 전사청과 제기고를 별도의 건물로 세운 경우도 있다.

전사청과 제기고는 건물의 기능상 사당영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남계서원, 서악서원, 자계서원 등과 같이 전사청이 사당 영역 내에 있는 경우도 있고, 도동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 등과 같이 제향공간 밖에 담으로 둘러싸인 별도의 영역에 있는 경우도 있다.

이외에도, 제향과 관계있는 시설물로 생단(牲壇)이 있다. 생단은 향사에 쓸 희생을 검사하는 단(壇)이다. 희생을 검사하고 품평하는 의(儀), 즉 생간품(牲看品)은 헌관과 관계관들이 생단에 나아가 생단 주위에 서서 행한다. 생단 서쪽에 선 축관(祝官)이 생단에 준비된 희생이 정결한가를 ‘돌(膺)’하고 물으면, 헌관이 좋으면 ‘충(充)’하는 것으로 의식이 끝나고 제수를 준비하게 된다. 생단은 주로 전사청 근처에 위치한다. 예외적으로, 소수서원의 생단은 서원 입구의 사주문 앞에, 남계서원의 생단은 강당 오른쪽인 북쪽에 있고, 필암서원은 생단 대신에 내삼문 앞에 계생비(繫牲碑)가 설치되어 있다.

5. 조선시대 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의 활동 기반이었던 서원은 제향을 통해 선현을 받드는 전통을 계승하는 장소이자, 유생들이 호연지기를 키우며 인격을 도야한 산실이였다. 서원은 원규(院規)를 따르는 원칙과 교육의 자율이 조화를 이룬 곳이었으며, 당시에 도서관과 출판 기능을 갖춘 교육기관이었다. 서원은 또한 향촌 사회에 유교 윤리를 보급하고 향촌 질서를 재편성하며 지역공동체를 이끄는 중심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서원은 조선시대 관립 교육기관이었던 향교와 달리 번잡한 읍치(邑治)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하고 경치 좋은 승지(勝地)에 자리를 잡았다. 퇴계가 이야기 하였듯이 서원은 세속의 흰소(喧騷)에서 벗어나 강도이업(講道肄業)하는 장소에 세워져야 했다. 그런 이유로, 사대부들은 골짜기가 있어 물이 흐르고, 산이 있어 풍월(風月)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경관을 갖춘 곳에 서원을 건립하여 학문을 연마하고 후학을 양성했다. 따라서 자연과 함께 하기에 가장 적합한 누(樓)를 서원 진입 부분에 세워 자연을 접하는 장소로 삼았다.

유네스코가 1972년 세계유산협약을 채택하여 1978년부터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시행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구상 많은 국가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시간의 흐름으로 인하여 쇠락하거나 파괴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 더 빨리 훼손되고 사라질 위험에 직면하였기 때문에, 그 중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에 대해 인류 모두의 유산으로 인정하여 보호할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600여 곳에 서원이 있다. 그 중에서 국가가 사적(史蹟)으로 지정하여 특별하게 보호하는 서원은 9곳이며, 문화재자료로 지정한 것은 96곳이고, 시도(市道) 기념물로 지정된 서원은 27곳, 시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19곳이다.

국가가 사적으로 지정해서 보호, 관리하는 9곳의 서원인 소수서원(紹修書院), 남계서원(藍溪書院), 옥산서원(玉山書院), 도산서원(陶山書院), 필암서원(筆巖書院), 도동서원(道東書院), 병산서원(屏山書院), 무성서원(武城書院), 돈암서원(遯巖書院)은 조선말 대원군에 의해 훼손되지 않은 서원들이다. 이들 서원은 현존하는 한국의 서원 중에서 조선시대 서원의 모습을 가장 잘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당에 모시는 선현에 대한 제향을 지금도 행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단’에서는 이상 9개 서원을 ‘한국의 서원’으로 묶어 연속유산으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상 언급한 9개 ‘한국의 서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서 요구하는 유형유산적 가치와 무형유산적 가치를 두루 가지고 있다.

유형유산적 가치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자들이 추구하는 천인합일할 수 있는 주변 경관을 갖춘 곳에 자리를 잡은 점과 정체성이 있는 조선시대 한국 서원건축의 유형을 지니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국의 서원’은 산수와 경관이 좋아서 성리학자들이 은거하면서 학문하기에 적합한 곳에 자리를 잡았다. 뿐만 아니라, 이들 서원은 외부에 대하여는 건물들이 등을 돌리고 서 있어 폐쇄적인 듯하지만, 내부에서는 향

상 밖으로 시선이 열리도록 공간이 처리되어 있다. 서원의 중심이 되는 강당이나 누에 앞으면 앞으로 주변 경관이 보이도록 건물을 배치하고 공간을 처리하여 원생(院生)들의 심성과 뜻을 크게 함양하는 데 기여했다.

이외에도, 강당과 사당 사이에는 석축을 쌓거나 화계(花階)를 만든 다음, 제한된 몇 그루의 나무나 화목(花木)을 심어 자연과 계절의 흐름을 알게 하였고, 강당 앞 서원 한 곳에 조성한 연당의 물과 연꽃을 통해 자연을 감상하고 우주의 운행을 탐구케 하였다. 이에 더하여 건물은 물론이고, 주변 자연경관을 이루는 나무, 돌, 물, 산 등에도 성리학적 사고로 전환케 하는 이름을 지어 그 존재가치를 부여해 유생들이 다양하게 성리학적 사고에 감응(感應)토록 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의 서원’은 입지, 배치 및 공간구성 등 건축 유형에 속하는 정체성을 보인다. 서원의 건물 배치와 그에 따른 공간구성에는 계층적 질서 체계가 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간의 위계성은 건물과 담으로 구획된 여백의 외부공간을 반복하여 만드는 방식에 의하여 확보되어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서원’은 자연과 조화하는 배치를 하고 있으며, 건물들은 서로 간의 관계를 분명히 보이는 배치를 하면서도 다양한 외부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또, 건물들은 기본적으로 대칭이 되는 배치를 하고 있으나, 엄격하게 기하학적인 대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난 배치를 하여 그 속에서 자연스러움을 구사하고 있다. 그리하여 강학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활달하고 생동하는 공간이, 제향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존엄하고 정밀한 공간이 조성되어 서원 전체를 통하여 역동적이면서도 긴장과 이완이 반복하는 공간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세워진 서원의 건물들은 장대하거나 화려하지 않고 절제되고 단아한 모습으로 조영되어 성리학적 세계관을 건물 배치와 공간의 차원으로 응축시켜 승화시키고 있다. 서원을 경영한 사람들은 당대의 지배 계층으로서 재력과 기술을 동원하여 최고의 건축을 조영할 수도 있었지만, 서원의 규모는 크지 않고 건물들은 담담하고 소박하다. 이러한 서원 건축의 특성은 절제되고 검박한 미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서원에는 절제되고 단아한 건축 형식과 질서, 그리고 주변 자연에까지 사고를 확대케 하여 자연과 인공을 합일하려는 건축 공간 처리와 배치 형식으로 성리학자들이 추구한 이상이 극명하게 반영되어 있다. 이는 조선시대 사대부 선비들이 추구한 절제와 맑음의 미학에 기초한다.

무형유산적 가치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서원’이 지닌 특성은 지금까지 지방 유림들에 의해 현재까지 제향이 존속되고 있는 점, 그리고 서원에서 활동한 성리학자들이 남긴 여러 전적(典籍)과 목판 등이 잘 보존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상 언급한 내용을 세계유산목록 등재의 판단 근거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연관시켜보면, ‘한국의 서원’은 400여 년을 존속한 한국의 대표적 사학교육기관으로서, 국가의 지원과 존재의 인정(사액)으로 지방 교육의 전범을 마련하였다. 또 한국의 서원은 선현을 제향하고, 지역의 교육, 문화, 지성사의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지역별, 학맥별 지성사의 네트워크와 특성을 구현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서원은 한국 유교문화의 다양성과 개성이 집약된 문화유산이자 한국 고유의 유교문화(‘한국식 유교문화’)를 대표하며, 성리학의 보급에 합당한 한국 특유의 서원 건축 형식을 형성하였다. 이에 더하여, 한국의 서원은 신유학인 성리학의 천인합일의 문화적 전통을 입지의 자연성과 전면 경관의 개방성을 통하여 감성적으로 체득 인식하는 특출한 건축 공간을, 그리고 한국의 자연과 조화하는 특유한 공간 유형을 창출하였다.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려면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제시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비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입증이란 운영지침에서 규정한 세계유산 등재기준, 진정성, 완전성, 보존 관리 계획이 충족되어야 함을 말한다.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에서 요구하는 진정성이란 해당 유산의 유형과 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유산의 속성이 예술적, 역사적, 사회적, 학술적 차원에서 본래부터 또는 역사의 과정에서 지니게 되는 진실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진정성과 관련해서 고고학상의 유적, 역사적 건조물 또는 구역의 복원이나 ‘재건축’은 오직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복원이나 재건축은 완벽하고 상세한 기록 문건에 기초할 때만 허용되며, 절대로 추측에 근거해선 안 된다.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에서는 유산에 대한 진정성의 판단을 형태와 디자인(form and design), 재료와 구성 물질(materials and substance), 용도와 기능(use and function), 전통·기법·관리 체계(traditions, techniques and management system), 입지와 주변 환경(location and setting), 언어 및 기타 형태의 무형 유산(language and other forms of intangible heritage), 정신과 감성(spirit and feeling), 그리고 기타 내외부적 요소들(other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에 근거를 두고 있다.

완전성은 해당 유산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는데 필요한 요소 일체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지, 해당 유산의 중요성을 부여하는 특징 및 과정을 대표하는데 충분한 크기인지, 유산의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추진중인 ‘한국의 서원’은 대원군에 의해 훼손되지 않은 서원들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이들 서원이 진정성과 완전성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음을 말한다. 비록 9개 서원중에서 일부는 진정성과 완전성의 관점에서 향후 정비되거나 원형이 회복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현안들은 현재 수립하고 있는 종합정비계획에 의해 이행될 것이다.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은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모든 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 진정성, 완전성이 보존, 유지, 향상되도록 법령, 규정, 제도, 관리 체계 등이 갖추어져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재된 세계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국가는 유산의 세계유산 지정구역(property zone)과 완충구역(buffer zone)을 설정하고 그 경계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문화재 지정구역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산이 소재하는 구역을 말하고, 완충구역은 해당 유산의 주변 구역을 말한다. 해당 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완충구역에는 토지 및 건물의 이용과 개발에 대한 제재가 행해진다. 이런 이유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세계유산 및 주변 환경에 대한 보존계획 및 관리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상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의 서원’은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입증하는 등재 기준의 ii), iii), iv), vi) 항목을 충족하는 것으로 제시할 수 있다. 해당 등재 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등재 기준 ii): 인류의 가치가 교류된 것임을 보여주는 건축이나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계획이나 조정 설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났거나 세계의 특정 문화권에서 일어난 것이어야 한다.

등재 기준 ii) 항목과 관련해서, ‘한국의 서원’은 중세 동아시아 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한 성리학이 조선 사회에 정착, 보급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등재 기준 iii): 문화적 전통, 또는 현존하거나 소멸된 문명과 관계되면서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를 지니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등재 기준 iii) 항목과 연관해서,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사학 교육의 가장 전형적인 건축 형식과 공간의 증거를 보여줄 뿐 아니라, 서원과 주변 경관과의 특출한 관계를 잘 보여준다.

등재 기준 iv):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들)를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가 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건조물,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이거나 경관이어야 한다.

등재 기준 iv) 항목과 연관해서, ‘한국의 서원’은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하는 특유한 건물 배치와 건물 유형을 창출하여 성리학이 추구하는 천일합일사상이 반영된 유교건축 미학의 전형을 보여준다.

등재 기준 vi): 탁월한 보편적 의미를 지닌 사건 또는 살아 있는 전통, 사상, 신앙, 예술·문학 작품과 직접적으로 또는 가시적으로 연계된 유산이어야 한다.

등재 기준 vi) 항목과 연관해서, ‘한국의 서원’은 서원 성립의 중요한 요건인 제향을 지금도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서원은 지방 문화와 교화의 중심지로서 도서관과 출판의 기능을 하면서 많은 문집, 문헌, 목판 등을 남겼다.

전통교육기관의 문화유산적 가치: 콜레기움과 서원을 중심으로

1. ‘인간 됨’을 위한 문화적 기제로서의 전통 교육의 장치

전통시대의 교육기관에 대하여 새삼스러운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은 일종의 지적 성지순례(intellectual pilgrimage)를 위한 것이다. 이 순례는 오늘날 소위 현대의 교육기관이 무엇인가를 상실한 데서 오는 실망과 아쉬움에 대한 반응이다. 우리가 현실에 대한 실망이나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될 때 곧잘 과거는 아주 순수하고 아름답고 가치있는 것이라는 낭만화의 성향을 갖게 되고 따라서 과거에 대한 노스탈지어에 빠져든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전통 교육기관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과거의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에도 추구할 가치가 깊은 인류의 위대한 문화와 문명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그 유산은 물질적인 것 뿐 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것 혹은 정신적인 것을 포함한다. 안다는 것(앎)은 지식과 기술의 습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가치와 의미 그리고 정서적인 자산을 총칭하는 것이며 그것을 찾아내는 능력을 말한다. 그러한 앎의 훈련은 곧 인간이 되는 것(being human) 또는 인간다움(human being)의 도를 터득하는 과정이다. 현대교육은 점차 앎의 성스러움과 인간성의 고양을 추구하고 나누고 전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상실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전통 교육기관이라 할 때 전통이란 어느 시대를 말하는 것일까라는 물음이 떠오른다. 지구상의 지역마다 그 ‘전통’의 역사적 시간은 다르다. 그리스의 전통을 이야기 할 때 흔히 ‘고대 그리스’라고 부르는 시대의 것을 말하는데 비하여 한국에서 전통은 지난 조선조 500년의 기간을 대표하는 특징을 막연하게 지칭한다. 대개는 근대 이전의 과거를 총칭하여 전통시대라고 하는데 그 기준은 맥락에 따라 달라서 모호하고 정확하지 못하다. 다만 20세기 이래의 현대 대중교육 제도와 구별하여 그 이전 시대의 비교적 오랜 역사성을 가진 제도적 장치를 말하기로 한다.

사실 이 세상 어디에든 지식을 생산하고 전하는 문화적 기제는 있다. 이야기는 문자와 종이 발명되지 않았을 때에 사람들에게 지식과 세상의 진리를 전하고 가르침을 주는 강의의 원형이었다. 독일의 민네쟁거(minnesaenger), 이슬람 사회의 호자(hoja), 중앙아시아의 아칸(akon)이라 부르는 음유시인, 혹은 구술문학가인 메네스(menes) 등은 모두 그러한 이야기꾼 현자이다. 종지와 문자의 발명은 보다 더 원거리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식을 전파하게 해주었다. 이제 화자(speaker)가 직접 청자(listener)를 마주하고서 지식을 전달하지 않아도 되었다. 문명사적으로 고선지가 이끌었던 당나라 군대가 중앙아시아의 탈라스전투(751)에서 지지 않았다면 이슬람의 전파는 아주 느렸을 것이다. 당나라 포로들로부터 종이 만드는 기술이 사라센에 전해졌고 이는 이슬람이 급격하고도 광범하게 전파되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더 중요한 역사적 발전은 점차 교육의 제도적인 장치가 개발되었다는 것이다. 지식을 체계화하고 더 깊고 많은 지식을 탐구하고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일정한 자리에 모여서 비교적 긴 시간을 함께 해야 하고 후속 세대를 양성함으로써 시간의 제약을 넘어서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하는 사업이 전문화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화된 교육기제는 종교적인 목적을 위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전통 교육기관의 고찰로부터 우리가 찾아내는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적 가치’는 ‘오래된 미래’라는 말로

써 표현할 수 있다. 즉 현대와 구별하여 우리가 말하는 전통적 교육기관은 인간적인 유대감과 지식의 성스러움 그리고 지식탐구의 행위와 과정의 경건함이 하나로 엮여져 있었다. 사람은 그 속에서 성장하였고 사람다움의 도를 터득하였다. 그러므로 지식의 습득과 생산 자체가 아니라 인간 됨의 과정이자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더 중요하였다고 볼 것이다.

2. 서구의 콜레기움 또는 칼리지

이태리의 볼로냐 대학(1088)과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1096), 파리대학(1200), 그리고 캠브리지 대학(1209)처럼 유럽의 많은 고등교육 기관들이 이미 중세시기부터 있어왔다. 칼레지(college)는 교수와 학생이 함께 기숙을 하면서 교육공동체를 이루는 단위를 말하는데 이는 교회를 뜻하는 콜레기움(collegium)이란 라틴어에서 유래한다. [주: 콜레기움은 모임 혹은 공동체를 뜻하기도 한다.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적인 생활단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신을 봉사하는 사제들의 공동체로 출발하였으며 신의 진리를 탐구하고 익히는 학문과 교육 그리고 끊임없이 연습하고 익히는 제도적인 장소이다. 더 중요하게는 그것이 교사와 학생이 함께 숙식을 하는 기숙생활을 통하여 수도 혹은 수양을 하는 제도적 장치였다는 점이다. 즉 칼리지(college)는 교회 혹은 수도원(monastery)에서 기원하였지만 거기에 기숙을 하는 학문연마의 단위로서 학료(學寮)라고 번역한다.

오늘날에도 중세의 콜레기움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의 칼리지들은 그래서 반드시 교회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가 칼리지의 원천 혹은 바탕인 것이다. [주: 19세기 초 흄볼트의 대중교육기관으로 대학을 개혁하는 운동을 받아들여서 유럽이 대학개혁을 하였는데 영국에서는 빅토리아 여왕의 특명에 의해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는 이전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남았던 것이다.] 칼리지는 기숙사, 교회, 도서관, 식당의 네 요소가 구성의 기본이다. 여기에 신체단련을 위한 체육장이 덧붙여진다. 칼리지는 세속의 공간과 구분하기 위하여 높은 담을 쌓거나 성처럼 꾸며서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하였다. 즉 학문을 연마하는 장소는 성스러운 세계(sacred)로서 세속적 세계(profane/ mundane)와 구별되었다.

콜레기움 혹은 칼리지가 기숙과 식당을 교회와 함께 중시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것은 교수와 학생이 한 단위의 구성원을 이루며 공동체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질서와 인간적 윤대를 훈련하고 성숙시키는 제도적 과정이다. 이러한 기숙학교에서는 지식 뿐만 아니라 개인이 인간다움을 얼마나 완성하는가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말투, 행동, 예절, 성품, 취미, 교양, 몸가짐 등이 모두 중요한 훈육의 항목이다.

성스러움과의 연관으로 인하여 지식은 그 자체 성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당시의 학문이란 신의 성스러운 가르침을 탐구하는 것이었으므로 결국 성스러운 지식이었다. 그것은 따라서 성직자의 특권적 영역이었다. 지식은 신과 연결됨으로써 성스러운 것이 되었다.

대학의 출현 역사는 바로 그러한 신성한 지식의 탐구와 전수의 장으로서의 콜레기움이 오늘날 보는 바와 같은 대중교육 기관으로 바뀌어 온 과정을 보여준다.

처음에는 세속적 권력을 가진 귀족들이 그러한 성스러운 영역에 접근을 하였다. 르네상스(14C-16C) 시대에 대학 혹은 아카데미(학술원)의 전신인 콜레기움이 많이 세워졌음은 곧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것의 결합 혹은 조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한다. [주: 폴란드 크라쿠프의 야기엘론스키 대학의 시초인 콜레기움 마이우스(코페르니쿠스가 수학함)는 1364년, 에어푸르트 대학의 시초인 콜레기움 마이우스(루터가 수학함)는 1392년에 세워졌다]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 하에 있었다 하더라도 봉건 제후에 의하여 학문을 위한 콜레기움의 설립은 지식습득이 세속적이고 특권적인 것으로 이행하는 지식산업사(history of intellectual industry)의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이제 귀족 엘리트가 장악하는 세속적 권력의 장이 된 것은 아니다. 신학의 절대적인 성스러움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입지를 가지게 되었을 뿐 만 아니라 세속적인 정치와 경제 권력과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보다 학문의 전문기관으로 확립되었다. 곧 종교(신)와 세속(정치와 경제 권력)과 학문의 세 영역 혹은 힘이 르네상스 이래 서구의 지식생산의 구도를 형성하였다. 로마 교황청에 있는 벽화 ‘아테네 학당’ (Scuola di Athene) (1510-11)은 교황 율리우스 2세가 그의 집무실을 철학, 신학, 시학, 법학의 4개의 주제로 장식하기 위하여 라파엘로(1483-1520)에게 벽화를 주문하였는데 그 중 철학을 주제로 한 것이다. 철학은 인간의 학문 즉 이성의 논리라는 정신세계로서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확립되는 당시의 이상(idea)을 그린 것이다. 라파엘로는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하여 당대에 이르는 철학자, 신학자, 법학자, 예술가를 하나의 아카데미 안으로 모아놓은 그림을 통하여 인본주의적 콜레기움을 상상하였던 것이다.

르네상스의 인본주의와 상업의 발달로 인한 시민계급의 탄생과 더불어 지식의 대중화 혹은 시민이 지식 산업에 접근성을 취하려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특히 18세기 이래 산업혁명과 근대국가의 성립은 공민과 국민의 개념을 출현시켰고 소위 ‘국민/공민 만들기’를 위한 교육 제도와 지식산업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콜레기움은 근대적인 대학으로 성장하였다. 왕과 교회의 지원으로 시민 대중을 위한 교육기관이 설립되면서 국립/관립/공립 대학의 출현을 보게 되었다.

여기서 관학과 사학의 대립이 새로운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것은 국민과 공민을 만들려는 관학의 규율 지향의 교육과 사학의 자유주의적 가치의 대결로 볼 수 있다. 영국에서는 대주교와 국왕 혹은 귀족이 유서깊은 유명한 기숙학교와 대학을 설립하였다. 국왕이 재정지원을 했지만 그것은 관립이 아니라 사립이었다는 점은 흥미롭다. 영국에서 공립학교라고 번역되는 public school의 뜻은 개인이 집에서 가정교사(private tutor)로부터 받았던 교육 대신에 여러 명이 가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공공의 장소에 모여서 공동기숙하고 함께 공부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국가가 세운 소위 국립학교는 훨씬 뒤인 현대국가에 와서야 시작하였다.

결국 20세기에 와서 보다 분명하게 탈신학적인 지식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 특히 과학기술의 대두와 경제학과 정치학 등의 세속적 지식을 추구하는 기술적 학문이 대두하게 되면서 교회와 교육기관의 간극은 분명하게 생겨나게 되었다. 일정한 텍스트의 테두리 안에서 가르쳐졌던 성스러운 지식 대신에 이제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교육기관에 의하여 도덕과 이성으로 감시를 해야 하는 사악한 범죄의 가능성을 함께 가진 지식이 양산되었다. 지식과 교육의 세속화에 따라 도덕철학이 반동적으로 강조되었다. 즉 고등교육은 교양과 함께 수양을 통한 전인교육을 추구하며 세상에 대한 고귀한 윤리적 책임감을 갖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갖추도록 가르치는 과정으로 여기는 성향의 대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에 들어서 점차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식과 성스러움을 독점하면서 수료증을 비롯한 각종 증명서와 자격증으로 무장하여 세속적인 영역에서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소위 교육배경을 특권적 자산으로 삼고 이를 세습화하며 학벌로 된 패거리를 지었다. 이는 교육 신분제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교육 엘리트주의”는 교육받은 결과의 특권이 아니라 교육받을 기회의 특권을 독점하는 것이 되었으므로 19세기 초에 훔볼트(1769-1835)에 의한 대중교육으로서의 대학의 기능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 1810년에 설립된 근대적 체계를 갖춘 공교육의 장으로서의 베를린 훔볼트 대학은 교육과 연구 기능의 통합과 학생의 전인적 교육을 추구함으로써 이전의 오랜 귀족주의적이고 특권주의적인 대학과는 다른 대중을 위한 교육을 시작하였다. 1916년 초대 북경대학 총장으로 취임한 자유주의자 채원배(蔡元培 1868-1940)는 겸용병포(兼容並包: 모든 것을 용납하고 모든 사람을 받아들인다)라는 말로써 고등교육의 기회와 내용의 개방성을 설파하였다.

오늘날 고등교육 기제는 윤리와 도덕과 인간적인 것에 대한 교양 보다 상품으로서의 지식과 기술의 생산과 유통 산업의 허브로 기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물론 대학은 사회에 대하여 비판적 동반자임을 자처한다. 즉 전문 지식과 미래를 향한 이상을 가지고 비판을 통하여 사회를 선도하는 역할을 자임한다. 그러나 이전의 종교 대신에 오늘날은 점차 비대해지는 세속적 권력 특히 관료집단과 긴장 내지 경쟁 관계에 접어들고 있다.

3. 한국의 전통 교육기관: 서원

한국의 오랜 역사 속에서 고등교육 기관은 고구려(BC 37-668)의 태학(372), 신라(BC 57-935)의 국학(747), 고려시대(918-1392)의 국자감(992) 등으로 면면히 있어왔다. 그러나 교육제도가 체계적으로 발달한 시대는 조선조(1392-1910)에서 유교의 확립과 함께 전개되었다. 유교를 국가 이념체계의 근본으로 삼은 조선조는 개국 초에 서울에는 최고교육기관으로 성균관[고려 충렬왕 때 국학을 성균관으로 개칭하였고 조선 개국과 함께 한양에 세웠다]을 두고 크고 작은 모든 고을에는 문묘를 설치하고 향교라 부르는 중등교육기관을 설치하였다. 기초교육은 家學이거나 개인에게 私塾하는 것이었고 그러한 儒者 혹은 선비들이 山林/士林/儒林의 연계망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지식과 사상의 유통을 주도하였다. 성균관과 문묘에는 공자와 그의 제자 그리고 조선의 성현을 제사지내며 강학과 유생들의 학습을 조직하였다. 향시를 쳐서 생원과 진사에 합격하면 성균관에 유학하고 그들은 대과 응시에 혜택을 누렸다. 중종조에 유학을 크게 장려하면서 사림/유림의 정치적 사회적 존재가 부각되었다.

조선조 중종조에 풍기군수로 있던 주세붕이 중국의 백록동서원[주: 9C초 이발 형제가 처음 시작하였는데 宋代에 와서 1179년 주희가 보수 확장하면서 중국 4대 서원의 하나로 발전하였다]을 본 따서 안향을 제향하는 백운동서원(1544)을 세웠다[주: 1550년에 소수서원으로 개칭 사액되었다]. 이것이 우리나라 본격적인 고등교육 기관으로서의 서원의 효시로 본다. 그 이래로 조선조에는 수백 개의 서원이 설립되었다. 전국에있던 1000여 개의 서원과 사우의 대부분은 고종조 대원군의 서원철폐령(1864-1871)에 의하여 훼철되었으며 임금

으로부터 사액한 서원과 국가의 이념과 역사에서 현창해야 하는 가치를 가진 서원과 사우를 합하여 모두 47개만이 남게 되었다. 서원 훼손의 이유는 그것이 면세 특권으로 인하여 국가 경제를 좀먹고 당쟁의 소굴로서 국가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것이지만 근대국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가 권위의 확립을 위하여 사학 전통의 권위를 축소하려는 정치적 전략이었다.

일본의 식민침탈, 근대 교육제도의 도입, 한국전쟁으로 인한 파괴 등의 현대사의 과정에서 서원은 많이 사라졌다. 그러나 지금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서원들 중에서 영주 소수서원(1543), 함양 남계서원(1552), 경주 옥산서원(1573), 안동 도산서원(1574), 장성 필암서원(1590), 달성 도동서원(1568/1605), 안동 병산서원(1613), 정읍 무성서원(1615), 논산 돈암서원(1634) 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다리고 있다. 등재의 가장 큰 이유로서 현재까지도 오랜 건축물의 보전이 이루어졌다는 점, 서원의 전통적 기능을 지금도 실천한다는 점, 그리고 국가가 아니라 유림이라고 하는 자발적인 유학자들에 의하여 운영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이 세 가지만 따진다면 더 많은 서원들이 등재후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서원들은 건축 혹은 건축된 공간 물질 즉 유형문화재로서가 아니라 거기에는 전통적인 의례와 사상과 가치 그리고 도덕체계가 실천되고 있는 바 무형문화가 활성화 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서원제도는 중국과 베트남 등 유교전통의 나라에서도 있지만 지금은 역사유적으로 남아 있다. [주: 중국에서는 唐代에 시작한 강서성의 白鹿洞書院을 비롯하여 宋代에 설립된 호남성의 岳麓書院, 하남성의 嵩陽書院과 應天書院을 4대 서원으로 꼽는다. 설립 역사가 오래고 신유학의 창시자인 북송 남송의 대유들이 강학을 하고 크게 증수하였다는 역사로 인하여 서원의 대표로 인식된다. 그러나 淸末에 이미 폐허가 되었고 지금은 몇몇 건축물이 남아서 역사유적으로서 존재한다. 악록서원은 호남대학의 부속기관으로서 문화고적 혹은 박물관으로 존재한다] 이에 비하여 한국에서는 유림이라는 자발적 사회단체가 지금도 있어서 사학으로서의 서원 뿐 만 아니라 관학이었던 성균관과 지방의 문묘까지 500년을 계속 지켜 나오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예를 보이고 있다. 유림은 정기적인 제향을 수행하며 다양한 유교관계 학회와 모임을 조직하며 도덕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과 문화교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원은 건축문화재 보다 그 설립과정, 공간적 구조, 상징 역할과 기능의 여러 면에서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정신문화의 생산과 전수 기제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1) 서원의 설립과정

서원은 개인이 사사로이 세울 수 없다. 지역의 유림(儒林)의 공론(公論)을 통해서 설립의 의미가 인정되고 그 설립의례는 유림의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즉 유림의 공인을 받아야 비로소 서원으로서의 명목을 유지한다. 서양의 콜레기움이 신과의 연결 속에서 신성함을 아우라로 가지고 있었다면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유교의 서원은 신 대신에 학문(여기서는 유학)적으로 훌륭한 인물을 제향한다. 서원은 제향하는 인물의 생전에는 설립하지 않는다. 도학의 수준이 높은 학자가 죽은 후 유림에서 그에 대한 공공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고 공론이 모아지면 유림을 통하여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다. 고 관대작을 지냈더라도 도학자로서 학자로서의 평가가 높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심지어 유림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일부 인사들이 서원을 세울 경우에는 전체 유림의 반대에 부딪쳐 진행이 중단되거나 건물이 훼손되기도 하였다. 서원의 설립은 지방 정부에 고하고 도와 중앙 조정의 예조에 보고되었다.

서원은 성균관과 향교가 官學인데 비하여 私學이며 따라서 지역의 정신 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鄉權의 상징이기도 하였고 사상적 논쟁의 거점이었다. 관학이 서울과 지방 관아가 있는 도시에 위치함에 비하여 서원은 한적한 계곡에 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럼으로써 권력과 세속적 번잡스러움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출세주의와 공리주의를 떠나 자유롭고 순수한 정신으로 학문을 추구할 수 있었다.

2) 서원의 공간구조의 특징

조선 서원의 구조적 규범이 된 서원은 紹修書院에 이어 두 번째로 세워진 함양의 정여창을 봉향하는 瀟溪書院(1552. 1566년 사액)이다. 구조적으로 학문하는 연구와 교육의 기관인 동시에 특정 학자를 제향하는 성스러운 의례의 세계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 두 요소를 핵심으로 가져야 한다. 대개 봉향하는 신위를 모시는 사당이 제일 안 쪽에 위치한다. 그 앞에는 가로로 본당인 강단이 들어서고 이를 중심으로 좌우에 기숙을 하는 동재 서재가 마주 보며 선다. 여기에 서고가 또한 있다.

서원의 각 건물과 장소에는 의미가 있어서 이름을 붙인다. 도산서원[주: 퇴계가 1560년에 완성한 도산서당 뒤에 그의 사후 3년상을 지낸 1574년 유림이 그를 기려서 서원을 세웠고 이듬해 선조로부터 사액하였다]을 예로 들어보자. 서원의 입구에서 天光雲影臺(주희의 觀書有感이란 시에서 따온 것이니 이성의 맑고 순수함을 찾는 것이다)가 있어서 맑은 낙동강 물에 푸른 하늘과 흰구름이 비치는 광경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정신과 마음을 순수하게 만든다. 서원 입구에는 冽井(성균관 앞에는 반달 모양의 못을 파고 이를 열수라고 하였다. 맑고 차가운 이성을 말한다)이라는 우물이 있으니 손을 씻거나 목을 축이면서 또 한번 몸과 마음을 정화한다. 서원의 바깥 공간은 퇴계가 생전에 지어서 쓰던 도산서당의 공간이다. 거기에는 亦樂書齋(논어의 有朋自遠方來不亦樂乎), 농운정사(隴雲精舍 언덕 위의 구름을 사랑한다), 완락재(玩樂齋 진리를 탐구하여 즐긴다), 암서헌(巖栖軒 바위 속에 은거하여 학문과 수양에 힘쓴다), 관란헌(觀瀾軒 흐르는 물을 보고 세월이 가기 전에 공부에 열중한다), 시습재(時習齋 논어의 學而時習不亦悅乎) 등의 편액이 장식한다. 서당 건물 앞에는 淨友塘(사각형 연못에 연꽃을 심고 감상하였으니 주엽계의 애련기가 도학자의 정신을 보여준다)이라는 작은 연못이 있다. 선비에게 연꽃은 고고하고 순수함을 지키는 이상을 일깨워주고 상징하는 것이다. 옆 언덕에는 절우사(節友社: 절개있는 벗들의 모임)라 이름짓고 梅蘭菊竹松을 심었으니 이는 모두 선비 혹은 군자의 道の 경지와 마음을 상징한다. 또한 바위 틈으로 나오는 물을 모은 몽천(蒙泉)이란 작은 우물을 만들었다. 주역(周易)에 나오는 “어린 제자를 바르게 가르친다(蒙以養正)”에서 따온 것이다.

도산서원의 주된 공간으로 들어가는 정문은 진도문(進道門)이라 한다. 세속과 구별하여 도학의 성스러운 세계로 들어간다는 뜻이니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설 때 갖추어야 하고 상징적으로 체험하는 마음가짐을 의미한다. 중앙의 강당(본당) 처마 밑에는 선조대왕이 내린 <陶山書院>이라는 큰 액자가 걸려있고 마루 안쪽 중앙에는 전교당(典教堂)이라는 편액이 걸려있다. 유학의 가장 중심 역할 즉 경전의 가르침을 전하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전교당에는 한존재(閑存齋: 사특한 마음을 막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다)의 현판 외에도 원규(院規)와 주희암의 백록동규(白鹿洞規), <論語>와 정이천(程伊川)의 四勿箴과 진무경(陳茂卿)의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 등의 편액이 걸려있다. 그 앞에 마주하고 선 두 긴 건물은 기숙사로서 박약재(博約齋 일명 東齋: 박문약례 즉 학문을 넓히고 예도를 바닷이 하여 행실을 갖춘다)와 홍의재(弘毅齋 일명 西齋: 도의 세계는 넓고 터득하기 멀어서 강한 의지와 의연한 기개를 가져야 한다)가 있다. 진도문 좌우로 광명실(光明

室)이라는 동서 서고(書庫)가 있다. 전교당 뒤편에는 퇴계를 주향하고 그 제자 월천을 종향한 상덕사(尙德祠: 도덕을 숭상한다)라는 사당이 있다. 서원의 정원에는 매난국죽의 사군자와 소나무와 백일홍이 백일홍은 선비의 꽃인데 그 발음으로부터 배롱나무라는 명칭이 생겼다. 선비의 표리일치함을 상징하며 백날을 붉게 핀다는 뜻 역시 선비의 고고함을 말한다. 그러므로 서원의 공간은 여러 사물로 구상되어 독특한 문화경관을 이루며 이 경관 구도 속에서 사람들은 유교의 인문 세계를 섭렵하게 된다.

3) 서원의 상징적 의미

서구의 수도원(칼리지의 원형으로서), 아랍, 인도, 유대교, 티벳 등 모두 신을 받드는 종교적 교육기관을 설립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전통적인 교육기관은 교회(사원)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한국의 서원은 유교문화의 공간이다. 유교는 신의 섭리가 아닌 인간의 이성 혹은 본성으로부터 도덕을 찾는 이른바 자기수양을 통한 도통의 학문체제이자 방법론이다. 즉 지식은 신의 말씀을 해석하거나 신에게 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됨을 위한 철학의 장소인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서울의 성균관과 지방의 향교로 편제되는 관학에 비하여 서원은 자유로운 사학전통의 학문연구기관이다. 관학이 공자와 그의 제자를 제향하는 데 비하여 서원은 중국의 성현이 아니라 유럽들이 사표로 삼을 만 하다고 공통으로 뽑은 한국의 선현을 봉향한다. 따라서 서원 자체가 각각 특별한 가치와 이념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문화기제이다. 서원의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강학이다. 향교가 四書五經의 유교 고전 텍스트를 학습하는 곳이라면 서원에서는 텍스트의 해석을 둘러싼 철학 세미나와 높은 수준의 특별강연인 강학을 하는 곳이다. 서원의 멤버는 함께 기숙하고 강학과 세미나를 하는 과정에서 인격을 도야하고 이념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도덕적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곧 지식의 심화에 그치지 않고 인간성을 계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서원은 문화적 공간이며 기제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서원의 문화실현 기제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성스러움: 서원은 특정 인물을 봉향한다. 사당은 그 서원 안에서 추구하는 일체의 것에 신성함 혹은 성스러움을 부여한다. 세속적인 욕망을 이겨내는 성스러움은 서원에서 체득한다.
2. 인간다움의 추구: 지식은 인간되기(being human)를 위한 것이다. 인간(human being)의 본성 즉 인성을 찾고 그것을 실천하는 도덕적 능력을 이론적으로 심화하는 수단이다. 지식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고 따라서 사람의 본성에 대한 명확한 규명의 능력이 없다.
3. 자유정신: 서원은 선비의 강학처이자 수련의 문화적 공간이다. 선비정신은 권력과 관이 재조하는 제도적 힘에 대한 비판정신을 생명으로 한다. 곧 서원이 사학으로서 관학과 구별되는 점은 선비정신과 그 자유정신에 있다.
4. 도의의 실현: 서원은 관직이 아니라 학자의 도덕적 우월성을 체득하는 곳이다. 조선시대에는 관리도 그러한 학자적 지식과 윤리와 도덕을 갖추어야 했다. 서원의 출입은 그 서원에 의하여 표출되는 세상에 대한 지식인의 윤리적 의무를 스스로 택하는 일이다.

4) 서원의 역할 혹은 기능

1. 서원은 과거시험용 학습기관이 아니라 유교의 학문적 연마의 도장이다. 흔히 서원에서 공부하여 과거에 응시하였다는 식으로 말함으로써 마치 서원이 과거시험의 준비기구인 양 오해를 한다. 그러나 서원은 고시학원이 아니다. 서원의 강론과 강학은 철학적 주제를 놓고 탐구와 논쟁을 하는 것이다. 특히 전국적인 명성을 가진 서원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학문적 논쟁꺼리가 나오면 특별 강회를 열었고 그 결과는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2. 지역사회에 대한 지적 도덕적 통합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 서원의 멤버는 지방의 유림을 구성하는 선비들로서 지역사회를 도덕적 공동체로 만들고 유지하는 핵심세력을 담당하였다. 서양에서 교회가 그 관할하는 교구의 사람들을 관리하였듯이 서원 멤버들은 지역사회의 사람들을 일정한 윤리, 도덕, 가치, 그리고 의례의 체계 속에 존재하도록 이끌었다.
3. 서원은 지식인의 집결체로서 공론(公論)을 생산하는 문화제조의 場이었다. 서원이 주도하여 원회와 향회를 열어 선비들의 공문을 형성하였고 이를 통하여 국가와 사회의 중요 상황에 대응하였다. 그들은 통문과 격문을 통하여 서원 간에 공론의 네트워크를 가동하였고 격문을 통하여 백성들과 함께 국난을 해결하는 힘을 만들었다. 비판적 조언을 통하여 지방장관을 도왔으며 상소를 통하여 국왕에게 국가 관리에 대한 교정을 요구하였다.
4. 봉향된 인물에 대한 정기적인 제향(향사)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특별 강학에도 일정한 의식과 의례 절차가 따랐다. 의례는 강학 보다 더 중시 되었는데, 그 까닭은 의례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선비는 정신적 자세와 몸가짐을 훈련하는 수양의 과정을 밟기 때문이다.
5. 서원은 당시에는 도서관인 동시에 출판을 담당하는 대전통의 가장 중요한 전승 기제였다.
6. 서원은 봉향하는 인물로써 특정의 가치관과 도덕률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한 개인은 어떤 서원에 출입을 할 것인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하였다. 왜냐하면 서원은 지식의 습득을 위한 학교로서가 아니라 특정의 가치관과 도덕률의 존중과 실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7.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서원의 위치와 주위 풍물은 그 자체 어떤 의미와 상징을 나타내는 문화경관을 이루며 사물과 건물의 배치로 인한 물리적 구도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것을 체득하는 장치를 제공한다.
8. 서원은 멤버로 하여금 공의와 공정의 철학적 기준과 바탕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의 실천력과 지도력을 배양하는 기관이다.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서원이 높은 수준의 도학을 실천한 인물을 받들고 그의 가르침을 심화하는 선비들로 구성된다는 점인데 이는 유교 경전 지식의 탐구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인격을 도야하고 도덕공동체의 훈련을 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즉 인간적인 상호관계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한 인간다움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서원은 지식 전수의 교육기제를 넘어서 인간됨을 핵심으로 하는 실천교육의 기제라는 점이다.

4. 맺음말: 전통적 교육기관(educational institute)의 문화적 의의가 왜 재론되는가?

그러나 이러한 서원과 선비정신이 오늘날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있다. 과학기술과 물질주의 그리고 실용성 위주의 가치관, 욕망의 해방을 자아실현의 증거로 삼는 현대화의 거대한 물결 앞에서 유교적 전인교육의 이념과 그 교육제도는 역사의 잔존물로 전락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것은 성리학에 집중된 한국 유학전통의 운명과 직결되는 것이다. 즉 이성(理)을 감정(氣)의 우위에 두었던 전통 성리학은 오래 전부터 도전을 받아왔으며 오늘날은 합리성과 이성을 추구하는 철학 보다 감정과 욕망과 상상을 표현하는 예술이 더 각광을 받는 시대로 들어선 것이다.

기술과 물질과 권력의 시대에 실사구시의 구호 아래 지식의 세속화가 가속되고 있는 21세기에 인간다움과 인간의 본성을 찾아가는 구도의 길로서의 학문과 교육의 장은 제대로 인정받거나 지켜지지 않는다. 사회는 더욱 복합적인 요소로 채워지고 그 범주는 기존의 경계를 넘어서 확대되어서 특정의 도덕률이 더 이상 구속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무엇보다 지식과 지식산업의 주체인 인간이 지식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인간성 즉 휴머니티를 상실한 상품으로서의 지식이 대량 생산되는 현대에서 교육기관은 인간적인 관계와 가치의 생산기체로서의 기능을 점차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문명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공자는 문질彬彬(文質彬彬)이란 말로써 설파하였다. 본질(本質)과 본질의 표현 기술로서의 문(文)의 조화로운 균형상태를 말함이다. 즉 本質이 文을 능가하면 거친 상태(野)가 되고 文이 本質을 능가하면 번잡스러워(史) 진다(質勝文則野 文勝質則史 文質彬彬然後君子)고 하였다. 문과 질이 가장 균형을 이루는 상태가 곧 중화(中和)이다. 그러나 지금은 본질보다 외적인 무늬를, 그리고 이성보다 감정을 더 중시한다. 지금은 이성과 논리의 틀을 벗어난 감정과 감각의 세계를 추구하며 가상과 현실의 세계를 일상적으로 넘나들면서 인간과 인간의 만남과 인간관계가 소외되는 교육의 장이 성한다.

우리가 고대 혹은 중세의 소위 전통적인 교육제도를 지금와서 다시 중시하는 까닭은 그것이 전인교육과 인간됨의 도를 추구하는 행위와 지식의 생산과 전수 과정이 하나의 체계를 이루는 장소이자 과정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지식 자체가 아니라 지식을 함께 추구하고 나누고 전하는 모든 과정과 형식을 통하여 사람을 만들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윤리와 도리를 만들었으며 그 기제와 과정 전체를 고귀한 가치로 삼았던 까닭이다. 곧 교육은 삶 자체였던 것이다. 서원 그리고 콜레기움의 아이디얼은 여기에 있다. 옥스퍼드 대학과 한국의 서원을 통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교육 기관은 화석표본과 같은 문화유산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식과 인간적 가치를 확대 재생산하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다. ‘오래된 미래’라는 말은 여기에도 적용된다.

중세유럽의 교육유산 : 수도원 학교(Monastic Schools)에서 대학교(Universities)까지

한국에서 개최되는 교육 유산에 관한 회의에서 중세 유럽 기독교회 수도원의 교육적 역할에 대해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보면 실제로 대수도원과 수도원은 지식과 문화를 전수하는데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 책상에 앉아 있거나, 경전을 필사하거나 채색하고 있는 수도승의 이미지는 중세 문화와 교육의 아이콘이 되었다. 하지만 대수도원과 수도원이 유일한 교육 장소이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두 기관의 역할도 달라졌다. 그러므로 이 발표에서는 중세 유럽 교육 기관의 종합적인 그림을 다루면서 수도원 학교에서 대학교로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서부 유럽의 중세 시대란 로마 제국의 쇠퇴기(5세기)에서 르네상스(15세기부터 16세기 초)까지의 약 10세기 동안 길고 복잡 다난 했던 시기를 일컫는다. 중세 기독교 문화를 통해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가 인본주의와 르네상스까지 전해지면서 전 세계의 지성이 역사상 가장 융성한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중세 시대의 이런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교육 기관은 수도원 학교(monastic schools), 대성당 학교(cathedral schools) 그리고 13세기 이후로는 대학교(universities) 이렇게 세 기관이었다. 이번 강연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중세 교육 기관의 역사적 틀과 기원 및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더불어 교육 기관에서 핵심 역할을 한 기독교 성직자들을 비롯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강연의 두 번째 파트에서는 교육 유산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겠다.

1. 역사

로마의 교육 시스템은 지식층의 자녀들을 위한 시립 학교(municipal school)로 구성되었다. 어린이들은 집에서 부모로부터 도덕 교육을 받고 학교에서 문법, 수사법과 철학은 배웠다. 로마 제국이 쇠퇴하면서 기독교 주교들은 종교적인 가르침을 설파하고 학식 있는 성직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당과 교회 근처에 학교를 설립했다. 대성당 학교(cathedral school)는 6세기 스페인에서 최초로 설립되었고 그 후 7세기에 프랑스와 영국에 설립되었다. 대성당 학교와 마찬가지로 대수도원은 고대 문화와 과학을 지속 보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유럽 수도원의 기원은 성자(holy men)들이 “문명을 떠나서” 사막의 외진곳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겠다고 결심했던 4세기의 이집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사막 교부(desert fathers)’라고 불린 이성자들 중 일부는 혼자 살았고(eremites(개인 은수)) 또 일부는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살았다(coenobites(공동생활 수도사)). 이와 같은 공동체가 조직되면서 대표와 규칙이 필요했다. 따라서 이때 제작된 규칙서가 모든 수도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최초의 서적이 되었다. 몇 명의 ‘사막 교부’들이 수도원 규칙서를 만들었지만, 6세기 중반에 이탈리아 몬테카시노(Monte Cassino) 수도원에서 성 베네딕트(St. Benedict)가 쓴 규칙서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다. 성 베네딕트의 규칙서는 초기 중세 유럽의 유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적 중에 하나로 여겨진다. 기독교 수도원은 유럽 남부에서 프랑스, 아일랜드와 영국으로 퍼져 나갔으며, 이후에는 유럽 북부와 동부로도 확산 되었다.

대부분의 대수도원에는 문헌이 보전되어 있는 도서관과 수도승들이 문헌을 필사하는 필사실(scriptorium)이 마련되어 있었다. 또한 대수도원은 부모들에 의해 수도원 생활을 하게 된 어린 소년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도 운영했다. 8세기 말에서 9세기까지 카롤링거 시대(Carolingian Period)에 샤를메뉴 대제(the Emperor Charlemagne)는 자신의 중앙집권적인 왕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는데 도움이 될 지식 계급으로서 성직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다. 샤를메뉴 대제는 성 베네딕트의 규칙서를 왕국 내 모든 수도원의 유일한 규칙으로 도입했다. 또한 8세기 말에는 모든 베네딕트 대수도원과 성당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라는 내용의 몇 가지 칙령도 발표했다. 10세기부터 11세기까지 비잔틴 제국의 유럽 문화, 이슬람권의 스페인, 시칠리아 그리고 아랍 세계 간의 새로운 문화 교류가 발생하면서 지식과 과학이 더욱 풍부하게 발전했다. 11세기와 12세기 동안 대성당 학교와 수도원 학교의 영향력은 정점에 이르며 신학, 예술, 법학과 과학의 신진 교육이 중심이 되었다. 교육은 고대의 교양 과목(liberal arts)을 기반으로 하며 인문학인 “3학(trivium)”(문법, 수사학 및 논리학과 과학인 “4학(quadrivium)”(산술학, 기하학, 천문학 및 음악)으로 구분되었다. 철학과 신학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세계를 해석하는 최고의 과학이었다.

12세기부터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일부 대성당 학교는 중세 시대 최초의 대학교로 변모하였다. 이런 최고의 “대학교”들은 교황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교사와 학자들의 자치공동체였다 “university(대학교)”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전체”를 의미하고 교사와 학자들의 공동체를 가리킨다. 13세기말경 유럽에는 14개 대학교가 존재했고 여기에는 볼로냐, 옥스포드, 파리, 캠브리지, 살라망카 그리고 파도바 대학교 등이 포함된다. 1500년에 유럽의 대학교는 1425년에 설립된 루벤 대학교를 포함하여 62개로 증가했다. 이 대학들은 성공적이었으며 성직자가 아닌 남학생만(여학생은 모집 제외)을 모집했다. 종교지도자가 아닌 일반인 교수의 수는 늘어났다. 모든 교수가 성직자 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모두 기독교 신자였다.

대학교의 발전과 동시에 예전 수도원 학교는 쇠퇴했다. 대수도원과 수도원은 도시에서 상당히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소외되었다. 도시는 사회의 경제, 인구학 및 정치의 가장 역동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예술과 과학 교류의 새로운 공간으로 발전했다. 13세기 도시에는 도미니크 수도회, 프란체스코 수도회와 같은 새로운 종교 단체가 설립되었고 대학교와 관련된 학습장(study house)을 운영했다. 대학교들은 “스콜라주의(scholasticism)”라는 새로운 비판적 사고교육법을 개발했다. 변증법적 추론(dialectic reasoning)을 기반으로 하는 비판적 사고 교육법은 기독교의 교리를 수호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15세기 중반부터 새로운 인쇄술로 시작된 새로운 혁명은 지식층과 종교계를 시작으로 나중에는 전 사회로 확산되었다. 중국에서 들어온 종이 덕분에 값비싼 양피지 대신 종으로 인쇄된 서적이 제작되었다. 서구사회에서 최초로 제작된 서적은 1450년경 독일 마인츠에서 요하네스 구텐베르크(Johannes Guttenberg)가 활자(mobile type)를 사용하여 펴낸 성경이었다. 활자 인쇄술은 엄청난 영향력을 즉각 발휘했다. 사람들이 15세기 말의 인쇄술 혁명을 1990년대의 인터넷 혁명과 비교할 정도이다. 인쇄술 덕분에 지식과 새로운 사상이 급속하게 퍼져나갔을 뿐만 아니라 글을 읽을 수 있는 인구가 현저하게 늘어났다. 인쇄술은 중세교육 시스템의 종말을 가져왔고 고등 교육은 새로운 세계관을 받아 들어야만 했다. 성직자들만이 인본주의자(the Humanists)라고 불리던 새로운 학자들과 경쟁할 수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옛 수도원과 대수도원은 완전히 소외되었고 대부분의 경우 학교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았다.

2. 문헌과 서적

유럽의 중세 교육 유산은 장소(비이동성 유산), 문헌과 서적(이동성 유산), 그리고 지식(무형 유산)으로 이렇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무형 유산에는 예술, 과학, 음악, 영성뿐만 아니라 다수의 저명한 중세 학자들의 삶도 포함된다. 하지만 무형 유산은 지식 전수의 매개로서 사용되었던 서적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오늘 발표에서는 교육 장소와 문헌, 서적에만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중세 시대의 학문과 지적 문화의 가장 위대한 유형 유산은 전 세계의 공공 도서관과 민간 수집 장서로 보존되어 온 수 백 만 권에 달하는 유럽 중세 시대의 문헌들이다. 지식을 보전 및 전수하기 위해 수도승, 성직자 및 학자들이 수 세대에 걸쳐 수기, 기록, 필사하고 삽화를 넣어 책으로 엮는 작업을 한 덕분에 이런 유산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다수의 문헌은 소실되었지만 필사본 덕분에 그 존재를 알 수 있다. 문헌의 경우중이가 아니라 송아지, 양, 염소와 같은 동물의 가죽인 양피지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매우 귀하고 보존이 잘 되었다. 양피지는 새 문서를 적기 위해 재사용되기도 했기 때문에 한 장의 양피지에 몇 겹의 문서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palimpsest(팔림시스트)).

가장 성스러운 서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다. 수 세기 동안 사람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주석을 달았다. 중세 시대에는 기존 서적을 필사하는 것이 문서를 복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필사는 중요한 활동이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모든 책들은 수 세대에 걸친 필사본 덕분에 그 존재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중세 시대는 필사와 복사의 시대만이 아니라 창조적인 시기이기도 했다. 유명한 학자들이 고대 서적과 성경에 주석을 달고, 여러 책의 문장을 편집하고, 역사, 과학, 백과사전, 법학 그리고 신학에 대한 다양한 책을 쓰면서 다수의 새 서적이 제작되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모든 종류의 지식은 중세 기독교 세계관을 반영했기 때문에 성경 또는 교부(Church Fathers)와 교회의 박사(Doctors of the Church)의 기록과 양립할 수 없었다. 서양 문학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작품 중 하나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Summa Theologica)”이다. 도미니칸수도회 수사이자 파리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토마스는 이책에서 신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교리의 모든 요소를 설명한다. 경전을 만드는 것은 양피지와 잉크를 만드는 것부터 글을 쓰고 삽화를 넣고 양피지로 된 페이지를 엮는 일 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가 필요했다. 가장 귀한 문헌들은 채색을 하고 값비싼 묶음철로 장정을 하였다. 글을 쓰고 채색을 하는 과정을 수도승 한명이 다하는 것은 아니었다. 가끔 같은 책에 다른 글씨체가 확인되기도 한다. 필사는 학습과정의 일환이기도 했다. 보존된 중세문헌과 소실된 중세문헌의 비율을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문서의 기원을 추적하고 필사본의 전승계통도(stemma)와 문화교류의 영향력등을 재정립 할 수있다. 대부분의 서양문헌은 라틴어로 작성되어 있지만 다수의 문헌은 그리스 고대 작가 서적의 필사본이다. 중세 문헌들은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및 이탈리아어와 같은 현대어의 등장과 초기 사용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있어 최고의 자료이다. 중세 문헌의 가장 창조적인 측면은 “채색(illuminating)”기술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남아 있는 채색된 문서들은 모두 원본이며 뛰어난 수도원 예술가들이 담당했는데 대부분의 경우 누가 채색 작업을 했는지 알 수 없다. 채색 이미지들은 가장 세련된 중세 예술 작품으로서 당시에는 채색 문헌을 읽는 귀족들만 볼 수 있었다. 문헌의 채색은 대부분 상징적인 이미지였다. 그리고 채색 스타일은 로마네스크 양식에서 고딕 양식 그리고 나중에는 르네상스 양식을 따라 변화했으며 가장 영적이고 숭고한 모습부터 불경한 장면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교적 감정을 표현했다.

대부분의 중세 문헌은 제작된 곳에서 보존되지 않는다. 문헌과 서적을 이동성 유산으로 정의하는 것처럼 바티칸 도서관, 영국 도서관 및 프랑스 국립 도서관과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공 기관에 오기 전까지 여기 저기로 이동되고 판매되었다. 오늘 중세 문헌 장서들은 전문 카탈로그, 문서 보존을 위한 최상의 조건, 이미지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중세 문헌의 가상 전시관 등을 구축하고 있는 도서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켈트와 초기 아일랜드의 채색 문헌은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문헌으로 꼽히고 있다. 이 채색 문헌들은 7세기부터 9세기까지 아일랜드 수도원 운동의 영향으로 제작되었다. 아일랜드의 켈스(Kells) 또는 영국의 린디스판(Lindisfarne)과 같은 수도원 성지 유적을 방문해보면 가장 귀한 켈트 문헌들이 그 장소에서 작성되고 채색되었다는 사실을 쉽게 믿기 어렵다. 800년경에 제작된 켈스의 유명한 서적은 현재 더블린 트리니티칼리지 도서관에 보관되고 있으며 이 도서관은 아일랜드의 명소 중에 하나가 되었다.

3. 교육 관련 건물 및 도서관

이제 강연의 세 번째 파트인 부동산 유산인 교육 관련 건물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대부분의 중세 시대 교육 관련 건물들은 이후 5세기에 걸쳐 큰 변화를 겪거나 다른 용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부동산 유산에는 기본적으로 건물들보다는 장소가 많다.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는 인쇄술이 대중화되면서 장서의 수가 급증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중세 도서관은 규모가 작아서 더 많이 장서를 보관할 수 있는 새로운 도서관으로 대체되었다. 또 다른 원인은 새로운 도서관들이 대수도원이나 대학교의 지적 자부심을 표현해주는 장소였기 때문이다. 서적들은 오래 되었지만 건물은 새로 지어서 잘 꾸미고 화재에도 안전하도록 만들었다.

유럽 전역에서 잘 보존되고 있는 수 백 개의 중세 성당들의 대부분은 중세 문헌과 문서들을 포함한 장서들과 공문서들을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잘 보존된 중세 대성당 도서관이나 학교 건물은 거의 없다. 예를 들어 유명한 대성당 도서관인 영국의 헤리포드(Hereford)는 중세 문헌과 사슬이 달린 책들(chainedbooks)이 놓인 희귀 책장을 보유하고 있어 중세 도서관처럼 보이지만, 16세기 말에 지어진 도서관이다. 네덜란드의 쥐트펜(Zutphen)에 위치한 리브리에(Librije) 도서관에는 교회 근처의 중세 말 양식의 아치형 천장이 있는 방에 사슬이 달린 서적들이 보관되어 있다. 희귀 도서들은 특별한 밀실에 안전하게 보관하였지만 참고 서적으로 자유롭게 보던 문헌들은 도난 방지를 위해 사슬로 묶어 놓았다. 서적을 사슬로 묶어 놓은 관행은 대학교 도서관에서도 존재 했지만 점차 사라졌다. 이런 관행이 사라진 이유는 도서관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슬로 묶어 놓은 책들은 모두 불타서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16세기 종교 전쟁과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의 세속화로 인해 중세 대수도원 유산의 상당수가 파괴되었다. 다수의 대수도원이 완전히 파괴되거나 재건축이 진행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 수도원의 필사실과 도서관 건물이 잘 보존된 경우가 극히 드물다. 또한 인쇄술이 등장하면서 대수도원의 장서의 수도 증가했고 따라서 새로운 건물이 필요했다. 다수의 유명한 대수도원 도서관은 17세기와 18세기에 바로크와 로코코 양식으로 재건축이 되었다. 대표적인 예는 세계문화유산인 스위스의 장크트갈렌 수도원(abbey of SaintGall)의 도서관이다. 화려하게 장식된 로코코 스타일의 도서관에 우수한 중세 문헌들이 보관되어 있는데, 이 도서관 또한 18세기에 장크트갈렌 수도원을 전체적으로 재건축하면서 그 일부로서 건립되었다.

중세 수도원의 도서관과 필사실은 어떤 모습일까? 거대한 필사실에서 조용히 경전을 필사하고 있는 수십 명의 수도승의 이미지는 19세기에 만들어진 비현실적인 이미지거나 “장미의 이름으로(Name of the Rose)”와 같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영화에서 만들어진 이미지일 뿐이다. 필사실(scriptorium)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작가나 화가가 조용히 일을 하는 방이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스크립토리움(scriptorium)이란 단어 자체가 필사실 내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수도원 내의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경우 조명으로 사용하던 책상의 이름이었다. 이런 책상은 문서 채색 장면에서 자주 묘사되기 때문에 그 모양이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대수도원 도서관은 묶음철이 훼손되지 않도록 책을 눕혀서 가로나 세로로 꽂을 수 있는 책장 또는 벽에 틈이 있는 자물쇠가 갖추어진 작은 밀실이였다. 중세 초기에 도서관에는 고대 로마의 문서 두루마리들이 보관되었다. 이런 문서 두루마리는 도서관 공간을 더 많이 차지했다. 유일하게 방 열쇠를 가진 도서관 사서가 밀실의 서적 관리를 책임졌다. 지금까지 보전되어 있는 중세 수도원 도서관의 카탈로그는 도서관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장서 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준다. 13세기에는 300권의 문헌을 보유한 대수도원을 책이 많은 도서관이라고 여겼다. 가장 중요한 대수도원만이 그 보다 더 많은 서적을 보유했다. 앞서 이야기 했지만, 인쇄술이 등장하면서 장서의 규모가 급속하게 증가했고 서적이 차지하는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책을 세워서 세로로 보관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오래된 도서관은 재건축되고 새로운 가구도 발명되었다.

대학교의 건축 유산은 중세 대수도원의 유산보다 더 많이 더 잘 보존되고 있다. 중세 대학교 건물은 영국 옥스포드와 캠브리지 대학교, 포르투갈의 코임브라 대학교, 그리고 스페인의 살라망카 대학교와 같은 여러 대학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대학교 건물은 대학, 교회 그리고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대학교, 특히 도서관은 장서의 규모의 증가로 인해 16세기 이후에 대부분 재건축되었다. 따라서 프랑스 파리의 유명한 소르본 대학교에는 중세 시대의 건물이 남아 있지 않다. 새로운 건물이 17세기에 들어섰고 이후 19세기에 확장되었다. 파리의 세인트 버나드 칼리지(St. Bernard's College)와 같이 종교적인 대학교에만 중세대학 건물 일부가 남아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교 도서관 중에 하나는 옥스포드의 보드레이안 도서관(the Bodleian Library)이다. 이 도서관은 이전 장서들을 모두 통합 관리하기 위해 1602년에 지어졌다. 옥스포드의 초기 대학교 도서관들은 건물이 아니라 대학교나 교회 내에 사슬로 묶어 놓은 서적들이 있는 한 개의 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도서관들은 모두 재건축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대학교 내에 위치한 중세 도미니크 수도회, 프란체스코 수도회는 대부분 교육 기관이었으며 도서관과 독서실이 결합된 스투디움(studium)이 있었다. 네덜란드의 쥐트펜 프렌체스코 수도원의 경우와 같이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수도원의 옛 지도나 조망도에서 수도원 내 도서관의 위치를 확인해 보면 수도원 내에 도서관으로 지정된 특정 공간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책에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서관이 1층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통해 중세 교육 제도의 부동성 유산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건물보다는 장소가 더 중요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도시에 위치한 대학교와 대성당뿐만 아니라 비록 훼손이 되긴 했지만 대수도원 또한 세계지성의 터전이었다. 지금은 완전히 변해버렸지만 이런 장소들에서 유명 학자들과 학생들이 수 세대에 걸쳐 새로운 사상을 잉태하고 토론을 벌였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흥분되는 일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볼 때 교육 유산의 무형적 측면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지식으로서 여전히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 전수되고 있다.

4. 세계유산으로서 중세 대수도원과 대학교

중세 대수도원과 대학교의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간략한 평가로 이번 강연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사실 서양의 중세 교육 유산은 세계유산에 거의 등재되지 않았다. 옥스포드와 캠브리지와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교도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않은 상태이다. 포르투갈의 코임브라 대학교, 스페인의 살라망카 대학, 폴란드의 크라쿠프 대학교 등 소수의 대학교만이 세계유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스페인의 알칼라 데 에나레스(Alcala de Henares) 대학교는 16세기 식민지 유적이라는 완전히 다른 세계유산 범주에 속해있다.

중세 대성당들은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지만 더럼 대성당(Durham Cathedral) 도서관의 경우처럼 대성당의 도서관은 중세 이후에 건축된 경우가 많고 중세 필사본보다는 서적을 많이 보유한 경우가 많아서 등재가 되지 않았다.

개별적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대수도원과 수도원의 수는 25개가 되지 않는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독일의 로쉬(Lorsch), 마울브론(Maulbronn), 라이헤나우(Reichenau), 코르베이(Corvey) 수도원, 스페인의 포블레트(Poblet), 과달루페(Guadalupe), 에스코리알(Escorial), 산 밀란 데 유소(San Millan de Yuso), 수소(Suso) 수도원, 프랑스의 생사뱅 쉬르 가르탕페(Saint-Savin-sur-Gartempe), 몽 생 미셸(Mont-Saint-Michel), 포르투갈의 투마르(Tomar), 벨렘(Belem), 알코바사(Alcobaca), 바탈하(Batalha) 수도원, 영국의 파운틴스(Fountains), 성어거스틴(St. Augustine) 수도원, 스위스의 캔터베리(Canterbury), 아씨시(Assisi) 밀라노 도미니크(Dominican convent of Milano), 장크트갈렌(St. Gall) 수도원, 그리고 불가리아의 릴라(Rila) 수도원이다. 이 밖에 아일랜드의 클론매크노이즈(Clonmacnoise) 수도원을 비롯 해서 6개 수도원이 잠정목록에 올라와 있다. 이런 수도원 유산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에는 원래 수도원 학교, 도서관, 필사실이 포함되었으나 대부분의 중요 유적이 소실된 상태이다. 대수도원은 일반적으로 교육 기관이라기 보다는 역사적이고 영적인 장소로 간주된다. 앞서 설명했듯이 대수도원의 가장 중요한 지적 유산은 수도승들이 작성하고 필사하고 채색한 문헌들이다. 그리고 이런 문헌들은 유럽과 북미 지역의 도서관에 퍼져 있다. 오늘 중세 교육 유적에 대한 강연을 벨기에의 훌륭한 세계유산을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한다. 이 유적은 중세 시대가 아닌 16세기에 건립되었다. 안트워프엔 시에 위치한 플랜틴-모레투스(Plantin-Moretus) 인쇄사무소에는 자체 출판한 모든 책의 제본뿐만 아니라 언론과 다른 부서의 문서들까지 보관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다. 이 인쇄사무소는 16세기의 과학과 문화 발전을 위한 유럽 인문주의의 중요한 구심점이었다. 세계유산 등재기준 VI항은 “플랜틴모레투스 인쇄사무소는 뛰어난 보편적 가치와 의의를 가지는 사상 신념, 기술 및 문학과 예술 작품과 명백한 연관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곳은 중세와 현대 과학이 교차하는 지점이며, 중세 시대에 수기로 작성한 문헌이 현대에 와 인쇄 서적으로의 변화하면서 사상과 지식을 더 빠르게 더 많은 인본주의학자 및 지식인에게 확산시켰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당시 중세 수도원 운동과 필사본 도서관의 황금 시대는 명백히 과거에 있었다.

이슬람 전통 교육기관 마드라사(Madrasah)의 탄생과 역할

1. 머리말

이슬람의 전형적인 교육기관인 마드라사(Madrasah)는 9세가 중엽부터 이슬람 세계가 제국의 규모를 갖추어나가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인재양성이라는 측면과 이슬람 신념의 영속적 계승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띠고 제도권 교육기관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마드라사가 모스크 부속건물로 출발한 것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당시 마드라사 교육의 목표는 이슬람 신학과 법학이 중심이 되었다. 그러다가 점차 사회적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비종교적 세속학문이 도입되었고, 신의 영역 연구와 인간의 이성적 커리큘럼이 조화를 이루는 학문적 전통이 마드라사 교육철학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오늘날 이슬람 세계의 전통있는 주요 종합대학교들이 대부분 마드라사에서 출발한 것이 그 좋은 예이다.

중세 유럽이 신(神)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암흑의 시기’를 헤매고 있을 때, 이슬람 학문 전통은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분야를 막론하고 세계 최고수준에 이를 수 있었다. 이는 신학과 세속학문의 조화를 가능케 했던 독특한 이슬람의 교육철학과 이슬람 통치자들의 교육 리더십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슬람 율법학자들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 관찰에 의거한 세속적인 학문을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인간의 오만불손한 태도가 아니라,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한 오묘한 신의 섭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이성적 수단으로 파악했다. 즉 이성적 학문은 신을 더 잘 이해하고 신의 세계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신학의 하부구조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더 나아가 세속적 학문 연구를 절대자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무슬림의 신성한 의무로 규정한 것이다. 신의 영역을 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이슬람 학문발전이 무한의 질주를 계속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당시 압바스 제국의 군주들은 이러한 학문적 열정을 적극적으로 보호했으며 학문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다. 칼리프 알 마문(Al-Mamun) 이 학자들이 저술한 책 무게를 동일한 무게의 금으로 배상해주었던 일화는 이러한 학문 장려 정책을 상징적으로 대변해 준다.

이러한 중세 이슬람 학문의 전당이 바로 마드라사였다. 모스크 부속건물로서 마드라사는 종교적 통제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구조화되었다. 하나의 전체적 구조를 이루는 모스크 콤플렉스 내에는 중심에 예배를 위한 모스크를 배치하고, 마드라사, 도서관, 병원, 상인들을 위한 대상 숙소인 카라반 사라이(Caravan Saray), 목욕탕, 시장 등이 기본적으로 함께 기능하도록 했다. 이런 구도 속에서 마드라사는 단순한 교육기관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찾는 휴식공간, 멀리서 온 여행자들이 새로운 지식을 얻어가는 데이터 베이스 공간 역할을 했다. 마드라사를 중심으로 대중들의 삶과 안식에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용적인 학문이 번성하게 되는 배경이다. 특히 신학과 이성교육이 조화를 이루는 마드라사 학문은 신의 창조를 이해하기 위해 천체학과 우주론이, 라마단 단식기간의 시작과 끝을 알리고, 하루 다섯 번의 예배시각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천문학과 역법이, 예언자 무함마드의 행적을 찾기 위해 역사학이, 여행 중 예배방향을 정확히 찾기 위해 지리학이, 사람간의 다툼을 이슬람율법에 따라 해결하기 위해 법학 등이 발전하게 되었다.

삶과 종교의 합일, 종교의 하부구조로서의 세속교육, 정교일치적 특징을 가진 마드라사의 역할은 20세기 후반부터 몰아친 글로벌화 흐름 속에서 상당부분 위축되었으나,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정교일치적 전통을

고수하는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해 마드라사 교육의 필요성이 부활하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 실세들이 마드라사 교육을 통해 성장하였고, 중동 전역의 저항 세력들이 마드라사에서 전통적인 이슬람 교육을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서구에서는 마드라사가 테러리스트들의 양성소로 잘못 인식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21세기 이슬람 세계는 1200년간의 마드라사 전통과 서구식 첨단 교육을 접목하는 새로운 방향 정립을 위해 힘든 담론을 거듭하고 있다.

2. 마드라사의 역할과 역사적 발전

이슬람 세계의 대표적인 전통 교육기관인 마드라사의 언어적 의미는 아랍어로 “배우는 장소”이다. 그렇지만 긴 이슬람 역사를 통해 이 용어는 다양하게 사용되었고, 지역에 따라 그 역할이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모스크에 부속되어 있으면서, 이슬람 신학과 이슬람학 관련 학문적 전통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를 잡았다. 현대에 와서는 주로 초중고 교육과정에 집중되고 있으며,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은 따로 ‘자마아’라 불리면서 이슬람학은 물론 일반 서구식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마드라사 교육의 또 다른 특징은 이슬람의 평등정신에 따라 입학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점이다. 나이와 성별에 따라 입학이 허용된 후에는 수학 능력이나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일반 종교과정과 이맘과정으로 나뉘어진다. 이맘은 순니파에서는 단순한 예배인도자이지만, 전문 종교인 집단으로 공동체의 존경을 받는 인물로 꾸란과 설교법, 종교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 보통 이맘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12년의 수학기간을 필요로 하며, 그 중 일부는 꾸란을 모두 외우는 하피즈가 된다. 전통적으로 마드라사는 고등학교 과정까지를 관장하는데, 기숙사에 함께 생활하면서 야간 학습을 하고, 사회생활과 삶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한 훈련을 포함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마드라사의 기능 중 하나는 고아와 가난한 자제들을 받아들이어 함께 교육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슬람 형성초기부터 마드라사가 체계적인 교육기관으로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마드라사는 처음 당면한 종교적 문제를 논의하고 필요한 종교인사들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모스크와 같은 장소에서 정통한 무슬림 학자들이 임시로 교육을 실시하면서 비롯되었다. 처음 사람들은 샤리아(이슬람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학자들을 찾아가 일정한 이슬람 지식을 전수받은 후 비정규 교원이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들 비정규 종교 교원들은 이후 셰이크(shaykh)라 불리었다. 이후 셰이크들에 의해 마갈리(mağālis)라 불리는 교과를 구성하여 정규 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슬람 초기 역사에서 마드라사로 불리는 최초의 교육기관은 아마도 예언자 무함마드 시기에 메카의 사파 언덕에 설치된 자이드 빈 아르캄(Zaid bin Arkam) 시설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 무함마드가 직접 교사로 추종자들을 교육했으며, 메디나로 이주해 간 이후에는 지금 예언자 모스크 동쪽에 수파(Suffa)라는 마드라사를 운영했다고 알려져 있다. 우바이다 빈 사미트('Ubada bin Samit)가 교사로 활동하면서, 이슬람 종교, 꾸란, 하디스, 일반 교과목뿐만 아니라, 응급조치법, 말타기, 전쟁기술, 서예, 체육, 격투기 등과 같은 과목들도 가르친 것으로 되어있다.

체계를 갖춘 초기 마드라사의 대표적인 예가 859년 모로코 페스에 설립된 ‘자미아투 알 카라위인(Ġāmi‘at al-Qarawīyyīn)’이었을 것이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마드라사이자 동시에 최초의 대학으로 간주되고 있다. 알 카라위인 마드라사는 부유한 상인인 무함마드 알 피흐리(Muḥammad al-Fihri)의 딸인 파티마 알 피흐리(Fāṭimah al-Fihri)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를 이어 959년에는 이집트 카이로에도 알 아즈하르 대학교가 설립되었다.

압바스 왕조 말기인 11세기에는 셀주크 왕국의 재상인 니잠 알물크가 그의 이름을 따서 여러 마갈리(종교 지도자)를 교육하는 ‘마드라사 니자미야(Madrasah Nizāmiyyah)’라 불리는 최초의 공립 교육기관을 설립하였다. ‘니자미야(Nizāmiyyah)’라고 불리는 이 교육기관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교육의 효시로 여러 지역에 니자미야가 설립됨으로써 후일 이슬람 세계의 보편적 교육과정 정립의 전형이 되었다. 11세기 이슬람 교육의 전당으로서 마드라사는 이슬람 세계 전역에서 확고한 위상을 갖게 되었으며, 이슬람의 지식 중시 가르침과 부합되면서 짧은 시간내에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예를 들면 1155~1260년 약 1세기 동안 카이로에 75개, 다마스쿠스에 51개, 알레포에 44개의 마드라사가 설립되었고, 훨씬 많은 마드라사가 스페인 이슬람 지역인 안달루시아의 코르도바, 세비아, 톨레도, 그라나다, 무르시아, 알메리아, 발렌시아, 카디즈 등지의 도시에 설립되었다.

10세기 이후 마드라사 설립 방식은 국가가 주도하는 방식보다는 유력인사나 권력자, 혹은 공동체가 와크프(Waqf)로 알려진 재단이 주도하였다.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마드라사를 설립하는 일은 모스크 건립과 함께 기부자의 위상과 공헌을 표현해주는 상징자본의 매력 때문에 경쟁적인 분위기가 팽배했다. 특히, 맘루크 왕조 시기에는 노예의 상속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마드라사를 통한 재산 이전과 노예 상속이 지배계층에서 한 때 널리 유행하기도 했었다. 이 시기에 설립된 마드라사 중에는 카이로에 있는 술탄 하산(Hasan) 마드라사가 유명하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10세기 전후 이슬람 궁정에서 관료들이 술탄으로 부터 신임받고 사회적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앞 다투어 마드라사를 짓거나 지원하는 일이 중요한 조건의 일부였다. 그러나 마드라사가 첨단학문과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연구기관은 아니었다. 국책연구나 고도의 과학연구는 궁정의 후원을 받는 학자들에 의해서 별도로 연구되었기 때문이다. 마드라사 교육을 통해 이슬람 제국 초창기에 아랍어와 아랍 문학의 큰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고대 그리스 시대보다도 더 많은 문헌들이 이 시기에 저술되었다.

마드라사 교육의 확산과 일반화로 이슬람 세계의 지적 수준은 크게 향상되었으며 그 결과 11세기에서 14세기 사이를 흔히 이슬람 철학과 아랍어문학의 황금기라고 부른다. 특히 이 시기에 중세 최고의 이슬람 철학자였던 알 가잘리에 의해 마드라사 교육과정에 종교이론과 일반 교과목의 조화로운 통합이 성공을 거두게 된다. 이러한 학문적 전통에서 후일 이븐 시나(유럽에서는 Avicenna)라는 대학자가 배출되었다.

마드라사가 독특한 교육기관으로 체계적인 공교육 영역은 물론 대중적 교육기관으로 지식의 대중적 확산에 기여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배경은 통치자의 학문적 인식이자 리더십이었다. 중세 유럽 사회가 ‘암흑의 시기(Dark Age)’라는 질곡 속에서 신의 목소리만 존재하고 인간의 합리적 창의성과 이성적 비판이 허용되지 않고 있을 때, 이슬람 세계는 1 항성년(태양년)의 길이를 365.2422로 계산해 낼 정도로 앞서 있었다. 중세 유럽의 침체와 이슬람 문명의 황금기라는 명운을 바꾼 인식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었다.

첫째는 마드라사 교육에서 이성적 학문과 세속적 과학연구가 허용되었다는 점이다. 교육에 대한 이슬람의 율법적 재해석은 자연의 탐구와 과학적 연구를 신이 창조한 우주와 자연의 오묘한 섭리와 이치를 탐구하기 위한 신성한 종교적 사명으로 무한의 문호를 열어주었다. 이슬람 세계는 신학과 과학이 갖는 상호 모순된 문제점을 두고 회피하거나 억누르려는 태도 대신 치열한 논쟁의 과정을 거쳤으며, 몇몇 뛰어난 칼리프의 놀라운 지원을 통해 종교적 해석에 이성과 과학이라는 선물을 허용했다. 신성과 세속사이의 관계 정립을 위한 오랜 고뇌 끝에 양자의 유용성과 상호 합치라는 확신을 얻었고, 결국 “과학연구는 종교적 의무”라는 놀라운 인식의 지평을 열어주었다. 신을 이해하는 하부학문으로 위상을 유지하는 한 모든 연구는 무한으로 인정되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슬람 교육과 학문전통은 신학과 대치하는 개념이 아니라 신학의 보조학문으로 실과 바늘처럼 함께 할 수 있는 학문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신이 창조한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 물리학과 천체학이, 단식일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천문학이, 농사와 조수간만을 이해하기 위해 역법이, 교역과 예배방향을 찾기 위해 지리학이, 무함마드의 행적을 정리하기 위해 역사학이, 이슬람 율법을 실생활에 적용시키기 위해 법학이, 하느님의 집인 모스크와 마드라사를 건설하기 위해 건축학과 대수학 등이 각각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무슬림들은 자연과학에서 매우 발달된 수준을 이룩하였다. 수학에서는 그리스의 유클리드 기하학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인도의 영향을 받아 아라비아 수자 체계와 영(0)의 개념을 확립하였다. 그들은 삼각법, 해석기학, 그리고 그 어원이 아랍어인 대수학(Algebra)에서도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천문학에서는 경도와 위도, 그리고 자오선의 길이가 측정되고, 천체관측기구를 만들어 지구구체설을 증명하였다. 이슬람력의 원리는 원나라때 중국과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어, 태음력의 정비와 발달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의학에서는 예방의학과 외과수술이 성행하였으며 대표적인 의학자인 알-라지(Al-Razi)의 <의학대전>과 이븐 시나의 저술들은 유럽 의과대학에서 오랫동안 교재로 사용되었다. 화학분야에서는 승화작용이나 증류법과 같은 화학실험 방법이 고안되었다. 알칼리, 알코올 등의 아랍어 용어는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둘째는 통치자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독특한 문치 리더십이었다. 9세기 바그다드에 설립된 중세 최고의 아카데미였던 <지혜의 집>은 서양역사가 스스로 닫아버린 암흑의 시기에도 인류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문명의 빛이 비추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한 인류의 자산이다. 칼리프나 재력가 등 지식의 후원자들은 필요한 책을 구입하거나 필사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학자들을 지원했으며, 한 권의 책을 찾기 위해 바그다드에서 다마스쿠스로,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스탄불로 달려갔다. 지금으로서는 쉽게 할 수 없는 경탄스러운 세계지식여행이었다. 이슬람제국인 압바스 왕조는 지식인을 극진히 대우했으며, 학자는 존경받는 최고의 직업이었다. 계층과 신분, 출신지역에 상관없이 오로지 학문과 과학적 성취로만 사람을 평가하였다. 선대의 학문적 업적을 닮은 것이라 버리지 않았으며, 고대 그리스의 학문과 철학을 이교도의 것이라 하여 폄훼하지 않았다. 인도의 대수학, 중국의 과학 등 당대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을 총망라하였고 이를 종합하여 새로운 창조의 단단한 터전을 닦아주던 곳이 <지혜의 집>이었다. 이러한 확고한 신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칼리프 알 마문(813~833 통치)의 역할을 놓칠 수 없다. 중세 이슬람 역사에서 학문적으로 가장 뛰어난 통치자의 한 사람이었던 알 마문은 과학적 탐구에 종교적 사명이라는 신성한 보호막을 씌움으로써 과학을 이단적이고 세속적인 영역에서 종교의 하부구조로 인식하는 길을 활짝 열어 놓았다. 무엇보다 당시 칼리프들은 제대로 연구된 학자들의 책 무게를 동일한 금의 무게로 보상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학문적 장려정책을 폈다. 이로써 중세는 이슬람 과학의 황금시대가 된 것이다. 이 시기에 이슬람 세계 전역의 마드라사를 중심으로 펼쳐진 저술 사업에서 편찬된 필사본이 현재까지 약 300만권 이상이 남아있다는 사실은 당시의 마드라사의 역할과 학문적 열정을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이처럼 마드라사의 역할은 이슬람 세계의 문해율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하면서 유럽보다 500년이나 앞서 이슬람의 학문적 르네상스를 일으키는 단단한 지적 토대가 되었다.

3. 마드라사의 교육 과정

마드라사의 이슬람 교육과정은 크게 두 코스로 나뉘는데, 첫째는 히프즈(hifz) 코스로 꾸란을 기억하도록 교육하는 코스이다. 꾸란 구절을 완전히 암송하는 사람인 하피즈(hāfīz)가 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둘째는 올라마(Ulama) 코스인데, 이슬람 학자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교육과정이다. 마드라사에서의 일반적인 교육과정은 아랍어, 타프시르(꾸란의 내용에 대한 해석), 샤리아(이슬람 율법), 하디스(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 논리학, 이슬람 역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하디스는 오스만 제국의 술탄 술탄 술탄 1세에 의해 도입되었다. 일부 마드라사에서는 학생들의 요청에 의해 아랍문학, 과학, 세계사, 영어나 프랑스어와 같은 외국어를 부가적으로 교육하기도 한다. 오스만 제국의 마드라사는 종교 교육을 행하면서 작문, 문법, 통사론, 시문학, 정서법, 자연과학, 정치학, 생활예법을 교육하기도 했었다.

이슬람 세계에서, 이맘이 되기 위해 마드라사에 입학하는 경우도 많았다. 예를 들어, 올라마 자격은 12년간의 교육을 받아야 취득할 수 있었으며, 수많은 하피즈들은 마드라사 출신이다. 마드라사는 야간 강의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기숙사에 살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대학교와 비슷한 면이 있다. 마드라사의 중요한 기능은 고아나 가난한 학생을 받아들여 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마드라사는 여성도 학생으로 받아들였으나, 수업장소가 다르거나, 여성만 다닐 수 있는 별도의 마드라사가 있다.

아프리카 남부 지역에서 마드라사는 공사립 세속학교에 재학 중인 무슬림 학생들에게 방과 후 종교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문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가정환경이 부유한 학생 거의 대부분은 세속 교육과 종교 교육 모두를 제공하는 기숙 또는 전일제 사립학교만 재학하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인도 출신의 무슬림들이 재학하는 마드라사에서는 학생들에게 우르두어 교육을 제공하였으나, 이러한 마드라사들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마드라사 교육의 특징은 신앙과 연관된 교과목과 함께 다양한 ‘이성과학’ 분야도 가르친다는 점이었다. 수학, 천문학, 의학, 지리학, 지구과학, 철학, 마술 과목들이 중요과목으로 포함되었다. 11세기와 14세기 사이의 이슬람의 황금시대에 가잘리에 의해 이슬람 철학의 논리학이 마드라사의 교육과정이 되었고, 이후에는 이븐 시나의 학문적 성과가 마드라사의 교육과정의 일부가 되었다. 오스만 제국 시기가 오면 마드라사 교육과정이 정착되면서 네 개의 교육단계가 요구되었다. 영적 단계, 지적 단계, 구술단계, 필답단계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런 네 단계를 켈리그래프 학문, 이론과학, 실천과학의 학문분야 속에 녹아들게 했다.

1) 중세 교육철학자 이븐시나의 학교교육의 필요성

11세기 유명한 철학자이자 의학자였던 이븐 시나는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과 아이들 양육”이란 제목의 저술을 남겼는데, 이에 따르면 아이들의 교육은 가정에서의 개인적 과외보다는 집단생활을 통한 학교교육

이 훨씬 중요한 것으로 강조되었다. 그 이유는 경쟁의 가치, 학생상호간의 배려와 섞임, 집단 토론의 유용성 때문으로 보았다. 훨씬 공동체적인 삶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파악한 것이다. 그러면서 자녀들은 8세기 되면 학교에 보내야 되고, 14세가 될 때까지 학교교육을 통해 사회에 적응하고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꾸란, 이슬람 형이상학, 언어, 문학, 이슬람 윤리, 실천 기술 등을 익혀야 된다고 피력했다.

중등교육에 대해서는 14세 이후부터는 일반적인 교양교육을 넘어 자신이 능력과 취향에 맞는 교육의 특화와 전문적인 교육방향을 취해야 된다고 설명한다. 나아가 학생들에게 자신의 전문분야와 선호도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기술한다. 그리고 중등과정부터는 문학과 설교, 의학과 기하학, 무역과 상업, 공예와 기술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오늘의 교육 관점으로 보아도 매우 진취적이고 선진적인 교육철학을 갖고 있었고 이러한 교육방침이 마드라사에서 구현되고 있었다.

이런 영향을 잘 설명해 주는 자료가 아랍 역사학자 막디시의 저술에서도 보인다. 그는 유럽 대학의 성립과 교육과정 운영의 원칙, 무엇보다 학사, 석사, 박사 학위의 수여 개념 등은 이슬람의 마드라사 전통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논증하고 있다. 그외에도 대학 교육 문화 측면에서도 유럽에서 잘 알려진 학문분과의 대표 교수격인 학과장을 “chair”로 지칭하는 것도 마드라사에서 교수는 의자에 앉고 학생들이 주변에 둘러 앉는 이슬람 전통에서 유래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서구 대학 문화에서 통용되는 'academic circles' 'fellows', 'reading' 'degrees', 같은 용어의 문화적 배경도 이슬람 마드라사 교육 전통인 “aṣḥāb”(companions, 예언자 무함마드의 추종자), “qirā’ah”(reading 큰소리도 꾸란 읽기), “ijāzah”(license 강의 자격증)에서 유래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는 취임연설, 학위가운 입기, 학위 디펜스 전통, 대학에서의 상아탑의 자유 개념 등 18개의 서구식 교육용어나 개념이 이슬람 교육제도나 마드라사 전통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마드라사 전통은 주로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던 지중해 유럽 지역을 통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다고 보았다. 그러한 예로 그는 1224년 신성 로마 황제 프레드릭 2세가 세운 이탈리아 남부의 나폴리 페데리코 2세 대학이 이슬람 전통을 따른 교육기관으로 꼽았다. 물론 막디시의 이론에 비판을 가하는 유럽학자들도 적지 않다. 이 문제는 더욱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주제다.

4. 세계문화유산이 된 이슬람 세계의 주요 마드라사

이슬람 세계의 마드라사는 많은 국가에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남아있으며 국민들이 문화적 자부심으로 보존하고 있다.

1) 이집트의 알 아즈하르 모스크(마드라사)

975년에 이집트의 시아파 파티마 왕조의 통치자 이스마일에 의해 카이로에 설립된 이슬람 세계 최고 권위의 대학이다. 지금도 이슬람 세계의 주요 쟁점이 있을 때마다 알 아즈하르의 그랜드 몃티라는 최고 종교석학이 ‘파트와’라는 종교적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수많은 외국인 무슬림 유학생들로 지금도 이슬람 세계의 성직자나 대학 교수요원을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

2) 바그다드의 니자미야 모스크(마드라사)

1091년 셀주크 터키의 재상이었던 니잠 알 몰크에 의해 바그다드에 설립된 중세 세계최대의 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바그다드에는 바로 이어서 1233년 압바스 제국 칼리프 알 무스탄시르에 의해 무스탄시리아 대학(Mustansiriya University) 설립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3) 16세기 이란 이스파한 이맘 모스크(마드라사)

4) 9세기 모로코 페즈(마드라사)

5) 11세기 시리아 알레포(마드라사)

6) 9세기 튀니지 카이로완(마드라사)

7) 16세기 터키 이스탄불 술탄이마니예(마드라사 등)

8) 15세기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드(레기스탄 마드라사)

5. 여성 교육기관으로서의 마드라사

이슬람 세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역할이 축소되고 인권이 억압당하고 있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사실 많은 이슬람 국가에서 여성들의 취업이나 사회참여 제한은 물론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의 운전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여성 장관이나 정치인이 등장하고 대학교육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 숫자를 앞지르면서 전통적인 이슬람 교육에서 여성의 위상과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마드라사 교육에서도 역사적으로 여성들에게 기본적으로 교육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들이 하나씩 확인되고 있다.

12세기 전까지만 해도 여성 이슬람학자의 숫자는 전체의 1% 미만이었다. 그러나, 15세기 이후부터는 8,000명 이상의 이슬람 여성학자들이 등장한다. 이슬람 학자 알 사카위가 저술한 이슬람 여성학자 전기에는 1,075명의 여성학자들에 대한 기록이 정리되어 있다. 최근에는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 이슬람 연구센터의 모함마드 아크람 나드위가 저술한 40권에 달하는 하디스 여성 연구가 전기에 따르면 8,000명의 인물이 수록되어 있다.

750년 압바스 왕조 시기부터는 여성들의 미모와 지적 능력들이 발휘된 기록들이 보이는데, 그들은 주로 음악, 무용, 시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마흐부바(Mahbuba)가 압바스 왕조시기 시와 춤으로 유명했고, 노예 소녀로 칼리프 하룬 알 라쉬드에게 팔려온 타와두드(Tawaddud)는 당시 가장 고매한 학자들의 지식 테스트를 모두 통과한 엘리트 여성이었다. 그녀는 천문학, 의학, 법학, 철학, 음악, 역사, 아랍어 문법, 문학, 신학, 체스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해박했으며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당대 최고의 지성으로 알려졌다. 슈흐다(Shuhda) 또한 이슬람 역사에서 잘 알려진 12세기 여성 학자로서 ‘여성들의 자존심’이라 불릴 정도로 수도 바그다드에서 대단한 평가를 받았다.

마드라사 건립에서도 여성들의 역할은 적지 않았다. 파티마 알 피흐리(Fatima al-Fihri)는 859년 알 카라위인 마드라사를 건립했고, 12~13세기 아유브 왕조시대에는 다마스쿠스에만 160개의 모스크와 마드라사가 생겨났는데, 그 중 26개가 여성 후원자들에 의해 충당되었다고 한다.

여성들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12세기에 오면 여성들이 마드라사에서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로 나타났다. 고위관료들도 자신들의 자제를 마드라사에 보낼 때 딸들에게도 교육기회를 주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그렇지만 꾸란이나 법규에는 여성들의 교육차별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없었지만 일반적으로 가부장적 아랍사회에서 여성들의 교육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풍조는 늘상 존재해 왔다.

6. 오스만 제국 시대 마드라사의 역할 변화

이슬람 세계의 마드라사는 전통적으로 부유층이나 권력층들의 기부에 의해 설립되는 교육기관으로 이슬람 법학, 신학, 의학의 세 축으로 발전했으며 와카프라는 재단을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갖추었다. 이러한 마드라사 교육기관이 공교육 기관으로 제도화 되면서 오늘의 현대 교육의 초석이 된 것은 600년전 세대륙을 통치한 오스만 제국시대였다.

오스만 제국 최초의 마드라사는 1331년 이즈니크에 세워졌다. 순니 이슬람 전통을 철저히 준수하던 오스만 제국의 마드라사에는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초빙되었다. 무엇보다 술탄이 직접 설립한 마드라사에는 세계적인 석학들이 몰려들었다. 한 예로 술탄 무라드 2세(Murad II)는 페르시아로 부터 알라딘('Alā' al-Dīn)과 파크르 알 딘(Fakhr al-Dīn)이라는 당대의 석학을 초빙하여 오스만 제국의 마드라사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세 대륙을 통치하는 제국의 잇점을 활용하여 이집트, 중앙아시아, 인도, 스페인, 페르시아 등지의 학자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면서 학문적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이는 바로 오스만 제국의 단단한 인문적 하부구조를 형성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무엇보다 나라 간 학생들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오늘날 교환학생제도나 기숙교육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오스만 제국이 마드라사를 설립하는 위치와 교육철학적 특징 중 하나는 반드시 모스크와 함께 마드라사를 설치하는 것을 일반화했다는 점이다.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한 후 술탄 메흐메트 2세가 이스탄불에 8개의 마드라사를 설립하면서 각각 모두를 등급화했으며, 8개의 모스크와 함께 배치하도록 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 이는 종교와 학문, 고등과학과 일반과목, 고위 석학들과 학생들이 하나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감하게 함으로써 균형있는 학문발전과 미래 세대를 자극하고 육성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오스만 제국시대의 마드라사 등급은 상급에서 하급순으로 네 단계로 나뉘어졌다

- 1) Semniye
- 2) Darulhadis
- 3) 부르사 마드라사(부르사 시대 초기 술탄들이 지은 것)
- 4) 고위관료 들이 지은 마드라사

오스만 제국시기에도 교육과정의 궁극적임 목표는 이슬람 세계의 일반적인 교육철학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신에 대한 궁극적인 이해가 중심이 되었다. 오스만 제국 마드라사에서 교습되는 주요 과목이나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다.

- 1)이슬람 종교관련 교과-신학, 꾸란, 하디스, 샤리아
- 2)이슬람 캘리그래프(서체)
- 3)아랍어, 문법, 음운론
- 4)이슬람 철학과 논리학
- 5)수학, 정치학.

오스만 제국 시대 마드라사의 또 다른 특징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뛰어넘는 사회복지기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이었다. 교육 이외에도 모스크 시설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음식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하게 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종교적 지식을 대중적 삶속에서 구현하는 실천적 가르침을 포함했다는 점이다. 이런 정신은 이슬람세계에서 역사적으로 마드라사를 운영했던 와카프 재단들이 오늘날 진화하여 많은 아랍국가에서는 종교성으로 발전하여 국가기관이 되었고, 일부 국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회복지기구로 기능하고 있다.

7. 오늘날 마드라사 교육 현황과 미래

물론 마드라사는 18세기 이후 유럽의 근대화 바람이 이슬람 세계에 거세게 밀려오고 거의 모든 이슬람 세계가 서구의 식민지배를 받게 되면서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과거의 마드라사는 하나씩 서구식 학교로 대체되었고, 고등교육 역할은 서구식 대학이 차지하게 되었다. 학문의 중심을 이루던 이슬람 신학은 세속적인 서구대학 편제에서 신학대학(Ilahiyat Fakultesi)이란 단과대학으로 편입되었다. 모스크에 부속건물로 존재하던 마드라사는 이제 방과후 아이들이 꾸란이나 아랍어를 배우는 장소로 제한되었다. 이슬람 종교 교육기관으로서의 마드라사는 무엇보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산유국들의 엄청난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또 다른 시련을 맞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보수적인 아랍국가들이 믿고 있는 과격 이슬람 이념인 와하비즘을 수출하거나 지원함으로써 마드라사에는 그러한 이념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최근 탈레반을 비롯한 많은 테러전사들이 이러한 마드라사에서 과격한 이슬람 교육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서, 오늘날 마드라사는 반미, 반서구 이념 교육장, 테러리스트 양성소로 서구에서 잘못 알려지고 있다.

일본의 근세 교육과 문화유산

1. 문화청 관할(문부과학성 외국(外局)에서 문화행정 담당, 일본 유네스코 국내위원회)

일본에는 현재 「세계문화유산」 14건(자연유산 4건)이 있음.(2014년 기준)

A. 「세계유산 잠정일람표 기재 문화자산」 (11건) ⇒ 유네스코에 추천 예정인 리스트 ⇒ ICOMOS(국제기념물유적회의) = 평가·권고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결정

B. 「세계유산 잠정일람표 후보 문화자산」 (잠정리스트로 포함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인 자산 리스트)

2. 「일본 근세의 교육자산」(가칭)준비상황

1) 공모(2007년,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신청)

- ① 이바라기현 미토시 ; 미토번(藩)의 학문·교육유산 군(群) ⇒ 미토번 고도칸(弘道館)(한코(藩校) : 번이 설립한 교육기관)
- ② 이바라기현 아시카가시 : 아시카가(足利)학교와 아시카가 문중의 유산 ⇒ 아시카가 학교 (중세의 학교)
- ③ 오카야마현 비젠시 : 근세 오카야마의 문화·토목유산 군(群) ⇒ 시즈타니(閑谷)학교(근세 고가쿠(郷学 : 일반서민도 입학 가능한 번이 인가한 교육기관.)

※문화청의 위원회에서 검토 = 조인(2008년)

⇒ ①~③은 「근세의 교육자산」이라는 주제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2) 근세의 교육자산(학교) 검토

- ① 미토시의 고도칸(弘道館) (한코(藩校)) + 아시카가시의 아시카가 학교 + 히타시의 간기엔(咸宜園) (시주쿠(私塾) : 민간교육기관)
- ② 시즈타니(閑谷) 학교(근세 고가쿠(郷学), 오카야마현 비젠시)

3) 일본 근세 유학의 특징

일본은 과거제도를 채택하지 않았다(유학이 제도화되지 않음)

⇒유학 학습의 사회적 의미가 과거제도를 운영하는 다른 동아시아 유교권 국가들과 다르다.

• 일본적 특징

- ① 무사의 유학 학습 본격화(한코(藩校))는 근세 말기 100년만
- ② 유학이 무사지배층 뿐 아니라 일반 시민과 서민층에 침투 = 「학문하는 민중」
- ③ 제도 상의 제약이 없다 : 자유롭고 다양한 사상 전개(지적 사고의 소재로서의 유학) , 주쿠(塾)와 고가쿠(郷学)

4) 일본 근세 학교

(1) 막부(중앙정부) 쇼헤이코(昌平黌)(쇼헤이자카(昌平坂)학문소, 유시마(湯島)성당)

1630 : 오와리 번주인 도쿠가와 요시나오가 공자 사당(廟)을 기부⇒하야시케 카주쿠(林家塾)

1690 : (쇼군 츠나요시)간다 유시마에 공자 사당 이전, 강당/기숙사 정비 = 하야시케주쿠(林家塾)와 통합

간세이(寛政)기(18세기 말) : 쇼헤이자카(昌平坂)학문소(막부의 직접관할 학교) : 주자학「정학(正学)」
화 = 관학화(官学化)(시험⇒학문의 제도화) ⇒ 바쿠신(幕臣)교육 본격화,
각 번의 무사 입학도 허가⇒중앙정부의 대학

(2) 한코(藩校) : 번(藩) 소속 무사를 대상으로 하는 유학 교육(유학 이외의 학문교육도 있음), 250교 이상

18세기 후반 이후에 본격화

조선시대의 「향교(郷校)」에 가까운가?

(3) 고가쿠(郷学) : 본래 의미는 郷(마을)에 설립한 학교. 실제 내부 사정은 다양함 - 유학 교육은 공통으로 이뤄짐. 공적 성격.

① 한코(藩校)의 분교적 성격 : 재향 한사(藩士・번 소속 무사), 바이신(陪臣・가신의 신하), 상급 서민,
ex.시즈타니 학교

② 민중교화, 교육의 장(教諭所) : 미마사카(美作)의 덴가쿠칸(典学館) 등

③ 民衆有志에 의한 자기학습의 학교 : 간스이도(舎翠堂), 가이토쿠도(懷徳堂), 에치고(越後)의 죠요칸(朝陽館), 후기의 시즈타니(閑谷)학교, 「호학유지 공동의 학사(好学有志共同の学舎)」 (이리에 히로시(入江宏))

④ 유신 전후, 작은 마을 단위로 설립된 학교 : 사카이의 고각코(郷学校), 아이치의 기코(義校), 교토의 만구미(番組)소학교

(4) 학문 주쿠(시주쿠)(學問塾(私塾)) = 유학 주쿠(儒學塾) : 유생들의 사적인 학문과 교육활동

고기도(古義堂/이토 진사이와 그 자손), 도주(藤樹)서원, 겐엔주쿠(護園塾/소라이), 간기엔(咸宜園/히로세 탄소), 쇼카손주쿠(松下村塾/요시다 쇼인)....

※유학에 기반을 둔 사적이고 자유로운 교육활동 : 새로운 창조적 사상은 학문 주쿠(學問塾)에서 형성됨.

※조선시대의 서원, 중국서원과 비슷한지?

(5) 데나라이주쿠(手習塾) (데라고야·寺子屋)

민중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자와 산수의 학습장 (읽고 쓰기와 산수 : 데나라이 스승과 어린이들)

일본 근세는 「문자사회」, 열도 안에서 광범위하게 분포, 원칙적으로 학문(유학)은 가르치지 않는다.

3. 현재 신청 준비 중인 일본 근세의 교육자산에 대해

1) 고도칸(弘道館)(미토번 한코(藩校)) : 이바라기현 미토시, 정부의 특별사적(史跡)

· 막부 말기 1841년 개설 (번주 도쿠가와 나리아키) : 289개의 한코(藩校) 중 최대규모⇒후에 설립되는 번교의 모델이 됨.

· 「고도칸기(弘道館記)」(도쿠가와 나리아키 편저, 교육이념) - 후지타 토코『고도칸기(弘道館記)술의(述義)』(고도칸기의 해설서)

· 후기 미토학(水戸學)에 의한 무사교육 (후기 미토학이란 일본적 해석의 유학, 특히『고사기(古事記)』, 『일본서기(日本書紀)』를 유학적으로 해석. 막부 말기의 내외위환 위기 가운데, 존왕양이의 정치사상을 강조, 일본 중심주의의 국가론 전개. 아이자와 세이시사이의 『신론(新論)』은 이들 사상의 이론서.

⇒ 막부말기, 전국의 무사들에게 강렬한 영향을 줌. 명치유신의 사상적 원류 중 하나.

(근세교육자산으로서 「대표성」이 있는지 의문 : 후기 미토학은 특이한 유학, 막부말기 단기간의 한코(藩校))

· 고도칸(弘道館)내의 현존하는 정전(正庁)·지선당·정문 =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

(정전·지선당은 번주나 중신을 위한 시설이며 학생 교육의 장은 아니다.)

※막부말기 유신기의 번 내 정쟁으로 고도칸(弘道館)의 주요 시설이 파괴됨

⇒ 복원시설이 많다. 「진정성(Authenticity)」에 의문

2) 아시카가(足利)학교(시모츠케노쿠니 = 이바라기현 아시카가시), 국가 사적(史跡)

· 중세 최대규모 학교, 14세기 말 - 15세기 초 성립, 아시카가시의 보다이지(菩提寺)를 중심으로 학습활동 (학생들이 모여 길드적 학습자치), 우에스기 노리자네(간토管領)이 1439년 본격적인 학교로 정비.

· 「반도(坂東)의 대학」 : 역학, 유학, 의학, 병학, 불교 등 가장 고도의 학문 교육

- 전국에서 많은 학생이 모임 (승려·무사·유생 등)

- 16세기, 예수회 선교사들이 본국에 보낸 보고서에 여러 번 언급.
- 각 시대의 영주의 보호를 받아 메이지 초기까지 이어짐.
- 국가 사적(史跡)「아시카가 학교 유지」, 성당=대성전(大成殿)은 1668년 막부의 지원으로 세워졌다. 현재 유적은 대부분이 1990년대에 복원(진정성에 의문)
- 근세 에도 시대 막부의 보호는 있었지만 교육기관으로서는 기능하지 않았다.
 - 「근세교육의 문화유산」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

3) 간기엔(咸宜園)(분고·오이타현 히타시), 국가 사적(史跡)

- 최대 규모의 근세 유학 주쿠(塾) (시주쿠(私塾))
- 1805년 유생 히로세 탄소가 시작한 시주쿠(학문 주쿠) , 삼탈법(三奪法)(신분·학력·연령) = 학력주의와 경쟁주의를 철저히

(월단표(月旦表) : 성적 서열표, 무급 ~ 9급(上下 포함 총 19등급)

- 교쿠소 - 세이손 - 린가이가 계승. 1897년까지. 학생은 탄소 시대 3000명, 총 4500명에 달한다고 한다.
- 현존 건축물=슈후안(秋風庵)과 엔시로(遠思樓)만 남아있다.
대부분은 복원 유적(진정성이 난제)

4) 시즈타니(閑谷)학교(오카야마현 비젠시, 고가쿠(郷学))

- ① 국가의 특별사적, 강당은 국보(국보지정 교육시설로서는 일본에서 유일함), 기타 (쇼사이(小齋)·슈게이사이(習芸齋)·인시즈(飲室)·분고(文庫)·고문(公門): 세이묘(聖廟)·시즈타니 신사[호렛시(芳烈祀)]·돌담 등 24채) 대부분의 건축물이 국가의 중요문화재, 더불어 주변 히요케야마(火除山)·한치(泮池)·츠바키야마(椿山)·고요테(黄葉亭)·츠다 나가타다 집 옛터(津田永忠宅跡)·석문 등을 포함해 국가 특별 사적으로 지정.
장서·자료서적 등이 거의 현상 보존. 국가의 중요문화재로 지정.
- ② 건축물 대부분이 300년 전의 건설 당시 그대로 거의 완전하게 현존하는 귀한 학교. 시설, 환경이 양호하게 보존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면밀 주도한 배려와 관계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
- ③ 오카야마 번주 이케다 미즈마사가 충신인 츠다 나가타다에게 명령해 무사들과 상류층 민중을 대상으로 주자학을 교습. 강당에 「백록동서원 계시」를 걸어놓음.(중국, 조선 서원과 공통)
- ④ 미즈마사는 유교적 인정(仁政)의 이상 실현을 지향함. 그 방법으로서 「학교」보급을 시도.⇒유학을, 인정을 함께 펼칠 무사 및 민정관(농민지도자층)과 공유하기 위해 무사를 위한 한코(藩校)(1666년 설립)개설.

또 농민 지도자 층의 학습 시설로서 테나라이도코로(手習所 (123개소))를 설립. 유학 교육을 철저하게 했다. ⇒ 테나라이도코로는 민중들의 지지를 얻지 못해 실패⇒학교를 통한 인정 실현을 포기하지 않고 시즈타니(閑谷)학교를 건설했다.

⑤ 18세기 후반기 이후 시즈타니(閑谷)학교는 지역의 교육기관으로서 활성화됐다. 즉 민중 지도층은 스스로 학습하는 학교로서 활용하고 그 결과 시즈타니(閑谷)학교에서 학습활동이 성황리에 이뤄짐. 학생은 지역의 민중지도층과 지방 무사층. 희망자가 있을 경우 다른 번의 무사들도 입학 허용.

⑥ 시즈타니(閑谷)학교에서는 유학의 기초교육(소리 내서 읽기와 내용 설명)이외에 유생 육성의 본격적인 학문학습도 가능하며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농민출신의 유생 문인이나 시즈타니(閑谷)학교 교수도 배출했다.

⑦ 시즈타니(閑谷)학교는 전국 유생 문인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었고 전국의 각 번에서 학교에 관한 문의와 정보제공 요청이 있었으며 각지의 학교 건설의 참고가 되었다.
시즈타니(閑谷)학교를 방문하는 유생문인도 적지 않았다.

⑧ 1670년 건설 착수, 1701년 완성 - 메이지 3년(1870년) 폐교 - 1873년 아마다 호코쿠(비추 타카마츠의 양명학자)를 초빙해 시즈타니 쇼샤(閑谷精舎)로서 재건 - 사립 시즈타니 중학교 - 오카야마현 시즈타니 중학교 - 현립 와케(和氣)시즈타니 고등학교(전후)로 현재에 이른다.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역 주민이 지탱해온 희귀한 학교.

⑨ 시즈타니 학교는 중국서원의 4요소(강학, 장서, 제사, 학전)를 구비한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공통의 서원의 특징을 갖는다.

※일본 특유의 특징도 있다 : 건축물, 제사, 서민+무사+타 번에 대한 개방 등, 학생 층이 중국의 사대부층, 한국의 사림=양반 토족과 계층적으로 다르다.

※그 배경에는 일본 근세의 「학문하는 민중층」이 일정 수준의 두터운 층으로 존재했다.

4. 일본근세교육자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는 무엇인가.

(대표성·포괄성, 진정성, 완전성, 적절한 보존관리체제)

1) 세계성, 국제성

일본 혹은 동아시아뿐 아니라 인류사 속에서의 의미(보편적 가치의미 = 가치)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① 유학 사상의 보편적 의미 = 봉건적 구 사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초월한 경서(經書)=고전을 공유하고 일정의 문화와 사상의 교류권을 형성했다.

- ② 유학을 통한 정치주체, 도덕주체의 형성이 이뤄지고 유학적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사회질서 유지가 가능했다. 요컨대 보편적인 인간형성을 가능하게 했다.
- ③ 유학은 고도의 지적 활동의 원천이며 중국고대 고전을 습득·해석함으로써 늘 새로운 사상적 혁신을 추진해왔다.

2) 현대적 의미

- ① 근대 학교로 대표되는 근대 교육은 서양 근대에서 비롯한 근대의 지식에 입각한다. 이는 심신 이원론에 입각한「과학 모델」이다. 즉 측정(언어화)가능한 일의적 개념과 이론에 의해서 구축되며 교과별로 분절화된 지식체계이다.
- ② 국민국가 속에서 「국민」의 육성, 산업화 = 자본주의화를 노리는 지도자와 노동자의 육성, 민주주의를 담당하게 될 시민, (사회의 구성원)⇒마음의 문제(도덕, 인간형성)와 학교의 교과 학습이 분리⇒심신이원(心身二元) = 신체성의 소외
- ③ 근대 학교교육의 한계(고도 미디어 사회 = 인간의 관계성의 변질, 신체성과 자연성 = 전체적 초월적 세계의 상실 등)를 새롭게 극복하기 위한 방향성을 시사할 수 있다.
이하, 츠치모토 마사시「시즈타니(閑谷)학교에 담겨진 사상과 교육」(비젠시 교육위원회 편저『학습의 원향(原郷)「시즈타니 학교」』미간)의 초록에서 발췌.

5. 근세 고가쿠(郷学)로서의 시즈타니(閑谷)학교

시즈타니 학교 입학생의 중심은 촌락 관리자(村役人)층의 자제들이었는데 무사 자제들도 받아 들였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문호를 열었다. 행정상으로는 한코(藩校)의 학교 호코(奉行) 지배 하에 있었으며 당초에는 한코(藩校) 교수들도 많이 파견 왔었고 교육내용도 방법도 거의 한코(藩校)에 준했다.

시즈타니 학교가 활성화된 것은 메이와기(18세기 후반) 이후였으며 19세기 전기에 전성기를 맞았다. 한코(藩校)가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무사 교육이 중시되었다는 동향과 흐름을 같이 한다. 중요한 것은 시즈타니 학교의 활동을 중심으로 담당했던 사람들이 그 지역의 촌락 관리자(村役人)층이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와케군 働村의 지방관리인 有吉和介 등 有吉 가문의 3명과 기타카타무라 지방관리인 다케모토 쿤류는 시즈타니 학교에서 수학한 후에 그 곳 교수역(教授役)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다. 참고로 쿤류의 형인 다케모토 토토안도 이 곳에서 수학한 후 한시 작가·서예가·의사가 되어 전국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문인이 됐다.

이와 같은 마을 관리층의 학문은 1780년대에 시작된 「텐진코(天神講)」라는 지역 주민에 의한 자발적인 학습활동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는 시즈타니 학교 학생을 강사로 하는 민중의 경서 학습모임이었으며 주변지역에도 널리 퍼졌다. 지역사회의 과제를 불교 신앙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학습함으로써 극복하고자 하는 민중지도층의 내발적인 학습이었다. 민중지도자층의 이러한 학습의욕이 시즈타니 학교를 활성화시

켰다. 이렇게 보면 미즈마사가 1세기 전에 「학습하는 민중」을 정책적으로 창출하고자 했던 염원이 1세기 후 이 단계에서 꽃을 피웠다고 볼 수 있다. 시즈타니 학교가 그들의 학습의욕을 해소하는 장이 된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1871년까지 시즈타니 학교는 존속했었으나 그 것은 지역의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곧 부활)

민중이 스스로 학습하기 위해 개설·운영한 학교를 「고가쿠(郷学)」라 한다. 이리에 히로시는 「호학유지 교육지도의 학사(好学有志教導の学舎)」의 모습에서 「근세적 공공성」을 찾아내고 여기에서 근세 향학의 본질을 찾았다. 1720년대, 오사카 근교의 간스이도(含翠堂(세츠히라노)나 오사카의 가이토쿠도(懷徳堂)에서 앞선 사례를 볼 수 있는데 1780년대 에치고(니가타현)의 농촌에서 상층농민유지가 유생을 초빙해서 개교한 조요칸(朝陽館)에서 고가쿠(郷学)의 기본 틀을 찾아볼 수 있다(이리에 히로시 2011 「고가쿠(郷学)론」, 다카기 야스후미 등 편저 『근세 일본에서의 「학습(学び)」의 시간과 공간』 게스이샤). 시즈타니 학교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학습의욕이 있는 지역민중 지도층이며 게다가 시즈타니 학교는 일반 백성이나 외부에 열린 배움의 장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시즈타니 학교는 「근세적 공공성」을 갖춘 고가쿠(郷学)였다.

생활과 관련된 스스로의 과제를 학습함으로써 스스로 극복하는 의욕이 시즈타니 학교 교육을 지탱해왔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교육의 보편적 성격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이란 본래 인간으로서 스스로를 높이기 위한 시도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18세기 중반 이후 전국적으로 보급한 한코(藩校)가 일종의 정치의 방법이었던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6. 시즈타니 학교의 교육

미즈마사는 당초에 나카에 토주 - 구마자와 반잔의 「心学」을 수용했는데 후에 점차 주자학으로 기울었다. 번의 학교는 주자학을 자각적으로 채택하고 시즈타니 학교도 이에 따라 「純粹朱說」을 내세웠으며(강당에 백록동서원 게시), 이는 후에도 변함이 없었다.

학생은 8세 입학이 표준이며 학습 과정은 우선 「습자사(習字師)」로부터 문자를 배우는 「習字」와 「독서사(讀書師)」에 의한 경서(『효경』 『소학』 사서, 오경) 나 「좌국사한」(역사서)를 소리 내서 읽는 소도쿠(素讀)가 있다. 오경의 소리 내서 읽는 과정이 끝날 무렵 경서 의미해석 강의에 들어간다. 또 교수나 독서사의 집에서 빈번하게 여러 사람이 모여 경서 등의 해석을 하는 회독(會讀)도 가졌다. 월 6회 강당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사서 강석(講釈)」은 교수가 주도하며 교원·학생·직원 전원이 참석했고 외부 희망자도 참가할 수 있는 권위 있는 것이었다. 또 「시회(詩會)」 「문회(文會)」가 각각 월 3회 열리며 한시문의 작문과 첨삭이 이뤄졌다. 이런 교육은 주자학에 입각한 교육법의 표준으로 특이한 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단 「민간의 많은 자제들이 뜻을 모른 채 소리 내서 글을 읽고는 학업을 그만두고 농업에 종사하는데 효제 충신의 도리는 꾸준히 궁리하고 연구해야 한다.(民間子弟多ハ習字、素讀而已ニ而退校仕、農業相勤候故、勿論孝弟忠信之道を着実ニ講究為仕)」(1814년 다케모토 쿄류의 「제칙(諸則)」)와 같이 민중 학문의 수준이 기록되어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습자와 사서를 소리 내서 읽는 단계에서 수업을 마쳤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은 더 높은 수준의 학문을 연마할 수 있었고 또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교수진이 갖춰져 있었다. 실제로 다케모토 형제나 아리요시 가문의 사람들처럼 시즈타니 학교에서 수학하고 훗날 교수역(教授役)이 된 유학자는 드물지 않다. 교원에는 오카야마 한코(藩校)에서 파견 나온 사람도 있었지만 시즈타니 학교 상근의 교수역(教授役) 1~3명, 강독사(讀書師)(읽기와 경서 강의 담당) 이나 「습자사(習字師)」(습자를 지도하는 교사)등 10명 가까운 인원으로 구성되었다.(시즈타니 학교 편찬위원회 편 1971『시즈타니 학교사』시즈타니 학교사 간행회) .

근세는 병농분리의 「문자사회」였기 때문에 교육을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한 「교육사회」였다. 근세에는 민중들에게도 문자 학습이 침투하고 상업 출판이 보급되고 아동기에 소정의 교육을 필수로 하는 「교육사회」였다. 어린이가 학습하는 장인 데라고야(寺子屋)가 광범위하게 성립되고 그 곳에서 가르치는 직업교사가 등장한 것은 일본 역사 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 결과 데라고야(寺子屋), 학문 주쿠(學問塾), 시주쿠(私塾), 고가쿠(郷学), 한코(藩校) 등의 학습기관이 근세에 보급됐다.

시즈타니 학교는 어린이들의 문자 학습부터 유학의 기초학습인 경서 읽기, 나아가 고도의 유학 학습까지 가능한 유학의 「학교」였다. 더 나아가 민중·무사의 신분을 초월한 학습의 장이었다. 즉 근세 학습의 제반 요소나 제반 기능을 모두 갖춘 시즈타니 학교는, 근세 학교로서는 보기 드문 학교였다. 그런 의미에서 시즈타니 학교야말로 일본 근세 「교육사회」의 특징을 고루 갖춘 기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시즈타니 학교가 가진 「보편적 가치」이다.

7. 소리내어 읽기(素讀)에서 볼 수 있는 유학교육의 특징 - 근대학교를 생각하기 위해

유학의 학습에 아동기의 「소리내어 읽기(소도쿠 素讀)」는 불가피한 요소이다. 7 - 8세 어린이들이 의미도 모른 채 효경·소학·사서 등의 한서를 소리 내서 한자를 일본어 식으로 읽고 통째로 암송하는 학습 그것이 소도쿠(素讀)이다. 소도쿠(素讀)는 경서의 음독이 아니라 암기다. 경서를 통째로 몸 안에 넣는다는 의미에서 소도쿠는 「텍스트의 신체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서는 성현의 언어로 그것을 「신체화」한다는 것은 성현의 언어를 스스로 일체화하는 것이다. 신체화된 언어는 스스로의 언어로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 사상이 풍부한 성현의 언어와 개념으로 사고하고 자기표현을 한다. 유생 지식인은 「한문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소도쿠(素讀)는 지적언어·사상언어(한문)의 학습법이며 그 한문이 사상이나 인간형성에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대 학습관 측면에서 보면 소도쿠는 어린이 발달단계를 무시한 비교육적인 학습법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소도쿠 불용론을 주장한 유생은 없었다. 근세에 개설된 250개 가까운 한코(藩校)의 대부분은 사회적인 혼란기, 개혁이 불가피한 18세기 후기 이후에 형성됐다. 위기를 극복하는 관료 양성을 위해 무사들에게 유학 학습이 요구되었다. 유학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겼던 한코(藩校)는 전무했다. 중국 고대 고전 한자서적의 소도쿠(素讀)와 그 해석에 집중하는 유학 교육은 절실한 정치과제에 부응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도 멀리 돌아가는 학습법이라 할 수 있다.

본래 유학은 실용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위한 학문이 아니다. 경서의 한문언어와 개념을 토대로 지적으로 사고하고 실천하는 학문이었다. 이는 인간형성·사상형성의 학문이기도 했다. 매일 반복되는 실천과제나 어려운 국면에 직면했을 때 「몸에 익힌」 성현의 언어와 개념에 입각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인간 주체의 형성을 기대하는 것이다. 요컨대 현실의 과제를 안고 실천에 옮기는 강한 책임주체 형성이 유학교육이 지향하는 바였다. 막부 말기 유신의 격동기를 주도한 정치주체는 이렇게 유학으로 사상을 형성한 사람들이었다.

유학교육에서는 「신체화하는 학문」이 중요했는데 실은 「학문에 있어서의 신체화」는 유학만이 아니다. 유려한 필체를 쓰기 위해 「몸에 익히는」 습자(서예) 학습도 역시 신체를 통한 학습이라 할 수 있다. 몸에 익힌 지(知)야말로 활용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인간의 내면 형성, 인간 형성에 연결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근세의 학습관이었다. 유아기의 「예절」 교육도 신체를 통한 인간 형성의 교육이었다.

신체는 스스로가 가진 가장 친근한 「자연」이다. 혹은 신체를 통해 사람은 환경 - 타자나 대자연과 접하며 살아간다. 「신체를 통한 학습」이란 감성이나 심성을 가진 사람의 신체를 학습 안에 포함시킨 인간 형성의 과정이다.

근대의 학교교육은 이 학습의 신체성을 배제했다. 근대 학교교육은 인간의 지성이 논리화 할 수 없는 세계를 배척하고 근대과학을 모델로 한 지(知)를 통해 기초가 마련됐다. 한편 유학 교육은 이 근대학교와는 다른 지(知)와 인간관·세계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만큼 동아시아의 유학교육에서 볼 수 있는 관점은 현대 세계를 둘러싼 근대교육의 특징을 명확하게 부각시킨다. 신분과 연령과 지역을 넘어서 정치적으로 연결되면서도 민중 자신이 주체가 되어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된 시즈타니 학교나 한국 서원의 교육 방식은 근대 학교의 향후를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관점을 열어준다.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유학교육의 의미를 지금 다시금 재검토하는 것은 현대의 표준화된 세계의 근대 학교교육을 상대화하는 시점을 획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고도 정보화 사회에 수반되는 현대 어린이들의 교육의 병리적 현상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도 포함한 세계적 문제이다. 유교교육을 부흥시키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를 비판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할 수 있고 문제의 소재를 지적할 수 있다. 현대 학교 교육을 생각할 때도 동아시아의 유학 교육에 주목할 의미가 있다. 동아시아의 역사적 교육문화 유산이 갖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그런 관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 유교의 보전 및 진흥

베트남에 유교가 전래 된 것은 BC 1세기경이었다. 당시 인기 있던 한자의 전래와 더불어, 유교는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의 보고로서 베트남을 이끌어왔다. 유교는 고대 중국의 문학, 역사, 철학 및 천문 의학의 정수이다.

1. 유교의 형성 과정과 영향력

베트남 토속 신앙은 불교, 도교, 유교를 수용하여 “동일한 뿌리를 가진 삼원교 (tree co-original religions)” 및 “변화된 형태의 삼교 (three converged religions-동일한 목표를 지닌 삼교)”를 형성하였다. 유교, 도교, 불교 이 세가지 종교는 서로를 지원하면서 유교는 사회적 제도를, 도교는 인간과 신체의 근원을, 불교는 영적 생활을 각각 담당하였다.

지난 20세기 동안 유교는 베트남에서 발전 번성했다. 유교는 베트남 역사에서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며 베트남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유교는 베트남 봉건주의 형성 및 그 발달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유교가 베트남 봉건주의 발달에 필요한 토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유교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발전했다:

유교로 인해 배움을 중시 여기는 전통이 생겨나고 스승 및 학식이 높은 사람을 존경하는 전통 및 도덕적 규범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갈고 닦은 지식이 꽃을 피우고 더욱 더 발전 유지되어 왔다. 게다가, 유교의 덕목은 사람이 문화적, 윤리적 방식으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타인을 어떻게 인으로서 대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도리를 깨닫게 된다.

유교의 전래와 더불어 시험을 통한 인재 등용 시스템 (과거)이 도입되었다. 빈부에 상관없이 (농민, 노동자, 군인...) 배우고 익혀서 과거 시험에 통과하면 나라를 위해 봉사할 관리가 될 수 있었다 (당시 서양에서는, 귀족 가문을 통해 사회적 지위가 세습된 관계로 일반평민은 거의 관리가 될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학문을 익혀서 시험에 통과하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았다. 때문에, 사회 내 모든 구성원이 배움을 중히 여기고 열심히 학문에 정진했다.

더욱이, 베트남에 전래된 유교는 그 여러 요소들이 베트남 문화 전통과 융합되어 베트남 문화에 맞는 양식으로 변화하였다.

- 유교의 첫 번째 요소는 안정 위주의 경향 (a stability-oriented trend)이다. 베트남 농업 문화의 경우 안정된 삶에 대한 욕망은 오래된 전통이다. 평민의 삶 뿐만 아니라 조정의 안정도 필요했는데 유교는 이러한 삶과 정치의 안정에 기여했다.

- 두 번째 중요 요소는 인본주의 존중 (an appreciation of humanity)이다. 베트남 농업문화가 잉태한 오래된 인본주의 전통과 당시 전래된 유교가 맞물려 “예 (politeness, 禮)와 이치 (reason, 理致)”, “인 (humanity, 仁)”은 베트남인이 가장 사랑하는 단어가 되었다.
- 세 번째 요소는 문리의 존중 (appreciation of literature) 및 수양을 쌓고 학식이 뛰어난 자를 존경하는 경향이다. 베트남 봉건 사회에서, 문 (literature 文)은 체 (體)나 물리적인 것보다 더욱 중요했다. 특히 조정은 유교를 숭상했고 ‘문 (literature 文)’은 일반적으로 통치를 위한 도구로 이용된다. 일반 평민들은 ‘문’을 수양의 도구이자 입신양명 (立身揚名)의 방안으로 삼았다.
- 네 번째 요소로는 왕에 대한 ‘충 (loyal thought. 忠)’을 들 수 있다. 베트남 인들은 애국심과 민족정신에 기반한 유교 (Confucianism based on available patriotism and national spirit)의 가르침인 ‘충 (忠)’에 직접적으로 매료되었다. 왕들간의 갈등 및 국가 또는 민족간의 갈등이 발생할 때, 국가 또는 민족은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모든 특징을 감안할 때 베트남 유교는 그 자체의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일컬어진다.

2. 베트남 유교와 연관된 문화 유산

베트남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많은 문화 유산이 있다. 그 중 유교 문화 유산의 특징은 베트남 문화 유산이 가지는 공통의 색깔과 독특한 특징으로 대변된다.

유교 문화 유적지는 4가지 주요 형태를 띤다:

- 공자 숭배와 관련된 기념물: 문묘 (Temple of Literature, 文廟), 반탄 사원 (Van Thanh Temple), 공자 사원 (Confucius Temple).
- 대학자를 기리는 기념물: 반치 (Van chi), 투치 (Tu chi), 투부 (Tu vu), 응혜 사원 (Nghe temple).
- 학교, 과거 시험장...
- 기타 사원, 시, 유교학자, 철학자, 경쟁 시스템- 과거 시험, 무덤, 서책, 조각상... 과거 시험 관련하여- 가문 내 과거 급제자 목록, 가문 족보 등 기록 유산.

1) 문묘, 유교 대가의 사원, 공부자 사원

유교의 중요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리 황제 (Empire of Ly, 11세기)는 유교를 집대성한 공부자 (K'ung-fu-tzu, 孔夫子, 공자)를 숭배하기 위하여 탕롱 구수도 (Thang Long Old Capital)에 문묘 (Temple of Literature)를 건립하였다. 귀족계층 및 관료들 또한 유교를 받아들였다. 문묘는 유교의 창시자로 여겨지는 ‘공부자

(K'ung-fu-tzu- 공자)와 그를 따르던 유학자들의 학덕을 기리는 곳이다. 1070년 초 (개띠 해- year of Dog)에 문묘가 베트남에 처음으로 건립된 이후, 봉건 왕조는 북에서부터 남쪽까지 많은 지역에 여러 문묘들을 짓기로 결정했다. 공부자 사원 옆에는 베트남 전역에서 과거에 급제했던 대유학자들을 기리는 여러 사원이 있다. 이러한 사원은 배움에 대한 열정, 스승에 대한 경배라는 베트남의 전통적 지배 사상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쿠에 반 깍 Khue Van Cac (하노이 문묘: Temple of Literature – Hanoi)



반탄 사원 Van Thanh Temple (후에 시 Hue city)

레 왕조 (Le Empire) 시기에는 과거 급제자들을 기리기 위하여, 조정에서는 이들의 이름을 따서 문묘에 비석 (진사제명비, 進士題名碑)을 세우라고 명령했다. 이러한 급제자들은 “바른 인재-국가의 동량 (Talent and Righteous People – the Country’s Power)”으로 알려졌다. 19세기 후에 (Hue)를 수도로 하는 응우옌 (Nguyen) 왕조는 국가감 (National School)을 건립하고 유학자들을 위한 기념비를 세울 것을 명령했다. 전세계에서 일반적으로 그러했듯이 각 수도, 마을, 도시마다 많은 문묘가 탄생함으로써 응우옌 (Nguyen) 왕조 동안 유교가 가장 번성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에서 썬페이 문묘 (SonTay Temple of Literature)와 백닌문묘 (Bac Ninh Temple of Literature)가 유명했다.

2) 반치, 투치, 투부, 응헤 사원 체계

이러한 역사적 공간은 마을 및 공동체가 의식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이러한 사원에서는 다수 문화 활동을 거행하며 과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인재를 기리고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하는 활동들을 전개했다. 문화 유산국 (Department of Cultural Heritages)의 기록에 따르면, 이러한 역사적 공간은 국가 문화유산 (National Heritage)에 등재되어 있다: 7곳의 반치 (Van chi) 기념물, 3개의 투치 (Tu chi), 5개 투부 (Tu vu), 3개의 응헤 (Nghe) 사원이 국가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더욱이, 베트남의 역사적 공간 및 사원 중에서 많은 것들은 단순히 공부자 또는 과거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마을 사람에게 예를 표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예로는, Tran Temple (트란 사원, Nam Dinh), King of Le Temple (레 왕 사원, Nghe An), Mieu Cao (Nam Dinh), Lieu Nha – Van Thanh (Nam Dinh)등을 들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종류의 역사 유적지는 많이 남아 있지 않고 주로 각 시도 차원의 문화재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문화유산법 (Law on Cultural Heritage)으로 그 보호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3) 학교 및 시험

봉건시대 과거 시험은 지방 수령이 관장하는 후옹 (Huong)과 중앙 정부가 관장하는 호이 (Hoi) 및 딘 (Dinh) 이렇게 3종류의 시험으로 구분된다. “응우옌 왕조 (Nguyen Empire) 시기 과거와 시험관”을 보면 시험 장소는 동일한 형태를 띠었다. 즉 대나무 같은 재료로 장막을 쳐서 차단한 후, 시험이 끝나면 거두어 버렸다. 과거 시험장은 주의를 기울여 설치해야 했으나 임시 건물로 세운 결과 현재 과거 시험장임을 알 수 있는 별도의 건축학적 공간이 남아 있지 않으며 단지 문화적 역사



적 공간으로 알려져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Trang Thi Street (트랑 치 가Hanoi), Trang Field (트랑 필드Cam Giang – Hai Duong), Binh Temple (빈사원) – 루리 라 (Luy Lau) 고성 (Thuan Thanh – Bac Ninh)…등 문학적 토론이 있었던 장소로만 남아있다.

4) 사원, 고대 유학자 및 현자를 기리는 공간

과거라는 경쟁에서 합격한 지방 유명인사를 기리기 위한 많은 기념물이 이러한 유학자들의 고향 마을 또는 이들이 학문에 정진했던 지역이나 유명한 관리로 봉직했던 마을들에 세워졌다 (예를 들어, Chu Van An, Le Van Thinh, Than Nhan Trung...), 특히 베트남에서 유학의 확산/발전에 기여한 유학자인 씨 니엵 (Si Nhiep 사섬 (士變), AD 187-226)을 기리는 사원이 유명하다. 문화 유산국 (Department of Cultural



Heritage)의 기록에 따르면, 148곳의 사원 및 공자와 유학자를 기리는 공간과 이들의 무덤이 국가 기념물로 등재되었다.

유교 경전 관련하여 시, 단시(시조), 수필, 논문, 왕의 칙령, 칠기판(lacquered boards), 짚으로 된 목판, 석판 등 다양한 형태가 수집, 보관되고 연구, 번역, 전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에 소개되었다. 최근, 베트남은 하노이 국자감 문묘(Van Mieu, 문묘)에 과거 시험 합격자 이름을 새긴 82개 석비를 포함하여 4개의 UNESCO 기록문화 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3. 유교와 관련된 문화유산 보호, 증진

일반적으로 문화유산, 특히 유교 문화유산과 관련된 전통 문화 가치를 보전 증진해야 하는 도전과제에 직면하여 베트남은 보전 가치가 풍부한 문화 유산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1) 보호 활동

- 대남일통지 (DAI NAM THONG NHAT TRI 大南一統志, 1882)에 따르면, 응우옌 왕조 (Nguyen Dynasty)하에 베트남 문묘 시스템에 따라 중앙에서 지방까지 28개의 사원이 있었다. 역사적 부침을 겪으면서 오늘날 시도지역의 9개 사원이 국가 기념물 (national monuments)로 지정되었다. 특히, 하노이와 후예의 문묘는 베트남에서 가장 규모가 큰 유교 유적지이다. 문묘 시스템에 따라 Xich Dang 문묘 (Hung Yen), Mao Dien 문묘 (Hai Duong), Tran Bien (Dong Nai), Cao Lanh 문묘 (Dong Thap), Vinh Long 문묘 (Temple of Literature Lord) (Vinh Long)등이 설립되었다. 오늘날, 국가 기념물 등재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는 시도 정부와 협력하여 국가 기념물 등재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 유교 문화유산은 국가 목표 프로그램 (National Target Program) 예산 할당과 각 지방 정부의 지출 및 사회화 활동에서 중요한 관심 사항이며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 계획을 마련했다. 하노이 문묘

는 1945년 이후 정기적으로 보수공사를 하여 1990~2000년까지 총 \$ 1,000,000를 들여 관리하였다. Hai Duong에 위치한 Mao Dien 문묘 (Van Mieu)는 2000~2002년까지 2년 동안 유지 보수하였다. 후에에 위치한 문묘 (Van Mieu)는 1994년 \$ 100,000의 예산을 들여 보수하였다.

-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는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와 협력하여, “좋은 학교 만들기, 적극적인 학생 (Building friendly schools, active students)”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초기에 소정의 성과를 달성했다. 각 학교마다 문화유산을 하나씩 전담하여 돌봄으로써,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책임감과 인식을 증진하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며 학생 세대의 도덕심을 보전 배양하고 있다.

2) 유교문화유산 가치 증진

- 전통 증진에 있어 유교 문화유산의 가치를 규명, 관리하는데 초점을 두며 오늘날 유교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국가적 지역사회의 인식을 강화하고 있다. 유교 경전 수집을 강화하여, 유물의 내적 내용 및 외적 가치를 풍부하게 하고, 전시물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활동을 마련 중이다.
- 국가적 차원에서 유교 문화유산을 규명하고 그 관리를 촉진하는 것 외에도 유교 문화유산에 대한 공통 데이터를 중앙집중식으로 보관, 관리함으로써 학교, 각급 기관, 유교 문화 유산 관리 기구 및 기타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문화적 사회 활동을 펼치는 유관 기관들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 이다. 이를 통해 유교 문화유산 가치 보전 및 증진을 위한 조건을 강화하고, 문화유산 관리의 혁신기 (innovating period)를 달성할 것이다.
- 기념물과 관련된 연간 축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할 것이다. 이를 통해 문화유산의 전수 및 전통 문화 가치를 보전하고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여 현장학습을 강화할 것이다. 더욱이, 문묘에서 다양한 문화, 교육 활동을 조직하여 더욱 효과적인 방식으로 기념물을 보호 증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학 세미나 개최, 베트남인들의 전통적인 학구열 소개, 스승과 제자 간의 도리에 대한 가르침, 현인에 대한 경배 의식 등을 진행한다. 또한 새 학기를 맞이하여 향을 피우며 토론을 조직하고 활동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한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을 지명하여 수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 서예, 카추 (catru- 베트남 전통 공연), 문예 대회 (시 짓기) 등도 개최한다.
- 유교 문화유산 연구, 수집, 번역, 전파에서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던 유교 경전 전문가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보전 관련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은 보전 연구에 관심을 두고 있는 조직 및 개인간의 연계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내에서 유교 문화유산의 가치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적절한 형태의 활동으로 국제 사회와 협력하며, 지역 공동체 정신을 강화하는 활동을 통해 사회화를 담당한다.
-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상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네스코를 통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월드메모리 프로그램 (World Memory Program)의 가치를 보존하고 UNESCO 관련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및 기법을 선진화한다.

요약하면, 현재 발전 단계에서 유교의 긍정적 문화적 요소는 여전히 중요하며 이는 지속적으로 복원하고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베트남 전역에 산재한 유교 문화유산을 보호, 복원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덕이 우선이요, 그 다음이 배움이다 (Learn virtue first, then literature)”라는 슬로건을 교육의 근본 가이드 라인으로 삼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서 문화유산은 각 국가, 인종의 문화적 다양성을 가장 진정성 있게 표현하는 진수로 여겨진다. 베트남 유교 문화유산은 다양한 색채를 지니고 있으며 개화에서 통합기를 거치면서 다양하면서도 독특한 고유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베트남 문화유산은 인류 문화유산의 다채로운 특성에 기여하고 있다.

불교를 중심으로 한 인도 문화권의 교육유산

기원전 5세기에 있었던 불교의 탄생은 인도 교육계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했다. 카스트를 기반으로 한 브라만 힌두교가 상류 계급에게만 허용된 것에 비해 불교의 승가는 수드라와 찬달라 등 모든 카스트 계층에게 문이 열려있었다. 물론, 노예, 공무원과 채무자 등은 제삼자의 권리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출입이 금지되었다. 불교의 스님과 승려들은 음식을 구걸하면서 사람들의 카스트 계급을 언급하지 않았다. 주지스님과 승려들은 새로 온 스님과 평신도 추종자들에게 달마의 여러 가지 가르침을 알려줬다. 초기에는 이러한 가르침을 말로 전달했다. 심지어 글쓰기가 알려지고 나서도 교육과정의 일부가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초기에는 불교가 동자승과 스님을 교육시키는데 치중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승불교가 등장하면서 불교 사원이 체계적으로 평신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법과 율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모든 동자승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석가모니의 말씀이 불교사원의 교육적 발전으로 이어졌다. 팍밋자(Pabbajjā)와 구족계(Upasampadā)라는 두 개의 의식은 승가에 입문하려는 이들을 위해 마련되었다. 팍밋자로 시작되는 동자승 기간은 최소 8세 이상이어야 한다. 동자승 기간이 끝나고 나서 치루어지는 구족계의 경우에는 적어도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동자승은 학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자신의 스승을 택하고 매일매일 먹는 음식을 구걸하거나 평신도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을 수 있었다. 동자승과 그의 스승과의 관계는 부모 자식과의 관계와 같았으며, 둘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동자승은 그의 스승이 음식을 청하거나 설교를 전할 때 동반자로 함께 따라가서 다양한 노동일을 수행했다. 동자승에게 지속적으로 순결함, 빈곤함, 즐거움에 대한 금욕의 맹세를 일깨워 주면서 스승은 수업과 담론을 나누었으며 지적, 정신적인 성장을 도왔다. 또한 동자승이 아플 때 돌봐주고 음식과 옷을 구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스승은 많은 것을 요하지 않는 검소한 삶을 살며 그의 제자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했다.

초기에 불교 교육은 주로 사원에서 대부분 승가에 입문했거나 하려는 이들을 위한 것이었다. 불교는 고난으로 가득한 윤회의 연속이므로 세속적인 삶을 포기하는 것이 구원의 길을 이루는 것이라 보았다. 그 결과 불교는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는 이들에 대한 교육에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교의 승가는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대중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는 이론적으로 반대에 있었던 브라만교 사제가 그랬듯이 불교 스님이 교육에 이바지한다면 더 성공적일 수 있다” (Altekar 1944: 228). 더 나아가, 달마의 뜻을 전파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젊은 동자승뿐만 아니라 평신도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불교는 서력기원의 시작부터 전체 공동체가 일반 교육에 뛰어들었다 (Altekar 1944: 228~229).

조직적인 공공 교육기관의 등장에서 불교의 역할이 컸다 (Altekar 1944: 229). 처음에 인도에서는 개인 교사를 통해 가르쳤다. 체계적이지는 않았으나 교사는 개인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했다. 불교 사원은 이미 법인처럼 운영되고 있었다. 따라서 교육 기관으로 성장했을 때는 이미 기업 교육센터가 되었다. 브라만 힌두교의 사원학교가 불교 사원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ltekar 1994: 229). 불교의 전성기 시절에 인도 전역에 걸쳐 사원이 자리잡고 있었으며, 이들 중 10%는 고등 교육을 가르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사원들은 날란다와 발라비 대학교들과 같은 국제적인 교육센터로 성장했다. 이러한 불교 대학들은 독립적이고 자급자족적 성격을 지닌 대학타운이나 도심주거지 주변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들 위치의 장점상 평화로운 환경의 혜택을 누렸다.

불교 전문학교와 대학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불교 신자에 의해 운영되고 관리되었음에도 중파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이론적인 과목만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불교 철학 외에도 자이나교와 브라만 힌두교의 철학과 논리를 공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현장은 인도의 다양한 불교 교육기관에서 브라만 힌두교의 철학과 논리를 공부하는데 자신의 삶의 5분의 2를 보냈다. 불교 교육기관에서 받는 교육이 단지 신학, 철학과 논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의학, 법학, 천문학과 점성술, 산스크리트어의 문학과 정치체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했기 때문에 평신도인 학생이 공무를 보거나 사회 생활을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하거나 학구적인 목표를 성취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책이 훼손되기 쉽고 고가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글을 마음속으로 외우고 다녔다. 글을 암기하면 좋은 점은 토론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교의 교육이 단지 본문을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추론과 분석이 교수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유명한 외국 학생이었던 현장과 의정이 자신들의 인도 스승을 존경했던 것은 수도 없이 많은 본문을 외우는 그들의 놀라운 암기력이 아니라 그들의 뛰어난 해설 능력과 상세한 설명이었다”(Altekar 1944: 231). 혁신에 대한 능력은 이후 단계에서 배양된 것은 사실이나 원리만을 중시하며 등한시했던 것은 아니다. 불교 교육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학생 개개인을 배려한 수업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며 날란다 대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사 1인이 10명 정도의 학생만을 가르쳤다.

일반적으로 고대의 인도에서 종교가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에게 신앙심, 경건함과 독실함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여겨졌다. 이를 통해서 인간 성격의 정신적인 면을 강화하여 학생이 삶의 물질적 탐욕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하지만 그러한 교육은 학생이 자신의 집을 버리고 방랑자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은 아니었다. 아주 극소수의 학생만이 평생 동안 범행자의 삶을 택했다.

인성의 발달은 고대의 인도 교육의 또 다른 목표이기도 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사회에 대한 선의적 태도가 강화되었다. 교육기관은 높은 수준의 도덕을 가르치는데 치중했다. 학생은 스승의 직접적이며 개별적인 감독을 통해 지적 성장 뿐만 아니라 도덕적 태도를 닦아 나갔다. 인격은 직접적인 가르침을 통해 부분적으로 형성되었고 또 부분으로는 지속적인 교육의 영향과 사회에서 큰 존경을 받는 영웅에 대한 예찬을 통해 이루어졌다 (Altekar 1944: 11~12). 사회의 안녕은 학생이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발휘하는 것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학생 본인이 속한 사회의 문화 수호자이며 선구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문학, 문화 그리고 전문적 유산 전반에 대한 보존 및 전파와 관련하여 고대의 인도 교육계가 가졌던 깊은 관심에 감동 받았다”(Altekar 1944: 17). 고대의 인도 교육제도에서 강조되었던 선생님과 어른에 대한 존경, 부모님에 대한 복종과 과거의 영웅에 대한 감사를 통해 과거의 바람직한 전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해나갔다.

자신감의 성장과 발달은 고대의 인도 교육의 또 다른 목표였다. 매일매일 음식을 구걸해서 근근이 먹고 살면서도 가난 때문에 우울해 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인 학생이라 여겼다.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극히 적었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가 돌보아 주었다. 고대의 인도 교육은 자기 수양, 검소함과 자제력을 가르쳤는데 이는

학생의 성격을 개선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여겼다. 또한 올바른 성격의 발달을 위해 필요한 식별력과 판단력을 키워주었다.

시민과 사회의 의무를 교육함에 있어 또 다른 목표는 학생이 양심적으로 그리고 능률적으로 한 가정의 아들이자 남편,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었다. 학생은 자선 및 호의의 덕목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전문성을 젊은 세대에 적절히 교육함으로써 행복과 사회적 화합을 증진하고 효율성을 촉진하는 것이 교육의 또 다른 목표였다. “교육은 단지 문화나 정신적, 지적 기능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간접적이면서도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와 같은 기능을 촉진한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 자신이 따라야 하는 소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개개인을 교육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다양한 부문의 지식, 예술과 직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젊은 세대에게 시민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의 일반적인 효율성과 행복을 향상시키는데 교육제도는 크게 기여했다” (Altekar 1944: 16).

고대의 교육 제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공개 토론의 전통이었다. 젊은이는 종교와 철학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과 이론에 대해서도 물음을 던지도록 교육 받았다. 이 토론은 지적 싸움과 같았으며 학자의 삶에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토론 모임에서뿐만 아니라 궁중이나 슈라다(조례제), 결혼식과 같은 장소에서도 논쟁을 펼쳤고 학자의 능력에 따라 토론자는 떠날 때 선물을 받았다 (Sinha, 1993: 1-10, 68, 70).

고대의 인도 교육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구루쿨라(Gurukula) 제도이다. 이 제도는 학생이 집을 떠나 자신의 스승의 집이나 기술학교에서 머물도록 했다. 자타카스(Jātakas)에서 말하길 학생은 대체로 자신을 충분히 돌볼 수 있는 나이인 14세 또는 15세에 집을 떠났다. “구루쿨라 제도에서 가장 크게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유대와 모방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었다. 자연스럽게 쉽게 순응하는 시기인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고결한 품성을 지닌 교사와 직접적이고 개인적으로 지속적인 접촉하게 됨으로써 학생은 학자의 정신을 가질 수 있는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높은 학문을 닦고 자신의 스승으로부터 칭찬을 얻은 노학자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면 갖 학문을 시작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을 본보기로 삼아 모방하도록 유도한다” (Altekar 1944: 16). 집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은 학교의 규율과 교육의 장점을 누리지 못한다고 인식되어서 구루쿨라에서 교육 받은 이들에 비해 열등하게 여겨졌다.

구루쿨라의 상당수는 주거지에 위치했고 대부분의 교사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날란다와 같은 대학교는 독립적인 교육기관으로 도심과 숲 속의 생활을 둘 다 지닌 장점을 가졌다. 이와 같은 대학교는 수없이 모여든 학생들에게 숙박과 기숙 시설을 제공했다. 도시생활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타카스(예를 들어 티티라 자타카)에서는 전통에 따라 바라나시와 같은 도시를 떠나서 히말라야 숲으로 들어가는 교사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불교는 브라만교와 자이나교와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다음을 포함하여 크게 세 번의 변화를 겪었다. (가) 가르침과 토론의 수단으로 산스크리트어를 채택하고, (나) 성공적인 선교사는 박식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에 의학, 천문학과 수학 등 세속적인 과목을 포함하여 교육 과정을 급속히 확대했으며, (다) 가르침에 있어서 변증법, 논리와 인식론과 더불어 학구적인 문헌의 제작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Guruge 1990: 29). 사원 교육제도에 대한 이러한 형태의 확대는 날란다와 발라비 대학교들과 같은

주요 기관을 만들었고 인도 전역과 해외에서 온 큰 포부를 가진 학자들은 이곳에서 가르침을 받고 연구를 할 수 있었다. 세 명의 중국 순례자인 법현, 현장과 의정은 서력기원 5세기부터 7세기까지 이러한 교육기관을 방문했으며 자신들이 왕족과 평신도가 낸 보조금과 기부금으로 유지되는 교육 및 문예 활동의 중심에 있었다고 말했다.

현장은 자신이 학생으로 있었던 날란다 대학에 대해서 학과 공부, 입학 및 시험절차, 완벽한 학사정보 시스템을 비롯하여 도서관과 강당 등 필수 시설을 제대로 갖춘 곳이었다고 언급했다. 1500명의 교사가 철학, 문법, 천문학과 의학 등 100개가 넘는 과목을 공부하는 만 명의 학생을 가르쳤다 (Dutt 1962: 329). 또 다른 중국의 스님인 의정이 서력기원 673-695년 이 곳을 방문했을 때는 8개의 전문대학에 300개의 방과 3500명의 학생이 있었다고 한다. 하르샤왕 때 (서력기원 606-648), 대학에서 보조금으로 받은 200개의 마을을 소유하고 있었다 (Dutt 1962: 329). 날란다 대학을 졸업했다고 사칭하는 이가 있을 만큼 이곳의 명성은 높았다. 날란다 대학은 학생 기숙사를 갖춘 세계 최초의 주거 시설을 가진 대학이었다. 황금기에는 티베트, 중국,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터키, 그리스와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여러 곳으로부터 학자와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아카리야(acāriya - 현대의 박사학위와 동일함)는 뛰어난 학문적 성과를 달성하고 문법, 철학, 의학, 논리, 형이상학과 미술 등 다섯 개의 부문을 통달한 이에게 수여되었다 (Dutt 1962: 323). “날란다 대학교는 오랜 기간 동안 주로 불교 대학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했지만 불교와 비불교신자, 동자승과 노승, 젊은이와 노인, 종교인과 비종교인 그리고 인도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다양한 배경의 수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교육했다” (Phuoc 2012: 59). 날란다 대학교의 도서관은 큰 단지로 학생과 교사는 세심하게 문서의 사본을 제작하였다. 사서는 문서를 관리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학문과 관련해서 독자를 지도해주는 역할도 담당했다 (Patel and Kumar 2001: 4). 날란다 대학교의 도서관은 위대한 산스크리트어 언어학자 파니니가 개발했다고 여겨지는 문서 분류제도를 토대한 목록체계를 따르고 있었다 (Patel and Kumar 2001: 4). 의정에 의하면 발라비 대학교는 날란다 대학교와 비슷한 지위를 누렸으며 종교적 과목 및 비종교적 과목 모두를 가르쳤다. 정부는 발라비 대학교의 졸업생을 중요한 요직에 임명했다 (Dutt 1962: 329). 날란다, 발라비와 비크라마시라 대학은 번역 부서를 두어서 특히 수트라로 된 여러 문서를 티베트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했다. 이들 대학은 이웃 국가에 선교사를 보내어 원고 취득이나 사본 제작에 대한 하사금을 받기도 했다. 불교신자인 왕들 뿐만 아니라 브라만 힌두교인 왕들도 이러한 교육기관을 지원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불교의 여승려원은 서력기원의 초반에 이용되지 않았다. 불교의 사원이 국제적인 명성을 지닌 기관으로 발전하고 난 이후에서야 여성도 이곳에서 가르침을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고대와 중세의 인도 사회에 미친 가장 중요한 기여는 교육기관의 설립과 문학의 향상이었다. 인도에서 조직적인 공공 교육기관의 기원에 있어 불교의 공이 크다. 이 외에도 불교는 고등 교육 기관으로서의 인기에 힘입어 멀리 떨어진 곳의 외국 학생을 유치하여 인도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한국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

어떤 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려면 그 유산은 세계유산협약의 운영지침에 제시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충족해야 한다.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 수 있는 가치를 구비한 유산이란 곧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충족하는 요건을 갖춘 유산을 말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특정 문화유산이

-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 중 어느 하나(또는 여럿)에 속하고,
- 문화유산 등재 기준의 (i)에서 (vi) 중 어느 하나(또는 여럿)에 속하고,
- 진정성이 있고,
- 완전성이 있고,
- 국내·외 유사유산과 비교하여 대표성과 차별성이 입증되고,
- 보호 및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그 유산은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 수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비하였다고 규정한다.

이 글은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 중에서 문화유산 '등재 기준'의 관점에서 어떠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1. 한국의 서원 개관

서원(書院)은 조선왕조의 치국 이념이 된 성리학(性理學)이 조선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주체세력으로 등장한 사림(士林) 계층이 16세기 후반부터 그들 활동의 근거지로 향촌(鄉村)에 건립한 고등 교육기관이다. '사림'이란 유교경서(經書)를 독서하는 선비집단을 말한다. 그들은 그들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장소에 서원을 세워 전인(全人) 교육을 하였다. '전인교육'이란 성리학에 입각한 바람직한 인성을 가진 인물을 배출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는 성리학이 지향하는 중요한 교육의 목표이다.

그들은 서원에서 장수(藏修)를 통하여 성리학을 조선특유의 사상체계로 발전시켰다. '장수'란 마음을 집중해서 학문에 힘쓰며 수양하는 것을 말한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장수 학습의 중심을 차지한 교육 유산이다. 조선시대 서원에서 장수 학습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는 제향 학습이었다. 제향 학습은 돌아가신 스승에게 정기적으로 제향을 하는 예(禮)를 통해 그분이 생전에 이룬 학덕을 본받는 학습으로 이루어졌다. 둘째는 강학 학습이었다. 강학 학습은 유학의 도통을 세운 성현들이 남긴 경서의 학습과 독서로 이루어졌다. 제향과 강학 학습에서 중요시된 것은 이러한 학습을 통해 깨우친 바를 체득하여 마음을 닦고 몸소 실천에 옮기는 것이었다. 셋째는 유식 학습이었다. '유식'이란 학문하는 긴장에서 벗어나 편안히 자연을 흠상하고 즐기면서도 자연 변화의 이치를 궁구하고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기르는 것을 뜻한다.

서원은 제향, 강학, 유식을 위한 공간을 근간으로 해서 구성되었다. 다시 말해, 서원의 공간은 선현을 배향하고 제사를 지내는 제향공간, 유생들이 경서를 강독하는 강학공간, 유식(遊息)을 하는 유식공간, 제향과 강학 기능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지원공간과 시설물, 그리고 서원의 주변공간으로 구분된다.

서원 공간은 크게 삼단으로 나뉘어 제일 뒤에 제향공간, 그 앞에 강학공간, 제일 앞에 유식공간을 두었다. 서원에서 유식공간을 서원 영역에서 가장 앞에 배치한 것은 유생들이 항상 자연과 쉽게 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유식공간과 강학공간을 제향공간의 앞부분에 배치한 것은 유생들의 드나들이 많아 항상 활달하고 생동하는 공간으로 느껴지도록 하기 위함이며, 제향공간을 가장 뒷부분에 둔 것은 유생들의 출입을 제한하여 그곳이 항상 존엄하고 정밀한 느낌이 들게 하기 위함이다. 서원은 바람직한 제향, 강학, 그리고 유식을 위해 한적하고 산수 경관이 좋은 곳에 위치하였다. 이러한 장소는 경관이 좋은 자연으로 둘러싸인 경사지이거나 앞이 트인 평지이다. 산수 경관이 수려한 곳에 서원이 자리 잡은 것은 단지 성리학자들이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질서 체계에 의한 자연의 운행을 인간 행위의 모범으로 삼아, 자연의 논리와 인간의 논리를 하나로 일치 시키고자 했던 천인합일사상의 반영이었다. 강학과 제향이 그랬듯이, 서원의 입지와 경관 역시 성리학이 지향하는 인성(人性)의 형성과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서원에 확보된 산수경관은 곧 성리학적 교육경관, 즉 서원경관이라고 할 수 있다. 서원이 세워진 곳의 산수 자체가 이미 성리학적 인성의 형성 및 교육의 효과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슬람 종교 교육기관으로서의 마드라사는 무엇보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산유국들의 엄청난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또 다른 시련을 맞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보수적인 아랍국가들이 믿고 있는 과격 이슬람 이념인 와하비즘을 수출하거나 지원함으로써 마드라사에는 그러한 이념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몰려 들고 있는 것이다. 최근 탈레반을 비롯한 많은 테러전사들이 이러한 마드라사에서 과격한 이슬람 교육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서, 오늘날 마드라사는 반미, 반서구 이념 교육장, 테러리스트 양성소로 서구에서 잘못 알려지고 있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또한 지역공동체의 중심시설로서 주요 의제에 대한 여론을 결집하고, 출판과 강회(講會)를 통하여 향촌사회를 교화하는 기능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서원은 교육·정치·문화적 측면까지 포괄하는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이들 서원은 서원 교육과 운영의 원칙을 정한 원규(院規)와 전문조직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되었다. 원규는 독서·강학에 관한 원칙과 서원 내에서 지켜야 할 행동 수칙, 그리고 서원 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시대 서원은 1543년 풍기군수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이 경상도 순흥에 세운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효시로 삼는다. 백운동서원은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의 노력으로 1550년 조정(朝廷)으로부터 ‘소수서원(紹修書院)’으로 사액을 받음으로서 한국 최초의 사액 서원이 되었다. 이후 서원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건립되어 조선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들 서원 중에서 경북 영주의 소수서원, 경남 함양의 남계서원, 경북 경주의 옥산서원, 경북 안동의 도산서원, 전남 장성의 필암서원, 대구 달성의 도동서원, 경북 안동의 병산서원, 전북 정읍의 무성서원, 충남 논산의 돈암서원은 흥선대원군이 1871년 전국의 서원과 사우 중에서 47개소(서원 27, 사우 20)만 남기고 훼철할 때 피해를 보지 않은 서원에 속한다.

소수서원은 고려 후기의 유학자 안향(安珦)을 제향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소수서원은 16세기 중엽 이래 향사를 계속해 와서 한국 서원의 제향 의식과 서원에서 일상으로 행하여지는 의례를 대표적으로 전해주고 있다.

1552년 건립된 남계서원은 유학자 정여창(鄭汝昌)을 제향하는 서원으로 출발했다. 남계서원은 서원공간 구성의 기본틀을 최초로 제시한 서원이면서, 서원이 소재하는 일대의 향촌민에 대한 교화를 담당하였다. 특히 조선후기에 들어와 흩어진 민심 수습을 위한 유교 윤리의 보급에 주력함으로써 서원의 교화적 특징을 대표한다.

1573년 건립된 옥산서원은 도학자 이언적(李彦迪)을 제향하는 서원이다. 이 지역 유림의 근거지였으며 특히 이언적이 생전에 은거한 터전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부근에 문중마을이 크게 형성되었다.

1574년 건립된 도산서원은 조선의 주자학을 완성한 이황을 제향하는 서원으로 주리설(主理說)을 기본으로 하는 영남 성리학의 본산이며, 현재도 사회인 연수(研修)를 통해 유교가치를 보급하여 조선서원의 교육적 특징을 대표하고 있다.

1590년 건립된 필암서원은 도학자 김인후(金麟厚)를 제향하며 호남학맥의 본산으로서 으뜸가는 서원이다. 그런 만큼 호남사림 여론 형성의 진원지로서 정치적으로 큰 비중을 가진 서원이다.

1605년 건립된 도동서원은 유학자 김굉필(金宏弼)을 제향하는 서원으로 특히 자연과 조화를 이룬 서원의 위치와 경관에서 한국서원의 특징을 대표한다.

1613년 건립된 병산서원은 유학자이며 정치가인 류성룡(柳成龍)을 제향하는 서원으로 자연과 조화된 한국서원 건축공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1615년 건립된 무성서원은 일반 서원과 달리 지방관에 의해 흥학(興學)과 교화를 목적으로 설치·운영되었다. 그런 이유로 무성서원은 마을 속에 위치하였다. 향약을 시행하며 한말 의병의 근거지가 되기도 하였다.

1634년 건립된 돈암서원은 조선 성리학의 예학(禮學)을 확립한 김장생(金長生)을 제향하는 서원이다. 돈암서원은 조선시대 예학 논의의 산실이었으며 소장하는 문집과 예서(禮書) 책판(冊板)의 간행을 통해 호서 지역 사림에게 지식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서원이 지방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한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이들 9개서원들은 모두 장수 학습프로그램을 충족시키는 유형유산과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면서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 9개 서원의 특성을 모두 합하면 조선시대 한국서원의 정체성과 유산적 가치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요약하면 세계유산목록등재신청을 하는 9개 서원들은 독특한 학습방법인 제향·강학·유식을 통하여 전인(全人)의 인성을 구비한 인물을 양성하는 대표적인 기관이었다. 이러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9개 서원들은 입지조건과 주변경관 측면에서 서원이 건립될 요건을 충족하는 곳에 세워졌다. 9개 서원들은 또한 건축배치와 공간구성에서도 자연과 합일을 이루도록 디자인된 유산이다. 9개 서원들이 간직하고 있는 세계적 빼어남은 현대사회는 물론이고 다음 세대의 인류 모두에게도 물려줄 중요한 자산이 된다.

2. 한국의 서원이 구비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

1)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제시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하는 한국의 9개 서원들은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비한다.

- 1). ‘한국의 서원’은 동아시아의 성리학이 교류한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유산이다. 중국 송나라 때 주희가 집대성한 성리학은 고려말 한국에 수입되어 조선 왕조의 치국 이념이 되었다. 조선 건국 후, 성리학이 조선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한 세력은 성리학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성현의 도리를 실천하는 사림(士林) 계층이었다. 그들은 16세기 중엽부터 그들 활동의 근거지인 향촌(鄉村)에 서원(書院)을 건립하기 시작한다. ‘한국의 서원’은 동아시아의 성리학이 교류한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유산이다.
- 2).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한 9개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의 철학과 정신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대표적인 유산이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성리학이 조선사회에 정착하고, 꽃을 피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서원을 건립한 주체 세력인 조선시대의 사림들은 서원에서 성리학을 학습하며 정착시켰을 뿐 아니라, 중국, 일본과 다른 ‘조선의성리학’을 발전시켰다. 그들은 서원에서 장수(藏修)를 통하여 성리학을 한국 특유의 사상체계로 발전시켰다. 장수는 제향, 강학, 유식 학습을 통해 이루어졌다. ‘한국의 서원’은 이러한 성리학의 철학과 정신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대표적인 유산이다.
- 3).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과 관련된 정신과 활동이 지금도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특출한 사례를 보여주는 유산이다. ‘한국의 서원’에서는 지금도 성리학과 관련된 교육과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성리학에서 중시하는 인성교육이 서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유학자들의 학술적,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한다. 서원은 유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예(禮)가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의례화 된 곳이다. ‘한국의 서원’은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인물·제향(祭享)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 4).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한 9개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이 반영되어 형성된 건축과 경관이 양상불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이다. 성리학자들은 읍치에서 떨어져 있으면서 산수가 좋은 곳이 그들이 추구하는 천인합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장소에 건축과 경관이 양상불을 이루게 하는 독특한 건물배치와 공간구성을 만들어냈다. ‘한국의 서원’은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이 상호 관입하는 건축, 더 나아가 건축과 자연이 어우러져 양상불을 이루는 건축 유형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건축전형을 만들어낸 바탕에는 천인합일을 최고의 이상으로 삼은 성리학자들의 세계관이 담겨있다.
- 5).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성리학에 기반을 둔 사상, 의례, 신앙, 문화 전통과 물리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유교 사상과 학술 활동, 예(禮)의 실천, 신앙, 살아있는 전통과 물리적으로 그리고 가시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서원은 양반 사림의 전인(全人) 교육을 위한

공간, 선현을 위한 제향을 하며 의례를 행한 장소, 전인 교육을 통해 양성된 사림의 활동 근거지, 지방 문화센터로서의 구심점, 공론(公論) 형성의 중심역할 등을 위한 공간과 시설이 물리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다. ‘한국의 서원’은 이러한 내용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 6).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서원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면서 지금도 잘 보존되어 서원의 완전성을 구비하고 있다.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하는 9개 ‘한국의 서원’은 서원에서 이루어지는 장수학습에 필수 요건인 제향공간, 강학공간, 유식공간, 그리고 이들 공간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지원공간을 지금까지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학과 유식을 위한 가장 적합한 환경 조건인 수려한 산수를 지금도 온전하고 보존하고 있다. 수려한 산수는 성리학자들이 자연을 관조(觀照)함으로써 천일합일 하는 경지에 이르는 가장 바람직한 주변 경관이다.
- 7). ‘한국의 서원’은 공간구성, 건물배치, 경관, 디자인, 전망 등의 관점에서 진정성을 잘 구비하고 있다. 한국의 서원’은 서원을 구성하는 유식공간, 강학공간, 제향공간을 지금도 조선시대의 모습 그대로 잘 보존하고 있다. 서원 건립을 주도한 사람들은 서원 주위의 산수 경관과 건축이 합일할 수 있도록 자연 지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제일 뒤흘에는 제향공간을, 그 앞에는 강학공간을, 그리고 가장 앞에는 유식공간을 배치하였다. 이러한 공간구성과 건물 배치는 서원 주위의 경관과 건축 공간이 하나가 되게 한다. 이들 서원이 진정성을 잘 구비하고 있는 것은 1871년 홍선대원군이 훼손하지 않은 전국의 47개 서원에 속하기 때문이다.
- 8). ‘한국의 서원’은 동아시아의 성리학의 정신과 활동을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에 속하는 유산이다. ‘한국의 서원’이 지닌 고도의 완전성과 진정성은 유산이 가진 탁월한 가치를 강화한다. 서원은 유림들이 건립한 교육시설임과 동시에 그들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위한 거점이었다. ‘한국의 서원’은 홍선대원군에 의한 서원 훼손에서 제외되었을뿐 아니라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을 거치며 훼손되지 않았으며, 사적으로 지정되어 개발 압력을 받지 않으면서 완전성과 진정성을 유지하여 왔다. 이러한 사항은 ‘한국의 서원’이 지닌 성리학의 정신과 활동을 보여주는 구심적인 역할 그리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완전성과 진정성은 ‘한국의 서원’의 탁월한 가치를 강화하는데 크게 작용하였다.

2) 등재기준의 충족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하는 9개 ‘한국의 서원’은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에서 제시하는 등재기준 (ii), (iii), (iv), (vi)에 적합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갖추고 있다.

1) 등재기준 (ii) 는 "인류의 가치가 교류된 것임을 보여주는 건축이나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계획이나 조경설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났거나 세계의 특정 문화권에서 일어난 것 이어야 한다." 이다. 성리학은 중국의 주희에 의해서 집대성된 사상이다. 고려 말에 한국에 전래된 성리학은 고려가 망하고 새로 건국된 조선의 치국 이념이 되었다.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성리학이 조선사회에 정착해 가면서 성리학의 이(理)와 기(氣)의 관계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따라 학파를 형성하게 된다. 그들은 성리학을 해석하고 주장하는 내용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몇 개의 학파를 형성하였다. 성리학은 또한 조선사회에

정착한 후 17세기를 거치며, 중국과 달리 이학(理學)과 예학(禮學) 중심으로 전개 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각 서원에서 이루어진 학습 내용을 모태로 한다. 성리학이 서원의 태동을 가져왔고, 그 서원은 한국 특유의 성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의 성리학을 정립하는 산실이 되었던 것이다. 요약하면, 서원은 조선의 성리학이 형성된 산실이였다. 조선 시대의 사림은 서원을 학문의 근거지로 하고 있었으므로, 조선의 유학 사상사는 곧 서원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송나라의 주희는 백록동서원을 부흥시키면서 '백록동서원학규'를 만들어 서원 교육의 방향을 수립하고, 유생들에게 '궁리(窮理)'의 학습과 '독행(篤行)'의 실천 원칙을 제시하였다 '궁리'란 인성(人性)과 사물의 이치를 깨우치는 학습의 방식을 의미하고, '독행'은 학습한 바를 실천에 옮기는 행동방식을 말한다.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주희의 궁리 독행의 원칙에 근거하여 주희의 성리학이 단순히 학습의 대상으로 머물지 않고 실천의 학문으로서 사회 전반의 기본이념이 되게하였다. 서원에서 성리학의 궁리 독행의 원칙에 의하여 교육 받은 사람이 중앙정계의 주도세력이 되었던 시대는 그 앞 시기와 구별되는 특징이있다.

서원은 사람이 장수하는 기능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발길이 드물고 조용한 산간(山間)이나 물가에 위치하였다. 이러한 장소는 성리학자들이 서원에서 주변 자연을 내다 보며 유식할 수 있는 경관조건을 잘 구비하고 있다. 또한 서원을 구성하는 건물들은 장대하거나 화려하지 않다. 절제되고 단아한 모습으로 조영되어 성리학적 세계관을 건축배치와 공간의 차원으로 응축하여 승화시키고 있다. 서원을 경영한 사람들은 당대의 지배계층으로서 재력과 기술을 동원하여 최고의 건축을 조영할 수도 있었지만 서원의 규모는 크지 않고 건물들은 담담하고 소박하다. 이러한 건축 특성은 성리학이 중요시하는 절제되고 검박한 미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서원은 성리학에 바탕을 둔 사람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시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각종 의식과 예절 즉 의례(儀禮)를 거행하기 위한 장치로서 소위 예제건축(禮制建築)의 기능을 하였다. 예제건축은 유교가 추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건축으로서 건물 자체를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례의 거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과 성리학적 이념이 상징적으로 잘 드러나도록 만들어진 건축이다.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하는 9개 서원들은 성리학이 중시하는 이념과 사상을 실천하고 학습하는 곳을 대표한다. 이들 9개 서원의 건물 배치와 공간 구성에는 유교 경서나 성리학이 지향하는 이념이 반영되어 있다. 이와 같이 9개 서원들의 각 서원 영역과 주변경관은 성리학적 분위기가 감도는 곳으로 조성되었다.

요약하면 서원건축은 조선시대 동아시아 사회를 지배한 성리학적 가치관 세계관이 교류된 사실을 보여주는 유산이다.

2) 등재기준 (iii)은 "문화적 전통, 또는 현존하거나 소멸된 문명과 관계되면서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를 지니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이다.

중국 송나라의 주희에 의해 집대성된 성리학은 유교 경전의 내용을 성명(性命)과 이기(理氣)의 관계를 통하여 우주의 본체와 인성을 새롭게 해석한 사상 체계이다. 조선시대의 사림 세력은 16세기를 거치며 이기론(理氣論) 중심으로 성리학을 전개시켜 조선사회에 정착시키는 한편 그들의 전인(全人) 교육을 담당하는 서

원을 건립한다. 그들은 서원에 사우를 세워 돌아가신 스승에게 제향을 올리며 그 분의 학덕을 본받아 올바르게 살아갈 방향을 다짐하고, 강당에서 행하는 경서의 강독을 통하여 지식을 몸으로 실천할 방법을 터득하였으며, 누(樓)에서는 서원 앞으로 전개되는 산수경관을 감상하며 유식(遊息)을 하는 전인교육을 하였다.

조선시대 서원의 성립은 조선 유교사회에 나타난 ‘사림의 시대’의 역사적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들어온 성리학이 조선의 성리학으로 정립되는데 버금갈 정도로, 조선시대의 서원은 400여 년에 이르는 역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보급되면서 그 기능과 성격을 조선사회에 정착시켜 중국과 다른 한국의 서원을 형성하였다. 조선시대의 서원 문화 전통은 크게 다섯 가지의 특징을 갖는다.

첫째는 조선시대의 서원은 상급 신분인 양반 계층에 속하는 사림의 전인(全人) 교육을 맡은 학교였다는 점이다. 한국의 서원은 상급 신분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교육의 내용도 수준이 높았다. 그러므로 한국의 서원은 유생의 장수(藏修)가 중시되는 전통을 가졌다.

둘째는 조선시대의 서원은 전인교육을 통해 양성된 사림의 활동 근거지였다는 점이다. 사림은 기본적으로 유학을 배경으로 하는 문사(文士)이기 때문에 학문이나 문예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서원은 자연스럽게 그 터전이 되었다. 성리학의 해석에 의한 학파가 형성되면서 스승을 모시는 서원이 그런 활동의 중심이 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서원은 사림들 활동의 근거지를 제공하였다.

셋째는 조선시대의 서원은 문중(門中) 내지 동성(同姓) 집단 내부의 결속을 강화시켜주는 기반이었다는 점이다. 특히 서원의 사우에 제향된 인물의 후손들은 18세기 이후 자기 집안의 조상 중에서 학덕이 뛰어난 인물을 모시는 서원을 중심으로 친족 간의 결속을 강화하고 가문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자 하였다.

네번째 특징은 조선시대의 서원은 지방문화센터로서의 구실을 한 점이다. 서원에 소장된 유교경서 이외에 서원들은 제향인물의 문집과 같은 서적의 책판(冊板)을 수장하고 때로는 이를 간행하여 보급하였다. 이러한 도서관 내지 출판사업은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사회에 지식정보의 전달을 통해 문화활동을 벌려 나갈수 있게 하였다.

다섯번째의 특징은 조선시대의 서원은 공론(公論) 형성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소수에 의해 의사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다수가 참여한 토론을 거쳐 공론(公論)을 이끌어 내는 절차를 추구하였다. 사림의 공론은 작은 단위에서 토론을 거쳐 모아진 의견이 대표들이 모인 큰 단위로 전해져서 다시 의견을 취합하여 조정됨으로서 성립되는 절차를 거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서원은 성리학자들이 장수하는 기능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인 현안에 대해 향촌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수렴하는 기능도 하였던 것이다. 서원은 이러한 공론의 거점이었다.

이상 언급한 것을 요약하면 조선시대의 서원은 학습에서 지역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성리학이 바탕이 되어 형성된 교육 철학 및 정치 사회적 활동에 나타난 살아있는 문화전통을 보이는 특출한 증거가된다.

3). 등재기준 (iv) 은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들)을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가 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건조물,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이거나 경관이어야 한다."이다.

조선시대 사림의 활동 기반이었던 서원은 선현을 받들며 학습하는 장소이자, 유생들이 호연지기를 키우며 인격을 도야한 산실이였다. 서원은 번잡한 읍치(邑治)에서 멀리 떨어져 조용하고 산수경관이 좋은 승지(勝地)에 자리 잡았다. 서원을 건립한 주체인 사람들은 이러한 장소가 성리학이 지향하는 목표에 적합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곳에 세워진 서원은 주변의 자연 경관을 서원 안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공간이 조성되었다. 건물의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이 상호관입하는 건축, 나아가서는 건물과 자연이 상호관입하여 하나가 되는 건축 유형을 만들어낸 것이다.

천인합일을 최고의 이상으로 삼는 성리학자들의 사상은 서원이 주변 경관이 좋은 곳에 자리를 잡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성리학자들은 자연 속에 은둔하여 심신을 수양하며 천인합일을 이룰 수 있는 곳을 찾아 서원을 조영(造營)하였던 것이다. 이는 건축과 자연이 앙상블을 이루며 하나로 어우러지는 독특한 건축 유형에 속한다. 그 바탕에는 천인합일을 최고의 이상으로 삼는 성리학자들의 세계관이 있었다. 이러한 경관을 갖춘 곳은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소수서원과 옥산서원은 서원 앞으로 흐르는 개울을 보는 계경(溪景) 입지의 서원이고, 병산서원은 서원 앞의 병산이 서원과 하나가 되게 한 산경(山景) 입지의 서원이고, 도산서원과 도동서원은 앞으로 흐르는 낙동강으로 경관이 펼쳐지는 강경(江景) 입지의 서원이고, 남계서원, 필암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은 전면에 펼쳐지는 들판을 서원 전경으로 끌어드린 야경(野景) 입지의 서원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 서원의 건물들은 주변 산수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배치되었다.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하는 9개 서원들 중에서, 도산서원, 필암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은 주요 건물들이 남향을 하도록 배치되었으나, 주변의 빼어난 산수 경관을 바라보기 위하여 굳이 남향을 취하지 않은 서원들도 있다. 소수서원의 강학당은 앞으로 흐르는 죽계를 바라보며 동향을 하였다. 남계서원은 서향을 하며 앞으로 펼쳐진 들판을 대하고 있고, 옥산서원은 서원 앞으로 흐르는 계류를 건너 자옥산을 바라보며 서쪽을 바라보도록 배치되어 있다. 도동서원은 서원 앞으로 흐르는 낙동강을 바라보며 동북향을 하여 자리를 잡았고, 돈암서원은 동향을 하며 서원 앞으로 펼쳐진 넓은 들판을 내다보게 배치되어 서원이 자연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서원의 입지 및 공간구성, 건물 배치는 주변의 자연 경관과 강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서원이 그 터에 앉혀짐으로서 주변 자연 경관은 건축과 하나의 전체를 이루며 교육을 위한 장소로서의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런 측면에서 조선시대 한국의 서원은 주변 자연 경관과 건축을 함께 하나의 덩어리로 보아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건축과 주변 경관이 앙상블을 이루는 특별한 유형에 속한다.

4). 등재기준 (vi)은 "탁월한 보편적 의의를 지닌 사건 또는 살아 있는 전통, 사상, 또는 신앙, 예술·문학작품과 직접적으로 또는 가시적으로 연계된 유산이어야 한다"이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유교경전을 포함한 다수의 도서를 소장하였다. 서원에는 강학의 도구로써 각종 교과용 도서나 사전류, 주요 저술이나 각 시기의 대표적 출판물들이 보급·소장되었다. 책의 보급과 열람이 어려웠던 시대에 서원의 이러한 장서(藏書)의 기능은 지역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여러 서원에서는 경쟁적으로 서적을 출판하기도 하였는데, 서원이 서적의 출판과 배포라는 기능도 겸하였던 것이다. 서원은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으로 그 정신적인 가치와 교육적 기능 못지않게 많은 서책과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지식 창고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현재에도 각 서원에는 목판과 서적이 잘 보관되어 있다. 서적을 편찬하고 인쇄하거나 소장하고 유통한다는 것은 그것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물적 요소를 갖추고 있으면서 관련된 기록

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서원의 간행 서적의 종류와 분량은 각 서원에 소장되어 있는 책판이나, 현존하고 있는 서적의 간기(刊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원에 남아 있는 장서의 판종은 고활자본, 목판본, 필자본, 석판본 등으로 대별되며 한국의 전통인쇄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또한 낱장의 형태로 남은 고문서 중에서도 그 서원의 내력과 더불어 당시 서원의 장서 상황을 살필 수 있는 기록들이 남아 있다. 서원에서 판각된 책판은 그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책판은 바로 이들 서원에서 출판된 서책들의 원본에 해당되는 지식정보의 원형인 것이다.

이렇게 서원이 수행했던 출판 및 도서관 기능은 왕실 및 문중의 장서와 함께 조선시대 서적 문화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서원의 사우에는 선현(先賢), 즉 학문적으로 뛰어난 인물의 위판이 모셔져 있다. 서원의 향사는 돌아가신 스승이나 위대한 인물을 추모하는 의식이다. 이 의식을 통해 제자나 후손은 선현의 정신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한다. 향사는 유생들에게 있어서 경전 학습과 별개인 종교적 행사가 아니라 학습의 연속인 것이다. 향사 의례는 선현과 유생은 하나가 되는 기회이며, 향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는 합일의 행사이다. 서원에서 제향이 이어지는 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와 서원의 전통 또한 함께 계승될 것이다. 조선시대 사림은 향촌에 기반을 둔 사회세력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거주하는 향촌 문제는 그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였다. 사림은 서원에 모여 향촌 사회의 현안을 논의하였고 때로는 통문을 내어서 여론을 수렴하고 조율하였다.

사람들은 향약(鄉約) 조직과 사창제(社倉制) 운영, 향안(鄉案)·향규(鄉規) 등의 기구를 통해 향촌사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들은 교화를 앞세워 촌민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 향약과 향회(鄉會)·사창(社倉) 등은 이를 실현하는 도구였다. 서원은 바로 이런 활동을 위한 향촌사회의 중심시설이었다. 사림이 주도하던 16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초 조선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흔히 사림이 중심이 되어 운용되는 향촌공동체로 표현되고 있다. 사림은 지배신분으로서의 지위가 확립 되었기 때문에 그들 상호간에 결속을 강화하면서 향약 및 향촌민 구휼기구인 사창제를 활용해 향촌사회를 이끌었고 이를 통해 강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게 된다.

서원은 성리학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구로서의 기능 외에도 사림집단의 정치·사회적인 활동의 장이었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향촌에서 사림들간의 교제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였다. 각 서원에는 심원록(尋院錄)이 비치되어 있어서 서원을 내방한 사람이 자신의 본관 성명과 간단한 인적사항을 기록해 두었다. 조선시대의 서원이 중국의 그것과 구별되는 특징 중의 하나는 정치적 역할에 있다. 향촌의 사림은 중앙정계에서 봉당이 출현한 이래 그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정치 현안에 대해 각 당파는 자파(自派)에 유리한 여론 조성을 필요로 했으며 향촌 사림은 수천명 때로는 만여명이 동원된 상소를 통해 여기에 응하였다. 서원은 바로 이런 향촌 여론을 수렴하고 상소활동을 벌이는 거점이었다. 요약하면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하는 조선시대의 서원은 유교사상과 학술활동 예(禮)의 실천 지역사회에서의 성리학자들의 정치 사회적 활동과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시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증거들은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유산이자 선비정신을 보여주는 살아 있는 전통으로서, 한국의 서원에는 이러한 유교문화가 지향하는 본질이 남아있다.

3. 맺음말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의 활동 기반이었던 서원은 제향을 통해 선현을 받드는 전통을 계승하는 장소이자, 유생들이 호연지기를 키우며 인격을 도야한 산실이였다. 서원은 원규(院規)를 따르는 원칙과 교육의 자율이 조화를 이룬 곳이었으며, 도서관과 출판 기능을 갖춘 교육기관이었다. 서원은 또한 향촌 사회에 유교 윤리를 보급하고 향촌 질서를 재편성하며 지역공동체를 이끄는 중심 역할을 하였다.

서원은 조선시대 관립 교육기관이었던 향교와 달리 번잡한 읍치(邑治)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하고 산수가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다. 서원을 세운 주체들은 골짜기가 있어 물이 흐르고, 산이 있어 풍월을 가까이 할수 있는 경관을 갖춘 곳에 서원을 건립하여 학문을 연마하고 후학을 양성했다. 조선시대 서원은 여러 기능을 수행했지만, 궁극적으로 성리학이 지향하는 인성을 갖춘 인물을 양성하는 전인교육을 하는 하나의 목적으로 귀결된다. 본받을 만한 스승을 기억하고 그의 학덕을 되새기며 추모하는 일(제향),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고 경서를 읽고 토론하면서 제자를 양성하는 일(강학), 서원 앞으로 전개되는 산수를 보며 천인합일의 경지를 터득하는 일(유식)은 각각 별개의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 서원의 입지 및 경관 조건도 서원에서 성리학 적 인간 형성과 교육이 가능토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어, 산수가 수려한 곳에 서원을 앉힌 것은 단지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기 위한 일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다. 자연의 운행을 인간 행위의 모범으로 삼아, 자연의 논리와 인간의 논리를 하나로 일치시키고자 했던 것은 천인합일 사상의 반영이었다. 강학과 제향이 그랬듯이, 서원의 입지 및 경관도 성리학이 지향하는 인간 형성과 교육을 돕는 역할을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서원에 확보된 산수경관은 곧 성리학적 교육경관, 즉 서원경관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서원이 세워진 땅의 산수 자체가 이미 성리학적 인간 형성 및 교육의 효과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서원은 서원이 세워진 그 땅의 산수경관을 최대한 건축 안으로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서원은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이 상호관입하는 건축, 여기서 더 나아가 건물과 자연이 상호관입하여 하나가 되는 건축 유형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독특한 건축을 탄생시킨 바탕에는 격물치지를 학문의 방법론으로 삼고, 천인합일을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이상으로 삼았던 성리학자들의 세계관이 있었다.

이렇게 세워진 서원들 중에서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9개 서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의 운영지침이 제시하는 세계유산 등재 기준의 (ii), (iii), (iv), (vi)을 충족시키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비하고 있다.

1장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1.a 유학교육시설의 세계유산 가치

세계유산과 교육문화유산	이혜은
교육기관의 세계유산적 가치	베네딕트 셀프슬라 (Bénédicte Selfslagh)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서원의 가치와 활용 원칙	이상해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의 의미와 과제	이상해
타문화권에서 바라본 세계유산 한국 서원의 가치	예카테리나 샤프레이 (Ekaterina Shafraiy)
한국 서원의 지속가능한 발전	이배용
세계유산 등재기준으로 본 한국의 서원	정순우
연속 세계유산의 보전 상태 관리	리처드 맥카이 (Richard Mackay)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의 성과와 과제	박성진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등재 이후의 과제 총평	이상해

1.b 완전성과 진정성 서원의 기능

1.b.1 제향

한국서원 유·무형유산의 특징	이해준
서원 제례 조사연구 개황: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송민선
한국서원의 제향의례	정승모
서원제향(書院祭享)의 현대적(現代的) 계승(繼承)과 과제(課題)	이동구

1.b.2 강학

한국의 전통시대 교육공간의 구성 원리	정순우
승지(勝地)에 있어서의 군거이업(群居肄業) -이퇴계가 창설한 서원의 장소	니시가키 야스히코 (Nishigaki Yasuhiko)
서원 기록자료 정리의 현황과 과제	이수환
서원의 기문 및 금석·석각 자료의 정리 현황과 과제	김덕현
서원자료의 보존 관리, 활용방향	옥영정
서원 강학 관련 자료의 유형과 특징	김자운
19세기 서원 강학활동 사례연구: 『호계강록』을 중심으로	최광만

서원 현판류(기문) 자료의 기록문화적 가치	이해준
서원 현판류(제영) 자료의 문학사적 가치	권진호
9개 서원 현판자료의 정리 현황과 과제	박석홍 외 8명
서원 교육	강기욱
도산서원의 교육과 활용사례	손상락
평생학습사회에서 서원의 교육프로그램 주제	김덕현
한국의 전통적 교육공간, 서원의 인문적 가치	이기동
서원의 교육환경	김자운
서원의 인성교육	한재훈

1.b.3 교류와 유식

한국의 서원과 주변경관	이상해
조선시대 지방정치와 문화의 핵심 기지로서의 서원	하민성
서원 당호 현판의 교학적 의미	김덕현

1.c 비교연구

동아시아의 서원: 빛나는 교육 전통	토마스 리 (Thomas Lee)
근세 이전 그리스도교의 교육과 교육시설의 역사와 가치	오윤교
이슬람 문화권의 메데레스(Madrese) 교육과 유산으로서의 가치	일크루 콜레이 (Ilknur Kolay)
배움의 고향, 시즈타니학교(閑谷學校)	토쿠미츠 야스히로 (Tokumitsu Yasuhiro)
조선시대 한국 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	이상해
전통교육기관의 문화유산적 가치 : 콜로기움과 서원을 중심으로	김광억
중세유럽의 교육유산 : 수도원학교에서 대학교까지	토마스 쿠만스 (Thomas Coomans)
이슬람 전통 교육기관 마드라사의 탄생과 역할	이희수
일본의 근세 교육과 문화유산	츠지모토 마사후미 (Tsuji Motu Masahumi)
베트남 유교의 보전 및 진흥	팜 티 칸 응안 (Pham Khanh Ngan)
불교를 중심으로 한 인도문화권의 교육유산	K.사라오 (K.T.S. Sarao)
한국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	이상해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학술연구 자료집 I

발	행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배용 이사장	
진	행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사무국 (사)이코모스한국위원회	
후	원	문화재청,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달성군, 논산시, 정읍시, 장성군, 영주시, 안동시, 경주시, 함양군	
디	자	인	그래픽코리아
발	행	일	2021.12.
주	소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02861)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83 논현빌딩 802호	
전 화 및 팩 스		02-3673-5443 / 02-3673-5444	
홈 페 이 지		k-seowon.or.kr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학술연구 자료집 I